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한우의 기원과 역사

- II -

2008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 목 차 -

제Ⅱ편 「朝鮮王祖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5
------------------------------------	---

### [자료]

16. 光海君日記 .....	7
17. 仁祖實錄 .....	19
18. 孝宗實錄 .....	75
19. 顯宗實錄 .....	76
20. 顯宗改修實錄 .....	100
21. 肅宗實錄 .....	130
22. 肅宗實錄補闕正誤 .....	201
23. 景宗實錄 .....	204
24. 景宗修正實錄 .....	215
25. 英祖實錄 .....	217
26. 正祖實錄 .....	311
27. 純祖實錄 .....	403
28. 憲宗實錄 .....	430
29. 哲宗實錄 .....	440
30. 高宗實錄 .....	441
31. 純宗實錄 .....	510
32. 純宗實錄附錄 .....	511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517
-----------------------------	-----

### [해제]

1. 구성과 방법 .....	519
-----------------	-----

2. 지명 .....	521
3. 속담 및 해몽 .....	522
4. 놀이 .....	524

[자료]

1. 속담과 韓牛 .....	526
2. 전통민속과 韓牛 .....	573
3. 지명과 韓牛 .....	589
4. 해몽과 韓牛 .....	749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 759

[해제]

1. 문헌별 형태서지 .....	765
2. 문헌별 주요 약재 .....	771
3. 우역(牛疫)의 대표적 처방법 .....	774
4. 우황청심환 등 환 만드는 방법 .....	775

[자료]

1.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	777
2.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 .....	785
3. 『동의보감』 .....	789
4. 『동의수세보원』 .....	863
5. 『방약합편』 .....	865
6. 『우역방』 .....	872



## 제 II 편

#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김호동(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

위은숙(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자 료

### 16. 光海君日記

#### ▶ 1권 즉위년 2월 19일 丙子

推鞠廳啓曰：“鄭龍、下文乙里，累度壓膝，傳旨辭緣之外，才人、白丁、賊黨、武臣、名將某某人出入形止，別爲拈出，反覆盤詰，而終始固諱，不肯直招，至爲兇詐．請加刑，知順、順男，刑問二次不服，亦甚兇詐．請加刑．”答曰：“知順、順男，先爲壓膝窮問．”

추국청이 아뢰기를,

“정용·하문을리에게 누차 압슬형을 가하면서 전지의 사연(辭緣) 이외에 재인(才人)·백정(白丁)·적당(賊黨)·무신(武臣)·명장(名將) 아무아무가 출입한 형지(形止)를 따로 점출(拈出)하여 다방면으로 반복해서 힐문하였으나 시종 굳게 숨기면서 직초하려 하지 않으니, 매우 흉사스럽습니다. 가형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지순·순남은 2차 형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고 있으니 또한 매우 흉사스럽습니다. 가형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답하기를, “지순·순남은 먼저 압슬형을 가하여 철저히 신문하라.”하였다.

#### ▶ 1권 즉위년 2월 21일 戊寅

(二十一年)六月，王發永柔向京城，居民等，上疏請留，王手札答之曰：“今予之行，非欲棄爾等而去也．但聞京城之民，飢餓失所，日望予至．非予過進，不足以救之，都民之望，予何以異於爾等之欲留乎？”仍饋酒以送．時，京外飢荒，王下教曰：“都民聞予近駐，其望之之心，爲如何哉？其發近邑之粟，船運京江．若不足則卽遣承旨，發京倉以賑之．”王，見內人，炙食牛肉，教曰：“非牛不能耕田，人而殺牛，不仁甚矣．目今蕩敗之餘，雖嚴禁，猶懼不足以孳息，況屠殺無忌乎？內人則已爲重究．本邑守令，不爲禁斷，其令勘罪．”嘗於行中，失落所御弓子，有人得之．本官囚繫以聞，王曰：“旣已失之，則有得之者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無怪.” 卽命放之. 聞者咸悅. 提督李如松, 聞王筆法精妙, 求之甚懇, 王, 辭以疾曰: “予於提督, 磨頂放踵, 有所不辭. 但形骸徒存, 而神魂已奪, 揮筆成字, 誠所難能.” 竟不許. 蓋其微意, 不欲以小技, 示於人也.

이하생략~

(21년)6월에 왕이 영유(永柔)를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였는데 거주하는 백성들이 소장을 올려 머물기를 청하니, 왕이 수찰(手札)을 내려 답하기를 ‘지금 내가 떠나는 것은 그대들을 버리고 가려는 것이 아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서울의 백성들이 살 곳을 잃고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날마다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내가 빨리 가지 않으면 구제할 수 없으니, 서울 백성들이 나를 기다리는 것이 그대들이 머물기를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고, 이어 술을 먹여 보내었다.

이때 경외(京外)에 기근이 들었는데 왕이 하교하기를 ‘도성 백성들이 내가 가까이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니, 그들이 돌아오기 바라는 마음이 어떻겠는가? 가까운 고을의 곡식을 풀어 배로 경강(京江)으로 운송하게 하라.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즉시 승지를 보내어 경창(京倉)의 곡식을 풀어 진구(賑救)하게 하라.’ 하였다. 왕이 나인(內人)들이 소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보고 하교하기를 ‘소가 아니면 논을 갈 수가 없는데 사람으로서 소를 죽이고 있으니, 너무도 차마 못할 짓이다. 지금은 나라가 판탕된 즈음이어서 엄하게 금하여도 오히려 번식시키기에 부족할까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기탄없이 도살(屠殺)하는데야 말해 뭐하겠는가? 나인은 이미 무겁게 처벌하였다. 본 고을의 수령은 잘 금단하지 못하였으니 감죄(勘罪)하게 하라.’ 하였다.

일찍이 행행(幸行)하는 도중에 가지고 있던 궁자(弓子)를 잃어버렸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를 습득하였다. 본관(本官)에서 그를 잡아가두고 아뢰니, 왕이 이르기를 ‘이미 잃어버렸으니 습득한 사람이 있는 것은 괴이할 것이 없다.’ 하고, 즉시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이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열복하였다.

이여송이 왕의 필법(筆法)이 정묘(精妙)하다는 말을 듣고 매우 간절히 요구하자, 왕이 병들었다고 핑계하여 사양하고 나서 이르기를 ‘내가 제독(提督)에 대해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루가 된다고 해도 사양하지 않아야 될 점이 있다. 그러나 나는 형해(形骸)만 보존되어 있을 뿐神魂(神魂)은 이미 떠나간 지 오래여서 붓을 휘둘러 글자를 쓴다는 것은 참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대개 그 은미한 뜻은 잔단 기교를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던 것이다.

이하생략~

### ▶ 19권 1년 8월 25일 癸酉

癸酉/備邊司啓曰: “今見京畿監司金信元牒呈, 則龍仁接向化朴吉祥等十餘戶男女竝八十餘口, 邑底五里場內, 大路邊居生, 于今七八年. 大小行人, 晝夜連續, 吉祥等率下十六七八, 稱夜山行, 或騎或步, 或持弓矢或持劍杖, 行人卜物, 作黨追逐, 出沒刼奪, 如是

者自前春尤熾。邑內元田，無端刳耕，茂盛禾穀，公然刈取，許多牛馬，任意放畜。從民告狀，每每發差招致，則輒打官差等，使不得下手。至於樵牧村人等，亦莫敢孤單出入。將來之慮，不止草竊而已，後患不可不防云矣。本縣向化作弊，漸至滋蔓，極爲可慮，不可不預爲善處。姑令移送兩湖近地，分置各邑，俾不得成群橫行何如?”傳曰：“向化胡人，雜處於內地，竟致滋蔓之患，自古有之。今宜分置邊遠絕島，俾無難圖之弊。畿甸所居之種，漸次移送于他處。”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경기감사 김신원(金信元)의 첩정(牒呈)을 보니 ‘용인(龍仁)에 거주하는 향화인(向化人) 박길상(朴吉祥) 등 10여 호의 남녀 함께 80여 명이 고을 5리 안에 있는 장터 큰 길가에 거주해 살아온 것이 이제까지 7, 8년입니다. 그곳은 크고 작은 행인들이 밤낮으로 오고 가는 곳인데, 길상 등이 수하 16, 18명을 거느리고 밤에 산행(山行)을 한다고 칭하면서, 어떤 자는 말을 타고 어떤 자는 걸으며 혹 활과 화살을 들거나 혹 장검과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행인이나 짐을 쫓아가 약탈하였는데, 이렇게 한 것이 지난봄부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읍내의 원전(元田)을 이유 없이 뺏어 경작하거나 무성하게 자란 벼곡식을 공공연히 베어가며, 수많은 우마(牛馬)를 멋대로 놓아서 기릅니다. 백성들의 고발장에 따라 매번 차인(差人)을 보내 부르면, 문득 관차(官差)를 구타하여 손을 쓸 수 없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나무하고 소먹이는 촌사람들조차 감히 혼자 출입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시골의 도적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 우려되니, 후환을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본 고을의 향화인이 부리는 폐단이 점차 만연하여 매우 걱정스러우니, 미리 선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양호(兩湖)의 가까운 곳에 옮겨 각 고을에 나누어 둬으로써 무리를 지어 횡행하지 못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향화호인(向化胡人)들이 내지에 뒤섞여 있어 끝내 점차 세력이 커지는 걱정은 예로부터 있었다. 이제 마땅히 멀리 떨어진 절도(絶島)에 나누어 두어 진압하기 어려운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기 근처에 살고 있는 종족은 점차로 딴 곳으로 옮기라.” 하였다.

## ▶ 27권 2월 윤3월 24일 己巳

禮曹啓曰：“宗廟祭用體牲，片片分割，臣等常以爲未安。而曾有相臣獻議，則頃因 朴弘耆之言，始爲聞知，委欲啓稟，而多事未遑矣。祭用特牲，禮也，古人亦有割用之制，當初第一室，始用體牲，及至三四室，則猶可割用，至於十室而因循不知變，尙以一牲片片分薦。又分一塊肉於 孝敬殿，安有如此未安之事乎? 今若於宗廟加用一牛，則足以分薦，亦不違於『禮經』之意，敢啓。”傳曰：“依啓。”

예조가 아뢰기를,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종묘의 제사에는 온 마리의 희생[體牲]을 사용하는데 조각조각 나누므로 신들은 항상 미안하게 여겨왔습니다. 일찍이 상신(相臣)의 헌의가 있었음을 지난번 박홍구의 말로 인하여 비로소 알고서 계품하고자 하였으나 일이 많아 미처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사에 특생(特性)을 쓰는 것은 예인데, 옛날에도 나누어서 사용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초 제1실에는 처음에 온 마리의 희생을 사용하였는데 3, 4실까지는 그래도 나누어 사용해도 되었지만, 10실이 되어서까지 그대로 답습하여 변화할 줄을 모르고 아직도 한 마리를 가지고 조각조각 나누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 덩이 고기를 효경전에 나눈다면, 이토록 미안한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제 만일 종묘에 소 한 마리만 추가하면 충분히 나누어 올릴 것이고, 또 『예경(禮經)』의 뜻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 36권 2년 12월 4일 乙亥

庚戌十二月初四日乙亥 慶尙監司馳啓: “星州呈牛犢, 身體如常, 一項兩頭, 三耳口眼各成, 變異非常. 夜初更, 流星出觜星下, 入南方天際, 狀如拳, 尾長六七尺許, 色赤.” 啓.

경상 감사가 치계하였다.

“성주(星州)에서 송아지를 바쳤는데, 몸뚱이는 예사로우나 목 하나에 머리가 둘, 귀가 셋이며, 입과 눈은 각 머리마다 제각기 달려 있으니, 비상한 변이입니다. <밤 1경(一更)에 유성이 자성(星) 아래에서 나와 남쪽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주먹과 같은 모양에 꼬리의 길이가 6, 7척 정도 되었으며 색깔은 붉은색이었습니다.>”

### ▶ 53권 4년 5월 3일 丙申

平安監司狀啓: “義州地, 雌牛產犢, 一體而頭二者, 母犢/雛並斃”事.

평안 감사가 장계하였다.

“의주(義州) 땅에서 암소가 몸은 하나에 머리가 둘인 송아지를 낳았는데, 어미 소와 송아지가 모두 죽었습니다.”

### ▶ 87권 7년 2월 2일 己卯

福只者, 本屠牛者也. 兒時父母皆死, 乞食於京城中, 主於 新門內 朴龍家, 以屠牛爲業. 嘗持 朴龍馬而出, 托以病斃, 空手而還. 朴龍叱之, 遂逃去, 中路誘得童女 春伊、

童男 日上者, 南走 東萊, 主於 倭館外 張應天家. 應天問之曰: “汝是何處人?” 答曰: “黃澗 永同之人也.” 且曰: “吾欲買 倭劍, 直幾何?” 應天曰: “買劍欲何爲也?” (福伊) [福只]曰: “不得買劍, 則欲買鳥銃耳.” 應天曰: “汝雖欲買之, 奈無價何?” 福只曰: “欲賣此女兒買之. 有餘則欲買衣笠耳.” 又曰: “倭之狀何如?” 曰: “不見 倭狀, 宜見僧形.” 福只默然. 應天怪其所爲, 往告于 釜山僉使. 僉使使手下軍, 偕 東萊捕盜軍, 縛送福只于 東萊. 府使 朴慶業嚴刑推問, 則初稱 尹明吉, 又問則稱 朴應天, 又稱 朴春男, 末乃稱 朴致毅. 慶業大喜, 直啓以聞, 械送辭連者, 一路騷然. (蓋 朴致毅者, 逃於 徐、沈獄事者也.) 當時購捕 致毅甚急, 得之者當直授工曹判書, 故 慶業張皇其事, 必欲成眞. 而拿問 福只, 則歷陳父母根脚, 渴口稱冤. 使 朴致毅妻兄弟 任充、任章及所識者 漢守、愛守、朴應犀等見之, 則皆以爲非也. 問於 朴龍則亦曰: “此前日屠牛者 福只也.” 福只之非 致毅明甚, 而猶刑訊而囚之, 推官請配 珍島而不從. 以此, 連累者各有其供. 朴龍供: “福只年可十五歲時, 乞食於隣里, 問其根脚, 則‘兒童時父母皆死, 自 開城府近處移來.’云, 仍爲率居使喚, 以屠牛爲業. 因事欲杖, 則潛爲逃去, 不知去處久矣.” 張應天供: “今正月初七日, 有一人率童男、童女來到吾家, 欲賣女兒, 換買 倭劍、鳥銃, 且問 倭狀, 多發荒唐之言. 進告于 釜山僉使, 僉使即給手下使喚軍一名, 偕 東萊捕盜軍, 送于 東萊. 府使招我坐於眼前曰: ‘彼漢自稱 朴致毅, 以此報于朝廷, 則必拿問汝矣, 汝姑拘留於此.’ 遂就獄中, 仍爲上來.” 童女 春伊供: “本以 龍山隅居人之婢子, 使喚甚苦, 與 尹哥稱名人, 逃往 東萊, 止接于 張應天家. 應天言于率領將, 即結縛 尹哥, 直送于 東萊, 翌日又捉我去 東萊. 府使曰: ‘彼漢何如人?’ 答曰: ‘光州居生人.’ 云矣. 府使以爲: ‘諱不直招, 打我足掌’, 則 尹哥云: ‘迷愚女兒, 不須杖問. 吾是 朴致毅’, 遂解放我. 童男則中路相逢追來, 問其所從來, 則自稱 義城地人. 張應天妻使之刈柴而所刈之柴甚少, 杖其背, 遂逃走矣.” 童男 日上供: “本以 星州人, 移居 義城. 因事往還 龍潭, 到 善山 開寧地, 路中見一男人, 率女兒休息. 謂我曰: ‘我家在 蔚山甚好. 汝若從我, 則當以好衣、好食待汝, 且給馬匠/匹.’ 云, 遂從其人, 往 釜山. 主人使之刈柴, 三日欲還, 則主人妻奪衣, 率去之人亦爲毆我. 遂逃還 義城, 留三四日, 本官囚我, 因爲上來.” 日上之母 業君及其舅 念可, 皆拿問取招, 而了不知此事 矣 云. (雖有希功件/倖賞之心, 何忍做此無形之事, 使一路騷然而無辜者繫獄乎? 慶業之罪, 固不可勝誅矣.)

복기는 본래 소를 도살하는 자이다. 어려서 부모가 모두 죽고 도성에서 결식하다가 신문(新門) 안 박룡(朴龍)의 집을 주인으로 삼고 소를 도살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 일찍이 박룡의 말을 가지고 나갔다가 병으로 죽었다고 핑계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박룡이 질책하자 드디어 도망갔는데 도중에 동녀(童女) 춘이(春伊)와 동남(童男) 일상(日上)이란 자를 띄여 동래(東萊)로 달아나서 왜관(倭館) 밖 장응천(張應天)의 집에 목계 되었다. 응천이 “너는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나?”고 묻자, 그가 “황간 영동(永同) 사람이다.”고 대답하고, 말하기를 “내가 왜검(倭劍)을 사고자 하는데 그 값이 얼마인가?”고 물었다. 이에 응천이 “왜검은 사서 무엇에 쓰려는가?”고 묻자, 복기의 말이 “왜검을 사지 못하면 조총을 사고자 한다.”고 하였다. 응천이 말하기를 “네 비록 사고자 하나 살 만한 값이 없으니 어찌하겠는가?”하니, 복기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가 말하기를 “이 계집아이를 팔아서 사고자 한다. 만약 사고 돈이 남으면 의립(衣笠)을 사고자 한다.”고 하고, 또 “왜인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가?”하고 물었는데 “왜인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면 중의 모습을 보라.”고 하니, 복기는 묵묵히 말이 없었다. 응천이 그의 소행을 괴상히 여겨 부산첨사(釜山僉使)에게 고발하였다. 이에 부산첨사가 수하의 군졸을 시켜 동래포도군(東萊捕盜軍)과 함께 복기를 동래로 포박해 보내게 하였다. 부사(府使) 박경업(朴慶業)이 엄한 형벌로 추문하니 처음에는 윤명길(尹明吉)이라 하고, 또 추문하니 박응천(朴應天)이라 하고 또 박춘남(朴春男)이라 하다가 끝내는 박치의(朴致毅)라 하였다. 경업이 크게 기뻐하여 즉시 계문하였는데, 그와 연루된 자들을 압송하느라 온 도가 소란스러웠다.

<대개 박치의란 자는 서양갑(徐羊甲)·심우영(沈友英)의 옥사 때에 도망한 자이다.> 당시 현상금을 걸고 치의를 체포하기를 몹시 화급히 하였는데, 치의를 잡는 자는 바로 공조판서를 제수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경업이 그 일을 장황하게 하여 기필코 진실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런데 복기를 나문하니, 부모의 신원을 하나하나 들어 진술하면서 입이 마르도록 억울하다고 하였다. 박치의의 처형제 임연(任)·임장(任章) 및 아는 사람 한수(漢守)·애수(愛守)·박응서(朴應犀) 등으로 하여금 보게 하니 모두들 아니라고 하였다. 박룡(朴龍)에게 물으니 또 한 말하기를 “이는 전일 소를 도살하던 복기이다.”고 하였다. 복기는 치의(致毅)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도 신문하여 가두고 추관(推官)이 진도(珍島)로 정배할 것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그때문에 연루된 자는 모두 각각 공초가 있었다. 박룡이 공초하기를, “복기는 나이 15세 가량 되었을 때 이웃 마을에서 걸식을 하였는데, 그의 신원을 물으니 ‘어렸을 때 부모가 모두 죽고 개성부(開城府) 근처에서 이사 왔다.’ 하기에 그대로 데리고 살며 부렸는데, 소를 도살하는 것으로 직업을 삼았습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곤장을 치려 하자 그만 몰래 도망쳐버렸는데, 그 거처를 알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하고, 장응천(張應天)은 공초하기를,

“금년 1월 7일에 어떤 사람이 동남동녀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동녀를 팔아 왜검(倭劍)과 조총(鳥銃)을 사겠다 하고, 또 왜인의 생김새를 물으면서 황당한 말을 많이 하기에 부산첨사에게 가서 고발하니, 첨사가 즉시 수하의 사환군(使喚軍) 1명을 주어 동래 포도군과 함께 동래부로 가게 하였습니다. 동래부사는 나를 불러 면전에 앉히고 말하기를 ‘저놈이 자칭 박치의라 하니, 이를 조정에 보고하면 필시 너를 나문할 것이므로 너를 잠시 여기에 구류한다.’ 하였습니다. 드디어 옥중에 갇혔다가 그대로 상경하였습니다.”하고, 동녀 춘이(春伊)는 공초하기를, “본래 용산(龍山)에 우거하는 사람의 비자(婢子)인데 사환의 일이 너무 괴로워 윤가(尹哥)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동래로 도망가 장응천의 집에 붙어살았는데, 응천이 술영장(率領將)에게 말하여 즉시 윤가를 결박하여 동래부로 보내고, 이튿날 또 나를 동래부로 잡아갔습니다. 부사가 말하기를 ‘저놈은 어떤 놈이냐?’고 하기에 ‘광주에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부사가 말하기를, ‘숨기고 솔직하게 고하지 않으면 너의 발바닥을 때리겠다.’ 하니, 윤가가 말하기를 ‘우매한 여아(女兒)는 장문(杖問)할 필요 없다. 내가 박치의다.’고 하자 드디어 나를 풀어주었습니다. 동남은 도중에서 서로 만나 따라왔는데, 그에게 어디서 왔는지 물으니 자칭 의성(義城)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장응천의 처가 그로 하여금 나무를 베어 오게 하였는데 베어 온 나무가 몹시 적어 그의 등을 때리자 드디어 도망쳤습니다.”하고, 동남 일상(日上)은 공초하기를, “저는 본래 성주(星州) 사람으로 의성에 이사 와서 살았는데, 어떤 일로 인하여 용담(龍潭)에 다녀오는 길에 선산(善山)의 개령(開寧)에



이르러 도중에서 어느 한 남자가 여아를 데리고 휴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이 울산(蔚山)에 있는데 매우 좋다. 네가 만약 나를 따라가면 좋은 옷과 좋은 음식으로 너를 대접하고 또 말도 줄 것이다.’고 하기에, 드디어 그 사람을 따라 부산으로 갔는데, 주인이 나무를 베어 오게 하였습니다. 3일 만에 돌아오려고 하자 주인의 처가 옷을 빼앗고 데리고 간 사람 또한 나를 구타하였습니다. 드디어 도망쳐 의성으로 돌아와 3, 4일 동안 머물렀는데, 본관(本官)이 나를 가두었고 이어 상경하였습니다.”하였다. 일상의 어미 업군(業君) 및 그의 외삼촌 염가(念可)를 모두 잡아다 문초하여 공초를 받았는데, 전혀 이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비록 공로를 세워 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차마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일을 조작하여 도내를 소란하게 하고 무고한 자를 옥에다 가두어 둔다는 말인가. 경업의 죄는 실로 이루 다 꾸짖을 수 없다.>

▶ 91권 7년 6월 24일 己亥

南原有牛產犢，一體兩頭.

남원(南原)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몸 하나에 머리가 둘이었다.

▶ 103권 8년 5월 4일 癸酉

報漏閣都監啓曰：“都監各件需用凡具，召匠磨鍊，則所入雜物，與 欽敬閣都監大同小異。其中大水壺，則可以前排仍用，左右龍桷，則前排破件，亦可修補用之。 如三水壺、大鍾、大鈴、左右遞鈴所造鑄鐵、牛皮、正鐵、炭石等物，則或行會于各道，移文于該司，取用矣。 但臺石之築，必用細石，功役甚大，而石工等方役于繕修都監，役事方急云，稍待本月晦間，役事閑歇，除出若干名始役，猶爲未晚矣。至於漏閣修裝之木，小不下大不等二百餘條云。欲斫於水上，則非但本道物役/力殘薄，一條斫來，費力不貲，二百條之上納，不可以月日爲期。湖南 莞島等處，則可用之材，繕修都監幾盡斫來，且戰舡產材之地，決難沒數伐取。黃海道則不等可合，自前絕無，木品亦甚不好。不得已 公洪道 安眠道/，箇箇擇斫，則可以得之云。都監郎廳急速下送，水使同議，隨便斫來，而載來舡隻，則以道內兵舡數隻，擇其完固，潦水上送事，下諭于水使處宜當。且強鐵、二年木等物，則依前 欽敬閣時例，尙方所在之物，移文取用之意，敢啓。”傳曰：“依啓。大不等二百餘條，無乃過多乎？我國事，例多過濫之弊。前頭亦有重建法宮之舉，宮闕可用木，絕勿斫伐，實入數更爲十分詳議斫來。”

보루각도감(報漏閣都監)이 아뢰기를,

“도감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장인(匠人)을 불러다 마련하였더니, 들어가는 잡물이 흠경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각도감(欽敬閣都監)과 거의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 대수호(大水壺)는 전에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쓸 수가 있고 좌우의 용통(龍桶)은 전에 쓰다가 파손된 것을 또한 보수하여 쓸 수가 있습니다. 삼수호(三水壺)·대중(大鍾)·대령(大鈴)·좌우 체령(遞鈴)을 만들 주철(鑄鐵), 우피(牛皮), 정철(正鐵), 탄석(炭石) 등의 물품들은 각도에 행회(行會)하거나 해당 관사에 이문(移文)을 하여 가져다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다만 대석(臺石)의 수축에는 반드시 세석(細石)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역이 매우 큰데, 석공(石工)들이 지금 선수도감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쪽 일이 매우 급하다고 하니 조금 기다렸다가 이달 그믐께쯤 일이 한가해지거든 몇 명 데려다가 일을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누각(漏閣)을 수리하고 단장할 나무는 적어도 대부등(大不等) 2백여 개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수상(水上)에서 베어오려고 하니, 본도의 물력이 잔박할 뿐만 아니라 한 그루를 베어오는 데에도 비용과 공력이 적지 않게 드는데, 2백 그루를 상납하는 일은 달이나 날로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호남의 완도(莞島) 등은 쓸만한 재목들을 선수도감에서 거의 다 베어왔고, 또한 전선(戰船)의 재목을 생산하는 지역이니 한 그루도 남김없이 모두 베어오는 것은 곤란합니다. 황해도는 합당한 큰 재목이 이전부터 전혀 없었고 나무의 품질도 매우 나쁩니다. 할 수 없이 공홍도(公洪道)의 안면도(安眠島)에서 날개로 가려서 베어 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도감의 낭청을 속히 내려 보내어 수사와 함께 의논하여 편의에 따라 베어오게 하되 신고 올 때는 도내의 병선(兵船) 가운데 완전하고 견고한 것을 몇 척 가려서 장마철이 되기 전에 올려 보낼 일로 수사에게 하유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또한 강철(強鐵)과 2년목(二年木) 등의 물품은 지난번 흠경각을 수리할 때의 전례대로 상방(尙方)에 있는 물건들을 이문을 보내어 가져다가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대부등 2백여 개는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일을 할 때에 으레 지나치게 하는 폐단이 많다. 앞으로는 법궁(法宮)을 중건할 일이 있을 터이니, 궁궐에 쓸 만한 나무는 절대로 베지 못하게 하고, 실제로 들어갈 숫자를 다시 충분히 상세하게 의논하여 베어오도록 하라.”

하였다.

### ▶ 126권 10년 4월 18일 丁未

營建都監啓曰：“浮石所車牛百頭養飼黃草，當初磨鍊啓下，而其後加定牛隻，連續上來，不得已推移養飼矣 黃延道 延安、白川等官分定之草，至於六千餘束，行移催促，非止一再，迄無上送之奇，前頭養飼，極爲艱難。本道監司及兩官守令，竝從重推考，禁軍給馬下送，使之星火督納何如?” 傳曰：“允.”

영건도감이 아뢰기를,

“부석소(浮石所)에서 수레를 끄는 소 1백 마리의 사료용 황초(黃草)를 당초에 마련해서 계하(啓下)받았습니다만, 그 뒤로 더 배정된 소들이 연속적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임시로 변통해서 먹여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연도(黃延道)의 연안(延安)·배천(白川) 등 고을에 나누어 배정한 황초가 무려 6천여 속(束)이나 되는데, 공문을 발송해 재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데도 지금까지 올려 보낸다는 기별이 없으니, 앞으로 먹여 기를 일이 지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본도 감사 및 두 고을 수령을 모두 중하게 추고하고, 금군(禁軍)에게 말을 주어 내려 보내 성화같이 바치라고 독촉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129권 10년 6월 18일 乙亥

忠淸道 德山縣有雌牛自斃, 産一犢, 兩頭四目

충청도 덕산현(德山縣)에서 암소가 죽으면서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는데, 머리가 둘이고 눈이 넷이었다.>

▶ 144권 11년 9월 19일 戊戌

備邊司啓曰: “我國南隣 島夷, 北接 山戎, 自古用武之國, 莫我國若也, 而兵、曹/農無別, 究其實, 則率皆無用之兵也. 臣等愚意, 中外正軍之外, 如軍功雜職、書吏、僧徒、卿/鄉吏、官屬皂隸、羅將、漕軍、水軍、驛卒、山尺、才人、白丁、諸色匠人、公私賤、各項保率之類, 並皆常時調兵所不及者. 其中必多才勇堪爲戰用者. 方當危急之日, 若能推誠開諭, 啗以厚賞, 則豈無偕作而同仇者哉? 令兵曹別立事目, 急急舉行爲當.” 傳曰: “依啓. 予意則兵、農速爲區別, 而如此召募之類, 休養輪回戍邊可矣. 更議以處.”

비변사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남쪽으로 섬 오랑캐와 이웃해 있고 북쪽으로는 산용(山戎)과 인접해 있어 예로부터 무력을 사용한 나라치고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없으나 병(兵)과 농(農)이 구별이 없으므로 그 실상을 따져본다면 거의 쓰기에 부적합한 군사입니다. 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중외의 정군(正軍) 이외에 군공(軍功)으로 제수된 잡직(雜職), 서리, 승려, 향리, 관에 소속된 조례(隸), 나장(羅將), 조군(漕軍), 수군(水軍), 역졸(驛卒), 산척(山尺), 재인(才人), 백정(白丁), 제색 장인(諸色匠人), 공사 노비, 각종 보솔(保率)과 같은 무리들은 모두 다 평상시에 군사로 조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속에는 틀림없이 재능과 용맹이 있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만약 정성을 다하여 타이르고 후한 상으로 유도한다면 어찌 함께 일어나서 원수를 갚을 자가 없겠습니까. 병조로 하여금 따로 사목을 만들어 한시바빠 거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니, 전교하기를, “아뢰는 대로 하라. 내 생각에는 병농(兵農)을 빨리 구별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사람들은 교대로 휴식시키면서 변방 방어에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라.”하였다.

### ▶ 151권 12년 4월 27일 甲戌

庚申四月二十七日甲戌禮曹啓曰: “禮文內, 爲皇帝有舉哀變服之禮, 而無皇后之喪舉哀之事. 亂後甲寅年, 慈聖皇太后之喪, 五日停朝市、去刑戮、禁屠殺、斷音樂、禁婚嫁. 今此皇后之喪, 亦依此 舉行.” 從之. 【時 萬曆皇后崩逝, 訃報來到.】 例今四月二十七日來五月初一日至舉行何如? 答: “依允.” 從之.

예조가 아뢰기를,

“예문(禮文) 안에, 황제를 위해서는 거애(舉哀)와 변복(變服)의 예(禮)가 있지만, 황후의 상(喪)에는 거애하는 일이 없습니다. 난리를 겪은 뒤인 갑인년 자성 황태후(慈聖皇太后)의 상에는 5일 동안 정조시(停朝市)하고 형륙(刑戮)을 하지 않고, 도살을 금지하고 음악을 끊었으며 혼인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황후의 상에도 이에 의하여 거행하소서.” 하니, 따랐다. 【이때 만력 황후(萬曆皇后)가 돌아갔다는 부고가 도착하였다.】

### ▶ 153권 12년 6월 29일 乙亥

庚申六月二十九日乙亥新闕營建都監啓曰: “(都監布物, 無可繼之道, 臣等不勝悶慮.) 竊聞 黃延道內各官, 獐價木 (稱云)收合之木, 通共各官, 則厥數甚多. 所謂‘獐價木’者, 各官每年見在軍丁處, 以捉獐納官之價, 各捧細木半疋, (用以爲例). 軍丁多在之邑, 則一年所收, 多至十餘同, 小者亦不下三四同云. 令本道監司, 各官一年捧上之數, 無遺通算, 十月內上送事, 下諭宜當. 且 黃延道內各官所謂‘白丁’者, 不知其數, 只屬本官, 不係正軍, 以其所業, 逐朔納官, 或以綿布代納云. 各官所在白丁之數, 亦爲無遺刷出, 勿使漏落, 每一名各三四, 自監營一齊收合, 十月內上送之意, 竝爲下諭亦當. 白丁則諸道各官, 無不有之云. 諸道監司處, 請一體下諭 (亦當. 敢啓).” 傳曰: “依啓. 捉獐納官之物, 若月令所封進, 則奈何? 更加詳察以處.”

신궐영건도감이 아뢰기를,

“도감의 포물(布物)을 계속 댈 만한 방법이 없어, 신들은 민망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듣건대, 황연도(黃延道) 안의 각 고을에서 장가목(獐價木)이라 <일컬어지는 것을> 거두어 합한 것이 각 고을을 통틀어 합치면 그 수량이 매우 많다 합니다. 이른바 장가목이라는 것은 각 고을의 매년 현재 군정(軍丁)에게 노루를 잡아 관청에 바치는 값으로 각각 가는 무명 반필을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군정이 많은 고을에서는 1년에 거

두어들이는 것이 많게는 10여 동에 이르고, 적어도 3, 4동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도 감사로 하여금 각 고을에서 1년에 위로 바치는 수를 빠짐없이 통틀어 계산하여 10월 안으로 올려 보내라는 일로 하유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황연도 안의 각 고을의 이른바 백정(白丁)은 그 수를 알 수 없지만 단지 본 고을에 속해 있으면서 정군(正軍)에 매이지 않고, 자기의 생업에 따라 달마다 관청에 바치는데 혹은 면포(綿布)로 대신 바친다고 합니다. 각 고을에 있는 백정의 수도 남김없이 찾아내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1명당 각각 3필을 감영에서 일제히 수합하여 10월 안으로 올려 보내라는 뜻으로 아울러 하유하는 것이 또한 마땅합니다. 백정의 경우는 제도(諸道)의 각 고을에 모두 있다고 합니다. 제도의 감사에게 한 결 같이 하유하는 것이 <또한 마땅합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노루를 잡아 관청에 바치는 물건이 만약 월령(月令)에 봉진(封進)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다시 더 자세히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 ▶ 156권 12년 9월 3일 丁丑

傳曰：“限哀詔差官回還前，各項舉動，竝爲姑停，則禁婚嫁、屠殺，去刑戮等事。竝知會舉行（事，言于該曹）。”

전교하였다.

“애조차관(哀詔差官)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모든 거동을 우선 정지하기로 했으니, 혼인이 나 도살(屠殺) 행위도 금해야 할 것이고 형륙(刑戮) 등의 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모두에게 알리어 그리 거행하도록 <해조에 말하라.>”

#### ▶ 156권 12년 9월 17일 辛卯

傳曰：“去刑戮、禁屠殺，而各衙門罪人刑訊，依前爲之，何歟？（問于禁府刑曹以啓。）”

전교하였다.

“형륙(刑戮)도 없애고 도살(屠殺)도 금하기로 했는데, 각 아문에서의 죄인 형신(刑訊)은 여전히 하고 있으니 그 무슨 까닭인가? <금부와 형조에 물어 아뢰라.>”

#### ▶ 157권 12년 10월 18일 辛酉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營建都監啓曰：“以都監草記，明年則車子五六十輛、車牛百餘頭，速爲措備以用事，傳教矣。木石輸運之役，車子爲先，而其數不敷，雖緣養飼之極難，亦是措辦之不易也。車子則外方上送材料，今方來納，五六十輛造成之役，不至甚難。至如車牛百餘頭，措備無策，前者 兩西監司調度使處，卜定上納，而今則 西路多事，又值詔使，勢難責出。下三道亦有大牛，可以服車者，全羅、慶尙道各十五頭，公洪道十頭分定行會，使之自營中，隨便措備，明年四月草長卽時，別定軍官上納。且別將 元秀男、宋敬臣、池應鵬、李顯忠、金純等，以空名帖募得車牛者，計直捧上，各數十頭上送之意，知會宜當。”傳曰：“依啓。我國牛隻甚多，京畿、江原道，亦各十頭，或各五頭，分定以用。”

영건도감이 아뢰기를,

“도감 초기(草記)로 인하여 명년에는 수레 50, 60량과 수레를 끌 소 1백여마리를 서둘러 확보하였다가 쓰도록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목재와 석재를 운반하는 일에는 수레가 우선인데 그 수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소를 사육하기가 극히 어려운 탓도 있지만 마련하기도 역시 쉽지 않아서입니다. 수레에 있어서는 외방에서 올려온 목재가 지금 막 도착되었으므로 수레 50, 60량을 만들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겠으나, 소에 있어서는 1백여마리를 마련한 길이 없습니다. 전번에는 양서(兩西)의 감사와 조도사(調度使)에게 적당 수를 배정하여 상납하게 하였지만, 지금은 서로(西路)에 일이 많고 또 조사까지 오게 되어 있어 마련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삼도(下三道) 역시 수레를 끌 만한 큰 소가 있을 것이니, 전라·경상 두 도에 각기 15마리, 공홍도(公洪道)에 10마리를 배정하여 행회(行會)해서 그들 각자 자기 영내에서 편의에 따라 마련하여 내년 4월경 풀이 자란 즉시 군관(軍官)을 별도로 선정해서 상납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별장(別將) 원수남(元秀男)·송경신(宋敬臣)·지응곤(池應)·이현충(李顯忠)·김순(金純) 등에게는 공명첩(空名帖)으로 모집해 들인 소의 값을 계산해서 올리게 하여, 각기 몇십 마리씩을 올려보내라고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우리나라가 소는 많으니 경기도와 강원도에도 각각 10마리 혹은 5마리씩 배정하여 쓰도록 하라.”

하였다.

## 17. 仁祖實錄

### ▶ 3권 1년 9월 16일 癸卯

申飭屠牛之禁.

소 도살을 금지하라고 신칙하였다.

### ▶ 6권 2년 5월 21일 甲戌

令黃海、平安道，輸送蕎麥三百石于毛文龍軍前．時文龍，久駐椴島，欲爲耕作之計，移咨于接伴使尹毅立，發銀救買蕎麥四百石．且索馬牛皮，以爲戰伐之具．朝廷令兩西監司，措辦以送．

황해도·평안도로 하여금 메밀 3백 석을 모문룡(毛文龍)의 군전(軍前)에 수송하게 하였다. 이때 모문룡이 가도에 오래 머물며 경작할 생각으로 접반사 윤의립(尹毅立)에게 자문(咨文)을 보내고 은(銀)을 내어 메밀 4백 석을 사게 하였다. 또 전투에 쓸 마소 가죽을 요구하므로 조정에서 양서(兩西)의 감사로 하여금 장만하여 보내게 하였다.

### ▶ 8권 3년 1월 25일 甲戌

甲戌/江原道監司趙存性馳啓曰：“以毛都督所送銀子一百四十兩，當質送二十首農牛，而日氣向暖，春耕在邇，本道高山峻嶺，行路隔遠，事甚可慮既有許質之命，不得已分付各邑，使之刻期舉行，而外方村民，不知銀貨之輕重．出定農牛於民結，以其銀子，計減大同米三十五石，則允爲兩便，故上送於大同廳云．” 黃海道監司權帖亦以農牛、農糧等事，方被督府侵辱之意，啓聞．

강원도 감사 조존성(趙存性)이 치계하기를,

“모도독(毛都督)이 보낸 은자(銀子) 1백 40냥(兩)으로 농우(農牛) 20마리를 무역하여 보내 주어야겠는데, 날씨가 따뜻해져 봄갈이도 곧 시작해야 될 뿐더러 본도는 고산준령이 많아 행로(行路)가 멀고 막히기 때문에 일이 매우 염려됩니다. 그러나 일단 무역을 허락하도록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하신 명이 있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각 고을에 분부하여 기일 내로 거행케 하였습니다마는, 외방의 시골 백성들은 은화(銀貨)의 가치를 모르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농우를 백성들의 결(結)에서 작성하여 내게 하되 그 은자를 가지고 계산하여 대동미(大同米) 35석을 감해 준다면, 진실로 양쪽 모두가 편리하겠기에 대동청(大同廳)에 올려 보냅니다.”

하였다. 황해도 감사 권첩(權)도 농우와 농량(農糧) 등의 일로 한창 도독부(都督府)의 침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계문하였다.

### ▶ 8권 3년 2월 10일 己丑

己丑/固城縣有雄犢，化成馬足.

고성현(固城縣)에서 숫송아지의 발굽이 커 가면서 말 발굽으로 변하였다.

### ▶ 9권 3년 7월 27일 癸酉

癸酉/慶尙道軍威地，有牛產犢，一身一頭，兩耳四目，兩鼻兩口.

경상도 군위(軍威) 땅에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하나의 몸뚱이와 하나의 머리에 귀가 두 개이며 눈이 네 개이고 코가 두 개이며 입이 두 개였다.

### ▶ 13권 4년 윤6월 18일 戊午

戶曹啓曰：“用錢事宜，曾於上年冬，議于廟堂，入啓定奪，而匠人數小，所鑄無多，繼有禮葬、延接兩都監之務，未遑此事，停廢累朔，今始招匠鑄造矣。臣等謹按『麗史』，肅宗二年，始立鑄錢之官，七年十二月，以所鑄錢一萬五千貫，分賜宰樞、文武兩班、軍人，以爲權輿錢，仍置京城左右酒務，又於街衢兩傍，勿論尊卑，各置店鋪，以興使錢之利。九年，又命州縣，出米穀，開酒食店，許民貿易，使知錢利。臣等仍念，吾東錢貨之廢，今已二百餘年，愚下之民，不知錢之爲何物，用之爲如何，必以爲不衣不食之物，而無親愛之心。且用之伊始，所藏無幾，未足爲家舍、田民、牛馬買得之資。必須先設酒食換質之法，使飢渴者，持一錢入市，遽得醉飽之利然後，人皆樂趨，始知用錢之妙矣。由是而從小入大，自內達外，則行不齎糧，穀無所泄，而爲一國通行之寶。麗朝用錢，先設酒食之店，良以此也。目今鑄完之錢，僅六百貫，深恐尠少，不足於用。然而畫宮於堵，可以知千萬間之制。臣等欲於景福宮前路左右行廊前，募人設店，官給酒食之需，使之排辦，以待飢渴之人，而一邊散給錢文於料布應受之輩，聽其入店換喫，明有定價，仍飭店主，勿



受他貨，只以錢文交易，還輸本錢於官府，而食其羨餘，以爲嘗試使錢之地，恐或便捷。事係新創，未敢擅便，請議大臣施行。”從之。判書金蠹國之計也。

호조가 아뢰기를,

“용전(用錢)에 관한 일은 이미 지난해 겨울에 묘당에서 논의하여 입계(入啓)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장인(匠人)의 수가 적어 주조(鑄造)한 것이 많지 않은 데다가 연이어 예장(禮葬)·연접(延接) 등 두 도감(都監)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할 겨를이 없어 몇 개월 동안 정폐(停廢)했다가 이제야 비로소 장인을 불러 주조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삼가 『고려사(高麗史)』를 상고하건대 숙종(肅宗) 2년에 처음으로 주전관(鑄錢官)을 두었고, 7년 12월에 주전(鑄錢) 1만 5천 관(貫)을 채추(宰樞)·문무 양반(文武兩班)·군인(軍人)에게 나누어 주고 권여전(權輿錢)이라 하였으며, 이어 경성(京城)에 좌우 주무(左右酒務)를 두고는 거리 양쪽에 존비(尊卑)를 막론하고 각각 점포(店)를 내게 하여 주전을 사용함으로써 인한 이익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9년에는 또 주현(州縣)에 명하여 미곡(米穀)을 바치고 주식점(酒食店)을 내게 하여 백성에게 무역을 허용함으로써 돈의 편리함을 알게 하였습니다.

신들은 이어 생각하건대 우리나라에서 전화(錢貨)의 사용을 폐지한 지가 2백여 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돈이 뭐하는 물건이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른 나머지 입지도 먹지도 못하는 물건으로 여겨,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용할 때에는 통화량이 많지 않으므로 집이나 토지, 우마(牛馬)를 매매하는 데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돈으로 술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주리고 목마른 자가 1전(錢)만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면 곧바로 취하고 배부를 수 있게 되는 이익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사람들이 모두 즐겨 따르면서 돈을 사용하는 묘리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안에서 밖으로 확대 적용해 가면, 양식을 싸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곡물(穀物)을 흘려버리는 일도 없어 온 나라에 통행되는 화폐가 될 것이니, 여조(麗朝)에서 화폐를 통용시킬 때 먼저 주식점(酒食店)을 설치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지금 주조가 완료된 돈은 겨우 6백 관이므로 통용시키기에는 너무도 양이 부족하나, 건축의 설계도를 보면 한눈에 천만 간의 규모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 등은 경복궁(景福宮) 앞길의 좌우 행랑(行廊)에 사람을 모집하여 점포를 열게 하고, 주식(酒食)에 소요되는 양을 관아에서 지급하여 그들에게 음식점을 배설하고,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상대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포(料布)를 받아야 할 자에게 전문(錢文)을 나누어 주어, 그 돈으로 바꿔 먹게 하여 정가가 얼마인 것을 알게 하는 동시에, 점포 주인에게 다른 물화(物貨)는 받지 말고 오직 돈으로만 교역(交易)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전(本錢)은 도로 관부(官府)에 바치고 남은 이익을 먹게 함으로써 시험삼아 돈을 유통시키는 장소로 삼는 것이 편리할 듯싶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행하는 제도라서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으니, 대신들과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따랐다. 이는 판서 김신국(金蠹國)의 계책이었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 15권 5년 2월 4일 辛丑

慈殿以諺書下教曰：

日日供上，連進黃肉，以此計之，農牛之死必多，後勿更進。

자전이 언서(諺書)로 하교하였다.

“날마다의 공상(供上)에 쇠고기를 연속 올리고 있는데, 이로써 계산해 보건대 농우(農牛)의 죽음이 필시 많을 터이니 뒤로는 다시 올리지 말라.”

### ▶ 15권 5년 2월 9일 丙午

姜弘立、朴蘭英，偕胡差副將劉海，來自賊中．上引見大臣、備局堂上曰：“姜綱狀啓，事多難處．”尹昉曰：“事無可爲者．賊之徵求，無路辦出，奈何？姜綱辱國已多矣．既爲僕僕之拜，又從而啓請印信，欲以號令．至於永絕天朝一款，謂以更稟者，豈不痛哉？”上曰：“弘立既來，何以待之？”昉曰：“此賊當斬．”張維曰：“宜留劉海於彼，先招弘立而來．”吳允謙曰：“劉海必不送弘立矣．”維曰：“不送則亦可拘逼而來．”上曰：“接置舊館，善待如前．且斬使之言，予以爲過也．雖入質王弟，比諸永絕天朝，則似有間矣．”維曰：“如有悖言，即可斬也．”上曰：“水原軍兵，時在其處．毋使胡人，見其軍容．”上又曰：“兵判率張維、李景稷，出往接待．”鄭百昌，以本兵判書、參判，不可盡出，爲言，李廷龜曰：“金蓋國宜往．”上曰：“然矣．”申景禎曰：“聞賊將欲得木綿四萬匹、牛四千頭、綿紬四千匹、布四千匹，而他物稱是云矣．”維、允謙曰：“彼之徵求萬端，無寧早自絕焉．”上曰：“姑令出送，亦無不可．”廷龜曰：“臣將往江上接待矣．”上曰：“質子之言，處之誠難，而至於歲幣，則答之以物力蕩殘，無以辦出，可矣．”維曰：“今茲劉海，有異前差．若請面決，何以處之？”徐渚曰：“非國汗之差，何必臨見？”上曰：“弘立曾是資憲，似當以其官待之．”李榮曰：“姜、朴，乃是降俘，接見，不亦辱乎？”上曰：“姜、朴，豈必害本國？”昉曰：“臨津防守，何以處之？”朴東善、李榮曰：“願加決斷．”上曰：“不量事之利害，而固爭如此，殊甚不可矣．”

강홍립과 박난영이 호차인 부장(副將) 유해(劉海)와 함께 적중에서 나오자, 상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서 이르기를, “강인(姜綱)의 장계에 의하면 난처한 일이 많다.”하니, 윤방이 아뢰기를, “일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적의 징구는 마련해 낼 길이 없으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강인이 나라를 욕되게 한 것이 이미 많습니다. 번거로운 절을 하고 또 따라서 인신(印信)을 계청하여 호령코자 하였으며, 심지어 명나라와 영원히 단절하라는 한 조항을 다시 여쭙어 보겠다고 말하였으니 어찌 통분하지 않겠습니까.”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홍립이 이미 나왔으니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하자, 윤방이 아뢰기를, “이 적은 마땅히 참수하여야 합니다.”하니, 장유가 아뢰기를, “유해는 저곳에 머물러두고 우선 홍립을 불러와

야 합니다.”하였다. 오윤겸(吳允謙)이 아뢰기를, “유해가 반드시 홍립을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하니, 장유가 아뢰기를, “보내주지 않으면 또한 구속해 올 수도 있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구관(舊館)에 거접시켜 전처럼 잘 대접하라. 그리고 사자(使者)를 참수하자는 것은 나는 지나치다고 여긴다. 왕제(王弟)를 볼모로 들여보내더라도 명나라와 영원히 단절하는 것에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 것 같다.”하니, 장유가 아뢰기를, “거스르는 말이 있으면 바로 참수해야 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원(水原) 병사들이 현재 그곳에 있으니 호인으로 하여금 그 군용(軍容)을 보지 못하게 하라.”하고, 또 이르기를, “병관이 장유와 이경직을 거느리고 나아가 접대하라.”하니, 정백창(鄭百昌)이 병조의 판서와 참관이 다 나갈 수 없다는 것으로 말하자, 이정구가 아뢰기를, “김신국이 가야 하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하였다. 신경진이 아뢰기를, “듣건대, 적장이 목면 4만 필, 소 4천 두, 면주 4천 필, 포 4천 필을 얻고자 하면서 다른 물건도 이것에 맞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자, 장유와 윤겸이 아뢰기를, “저들의 정구가 수만 가지이니 차라리 일찍 스스로 거절하여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선 보내주는 것 또한 불가할 것이 없다.”하였다. 정구가 아뢰기를, “신이 장차 강상으로 가서 접대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볼모의 말은 처리하기가 참으로 어렵거니와, 세폐(歲幣)에 이르러서는 물력이 탕진하여 마련해 낼 수 없다는 것으로 대답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장유가 아뢰기를, “지금 이 유해(劉海)는 전일의 차사와 다른 점이 있는데, 만약 직접 뵈고 결정하겠다고 청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하고, 서성이 아뢰기를, “국한(國汗)의 차사가 아니면 어찌 꼭 납시어 접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홍립이 자헌대부였으니 마땅히 그 관직으로 대우해야 할 것 같다.”하자, 이목이 아뢰기를, “강홍립과 박난영은 바로 항복한 포로인데, 접견하시면 또한 욕되지 않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홍립과 박난영이 어찌 꼭 본국을 해치겠는가?”하였다. 윤방이 아뢰기를, “임진강에서 방수하는 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습니까?” 하자, 박동선과 이목이 아뢰기를, “원컨대 결단을 내리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의 이해를 따져보지도 않고 굳이 이처럼 간쟁하니 매우 불가하다.”하였다.

## ▶ 15권 5년 2월 13일 庚戌

上引見李廷龜、金蠹國等曰：“千首牛、四千匹紬，雖搜括民間，不可易得，如之何？” 廷龜曰：“軍前需索如此，所送幣物，何以猝辦？” 上曰：“爭之而不得，勢將絕之。” 蠹國曰：“今宜謂劉差曰：‘不惜王弟，寧愛土物？只緣國疲民貧，不能辦出。’” 上曰：“宗室中尚未議定，況幣物乎？” 尹昉曰：“既以原昌副令定之矣。” 上曰：“海欲得濟州馬二百匹云，何以處之？” 廷龜曰：“臣謂我國軍器，天下莫精焉，貴國之所知，而只緣無馬，以有今日云，則海別無他語。四千頭牛，亦不固索，二百匹馬，彼或減省。且木綿二萬匹，則雖先送一半可也。” 張維曰：“二百綿紬，亦將難備，當雜以他物。” 廷龜曰：“和必有誓，不可不結約而送之。” 上曰：“然。”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상이 이정구와 김신국 등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 1천 두와 명주 4천 필은 민간에서 수괄(搜括)하여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 정구가 아뢰기를,  
“군전(軍前)에서 요구하는 것도 이와 같은데 보낼 폐물(幣物)을 어떻게 갑자기 판출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따지다가 안 되면 형세상 장차 단절하겠다.”  
하니, 신국이 아뢰기를,  
“지금 마땅히 유차(劉差)에게 ‘왕제(王弟)도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찌 토산물을 아끼겠는가? 다만 국가가 피폐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능히 마련해 낼 수가 없다.’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종실 중에서도 아직 의논하여 정하지 못하였는데 더구나 폐물에 있어서이겠는가?”  
하니, 윤방이 아뢰기를,  
“이미 원창부령(原昌副令)으로 정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해가 제주도 말 2백 필을 얻고자 한다 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는가?”  
하니, 정구가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우리나라 군기(軍器)가 천하에서 제일 정밀한 것은 귀국이 아는 바인데 다만 말이 없음으로 인하여 오늘날이 있게 되었다.’고 하면 유해가 별로 다른 말이 없을 것이고, 소 4천 두도 굳이 요구하지 않을 것은 물론 말 2백 필도 혹 감축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면 2만 필은 한 절반을 먼저 보내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고, 장유는 아뢰기를,  
“2백 필 면주도 준비하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다른 물건을 섞어야 합니다.”  
하였다. 정구가 아뢰기를,  
“화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서약이 있어야 하니 불가불 서약을 체결하고 보내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 15권 5년 2월 30일 丁卯

接待宰臣啓曰: “劉海言: ‘天朝, 與蒙古和, 殺白馬、黑牛, 以祭天地, 與金國和亦然. 不如是則何以表信?’ 臣等謂曰: ‘此我國所未聞之事也. 我國之人, 父母喪三年之內, 絕不殺生. 況國王方在憂服中乎?’ 胡差等曰: “不殺二畜, 使生靈屠戮殆盡, 可乎?’ 臣等答以不敢啓聞, 則胡差曰: ‘當進往城裏, 以便稟議’ 云.”

접대하는 재신이 아뢰었다.

“유해가 말하기를 ‘천조가 몽고와 화친할 적에 백마(白馬)와 흑우(黑牛)를 잡아 천지에 제

사를 지냈고, 금(金)나라와 화친할 적에도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신의를 표하겠는가?’ 하기에, 신들이 말하기를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듣지 못한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부모의 삼년상 안에는 절대로 살생을 하지 않는데, 더구나 국왕이 바야흐로 복중(服中)에 계신데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호차 등이 말하기를 ‘두 짐승을 잡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의 다 도륙 당하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기에, 신들이 감히 아뢰 수 없다고 답하니, 호차가 말하기를 ‘마땅히 성 안으로 들어가서 품의하기에 편리하도록 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 15권 5년 2월 30일 丁卯

接待宰臣啓曰：“劉海等入來後言：‘國王於殿上，鋪一氈，告天燒紙，俺等跪云則跪，坐云則坐，見行禮而已。王弟入去，則亦可見國汗之盟’云。臣等謂曰：‘我國告天之禮，則殿上設高足床、香爐等物，書告辭，置于床上，令人立讀其文，然後燒其紙。’海曰：‘國王不跪乎?’ 臣等曰：‘卓子高，安能跪而行禮乎?’ 海又發黑牛、白馬之言，臣等曰：‘我國牛馬，一日之間，爲爾屠戮者，不知其幾，吾何惜一牛、一馬? 禮有大閑也.’ 屢相爭詰，而終不回聽矣。”

접대하는 재신이 아뢰었다.

“유해 등이 들어온 뒤에 말하기를 ‘국왕은 전상(殿上)에서 모전(毛氈)을 펴고 하늘에 고유(告由)하고 소지(燒紙)하되 우리들이 꿇어앉으라고 하면 꿇어앉고 앉으라고 하면 앉아 예를 행하는 것만 보기만 하면 된다. 왕제(王弟)도 들어가면 역시 국한(國汗)이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기에, 신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하늘에 고유하는 예는 전상에 고족상(高足床)·향로 등을 설치하고 고사(告辭)를 써서 상 위에 놓아두고 사람으로 하여금 서서 그 글을 읽은 뒤에 그 종이를 불사르도록 한다.’ 하였습니다. 유해가 말하기를 ‘국왕이 꿇어앉지 않는가?’ 하기에, 신들이 말하기를 ‘탁자가 높는데 어떻게 꿇어앉아서 예를 행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유해가 또 흑우와 백마에 대한 말을 꺼내기에 신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소와 말을 하루 사이에 당신들을 위하여 도살하는 것이 몇 마리인줄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소 한 마리와 말 한 마리를 아끼겠는가? 예법에는 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누차 서로 다투며 힐란하였지만 끝내 그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 16권 5년 4월 14일 庚戌

庚戌/威鏡監司南以恭，以平安道入送農牛，加募八十五頭，願得免講帖，備局請令該曹，成送，上從之。

함경감사 남이공(南以恭)이 평안도에서 들여보낸 농우(農牛) 이외에 85두를 더 모았다는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것으로 면강첩(免講帖) 받기를 원했는데, 비국이 해조로 하여금 만들어 보내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 ▶ 16권 5년 5월 27일 壬辰

定州假守馳報于備局曰: “撻兵百餘騎, 領姜弘立、朴蘭英所率漢人男女二百四十七名、我國人三十一名、駱駝一頭、車子五坐、牛馬三十餘匹, 交付于定州, 還向義州云.”

정주(定州)의 가수(假守)가 비국에 치보(馳報)하였다.

“달병(兵) 1백여 기(騎)가 강홍립, 박난영이 거느리고 있던 한인(漢人)의 남녀 2백 47명과 우리나라 사람 31명, 그리고 낙타 한 마리, 수레 다섯 채, 마소 30여 필을 정주에 교부하고서 의주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 ▶ 16권 5년 5월 30일 乙未

龍川府使鄭鳳壽馳啓曰: “糧餉頓絕, 癘疫大熾, 老弱死者, 幾至一千三百七十餘名, 逃走者亦稱是. 計無所出, 收出城中牛馬四十餘頭, 鬻于毛營, 貿糧百餘包, 僅救涸轍之命. 唐差毛永璇告急於毛營, 幸賴督府垂憐, 給米七百包. 安衛、李穰等領來皮雜穀七百九十餘包, 成俊耆所送銀三百兩、人蔘三十斤, 金起宗所送銀三百兩, 開城留守趙翼所送人蔘五十斤、銀三十八兩, 江原監司崔峴所送戰馬一匹、綿布五十匹、令箭、火藥、鉛丸等物, 江西縣令曹臣俊〔曹臣俊〕所送銀五十兩. 以銀貨將貿米於椴島, 不幸爲風浪所敗, 而幾盡拯出, 今更裝載發送矣. 城中軍卒, 自聞米貨之來, 少止荷擔之計, 而義州人新到者, 稍潛逃去, 前日三千之人, 今未滿三百餘, 誠可痛心. 前後斬獲二十一級, 入送毛營”云.

용천부사(龍川府使) 정봉수가 치계하였다.

“양곡이 다 떨어지고 전염병이 크게 성하여 죽은 노약자가 1천 3백 70여 명에 이르고 도망간 자의 수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어찌할 계책이 없어 성중의 마소 40여 두를 거두어 모영(毛營)에 팔아 양곡 1백여 포를 사와서 겨우 다급한 목숨을 구제하였습니다.

당차(唐差) 모영선(毛永璇)이 급한 사정을 모영에 보고하자 다행히 독부(督府)가 불쌍히 여겨, 쌀 7백포를 내주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안위(安衛) 이찬(李) 등이 피잡곡(皮雜穀) 7백 90여 포를 가져왔고, 성준구(成俊耆)가 은(銀) 3백 냥과 인삼 30근을 보내왔으며, 김기종이 은 3백 냥을 보내왔고, 개성유수 조익(趙翼)이 인삼 50근과 은 38냥을 보내왔으며, 강원 감사 최현(崔峴)이 전마(戰馬) 1필, 면포(綿布) 50필, 영진(令箭)·화약(火藥)·연환(鉛丸) 등의 물건을 보내왔고, 강서현령(江西縣令) 조신준(曹臣俊)이 은 50냥을 보내왔습니다. 보내온 은화(銀貨)를 가지고 가도에 가서 쌀을 무역해 오다가 불행하게도 풍랑에 배가 전복되었는데

쌀은 거의 다 건져내어 지금 다시 배에 싣고 떠났습니다.

성종의 군졸들은 쌀을 무역해 온다는 말을 듣고부터는 도망갈 생각을 조금 덜하나 새로 도착한 의주 사람들은 점차 몰래 도망가서 지난달에 3천 명이던 것이 지금은 3백 명도 되지 않으니 실로 가슴 아픕니다. 전후 참획(斬獲)한 21급(級)은 모영으로 보냈습니다.”

### ▶ 17권 5년 9월 4일 丁卯

先是，長湍人成復興，以大牛二、酒百盆、醬一甕及黃豆數石，納于軍前。長湍及積城居士大夫十餘人，或以粟、或以牛，佐餉於軍。至是，承旨尹知敬以賞命之多滯爲言，兵曹覆啓以爲：“加設職下批者，則已送于陣上，使之分給，而至於成復興，則曾受納粟堂上帖文，今若授以堂上實職，則似爲過重，若授堂下職，則事體未妥。無已則請依甲子扈從例，以實堂上，下批。”答曰：“成復興堂上實職除授，未及論賞者，從速舉行。”

이에 앞서 장단(長湍) 사람 성복흥(成復興)이 큰 소 2마리, 술 1백 동이, 간장 1항아리, 콩 몇 섬을 군영에 바쳤으며, 장단과 적성(積城) 등에 사는 사대부 10여 명이 곡식과 소 등으로 군졸들을 먹였다. 이때에 이르러 승지 윤지경(尹知敬)이 포상의 명이 너무 지연되었다고 아뢰자, 병조가 복계(覆啓)하기를,

“가설직(加設職)에 대한 하비(下批)는 벌써 진중으로 보내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습니다. 성복흥의 경우에 있어서는 납속당상(納粟堂上)의 체문(帖文)을 받은 적이 있으니 다시 당상관의 실직(實職)을 주면 과중하게 될 것 같고 당하관의 직을 주면 사체에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굳이 주어야 한다면 갑자년에 호종 공신에게 내렸던 관례에 따라 당상관의 실직을 주도록 하비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성복흥은 당상관 실직에 제수하라. 미처 포상하지 못하였던 자들에 대해서도 속히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 18권 6년 2월 28일 庚申

回答官李灝、朴蘭英等，還到義州馳啓曰：“臣等與龍骨大、大海等，相議千石米發賣之事。龍胡等以爲：‘兩國相和，所言皆從，何可以此持難乎？’屢度爭辨，終不動聽。臣等言於大海等曰：‘和事已完，使臣往來，開市交易，當有定式。’大海等曰：‘使臣往來，一年幾度，開市交易，一年幾朔爲可乎？’臣等答云：‘使臣往來，一年一度，開市交易，春秋二朔則可矣。’大海等曰：‘當稟定於汗。’是夕以汗意回答曰：‘使臣往來，則秋冬各一度，開市交易，則春夏秋定以三季月，或有不得已相通之事，則不在此限。且如交易時價直低昂，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則兩國各送掌市之人，相與講定，使無彼此之冤’云. 臣等又言於大海等曰：‘貴國若許還被擄者一二百人，以爲千石米回謝之資，則貴國之所送甚易，我國之所得甚多，而其在吾等亦且有光.’大海等卽告于汗，而還來言曰：‘被擄人等既已分與甲軍，使之各自買賣，到今還奪，事勢甚難. 各於其主處，給價買去爲當’云，而被擄人等來聚於臣等所寓，日日呼哭，所不忍聞. 臣等以私持騎馬及汗之所贈參斤，各買二人，又令一行員役，各買一人，竝得二十二人，行中帶來，而此人等或無父母、兄弟，無所依歸云，故姑令逢授於所買之人，以待朝廷處置. 且贖還人來到市上者，多至四五百人，而其中亦多無父母，兄弟之人，不得買取，使之空還，則非但所見慘惻，刷路自此將絕，開市本意，又歸落莫矣. 龍骨大等領八將，專管開市，所率千餘人，而軍馬所食，專賴於貴國云，臣等答以‘兩西板蕩，爾等所知. 三千石米，尙且艱備，許多軍馬所餉，安得卒然應辦?’云，則龍骨大等答云：‘曾與中原開市之日，牛豬及贈給之物，其數甚多. 此雖不敢望於貴國，卽今所望，只是人馬所食’云. 臣等仍聞彼國情形，則汗親領數萬兵馬西向，以新降蒙將爲嚮導，由蒙古地方，直擣寧遠北路，欲行掩襲云. 權仁祿、朴景龍，則有不還之意，臣等數日強爭，僅得帶來. 汗書及禮單物目，則謄書上送.” 事下備局.

회답사 이란(李)·박난영(朴蘭英) 등이 의주(義州)에 돌아와서 치계하기를,

“신들이 용골대(龍骨大)·유대해(劉大海) 등과 1천 석의 쌀을 발매(發賣)하는 일에 대해 상의했는데, 용골대 등이 말하기를, ‘두 나라가 서로 화친을 맺었으니 말하는 것은 모두 따라야 하는데 어찌 이것을 가지고 서로 버틸 수 있겠는가?’ 하므로, 누차 쟁변하였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유대해 등에게 말하기를 ‘화친하는 일을 이미 완결하였으니 사신의 왕래와 개시(開市)의 교역에 있어 당연히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하니, 유대해 등이 말하기를 ‘사신의 왕래는 1년에 몇 번으로 하고 개시의 교역은 1년에 몇 달로 정해야 되겠는가?’ 하였습니다. 신들이 답하기를 ‘사신의 왕래는 1년에 한번으로 하고 개시의 교역은 봄·가을에 두 달씩으로 하면 괜찮다.’ 하니, 유대해 등이 말하기를, ‘마땅히 한(汗)에게 품하여 정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한의 뜻으로 회답하기를 ‘사신의 왕래는 가을과 겨울에 각각 한 번씩하고 개시의 교역은 봄·여름·가을의 끝달로 세 번 하되 부득이 서로 통할 수 없는 경우는 이 제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리고 교역할 때 값의 고하는 양국에서 각각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보내어 서로 상의해 결정함으로써 피차에 억울한 일이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신들이 또 유대해 등에게 말하기를 ‘귀국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1백~2백명을 되돌려 보내는 데 대해서 1천 석의 쌀로 사례하는 대가로 친다면 귀국에서는 보내기가 매우 쉽고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매우 많은 것은 물론 우리들의 입장도 매우 영광스럽겠다.’고 하니, 유대해 등이 즉시 한에게 고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포로가 된 사람들은 이미 갑군(甲軍)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각자 매매하게 하였으니, 이제 와서 도로 빼앗기는 사세상 매우 곤란하다. 각기 그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가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신들이 우거하고 있는 곳에 몰려와서 날마다 울부짖으며 통곡하였는데 차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들이 사사로이 가지고 간 말과 한에게서 받은 인삼을 팔아 각각 두 명을 샀고 또 일행



의 원역(員役)들로 하여금 각각 한 사람씩을 사게 하여 모두 22명을 사서 동행하여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혹 부모 형제가 없어 귀의할 데가 없다고 하므로 우선 사가지고 온 사람에게 맡겨놓고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속환인(贖還人)들이 개시하는 곳에 도착한 자가 4백~5백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는 부모 형제가 없는 사람이 많아 사올 수 없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헛되이 도로 돌아가게 한다면 이는 보기에만 참담하고 측은할 뿐만이 아니라 쇠환하는 길이 이로부터 끊기게 되고, 개시의 본의도 또한 허망한 데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용골대 등이 8명의 장관을 거느리고 와서 개시를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고 데리고 온 사람도 1천여 명이나 됩니다. 이들 군병과 말먹이에 대해 말하기를 ‘오로지 귀국에서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하므로, 신들이 답변하기를 ‘양서(兩西) 지방이 말할 수 없이 판탕되었으므로 그대들도 알다시피 3천 석의 쌀도 준비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허다한 군병과 말먹이를 어떻게 갑자기 판출해 낼 수가 있겠는가?’ 하니, 용골대 등이 답하기를 ‘과거에 귀국에서 중원(中原)과 개시를 할 적에는 소·돼지와 증여한 물품의 숫자가 매우 많았었는데 그렇게 해주기는 바라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람과 말의 먹일 것뿐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이어 저들 나라의 정세에 대해 들었는데, 한이 직접 수만의 병마를 거느리고 서쪽을 향하여 출발했는데 새로 항복한 몽고의 장수를 향도(向導)로 삼아 몽고 지방을 경유하여 곧바로 영원(寧遠)의 북쪽 길로 달려가 엄습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권인록(權仁祿)과 박경룡(朴景龍)은 돌아가지 않을 뜻을 가지고 있기에 신들이 수일 동안 강력히 쟁변하여 가까스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의 글과 예물 단자의 물목(物目)을 등서하여 올려 보냅니다.”

하였는데, 이를 비국에 내렸다.

## ▶ 18권 6년 3월 3일 甲子

甲子/虜中回答官朴蘭英、李灤等馳啓曰：“臣等與義州府尹嚴愷，過江往見龍骨大、所頭里兩將，則高聲作色曰：‘俺等到此，貴國頓無供饋之意，暴露風雨，軍馬飢餓，兩國相好之意安在？且聞商賈來者，不滿三十人，而牛則不來云，以何物貨交易乎？’當送數十差人，先往義州、安州、平壤等地，說此曲折，而監、兵使亦不從，則仍詣京城，先得牛數百頭、三千軍馬一月糧然後，庶免餓死之患’云。臣等送言曰：‘俺等携商賈，來待市上，而爾久不來，是則非吾失期，爾實背約，更勿歸咎。’即欲乘船，龍胡率三十餘騎馳來。臣等亦下船會坐，更論交易之事，多發不遜之言矣。”

오랑캐 땅에서 회답관(回答官) 박난영(朴蘭英)과 이란(李)이 치계하였다.

“신들이 의주부윤(義州府尹) 엄황(嚴愷)과 함께 강을 건너가서 용골대(龍骨大)와 소두리(所頭里) 등 두 장수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두 장수가 화난 기색을 띠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곳에 도착하였는데도 그대 나라에서는 도무지 공궤(供饋)할 뜻이 없어서 비바람에 시달리게 하고 군마(軍馬)를 굶주리게 하고 있다. 그러니 두 나라가 서로 잘 지낸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다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또 들으니 이곳에 온 장사꾼들이 30명도 채 못 되며 소는 아예 오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무슨 물화를 가지고 교역하려는 것인가? 먼저 수십 명의 차인(差人)을 의주(義州)와 안주(安州) 및 평양(平壤) 등지에 보내어 이러한 곡절을 상세히 말하겠다. 그런데도 감사나 병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경성(京城)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하여 우선 소 몇 백 마리와 3천 군마가 한 달 동안 먹을 만큼의 군량을 얻은 다음에야 굶어 죽을 걱정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장사꾼을 데리고 와서 시장에서 기다렸는데, 너희들이 오래도록 오지 않았으니, 이는 우리가 날짜를 어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날짜를 어긴 것이다. 다시는 우리 측에다 허물을 돌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배에 오르려 하자 용골대가 30여 기를 거느리고 달려왔습니다. 이에 신들도 배에서 내려 회좌(會坐)하여 다시 교역에 관한 일을 논의하였는데, 불손한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 ▶ 18권 6년 6월 11일 庚子

公淸道淸州民家, 雌牛產犢, 前脚之間, 又生一脚. 變怪非常, 本道以聞.

공청도(公淸道) 청주(淸州)의 민가에서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앞다리 사이에 또 다리 하나가 있었다. 비상한 변괴여서 본도가 아뢰었다.

### ▶ 19권 6년 9월 22일 己卯

濟州民人等納牛馬, 上命隨其多寡, 或除職、或免役, 納布木者, 給復.

제주(濟州)의 민(民)·인(人) 등이 소와 말을 바치니, 상이 그 많고 적음에 따라 제직(除職)하거나 면역(免役)해 주도록 할 것과 포목을 바친 자는 급복(給復)해 주도록 명하였다.

### ▶ 19년 6년 12월 3일 己丑

句管所堂上韓汝漫、李景稷啓曰: “臣等設下馬宴, 龍差語從胡曰: ‘厚待如此, 可以盡醉’ 云. 臣等曰: ‘自上明當招見矣.’ 仲男語臣曰: ‘使臣去時, 汗自設宴. 今差人等亦宜賜宴.’ 臣等以舊例不同, 答之, 則仲男曰: ‘例雖如此, 而差人必以上前賜宴爲榮矣.’ 臣等以不可開例之意言之. 且因譯官聞之, 則龍胡語二差曰: ‘君等於禮貌時, 不從俺所爲, 以致錯誤見笑之弊, 今可預習.’ 三胡閉戶習禮云.” 胡差要見原昌君、朴蘭英兄弟及金摺、朴惟健、吳信男、姜弘立之子, 上竝令相見. 胡差索牛太急曰: “我國則厚待使臣, 今何愛一牛?” 上令日給一牛, 而又加給猪、羊. 胡差又求鷹子, 上命擇大鷹給之

구관소(句管所) 당상 한여직(韓汝)과 이경직(李景稷)이 아뢰기를,

“신들이 하마연(下馬宴)을 베풀었더니 용차(龍差)가 종호(從胡)에게 말하기를 ‘이토록 후 대해 주니 실컷 취할 수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상께서 내일 부르실 것이다.’하니, 중남(仲男)이 신에게 말하기를 ‘사신이 가면 한(汗)은 잔치를 베풀니, 이번 차인(差人)들에게도 사연(賜宴)해야 한다.’ 하기에, 신들이 ‘구례(舊例)와는 다르다.’고 대답하자, 중남이 ‘전례는 그렇더라도 차인은 필시 상의 앞에서 사연해 주는 것을 영화롭게 여길 것이다.’ 하기에, 신들이 새로운 관례를 만들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역관을 통하여 들으니, 용호(龍胡)가 두 차인에게 ‘그대들은 예모(禮貌)를 차릴 적에 내가 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잘못해서 웃음거리가 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미리 예습을 해야 한다.’ 하고, 세 호인이 문을 닫고서 예를 익히더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호차가 원창군(原昌君) 박난영(朴蘭英) 형제와 김진(金摺), 박유건(朴惟健), 오신남(吳信男), 강홍립(姜弘立)의 아들을 보기 원하므로, 상이 모두 만나도록 하였다. 호차가 쇠고기를 급히 찾으면서 “우리나라는 사신을 후대하는데, 지금 어찌하여 소 한 마리를 아끼는가?” 하므로, 상이 하루에 소 한 마리씩 지급하도록 하고, 또 돼지와 양고기까지 더 주도록 하였다. 호차가 또 매[鷹]를 요구하자, 상이 큰 매로 골라서 주라고 하였다.

## ▶ 20권 7년 4월 14일 己亥

文川郡民家牛，一產三犢.

문천군(文川郡) 민가에서 소가 한꺼번에 세 마리의 송아지를 낳았다.

## ▶ 21권 7년 8월 29일 辛巳

廟堂請加給空名帖于關西列邑，以爲明春屯田農牛賃用之資，上曰：“空名帖濫用未妥，不必加給.”

묘당이 관서(關西) 여러 고을에 공명첩(空名帖)을 더 발급하여 내년 봄 둔전(屯田)할 때에 농우(農牛)를 살 자금으로 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일렀다.

“공명첩을 남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니, 더 발급할 필요가 없다.”

## ▶ 21권 7년 9월 2일 癸未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胡差往來時，牛馬及兵器等物私鬻者，論以潛商律。

호차(胡差)가 왕래할 때 우마(牛馬) 및 병기 등 물품을 사사로이 판자를 잠상율(潛商律)로 논했다.

### ▶ 21권 7년 11월 20일辛丑

辛丑/假都事韓得福，押來北道移配罪人張世哲、陳命生等，十八日到狼川縣，陳命生密納諺書於都事，乃告變書也。其書曰：罪人梁景鴻，與投胡人梁繼賢，爲逆謀云。

遂拿陳命生、梁景鴻等鞫之。命生供稱：“與景鴻初不相識。潼關充軍出身盧敦武，來傳景鴻欲見之意，蓋謫居罪人進士李克揆，與景鴻相切，常言：‘汝是壯士，故欲見之矣。’厥後李克揆來見，亦言：‘景鴻聞汝有義氣，欲與相見’云。臣答云：‘吾雖有義氣，景鴻以何故欲見乎？吾方在安置中，又何能往來耶？’克揆曰：‘汝非士夫，往來近地，有何所妨？’上年冬，臣往索南草於景鴻，則景鴻欣然相接曰：‘何相見晚也？吾欲從容談話。’今年春又往見之，則景鴻屏去其妾，仍與之同寢，付耳言曰：‘柔遠人梁繼賢，乃吾姓親，而相切者。因此人得聞虜中消息，已使繼賢，通于虜中，不久當有回答矣。賊若來山北，則吾欲導賊前去。汝無戰馬，則當以兩牛，助爾馬價。’仍拔劍擊窓曰：‘吾有此寶劍，可殺一人。’臣答云：‘賊是犬羊，今雖投入，何能免於死乎？’景鴻曰：‘此虜若來山北，則卽當通告於汝。’厥後，聞有罪人移配之舉，往見張世哲，則任器之亦在座。臣問曰：‘移配之舉，是何事耶？’世哲曰：‘虜中有投書之變，吾輩皆危矣。若不知耶？’臣始覺景鴻前日之言，而衆中，不敢發言。大概梁繼賢，或稱繼仁。本以柔遠人，兒時被擄，隨者胡頻頻往來者。景鴻以此亦言於罪人崔拜善，故今番移配之後，拜善亦甚憂慮云。”

이하생략~

가도사(假都事) 한득복(韓得福)이 북도에 이배(移配)된 죄인 장세철(張世哲)·진명생(陳命生) 등을 압송해 오면서 18일 낭천현(狼川縣)에 당도하자, 진명생이 언서(諺書)로 된 서찰을 도사에게 몰래 바쳤는데 이는 곧 고변서(告變書)였다. 그 글 속에 “죄인 양경홍(梁景鴻)이 호(胡)에 투항한 양계현(梁繼賢)과 더불어 역모하였다.” 하였으므로, 드디어 진명생·양경홍 등을 잡아다가 국문하였다. 진명생이 공초하기를,

“양경홍과는 당초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동관(潼關)에 충군(充軍)된 출신 노돈무(盧敦武)가 와서 양경홍이 만나자는 뜻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귀양 사는 죄인 진사(進士) 이극규(李克揆)가 양경홍과 절친한데 항상 네가 장사(壯士)라고 말하였으므로 만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 이극규가 와서 역시 ‘양경홍이 네가 의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서로 만나고자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내 비록 의기가 있기로소니 양경홍이 무엇 때문에 만나려 하는가? 내가 지금 안치(安置) 중에 있는데 또 어찌 왕래할 수 있겠는가?’ 하였더니, 이극규가 말하기를 ‘너는 사부(士夫)가 아닌데 가까운 곳을 왕래하는 데

무슨 방해가 있겠는가?’하였습니다.

작년 겨울 신이 양경홍에게 가서 남초(南草)를 구하였는데, 양경홍이 흔쾌히 만나 주면서 말하기를 ‘서로 만나기가 어찌 이리 늦었는가? 내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금년 봄에 또 가서 만났는데, 양경홍이 그의 첩을 내보내고 함께 자면서 귀에 대고 말하기를 ‘유원(柔遠)에 사는 양계현은 곧 나의 일가로서 절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 오랑캐 내부의 소식을 듣고 있다. 벌써 양계현을 시켜 오랑캐에게 통보하였으니 오래지 않아 의당 회답이 올 것이다. 그들이 만약 산북(山北)에 오면 내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려고 한다. 너에게 전마(戰馬)가 없으면 두 마리의 소(牛)를 너의 말 값으로 보태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이어 칼을 빼어 창문을 치면서 말하기를 ‘나에게 이 보검(寶劍)이 있으니 한 사람은 죽일 수 있다.’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오랑캐들은 짐승 같은 놈들이니 지금 비록 투항하더라도 어찌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는가?’ 하였으나, 양경홍이 ‘오랑캐가 산북에 올 것 같으면 즉시 너에게 통고하겠다.’ 하였습니다. 그 뒤 죄인을 이배(移配)시키는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장세철을 가서 만났는데, 임기지(任器之)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이 묻기를 ‘이배를 한다는 일은 무슨 일인가?’ 하였더니, 장세철이 말하기를, ‘오랑캐에게 투서(投書)한 번이 있어 우리가 모두 위태롭게 되었으나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양계현은 양계인(梁繼仁)이라고도 하는데 유원 사람으로 어릴 때 포로가 되어 자호(者胡)를 따라 빈번하게 왕래하던 자입니다. 양경홍이 이로써 죄인 최배선(崔拜善)에게도 말하였으므로 이번 이배된 뒤에 최배선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하였다.

이하생략~

## ▶ 24권 9년 2월 2일 丙午

丙午/胡差仲男, 持汗書來, 要開市於龍灣. 時, 春信使朴蘭英已向瀋陽. 備局啓曰: “開市之後, 更無此言, 而卒有是請. 若或隨而出來, 責我以失其期限, 則必有難處之患. 今以國書付胡譯, 偕仲男入送瀋陽, 且以興治出沒, 島貨不通, 今雖開市, 必不如前之意, 書諸別紙, 密傳於蘭英, 使之周旋爲便.” 上從之. 又啓曰: “汗書大旨, 不過會寧借米、江上開市兩款而已. 彼舉義州給米之事, 隱然有望報之意, 若只許交易, 則彼必落莫, 而亦不無執以爲例之患, 不如白給之爲愈. 至於江上, 則一番開市之後, 只許買賣於往來差人之行, 今者卒有此請者, 必有所以. 似難一切防塞, 以貽日後難處之患. 宜以兩國通和, 有急當救, 而但北方人民稀少, 加以連歲凶荒, 公私竭乏. 分付會寧官, 量給米穀, 以濟其急. 春秋開市, 雖是原約, 我國商賈, 率多負乏, 且灣市買賣之不利, 已驗於前日, 而春秋信使之行, 買賣無異於開市. 今雖督令入去, 必無肯從者. 況耕牛則經亂之後, 孳息未蕃, 二月之期, 亦甚迫切, 竝須商量之意, 令承文院措辭修答, 俾無仲男久留之弊.” 從之.

호차(胡差) 중남(仲男)이 한(汗)의 편지를 가지고 와 용만(龍灣)에 개시(開市)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때 춘신사(春信使) 박난영(朴蘭英)은 이미 심양(瀋陽)으로 떠난 뒤였다. 비국이 아뢰기를,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개시한 뒤로 다시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요청을 해 왔습니다. 혹시라도 저들이 뒤따라 나와 우리에게 기한을 어겼다고 따진다면 필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니, 지금 바로 국서(國書)를 만들어 호역(胡譯)에게 부쳐 주고 중남과 함께 심양으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치(劉興治)가 출몰하여 가도와 물화(物貨)를 통할 수 없으니 지금 시장을 열더라도 필시 전처럼 할 수는 없다.’는 내용을 별지에 써서 은밀히 박난영에게 전하여 주선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한(汗)이 보낸 편지의 대체적인 내용은 회령(會寧)의 미곡을 빌려 달라는 것과 강상(江上)에서 개시(開市)하자는 두 조목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이 의주에서 쌀을 주었던 일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은연중에 보상을 바라는 의도가 있는데 만약 교역만 허락한다면 필시 실망할 것이고 또 이것을 트집 잡을 구실로 삼을 염려도 없지 않으니, 차라리 쌀을 그냥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강상에 개시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한번 개시한 뒤로는 단지 왕래하는 차인 일행에게만 매매를 허락하였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런 요청을 해 온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저들의 요청을 일체 거부함으로써 후일 난처한 환란이 있게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따라서 마땅히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은 이상 위급할 때에는 서로 구조해야 한다. 다만 북쪽 지방은 인민이 적은데다가 해마다 계속 흉년이 들어 공사(公私)간에 고갈된 상태이다. 그러나 회령 고을에 분부하여 미곡을 적당량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급함을 구제하도록 하였다. 봄과 가을에 개시(開市)하기로 원래 약속을 하였지만 우리나라 상인들이 대부분 물자가 빈약할 뿐더러 용만에서 시장을 열어 매매를 하는 것이 이롭지 않다는 것은 이미 전날 경험했던 일이다. 그리고 춘신사(春信使)와 추신사(秋信使) 일행과 매매하는 것도 개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 비록 상인들을 독촉하여 그곳에 들어가라 하더라도 필시 그 말에 따르려 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농우(農牛)의 경우는 난리를 겪은 뒤로 제대로 번식이 되지 않았는데, 2개월간의 기한은 또한 너무도 촉박하다. 이러한 점을 부디 모두 헤아려 달라.’는 내용으로 승문원으로 하여금 말을 꾸며 답서를 만들게 해서 중남이 오래 머물러 있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 25권 9년 9월 5일 丙子

羅州民家牛産雌犢，一項兩頭、四耳四目、兩口兩鼻

나주(羅州) 민가에서 소가 암송아지를 낳았는데, 목이 하나에 머리가 둘, 귀가 넷, 입이 둘, 코가 둘이었다.

### ▶ 25권 9년 윤11월 23일 壬戌

體察使金時讓, 請以體府軍需米穀、靑布、銀貨等物, 移送於戶曹, 各樣軍器, 則移送于軍器寺; 濟州馬及諸處牧場馬之或分給將士, 或分養於各官者, 亦皆移送太僕; 丁卯以後, 各道農牛之入送兩西者, 並令太僕句管; 且府下待變軍官, 自前有給料之事, 軍需之用, 亦不可闕, 請以米一千石、豆一百石、木五十同、靑布一千桶、銀子二千兩, 仍爲留置, 以備不時之需; 人蔘二百斤在平壤, 亦且仍留本府, 貿販島中, 取爲軍需之用, 答曰: “本府仍前句管可也.”

체찰사 김시양(金時讓)이 아뢰기를,

“체부(體府)의 군수품인 미곡·청포(靑布)·은화(銀貨) 등의 물건은 호조로 이송하고, 각종 군기(軍器)는 군기사로 이송하고, 제주의 말 및 여러 곳의 목장에 있는 말로써 장사(將士)에게 나누어 주었거나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도록 한 말도 모두 태복(太僕)으로 이송하고, 정묘년 이후로 각 도의 농우(農牛)를 양서(兩西)에 들여보낸 것도 아울러 태복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소서. 그런데 부(府)에 소속된 대변 군관(待變軍官)에게는 전부터 요미(料米)를 지급하는 일이 있었고 군수에 필요한 비용도 빠뜨릴 수 없으니, 쌀 1천 석, 콩 1백 석, 무명 50동(同), 청포 1천 통(桶), 은자 2천 냥을 그대로 놔두어 불시의 수요에 대비하도록 하고, 평양에 있는 인삼 2백 근도 본부에 그대로 두어 섬과 무관(貿販)하여 군수의 비용으로 삼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본부가 그전처럼 관리하도록 하라.”하였다.

## ▶ 26권 10년 3월 29일 丙寅

丙寅/胡差狼革, 率從胡百七十人, 馬百餘匹, 稱以刷還六鎮蕃胡之隱匿者及開市會寧事, 持汗書出來, 多般侵責. 有胡譯梁戒玄者, 柔遠鎮土兵梁士卜之子也. 乙丑被擄, 戊辰逆變時, 交結梁景鴻, 投凶書於虜中, 至是隨狼革出來, 知其父被戮, 陰囑諸胡, 種種生梗, 而又請見其父母、妻子, 北兵使金俊龍馳啓以聞. 汗書曰:

金國汗, 致書朝鮮國王. 會寧交市及索隱匿金人, 前已對差官鄭楹說道. 今差去會寧督市金官狼革, 帶領官使二十二人, 買賣人數, 難以預定. 其差官供給, 自有舊例, 其買賣人等食糧、草料, 亦使不宜缺也. 貴國商人, 來臨藩地, 例已供給, 我國商人, 到貴境與義州, 亦蒙供給. 今會寧亦係王地, 此去商人, 均係我人, 供給之例, 自不得岐而二之也. 市中牛價, 宜照義州例, 布價每匹, 增銀五分. 貴地隱匿金人花名, 已詳開後, 祈照數查發. 然得知者止此耳, 其不知者, 諒必有也, 如果有之, 終難秘之. 王于兩國之好, 欲無瑕疵, 宜存忠恕, 盡行搜括可也.

狼革之請刷人口五十餘, 牛畜、雜物甚多.

호차(胡差) 낭혁(狼革)이 따르는 호인(胡人) 1백 70인, 말 1백여 필을 거느리고 6진(鎭)에 숨은 번호(蕃胡)를 쇄환하는 일 및 회령(會寧)에서 개시(開市)하는 일을 청탁해 한(汗)의 글을 지니고 나와 갖가지로 침책(侵責)함이 많았다. 호역(胡譯)에 양계현(梁戒玄)이란 자가 있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는데 유원진(柔遠鎭) 사병(士兵) 양사복(梁士卜)의 아들이다. 을축년에 포로가 되고 무진년 역변(逆變) 때 양경홍(梁景鴻)과 교결하여 노중(虜中)에 홍서(凶書)를 보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낭혁을 따라 나와 그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는 은밀히 여러 호인에게 부탁해 갖가지로 트집을 잡았다. 또 그 부모처자 만나보기를 청하자 북병사(北兵使) 김준룡(金俊龍)이 치계하여 보고했다. 한(汗)의 글에 이르기를,

“금국(金國)의 한은 조선국왕(朝鮮國王)에게 글을 보냅니다. 회령의 교시(交市) 및 숨어 있는 금나라 사람을 찾는 일은 전에 이미 차관(差官) 정익(鄭)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회령독시(督市) 금나라 관원 낭혁을 차출해 보내면서 영관사(領官使) 22인을 팔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매인의 숫자는 미리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차관에 대한 공급(供給)은 스스로 구례(舊例)가 있고, 그 매매인들에 대한 식량과 초료(草料) 역시 부족하지 않게 해야 마땅합니다. 귀국의 상인(商人)이 심양(瀋陽) 땅에 오면 으레 이미 공급하였으니, 우리나라 상인이 귀국 경계와 의주(義州)에 도착하면 역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회령은 왕의 땅이며 지금 가는 상인은 모두 우리나라 사람이니, 공급하는 예를 두 갈래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시중(市中)의 소 값은 의주에 예에 비추어 하고, 배 값은 매필당 은(銀) 5푼(分)을 더하게 합니다. 귀지(貴地)에 숨은 금나라 사람 화면(花名)은 이미 자세히 개록(開錄)한 후 숫자를 조사해 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알아낸 자가 이것뿐입니다. 모르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만일 참으로 있다면 끝까지 숨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왕께서는 두 나라의 우호에 흠이 없게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충서(忠恕)를 두어 모조리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낭혁이 쇠환하기를 청한 사람은 50여 인이며 우축(牛畜)과 잡물이 매우 많았다.

### ▶ 27권 10년 9월 17일 壬子

胡譯權仁祿，自虜中，持汗書還。其書曰：

會寧逃民，原係約和前事，然我兩國，原無罅隙，原無兵戈，誠和睦與國也。其後貴國，助兵南朝，侵凌我國，我何嘗先啓其釁？此事乃貴國所諱者，而豈意尙言及耶？

又云：

自差庫兒父之先，置而不索，其後逃者查送，此言誠有之。向因貴國容毛文龍在彼，蹂躪我邊陲，招納我亡命，我蓄怒積憤。以故，兵及貴國，擄掠人民。後許置而不索者，乃貴國逃民，豈曾言我國金人骨肉連屬者，置而不索乎？

又云：

北邊地苦寒，民無生業，喫瞿麥、衣狗皮，不與交易，終致空回。先日兀刺汗、卜占台，搶掠貴地，後來講和，年年進貢，月月開市，牛布諸物，無所不有，我極東住民，亦常相與交易。何與伊通市者偏有，與我通市者偏無耶？王意，無乃謂“耕種牛隻市之，而我國得以足食，精細貨物市之，而我國得以足用。”嫉之而故斬之耶？予仗皇天福庇，西夷來附，其國本蕃息之區，牛馬諸畜，業已足用。且我國牛隻，亦自蕃息，豈止貴國牛隻生育，而我國牛隻不生育耶？未知市之前，我國何嘗不以牛耕耶？但我兩國，既相和好，彼此交易，通其有無，盡忘間隙，欲享太平，豈專賴貴國衣食之也？書中來意，率多強辯飾非，



不循道義，朦朧支吾，務工口吻，予欲與王角舌，有何底止？王宜從公自揣，有理者折服、遜讓可也。若徒事筆舌，予亦艱于應答矣。近聞修築樓臺城垣，自古來，不知險足恃耶，德足恃耶？諒王自明知也。若不修德而睦隣，雖秦皇萬里長城，竟何益哉？祇足以資後來之他人耳。

호역(胡譯) 권인록(權仁祿)이 오랑캐 내부로부터 한서(汗書)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글에 말하기를,

“회령(會寧)에서 도망 온 백성들은 원래 화친 맺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두 나라가 원래 틈이 없고 원래에 전쟁이 없었으니 참으로 화목한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귀국(貴國)이 남조(南朝)에 군사를 도와 우리나라를 침략하였지, 우리가 어찌 일찍이 그 틈을 먼저 열었습니까. 이 일은 바로 귀국이 숨겨야 할 것인데, 어찌 오히려 언급할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고아예(庫兒父)를 차견하기 이전의 것은 그냥 놔두고 찾지 아니하고 그 뒤로 도망은 사람만 조사하여 돌려보내겠다는 말은 참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날 귀국이, 모문룡(毛文龍)이 거기에서 우리 변방을 유린하게 하고 우리의 망명객(亡命客)을 불러 들이게 놔두므로 인하여 우리의 분노가 쌓였습니다. 이 때문에 귀국에게까지 병화가 미쳐 인민들을 노략하였는데 뒤에 그냥 놔두고서 찾지 말도록 한 것은 바로 귀국에서 도망은 백성들입니다. 어찌 우리나라 금인(金人)의 겨레붙이들을 그냥 놔두고 찾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북쪽 변방 지역이 몹시 춥기 때문에 백성들이 생업이 없어 구맥(瞿麥)을 먹고 개가죽을 입어, 더불어 교역하지 않으면 마침내 빈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일에는 울랄한(兀剌汗) 북점태(卜占台)가 귀국 땅을 노략질하다가, 뒤에 강화(講和)하여 해마다 공물(貢物)을 바치고 다달이 시장을 열어 소·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없는 것이 없었으므로 우리 극동(極東) 주민들 역시 항상 서로 교역하였습니다. 어찌 저 명(明)나라와만 시장을 유통하고 우리와 시장을 유통한 적이 없겠습니까. 왕의 생각에는 아마 농우를 팔면 우리나라가 먹을 것이 풍족해질 수 있고, 정세한 화물(貨物)을 팔면 우리나라가 재물이 풍족해질 수 있다고 하여, 그것을 질투하여 일부러 교역을 인색하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늘의 복을 받아 서쪽 오랑캐가 귀속했는데, 그 나라는 본디 가축이 번성한 구역이므로 소·말 여러 가축들을 이미 넉넉히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소도 잘 번식되고 있는데 어찌 귀국의 소만 낳아서 자라고 우리나라 소는 낳아서 자라지 않겠습니까. 무역을 하기 전부터 우리나라가 어찌 일찍이 소로써 발같이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우리 두 나라가 이미 서로 화친하여 사이가 좋아졌으니, 피차간에 교역하여 그 있고 없는 것을 유통하여 틈을 다 잊어버리고 태평을 누리고자 한 것이지, 어찌 오로지 귀국에 힘입어 웃입고 밥먹으려는 것이겠습니까. 글 중에 뜻이 대부분 억지로 변론하여 잘못을 알버무려 도의를 따르지 않고 어물어물 버티어 말을 교묘히 하려고 힘쓰니, 내가 왕과 더불어 말을 거론다면 어찌 그칠 날이 있겠습니까. 왕은 마땅히 공도(公道)를 따라 스스로 헤아려 보아 도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굴복하여 겸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만 필설(筆舌)만을 일삼는다면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나도 역시 응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요사이 듣건대 누대(樓臺)와 성을 수축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예로부터 험준함이 믿을 만한 것입니까, 덕이 믿을 만한 것입니까? 생각건대 왕은 스스로 분명히 잘 알 것입니다. 만약 덕을 닦아 이웃 나라와 화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진시황(秦始皇)의 만리장성일지라도 결국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만 뒷날의 다른 사람만 도와 줄 뿐입니다.”

하였다.

### ▶ 27권 10년 11월 19일 癸丑

備局啓曰：“昨日禮單物種書示之數，果似略少，渠心必懷落莫。若以此歸報於汗，仍吐其不平之懷，則汗之怒必倍，恐非所以羈縻之計也。臣等之意，前日書啓單子內，付標之數，竝令還存。令句管所堂上，乘夕入見曰：‘昨日所定禮單之數，朝廷既已議定。其中木綿，則厥數過多，不得不減，水牛角則元非土產，固難備送，其餘雜物，悉依原數送之’云，則渠望外得此，其喜幸之心，必倍於初頭，快許矣。”答曰：“依啓。其中倭劍，亦非所產，勿加其數。”句管所啓曰：“臣等入見金差，具言禮單加定之數，則渠等喜動顏色。臣等又以三處宴享，優待隣國大官之意言之，則頗亦欣喜，而所道里猶且以只許三處爲不快，費辭相辨。臣等又言：‘自今以後，禮單馱載之數頗多，貴國必於恬水站，調發車輛，替代我國刷馬，可免顛損之患，此亦不可不預定’云，則答曰：‘此非難事，勿以爲慮’云。”

비국이 아뢰기를,

“어제 예단(禮單)에 물종(物種)을 써서 보여준 수효는 과연 약소한 듯하니 그들이 필시 실망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가지고 한(汗)에게 돌아가 보고하면서 아울러 자기들의 불만족스러운 심사를 쏟아내게 되면, 한의 노여움이 필시 배가 될 것이니, 기미(羈)하는 계책이 아닌 듯싶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전일 서계(書啓)한 단자(單子) 안에 부표(付票)했던 수효도 함께 도로 남겨두게 해서 구관소의 당상으로 하여금 밤을 틈타 그들을 찾아가 ‘어제 정한 예단의 수효는 우리 조정이 벌써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목면(木棉)은 수효가 너무 많아 감하지 않을 수 없고 물소뿔[水牛角]은 원래 토산(土產)이 아니라서 진정 갖추어 보내기 어려우나, 그 밖의 잡물(雜物)은 모두 원래의 수효대로 보내겠다.’라는 내용으로 말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가 뜻밖에 이것을 얻고 기뻐하는 마음이 필시 처음보다 곱절로 불어나 쾌히 허락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 가운데 왜검(倭劍)도 토산(土產)이 아니니, 수효를 늘리지 말라.”

하였는데, 구관소가 아뢰기를,

“신들이 금차(金差)를 찾아가 예단을 늘려 정한 수효를 갖추어 말했더니, 그들이 기쁜 안색을 지었습니다. 신들이 또 세 군데에서 연향하여 이웃 나라의 대관을 우대하겠다는 의사를 말했더니, 역시 꽤나 좋아하였는데, 소도리(所道理)는 여전히 겨우 세 군데만 허락하느냐

고 불쾌하게 여겼으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며 서로 변론하였습니다. 신들이 또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예단을 신게 될 짐의 수효가 꽤 많아질 것인데, 귀국에서 반드시 침수참(聃水站)에다 차량(車輛)을 조발(調發)하여 우리나라의 쇄마(刷馬)와 교체시켜야 전복되는 걱정을 면할 수가 있으니, 이 점도 미리 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더니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 염려하지 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 29권 12년 2월 27일 甲申

甲申/咸鏡道安邊府人家, 牛産三犢, 雄二、雌一.

함경도 안변부(安邊府)의 민가에서 소가 세 마리의 송아지를 낳았는데, 숫컷이 둘, 암컷이 하나였다.

▶ 29권 12년 2월 28일 乙酉

乙酉/咸鏡監司李溟馳啓曰: “差胡率商胡七十八人, 來到會寧言: ‘兩國別遣大官, 皆會於此, 接待不可踈懈.’ 每日責出一牛, 而意在於刷還胡種. 膽取所齎書, 上送矣.” 備局回啓曰: “汗書既抵會寧, 則朝廷不必修謝. 令監、兵使同議, 構書以答, 爲得體.” 上從之.

함경감사 이명(李溟)이 치계하기를,

“차호(差胡)가 상호(商胡) 78인을 데리고 회령(會寧)에 와서 말하기를 ‘두 나라가 특별히 대관(大官)을 보내어 모두 이곳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접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날마다 소 한 마리씩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들의 뜻은 호종(胡種)들을 쇄환하려는 것인데, 가지고 온 서신을 등서하여 올려 보냅니다.”

하였는데, 비국이 회계하기를,

“한(汗)의 서신이 이미 회령에 당도했으면 조정에서 답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글을 만들어 답하게 하는 것이 체모일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30권 12년 8월 20일 癸酉

咸鏡監司閔聖徽辭朝, 上召見之謂曰: “卿今受重任, 將行矣. 必有可言之事, 其悉陳焉.” 聖徽對曰: “臣素乏才能, 屢蒙寵擢, 今荷重寄, 恐負國恩.” 上曰: “本道自祖宗朝以來, 民物殷富, 而近甚凋殘, 何以則可能復古耶?” 聖徽曰: “竊聞自前朝廷優恤之典, 倍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於他道，賦役有所蠲減，牛馬亦多救貸。且南軍入防，則米布奇羨，有所相資，居民賴以保存。今無軫恤之舉，且無入防之兵，故民無所資，不能聊生矣。且道內察訪，必得如李命俊者然後，可以彈壓，而今不擇送矣。”上曰：“察訪雖遣名官，若不盡職則無益，且無與於守令之賢否，惟在卿嚴明其黜陟也。頃見咸興判官金渠上疏，軍政之疏漏如此，雖內地，亦不可支。況本道，乃邊上待變之地乎？卿須盡瘁，毋替乃事。且國家刷還之舉，意非偶然，而今無其實，亦宜明白檢飭，一一馳啓。”聖徽曰：“邊邑無魚膠，弓矢之造，皆用阿膠，箭竹亦非北邊所產。該曹所儲魚膠及軍器寺所藏箭竹，敢請賜給。”上竝令給之。

함경감사 민성휘(閔聖徽)가 사조(辭朝)하였다. 상이 불러 보고 이르기를,

“경이 지금 중임을 받고 떠나려는 참이니 반드시 말할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모두 진달 하도록 하라.”

하니, 성휘가 대답하기를,

“신은 본래 재능이 부족한데도 누차 총애를 받아 발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중책을 맡으니 국운을 저버릴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본도는 조종조 이후로 백성과 물자가 풍부하였는데 근래에 와서 매우 피폐해졌다. 어떻게 하면 옛 시절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니, 성휘가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본도에 대해서는 전부터 조정의 돌보는 은전이 타도보다 배나 되었고 부역을 덜어 주었으며 우마(牛馬)도 많이 빌려 주었다고 합니다. 또 남쪽의 군사들이 입방(入防)하면 남은 미포(米布)로 서로 보탬을 주어 백성들이 그 덕택으로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휼하는 은전도 없고 방수에 입방하는 군사도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기반이 없어져 생활을 꾸려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의 찰방은 반드시 이명준(李命俊)과 같은 인물을 얻어야만 제어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인물을 가려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찰방을 아무리 명관으로 보내더라도 직책에 충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고 수령의 현부(賢否)와도 상관이 없다. 오직 경이 그들의 출척을 엄격하고 분명하게 하는 데 달려 있다. 지난번에 함흥 판관 김수(金)의 상소를 보건대 군정(軍政)이 그토록 허술하여서는 비록 내지(內地)라 하더라도 지탱하지 못할텐데, 더구나 본도는 국경지대로서 변란을 대비해야 할 지역인데 이겠는가? 경은 부디 심력을 다하여 잘못됨이 없게 하라. 또한 국가가 쇄환(刷還)하는 일은 그 의도가 범연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적이 없으니 그 일도 명백히 검척하여 낱낱이 치계(馳啓)하라.”

하였다. 성휘가 아뢰기를,

“변읍(邊邑)에는 어교(魚膠)가 없어 활과 화살을 만드는 데 모두 아교(阿膠)를 쓰고 있으며 전죽(箭竹)도 북쪽 변방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조가 저축해 둔 어교와 군기시가 소장하고 있는 전죽을 내려 주소서.”

하니, 상이 모두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 31권 13년 2월 29일 庚戌

庚戌/水原地雌牛生子，一身兩頭、兩口、兩耳、兩目。

수원 지역에서 암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하나의 몸통에 머리·입·귀·눈이 둘이었다.

▶ 31권 13년 7월 14일 壬戌

常平廳啓曰：“用錢乃天下萬古通行之法，而本國二百年所無之事，故人情不慣於耳目。且從前國法，不能見信於民，如大同、號牌等事，旋設旋罷。故雖有心知用錢之利者，亦慮其終必不行，疑信相半。以此，愚下之民，不即趨令。麗朝所以告宗廟者，實示民以信之義也。今當堅定力行，以示必可行之勢，如有沮閣之浮議，斷以亂法之律，然後庶可行矣。臣等敢以應行若干條，開錄于左，請布告中外。”上從之。其條有六。一曰，凡物貨，有根本之地然後，易可通行。市井人中，聽其自願，別設錢市。二曰，各司、各衙門，徵贖、作紙之處，當初必以錢文奉徵事，啓下已久，而絕不舉行。民不信法，必由於此，自今更令着實舉行。三曰，用錢，必自市上微物爲始。若柴炭、蔬菜等物，必令以錢換買，五部、平市等處，着實分付。四曰、都城及外方私設舖子者，聽其自願。五曰，國中日日貿易，莫如牛馬。都城牛隻換買之價，絕勿用他物，專用錢文，而如有私以他物論價者，請自本廳，時出禁令，摘發冒法者，徵贖錢文。六曰，自京城至八道直路各官，必設舖子，以爲用錢之地，而守令視之尋常，不即着實舉行，使愚民不信國法，事甚非矣。此後無得玩愒，着實舉行。

상평청(常平廳)이 아뢰기를,

“돈을 사용하는 것은 천하 만고에 통행하는 법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2백년 이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인정이 보고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 종전에는 국법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를테면 대동법(大同法)이나 호패법(號牌法) 등의 일이 금방 설치되었다가 금방 혁파되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돈을 사용하면 유익하다는 점을 아는 자일지라도 그것이 끝내는 시행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반신반의합니다. 이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곧 명대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고려조에서 종묘(宗廟)에 돈의 사용을 고했던 까닭도 실로 백성에게 신의를 보이기 위한 뜻이었으니, 지금도 마땅히 뜻을 굳게 결정하고 힘써 실행하여 반드시 실행한다는 뜻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역하는 쓸데없는 의논을 하는 자가 있으면, 법을 어지럽힌 율로써 단죄를 해야만 거의 실행되기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신 등이 감히 마땅히 실천해야 할 몇 조목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으니, 이를 중외에 포고(布告)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그 조목은 6조로 되어 있다. 첫째, 무릇 물화(物貨)는 근본이 되는 곳이 있어야 쉽게 통행하는 것이니, 시정인(市井人) 가운데 자원하는 자는 별도로 전시(錢市)를 설치하는 것을 들어준다. 둘째, 각사(各司)와 각 아문(各衙門) 가운데 속전(贖錢)을 받는 곳은 그 수수료를 당초부터 반드시 돈으로 받도록 할 것을 계하(啓下)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전혀 거행하지 않고 있다. 백성들이 법을 믿지 않음이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이제부터는 다시 착실히 거행하도록 한다. 셋째, 돈의 사용은 반드시 저자의 자잘한 물건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땀감이나 숯·야채 등의 물건을 반드시 돈으로 사고 팔게 하도록 오부(五部)와 평시(平市)에 착실히 분부한다. 넷째, 도성과 외방에 점포를 사사로이 내려는 자는 그 원에 따라 들어준다. 다섯째, 나라에서 매일 매매하는 것으로는 우마(牛馬)만한 것이 없으니 도성에서 소를 매매할 때 그 값은 절대로 다른 물건을 쓰지 말고 오로지 돈만을 쓰게 한다. 만약 사사로이 다른 물건으로 값을 따지는 자는 본청에서 때때로 금령(禁令)을 내어 적발하되 법을 어기는 자는 돈으로 징속(徵贖)한다. 여섯째, 경성에서 팔도에 이르는 길 주변에 있는 각 관아에서는 반드시 점포를 설치하여 돈을 사용할 곳으로 삼게 하였는데, 수령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즉시 착실히 거행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국법을 믿지 않게 만들었으니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 뒤로는 느슨히 하지 말고 착실히 거행하도록 한다.

### ▶ 32권 14년 6월 3일 丙子

丙子/備局啓曰: “今者司僕寺, 以木綿一千匹、牛一百頭, 要補西邊賞給之資. 宜別定差官, 送付元帥, 牛則一半分給各邑, 以助刷馬之役; 一半分送各城, 以充犒饋之需.” 答曰: “木綿則給送於試才御史之行, 以爲分賞之資; 牛則給送於承旨之行, 以爲犒饋之需.”

비국이 아뢰기를,

“지금 사복시가 목면 1천 필과 소 1백 두를 서변(西邊)에 상으로 주는 자본으로 보충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니, 따로 차관을 정하여 원수에게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소는, 반은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쇄마(刷馬)의 일을 돕게 하고, 반은 각 성에 나누어 보내어 군사들을 호궤하는 데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목면은 시재어사(試才御史)의 행차에 주어 보내서 상으로 나누어 줄 자본으로 삼게 하고, 소는 승지의 행차에 붙여 보내어 호궤하는 데 쓰게 하라.” 하였다.

### ▶ 33권 14년 9월 21일 壬戌

壬戌/牛疫大熾, 自西而南, 京中死者相繼. 牛價頓賤, 餘存者又先屠殺. 漢城府啓請申明殺牛之禁, 從之.

우역(牛疫)이 치성하여 서쪽에서 남쪽으로 번지고 경성에도 죽는 소가 줄을 이으니 소 값이 갑자기 떨어지고 살아 있는 것은 도살하였다. 한성부에서 소의 도살을 금지하는 법을 거듭 밝히기를 계청하니, 따랐다.

▶ 33권 14년 10월 12일 癸未

癸未/先是，諸道牧子等，以遺失馬微價，幾不能保存，提調李曙，許令牛犢代償，遂多孳息。至是，西路牛疫大熾，十村無一牛。朝廷方議買牛以送，曙請以其牛分送，上嘉之，賜豹皮褥。

이에 앞서 제도(諸道)의 목자(牧子)들이 유실한 말의 대가를 치르느라 거의 살아갈 수 없게 되었는데, 제조(提調) 이서(李曙)가 송아지로 대신 보상하는 것을 허락하여 마침내 크게 번식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서로(西路)에 우역(牛疫)이 크게 치성하여 열 마을에 한 마리의 소도 없었다. 조정이 소를 사서 보낼 것을 의논하였는데, 이서가 그 소를 나누어 보내도록 주청하니, 상이 가사히 여기고 표피(豹皮)로 만든 요를 하사하였다.

▶ 34권 15년 1월 28일 戊辰

龍骨大持汗書來。其書曰：

寬溫仁聖皇帝，詔諭朝鮮國王。來奏，具述二十日之詔旨，憂計宗社、生靈，有明降詔旨，開安心歸命之請者，疑朕食言耶？然朕素推誠，不特前言必踐，併與以後日之維新。今盡釋前罪，詳定規例，以爲君臣世守之信義也。爾若悔過自新，不忘恩德，委身歸命，以爲子孫長久之計，則將明朝所與之誥命、冊印獻納，絕其交好，去其年號，一應文移，奉我正朔。爾以長子及再一子爲質，諸大臣有子者以子，無子者以弟爲質。萬一爾有不虞，朕立質子嗣位。朕若征明朝，降詔、遣使，調爾步·騎、舟師，或數萬、或刻期會處，不得有悞。朕今回兵，攻取椴島，爾可發船五十隻，水兵、槍砲、弓箭，俱宜自備。大兵將回，宜獻犒軍之禮。其聖節、正朝、冬至、中宮千秋、太子千秋及有慶弔等事，俱須獻禮，命大臣及內官，奉表以來。其所進表、箋程式及朕降詔勅，或有事，遣使傳諭，爾與使臣相見，或爾陪臣謁見及迎送、饋使之禮，毋違明朝舊例。軍中俘係，自過鴨綠江後，若有逃回，執送本主。若欲贖還，聽從本主之便。蓋我兵死戰、俘獲之人，爾後毋得不忍縛送爲辭也。與內外諸臣，締結婚媾，以固和好。新舊城垣，不許繕築。爾國所有兀良哈人，俱當刷還。日本貿易，聽爾如舊。但當導其使者赴朝，朕亦將遣使至彼也。其東邊兀良哈避居於彼者，不得復與貿易，若見之，便當執送。爾以既死之身，朕復生之。全爾垂亡之宗社，完爾已失之妻孥，爾當念國家之再造，異日子孫孫，毋違信義，邦家永奠。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矣. 朕因爾國狡詐反覆, 故茲教示. 崇德二年正月二十八日. 歲幣以黃金一百兩、白銀一千兩、水牛角弓面二百副、豹皮一百張、鹿皮一百張、茶千包、水獺皮四百張、青皮三百張、胡椒十斗、好腰刀二十六把、蘇木二百斤、好大紙一千卷、順刀十把、好小紙一千五百卷、五爪龍席四領、各樣花席四十領、白苧布二百匹、各色綿紬二千匹、各色細麻布四百匹、各色細布一萬匹、布一千四百匹、米一萬包爲定式.

瑞鳳等出迎勅書. 龍胡曰: “爾國受南朝勅書時, 儀禮如何?” 瑞鳳曰: “奉勅者南向立, 陪臣跪受矣.” 依此授受後, 龍胡坐東, 瑞鳳等坐西. 龍胡曰: “近日寒甚, 無乃勞乎?” 瑞鳳曰: “賴皇上全生之恩, 得免勞苦.” 龍胡曰: “三田浦已築受降壇. 皇帝自京出來, 明日可行此禮. 面縛、輿櫬等許多節目, 今盡除之矣.” 瑞鳳曰: “國王着龍袍, 當以此服出來乎?” 龍胡曰: “龍袍不可着也.” 瑞鳳曰: “當自南門出來乎?” 龍胡曰: “有罪之人, 不可由正門出也.”

용골대(龍骨大)가 한(汗)의 글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글에,

“관온인성황제(寬溫仁聖皇帝)는 조선국왕에게 조유(詔諭)한다. 보내온 주문(奏文)을 보건대, 20일의 조칙 내용을 갖추어 진술하고 종사(宗社)와 생령(生靈)에 대한 계책을 근심하면서 조칙의 내용을 분명히 내려 안심하고 귀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청하였는데, 짐이 식언(食言)할까 의심하는 것인가. 그러나 짐은 본래 나의 정성을 남에게까지 적용하니, 지난번의 말을 틀림없이 실천할 뿐만 아니라 후일 유신(維新)하게 하는 데에도 함께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지난날의 죄를 모두 용서하고 규례(規例)를 상세하게 정하여 군신(君臣)이 대대로 지킬 신의(信義)로 삼는 바이다.

그대가 만약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롭게 하여 은덕을 잊지 않고 자신을 맡기고 귀순하여 자손의 장구한 계책을 삼으려 한다면, 앞으로 명(明)나라가 준 고명(誥命)과 책인(冊印)을 헌납하고, 그들과의 수호(修好)를 끊고, 그들의 연호(年號)를 버리고, 일체의 공문서에 우리의 정삭(正朔)을 받들도록 하라. 그리고 그대는 장자(長子) 및 재일자(再一子)를 인질로 삼고, 제대신(諸大臣)은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아들이 없으면 동생을 인질로 삼으라. 만일 그대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짐이 인질로 삼은 아들을 세워 왕위를 계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짐이 만약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조칙을 내리고 사신을 보내어 그대 나라의 보병(步兵)·기병(騎兵)·수군을 조발하거든, 혹은 수만 명을 기한 내에 모이도록 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라. 짐이 이번에 군사를 돌려 가도(島)를 공격해서 취하려 하니, 그대는 배 50척을 내고 수병(水兵)·창포(槍砲)·궁전(弓箭)을 모두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대군이 돌아갈 때에도 호군(軍)하는 예(禮)를 응당 거행해야 할 것이다.

성절(聖節)·정조(正朝)·동지(冬至) 중궁 천추(中宮千秋)·태자 천추(太子千秋) 및 경조(慶吊) 등의 일이 있으면 모두 모름지기 예를 올리고 대신 및 내관(內官)에게 명하여 표문(表文)을 받들고 오게 하라. 바치는 표문과 전문(箋文)의 정식(程式), 짐이 조칙을 내리거나 간혹 일이 있어 사신을 보내 유시를 전달할 경우 그대와 사신이 상견례(相見禮)하는 것, 혹 그대의 배신(陪臣)이 알현(謁見)하는 것 및 영접하고 전송하며 사신을 대접하는 예 등을 명나라의 구례(舊例)와 다름이 없도록 하라.



군중(軍中)의 포로들이 압록강(鴨綠江)을 건너고 나서 만약 도망하여 되돌아 오면 체포하여 본주(本主)에게 보내도록 하고, 만약 속(贖)을 바치고 돌아오려고 할 경우 본주의 편의대로 들어 주도록 하라. 우리 군사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다 사로잡힌 사람은 그대가 뒤에 차마 결박하여 보낼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내외의 제신(諸臣)과 혼인을 맺어 화호(和好)를 굳게 하도록 하라. 신구(新舊)의 성벽은 수리하거나 신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대 나라에 있는 올랑합(兀良哈) 사람들은 모두 쇄환(刷還)해야 마땅하다. 일본(日本)과의 무역은 그대가 옛날처럼 하도록 허락한다. 다만 그들의 사신을 인도하여 조회하러 오게 하라. 짐 또한 장차 사신을 저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동쪽의 올랑합으로 저들에게 도피하여 살고 있는 자들과는 다시 무역하게 하지 말고 보는 대로 즉시 체포하여 보내라.

그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짐이 다시 살아나게 하였으며, 거의 망해가는 그대의 종사(宗社)를 온전하게 하고, 이미 잃었던 그대의 처자를 완전하게 해주었다. 그대는 마땅히 국가를 다시 일으켜 준 은혜를 생각하라. 뒷날 자자손손토록 신의를 어기지 말도록 한다면 그대 나라가 영원히 안정될 것이다. 짐은 그대 나라가 되풀이해서 교활하게 속였기 때문에 이렇게 교시(敎示)하는 바이다. 숭덕(崇德) 2년 정월 28일.

세폐(歲幣)는 황금(黃金) 1백 냥(兩), 백은(白銀) 1천 냥, 수우각궁면(水牛角弓面) 2백 부(副), 표피(豹皮) 1백 장(張), 다(茶) 1천 포(包), 수달피(水皮) 4백 장, 청서피(靑黍皮) 3백 장, 호초(胡椒) 10두(斗), 호요도(好腰刀) 26과(把), 소목(蘇木) 2백 근(斤), 호대지(好大紙) 1천 권(卷), 순도(順刀) 10과, 호소지(好小紙) 1천 5백 권, 오조룡석(五爪龍席) 4령(領), 각종 화석(花席) 40령, 백저포(白苧布) 2백 필(匹), 각색 면주(綿紬) 2천 필, 각색 세마포(細麻布) 4백 필, 각색 세포(細布) 1만 필, 포(布) 1천 4백 필, 쌀 1만 포(包)를 정식(定式)으로 삼는다.”

하였다. 홍서봉(洪瑞鳳) 등이 나가서 칙서를 맞았는데, 용골대가 말하기를,

“그대 나라가 명나라의 칙서를 받을 때의 의례(儀例)는 어떠하였소?”

하니, 홍서봉이 말하기를,

“칙서를 받은 자는 남쪽을 향하여 서고 배신(陪臣)은 꿇어앉아 받았소이다.”

하자, 여기서 의거하여 주고받은 뒤에, 용골대는 동쪽에 앉고 홍서봉 등은 서쪽에 앉았다. 용골대가 말하기를,

“요즈음 매우 추운데 수고스럽지 않소?”

하니, 홍서봉이 말하기를,

“항상께서 온전히 살려주신 덕택으로 노고를 면하게 되었소이다.”

하였다. 용골대가 말하기를,

“삼전포(三田浦)에 이미 항복을 받는 단(壇)을 쌓았는데, 황제가 서울에서 나오셨으니, 내일은 이 의식을 거행해야 할 것이요. 몸을 결박하고 관(棺)을 끌고 나오는 등의 허다한 절목(節目)은 지금 모두 없애겠소.”

하니, 홍서봉이 말하기를,

“국왕께서 용포(龍袍)를 착용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이 복장으로 나가야 하겠지요?”

하자, 용골대가 말하기를,

“용포는 착용할 수 없소.”

하였다. 홍서봉이 말하기를,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남문(南門)으로 나와야 하겠지요?”  
하니, 용골대가 말하기를,  
“죄를 지은 사람은 정문(正門)을 통해 나올 수 없소.”  
하였다.

### ▶ 34권 15년 2월 11일 辛巳

都承旨李景奭, 請下諭于三南及江原道, 備送農牛、穀種, 以濟畿甸、兩西之急, 而民間如有願納者, 或賜爵、或免役. 且宜停罷貢物之不緊者, 上曰: “卿言甚當, 急速施行.”

도승지 이경석이, 삼남 및 강원도에 유시를 내려 농우(農牛)와 곡종(穀種)을 갖추어 보내도록 함으로써 기전(畿甸)과 양서(兩西)의 급함을 구제하게 할 것과, 바치기를 원하는 민간인이 있으면 혹 벼슬을 내려주거나 역(役)을 면하게 할 것과, 긴급하지 않은 공물(貢物)은 의당 정파(停罷)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일렀다.

“경의 말이 매우 타당하니, 속히 시행하도록 하라.”

### ▶ 34권 15년 4월 9일 戊寅

禮曹啓曰: “諸陵守護軍等, 非但飢餓, 皆無種子、耕牛, 勢難農作. 往在壬辰年後, 有特給種子、耕牛之例云. 令該司量給宜當.” 上從之.

예조가 아뢰기를,

“여러 능의 수호군들이 비단 굶주릴 뿐만 아니라 모두 씨앗과 농우가 없어서 농사지을 형편이 못 된다고 합니다. 지난 임진년 뒤에도 특별히 씨앗과 농우를 급여한 일이 있었다고 하니, 해사로 하여금 적당히 주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 35권 15년 8월 7일 壬寅

壬寅/備局啓曰: “牛疫之患, 八路同然, 明年農事, 殊極可慮. 聞濟州牛畜最繁, 而其價甚輕云. 宜令本道監司, 詳問公私牛畜之數及價直多少, 而輸致之策, 亦思方便以啓似當.” 答曰: “依啓. 姑俟牛疫之寢息.”

비국이 아뢰기를, “소의 역병 우환은 팔도가 같아서 내년 농사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제주(濟州)에는 소가 가장 많아서 그 값이 매우 싸다 하니, 본도의 감사를 시켜 공사(公私)

의 소 수와 값이 얼마인지를 상세히 묻고 수송하는 방법도 생각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되 잠시 동안 소 역병이 그치기를 기다리라.”하였다.

▶ 35권 15년 8월 29일 甲子

左議政崔鳴吉請對, 召見之曰: “予近有微恙, 久不見臣僚. 今日如有可言之事, 可盡言之. 近來天災時變, 疊見層出, 前頭不知有何事也.” 鳴吉對曰: “牛疫之災甚酷, 天意似欲殄絕民命也. 頃日夜驚, 襲謬傳訛, 京外震動, 此非鬼變, 乃人變也. 星宿、草木之變, 不可勝紀, 此則不容人力於其間, 宜克修人事以待之也.” 上曰: “助兵事, 思之氣短. 彼雖生怒, 何忍爲之?” 鳴吉曰: “調兵犯上國, 背理逆天. 如是而豈能無事哉? 但聞西路民情, 自奏文一去之後, 土崩瓦解, 莫可收拾云.” 承旨許啓曰: “外議亦以先發生事爲慮矣.” 鳴吉曰: “臣若入往, 則彼國之所以待之者, 必異於他人. 欲圖世子之回轅, 第撰奏文以去何如?” 上曰: “恐彼厭之也.” 鳴吉曰: “欲以上候之未寧, 懇請矣.” 上曰: “以中殿再葺言之, 似可矣.” 鳴吉曰: “兩西潰軍收布, 外議皆以爲不可矣.” 上曰: “然. 但法令之頻數變改, 有同兒戲, 奈何?” 鳴吉曰: “彼若復言向化事, 何以答之?” 上曰: “向化之人, 久居我國, 生子生女, 而兩國既爲一家, 在此在彼, 有何間焉? 以此意言之, 亦可矣.”

좌의정 최명길(崔鳴吉)이 청대하니, 소견하여 이르기를, “내가 요즈음 작은 병이 있어서 오랫동안 신하들을 보지 못하였으니, 오늘은 말할 만한 일이 있거든 죄다 말하라. 근래 천재(天災)·시변(時變)이 거듭 나타나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하니, 최명길이 아뢰기를,

“소 역병의 재앙이 매우 혹독하니, 하늘의 뜻이 백성의 목숨을 끊으려는 듯합니다. 접때 밤에 놀란 일은 유언비어로 인해 경외(京外)가 진동한 것이니, 이것은 귀변(鬼變)이 아니라 인변(人變)입니다. 성수(星宿)·초목(草木)의 변은 이루 기록할 수 없이 많으나, 이것은 그 사이에 사람의 힘을 용납하지 않으니, 사람의 일을 잘 닦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사를 원조 하는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저들이 성내더라도 어찌 차마 할 수 있겠는가?”하니, 최명길이 아뢰기를, “군사를 징발하여 명나라를 범하는 것은 도리를 어기고 하늘을 거역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고도 어찌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西路)의 민정(民情)은 주문(奏文)이 한번 간 뒤로 흠처럼 무너지고 기와처럼 깨져서 수습할 수 없습니다.”하고, 승지 허계(許啓)가 아뢰기를, “바깥 의논도 미리 일이 날까 염려합니다.”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신이 들어가면 저 나라가 대우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다를 것이므로 세자가 돌아오도록 피하러 합니다마는, 주문을 지어서 가져가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마 저들이 싫어할 것이다.”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상후(上候)가 명령하시다고 간청하려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전(中殿)의 재기(再葺)를 말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양서(兩西)에서 패한 군사에게 베를 거두는 것은 바깥 의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논이 다 옳지 않게 여깁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기는 하다만 법령이 자주 바뀌면 아이들 장난 같으니 어찌 하겠는가?”하였다. 최명길의 아뢰기를, “저들이 향화(向化)에 관한 일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향화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오래 살아 아들 딸 낳고 두 나라가 이미 한 집안이 되었으니 여기에 있거나 저기에 있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여도 팬찮을 것이다.” 하였다.

### ▶ 35권 15년 10월 7일辛丑

辛丑/副提學李景奭、副修撰俞樞等上劄曰：

國家之喪亂，既云極矣。惟天汙可悔禍，而變異之生，愈往愈甚。天災之可畏，地變之可怪，人妖之可愕者，沓至而疊出，近又流星、火氣示警未已，而去夜之甚雨大風，亦非偶然者也。上年雷電、風雨之作，多出於夜間，識者固憂其倉卒之變矣。今者又何不幸而近之也，斯又可懼之甚者也。祈天永命，判於是；終底滅亡，判於是。惟殿下一心之敬怠，而興亡係焉，嗚呼！殿下其敢不勉？天既大警動我殿下，而殿下若或無以大警動乎？天心則其亦已矣，昔者雖季世之主，如遇災異，則必勅群下，使各盡言其過失。斯雖末節，亦是恐懼之意。況果能聞其過而改之，取其善而用之，則其於修省之道，豈少補哉？今殿下則不然，開筵之際，雖有進言者，而未聞酬酢之如響。此豈開心見誠，導之使言，從善如不及之意乎？休論他事，此一事已爲殿下之過矣。人臣之進言於君上者，雖尋常說話，莫不預思於心中，惶恐而冒達，然其所欲達者，尙有所不敢盡達。是以古之好諫之君，必假之以和顏，優之以溫言，眷眷焉惟恐下情之不通，雖狂妄而不之罪，雖過激而不之怒，勉勉焉惟恐直言之不得聞也。伏願殿下，克恢大度，務盡誠意，毋憚於改過，毋拂於從諫，毋以芻蕘而不擇，毋以猥妄而峻斥，可用則用之，不可用則置之，必以通一國之志，來衆人之善爲急焉。納諫，雖主於寬假，聞言，亦在於頻接。比來數御經筵，誠爲幸甚，而外官之辭朝者，召見絕罕。古之治國之主，或試以詞理，或爲之引接者，比比有之。況當此危急之日，民之困悴極矣。政令之可訪者非一，弊癘之可詢者何限？非但新赴之官，可賜之清問，因公幹來者，亦爲召入。咨訪之勤，無若七事之應文；採施之快，不爲該曹之防塞，則人人皆盡其所懷，而遐外之元元，皆得其所願矣。伏願殿下，勿以人微而輕之，勿以外官而踈之，數御便殿，特賜顏色焉。昔在漢靈之世，久不親郊廟之禮，蔡邕上封事。其略曰：“夫迎氣五郊，皆帝者之大業，祖宗之所祇奉也，而有司數以藩國踈喪，宮內產生，廢闕〔閣〕不行，忘禮敬之大，任禁忌之書，以虧大典。自古齊制，宜如故典。”夫宗廟之禮，國之大事，而改題主，又變禮之大者也。今秋永寧殿改題主者二位，而殿下既不得親行其禮，又不行展謁。此禮之變者，雖於『五禮儀』，無所明載，爲禮官者，所當講定而稟行者也，而曾不以爲意，此豈非典禮之虧缺者乎？殿下奉先思孝之意，非不至矣，而行事之際，未免有欠闕者如此。伏願殿下，惕然改圖，以重廟禮焉。君，以民爲天；國，以民爲本。苟失其民，何以爲國乎？殿下卽位以來，十五年于茲矣。凡所以安民者，靡不講行，而國

家不幸, 變亂相仍, 重以設施之方, 未得其宜, 民生之未復, 如內癰之潛鑠, 今番大亂, 又至十分地頭. 兩南雖全, 其動則一也. 齎送之費如何, 死亡之慘如何? 況復移定之後, 偏被侵擾, 往者歲貢之入, 減其三分之一, 而丙子條則已捧之邑頗多, 丁丑條則又復依舊矣. 雖曰減除, 所減者既往也, 新經大亂, 曾未一年, 而責其賦役, 一如平日. 若是而冀民蒙惠, 望民無怨, 不亦難乎? 清國亦念我之蕩然, 歲弊之期, 姑寬數年, 而我之所以責民, 如此其急, 則殘氓之日凋, 謗讟之日甚, 無足怪也. **從而牛疫之災, 八路同然, 秋耕已廢, 春事可知.** 雖或以人代耕, 餘力已盡, 時節已闌, 南畝西疇, 耕墾者幾何? 今歲雖稔, 將無以繼矣. 至於此際, 變怪百出, 輿訛鼓妖, 無所不至, 民無固志, 荷擔而立. 噫! 此誠何時, 而中外之所作為者, 尚未免文具之因循? 其於革舊圖新, 已不足言, 而救目前之急, 亦無以為矣. 祭享及御供, 既為之裁減, 則其餘無復有難者, 而習尚已痼, 私意橫流, 宜革者猶未盡革, 宜減者猶未盡減, 宣祖朝壬辰以後, 所常行之事, 猶未盡舉而行之, 民安得不困, 國安得不危? 為有司者, 所當憂國如家, 日夜思度, 雖係祭享, 苟可以除民弊, 則必自公家備用, 雖係恒貢, 苟可以紓民力, 則勿以常式而準之. 至於田稅之收, 今秋則雖已無及, 須自明春, 減省其所納, 寧為貽道之歸, 切無斂怨之舉, 如慈母之乳赤子, 若良醫之救大病, 期以三四年, 則雖有不得已而賦於民者, 民必知惠, 而不以為怨矣. 伏願殿下, 講而必行, 以蘇邦本焉. 賞罰者, 人主之大柄. 自古言治國之要, 必曰信賞必罰. 賞不信, 罰不必, 雖聖人, 亦無以為治矣. 爵賞者, 人主之雨露也; 刑罰者, 人主之雷霆也. 其不可以不時也明矣. 以今言之, 爵賞之濫, 固已可憂, 而至於軍功, 尚未盡查, 節死之臣, 旌表久稽. 以刑之大者, 則江都天塹之陷, 人所共憤. 當初合啓之發, 亦非不久, 而金慶徵則不即行誅, 一年將盡, 始賜其死. 以罰之小者, 則扈從落後之中, 尚有士夫之所共冤者, 而該曹再查, 偶失審察. 以此推之, 被罪之人, 抱冤者必多, 可謂刑賞俱失矣. 惟其如是, 故賞不足以為勸, 刑不足以為懲, 不亦可惜之甚乎? 且夫古之戮人, 必有其時. 自非犯逆、失律, 則春夏之月, 未嘗行刑, 而今之戮人, 無復是事, 此亦非所以順天時也. 伏願殿下, 謹用大柄, 無失其時焉.

答曰: “筮陳之事, 無非格言至論, 敢不惕念, 而施行哉?”

부제학 이경석(李景奭), 부수찬 유철(兪) 등이 상차하기를,

“국가의 상란(喪亂)은 이미 지극하다 하겠거니와, 하늘이 거의 재앙을 그만 내릴 만한데 변이(變異)가 일어나는 것이 갈수록 더욱 심합니다. 두려운 천재와 괴이한 지변과 놀라운 인요(人妖)가 몰려 이르고 거둑 나타나며 요즈음에는 또 유성(流星)·화기(火氣)가 경계를 보여 마지않는데, 간밤의 심한 비와 큰 바람이 또한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 천둥하고 번개 치며 비바람이 일어나는 것이 흔히 밤사이에 나타나므로 식자가 참으로 갑작스런 변이 날까 근심하였는데 이제 또 어찌하여 불행히도 옛날과 비슷하니 이 또한 매우 두렵습니다. 하늘에 빌어 명을 길게 하는 것도 여기에서 나뉘고 마침내 멸망하게 되는 것도 여기에서 나뉘니다. 오직 전하의 한 마음이 공경하고 태만한 데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달려 있으니, 아, 전하께서 어찌 감히 힘쓰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이미 우리 전하를 크게 경동(警動)하였는데, 전하께서 혹 천심(天心)을 크게 경동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시키지 않는다면 그 또한 그만이었습시다마는, 예전에는 말세의 임금 일지라도 재이를 만나면 반드시 못 신하에게 일러 각각 과실을 죄다 말하게 하였습시다. 이것은 말단의 일이기는 하나 또한 두렵게 여기는 뜻입시다. 더구나 과연 허물을 들어서 고치고 착한 것을 취하여 쓴다면 덕을 닦고 허물을 살피는 도리에 어찌 도움이 적겠습시다. 이제 전하께서는 그렇지 않아서, 경연을 열었을 때에 진언하는 자가 있어도 수작하시는 것이 소리에 울림이 따르듯이 빠르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시다. 이것이 어찌 마음을 열고 정성을 보여 말하도록 유도하여 마치 미치지 못할세라 염려하듯이 착한 말을 따르는 뜻이었습시다. 다른 일은 말할 것 없이 이 한 가지 일이 이미 전하의 허물이 됩시다. 신하로서 임금에게 진언하는 자는 보통 이야기라도 다 마음속으로 미리 생각해 놓았다가 두려워하면서 무릅쓰고 아뢰나, 그 아뢰려던 것을 오히려 감히 죄다 아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언(諫言)을 듣기 좋아하는 옛 임금은 반드시 부드러운 낮빛으로 꾸미고 부드러운 말로 너그럽게 하여 못내 신하의 뜻이 통하지 않을세라 염려하여, 광망(狂妄)하더라도 죄주지 않고 과격하더라도 노하지 않아서 애써 곧은 말을 듣지 못할세라 염려하였습시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큰 도량을 넓히고 성의를 다하도록 힘쓰며 허물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고 간언 따르는 것을 어기지 말며 천한 사람의 말이라 하여 채택 안하지 말고 외람되고 광망하다 하여 엄히 물리치지 말아 쓸 만하면 쓰고 쓸 만하지 않으면 버려두어, 반드시 한 나라의 뜻을 통하고 못 사람의 착한 말이 들려오게 급히 힘쓰소서.

간언을 받아들이려면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나, 말을 들으려면 또한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근래 경연에 자주 납시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나, 사조(辭朝)하는 외관(外官)을 소견(召見)하시는 것이 매우 드롭시다. 나라를 잘 다스린 옛 임금은 혹 말의 조리를 시험하거나 혹 그 때문에 불려서 만난 일이 자주 있었습시다. 더구나 위급한 이때를 당하여 백성의 고달픔이 심하니, 물을 만한 정령(政令)과 물을 만한 폐단이 어찌 한정이 있겠습시다. 새로 부임하는 관원에게 하문하셔야 할 뿐더러 공무 때문에 온 자도 불러들여 부지런히 묻는 것이 칠사(七事)의 겉치레에 응하는 것과 같지 않고, 꽤히 채택하고 시행하여 해조(該曹)가 막지 않게 하면, 사람마다 그 생각하는 바를 다 말하고 먼 외방의 백성이 그 바라는 바를 다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사람이 미천하다 하여 경시하지 말고 외방의 관원이라 하여 소원하지 말며 편전에 자주 나아가 특별히 안색을 보이소서.

예전 한영제(漢靈帝) 때에 천지와 조종의 제례(祭禮)를 오랫동안 친히 거행하지 않자 채옹(蔡邕)이 봉사(封事)를 올렸습시다. 그 대략에 ‘대저 오교(五郊)에서 신기(神氣)를 맞이하는 것은 황제의 큰 사업이고 조종께서 공경히 받드신 바인데, 번국(藩國)에 상(喪)이 있고 궁내에 출산이 있다는 이유로 유사(有司)가 그만두고 거행하지 않아 예경(禮敬)의 큰 것을 잊고 금기(禁忌)의 글을 핑계 삼아 큰 전례(典禮)를 손상하였습시다. 이제부터 재계(齋戒)하는 제도는 옛 전례대로 해야 하겠습시다.’ 하였습시다. 대저 종묘의 예는 나라의 큰일이고 신주를 고쳐 쓰는 것도 변례(變禮) 중 큰 것입니다. 올 가을에 영녕전(永寧殿)의 신주를 고쳐 쓴 것이 두 위(位)인데 전하께서 이미 그 예를 친히 거행하지 못하셨고 또 전알(展謁)도 거행하지 않으셨습시다. 이것은 변례이므로 『오례의(五禮儀)』에 명백히 실려 있지 않더라도, 예관(禮官)으로서는 강구하여 여쭙어 거행해야 할 것인데 아예 유의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전례의 흠이 아니겠습시다. 전하께서 조상을 받들어 효도를 하는 뜻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일을 함에 있어서 잘못을 면치 못함이 이러하습시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삼가

생각을 고쳐 종묘의 예를 존중하소서.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여기고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것인데, 그 백성을 잃는다면 어떻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이제 15년이 되었습니다. 무릇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도는 강구하여 행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국가가 불행하여 변란이 잇달고, 게다가 시행하는 방법이 마땅하지 못하여 백성이 회복하지 못한 것이 마치 종기가 몸속에서 잠식하는 듯한데 이번의 큰 변란이 또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양남(兩南)은 온전하였으나 동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니, 물건을 가져가고 보내는 비용은 어떠하였으며 사람이 죽은 슬픔은 어떠하였습니까. 더구나 옮겨 배정한 부역으로 거듭 치우치게 침탈하는 소요를 당하였는데, 전에 세공(歲貢)을 바치는 것은 그 3분의 1을 감면하였으나 병자년 조(條)는 이미 바친 고을이 자못 많고 정축년 조는 또 예전대로 회복되었습니다. 감면하였다 하더라도 감면한 것은 이미 지난 것이고, 새로 큰 변란을 겪은 지 1년도 못 되어 부역을 요구하는 것이 평시와 한결같으니, 이러하고도 백성이 은혜 입기를 바라고 백성의 원망이 없기를 바라기는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청나라도 우리가 탕진한 것을 생각하여 세폐(歲幣)의 시기를 잠시 두어 해 늦추어 주었는데, 우리가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처럼 급하니, 피폐한 백성이 날로 더욱 피폐하고 비방이 날로 더욱 심해가는 것은 괴이할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소 역병의 재앙은 팔도가 다 같아서 가을같이 할 못 하였으니, 봄 농사를 알 만합니다.** 혹 사람이 대신 갈더라도 남은 힘이 이미 다하였고 철이 이미 늦었으니, 논밭을 갈아 일군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올해에는 여물더라도 앞으로 이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변괴가 갖가지로 나타나고 거짓말과 요사한 말이 일어나 못하는 소리가 없으므로, 백성은 굳은 뜻이 없어, 짐을 꾸려 떠나려고 합니다.

아아, 지금이 참으로 어떤 때인데 중외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구습을 따라 겉치레만 하고 있으니, 구습을 고쳐 새로워지기를 꾀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미 말할 거리도 못되지만 눈앞의 급한 것을 구제하는 것도 속수무책입니다. 제향(祭享)과 어공(御供)을 이미 절감하였으면 그 나머지는 다시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인데, 구습이 이미 깊은 병폐가 되고 사사로운 뜻이 횡행하여 고쳐야 할 것을 오히려 죄다 고치지 못하고 줄여야 할 것을 오히려 죄다 줄이지 못하여 선조(宣祖) 임진년 이후로 늘 행하던 일도 오히려 죄다 거행하지 못하니, 백성이 어찌 곤궁하지 않겠으며 나라가 어찌 위태하지 않겠습니까. 유사(有司)로서는 나라를 제 집처럼 근심하고 밤낮으로 생각하여, 제향에 관계되더라도 백성의 폐해를 덜 수만 있으면 반드시 공가(公家)에서 장만하여 쓰고, 항공(恒貢)에 관계되더라도 백성의 힘을 퍼게 할 수만 있으면 항식(恒式)대로 맞추어 받지 말며, 전세(田稅)를 거두는 것으로 말하면 올가을에는 이미 늦었지만 반드시 내년 봄부터 그 받아들이는 것을 줄여서 차라리 맥도(麥道)가 될지언정 원망을 듣는 일을 아주 없애어, 마치 자모(慈母)가 어린아이를 젖 먹이듯이 하고 양의(良醫)가 큰 병을 고치듯이 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서너 해 동안 이렇게 하면 마지못하여 백성에게 부과하는 것이 있더라도 백성이 반드시 은혜를 알아서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강구하여 반드시 거행해서 백성을 소생시키소서.

상벌(賞罰)은 임금의 큰 권세입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를 말할 때 반드시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 하였으니, 상벌이 명백하지 않으면 성인일지라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작상(爵賞)은 임금의 비와 이슬 같은 은혜이고 형벌은 임금의 천둥과 벼락같은 위엄이니, 때를 맞추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작상이 외람된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것은 본디 이미 근심스러운데 군공(軍功)까지도 아직 죄다 살피지 못하여 절의(節義)를 지키다가 죽은 신하를 정표(旌表)하는 것이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큰 형벌로 말하면 천연의 요새지인 강도(江都)가 함몰된 것은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당초 합계(合啓)가 시작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김경징(金景徵)을 곧 처형하지 않다가 한 해가 거의 다 되어서야 비로소 사사(賜死)하였습니다. 작은 형벌로 말하면 호종(扈從)에 뒤진 사람 가운데에도 사대부가 모두 억울하게 여기는 자가 있는데 해조(該曹)가 재차 살필 때에도 우연히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죄받은 사람 가운데에 억울한 마음을 품은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상벌이 모두 잘못되었다 하겠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상주어도 권장이 되지 못하고 벌주어도 징계가 되지 못하니, 또한 매우 아깝지 않습니까. 또 예전에 사람을 죽이는 데에는 반드시 그 시기가 있어서, 반역을 하거나 군율을 어긴 것이 아니면 봄·여름·철에 처형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람을 죽이는 데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으니, 이것도 천시(天時)를 따르는 방도가 아닙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큰 권세를 삼가 써서 그 시기를 잃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차자에 아뢰는 일은 모두가 바르고 지극한 말이니, 감히 두렵게 생각하여 시행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 ▶ 35권 15년 12월 22일 丙辰

丙辰/上引見大臣、備局堂上。領議政李弘胄曰：“今日之務，莫急於保民，而凡百需用，皆責於民。雖不得全減，不可無節損之事。如臺諫所論，諸宮家魚鹽，若皆革罷，則豈無所補乎？”右議政申景禎曰：“諸宮家魚鹽免稅，漸至濫觴，不可無變通。雖不全罷，若有定數，則公私兩便矣。”上曰：“其果賜牌之處，則不可革罷，若非賜牌，則本邑自當收稅，臺諫何必論列乎？”上又曰：“去夏枯木自立，今年又有此變，乃是變之大者，予甚憂之。”弘胄曰：“近以倭寇爲憂，而情形未著，不必爲慮。”上曰：“倭情，姑無顯著可憂之端，而災不虛生，大臣深思善慮，以爲陰雨之備可也。”景禎曰：“咸鏡一道，饑饉太甚，朝廷宜另加賑恤。”上曰：“賑救之策，移粟而已，令該曹舉行。”禮曹判書韓汝潁曰：“祭享雖重，而一年所用犧牲甚多。宜限牛畜孳息間，代以他牲。”上曰：“國法不行，私家屠宰不能禁，而減省祭享之用，甚不可也。”

상이 대신과 비국의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이홍주가 아뢰기를,

“오늘날 힘쓸 것으로는 백성을 보전하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는데 모든 수용(需用)을 다 백성에게 요구하므로 모두 감면할 수는 없더라도 절감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대간이 논한 여러 궁가(宮家)의 어염(魚鹽) 같은 것을 다 폐지한다면 어찌 보탬이 되는 것이 없겠습니까.”

하고, 우의정 신경진이 아뢰기를,



“여러 궁가의 어염에 대한 면세(免稅)가 점점 지나치게 되었으므로 변통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니, 모두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정수(定數)를 둔다면 공사(公私)가 다 편리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것이 과연 사패(賜牌)한 곳이라면 폐지할 수 없을 것이고, 사패한 곳이 아니라면 그 고을에서 절로 수세해야 할 것이다. 대간이 어찌하여 반드시 논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지난여름에 고목(枯木)이 절로 켜는데 올해에 또 이런 변이 있는 것은 큰 변이니 내가 매우 근심한다.”

하자, 이홍주가 아뢰기를,

“요즈음 왜구(倭寇)를 근심합니다마는, 정상이 나타나지 않으니 염려할 것 없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왜의 정상에는 현저히 근심할 만한 꼬투리가 아직 없으나, 재변은 헛되이 일어나지 않으니, 대신은 깊이 생각하고 잘 고려하여 미연에 대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신경진이 아뢰기를,

“함경도 전체가 기근이 매우 심하니, 조정에서 각별히 진휼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구(賑救)하는 방법은 곡식을 옮기는 것일 뿐이니, 해조를 시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예조판서 한여직(韓汝)이 아뢰기를,

**“제향(祭享)이 중요하기는 하나 한 해에 쓰는 희생이 매우 많으니, 소가 번식할 때까지는 다른 희생으로 대용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국법이 행해지지 않아 사가(私家)에서 도살하는 것은 막지 못하고 있는데 제향에 쓰는 것을 줄이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하였다.

## ▶ 36권 16년 1월 1일 乙丑

副提學李景奭獻元日箴, 其箴曰:

一年三朝, 萬物皆春. 天道之元, 君德惟仁. 願自今始, 日新修身. 孳孳不息, 舜鷄之晨. 勤勤講論, 晉接之頻. 毋忘在莒, 恒念去邠. 孤城風雨, 露禱之辰. 此心敢忘? 備嘗艱辛. 矧方天(楸) [札], 災沴荐臻. **八路牛盡, 百無一稔.** 不耕何食? 田卒荒榛. 富亦云急, 哀此窮貧. 特垂惠鮮, 亟濟涸鱗. 欲止屠宰, 宜自宗禋. 惟誠克享, 角握奚珍? 迭遣繡衣, 廣加咨詢. 悉祛宿弊, 大慰輦呻. 如昭儉德, 盍先宮嬪? 四方攸則, 俗反於淳. 任他罔利, 非是親親. 競占魚鹽, 滄海無垠. 罔佛法語, 言路恐湮. 歷觀古昔, 政舉由人. 說興於築, 尹起於莘. 周載于車, 漢蒲其輪. 冀賜一札, 方面之臣. 俾用誠求, 優之以賓. 倚毗責成, 庶見亨屯. 『詩』亦有云, 邦舊命新. 重興之業, 多難之因. 適當元日, 拜獻丹宸.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答曰: “觀卿所進之箴, 誠深言至, 實合採用. 敢不服膺而力行哉?”

부제학 이경석(李景奭)이 원일잠(元日箴)을 올렸다. 그 잠에,

“일년중에 정월 초하룻날은 만물이 모두 새로 시작하는 때로, 천도(天道)에 있어서는 원(元)이고 군덕(君德)에 있어서는 인(仁)에 해당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시작하여 날마다 새롭게 자신을 닦으소서. 답이 우는 첫새벽에 일어나 부지런히 쉬지 말고 선을 행하며, 열심히 학문을 강론하시어 자주 신하들을 접견하소서. 어려움에 처하였던 때를 잊지 마시고, 서울을 버려야만 했던 때를 항상 생각하소서. 외로운 성에서 비바람을 무릅쓰고 밖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때의 그 심정을 어찌 감히 잊을 수 있겠습니까. 쓰고 어려운 경험을 이미 다 맛보았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국운이 시든데다가 재앙까지 거듭 닥치고 있습니다. 팔로에는 소가 다 없어져 백에 하나도 살쥔 소가 없습니다. 밭을 갈지 않으면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전토가 끝내 황폐되고 말 것입니다. 부자들도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니, 가난한 백성들이 애처롭습니다. 특별히 은택을 내려 주시어 빨리 구제해 주소서. 도살을 금지시키고자 하거든 종묘 제사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오직 정성을 다하면 흠향할 것이니, 희생을 풍부히 하는 것이 어찌 귀중하겠습니까.

번갈아 어사를 파견해 널리 자문을 구하시며, 오래 묵은 폐단을 모두 제거하여 고난 받는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위안하소서. 만약 검소한 덕을 밝히고자 하신다면, 어찌 궁빈(宮嬪)들부터 솔선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사방에서 본받게 되어 풍속이 순박하게 될 것입니다. 재리(財利)를 다 굶어모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친한 이를 친히 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다투어 어염(魚鹽)의 이권을 점유해 드넓은 바다가 모두 그들의 소유로 되었습니다. 정면으로 바르게 하는 말을 무시하고 거슬리게 들으시지 마소서. 언로가 막힐까 염려스럽습니다.

옛적의 일을 두루 살펴보면, 정사가 잘 된 경우는 모두 사람을 등용하는 데에서 말미암았습니다. 부열(傅說)은 담을 쌓는 데서 등용되었고, 이윤(伊尹)은 들에서 농사짓다 기용되었습니다. 주 문왕(周文王)은 태공망(太公望)을 만나 수레에 함께 태워 돌아왔고, 한 무제(漢武帝)는 매승(枚乘)을 안거(安車)로 초빙하였습니다. 바라건대 한 통의 서찰을 방면을 맡은 신하들에게 내리시어 정성껏 어진이를 구하게 해서 빈사(賓師)로 대우하소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한다면 어려운 상황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경』에도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지만 천명을 받은 것이 새롭다.’고 하였습니다. 왕업을 중흥하는 일은 어려움이 많을 때를 인하는 법입니다. 마침 정월 초하룻날이 되어 삼가 저의 충심을 아뢰입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경이 올린 잠을 보니, 정성이 깊고 내용이 지극하다. 실로 채용하기에 합당하니, 어찌 감히 마음속에 새겨두고 힘껏 실행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 ▶ 36권 16년 2월 23일 丁巳

左議政崔鳴吉上劄曰:

頃臣奉使還來時，中路得聞，朝家有數款處置，心竊有疑焉。及入都中，衆口喧傳，皆以爲大段失着，扶病請對，妄有云云。誠意淺薄，屢勤嚴旨，退歸私室，慙懼欲死。夫事理多端，得失難審，上下所見，寧免異同？宜雍容討論，以求歸諸至當。虞庭吁咈，正如是爾。若聲色以厲之，雷霆以震之，使在下者不敢盡其所欲言，則乾道過亢，下情不通，恐非國家之福也。人謂王者優禮大臣，宜異庶僚，如臣無狀，何敢以大臣自處哉？嗚呼！今日何如時也？變異稠疊，訛言沸騰，民生陷於塗炭，國勢危於累卵。**西疇春及，旱徵又甚，以人替牛，功力加倍。**十人廢耕，則十家飢；百人廢耕，則百家飢，今之廢耕，不止十百。一夫失所，足傷治化，萬家流離，何以爲國？舟師添防，未見大益，砲樓之設，必有後患。與其動而有悔，曷若靜以待之。臣方求退，而猶未能無庶幾改諸之望，情亦戚矣。竊見往史，大臣有不合其位者，不待辭章，先加策免，矧今多事之時乎？乞賜遞免。

答曰：“卿勿固辭，安心行公。”

좌의정 최명길이 상차하기를,

“지난번 신이 사명을 받들고 갔다 돌아올 때, 조정에서 몇 가지 처치한 일이 있다는 말을 중도에서 듣고 마음속으로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도성에 들어오니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모두 대단한 잘못이라고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병든 몸을 이끌고 면대를 청하여 망령되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의가 부족하여 누차 엄한 꾸지람을 내리시게 하였습니다. 물러나와 집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두려워 죽고만 싶었습니다.

사리는 단서가 많고 잘잘못은 살피기 어려우니, 상하의 견해가 어찌 다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토론하여 지극히 당연한 데로 귀결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임금의 조정에서 옳으니 그르니 따지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목소리와 얼굴빛을 사납게 하고 뇌성벽력처럼 노여움을 진동하여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감히 다하지 못하게 하면, 건도(乾道)가 지나치게 높아 아랫사람들의 실정이 위로 통하지 않을 것이니, 아마도 국가의 복이 아닐 듯합니다. 사람들이 ‘임금은 대신을 예로써 우대하여 못 신하들과는 다르게 대해야 한다.’ 하지만, 신과 같이 무상한 사람이 어찌 감히 대신으로 자처하겠습니까.

아, 오늘날이 어떤 때입니까. 이번이 거듭 나타나고 유언비어가 들끓고 있으며,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나라의 형세는 계란을 쫓아놓은 것보다 위태롭습니다. **봄 농사철이 다가왔는데 가뭄의 징조는 심하고, 소 대신 사람이 논밭을 갈아야 하니 공력이 배가 듭니다.** 열 사람이 농사를 폐하면 열 집이 굶주리고, 백 사람이 농사를 폐하면 백 집이 굶주리게 됩니다. 오늘날 농사를 폐한 사람이 열 사람 백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제 위치를 잃어도 치화(治化)를 손상하기에 충분한데, 만 집이 유리하고 있으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수군을 증원하여 방어하는 것은 큰 이로움을 발견하지 못하겠고, 포루(砲樓)를 설치하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움직이다 후회하기 보다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신이 바야흐로 물러나기를 구하면서도 이점에 대해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 심정 또한 슬프기만 합니다.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니, 대신으로서 그 지위에 합당치 않을 경우에는 사장을 올리지 않아도 책면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처럼 일이 많을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때이겠습니까. 체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은 굳이 사양하지 말고 안심하고 행공하라.”

하였다.

### ▶ 36권 16년 3월 8일 辛未

辛未/備局啓請以爲, 牛畜尙未孳息, 各邑釋奠, 姑代以猪、羊, 從之.

비국이, 소가 아직 번식되지 않았으니, 각 고을의 석전(釋奠)에 잠시 소 대신 돼지나 양을 쓰기를 계청하였는데, 따랐다.

### ▶ 36권 16년 3월 30일 癸巳

癸巳/禮曹啓曰: “近來旱氣益甚, 百穀種不入土, 兩麥皆枯, 民事可慮. 將自開月初二日, 行初次祈雨祭, 而從前祭官, 多不擇送, 禮儀失度, 神不顧享. 自今宜差送二品以上重臣, 講定規式, 致齋齋所. 祭後獻官, 亦勿入來, 留待於近處, 三日不雨, 則復上壇所焚香. 如是三次而歸, 不必再三瀆祀. 至於盲巫、兒童之祈祝、家家瓶柳之設, 徒有弊端, 一切勿爲舉行. 令祭官喫素, 市里斷屠, 一如中朝之法似當. 而第是新規, 請議于大臣.” 大臣以爲: “『五禮儀』天早有風雲雷雨壇所祈雨儀、北郊望祈岳海濱及諸山川儀, 似乎各有次序, 而祭官品秩, 皆有序例. 明白載錄, 今可據而行之, 不必別立新規. 但念, 交神明之道, 皆以虔誠齋潔爲主. 況爲萬民, 請命於神明, 何等重大事, 而可以文具爲之乎? 近來國習, 唯思自便, 祭官之任, 尤所厭避. 故例歸於武、蔭及無勢之人, 此已失致誠之意, 而爲祭官者, 亦未有齋心虔禱之實, 欲以此獲應難矣. 今者祭官, 已自政府分付該曹, 破例極擇, 而齋素一款, 依啓辭申明檢飭, 至於閭巷瓶柳等事, 元非禮典所載, 皆可斥去.” 答曰: “依議. 但凡干齋戒, 別無行素之禮, 今創新規, 未知其可也. 瓶柳等事, 雖係煩文, 乃是流來舊規, 不爲停罷可也.”

예조가 아뢰기를,

“요즈음 가뭄이 더욱 심하여 온갖 곡식의 종자를 땅에 뿌리지 못하고 양맥(兩麥)도 모두 시드니, 농사가 염려됩니다. 다음달 2일에 첫 번째 기우제를 지내려고 합니다. 종전에는 제관(祭官)을 대부분 가려 보내지 않아 예의의 법도를 잃어서 신령이 흠향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2품 이상의 중신을 차송하고, 규식을 정해 재소(齋所)에서 재계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우제를 지낸 뒤에는 헌관(獻官)을 도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까운 곳에 머물러 기다리게 하였다가 3일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단소(壇所)에

올라가 분향하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 차례 하고 돌아오면 두 번 세 번 제사를 번득하게 지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무당과 어린 아이가 비는 것과 집집마다 병류(瓶柳)를 설치하는 것은 단지 폐단만 있을 뿐이니 일체 거행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한 제관으로 하여금 소찬(素饌)을 먹게 하고 저자에서 도살을 금하게 하기를 한 결 같이 중국의 법제와 같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다만 이는 새로운 규정이니 대신에게 의논하소서.”

하였다. 대신들이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에 가뭄이 들면 비를 비는 의식으로 풍운뇌우단소기우의(風雲雷雨壇所祈雨儀)와 북교망기악해독급제산천의(北郊望祈嶽海瀆及諸山川儀)가 있는데, 각각 차서가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제관의 품질(品秩)에도 모두 서례(序例)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에 명백히 실려 있으니, 지금 그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지 별도로 새로운 규정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신명(神明)과 교제하는 도는 모두 극진한 정성과 깨끗한 재계로 주를 삼아야 합니다. 하물며 만민을 위해 신명에게 명을 청하는 것이 이 얼마나 큰일인데 형식적인 걸치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래 나라의 풍습이 오직 스스로 편한 것만 생각해 제관의 임무를 더욱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으레 무관이나 음관(蔭官) 및 세력이 없는 사람한테 돌아가고 마니, 이미 정성을 바치는 뜻을 잃은 것입니다. 제관이 된 자도 경건히 재계하는 마음과 정성껏 기도하는 실상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보응을 얻고자 하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제관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해조에 분부하여 구례를 무시하고 극진히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재계하고 소찬을 드는 한 조항은 계사(啓辭)에 따라 거듭 밝히고 검칙할 것이며, 여항에서 병류(瓶柳)를 설치하는 등의 일은 원래 예전(禮典)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니니 모두 파척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의논한 대로 하라. 다만 모든 재계에 관계된 것 가운데 별도로 소찬을 드는 예가 없는데, 지금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병류를 설치하는 등의 일은, 비록 번거로운 형식에 관계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전해 내려오는 옛 규식이니, 정파(停罷)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하였다.

## ▶ 36권 16년 4월 16일 己酉

己酉/禮曹啓曰: “濟州通三邑, 黑牛只有三頭, 典牲署亦只有五頭, 前頭祭享, 斷無繼用之路. 『禮』曰: ‘凶年祭以下牲.’ 凶年尙且殺禮, 況此牛盡之時乎? 合有權宜變通之舉, 請議大臣處置.” 領議政李弘胄、左議政崔鳴吉以爲: “祭用黑牛, 只餘數頭. 當此之時, 殺耕牛以祭, 則恐或祖宗神靈不肯降歆.” 『易』曰: ‘樽酒簋貳用缶.’ 『傳』曰: ‘苟有明信, 澗溪沼沚之毛, 可薦於鬼神.’ 以此言之, 享先之道, 在誠不在物. 代牛以羊, 式遵禮經明訓爲當.” 答曰: “以羊代牛, 殊極未安. 更議處置.” 大臣以爲: “上教如此, 無已則代以黃牛, 猶勝於以羊易之.” 上從之.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예조가 아뢰기를,

“제주에는 세 읍을 통틀어 검은 소가 단지 세 마리밖에 없고 전생서에도 단지 다섯 마리밖에 없어 앞으로 제향에 이어 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禮)에 ‘홍년에는 하생(下牲)으로 제사한다.’ 하였습니다. 홍년에도 오히려 예를 감하는데, 하물며 이처럼 소가 다 없어진 때 이겠습니까. 임시방편으로 변통하는 거조가 있어야 합니다. 대신에게 의논하여 처치하소서.” 하였다. 영의정 이홍주, 좌의정 최명길의 아뢰기를,

“제향에 쓰는 검은 소가 단지 몇 마리만 남았으니, 이러한 때에 발갈이하는 소를 잡아 제사지내면 혹 조종의 신령께서 내려와 흠향하려 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주역(周易)』에 ‘한 통의 술과 두 그릇의 음식을 질그릇에 쓴다.’ 하였고,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진실로 밝은 믿음이 있으면 시냇가나 연못가에서 자라는 풀이라도 귀신에게 올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말한다면 선조에게 제향하는 도는 정성에 달린 것이지 물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소 대신 양을 써 예경(禮經)의 밝은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양으로 소를 대신하는 것은 지극히 미안하다.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라.”

하였다. 대신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하교하시니 그만둘 수 없다면 누런 소로 대신하는 것이 양으로 소를 바꾸는 것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 36권 16년 5월 7일 己巳

己巳/先是, 兩司請於祭享以乾雉代中脯, 上命議于大臣. 左議政崔鳴吉以爲: “以雉代牛, 恐涉未安. 請以獐、鹿、豕三物, 隨所有作爲中脯, 而自上以豕脯爲未安, 使之只用獐、鹿. 厥後聞之, 獐、鹿雖曰土產, 其實得之不易. 既不易得, 則其雜以不潔之物, 勢所難免. 臣竊考『周禮』, 有曰: ‘凡用禽獸, 春行羔·豚, 膳膏香; 夏行腍·鱸, 膳膏臊; 秋行犢·麋, 膳膏腥; 冬行蠃·羽, 膳膏膾.’ 註云: ‘腍, 乾雉; 鱸, 乾魚; 臊, 犬膏; 羽, 雁也. 此乃四時之物, 各有休相之氣, 故竝用相和, 以爲共王之膳, 因爲祭祀之需者, 各有其義.’ 云. 臣自見此文, 始知祭之用乾雉自有古禮. 而臣學術蒙昧, 前收議時, 妄以己見, 寢兩司多官之請, 私切悔責, 而業已建白, 不敢更有所請, 臣罪大矣. 大概『周禮』, 則春秋所供各異, 非四時俱用腍鱸, 而乾雉之用於祭需者, 其來久矣. 矧今國家遭千古所無之變, 欲用牛脯, 則牛既不可得, 欲用獐、鹿, 則混用雜肉之弊, 終不可防. 上據周公制禮之本意, 下採兩司榻前之所請, 姑限牛畜孳息間, 代用乾雉, 而卽今該寺所儲中脯, 既有不潔之言, 則不可仍用於祭享. 明年貢物, 又不可引納於今年, 姑令該曹, 貿得獐、鹿作脯, 以爲近日之用, 恐或得宜.” 答曰: “閭家祭祀, 舉皆用脯, 而獨於廟社, 闕而不, 殊極未安. 無已則以獐、鹿, 作爲條脯, 代用爲當. 末端啓稟事, 依議施行.”

이에 앞서 양사가 제향(祭享)에 말린 췌으로 중포(中脯)를 대신하자고 계청하여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었는데, 최명길(崔命吉)이 아뢰기를,

“췌으로 소를 대신하는 것은 미안한 일이 될 듯하니 노루·사슴·돼지 세 가지를 그때그때 있는 대로 취하여 중포를 만들어 쓰자고 청하자, 상께서 돼지포를 쓰기는 미안하다 하여 노루와 사슴만을 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듣자니 노루와 사슴은 비록 토산(土產)이라 해도 실로 얻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얻기가 쉽지 않으면 형세상 불결한 것과 섞어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삼가 『주례(周禮)』를 살펴보니 ‘금수(禽獸)를 사용하는 데 있어 봄에는 새끼 양과 돼지고기에 소기름[膏香]을 쓰고, 여름에는 말린 췌과 말린 생선에 개기름[膏]을 쓰고, 가을에는 송아지와 어린 사슴에 닭기름[膏腥]을 쓰고, 겨울에는 생선과 기러기[羽]에 양기름[膏]을 쓴다.’ 하였고, 그 주석에 ‘거는 말린 췌이고, 숙은 말린 생선이고, 조는 개기름이고, 우(羽)는 기러기이다. 이는 사시(四時)의 물종이 각각 왕성하고 쇠약한 기운이 있으므로 같이 사용하여 서로 섞어서 왕의 반찬에 쓰고 인하여 제수에 쓰는 것인데, 각각 그 뜻이 있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 글을 보고 비로소 제사에 말린 췌을 쓰는 것이 본디부터 고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신의 학술이 형편없어 전에 수의(收議)할 때 망령되게 소신의 의견을 주장하여 양사의 많은 관원들의 청을 반대하였으니 매우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미 건의한 일이라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였으니 신의 죄가 큼니다.

대개 『주례』에는 춘추에 공진하는 바가 각각 다르니 사시에 모두 말린 췌과 말린 생선을 쓴 것은 아니나 말린 췌을 제수(祭需)에 쓴 것은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나라가 천고에 없는 변란을 당하여 우포(牛脯)를 사용하고자 하여도 소를 이미 얻을 수 없고 노루와 사슴을 사용하고자 하여도 잡물을 섞어 쓰게 되는 폐단을 끝내 막을 수 없습니다. 위로 주공(周公)이 예(禮)를 제정한 본 뜻을 근거하고 아래로 양사가 탑전(榻前)에서 청한 바를 채택하여 우선 소가 번식할 때까지 말린 췌으로 대신하되, 지금 해시(該寺)에 저축된 중포(中脯)는 이미 불결하다는 말이 있으니 그대로 제향에 쓸 수 없고 내년의 공물을 금년에 미리 받을 수도 없으니, 우선 해조로 하여금 노루와 사슴을 무역하게 하여 포(脯)를 만들어 요즈음 소용되는 데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여역의 제사에는 모두 포를 사용하는데 종묘사직에만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미안한 일이다. 부득이하다면 노루와 사슴으로 조포(條脯)를 만들어 대용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끝에 계품한 것은 아뢰는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 36권 16년 6월 9일 庚子

庚子/備局郎廳成欽以質牛事入蒙古。自瀋陽西北行十六日到烏桓王國，三日到乃蠻王國，又東北行四日到者朔道王國，又北行三日到蒙胡達王國，又東行到投謝土王、所土乙王、賓土王等國，質牛一百八十一頭而還，命分給平安道列邑，以資耕農。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비국 낭청 성익(成)이 소를 무역하는 일로 몽고(蒙古)에 들어갔다. 심양에서 서북쪽으로 16일을 가서 오환왕국(烏桓王國)에 도달했고, 3일 만에 내만왕국(乃蠻王國)에 도달했다. 또 동북쪽으로 4일을 가서 도달한 곳이 삭도왕국(朔道王國)이었고, 북쪽으로 가서 3일 만에 몽호달왕국(蒙胡達王國)에 도달했고, 또 동쪽으로 가서 투사토왕국(投謝土王國)·소토을왕국(所土乙王國)·빈토왕국(賓土王國)에 도달했다. 소 1백 81두를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평안도 열읍(列邑)에 나눠주어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되게 하라고 명하였다.

### ▶ 38권 17년 6월 25일 辛亥

迎接都監啓請於宴享宰牛以設, 答曰: “非上、下馬宴, 則勿設也.”

영접도감이, 연향 때에 소를 잡아 베풀기를 청하니, 답하였다.

“상마연(上馬宴)이나 하마연(下馬宴)이 아니면 그렇게 베풀지 말라.”

### ▶ 42권 19년 9월 18일 辛卯

辛卯/柳琳自錦州替代而還. 前年清國之徵兵也, 柳琳以領兵大將赴錦州, 及柳廷益往, 乃還, 清人以牛、羊、馬匹, 分給將士云.

유림(柳琳)이 금주(錦州)로부터 교체되어 돌아왔다. 지난해 청국이 징병해 갈 때 유림이 영병대장(領兵大將)으로 금주에 갔다가 유정익(柳廷益)이 들어가자 돌아온 것인데, 청인이 소·양·말 등을 장사(將士)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다.

### ▶ 43권 20년 12월 15일 庚辰

庚辰/鄭譯願得牛黃十部, 命給之.

정역이 우황(牛黃) 10부(部)를 얻어가길 원하므로 그에게 줄 것을 명하였다.

### ▶ 44권 21년 1월 10일 乙巳

乙巳/南陽有牛生犢, 一項兩頭.



남양(南陽)에서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목은 하나에 머리가 둘이었다.

▶ 44권 21년 10월 6일 丙寅

內醫院啓曰: “下三道及江原、咸鏡等道所減牛黃四十五部, 請依舊封進.” 答曰: “竝皆復舊, 殊未妥當, 量宜分定, 以紓民力.”

내의원(內醫院)이 아뢰기를, “하삼도(下三道)와 강원·함경 등 도에 건감해 준 우황(牛黃) 45부를 예전대로 봉진(封進)하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전부를 다 복구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하니, 적절히 헤아려 배정하여 민력을 펴주도록 하라.”하였다.

▶ 45권 22년 8월 23일 戊寅

~이상생략

上曰: “山海關迎戰之賊, 其數幾何?” 對曰: “結陣於平野, 連亘數十里, 及到北京聞之, 則迎戰之賊, 騎兵十萬, 步卒二十萬云.” 上曰: “賊兵與胡兵孰多?” 對曰: “以臣所見, 胡兵似倍於流賊, 清人亦言: ‘前後興師, 未有如今日之大舉.’ 云.” 上曰: “清人擒兵部尙書云, 何許人耶?” 對曰: “擒兵部尙書尙時弼等十二人, 駐軍半日, 梟首軍前, 此乃明朝之尙書, 而爲流賊內應者也.” 上曰: “入關之後, 九王措劃, 可以成大事耶?” 對曰: “以臣淺見, 何以知之? 雖未知其果合於事理, 而蓋多夫斷之事矣.” 上曰: “事雖夫斷, 若不合理, 則何足取也?” 對曰: “入關之初, 嚴禁殺掠, 故中原人士無不悅服. 及有剃頭之舉, 民皆憤怒, 或見我人, 泣而言曰: ‘我以何罪, 獨爲此剃頭乎?’ 如此等事, 雖似夫斷, 非收拾人心之道也.” 上曰: “爾等出來之時, 城中人心, 其已鎮定耶?” 對曰: “連經兵火, 又值大旱, 遠近田疇, 盡爲兵馬所蹂躪, 城底數百里, 野無青草. 城中之人, 相聚爲盜, 多有殺越奪掠之患云.” 上曰: “倉儲幾何?” 對曰: “明朝畜積甚富, 而盡爲流賊所取, 餘存者皆積年陳腐之米而已, 清人或飼其馬, 或自食之. 而胡俗多以肉、酪充飢, 我國之人則纔喫數匙, 輒腹痛數三日矣.”

이하생략~

~이상생략

“산해관에서 맞아 싸웠던 적은 그 수가 얼마나 되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평야에 진을 친 것이 수십 리를 뻗었는데, 북경에 가서 들어보니, 맞아 싸웠던 적의 숫자가 기병(騎兵)이 10만, 보졸(步卒)이 20만이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적병과 호병(胡兵)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보기에는 호병이 유적보다 갑절이나 된 듯하였는데, 청나라 사람도 ‘전후에 걸쳐 군대를 일으킨 것이 오늘날처럼 대규모인 적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청나라 사람이 병부 상서를 사로잡았다고 하는데 누구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병부상서 상시필(尙時弼) 등 12명을 사로잡아서, 군대를 주둔시킨 지 한나절 만에 군문 앞에서 그를 효수하였는데, 그가 바로 명나라 조정의 상서로서 유적과 내통했던 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산해관에 들어간 후 구왕(九王)의 일 처리하는 것이 큰일을 성취할 만하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의 앞은 소견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연 사리에 합당한지는 비록 모르겠으나, 대체로 결단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을 비록 결단한다 하더라도 만일 사리에 합당치 않다면 무엇을 취할 것이 있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산해관에 막 들어갔을 적에는 살상과 약탈을 엄금하였기 때문에 중원의 인사들이 모두 기뻐하며 복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머리를 깎게 하는 조치가 있자, 백성들이 모두 분노하여 혹 우리 쪽 사람을 만나면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죄가 있기에 유독 이렇게 머리를 깎아야 하는가?’ 하였으니, 이런 일은 비록 결단한 듯하기는 하나, 인심을 수습하는 방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너희들이 나올 때에 성중(城中)의 인심이 이미 진정되었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병란과 화재를 연이어 겪은데다 또 큰 가뭄을 만나, 원근에 있는 전답이 모조리 병마(兵馬)에 짓밟혀서 성 밑의 수백리 들판에 푸른 풀포기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중 사람들이 서로 모여 도둑질을 하며, 사람을 죽이고 물품을 약탈하는 우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창고의 저축은 얼마나 되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명나라 조정에서 축적해 놓은 것이 매우 많았으나, 유적들이 모조리 다 가져가 버렸고, 남아 있는 것은 모두 여러 해 된 케케묵은 쌀뿐이었는데, 청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말에게 먹이기도 하고, 혹은 자신들이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胡)의 풍속은 고기와 우유로 주린 배를 채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우 두어 손가락만 먹으면 며칠씩 복통을 앓곤 했습니다.”

하였다.

이하생략~

▶ 46권 23년 1월 25일 己酉

己酉/尼應仇太部落牛疫大熾，請開市於穩城，貿取農牛、農器。咸鏡監司沈演啓聞于朝曰：“也春與尼應仇太若皆出來，則其數必多，六鎭農牛絕無而僅有，至於農器換貿之數，亦必不少，請令備局指揮。”備局回啓曰：“此事不可輕許。而若自清國出送票文，則亦難牢拒，更觀形勢議處何如？”上從之。

이응구태(尼應仇太)의 부락에 소의 전염병이 크게 번지므로, 그들이 온성(穩城)에 시장을 열어서 농우(農牛)와 농기(農器)를 사들이기를 청하니, 함경감사 심연(沈演)이 조정에 계문하기를,

“야춘(也春)과 이응구태가 만일 모두 나온다면 반드시 그 수가 많아서 육진(六鎭)의 농우가 거의 남아나지 않을 것이고, 농기구를 무역하는 숫자도 반드시 적지 않을 것이니, 비국으로 하여금 좋은 방도로 지휘토록 하소서.”

하였다. 비국이 회계하기를,

“이 일은 가벼이 허락할 수 없습니다. 만일 청나라에서 표문(票文)을 내보낸다면 또한 군이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니, 다시 형편을 보아가면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 46권 23년 3월 14일 丁酉

備局啓曰：“世子留瀋之日，清國折給土田，許令農作，以爲館所任用之資，收儲各樣之穀，尙有四千七百餘石，而世子、大君，旣得永還，此穀旣是清土所出，斥賣取價，實涉難便。牛、馬、騾、驢，無非給價所貿，而亦皆彼地之產。移咨戶部，任令清國處置，方合事宜。”答曰：“依啓。其中馬、牛、驢、騾，乃是給價所貿，不當任彼處置也。”戶曹以爲：“馬、牛、驢、騾，果與穀物有異，農軍出來時，使之牽來。公贖男女一百十餘人及採蔘者五十餘人，亦宜一時出來。”上從之。

비국이 아뢰기를,

“세자가 심양에 머물러 있을 적에 청나라에서 세자에게 전답을 떼주고 거기에 농사를 지어 관소(館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본으로 삼도록 허락하였는데, 거두어 쌓아둔 각종 곡식이 아직 4천 7백여 석이나 남아 있습니다. 세자와 대군은 이미 아주 돌아왔고 이 곡식은 이미 청나라 땅에서 생산된 것이므로 마구 팔아서 값을 취하는 것은 실로 온편치 않은 일이고, 소·말·노새·나귀는 모두가 값을 주고 사놓은 것이지만 역시 모두 청나라에서 생산된 것들이니, 호부(戶部)에 이자(移咨)하여 청나라에서 처치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사의에 합당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 가운데 말·소·나귀·노새는 곧 값을 주고 산 것들이니, 저 사람들이 처치하도록 맡겨두는 것은 부당하다.”

하였다. 호조가 아뢰기를,

“말·소·나귀·노새는 과연 곡물과 다른 점이 있으니, 농군들이 나올 때에 끌고 오도록 하고, 공속(公贖)된 남녀 1백 10여 인 및 인삼을 캐다가 잡혀간 자 50여 인도 의당 일시에 나오도록 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 ▶ 46권 23년 4월 26일 戊寅

禮曹請令儒臣，博考古禮，撰出應行節目，次第舉行。弘文館啓曰：“臣等取考禮經諸書，俱無可據典禮，只於『續文獻通考』皇太子喪禮，有嘉靖二十八年所定，莊敬太子喪禮一款，似可做行。其中若干節目，略加刪定以入。一，聞喪第四日成服，上遣祭一壇，母妃祭一壇，諸王共祭一壇，東宮官共祭一壇。一，文武百官聞喪次日爲始，具素服、烏紗帽、黑角帶于本衙門宿歇，至第四日早，具齊衰服不杖，赴明德宮，大斂畢，舉哀行拜禮。一，自聞喪次日爲始輟朝，不鳴鍾鼓，十日止。一，聞喪第五日，百官烏紗帽、素服、黑角帶，詣西角門，行奉慰禮，退出易服布裹紗帽、經帶于各衙門辦事，通前成服爲始十二日而除。在京軍、民人等，各素服十二日而除，禁屠宰五日聽辦事。官吏、監生、耆老人等，俱于成服日，赴順天府舉哀，行拜禮，官吏俱衰服，監生人等具素服。一，各直隸、布政司等處，禮部請勅差官訃告。一，在外文武官員人等，聞訃次日，各具衰服舉哀，拜禮畢，易素冠服、經帶，十二日而除。其各王府、文武衙門，俱免進香。一，安葬先期擇日，遣工部堂上，祭告啓土。一，發引先期，命大臣一員護喪，各衙門堂上各一員，照例率領所屬，送喪遣官一員，以葬期告于太廟。至日，文武百官布裹紗帽、素服、經帶，候于北安門外，步送至西直門外，祭畢卽回。一，護喪官竝墳所執事官，待葬畢回。凡回還官員，俱易烏紗帽、青衣、黑角帶，次日以後，復常服辦事。一，下葬時，上遣祭一壇，母妃以下祭同於前。將葬時，行禮葬畢行，贈禮如儀。掩壙後，上遣祭一壇，護喪官行禮。掩壙畢，題主官題主訖，護喪官獻酒，贊讀祝。禮畢，安神，上遣祭一壇。葬畢，祀后土，遣工部堂上官行禮。”命下該曹。

예조가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널리 고례를 상고하여 응당 행해야 할 절목들을 뽑아내도록 해서 차례로 거행하기를 청하였다. 홍문관이 아뢰기를,

“신들이 예경 등의 서적을 가져다 상고해 보았으나 모두 근거할 만한 전례(典禮)가 없었고, 다만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의 황태자상례(皇太子喪禮)조에, 가정(嘉靖) 28년에 제정한 장경 태자(莊敬太子) 상례의 한 조항이 있는데, 이를 모방해서 거행할 수 있을 듯하였

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약간의 절목(節目)을 대략 다음과 같이 가려 뽑아 들입니다.

1. 부음을 들은 지 4일 만에 성복(成服)을 하고는 상이 일단(一壇)에 견제(遣祭)하고, 모비(母妃)가 일단에 제하고, 제왕(諸王)이 함께 일단에 제하고, 동궁의 관원들이 함께 일단에 제한다.

1. 문무백관은 부음을 들은 다음날부터 본 아문에서 소복(素服)·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갖추고 숙직하다가 제4일에 이르러서는 아침 일찍 재최복을 입고 상장을 짚지 않은 채로 명덕궁(明德宮)에 나가 대렴(大斂)을 끝낸 다음 거애(擧哀)하고 배례(拜禮)를 행한다.

1. 부음을 들은 다음날부터 조회(朝會)를 폐하고 종고(鐘鼓)를 연주하지 않다가 10일 만에 원상대로 복귀한다.

1. 초상난 제 5일 만에 백관이 오사모·소복·흑각대 차림으로 서각문(西角門)에 나아가 봉위례(奉慰禮)를 행하고 물러나와 각 아문에서 포과사모(布紗帽)와 질대(帶)로 갈아입고 직무를 수행하되, 지난 성복 때부터 통틀어 12일 만에 복을 벗는다. 서울에 있는 군인과 민간인들은 각기 소복을 입었다가 12일 만에 벗고, 가축 도살을 금한 지 5일 만에 제대로 직무를 수행한다. 관리(官吏)·감생(監生)·기로인(耆老人) 등은 모두 성복한 날 순천부(順天府)에 가서 거애하고 배례를 행하되, 관리는 모두 최복을 입고 감생과 기로인 등은 모두 소복을 입는다.

1. 각 직례(直隸)와 포정사(布政司) 등처에는 예부에서 칙사를 보내고 부고(訃告)하기를 청한다.

1. 외방에 있는 문무 관원들은 부음을 들은 다음날에 각기 최복을 입고서 거애하고 배례가 끝나면 소관(素冠)·소복·질대로 갈아입었다가 12일 만에 벗는다. 그리고 각 왕부(王府)의 문무 아문에는 모두 진향(進香)하는 일을 면제한다.

1. 안장(安葬)할 날짜는 미리 가려 놓았다가 공부(工部)의 당상관을 보내서 토신(土神)에게 제사하여 고하고 땅을 판다.

1. 발인(發引)하기에 앞서 명하여 대신 한 사람은 호상(護喪)을 하고, 각 아문의 당상 각 한 사람은 전례에 따라 소속 관원들을 거느리고 상여를 장송(葬送)하며, 관원 한 사람을 보내서 안장할 기일을 태묘(太廟)에 고하도록 한다. 발인하는 날에 이르러서는 문무백관이 포과사모·소복·질대 차림으로 북안문(北安門) 밖에서 기다렸다가 도보로 상여를 장송하여 서직문(西直門) 밖에 이르러서 제(祭)가 끝나면 즉시 돌아온다.

1. 호상관(護喪官)과 분소(墳所)의 집사관(執事官)은 장례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돌아오되, 돌아온 관원들은 모두 오사모·청의(青衣)·흑각대로 갈아입었다가 다음날 이후에는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 입고 직무를 수행한다.

1. 하장(下葬)할 때에 상이 일단(一壇)에 견제(遣祭)하고 모비(母妃) 이하도 전과 같이 제한다. 장사하려 할 때에 예를 행하고 장사가 끝나면 의식대로 증례(贈禮)를 행한다. 광(壙)을 덮은 뒤에 상이 일단에 견제하고 호상관이 예를 행한다. 광을 덮는 일이 끝나면 제주관(題主官)이 신주(神主)를 쓰고, 신주를 쓰고 나면 호상관이 헌주(獻酒)를 하고, 찬례(贊禮)가 축(祝)을 읽는다. 예가 끝나면 안신제(安神祭)를 지내고 상이 일단에 또 견제한다. 장례가 모두 끝나면 후토(后土)에게 제사하고, 공부(工部)의 당상관을 보내어 예를 행한다.”

하였는데, 상이 이를 해조에 내리라고 명하였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 46권 23년 6월 5일 丙辰

丙辰/咸鏡監司沈演馳啓曰：“開市，清差一百六十八人、馬二百四十四，出來于會寧府。臣令北兵使及會寧府使，隨便發賣，而臣營所備牛十首及金汝水所備牛四十首，姑先發賣云。”

함경감사 심연(沈演)이 치계하였다.

“시장을 열기 위해 청나라 차인(差人) 1백 68인과 말 2백 40필이 회령부(會寧府)에 나왔으므로, 신이 북병사 및 회령부사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발매(發賣)하게 하고, 신의 영(營)에 비축된 소 10마리 및 김여수(金汝水)가 비축하고 있던 소 40마리를 우선 먼저 발매하였 습니다.”

### ▶ 46권 23년 6월 10일 辛酉

誌文曰：

上之十五年，有南漢之厄，王世子入質于清國，越九年乙酉二月，始獲返國。越四月戊寅，王世子有疾遽劇，卒于昌慶宮之歡慶殿。上在遑豫中，親蒞喪制。嗚呼！天運之戾，一至於斯，上下之慟，寧有既乎？擇卜越六月十五日丙寅，梓室發引，十九日庚午，葬于孝陵右洞坐乙向辛之原，命臣植爲之誌。臣謹按，世子諱暉，萬曆壬子正月四日己亥，誕生于會賢坊之潛宮，幼而岐嶷穎異。上之登寶位也，首選耆儒五臣，教訓備至。乙丑正月，禮加元服，策命爲王世子。丁卯之變，車駕將幸江都，先命世子分朝，鎮撫南服，大臣李元翼、申欽等輔之。行駐全州，開撫軍司月餘，兵罷入覲江都，扈從還京。是年十月，行入學禮，十二月，聘參議姜碩期女封嬪，親迎如禮。甲戌正月，皇朝因奏請，頒降策封誥命，竝賜冕服、綵段，太監盧維寧來宣，世子迎送享禮如儀。乙亥冬，仁烈王后昇遐，秉禮宅憂，猝值丙子之變，從幸山城。丁丑二月，西行入瀋，明年請歸國，行大祥祭而不得。庚辰春，始得請歸覲，甲申春復歸覲，皆不得久留。是秋轉入燕京，清國已定河北，卽促世子輟還，與嬪御及諸公卿、質子大歸。上告廟頒赦，國人相慶。世子久留異域，數從軍旅，東獵朔荒，西穿燕塞，跋履山川，備經危險，雖神氣自若，而內受勞傷。還宮以後，連有寒熱之感，醫方錯誤，竟至弗祿。嗚呼痛哉！世子壽三十四。嬪宮舉三男三女，元孫某方就傅受學，餘竝幼。世子資性孝友，識度英毅。沖年撫軍，已自令旨指揮，一遵大朝命戒，節損供御，嚴飭陪從，專務省弊裕民，申令州縣，毋失東作。路見藁草覆潭，令曰：“此以飼馬軍興之時，切勿屑用。”又廚禁牛肉，酥酪亦不許供，戒以勿殺耕牛。從臣請乘駕輜，不許，中道復請，則曰：“今明日，乃大駕去邠日也。安敢坐乘？”終不許。兩湖帥臣，分三邑兵數千，以備護衛，世子曰：“吾避敵南下，安用軍衆？可速入援京師。”及次

全州, 西報又急, 大臣議轉向嶺海, 世子又不肯, 湖南幾擾而復定. 旋駕之日, 南民父老男女, 沿途頌祝, 至今稱之. 上之初駐山城, 群臣請亟出世子如丁卯故事, 世子哭泣不欲違難遠離. 既而, 清將脅我以世子爲質, 城中震駭, 三司力爭以爲決不可從, 上亦不忍也. 世子卽自請曰: “苟安社稷而保君父, 則臣何憚行?” 及被拘而西也, 大君偕行, 同館以處, 怡愉日篤, 諸從者一無間言. 寧、錦之役, 見迫從軍, 而世子會有微疾, 從臣圖代以大君. 及當再行, 世子憫大君獨勞, 諉以他故, 而堅請自行, 適以軍門之令止之而止. 時, 和好初定, 事釁多端, 殊方重譯, 讒巧百端, 而世子處於兩間, 不懾不迁, 蹈難如夷, 接應彌縫, 舉無失辭, 諸王、群帥, 久益歡洽, 終不敢加以無禮. 世子坦懷待物, 絕去邊幅, 待遇宮臣, 一以和厚. 諸有疾病困厄者, 必周恤拯濟, 盡力乃已. 文學鄭雷卿在館, 挑禍不測, 世子冒危伸救, 卒不能得, 則握手泣訣, 哀動左右. 襲斂諸具, 皆自內備, 聞者莫不感聳. 常時尊敬師傅, 聞其逝沒, 必舉哀臨弔, 雖已去職, 而特念舊恩, 斷以己意而行之, 此, 前所未有之舉也. 上用廷臣議, 取明德有勞, 行見中外之議, 贈諡曰昭顯, 吁其至矣! 臣謹就耳目所聆觀, 而志其大者如右. 其他如春坊所記, 禮儀之節、辭令之文、書筵講問, 行館舉措, 非係德行之本者, 不能盡著. 謹誌.

大提學李植之辭也.

지문(誌文)에 이르기를,

“금상(今上) 15년에 남한산성의 액환을 당하여 왕세자가 청나라에 인질로 들어갔다가, 9년 뒤인 을유년 2월에야 비로소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4월 26일(무인)에 왕세자의 병이 갑자기 위독해져서 창경궁(昌慶宮)의 환경전(歡慶殿)에서 졸하였다. 그러자 상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중이었으나 친히 상제(喪制)에 임하시었다. 아, 천운(天運)이 사납기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비통해 하는 상하의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날짜를 가려 6월 15일(병인)에 채궁(梓宮)을 발인하고, 19일(경오)에 효릉(孝陵) 우동(右洞)의 을좌신향(乙坐辛向)의 언덕에 장례지내기로 하였는데, 신 이식(李植)에게 지문을 짓도록 명하였다.

신은 삼가 상고하건대, 세자의 휘는 조로, 만력(萬曆) 임자년 정월 4일(기해)에 회현방(會賢坊)의 잠궁(潛宮)에서 탄생하였다. 세자는 어려서부터 뛰어나게 총명하고 영민하였는데, 상께서 보위(寶位)에 올라서는 으뜸으로 나이 많은 유신(儒臣) 5인을 선발하여 두루 지극하게 교훈시켰다. 을축년 정월에는 예(禮)에 따라 원복(元服)을 착용하였고 책명(策命)으로 왕세자(王世子)가 되었다.

정묘호란 때에는 거가(車駕)가 강도(江都)로 행행(行幸)하려 하면서 먼저 세자에게 분조(分朝)를 두어 남쪽 지방을 진무(鎭撫)하도록 명하고, 대신 이원익(李元翼)·신흠(申欽)에게 세자를 보필하도록 하였다. 세자는 전주(全州)에 내려가 주둔하면서 무군사(撫軍司)를 개설한 지 한 달 남짓 되어 전쟁이 끝나자, 군대를 파하고 강도로 들어가 부왕을 만나 뵈고서 부왕을 호종하여 서울로 돌아왔다. 이해 10월에는 입학례(入學禮)를 행하고, 12월에는 참의 강석기(姜碩期)의 딸을 맞아 예에 따라 빈(嬪)으로 봉하여 친영(親迎)하였다. 갑술년 정월에는 황조(皇朝)에서 우리의 주청(奏請)에 따라 책봉(策封)의 고명(誥命)을 반포해 내리고 아울러 면복(冕服)과 채단(綵段)을 내렸는데, 태감(太監) 노유영(盧維寧)이 와서 이 일을 선포하자, 세자는 그를 맞이하고 전송하는 것과 연향의 예를 의식대로 하였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을해년 겨울에는 인열왕후(仁烈王后)가 승하하자 예를 집행하며 거상(居喪)하던 중, 갑자기 병자호란을 만나 남한산성으로 행행하는 부왕을 따라갔다. 정축년 2월에는 인질이 되어 서쪽으로 심양(瀋陽)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해에는 귀국하여 모후(母后)의 대상제(大祥祭)를 행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으나 되지 않았다. 경진년 봄에야 비로소 청을 얻어 귀국하여 부왕을 뵈었고, 갑신년 봄에 다시 귀국하여 부왕을 뵈었으나, 모두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갑신년 가을에는 연경(燕京)으로 옮겨 들어갔는데, 청나라가 이미 하북(河北) 지방을 평정하고는 즉시 세자에게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재촉하니, 세자가 빈어(嬪御) 및 여러 공경(公卿)과 질자(質子)와 함께 대거 귀국하였다. 그러자 상계서는 종묘에 그 사유를 고하고 죄인들의 사면령을 반포하였으며, 온 나라 사람들이 서로 경하하였다.

세자는 타국에 오랫동안 억류되어 있는 동안 자주 군대를 따라 동쪽으로 가 삭황(朔荒)에서 사냥을 하고 서쪽으로 연새(燕塞)를 왕래하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위험한 고생을 두루 겪었으므로, 비록 신기(神氣)는 태연자약하였으나, 속으로는 노고로 인해 손상을 받았다. 그리하여 환궁한 이후로 계속해서 한열(寒熱)의 증세가 있었는데, 의술(醫術)을 잘못 시행하여 끝내 별세하기에 이르렀으니, 아 슬프다. 세자의 향년은 34세다. 빈궁이 3남 3녀를 키웠는데, 원손 모(某)는 지금 사부에게 나아가 학문을 배우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세자는 타고난 성품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으며, 학식과 도량이 영명하고 의연하였다. 어린 나이로 군사들을 안무(按撫)할 적에 이미 스스로 영지(令旨)를 내려 지휘하되, 일체 대조(大朝)의 명계(命戒)를 준행해서 자신에게 진공되는 물품을 절감하고, 시종(侍從)들을 엄격히 경계하여 오로지 폐단을 줄여 백성들을 여유 있게 해주기를 힘썼으며, 주현(州縣)에 거듭 명령을 내려 농사철을 놓치지 말고 제때에 농사짓도록 하였다.

세자는 또 길을 가다가 진창길에 깔아놓은 벧짚을 보고 명령하기를 ‘군사를 일으킬 때에 이것으로 말을 먹일 것이니, 절대로 헤프게 쓰지 말라.’하였다. **또 주방에는 쇠고기를 금하고, 수락(酪)도 진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농우(農牛)를 잡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시종하는 신하가 세자에게 가교(駕轎)를 탈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는데, 중도에서 다시 청하니, 세자가 이르기를 ‘오늘 내일이 바로 대가(大駕)가 도성을 떠나시는 날인데, 어찌 감히 가교를 타고 앉았을 수 있겠는가?’ 하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호남·호서 지방의 수신(帥臣)들이 세 고을의 군사 수천 명을 나누어 보내서 세자의 호위에 대비하자, 세자가 이르기를 ‘나는 적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왔으니, 군사들을 어디에 쓰겠는가? 속히 도성으로 들여보내서 구원해야 한다.’ 하였다. 전주(全州)에 진영을 설치하고 머무를 때에 서쪽의 경보(警報)가 또 위급함을 알려오자, 대신이 영해(嶺海)로 옮겨갈 것을 의논하였으나, 세자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호남 지방이 소요가 일 뻔하다가 다시 진정되었다. 그리하여 세자가 그곳을 철수하여 돌아오던 날에 호남 지방 백성들의 부로(父老)와 남녀(男女)들이 연도에 나와 송축(頌祝)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세자를 칭도하고 있다.

상계서 처음 남한산성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몇 신하들이 정묘년의 고사(故事)와 같이 속히 세자를 다른 지방으로 내보낼 것을 청하자, 세자가 슬피 통곡하며 위난(危難)을 피해 부왕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윽고 청나라 장수가 우리에게 세자를 인질로 삼아 보내라고 협박하자, 온 성중(城中)이 몹시 경악하였고 삼사(三司)는 ‘결코 그들의 말을 따를 수 없다.’고 극력 쟁론하였으며 상계서도 그들의 말을 차마 따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세자가 즉시 자청하기를 ‘진실로 사직을 편안히 하고 군부(君父)를 보호할 수만 있다면 신(臣)이 그곳에 가는 것을 어찌 꺼리겠습니까.’ 하였다. 이윽고 심양으로 잡혀 갈 적에 봉립대군도 함께 갔는데, 형제가 같은 관소(館所)에 거처 하면서 서로 화락함이 날로 돈독하였으므로, 여러 종자(從者)들 사이에 전혀 이간시키는 말이 없었다.

영주(寧州)·금주(錦州)의 전쟁 때에는 세자가 청나라로부터 종군(從軍)하라는 협박을 받았는데, 세자가 때마침 사소한 질병이 있으므로 시종하는 신하가 주선하여 봉립대군으로 대신하였다. 제차 종군할 때에는 세자가 대군 혼자서 수고하는 것을 민망히 여겨 다른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굳이 자신이 갈 것을 청하였는데, 마침 군문(軍門)에서 그만두게 하여 중지하였다.

이때 청나라와의 화친(和親)이 막 이루어지고 나서 불화의 단서가 되는 일이 많았고, 타국과 이중으로 통역(通譯)을 하는 가운데 교묘한 참소가 복잡다단하였으나, 세자는 양쪽 사이에 처해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거스르지도 않아서 어려움에 처하기를 마치 평탄한 데 처하듯이 하였고, 그들을 접응해서 임기응변으로 이리저리 꾸며대되, 전혀 실언(失言)한 것이 없었으므로, 제왕(諸王)들과 못 장수들이 오래 갈수록 더욱 좋아하게 됨으로써 끝내 세자에게 감히 무례하게 굴지 못하였다.

세자는 허심탄회하게 사람을 대하고 걸치레하는 것을 끊어버렸으며 세자궁의 신료들을 한결 같이 온화하고 친후하게 대우하였다. 그래서 질병이나 곤역을 당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힘을 다하여 돌보아 구제해 주고야 말았다. 문학(文學) 정뇌경(鄭雷卿)이 관소에 있으면서 화환을 일으킨 것이 불측하게 되었으므로 세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伸救)하였으나 끝내 어쩔 수 없게 되자, 그의 손을 잡고 울면서 결별하니, 애통해 하는 것이 좌우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정뇌경이 처형되고 나서는 그의 염습(斂襲) 도구들을 모두 스스로 관소 안에서 준비하니, 듣는 이들이 모두 감동하여 사기가 솟구쳤다.

세자는 항상 사부를 존경하였고, 사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거애(擧哀)하여 친히 조위하였으며, 이미 관직에서 물러났을지라도 특별히 옛날의 은혜를 생각하여 자신의 뜻으로 결단해서 시행하였으니, 이는 예전에 없었던 일이다.

상께서 정신(廷臣)들의 의견을 통하여 ‘덕을 밝혀 노고가 있었고 행실이 중외에 드러났다.[明德有勞 行見中外]’는 의논을 취해서 시호를 ‘소현(昭顯)’이라 내렸으니, 아, 지극하다. 신이 삼가 이목으로 듣고 본 것 가운데서 큰일만을 기록한 것이 이상과 같다. 기타 춘방(春坊)에서 기록한 예의(禮儀)의 절차와, 사령(辭令)의 글[文]과, 서연(書筵)에서 학문을 강론하고 문의한 것과, 심양 관소에서의 행동거지 등에 관한 것들은 덕행의 근본에 관계된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다 드러내지 못한다. 삼가 지(誌)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대제학 이식(李植)이 지은 글이다.

## ▶ 46권 23년 8월 1일 庚辰

朔庚辰/威鏡監司沈演馳啓曰: “因開市, 清人請貿送牛一百頭, 而十頭則自巡營備送, 其餘分定於南、北道, 而南道之牛則道路險遠, 未及入去. 不得已以營貯之米, 在北道者三百八石, 移給兵營, 備償牛價云.” 營貯米, 卽南道三手軍, 有疾病不能赴北者所納也.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함경감사 심연(沈演)이 치계하기를,

“개시(開市)로 인하여 청나라 사람이 소[牛] 1백 두(頭)를 사서 보내달라고 청했으므로 10두는 순영(巡營)에서 마련하여 보내고, 그 나머지는 남·북도에 나누어 정하였는데, 남도의 소는 도로가 멀고 험난한 관계로 미처 들여보내지 못하겠기에, 부득이 순영에 저장된 쌀로서 북도에 있는 것 3백 8석을 병영(兵營)으로 옮겨 비치했다가 소 값을 쳐주도록 하였습니

다.”  
하였는데, 순영에 저장된 쌀이란 바로 질병이 있어 북도에 가지 못하는 남도의 삼수군이 바친 것이다.

### ▶ 46권 23년 10월 15일 癸巳

癸巳/平安監司朴遼以北京往來夫、馬難支之弊，聞于朝，請令廟堂，明降指教。事下備局，備局議啓曰：“關西形勢，誠如狀啓。其道兵營防軍收布，多至累百餘同，只爲兵使私儲之物，就其中除出四百同，補用於雇價。自今兵營每年所捧之綿布，令監司收徵，以爲夫、馬之價。且黃海兵使必有餘儲，而本營亦有軍兵收布之事，竝令詳覈實數，一體施行。”答曰：“依啓辭施行，而兵營所捧價布，自監營收捧事勿施。且昭顯回還時，本道所留馳馬牛羊，亦令補用。”

평안도 관찰사 박서(朴)가 북경을 왕래하는 행차에게 인부와 말을 지공하는 데 따른 폐단을 조정에 계문하면서 묘당으로 하여금 분명한 지시를 내리도록 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를 비국에 내렸다. 비국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관서 지방의 형세는 참으로 장계와 같습니다. 그 도의 병영(兵營)이 방수군(防守軍)에게서 받아들이는 베가 몇백 동(同)에 이르지만 단지 병사(兵使)의 사유물이 되어버렸고, 그중 4 백 동을 덜어 내어다 고가(雇價)에 보태어 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병영에서 매년 받아들이는 면포를 감사가 받아들여서 인부와 말의 고가로 쓰게 하소서. 그리고 황해도 병사도 필시 남은 비축이 있을 것인데 본영(本營) 역시 군병에게 베를 받아들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 실제의 수량을 상세히 조사하여 일체로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시행하되, 병영에서 받아들이는 가포(價布)를 감영에서 받아들이는 일은 시행하지 말라. 그리고 소현세자가 돌아올 적에 본도에 나누어 주었던 마소와 양도 보태어 쓰도록 하라.”

하였다.

### ▶ 47권 24년 5월 20일 乙丑

乙丑/洪清道公州地民家，有牛生犢，兩頭兩耳四目

홍청도 공주(公州) 지역의 민가에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머리 둘에 귀가 둘이고 눈이 넷이었다.

▶ 48권 25년 2월 2일 癸酉

命大君家奴金鐵等七人，全家徙邊。丙子歲，牛疫遍於八路，牛畜幾於絕種，朝廷禁其屠殺，與殺人同律，畜産漸繁，屠牛牟利者，投屬宮家，恣意宰殺。刑曹、漢城府、司憲府禁吏等，捕而告之，則宮家輒毆打其禁吏妻子，禁吏等不受禁牌，爭相逃匿。及閱聖徽判刑曹，欲矯其弊，問屠牛人數於漢城府，麟坪大君家所屬四十二人、綾原大君家所屬三十八人。聖徽乃抄出兩宮家奴各十八人以啓，請令漢城府推覈，全家徙邊，上不得已從之。

대군의 가노(家奴) 김철(金鐵) 등 7인을 전가 사변(全家徙邊)시키라 명하였다. 병자년에 우역(牛疫)이 전국에 널리 퍼져 소가 거의 멸종되기에 이르렀을 때 조정에서 도살을 엄금하여 살인한 것과 같은 죄를 적용하도록 하니 축산이 차차 번성하게 되었는데, 소를 도살하여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궁가에 투숙하여 제멋대로들 도살하였다. 형조·한성부·사헌부의 금리(禁吏)들이 체포하여 고발하면 궁가에서는 그때마다 그 금리의 처자들을 구타하므로 금리들은 금패(禁牌)를 수령하지 않고 서로 피하기에만 급급했다. 민성휘(閔聖徽)가 형조판서가 되어 그 폐단을 바로잡고자 하여 소 도살자의 숫자를 한성부에 물으니, 인평대군(麟坪大君) 집 소속이 42인, 능원대군(綾原大君) 집 소속이 38인이었다. 성휘가 이에 두 궁의 18인씩을 뽑아서 아뢰고 한성부로 하여금 조사해서 전가 사변시키도록 청하니, 상이 부득이하여 따랐다.

▶ 48권 25년 3월 2일 癸卯

迎接都監啓曰：“鄭勅以爲：‘中江通市之物貨，不過綿布、麻布、鹽石、牛馬、農器等物，兩西商賈，猶可交易，而春市時紙地、南草等物，則聞令餉臣，既已優備，漢城府及開城府商賈，不必入送。’云矣。”答曰：“買馬事則措辭謝之，以杜其弊。”

영접도감이 아뢰기를, “정 칙사가 말하기를 ‘중강(中江)에서 교역하는 물화는 면포·마포·소금·우마·농기구 등에 불과하니 양서(兩西)의 상인들만으로도 교역이 가능하다. 봄철에 교역하는 물화인 종이·남초(南草) 등은 향신(餉臣)들로 하여금 넉넉히 준비하게 했다고 하니, 한성부와 개성부의 상인들을 꼭 보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하니, 답하기를, “말을 매입하는 일은 말을 잘 해 사절하여 폐단을 막으라.”하였다.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 49권 26년 2월 17일 壬午

壬午/洪淸、全南兩道暗行御史沈澤啓曰：“淸州牧使李晩榮，喜飲酒用牛肉；德山縣監李壽昌，多載婚需，率妻上京，稱以貿販，屠牛收稅；泰安郡守申澆，大同官廳所捧，出以舊結，豹皮之價，濫徵於民；保寧縣監韓得良，出役舊結，濫徵衙祿，又徵無名之米，稱以紙價。水使金是聲，除弊從簡，人皆稱譽；馬梁僉使申崧，軍兵代立之布，全不准給；安興僉使盧惟敏，愛恤軍卒，刑杖不濫；所斤僉使金時豪，濫徵價布，土兵呼怨；金堤郡守趙涑，律已清簡，民皆安業；光州牧使申翊全，盡力爲政，務去民瘼，而私用刑訊，滯訟亦多；玉果縣監文益峻，屠牛收稅，濫率寡女。”上命趙涑、金是聲、盧惟敏等表裏一襲賜給，李晩榮、韓得良、李壽昌、申澆、文益峻、金時豪等拿推，申翊全、申崧推考。

홍청(洪淸)·전남(全南) 두 도의 암행어사 심택(沈澤)이 아뢰기를,

“淸州목사(淸州牧使) 이만영(李晩榮)은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쇠고기를 쓰고 있으며, 덕산현감(德山縣監) 이수창(李壽昌)은 혼수(婚需)를 많이 신고 아내를 데리고 상경하면서 무관(貿販)이라고 일컬었고 소를 잡고 세금을 거두었으며, 태안군수(泰安郡守) 신량(申)은 대동관청(大同官廳)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구결(舊結)로 내고 표피(豹皮)의 값을 함부로 백성들에게 징수하였으며, 보령현감(保寧縣監) 한득량(韓得良)은 구결(舊結)에 의거해 출역(出役)시키고 함부로 아록(衙祿)을 징수했는가 하면 또 명목 없는 쌀을 징수하면서 지가(紙價)라고 일컬었습니다. 수사(水使) 김시성(金是聲)은 폐단을 제거하고 되도록 간략하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고 있으며, 마량첨사(馬梁僉使) 신륵은 대립(代立)한 군병에게 주어야 할 배를 전혀 주지 않았으며, 안흥첨사(安興僉使) 노유민(盧惟敏)은 군졸들을 사랑하여 형장을 함부로 쓰지 않았으며, 소근첨사(所斤僉使) 김시호(金時豪)는 가포(價布)를 외람되이 징수하여 토병(土兵)들이 원망하고 있으며, 김제군수(金堤郡守) 조속(趙涑)은 자신을 청간(淸簡)함으로 규제하여 백성들이 모두 편안히 생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광주목사(光州牧使) 신익전(申翊全)은 정사에 힘을 다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제거하려고 힘쓰고는 있으나 사사로이 형신을 쓰고 지체된 송사도 많았으며, 옥과현감(玉果縣監) 문익준(文益峻)은 소를 잡고 세금을 거두고 함부로 과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조속·김시성·노유민 등에게는 표리(表裏) 1습을 사급하고 이만영·한득량·이수창·신량·문익준·김시호 등은 잡아다가 추문하며, 신익전·신륵은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 ▶ 49권 26년 4월 13일 丁未

慶尙道龍宮縣人家有鷄生雛四足；全南道務安縣人家有牛生犢，一身兩頭。道臣以聞。

경상도 용궁현(龍宮縣)의 인가에서 닭이 다리가 네 개인 병아리를 낳고, 전라도 무안현(務安縣)의 인가에서는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몸뚱이는 하나에 머리가 둘이었다. 감사가 아

되었다.

▶ 49권 26년 5월 11일 乙亥

乙亥/大司諫沈之源、獻納李海昌、正言丁彦璧等上劄曰：

臣等伏見，災異之慘，未有甚於近年．大旱之餘，繼以大水，八路飢荒，野有餓莩，星見於晝，雷發於臘，霜雪於暮春，雨雹於孟夏．平壤之火，燒盡民家，咸鏡之風，田無餘種，四足之鷄，出於嶺南，兩頭之犢，產於湖南，可怪可愕者，有不可一二數者．當此之時，君臣上下，恐懼修省，遑遑汲汲，以盡應天之實，猶恐不免於亂亡，而恬嬉玩揭，無異於太平．大內修理之役纔完，宮家營繕，又起於數處．不幸而遭無前之變，不可久御不潔之地，則前日之役，固出於不獲已也．宮家造成，非是及時之役，而竝舉於今日，何耶？竊聞，內間又有別構之役．道路傳說，雖不可信，或如有是舉，則此豈臣等所望於聖明者哉？殿下所御之法宮，亦非不廣，何必更營別構，以累清明之德也？此正殿下痛自咎責，以答天譴之時，而土木之役，尙且連仍，未免爲輕忽之歸，臣等竊爲殿下惜之．

答曰：“省劄具悉．深嘉爾等憂愛之誠．劄辭無非格言至論，予敢不惕念哉？且所陳營繕，必是大君家上年未畢之役也．其役雖小，當令停止焉．”

대사간 심지원(沈之源), 헌납 이해창(李海昌), 정언 정언벽(丁彦璧)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들이 삼가 재이의 참담함을 살펴보건대, 근년보다 더 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큰 가뭄 끝에 홍수가 잇따라서 팔도에 기근이 들어 들판에는 굶어죽은 시체가 널려 있으며, 별이 낮에 나타나고 천둥이 선달에 치고 서리가 늦은 봄에 내리고 우박이 초여름에 내렸습니다. 평양(平壤)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여 민가가 모두 불탔고 함경도에서는 바람이 불어 밭에 남아난 곡식 종자가 없으며, 밭이 네 개가 달린 닭이 영남에서 생겨났고 머리가 둘인 송아지가 호남에서 생겨나는 등 괴이하고 경악스러운 것이 하나 둘로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때를 당하여서는 군신 상하가 공구 수성하여 황황급급하게 하늘의 노여움에 대응하는 실상을 극진히 하더라도 오히려 난망(亂亡)을 면치 못할까 두려운데, 태연한 마음으로 즐기는 것이 태평스러운 때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대내의 수리를 막 끝내자 궁가의 영선을 또 몇 군데에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전에 없던 변을 당하였으므로 오랫동안 불결한 곳에 계시는 것이 불가하였으니, 전일의 역사(役事)는 진실로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궁가를 짓는 것은 이런 때에 해야 할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울러 오늘날 거행하는 것은 어찌서입니까.

삼가 듣건대 내간(內間)에 또 따로 집을 짓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떠도는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이 어찌 신들이 성상께 기대하던 것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임어하시는 정전이 넓지 않은 것이 아닌데 어찌 다시 따로 집을 지어 청명한 성덕을 더럽힐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바로 전하께서 통렬히 자책하여 하늘의 견책에 답해야 할 때인데도 토목 공사의 역사가 아직도 잇따르고 있어서 경홀히 여기는 데로 귀착됨을 면할 수 없으니, 신들은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하니, 답하기를,

“차자의 내용은 살펴 알았다. 그대들의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을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차자의 내용은 모두가 격언이요 지론이니, 내가 감히 조심하여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진달한바 영선에 대한 일은 필시 지난해에 역사를 끝내지 못한 대군의 집을 두고 한 말인 듯하다. 그 역사가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정지시키게 하겠다.” 하였다.

### ▶ 50권 27년 3월 15일 甲戌

咸鏡監司李厚源馳啓曰: “淸差自厚春出來, 農牛必欲買一百三十頭. 各邑分定, 只七十頭, 而彼如一向責出, 則當以幾頭爲限耶? 北道新經兵火, 又經牛疫, 當此農耕, 不可掃盡民牛, 以副他國之所需. 請令廟堂指揮.” 備局請以百頭爲限, 下敕曰: “百頭過多, 定以八九十頭可也.”

함경감사(咸鏡監司) 이후원(李厚源)이 치계하기를,

“청나라 차인(差人)이 후춘(厚春)에서 나와서 농우(農牛) 1백 30두(頭)를 기어이 사려 합니다. 각 고을에 분정(分定)한 것은 70두뿐인데, 그가 줄곧 내라고 요구하면 몇 두까지 주어야 합니까? 북도(北道)는 막 병화를 겪고 또 우역(牛疫)을 겪었는데, 이 농사철을 당하여 백성의 소를 몽땅 털어서 다른 나라의 수요에 응할 수는 없습니다. 묘당을 시켜 지휘하십시오.”

하였는데, 비국이 1백두로 한정하기를 청하니, 하교하기를,

“1백두는 너무 많으니 팔구십두로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 18. 孝宗實錄

▶ 6권 2년 5월 29일 乙巳

乙巳/清差到咸鏡道開市，求買牛一百五十頭、鹽一千石、白紙一萬卷、鐵鍋二千五百、釜二百五十及綿布等物。

청차(淸差)가 함경도에 이르러 개시(開市)하여 소 1백 50두, 소금 1천 석, 백지(白紙) 1만 권(卷), 쇠 냄비 2천 5백 개, 솥 2백 50개와 면포(綿布) 등 물품을 사갔다.

▶ 6권 2년 6월 26일 辛未

淸人開市於會寧，貿取牛五十八頭、木綿三十七匹、布四十五匹、白紙九百三十四卷、釜子一百六十坐、犁口二百三十一箇、鹽四百二十六斛而還，監司啓聞。

감사가, 청인(淸人)이 회령(會寧)에 개시(開市)하여 소 58두, 무명 37필, 포(布) 45필, 흰 종이 9백 34권(卷), 솥 1백 60좌(坐), 쟁기 2백 31개, 소금 4백 26곡(斛)을 무역해 돌아갔다고 계문하였다.

## 19. 顯宗實錄

### ▶ 1권 즉위년 6월 2일 辛卯

憲府劾西原縣監成楚客酗酒哭班，削去仕版。楚客積忤時議，復以此見彈，然非實狀也。又劾刑曹參議李惕然，(經)〔徑〕放屠牛人。果川縣監沈樞成服，麻帶異於常制，亦竝罷職。

사헌부가, 서원현감(西原縣監) 성초객(成楚客)이 곡반(哭班)에서 술주정을 했다 하여 사판에서 삭제하도록 탄핵하였다. 초객은 당시 물의에 저축을 받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로 다시 탄핵을 당했으나, 사실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또 형조참의 이척연(李惕然)도 소를 도살한 사람을 지레 석방했다 하여 탄핵을 받고, 과천현감 심추(沈樞)는 성복 때 마대(麻帶)가 보통 것과 다르다 하여 역시 파직을 당하였다.

### ▶ 1권 즉위년 6월 11일 庚子

上御養志堂。領議政鄭太和、左議政沈之源、右議政鄭維城、吏曹判書宋時烈、大司憲宋浚吉、同副承旨李殷相入待。三公與時烈、浚吉迭進，援引禮經，力陳從權之道，上流涕答曰：“予雖有疾，不至深重，卿等過慮矣。”浚吉復引成宗大王答廷臣‘行素果難，他事庶可自盡之教，’反覆陳達。時烈亦曰：“殿下不思保重，以貽後悔，在廷臣僚，俱爲罪人，殿下亦不得爲孝矣。”鄭太和曰：“往於發遣御史之時，先王特令臣與宋時烈，議定封書中節目，而正當凶歲，理宜簡節，宰牛一款，初不舉論。蓋爲此事，各邑之所常有，而既已現發，則雖善治者，例不免坐罷故也。”

상이 양지당(養志堂)에 나아갔다.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심지원, 우의정 정유성, 이조판서 송시열, 대사헌 송준길, 동부승지 이은상이 입시하였다. 삼공(三公)과 시열·준길이 번갈아 앞으로 나아가 예경을 인용해가며 권도를 취할 것을 강력히 아뢰자, 상이 눈물을 흘리면서 답하기를,

“내 비록 병이 있기는 하나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닌데, 경들이 지나치게 염려를 하고 있다.”

하자, 준길이 다시 성종 대왕이 재정 신료에게 답했던 ‘행소(行素)는 과연 어려운 일이고 그 밖의 다른 일이나 있는 힘을 다하여 해야겠다.’는 하교를 인용하면서 반복하여 아뢰었고, 시



열도 아뢰기를,

“전하께서 몸 보증을 생각지 않으셨다가 후회를 끼치는 날이면 재정 실향들이 모두 죄인이 되는 것은 물론, 전하께서 효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으며, 정태화는 아뢰기를,

“지난번 어사를 내보낼 때 선왕께서 특히 신과 송시열로 하여금 봉서(封書) 안의 절목을 논의하여 정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흉년이어서 조사 대상을 되도록 줄여야 했기 때문에 소 도살 항목은 애당초 거론을 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각읍마다 항상 있는 일로서 그것을 들추어내기로 들면, 비록 좋은 치적을 남기고 있는 자라도 으레 파직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하였다.

#### ▶ 4권 2년 4월 16일 乙未

嶺南金山郡有牛產犢一身五足.

영남 금산군(金山郡)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몸 하나에 다리가 다섯이었다.

#### ▶ 4권 2년 5월 5일 癸丑

吉州有腥霧. 霧氣襲人, 臭惡難堪. 有牛產犢, 一體兩頭. 富寧、三水、甲山霜降. 高原、永興雨雹. 監司權堦馳啓以聞.

길주(吉州)에 성무(腥霧)가 끼었다. 그 안개 기운이 사람을 엄습하면 악취에 견디기 어려웠다.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몸 하나에 머리가 둘이었다. 부령(富寧)·삼수·갑산에 서리가 내렸다. 고원(高原)·영흥(永興)에 우박이 쏟아졌다. 이상의 사항을 감사 권우(權)가 치계(馳啓)해 보고했다.

#### ▶ 4권 2년 12월 16일 辛酉

辛酉/上御興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臣. 左相沈之源曰: “近來外方癘疫, 處處熾盛, 且見兩南狀啓, 則饑饉孔慘, 斷無救活之策, 誠可悶慮矣.” 又曰: “禁府無行公堂上, 宰列之臣, 滯獄日久, 而未有處置, 事甚未安. 洪命夏則被斥於囚人, 因此遞改, 事體未安, 而金南重、朴長遠則既被玉堂之筭論, 宜速遞而出代也.” 上曰: “兩臣竝遞, 卽日出代可也.” 之源又曰: “嶺南之凶荒特甚, 雖以嶺東萬餘石穀, 轉運以賑, 勢難遍及. 請更以嶺東山火田收稅之穀, 添運救活.” 上從之. 之源又曰: “畿甸之民, 亦多窮餓. 今猶如此, 況明春乎? 竊聞宣惠廳飼馬之穀, 多至八千餘石, 除出數千石, 以爲賑救飢民之地, 而牛馬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分養於西北道各邑, 則似爲一助也.” 上曰: “令太僕量定厥數舉行可也.” 大司憲洪重普、大司諫李殷相竝請還收李敏求敍用之命, 不允. 重普請遞閔周冕, 而出李瑩, 殷相請遞丁昌燾, 而出李枝茂, 竝從之.

상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좌상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

“근래 외방 곳곳에 전염병이 만연되어 있고, 또 양남(兩南)의 장계(狀啓)를 보면 너무도 참혹하게 기근이 들었다 하는데, 전연 구제할 방법이 없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금부에 공무를 집행하는 당상이 없는 관계로, 재상의 반열에 있는 신하가 오래도록 옥에 갇혀 있는데도 아직 처치하지 못하고 있으니, 일이 매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홍명하(洪命夏)는 수인(四人)으로부터 배척을 받은 것인 만큼 이로 인해 체직시킨다면 사체상 미안하게 되겠습니다만, 김남중(金南重)과 박장원(朴長遠)은 일단 옥당의 차자로 논박을 받은 상태이니 속히 체직시키고 후임자를 내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두 신하는 모두 체직시키고, 오늘 중으로 후임자를 임명토록 하라.”

하였다. 지원이 또 아뢰기를,

“영남(嶺南) 지방에 흉년든 상황이 특히 혹심하니, 영동(嶺東) 지방에서 1만여 석의 곡식을 실어다 진휼한다 해도 두루 혜택을 입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시 영동 산화전(山火田)에서 조세로 거두어들인 곡식을 덧붙여 운송함으로써 구제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지원이 또 아뢰기를,

“기전(畿甸)의 백성도 대부분이 굶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더구나 내년 봄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삼가 듣건대 선혜청에서 말[馬]을 기르는 데 쓰는 곡식이 무려 8천여 석에 이른다고 하니, 수천 석을 덜어내어 기민(飢民)을 진구할 바탕을 삼게 하고, 우마(牛馬)는 서북도(西北道) 각 고을에 나눠주어 기르게 하소서.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태복시로 하여금 그 수를 헤아려 정한 뒤에 거행토록 하라.”

하였다. 대사헌 홍중보(洪重普)와 대사간 이은상(李殷相)이 모두 이민구(李敏求)를 서용하도록 한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홍중보가 민주면(閔周冕)을 체차시키고 이무(李)를 출사시킬 것을 청하고, 이은상이 정창도(丁昌燾)를 체차시키고 이지무(李枝茂)를 출사시킬 것을 청하니, 모두 따랐다.

### ▶ 5권 3년 4월 8일辛亥

忠淸道鎮岑地, 有牛產雛, 一身二尾, 隨地卽死, 本道監司馳啓以聞.

충청도 진잠(鎭岑)에서 몸 하나에 꼬리가 둘인 송아지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죽었다. 본도

감사가 치계하여 보고하였다.

▶ 6권 4년 6월 2일 戊戌

藥房提調金佐明曰：“祭事黑牛猝斃，臣今日以不病牛，纔出置閭家，勿之相染，今聞斃者連續，只七首餘在云。此必牛疫之毒者，宜令該司，覓送救療藥物。”上曰：“前頭祭享，殊甚可慮也。”

【史臣曰：“犧牲告災，變之大者。而下不以災異上聞，上不以修省加意，其所講論，不過乎救療之方，繼用之道，可謂君臣俱失之矣。”】

약방제조 김좌명이 아뢰기를,

“제향(祭享)에 쓸 흑우(黑牛)가 갑자기 죽었기에 신이 오늘 병들지 않은 소들을 막 여염집에 내두어 전염되지 않도록 하였는데, 지금 듣건대 계속해서 죽어가 일곱 마리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필시 소 전염병 중에서도 독한 것이라서 그럴 것이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구료(救療)할 약물을 찾아 보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앞으로 제향할 일이 매우 염려스럽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희생물에 재변이 생긴 것은 변고 중에서도 큰 변고이다. 그런데 아래에서는 재이(災異)로 상문(上聞)하지 않고 위에서는 수성(修省)할 뜻을 다잡지 않은 채 어떻게 하면 구료하고 계속 쓸 수 있는지만 강론하고 있으니, 임금이나 신하 모두 잘못되었다 하겠다.】

▶ 7권 4년 11월 27일 辛卯

辛卯/上引見大臣、備局諸臣。領議政鄭太和曰：“近來大小差除，恒患乏人。祖宗朝用人之規，無以賞加資之例，只觀其人而拔擢之。今也則無是規，乏人之歎，固其宜也。”左議政元斗杓曰：“臣之不似，只欲以人事君，每發薦人之說。曾被徐必遠之斥，而今又妄發者，誠以不擢人，則無以用人故也。聖明觀群臣可用者，宜爲擢用。”獻納李敏叙曰：“賓廳引見例也，而外人皆有所想望，必欲知有何說話、有何講究，可見群情，以委靡爲慮也。如欲奮發有爲，則此正其時也。人皆曰，朝家不恤民隱，故不罷山海折受云。古人曰，殺一不辜，行一不義，得天下不爲，人君若以此爲心，則民豈有不蒙惠澤者乎？今當陽復之月，一陽初動，萬物潛滋，古人所謂不遠而復者，其義大矣。自今日天心奮振，大臣警責，有所講究，以施惠澤，則豈非社稷之福乎？”右議政洪命夏曰：“民怨之滋，亦由於守令之非人，宜遣御史廉問。”太和曰：“臣意亦然。”敏叙曰：“下命御史治裝，則守令親知，無不飛通各邑，亦送人跟逐御史之行，誠可痛也。臣聞成宗朝，或以入直之官，或以館儒，不意發遣，此是美規也。”上曰：“右相之意，欲廉問八路否。”命夏曰：“宜先廉問畿甸、兩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西.”上唯唯. 兵曹判書金佐明曰: “嶺東被災中, 江陵、襄陽爲甚, 兩邑騎兵, 今當番次, 衣裝單薄, 凍死甚可慮. 宜減番一朔, 而其代以用餘軍布, 雇立似便.” 上從之. 大司成閔鼎重曰: “頃者極寒之日, 有一飢兒, 籍以藁薦, 棄於道中, 今方衣食之以救活, 而聞如此者甚多. 若有收養者, 許爲其奴婢, 則遺棄之兒, 見活者多矣. 請令京兆, 成給公文.” 上許之. 鼎重曰: “聞全羅道山城會付之米, 雖以米爲名, 其實皮穀云, 宜發遣京官, 摘奸重治也.” 斗杓曰: “此言是也.” 太和曰: “鼎重既有所聞, 使之指告某邑.” 鼎重曰: “笠巖如此云矣.” 上曰: “發遣京官摘奸.” 鼎重曰: “儒生通讀畫數, 臣請以二十分爲限, 禮曹則以十五分爲定云. 如此則抄啓之數太多, 莫如以二十分爲限.” 上從之. 持平李柙, 以梁孝元、李翊臣及首譯拿問事論啓, 則上不聽, 旋因太和之言, 從之. 又啓曰: “吉州牧使任翰伯, 今若罷職而止, 適足以中其願, 請拿問定罪.” 上從之. 又啓: “義州府尹李元禎, 曾爲長城府使時, 有濫用官穀之罪, 及爲東萊, 又有不善處之事. 已試見敗之人, 今不可起罷, 授以邊上重任. 請罷職.” 上從之. 鼎重曰: “船隻鹽盆漁箭, 旣已查出, 船隻則已有判付定數之事, 而明禮等宮鹽盆漁箭, 則尚未定數, 敢稟.” 上曰: “依船隻例, 定數.” 敏叙啓曰: “臺啓之事則雖有議定, 不得舉行, 例也. 本院方啓諸宮家漁場事, 而提調閔鼎重遽以定數爲請, 事體不當. 請推考.” 上不從. 副校理呂聖齊曰: “頃因憲府之啓, 屠牛者與殺人同罪. 此必不可行之事, 而貴人賤畜之義, 亦不當如是. 宜變通也.” 上曰: “旣布其令, 今又收之何如?” 太和曰: “丙子年雖有此令, 未聞以屠牛被殺者也.” 敏叙曰: “傷人乎不問馬, 乃古聖人事也. 豈可以屠牛殺人乎?” 太和曰: “諸臣之言如此, 變通宜矣.” 上曰可. 聖齊曰: “聞禁軍入番者, 逢點於內官云, 甚不可也.” 上曰: “非今創始, 自先朝有此事矣.” 太和曰: “在先朝時, 禁軍之新入番者, 使會于差備門外, 使內官視其軍裝, 因以饋酒, 此出於優待之意, 初非爲點閱, 而今則仍成點閱之規矣.” 上不答.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근래 대소 관원을 차임하고 제수할 때 늘 인재가 부족한 걱정이 있습니다. 조종조에서 사람을 임용하는 규정을 보건대 상으로 가자(加資)하는 예는 없고 단지 그 사람을 살펴서 발탁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규정이 없으니 인재가 부족하다는 탄식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좌의정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신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저 사람을 추천하는 것으로 임금을 섬기려고 한 나머지 매번 인재를 천거하자는 논을 내놓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찍이 서필원(徐必遠)의 배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만, 지금 또 망령되이 이 논을 내놓은 것은 진실로 사람을 발탁하지 않으면 인재를 임용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명(聖明)께서 보시기에 신하들 중에 쓸만한 자가 있거든 발탁해서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헌납 이민서(李敏)가 아뢰기를,

“빈청(賓廳)에서 인견하는 것은 의례적인 일인데도 외부 사람들은 모두 뭔가 기대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강구했는지 꼭 알고들 싶어 하니, 못 사람들의 마음에 무기력해진 조정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뜻을 분발하여 큰일을 하려

고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조정에서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산해(山海)를 절수(折受)받게 한 것을 혁파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죄없는 이를 한 사람이라도 죽이고 의롭지 못한 일을 한 가지라도 행해야 할 상황이라면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임금이 만약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양(陽)이 회복되는 달로서 일양(一陽)이 처음 발동하여 만물이 은밀히 자라나는 때인데, 옛사람이 말한 ‘머지않아 회복된다.’는 그 뜻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 마음속으로 분발하시고 대신이 경책(警責)하여 뭔가 강구하면서 혜택을 베푼다면 어찌 사직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우의정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백성의 원망이 자심해지는 것은 역시 수령이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이니,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염문(廉問)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태화가 아뢰기를,

“신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고, 민서가 아뢰기를,

“명이 내려 어사가 행장을 꾸리면 수령의 친지가 모두 급히 각읍에 통지하는 동시에 사람을 보내 어사의 뒤를 밟아가게 하니,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신이 듣건대 성종조(成宗朝) 때 혹 입직(入直)한 관원이나 혹 관유(館儒)를 불의에 떠나보냈다 하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규례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상의 생각에는 팔로(八路)를 염문하게 하고 싶은가?”

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먼저 기전(圻甸)과 양서(兩西)를 염문케 하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잘 알았다고 하였다. 병조판서 김좌명(金佐明)이 아뢰기를,

“영동(嶺東)의 재해 지역 중에도 강릉(江陵)과 양양(襄陽)이 심한데, 두 고을의 기병(騎兵)이 지금 당번의 차례를 당하여 의장(衣裝)이 허술하니, 얼어 죽을까 매우 염려됩니다. 그러니 번(番) 서는 것을 1개월 감해주고 그 대신 쓰고 남은 군포(軍布)를 가지고 고군(雇軍)을 대립(代立)시키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대사성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

“지난번 몹시 춥던 날 기아(飢兒) 하나가 거적에 싸여 길거리에 내버려져 있기에 바로 옷을 입히고 밥을 먹여 살렸는데, 들으니 이런 경우가 매우 많다 합니다. 만약 양자로 거두어 들이는 자가 있을 경우 노비로 삼는 것을 허락해 준다면 버려진 아이들 가운데 살아나는 애들이 많을 것입니다. 경조(京兆)로 하여금 공문을 발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정중이 아뢰기를,

“듣건대 전라도 산성(山城)의 회부미(會府米) 가운데 명색은 쌀이면서도 실제로는 피곡(皮穀)인 경우가 있다 하니, 경관(京官)을 파견하여 적간(摘奸)해서 중하게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하고, 두표가 아뢰기를,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이 말이 옳습니다.”

하였는데, 태화가 아뢰기를,

“정중이 이미 들은 바가 있을테니 어떤 고을인지 지적해 알리게 하소서.”

하니, 정중이 아뢰기를,

“입암(笠巖)이 그렇다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관을 파견하여 적간토록 하라.”

하였다. 정중이 아뢰기를,

“유생이 통독(通讀)한 성적의 평점을 신은 20분(分)을 한계로 삼자고 청하였는데, 예조가 15분으로 정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초계(抄啓)하는 숫자가 너무 많게 될 것이니, 20분으로 한계를 정하는 것만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지평 이합이 양효원(梁孝元)·이익신(李翊臣) 및 수역(首譯)을 나문(拿問)할 일을 논계하니 상이 들어주지 않다가 곧바로 태화의 말로 인해 따랐다. 또 아뢰기를,

“길주목사(吉州牧使) 임한백(任翰伯)을 지금 만약 파직만 시키고 그냥 놔둔다면 그의 소원대로 해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으니,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의주부윤(義州府尹) 이원정(李元禎)은 일찍이 장성부사(長城府使)로 있을 때 관곡(官穀)을 남용한 죄를 지었는데 그 뒤 동래(東萊)에 있으면서 또 일을 제대로 선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시험해 본 결과 일을 망친 것으로 판명된 사람을 지금 다시 기용하여 변경의 중책을 제수할 수는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정중이 아뢰기를,

“선척(船隻)·염분(鹽盆)·어전(漁箭)을 이미 조사해 낸 뒤, 선척에 대해서는 일단 판부(判付)하여 숫자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만, 명례궁(明禮宮) 등 궁가의 염분과 어전은 아직 숫자를 정하지 못하였기에 감히 품(稟)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척의 예에 따라 숫자를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민서가 아뢰기를,

“대간이 논계하고 있는 일은 아무리 의정(議定)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행하지 못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그런데 본원이 제궁가의 어장(漁場)에 관한 일을 한창 논계하고 있는 중인데 제조 민정중이 느닷없이 숫자를 정하자고 청하였으니 일의 체계로 볼 때 부당합니다.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부교리 여성제(呂聖齊)가 아뢰기를,

**“지난번 헌부가 논계한 데 따라서 소를 도살한 자는 살인한 자와 똑같은 죄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필시 행해질 수 없는 일로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가축을 천하게 여기는 의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래서는 안 되니, 변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명령을 반포하였는데 지금 또 거두어들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병자년에도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소를 도살했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민서가 아뢰기를,

““「사람이 다쳤느냐?」 하시고 말[馬]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으셨다.’고 한 것이 곧 옛날 성인의 일입니다. 어떻게 소를 도살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태화가 아뢰기를,

“제신(諸臣)의 말이 이러하니 변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성제가 아뢰기를,

“듣건대 입번(入番)하는 금군(禁軍)들이 내관(內官)에게 점열(點閱)을 받는다고 하는데, 매우 안 될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창시한 것이 아니고 선조(先朝) 때부터 해 온 일이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선조 때에는 새로 입번하는 금군들을 차비문(差備門) 밖에 모이게 한 뒤 내관으로 하여금 그들의 군장(軍裝)을 살피게 하고 이어 술을 공궤(供饋)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대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 당초 점열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대로 점열하는 규정으로 굳혀지고 말았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 ▶ 7권 4년 12월 10일 癸卯

癸卯/持平尹遇丁曾爲本職時，以牛疫爲慮，啓屠牛者與殺人之罪同。 其後引見時，諸臣皆以爲，比畜於人，甚不可。至是，遇丁復入此職，引避，處置請出。上從之。遇丁此論，可謂不知類者也，人之笑之也固宜，今此引避，無非遁辭，誠可笑也。

지평 윤우정(尹遇丁)이 일찍이 본직에 있을 때 우역(牛疫)을 염려한 나머지 소를 도살한 자는 살인한 자의 죄와 마찬가지로 처리할 것을 아뢰었는데, 그 뒤 인견할 때 여러 신하가 모두 ‘가축을 사람에 비하다니 매우 안 될 일이다.’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우정이 다시 이 직책에 들어와 인피하였는데 처치하여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우정의 그와 같은 주장이야말로 유(類)를 알지 못한다고 할 만한 것으로서 사람들이 비웃은 것은 원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인피한 사연을 보건대 책임을 회피하려고 둘러대는 말이 수두룩하였으니 정말 가소로울 뿐이다.

## ▶ 8권 5년 2월 23일 丙辰

咸鏡道端川郡癘疫，死亡者三十八人，方痛者十四人，明川府牛馬疫斃者，亦一百五十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餘首.

함경도 단천군(端川郡)에 열병이 번져 사망자가 38명이었으며, 현재 앓고 있는 자가 14명이었다. 명천부(明川府)에는 열병으로 죽어간 마소가 1백 50여 두에 달하였다.

### ▶ 8권 5년 2월 23일 丙辰

丙辰/上視常參. 禮曹判書洪重普、兵曹判書金佐明、正言宋昌上殿奏事. 重普曰: “以潭陽金城山城軍餉事, 前府使金應祖亦有拿命. 而應祖以三朝侍從之臣, 年已八十, 家在嶺南, 且未經痘疫, 遠道拿來, 必致顛仆, 在聖上優老恤下之道, 合有變通. 臣職忝禮官, 不得不達.” 上曰: “勿拿, 令本道發緘以問.” 昌曰: “近來贓法不嚴, 因此坐廢者甚少, 故貪污之輩, 無所懲戢, 誠可寒心. 新除授忠清水使朴而昭性本麤猾, 到處剝割, 傳播之說, 不勝狼藉, 乃是貪污之特甚者, 曾爲濟州牧使, 亦以此坐罷. 請命罷職.” 上不從. 佐明曰: “訓練大將李浣以沐浴明當發行, 在前如此之時, 或差假大將、或都提調, 兼察矣.” 上曰: “都提調兼察陵幸, 臨時更稟.” 上又謂都承旨吳挺緯曰: “大臣備局諸臣引見.” 左議政元斗杓曰: “玉候久靡寧, 今乃有陵幸擇日之命, 臣民誠極喜幸. 而但痘患及癘氣方熾, 許多陪從之人, 豈得盡皆淨潔乎? 且上年飢荒, 春轉甚, 飢民困於除道. 津船亦令於一兩日程來泊, 此尤可慮.” 上曰: “然則諸陵中路最近, 而不用津船處往謁如何?” 斗杓曰: “如不得已, 則幸最近陵可也.” 重普曰: “津船之弊, 固不可顧, 且春船比秋船, 則似閑. 而閭閻間癘疫大熾, 是可悶也.” 吏曹參議閔鼎重曰: “不爲陵幸則已, 既定以獻陵, 則何可幸他陵也. 津船雖曰有弊, 陵幸時, 豈可計過涉之弊乎? 且先朝欲令軍士, 素習渡水之法. 今若善爲, 則津船豈必多入乎?” 上遂定幸獻陵. 鼎重曰: “臣聞獻陵, 有碑石, 壬辰之亂, 倭人縱火焚之, 而碑不燒破, 故倭人以爲神異. 其碑字, 尙不磨滅云.” 斗杓曰: “臣則見其碑矣. 古者雖帝王, 亦立碑紀其功德, 故有此碑石, 而其字尙今不滅, 其背列刻其時諸臣名. 若陵幸, 則聖上亦可見之矣.” 斗杓又曰: “曾在先朝, 多造江華津船, 秋冬則待變, 春夏則使之漁採, 收其稅, 而改其船矣. 今已十年, 故朽破者多, 而三南亦甚饑饉, 不可使之改造. 請令江華改造, 只以六隻船, 分定於忠清水營及全羅道.” 上許之. 斗杓曰: “俞榮之病, 是內腫, 當服牛黃, 而榮家甚貧, 不能質. 先朝, 於故判書金益熙之病, 有給藥之事, 今亦令內局, 覓給牛黃何如?” 上命給一部. 上問兵曹判書曰: “陵幸時留都軍兵, 何不取稟耶?” 佐明曰: “歲凶矣, 調發軍兵, 似爲有弊. 使御營軍留都何如?” 鼎重曰: “若以年凶, 不爲陵幸則已, 爲之則何可不徵留都軍也. 裁減陵幸時諸事, 亦未安矣.” 御營大將柳赫然曰: “裝束往來, 亦一習陣也.” 上曰: “調發往來, 然後可知其有用與否矣.” 鼎重曰: “江華留守權堦被劾之後, 違備局事目, 徑先上來, 請推考.” 上曰: “從重推考.” 吳挺緯曰: “蘇東道年老病痼, 依金應祖例, 寢其拿命如何?” 斗杓曰: “應祖則曾經玉堂, 且未經痘, 故雖請勿拿, 至於東道, 異於應祖, 拿命既下之後, 還寢亦重大矣.” 上不從挺



緯言.

상이 상참(常)을 보았는데 예조판서 홍중보(洪重普), 병조판서 김좌명(金佐明), 정언 송창(宋昌)이 전상에 올라가 주사(奏事)하였다. 중보가 아뢰기를,

“담양(潭陽) 금성산성(金城山城)의 군량미 건으로 전부사 김응조(金應祖)를 잡아 올리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응조는 세 조정에 걸쳐 시종한 신하로서 나이 이미 80세이고 집도 영남(嶺南)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마[痘疫]도 치르지 않아 먼 길에서 잡아 올리자면 틀림없이 쓰러지고 말 것이니, 성상께서 늙은이를 우대하고 아랫사람을 돌보는 도리로 보아 변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이 예관(禮官)으로 있기에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잡아 올리지 말고 본도에서 서면으로 추문하라고 하라.”

하였다. 송창이 아뢰기를,

“요즘 장오죄에 관한 법이 엄하지 않아 장오죄로 파직당한 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탐관오리가 징계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새로 제수된 충청수사 박이명(朴而)은 성격이 원래 거칠고 교활하여 가는 곳마다 굶어모으기로 소문이 파다한데 그는 바로 탐관오리 중에서도 특히 심한 자로서 일찍이 제주목사 시절에도 그 때문에 파직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를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좌명이 아뢰기를,

“훈련대장 이완이 목욕 관계로 내일 길을 뜨게 될 것인데 전부터 이러한 때에는 혹은 임시 대장이나 도제조를 차출하여 겸찰(兼察)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제조가 겸찰하게 하고 능행(陵幸) 때 가서 다시 아뢰라.”

하였다. 상이 또 도승지 오정위에게 이르기를,

“대신과 비국의 재신들을 인견해야겠다.”

하였다. 좌의정 원두표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오래도록 편찮으시다가 지금 와서 능행 날짜를 잡으라는 명령이 계셨으니 신민들로서는 너무나 기쁘고 다행스런 일입니다. 다만 지금 마마와 열병이 한창 번지고 있는데 배종(陪從)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깨끗하기를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작년이 흉년이었는데 봄철이 되어서는 더 심하여 굶주린 백성들이 길 닦기에 고달플 것입니다. 그리고 나룻배도 하루 이틀 길을 잡고 와 정박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더욱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여러 능 중에서 거리가 가장 가깝고 나룻배도 쓰지 않을 곳을 배알하면 어떻겠는가?”

하자, 두표가 아뢰기를,

“그만둘 수 없다면 가장 가까운 능으로 행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중보가 아뢰기를,

“나룻배야 그 폐단을 굳이 따질 것 없고 또 배편도 봄철이 가을철에 비하여 한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염 사이에 전염병이 크게 번지고 있어 그것이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하니, 이조참의 민정중이 아뢰기를,

“능행을 아니하면 그만이지만 이미 헌릉(獻陵)으로 정했으면 어떻게 다른 능으로 행차하겠습니까? 나룻배 편이 비록 폐단이 있다 하더라도 능행을 하면서 어떻게 지나가는 데 따르는 폐단을 따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선왕조에서는 군대들에게 평소 도수(渡水)하는 법을 익히게 하려고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만약 잘만 한다면 나룻배가 왜 꼭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자, 상이 드디어 헌릉으로 행행할 것을 정하였다. 정중이 아뢰기를,

“신이 들은 바로는 헌릉에 비석이 있는데 임진년 난리에 왜인이 불을 놓아 태웠으나 비가 불에 타 깨지지 않으므로 왜인들이 신이(神異)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에 글자가 아직도 마멸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두표가 아뢰기를,

“신은 그 비를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비록 제왕이라도 비를 세워 그 공덕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빗돌이 있는 것인데, 그 글자가 지금까지 마멸되지 않았고 그 비 등에다는 그 당시 여러 신하들 이름을 죽 새겨놓았습니다. 만약 능행을 하시면 성상께서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두표가 또 아뢰기를,

“일찍이 선왕조에서는 강화도에 나룻배를 많이 만들어 가을·겨울에는 변란에 대비하고 봄·여름이면 고기를 잡고 해초를 채취하게 하여 거기에서 세를 받아 그 세로 배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썩고 부서진 것이 많으나 삼남(三南) 역시 기근이 심하여 거기에서 개조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강화도에서 개조하고 배 6척만 충청수영(忠淸水營) 및 전라도에다 나누어 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두표가 아뢰기를,

“유계(兪槩)의 병이 바로 내종(內腫)이어서 우황(牛黃)을 먹어야 하는데, 그의 집이 너무 가난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선왕조에서 고 판서 김익희(金益熙)가 병들었을 때 약을 준 일이 있었으니 지금도 내국(內局)으로 하여금 우황을 찾아서 주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1부를 주라고 명하였다. 상이 병조판서에게 묻기를,

“능행 때의 유도 군병(留都軍兵)에 관하여 왜 취품을 앓고 있는가?”

하니, 좌명이 아뢰기를,

“흉년이어서 군대를 징발하자면 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영군으로 하여금 도성을 지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정중이 아뢰기를,

“흉년을 이유로 능행을 하지 않으려면 모르거니와, 하려면 어떻게 유도군(留都軍)을 징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능행 때의 제반 사항을 생략한다는 것 역시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하였다. 어영대장 유혁연(柳赫然)이 아뢰기를,

“군장을 꾸리고 갔다가 오는 것도 하나의 습진(習陣)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징발하여 갔다가 와야만 쓸모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정중이 아뢰기를,

“강화유수 권우가 탄핵을 받고는 비국의 규정을 어기고 지레 올라와버렸으니 그를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한 쪽으로 추고하라.”

하였다. 오정위가 아뢰기를,

“소동도(蘇東道)도 늙고 고질병이 들었으니 김응조(金應祖)에게 한 대로 잡아 올리라는 명령을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두표가 아뢰기를,

“응조는 일찍이 옥당을 역임하였고 또 माम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 올리지 말도록 청하였던 것이나, 동도는 응조와 입장이 다르고 또 잡아 올리라는 명령을 일단 내린 뒤에 다시 중지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정위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 8권 5년 5월 1일 壬戌

安城牛產犢，兩頭兩口，四耳四目

안성(安城)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머리가 둘, 입이 둘, 귀가 넷, 눈이 넷이었다.

▶ 8권 5년 윤6월 19일 己卯

全羅道古阜等七邑，牛疫大熾。

전라도 고부(古阜) 등 7읍에 소 전염병이 크게 번졌다.

▶ 9권 5년 8월 23일 壬午

忠淸道牛疫大熾，前後致斃，千有餘頭。祭享黑牛，亦多致斃，監司以聞。

충청도에 소의 역질이 크게 번져 전후 1천여 두가 죽었고, 제사에 바칠 흑우(黑牛) 또한 많이 죽었다. 감사가 계문하였다.

▶ 9권 5년 8월 24일 癸未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癸未/上受鍼於熙政堂. 藥房都提調以下禮判洪重普、兵判金佐明請對入侍, 稟定陵幸時節目. 洪命夏曰: “今秋不但風雹之災, 外方牛疫又大熾, 此大變也. 秋耕方以人代之, 而又從而屠殺, 則其餘存者幾何. 請申嚴屠牛之禁.” 上曰: “令法司嚴禁.” 命夏又曰: “頃日吏兵判, 一時呈告, 臣囚其陪吏, 金佐明卽出仕, 而朴長遠以被斥大臣, 訖不行公. 吏曹參判李尙眞聞其脚病已差, 而入來之後, 一向控辭, 吏曹只有參議一人. 揆諸事體, 極爲非矣, 請長遠、尙眞竝推考.” 上可之.

상이 회정당에서 침을 맞았다. 약방도제조 이하 예조판서 홍중보(洪重普), 병조판서 김좌명(金佐明)이 뵈기를 청해 입시하고 능에 거동할 때의 절목을 품의해 결정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금년 가을에 비단 풍재와 우박의 재변뿐 아니라 외방에서 소의 역질이 크게 번지고 있으니, 이는 큰 변고입니다. 가을갈이를 사람이 대신하고 있는데 도살까지 한다면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소의 도살을 엄금하도록 하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법사(法司)로 하여금 엄금하게 하라.”

하였다. 명하가 또 아뢰기를,

“지난 날 이판과 병판이 함께 사직소를 내었을 때 신이 그 배리(陪吏)를 가두자, 김좌명은 즉시 출사하였고 박장원은 대신의 배척을 입었다고 아직까지 공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조참판 이상진은 각기병이 이미 나았다고 들었는데 들어온 후 한 걸 같이 사퇴하고만 있으므로 이조에 참의 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사리로 헤아려 보아 극히 부당하니, 장원과 상진을 모두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재가하였다.

### ▶ 11권 6년 12월 25일 丙子

丙子/是時牛疫大熾, 典牲署留養黑牛十四頭病斃, 忠淸道留養牛二頭亦斃. 禮曹因本署牒報啓: “請濟州牛十六頭, 使之急速上送.” 上可之. 時牛疫熾盛, 八道皆然, 而 濟州尤甚, 犧牲將無以供焉.

이때 우역(牛疫)이 크게 치성하여 전생서(典牲署)에서 기르던 검은 소 14두(頭)가 병으로 죽었고, 충청도에서 기르던 소 2두도 죽었다. 예조가 본서(本署)의 첩보(牒報)를 인하여 아뢰기를,

“제주(濟州)에 있는 소 16두는 급속히 올려보내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이때 우역이 크게 치성하여 팔도가 모두 그러했는데 제주가 더욱 극심하여 희생(犧牲)을 제공할 수 없을 정도였다.

▶ 11권 7년 1월 26일 丁未

錦山民家, 牛産犢一身兩頭

금산(錦山)의 민가에서 소가 몸통은 하나에 머리가 둘인 송아지를 낳았다.

▶ 15권 9년 8월 7일 癸酉

癸酉/刑曹禁制條成. 凡八條, 牛馬屠殺、酒禁、亂塵、常漢城內騎馬、神祀高重、漕船淫女、城中僧人. 漢城府禁制條成. 凡六條, 各塵高重、牛馬肉禁、四山松禁、亂塵、大小升斗、東西活人署巫女摘奸.

형조의 금제조(禁制條)가 이루어졌다. 모두 8개 조항인데, 소와 말을 도살하는 일[牛馬屠殺], 술을 금하는 일[酒禁], 난전에 대한 일[亂塵], 상놈이 성안에서 말을 타는 일[常漢城內騎馬], 신사의 고중에 대한 일[神祀高重], 조운선에 대한 일[漕船], 음녀에 대한 일[淫女], 성안의 승려들에 대한 일[城中僧人] 등이다. 한성부의 금제조가 이루어졌다. 모두 6개 조항인데, 각전의 고중에 대한 일[各塵高重], 소와 말고기를 금지하는 일[牛馬肉禁], 네 산의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는 일[四山松禁], 난전에 대한 일[亂塵], 되와 말의 크기를 규제하는 일[大小升斗], 동·서활인서의 무녀를 적간하는 일[東西活人署巫女摘奸] 등이다

▶ 17권 10년 9월 11일 辛丑

平安道染病死者前後四十七名, 牛疫致斃者一百四十五頭

평안도에 전염병이 돌아 죽은 사람이 전후 47명이었고, 소도 돌립병으로 죽은 숫자가 1백 45두(頭)였다.

▶ 17권 10년 10월 3일 癸亥

京圻牛疫熾盛, 九月二十八日雨雹, 各穀損傷.

경기에 소 돌립병이 크게 퍼졌다. 9월 28일에 우박이 떨어져 각종 곡식이 손상되었다.

▶ 17권 10년 10월 15일 乙亥현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忠淸道牛疫熾發.

충청도에 소 돌림병이 크게 번졌다.

### ▶ 17권 10년 10월 19일 己卯

開城府牛疫大熾.

개성부에 소 돌림병이 크게 번졌다

### ▶ 17권 10년 11월 4일 癸巳

命盡減咸鏡道穩城稅米、大豆、奴婢身貢 及洪原、明川、鏡城牛黃歲幣、醫司藥材價，半減人蔘價布。鍾城、慶興、三水、甲山等四邑稅米、大豆、奴婢身貢亦半減。時北路凶荒，因本道監司狀啓，有是命。

함경도 온성(穩城)의 세미(稅米)·대두(大豆)·노비 신공(奴婢身貢)과, 홍원(洪原)·명천(明川)·경성(鏡城)의 우황 세폐(牛黃歲幣)와 의사(醫司) 약재가(藥材價)를 모두 감해주고 인삼 가포(人蔘價布)는 반만 감해주며, 종성(鍾城)·경흥(慶興)·삼수(三水)·갑산(甲山) 등 네 고을의 세미·대두·노비 신공도 반을 감해주도록 명하였다. 이때 북로(北路)에 흉년이 들었는데 본도 감사의 장계로 인해 이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 ▶ 17권 10년 11월 8일 丁酉

忠淸道牛疫熾盛.

충청도에 소 돌림병이 크게 번졌다.

### ▶ 18권 11년 3월 8일 乙丑

吏曹佐郎金錫胄論金澄之後，伸救之論蜂起，錫胄乃上疏乞解春坊兼任。其略曰：臣伏見禁府金澄、朴而昭兩人所自供狀，雖有修飾抵拒之辭，而其所遲晚，亦可謂狼藉難掩。夫宴筵之需，酒食之費，雖百甕之釀、千炙之牛，此乃與人同歡之資，務夸喜大之人，

容或可爲. 至於直發公儲, 馱歸京第, 人以爲盡入家中, 渠則曰貿易市上. 設使澄所稱二同九匹之營木外, 無毫末剩羨, 其比之先朝所受罪尹策、韓瑬等之所犯, 豈不相倍蓰之多耶? 且澄於本不與宴之兵使, 則箱籠馱載, 其數不貲, 而稱之爲事體有異, 而受焉, 於非所管轄之統帥, 則紬綿木花, 其餽無名, 而稱之爲官尊禮饋, 而受焉. 此而皆受, 其將何所不受耶?

又曰:

臣更詳聞於自南中來者攻澄之說, 果是不誣. 其爲銀錚盤小者一雙, 其外又有鉢盂匙筋, 其監造色吏, 則姓白而年老云. 臣遂追載於啓辭中, 今觀澄之供辭, 專諱銀器一事. 又以彩段爲無據之說, 澄之所自爲言者, 固不得不如此, 而諺曰: ‘薪苟不燃, 埃不生烟.’ 輿人之所傳者, 亦豈全無端緒而然耶?

又曰:

今乃有一二親友愛惜之論, 至欲擬而昭、斐然以指困之義, 比澄以採薇之節, 以爲: ‘餽亦禮也、受亦禮也’, 共相清雪, 如照冰玉, 臣竊未知其可也. 至如而昭之招, 尤極奸詐. 其所泛稱以十餘種者, 殊未知其爲何物何種, 已涉可疑. 又改軍木之名, 稱之爲本色, 種種弄幻, 不一而足. 且其二馱軍木, 乃是累月喧藉之說, 連輸替載, 驛路皆言. 最後而昭之供出, 而其所自招者, 合綿紬白木及所謂本色木者, 乃至五十匹, 又安知此外別有真數, 更加於此數者耶? 且不特而昭之事爲然也. 澄以柳斐然之書, 送之張善澈, 自暴其無求乞之狀, 又言所餽木匹尠薄矣. 俄而斐然答其從兄柳赫然之書, 以爲: ‘澄果有書, 只告壽宴之期’, 渠之所送, 唯是正木三十四、木花五十斤, 其他物件數種而已. 其前後數爻, 變易不恒, 彼此情狀, 千里一轍. 噫! 此其澄之所謂嫌澁自約, 而反不及於李敬輿諸人者耶?” 仍歷舉舍人李端夏、文學尹堦等諸人爲證, 乞遞職名

上命勿辭. 諸臣各自陳疏, 論議益紛挐矣.

이조 좌랑 김석주(金錫胄)가 김정(金澄)을 논핵한 뒤에 김정을 구원하는 의논이 봉기하였으므로, 김석주가 마침내 소장을 올려 춘방(春坊)의 겸직을 해직시켜 줄 것을 청하였다. 그 대략에,

“신이 삼가 의금부에 있는 김정과 박이명 두 사람의 공초 문서를 보니, 비록 꾸며대어 부인한 내용이 있었지만 그의 최종 자백서 역시 낭자한 자취를 감추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대체로 잔치 자리의 소용과 주식(酒食)의 비용으로 비록 백 동이의 술과 천 마리의 쇠고기가 들더라도 이는 남과 함께 즐긴 자료이니, 과장하기에 힘쓰는 사람은 혹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공공의 비축물을 꺼내어 서울 집에 실어 보냈다고 한 말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는데, 그는 시장에서 무역하였다고 했습니다. 설사 김정이 말한 것처럼 2동(同) 9필(疋)의 영목(營木) 외에는 터럭만큼도 나머지가 없다 하더라도, 선조(先朝) 때에 죄를 받은 윤책(尹策)·한기(韓) 등이 범했던 것에 비교한다면 어찌 배나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김정이 본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병사(兵使)가 실어 보낸 선물 상자의 수량이 헤아릴 수 없었는데, 이것은 사체에 다른 바가 있다고 말하면서 받았으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며, 자기의 관할이 아닌 통제사가 보낸 명주·목면·목화 등의 선물은 명분이 없는데도 이것은 높은 사람에게 예물로 주는 것이다 하면서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모두 받았으니, 그가 어떤 것인들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신이 다시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 김징을 공박한 말을 자세히 들었는데, 진실로 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은쟁반 작은 것 한 쌍을 만든 외에도 주발·수저·젓가락이 있었는데, 그 제조를 감독한 색리(色吏)의 성은 백씨(白氏)인데 늙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계사 중에 추가로 넣었었는데, 지금 김징이 공초한 내용을 살펴보니 은그릇에 관한 일은 완전히 숨겼습니다. 또 비단에 관한 것을 근거 없는 말이라고 하였는데, 김징 스스로 하는 말은 이같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만, 속담에 ‘아니 뎨 굴뚝에 연기나라’고 하였습니다. 하인들이 전하는 말이 어찌 전연 근거가 없이 한 것이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 한두 친구들이 애석히 여기는 논의를 전개하면서 심지어 박이명과 유비연을 지군(指)의 의리에 견주고, 김징을 채미(採薇)의 절개에 비교하려고 하면서, ‘선물을 준 것도 예의이며 받은 것도 예의이다.’라고 하며 서로 옥과 얼음을 비추듯이 깨끗이 설욕해 주려고 하는데 신의 생각에는 그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이명의 공초에 있어서는 더욱 간사합니다. 그가 범연히 말한 10여 가지의 물건이란 어떤 물건이며 어떤 종류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미 의심할 만한 것입니다. 또 군목(軍木)이라는 명칭을 고쳐 본색(本色)이라고 말하면서 종종 농간을 부린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짐의 군목이라고 한 것은 바로 여러 달 떠들썩했던 말이며, 연달아 신고 갔다고 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박이명의 공초에 나왔는데, 그가 스스로 공초한 것이 명주·백목(白木) 및 본색의 목(木)이라고 한 것을 합하며 50여 필에 이르는데, 이 밖에 별도로 이보다 더 많은 진짜 수량이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박이명의 일만 그러할 뿐이 아닙니다. 김징이 유비연의 편지를 장선징에게 보내어, 자기가 구걸한 사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또 보낸 목필(木匹)이 매우 적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얼마 후 유비연이 그의 종형인 유혁연(柳赫然)에게 답장을 보내면서 ‘사실 김징이 편지를 보냈으나 수연의 기일만을 통고했을 뿐이었다.’ 하면서 그가 보낸 것은 정목(正木) 30필과 목화(木花) 50근 및 기타 및 가지의 물건일 따름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앞뒤의 수효가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하니, 피차의 실상이 천리를 한 길로 가듯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것이 김징이 말한바 난삽한 것을 꺼려서 스스로 간소하게 치루었으므로 도리어 이경여(李敬輿) 등 여러 사람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단 것이 아닙니까.”

하고, 이어서 사인 이단하(李端夏)와 문학 윤계 등 여러 사람들을 들어 증인으로 삼으면서 직임을 체직시켜 줄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여러 신료들이 각자 소장을 올려, 의논이 더욱 어지럽게 되었다.

### ▶ 18권 11년 8월 15일 己亥

京畿各邑嚴霜連降，禾穀乾枯，牛疫大熾，殆無遺種，農家以人代耕，九人之力，僅當



一牛，民無秋耕之望。

경기 각 고을에 된 서리가 연일 내려 벼가 말라 죽었다. 또 소의 전염병이 크게 번져 거의 남은 종자가 없었다. 농가에서는 사람이 소 대신 밭을 갈았는데 9명의 힘으로 겨우 소 한 마리의 일을 해낼 수 있었으므로 가을갈이에 가망이 없게 되었다

▶ 18권 11년 8월 17일 辛丑

黃海道牛疫大熾，一朔致斃二千六百餘頭。畿內及原襄、湖西等道，又皆熾發牛斃之報，殆無虛日。

황해도에 소의 전염병이 크게 번져 한 달 동안에 죽은 소가 2천 6백여 두였다. 기내(畿內)·원양(原襄)·호서(湖西) 등의 도에서도 전염병이 번져 소가 죽는다는 보고가 없는 날이 거의 없었다.

▶ 18권 11년 8월 28일 壬子

黃海道牛疫大熾，一朔致斃者八千餘頭。 嚴霜連降，大風折拔樹木，餘存禾穀，蕩然無遺，人民處處號哭。道臣以聞。

황해도에 소의 전염병이 크게 번져 한 달 동안에 죽은 소가 8천여 두(頭)였다. 또 된서리가 연달아 내렸고 큰 바람에 나무가 부러지고 뽑혔으며, 남아 있던 곡식도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 백성들이 곳곳에서 울부짖었다. 감사가 보고하였다.

▶ 18권 11년 10월 19일 癸卯

執義申命圭、持平李宇鼎・尹趾善以牛疫熾盛，請罷屠肆， 上更令廟堂議處。及後登對，許積曰：“臺啓極是，但趙復陽筭陳之後，旋即弛之，今因臺啓，又復痛禁，則其在國體，似涉煩擾矣。” 金壽恒請禁之，洪重普欲弛之，諸臣之議不一。上曰：“更加申飭，不至濫觴可也。”

집의 신명규, 지평 이우정·윤지선(尹趾善)이 우역(牛疫)이 심한 것을 이유로 도살장을 혁파하자고 청하니, 상이 다시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후에 등대하였을 때, 허적이 아뢰기를,

“대간의 아뢰미 지극히 옳으나 조복양이 차자를 올려 개진한 뒤에 바로 완화시켰다가 지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금 대간의 아픔에 따라 또다시 통렬히 금하신다면 국체에 있어서 번잡한 듯합니다.”  
하고, 김수항(金壽恒)은 금할 것을 청하고, 홍중보는 완화하자고 하는 등 신료들의 의견이  
한결같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더욱 신칙하여 지나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 ▶ 18권 11년 10월 24일 戊申

兵曹判書金佐明以牛疫熾盛，請罷屠肆，嚴加禁斷，上從之。刑曹判書鄭知和請勿徵贖，  
施以三次之刑，重法以禁之，許積曰：“刑推三次，殞命可慮，只收其贖，禁令必弛，嚴刑  
一次，以徵犯禁之罪，且令收贖，以代全家之律。”上從之。

병조판서 김좌명이, 우역이 심하다는 이유로 도살장을 파하고 단속을 엄하게 할 것을 청  
하니, 상이 따랐다. 형조판서 정지화가 속죄의 재물을 징수하지 말고 삼차의 형을 베풀어  
중벌으로 금할 것을 청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형을 삼차에 걸쳐 가하면 생명을 잃을까 염려되고 돈만 받고 죄를 용서해 주면 금령이  
반드시 해이될 것이니, 엄형 한 차례로서 금령을 범한 죄를 징계하고 또 속죄의 재물을 내  
게 하여서 전가 사변의 울을 대신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 18권 11년 12월 11일 甲午

甲午/全羅道順天民家，有牛生犢，一身兩頭。

전라도 순천의 민가에서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한 몸에 머리가 둘이었다.

### ▶ 19권 12년 1월 30일 壬午

濟州牧使盧錠馳啓曰：“本島三邑民事，已至十分地頭。大小人民，上山拾木實，木實殆  
盡，下取野菜，草根已乏。殺牛馬以充腹，無賴之徒，處處結黨，公私牛馬，偷取屠殺，不  
知其幾。相食之患，迫在朝夕，愁慘之象，有不忍言。自八月設粥揀活，而倉穀已竭，四萬  
餘飢民，更無可濟。請以沿海邑鹽石，優數入送。前日移轉五千石之穀，不爲不多，而正  
二月兩朔賑資猶不足，三四月，則無一升餘存。前頭繼賑之策，請令廟堂稟處。”朝廷以全  
羅道所在戶曹鹽五百石，常平廳統營及兩南司僕寺牧場等穀，劃給七千石，令全羅水營兵  
船載送。但海路遼遠。風波久阻，上年冬初所封狀啓，今始來到，而前後運穀之船，亦不

能及期得達，以致島民餓死尤多.

제주목사 노정(盧錠)이 치계하기를,

“본도(本島) 세 고을 민생의 일은 이미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백성이 산에 올라가 나무 열매를 줍는데 나무 열매가 이미 다하였고 내려가 들나물을 캐는데 풀뿌리가 이미 떨어졌으므로 마소를 죽여서 배를 채우고 있으며, 무뢰한 자들은 곳곳에서 무리를 지어 공사간의 마소를 훔쳐서 잡아먹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하여 서로 사람들끼리 잡아먹을 걱정이 조석에 닥쳤으니 비참한 모양을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8월부터 죽을 장만하여 구제하고 있으나, 창고의 곡식이 이미 다하여 4만여 명의 굶주린 백성을 다시금 구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해안 고을의 소금을 넉넉히 들여보내소서. 전일 옮겨 온 5천 석의 곡식은 많지 않은 것은 아니나, 1, 2월 두 달의 진흙할 거리도 모자라므로 3, 4월에는 한 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서 진구할 방안을 묘당을 시켜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다. 조정에서 전라도에 있는 호조 소금 5백 석과 상평청(常平廳)·통영(統營) 및 양남(兩南)의 사복시 목장 등의 곡식 7천 석을 획급(劃給)하여 전라 수영의 병선(兵船)으로 실어 보내게 하였다. 그런데, 해로가 멀고 풍파에 오래 막혀서 지난해 초겨울에 부친 장계가 이제야 도착했고 전후로 곡식을 나르는 배도 제때에 미처 도달하지 못하여 굶어 죽은 섬 백성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 ▶ 19권 12년 3월 7일 戊午

慶尙道密陽府有牛生犢，左右有頭相，背各有兩目，一口兩鼻兩角.

경상도 밀양부(密陽府)에서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좌우에 서로 등진 머리가 있어 각각 눈 둘, 입 하나, 코 둘, 뿔이 둘이 있었다.

## ▶ 19권 12년 3월 24일 乙亥

乙亥/咸鏡道安邊府有牛生犢，一身兩頭四目二鼻兩耳兩口.

함경도 안변부(安邊府)에 어떤 소가 낳은 송아지가 하나의 몸에 머리가 둘이 달렸는데 눈이 넷이고 코가 둘이고 귀가 둘이고 입이 둘이었다.

## ▶ 19권 12년 3월 24일 乙亥

咸鏡道牛疫斃者四十餘首.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함경도에서 우역(牛疫)으로 죽은 소가 10여 마리였다

### ▶ 19권 12년 5월 16일 丙寅

咸鏡道各邑牛馬疫大熾，以至狗彘，亦皆延染致斃。 咸興大雷電，一人震死.

함경도 각 고을에서 마소의 돌림병이 크게 치열하여 개돼지까지도 전염되어 죽었다. 함흥(咸興)에서 크게 천둥과 번개가 쳐서 한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었다.

### ▶ 19권 12년 6월 18일 丁酉

命弛京外屠牛之禁。 鄭致和白上曰：“初禁屠牛，意在爲民，而卽今飢民，或有牛犢，國禁至嚴，買者絕無，勢將持牛而餓死。 且犯禁之人，徵贖受刑，不死則傷，恐有乖於凶歲弛禁之意也。” 上曰：“申明牛禁，實爲農作，而事勢異前，民將盡劉，何可徒守此禁乎。 自今犯禁者，除刑只贖。”

서울과 지방에서 소 잡는 것을 금하는 것을 늦추었다. 정치화가 아뢰기를,

“당초에 소 잡는 것을 금한 것은 백성을 위하는 데에 뜻이 있었는데, 지금 굶주린 백성에게 혹 송아지가 있어도 나라에서 매우 엄하게 금하고 있으므로 사는 자가 전혀 없어서 소를 가지고도 굶어 죽을 형세에 놓여 있습니다. 또, 금령을 범한 사람은 속(贖)을 거두고 형벌을 받는데, 죽지 않으면 몸을 상합니다. 흉년에는 금령을 늦춘다는 뜻에 어긋나는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를 잡지 못하게 금령을 더욱 밝힌 것은 실로 농사를 위한 것인데, 사세가 전과 달라서 백성이 다 죽게 되었으니 어찌 이 금령을 부질없이 지켜서야 되겠는가? 이제부터 금령을 범한 자에게는 형벌을 주지 말고 속만 거두게 하라.” 하였다.

### ▶ 19권 12년 7월 5일 甲寅

甲寅/慶尙監司閔著重馳啓曰：“右道各邑，饑饉尤甚，食盡鷄犬，又及牛馬，人皆宰殺，不待屠坦。 形勢之急，次於相食，以至飢腸食肉，痢疾暴發，死亡相續，初無牛馬者，坐而待盡。 卽今市直，皮半一斗，至易糶大四五端，而切無持牟之人。 左道各邑，牛疫大熾，自死之肉，恐或傷人，使之埋置。 則飢民輩，乘夜掘食，仍以致斃者甚衆。 且各邑飢民，日日

雲集，而賑資已竭，饋以麥粥，難望救活，而癘疫痢疾，延染即斃。加以旱蝗孔慘，前頭民事，更無可望云。”

경상감사 민시중(閔著重)이 치계하였다.

“우도(右道)의 각 고을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닭·개를 죄다 잡아 먹고 나자 또 마소까지 잡아 먹고 있는데 사람마다 도살장이 필요 없이 직접 도살하고 있습니다. 형세의 급함이 서로 잡아 먹기 직전이고 심지어는 굶주린 창자에 고기를 먹자 설사병이 갑자기 일어나 죽는 자가 잇따르고 있으며 애초에 마소가 없는 자는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격은 겉보리 한 말로 거친 무명 4~5단(端)과 바꾸기까지 합나다만, 보리를 가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좌도(左道)의 각 고을은 우역(牛疫)이 크게 치열한데 저절로 죽은 것의 고기는 혹 사람에게 해로울까 염려하여 파묻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굶주린 백성들이 밤을 틔타 파내어 먹고는 죽은 자가 매우 많습니다. 또 각 고을의 굶주린 백성이 날마다 구름처럼 모이고 있으나 진흙할 밀거리가 이미 떨어져서 보리죽을 먹고 있으므로 구제되기를 바라기 어려운데 여역·이질이 전염되면 즉시 죽습니다. 게다가 한재와 황재(蝗災)가 매우 참혹하니, 앞날의 농사에는 다시 바랄만한 것이 없습니다.”

## ▶ 19권 12년 8월 10일 戊子

慶尙道牛疫致斃六千八百二十六首，七月念後至本月初，饋粥飢民十六萬三千一百四十九名，死者五百五十七名。

경상도에서 우역으로 죽은 소가 6천 8백 26두이고, 7월 스무날 이후 이달 초까지 죽을 먹은 굶주린 백성이 16만 3천 1백 49명이고 죽은 자가 5백 57명이었다.

## ▶ 19권 12년 9월 24일 壬申

大司諫李翊相、獻納崔商翼啓曰：“州縣之屠牛興販，既云非法，況今牛疫，致斃殆盡，饑饉之餘，民無耕作之望。道臣之啓請設鋪，本爲賑資，而弊癘滋蔓，宰殺狼藉，餘存之牛，盡就屠肆。請京圻各邑鋪子，一一禁斷。”上從之。

대사간 이익상(李翊相), 헌납 최상익(崔商翼)이 아뢰기를,

“고을에서 소를 잡아 파는 것은 법에 어긋난 짓인데다 더구나 지금 우역으로 소가 거의 다 죽었으니, 기근 끝에 백성이 경작할 희망이 없습니다. 도신(道臣)이 계청(啓請)하여 점포를 설치한 것은 본디 진흙의 밀거리를 위해서이지만, 폐단이 점점 더 퍼져 도살을 마구 하고 있으므로 남아 있는 소도 다 푸주로 끌려갑니다. 경기 각 고을의 점포를 낱알이 금지하소서.”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하니, 상이 따랐다.

### ▶ 20권 12년 12월 4일 辛巳

清差到咸鏡道，開市于會寧、慶源，求買牛一百二十頭、鹽九百二十餘石、釜子七十四坐，犁口九百七十八箇而還。

청나라의 사자가 함경도에 와서 회령(會寧)·경원(慶源)에다 무역 시장을 열고 소 1백 20두와 소금 9백 20여 석과 가마솔 74개와 보습 9백 78장을 사가지고 돌아갔다.

### ▶ 20권 13년 2월 23일 己亥

己亥/黃海道谷山民家，有雄牛不吃芻穀，臥起頻數，數十餘日，產一蛇。長一尺五寸，頭尾與鱗，無異眞蛇。監司啓聞。

황해도 곡산(谷山)의 민가에 황소가 있었는데 수십일 남짓 풀과 곡식을 먹지 않고 자주 누웠다 일어났다 하다가 뱀 한 마리를 낳았다. 그 길이는 한 자 다섯 치였는데 머리와 꼬리며 비늘이 진짜의 뱀과 다름이 없었다. 감사가 계문하였다.

### ▶ 21권 14년 8월 14일 辛亥

等又啓：“都承旨鄭楹，承乏濫授，物情爲駭，判義禁趙珩，雖稱柔善，素乏剛果，不合議讞之任。竝請遞差。”又論刑曹判書閔熙，曾爲江華留守，貪縱鄙瑣，屠販牛隻，侵奪〔漁〕人之利，盡歸龍斷。且備送十隻牛、五輛車於京第，載運其人柴木，而多捧雇價，以爲肥己之資。請罷職不敘。上答以不允。且教曰：“柔善不甚害事，必怪毒然後，可以任事乎？鄭楹事，尤不覺駭然也。若論以爾等黨同伐異之意，則果不愜矣。如此之論，誠所痛惡者，而今又見之，不覺驚駭也。”

이숙 등이 또 아뢰기를,

“도승지 정익은 재능이 없는데 지나친 제수를 받으니 물정이 놀라고 있으며 판의금 조형(趙珩)은 비록 유선(柔善)하다고 일컬어졌으나 본디 강직함과 과단성이 부족하여 죄수를 다스리는 임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두 체차하소서.”

하고, 또 논하기를,

“형조판서 민희(閔熙)가 일찍이 강화유수가 되었었는데, 탐욕스럽고 야비하여 소를 잡아

팔고 어부들의 이익을 빼앗아서 모두 독점하였습니다. 또 소 10마리와 수레 5바리를 갖추어 서울 집에 보내면서 기인(其人)의 뿔나무[柴木]를 실어 보내어 품삯을 많이 받아 자기의 자산을 살찌웠습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윤택하지 않는다.”

고 답하며, 하교하기를,

“유선한 것이 일을 매우 해롭게 하지는 않는데 반드시 괴이하고 독한 다음에야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인가? 정익의 일에 대해서는 더욱 놀랍다. 만약 같은 편이면 당이 되고 다른 편이면 공벌하는 너희들의 뜻을 가지고 논한다면 과연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참으로 통탄스럽고 싫어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또 그런 광경을 보게 되니, 놀랍다.” 하였다.

## ▶ 22권 15년 4월 3일 丁酉

丁酉/諫院啓: “都監爲用骨灰, 許民屠牛, 臣等竊爲慨然也. 頃年牛疫之後, 孽息未蕃, 其在重農之道, 所當嚴禁不暇, 其可許以屠殺乎? 況國恤時禁屠, 載在法典? 若以骨灰難得, 勢出於不獲已, 則堂堂國家, 豈不能辦備若干牛隻, 而直許其屠宰乎? 請亟寢屠牛之命.”上不從. 三啓後, 答以限卒哭停罷. 時右議政金壽興, 請依前例, 許出屠肆十坐, 故諫院發此論, 其後又有, 以製造軍器, 難得皮筋, 達於筵中者, 故上靳於聽納焉.

간원이 아뢰기를,

“도감이 골회(骨灰)를 사용하기 위해 백성에게 소 도살을 허용하였는데, 신들은 슬픈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소 역병이 지나간 뒤로 새끼가 번식되지 않았으니, 농사를 중히 하는 도리에 있어서 엄금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도살을 허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국상 때엔 도살을 금지한다고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할 게 있겠습니까. 만일 골회를 얻기 어려워서 사세상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당당한 국가로서 어찌 소 몇 마리 마련하지 못해서 도살을 바로 허가한단 말입니까. 소를 도살하라는 명을 빨리 중지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세 차례 아뢴 뒤에야 졸곡(卒哭) 때까지만 허가하고 중지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때 우의정 김수흥이 전례에 따라 도살 허가를 열 군데 내주자고 청하였기 때문에 간원이 이 의논을 제기한 것인데, 그 뒤에 또 무기를 만드는 데 가죽과 힘줄을 구득하기 어렵다고 경연 석상에서 아뢴 자가 있었기 때문에 상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 20. 顯宗改修實錄

### ▶ 4권 1년 8월 17일 庚子

大司諫李正英等, 上劄略曰:

江都、南漢儲峙雖多, 散糶尚有餘裕, 爲早晚緩急之用, 不恤朝夕飢死之民, 則其於輕重本末, 可謂之得宜乎? 又聞兩處軍國之需, 不可不收糶, 除耗徵捧, 亦足爲惠. 所儲之穀, 不可不散, 已貸者, 其可以督償乎? 伏願下詢廟堂, 從速稟處, 救此涸轍之命. 各衙門貿銀, 日滋月積, 市上白金, 盡入公家, 民謂之囚銀. 如各司貢物之價, 軍兵、胥隸料布, 以此參半移給, 則可補經費之萬一, 而亦可無財聚民散之患矣. 平安道舊有遼軍. 蓋爲護送朝天之行, 而今無此事, 其名尚存, 仍收細布三四, 爲役之重, 未有甚於此者. 今難猝罷, 則一如步兵, 減其一匹, 則其惠亦不淺矣. 丁丑亂後, 牛疫熾甚, 農牛死盡, 朝家至通清國, 質牛於蒙古地, 分給畿民, 得以耕作. 爲民之慮, 初甚切實, 其後牛既蕃息, 反爲民間之巨弊. 孳息有定數, 準數既難, 況今救死不贍之民, 飼牛令肥, 其勢尤難. 亟令該曹, 從長善處, 以除一分之弊. 又陳君德遇災修省之道, 因曰, 殿下居深宮之中, 以爲動靜云爲, 外人不知, 此則有不然者. 匹夫屋下之事, 亦莫見乎隱, 況人君乎? 閭巷傳言, 頃日宦官數輩, 連以忤旨斥黜云, 未知其所言何事, 而不顧其身之利害, 敢犯天威, 豈非可取乎? 古者工執藝事以諫, 則豈有不可諫之人也? 昔我宣祖大王, 將遣繡衣, 抽牲八道, 守令近戚, 適在抽出之中, 還插筒中, 有一宦官, 伏地諫曰: “殿下私情如此, 則何以責朝臣乎?” 宣廟微笑而還抽. 其人終抵罪, 至今傳爲盛德事, 豈非殿下之所可法者乎? 又曰, 殿下之病, 多在喜怒失中. 雷霆之下, 豈有不摧折者乎? 然不當怒而怒, 則雖懼而心不服, 所損顧不大歟? 又曰, 今日貪風大熾, 朝廷、四方之不正, 無一不本於君上之一心. 內司濫雜奸僞之事, 宜一切嚴禁. 且如諸宮家鹽盆、漁箭及折受海洋, 收稅於過去之商船者, 有主民田陳荒處, 謂之無主, 而冒占侵奪者, 亦皆革罷, 使吾民無所怨苦, 則自朝廷至四方, 誰敢有不正之事, 以病我聖治乎? 宮禁不嚴, 亦未有甚於此時. 掖庭及諸宮家下人, 出入往來, 內外之言, 交相傳通. 至於御供之物, 誰不盡心? 而內人、宦官、掖庭下人, 相爲表裏, 任意操縱, 進退之間, 賄賂公行, 此又豈殿下正家之政也? 侍女之選, 掖庭下人, 親自搜得, 其弊不貲. 若使部官, 依法選入, 閭里小民, 必無騷擾之弊矣.

上答曰: “卿等進言, 無非至論. 求言已久, 而頓無應旨之言, 是以予爲無可爲而然也? 今見卿等之劄, 若夢之初覺, 渴之飲水, 予心喜悅, 無以爲喻. 可不書紳而服膺焉? 其中數條, 當令廟堂議處焉.” 謹按宦官, 以直言忤旨得罪, 則此亦人主之過舉, 諫臣之獻規, 未爲不可. 而唐、虞之世, 工執藝事以諫, 未聞寺人居君側而進說也. 周制, 只令宦寺守



門傳令而已，非與於虎賁執御箴規之列。後世刑餘之人，昵侍人君左右，盜竊權柄，傾覆邦家，其禍有不可勝言者。我國之待此輩，雖不能一如周制，然防禁亦嚴矣。今以無不可諫責於此輩，儻或因是而干預政令，輒言是非得失，其弊當如何哉？此又不可以不戒也。

대사간 이정영(李正英)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강도(江都)와 남한(南漢)의 저축 중에 흠어준 조곡(穀)이 많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유가 있어 언젠가 긴급한 일이 있을 적에 쓸 수가 있으니, 금방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백성을 구휼하지 않는다면 경중과 본말에 있어 사의에 맞는 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듣건대 두 곳의 군국(軍國)의 수요 때문에 적곡(穀)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모곡(耗穀)을 제하고 징수하여 받아들여도 또한 혜택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축해 둔 곡식도 흠어주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데 이미 대여해 준 것을 상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묘당에 하문하시어 조속히 품처하게 함으로써 절박한 지경에 처해 있는 목숨을 구원하게 하소서.

각 아문에서 은(銀)을 사는 것이 날마다 불어나고 달마다 쌓여 시장의 백금(白金)이 모두 공가(公家)로 들어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수은(囚銀)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각사(各司)의 공물가(貢物價)와 군병(軍兵)·서레(胥隸) 등의 요포(料布)를 이것으로 반반씩 이급(移給)하게 한다면 경비에 만분의 일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고 또한 재물이 모이면 백성이 흠어진다는 걱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

평안도에는 전부터 요군(遼軍)이 있었습니다. 천조(天朝)의 사행(使行)을 호송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이 이름만 아직 남아 있어서 그대로 세포(細布) 3필씩을 거두고 있으니, 무거운 신역(身役)치고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갑자기 과하기가 어렵다면 보병(步兵)과 똑같이 1필씩을 감하여 준다면 그 혜택이 또한 작지 않을 것입니다.

정축년 난리가 있는 뒤로 우역(牛疫)이 매우 치성하여 농우(農牛)가 다 죽었으므로 조가(朝家)에서는 청국(淸國)을 통하여 몽고(蒙古) 땅에서 소를 사다가 기민(飢民)에게 나누어 주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걱정이 당초 매우 절실했습니다만, 그뒤 소가 많이 번식되고 나서는 도리어 민간의 큰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번식시키는 것은 일정한 숫자가 있는 것이어서 숫자를 맞추기가 어려운데다가 더구나 지금은 죽음에서 구제되기에 도 겨를이 없는 백성들이 소를 사육하여 살지게 한다는 것은 그 사세가 더욱 어렵습니다. 속히 해조(該曹)로 하여금 좋은 방안을 따라 선처하게 함으로써 일꾼이나마 폐단을 제거하게 하소서.”

하고, 또 임금의 덕과 재변을 당하여 수정(修省)하는 도리에 대해 진달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깊은 궁중에 계시므로 동정(動靜)과 운위(云爲)에 대해 밖의 사람은 모르리라고 여기시지만 이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필부(匹夫)가 집안에서 한 일도 또한 그 은미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인데 더구나 임금이야 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여항(閭巷)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지난번 환관(宦官) 두어 명이 잇따라 성상의 뜻을 거슬렀다는 것으로 내쫓겼다고 하는데, 말한 것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감히 천위(天威)를 범하였으니, 어찌 취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공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인(工人)은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간한다고 했으니, 어찌 간할 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 선조 대왕(宣祖大王)께서는 수의(繡衣)를 파견하기 위해 팔도(八道)를 추생(抽)하게 할 적에 근척(近戚)인 수령이 마침 뽑혀진 데 들어 있었으므로 도로 통(筒)에 꽂으니, 어떤 환관이 땅에 엎디어 간하기를 ‘전하의 사정(私情)이 이러하니 어떻게 조신(朝臣)을 책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선묘(宣廟)께서는 미소 지으며 도로 뽑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수령은 끝내 죄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껏 훌륭하게 처리하신 일로 일컬어 오고 있으니, 어찌 전하께서 법 받아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전하의 결점은 대부분 희로(喜怒)가 중도를 잃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위엄 아래 어찌 꺾이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하지 않을 데 노하면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열복하지는 않는 것이니, 손해되는 것이 도리어 크지 않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오늘날 탐풍(貪風)이 크게 치성하고 있는데 조정과 사방의 부정(不正)이 일체 군상(君上)의 한 마음에 근본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내사(內司)에서 외람되고 잡스럽게 간위(奸僞)를 저지르는 일을 일체 엄금시키소서.

그리고 여러 궁가(宮家)의 염분(鹽盆)·어전(漁箭)과 해양(海洋)을 절수(折受)받아 그곳을 지나는 상선(商船)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 주인이 있는 민전(民田)의 묵은 곳을 주인이 없다고 하면서 함부로 점유하여 침탈하는 것을 또한 모두 혁파하여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과 고통이 없게 한다면 조정에서부터 사방에 이르기까지 누가 감히 부정한 일을 하여 우리 성상의 정치를 병들게 하겠습니까.

궁금(宮禁)이 엄하지 않은 것이 지금보다 더 심한 때가 없습니다. 액정(掖庭)과 여러 궁가(宮家)의 하인들이 왕래하고 출입하면서 내외의 말을 서로 전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어공(御供)하는 물품에 대해 누군들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내인(內人)·환관과 액정의 하인들이 서로 안팎이 되어 임의로 조종하여 진퇴시키는 사이에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으니, 이것이 또 어찌 전하께서 궁가를 바루는 정사이겠습니까. 또한 시녀(侍女)의 선발을 액정의 하인이 직접 수득(搜得)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만일 부관(部官)으로 하여금 법에 의거하여 뽑아들이게 한다면 민간의 소민(小民)들이 소요하는 폐단은 반드시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경들의 진언이 모두 지론(至論)이다. 구언(求言)한 지가 이미 오랜데도 전연 전지(傳旨)에 응하는 말이 없으니 이는 나를 두고 일을 할 수 없는 임금으로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경들의 차자를 보니 꿈에서 처음 갠 것 같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 같아 내 마음의 희열을 뭐라 비유할 수가 없다. 띠에 써두고 유념하여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가운데 두어 조항은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겠다.”

하였다.

삼가 살피건대 환관이 직언(直言)을 하였다가 뜻을 거슬러 죄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또한 임금의 지나친 거조이니, 간신(諫臣)의 헌규(獻規)가 불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우(唐虞) 시대에도 공인(工人)이 자신의 일을 가지고 간한 일은 있어도 임금 곁에 있는 시인(寺人)이

진언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주(周)나라의 법제에도 단지 환시(宦寺)에게는 문을 지키고 명령을 전하게만 했을 뿐이지 호분(虎賁)·설어(御)가 잠규(箴規)를 올리는 반열에 참여하게 하지는 않았다. 후세에는 환시들이 임금의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면서 권병(權柄)을 훔쳐 국가를 뒤집기까지 했으니, 그 화를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대우하는 것을 한결 같이 주나라의 법제처럼 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방금(防禁)은 또한 엄하였다. 그런데 지금 누구라도 간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으로 이들에게 책임을 지워서 혹 일로 인하여 정령(政令)에 간여하게 되고 번번이 시비와 득실에 대해 말하게 된다면 그 폐단이 의당 어떠하겠는가? 이것을 또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 5권 2년 4월 16일 乙未

嶺南金山郡, 有牛產犢, 一身五足.

영남(嶺南)의 금산군(金山郡)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몸뚱이 하나에 발이 다섯이었다.

▶ 5권 2년 5월 5일 癸丑

吉州有腥霧襲人, 其臭甚惡, 有牛產犢, 一體兩頭. 富寧、三水、甲山霜降, 高原、永興雨雹.

길주(吉州)에 성무(腥霧)가 사람에게 엄습하였는데 그 냄새가 아주 고약했으며,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몸뚱이 하나에 머리가 둘이었다. 그리고 부령(富寧)·삼수(三水)·갑산(甲山)에는 서리가 내렸고, 고원(高原)·영흥(永興)에는 우박이 내렸다.

▶ 7권 3년 4월 8일 辛亥

忠清道鎭岑縣, 有牛產犢一身兩尾.

충청도 진잠현(鎭岑縣)에서 소가 꼬리 둘이 달린 송아지를 낳았다.

▶ 8권 4년 3월 12일 庚辰

設湖南大同. 一結秋捧七斗米、春捧六斗米, 自當年十月, 捧新結收米, 以至明年九月.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本道壬寅時起田結十九萬八百五十五結，除復戶二萬一千八十四結，實結十六萬九千七百七十一結．每一結收十三斗，爲十四萬七千一百三十四石，而上納者，六萬一千二百八十石，留置本道者，八萬五千九百十六石，以應中外需用．二十八司，【奉常寺、其人、濟用監、長興庫、義盈庫、豐儲倉、司圃署、司槩寺、禮賓寺、工曹、司畜署、繕工監、典設司、內膳寺、典牲署、內醫院、惠民署、司宰監、典醫監、軍器寺、校書館、尙衣院、內資寺、分奉常寺、造紙署、掌苑署、歸厚署、瓦署．】元貢物及田稅條貢物、禮曹觀象監各樣紙地、工曹〔漆〕田・全漆，其人作紙、戶曹役價作紙、各官京主人房子雇價、造紙署楮田所出、掌苑署果園結實、備邊司襦紙衣・歲幣上次木、內弓房魚膠・正筋、誕日三名日、【正朝、端午、冬至．】進上甲冑・馬及馬裝、司僕寺分養馬・馬裝作紙、訓練都監眞絲・魚膠、仁壽宮物膳、宗廟薦新蔬〔菜〕、內醫院牛黃・熊膽・麝香、迎接都監京婢・房子價，皆以米磨鍊，自本廳出給．一年應給之數，通計五萬六千八百八十九石．戰船・兵船新造與改槩、本道仍定朔膳・進上方物、內醫院藥材・青大竹、宗廟薦新物膳、監司到界，進上端午扇子、內弓房油物、工曹進上扇子、監・兵・水營營需・五營將及軍官料米、各官官需油清紙地、使客及監司支供駕轎・毛物・紙地、釋奠祭幣帛・牛脯、社稷・賜額書院幣帛、春秋習操時犒饋價、慶基殿祭物及參奉糧饋價、月課・軍糧・軍器價、海運判官紙地價米，並計三萬七千七百〔三〕二十二石，皆以本道留置米計減，而餘米尙有四萬八千一百八十四石，以此爲一年各樣刷馬京上納米布輸運船價、馬價與科外別役責應之費．沿海之邑，以米上納，山郡則作布，米則可食米，布則五升三十五尺．勿論豐凶，以米六斗五升，作布一匹．各司貢物之價，勿論海邑、山郡，皆以米布交給，以爲豐凶推移之資．衙祿、公須、位田三稅，亦給其本官．官中所用馬馱、人夫，皆令給價使用，不使一馱一夫，私出於民．內外大小費用，皆取裁於宣惠廳，年終修文書考校，有餘米則會錄．科外用民力者，則烟戶必稟旨乃用，以爲定式．三公爲都提調，又以重臣二人爲提調，而戶判爲例兼．與湖西大同，合設於宣惠廳．

호남에 대동법을 설행하였다. 1결당 가을에 쌀 7말, 봄에 6말을 봉납하되 올 10월부터 신결(新結)에서 수확한 쌀을 봉납하여 내년 9월까지로 하였다.

본도는 임인년의 시기전(時起田)이 19만 8백 55결인데 복호전(復戶田) 2만 1천 84결을 제하면 실결 수는 16만 9천 7백 71결이다. 1결마다 13말을 거두면 14만 7천 1백 34석이 되는데 6만 1천 2백 80석은 상납하고 8만 5천 9백 16석은 본도에 유치(留置)하여 중외의 비용에 충당한다. 28사(司)의 【봉상시·기인(其人)·제용감·장흥고·의영고·풍저창·사포서·사도시·예빈시·공조·사축서·선공감·전설사·내섬시·전생서·내의원·혜민서·사재감·전의감·군기시·교서관·상의원·내자시·분봉상시(分奉常寺)·조지서·장원서·귀후서(歸厚署)·와서(瓦署)．】 원공물(元貢物) 및 전세 조공물(田稅條貢物), 예조와 관상감의 각종 종이, 공조의 칠전(漆田) 전칠(全漆)과 기인 작지(其人作紙), 호조의 역가 작지(役價作紙), 각 관아의 경주인방자(京主人房子)의 고가(雇價), 조지서의 저전(楮田) 소출(所出), 장원서의 과원(果園)의 결실(結實), 비변사의 유지의(紙衣)와 세폐상차목(歲幣上次木) 내궁방의 부레풀[魚膠]과 정근(正筋), 탄일(誕日)과 삼명일(三名日) 【정조(正朝)·단오(端午)·동지(冬至)．】 에 진상하는 갑옷·투구·말과 마장(馬

裝), 사복시의 분양마(分養馬)와 마장에 대한 작지, 훈련도감의 진사(眞絲)와 부레풀, 인수궁(仁壽宮)의 물선(物膳), 종묘에 천신(薦新)하는 고사리, 내의원의 우황·웅담(熊膽)·사향(麝香), 영접도감의 경비(京婢)와 방자(房子)의 대가는 모두 쌀로 마련하는데, 본청에서 지급한다. 1년에 지급하는 수를 통계하면 5만 6천 8백 89석이다.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의 신조(新造)와 개작(改), 본도의 정해진 삭선(朔膳)과 진상 방물, 내의원의 약재와 청대죽(靑大竹), 종묘에 천신하는 물선, 감사가 임지(任地)에 도착하여 진상하는 단오 선자(端午扇子), 내궁방(內弓房)의 유물(油物), 공조에서 진상하는 선자,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의 영수(營需)와 오영장(五營將) 및 군관(軍官)의 요미(料米), 각 관아에서 쓰이는 유청지지(油淸紙地), 사객(使客) 및 감사에게 지공(支供)하는 가교(駕轎)·모물(毛物)·종이, 석전제(釋奠祭)의 폐백과 우포(牛脯), 사직과 사액 서원의 폐백, 봄·가을로 군사 훈련할 때의 호례(饋) 값, 경기전(慶基殿)의 제물(祭物)과 참봉(參奉)의 양찬(糧饌) 값, 월과(月課)·군량(軍糧)·군기(軍器) 값, 해운 판관(海運判官)의 지지가미(紙地價米)를 모두 계산하면 3만 7천 7백 32석인데 본도에 유치한 쌀로 충당한다.

그런 뒤에 8천 1백 84석이 남는데, 남은 쌀로 1년 동안 드는 각종의 쇠마(刷馬)와 서울에 상납하는 미포(米布)의 운송비인 선가(船價)·마가(馬價)와 기타 별역(別役)에 책응(責應)하는 비용을 삼는다.

연해(沿海)의 읍은 쌀로 상납하고 산군(山郡)은 벼로 환산하여 상납하는데 쌀은 먹을 수 있는 쌀로 하고 벼는 다섯 새[五升] 35척(尺) 벼로 한다. 풍흉을 가리지 않고 쌀 6말 5되에 벼 1필로 환산한다. 각사(各司)의 공물가(貢物價)는 해읍과 산군을 가리지 않고 미포로 교급(交給)하여 풍흉에 조절하는 바탕을 삼는다. 아록전(衙祿田)·공수전(公須田)·위전(位田)의 3세(稅)도 본관에 정급(定給)한다. 관아에서 쓰는 마태(馬)와 인부(人夫)는 모두 대가를 치르고 사용하게 하여 말 한 마리, 인부 한 사람도 백성에게서 사사로이 차출하지 못하게 한다. 내외의 크고 작은 비용은 모두 선혜청에서 재량을 받고, 연말에 문서를 정리하여 대조 조사해서 남은 쌀이 있으면 회록(會錄)한다. 과외로 민력을 사용할 경우 연호(烟戶)를 반드시 아뢰어 분부를 받고 나서 쓰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는다. 삼공(三公)을 도제조로 삼고, 또 중신(重臣) 2명을 제조로 삼되 호조판서는 예겸(例兼)한다. 호서의 대동법과 함께 선혜청에 합설(合設)한다.

## ▶ 9권 4년 9월 15일 己卯

己卯/持平尹遇丁啓曰: “今年牛疫之慘, 餘存無幾, 屠殺猶前, 將有絕種之患. 曾在丁丑牛疫之餘, 殺牛者如殺人之罪, 著爲令甲, 今亦依此痛禁.” 上曰: “依啓.”

지평 윤우정(尹遇丁)이 아뢰기를,

“금년에 우역(牛疫)이 대단하여 살아남은 소가 얼마 안 되는데 도살은 종전과 똑같이 하고 있어 장차 종자가 끊길 염려가 있습니다. 지난 정축년 우역 끝에는 소를 도살한 자는 살인을 한 죄와 같이 취급하도록 법령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이에 의거하여 절대 금해야 하겠 습니다.”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하니, 상이 아된 대로 하라고 하였다.

### ▶ 9권 4년 10월 5일 己亥

己亥/上御熙政堂引見大臣及備局諸宰. 領相鄭太和曰: “前日使臣之來, 云查使不來, 今見齋咨官所報, 似當有查使矣. 聞彼國南方有土賊, 調送兵馬, 且聞瀋陽有急報, [若] 曰哈【曰哈, 乃北夷別種.】侵犯, 則必徵兵於我, 而尙無聲息, 不足慮也.” 左相元斗杓曰: “牛疫甚熾, 耕牛盡斃, 秋耕多以人耕, 故播種亦難入土, 誠非小慮.” 禮判洪命夏曰: “牛疫如此, 乳牛多斃, 駝酪不可進御也.” 吏曹參判趙復陽曰: “非獨牛疫, 魚鰲皆死, 至於城中, 烏鵲亦稀少.” 此乃非常之災, 人心疑懼矣.” 上曰: “嘗見宗廟後苑, 烏鵲甚多, 近來不見矣.” 太和曰: “非但禁苑無鳥, 城中亦絕無矣.” 斗杓曰: “禽鳥, 得氣之先者也, 以其去來, 可占吉凶. 聖上臨御, 于今五載, 歲運連凶, 百姓愁怨. 今雖姑息無事, 安知無外寇他變乎?” 斗杓又曰: “賑恤廳堂上, 欲移用關西之米矣.” 上曰: “群議如何?” 太和曰: “臣以西民受困爲難, 而亦必及今講定, 方可料理賑政, 不可不先定石數矣.” 上曰: “當用幾石?” 大司成閔鼎重曰: “當用一萬五千石.” 太和曰: “雖不得已取用餉穀, 不可過一萬石矣.” 上許之. 鼎重曰: “餉穀雖許取用, 各衙門銀布及平安道遼布, 兵營所儲軍布, 皆當量宜取用.” 上皆許之. 上問諸臣曰: “領中樞府事【卽李景奭也.】曾言, 洪錫範削科之冤, 事當如何?” 太和曰: “臣亦以削科爲冤矣, 其後聞其叔父, 死纔十三日, 而赴舉得科. 今若復科, 則非所以獎勵風教也.” 命夏亦以爲, 不可復科, 上曰: “然則置之.” 兵判金佐明曰: “禁軍之所授國馬, 多體小, 不合戰馬. 聞諸處牧場, 多有可合戰馬者, 今後宜以牧場馬分給矣.” 上許之. 佐明又曰: “禁軍中衣裝單薄者, 請自本曹, 給其衣資, 以遵先朝故事.” 上亦許之. 司諫閔維重曰: “故統制使忠武公李舜臣祠宇, 在於南海之露梁者, 曾已賜額忠烈矣, 今聞統營, 亦舜臣所創, 故將士亦已立祠尊奉云. 請依露梁例, 竝賜忠烈之額.” 上許之. 維重又啓曰: “石室書院【石室, 卽金尙容、尙憲書院.】賜額致祭時, 監司不以守令差送, 執事以本州境內前銜官差定, 已極無據, 而本官亦不定送前銜官, 以諸生充備執事, 至於祭文, 乃是王言, 亦使儒生宣讀, 求之典禮, 豈容如是? 況祭物、儀物之不備, 尤見其怠慢, 請京畿監司吳挺一推考, 楊州牧使閔熙罷職.” 上從之. 副提學俞棨曰: “在先朝, 議均田之時, 下教曰: ‘量田後, 新結雖倍於舊, 民役之用, 當以舊結.’ 臣以此聖教, 亦嘗對人而言, 則畿民間而鼓舞矣. 今聞以十二斗爲定云, 失信於民大矣. 新結雖不倍舊, 民間出米, 當近五萬石, 民必曰, 國家爲得穀之多, 爲量田, 將何以解其謗乎?” 上曰: “此言何如?” 太和、斗杓曰: “臣等之意, 亦如此. 而任事之臣, 皆以十二斗爲便, 故臣等亦從之矣.” 佐明曰: “十二斗收米, 而雜役竝入其中, 則民情庶可爲便, 故臣等請以十二斗爲定, 今棨以失信爲言. 在先朝, 請爲量田者, 臣父也, 以十斗爲便者, 亦臣父也. 今臣不當以十二斗爲言, 而只爲便民, 乃爲此說矣.” 上曰: “第以副學之言, 更爲相議.”

상이 회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전일 사신이 왔을 때는 사사(查使)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니 지금 뇌자관(賚咨官)이 보고한 것을 보면 사사가 또 꼭 올 것 같습니다. 듣기에 그 나라 남방에 토적(土賊)이 있어서 병마(兵馬)를 조발하여 보냈다고 하고 또 심양(瀋陽)에도 급보가 있다고 들리는데, 만약 왕흠(曰哈)이 【왕흠은 바로 북녘 오랑캐 별종임.】 침범하였으면 틀림없이 우리 군대를 징발하도록 하였을 것이지만 아직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을 보니 염려할 것 없겠습니다.”

하고, 좌상 원두표는 아뢰기를,

**“우역(牛疫)이 몹시 번져 부림 소가 다 죽고 가을갈이를 대부분 사람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씨앗을 땅에 뿌려도 제대로 심어지기 어렵다니 참으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하고, 예조판서 홍명하는 아뢰기를,

**“우역이 그리하여 젖소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우유도 올려올 수 없습니다.”**

하고, 이조참판 조복양은 아뢰기를,

**“우역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다 죽고 심지어는 성 안의 까막까치도 드뭅니다. 이는 바로 보통 재변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의구심에 차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언젠가 보니 종묘 후원에 까막까치가 매우 많더니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금원(禁苑)에만 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도 전혀 없습니다.”

하고, 두표는 아뢰기를,

“새라는 것이 기운을 제일 먼저 타는 것이어서 그것이 오가는 것으로 길흉을 점칩니다. 성상께서 자리에 오르신 지 지금 5년이 되었는데 세운(歲運)이 계속 흉하여 백성들이 걱정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런대로 무사하다지만 외구(外寇)나 다른 재변이 없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였다. 두표가 또 아뢰기를,

“진휼청(賑恤廳) 당상관이 관서(關西)의 쌀을 옮겨다 쓰고자 합니다.”

하니, 상이 공론은 어떠한가를 물었다. 이에 태화가 아뢰기를,

“신은 관서 백성들이 곤욕 받을 것을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금 강론하여 결정해야지만 비로소 진정(賑政)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니, 몇 섬으로 할지를 따라서 먼저 정해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몇 섬이나 사용해야 하겠는가?”

하자, 대사성 민정중이 아뢰기를,

“1만 5천 섬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비록 부득이하여 향곡(餉穀)을 가져다 쓰더라도 1만 섬을 초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정중이 아뢰기를,

“비록 향곡을 이용하도록 허락하셨으나 각 아문의 은포(銀布) 및 평안도의 도요포(渡遼布), 병영에 저장된 군포(軍布)도 모두 적당량을 가져다 써야 할 것입니다.”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하니, 상이 모두 허락하였다. 상이 신하들에게 묻기를,

“영중추부사가 【바로 이경석(李景奭)이다.】 일찍이 홍석범(洪錫範) 삭과(削科)에 대하여 그 억울함을 말하였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신 역시 삭과는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후에 들으니 그가 그의 숙부(叔父)가 죽은 지 겨우 13일 만에 부거(赴舉)하여 등과한 것이라 합니다. 지금 만약 복과(復科)시키면 풍교(風敎)를 장려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고, 명하도 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니, 상이 그러면 그만두라고 하였다. 병조판서 김좌명(金佐明)이 아뢰기를,

“금군(禁軍)에 준 국마(國馬)가 체구가 왜소하여 전마(戰馬)로는 맞지 않습니다. 듣기에 각처 목장에는 전마로 합당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 지금은 목장의 말로 나누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좌명이 또 아뢰기를,

“금군 중에 옷가지가 홀으로 얇은 자들에게는 본조에서 옷감을 주도록 하여 선왕조의 고사(故事)를 따르소서.”

하니, 상이 또한 허락하였다. 사간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고 통제사 충무공 이순신 사우(祠宇)로 남해(南海)의 노량(露梁)에 있는 것에는 일찍이 충렬(忠烈)의 액(額)을 이미 내린 바 있으나, 지금 듣건대 통영(統營) 역시 순신이 창건한 것이기 때문에 장사(將士)들이 이미 사우를 건립하여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노량의 예대로 충렬의 액을 아울러 내리소서.”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유중이 또 아뢰기를,

“석실 서원(石室書院)의 【석실은 김상용(金尙容)·김상헌(金尙憲)의 서원이다.】 사액(賜額) 치제(致祭) 때 감사가 집사를 수령으로 차출하여 보내지 않고 그 고을 경내의 전직 관원으로 차출하여 정하게 했더니 이미 터무니없는 일인데, 본관(本官)에서도 전직 관원으로 정하여 보내지 않고 제생(諸生)들을 집사로 충원하였으며 제문(祭文)에 있어서는 그게 바로 왕언(王言)인데도 역시 유생(儒生)을 시켜 낭독하게 하였더니 전례(典禮)로 보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제물(祭物)이나 의물(儀物)도 갖추어지지 않아 더욱 태만함을 나타냈으니, 경기감사 오정일(吳挺一)을 추고하고 양주목사 민희(閔熙)는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부제학 유계가 아뢰기를,

“선왕조에서 균전(均田)에 관하여 논의할 때 하교하시기를 ‘전지 측량 이후 신결수가 구결수보다 비록 갑절이 많더라도 민역(民役)을 쓰는 일은 꼭 구결수에 의하여 하라.’ 하셨는데, 신이 그 하교를 언젠가 누구를 대하여 말하였더니 경기의 백성들이 듣고는 삶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12말로 정하였다고 하니 이는 백성에게 크게 신의를 잃을 일입니다. 신결 수가 구결 수에 비하여 비록 갑절이 되지 않아도 민간이 내놓을 쌀이 5만 섬 가까이 될 것이어서 백성들이 틀림없이, 국가가 곡식을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전지 측량을 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비방을 무슨 수로 풀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자, 태화와 두표가 아뢰기를,



“신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은 신들이 모두 12말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신들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하고, 좌명은 아뢰기를,

“쌀 12말을 징수하되 모든 잡역(雜役)을 그 속에다 포함시키면 백성들도 편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기 때문에 신들이 12말로 정할 것을 청하였던 것인데, 지금 유제는 신의를 잃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왕조 때 전지 측량을 청했던 이가 신의 아비이고 10말이 편리하다고 주장한 이도 신의 아비였습니다. 지금 신 역시 12말을 주장할 입장이 아니지만 다만 백성의 편의를 위하여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제학의 말을 놓고 다시 의논해보라.”

하였다.

#### ▶ 9권 4년 10월 12일 丙午

黃海道牛疫大熾，牛斃者千餘頭，官猪亦斃。

황해도에 우역(牛疫)이 크게 번져 죽은 소가 1천여 두나 되었고 관저(官猪)도 죽었다.

#### ▶ 10권 4년 11월 27일 辛卯

~이상생략

又啓曰：“義州府尹李元禎，曾爲長城府使時，有濫用官穀之罪，及爲東萊，處事失當，至於罪罷。如此已試見敗之人，不可起廢復授邊上重任，請李元禎罷職。”上從之。副校理呂聖齊曰：“頃因憲府之啓，屠牛者，與殺人同罪，此必不可行之事，而貴人賤畜之義，亦不當如是。宜還收成命，申明本律，以爲痛禁之地也。”上以纔令旋收爲難。太和曰：“諸臣之言如此，變通宜矣。”上從之。聖齊曰：“聞禁軍入番者，逢點於內官云，甚不可也。”上曰：“非今創始，自先朝有此事矣。”太和曰：“先朝時禁軍之新入番者，命會于差備門外，使內官閱視軍裝，因以饋酒，此出於優待之意，初非爲點閱。而今則仍成點閱矣。”上不答。

~이상생략

또 아뢰기를,

“길주목사 임한백은 도입한 뒤로 오직 체임되어 돌아가려는 피만 부리느라고 술을 마시면서 공무를 내팽개치고 재상(災傷)을 실지로 답사하는 일에 대해서도 성의껏 하지 않았습니 다. 지금 만약 파직하고 추고하는 데 그친다면 그의 소원에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셈이 되니, 임한백을 잡아다 문초해서 죄를 정하소서.”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의주부윤 이원정(李元禎)은 전에 장성부사(長城府使)로 있을 적에 관곡을 남용한 죄가 있고, 동래부사가 되어서는 처사에 타당성을 잃어 죄를 받고 파직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시험해 보았으나 기대를 무너뜨린 사람을 기용해서 다시 변방의 중임에 제수해서는 안 되니, 이원정을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부교리 여성제(呂聖齊)가 아뢰기를,

**“얼마 전 헌부의 계청으로 인해 소를 도살한 자는 살인한 자와 똑같이 죄를 적용시키기로 하였는데, 이는 절대 행해서는 안 될 일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가축은 천하게 보는 의리로 따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마땅히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시고 본율(本律)을 거듭 밝힘으로써 통절히 금지하는 바탕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명령을 내리자마자 철회하는 것을 곤란하게 여겼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제신의 말이 이러하니 변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상이 따랐다. 여성제가 또 아뢰기를,

“들으니 입번(入番)하는 금군(禁軍)들이 내관(內官)에게 점열(點閱)을 당했다고 하는데,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제 처음 시작된 일이 아니고 선조(先朝)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하였는데, 정태화가 아뢰기를,

“선조 때 새로 입번하는 금군들을 차비문 밖에 모이도록 명하여 내관으로 하여금 군장(軍裝)을 조사하게 하면서 술을 대접하였는데, 이는 우대하는 뜻에서 나온 일이었지 애당초 점열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대로 점열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니, 상이 대답하지 않았다.

### ▶ 10권 4년 12월 10일 癸卯

癸卯/持平尹遇丁, 曾爲本職時, 以牛疫爲慮, 啓屠牛者與殺人者同罪, 其後引見時, 諸臣皆以爲比畜於人, 甚不可. 至是遇丁復入憲府, 以此引避. 憲府啓請出仕, 從之, 其後承召不進遞.

지평 윤우정(尹遇丁)이 일찍이 본직에 있었을 때 우역(牛疫)을 걱정하여 소를 도살한 자는 살인한 자와 똑같이 죄를 적용하자고 아뢰었는데, 그뒤 인견할 때에 제신이 모두 가축을 사람에게 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이때에 와서 윤우정에 다시 헌부에 들어가 이 일로 인피하였는데, 헌부가 출사하게 하자고 아뢰어 상이 따랐으나, 그뒤 소명을 받고도 나오지 않아 체임되었다.

### ▶ 10권 5년 2월 23일 丙辰

丙辰/上御宣政殿，行常參。禮判洪重普、兵判金佐明、正言宋昌，上殿奏事。重普曰：“前潭陽府使金應祖，以金城山城軍餉事，方有拿命。而應祖以三朝侍從之臣，年已八十，家在嶺南。且未經痘疫，遠道拿來，必致顛仆。在聖上優老恤下之道，宜有寬貸之典矣。”上曰：“勿拿，令本道發緘以問。”昌啓曰：“近來贓法不嚴，因贓汚而坐廢者甚小。故貪汚之輩，無以懲戢，誠可寒心。新除授忠清水使朴而昭，性本麤猾，到處剝割，乃是貪濫之特甚者。曾爲濟州牧使，亦以此論罷，而纔過一年，又除閩帥，物情皆駭。請朴而昭罷職。”上不從。佐明曰：“訓練大將李浣，以沐浴，明當出外。自前大將不在，則或差假大將，或都提調兼察矣。今亦宜有處分。”上曰：“都提調兼察。”佐明曰：“自前陵幸臨時，禁軍有操鍊之規，今亦爲習操乎？”上曰：“可。”上罷常參後，引見大臣及備局諸宰。左相元斗杓曰：“玉候久爲未寧，今乃有陵幸擇日之命，臣民誠極喜幸。而但痘疫及癘氣方熾，許多陪從之人，豈得盡皆潔淨？且卽今飢荒轉甚，饑民困於除道，此甚可慮。且船路浮橋，亦甚有弊矣。”上曰：“若於無船路近陵，先爲拜謁，則可乎？”禮判洪重普曰：“民弊則雖不多，癘疫最可憂也。”吏曹參議閔鼎重曰：“既以獻陵爲定，何可以過涉之弊，改以他陵乎？津船亦多，渡涉非所慮也。”上遂定幸獻陵。鼎重曰：“獻陵有碑石，壬辰之亂，倭人縱火焚之，碑終不燒，倭人以爲神異，其碑字尙不磨滅云矣。”斗杓曰：“臣則見其碑矣。古者雖帝王，亦立碑記其功德，故有此碑石，而其字尙今不滅，其背列刻其時諸臣名矣。”斗杓又曰：“朝廷事體，漸不如前。典翰李端相，雖身有宿病，承召不進者，至於六七。優待儒臣，固是美事。而分義所在，事極未安。許遞似當矣。”上曰：“遞差。”兵判金佐明曰：“近來乏人殊甚。武班中亦少可用者。朴而昭之曾犯贓罪，臣昏耗不察，備望受黜。銓官之以犯贓人除職，其罪大矣。請遞臣職，仍治臣罪。”上令勿辭。斗杓曰：“近來人才絕乏。兪榮、尹文學，皆是可用之人。而榮則患疾半年，殆將不起，極爲可惜。榮之病乃是內腫，當服牛黃，而家貧不能得。先朝重臣，有病，或賜藥物矣。”上命內局賜牛黃。上問兵判曰：“陵幸時，留都軍兵，何不取稟耶？”佐明曰：“飢荒如此，不可調用外兵。使御營軍留都似好矣。”

이하생략~

상이 선정전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행하였다. 예조판서 홍중보, 병조판서 김좌명, 정언 송창이 선정전에 와서 일을 아뢰었다. 홍중보가 아뢰기를,

“전 담양부사 김응조(金應祖)가 금성산성(錦城山城) 군향(軍餉)의 일로 현재 잡아오라는 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응조는 세 조정을 섬긴 시종신으로 나이가 80이며 집이 영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역(痘疫)이 가지지 않았으니 먼 길에 잡아오다가 보면 필시 일이 전복되고야 말 것입니다. 성상의 노인을 우대하고 신하를 보살피 주는 도에 있어서 마땅히 관대한 은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잡아오지 말고 본도로 하여금 함문을 발하여 문죄하도록 하라.”

하였다. 송창이 아뢰기를,

“근래에 장법(贓法)이 엄격하지 못하여 장오로 인하여 좌폐된 자가 매우 적습니다. 그리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므로 탐오(貪汚)하는 무리들을 징집할 수가 없으니 진실로 한심합니다. 새로 제수한 충청수사 박이명은 성격이 본래 거칠고 교활하여 가는 곳마다 각박하게 하니 이는 탐람하기가 특히 심한 자입니다. 일찍이 제주목사가 되었을 때 이 일로 논핵하여 파직시켰는데, 겨우 1년이 지나자 또 곤수에 제수하니, 물정이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박이명을 파직시키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김좌명이 아뢰기를,

“훈련대장 이완(李浣)이 목욕(沐浴)가는 일로 내일 외출해야 합니다. 그전부터 대장이 없으면 혹 가대장(假大將)을 차임하거나 간혹 도제조가 겸찰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마땅히 처분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제조가 겸찰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좌명이 아뢰기를,

“그전부터 능행(陵幸)할 때는 임시하여 금군(禁軍)을 조련시키는 규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조련토록 해야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상이 상참을 파한 후에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재신을 인견하였다. 좌상 원두표가 아뢰기를,

“상께서 오랫동안 편치 못하셨는데 지금 능행(陵幸)할 날을 가리라는 명을 내리시니 신하들은 진실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역(痘疫) 및 여기(氣)가 한창 치성하고 있으니 많은 배종하는 사람들이 어찌 모두가 다 정결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흉년이 들어 갈수록 심하여 굶주린 백성이 제도(除道)에 시달리고 있으니 몹시 염려스럽습니다. 또 뱃길에 부교(浮橋)를 놓는 것도 매우 폐단이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뱃길이 없는 가까운 능을 우선 배알한다면 되겠는가?”

하니, 예조판서 홍중보가 아뢰기를,

“백성들의 폐해는 비록 많지 않으나 여역이 가장 우려됩니다.”

하였다. 이조참의 민정중이 아뢰기를,

“이미 헌릉(獻陵)으로 결정하였는데, 어찌 물 건너는 폐해 때문에 다른 능으로 계획을 바꾼단 말입니까. 나룻배도 많으니 물 건너는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자, 상이 드디어 헌릉으로 행차할 것을 결정하였다. 민정중이 아뢰기를,

“헌릉에 비석(碑石)이 있는데 임진란 때 왜인(倭人)이 불을 질러 태웠으나 비석이 끝내 타지 않자 왜인이 신기하게 여기고 그 비의 글자를 마멸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고, 원두표는 아뢰기를,

“신은 그 비석을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비록 제왕이라고 하더라도 비를 세워 그 공덕을 기록하였으므로 이 비석을 세웠던 것인데 그 글자가 아직도 마모되지 않았으며 비석 뒤에는 그 당시 제신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하였다. 원두표가 또 아뢰기를,

“조정의 사체가 점점 그전만 못합니다. 전한 이단상(李端相)은 비록 오랜 신병이 있다고는 하나 부름을 받고도 나아오지 않은 것이 6, 7번이나 됩니다. 유신을 우대하는 것이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지는 합니다. 그러나 분의(分義)로 따져보면 일이 몹시 온당치 않습니다. 체직을 허락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체차하라고 하였다. 병조판서 김좌명이 아뢰기를,

“근래에 인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무반(武班) 중에서도 채용할 만한 자가 적습니다. 박이명이 일찍이 장오죄를 범하였는데 신이 혼모하여 살피지 못하고 비망(備望)하여 낙점을 받았습니다. 전관(銓官)이 장오를 범한 사람을 관직에 제수하였으니 그 죄가 큼니다. 신의 관직을 체차하시고 이어 신의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는데,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원두표가 아뢰기를,

“근래에 인재가 몹시 부족합니다. 유계(兪棨)·윤문거(尹文舉)는 모두 채용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계는 질병을 앓은 지가 반년이나 되어 아무래도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으니 몹시 애석합니다. 유계의 병은 내종(內腫)이므로 당연히 우황(牛黃)을 복용해야 하는데 짚이 가난하여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선조(先朝)에는 중신이 병을 앓으면 약물을 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내국(內局)에게 약물을 하사하도록 명하였다. 상이 병조판서에게 묻기를,

“능행(陵幸)할 때 도성에 남아 있을 군병을 어찌 취품(取稟)하지 않는가?”

하니, 김좌명이 아뢰기를,

“흉년이 저러하니 외병(外兵)을 조용(調用)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어영군(御營軍)으로 하여금 도성에 남아 있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이하생략~

## ▶ 11권 5년 5월 1일 壬戌

安城有牛產犢，兩頭兩口，四耳四目。

안성(安城)에서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머리와 입이 두 개였고 눈과 귀가 네 개였다.

## ▶ 11권 5년 8월 24일 癸未

癸未/上又受鍼。禮判洪重普、兵判金佐明請對以入，稟定陵幸時節目。藥房都提調洪命夏曰：“今秋不但風雹之災，外方牛疫大熾，此大變也。秋耕方以人代之，若不禁屠殺，則餘存者無幾。請申嚴屠牛之禁。”上曰：“令法司嚴禁。”

상이 또 침을 맞았다. 예판 홍중보, 병판 김좌명이 청대하여 들어가 능에 갈 때의 절목을 품정하였다. 약방도제조 홍명하가 아뢰기를,

“금년 가을은 바람과 우박의 피해뿐만 아니라, 외방에 소의 돌림병이 크게 번지고 있으니, 이는 큰 변괴입니다. 가을갈이를 사람이 대신해야 할 판인데, 만일 도살을 금지하지 않으면 남아 있게 될 소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소의 도살을 금하는 것을 엄히 밝히소서.”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하니, 상이

“법사(法司)로 하여금 엄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 ▶ 11권 5년 10월 8일 丙寅

丙寅/忠清道牛疫大熾, 前後牛斃者三千七百八十餘頭.

충청도에 소 전염병이 크게 번져 죽은 소가 3천 7백 80여 마리였다.

### ▶ 11권 5년 10월 16일 甲戌

上以議定李惟泰前疏, 引見大臣及備局諸宰於熙政堂, 使承旨金壽興讀其疏, 至鄉約條, 領相鄭太和曰: “鄉約固是美制, 而我國自前不行, 先正臣李珥亦嘗以爲此法不可遽行.” 上曰: “時勢有古今之異, 固難行之矣.” 又讀五家統條, 太和曰: “此則可行, 而右相之意, 有不然者矣.” 右相許積曰: “五家統亦非不善, 而不如先行號牌也.” 太和及左相洪命夏曰: “若行號牌, 則民必先自畏慙, 臣等未知其必可行也.” 上曰: “五家統則可無民怨耶?” 太和曰: “此亦拘束之政, 民怨何可無也?” 上曰: “此疏條陳者, 雖難盡施, 其中可用者, 諸卿試與商確可也.” 命夏曰: “五家統便否, 詢問於諸臣似當矣.” 上謂承旨曰: “此條抄出, 以待群議之定可也.” 至養人材條, 太和曰: “此亦難行. 列邑豈可盡得齒德俱尊之人, 以爲師表乎?” 至延英院條, 太和曰: “英才若來, 則豈無所居之院也? 中國則人不嫌自售, 而我國如有自進者, 則人必群聚而非笑之, 雖設延英院, 誰肯自以爲賢而入於此乎?” 至科舉條, 太和曰: “外議以爲, 上之尙文, 不如尙武矣.” 積曰: “文教之廢弛, 未有甚於今日也.” 太和曰: “古則明經應舉之士, 必多讀註解, 今則大文之外, 只以若干訓誥, 點節塞責而已, 其何能及於文義乎? 必變通而如古規可也.” 上曰: “講規復舊事, 言于禮曹, 改定事目, 勿用近規可也.” 讀疏既畢, 上曰: “鄉約雖難設行, 五家統可以行之也.” 太和曰: “五家統亦載法典, 試行無妨矣.” 上曰: “此疏予欲講行久矣, 多事未果矣. 今欲行五家統之法, 下諭于李惟泰, 使之來議可也.” 太和又曰: “臣昨日始聞, 宮中有選入內人之事云, 宮中真有是事耶? 抑諸宮事乎?” 上曰: “予則不知也.” 太和曰: “內人抄選之際, 多有受賂而還送者, 其弊不少, 願上查問於內司, 處之如何?” 上曰: “問于內司.” 命夏曰: “判尹李浣, 昨以都民怨苦之說, 陳達而未畢其說, 宜更問於浣矣.” 上問李浣, 浣對曰: “都民被困於京各司者, 其弊不一. 而如司憲府、刑曹、漢城府, 皆掌禁令, 而禁吏操縱受賂, 罔有紀極. 牛禁近來申嚴, 而法官以所親而使之勿禁者有之. 故有勢者, 屠殺狼藉, 被罪者, 能無怨乎?” 太和及命夏, 皆言, 法司、禁令之弊, 且曰: “禁條自有定制, 必

申明禁條，犯禁者罪之可也，而近日則巧作名色，猝然出禁，事極無據矣。”上曰：“如有法外之禁，憲府禁吏，大臣隨聞因治可也。”浣又言請囑、關節之弊，太和曰：“仁祖亦嘗申明關節之禁，而終不能禁矣。”上曰：“今後如有關節、請托之人，大小臣僚，有聞必告可也。”禮判李一相曰：“領中樞李景奭，昨以監司、守令營造家舍之弊，再三陳達，意必有在，宜摘發論罪也。”上曰：“臺諫摘發論啓可也。”積曰：“方伯爲任極重，不可不慎簡，而新授黃海監司洪處大，爲人太緩，恐非按道之才也。”上命遞差。浣曰：“訓局操練，不宜行於隆寒，盛〔暑〕，宜變通前規也。”上曰：“都監習練之規，一年之內，隆冬三朔，盛夏三朔，竝一朔一行，其餘時一朔之內，三次設操，亦甚頻數，減其一次可也。”

상이, 이유태의 전일 상소를 논의하여 결정하려고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재신을 회정당에서 인견하고, 승지 김수흥(金壽興)에게 그 상소를 읽게 하였는데 향약(鄉約)의 조항에 이르러서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향약은 진실로 아름다운 제도이나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행하지 않았고 선정신 이이(李珣)도 일찍이 이 법은 갑작스레 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대와 형세에는 옛날과 지금의 차이가 있으므로 행하기가 진실로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또 오가통(五家統)의 조항을 읽으니, 태화가 아뢰기를,

“이것은 행할 만한데 우상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니, 우상 허적이 아뢰기를,

“오가통 역시 좋지 못한 것은 아니나 먼저 호패(號牌)를 행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하였다. 태화 및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만일 호패를 행하게 되면 백성들이 반드시 먼저 두려워하고 겁부터 낼 것이니 신들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가통은 백성의 원망이 없겠는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이 역시 구속하는 정치인데 백성의 원망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소에서 조목별로 진달한 것을 비록 모조리 시행할 수는 없더라도 그 중에 시행할 만한 것은 경들이 시험 삼아 서로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명하가 아뢰기를,

“오가통의 편리 여부는 여러 신하에게 문의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이 조항을 뽑아내어 여러 의논이 정하여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인재를 양성하라는 조항에 이르러서는, 태화가 아뢰기를,

“이 역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읍에서 어떻게 나이와 덕망이 모두 높은 사람을 얻어 사표로 삼겠습니까.”

하였다. 연영원(延英院)의 조항에 이르러서는, 태화가 아뢰기를,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영재가 만일 온다면 어찌 거처할 집이 없겠습니까. 중국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을 혐의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만일 스스로 나서는 이가 있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때로 모여 비웃을 것이니 비록 연영원을 설치한다 한들 누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하며 여기에 들어오겠습니까.”

하였다. 과거(科擧) 조항에 이르러서 태화가 아뢰기를,

“외부의 여론이 주상의 문교 숭상함이 무반 숭상하는 것만 못하다고들 합니다.”

하고, 허적은 아뢰기를,

“문교의 해이함이 오늘날보다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태화는 아뢰기를,

“옛날에는 명경과(明經科)에 응시하는 선비들이 반드시 주해(註解)를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대문(大文) 외에 단지 약간의 훈고(訓)로 점철하여 책임만 메울 뿐이니 어찌 제대로 문에 미치겠습니까. 반드시 변통하여 옛 규정과 같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학하는 규정을 복구하는 일은 예조에 말하여 사목(事目)을 개정하고 근래의 규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소장 읽기를 마치니, 상이 이르기를,

“향약은 비록 시행하기 어려우나 오가통은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오가통 역시 법전에 등재되어 있으니, 시험하여 보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소를 내가 강행(講行)하고 싶은 지 오래되었으나 일이 많아서 실행하지 못하였다. 지금 오가통의 법을 행하고 싶으니 이유태에게 하유하여 올라와서 상의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태화가 또 아뢰기를,

“신이 어제 비로소 들으니 궁중에서 나인(內人)을 뽑아들인 일이 있다고 하는데 궁중에 진실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궁가(宮家)의 일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나인을 뽑을 때 술한 뇌물을 받고 되돌려 보낸 것이 있어서 그 폐단이 적지 않다고 하니, 상께서 내수사에 살펴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수사에 사문하라.”

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판윤 이완이 어저께 도민(都民)이 원망하고 괴로워한다는 말을 전달하였는데 그 말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다시 이완에게 문의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완에게 문의하니, 이완이 대답하기를,

“도민이 서울의 각사에서 곤란을 당하는 것이 그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헌부·형조·한성부 같은 곳이 모두 금령(禁令)을 관장하는데 금리(禁吏)가 조종하여 뇌물을 받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소의 도살 금령이 근래에 거듭 엄하여지니 법관은 자기와 친밀한 이라고 금지하지 못하게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력이 있는 자는 도살이 낭자하니, 죄를 받은 이가 원망이 없겠습니까.”

하니, 태화 및 명하가 모두 법사와 금령의 폐단을 말하고 또 아뢰기를,

“금령의 조항에는 정해진 제도가 있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금령의 조항을 밝혀서 금령을 범한 자는 죄를 주어야 하는데 근래에는 교묘하게 명색을 만들어 갑자기 금령을 내리니, 일이 몹시 터무니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법 이외의 금령이 있다면 현부의 금리(禁吏)를 대신은 듣는 대로 잡아 가두고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이완이 또 청탁과 관절(關節)의 폐단을 말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인조(仁祖) 역시 일찍이 관절을 금하라고 거듭 밝혔으나 끝내 제대로 금하지 못하였습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앞으로는 만일 관절과 청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소 신하들은 듣는 대로 반드시 고하라.”

하였다. 예관 이일상(李一相)이 아뢰기를,

“영종추 이경석(李景奭)이 어제 감사와 수령의 가옥을 영조하는 폐단을 재삼 말하였는데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적발하여 논죄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은 적발하여 논게하라.”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방백은 책임이 막중하니 신중히 간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새로 제수한 황해감사 홍처대(洪處大)는 사람됨이 지나치게 느리니 아마도 황해도를 다스릴 인재가 아닌 듯합니다.”

하니, 상이 체차하라고 명하였다. 이완이 아뢰기를,

“훈국의 조련을 한겨울과 한여름에 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예전의 규정을 변통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훈련도감의 연습하는 규정이 1년 내에 한겨울 3개월과 한여름 3개월에서 모두 1개월에 한 번씩 행하고 그 나머지는 1개월 내에 세 차례씩 실시함은 역시 매우 자주 하는 것이니 그 중 한 차례는 감면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 14권 6년 12월 25일 丙子

丙子/是時, 牛疫大熾? 典往署留養黑牛, 斃者十四頭. 時八道牛疫皆然, 而濟州尤甚, 犧牲將無以供焉.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이때 우역(牛疫)이 크게 치성하여 전생서(典牲署)에서 기르던 검은 소 중에서 14두(頭)가 병으로 죽었다. 당시의 우역이 팔도가 모두 그러했는데 제주가 더욱 극심하여 희생(犧牲)을 제공할 수 없을 정도였다.

### ▶ 14권 7년 1월 26일 丁未

錦山民家牛產犢，一身兩頭

금산(錦山)의 민가에서 소가 몸통은 하나에 머리가 둘인 송아지를 낳았다.

### ▶ 16권 7년 8월 9일 丁巳

丁巳/副應教金萬均、副校理洪萬容、修撰尹深請對言：“旱災此酷，太白又見，恐懼修省之道，必有其策。頻御經筵，誠心典學，則其於聖德，亦豈無裨益乎？”深又以頻接臣僚之意，仰達，上曰：“旱災如此，民命近止，切迫之憂，庸有極乎？開筵引接，非不欲爲之，而眼患發作無常，以孤群下之望，良可歎也。”承旨李元禎曰：“古人云：‘奢侈之害，甚於天災。’比來閭閻間奢侈太過，聖上躬修儉德然後，乃爲導迪之方矣。”上曰：“奢侈盛，則民產竭，害甚天災云者，良以此也。”萬均曰：“臣聞內官，以上教貿入犀角云。如有用處，則自有尙方、戶曹，何必以上教貿易於〔閭〕閻乎？”上曰：“本無是事，想必訛傳，而今聞此言，於予心有所不安矣。”萬均曰：“如此失當之事，傳播於閭巷，故不敢不仰瀆天聽矣，聖教如此，臣心釋然矣。”又曰：“頃者以司饗院所供磁器，非古時體制，有改造之命云，臣恐古者臥薪嘗膽之君，必不念及於如此之事矣。”上曰：“闕內所用磁器，與閭閻器皿，制度不同。而四五年來，漸失古體，混雜無別，故有還下之事，實非有意於侈美也。”萬均曰：“此雖細事，玩物之戒，惕念宜當矣。”上曰：“此言然矣。”

부응교 김만균(金萬均), 부교리 홍만용(洪萬容), 수찬 윤심(尹深)이 청대하여 아뢰기를,  
“가뭄이 이렇게 극심한 데다 태백성이 또 나타나니, 두려워하며 수정하는 도리에는 필시 적절한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자주 경연에 납시어 성심으로 학문에 힘쓰다면 어찌 성덕에 보탬이 없겠습니까.”

하고, 윤심도 학문에 힘쓰고 신하를 자주 접하라는 뜻으로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가뭄이 이처럼 심하여 백성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절박한 근심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경연을 열어 신하를 접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나, 눈병이 아무 때나 발작하여 신하들의 소망을 저버리고 있으니 진실로 한탄스럽다.”

하였다. 승지 이원정(李元禎)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사치의 해는 천재(天災)보다 심하다.’라고 했는데, 근래에 여염에 사치가 극심하니, 성상께서 몸소 검소한 덕을 닦는 것만이 인도할 수 있는 방도가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치가 극성하면 백성의 재산이 고갈되는 법인데, 그 해가 천재보다 심하다고 한 것은 참으로 이 때문이다.”

하였다. 만균이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내관이 상의 분부를 받아 무소불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만약 쓰실 데가 있으시면 상방이나 호조가 있는데 하필이면 상의 분부로 여염에서 사들이게 한단 말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래 이런 일이 없었으니 필시 와전일 것으로 여긴다마는, 지금 이 말을 들으니 나의 마음에 불안하다.”

하자, 만균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온당치 않은 일이 여염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었는데, 성상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니 신의 마음이 석연히 풀렸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옛그제 사옹원에서 바치고 있는 자기(磁器)가 옛날의 제도가 아니라고 하여 다시 만들라고 명하셨다 하는데, 신의 생각에는 옛날 와신상담(臥薪嘗膽)하였던 임금은 필시 이러한 일을 생각조차도 못했을 것으로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궐에서 사용하는 자기는 여염에서 사용하는 그릇과는 제도가 같지 않다. 그런데 4, 5년 이래로 점차 옛날의 모양을 상실해 혼잡되어 구분이 없기 때문에 도로 내려 보낸 일이 있었다마는, 사실 사치에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자, 만균이 아뢰기를,

“이는 비록 사소한 일이나 물건에 완미하지 않아야 한다는 고인의 경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옳은 말이라고 하였다.

▶ 19권 9년 11월 6일 辛丑

京畿衿川縣, 有牛產犢, 一身兩頭兩尾. 道臣以聞.

경기 금천현(衿川縣)에서 소가 몸뚱이 하나에 머리가 둘이고 꼬리가 둘인 송아지를 낳았다. 감사가 보고하였다.

▶ 21권 10년 10월 3일 癸亥

京畿牛疫熾盛. 九月二十八日雨雹, 各穀損傷.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정기에 소 돌림병이 크게 퍼졌다. 9월 28일에 우박이 떨어져 각종 곡식이 손상되었다

### ▶ 21권 10년 10월 15일 乙亥

忠淸道牛疫熾發.

충청도에 소 돌림병이 크게 번졌다.

### ▶ 21권 10년 10월 19일 己卯

忠淸道牛疫熾發

개성부에 소 돌림병이 크게 번졌다.

### ▶ 22권 10년 11월 4일 癸巳

命盡減咸鏡道穩城稅米大豆、奴婢身貢 及洪原・明川・鏡城牛黃歲幣、醫司藥材價, 半減人蔘價布. 鍾城・慶興・三水・甲山等四邑稅米大豆、奴婢身貢亦半減. 時, 北路凶荒, 因本道監司狀啓, 有是命.

함경도 온성(穩城)의 세미(稅米)·대두(大豆)·노비 신공(奴婢身貢)과, 홍원(洪原)·명천(明川)·경성(鏡城)의 우황세폐(牛黃歲幣)와 의사(醫司) 약재가(藥材價)를 모두 감해주고 인삼 가포(人蔘價布)는 반을 감해주며, 종성(鍾城)·경흥(慶興)·삼수(三水)·갑산(甲山) 등 네 고을의 세미·대두·노비 신공도 반을 감해주도록 명하였다. 이때 북로(北路)에 흉년이 들었는데 본도 감사의 장계로 인해 이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 ▶ 22권 10년 11월 8일 丁酉

忠淸道牛疫熾盛.

충청도에 소 돌림병이 크게 번졌다.

### ▶ 23권 11년 8월 15일 己亥

京畿各邑，連日降霜。禾穀未熟者，舉皆乾枯，牛疫大熾，殆無遺種。秋耕者，以人代耕，九人之力，僅當一牛，民多廢耕。

경기 각 고을에 된 서리가 연일 내려 익지 않은 벼가 모두 말라 죽었다. 또 소의 전염병이 크게 번져 거의 남은 종자가 없었다. 가을갈이를 사람이 소 대신 하였는데, 9명의 힘으로 겨우 소 한 마리의 일을 해낼 수 있었으므로 농사일을 포기하는 백성이 많았다.

▶ 23권 11년 10월 19일 癸卯

執義申命圭等啓曰：“飢饉之餘，牛疫大熾，幸有若干餘存，一任驅入於屠肆，則明春耕作，決無其理。請自今以後，京外屠肆，一切禁罷，如有犯者，一一科罪。” 上令廟堂議處。及後登對，許積曰：“臺啓極是。但趙復陽筭陳之後，旋即弛之。今因臺啓，又復痛禁，則其在國體，事涉煩擾矣。” 金壽恒請禁之，洪重普欲弛之，諸臣之議不一。上曰：“更加申飭，不至濫觴可也。”

집의 신명규 등이 아뢰기를,

“기근이 든 뒤에 소의 역질이 크게 번졌는데, 다행히 살아남은 몇 마리를 모두 도살장으로 몰아가버리면 결코 내년 봄에 경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이후로는 경외의 도살장에 도살을 일체 금지하고 만약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하나 죄를 주소서.”

하니, 상이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하게 하였다. 그 뒤 등대를 함에 미쳐서 허적이 아뢰기를,

“대각의 논계가 매우 옳습니다만, 다만 조복양이 차자를 올린 뒤에 금방 법을 풀어 주었는데 지금 대각의 논계로 인하여 또다시 엄하게 금지시킨다면 나라의 체모에 있어서 일이 번잡하게 됩니다.”

하였다. 김수항(金壽恒)은 금지하기를 청하고, 홍중보(洪重普)는 법을 풀어주기를 청하여, 신료들의 의논이 일치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다시 신칙을 하여 지나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 23권 11년 10월 24일 戊申

兵曹判書金佐明以牛疫熾盛，請罷屠肆，嚴加禁斷，上從之。刑曹判書鄭知和，請勿徵贖，嚴刑三次，全家徙邊，一如律文。左相許積曰：“嚴刑三次，則殞命可慮，一次施刑，以懲犯禁之罪。且令收贖，以代全家之律。” 上從之。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병조판서 김좌명이, ‘우역(牛疫)이 극성을 부린다.’는 이유로, 도살장을 혁파하고 엄하게 더욱 금단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형조판서 정지화가, ‘속전(贖錢)을 징수하지 말고 엄하게 3차 형신을 하여 전가 사변시키기를 한 결 같이 올문대로 할 것’을 청하였다. 좌상 허적이 아뢰기를,

“3차를 엄하게 형신하면 목숨을 잃을까 염려됩니다. 1차 형신을 하여 금법을 어긴 죄를 징계하고 또 속전을 받아 전가 사변을 대신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 23권 11년 11월 13일 丙寅

上御養心閣, 引見大臣、備局諸臣. 上曰: “走回人事, 欲與卿等議之矣.” 左相許積曰: “此非自厚春逃還者, 乃瀋陽人也. 其所走回, 亦非本情, 採蔘於江邊, 爲我所獲, 不得已來此. 而其所居鄉里、父母族黨, 皆不知之, 宜令自其被執處, 直送於平安道, 轉送彼中矣.” 上然之. 時, 牛疫大熾, 申明屠禁. 刑曹、漢城府、司憲府諸司, 皆以人吏抄食, 上請變通事, 下賑恤廳, 該廳不能給. 賑恤堂上金佐明請以戶籍作木, 貸漢城府, 戶曹三南災傷贖木, 給刑曹、司憲府, 從之. 積又曰: “蠲役事, 已盡定奪. 而吏曹參議金萬基以爲: ‘被災處或全減, 或半減, 而名爲稍實者, 實不異於災處, 而身役三匹, 全無所減, 不可不少蠲.’ 云矣.” 上曰: “然則稍實邑三匹之類, 亦減一匹.” 積又曰: “新出身赴防之類, 當此大無, 其費不貲. 臣意, 姑欲待年送防, 而金佐明欲令入防於南方舟師, 此亦便好. 但南方水土甚惡, 若得土疾, 甚可惜也.” 上曰: “自兵曹擇送水土稍好之地可也.” 兵判金佐明曰: “閔鼎重以賑恤堂上, 召命非止一再, 而終不上來, 請推考促來.” 積曰: “纔已別諭, 今又推考則似未妥當. 待其別諭後自處, 而推考似可矣.” 上然之. 判尹徐必遠曰: “江都, 國之所恃, 而若流漸蔽江, 則道路難通. 國家爲慮此患, 通道紫燕島, 置宮闕糧餉, 以備緩急, 而紫燕土地雖沃, 以牧場不得開墾, 居民之生理極難. 若驅出馬群, 分給戰士, 罷其牧場, 自明年設屯積穀則好矣.” 積曰: “必遠今當出往, 宜使之更審形勢而後, 許其請也.” 上然之.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회인(走回人)에 대한 일을 경들과 함께 의논하고자 한다.”

하니, 좌상 허적이 아뢰기를,

“이 사람은 후춘(厚春)에서 도망해 돌아온 자가 아니라 바로 심양(瀋陽) 사람입니다. 그가 도망을 나온 것도 또한 본정이 아닙니다. 강변(江邊)에서 삼(蔘)을 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붙잡혀 부득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으로서, 그가 살던 고향의 부모와 가족들은 모두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붙잡힌 곳에서 곧바로 평안도로 이송하여 저쪽 나라로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당시에 소의 역질이 극성을 부려 도살을 금지하는 금법을 거듭 신칙하였다. 형조, 한성부, 사헌부 등 여러 관사에서 아전[人吏]들의 봉록[抄食] 문제에 대해서 변통할 것을 건의하니, 그 일을 진휼청에 내렸는데, 해청이 지급을 할 수가 없었다. 진휼청 당상 김좌명이, ‘호적 작목(戶籍作木)을 한성부에 꾸어주고, 호조에 있는 삼남(三南) 재상 속목(災傷贖木)을 형조와 사헌부에 지급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 허적이 또 아뢰기를,

“신역을 견감시키는 일은 이미 모두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이조참의 김만기(金萬基)가 ‘재난을 당한 곳은 혹 전체를 감하기도 하고 혹 절반을 감하기도 하였으나, 조금 여물었다고 이름을 붙인 곳은 실제로는 재난을 당한 곳과 차이가 없는데도 신역 3필을 하나도 감하지 않았으니, 조금 견감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조금 여문 고을에서 3필을 거두는 것도 1필을 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허적이 또 아뢰기를,

“신출신(新出身)을 부방시키는 일은, 이러한 큰 흉년에 그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우선 해를 기다려 부방을 보내고자 합니다만, 김좌명은 남방(南方)의 주사(舟師)에 입방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좋습니다. 다만, 남방은 수토(水土)가 매우 나쁘니, 만약 토질(土疾)에 걸리게 되면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조에서 수토가 다소 좋은 지역을 골라서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병판 김좌명이 아뢰기를,

“민정중은 진휼청 당상으로서, 소명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끝내 올라오지 않습니다. 추고하고, 재촉하여 올라오게 하소서.”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겨우 며칠 전에 이미 특별 유지를 내렸는데 지금 또 추고를 하면, 타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특별 유지를 받은 뒤에 스스로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보고 추고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관윤 서필원이 아뢰기를,

“강도(江都)는 국가가 믿고 있는 곳인데, 만약 얼음 조각이 떠 내려와 강을 막게 되면 길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이것을 염려하여 자연도(紫燕島)로 길을 통하게 하여 그곳에 궁궐을 설치하고 양식을 갖추어 두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 자연도는 토지가 비록 비옥하나 목장 때문에 개간을 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이 살아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말들을 몰아내고 전사(戰士)들에게 나누어주어 그 목장을 혁파하고 내년부터 둔전을 설치하여 곡식을 저축하면 좋겠습니다.”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서필원이 지금 그곳에 나가게 되었으니 다시 형세를 살피게 한 뒤에 그 계청을 허락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23권 11년 12월 11일 甲午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甲午/全羅道順天民家，育牛生犢，一身兩頭.

전라도 순천(順川)의 민가에서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한 몸에 머리가 둘이었다.

### ▶ 23권 12년 3월 24일 乙亥

乙亥/咸鏡道安邊府有牛生犢，一身兩頭，四目二鼻，兩耳兩口.

함경도 안변부(安邊府)에 어떤 소가 낳은 송아지가 하나의 몸에 머리가 둘이 달렸는데 눈이 넷이고 코가 둘이고 귀가 둘이고 입이 둘이었다.

### ▶ 24권 12년 5월 16일 丙寅

咸鏡道各邑，牛馬疫大熾，以至狗彘，亦皆延染致斃. 咸興大雷電，人有震死者.

함경도 각 고을에서 마소의 돌림병이 크게 치열하여 개돼지까지도 전염되어 죽었다. 함흥(咸興)에서 크게 천둥과 번개가 쳐서 벼락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었다.

### ▶ 24권 12년 6월 18일 丁酉

命弛京外屠牛之禁. 左相鄭致和白上曰: “初禁屠牛，意在爲民，而卽今飢民，或有牛犢，國禁至嚴，買者絕無，勢將持牛而餓死. 且犯禁之人，徵贖受刑，不死則傷，恐有乖於凶歲弛禁之意也.” 上曰: “申明牛禁，實爲農作，而事勢異前，民將盡斃，何可徒守此禁乎? 自今犯禁者，除刑只贖.”

서울과 지방에서 소 잡는 금령을 늦추도록 명하였다. 정치화가 아뢰기를,

“당초에 소 잡는 것을 금한 것은 백성을 위하는 데에 뜻이 있었는데, 지금 굶주린 백성에게 혹 송아지가 있어도 나라에서 매우 엄하게 금하고 있으므로 사는 자가 전혀 없어서 소를 가지고도 굶어 죽을 형세에 놓여 있습니다. 또, 금령을 범한 사람은 속(贖)을 거두고 형벌을 받는데, 죽지 않으면 몸을 상합니다. 흉년에는 금령을 늦춘다는 뜻에 어긋나는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를 잡지 못하게 금령을 더욱 밝힌 것은 실로 농사를 위한 것인데, 사세가 전과 달라서 백성이 다 죽게 되었으니 어찌 이 금령을 부질없이 지켜서야 되겠는가? 이제부터 금령을 범한 자에게는 형벌을 주지 말고 속만 거두게 하라.”



하였다.

▶ 24권 12년 7월 5일 甲寅

甲寅/慶尙監司閔著重馳啓曰：“右道各邑，饑饉尤甚，食盡鷄犬，又及牛馬，人皆宰殺，不待屠坦 形勢之急，次於相食，以至飢腸食肉，痢疾暴發，死亡相續。初無牛馬者，坐而待盡。即今市直，皮牟一斗，至易羶木四五端，而切無持牟之人。左道各邑，牛疫大熾，自死之肉，恐或傷人，使之埋置，則飢民輩乘夜掘食，仍以致斃者甚衆。且各邑飢民，日日雲集，而賑資已竭，饋以麥粥，難望救活，而癘疫、痢疾，延染即斃。加以旱蝗孔慘，前頭民事，更無可望。”云。

경상감사 민시중(閔著重)이 치계하였다.

“우도(右道)의 각 고을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닭·개를 죄다 잡아먹고 나자 또 마소까지 잡아먹고 있는데 사람마다 도살장이 필요 없이 직접 도살하고 있습니다. 형세의 급함이 서로 잡아 먹기 직전이고 심지어는 굶주린 창자에 고기를 먹자 설사병이 갑자기 일어나 죽는 자가 잇따르고 있으며 애초에 마소가 없는 자는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격은 겉보리 한 말로 거친 무명 너댓 단(端)과 바꾸기까지 합니다만, 보리를 가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좌도(左道)의 각 고을은 우역(牛疫)이 크게 치열하여 병으로 죽은 것의 고기는 혹 사람에게 해로울까 염려하여 파묻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굶주린 백성들이 밤을 틈타 파내어 먹고는 죽은 자가 매우 많습니다. 또 각 고을의 굶주린 백성이 날마다 구름처럼 모이고 있으나 진흙할 거리가 이미 떨어져서 보리죽을 먹고 있으므로 구제되기를 바라기 어려운데다 여역·이질이 전염되면 즉시 죽습니다. 게다가 한재와 황재(蝗災)가 매우 참혹하니, 앞날의 농사에는 다시 바랄만한 것이 없습니다.”

▶ 24권 12년 9월 24일 壬申

大司諫李翊相等啓曰：“州縣之屠牛興賑，既云非法，況今牛疫，致斃殆盡，飢饉之餘，民無耕作之望。道臣之啓請設鋪，本爲賑資，而弊瘼滋蔓，宰殺狼藉，餘存之牛，盡就屠肆。些少之利，徒歸吏橐，其所爲害，不特鄙瑣而止。請京畿各邑鋪子，一一禁斷。”上從之。

대사간 이익상(李翊相) 등이 아뢰기를,

“고을에서 소를 잡아 파는 것은 법에 어긋난 짓인데다 더구나 지금 우역으로 소가 거의 다 죽었으니, 기근 끝에 백성이 경작할 희망이 없습니다. 도신(道臣)이 계청(啓請)하여 점포를 설치한 것은 본디 진흙거리를 위해서이지만, 폐단이 점점 더 퍼져 도살을 마구 하고 있으므로 남아 있는 소도 다 푸주로 끌려갑니다. 사소한 이익은 한갓 아전들의 주머니로 들어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가고, 그 미치는 해악은 비루한 것뿐만이 아니니 경기 각 고을의 점포를 낱알이 금지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 25권 13년 4월 1일 丙子

大司憲李敏迪等以果川縣監韓振夏多設屠販，權利自肥，啓請拿問。 又啓外方富民私穀封債，已有禁令，而州縣全不奉行，失信招怨，請令諸道，查啓治罪。上不從，只允查啓事。

대사헌 이민적 등이 ‘과천현감 한진하(韓振夏)는 도살장을 많이 설치하여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제 뱃속을 불리고 있다.’는 이유로 잡아다 문초하기를 계청하고, 또 아뢰기를,

“외방 부자들이 사곡(私穀)을 봉채(封債)하는 행위에 대해 이미 금령이 있었는데도, 주현에서는 전연 봉행하지 않고 있어 믿음을 잃고 원망을 자아냅니다. 각도로 하여금 조사해 아뢰도록 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고, 조사해 아뢰도록 하자는 일만을 따랐다.

### ▶ 25권 13년 4월 24일 己亥

持平鄭維岳啓曰：“以宗親府啓辭，自上特命嚴刑禁吏，臣卽當初出禁之官也。屠牛之禁，纔爲申明，而國綱解弛，人不畏法，公然屠販者，比比有之。故分付禁吏，使之無論宮家與士夫家，一體嚴禁矣。一日禁吏來呈牛肉，而不得其犯禁者。 推問其由，則係是慶順郡主家事，犯禁之人不敢捉來云。俄而郡主家呈狀以爲，禁吏突入中門，打傷婢僕，驚動郡主云。臣欲覈虛實，招其被傷者，則推諉稱托，不爲出示。既不出示其被傷者，則禁吏之作弊虛實，難以覈得。而主家殺牛之罪，不可不問，故以肉禁囚其宮奴，以作弊亦囚禁吏，以爲待坐覈治之地。而未及究覈，臣旋遞職矣。玆事結末，在臣既遞之後，則雖非臣終始所知，而蓋刑吏之一次受刑，本非輕歇，犯禁宮奴之刑後仍囚，在法當然，而今者諸宗，未詳實狀，反咎法府。若此則朝家禁令，有所不行，而貴近之家，無以顧憚，將安用法府爲哉？當該禁吏，既被嚴刑之教，臣不可晏然在職，請遞。”上答曰：“禁吏之罪，只在於突入內堂而已，檢驗被傷與否，非所可論。既不能善處於前，又不能自反於後，反責啓辭之人，何其顛錯之甚耶？勿辭。”掌令鄭載禧處置請出，上從之。維岳又以嚴旨，引避請遞，上命勿辭。維岳又與載禧，啓請還收禁吏嚴刑之命，仍囚主家奴，以申禁令。累啓，終未蒙允。後，福昌君楨疏斥維岳甚力，維岳引避免，同參臺臣移他職，亦皆陳疏自列。載禧以宗班侵斥臺臣，損傷事體，且以無實之言，屢煩天聽，有同訐訴，請推楨，上累下嚴批，竟不從。時，楨、桷等憑恃恩寵，凌辱臺臣，略無顧忌，而上之終始庇護，又如此。

지평 정유악이 아뢰기를,

“종친부의 계사로 인해 상께서 금리(禁吏)를 엄히 형신하라고 특명을 하셨는데, 신이 바로 당초에 금리를 내보낸 사람입니다. 소의 도살을 금하는 법을 겨우 얼마 전에 밝혀 알렸는데도,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버젓이 도살하여 판매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게 분부하여 궁가·사대부가를 막론하고 일체 엄금하도록 하였는데, 하루는 금리가 쇠고기를 가져와 바치면서 그 범금한 자는 붙잡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 물었더니, 경순 군주의 집에 관계된 일이라서 범금한 사람을 감히 잡아올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곧이어 군주 집에서 정장을 하여 ‘금리가 중문에 함부로 들어와 비복들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군주를 놀라게 하였다.’고 하기에, 신이 허실을 밝히려고 다친 사람을 불렀더니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내보내 보여주지를 아니했습니다. 다친 사람을 내보내 보여주지 않는 이상, 금리가 정말 말썽을 부린 것인지에 대한 허실을 밝혀내기가 곤란한 일이고, 군주 집에서 소를 도살한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둘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육금(肉禁)을 이유로 그 궁노를 가두고 말썽을 부린 죄로 금리도 가둠으로써, 회좌하기를 기다려 사실 조사를 해서 다스리고자 하였는데, 미처 철저히 밝혀내기 전에 신은 금세 체직이 되었습니다. 이 일의 결말은 신이 이미 체직된 후에 났으니만큼, 비록 신은 그 자초지종을 아는 바가 아니기는 해도, 대체로 형리에게 받은 한 차례의 형장이 본디 혈장이 아니었고, 범금한 궁노를 형신한 뒤 그대로 가둔 일은 법으로 볼 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실들이 실상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도리어 법부를 탓하였으니, 이러다가는 조정의 금령이 시행되지 않는 바가 있게 되고, 귀하고 가까운 집을 꺼리게끔 제압할 방법이 없을 것이니, 장차 법부를 어디에다 쓰시렵니까. 해당 금리에게 엄한 형신의 분부가 내려진 이상, 신도 편한 마음으로 재직할 수 없습니다. 체차해 주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금리의 죄는 단지 내당에 함부로 들어간 점에 있을 따름이다. 상해를 당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일은 논할 바가 아니다. 전에 선처를 하지도 못했고 또 뒤에 와서 자성(自省)도 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계사한 사람을 책망하다니, 어찌먼 그리도 매우 엉뚱한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장령 정재희가 처치하여 출사토록 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정유악이 또 엄한 비답을 이유로 인피하여 체직을 청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명하였는데, 정유악은 또다시 재희와 더불어 금리를 엄형하라는 분부를 환수하고, 주가(主家)의 궁노를 그대로 수금하여 금령을 밝히라고 계청하였다. 누차에 걸쳐 아뢰었으나 끝내 윤허를 받지 못하였다.

그 뒤 복창군 이정이 소를 울려 유악을 몹시 심하게 논척하자, 정유악은 인피하여 면직되었고, 동참한 대신(臺臣)들이 다른 벼슬에 이임되고 나서도 다들 소를 울려 자진 논열하였으며, 재희는

“종반(宗班)이 대신을 논척하고 드는 것은 사체를 손상하는 일이며 또 사실이 아닌 말로 누차 성상을 귀찮게 하는 것은 고자질이나 마찬가지이다.”

고 아뢰면서 복창군 정을 추고하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누차 엄한 비답을 내리고 끝내 따르지 않았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이때, 이정(李楨)·이남(李柟) 등이 은총을 받고 대신을 능욕하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굴었는데, 상이 시종 그들을 두둔하는 것도 이와 같았다.

### ▶ 27권 14년 5월 11일 庚辰

庚辰/執義李奎齡等啓曰：“新及第尹邦憲呈狀本府言：‘其父滋與故司諫李必行，因山訟成嫌怨，必行之外孫李萬封揚言于四館會坐處曰：『邦憲之父之外高祖至微賤，以庖丁爲業，邦憲撲殺庶母，罪干倫紀。』以此等語，爲停舉之目.’云. 邦憲之狀辭是也，則萬封陷人之罪，自有其律；萬封之言是，則邦憲打殺庶母之罪，尤不可不治. 兩人竝拿問，覈實科罪.” 上從之.

집의 이규령 등이 아뢰기를,

“신급제(新及第) 윤방헌(尹邦憲)이 본부(本府)에 정장(呈狀)하여 말하기를 ‘아비 윤자(尹滋)가 고(故) 사간 이필행(李必行)과 산송(山訟) 문제로 혐원(嫌怨)이 있었는데, 필행의 외손 이만봉(李萬封)이 사관(四館)이 회좌(會坐) 한 곳에서 드러내놓고 「방헌의 아버지의 외고조(外高祖)는 지극히 미천하여 백정을 업으로 삼았고, 방헌은 서모(庶母)를 때려 죽였으니 죄가 윤기(倫紀)에 관계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정거(停舉)시킬 명목으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방헌이 정당한 말이 옳으면 만봉은 남을 함정에 빠뜨린 죄율(罪律)에 자연히 걸리게 되고, 만봉의 말이 옳으면 서모를 타살한 방헌의 죄를 더욱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두 사람 모두 나문해서 사실을 조사한 뒤 죄를 매기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 28권 15년 4월 3일 丁酉

丁酉/諫院啓曰：“都監爲用骨灰，許民屠牛，臣等竊不勝慨然也。頃年牛疫之後，孳息未蕃，其在重農之道，所當嚴禁之不暇，其可許以屠殺乎？況國恤時禁屠，載在法典，若以骨灰難得，勢出於不得已，則堂堂國家，豈不能辦備若干牛隻，而直許屠宰乎？” 上不從. 三啓後，答以限卒哭停罷. 時，右議政金壽興請依前例，許出屠肆十坐，故諫院有此論. 其後又有以製造軍器，難得皮筋，達於筵中者，故上靳於聽納焉.

간원이 아뢰기를,

“도감이 골회(骨灰)를 쓰기 위하여 백성들이 소 잡는 일을 허락했는데 신들은 이점에 대하여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지난해 우역(牛疫)이 지나간 후로 새끼 번식이 잘 되지 않고 있어 농업을 중히 여기는 방법으로서는 그를 엄금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마땅할 것인데 도살을 허락해서 될 일입니까. 더구나 국상 때는 도살을 금하는 것이 법전에도 기록 되어 있지 않

습니까. 만약 골회를 구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취한 조치였다면 당당한 국가로서 어찌 그에 필요한 몇 마리의 소를 변통 못하고 곧바로 도살을 허가한다는 말입니까.”

하니, 상이 따르지 않다가 세 번을 아뢰자 답하기를,

“졸곡 때까지만 하고 정파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 때 우의정 김수흥이 전례에 의하여 도사(屠肆) 열 곳을 허가해줄 것을 청하였기 때문에 간원이 이 같은 논의를 한 것인데, 그 후로도 군기(軍器)를 만드는데 있어 소가죽과 힘줄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연석에서 아뢴 자가 있었기 때문에 상이 선뜻 듣지 않은 것이다.

## 21. 肅宗實錄

### ▶ 1권 즉위년 11월 5일 甲子

慶尙道龍宮地民家牛產黃犢，四脚之外，又有兩脚，又一足贅附於橫生兩脚之間，道臣以變異聞。

경상도(慶尙道) 용궁(龍宮) 지방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네 다리 외에 두 다리가 더 있었으며, 또 옆으로 난 두 다리 사이에 발 하나가 군살처럼 붙어 있어서 도신(道臣)이 이변이라 하여 알려왔다.

### ▶ 3권 1년 3월 22일 庚辰

吉州地民家雌牛產雙雄犢，耳目口鼻，各有其形，而一則頭在上尾在下，一則尾在上頭在下，各有四足，而股腹合爲一體，背上有穴。

길주(吉州)의 민가에서 암소가 쌍수송아지를 낳았는데, 귀·눈·입·코는 각각 제 형상이 있으나, 하나는 머리가 위에 있고 꼬리가 아래로 있고, 하나는 꼬리가 위에 있고 머리가 아래에 있었으며, 각각 네 발이 있으나 허리와 배는 합하여 한 몸이 되고 등위에 구멍이 있었다.

### ▶ 4권 1년 9월 24일 己酉

己酉/憲府言：“頃日，司宰監以造脯牛十三隻宰殺，頭足、內腸、脅骨、皮油，許賣勿禁事，報本府。乃者本監下人，偷取正肉，炮燂於本監之內，狼藉被捉，事極驚駭。請從重科罪，入直官先罷後推。”上命拿問下人，囚禁重處。古例，雖殺十牛，必納牛一頭於提調，而鑄以十三牛，只納一頭爲少，發怒嗔責，嗾李同揆，使出禁亂而構罪。內腸、皮油，至騰白簡，見者傳笑。鑄貪污之極，與宰夫爭牛頭，中傷人，人皆唾鄙。

사헌부(司憲府)에서 말하기를,

“지난번에 사재감(司宰監)에서 포(脯)를 만들 소 13척(隻)을 재살(宰殺)하여 머리·발·내장·

갈비·뼈·껍질·기름을 팔기를 허락하고 금하지 말게 하는 일을 본부(本府)에 보고하였는데, 이제 본감(本監)의 하인(下人)들이 정육(正肉)을 훔쳐서 본감 안에서 굽고 삶다가 어수선하게 붙잡혔으니, 일이 지극히 놀랍고 해괴합니다. 청컨대, 종종 과죄(從重科罪)하고, 입직(入直)한 관원은 먼저 파면한 뒤에 추고(推考)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인종)이 하인을 나문(拿問)하고 수금(囚禁)하여 중하게 처벌하도록 명하였다.

고례(古例)에는 비록 열 마리의 소를 잡을지라도 반드시 소 한 마리를 제조(提調)에게 바쳤는데, 윤희는 열 세 마리의 소에 다만 한 마리만 바친 것이 적다고 하여 성을 내어 꾸짖고, 이동규(李同揆)를 부추겨서 나가 금란(禁亂)하여 죄를 얻게 하였으며, 내장과 껍질·기름이 백간(白簡)에까지 오르니, 보는 자가 전하여 웃었다. 윤희가 탐오(貪汚)의 심함이 재부(宰夫)와 더불어 소 머리를 닦으면서 사람을 중상(中傷)하니,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고 더럽게 여겼다.

#### ▶ 6권 3년 5월 19일 甲午

慶尙道軍威縣大風雨雹, 忠淸道淸州地牛產犢, 前兩足各三蹄.

경상도 군위현(軍威縣)에 큰바람 불며 우박이 내리고, 충청도 청주(淸州)에서는 송아지를 낳았는데 앞의 두 발의 발굽이 각각 세 쪽씩이었다.

#### ▶ 6권 3년 6월 3일 戊申

慶尙道醴泉郡雌牛產死雛, 一身兩頭. 平安道成川、順川地雨雹, 平壤、肅川、博川、義州等地蝗.

경상도 예천군(醴泉郡)에서는 소가 죽은 송아지를 낳았는데 몸뚱이는 하나이나 머리는 둘이었다. 평안도 성천(成川)·순천(順川) 지역에는 우박이 내리고, 평양(平壤)·숙천(肅川)·박천(博川)·의주(義州) 등지에는 황충(蝗蟲)이 퍼졌다.

#### ▶ 7권 4년 4월 9일 戊寅

喬桐有牛產犢, 兩頭五脚, 其一脚出於項間, 長二寸.

교동(喬桐)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두 개의 머리에 다섯 개의 다리가 있었으며, 그 중 한 개의 다리는 목 사이에서 나와 길이가 2촌(寸)이었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 7권 4년 9월 27일 乙丑

移紫燕牧場牛馬于龍流、無衣兩島。以紫燕設屯故也。

자연 목장(紫燕牧場)의 우마(牛馬)를 용류도(龍流島)·무의도(無衣島) 두 섬에 옮겼으니, 자연도(紫燕島)에 둔(屯)을 설치하기 때문이었다.

### ▶ 8권 5년 3월 21일 丙辰

賀至使福平君煙、副使閔黯等，還自清國。上引見，煙進曰：“辨誣則雖得請，史記終不得來，可欠。然聞史記姑不修正云矣。”黯曰：“外議以爲，旣不得史記，則其伸雪與否，難知云。臣亦爲是之慮，謂彼曰：‘旣無文書，何由知之？’答曰：‘爾宜製送。’臣等卽以‘雖有文龍誣罔，『明史』元不載錄。’等語製給，則欲依臣所製改之矣，中間爲漢尙書所沮，至於優賂白金之後，始爲略改。而所製文字，與臣等所製，大意不背矣。”上曰：“得其改之之諾，誠幸矣。”上因問彼中形勢，煙曰：“曰哈數萬來住瀋陽，自北京善遇，一日所需，多至牛數百頭。皇帝游戲無度，不聽政事，至於掠人妻妾，其亡徵敗兆，不一而足矣。”

하동지사(賀冬至使) 복평군(福平君) 이연(李)과 부사(副使) 민암(閔) 등이 청(淸)나라에서 돌아오니, 임금이 인견(引見)했다. 연(煙)이 아뢰기를,

“변무(辨誣)에 대한 요청은 받아들여졌지만, 사기(史記)는 얻어오지 못한 것이 흠입니다. 그러나 듣기로는 아직 사기가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고, 민암(閔)은 아뢰기를,

“바깥 의논이 ‘사기(史記)를 얻어 오지 못했다면 신원 설치(伸雪恥)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여기며, 신도 역시 이를 염려하여 저들에게 묻기를 ‘문서(文書)가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느냐?’ 하였더니, 대답이 ‘글을 만들어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신 등이 즉시 ‘모문룡(毛文龍)의 무망(誣罔)함이 있었지만 『명사(明史)』엔 원래 기재되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써서 준 것은 신(臣)이 써 준 대로 고치려는 의도였는데, 중간에 한 상서(漢尙書)의 저지(沮止)를 받았습니다. 뇌물로 백금(白金)을 후하게 주었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대략 고쳐 주었는데, 그들이 지은 문장은 신들이 만든 문장과 견줄 때 그 대의(大意)는 별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고친다는 허락을 얻은 것은 진실로 다행이다.”

하고, 인하여 그들의 형편을 물으니, 연이 아뢰기를,

“합렬(哈烈) 수만 명이 심양(瀋陽)에 와서 머물러 있으며 북경(北京)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아 하루에 소 수백 마리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황제는 놀음놀이가 법도가 없어 정사(政事)는 보지 않으며 남의 아내나 첩(妾)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패망할 징조가 한두 가



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였다.

▶ 8권 5년 11월 10일 辛丑

日前，上講書『洪範』，感箕子事，欲別遣近侍，祭其廟，令禮曹問于大臣。大臣皆以合於尊道、慕聖之義爲對。上命都承旨往祭，祭文令大提學製進。禮曹又以爲：“『五禮儀』祀典，歷代始祖載於中祀，祭用小牢，文宣王亦載中祀，而以牛代羊，饌品多寡亦懸殊。今箕子在歷代始祖之列，則當用小牢，而自上別遣近侍致祭，意在尊道、慕聖則與古之太牢祀孔子者同，似當特用太牢。”上可之。是日，召對玉堂官。上謂都承旨鄭維岳曰：“箕子廟卿當往祭，須極致誠。廟宇墳塋，如有頽圯處，一一書啓。後孫中可用者，亦採聞。”維岳曰：“檀君、東明王廟，亦在箕子廟傍，自世宗朝春秋祭以中牢，此亦可一體致祭。”上可之。維岳仍請簡其驕從，歷觀西路形勝，上亦許之。

일전에 임금이 『서경(書經)』 홍범(洪範) 조를 읽다가 기자(箕子)의 일에 감격을 받아 별도로 근시(近侍)를 보내어 그 사당에 제사를 올리고자 하여 예조를 시켜 대신에게 물으니, 대신들이 모두 도덕을 높이고 성인(聖人)을 사모하는 도리에 합당하다고 대답하므로, 임금이 도승지에게 명하여 가서 제사지내게 하고 제문은 대제학에게 지어 올리게 하였다. 그런데 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사전(祀典)에 역대의 시조(始祖)는 중사(中祀)에 기재되어 제물은 소뢰(小牢)를 썼고, 문선왕(文宣王)도 또한 중사에 기재되어 있으나 제물은 양 대신 소를 썼으며 찬품(饌品)의 많고 적음도 현격히 다르니, 오늘날 기자(箕子)가 역대 시조의 반열에 있고 보면 마땅히 소뢰를 써야 하나, 임금이 별도로 근시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는 것은 그 뜻이 도덕을 높이고 성인을 사모하는 데 있고 보면, 예전에 태뢰(太牢)로써 공자(孔子)의 사당에 제사한 것과 같으므로, 특별히 태뢰를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고 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고, 이날에 옥당(玉堂)의 관원을 소대(召對)케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정유악(鄭維岳)에게 이르기를,

“기자(箕子)의 사당에 경(卿)이 가서 제사를 올려야 하겠으니, 부디 극진히 정성을 드리고 사당이나 무덤에 무너진 곳이 있으면 일일이 써서 아뢰는 것이며, 후손 중에 녹용(錄用)할 만한 자가 있거든 또한 조사하여 아뢰라.”

하였다. 정유악이 아뢰기를,

“단군(檀君)과 동명왕(東明王)의 사당도 기자의 사당 옆에 있어, 세종(世宗) 때부터 봄가을에 중뢰(中牢)로써 제사를 올렸습니다. 여기에도 전부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 정유악이 이어 따라갈 사람을 선발하여 서로(西路)의 형승(形勝)을 두루 살펴볼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것도 운허하였다.

▶ 10권 6년 8월 2일 戊午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全羅道內各邑牛疫致斃，合計四百三十五首。道臣以聞。

전라도 안의 각 고을에서 우역(牛疫)으로 죽음에 이른 소가 합계 4백 35수(首)라고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였다.

### ▶ 10권 6년 8월 4일 庚申

忠淸道各邑牛疫熾發，牛二百二十餘頭致斃。道臣以聞。

충청도 각 고을에서 우역(牛疫)이 극심하게 발생하여, 소 2백 20여 마리가 죽게 되었다고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였다.

### ▶ 12권 7년 8월 23일 癸卯

引見大臣、備局諸宰。右議政李尙眞以凶歉，請罷明安公主新第營建之役，上不許。又言：“先王胎室，改封役鉅，亦待明秋。”上以事體未安不許。禮曹判書呂聖齊曰：“『五禮儀』王妃喪練祭後，朝夕上食無哭禮，而今番則依仁宣王后國恤時例，當爲磨鍊矣。”上可之。尙眞以八路牛疫日熾，請禁斷京外屠肆，上從之。戶曹判書鄭載嵩請減尙方貿易、內局貿藥不緊者，上命退與尙方、內局提調，相議停減。是後，自內特命減省者亦多。尙眞又言：“陵幸時所用，遮帳所入綿布麻布，不下十同，遮帳之索亦價至三百兩，宜仍用舊件，以除一分之弊。”上令仍用舊件。大司憲趙師錫曰：“今以主第事，白首大臣，縷縷陳請，而終斬允從。愚民無知，必將曰：‘朝家不恤于我。’怨咨必多矣。編戶貧窮之民，出視田畝歸，與妻孥對泣。雖無侵擾之事，猶且盼盼然救死不贍，豈不當矜念哉？”仍感慨欲涕，縷縷不已。上曰：“予非不念民事，而主第事，則有難以予意專斷者。當更思而處之。”尙眞曰：“司僕正崔商翼之弟以非理就訟，槐山郡守鄭弼祥以無異大黨論題。【俗謂獷悍賊徒爲大黨。】商翼拜憲職，以他事論弼祥。國家置臺閣，豈爲報私怨之地哉？”上曰：“身居臺閣，懷嫌論人，殊甚無據，拿問定罪。且令本道覈處。”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상(宰相)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상진(李尙眞)이 가뭄이 든 것으로 인해 명안 공주(明安公主)의 새 집을 영건(營建)하는 역사를 파(罷)하도록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또 선왕(先王)의 태실(胎室)을 고쳐서 다시 봉(封)하는 역사는 크니 그것도 명년(明年) 가을이 되기를 기다리자고 말하였으나, 임금이 일의 체모에 미안(未安)하다고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예조판서(禮曹判書) 여성제(呂聖齊)가 말하기를,

“『오례의(五禮儀)』 왕비상(王妃喪)에는 연제(練祭) 뒤 조석 상식(朝夕上食)에 곡(哭)하는 예(禮)가 없습니다. 그러니 금번의 경우에는 인선왕후(仁宣王后)의 국상시[國恤時] 예(例)에 의거하여 마련(磨鍊)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것을 옳게 여겼다. 이상진이 팔도[八路]에 소 전염병[牛疫]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니 경외(京外)의 도사(屠肆)에 <도살을> 금단(禁斷)하도록 청하자,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호조판서(戶曹判書) 정재송(鄭載嵩)이 상방(尙方)에서 무역(貿易)하거나 내국(內局)에서 무역하는 약(藥) 중에 긴요하지 않은 것은 줄이도록 청하자, 임금이 물러가서 상방제조(尙方提調)·내국제조(內局提調)와 서로 의논하여 정지시키거나 줄이도록 명하였다. 이 뒤에는 대내(大內)의 특별 명령으로 줄이게 한 것도 많았다. 이상진(李尙眞)이 또 능(陵)에 행차할 때 쓰이는 차장(遮帳)에 들어가는 면포(綿布)와 마포(麻浦)가 10동(同)에 밀돌지 않으며, 차장의 노끈도 값이 3백 냥(兩)에 이르니, 그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일분(一分)의 폐단이라도 제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하자, 임금이 그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영(令)을 내렸다.

대사헌(大司憲) 조사석(趙師錫)이 말하기를,

“지금 공주(公主)의 집을 새로 짓는 일로 늙은 대신(大臣)이 누누(縷縷)이 진달하고 청하였지만 끝내 윤택하여 따르시기를 아끼시니, 어리석은 백성은 아는 것이 없어 틀림없이 장차 말하기를, ‘조가(朝家)에서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드시 원망과 한탄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적에 편입된 가난하고 궁핍한 백성들은 나가서 전지[田畝]를 보고는 돌아와 처자[妻]와 마주앉아 울고 있습니다. 비록 침해하거나 소요하는 일이 없더라도 오히려 곤란이 극도에 달하여 허덕이면서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없는데, 어찌 어여쁘게 여기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인해서 깊이 흐느끼어 눈물을 글썽이며 누누(縷縷)이 그치지 않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농사[民事]를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공주의 집을 새로 짓는 일은 나의 의사대로만 결단하기는 어려우니, 다시 생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하였다. 이상진(李尙眞)이 말하기를,

“사복시 정(司僕寺正) 최상익(崔商翼)의 동생이 도리에 어긋난 것으로 재판을 받으려고 법정에 나아가자, 괴산군수(槐山郡守) 정필상(鄭弼祥)이 대당(大黨)과 다름이 없다고 논제(論題)하였는데, 【세속에서 포악한 도적의 무리를 대당(大黨)이라고 한다.】 최상익이 사헌부(司憲府)의 직임(職任)에 임명되자, 다른 일로 정필상을 논박하였습니다. 국가에서 대각(臺閣)을 설치한 것이 어찌 사사로이 원수를 갚는 곳으로 삼고자 해서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신이 대각(臺閣)에 있으면서 혐의를 품고 남을 논박하니, 너무나 터무니가 없다. 잡아다 추문(推問)하여 죄(罪)를 정하고 또 본도(本道)에 명을 내려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 ▶ 12권 7년 9월 14일 癸亥

## 제 II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京畿諸邑, 八月以後, 牛疫致斃, 二千三百七十八頭. 他道略同.

경기(京畿) 여러 고을에 8월 이후 전염병[牛疫]으로 죽은 소가 2천 3백 78두(頭)였는데, 다른 도(道)에서도 대략 그와 같았다.

### ▶ 12권 7년 12월 15일 甲午

公洪道天安等五邑地震, 有聲如雷. 牛疫致斃三百餘頭. 道臣以聞.

공홍도(公洪道)의 천안(天安) 등 다섯 고을에 지진(地震)이 있었는데, 소리가 우뢰와 같았다. 그리고 소가 전염병으로 죽은 것이 3백여 마리나 되었으므로, 도신(道臣)이 아뢰었다.

### ▶ 12권 7년 12월 17일 丙申

慶尙道牛疫致斃三百餘頭. 道臣以聞.

경상도(慶尙道)의 소가 전염병으로 죽은 것이 3백여 마리라고 도신(道臣)이 아뢰었다.

### ▶ 13권 8년 1월 30일 戊寅

全羅道牛疫斃者, 一千五百餘頭

전라도에서 돌림병으로 죽은 소가 1천 5백 여 마리[頭]였다.

### ▶ 13권 8년 2월 4일 壬午

慶尙道永川牛產犢, 一體兩頭, 卽斃.

경상도 영천(永川)에서 소가 몸 하나에 머리가 둘인 송아지를 낳았는데, 곧 죽었다.

### ▶ 13권 8년 5월 1일 戊申

茂長縣民家雌牛產一項兩頭之犢, 兩頭皆有耳目, 翌日卽斃.

무장현(茂長縣)의 민가(民家)에서 암소가 목 하나에 머리가 둘 달린 송아지를 낳았는데, 두머리에 모두 귀와 눈이 있었다. 다음날 곧 죽었다.

▶ 14권 9년 1월 28일 庚午

庚午/御晝講. 日前, 宋時烈以守禦使革罷事, 白上曰:

~중략~

一. 安民之要, 莫切於守令之擇, 特戒該曹, 一一極選, 無或爲人擇官. 一. 仁祖朝別選清白吏, 以勵朝臣, 伏願克遵先烈. 一. 孝廟使該曹, 別擇守令, 政績之尤者, 特賜獎諭, 仍或陞遷, 或加資秩, 此當法者. 一. 孝廟慮水旱頻作, 得水車之制於燕山, 頒布民間, 而守令一無奉行, 民不蒙惠, 特下手教嚴飭. 『朱子大全』有以車運水, 救火穀之說, 況水車之便乎? 一. 府吏胥徒, 耗國之大盜, 不不可汰省也. 今兵曹判書南九萬汰去者近百, 誣謗朋興, 然其利益國家, 已不貲矣. 亟令諸曹, 一例汰省. 時俗之語: “掀天動地者, 不可下手.” 蓋指市井吏胥也. 此輩聯通宮掖, 實操禍福之權, 不可不知也. 一. 臣及見前輩, 得聞其言, 有云: “朝紳與市井吏胥交好, 則輒阻清望.” 今日朝臣祿薄, 不與此輩交好, 則無以爲生, 故鮮能自拔於流俗. 以此, 此輩一罹罪罰, 請囑四起, 朝綱之解, 職由於此. 舜之戒禹曰: “人心惟危.” 今日此弊, 由於人心流爲人慾之致, 特令兩司糾劾焉. 一. 古語云: “奢侈甚於天災.” 今日此弊極矣. 奢侈之中, 婚姻之費最甚. 女家涕出而稱貸以悅壻家; 壻家橫目而責辦於女氏, 此司馬光、朱子之所深戒者. 由此, 朝紳無不求乞於守令、闕帥. 申飭法司, 痛加懲治. 一. 廣州守禦使變通事, 亟令大臣議處. 一. 我朝之盛, 莫如中宗己卯. 後之論己卯者, 首以丘直不入於家爲言. 此蓋尙廉、不尙利之大端, 而今則不然, 以丘直之多寡, 爲朝臣趨避之大關, 甚可醜也. 亟使大臣變通, 以絕利源, 以勵士風. 一. 綿布升尺, 一依『大典』, 爲五升三十五尺. 此臣昔年所請施, 而終不得行. 宋朝諸臣有言: “欲法堯、舜, 當法祖宗.” 更勅有司, 以除飢民割肌之痛. 一. 當此天災時變, 民窮奸熾之日, 上下大小, 汲汲以救之, 猶懼不克, 況崇飲成風, 置職度外, 曷勝寒心? 痛下綸音, 一切禁斷. 一. 牛疫之後, 所餘無多, 而殺之不已. 我國之俗, 以牛肉爲上味, 不得食則如不可生, 雖有禁令, 而猶不暇顧. 若不別爲禁條, 以頒中外, 則民之失農, 甚於旱災矣. 程子以歲凶爲殺牛之致, 仍歎人之無行. 蓋以人食牛力而屠其身, 以致怨氣傷和也. 文成公李珣平生不食牛肉, 故其家尙不以牛肉祭珣. 嗚呼, 今日何能見如此人乎? 伏願以程子、李珣之言, 責勵群下焉.

上使廟堂稟處. 是後, 壽恒、鼎重等覆啓於筵中: “諸條皆依施, 而丘直變通事, 流來已久, 各司之中, 或有或無, 或多寡不均. 官高祿厚者, 不必論其有無, 而如諸司小官祿俸甚少, 若又減此, 無以支過. 此論既出於絕利原、勵士風之意, 則所當永罷, 然有窒礙難便之端, 更加商量稟處. 綿布升尺事, 法典雖如此, 近來升尺, 比古既細且長. 通行已久,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猝然復舊，以麤短之布，給軍兵之價，則其怨必多。前有此議，不得變通者，良以此也。似當徐議而處之。”上從之。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일전에 송시열(宋時烈)이 수어사(守禦使)를 혁파(革罷)하는 일로써 임금에게 아뢰기를,

~중략~

“1. 백성을 안위(安慰)하는 요점(要點)은 수령(守令)들을 잘 가려 쓰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해조(該曹)에 경계하시어 낱낱이 잘 가려뽑도록 하고, 혹 사람을 위하여 관직(官職)을 선택(選擇)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1. 인조(仁祖) 때에 특별히 청백리(淸白吏)를 가려뽑아서 조정의 신하들을 장려(獎勵)하였으니, 선열(先烈)을 잘 따라 행하기를 삼가 원합니다.

1. 효종(孝宗)께서 해조(該曹)로 하여금 수령(守令)으로서 정치의 업적이 뛰어난 자를 따로 뽑아서 특별히 권장(勸獎)하는 유시를 내렸으며, 혹은 승진(陞進)하여 옮기게 하고 혹은 자질(資秩)을 더하였으니, 이는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1. 효종(孝宗)께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자주 있음을 염려하시어 수차(水車)의 제도를 연산(燕山)에서 얻어서 민간(民間)에 반포(頒布)하였는데도 수령(守令)들이 한 사람도 받들어 행하는 자가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혜택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수교(手敎)를 내리시어 『주자대전(朱子大典)』에 수레로써 물을 운반하여 불을 끄고 곡식을 구한다는 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엄하게 신칙(申飭)하도록 하소서. 더구나 수차(水車)의 편리함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1. 부(府)의 이서(吏胥)들은 나라를 소모시키는 큰 도적이니, 이들은 도태(淘汰)하여 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병조판서(兵曹判書) 남구만(南九萬)이 도태(淘汰)하여 버린 자가 1백 명에 가깝기에 무방(誣謗)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국가에 이익 되는 것이 이미 작지 아니합니다. 빨리 제조(諸曹)에 명령하시어 한 결 같이 도태(淘汰)하여 줄이도록 하소서. 시속(時俗)의 말에 ‘하늘을 흔들고 땅을 움직이는 자는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하는데, 대개 시정(市井)의 이서(吏胥)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들은 궁궐(宮掖)과 연통(聯通)하여서 실지로 화(禍)를 주고 복(福)을 주는 권력을 잡고 있음을 알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1. 신이 선배(先輩)를 만나 보고서 그 말을 듣게 되었는데, 선배의 말에, ‘조정의 고관(高官)으로서 시정(市井)의 이서들과 서로 좋게 지내면 곧바로 청망(淸望)이 막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정의 신하들은 녹봉(祿俸)이 박(薄)하기 때문에 이들과 서로 좋게 지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유속(流俗)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자가 드물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써 이 무리들이 한번 죄벌(罪罰)에 걸리면 청촉(淸觸)이 사방에서 일어나니, 조정의 기강(紀綱)이 해이(解弛)된 것은 오로지 이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순(舜)임금이 우왕(禹王)을 경계하여 말하기를, ‘인심(人心)은 오직 위험하다.’ 하였는데, 오늘날의 이 폐단은 인심(人心)이 흘러서 인욕(人慾)이 되는 소치(所致)인 것입니다. 특별히 양사(兩司)에 명령하여 규핵(糾劾)하게 하소서.

1. 옛말에 이르기를, ‘사치(奢侈)는 천재(天災)보다 심하다.’ 하였는데, 오늘날 이 폐단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사치 가운데에는 혼인(婚姻)의 비용이 가장 심합니다. 딸 가진 집에서

는 눈물을 흘리면서 빗을 내어다가 사워될 사람의 집을 기쁘게 하는데, 사위의 집에서는 눈을 흘기면서 여자에게 장만하여 오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마광(司馬光)과 주자(朱子)가 깊이 경계한 바입니다. 이 때문에 조정의 고관(高官)들이 수령(守令)이나 곧수(帥)들에게 구걸을 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법사(法司)에 신칙(申飭)하여 엄하게 징치(徵治)를 더 하도록 하소서.

1. 광주(廣州)의 수어사(守禦使)를 변통(變通)하는 일을 빨리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1. 우리 조정의 국운(國運)의 융성했던 시기는 중종(中宗)의 기묘년과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후에 기묘년을 논하는 자는 먼저 구직(丘直)을 집에 들이지 않은 것으로써 말을 합니다. 이는 대개 청렴을 숭상하고 이익을 숭상하지 않는 큰 단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구직(丘直)의 많고 적은 것을 조정의 신하들이 나아가고 피하는 것의 큰 관문(關門)으로 삼고 있으니, 매우 추하다 하겠습니다. 빨리 대신들로 하여금 변통(變通)하여서 이익이 생기는 근원을 끊고 선비들의 기풍(氣風)을 장려하여 주소서.

1. 면포(綿布)의 승척(升尺)을 한 걸 같이 『대전(大典)』에 의거하면 오승포(五升布)는 35척(尺)이 됩니다. 이는 신이 옛적부터 시행하기를 청하였습시다만,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송(宋)나라 조정의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요·순(堯舜)을 본받으려 한다면 마땅히 조종(祖宗)을 본받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다시 유사(有司)에 신칙(申飭)하여 굶주림 백성들의 살을 베는 고통을 덜게 하여 주소서.

1. 이처럼 천재(天災)와 시변(時變)으로 백성들은 빈궁(貧窮)하고 간사(奸邪)함은 치성(熾盛)한 날을 당하여 상하(上下)와 대소(大小)의 관원들이 서둘러서 구제하여도 오히려 잘 될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술을 마시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서 직책을 도외시하니, 어찌 한심함을 금하겠습니까? 윤음(綸音)을 엄하게 내리시어 일체 금단하소서.

1. 우역(牛疫)이 있는 뒤로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도 소 잡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우리나라의 풍속이 쇠고기를 가장 좋은 맛으로 여겨서 이를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것같이 여깁니다. 비록 금지하는 명령이 있어도 오히려 이를 돌아보지도 않고, 만약 금지하는 조목(條目)을 따로 만들어서 중외(中外)에 반포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실농(失農)이 한재(旱災)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정자(程子)는, ‘연사(年事)가 흉년이 드는 것은 소를 잡는 데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인하여 사람들의 무지한 행동을 탄식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사람이 소의 힘으로 먹고 살면서도 이를 도살(屠殺)함으로써 원한(怨恨)의 기운이 화기(和氣)를 손상하기 때문입니다.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는 평생 쇠고기를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에는 지금도 쇠고기를 가지고 이이(李珥)에게 제사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오늘날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정자(程子)와 이이(李珥)의 말로써 여러 신하들을 책려(責勵)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處)하게 하였다. 이 뒤에 김수항(金壽恒)과 민정중(閔鼎重) 등이 경연(經筵)에서 복계(覆啓)하기를,

“여러 조목을 다 그대로 시행해야 합니다만, 구직(丘直)을 변통(變通)하는 일은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고, 또 각사(各司)의 가운데에 혹은 있고 혹은 없으며 혹은 많고 적어서 균등(均等)하지 못합니다. 관직(官職)이 높고 녹봉(祿俸)이 많은 자는 반드시 그 있고 없음을 논할 것이 없습시다만, 제사(諸司)의 소관(小官)들은 녹봉(祿俸)이 매우 적은데다가 만약 또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이를 감하게 되면 지탱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의논이 이미 이익이 생기는 근원을 끊고 선비들의 기풍을 장려하는 뜻에서 나왔다면 마땅히 영구히 혁파(革罷)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애됨이 있어 적당하지 못한 단서(端緒)가 있으니, 다시 헤아려서 품처(處)하게 하소서. 면포(綿布)의 승척(升尺)에 대한 일은 법전(法典)에 비록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근래에 승척(升尺)이 예전에 비교하여 이미 가늘어지고 또 길어진 것으로 통행(通行)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이를 갑작스럽게 예전대로 돌아가서 거칠고 짧은 면포(綿布)를 군병(軍兵)들의 대가(代價)로 주게 되면 그 원망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전에도 이러한 의논이 있었습시다만 변통(變通)하지 못한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천천히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 15권 10년 2월 27일 癸亥

咸鏡道安邊等五邑癘疫大熾，染痛一百六十餘人，農牛疫斃六百餘頭.

함경도(咸鏡道) 안변(安邊) 등 다섯 고을에 돌림병이 크게 성하여, 전염되어 앓는 사람이 1백 60여 인이고 병들어 죽은 농우(農牛)가 6백여 마리이었다.

### ▶ 15권 10년 3월 23일 己丑

己丑/平安道昌城府是月初四日地震，聲如播鼓，屋瓦皆動，如是者三，朔州府亦於是日再震. 黃海道海州民家牛生犢，兩尾.

평안도 창성부(昌城府)에서 이 달 4일에 소리가 뇌고(鼓) 같고 기와가 다 움직이는 지진(地震)이 세 번 있었고, 삭주부(朔州府)에서도 이 날 두 번 지진이 있었다. 황해도 해주(海州)의 민가에서 소가 두 꼬리가 달린 송아지를 낳았다.

### ▶ 16권 11년 6월 19일 戊申

淳昌郡牝牛產一雛，一體六脚，項上贅生一脚，其端分爲兩蹄，懸空不及地，變係非常.

순창군(淳昌郡)에서 암소가 한 마리의 새끼를 낳았는데 몸통은 하나에 다리가 여섯이고, 목 위에 군더더기로 다리 하나가 더 생겼고 그 끝이 나뉘어서 발굽이 둘이 되었는데 공중에 매달려 있어 땅에 닿지 않았으니, 변괴(變怪)가 비상(非常)하였다.



▶ 16권 11년 7월 15일 癸酉

癸酉/注書柳成運傳諭宋時烈後，書啓時烈所對之語曰：

『洪範』曰‘僭恒暘若，’先儒曰‘僭差也，政不治則僭差也。’程子以爲‘人之於牛，食其力而屠之，足以致凶’自古旱乾，多出於積冤。牛之冤氣，猶召殃咎，況於人乎？伏願推此心益思小民，有抱冤不得上聞者，幸甚。先儒言‘和氣致祥，乖氣致災.’今日朝紳，專以搏擊通塞，自成仇敵，此不可謂和氣，則其召致可知。伏願察此而裁處焉。昔江乙饑死，其母哭曰‘三公殺我子.’今日大臣，豈非上下之所依賴者耶？亦宜竭忠，以思共貞之道也。

傳曰：“誠誨之說，勤懇懇懇，無非憂愛之至誠，救時之藥石，深用感歎。可不書紳服膺而思所以交相勉勵之道乎？”

주서(注書) 유성운(柳成運)이 송시열(宋時烈)에게 유시를 전한 뒤에 송시열이 대답한 말을 서계(書啓)하였는데, 말하기를,

“홍범(洪範)에 ‘참항양약(僭恒暘若)’이라 하였습니다. 이를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참(僭)은 어긋나는 것[差]이니 정치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분수에 어긋난다’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정자(程子)는 ‘사람이 소의 힘으로 먹으면서도 이를 도살하니 흉(凶)함을 초래할 만하다’ 하였습니다. 예부터 가뭄으로 마르는 것은 대개 원한을 쌓는 데서 많이 나왔습니다. 소의 원기(冤氣)도 오히려 재앙을 초래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이 마음을 미루어서 미친한 백성들이 원한을 품고도 위에 알릴 수 없는 것을 더욱 생각해 주시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화기(和氣)는 상서(祥瑞)를 오게 하고 괴기(乖氣)는 재앙(災殃)을 오게 한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조정의 진신(摺紳)들은 오로지 통색(通塞)에만 날치면서 스스로 원수를 만들고 있으니, 이런 것은 화기라고 이를 수가 없으므로 그것이 초래하는 것은 알 만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이를 살피시어 잘 처리하소서. 옛적에 강을(江乙)이 굶주려 죽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통곡하면서 말하기를, ‘삼공(三公)이 내 아들을 죽였다’ 하였으니, 오늘날의 대신(大臣)들은 어찌 위아래가 모두 의지하고 힘입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마땅히 충성을 다하여 함께 안정(安定)하는 방도(方道)를 생각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성심(誠心)으로 가르치는 말이 매우 근실(勤實)하고 매우 정성스러워서 나라를 근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성이므로 세상을 구제하는 약석(藥石)이 아닌 것이 없으니 깊이 감탄(感嘆)한다. 이를 큰 띠[紳]에 써서 복응(服膺)하면서 서로 면려(勉勵)하는 방도(方道)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 17권 12년 11월 29일 己酉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右議政李端夏上劄曰：

今年災異凶荒，振古所無，畿甸雖云稍優，道路之間，持匹布斗粟者，亦被殺掠云，他道可推知也。臣恐前頭，群盜大起，有土崩瓦解之患，不獨人民死亡，爲可慘傷也。庚戌秋凶荒，不至如今年之甚，而辛亥麥，又大無，其時錦山之賊，前座首爲魁，有掠取長水縣軍器，入據智異山，剽劫州郡之計，況今民心，又非向日之比，巨猾之爲謀，何止一處而已也？今冬日氣恒溫，尙無大雪，嗣歲有麥，又未可期，而儲蓄之匱竭，視辛亥，又不啻相懸，非有大警動大節省之舉，則國無維持之策。『曲禮』曰：‘歲凶年穀不登，君膳不祭肺，馬不食穀，祭事不懸，大夫不食梁，士飲酒不樂，其註曰，膳美食之名，不祭肺，言不殺牲爲盛饌也。祭必有鍾鼓之懸，不懸，言不作樂也。大夫食黍稷以梁爲加，自君至士，各舉一事，其實相通耳。’『雜記』孔子曰：‘凶年則乘駑馬，祀以下牲，其註曰，下牲，如常祭用大牢者，降用小牢，小牢者，降用特牲，特牲者，降用特豚之類，以年凶故貶損也。’其所謂大牢，今牛羊豕也，小牢，羊豕也，特牲，一犢也，特豚，一兒豬也。臣又觀崔鳴吉丁丑封事，有曰：‘今日祭享，既已裁減，其他用度，亦不如前日之浩多，則所定貢案，宜量入爲出，爲數年行用之計，爲先頒布，以紓目前民力，但此是權宜救民之政，元非永遠遵守之規，元定貢案，亦不可不一時磨鍊頒布，令外方小民，洞知朝廷本意然後，他日國家，可免失信之謗云。’此蓋元貢案，見失於亂離，掇拾散亡，更爲修正，又就亂離後，國力量入爲出，別爲目前行用之案，以待國力稍裕，欲依元貢案行之之意也。就此觀之，祭享有裁減之舊例，臣取考奉常寺祭物膳錄，則諸道各邑中米條，以丁丑減，甲午復舊懸註，此蓋酒米也，若除甲午復舊之數，則雖有所減，仁祖朝以後，宗廟山陵祭位，有加甲午復舊者，猶不足於卽今酒米，至於引用其他籩豆之品，恰盛其器之外，無復餘剩可減者矣。若依『雜記』祀以下牲之禮，則社稷宗廟永寧殿文廟常祭，用大牢者，宜降用小牢，而但都下不能一切禁屠人食牛肉，而國家大祭享，不用牛牲，事體未安，臣意用牛豕二牲，不用羊牲，則合於降用小牢之禮，而亦無未安者矣。風雲雷雨山川城隍嶽海瀆先農先蠶雩祀歷代始祖及厲祭蠶祭鄉校郡以上常祭，用小牢者，宜降用特牲，京外釋奠從享，州縣社稷靈星祭，用豕牲者，宜降用特豚，臣又取考禮曹膳錄，外方鄉校牛脯，戊寅年以獐脯代用，禮文則本無鹿脯，而以鹿脯難備，故代以牛脯，戊寅年則以牛疫後牛脯難備，故代以獐脯，獐鹿同品，代用恰好矣。且外方鄉校，本無用牛牲之文，而只爲作脯，必宰牛，自宣惠廳，春秋給價，小邑八石，大邑至二十石，於此變通，則儲置米用下者，可大減矣。且念古禮，

이하생략~

우의정(右議政) 이단하(李端夏)가 차자(劄子)를 올리기를,

“금년 재해의 흉작은 예전에 없던 바로서 경기(京畿) 지방이 조금 낫다고는 하지마는, 노상에서 소량의 피륙이나 곡식을 가진 자라도 살해와 약탈을 당한다고 하오니 타도는 이를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은 앞으로 도적 떼가 크게 일어나면 토붕와해(土崩瓦解)의 근

심이 있을 것이니, 다만 백성이 굶주려 죽는 참사(慘事)에만 그치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경술년 가을의 흉작이 금년같이 심하지 않았으나, 그 이듬해인 신해년의 보리 농사가 또 큰 흉작이었습니다. 그때 금산(錦山)의 도적은 전임 좌수(座首)가 피수가 되어서 장수현(長水縣)의 병기(兵器)를 약탈해 가지고 지리산(智異山)에 들어가 웅거하면서 각 고을을 협박 약탈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의 민심은 또 예전과 같지 아니하니 큰 간활(奸猾)의 계획이 어찌 한 곳에만 그치겠습니까? 올해는 겨울 날씨가 따뜻해서 아직 큰 눈이 오지 않았으니, 내년의 보리 농사는 또 어떠할는지 알 수 없으며, 저축한 곡식이 떨어지면 신해년과 비해 볼 때 또 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경계하고 크게 절약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나라를 유지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재해(災害)로 흉년이 들면 군주의 선(膳)에 부제폐(不祭肺)하며, 말에게 곡식을 먹이지 아니하며, 제사에 불현(不懸)하며, 대부(大夫)가 양(梁)을 먹지 아니하며, 사(士)는 술을 마시고 즐기지 아니한다.’ 하였고, 그 주해(註解)에 이르기를 ‘선(膳)은 미식(美食)의 명칭(名稱)이고 부제폐(不祭肺)란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풍성하게 잘 차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제사(祭祀)에는 반드시 종과 복을 달아 놓고 음악을 연주하는 법인데, 불현(不懸)이란 주악(奏樂)을 하지 아니함을 말함이다. 대부(大夫)는 서(黍)와 직(稷)을 먹고 양(梁)으로 가식(加食)한다. 군주로부터 사(士)에 이르기까지 각각 한 가지씩만 들어서 말하였지만 그 실상은 서로 통하는 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잡기(雜記)에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흉년이 들면 노마(駕馬)를 탈 것이며, 제사에는 하생(下牲)을 쓴다.’라 하고, 그 주해에 이르기를, ‘하생(下牲)이란 제사에 상제(常祭)에 대뢰(大牢)를 써야 할 사람은 강등해서 소뢰(小牢)를 쓰고, 소뢰를 써야 할 사람은 강등해서 특생(特牲)을 쓰고, 특생을 써야 할 사람은 강등해서 특돈(特豚) 따위를 쓴다. 흉년인 때문에 절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해에서 이른바 ‘대뢰’란 요즈음의 소[牛]·양[羊]·돼지[豕]이고 ‘소뢰(小牢)’란 양·돼지이고 ‘특생(特牲)’이란 송아지이고, ‘특돈(特豚)’이란 새끼돼지입니다.

신이 또 최명길(崔鳴吉)의 정축년 상소문을 보니 그 글에 말하기를, ‘이번의 제향(祭享)에 대해서는 이미 절감하였으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용도도 역시 예전처럼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니, 정해진 공안(貢案)을 마땅히 수입을 계산해서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수년 동안은 그러한 방침으로 재정(財政)을 운용할 계획임을 먼저 백성에게 널리 알려서 피폐된 민력이 조금 펴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백성을 구휼(救恤)하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이고, 본래 영원토록 준수할 규정이 아니므로 평상시에 적용할 근본적인 공안(貢案) 또한 마련해서 백성에게 공포하여 외방의 소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본뜻을 환하게 알도록 해야만 후일 국가가 믿을 수 없다는 비방을 면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체로 당초에 정한 공안의 원본을 난리 중에 잃어버리고, 흩어져 없어진 것을 다시 주워 모아서 수정하였고, 또 난리를 치른 뒤에 국력에 알맞게 수입을 계산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목전(目前)의 시행 방침을 세웠다가 국력이 조금 유족(裕足)해지기를 기다려서 원래의 공안대로 시행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적(文蹟)으로 보면 제향(祭享)에 절감한 전례가 있습니다.

신이 봉상시(奉常寺)의 제물 등록(膳錄)을 상고해 보니, 제도(諸道)와 각읍(各邑)의 중미(中米) 조목에, ‘정축년에는 감하였고 갑오년에는 복구하였다.’라고 주(註)를 달았는데, 여기에 ‘중미(中米)’란 대개 주미(酒米)입니다. 만약 갑오년에 복구한 수량을 제하면 비록 감했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고 하나 인조조(仁祖朝) 이후에는 종묘(宗廟)와 능묘(陵墓)의 제위(祭位)에 갑오년에 복구한 것보다 많았는데, 오히려 현재의 주미에도 모자라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밖에 제기(祭器)에 담아서 쓸 용품에 있어서도 제기에 알맞게 담은 것 외에는 다시 감할래야 감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잡기(雜記)에 기재된 ‘하생(下牲)’의 예로 제사를 차린다면 사직(社稷)·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문묘(文廟)의 상제(常祭)에 대뢰(大牢)로 쓰던 것을 강등해서 소뢰(小牢)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서울 일대에 소 잡는 것을 일체 금하지 못하여 사람은 쇠고기를 먹으면서 국가의 큰 제향(祭享)에는 소를 쓰지 않는다면 미안할 일입니다. 신의 의견에는 소와 돼지 두 가지만 쓰고 양(羊)을 쓰지 않는다면 소뢰로 강등하는 예문(禮文)에 합당할 것이고, 미안하지도 않을 듯합니다. 풍운 뇌우(風雲雷雨)·산천(山川)·성황(城隍)·악해독(嶽海瀆)·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역대 시조(歷代始祖) 및 여제(祭)·독제(蠶祭)·향교(鄉校)·군(郡) 이상의 상제(常祭)로 소뢰(小牢)를 쓰는 경우는 강등해서 특생(特牲)을 쓸 것이며, 서울과 지방 문묘의 종향위(從享位)와 주현(州縣)의 사직(社稷)·영성(靈星)·영제(祭) 등 시생(豕牲)을 쓰는 경우에는 강등해서 특돈(特豚)을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은 또 예조(禮曹)의 제물 등록(膳錄)을 상고해 보니, 지방 향교에 쓰는 우포(牛脯)를 무인년에는 장포(獐脯)로 대신 썼습니다. 예문(禮文)에는 본래 우포(牛脯)가 없었고 녹포를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포로 대신했었는데, 무인년에는 우역(牛疫)으로 인하여 우포를 갖추 수 없었으므로 장포로 대신했던 것입니다. 장(獐)과 녹(鹿)은 같은 품종이므로 대신 쓰기에 아주 알맞습니다. 또 지방 향교에도 본래 우생(牛牲)을 쓰라는 조문은 없었으나, 다만 포(脯)를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소를 잡게 되므로, 선혜청(宣惠廳)에서 춘추로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는데, 소읍(小邑)에는 8석(石)이고, 대읍(大邑)에는 20석에 이르렀으니, 그것을 적절하게 변통하면 저치미 지급을 크게 감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생각하건대, 고례(古禮)에  
이하생략~

### ▶ 18권 13년 3월 26일 甲辰

慶尙道山陰縣, 有牛產犢, 一項兩耳, 兩口四目, 一身四足, 卽斃.

경상도(慶尙道) 산음현(山陰縣)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목 하나에 귀는 둘이었으나 입이 둘, 눈이 넷이고 몸뚱이 하나에 발이 넷이었는데, 곧 죽었다.

### ▶ 20권 15년 1월 12일 庚辰

庚辰/江春道江陵府, 雌牛產犢, 兩頭三耳, 四目二口, 鼻有四孔, 道臣以聞.

강춘도(江春道) 강릉부(江陵府)에서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머리가 둘, 귀가 셋, 눈이 넷, 입이 둘이고, 코에는 네 구멍이 있다고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였다.

▶ 20권 15년 3월 17일 甲申

甲申/京畿龍仁縣, 牛產犢卽斃, 而兩頭四目, 兩口兩耳.

경기(京畿) 용인현(龍仁縣)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다가 즉시 죽었는데, 머리가 둘, 눈이 넷, 입이 둘, 귀가 둘이었다.

▶ 22권 16년 9월 17일 甲辰

甲辰/慶尙道知禮縣八月地震. 平安道龍川府, 雌牛產犢, 項上別生一脚, 道臣以聞.

경상도 지례현(知禮縣)에서 8월에 지진(地震)이 있었고, 평안도 용천부(龍川府)에서 암소가 목 위에 다리 하나가 따로 난 송아지를 낳았는데,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였다.

▶ 24권 18년 6월 12일 庚寅

庚寅/梁山郡牛生六脚犢.

양산군(梁山郡)에서 소가 다리가 여섯인 송아지를 낳았다.

▶ 25권 19년 10월 19일 己丑

忠淸道稷山等六邑, 牛疫熾蔓, 死者無算, 農人至以馬駕耜耕田, 道臣以聞.

충청도(忠淸道)의 직산(稷山) 등 여섯 고을에 소[牛] 전염병이 성하게 퍼져서 죽은 것이 헤아릴 수 없으며, 농민들이 말에다 멩에를 지워 전지(田地)를 경작하는데 이르렀다고 도신(道臣)이 아뢰었다.

▶ 26권 20년 3월 9일 丁未

慶尙道晉州牧女人, 一乳生二男一女. 漆原縣雌牛產犢, 兩頭四角, 道臣以聞.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경상도 진주목(晋州牧)에서는 여인이 한꺼번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으며, 칠원현(漆原縣)에서는 암소가 머리가 둘, 뿔이 넷인 송아지를 낳았는데 도신(道臣)이 이 사실을 알렸다.

### ▶ 26권 20년 윤5월 4일 庚午

庚午/慶尙道陝川郡, 有牛產四犢, 一身兩頭兩尾. 全羅道南原縣, 校婢牧丹, 一胎產三子, 其母仍死.

경상도 합천군(陝川郡)에서 암소가 송아지 네 마리를 낳았는데, 한 몸뚱이에 머리와 꼬리가 두 개씩 달려 있었다. 전라도 남원현(南原縣)에서는 교비(校婢) 목단(牧丹)이 한 태(胎)에서 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산모(產母)는 이내 사망하였다.

### ▶ 27권 20년 10월 3일 丁酉

御晝講, 掌令金世翊、正言李喜茂同侍, 世翊論: “沈檀, 爲京畿觀察使時, 買田於延曙驛, 後將爲墓地, 撤移民居, 斫去樹木, 多設虛塚, 將空一村, 且此是仁祖潛邸時別墅舊墟, 而無所顧憚, 放縱甚矣, 請罷職. 宮庄折受, 既有禁令, 則如北伯闢帥守令, 築堰掘浦, 營置私庄, 爲害民間者, 亦不可不重究, 請隨其現發而治之. 己巳以後, 屠牛之禁, 放弛極矣. 無賴之徒, 憑依士夫家, 公然犯法, 請囑免贖, 弊習滋甚, 今後事發, 必罪家長, 免贖者依律定配.” 上皆從之. 喜茂論: 辛未春, 李義徵既噉臺官, 流竄十人, 以金廷說, 曾爲國舅幕裨, 故必欲百計構誣, 貽禍於不敢言之地, 乃使宋道成者, 誘柳自三證成誣獄, 自三不肯從道成, 遂以自三所不言者, 告于義徵, 及自三置對, 與道成所告不相符, 而猶不拿道成, 及特教之下, 始拿之. 一次面質, 語多相左, 而又汲汲放送. 義徵等前後罪惡, 論以極律. 而道成尚偃息自在, 請拿鞫處斷.” 從之.

주장에 나아갔다. 장령 김세익(金世翊)·정언 이희무(李喜茂)가 함께 입시(入侍)했다. 김세익이 논계(論啓)하기를,

“심단(沈檀)은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때에 연서역(延曙驛)에다 밭을 사놓고 뒤에 묘지를 만들려고 하여 민중들이 사는 집을 철거하고 수목을 베어내어 빈 무덤을 많이 만드느라 장차 온 마을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곧 인조(仁祖)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에 별장이 있던 옛 터인데, 돌아보거나 꺼림이 없었으니 방자함이 심합니다. 청컨대 파직하소서. 궁장(宮庄)의 절수(折受)는 이미 금령이 마련되었으니, 북백(北伯)·곤수(守)·수령(守令)들이 제언(堤堰)을 쌓고 포구(浦口)를 파내고서 사사 전장(田庄)을 만들어 민간에 해가 되는 것들도 또한 엄중하게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발각되는 대로 다스리소서. 기사년 이후로는 소 도살에 관한 금령(禁令)이 극도로 문란해졌습니다. 무뢰(無賴)한 무리들이 사대부(士大夫) 집의 것이라고 핑계하며 공공연하게 법을 범하고 있는데, 청탁하여 면속(免贖)하는

폐습(弊習)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 뒤로는 일이 발각되면 반드시 그 가장(家長)을 죄주고, 면속한 자는 율(律)대로 정배(定配)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이희무가 논계하기를,

“신미년 봄에 이의징(李義徵)이 이미 대관(臺官)을 사주(使奏)하여 10사람을 유찬(流竄)하게 하였고, 김정열(金廷說)이 일찍이 국구(國舅)의 막비(幕裨)이었던 것 때문에 기필코 온갖 계책으로 모함하고 감히 말을 할 수 없는 자리에 화를 끼치려고 하여, 그만 송도성(宋道成)이란 사람을 시켜 유자삼(柳自三)을 띄어 무옥(誣獄)의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자삼이 송도성이 시킨 대로 따르려 하지 않자, 드디어 유자삼이 말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의징에게 말했는데, 유자삼과 치대(置對)할 때에 송도성이 고한 말과 서로 맞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송도성을 잡아오지 않았고, 특별히 분부를 내리심에 미처서야 비로소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차(一次)의 대질(對質) 때의 말이 서로 틀리는 것이 많았는데도 또한 급급하게 놓아보냈습니다. 이의징 등의 전후의 죄악은 극률(極律)로 논죄(論罪)했습니다마는, 송도성은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으니, 청컨대 잡아다 국문하여 처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 27권 20년 12월 6일 己亥

戶曹判書李世華請對言：“咸鏡道年飢特甚，人蔘牛黃應納價布，田稅米布及軍民役布，差等蠲之，以慰群情，諸道各被蠲役之惠，而惟都民，獨不與焉。今年藏冰所出之米，宜除之。”上竝許之。

호조판서 이세화(李世華)가 청대(請對)하여 아뢰기를,

“함경도는 흉년이 특히 심하니, 인삼(人蔘)·우황(牛黃)의 대가로 응당 바칠 가포(價布)와 전세(田稅)의 미포(米布) 및 군민(軍民)의 역포(役布)를 차등이 있게 감하여 대중의 심정을 위로해 주어야 하고, 제도(諸道)는 각각 역사를 감해 주는 혜택을 입었지만 오직 도성(都城) 백성은 유독 끼지 못했으니, 올해는 장빙(藏冰)하는 곳에 내는 쌀을 마땅히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했다.

## ▶ 29권 21년 7월 18일 戊寅

南陽出身權萬敵疏陳固國強兵之策。其一曰：

各道各邑，皆於境內山高險塞之處，預爲築城，邊警若急，則大小黎民，皆入於其城，莫不爲敢死之卒，而清野之法自爾成矣。

其二曰：

我國戰船，其大如山，遇風不得發，無風不得行，但得順風舉帆而後，始得發動。今若去其高壯廣大之規，皆作輕快小船，則可以任意行動，輕捷如飛矣。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其三曰：

縫布爲大帑，染以黑色，又細剖大竹，斷取一把，餘屈其中，接其兩端，以此三隻，納張於黑帑內上中下三處，則其頭如燭籠狀也，以一丈餘長槍，支撐其裏，則其輕其虛，運行至易，銃丸不能突入，矢鏃亦不能入矣，一則爲大助兵勢，一則爲輕妙，干楯短兵交接之時，去其布而以槍用之，則三者得兼矣。

其四曰：

以牛馬皮裁截多漆，作爲甲冑，則矢鏃銃丸，皆不得穿入。元來此物，輕虛不重，士卒所着，莫此爲良，措備之路，亦甚不難。卽今外方兵卒，頓無掩身之甲冑，而只着一戰服而已，弓箭銃丸，雨下之際，兵卒斃盡無遺，則其將領者，獨生何爲乎？

其五：

請用岳飛所製背嵬甲、麻札刀。

上不省

남양 출신(南陽出身)인 권만적(權萬敵)이 소(疏)를 올려 고국 강병(固國強兵)의 계책을 진달(陳達)하였으니, 그 첫째에 말하기를,

“각도(各道)의 각읍(各邑)에서는 모두 경내(境內)의 산이 높은 험새(險塞)의 곳에 미리 축성(築城)하여서, 변경(邊警)이 급할 것 같으면 대소(大小)의 여민(黎民)이 모두 그 성으로 들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가 된다면 청야(淸野)의 법이 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그 둘째에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전선(戰船)은 그 크기가 산과 같아서 역풍(逆風)을 만나면 발동(發動)되지 못하고 바람이 없으면 가지 못하며, 다만 순풍(順風)을 만나 돛을 올린 뒤에야 비로소 발동하게 됩니다. 이제 만약 그 높고 웅장하며 넓고도 큰 규모(規模)를 버리고 모두 경쾌(輕快)한 작은 배를 만든다면 임의(任意)로 행동할 수 있고, 가볍고 빠르기가 나는 듯할 것입니다.”

하고, 그 셋째에 말하기를,

“베[布]를 꿰 내어 큰 전대를 만들어서 검은 빛깔로 물들이고, 또 큰 대를 가늘게 쪼개어 끊어서 한 묶음을 취하고 나머지는 그 중간을 구부려 그 두 끝을 접(接)하여서 이것 세 날을 검은 주머니 속에 넣어 상·중·하의 세 곳에 퍼면 그 머리가 촛籠(燭籠)의 모양이 되는데 1장(丈) 남짓의 장창(長槍)으로 그 안을 버티면 가볍고 또 속이 비어서 운행(運行)이 지극히 쉽고, 총알이 능히 뚫고 들어가지 못하며 화살촉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니, 하나는 병세(兵勢)를 크게 돕는 것이 되고, 하나는 경묘(輕妙)함이 되며, 방패와 단병(短兵)이 교접(交接)하였을 때에는 그 베 자루를 버리고 창(槍)으로 쓴다면 세 가지를 겸하여 얻게 됩니다.”

하고, 그 넷째에 말하기를,

“소와 말 가죽을 재단(裁斷)하여 많은 옷칠[漆]을 하여 갑주(甲冑)를 만든다면 화살촉과 총알이 모두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원래 이 물건은 경허(輕虛)하여 무겁지 않아서 사졸(士卒)의 입는 것이 이것보다도 좋은 것은 없으며, 마련하는 방도가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날 외방(外方)의 병졸이 몸을 가리 우는 갑주가 없고 다만 한 벌의 전복(戰服)을 입을 뿐이니, 화살과 총알이 비오듯 할 때에 병졸이 모두 죽어서 남음이 없다면, 그 장령(將領)된 자만이 살아남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고, 그 다섯째에는,

“악비(岳飛)가 만든 배외갑(背嵬甲)과 마찰도(麻札刀)를 쓸 것을 청합니다.”  
하였으니, 임금이 살펴보지 않았다.

▶ 29권 21년 9월 19일 戊寅

威鏡道文川郡, 有牛產兩頭犢, 一頭渾成, 左右開面, 而一東一西, 俱有兩目, 兩頸各有一耳, 前額兩頭相合之處, 又有一耳, 咽喉則在於兩頸之中, 道臣以聞.

함경도(威鏡道) 문천군(文川郡)에 소가 양두(兩頭)의 송아지를 낳았는데, 한 머리에 혼동(渾同)으로 이루어져 좌·우로 낮을 열어서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쪽을 향하였으니, 모두 두 눈이 있고 두 목에는 각각 귀가 하나씩 있으며, 앞이마의 두 머리가 서로 합하는 곳에 또 귀가 하나 있고, 인후(咽喉)는 두 목의 사이에 있었다. 도신(道臣)이 이것으로써 계문(啓聞)하였다.

▶ 29권 21년 10월 12일 辛丑

平安道寧邊地有牛產犢, 一項兩頭, 四目三耳.

평안도(平安道) 영변(寧邊) 땅에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한 목에 머리가 둘이고 눈이 넷에 귀가 셋이었다.

▶ 31권 23년 9월 28일 乙巳

乙巳/左議政尹趾善以雷變上疏引咎, 仍請兩南舊糴, 量宜減捧, 且言: “忠清監司申厚命, 許親舊私設屠販, 平安監司閔鎮周、黃海監司李德成, 冒禁乘輜, 宜有責罰.” 上優批納之, 命削黜鎮周、德成, 拿問厚命, 減糴事, 下廟堂施行.

좌의정 윤지선(尹趾善)이 천둥의 변고로 상소하여 스스로 인책(引責)하고, 인해서 양남(兩南)의 옛 적곡(穀)을 적당하게 해아려 감해서 바치게 하기를 청하고, 또 말하기를,

“충청감사 신후명(申厚命)은 친구(親舊)에게 사사로이 도살(屠殺)·판매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허락하였고, 평안감사 민진주(閔鎮周)와 황해감사 이덕성(李德成)은 금지하는 것을 무릅쓰고 가마를 탔으니, 마땅히 책벌(責罰)이 있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려 받아들여 민진주·이덕성은 삭출(削黜)하고, 신후명은 잡아다 추문하고, 옛 적곡을 감해서 바치게 하는 일은 묘당(廟堂)에 내려서 시행하도록 명하였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다.

### ▶ 32권 24년 1월 3일 己卯

己卯/引見大臣、備局諸臣. 兵曹判書李世華言: “近以守令濫率查覈事, 多有棄官徑歸者, 賑事緯繆, 迎送有弊, 宜有參酌之道.” 上問右議政崔錫鼎, 錫鼎曰: “查出後仍置, 則殊無法意, 盡罪則亦關民弊, 不知何以處之則可也.” 上以查出後當有參酌爲教. 戶曹判書李濡, 以飢饉之日, 屠宰太濫, 請申飭諸道, 嚴禁屠牛, 上從之.

이하생략~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병조판서(兵曹判書) 이세화(李世華)가 말하기를,

“요사이 수령(守令)들이 함부로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것을 조사하는 일 때문에 벼슬을 버리고 바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진휼(賑恤)하는 일이 차질이 생기고 영송(迎送)함에도 폐단이 있으니, 마땅히 참작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우의정 최석정(崔錫鼎)에게 물었다. 최석정이 말하기를,

“조사해 낸 뒤에 그대로 두면 도무지 법의(法意)가 없게 되고, 죄다 처벌하면 또한 민폐(民弊)에 관계되니,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조사해 낸 뒤에 마땅히 참작이 있어야 한다고 분부하였다. 호조판서 이유(李濡)가 기근(飢饉)이 든 때에 도살(屠殺)이 너무나 지나치기 때문에, 제도에 거둬 경계하여 소를 도살하는 일을 엄금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하생략~

### ▶ 32권 24년 1월 21일 丁酉

丁酉/上御仁政門, 行朝參. 右議政崔錫鼎請疏釋一邊罪黜人, 以爲調用之地, 上曰: “後日登對時, 更爲問議諸大臣, 定奪抄啓.” 應教金時傑, 請差遣勸農御史於諸道, 上曰: “各道都事, 別擇三司出入之人差遣, 令兼勸農御史.” 戶曹判書李濡, 請並禁京中宰牛, 泮人亦限二朔禁屠, 胡米來到後, 許出二千石, 每一朔分給五百石, 以濟其生理, 上從之.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거둥하여 조참(朝參)을 거행하였다. 우의정 최석정(崔錫鼎)이 죄로 축출당한 한편의 사람들을 소석(疏釋)하고 선발하여 임용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후일 등대(登對)할 때에 다시 여러 대신(大臣)들에게 문의(問議)하여 정탈(定奪)해서 초계(抄啓)하라.”

하였다. 응교 김시걸(金時傑)이 권농어사(勸農御史)를 여러 도(道)에 차출(差出)하여 보낼 것

을 청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각도(各道)의 도사(都事)로서 삼사(三司)에 출입한 사람을 각별히 선택 차출해서 보내고 권농어사도 겸임하도록 하라.”

하였다. 호조판서 이유(李濡)가 서울에서도 소를 도살(屠殺)하는 것을 아울러 금지하고 반인(泮人)들도 역시 2개월을 한정하여 도살을 금지하며, 호미(胡米)가 도착한 뒤에 2천 석을 내어 1개월마다 5백 석씩 나누어 지급해 그들의 생활을 구제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 34권 26년 12월 22일 庚辰

琬又曰：“犯屠守令，纔請仍任，而此後引以爲例，法禁將弛。請依糴穀未奉例，使道臣啓聞，決杖營門。”承旨俞得一言：“守令遞易，雖似有弊，或有犯禁，輒施決杖，恐乖禮使之道。近來士夫間，廉隅壞損，風俗渝薄，亦未必不由於朝家導迪之失當也。”構言：“罷職本法，仍存勿改，觀其事勢，或難遞易，則特施決杖，似合參酌裁處之道。”上是其言，命依此定式。琬又陳七件禁條外，三司出禁及諸軍門聽軍兵所訴，推捉凡民，輕施棍杖之弊，請嚴飭禁斷。構又陳禁吏橫侵禁軍之弊，請定式論罪，上竝可之。先是，百官朔料，因荐飢，減米給大豆，於是構以今歲稍稔，請復舊，各軍門、掖庭所屬各司員役等，亦令一體復舊，上可之。

신완이 또 아뢰기를,

“도살(屠殺)을 범한 수령(守令)을 이제 막 잉임(仍任)시킬 것을 청하셨습니다만, 이 뒤로 이를 인용하여 예(例)로 삼는다면 법금(法禁)이 장차 해이해질 것입니다. 청컨대 적곡(穀)을 바치지 못한 예에 의거하여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계문(啓聞)하게 하고 영문(營門)에서 장형(杖刑)을 집행하도록 하소서.”

하자, 승지 유득일(俞得一)이 아뢰기를,

“수령이 갈리고 바뀌면 비록 폐해가 있는 듯하지만, 혹 금법(禁法)을 범하는 일이 있어 즉시 장형(杖刑)을 집행한다면, 예를 갖추어 부리는 도리에 어긋날 듯합니다. 근래에 사대부들 사이에 지켜야 할 절개가 깎그리 무너지고 풍속이 야박해지는 것도 또한 조가(朝家)에서 인도하는 것이 마땅함을 잃었기 때문이 아님이 없습니다.”

하였다. 김구가 아뢰기를,

“과직(罷職)이 본법(本法)이나, 그대로 두어서 개차(改差)하지 말고 그 사세(事勢)를 보아서 혹 체차하여 바꾸기가 어려우면, 특별히 장형(杖刑)을 집행하는 것이 참작하고 재처(裁處)하는 도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이에 의거하여 정식(定式)을 삼으라고 명하였다. 신완이 또 7건의 금조(禁條) 이외에 삼사(三司)가 나가서 금하는 일과 여러 군문(軍門)에서 군병(軍兵)이 호소하는 바를 듣고서 일반 백성들을 추착(推捉)하여 곤장(棍杖)을 가볍게 시행하는 폐단을 진달하고, 엄하게 신칙하여 금단(禁斷)할 것을 청하였다. 김구가 또 의금부의 관리가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금군(禁軍)을 부당하게 침해(侵害)하는 폐단을 진달하고, 정식(定式)으로 논죄(論罪)할 것을 청하니, 임금(王)이 모두 옳다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백관(百官)들의 삭료(朔料)를 오랫동안 계속된 기근 때문에 쌀을 감하고 대두(大豆)를 주었는데, 이에 김구가 금년은 조금 풍년이 들었으므로 그전대로 회복하고 각 군문(軍門)과 액정(掖庭)에 소속된 무리와 각 관사(官司)의 원역(員役) 등도 또한 한 결 같이 그전대로 회복시켜 줄 것을 청하니, 임금(王)이 옳게 여겼다.

### ▶ 36권 28년 1월 18일 庚子

庚子/諫院劾清州牧使嚴纘, 方當國恤初, 晏然寢處於衙中客舍, 望哭時, 多廢闕, 邑內屠肆依舊狼藉, 道內赴學儒生, 行到本州, 稠會廣集, 酒樂俱張, 請削去仕版, 從之.

사간원(司諫院)에서 탄핵하기를,

“청주목사(淸州牧使) 엄찬(嚴纘)은 바야흐로 국휼(國恤) 초(初)를 당하였는데도 편안하게 관아의 객사(客舍)에서 잠을 자고, 망곡(望哭)할 때에 많이 빠졌으며, 그 고을 안에는 도살(屠殺)을 전처럼 낭자하게 하고, 도내(道內)의 과거에 응시하는 유생들이 본주(本州)에 이르러서 뻑뻑하게 많이 모여 술과 음악을 함께 벌이고 있으니, 청컨대, 사판(仕板)에서 삭제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 37권 28년 7월 4일 癸丑

慶尙道興海郡有牛生雛, 一頭兩體, 八足二尾.

경상도(慶尙道) 흥해군(興海郡)에서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이었으며, 다리가 여덟, 꼬리가 둘이었다.

### ▶ 37권 28년 9월 23일 辛未

忠淸道延豐縣, 牛犢震死.

충청도(忠淸道) 연풍현(延縣)에서 송아지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

### ▶ 37권 28년 11월 28일 乙亥

咸鏡道永興府, 牛產三犢, 一體三目兩鼻.

함경도(咸鏡道) 영흥부(永興府)에서 소가 송아지 세 마리를 낳았는데, 몸은 하나에 눈은 셋, 코는 둘이었다.

▶ 38권 29년 2월 10일 乙酉

乙酉/正言趙權上疏曰：

我國黨禍，其來已久，一邊之人，又分一半，非其類則指夷、齊爲貪，得其時則雖闔茸亦顯上，自卿宰下至庶官，率皆勇於私鬪，懦於公事。朝廷比如逆旅，官路作一戰場，臣未知何者爲君子，何者爲小人。君子攻小人歟？小人攻君子歟？前後局面累換，國脈愈傷，甲進乙退，任其傾奪，加膝墜淵，好惡太偏。殿下於正朝廷之道，既無誠實之工，故爲殿下銓官者，亦無奉行之誠，注擬而私意或勝，取舍則色目乃顯。伏願益懋誠實之功，無偏建極，仍責銓曹之官，注擬必公，則傾軋之禍，或不至於亡國矣。臣聞聽諫非難，用諫爲難。科獄罪人，萬戮猶輕，罔等緣坐，王法至重，而經年相持，尙不允從，殿下非惟不誠於用諫，亦不誠於聽諫也。臣聞節以制度，不傷財不害民。竊覩殿下，用財如水，宮家賜與無節，別軍職賞典太濫，臘藥加劑，價至近萬，進上青竹，民弊不貲。伏願加意於節用之道。紀綱，比人元氣，而近來體統不立，命令不行，朝臣食焉怠事，惟懷自便，**守令自擇好惡，任意去就，民俗則私屠狼藉，神祀喧闐，衣服僭侈，婚需過濫。**伏願深軫痼弊，勅勵民工，振王綱而申法令焉。惟治亂在庶官，而我國官人之道，門閥是先，形勢子弟，偶占科第，不問才否，汲汲登庸。向者一學士，不識『史略』文字，憲臣借述避嫌啓辭，至今傳笑。比年以來，躁競成風，以黨論爲進取之階，以賂遺爲善仕之餌，宜乎人才之難得，而官方之日壞也。承宣之望，多不擇人，如尹誠教之愚悖無識，許琬之行己卑諂，亦得與焉；監司，守令之綱領，而如趙泰東有謗議，無幹局者，亦因資級之相當，形勢之顧藉，冒當雄藩，豈不寒心？守令擇差，屢降申飭之教，而臧污而幸逭刑章者，旋有調用之舉，廉潔而苟無形勢，則未蒙陞擢之典。伏願申飭銓曹，痛祛同異，公於取舍，抑躁競而務取實德之人焉。

答曰：“陳戒殊切，可不體念？第抑未知君子攻小人，小人攻君子等語，其意所在，有未可知，而上自卿宰，悉歸之於勇於私鬪，有若不念國事者然，公平之論，果若是乎？至於侵斥嶺伯，尤其是意外，予實未曉也。”

정언(正言) 조권(趙權)이 상소하기를,

“우리나라의 당화(黨禍)는 그 유래가 오래 되었는데, 한편 사람이 또 반쪽으로 나누어져서 그 동류가 아니면 백이(伯夷)·숙제(叔齊)를 가리켜 탐욕이 많다고 하며, 그때를 얻으면 아무리 못한 자라도 현달(顯達)하게 되어서, 위로는 경재(卿宰)로부터 아래로는 서관(庶官)에 이르기까지 모두 개인 싸움에는 용감하고 공사(公事)에는 나약합니다. 조정을 여관같이 여기고 벼슬길을 하나의 전쟁관으로 만드니, 신은 누가 군자(君子)이고 누가 소인(小人)인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지, 군자가 소인을 공격하는 것인지 소인이 군자를 공격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후의 국면(局面)이 여러 번 바뀌어서 국맥(國脈)이 더욱 손상되었는데, 갑(甲)이 나아가면 을(乙)이 물러가 그 넘어뜨리고 빼앗음을 마음대로 하여, 사랑하면 진용하여 무릎을 포개듯이 하고 미워하면 물리쳐서 못에 떨어뜨리듯이 하여 좋아하고 미워함이 너무 치우칩니다. 전하께서 조정을 바로잡는 방법에 이미 성실한 공부가 없기 때문에, 전하의 전관(銓官)이 된 자도 받들어 행하는 정성이 없어서 주의(注擬)하는 데에 사사로운 뜻이 혹 많고, 뽑고 버리는 데에는 색목(色目)이 드러납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실한 노력을 더욱 힘써서 치우침이 없이 극(極)을 세우시고, 인하여 전조(銓曹)의 관원을 꾸짖어 주의(注擬)를 반드시 공정하게 하시면, 시기하고 모함하는 화(禍)가 혹시 나라를 망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이 들으니, ‘간(諫)하는 말을 듣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간하는 말을 쓰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과옥(科獄)의 죄인은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소(炤) 등의 연좌(緣坐)는 왕법(王法)이 지극히 중한데 해가 지나도록 서로 버티면서 아직 윤택해 따르지 아니하시니, 전하께서 간하는 말을 쓰는 것이 정성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간하는 말을 듣는 데에도 정성스럽지 못하십니다. 신이 들으니, ‘절제하여 쓰면 재물을 손상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재물을 물 쓰듯이 천하게 써서 궁가(宮家)에 주는 것이 절도가 없고 별군직(別軍職)의 상전(賞典)이 너무 지나쳐서, 납약(臘藥)을 더 조제하여 약값이 만냥(萬兩)에 가깝고, 진상하는 청죽(靑竹)은 민폐(民弊)가 적지 않으니, 삼가 원하건대 절용(節用)하는 방법에 뜻을 두소서. 기강(紀綱)은 사람의 원기(元氣)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근래에는 체통이 서지 아니하고 명령이 행해지지 아니하여, 조정 신하가 녹(祿)을 먹으면서 일에 태만하여 다만 자신이 편할 것만 생각하고, 수령(守令)은 스스로 좋아하고 싫어함을 골라서 임의로 나아가고 물러가며, 민속(民俗)은 사사로운 도살(屠殺)이 낭자하고 신사(神祀)에는 사람이 가득하여 떠들썩하며, 의복은 참람하고 사치하며 혼수(婚需)가 분수에 지나칩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고질의 폐단을 깊이 근심하시어 백성과 신하에게 칙려(勅勵)하여,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법령을 엄하게 하소서. 치란(治亂)은 서관(庶官)에게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길은 문벌(門閥)만을 먼저 보니, 형세 있는 자제(子弟)는 우연히 과거(科擧)에 합격하면 재주가 있고 없음을 묻지 아니하고서 올려 쓰기에 급급합니다. 지난번 어떤 한 학사(學士)는 『사략(史略)』의 문자(文字)를 알지 못하여 헌신(憲臣)이 차작(借作)해 주었는데, 피혐(避嫌)한 계사(啓辭)를 지금까지 전하며 웃음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근년 이래로 남과 조금씩 권세를 다투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 당론(黨論)으로 진취(進取)하는 계단을 삼고 뇌물로 좋은 벼슬을 하는 미끼를 삼으니, 인재를 얻기가 어렵고 관기(官紀)가 날마다 허물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승선(承宣)의 의망(擬望)에는 대부분 사람을 고르지 않아서, 우패(愚悞)하고 무식한 윤성교(尹誠敎)와 허윤(許琿)도 참여하였고, 감사(監司)는 수령의 강령(綱領)인데 조태동(趙泰東)과 같이 비방(誹謗)이 있고 간국(幹局)이 없는 자도, 자급(資級)이 서로 맞아 형세를 중히 여김을 인하여 외람되게 큰 지방을 담당하였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수령을 골라서 임명하도록 신칙(申飭)하는 교지가 여러 번 내려졌는데, 장죄(贓罪)를 범하고도 요행히 형벌을 면한 자를 문득 조용(調用)하는 일이 있으며, 청렴결백하면서도 다만 형세가 없으면 올려 발탁하는 은전을 입지 못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조(銓曹)에 신칙하여 같은 당은 쓰고 같지 않으면 배척하는 폐단을 엄하게 없애며, 취하고 버리는 것을 공정하게 하며, 남과 조금씩 권세를 다투는

것을 억제하고 실덕(實德)이 있는 사람을 힘써 뽑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뢰어 경계함이 자못 간절하니 어찌 체념(體念)하지 않겠는가? 다만, ‘군자(君子)가 소인(小人)을 공격하는지 소인이 군자를 공격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등의 말은 그 뜻을 둔 바를 알지 못하겠으며, 위로 경재(卿宰)로부터 모두 개인 싸움에 용감하다는 것으로 돌려서 나랏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였으니, 공평한 의논이 과연 이와 같은가? 영백(嶺伯)을 침범해 배척하는 데 이르러서는 더욱 뜻밖이어서 나는 실로 깨닫지 못하겠다.” 하였다.

### ▶ 38권 29년 5월 5일 己酉

己酉/濟州, 牛産犢, 一體兩頭.

제주(濟州)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몸뚱이 하나에 머리가 두 개였다.

### ▶ 38권 29년 12월 19일 庚寅

司憲府啓曰: “今日茶時, 唐津士民三百餘名呈狀, 觀其狀辭, 孟串一面, 周廻三十餘里, 民人及士夫田土, 六百餘結, 民戶幾至七百. 且多有士夫墳山, 三百餘年世傳之地, 加平韓樛爲名者, 稱以祖先清原尉賜牌田畓, 斥賣宮家, 率宮差來到, 劫掠侵漁, 罔有紀極, 民人齊訴. 官家考見量案, 樛用奸之跡, 敗露無餘. 論報巡營, 將欲囚治, 樛乘夜逃走, 來告太僕曰: ‘孟串, 乃牧場, 『輿地勝覽』, 亦以古有牧場載錄.’ 太僕信其言, 行關摘奸, 還作牧場, 數百年世葬世居世耕之地, 將作芻牧之所, 極天冤痛云. 朝家每以軫恤民隱爲務, 雖是以牧場見在者, 陳廢既久, 則尚有許民耕食之舉. 況此孟串, 雖有古牧場三字, 『勝覽』之成, 在於三百餘年之前, 而亦云古有, 其陳廢之久, 可知矣. 到今遽屬太僕, 使近千士民, 見奪其居處耕食之地, 流離失所. 當此視民如傷之日, 豈可強奪祖宗朝許民之地, 厚招衆民之怨乎? 請令本道, 別定詳明官行查, 果如狀辭, 則仍許民人, 俾無自太僕更侵之弊.” 答曰: “令太僕稟處.”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오늘 다시(時)에 당진(唐津) 지방 사민(士民) 3백여 명이 정장(呈狀)하였는데, 그 정장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맹곳이[孟串] 한 면(面)의 사망 둘레가 3십여 리인데, 민인(民人) 및 사대부(士大夫)의 전토(田土)가 6백여 결(結)이고, 민호(民戶)가 거의 7백이나 됩니다. 또한 사대부의 분묘가 있는 산이 많이 있어서 3백여 년 세전(世傳)한 땅인데, 가평(加平)의 한학(韓)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자기의 조선(祖先)인 청원위(淸原尉)의 사패전답(賜牌田畓)이라고 일컬으며 궁가(宮家)에 팔고는 궁차(宮差)을 거느리고 와서 위협하고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약탈하여 침해(侵害)한 것이 끝이 없으므로, 민인(民人)이 일제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가(官家)에서 양안(量案)을 상고하여 보았더니, 한학의 용간(用奸)한 자취가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순영(巡營)에 보고하고 잡아가두어 다스리려고 하였는데, 한학이 밤을 틈타 달아나 태복(太僕)을 찾아와 고하기를, ‘맹꽁이는 바로 목장(牧場)입니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도 역시 옛날에 목장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태복에서 그 말을 믿고 공문을 보내어 적간(摘奸)하고 도로 목장으로 만들어, 수백 년 동안 대대로 장사지내고 살며 밭 갈던 땅을 풀 베고 마소를 먹이는 곳을 만들려 하니, 하늘에 사무치도록 원통하다고 합니다.** 조정에서는 언제나 백성의 고통을 진휼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니, 비록 현재 목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묵혀둔 지 오래 되었으면, 도리어 백성에게 경작(耕作)하여 먹고 살도록 하는 거조(舉措)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 맹꽁이는 ‘고목장(古牧場)’이라는 3자(字)가 있다고 하니, 『여지승람』이 이루어진 것은 3백여 년 전인데다가 또한 ‘옛날에 있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묵어서 폐지된 것이 오래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갑자기 태복(太僕)에 소속시켜 천여명 가까운 사민(士民)으로 하여금 거처(居處)할 곳과 경작할 땅을 빼앗기고 정처 없이 유리(流離)하게 하니, 백성을 자기 몸이 다친 것처럼 돌보아야 될 즈음에 어찌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백성에게 허락하여 준 땅을 강제로 빼앗아 많은 백성의 원망을 불러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특별히 자세하고 분명한 관원을 정하여 조사하게 한 뒤에 과연 소송의 내용과 같다면, 그대로 백성들에게 경작을 허가하고, 태복(太僕)에서 다시 침해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태복으로 하여금 품처(處)하게 하라.”

하였다.

### ▶ 39권 30년 1월 10일 庚戌

庚戌/引見大臣、備局諸臣. 上曰:

~중략~

判尹閔鎮厚曰: “孝廟朝任用之臣, 如先正臣宋時烈, 際會昭融, 前代無比. 其謨猷密勿, 蓋莫非復讎雪恥之計, 而常有忍痛含冤, 迫不得已之意, 存於其中. 自時烈之沒, 誰復以此等說話, 聞於黈纆之下哉? 孝廟奮發大計者, 非徒言語而已, 其實政、實效, 在今可徵. 殿下居孝廟之位, 續孝廟之業, 所以繼志述事者, 正在於復雪, 而世道日下, 國勢日弱, 大計之成, 已無可言, 而反有朝夕凜凜之憂, 念及于此, 寧不慨然? 繼自今, 益自奮勵, 一以孝廟爲法焉.” 大司成俞得一曰: “昨歲聖上, 送餞客使, 臨幸關廟, 且因安市城事, 感慨下教. 今日聖教, 又復及此, 忠臣、義士, 想必奮袂而掩涕矣. 天地之大, 固非小人之腹所可測度, 而伏聞天語懇惻, 於戲不忘之意, 藹然於辭表. 淵哀所存, 願一下詢于諸臣. 或有難愼之端, 則群下當違覆, 苟其不然, 亦宜將順之不暇. 君臣如父子, 一堂都俞之間, 公說道理, 何所不可, 而反有待於臣等一二言耶?” 上始曰: “諸臣陳戒, 予當



體念, 而且以予意言之, 我國之得有今日, 莫非神皇之力, 而深仁厚澤, 無地酬報, 予心感慨, 尤切於是年矣. 楊鎬、邢玠, 以東征帥臣, 亦有祠宇, 而尙無爲神皇建廟事. 先正臣宋時烈, 曾有是議, 欲以斥和三臣, 從享廟庭, 語在『三學士傳』矣. 此事何如?” 畚曰: “此議之行於搢紳間蓋久, 而不惟拘於形勢, 儀章、品式, 實多難處之端. 宋時烈, 本有此意, 不曾上請者, 似必有以也. 時烈, 嘗以崇禎皇帝御筆, 鐫於所居華陽洞石壁, 作煥章菴, 末年以古人一間茅屋祭昭王之義, 欲立廟, 以紙榜祀萬曆、崇禎兩皇帝, 未就而沒. 參判臣權尙夏, 與章甫, 合謀營一屋於時烈舊居之傍, 倣禮經殿屋之制云. 未審此事, 亦已徹聞否?” 上曰: “予不及知也.” 鎭厚曰: “臣詳其前後事實, 請陳之. 臣仲父故相臣鼎重, 使燕得崇禎皇帝御筆‘非禮不動’四字, 歸示時烈, 時烈劖華陽絕壁而刻之, 仍作小菴, 故相臣金壽恒, 賦長篇以述其事. 時烈臨歿, 書示尙夏曰: ‘吾欲立廟祀兩皇帝, 而事未及就, 齋志而死. 君須與金、閔兩家子孫, 相議爲此’云, 而書中有茅屋祭昭王之語矣. 尙夏承其遺意, 與傍近士子同志者, 營建五架屋於華陽, 將以行祭於兩皇帝, 而位版則尤有所不敢用, 紙榜以祭, 祭畢焚之. 茲事事體, 極其重大, 未有朝命之前, 不無僭猥之懼, 且恐不逞之徒, 或欲因此而嫁禍士林. 曾與鄭澹相議, 欲望微達於筵席, 而澹不敢明陳云矣. 蓋茅屋祭昭王, 有同去思之義, 與此微有不同者. 今以海外藩邦, 廟享中朝天子, 其於禮律, 極多難處, 而若士民之私自寓誠者, 不必禁止, 自朝家示以勿罪之意, 則士民可以安心行祀也.” 上命諸臣, 各陳所見. 琬曰: “頃年儒生, 有以此事上疏者. 金鎭龜爲禮判, 將欲回啓, 而有所持難, 私議于臣. 臣以爲: ‘漢時皇帝廟, 多在郡國. 蒼梧有舜廟, 會稽有禹廟, 此外歷代帝王廟之在郡邑者, 不可勝計. 此豈能盡用八佾之舞, 太牢之享? 不過寓後世追慕之誠, 而但當此之時, 形格勢拘, 恐有日後之慮.’ 臣意本自如此矣.” 畚曰

이하생략~

대신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략~

판윤(判尹) 민진후(閔鎭厚)는 말하기를,  
“효묘조(孝廟朝)에 임용한 신하 가운데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의 경우는 그 제회(際會)의 융숭함이 전대(前代)에서는 견줄 데가 없었고, 그 주밀한 모욕(謫猷)이 모두 복수하여 부끄러움을 씻을 계책이어서, 항상 원통함을 머금고 아픔을 참는 것이 박절하여 그만둘 수 없는 뜻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송시열이 몰(歿)한 뒤로 누가 다시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임금에게 아뢴 적이 있었습니까? 효묘께서 큰 계책에 분발하신 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그 실정(實情)과 실효(實)가 있었음을 지금에도 징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하께서 효묘의 지위에 거하시어 효묘의 업(業)을 이으셨으니, 전대의 뜻을 이어받아 일을 하는 것을 바로 복수하여 부끄러움을 씻는 데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도가 날로 비하되고 국세가 날로 약해져 가니, 대계(大計)의 성공은 이미 말할 수가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조식을 보존하기에도 급급한 걱정이 있으니,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어찌 개연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더욱 분발하고 면려하여 한 결 같이 효묘를 본받으소서.”  
하고, 대사성(大司成) 유득일(兪得一)은 말하기를,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지난해 성상께서 객사(客使)를 전송하고서 관묘(關廟)에 행행하였으며, 또 안시성(安市城)의 일을 인하여 감개(感慨)한 하교(下敎)가 계셨는데, 오늘 성교(聖敎)에 또다시 이를 언급하셨으니, 충신(忠臣)과 의사(義士)들이 틀림없이 분발하여 눈물을 흘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없이 큰 천지(天地)는 소인(小人)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가 간측(懇側)한 천어(天語)를 듣건대, ‘아! 잊을 수 없구나.’ 하는 뜻이 사표(辭表)에 애연히 드러나 있으니, 마음속 깊이 지니고 있는 바를 한번 제신(諸臣)들에게 하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중 신중히 해야 할 단서가 있으면 군하(群下)가 마땅히 그 명을 되돌려야 하고, 진실로 그런 것이 아니면 또한 받들어 따르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신(君臣)은 부자(父子)와 같은 것이어서 묘당(廟堂)에서 문답하는 사이에 공적으로 도리(道理)를 말하는 것이 불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 등의 한 두 마디 말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비로소 말하기를,

“제신들이 진계(陳戒)를 내가 마땅히 체념(體念)하겠다. 그리고 나의 의견을 말하건대, 우리나라가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모두 신종 황제(神宗皇帝)의 힘인 것으로, 깊은 인애(仁愛)와 두터운 은택을 갚을 길이 없어 감개스런 내 마음이 이 해에 더욱 간절한 것이다. 양호(楊鎬)와 형개(刑)는 동정(東征) 때의 수신(帥臣)이었는데도 사우(祠宇)가 있는데, 아직 신종 황제를 위해서 묘(廟)를 지은 일은 없었다.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이 일찍이 이에 대한 의논을 제기하여 척화신(斥和臣) 세 사람을 그 묘정(廟庭)에 종향(從享)하려 했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삼학사전(三學士傳)에 있다. 이 일은 어떠한가?”

하였는데, 이여(李)가 말하기를,

“이 의논이 진신(摺紳)들 사이에 유행된 지가 이미 오래였습니다만, 형세에 구애될 뿐만 아니라 의장(儀章)과 품식(品式)에 있어 실제적으로 조처하기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송시열이 본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일찍이 상청하지 않았던 것은 반드시 이런 이유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송시열이 일찍이 승정 황제(崇禎皇帝)의 어필(御筆)을 거쳐하고 있던 화양동(華陽洞) 석벽(石壁)에 새기고, 환장암(煥章菴)을 지었으며, 말년에는 옛사람이 한 모옥(茅屋)을 지어 소왕(昭王)을 제사한 의리에 입각하여 묘(廟)를 짓고, 지방(紙榜)으로 만력 황제(萬曆皇帝)와 승정 황제(崇禎皇帝)를 제사지내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몰(歿)하였습니다. 참판(參判) 신(臣) 권상하(權尙夏)가 선비들과 모의하여 송시열의 구거(舊居) 곁에 옥우(屋宇) 하나를 지었는데, 예경(禮經)의 전옥(殿屋) 제도를 모방하였다고 하나, 이 일도 이미 주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미처 몰랐다.”

하였다.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신(臣)이 그에 대한 전후 사실을 상세히 알고 있으니, 진달하겠습니다. 신의 중부(仲父)인 고(故) 상신(相臣) 민정중(閔鼎重)이 연경(燕京)에 사신(使臣)으로 갔을 적에 승정 황제의 어필로 된 ‘비례부동(非禮不動)’이라는 네 글자를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송시열에게 보였더니, 송시열이 화양동의 절벽을 다듬어 이를 새겼습니다. 이어 작은 암자(菴子)를 지었는데, 고 상신 김수항(金壽恒)이 장편(長篇)의 부(賦)를 지어 그 일을 서술하였습니다. 송시열이 몰할 적에 권상하에게 글로 써서 보이기를, ‘내가 묘우를 세워 두 황제를 제사지내려 하였

으나, 일을 이루지 못한 채 뜻만 지니고 죽으니, 그대는 모름지기 김(金)·민(閔) 양가(兩家)의 자손들과 상의하여 이를 이룩하기 바란다.’ 하였는데, 그 글 가운데 ‘모옥(茅屋)을 지어 소왕(昭王)을 제사지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권상하가 그 유의(遺意)를 받들어 근방의 뜻을 같이하는 선비들과 함께 화양동에 오가옥(五架屋)을 짓고 두 황제를 제사지냈는데, 위판(位版)은 더욱 감히 사용하지 못하고, 지방(紙榜)으로 제사지내고 나서는 불태웠습니다. 이 일은 사체(事體)가 매우 중대한 것이어서 조정(朝廷)의 명이 있기 전에는 참람하고 외람된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또 불령한 무리들이 혹 이를 이용하여 사림(士林)에게 화(禍)를 전가시키려 할 수도 있으므로, 일찍이 정호(鄭澮)와 상의하여 연석(筵席)에서 은밀히 주달하려 했었습니다만, 정호가 감히 명백하게 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옥(茅屋)에서 소왕(昭王)을 제사지냈다.’는 것은 떠난 사람을 사모하는 뜻과 같은 점이 있는 것으로서, 이것과는 같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해외(海外)의 변방(藩邦)에서 중국의 천자(天子)를 묘향(廟享)한다는 것은 예율(禮律)에 있어 극히 조처하기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민(士民)들이 사적으로 정성을 바치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없으니, 조정에서도 죄주지 말라는 뜻을 보인다면, 사민이 안심하고 제사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제신(諸臣)들에게 명하여 각기 소견을 진달하게 하였다. 신완(申琬)이 말하기를,

“지난해 유생(儒生)들이 이 일 때문에 상소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김진귀(金鎭龜)가 예조판서(禮曹判書)로 있으면서 회계(回啓)하려 하였습시다만, 곤란한 점이 있어 신(臣)에게 사적으로 의논하여 왔었습니다. 신이 이에 대해, ‘한(漢)나라 때에는 황제(皇帝)의 묘우(廟宇)가 군국(郡國)에 많이 있었다. 창오(蒼梧)에는 순(舜)임금의 묘우가 있고, 회계(會稽)에는 우(禹)임금의 묘우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역대(歷代) 제왕의 묘우가 군읍(郡邑)에 있는 경우는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여기에서 어찌 모두 팔일(八佾)의 춤을 추고 태뢰(太牢)의 제향을 쓸 수 있겠는가? 후세에서 추모하는 정성을 바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런 때를 당하여는 형세에 구애되는 바가 있어 뒷날의 걱정이 있게 될까 두렵다.’ 하였는데, 신의 의견은 본디 이러합니다.”

하고, 이여(李)는 말하기를,

“이제 조정에서 묘우를 세운다면 천자(天子)의 예(禮)로 제향(祭享)해야 하기 때문에, 예모(禮貌)가 이하생략~

## ▶ 39권 30년 3월 19일 戊午

戊午/上, 自宜春門, 詣禁苑壇, 以太牢祭崇禎皇帝. 其文曰:

崇禎七十七年歲次甲申三月庚子朔十九日戊午, 朝鮮國王臣李焞, 敢昭告于大明毅宗烈皇帝. 伏以, 於赫皇明, 爲華夷主, 功隆德厚, 丕冒率溥. 傳十四聖, 式至我帝, 惟帝初服, 如日之揭. 鋤其蠹螟, 勵以宵旰, 憂勤之極, 累歎中朝. 伊誰恬憝, 召禍潢池? 帝曰死守, 義勿去之. 殉于社稷, 乃禮之經, 高穹既崩, 大鼎便輕. 虜乘其衅, 據我中原, 禮樂、衣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冠，盡汗腥羶。凡在邇遐，冤憤靡窮，而其深痛，莫最小邦。念昔康獻，寔事高皇，首義回旗，綏厥寵光。自茲世世，齊、宋于周，厥篚之共，天褒優優。祖系嘗讎，是控是訴，爰頒其典，我倫乃敍。寇來借道，辭以力斥，封豕遂逞，食我八域。乃命師征，以亡爲存，惟昭敬忠，惟神宗仁。逮臣曾祖，際帝御宇，誓贊外攘，以虔侯度。兵移於我，懷乎顛覆，亶由力屈，非敢負德。我帝我諒，曰爾可傷，使价之返，恩命出常。遙拜于苑，又牒軍門，問關百罹，寸衷愈丹。粵我陪臣，死扶民彝，不以本朝，斯焉有斯。臣祖之時，皇綱已淪，春秋遺義，蚤夜圖伸。亦有臣同，志在除雪，功之未集，繫心可質。先父勉勉，擬述其事，至臣續緒，王風寢委。碩果不食，天理其無，壽山邈矣，紅閣丘墟。遺傳海外，蟒袍、雲章，於焉瞻拱，若對羹牆。噫嘻！甲申，洪祚所終，年環日廻，遏音餘恫。相彼潢汚，于海是流，嗟我下國，孰爲綴旒？義根於性，恩函在心，于何寓哀，以展斯忱？乃治其墀，乃躬其祀，禮雖無文，可起以義。想帝陟降，臨睨下土，故國爲戎，誰奉籩豆？我邦雖陋，我誠則至，尙冀監格，右此大糒。

卽藝文提學金鎮圭之詞也。製進時，上疏言：

臣嘗以冬官，董大內修理之役，仰瞻景熏閣壁上懸板，乃聖上題詠宣祖所遺蟒衣之受於神皇，而至今葆藏者，又刻揭毅宗皇帝御筆。臣莊誦奎藻，欽玩寶墨，竊歎殿下尊周之誠，益篤於時移事遠之後矣。今於斯文，若及此事，則庶幾聖皇陟降之靈，知殿下平日至誠如此。此於昭格之道，必有所助，故臣提掇於文字云。

**是祭也，行單獻，犧牲用黑牛，不設樂。**壇高數尺，床卓、鋪陳，皆尙黃色。紙榜依『五禮儀』位版尺樣造成，書大明毅宗烈皇帝神位九字，貼於交椅北壁，南向設版位于東階下。上具冕服，百官衣黑團領陪祭，上嗚咽不自勝，侍臣莫不感愴。祭畢，竝祝、幣、紙榜燎火，卽撤其壇。是日遣官致祭于宣武祠、愍忠壇。

임금이 의춘문(宜春門)에서 금원(禁苑)의 제단(祭壇)에 나아가 태뢰(太牢)로 숭정 황제(崇禎皇帝)의 제사를 지냈다. 그 제문(祭文)에 이르기를,

“숭정(崇禎) 77년 세차(歲次) 갑신 3월 경자삭(庚子朔) 19일 무오에 조선국왕(朝鮮國王) 신(臣) 이돈(李焞)은 감히 대명의종렬황제(大明毅宗烈皇帝)에게 밝게 고합니다.

삼가 아뢰입니다. 아! 빛나는 황명(皇明)이 화리(華夷)의 주인이 되어 공덕(功德)이 융성(隆盛)하였으므로 온 천하를 널리 소유하였고, 14열성(列聖)을 전승하여 우리 황제(皇帝)에 이르렀습니다. 황제께서 처음 등극(登極)하실 적에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아서 간적(奸賊)들을 소탕하고 소간(宵)의 면려를 극진히 하였으며, 우근(憂勤)이 극도에 이르러 한밤 중 잠 못 이루고 탄식한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무엇을 태만히 하였기에 그러한 황지(潢池)의 화(禍)를 불렀단 말입니까? 황제께서 ‘사수(死守)하라, 의(義)에 있어 버리고 떠날 수 없다.’ 하고 사직(社稷)과 함께 순신(殉身)하였으니, 이는 예(禮)의 경도(經道)인 것입니다. 높은 하늘이 무너져 내림에 대정(大鼎)이 가버워지니, 오랑캐가 그 틈을 타고 우리 중원(中原)을 웅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악(禮樂)과 의관(衣冠)이 모두 비린내로 더러워졌으니, 원근(遠近)에 있는 모든 번리(藩籬)의 원통함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통분은 소방(小邦)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생각건대, 옛날 강헌대왕(康獻大王)께서 고황제(高皇帝)를 섬겨 의리에 의

거 회군(回軍)한 뒤로 총광(寵光)을 흠뻑 입었습니다. 그로부터 제(齊)·송(宋)이 주(周)나라에 한 것처럼 정성 담긴 조공(朝貢)이 끊이지 않았으므로, 황제의 포장(褒獎)이 우악(優渥)하였습니다. 조계(祖係)가 잘못된 것에 대해 시정해 주기를 공소(控訴)하니, 이에 『회전(會典)』을 시정하여 반사함으로써 우리의 윤서(倫序)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왜적이 쳐들어와 길을 빌자고 할 적에는 극력 배척하였더니, 봉시(封豕)가 드디어 흉계를 부려 우리의 팔역(八域)을 잠식하였습니다. 이는 소경왕(昭敬王)의 충심과 신종(神宗)의 어짊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신의 증조(曾祖)에 이르러서는 황제께서 즉위하는 때를 즈음하였으므로, 맹세코 도와서 외적(外賊)을 물리침으로써 후도(侯度)를 경건히 하려 하였습니다만, 적병이 쳐들어오자 두려워 전복(顛覆)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진실로 힘이 모자란 것이요, 감히 덕(德)을 저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황제께서는 그런 내용을 아시고 ‘그대들이 애처롭다.’고 하였습니다. 사신(使臣)이 돌아옴에 은명(恩命)이 내렸고 원정(苑庭)에서 멀리 절함에 또 군문(軍門)에 첩서(牒書)를 보냈습니다. 어렵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촌충(寸忠)은 더욱 단심(丹心)으로 굳어졌습니다. 지난날 우리 배신(陪臣)이 죽음으로써 민이(民彝)를 부지(扶持)하여 본조(本朝)를 용인하지 않았습디만, 신의 조부(祖父) 때 황강(皇綱)이 이미 윤몰(淪沒)되었습니다. 춘추 대의(春秋大義)에 의거 주야로 회복을 도모하였는데 뜻을 같이하는 신하가 있어 설욕을 다짐했습니다. 공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굳은 마음은 하늘에 질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의 선부(先父)께서도 부지런히 힘써 그 일을 계승하였는데, 신이 통서(統緒)를 잇는 데 이르러서는 왕풍(王風)이 점점 위축되어 가까스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천리(天理)가 없어지니 수산(壽山)이 아득하고 홍각(紅閣)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해외(海外)에 유전(遺傳)된 망포(袍)와 운장(雲章)을 우러러 어루만지니, 마치 옛 모습을 대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 갑신년에 홍조(洪祚)가 중언을 고하였는데, 세월이 흘러 다시 그 날이 돌아오니, 황제의 순신(殉身)에 대한 애통이 황하(黃河)처럼 해류(海流)처럼 끝이 없습니다. 아! 우리 하국(下國)의 표장(表章)이 누구였습니까? 그 의리와 그 은혜는 심성(心性)에 뿌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이 슬픔을 붙여 이 절통함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기에 제단(祭壇)을 만들고 몸소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이 예문(禮文)에는 없으나 의리에 있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오르내리시는 황제의 영령(英靈)께서는 하토(下土)에 굶어 임하신들 고국(故國)이 망하였으니, 누가 제사를 받들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누지(陋地)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정성만은 지극합니다. 바라건대, 감림(監臨)하시어 이 대회(大)를 흠향하소서.”

하였는데, 이는 예문 제학(藝文提學) 김진규(金鎭圭)의 글이다. 이 글을 지어 올릴 적에 상소하기를,

“신이 동관(冬官)으로 대내(大內)를 수리하는 역사(役事)를 감독하였었는데, 그때 경훈각(景熏閣)의 벽에 걸려 있는 현판(懸板)을 우러러 보니, 바로 성상(聖上)께서 지으신 제영(題詠)으로, 선조(宣祖)께서 신종 황제에게 받은 망의(妄衣)를 물려받은 것이 지금껏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의종 황제(毅宗皇帝)의 어필(御筆)을 새긴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이 그 글을 외고 보묵(寶墨)을 완상(玩賞)하면서 삼가 전하께서 존주(尊周)의 성의가 세대와 일이 지나간 지 오랜 뒤에도 더욱 돈독한 데에 감탄하였습니다. 지금 이 글에 이 일을 언급한다면 성황(聖皇)의 오르내리는 영령(英靈)이 전하의 평소 정성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제사지내는 도리에 있어 반드시 도움이 있을 것이므로 신이 문사(文詞)에 인용하였습니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하였다, 이 제사는 단헌(單獻)으로 거행했고, 희생(犧牲)은 흑우(黑牛)를 썼으며, 악(樂)은 배설하지 않았다. 제단의 높이는 수척(數尺)이었고, 상탁(床卓)과 포진(鋪陳)은 모두 황색(黃色)으로 하였다. 지방(紙榜)은 『오례의(五禮儀)』의 위판(位版) 척양(尺樣)에 의하여 만들어 ‘대명의종렬황제신위(大明毅宗烈皇帝神位)’라는 아홉 글자를 써서 북쪽 벽의 교의(交椅)에 붙여 놓았는데, 동계(東階) 아래에다 남쪽을 향하도록 진설하였다. 임금이 면복(冕服)을 갖추고 백관(百官)은 흑단령(黑團領)을 입고서 배제(陪祭)하였는데, 임금이 오열을 참지 못하니, 시신(侍臣)들도 감격하여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제사를 마치고는 축(祝)·폐(幣)·지방(紙榜)을 모두 불태우고 즉시 제단을 철거하였다. 이날 관원(官員)을 보내어 선무사(宣武祠)와 민충단(愍忠壇)에 제사지냈다.

### ▶ 39권 30년 5월 5일癸卯

濟州牧使李喜泰馳啓：“前牧使李衡祥，以偷採人嚴禁事啓聞，而近來飛船擺列海上，落帆中流，其數多至五十餘隻，觀其形止，實非偷採船，必是海賊也。夜則休岸下陸，盜殺公私牛馬，晝則還集船上，退浮洋中，追捕之船，如或近前，則無意潰走，反圍數重，矢石如雨，重被傷還。若非多發軍人，直用兵刃，則其勢萬無退却之理，前頭不無大可慮之事。此類雖是陸地浦民，不有禁令，便作海賊，追逐殺捕，爲民除害，少無可惜。地方官及各鎮助防將處，嚴加申飭，使持兵器，期於追捕，如得生擒，一邊啓聞，臬示島中，地方官等，如或不勤追捕，從重科罪事，定式施行。”上覽之大驚，傳于政院曰：“飛船形止，極涉殊常。此狀啓，急急出給備局，劃即稟處，且邊報何等繁重，而只言船隻數，不言船隻來泊時日，泛稱近來。既有追捕之船，則人數多少，或可揣知，而全不舉論，殊涉模糊。李喜泰從重推考。又以承旨不以密匣封入，推考。”大臣以下，夜會備局議啓曰：“臣畚與諸堂上，開見李喜泰狀啓，則所謂擺列海上者，只言多至三十餘隻，而不言船制與服色之如何，不惟不言來泊時日及人數多寡而已，其爲模糊甚矣。若是異國之人，則矢石相及之際，宜無不知之理，而乃以我國浦民疑之。且此狀啓封進，在於三月三日，而同月二十五日罪人請移之啓，及四月五日報備局瞭望無事之狀，連至而不復提論此事。以此觀之，似無可慮，而既曰船隻數多，又言矢石傷人，則兵刃從事，勢所當然。至於生擒之類，嚴囚本牧，究問其根脚情節，啓聞後臬示爲宜。地方官等，不勤捕捉者，從輕重處斷，自是牧使之職，不必定式，以此回移，且令本道監司，一邊申飭海防，一邊詳探事情，從速啓聞事，別定禁軍，給馬知委。”允之。大臣復言：“喜泰處事顛錯，狀聞朦然，不可仍畀海防重地，命削其職。蓋沿海浦民，採鮑於濟州外洋者，例受都會官公文，而奸民厭其納稅，私自入採濟州，使人禁之，船疾人衆，力不能敵，或掠奪衣服，或潛殺滅口。李衡祥嘗請嚴禁私採之類，喜泰狀啓，亦指此事，而其言有若報警，朝家方以海賊爲憂，故上下驚動，及再啓之來，都無事矣。”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가 치계(馳啓)하기를,

“전목사 이형상(李衡祥)이 투채인(偷採人)을 엄금(嚴禁)하는 일로 계문(啓聞)하였는데, 근래에 비선(飛船)이 바다 위에 널려 있으면서 중류(中流)에 돛을 내리고 있는데, 그 숫자가 50여 척이나 되도록 많으며, 그 형상을 보건대 투채선(偷採船)은 아니고 반드시 해적(海賊)입니다. 밤에는 해안(海岸)에 와 쉬면서 육지에 내려와 공사(公私)의 우마(牛馬)를 도살(盜殺)하고, 낮에는 다시 배 위에 모여 바다 가운데로 물러가는데, 뒤쫓아 잡으려는 배가 홀로 가까이 가면 도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몇 겹으로 포위하여 시석(矢石)을 비오듯 쏘아대어 크게 다친 채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군인(軍人)을 많이 내어 곧바로 무기를 쓰지 않는다면, 그 형세로 보아 물러날 이치가 만무하고, 앞으로 크게 염려할 만한 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비록 육지(陸地)의 포구(浦口) 사람이지만, 금령(禁令)을 무시(無視)하고 해적질을 하니, 뒤쫓아 살포(殺捕)하여도 백성들의 피해를 제거한다 생각하면 조금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지방관(地方官) 및 각진(各鎭)의 조방장(助防將)에게 엄히 신칙(申飭)을 더하여, 병기(兵器)를 지니고 기필코 뒤쫓아 붙잡되, 만일 사로잡거든 계문(啓聞)하는 한편 섬 가운데에서 효시(梟示)하게 하고, 지방관들이 혹시라도 뒤쫓아 잡는 데에 힘쓰지 않으면, 무겁게 죄를 주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아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보고 크게 놀라며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비선(飛船)의 형상이 매우 수상하니, 이 장계(狀啓)를 급히 비국(備局)에 내려 즉시 품처(處)하게 하라. 또 변방의 보고가 얼마나 긴급(緊重)한데, 단지 배의 척수만 말하고 선박이 와서 정박한 날짜는 말하지 않고, 범연히 근래에라고만 일컬었다. 이미 뒤쫓아 잡으려는 배가 있으면 사람 숫자의 많고 적음을 혹 미루어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전혀 거론하지 않았으니 매우 모호(糊)하다. 이희태(李喜泰)를 중중추고(從重推考)하라. 또 승지(承旨)는 밀갑(密匣)으로 봉입(封入)하지 않았으니, 추고하라.”

하였다. 대신(大臣) 이하가 밤에 비국에 모여 의논하여 아뢰기를,

“신(臣) 이여(李)와 여러 당상(堂上)이 이희태의 장계를 열어보았는데, 이른바 해상(海上)에 널려 있는 것을 단지 ‘50여 척이나 되도록 많다.’라고만 말하면서 배의 제도(制度)와 복색(服色)이 어떠한지는 말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와서 정박한 시일(時日) 및 인원수의 많고 적음도 말하지 않아서 모호함이 심합니다. 만약 이국(異國) 사람이라면 시석(矢石)을 서로 쏘는 즈음에 알지 못할 이치가 없는데, 바로 우리나라 포구 백성으로 의심했습니다. 또 이 장계를 봉진(封進)한 것이 3월 3일이었는데, 같은 달 25일에 죄인(罪人)을 옮기자고 계청(啓請)하였고, 4월 5일에는 비국(備局)에 요망(瞭望)해도 무사(無事)하다는 보고의 글이 연달아 이르렀는데, 이 일을 다시 거론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로 보건대, 염려할 일은 없을 듯하나, 이미 선척의 숫자가 많다고 하였고, 또 시석(矢石)에 사람이 다쳤다 말했으니 무기로 싸우는 일은 당연합니다. 생포(生捕)한 자에 이르러서는 본목(本牧)에 엄히 가두고, 그 근각(根脚)과 정절(情節)을 따져 물어 계문한 후에 효시(梟示)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방관들로 붙잡는 데 부지런하지 않는 자는 그 경중(輕重)에 따라 처단하고, 이로부터 목사(牧使)의 직권임을 정식(定式)할 필요는 없으니, 이렇게 회이(回移)하고, 또 본도(本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자세히 염탐하여 속히 계문하라는 일로써 별도로 금군(禁軍)을 정해 말[馬]을 주어 알리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대신이 다시 아뢰기를,

“이희태(李喜泰)는 일처리가 전도(顛倒)되고 장문(狀聞)한 바가 몽롱하여, 그대로 중요한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해방(海防)의 자리에 있게 할 수가 없으니, 그의 관직을 삭탈하게 하소서. 대개 바닷가 포구의 백성들로서 제주의 외양(外洋)에서 전복(全鰔)을 따는 자들은 으레 도회관(都會官)의 공문(公文)을 받는데, 간사한 백성들은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여 사사로이 제주(濟州)에 들어가 채취하므로, 사람을 시켜서 금하지만 배가 빠르고 사람이 많아 힘으로 당하지 못하며, 혹은 의복(衣服)을 약탈하고 혹은 몰래 죽여서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형상(李衡祥)이 일찍이 사사로이 채취하는 무리를 엄금하자고 청하였고, 이희태의 장계(狀啓)도 역시 이 일을 말한 것인데, 그 말이 경보(警報)처럼 되어 조정에서 바야흐로 해적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가 놀랐으나, 재계(再啓)가 들어옴에 미쳐 모두 무사하였습니다.” 하였다.

### ▶ 39권 30년 5월 14일 壬子

持平李東彦上疏, 條陳北路弊癘:

其一曰, 吉州, 北關大都會, 在昔城津, 以僉鎮隸焉, 故任專而勢不分, 自設防營, 事事掣肘, 邑力耗敗, 民弊滋甚. 若有邊警, 勢將各守, 聲單勢孤, 何力可賴? 防營徒侈新號, 不成貌樣, 大小責應, 取給於地方官, 而本州不能稱塞, 輒成鬧端. 平時如此, 則緩急之際, 何以調娛乎? 臣謂極擇文武中有威名者, 以吉州牧兼防禦使, 亦簡武弁差僉使, 例兼中軍, 防禦使居本州, 咸摠軍民, 中軍住城津, 專管軍事, 聲勢相接, 積弊自革矣. 其二曰, 清市私商, 大爲邊上之弊. 往時開市, 差胡皆寧固塔人, 故猶有相制之勢, 近年差胡, 率多尤羅人. 蓋彼重尤羅而輕寧固, 尤胡驕悍尤甚, 我國之人, 何以禁抑? 況北民朶頤於清貨, 竭牛馬罄財產, 往售於清市, 官雖禁遏, 百計潛通. 今若以咨文, 詳申差胡冒法私商之由, 仍請依約條施行, 則彼亦何辭違拒? 願議于廟堂而施行焉. 其三曰, 北馬素稱我國冀北, 近以私商之猥雜, 良馬率入彼中, 換買胡馬. 胡馬一匹之直, 當北馬十餘匹, 而官員貪饕者, 以北馬送于清市, 一市所買, 多至數三四匹, 潛送京家, 賂得厚價. 夫戰具專賴於地用, 邊務惟在於畜牧, 而一任其藉寇資敵, 而莫之禁, 臣竊憂之. 若令太僕, 給價於本道兵使, 每年買馬, 分養於北邑, 定期上送, 其他公私胡馬, 另飭二郵, 一切嚴禁, 則馬畜蕃息, 貪風少戢矣. 其四曰, 南北關親騎衛, 實是聳勸之良規, 而近來優等諸人, 上京求仕, 艱苦萬狀, 至有涕泣還歸者, 豈不重惹怨詛乎? 夫親騎試才之規, 勿論畫數多小, 取居首以下三人, 一年摠六人, 政官亦何能收錄? 若限以四十分入格者收用, 則政官易於收拾, 邊士自相勸課矣. 且北人除邊將, 有南北關換差之舉. 夫邊將, 俱是久勤之類, 生長南土, 猝當寒苦, 麥飯粟餐, 既不能堪, 不得不侵虐士卒. 北人則慣習飢寒, 殘堡一障, 榮比青紫. 且其山川敵情, 素所稔知, 當官盡職, 緩急可仗. 必以親騎衛優等者, 除北邊鎮堡, 其他武士, 初勿差遣. 如以家近爲嫌, 十邑中限其程道, 互換交易, 恐或得宜. 其五曰, 南關之北青、居山, 北關之鏡城、翰城, 自今必以文官曾經臺侍、武弁最有名望者, 差送, 以重邊任. 其六曰, 官物陳告免賤之路, 極其濫僞. 所謂三十口陳告, 率是虛套, 至於除役之弊, 尤極無據. 以官力備軍器, 若雜物稱以某人備納, 甚者或勒徵官妓, 以添自



已別備之數. 事雖微細, 亦關紀綱. 北道如是, 他道可知. 願罷陳告法, 退計十年來免賤者, 一竝還賤, 除役一款, 亦爲禁斷云.

又附論時事曰:

이하생략~

지평(持平) 이동언(李東彦)이 상소하여 북로(北路)의 폐단을 조진(條陳)하여 말하기를,

“첫째, 길주(吉州)는 북관(北關)의 큰 도회(都會)로서 옛날에는 성진(城津)이 첨진(僉鎭)으로서 예속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말아 형세가 나뉘어지지 않더니, 방영(防營)을 설치하면서 서부터 일마다 간섭하고 제지하여서 고을의 힘이 소모되고, 백성들의 폐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만약 변방의 경보(警報)가 있게 되면 각기 지켜야 할 형편인데, 성세(聲勢)가 고단(孤單)하니 무슨 믿을 만한 힘이 있겠습니까? 방영(防營)은 한갓 새로운 이름만 번드레하고 모양을 이루지 못하여, 크고 작은 책응(責應)을 지방관(地方官)에게서 취급(取給)하고 있으나, 본주(本州)는 책임을 다할 수가 없다 하여 시끄러운 단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시에 이러한데, 위급한 일이 있을 즈음에는 어떻게 조화(調和)되겠습니까? 신은 문무(文武) 관원 중에서 위명(威名)이 있는 자를 극진하게 가려서, 길주목사(吉州牧使)로 방어사(防禦使)를 겸임(兼任)하게 하고, 또한 무변(武弁)에서 가려 첨사(僉使)를 삼아 중군(中軍)을 예겸(例兼)하게 하여, 방어사(防禦使)는 본주(本州)에 머물러 군민(軍民)을 다 총괄하게 하고, 중군은 성진(城津)에 거주하게 하여 군사일을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면, 명성(名聲)과 위세(威勢)가 서로 인접하여 쌓인 폐단이 스스로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시(淸市)의 사상(私商)은 크게 변방의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개시(開市) 때에는 차호(差胡)가 모두 영고탑(寧固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제어하는 형세였으나, 근년에는 차호가 거의 우라(尤羅) 사람들인데, 저들이 우라인들을 중히 여기고 영고탑인을 가볍게 보아, 우호(尤胡)의 교만하고 사나움이 더욱 심하니,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금지시켜 억제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북쪽 백성들이 청나라의 물화(物貨)를 선망(羨望)하여, 우마(牛馬)를 다하고 재산을 비워하며 청시에 가서 사들이니, 관에서 비록 금지해 막지만 온갖 계략으로 몰래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문(咨文)으로써 차호(差胡)들이 법을 어기며 사상(私商)하는 까닭을 자세히 품신(申)하고, 이어 약조(約條)에 의해 시행하기를 청하면, 저들이 무슨 말로 어기며 거절하겠습니까? 원하건대, 묘당(廟堂)에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셋째, 북마(北馬)는 평소 우리나라의 기북(冀北)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근래 사상(私商)들이 외잡(猥雜)하여 양마(良馬)를 저들 가운데로 끌고가 호마(胡馬)와 바꾸고 있습니다. 호마 1 필(匹)의 값이 북마(北馬) 10여 필 값에 해당되지만, 관원으로서 탐욕스런 자들은 북마를 청시(淸市)로 보내어 한 시장에서 사들이는 것이 많으면 수삼필이나 되는데, 몰래 경가(京家)로 보내어 부당하게 비싼 값을 받고 있습니다. 대저 전구(戰具)는 오로지 토산(土產)에 의지해 사용하고, 변방의 임무는 오직 축목(畜牧)에 있는데, 한 결 같이 적의 노략질하는 데에 맡기고 적의 밀천을 삼아주고 있어도 금지하지 못하니, 신은 그웁이 걱정됩니다. 만약 태복시(太僕寺)로 하여금 본도의 병사(兵使)에게 값을 주어 매년 말을 사들여, 북쪽 고을에 나누어 기르게 하여 정기적으로 올려 보내게 하고, 기타 공사(公私)의 호마(胡馬)는 별도로 두 우역(郵驛)에 신칙하여 일체 엄금하게 한다면, 마축(馬畜)이 번식되고 탐욕스런 풍습이 조금 그치게 될 것입니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넷째, 남북관(南北關)의 친기위(親騎衛)는 실로 권장할 만한 좋은 규정이나, 근래에 우등(優等)을 한 여러 사람이 상경(上京)하여 벼슬을 구하고 있는데, 온갖 고생을 다하며 심지어 울면서 돌아가는 자까지 있으니, 어찌 원망과 비난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대저 친기(親騎)를 시재(試材)하는 규정은 획수(數)의 다소를 물론하고 거수(居首) 이하 3인(人)을 뽑아서 1년에 총 6인이 되니, 정관(政官) 역시 어떻게 거두어 쓰겠습니까? 만약 40분(分)을 한정하여 입격자를 수용한다면, 정관(政官)은 수습하기가 쉽고, 변사(邊士)들도 저절로 과업(課業)에 부지런해질 것입니다. 또 북쪽 사람에게 변장(邊將)을 제수하여, 남·북관(南北關)을 바꾸어 차임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저 변장은 모두 오랫동안 근무했던 무리들인데, 남쪽 지방에서 성장하여 갑자기 추위로 괴로움을 당하고, 보리밥과 잡곡밥을 감당하지 못하여 사졸(士卒)을 침학(侵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기한(飢寒)에 습관이 되어, 잔폐(殘廢)한 보(堡)를 하나만 얻어도 그 영광을 청자(靑紫)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산천(山川)과 적정(敵情)을 평소 잘 알아서 관에 있게 되면 직책을 다할 수가 있고, 완급(緩急)한 일이 있으면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친기위(親騎衛)의 우등한 자로 북쪽 변방의 진보(鎭堡)에 제수하고, 기타 무사(武士)는 처음부터 차견(差遣)하지 마소서. 집이 가까운 것이 혐의스러우면 10 읍(邑) 가운데서 그 도정(道程)을 한정하여 서로 바꾸도록 한다면 혹 마땅할 듯합니다.

다섯째, 남관(南關)의 북청(北靑)·거산(居山)과 북관(北關)의 경성(鏡城)·수성(楡城)은 지금부터 반드시 문관(文官)으로서 일찍이 대간(臺諫)·시종(侍從)을 지낸 자와, 무변(武弁) 가운데 가장 명망(名望)이 있는 자를 차송(差送)하여 변방의 직임을 중히 하소서.

여섯째, 관물(官物)을 진고(陳告)하여 면천(免賤)하는 길이 지극히 거짓되고 외람(猥濫)됩니다. 이른바 30구(口)를 진고하는 것은 거의 거짓이며, 역(役)을 면제하는 폐단은 더욱 근거가 없습니다. 관(官)의 힘으로 군기(軍器)를 갖춘다고 하면서, 잡물(雜物) 같은 것을 누가 갖추어 납부했다고 일컫고, 심한 자는 혹 관기(官妓)에게 억지로 징수하여 자기가 별도로 갖추어 놓은 숫자에 넣기도 합니다. 일이 비록 미세하지만 역시 기강(紀綱)에 관계되는데, 북도가 이러하니, 다른 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원하건대 진고법(陳告法)을 없애고 소급하여 10년 이래 면천한 자는 한 결 같이 아울러 환천(還賤)하고, 역을 면제하는 한 조항은 역시 금단(禁斷)하소서.”

하였고, 또 시사(時事)를 부론(附論)하여 말하기를,  
이하생략~

### ▶ 40권 30년 10월 16일 癸未

押送漂漢人于北京。先是，異國人衆，漂到珍島桃浦，問之，卽是福建、江浙人，行商日本而臭載者也。凡一百十三人。所齎象牙、犀角、蘇木、細藤等種，幾盡沈失，潮退後始見船隻，沈着海底泥淖，微露一角，而率衆力挽，終不可運。其人既無以自歸，故朝家不得已解送彼中。且其物貨，渠無帶去之力，故自戶曹從其願給價，俾不失利，非利其財。待遠人之道當如是也。至是，押到都城，製給衣袴、笠靴等物，優賜盤纏，縣道傳食而遣

之, 其人不勝感祝, 撰進謝恩啓帖曰:

皇圖建極, 東國爲乾坤之勝區; 奕葉潢流, 名邦乃哲聖之神裔. 山明水秀, 人傑地靈. 恭惟皇上仁聖懿衷, 視民如大禹之身同飢渴, 愷惻垂念, 恤難勝文王之澤及枯骨. 覆載之恩, 施及螻蟻; 生成之德, 傳至遐方. 使等【使, 其名也.】自七月廿五, 奄見舟破南桃, 已擬身葬北溟. 幸據皇上垂如天之德, 廣好生之仁, 恩洽衣食, 驛供馬匹, 差官護持, 准與歸國. 使等卽捐百餘人之頂踵, 難報億千萬之隆德也. 茲到大國, 思匍叩之未及, 瀝下情以鳴哀, 回程之日, 再啓陳辭. 使等無任瞻天仰聖合辭叩謝之至. 頭辭曰, 大清福建省(難)〔雜〕商黃使、李時芳、蔡陳、李仕、林森、陳鸞、王攀、鄒臣等, 率衆爲謝恩事云云.

去時, 又進啓帖.

표착(漂着)한 중국 사람들은 북경(北京)에 압송(押送)하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국(異國) 사람의 무리가 진도(珍島)의 도포(桃浦)에 표착(漂着)하였는데, 물어 보니 곧 복건성(福建省)·강소성(江蘇省)·절강성(浙江省) 등지의 사람으로 일본(日本)에 가서 장사하고 돌아가다가 침몰한 자들이었으며, 무릇 1백 13인이었다. 가지고 오던 상아(象牙)·서각(犀角)·소목(蘇木)·세등(細藤) 등 물종(物種)은 거의 모두 물속에 잠겨서 잃었는데, 조수(潮水)가 물러간 뒤에 비로소 배는 바다 밑에 잠겼으나 진창 위로 배의 한 귀퉁이가 조금 드러난 것을 보고 못사람을 거느리고 힘껏 끌어당겼지만 끝내 배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스스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으므로, 조가(朝家)에서 하는 수 없이 그들의 나라로 호송(護送)하게 된 것이다. 또 그 물화(物貨)는 그들이 가지고 갈 힘이 없으므로, 호조(戶曹)에서 그 원하는 바에 따라 값을 주어서 이(利)를 잃지 않게 하였으니, 그 재화(財貨)를 탐낸 것이 아니라 먼 곳의 사람을 대우하는 도리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다. 이때에 와서 압송(押送)하여 도성(都城)에 이르러서, 옷·갓·신 등의 물건을 만들어 주고 노자(路資)를 넉넉하게 주어 현도(縣道)에서 차례로 먹여 보내게 하니, 그 사람들이 감축(感祝)을 금하지 못하여 사은(謝恩)하는 계첩(啓帖)을 지어 올리기를,

“황도(皇圖)에 건국(建極)하니 동국(東國)은 하늘과 땅 사이의 승구(勝區)가 되었고, 대대로 큰 덕이 전하니 명방(名邦)은 바로 철성(哲聖)의 거룩한 후예(後裔)입니다. 산수(山水)가 밝고도 빼어나니, 인물이 걸출(傑出)하고 지세(地勢)가 수려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황상(皇上)께서는 인자하고 성스러운 아름다운 뜻으로, 백성 보기를 마치 우왕(禹王)이 몸소 기갈(飢渴)을 함께 하는 것처럼 하시고, 측은히 여기는 생각으로 고난(苦難)을 구휼(救恤)함은 문왕(文王)의 은택(恩澤)이 고골(枯骨)에 미친 것보다 나으셨습니다. 부재(覆載)의 은혜는 누의(蟻)에게 미치고, 생성(生成)의 덕은 전하여 하방(遐方)에까지 이르십니다. 사(使)【사(使)는 그 이름이다.】 등이 7월 25일에 남쪽의 도포(桃浦)에서 갑자기 파선(破船)되어 몸을 북쪽 바다에 장사 지내는 줄 이미 알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황상(皇上)께서 하늘 같은 덕을 내리시고 호생(好生)의 인덕(仁德)을 넓히심을 힘입었습니다. 은혜는 의식(衣食)이 흠족하고, 역(驛)에서 마필(馬匹)을 공급하셨으며, 관원을 차견(差遣)하여 보호하여서 본국(本國)으로 돌려보내 주시니, 사(使) 등의 백여 인은 죽을힘을 다하여 몸을 바쳐도 끝없는 높은 은덕에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국(大國)에 이르러 기어가서 문을 두드릴 것을 생각하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였으나, 미치지 못하므로, 하정(下情)을 피력(披瀝)하여 슬픔을 호소합니다. 회정(回程)하는 날에 다시 아뢰어 말씀을 진달하겠습니다. 사(使) 등은 하늘을 쳐다보고 성상(聖上)을 우러러서 합사(合辭)하여 머리를 조아려 간곡하게 사례합니다.”

하고, 두사(頭辭)에 이르기를,

“대청국(大清國) 복건성(福建省)의 잡상(雜商) 황사(黃使)·이시방(李時芳)·채진(蔡陳)·이사(李仕)·임삼(林森)·진난(陳鸞)·왕반(王攀)·추신(鄒臣) 등은 무리를 거느리고 사은(謝恩)합니다.”

하였다. 떠나갈 때에 또 계첩(啓帖)을 올렸다.

### ▶ 40권 30년 12월 21일 丁亥

大報壇成. 壇在昌德宮禁苑之西曜金門外, 舊別隊營之地. 壇制用左議政李畚言, 倣我國社稷之制, 有壇有牆, 牆高四尺, 比社壇加高一尺, 方廣二十五尺, 四面皆爲九級. 壇、牆四面, 皆三十七尺, 自壇所築外牆, 以防行人俯視. 自十月初三日始役, 至是訖工, 禮曹判書閔鎮厚、工曹判書徐宗泰、戶曹判書趙泰采, 終始監董. 其間鎮厚以守禦使職事, 出往南漢, 金鎮圭以次官, 承命董役者, 頗久. 祭祀時定議, 附見于左, 諸大臣, 皆以一年一祭爲宜, 行祭日期, 或謂宜用孟春, 或謂宜用三月, 或謂宜用二月, 或謂宜用四月, 終以三月爲定. 壇號, 初以閔鎮厚言, 欲稱泰壇, 又命牌招二品以上, 議定之, 因右相李濡言, 今大提學宋相琦, 撰定卽今號也. 樂用八佾而樂章亦相琦所撰進也. 畚以爲宜倣文廟釋菜時樂章, 諸大臣請依社稷祭樂章, 上從其言. 壇上帳殿, 用黃色紬段, 爲內帳, 如我國帳殿, 滿頂骨之規, 以一片木, 加漆, 長廣如我國闕字版及外方殿牌之制, 加以跗方, 奉置卓上, 付以黃紙榜, 而使書寫官, 題其面曰大明神宗皇帝神位, 祭後燎其紙榜, 木片則藏之櫝中, 每於祭時出用. 諸議皆以爲然, 從之. 登歌、軒架, 依社壇制排置, 祭物品數, 依皇朝儀式, 祭器亦依『大明集禮』圖式, 而祭器, 依古禮竹籩等制爲之. 神室、黃帳房, 依『會典』圖說造成, 祭文中, 命勿書清國年號, 命勿差壇所守直官, 只使禮官主管焉. 登歌以下節目, 皆金鎮圭議大臣, 面陳稟定者也. 畚請依『集禮』之文, 連奠三酌, 而薦俎一款, 畚以爲不可行, 諸大臣皆以爲可行, 命行之. 鎮厚以爲, “省牲、薦俎, 不必親行, 而望瘞燎、紙榜等節, 事體尤重, 似當親行.” 從之. 鎮厚又以爲: “或云: ‘皇朝尙火德, 犧牲當用赤色.’ 請用騂牛.” 亦從之. 擇定解事者數人, 行祭時任使焉. 節目講定時, 禮官請對申稟, 前後甚數, 大抵收議大臣而爲之.

대보단(大報壇)이 준공(竣工)되었는데, 단(壇)은 창덕궁 금원(禁苑)의 서쪽 요금문(曜金門) 밖 옛날 별대영(別隊營)의 터에 있었다. 단의 제도는 좌의정 이여(李)의 말에 따라 우리나라 사직의 제도를 모방하여 유가 있고 장(牆)이 있는데, 담장 높이는 4척(尺)으로서 사직단에 비하여 1척이 높고 사방 넓이가 25척이며 네 면에 모두 9급의 층계(層階)가 있었다. 유와 장(牆)의 네 면은 모두 37척이요, 단소(壇所)로부터 외장(外牆)을 쌓아 행인(行人)이 내려다

보지 못하게 하였다. 10월 초3일로부터 역사를 시작하여 이때에 이르러 공사를 마쳤는데, 예조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공조판서(工曹判書) 서종태(徐宗泰)·호조판서(戶曹判書) 조태채(趙泰采) 등이 시종 감독했다. 그 사이 민진후(閔鎭厚)는 수어사(守禦使) 직임의 일로 남한산성에 나가 있었고 김진규(金鎭圭)가 차관(次官)으로 명을 받들고 공역을 감독한 지 매우 오래 되었다.

제사 지낼 때를 정한 의논은 아래에 덧붙여 보이는데, 여러 대신들이 모두가 1년에 한 번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으며, 제사를 행하는 기일에 있어서는 혹은 정월이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3월이 마땅하다 하였으며, 혹은 2월이 마땅하다 하고 혹은 4월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나, 마침내 3월로 결정되었다. 단호(壇號)는 처음에 민진후의 말로 태단(泰壇)으로 정하고자 했으나, 또 2품 이상의 관원을 패초(牌招)하여 의논해서 정하게 했는데, 우의정 이유(李濡)의 말로 인해 대제학 송상기(宋相琦)에게 명하여 찬정(撰定)하게 했으니, 곧 지금의 이름이다. 악(樂)은 팔일(八佾)을 쓰고 악장(樂章)은 또한 송상기가 지어 올린 것이다. 이여(李)는 문묘(文廟)의 석채(釋菜) 때의 악장을 모방함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나, 여러 대신이 사직제(社稷祭)의 악장에 의거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 말을 따랐다.

단상의 장전(帳殿)은 황색 명주를 써서 내장(內帳)을 만들었으니, 우리나라의 장전(帳殿)과 같았고, 만정골(滿頂骨)의 규격은 일편(一片)의 목판(木板)에 옷칠을 했는데 길이와 넓이는 우리나라의 궐자판(闕字版)과 외방에 있는 전패(殿牌)의 제도와 같이 하고 부방(方)을 더 하여 탁상에 받들어 두었다가 여기에 황지방(黃紙)을 붙여서 서사관(書寫官)을 시켜 그 면(面)마다 제호(題號)하기를 ‘대명 신종 황제 신위(大明神宗皇帝神位)’라 썼으며, 제사를 지낸 뒤에는 지방(紙)을 불태우고 나무조각은 궐 속에 간직했다가 제사 때마다 꺼내어 쓰기로 했다. 여러 신하들의 의논이 모두 그러하니 임금이 이를 따랐다.

등가(登歌)와 헌가(軒架)는 사직단(社稷壇)의 제도에 의하여 배치(排置)하였고 제물(祭物)의 품수(品數)는 황조(皇朝)의 의식(儀式)에 의거했으며, 제기(祭器) 역시 『대명집례(大明集禮)』의 도식(圖式)에 의거했는데, 제기는 고례(古禮)의 죽변(竹) 등의 제도에 따라 만들었다. 신실(神室)과 황장방(黃帳房)은 명나라 『회전(會典)』의 도설(圖說)에 의해서 조성했고 제문(祭文) 중에는 청나라 연호를 쓰지 말도록 분부했으며, 단소(壇所)의 수직관(守直官)은 차정(差定)하지 않고 단지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다. 그리고 등가(登歌) 이하의 절목은 모두 김진규가 대신과 의논하여 면전에서 품의하여 정한 것이다.

이여(李)가 『대명집례』의 글에 의거하여 삼작(三酌)을 잇따라 올리기를 청하였고 천조(薦俎)의 한 조항에 있어서 이여는 시행함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여러 대신들이 모두 시행함이 옳다고 주장했으므로 시행하라고 분부하였다.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성생(省牲)과 천조(薦俎)는 몸소 시행할 필요가 없고 지방(紙)을 불사라 묻는 것을 바라보는 등의 절차는 사체가 더욱 중대하니, 친행(親行)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민진후가 또 말하기를,

**“혹자의 말에 ‘황조(皇朝)에서는 화덕(火德)을 숭상하므로 희생(犧牲)도 붉은 빛깔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하오니, 청컨대 붉은 소[牛]를 쓰소서.”**

하니, 또한 그대로 따랐다. 사리를 자세히 아는 수인을 가리어 정하고 제사를 행할 때 임무를 맡겨 수행토록 했다. 절목을 강정(講定)할 때에 예관(禮官)이 청대(請對)하여 신품(申)함이 전후에 매우 빈번했는데, 대저 대신(大臣)에게 수의(收議)하여 한 것이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 40권 30년 12월 28일 甲午

釐整廳進五軍門改軍制及水軍變通節目. 初, 上以良民身役最苦, 白骨徵布, 爲當今痼弊, 思有以變通之命, 設廳釐整, 而命李濡, 主其事, 以閔鎮厚、李寅燁、俞得一、俞集一等, 爲其堂上, 差出郎屬, 同加講究, 再閱歲, 始上五軍門改軍制及兩南水軍變通節目.

~중략~

一, 一年餘布用下遺在之數, 年終成冊, 上送備局, 以爲知數之地, 濫用餘布者, 論以違制之律, 計贓論罪. **【如水操時, 犒饋牛價、賞格及水使四名日祭馱二疋價, 亦許用餘布, 煩碎不盡記.】**各船軍制定額數云, 戰船一隻, 船直、舞上、舵工、繚手、碇手、射夫、火炮匠、砲手、捕盜將、櫓軍並一百六十四人, 龜船一百四十八人, 偵探船七十九人, 兵船十七人, 伺候船五人. 各營、鎮防軍布磨鍊數云, 統營八戰船元防軍, 不立防軍, 射夫、添射夫, 並七千六百三十六人, 每人捧綿布二疋, 計除風高風和各六朔給代之數, 及各船陸物價, 虞候屬給代, 朔布之數, 餘布六千五百疋零. 左水營、釜山等鎮、全羅左右水營、防踏等鎮餘布, 以此爲準, 多寡不同, 而各有定數. 各船陸物, 亦爲磨鍊, 戰船、兵船、伺候船、偵探船、龜船一隻一年容入物件, 如草茈、眞席等種, 皆定價有差, 甚至伺候船瓢子二介, 亦定價布, 三尺六寸”云, 命頒布施行. 此事李濡主之, 而大抵俞集一所講定也. 閔鎮厚、俞得一, 亦與同議, 李寅燁疏陳其不可, 終始不預焉. 水軍節目既頒之後, 慶尙觀察使金演、統制使李昌肇, 相繼馳啓, 言其不便. 昌肇語侵廟堂, 全羅水使李碩寬, 擅徵水軍布三疋如舊, 皆被罪, 其後乃得施行.

【史臣曰: “白骨徵布之弊, 誠不可不革矣, 水軍偏苦之役, 誠不可不寬矣. 減軍門數萬之兵, 而充虛簿逃故之代, 除防軍一疋之布, 而定海關需用之數, 一以慰疲氓, 이하생략~

이정청(釐整廳)에서 오군문(五軍門)의 군제(軍制)를 고치고 수군(水軍)을 변통하는 절목(節目)을 올렸다. 처음에 임금(李)이 양민(良民)의 신역(身役)으로 가장 괴로운 백골 징포(白骨徵布)가 지금의 고폐(痼弊)가 된다고 하여 이를 변통하려고 생각하였다. 이에 이정청(釐整廳)을 설치하여 이유(李濡)에게 그 일을 주관하게 하고 민진후(閔鎭厚)·이인엽(李寅燁)·유득일(俞得一)·유집일(俞集一) 등을 당상(堂上)으로 삼았으며, 낭속(郎屬)들을 차출하여 함께 힘을 합쳐 강구(講究)토록 하였는데, 두 해를 넘겨 비로소 오군문(五軍門)의 군제(軍制)를 고치고 또 양남(兩南)의 수군(水軍)을 변통하는 절목을 올리게 되었다.

~중략~

1. 1년 동안 여포(餘布)를 사용하고 남은 재고의 수는 연말에 책으로 만들어 비국에 올려 보내어 그 수량을 알게 하며, 여포를 남용한 자는 위제(違制)의 율로 다스리되 장물(贓物)을 계산하여 논죄할 것. **【수군(水軍)을 조련할 때에 호궤(饋)에 쓰는 소 값과 상품(賞品) 및 수사(水使)의 사명일(四名日)에 쓰는 제대(祭) 2필(疋) 값 같은 것도 또한 여포(餘布)에서 쓰는**

**것을 허락했으나, 자질구레한 것을 낱알이 기록할 수 없다.】**

각 선군(船軍)의 제정(制定)한 액수에는 전선(戰船) 1척에 선직(船直)·무상(舞上)·타공(舵工)·요수(手)·정수(碇手)·사수(射手)·화포장(火匠)·포수(砲手)·포도장(捕盜將)·노군(櫓軍)이 포함 1백 64인이요, 귀선(龜船)은 1백 48인이요, 정탐선(偵探船)은 79인이요, 병선(兵船)이 17인이요, 사후선(司候船)은 5인입니다. 각영과 진의 방군(防軍)에서 군포(軍布)를 마련한 수효에는 통영(統營) 8전선(戰船)의 원방군(元防軍)은 방군을 세우지 않고 사부(射夫)와 첨사부(添射夫)가 모두 7천 6백 36인으로 매인당 면포(綿布) 2필씩을 받는데 풍고(風高)와 풍화(風和)의 각 6개월에 대한 급대(給代)의 수량 및 각선(各船)의 육물가(陸物價)와 우후(虞候)에 속한 급대(給代)와 삭포(朔布)의 수량을 공제하면 여포(餘布)가 6천 5백필 남깁니다. 좌수영·부산(釜山) 등의 진과 전라(全羅) 좌·우수영 및 방답(防踏) 등 진의 여포도 이에 준하여 다과(多寡)는 다르나 각기 정수(定數)가 있습니다. 각선의 육물가(陸物價)를 또한 마련하였고, 전선·병선·사후선·정탐선·귀선(龜船) 1척에 대해 1년에 드는 물건과 초둔(草苴) 진석(眞席) 같은 종류에까지도 모두 차등을 두어 값이 메겨져 있고, 심지어는 사후선(司候船)에 쓰는 표주박 2개의 값까지도 면포 3척 6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니, 이를 반포(頒布)하여 시행하라고 분부하였다. 이 일은 이유(李濡)가 주관하였으나 대체로 유집일(兪集一)이 강구하여 정한 것이요, 민진후와 유득일(兪得一) 또한 함께 의논하였는데, 이인엽(李寅燁)은 상소하여 그 불가함을 진달하고 종시 참여하지 않았다. 수군 절목이 이미 반포된 뒤에 경상도 관찰사 김연(金演)과 통제사 이창조(李昌肇)가 서로 잇따라 치계(馳啓)하여 그 불편함을 말하였는데, 이창조의 말이 묘당(廟堂)을 침범하였고, 전라수사(全羅水使) 이석관(李碩寬)은 수군포(水軍布) 3필을 종전과 같이 함부로 징수했다 하여 모두 죄를 입었으며, 그 뒤에야 시행되었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백골 징포(白骨徵布)의 폐단은 참으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고 수군의 편벽된 고역(苦役)은 참으로 늦추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군문의 수만 군사를 줄이어 허부(虛簿)의 도망하고 물고(物故)된 대신에 보충하게 하였고, 방군(防軍)의 군포 한 필을 제하고 해곤(海)의 수용(需用)에 필요한 액수를 정하여 한편으로는 피로해서 지친 백성을 위안하고

이하생략~

▶ 46권 34년 5월 29일 甲辰

司宰奉事李相休應旨上疏，陳修實德，開言路，禁橫斂，革折受，平獄訟，祛黨習數事，且言：

方今松蟲日滋，盜賊橫行，妻殺其夫，女殺其父，天理滅絕，人彝斃敗，此非薄物細故，而至於城池、軍制、兵餉、器械，尤係軍國大事。江都、北漢之役，雖難並舉，次第經營，可爲必歸之所，而富豪閑遊之徒，別設三廳，頻數鍊習，則豈非精銳之卒也？中外之倉廩如洗，饋餉之不絕何望？省費節用，預爲蓄積，則軍儲自供，國有所恃矣。鐵甲重不能運，角弓值濕傷折，甲用倭制牛皮，弓用交子木，則強弓、堅甲，可以利用。伏願廣造服習，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以盡防患之道.

答曰: “應旨進言, 出於憂愛, 可不留意, 而他餘條陳, 令廟堂採施. 女殺其父, 果有是變, 則事之驚心, 孰大於此? 宜令攸司稟處.”

사재감봉사(司宰監奉事) 이상휴(李相休)가 응지(應旨)하여 상소하며, 실덕(實德)을 닦고 언로(言路)를 열며, 횡렴(橫斂)을 금(禁)하고 절수(折受)를 혁파하며, 옥송(獄訟)을 공평하게 하고 당습(黨習)을 제거하는 몇 가지 일을 진달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송충(松蟲)이 날로 번성하고 도적(盜賊)이 횡행(橫行)하며,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딸이 아버지를 죽이는 등 천리(天理)가 멸절(滅絕)되고 인륜(人倫)이 두패(敗)되었으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지(城池)·군제(軍制)·병향(兵餉)·기계(器械)에 이르러서는 더욱 군국(軍國)의 대사(大事)에 관계됩니다. 강도(江都)와 북한산성(北漢山城)의 역사는 비록 한꺼번에 일을 일으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차례로 경영(經營)하면 반드시 귀결(歸結)되는 바가 있을 것이며, 부호(富豪) 중에 한가로이 노니는 무리는 별도로 삼청(三廳)을 설치하여 자주 연습(鍊習)시키면 어찌 정예(精銳)한 군졸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중외(中外)의 창름(倉)이 씻은 듯이 저축이 없으니, 궤향(饋餉)이 끊기지 않음을 어찌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비용을 줄이고 씹씀이를 절약하여 미리 축적(蓄積)한다면 군량의 저축에 스스로 공급되어 나라에서 믿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철갑(鐵甲)은 무거워 운반할 수 없고, 각궁(角弓)은 습기를 만나면 상하여 부러지니, 갑옷은 왜제우피(倭制牛皮)를 사용하고 활은 교자회목(交子回木)을 사용하면, 강궁(強弓)과 견갑(堅甲)을 이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니, 삼가 원하건대 많이 만들어 복습(服習)시켜서 환난(患難)을 방지하는 방법을 다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응지(應旨)하여 진언(進言)한 것이 나라를 근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왔으니, 유의(留意)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기타의 조목별로 진달한 것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채택하여 시행하게 하겠다. 그러나 딸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러한 변고(變故)가 과연 있었다면, 일이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하는 것이 무엇이 이보다 크겠는가? 마땅히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 ▶ 47권 35년 7월 5일 甲戌

引見大臣、備局諸宰. 全羅監司李震壽以折半留庫穀物及山城軍餉, 量宜分糶事, 先已分付列邑, 而仍爲狀請稟處, 左議政徐宗泰以爲: “此雖出爲民之意, 而先給後稟, 事涉顛倒, 請推考.” 上可之. 仍下教曰: “大抵姑息之政多, 故作事漸不如古. 守令以姑息而論報, 監司以姑息而狀請, 退捧減捧, 國穀漸縮. 此莫非姑息之病, 予嘗慨然矣.” 宗泰又請未及分給者, 使卽停止, 上可之. 工曹參判趙泰耆, 盛言故參判曹漢英庚辰一疏, 凜然有尊周之誠. 三年燕獄, 危辱備至, 而終不屈服, 宜有易名之典. 宗泰又稱其節概文章, 可合賜諡, 命贈職贈諡. 泰耆又陳故府尹黃一皓, 被禍慘然之狀, 請一體贈諡, 上曰: “日昨



舉動時，過南別宮紅門外，想其冤死之狀，心甚惻然也。其許之。”宗泰又陳故判書朴長遠，名德行檢，請特贈議政，上許之。司諫李頤晚論：“土豪之貽害小民，不可勝言。富饒者多積(子)〔財〕貨、錢穀，散給貧丐之類，以田土文券，爲其典當，及利息日滋，無以准償，以其所典當者，仍成買賣，奪其田土，且稍有氣勢者，誘聚游民，曲加庇護，脫免烟役，公然驅使，甚至屠牛販利，匿結逃賦。請申飭各道監司，摘發科治。”上從之。又論：“廚院副提調坡山都正杉，行己鄙陋，處事狂悖，視膳之際，舉措乖戾。且路遇大臣，不識回避，及其被呵，隨後哀乞，請遞差。”上不從，屢啓始允。

대신과 비국의 여러 재신(宰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전라감사(全羅監司) 이진수(李震壽)가 창고에 남아있는 절반의 곡물(穀物)과 산성(山城)에 있는 군향(軍餉)을 적당하게 요량하여 분조(分)하는 일을 이미 먼저 각 고을에 분부해 놓고, 이어 품처(處)하기를 장청(狀請)하였는데, 좌의정 서종태(徐宗泰)가 아뢰기를,

“이는 비록 백성을 위하는 뜻에서 한 일이지만, 먼저 주어놓고 뒤에야 계품(啓)함은 일이 전도(顛倒)된 것이니, 청컨대 추고(推考)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였다. 이어 하교(下敎)하기를,

“대저 행정을 우선 편하게 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점점 그전만 못하게 된다. 수령(守令)도 우선 편한 대로 논보(論報)하고 감사(監司)도 우선 편한 대로 장청(狀請)하고서, 물리어 받는 것을 하고 감해서 받는 것을 하므로 국고(國庫)의 곡식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는 우선만 편하려고 하는 병폐가 아닐 수 없기에 내가 일찍이 개탄해 왔다.”

하니, 서종태가 또한 미처 나누어 주지 않은 것은 즉시 정지하게 하기 청하자,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공조참판 조태구(趙泰耆)가 많은 말을 하며 아뢰기를,

“고 참판 조한영(曹漢英)이 경진년에 올린 상소 한 장은 능연(然)하여 존주(尊周)하는 정성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연경(燕京)의 감옥에 있을 적에 위태로운 모욕을 두루 겪으면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역명(易名)하는 특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고, 서종태는 또 아뢰기를,

“그의 절의(節義)와 문장(文章)을 시호(諡號)를 내릴 만합니다.”

하니, 증직(贈職)하고 시호를 내리도록 명하였다. 조태구가 또 고(故) 부윤(府尹) 황일호(黃一皓)가 참혹하게 화입은 상황을 진달하며 같이 시호를 내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어제의 거동 때에 남별궁(南別宮)의 홍전문(紅箭門) 밖을 지날 적에 그가 원통하게 죽은 상황을 상상하자 마음에 매우 측은하였다. 허락한다.”

하였다. 서종태가 또 고 판서 박장원(朴長遠)의 명망 덕행 행신을 진달하며 특별히 의정(議政)을 증직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사간 이이만(李晩)이 논계(論啓)하기를,

“토호(土豪)들이 소민들에게 끼치는 폐해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요(富饒)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자 놀이하느라 돈과 곡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흙어 놓으며 전토(田土)의 문서를 전당(典當) 잡았다가, 이자가 날로 불어나 갚을 수 없게 되면 그 전당 잡은 것을 그대로 매매(買賣)한 것으로 만들어 그의 전토를 빼앗아버리고, 또한 조금 세력이 있는 사람은 유민(遊民)들을 유혹하여 모아 이모저모로 비호(庇護)해 주며 연호(烟戶)의 부역을 포탈하여 면하게 해 놓고서 공공연히 구사(驅使)하고 있고, 심지어는 소를 도살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을 하고 전결(田結)을 숨기어 부역을 피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 청컨대 각도 감사(監司)를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신칙하여 적발해서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따랐다. 또 논계하기를,

“사용원부제조(司饗院副提調) 파산도정(坡山都正) 이삼(李杉)은 행신이 비루하고 처사가 광패(狂悖)하여, 시선(視膳)할 적에 거조(舉措)가 어그러졌습니다. 또 길에서 대신을 만나서도 돌아설 줄을 알지 못하다가 꾸지람을 받게 되자 뒤따라가며 애걸(哀乞)하는 짓을 했었으니, 청컨대 체차(遞差)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다가 여러 번 아뢰서야 비로소 윤허하였다.

### ▶ 47권 35년 10월 10일 丁未

丁未/持平徐命淵上疏, 首請以一箇實字, 體驗身心, 參互事爲, 以爲不篤不措之功, 又請蕩洗文爲之末, 習用新一代之精神, 頻引輔臣, 賜坐論事, 如宋朝天章、皇朝煖閣故事, 脫略虛文, 開示中誠, 施設之際, 廣採群情, 赫然明斷, 毋致輕撓. 又論:

諸宮家、各衙門折受還給, 徒有其名, 未有其實, 而度支每於節使入燕, 輒以二千金, 買取錦段、豐貂, 以備御供衣襪, 流來舊例, 雖不可輕議, 方當民窮財竭之日, 豈無裁損之道, 而況聞貿來之物, 不盡爲御用, 羨餘之數, 或爲頒賜諸宮之歸云, 是亦不可以已乎? 或減其物種, 省其羨數, 取足爲御供而止, 或間年送貿, 以省不急之費, 則其於尙儉之實, 豈不有益哉?

又論守令遴選之道曰:

自今另勅銓部, 抑其躁妄, 舉其才能, 必以曉事識體者, 選爲守令, 則庶得爲官擇人之實, 而若有屢試顛沛, 罪干贓污, 則追正銓官謬舉之罪焉. 侍從之莅外邑者, 久任責成, 聲績頗著者, 擢試大邑, 治有異等, 實效茂著, 則雖用漢代賜金增秩, 入補九卿之法, 亦無不可矣. 且其拜辭也, 輒賜引對, 別加飭諭, 則人人必思自勵, 而如有不似者, 卽加澄汰, 則該曹初不敢以不似者舉擬矣. 至於賑後考績, 必以活民善治爲律, 勿以穀數爲差, 只以治最八道者, 方許加資, 則稍近於古者用治行, 爲天下第一之意矣. 清北守令, 亦間以侍從差遣, 如祖宗朝滿浦等處文臣差送之例, 則彈壓慰悅之道, 庶有實效矣. 近來西路邊將, 多以本土人差送, 專務善事, 不識防備, 亦申飭該曹, 勿以西路人, 填差本道邊將焉. 臣頃詣臺廳, 目見女僕之負戴出入者, 連絡成群, 牛馬馱載者, 雜遷於政院、賓廳之間, 而略無呵禁. 此後嚴加禁斷, 無使有其名而無其實焉.

答曰: “歲貿唐物, 令尙方稟旨量減. 守令、邊將事, 令該曹稟處. 闌入雜人事, 固當嚴禁, 而牛馬出入, 自是呈手本爲之者, 不宜混禁也.”

지평 서명연(徐命淵)이 상소하여 맨 먼저 청하기를,

“하나의 ‘실(實)’자를 몸과 마음에 체험하고 일을 하는 때에도 참량(參量)해서 하되, 독실(篤實)하게 하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않는 공력을 들이소서.”

하고, 또 청하기를,

“형식만 갖추는 말단의 풍습을 씻어내어 한 시대의 정신을 쇄신(刷新)하고, 자주 대신들을 인견(引見)하여 자리에 앉히고서 일을 논하기를, 송조(宋朝)의 천장각(天章閣)과 황조(皇朝)의 난각(煖閣) 고사(故事)처럼 하시되, 형식은 덜어 치우고 마음 속의 성의(誠意)를 보여 주시고, 일을 시설(施設)할 적에는 널리 대중의 심정을 채택(採擇)하여 분명하게 결단하기를 혁연(赫然)하게 하고 경솔하게 변동하지 마소서.”

하고, 또 논하기를,

“제궁가(諸宮家)와 각 아문(衙門)이 절수(折受)했던 것을 도로 내주는 일은 한갓 그 이름만 있고 실지로 한 일은 있지 않았습시다. 탁지(度支)에서 절사(節使)가 연경(燕京)에 들어갈 적마다 으레 2천여 금(金)으로 금단(錦段)과 풍초(豐貂)를 사다가 어공(御供)의 의대(衣)에 대비함은 그전부터 내려오는 준례(舊例)기에 비록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기는 합니다마는, 바야흐로 백성이 곤궁해지고 재정(財政)이 고갈된 때를 당해서는 어찌 재량하여 감하는 방도가 없겠습니까? 하물며 듣건대 무역(貿易)해 온 물건들은 모두 어용(御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수효를 더러는 제궁(諸宮)에 반사(頒賜)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을 또한 그만둘 수 없겠습니까? 혹은 물건 가지 수를 감하고 남아도는 수량에 있어서도 감하여 어공(御供)에 족하게 하는데 그치지 말고, 혹은 한 해씩을 띄워서 사오게 하여 시급하지 않은 비용을 덜게 한다면, 검소함을 숭상하는 실속에 있어서 어찌 유익함이 없겠습니까?”

하고, 또 수령(守令)을 잘 가려야 하는 도리에 관하여 논하기를,

“이제부터는 따로 전부(銓部)를 신칙하여, 조급하고 망령된 사람은 억제하고 재주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들어 쓰되, 반드시 사체를 아는 사람을 가리어 수령으로 삼는다면, 거의 관직(官職)을 위해 인재를 선택하는 실속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혹시라도 여러 차례 시험해 보아도 전패(顛沛)하게 되거나 장오죄(贓汚罪)를 범하게 된다면, 뒤쫓아 전관(銓官)이 잘못 추천한 죄를 다스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종(侍從)으로 있다가 외방(外方) 고을에 나간 사람들은 구임(久任)하며 성과(成果)를 책임지우되, 명성과 실적이 현저한 사람은 발탁(拔擢)하여 큰 고을에다 시험해 보아, 특이한 치적(治績)이 있게 되고 실효(實)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漢)나라 시대처럼 금(金)을 내리고 품계를 올려 주고 불러들여 구경(九卿)에 보임(補任)하는 법을 쓰더라도 또한 불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그 배사(拜辭)할 적에도 으레 인대(引對)하여 특별히 신칙하는 분부를 더해 주신다면 누구나가 반드시 자신을 가다듬으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사람이 있게 되면 바로 도태(淘汰)하도록 한다면, 해조(該曹)에서 처음부터 감히 그렇게 못할 사람은 추천하여 의망(擬望)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제(賑濟) 뒤의 고적(考績)에 있어서도 반드시 백성을 살려내고 선치(善治)한 것을 법도로 삼고, 곡식(穀食)의 수량으로 차등을 삼지 않으며, 단지 치적(治績)이 팔도(八道)에 제일인 사람을 바야흐로 가자(加資)하도록 한다면, 점차로 옛적에 치적과 행실이 천하에 제일로 삼던 뜻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청북(淸北)의 수령(守令)은 또한 간간이 시종(侍從)으로 차임(差任)하여 보내기를 조종조(祖宗祖)에 만포(滿浦) 등의 곳에 문신(文臣)을 차임하여 보내던 예처럼 한다면, 진압(鎭壓)해 가고 위안해 주는 도리에 거의 실효(實)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요사이 서쪽 일대의 변장(邊將)을 허다히 본고장 사람으로 차임하여 보내므로, 오로지 좋은 일만 하기 힘쓰고 방비(防備)는 모르고 있으니, 또한 거듭 해조(該曹)에 신칙하여 서로(西路) 사람으로는 본도(本道)의 변장을 차임하지 말도록 하소서. 신이 지난번에 대청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臺廳)에 나아갔다가 보진대, 무엇을 지거나 이고서 드나드는 여복(女僕)들이 연락 부절(連絡不絶)하여 때를 이루게 되고, 짐바리를 실은 우마(牛馬)가 승정원과 빈청(賓廳) 사이에 들끓고 있는데도 조금도 가금(呵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는 엄중하게 금단을 더하여, 말만 하고 실속은 없게 되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매년 무역(貿易)해 오는 중국 물건은 상의원(尙衣院)으로 하여금 품지(旨)하여 요량해서 감하도록 하겠다. 수령과 변장에 관한 일도 혜조(該曹)로 하여금 품처(處)하도록 하겠다. 잡인(雜人)들이 마구 들어오는 일은 진실로 마땅히 엄중하게 금단해야 하지만, 우마의 출입(出入)은 본시 수본(手本)을 바치고 하는 것이므로 뒤섞어 금단함은 합당치 않다.” 하였다.

### ▶ 48권 36년 4월 23일 戊午

戊午/江原道杆城、通川、襄陽、高城等四邑，同日大火，延燒人家，至六百十八戶，人物、牛馬，多燒斃。 上命其中全家被燒之戶，並蠲今年田稅、大同各樣身布。

강원도 간성(杆城)·통천(通川)·양양(襄陽)·고성(高城) 등 네 고을에서 같은 날에 큰 불이 났는데, 인가(人家)를 연소(延燒)시킨 것이 6백 18호(戶)에 이르렀고, 사람과 마소가 많이 타 죽었다. 임금이 그 가운데에 전소(全燒)된 집은 올해의 전세(田稅)·대동(大同) 및 각양 신포(身布)를 모두 건감(減)해 주도록 명하였다.

### ▶ 49권 36년 11월 9일 己亥

己亥/左議政徐宗泰、右議政金昌集、兵曹判書閔鎮厚請對。以渭原人犯越事，稟奏矣。上曰：“彼或有查使出來，則事極可慮。”宗泰曰：“以狀啓中各人招辭見之，其所殺害，似非虛言。若自彼中，先爲查問，則事將不順。甲申年，亦賴移咨，末乃無事。今亦先送咨文爲宜。諸大臣、卿宰之意，皆如此矣。”上是其言。宗泰曰：“咨文中將以遣御史按覈爲辭，御史一員差送宜矣。”上可之。先是，渭原民李萬建、李萬成、李萬枝、李枝軍、李先儀、李浚建、李浚元、宋興准、尹萬信等，乘夜越境，入採蔘幕中，撲殺清人五名，掠其蔘貨。清人一人，偶得脫去，與其同伴二十餘人，猝至渭原北門外，唱言：“大國人五名，爲本郡民李萬建、李萬成、李萬枝、李先儀、李浚元等所殺。”【枝軍、浚建興準、萬信，清人所不知，按覈時追發者也。】迫請現出犯人等，凡九日咆(哮)〔哮〕作拏，執巡邏將高汝岡爲質。郡守李後說老怯不知所爲，初則閉城拒塞，後乃日備酒有迎饋，兼以銀、紬、牛、米賂之。會，汝岡因彼牢睡，潛自脫還，清人既得賂，且失汝岡，始退去。後說欲掩匿彌縫，不卽報聞於監司，其後事漸發露。觀察使李濟，令急囚萬建等五名，具由啓聞，請

罪後說, 後說因此拿問. 俄而, 李先儀越獄先逃, 萬建、萬成、萬枝、俊元〔浚元〕, 自渭原, 移送江界, 將就查, 其族屬要於路放砲, 逐領率將吏, 仍刼奪逃走. 事聞, 上大驚駭, 令各別購捕, 期於必得, 而尙未就捕, 故大臣請先告於彼中.

좌의정(左議政) 서종태(徐宗泰)·우의정(右議政) 김창집(金昌集)·병조판서(兵曹判書) 민진후(閔鎭厚)가 청대(淸對)하여, 위원(渭原) 사람들이 범월(犯越)한 일을 품주(奏)하니, 임금(君)이 말하기를,

“저들이 혹 조사하는 사신(使臣)을 보내어 오는 일이 있을까 지극히 염려스럽다.”

하였다. 서종태가 말하기를,

“장계(狀啓) 가운데 각 사람들의 초사(招辭)를 보건대, 살해(殺害)하였다는 것은 허언(虛言)이 아닌 듯합니다. 만약 저들이 먼저 사문(查問)한다면, 일이 장차 순조롭지 못할 것입니다. 갑신년에도 이자(移咨)한 것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무사(無事)하였었으니, 지금도 먼저 자문(咨文)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여러 대신(大臣)과 경재(卿宰)들의 뜻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하니, 임금(君)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서종태가 말하기를,

“자문(咨文) 가운데에 장차어사(御史)를 보내어 안핵(按)하겠다는 것을 말하였으니, 어사(御史) 1원을 차송(差送)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君)이 이를 옳게 여겼다.

이보다 앞서 위원(渭原)의 백성 이만건(李萬建)·이만성(李萬成)·이만지(李萬枝)·이지군(李枝軍)·이선의(李先儀)·이준건(李浚建)·이준원(李浚元)·송흥준(宋興準)·윤만신(尹萬信) 등이 밤을 틈타 경계(境界)를 넘어 삼을 캐기 위해 설치한 장막(帳幕) 가운데 들어가, 청인(淸人) 5명을 박살(撲殺)하고 삼화(蔘貨)를 약탈(掠奪)하였는데, 청인(淸人) 1인이 우연히 벗어나 달아났다가, 그 동반(同伴) 20여 인과 더불어 갑자기 위원(渭原)의 북문(北門) 밖에 이르러 큰소리로 말하기를, ‘대국(大國)의 사람 5명이 본군(本郡)의 백성 이만건·이만성·이만지·이선의·이준원 등에게 살해(殺害)당하였다.’고 하며 【이지군(李枝軍)·이준건(李浚建)·송흥준(宋興準)·윤만신(尹萬信)은 청인(淸人)이 알지 못하였는데, 안핵(按)하였을 때 뒤미처 발각된 자들이다.】 범인(犯人)들을 인도(引渡)하라고 협박하여 청하고, 무릇 9일 동안 포효(咆哮)하며 소란을 부리다가, 순라장(巡邏將) 고여강(高汝岡)을 납치(拉致)하여 인질(人質)로 삼았다. 군수(郡守) 이후열(李後說)은 늙고 겁이 많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처음에는 성문(城門)을 닫아걸고 거절하다가, 뒤에는 날마다 술을 준비해 놓고 맞이하여 먹이고는 곱하여 은(銀)·주(紬)·소[牛] 쌀[米]을 뇌물(賂物)로 주었다. 때마침 고여강은 저들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몰래 스스로 벗어나 돌아왔는데, 청인(淸人)들은 이미 뇌물을 얻었고, 또 고여강을 놓쳤으므로 비로소 물러갔다. 이후열은 숨긴 채 간특하게 미봉(彌縫)하고자 하여 즉시 감사(監司)에게 보고(報告)하지 않았는데, 그 후 일이 점차 드러나니, 관찰사(觀察使) 이제(李濟)가 급히 이만건 등 5명을 가두게 하고, 사유(事由)를 갖추어 계문(啓聞)하여 이후열을 죄주도록 청하였으므로, 이후열을 이로 인하여 나문(拿問)하였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선의가 탈옥(脫獄)하여 먼저 도망하였고, 이만건·이만성·이만지·이준원은 위원에서 강계(江界)로 이송(移送)하여 장차 조사(調查)하려 하였는데, 그 족속(族屬)들이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포(砲)를 쏘아 영솔(領率)하던 장리(將吏)를 쫓고, 인하여 겁탈(劫奪)하여 도주(逃走)하였다. 일을 계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문하자, 임금이 크게 놀라 각별히 구포(購捕)하여 반드시 잡을 것을 기필(期必)하도록 하였으나, 오히려 잡지 못하였으므로, 대신(大臣)이 먼저 저들에게 고할 것을 청한 것이었다.

### ▶ 49권 36년 11월 10일 庚子

諫院論：“肉脯亦係禁物，憲吏執捉，初非異事。果是賜送之物，則亦必有書標，然後方可憑驗。臺官之必欲覈處，意在詳審，而不待本府查決，徑先手本，至有請罪禁吏之舉。請當該內官推考，此後賜脯出入時，必持書標事，更加申飭。”上答曰：“內官推考事，當初手本，既因傳教，且賜送本有書錄，不必申飭矣。”

간원(諫院)에서 논하기를,

“육포(肉脯) 또한 금물(禁物)에 관계되므로, 헌리(憲吏)가 붙잡은 것은 애초에 이상한 일이 아니었으며, 과연 이것이 사송(賜送)한 물건이라면 또한 반드시 서표(書標)가 있는 후에야 바야흐로 병험(憑驗)할 수 있는 것이니, 대관(臺官)이 반드시 핵실(實)하여 처분하고자 하였던 것은 뜻이 상세하게 살피려는 데 있었습시다. 본부(本府)에서 조사하여 처벌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수본(手本)을 앞세워 금리(禁吏)를 죄주도록 청하는 일이 있기에 이르렀습시다. 청컨대 해당 내관(內官)을 추고(推考)하고, 이후 하사한 육포(肉脯)를 들고갈 때에는 반드시 서표(書標)를 지참하는 일을 거듭 신칙(申飭)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내관(內官)을 추고(推考)하는 일은 당초의 수본(手本)이 이미 전교로 인한 것이었고, 또 사송(賜送)할 때에는 본래 서록(書錄)이 있으니, 신칙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 ▶ 50권 37년 3월 5일 甲午

冬至兼謝恩使鄭載崙等，先來軍官，齎咨草及狀啓入來。回咨以爲：

朝鮮國人，殺害上國人事情，差部內及盛京章京各一員，【章京，即官員之號。】往鳳城，欲同朝鮮國官一員，查明殺人地方可也。海上漁採船禁斷事，移咨奉天將軍及府尹，將沿海居住人，嚴行禁止，不許往朝鮮相近地方漁採，若違禁漁採，被朝鮮捉送，從重治罪，該地方官，一併議處。別地方漁採人，亦令捕送論罪，該官亦一併議處。

使臣狀啓以爲：

禮部以皇帝命，招問使臣，以渭原郡與大國船廠所屬地方相近，或與奉天地方相近。又曰，島夢金、鼎足島等地，與何處相近？使臣對以渭原聞與奉天府地方相近，島夢金等地，聞與奉天所屬金州、復州等地相近。又曰，鴨綠江、土門江一帶，皆係我國地方，但因道路遙遠，未經勘明。今着朝鮮差官數員，瀋陽將軍亦差官數員，會同查勘，分立邊界。

又云, 歲貢生木綿元數中, 無十三疋, 故用預備十疋, 三疋則漢人鄭世泰處買得充數.

使臣又於通州狀啓以爲:

今年是皇帝卽位五十年, 士民、朝官, 請上尊號, 聚會多日云. 下馬宴時, 使臣問禮部侍郎胡恩, 以海寇情形, 答以姑無可慮, 朝鮮則惟當防守海邊. 又問何面最緊於防守, 答以海寇出沒於福建、山東間, 此乃朝鮮西邊際海之地, 東南則似不緊.

其別單又曰:

**漢、清諸人, 皆言: “海寇剽掠, 不過牛馬、財產,** 而但其出沒叵測, 故皇帝每加申飭, 屢有擒獲, 而比如藩籬外穿窬之盜, 每夜戒懼云.

동지겸사은사(冬至兼謝恩使) 정재륜(鄭載崙) 등의 선래 군관(先來軍官)이 자초(咨草)와 장계(狀啓)를 가지고 들어왔다. 회자(回咨)에 이르기를,

“조선국(朝鮮國) 사람이 중국(中國) 사람을 살해(殺害)한 사정(事情)으로 부내(部內)와 성경(盛京)의 장경(章京) 각각 1원(員)을 차출(差出)하여 【장경(章京)은 곧 관원(官員)의 칭호이다.】 봉성(鳳城)으로 가니, 조선국 관원 1원(員)과 같이 살인(殺人)한 지방을 명확히 조사하는 것이 옳다. 해상(海上)의 어채선(漁採船)을 금단(禁斷)하는 일은 봉천장군(奉天將軍)과 부윤(府尹)에게 이자(移咨)하여 연해(沿海)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금지 사항을 엄중히 시행하고, 조선(朝鮮)과 서로 근접한 지방에 가서 어채(漁採)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만약 금령을 어기고 어채(漁採)하다가 조선에서 붙잡아 보내오면 중한 율을 좇아서 치죄(治罪)할 것이며, 그 지방관(地方官)도 한 결 같이 모두 의처(議處)하겠다. 다른 지방에서 어채(漁採)한 사람도 또한 잡아 보내오면 논죄(論罪)하도록 하고, 그 해당 관원도 또한 한 결 같이 모두 의처(議處)하겠다.”

하였고, 사신(使臣)의 장계(狀啓)에 이르기를,

“예부(禮部)에서 황제(皇帝)의 명(命)으로 인해 사신을 불러 묻기를, ‘위원군(渭原郡)은 중국의 선창(船廠) 소속의 지방과 서로 가까운가? 혹은 봉천(奉天) 지방과 서로 가까운가?’ 하였고, 또 이르기를, ‘도몽금(島夢金)·정족도(鼎足島) 등지는 어느 곳과 서로 가까운가?’고 하기에, 사신이 대답하기를, ‘위원군은 봉천부(奉天府) 지방과 서로 가깝다고 들었고, 도몽금 등지는 봉천의 소속인 금주(金州)·복주(復州) 등지와 서로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압록강(鴨綠江)·토문강(土門江) 일대는 모두 우리나라 지방에 관계되는데, 다만 도로(道路)가 요원(遙遠)함으로 인해 명백한 조사를 거치지 못하였으니, 이제 조선(朝鮮)의 차관(差官) 수명과 심양장군(瀋陽將軍)의 차관(差官) 또한 수명이 도착하면 회동(會同)해서 조사 감정하여 변계(邊界)를 나누어서 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세공(歲貢)하는 생목면(生木綿)의 원수(元數) 가운데서 13필(疋)이 없는 까닭으로 예비(豫備)한 10필을 쓰고, 3필은 중국인[漢人] 정세태(鄭世泰)에게서 사서 수량(數量)을 충당하였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또 통주(通州)에서 장계하기를,

“금년은 황제(皇帝)가 즉위(卽位)한 지 50년이 되므로 사민(士民)과 조관(朝官)이 존호(尊號)를 올릴 것을 청하여 모인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마연(下馬宴) 때에 사신이 예부 시랑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禮部侍郎) 호은(胡恩)에게 해구(海寇)의 정형(情形)을 물었더니, ‘아직은 염려할 만한 것이 없으니, 조선(朝鮮)은 오직 해변(海邊)만 방수(防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하였고, 또 ‘어느 방면이 가장 방수(防守)하는 데 긴요한가?’고 물었더니, ‘해구(海寇)가 복건(福建)·산둥(山東) 사이에서 출몰(出沒)하니, 여기는 바로 조선의 서쪽 바닷가에 즈음한 지방이며, 동남 쪽은 긴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고, 그 별단(別單)에 또 말하기를,

“한(漢)·청(淸)의 여러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해구(海寇)가 침입하여 약탈하는 것은 우마(牛馬)와 재산(財産)에 지나지 않으나, 다만 그 출몰을 예측할 길이 없는 까닭으로 황제가 매양 신칙(申飭)을 더하여 여러 번 사로잡았는데, 비유하면 울타리 밖에서 담구멍을 뚫는 줌도둑과 같으므로 밤마다 경계하고 두려워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 50권 37년 4월 24일 壬午

禮曹參判金鎭圭, 上疏論查官不可輕許越來, 以爲:

姑寢其經營接待之節, 亟構咨文, 遣幹敏武弁與譯舌, 齎咨前往, 仍擇宰臣中剛明有才辯者, 星夜赴灣上, 以牛酒勞問, 備言事理之不可徑渡, 移咨之宜所遲待, 力遏其凌暴. 上答以移咨一款, 予之持難, 自有所執, 不必更議也.

예조참판(禮曹參判) 김진규(金鎭圭)가 상소하여 사관(查官)이 넘어오는 것은 가볍게 허락할 수 없음을 논하기를,

“아직은 그들을 접대(接待)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일을 정지하고, 빨리 자문(咨文)을 구성(構成)하여 간능(幹能)하고 민첩한 무변(武弁)과 역설(譯舌)을 보내어 자문을 가지고 먼저 가게 하고, 이어서 재신(宰臣) 가운데에서 재변(才辯)이 있는 자를 가려서 밤낮없이 만상(灣上)으로 달려가서 쇠고기와 술[牛酒]로써 노고를 위문하며, 사리(事理)로 보아 곧장 건넌 수 없음과 이자(移咨)한 것을 지대(遲待)하는 것이 타당함을 빠짐없이 말하여 그들의 능멸하고 포악함을 강력히 막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이자(移咨)하는 한 가지 조항을 내가 과단하여 처리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스스로 고집하는 바가 있으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 ▶ 50권 37년 4월 30일 戊子

去夜, 有書掛延恩門, 稱以告諭朝鮮國文. 其文曰:

蓋聞攘夷狄而除凶穢, 天吏之丕責而所不得而辭者也; 先告諭而後甲兵, 王者之盛節,



而所不可以忽者也. 繫今胡命, 值百年之窮, 皇綱屬再昌之運, 譬如日月暫蝕而旋明, 節序有剝而必復. 彼清胡者, 負一時牛羊之力, 闖百代文物之邦, 夷我宗祏, [纂]我皇統. 天厭穢德, 長星讖五紀之謠; 運啓真人, 黃河報千年之瑞, 而尙敢據內服而偷安, 視中原爲固有. 括四海之財, 實其巢穴, 何異輦賄之癡; 以萬乘之富, 算及鷄豚, 有甚罔利之賤. 豪傑蜂起, 而獍獠猶肆, 父子麀聚, 而淫虐不悛, 此豈非獺驅魚而霓望有歸, 天奪魄而鬼誅將至者歟? 惟我聖上, 神武允稟於天姿, 世胄相承於帝室. 赫光蕩海, 邁軒后虹流之祥; 靈龜啓壽, 符聖祖伽藍之卜. 義旅初舉, 海外十二國, 奉表稱臣; 天兵乍臨, 江左數千里, 應檄歸順. 幕下謀士, 車載斗量; 軍前猛將, 霧雜雲屯. 鄭軍師之神機, 往時管、葛; 張元帥之雄略, 今日韓、彭. 劉督府目失堅城, 耿鴻樞算無遺策. 呂先生袖裏翻天倒地之造化關鍵, 不讓劉伯溫; 鄭祖師胸中呼風縮海之法界機緘, 實過姚廣孝. 此皆十亂於周, 三傑於漢. 以之征伐, 何敵不摧; 以之撫綏, 何遠不服? 方獎率三軍, 糾合屬國, 掃百年之逋寇, 復一統之舊基. 顧念朝鮮, 素稱禮義, 世篤忠貞.

이하생략~

지난밤에 연은문(延恩門)에 궐서(掛書)한 사건이 있었는데, 조선국(朝鮮國)에 고유(告諭)한다고 일컬은 글이었다. 그 글에 이르기를,

“대개 듣건대 이적(夷狄)을 물리치고 악인[凶穢]을 제거하는 것은 임금[天吏]의 큰 책무인지라, 사양(辭讓)할 수 없는 바이며, 먼저 고유(告諭)하고 뒤에 갑병(甲兵)을 일으키는 것은 왕이 된 자의 성대한 절차이니,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호명(胡命)은 백년(百年)의 오랜 궁진함을 당하였고, 황강(皇綱)은 다시 창성할 운세에 속하였으니, 비유하건대 일월(日月)이 잠깐 일식(日蝕)·월식(月蝕)을 하였다가 도로 밝아지고, 절서(節序)가 벗겨지고 떨어지면 반드시 소복(蘇復)함과 같은 것이다.

저 청호(淸胡)라는 자가 일시적인 소[牛]·양(羊)의 힘을 업고서 백대(百代)를 이어온 문물(文物)의 나라를 별안간 침입하여, 우리 종쟁(宗)을 멸망시키고 우리 황통(皇統)을 찬탈하였었다. 하늘은 악덕[穢德]을 미워하는지라, 장성(長星)은 오기(五紀)의 요언(謠言)을 예언하였고, 운수는 진인(真人)을 계도(啓導)하는지라, 황하(黃河)가 천년의 상서(祥瑞)를 고하였는데, 아직도 감히 내복(內服)에 의거하여 눈앞의 안일만을 탐하고 중원(中原)을 본래 소유(所有)한 것처럼 보아 사해(四海)의 재물을 모아서 그 소혈(巢穴)을 채우는 것이 어찌 연회(輦賄)의 어리석음과 다르며, 만승(萬乘)의 부(富)를 가지고서도 계산이 계돈(鷄豚)에 미치는 것은 이익을 독점하는 천박함보다 심함이 있다. 호걸(豪傑)이 봉기(蜂起)하는 데도 미친 개처럼 오히려 멋대로 행동하고, 부자(父子)가 암컷을 함께 하고도 음란하고 잔학함을 고치지 않으니, 이 어찌 수달[獺]이 물고기를 물면서 암무지개[霓]가 돌아갈 곳이 있기를 바라고, 하늘이 혼백을 빼앗으니 귀신의 죽음이 장차 이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건대 우리 성상(聖上)의 그 신무(神武)하심은 진실로 타고난 모습에서 품부(賦)하였고, 세주(世胄)를 서로 제실(帝室)에서 이어받으셨도다. 혁혁(赫赫)한 빛이 사해(四海)를 탕평(蕩平)하니 헌후(軒后)의 홍류(虹流)의 상서로움을 지나고, 신령한 거북이 구주(九疇)를 계도(啓導)하니 성조(聖祖)가 가람(伽藍)의 점친 것에 부합하도다. 의려(義旅)를 처음 일으키니, 해외(海外)의 12국(國)이 표문(表文)을 받들어 신(臣)이라 일컬었고, 천병(天兵)이 잠깐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임(臨)하니 강좌(江左)의 수천 리가 격문(檄文)을 따라 귀순하였다. 막하(幕下)의 모사(謀士)는 수레에 두량(斗量)하여 실을 만큼 많았으며, 군전(軍前)의 맹장(猛將)은 안개가 잡담(雜沓)하고 구름이 둔취(屯聚)한 듯하였다. 정 군사(鄭軍師)의 신기(神機)는 지난날의 관중(管仲)·제갈량(諸葛亮)이요, 장 원수(張元帥)의 웅략(雄略)은 오늘의 한신(韓信)·팽월(彭越)이었다. 유독부(劉督府)는 눈앞에서 견고한 성(城)을 잃게 되었고, 경홍추(耿鴻樞)의 계산으로도 유책(遺策)이 없었다. 여 선생(呂先生)의 소매 속에는 천지(天地)를 번도(顛倒)하는 조화(造化)의 관건(關鍵)을 유백온(劉伯溫)에게 사양하지 않으며, 정 조사(鄭祖師)의 흉중(胸中)에는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바닷물을 줄이는 법계(法界)의 기함(機緘)이 실상 요광효(姚廣孝)를 넘으니, 이는 모두 주(周)나라의 십란(十亂)이며, 한(漢)나라의 삼갈(三傑)이다. 이들이 정벌(征伐)하면 어떤 적(敵)인들 꺾이지 않겠으며, 이들로 무수(撫綏)하면 어떤 먼 곳인들 복종하지 않겠는가? 바야흐로 삼군(三軍)을 거느리고 속국(屬國)을 규합(糾合)하여 백년토록 오래된 포구(逋寇)를 소탕하고 일통(一統)의 옛 터전을 회복하리라.

돌아보건대 조선(朝鮮)은 본시 예의지국(禮義之國)으로 일컬었고, 대대로 충정(忠貞)을 돈독히

이하생략~

### ▶ 51권 38년 6월 10일 壬戌

接伴使朴權，初四日馳啓曰：“侍衛乘船摠管由陸，今日到慶源，明將發向慶興。摠管出給白山圖一本，故監封上送，而摠管又稱移咨，出送一張書，故亦爲上送。其所謂鴨綠、土門兩江，俱從白山根底發源，江南爲朝鮮之境，歷年已久云者，論斷彼此境界，極其明白，可無後慮。”至是，權與監司李善溥，又爲封啓曰：

本月初一日，摠管馳往二十里許豆里山，登山巔望見豆江入海處，使其行中畫工圖形後，卽爲復路，還到慶源府。侍衛欲聞朝鮮音樂，故定送鼓、缶、笙、笛、各一人，則使將校、通引，更唱迭(舜)[舞]，頗爲歡悅。摠管出給二大牛，使驛卒輩，椎食。前後出給，至於十首之多。臣等所持來禮單及問慰使禮單，竝措辭入給，摠管曰：“今行貽弊不貲。若受禮單，則實乖於皇上軫念之意。至於問慰禮單，係是規外別遣，不得承受”云。前後入給饋物，彼人輒以三升小帽子、帶子等物，計價出償，故今當還去之際，竝還其價物，使譯官傳言曰：“大國之人，奉皇旨來到我境，若干饋物，至給價買用，事體苟簡，在我國之道，亦豈容如是？”通官以爲：“皇帝優給行資，沿路買用。今若還給價物，則摠管必生怒。此行自初至終，凡事極順，而及當臨歸，以小事或生鬧端，豈非可憫乎？吾於越江後，當從容言及於摠管”云，而終不傳通，無可奈何。摠管前日所送咨文，臣等相議以呈文發送，則摠管以爲：“吾之咨文，謄書于呈文上段，然後可以歸奏”云，故依其言書送。初三日食後，彼行將越江，故臣等同進館所問慰，仍言：“定界立標事，當歸奏朝廷，徐徐始役，而此地荒廢既久，曾不看檢，今則境界分明，道路已通，空閑之地，或募民入居，或設立把守，則可免虛疎之弊矣。”摠管曰：“若欲移民設把，則弊將不貲。莫如別定官員，一年二

三次摘奸之爲着實也.” 臣等答以當歸達朝廷，商確爲之，摠管曰：“前頭節使時，設置形止，言于通官，俾傳俺處.” 摠管一行，到慶源之日，烏喇章京一人及其從人二十名，乘馬尙越來，本府把守將及軍人，多般防塞，而終不聽從. 以此告于摠管，則摠管招致章京，大加呵責曰：“既犯國法，當歸奏處之也.” 臣等以爲：“固爲有罪，而第以迎接摠管爲言，與無端犯越有異矣.” 摠管曰：“吾以勿爲越來之意分付. 今此犯越，宜有重罪.” 臣等復言其情有可恕，則摠管以爲：“章京若被罪，則本府官吏，亦必有勘罪之舉. 當依所言勿爲歸奏，伴使、監司，亦不必陳達于國王也.” 臣等罷黜之際，摠管以下起立拱手曰：“俺等雖承皇命而來，竣事還歸，實賴國王軫念. 且別遣問慰，厚遺禮單，可見眷意，而皇帝既有省弊之教，茲不敢違. 然其中心感謝，與領受無異.” 午後發行，直向江邊越去矣. 前日臣權，到茂山時，首譯金指南來言：“侍衛以佃獵事，越往彼邊，還後密言曰：“大國境樹木，無數斫伐，車載船運之跡，極其狼藉. 爾國吏民，可謂不畏法禁矣.” 指南答以江邊無識之民，有此可駭之事，誠極寒心，而此事一發，當死者甚多，以老爺惻隱之心，何忍爲此耶? 侍衛曰：“吾當含默，但隨行人之口，恐難盡掩也.” 臣等，各別聞見，既得實狀，而彼人在境時，不可先爲彰露. 今則彼既越江，故以會寧府使，別定查官，今方查覈，當追後啓聞云矣.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이 4일에 치계(馳係)하기를,

“시위(侍衛)는 배를 타고 총관(摠管)은 육로(陸路)로 오늘 경원(慶源)에 도착했고, 내일 경흥(慶興)으로 떠나려 합니다. 총관이 백두산 지도 1본(本)을 내주었기 때문에 감봉(監封)하여 올려 보내며, 총관이 또 이자(移咨)라 하며 1장의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또한 올려 보냅니다. 그 이른바 ‘압록강(鴨綠江)과 토문강(土們江) 두 강이 모두 백두산의 근저(根底)로부터 발원(發源)하여 강 남쪽의 조선(朝鮮)의 경계가 된지 역년(歷年)이 이미 오래 되었다.’라는 것은 피차의 경계를 논단(論斷)함이 지극히 명백하니, 뒷날의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박권이 함경감사 이선부와 함께 또 봉계(封啓)하기를,

“이 달 1일에 총관이 20리 남짓 되는 두리산(豆里山)으로 달려가 산마루에 올라 두만강의 바다로 들어가는 곳을 바라보고 그 일행 중의 화공(工)에게 형상을 그리게 한 뒤 즉시 길을 되돌려서 경원부(慶源府)로 돌아왔습니다. 시위(侍衛)가 조선의 음악을 듣고자 하였기 때문에 고(鼓)·부(缶)·笙(笙)·적(笛) 각 한 사람씩을 정하여 보내고 장교(將校)와 통인(通引)을 시켜 번갈아 노래 부르고 춤을 추게 하였더니, 매우 즐거워하여 총관이 큰 소 두 마리를 내주어 역졸(驛卒)더러 잡아먹게 하였으며, 전후로 내준 것이 10여 마리란 많은 수(數)에 이르렀습니다. 신 등이 가지고 온 예단(禮單) 및 문위사(問慰使)의 예단을 조사(措辭)와 함께 주었더니, 총관이 말하기를, ‘이번 길에 폐를 끼친 것이 적지 않은데 만약 예단을 받는다면 실로 황상(皇上)께서 진념(軫念)하시는 뜻에 어긋난다. 문위의 예단에 이르러서는 규례 밖에 따로 보낸 것이니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후로 찬물(饌物)을 주었더니, 저 사람이 문득 삼승(三升)의 조그만 모자(帽子)·띠 등 물건으로 값을 계산하여 갚아 주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는 때에 미처 그 값으로 준 물건을 모두 돌려보내고 역관(譯官)을 시켜 말을 전하기를, ‘대국(大國)의 사람이 황지(皇旨)를 받들어 우리 지경에 와서 약간의 찬물까지 값을 주고 사서 쓰기에 이룬다면 사체(事體)가 구차(苟且)하니, 우리나라의 도리에 있어 또 어찌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이런 일이 용납되리까.’ 하니, 통관(通官)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행자(行資)를 넉넉히 주시어 연로(沿路)에서 사서 쓰게 하셨으니, 이제 만약 값으로 준 물건을 도로 받는다면 총관께서 반드시 성낼 것이오. 이번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이 지극히 순조로웠는데 돌아가는 때에 미쳐 혹시라도 조그만 일 때문에 시끄러운 사단을 일으킨다면 어찌 민망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강을 건너 뒤에 조용히 총관에게 말을 전하리다.’ 하고, 끝내 전통(傳通)하지 않았으므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총관이 전일에 보내온 자문(咨文)은 신 등이 정문(呈文)으로 발송(發送)하기로 서로 의논하였더니, 총관이 말하기를, ‘나의 자문을 정문의 상단(上端)에 등서(謄書)한 연후에야 돌아가 아낄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말대로 써 보냈습니다. 3일 식후(食後)에 그들 일행이 장차 강을 건너려 하였으므로 신 등이 함께 관소(館所)에 나아가 위문하고 이어 말하기를, ‘경계를 정해 표지(標識)를 세우는 일은 마땅히 조정(朝廷)에 돌아가 아뢰고 서서히 역사(役事)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은 황폐해진 지 이미 오래 되어 일찍이 간검(看檢)하지 않았으나, 이제 경계가 분명하고 도로(道路)가 이미 통하니, 공한지(空閑地)에 혹 백성을 모아 들어가 살게 하고 혹 파수(把守)를 세운다면, 허소(虛疏)한 폐단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총관이 말하기를, ‘만약 백성을 옮기고 파수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니, 따로 관원(官員)을 정하고, 1년에 두 세 차례 적간(摘奸)하는 것이 착실(着實)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조정에 돌아가 진달하여 상확(商確)하여서 하겠습니다.’ 하니, 총관이 말하기를, ‘앞으로 절사(節使)가 들어올 때에 설치의 형지(形止)를 통관에게 말하여 나에게 전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총관 일행이 경원에 이른 날, 오랄(鳥喇) 장경(章京) 한 사람 및 그 종자(從者) 20명이 말을 타고 건너왔기에 본부(本府)의 파수하는 장수 및 군인이 막았으나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총관에게 고하였더니 총관이 장경을 불러 놓고 크게 꾸짖기를, ‘이미 국법(國法)을 범하였으니, 마땅히 돌아가 아뢰어서 처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말하기를, ‘진실로 유죄(有罪)가 되나 그가 총관을 영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였으니, 까닭 없이 월경(越境)을 범한 것과는 다름이 있습니다.’ 하니, 총관이 말하기를, ‘내가 건너오지 말라는 뜻으로 분부(分付)하였는데 이번에 월경을 범하였으니 마땅히 중죄(重罪)가 있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다시 용서할 만한 정상(情狀)이 있음을 말하였더니, 총관이 말하기를, ‘장경이 만약 죄를 입는다면 본부의 관리도 또한 반드시 감죄(勘罪)의 거조(舉措)가 있을 것이니, 이 말에 의하여 돌아가 아뢰지 말 것이며, 접반사와 감사도 또한 반드시 국왕에게 진달할 것 없오.’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자리를 파(罷)하고 나올 때 총관 이하가 일어서서 공수(拱手)하고 말하기를, ‘우리들이 비록 황제의 명을 받들고 와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지만 실로 국왕의 진념(軫念)을 힘입었습니다. 또 따로 문위사를 보내어 후하게 예단을 주시니, 권애(眷愛)하는 뜻을 알 수 있지만 황제께서 이미 폐단을 줄이라는 하교를 내리셨으므로 감히 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감사하여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였으며, 오후에 발행(發行)하여 곧장 강변(江邊)을 향하여 건너갔습니다.

전일에 신 박권이 무산(茂山)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수역(首譯) 김지남(金指南)이 와서 말하기를, ‘시위(侍衛)가 사냥을 하러 저쪽 강변으로 건너갔다가 돌아온 뒤 은밀하게 말하기를, 「대국 경계의 수목(樹木)을 수없이 작벌(斫伐)하여 수레에 싣고 배로 운반한 흔적이 지극히 낭자하니, 그대 나라의 벼슬아치와 백성들이 법금(法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를 만하다。」고 하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강변의 무지한 백성이 이 놀랄 만한 일을 저질렀으니, 진실로 한심합니다. 이 일이 한 번에 적발(摘發)되면 마땅히 죽여야 할 자가 매우 많으니, 노야(老爺)의 측은(惻隱)한 마음으로 어찌 차마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였더니, 시위가 말하기를, 「나는 마땅히 입을 다물어서 말하지 않겠지만 다만 수행(隨行)하는 사람의 입을 가리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각별히 듣고 보아서 이미 실상(實狀)을 알아냈으나, 저 사람들이 지경 안에 있을 때에는 먼저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회령부사(會寧府使)를 따로 사관(查官)으로 정해 이제 바야흐로 사핵(查)하고 있으니, 마땅히 추후(追後)로 계문(啓聞)하겠습니다.” 하였다.

▶ 52권 38년 8월 1일 壬子

有一逸牛，自宣仁門，奔至內司僕，爲門卒所捉。

뛰어나온 소 한 마리가 선인문(宣仁門)으로 해서 내사복(內司僕)까지 달려왔다가 문졸(門卒)들에게 잡혔다.

▶ 52권 38년 11월 16일 乙未

乙未/掌令鄭必東上論事疏. 略曰:

臣居在通信使往來之路. 其回還時貽弊郡邑, 實是前古未有. 信使方就拿命, 雖身不騎馱, 而從人所騎, 專責驛路, 卜物則令各邑, 貰馬以運, 上使三十餘馱, 副使亦如之. **各邑官吏四出, 閭里勒取牛馬, 以充其數,** 而獨其所持節旄, 拋棄站上, 爲郵官所拾得, 追送於數日之程. 從事行中所帶, 盡載歸舟, 故卜馱之數, 臣未之詳, 而蓋與上、副使一樣云. 卜馱之外, 亦有擔運之物, 釜山僉使以方物負持軍五百名整待之意, 移關列邑, 而數外一千名, 公然辦出, 待候之際, 動經旬日. 所輸物件, 多是龕櫓、櫃櫓之屬, 而堅封厚裹, 其不封鎖而爲人所目見者, 則無非奇花異卉之類. 凡此珍奇之品, 民間皆認爲獻御之物, 彼擅發過千之民, 遠致千里之外, 使怨歸朝廷, 疑及聖德者, 其罪可勝言哉? 庭試試券中, 有書題字樣異常, 顯有違端者, 宰臣多有目覩, 人言亦甚喧藉云. 蓋書題之字, 點畫有異於懸板所書者, 考官不敢取者, 前例卽然, 實是防奸謹慎之意也. 暗中用奸之迹, 雖無以鉤摘, 而如此字標顯著之事, 何可一向掩置乎? 請令該曹, 收聚試券, 有標果如人言者, 一竝拔去, 以嚴科法. 金萬採之與尹德駿, 素有讎嫌, 世所共知. 其除畿伯也, 以此爲嫌, 乍入卽出, 承牌冒赴, 交符之際, 側面相對, 舉止駭異. 況其政令顛倒, 聽斷乖舛, 荒歲旬宣之責, 恐不可仍畀此人.

答曰: “信使事, 似不近理. 試券中書題字樣之異常者, 拔去之說, 殊涉過當. 畿伯之政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令, 未知如何, 而朝臣之不得避嫌, 明有下教, 冒赴云者, 予未曉也.” 必東以批旨未安, 引避. 其避辭論信使馱載猥多, 貽弊不貲之狀, 尤詳而曰: “嶺、湖守令、沿路士民, 所共明知, 臣以耳目所覩記, 據實論列, 而未蒙察納, 臣竊慨然.” 其下論試券書題事則曰:  
이하생략~

장령 정필동(鄭必東)이 논사소(論事疏)를 올렸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臣)은 통신사(通信使)가 왕래하는 길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에 군읍(郡邑)에 끼친 폐단은 실로 전고(前古)에 없던 바입니다. 통신사는 바야흐로 나명(拿命)에 응하고 있어 비록 그 자신은 역마(驛馬)를 타지 않지만, 딸린 사람들이 타는 말은 오로지 역로(驛路)에다 책임지우고, 복물(卜物)은 각 고을로 하여금 말을 세 내어 운반하도록 하여, 상사(上使)의 것은 30여 마리나 되고 부사(副使)의 것도 또한 같습니다. 각 고을의 관리들이 사방으로 나가 마을들에서 억지로 우마(牛馬)를 가져다가 그 수를 채우고, 특히 그들이 가진 절모(節)를 역참(驛站)에 팽개쳐 둔 것을 우관(郵官)들이 습득(拾得)하여 며칠이 걸리는 길을 뒤쫓아 보내기도 합니다. 종사(從事)와 일행(一行)의 사람들이 가진 것은 모두 돌아가는 배에 싣기 때문에 복태(卜)의 수를 신이 잘 알 수는 없지만 대개 상사·부사의 것과 매한가지라고 합니다. 복태 이외에도 또한 저서 운반해야 할 것이 있어, 부산첨사(釜山僉使)가 방물(方物)을 지고 갈 역군 5백명을 정비해 놓고 기다리라는 뜻으로 각 고을들에 이관(移關)하고, 그 수 이외에 1천 명이나 공공연히 판출(辦出)해 놓고 대기하는 동안에 걸핏하면 한 순(旬)을 넘깁니다. 운반하는 물건은 감룡(龕)·계독(櫃) 등속이 많은데 굳게 봉하거나 두텁게 싸는 것이고, 그 중에 봉쇄(封鎖)하지 않아 사람들이 보았던 것들은 기화이초(奇花異草)의 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무릇 이러한 진기한 물품들은 민간에서 모두 헌어(獻御)하는 물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함부로 천 명이 넘는 백성을 징발하고 멀리 천리 밖까지 가져가 원망이 조정으로 돌아가고 의심이 성덕(聖德)에 미치게 하니, 그 죄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시(庭試)의 시권(試卷) 중에 글제의 글자 모양이 이상하여 현저하게 법에 어긋난 단서가 있는 것을 재신(宰臣)으로서 목도한 사람이 많았고, 사람들의 말이 또한 매우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대개 글제의 글자가 점획(點劃)이 현판(懸板)에 쓴 것과 다르게 되어 있을 경우 고관(考官)이 뽑지 않음은 전례가 곧 이러한 것으로, 이는 실로 간사한 짓을 막고 근신(謹慎)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암암리에 간사한 꾀를 부린 자취는 비록 적발해 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처럼 글자에다 표를 한 것이 현저한 일을 어찌 한 결 같이 덮어둘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해조(該曹)로 하여금 시권에 표가 있어 과연 사람들의 말과 같은 것일 경우 일체 모두 뽑아내어 과법(科法)을 엄하게 하소서. 김만채(金萬采)가 윤덕준(尹德駿)에게 본래부터 원수와 같은 혐의가 있음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가 기백(幾伯)을 제배(除拜)했을 적에도 이것을 혐의로 여겨 잠깐 들어갔다가 곧 다시 나와 승패(承牌)하여 덮어놓고 부임하였으되, 부절(符節)을 교부(交付)할 때 얼굴을 돌린 채 상대하였으니, 행동거지가 해괴하였습니니다. 더욱이 정령(政令)은 전도(顛倒)되고 청단(聽斷)은 잘못되고 있으니, 흥년의 순선(旬宣)하는 책임을 아마도 이 사람에게 그대로 맡길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통신사의 일은 사리에 가깝지 않은 듯하고, 시권 중에서 글제의 글자 모양이 이상한 것

은 뽑아내어 버리자는 말은 매우 과당한 데 관계된다. 기백(幾伯)의 정령이 어떠한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조신(朝臣)은 피혐(避嫌)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하교한 것이 있는데, 덮어놓고 부임했다고 하니,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정필동이 비지(批旨)를 미안하게 여겨 인피(引避)했는데, 피사(避辭)에다 통신사(通信使)의 복태(卜)가 외람되게도 많아 폐단을 끼침이 적지 않은 정상을 더욱 상세하게 논하고 말하기를,

“영남(嶺南)·호남(湖南)의 수령(守令)과 연로(沿路)의 사민(士民)들이 다같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신(臣)도 이목(耳目)으로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사실에 의거하여 논열(論列)했던 것인데, 살펴 주심을 받지 못하였으니, 신이 그욕이 개탄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시권(試卷)의 글제에 관한 일은 논하기를,  
이하생략~

## ▶ 52권 38년 12월 13일 壬戌

壬戌/引見大臣、諸臣，追行三覆。蓋鐵原殺姪罪人金還伊三覆時，未及再覆，故今始追行，上詢問後命依律。領議政李濡，以東萊府使狀啓中，馬島主書契，請出彦千代圖書事稟白。蓋日前裁判倭等，呈書請給，而朝家以不可以其差倭私傳之言，輕許別恩爲答，島主始送書契，更申其請故也。濡曰：“前既微示欲許之意，則到今防塞，終涉不便。金鎮圭則言其決不可許，而臣意特命許施，而更言後勿爲例之意似宜。”左參贊閔鎮厚、刑曹判書朴權，皆欲許之，上曰：“今以先朝有後勿爲例之故，初不許之，懇請至此，特爲許給爲答宜矣。”濡又請差出嶺南巡撫使，往審海防諸務，而先往星州，按查朴慶餘山訟，【蓋時有朴家山訟、殺人獄事。見于下。】上從之。後以權罷差出，又因諸議不一，終至寢閣。承旨李德英陳歲時許屠之弊，請預加申飭禁斷，閔鎮厚亦是其言，上曰：“歲時異於他時，略定日限，則似無狼藉之患，而元非自朝家定式之事，法官當商量爲之也。”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여 삼복(三覆)을 추후로 거행했다. 대개 철원(鐵原)의 조카를 죽인 죄인 김환이(金還伊)의 삼복을 이때까지 미처 재복(再覆)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추후로 시행한 것인데, 임금이 순문(詢問)한 다음 율(律)대로 하도록 명하였다.

영의정 이유(李濡)가 동래부사(東萊府使)의 장계(狀啓) 안에 있는 대마 도주(對馬島主)가 서계(書契)를 보내 언천대(彦千代)의 도서(圖書)를 내주기를 청한 일을 품백(白)하였다. 대개 일전에 재판왜(裁判倭) 등이 글을 올려 발급해 주기를 청했으나, 조가(朝家)에서 차왜(差倭)가 사사로이 전하는 말로 경솔하게 특별한 은전(恩典)을 허락할 수 없다고 답을 하자 대마 도주가 비로소 서계를 보내 다시 거듭 청했기 때문이었다. 이유가 아뢰기를,

“전에 이미 허락하려는 뜻을 조금 보였으니, 이제 와서 방색(防塞)함은 마침내 불편한 데 관계됩니다. 김진규(金鎭圭)는 결코 허락할 수 없음을 말하지만 신(臣)의 생각에는 특별히 명하여 허락해 주도록 하되, 다시 이 뒤로는 준례를 삼지 말라는 뜻을 말해 주는 것이 합당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할 듯합니다.”

하고, 좌참찬 민진후(閔鎭厚)와 형조판서 박권(朴權)은 모두 허락해 주었으면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지금 선조(先朝)의, ‘뒤에는 준례삼지 말라.’고 한 일이 있었으므로, 당초 허락하지 않은 것인데, 이토록 간청(懇請)하니, 특별히 허락해 주는 것이라고 답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하였다. 이유가 또 영남 순무사(嶺南巡撫使)를 차출하여 해방(海防)에 관한 모든 일을 살피도록 하되, 먼저 성주(星州)로 가서 박경여(朴慶餘)의 산송(山訟)을 【대개 이때 박가(朴家)의 산송으로 사람을 살해한 옥사(獄事)가 있었다. 아래에 나와 있다.】 안사(按查)하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 뒤에 권성(權)을 차출하였으나, 또 여러 의논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마침내 정지되었다. 승지 이덕영(李德英)이 세시(歲時)에 도살(屠殺)을 허락하는 폐단을 아뢰며 미리 거둬 신칙하여 금단하기를 청하고, 민진후도 또한 그 말을 옳게 여기니, 임금이 이르기를,

“세시는 다른 때와는 다르니, 대략 날짜의 한도를 정한다면 낭자하게 될 염려가 없을 듯하다. 그리고 원래 조가(朝家)에서 정식(定式)할 일이 아니니, 법관(法官)들이 마땅히 상량(商量)하여 하도록 하라.” 하였다.

### ▶ 38년 12월 25일 甲戌

引見大臣、備局諸臣. 上曰: “彼中冊后建儲後, 似有頒詔之舉云. 然則當送陳賀、謝恩使, 而廢儲後, 若無陳慰之舉, 則不無致責之慮. 陳慰使, 先爲差出耶?” 領議政李濡曰: “頃年彼中廢儲時, 十三省無陳慰之事. 彼所不爲, 而外國先之, 有所不可. 姑觀前頭似可.” 諸臣多以徑先送箋, 爲不可, 上命姑觀前頭差出. 日前禮曹修送倭國書契時, 朝議以爲: “仁廟朝以來, 書契中有彼此互可問候, 或俱不問起居之時, 而乙卯後, 彼不問候, 而我獨問候, 遂因循至今, 自今遵舊例爲宜”, 遂不爲問候, 而修書契下送東萊, 傳給館倭. 倭人輩以爲: “不爲問安, 非前例”, 不受書契及禮單, 累次往復, 終不受曰: “急送飛船於馬島, 探問其物議及前例後, 可以變通” 云, 故東萊府使李明俊〔李明浚〕, 以姑待飛船回還, 停當傳授與否之意啓聞. 上諭筵臣曰: “萊府不爲嚴辭峻斥, 使之必受, 而以停當後啓聞爲言, 事甚可駭. 府使李明浚及訓導、別差, 拿問定罪.” 兵曹判書趙泰采曰: “乙卯後已成規例, 今始刪去, 故倭人之不受, 府使之不得嚴塞, 蓋以此也. 今宜略施責罰, 使倭人知畏, 而拿問則似過矣.” 刑曹判書朴權、吏曹參判李晚成, 皆言: “嚴辭斥退, 切勿改送爲宜.” 上曰: “嚴加申飭, 切勿撓改. 明俊姑先推考, 訓、別從重決棍, 若終至不受, 拿問可也.” 朴權以屠牛犯禁科罪, 依『大典續錄』施行事稟白. 蓋金鎮圭爲判書時爲草記, 有議大臣之命矣. 【『續錄』魁首全家徙邊, 隨從及家主杖徒, 宰殺人絕島爲奴定屬, 三切隣知情者亦各有罪.】 權曰: “近來則犯禁者, 只刑一次而收贖, 故法禁之不行, 似由於律輕矣.” 上曰: “舊制猝難行之, 首倡及家主, 竝爲論罪, 而家主則依『續錄』定以徙



配可也.” 趙泰采請以嶺南各邑鎮別餉米，逐年取耗者，限一萬餘石上納，移屬北漢，上從之. 泰采曰：“北漢餉穀以十萬石爲限，而一齊運入誠難，自明春漸次移置，而一半則輸入北漢，一半則留儲平倉似好.” 又言：“賑廳米二三萬石，散給於都下民戶，待秋成除耗，直納於北漢，以爲改色除弊之道，而王子君、大臣外，有料祿人等處，一併分給亦宜.” 上竝可之. 戶曹判書趙泰耆曰：“蕩春臺倉庫，當爲移設，而戶曹經費匱竭. 且來歲似有兩勅，關白亦新死，南、北自多酬應之事. 此時營造，勢難竝行. 戶曹所管兩倉及惠廳穀，則觀勢移入，恐得宜矣.” 李濡曰：“旣築北漢，則軍餉不可不優備. 若不設倉，則民無湊集之理，儲穀之後，則都民當不令而來聚. 雖先造一間，始役爲當矣.” 上曰：“當初本意，非謂必趁明春移設. 今若因循，易至廢閣. 必須留心料理，則自有可成之道矣.” 泰采曰：“軍門餘穀，宜速移入，使三軍門先爲經始設倉似宜.” 上從之.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피국(彼國)이 황후(皇后)를 책봉(冊封)하고 저군(儲君)을 세운 뒤 조서(詔書)를 반포(頒布)하는 일이 있을 듯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마땅히 진하사(陳賀使)와 사은사(謝恩使)를 보내야 할 것인데, 태자(太子)를 폐한 뒤 만일 진위(陳慰)하는 일이 없다면, 책망을 초래할 염려가 없지 않다. 진위사를 먼저 차출해야 할 것인가.”

하니,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지난해에 피국에서 저군을 폐했을 때 13성(省)에서도 진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하지 않는 일을 외국(外國)에서 먼저 하는 것은 불가한 점이 있으니, 우선 앞으로의 진전(進展)을 관망(觀望)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도 대부분 앞질러 먼저 전문(箋文)을 보내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니, 임금이 우선 앞으로의 일을 관망하여 차출(差出)하도록 명하였다. 일전에 예조(禮曹)에서 왜국(倭國)에 서계(書契)를 만들어 보낼 때 조정의 의논이 ‘인조조(仁祖朝) 이래로 서계 안에 피차 서로 문후(問候)하는 때도 있고 혹은 모두가 기거(起居)를 묻지 않는 때도 있었는데, 을묘년이후로 저들은 문후하지 않고 우리만 홀로 문후하여, 드디어 그대로 인순(因循)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니, 이제부터는 그전의 예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여, 드디어 문후하지 않는 서계를 만들어 동래(東萊)에 내려 보내 관왜(館倭)에게 전해 주게 하였다. 그러자 왜인들이 드디어 문안하지 않음은 전례가 아니라 하여 서계 및 예단(禮單)을 받지 않고 여러 차례 왕복하다가 마침내 받지 않으며 ‘시급히 대마도(對馬島)에 비선(飛船)을 보내어 물의(物議)와 전례(前例)를 탐문해 본 다음에 변통해서 하겠다.’ 하므로, 동래부사(東萊府使) 이명준(李明濬)이 ‘우선 비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전수(傳授)하려 합니다.’란 뜻으로 계문(啓聞)하였다. 임금이 연신(筵臣)에게 하유(下諭)하기를,

“동래부에 엄중한 말로 준엄하게 물리쳐 반드시 받게 하지 않고, 정당(停當)한 뒤 계문하겠다고 말하였으니, 일이 몹시 해괴하다. 부사 이명준과 훈도(訓導)·별차(別差)를 잡아다가 추문(推問)하여 정죄(定罪)하라.”

하니, 병조판서 조태채(趙泰采)가 아뢰기를,

“을묘년 이후 이미 규례(規例)가 된 것을 이번에 비로소 산거(刪去)하였으므로 왜인들이 받지 않았던 것이니, 부사가 엄중하게 막지 못했던 것은 대개 이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마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망히 조금 책벌(責罰)을 내려 왜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해야 할 것이고, 잡아다 주문하는 것은 지나친 듯합니다.”

하였다. 형조판서 박권(朴權)·이조참판 이만성(李晩成)은 모두 말하기를,

“엄중한 말로 배척하여 물리쳐야 하고, 절대로 고쳐서 보내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엄중하게 거듭 신칙을 더하여 절대로 바꾸지 말도록 하라. 이명준은 우선 추고(推考)하고, 훈도와 별차는 되도록 무겁게 결장(決杖)할 것이며, 만일에 끝까지 받지 않는다면 잡아다 주문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박권이 소 도살(屠殺)의 범법에 관한 과죄(科罪)는 『대전속록(大典續錄)』에 의해 시행할 것을 품백(白)하였다. 대개 김진규(金鎭圭)가 판서 때에 초기(草記)를 만들자, 대신들과 의논하라는 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속록』에 ‘괴수(魁首)는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고, 수종(隨從) 및 집주인은 장도(杖徒)하고, 도살한 사람은 절도(絶島)에 종을 만들어 정속(定屬)하고, 3절린(三切隣) 중에 실정을 알고 있는 자도 또한 각각 죄가 있다.’고 하였다.】 박권이 아뢰기를,

“요사이에는 금법을 범한 자는 단지 한 차례 형장하고 수속(收贖)합니다. 그래서 금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율(律)이 가볍기 때문인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옛법을 갑자기 시행하기는 어려우니, 수창자(首倡者)와 집주인을 함께 논죄하되, 집주인은 『속록』에 의해 도배(徒配)로 정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조태채가 아뢰기를,

“청컨대 영남(嶺南) 각 고을 진(鎭)의 별향미(別餉米)로서 해마다 손모(損耗)로 받아 놓은 것 중에서 1만여 석에 한해 상납(上納)하도록 하여 북한산성(北漢山城)으로 이속(移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조태채가 아뢰기를,

“북한산성의 향곡(餉穀)은 10만 석으로 한도를 하였으나, 일제히 운반해 들이기 진실로 어려우니, 내년 봄부터 점차로 옮겨 놓되 절반은 북한산성에 운반해 들이고 절반은 평창(平倉)에 머물러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진휼청(賑恤廳)의 쌀 2, 3만 석을 도성(都城) 안의 민호(民戶)에 흠어 주었다가, 추수 때를 기다려 모곡(耗穀)을 제외하고 바로 북한산성에 바치게 하여 개색(改色)하여 폐해를 제거하는 방도로 삼으며, 왕자·군(王子君)과 대신 이외의 요록(料祿)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체 나누어 주게 하는 것이 또한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 호조판서 조태구(趙泰耆)가 아뢰기를,

“탕춘대(蕩春臺)의 창고를 마땅히 옮겨 설치해야 할 것인데 호조의 경비가 고갈되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두 번의 칙사(勅使)가 있을 듯하고, 관백(關白)이 또한 막 죽었기에 남쪽과 북쪽에 자연히 수응(酬應)해야 할 일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 영조(營造)한다는 것은 형편상 아울러 거행하기 어려우니, 호조에서 관장하고 있는 두 창고와 선혜청(宣惠廳)의 곡식은 형편을 보아 옮겨 들이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이유가 아뢰기를,

“이미 북한산성을 쌓았으니 군향(軍餉)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창고를 세우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모여들 리가 없지만, 곡식을 저축한 다음에는 도성(都城)의 백성들이 마땅히 명령하지 않아도 와서 모일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우선 한 칸을 짓는다고 해도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당초의 본의(本意)도 반드시 내년 봄에 가서 옮기자는 것도 아니었다. 만일 지금 인순(因循)한다면 쉽사리 폐기될 것이다. 그러나 모름지기 유의(留意)하여 요리(料理)한다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도리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조태채가 아뢰기를,

“군문(軍門)의 여곡(餘穀)을 마땅히 시급히 옮겨 놓고, 삼군문(三軍門)으로 하여금 우선 경영하여 창고를 세우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 54권 39권 윤5월 18일 甲子

知事李光迪上疏論北漢盜賊事，以爲：

無賴流民，入接城中，始爲牛馬之盜，今爲刼掠之賊，環城數十里地，多遭剽掠。令該曹，收取各門鎖鑰，封置內司，只以南城門一路通行，日入卽閉，日出後開，使其衛將，嚴管門禁。

疏下備局，覆奏，南門開閉，則不許，只令捕廳譏捕。蓋爲城中人樵採，不可以一南門通行故也。

지사(知事) 이광적(李光迪)이 상소하여 북한산성의 도적에 대한 일을 논하기를,

“무뢰(無賴)한 유민(流民)들이 성중에 들어와 모여서 처음에는 마소[牛馬]를 훔치는 도둑이 되었다가, 지금은 겁략(掠)하는 적(賊)이 되니, 성 주위 수십 리 땅에서 약탈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각문의 자물쇠를 거두어 들여 내수사(內需司)에 봉해 두고, 단지 남성문 한 길로 통행하게 하고, 해가 지면 즉시 닫고 뜬 후 열게 하되, 그 위장(將)으로 하여금 문금(門禁)을 엄중히 관장하게 하소서.”

하자, 소(疏)를 비국(備局)에 내렸는데, 복주(覆奏)하여 남문의 개폐(開閉)는 허락하지 않고 단지 포청(捕廳)으로 하여금 기찰(譏察)하여 잡도록 하였으니, 대개 성안 사람들이 땔나무를 채취하면서 한 남문만으로 통행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 ▶ 54권 39년 7월 16일 辛酉

先是，上命生牛黃內入，內局未卽覓進，特下嚴教，拿治醫官，地部堂郎，來待闕下。親督廣搜，至許私屠，期於必得。自是牛死者，不啻數百。副校理洪禹瑞以此陳疏，略曰：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齊宣見牛觳觫，而易之以羊，宋仁夜思燒羊，而勿令宣索，後世稱爲盛德，皆以重物命也。玆者有生牛黃內入之命。凡爲有司之臣，何敢一毫慢忽，而凡干藥用，率皆乾置，且牛之有黃，自外莫知，到今急覓，實難猝獲。仄聞數日之間，公私屠宰，已至數百頭，而尙未能多得云。事關御藥，非可容喙，而第念牛之死，已極浩多，將無限量，事勢至此，似不可無量處之道也。殿下若果俯燭其如此，則心有惻隱之心，而有所處分矣。

答曰：“爾言是矣。予初未料生牛黃難得之至此。數日所納零瑣，則亦可知矣，而未及思量。爾言是矣，卽令停止焉。”仍傳于政院曰：“因御藥生牛黃之難得，不宜許其私屠。初欲防塞而未果，數日之內，公私屠宰，至於數百首之多。雖是畜物，心用惻隱，懸房屠宰，限五日姑停事，分付。”

이보다 앞서 임금이 생우황(生牛黃)을 대궐 안으로 들이라고 명하였는데, 내국(內局)에서 즉시 구하여 바치지 않으니, 특별히 엄교(嚴敎)를 내려 의관(醫官)을 나치(拿治)하게 하자, 지부(地部)의 당상관(堂上官)과 낭관(郎官)이 궐하(闕下)에 와서 대령하였다. 임금이 널리 찾도록 독려하여 사사로이 도살(屠殺)하는 것을 허락하고, 반드시 얻어낼 것을 기필하기에 이르니, 이로부터 죽인 소가 수백 마리뿐이 아니었다. 부교리(副校理) 홍우서(洪禹瑞)가 이로써 진소(陳疏)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제 선왕(齊宣王)이 소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는 양(羊)으로 바꾸게 하였고, 송인종(宋仁宗)은 밤에 구운 양고기를 생각하다가 마련하지 못하게 하여 후세에 성덕(盛德)이라 일컬어졌는데, 모두 생물의 목숨을 중히 여겨서입니다. 이번에 생우황(生牛黃)을 대궐안으로 들이라는 명이 있었으니, 무릇 유사(有司)의 신하로서 어찌 감히 털끝만큼인들 만홀(慢忽)하겠습니까마는, 무릇 약용(藥用)에 관계된 것은 대부분 말려 두었으며, 또 우황(牛黃)이 있음을 궐에서는 알지 못하므로 지금에 와서 급히 구해도 진실로 갑자기 얻기가 어렵습니다. 전하는 말을 듣건대 수일 사이에 공사간에 도살한 것이 이미 수백 두(頭)에 이르렀으나 아직 많이 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일이 어약(御藥)에 관계되어 말참견을 할 수는 없지마는, 다만 생각하건대 죽인 소가 이미 아주 많고 장차 한량이 없을 것이니, 사세(事勢)가 이 지경에 이르면 헤아려 처리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될 듯합니다. 전하께서 만약 참으로 이와 같음을 굽어살피신다면, 반드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처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내가 처음에 생우황을 얻기 어려움이 이 지경에 이를 줄 헤아리지 못하였는데, 며칠동안 들인 바가 아주 적으니 역시 알 만하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그대의 말이 옳다. 즉시 정지하게 하라.”

하고, 인하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어약(御藥)인 생우황을 얻기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사로이 도살하는 것을 허락함은 마땅하지 않아 애초에 막으려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여 며칠 사이에 공사간에 도살한 것이 수백 마리가 되도록 많았다. 이는 비록 짐승이지만 마음에 측은하니, 현방(懸房)의 도살을 5일을 한정으로 우선 정지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 54권 39년 9월 8일 壬子

濟州大靜、旌義，大風雨，掀海撼岳，折木拔屋，人家頽壓，多至二千餘戶，人物亦多壓死，牛馬致斃四百餘匹。命壓死人，恤典舉行，而一島被災此酷，待牧使巡審狀聞，劃卽移粟，以爲濟活之地。

제주(濟州)·대정(大靜)·정의(旌義)에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바다와 산을 뒤흔들어 나무가 부러지고 집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인가가 2천여 호나 되도록 많고 사람이 또한 많이 압사하고, 우마 4백여 필이 죽었다. 명하기를,

“압사한 사람에게는 홀전(恤典)을 거행하도록 하라, 한 섬에서 입은 재해가 이처럼 혹심하니, 목사(牧使)가 순심(巡審)하여 장문(狀聞)하기를 기다려 즉시 곡식을 옮겨서 구제해 살릴 터전을 삼도록 하라.” 하였다.

▶ 56권 41년 4월 6일 辛未

平安道泰川民家牝牛，生牡犢，兩頭、四目、兩口、兩耳。

평안도 태천(泰川) 민가(民家)의 암소가 수송아지를 낳았는데, 머리가 둘, 눈이 넷, 입이 둘, 귀가 둘이었다.

▶ 58권 42년 12월 17일 癸卯

癸卯/憲府申前啓. 又劾驪州牧使南就明，到任以來，日事醉酗，庶族用事，私屠質穀，請罷職，上不從。

헌부(憲府)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고, 또 논핵(論劾)하기를,

“여주목사(驪州牧使) 남취명(南就明)은 도입한 뒤로 날마다 술에 취하여 서족(庶族)이 용사(用事)하고 사사로이 도살(屠殺)하며 곡물을 무역하니,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의 따르지 않았다.

▶ 59권 43년 6월 21일 甲辰

甲辰/禮曹啓曰: “曾因宗廟署牒報，祭享所用樽罍、籩豆之實，有違『五禮儀』圖式者，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一一釐正, 分授本署及奉常寺, 使之檢察監設事, 入啓分付矣, 繼見奉常寺所報, 則以爲: ‘籩豆之實八種內, 大棗、栗黃、榛子之代用他果, 已經稟裁, 菱仁、芡仁之代用他果, 其來已久, 鹿脯則春秋兩等作脯之牛, 自戶曹給價, 白餅、黑餅、糗(飡)〔餌〕、粉飡四種內, 黑餅則圖式以蕎粉爲之, 而今則以唐黍米爲之, 糗餌則圖式以乾米、麥爲之, 而今則以米末造成, 眞末糝之. 豆實十二種內, 糝食之合煎, 豚拍之細折爲壘, 元無窒礙, 卽當奉行. 醢醢則圖式先膊乾魚後, 乃莖之, 雜以梁麴及鹽漬, 以美酒塗置甑中, 百日乃成云, 而今則以豕沈之, 稻米飯, 塗其上, 自戶曹稱以醢食中米, 載錄於貢案中, 其來必已久矣. 醢食則圖式以爲, 稻米舉糝漉之, 小切狼膾膏, 與稻米爲飡, .  
이하생략~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종묘서(宗廟署)의 첩보(牒報)로 인하여 제향(祭享)에 쓰는 준퇴(樽)·변두(豆)에 담은 제물 중에서 『오례의(五禮儀)』의 도식(圖式)에 어긋나는 데가 있는 것은 날날이 바로잡아 본서(本署)와 봉상시(奉常寺)에 나누어 주어 살펴서 장만하게 하는 일을 입계(入啓)하고 분부하였는데, 곧 이어서 봉상시에서 신보(申報)한 것을 보았더니, ‘변두에 담은 제물 여덟 가지 안에서 대조(大棗)·율황(栗黃)·진자(榛子)를 다른 과실로 대용하는 것은 이미 품재(裁)를 거쳤고, 능인(菱仁)·검인(仁)을 다른 과실로 대용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으며, 녹포(鹿脯)는 봄·가을 양등(兩等)에 포를 만들 소[牛]의 값을 호조(戶曹)에서 준다. 백병(白餅)·흑병(黑餅)·구이·분자(粉) 네 가지 안에서 흑병은 도식에서 교분(蕎粉)으로 만든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당서미(唐黍米)로 만들고, 구이는 도식에서 건미(乾米)·건맥(乾麥)으로 만든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미말(米末)로 만들고 진말(眞末)을 섞어 끓인다. 두에 담은 제물 열두 가지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합하여 끓이는 삼식(食)과 잘게 썰어 회를 만드는 돈박(豚拍)은 본디 막히는 것이 없으므로 곧 마땅히 봉행(奉行)할 것이다. 담해는 도식에서 먼저 건어(乾魚)를 포로 뜯 뒤에 잘게 썰어서 양국(梁)과 소금을 섞어 담그고, 좋은 술을 발라서 향아리 안에 1백 일 동안 두면 만들어진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돼지 고기로 담그고 도미(稻米)로 밥을 지어 그 위에 바르는데, 호조에서는 해식중미(食中米)라 일컬어 공안(貢案) 가운데에 기록하니, 그 유래가 반드시 이미 오래 되었을 것이다. 이식(食)은 도식에서 도미(稻米)를 반죽하고 낭촉고(狼膏)를 작게 잘라 도미와 된 죽을 섞어 만든다.  
이하생략~

### ▶ 60권 43년 8월 24일 乙巳

乙巳/典牲直長黃順承上書. 略曰:

嗚呼! 壬辰再造之恩, 尙忍忘哉? 神宗皇帝, 赫然東顧, 動天下兵, 復我疆土. 天將之受命來戰, 如提督李如松諸人, 其功烈豈不偉燁, 而猶不若經理楊鎬之血心我東事也. 南城之祠, 沙峴之碑, 蓋出去思之意, 而至於延恩門路北之碑, 又特書皇上之德意, 其事貌固已重, 而亦吾人所不忍忽者. 然而碑在直北路上, 只設一間短簷, 村兒、牧豎, 喙斷而

**無所禁**, 當日之立石頌德, 其意豈止此哉? 今若因加修改, 稍備其制, 施以丹雘, 使行路改瞻, 邦人聳聞, 則當此大義寢晦之日, 足可補世道之萬一.

世子下其書于禮曹, 禮曹覆奏修改.

전생서 직장(典牲署直長) 황순승(黃順承)이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아! 임진난(壬辰亂) 때 국가를 재조(再造)하여 준 은혜를 차마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종 황제(神宗皇帝)가 혁연(赫然)히 노하시어 동방(東方)을 돌아보시고 천하의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의 강토(疆土)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명령을 받들고 와서 싸운 천장(天將) 가운데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과 같은 사람들의 그 공렬(功烈)이 어찌 위대하고 빛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경리(經理) 양호(楊鎬)가 우리나라의 일에 혈성(血誠)을 기울인 것만은 못합니다. 남성(南城)의 사당(祠堂)과 사현(沙峴)의 비석(碑石)은 대개 떠난 다음에도 잊지 못하는 마음에서 만든 것입니다. 연은문(延恩門)의 길 북쪽에 있는 비석은 또 특별히 황상(皇上)의 덕의(德意)를 기록한 것이므로 그 일의 체모(體貌)가 진실로 중한 것이니, 또한 우리마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석이 북쪽 길가에 있는데다 다만 한 칸의 작은 비각(碑閣)만 설치하였을 뿐이어서 마을 아이들과 목동(牧童)들이 마구 훼손시켜도 금하는 바가 없습니다. 당시 비석을 세워 덕의를 칭송한 그 뜻이 어찌 여기에 그쳤겠습니까? 이제 그대로 더 개수(改修)하여 그 제도를 조금 갖추고 단청(丹青)을 하여 면모를 일신시킴으로서 길 가는 사람들이 다시 우러러보고 나라 사람들이 귀를 쫓긋거리고 듣게 한다면 이렇게 대의(大義)가 어두워져가는 때를 당하여 족히 세도(世道)의 만분에 일이라도 도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세자(世子)가 그 상서(上書)를 예조(禮曹)에 내렸는데 예조에서 개수(改修)할 것으로 복주(覆奏)하였다.

## ▶ 62권 44년 7월 21일 戊辰

命減關東歲貢參, 未幾還仍. 關東, 皆山也. 以產參, 名於國中. 春秋及臘藥材, 所貢人參, 合爲六十斤. 中世以來, 火耕寢盡, 經燒之地, 參輒不生, 以致苗種漸稀, 採取絕艱. 諸郡不得已算田收價, 付商貿貢, 而參價日聳, 民賦歲增, 爲一道巨弊. 戊子, 因御史書啓, 許減春秋參合十五斤, 東民猶不堪命. 內醫提調閔鎮厚, 嘗於筵中, 備陳其狀, 先減臘參十斤, 後又請更減五斤, 只存春秋各十五斤, 上初難之, 強請而後始許. 既而下特教曰:

御藥所用多少, 不可預定. 而東參所減, 厥數已自不少, 提調又請減, 事涉未安. 其時舉條爻周. 且受鍼後, 煎入生脈散, 厥惟舊哉, 經提調幾人, 而莫之減去, 上年因提調言減之, 亦未穩當. 今後依前煎入.

初鎮厚以爲鍼法爲疏通經絡, 而生脈散, 入人參主補, 有乖醫理, 請除其規, 罷之有年, 因減參之事, 遽命復舊. 蓋內局藥材出入, 只在掌醫與胥吏之手, 用度濫屑, 無有限節, 而都提調以下, 不問其數, 甚至臘參, 初不入庫, 直歸首醫之私橐, 歲以爲常. 若國用匱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乏，則輒又加徵於例貢之外。鎮厚深知其弊，首罷臘封，創立新規，人蔘、牛黃之屬，隨用會計，以月晦上聞，醫吏輩，無所容其奸，怨謗頗騰，流聞掖庭。至是被責旨，未久解提調，物情多爲聖朝惜之。其後都提調李頤命從容白上曰：“詩云：‘民之失德，乾糶以愆。’既以權減之意，行會本道，民皆認爲已減矣。今遽復舊，未免失信，今年則依前下教許減，徐議復舊亦未晚矣。”上不從。

관동(關東)의 세공삼(歲貢蔘)을 감하도록 명하였다가 얼마 되지 않아 그전대로 환원시켰다. 관동은 모두 산(山)이어서 삼(蔘)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라 안에 이름이 났으며, 봄·가을 및 납약재(臘藥材)로 바쳐지는 인삼(人蔘)의 합계가 60근(斤)이나 되었다. 중세(中世)로 내려오면서 화전(火田)을 경작하는 일이 점차로 성해졌는데, 태우고 난 지역에는 인삼이 문득 나지 않아 묘종(苗種)이 점점 드물게 되어 채취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다. 여러 군(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밭에서 수확되는 값을 계산하여 상인(商人)에게 부탁하여 사다가 바치게 되니, 인삼 값은 날마다 오르게 되고 백성들의 세금은 해마다 증가되어 한 도(道)의 큰 폐단이 되었었다. 그러다가 무자년에 어사(御史)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봄·가을에 바칠 인삼 합계 15근(斤)을 감하도록 허락하였는데, 관동의 백성들은 그래도 명령(命令)을 감당하지 못했었다. 내의원제조(內衣院提調) 민진후(閔鎭厚)가 일찍이 연중(筵中)에서 그 상황을 갖추 진달하여 먼저 납약재인 인삼 10근을 감하게 하고, 뒤에 또다시 5근을 감하도록 청하자, 단지 봄·가을로 각기 15근만 남겨두게 하였는데, 임금이 처음에는 어렵게 여기다가 억지로 칭한 뒤에야 비로소 허락하였다. 얼마 있다가 특교(特敎)를 내리기를,

“어약(御藥)으로 쓰이는 다소(多小)는 미리 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관동의 인삼은 감해준 그 수량이 이미 적지 않은데, 제조(提調)가 또 감해 주기를 청하니, 일이 미안(未安)한 데 관계된다. 그대의 거조(舉條)는 효주(爇周) 하도록 하라. 또 침(鍼)을 맞은 뒤에 생맥산(生脈散)을 달여서 들인 지 오래 되었다. 제조(提調)를 지낸 사람이 몇 사람이었지만 감해준 적이 없었는데, 지난해에 제조의 말로 인해서 감해 주었으니, 역시 온당(穩當)하지 못하였다. 이 뒤로는 그전대로 달여서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처음에 민진후(閔鎭厚)가 침법(鍼法)은 경락(經絡)을 소통(疏通)시키는데, 생맥산(生脈散)은 인삼(人蔘)이 들어가서 주로 <원기(元氣)를> 보충하므로, 의학(醫學)의 이론상 어긋남이 있다고 여겨, 그 규정을 제거하도록 청하여 없앤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인삼을 감하는 일로 인하여 갑자기 옛날대로 회복하도록 명하였다. 대체로 내국(內局)에서 약재(藥材)를 내주거나 받아들이는 일이 단지 장의(掌醫)와 서리(胥吏)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용도(用度)가 지나치게 잡다하여 제한과 절도가 없었다. 그런데도 도제조(都提調) 이하가 그 수량을 물어 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납약재인 인삼은 아예 창고에 들이지도 않은 채 곧장 수의(首醫)의 개인 주머니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해마다 상례(常例)가 되었으며, 만약 국용(國用)이 부족하면 번번히 상례로 바치는 외에 더 징수하도록 했던 것이다. 민진후가 그 폐단을 깊이 알고 맨 먼저 납약재로 바치는 인삼을 없애도록 하고, 새로운 규정을 정하여 인삼·우황(牛黃) 등속은 사용하는 대로 회계(會計)하여 매월 그믐에 임금에게 아뢰도록 하니, 의원과 서리의 무리가 그들의 간사함을 용납할 데가 없어 원망과 비방이 대단히 시끄러웠는데, 액정(掖庭)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책망하는 내용의 전지(傳旨)를 받고 오래되지 않아 제조에서 해임되었으므로, 물정(物情)이 성조(聖朝)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기는 자가 많



있었다. 그 뒤에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命)이 조용히 임금에게 아뢰기를,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백성이 화합하지 못함은 보잘것 없는 음식으로 허물을 삼는다.’ 하였습니다. 이미 임시로 감하여 준다는 뜻을 본도(本道)에 행회(行會)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이미 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그전대로 회복시킨다면 실신(失信)을 면하지 못하니, 금년에는 지난번의 하교(下敎)에 의거하여 감하도록 허락하고, 예전대로 회복하는 것은 천천히 의논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 ▶ 62권 44년 12월 15일 戊午

咸鏡道各邑, 染病方痛四千五百七十餘名, 死亡一千二百四十三名, 慶尙道各邑, 染病方痛二千三百一名, 死亡三百四十六名, 牛疫致斃一百三十餘頭, 道臣以聞.

함경도(咸鏡道) 각 고을에 염병(染病)으로 한창 앓고 있는 자가 4천 5백 70여 명이고, 사망(死亡)한 자가 1천 2백 43명이며, 경상도(慶尙道) 각 고을에 염병으로 한창 앓고 있는 자가 2천 3백 1명이고, 사망한 자가 3백 46명이며, 소[牛]가 전염병으로 죽은 것이 1백 30여 두(頭)라고 도신(道臣)이 아뢰었다.

### ▶ 63권 45년 4월 13일 乙卯

乙卯/黃海道瓮津府民家, 有牛生犢, 五脚六足, 兩尾一頭.

황해도(黃海道) 웅진부(瓮津府)의 민가(民家)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다리가 다섯 개, 발이 여섯 개, 꼬리가 두 개, 머리가 하나였다.

### ▶ 63권 45년 4월 30일 壬申

正言洪鉉輔上書. 略曰:

國之大事在祀, 則固當一遵禮制, 而忌辰祭及五名日節祀饗品, 只以油果、泡湯設行, 其爲未安甚矣. 傳聞國初定禮之大臣, 爲慮後弊, 以此定式, 而素饗之制, 考之經傳, 質諸祀典, 皆無所據. 此不過我國新創之初, 因襲勝國崇佛之餘習, 莫重祀典, 遵用此制, 惡在其血食之義哉? 若曰素饗不悖於禮意, 則太廟之祭, 當用此制, 而太廟則朔望暨大祭, 皆用薦牢之典, 此誠無於禮之禮也. 議者以爲: “改素用肉, 經費難支”, 亦有不然者. 臣聞奉常寺封進素饗貢物之價, 其數夥然, 而太半入於蜜果所入油淸、眞末之價云. 蜜果非禮家所尙, 實是僧俗之所貴, 而又薦於太廟, 減之可也. 若以先朝所用, 其來已久, 不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可猝然全廢，則半減其器數。以其所除之價計之，猶且不少，足當肉饌之價。雖或不足大牢於，猶可辦小牢，此而不足，只用長脯，其不愈於設素饌從佛習之爲謬乎？雪冤伸枉，有國之先務。皇甫仁、金宗瑞等，當我世祖大王受禪之際，自爲其主，不早攀附，俱被極禍，尚在罪籍。聖祖誅鋤諸人之舉，蓋出於定危疑行大權之義，而既於登極之後，製訓辭以示睿宗曰：“予當屯，汝當泰。事隨世變，汝拘於吾跡而不知變，所謂圓鑿而方柄也。”聖祖之嘉其志、憫其死之大旨，此可見矣。聖祖之意，始行於今日，使復其官，則豈非繼述之美，而益有光於聖祖耶？

이하생략~

정언(正言) 홍현보(洪鉉輔)가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나라의 대사(大事)는 제사(祭祀)에 달려 있으니, 진실로 한 결 같이 예제(禮制)를 준수(遵守)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신제(忌辰祭)와 오명일(五名日) 절사(節祀)의 선품(膳品)을 단지 유과(油果)와 포탕(泡湯)만을 가지고 설행(設行)하니, 매우 미안(未安)합니다. 전해 듣건대, 국초(國初)에 예제(禮制)를 정한 대신(大臣)이 훗날의 폐단(弊端)을 염려하여 이로써 정식(定式)을 삼았다고 하는데, 소선(素膳)의 제도를 경전(經傳)에서 상고하고 사전(祀典)에서 질정(質正)해 보았으나 모두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 창건(創建)하던 초기에 멸망된 나라[高麗]의 불교(佛敎)를 숭상하던 여습(餘習)을 인습(因襲)한 데 지나지 않는 데, 막중(莫重)한 사전(祀典)을 이 제도로 준용(遵用)하고 있으니, 어찌 혈식(血食)하는 뜻이 있겠습니까? 만약 소선(素膳)이 예의(禮意)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태묘(太廟)의 제사도 마땅히 이 제도를 준용(遵用)해야 할 것인데, 태묘는 삭망제(朔望祭)와 대제(大祭)에 모두 희생(犧牲)을 바치는 제전(祭典)을 쓰고 있으니, 이는 진실로 예제(禮制)에 없는 예(禮)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소선(素膳)을 고쳐 육선(肉膳)을 쓰면 경비(經費)를 지탱하기 어렵다.’ 하나, 또한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신이 듣건대, 봉상시(奉常寺)에서 봉진(封進)하는 소선(素膳)의 공물가(貢物價)는 그 액수가 매우 많지마는, 반수 이상은 유밀과(油密果)에 들어간 유청(油淸)·진말(眞末)의 값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유밀과는 예가(禮家)에서 숭상하는 것이 아니고, 실로 승려(僧侶)와 속인(俗人)이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또 태묘(太廟)에 올리고 있으니, 이를 줄이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선조(先祖)에서 쓴 것이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완전히 폐지할 수 없다면 그 그릇의 수효를 반감(半減)하고, 그 줄인 값을 계산하더라도 오히려 적지 않으니, 육선(肉膳)의 값을 족히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혹시 대뢰(大牢)에 부족(不足)하더라도 오히려 소뢰(小牢)는 판비(辨備)할 수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하고서도 부족(不足)할 경우에는 단지 장포(長脯)만 쓰더라도 소선(素膳)을 베풀어 불교(佛敎)의 습속에 따르는 그릇된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벗겨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나라를 보유(保有)하는 선무(先務)입니다.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은 우리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선위(禪位)를 받을 즈음에 스스로 그 군주(君主)를 위해 일찍이 반룡부봉(攀龍附鳳)하지 않고 모두 극화(極禍)를 입고서 아직도 죄적(罪籍)에 있습니다. 성조(聖祖)께서 여러 사람을 죽인 일은 대개 위외(危疑)를 평정(平定)하고 대권(大權)을 행하려는 뜻에서 나왔는데, 이미 등극(登極)하신 후에 훈사(訓辭)를 지어 예종(睿宗)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험난(險難)함을 당하였으나 너

는 태평(泰平)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일은 세상을 따라 변하는 것인데, 네가 나의 한 일에 구애받아 변통(變通)할 줄을 모른다면, 이른바 등글게 뚫은 구멍에 모난 장부를 끼우려 하는 것이다.’ 하셨으니, 성조(聖祖)께서 그 뜻을 칭찬하시고 그 죽음을 불쌍히 여기신 큰 뜻을 이에게 볼 수 있습니다. 성조(聖祖)의 뜻을 오늘날에 비로소 시행하여 그 관직을 회복시킨다면 어찌 계술(繼述)하는 아름다움이 더욱 성조께 빛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하생략~

## ▶ 속중 065 부록 / 속중 대왕 묘지문[誌文]

誌文曰

於戲! 恭惟我肅宗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諱焯, 字明普, 顯宗大王之適嗣, 孝宗大王之孫. 母妃明聖王后金氏, 敦寧府事淸風府院君佑明之女也. 王小字龍祥. 孝廟嘗夢, 明聖王后寢室, 有物覆以衾, 開視則龍也. 孝廟覺而喜曰: “將得元孫之吉兆.” 乃預命小字以待之. 至辛丑八月十五日辛酉, 王誕降于慶德宮之會祥殿, 實崇禎紀元之王十四年也. 王五歲時, 明聖王后有產病, 不能進食, 王必跪進粥飲, 憂形於色. 后曰: “汝勸何可不從?”, 爲之強進. 王嘗有所養雀雛, 死則令母棄而瘞之. 內局取牛酪, 其犢多悲鳴, 王問其故, 不進酪. 愛親之誠、及物之仁, 自幼已如此  
이하생략~

묘지문(墓誌文)에 이르기를,

“아! 삼가 생각건대 우리 속중 현의 광륜 예성 영렬 장문 헌무 경명 원효 대왕(肅宗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의 휘(諱)는 순(焯), 자(字)는 명보(明普)로, 현종 대왕(顯宗大王)의 적사(嫡嗣)이고 효종 대왕(孝宗大王)의 손자이다. 모비(母妃)는 명성왕후(明聖王后) 김씨(金氏)로,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청풍 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金佑明)의 따님이다. 왕(王)의 소자(小字)는 용상(龍祥)이다. 효묘(孝廟)께서 일찍이 꿈을 꾸시니 명성왕후의 침실(寢室)에 어떤 물건이 이불로 덮여 있었는데, 열어보니 용(龍)이었다. 효묘께서 꿈에서 깨신 뒤 기뻐하여 말하기를, ‘장차 원손(元孫)을 얻을 길조(吉兆)로다.’ 하고, 이에 미리 소자(小字)를 지어 기다리게 하였다. 신축년 8월 15일 신유(辛酉)에 이르러 왕이 경덕궁(景德宮)의 회상전(會祥殿)에서 탄강(誕降)하시니, 실로 숭정(崇禎) 기원 14년이였다. 왕이 다섯 살 때 명성왕후가 산병(産病)이 있어 진지를 드시지 못하자, 왕이 반드시 꿇어앉아 미음을 올렸고 근심하는 빛이 안색에 나타났다. 왕후가 말하기를, ‘네가 권하니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시며 억지로 죽을 드셨다. 왕이 일찍이 기르던 참새 새끼가 있었는데, 이 새가 죽자 버리지 말고 물어주도록 하였다. 내국(內局)에서 우락(牛酪)을 취하는데 그 송아지가 비명을 많이 지르자, 왕이 그 까닭을 묻고 나서는 우락을 먹지 않았다. 아버이를 사랑하는 정성과 동물에게까지 미치는 인덕(仁德)이 어려서부터 이미 이와 같았던 것이다.  
이하생략~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 숙종 065 부록 / 숙종 대왕 행장(行狀)

~이상생략

神州陸沈, 日月晦暝, 而一脈義理, 不昧於左海之域. 若稽我仁祖大王, 抱『匪風』、  
『下泉』之痛, 遺高皇白登之恥, 越我孝宗大王, 奮發大志, 將大有爲, 至痛在心之教,  
可泣鬼神. 除兇刷恥之志, 皎如日星, 而天定靡期, 弓劍遽遺, 志士之痛, 至今如一日, 而  
『春秋』大義之亘古今不可滅者, 寢遠而寢微, 王大爲是懼, 奮然以一身擔荷, 乃於甲申  
重回之日, 追傷皇都淪覆之事, 設壇禁中, 遙祭毅宗皇帝. 將事之時, 怵惕、慘怛, 眞若  
親見天地之崩裂. 王以爲壬辰再造之恩, 萬世不可忘, 設壇于宮城北淨處, 命之曰大報,  
歲以大牢, 祀神宗皇帝, 親製志感詩並序, 令諸臣和進.

이하생략~

~이상생략

신주(神州)가 육침(陸沈)되고 일월(日月)이 캄캄하게 어두워졌으나, 한 줄기의 의리(義理)  
가 좌해(左海)의 지역에서 어둡지 않았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날 우리 인조 대왕(仁祖大王)  
은 ‘비풍(匪風)·하천(下泉)’의 원통함을 안고서 ‘고황 백등(高皇百登)’의 수치’를 남겼고, 우리  
효종 대왕(孝宗大王)께서는 대지(大志)를 분발하여 장차 큰일을 하시려 하여, ‘지극한 통한  
이 마음속에 있다.’는 하교를 내리셨으니, 귀신을 울릴 만하였다. 흉적(凶賊)을 제거하고 수  
치를 씻으려는 뜻은 밝기가 해와 별 같았는데, 하늘이 계획을 기약할 수가 없어 궁검(弓劍)  
을 갑자기 버리니, 지사(志士)의 분통이 지금까지도 하루와 같다. 그러나 고금을 통해 멸할  
수 없는 춘추(春秋)의 대의(大義)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희미해지자, 왕은 이것을 크게 두  
려워하며 분연히 한 몸으로 짊어지고 이에 갑신년이 거듭 돌아오는 날에 황도(皇都)가 함락  
된 일을 슬퍼하시어 금중(禁中)에 단(壇)을 설치하여 멀리 의종 황제(毅宗皇帝)를 제사하였  
는데, 장차 제사를 지내려는 때에 출척·참달(慘)하여 참으로 천지(天地)가 무너지고 분열되  
는 것을 친히 보는 듯이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임진년에 재조(再造)한 은혜는 만세(萬世)토록 잊을 수 없다.’며 궁성(宮  
城) 북쪽 정결한 곳에 단(壇)을 설치하고, ‘대보단(大報壇)’이라 명명(命名)하여 해마다 태뢰  
(太牢)로 신종 황제(神宗皇帝)를 제사하였으며, 친히 ‘지감시(志感詩)’와 서문(序文)까지 지어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화답(和答)해 올리게 하였다.

이하생략~

## 22. 肅宗實錄補闕正誤

### ▶ 14권 9년 6월 1일 壬申

壬申/右議政金錫胄疏救金益勳【疏見上.】副應教朴泰遜疏攻之【與見上.】承嚴批.【批見上.】持平俞得一亦引避曰：“益勳追告兒房，心許陰秘，備給戎物，情節難測，上自朝紳，下至韋布，以及婦孺之愚，牛馬之走，莫不深惡痛嫉，即伏見金錫胄筭本，伸救益勳，攻斥臺臣，無所不用其極. 國家之所以倚毗崇信者，大臣，而大臣如此，則殿下之國，終至危亡而後已也. 益勳之舊奸宿惡，不必縷舉，至如火藥等物，潛投於賦璽出他之時，投之者壽萬，而益勳擔當譏察，則夫豈有不知之理？其張大獄事，希覬功賞之心，誠路人所知也. 今日勳戚之權，日以益盛，政刑紊亂，是非乖舛，馴致上天示警，烈日如焚，未知此何氣象也？相臣之筭，盛加侵斥，殿下之批，顯示摧折，隻手片言，決無澄肅朝綱，裨補聖世之望.”上批極嚴. 工曹參判朴世采上疏曰：

今日大臣、臺臣不能通知，其情有所寅協，以此雖於金益勳事，物議喧騰，人不欲下手於其間者，輒生酌處之論，至今爲士子，輿人之罵端，而支節轉多，日益乖激. 況其火藥等事，發於筵中，臺閣之心則以爲，此乃國論之大者，決不可置之.’云爾，大臣之意則自有所拘，尤不能通知其蘊，馴而至此. 身願殿下，廓然大公，平心和氣，快示悔悟之意. 又使大臣，恢其德量，扶養士氣，臺閣勿爲峻激語，以傷大體.

上賜優批而已. 世采後於登對，請改得一批中邪毒二字，上不從. 世采仍申當初所陳三條之說，至曰：“追錄還收之請，大有關於國體，而尙無指揮，不勝悶鬱.”遂請退歸，上溫言勉留.

우의정(右議政) 김석주(金錫胄)가 소(疏)로써 김익훈(金益勳)을 구(救)하자, 【소(疏)는 위에 보인다.】 부응교(副應敎) 박태손(朴泰遜)이 소(疏)로 공격(攻斥)하였는데, 【소(疏)는 위에 보인다.】 엄(嚴)한 비답(批答)을 받았다. 【비답(批答)은 위에 보인다.】 지평(持平) 유득일(俞得一) 또한 인피(引避)하면서 말하기를,

“김익훈이 뒤이어 아방(兒房)에서 밀계(密啓)하였으니, 마음과 계책은 음험하고 비밀스러우며, 용물(戎物)을 갖추어 주었으니 정절(情節)은 측량(測量)하기 어려워, 위로 조신(朝紳)에서부터 아래로 위포(韋布)와 어리석은 아낙네, 걸어 다니는 우마(牛馬)에 이르기까지 깊이 미워하고 질시(嫉視)하지 않음이 없는데, 지금 앞드려 김석주(金錫胄)의 차본(筭本)을 보니, 김익훈을 신구(伸救)하고 대신(臺臣)을 공격(攻斥)하여 그 극(極)을 다 쓰지 아니한 바가 없습니다. 국가(國家)가 의지하고 믿으며 숭신(崇信)하는 바는 대신(大臣)인데, 대신이 이와 같다면 전하의 나라는 끝내 위태로워 망하는 데 이른 뒤에야 그칠 것입니다. 김익훈의 예전부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터의 간악함과 오래 묵은 음험스러움을 반드시 자세히 거론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화약(火藥) 등의 물건에 이르러서는, 역적 허새(許璽)가 출타(出他)하였을 때 던져넣었고, 던져넣은 사람은 한수만(韓壽萬)이었으며, 김익훈이 기찰(譏察)하는 것을 담당(擔當)하였으니, 대저 어찌 알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 옥사(獄事)를 크게 벌여 공(功)과 상(賞)을 바란 마음은 진실로 길가는 사람도 아는 바입니다. 오늘날 훈척(勳戚)의 권세(權勢)가 날로 더욱 성(盛)해지고, 형정(刑政)이 문란(紊亂)하며 시비(是非)가 어긋나서, 자연히 하늘이 경책(警責)을 보이게 되어 뜨거운 해가 불타는 듯하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떠한 기상(氣象)인지요? 상신(相臣)의 차자(筭子)는 침척(侵斥)을 크게 더하였고, 전하의 비답(批答)은 드러나게 최절(折)됨을 보이셨으니, 한쪽 손과 한 마디 말로는 조정의 기강을 깨끗하게 하고 성세(聖世)를 돕는 가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비답(批答)이 지극히 엄하였다. 공조참판(工曹參判) 박세채(朴世采)가 상소(上疏)하기를,

“오늘날 대신(大臣)과 대신(臺臣)이 능히 그 정상(情狀)에 인협(寅協)하는 바가 있음을 두루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비록 김익훈(金益勳)의 일에서 나온 것이나, 물의(物議)가 떠들썩하게 들끓어, 그 사이에 하수(下手)하려고 하지 않던 사람들도 곧 작처(酌處)의 논의를 내니, 오늘날에 이르러 선비들과 많은 사람들의 매도(罵倒)하는 단서가 되었으며, 지절(支節)이 갈수록 많아져 날로 더욱 괴격(乖激)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화약(火藥) 등의 일이 연중(筵中)에서 나오자, 대각(臺閣)의 마음은 ‘이것이 곧 중대한 국론(國論)이니, 결코 버려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고, 대신(大臣)의 뜻은 스스로 꺼리는 바가 있으며, 또 속 내용을 두루 알지 못하여 자연히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확연히 크게 공평하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과 온화한 기색으로 캐히 회오(悔悟)하는 뜻을 보이소서. 그리고 또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그 덕(德)과 도량(度量)을 넓히게 하여 선비의 기상을 부양(扶養)하게 하고, 대각(臺閣)은 준격(峻激)한 말을 하여 대체(大體)를 손상함이 없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은 우악한 비답을 내렸을 뿐이었다. 박세채가 뒤에 등대(登對)하였을 때, 유득일(兪得一)에게 내린 비답 가운데서 ‘사독(邪毒)’ 두 글자를 고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박세채가 이어 당초에 진달(陳達)하였던 세 조목(條目)의 말을 거듭 아뢰고, 말하기를,

“추록(追錄)을 환수(還收)할 것을 청한 것은 국체(國體)에 크게 관계됨이 있는데, 아직도 지휘(指揮)하심이 없으니, 민율(悶鬱)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마침내 물러나 돌아갈 것을 청하니, 임금이 부드러운 말로 면류(勉留)하였다.

### ▶ 61권 44년 5월 10일 戊午

戊午/前兵曹判書尹趾仁卒. 趾仁字幼麟, 故判書絳之子, 趾完弟也. 忠實誠篤, 無一毫虛僞, 樂於從善, 勇於改過, 居官任職, 持以至公, 夙夜匪懈. 雖欠通敏之才, 而有歲計之效, 無赫赫之聲, 而多入人之惠, 上亦甚重之. 方以判尹告病, 遣醫看病, 賜人參及御膳, 此非列卿所嘗得者. 律已清嚴, 世無倫比, 致位崇顯, 弊縉脫粟, 處之晏如. 按關西時, 其子造一小屏, 卽令焚之, 其妻終不易去時衣裳. 至是非罪譴黜, 忍飢成疾. 其幕裨市牛肉

往饋, 笑曰: “吾今日得一飽.” 無何竟卒, 年六十. 士流咸爲之痛惜曰: “善人其亡矣.”

전 병조판서 윤지인(尹趾仁)이 졸하였다. 윤지인은 자가 유린(幼麟)인데, 고 판서 윤강(尹絳)의 아들이고 윤지완(尹趾完)의 동생이었다. 사람이 충실하고 성실하여 털끝만큼도 허위(虛僞)가 없었으며, 선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허물을 고치는 데에 용감하였다. 관직에 재임할 때에는 지극히 공정한 마음을 지녔고 밤낮으로 해이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통민(通敏)한 재주는 없었으나 해를 단위로 계산해보면 공효가 있었고, 험격한 명성은 없었지만 남에게 은혜를 입힌 것은 많았으므로 임금도 그를 매우 중하게 여겼다. 바야흐로 판윤(判尹) 벼슬에 있다가 병이라 고하니, 의원을 보내어 간병하게 하고 인삼과 어선(御膳)을 내려주었는데, 이것은 열경(列卿)들이 일찍이 받아보지 못했던 은전이였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깨끗하고 엄하여 세상에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지위가 매우 높은 현질(顯秩)에 이르렀으나 해진 옷을 입고 양식이 떨어질 지경에 있어도 태연하게 처신하였다. 관서 지방(關西地方)을 안찰(按察)할 때에 그 아들이 하나의 조그마한 병풍을 만들었는데 즉시 이것을 불태우게 하였으며, 아내가 끝내 갈 적에 입었던 의상(衣裳)을 바꾸어 입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죄가 없는데도 견책당하여 쫓겨났는데, 굶주림을 참다가 병이 났다. 그 막하의 비장(裨將)이 쇠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공궤(供饋)하였더니, 그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오늘 한 번 포식하였다.’ 하고는 얼마 안 있다가 마침내 졸하니, 나이가 60이었다. 사류들이 모두 그를 위하여 애통하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착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였다.

## 23. 景宗實錄

### ▶ 3권 1년 2월 4일 乙未

禁諸道移秧及屠牛. 因大司成金雲澤所白, 廟堂奏行之.

여러 도(道)의 이앙(移秧) 및 소의 도살을 금하였다. 대사성(大司成) 김운택(金雲澤)의 건백(建白)으로 인한 것인데, 묘당(廟堂)에서 아뢰어 시행하였다.

### ▶ 4권 1년 7월 1일 庚寅

平安道寧邊地, 雌牛產雛, 一身兩頭. 道臣狀聞.

평안도의 영변(寧邊) 땅에서 암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몸통은 하나에 머리가 두 개였다. 도신(道臣)이 장문(狀聞)하였다.

### ▶ 4권 1년 9월 6일 甲午

甲午/王世弟、嬪宮入宮. 世弟自私邸, 具布翼善冠、白袍布裹犀帶而出. 當乘輿輦, 涕泣固辭, 宮官強請乃乘. 至弘化東夾門下輦, 欲却輿步行, 宮官又力請乘輿, 乃許. 下輿于明政門外, 入就殿庭. 請大妃殿、大殿、中宮殿承傳內官問安, 仍入孝寧殿齋室, 改具衰經, 入就殿前, 展拜訖, 世弟問宮官曰: “何以無哭禮?” 宮官對曰: “該曹節目, 似是疎漏, 而倉卒今難稟定于大朝. 請姑依儀注行禮.” 世弟又欲入審殿內, 宮官亦以爲未經禮官磨鍊, 不可行, 世弟從之. 出具視事服, 由賓陽門入內.

왕세제와 빈궁(嬪宮)이 입궁(入宮)하였다. 세제는 사저(私邸)에서 베로 쓴 익선관(翼善冠)과 백포(白袍)와 베로 쓴 서대(犀帶)를 갖추고 나왔다. 여연(輿輦)을 타려 할 때에도 흐느끼며 굳이 사양하다가 궁관(宮官)이 강청(強請)한 뒤에야 탔다. 홍화문(弘化門) 동쪽 협문(夾門)에 이르러 연에서 내려 연을 물리치고 걸어가려 하니, 궁관이 또 연에 탈 것을 역청(力請)한 뒤에야 탔다. 명정문(明政門) 밖에서 연에서 내려 전정(殿庭)으로 들어갔다. 대비전(大妃殿)·대전(大殿)·중궁전(中宮殿)의 승전 내관(承傳內官)을 청하여 문안(問安)하고는 이내 효령전(孝寧殿)의 재실(齋室)로 들어가 쇄(衰)로 갈아입고 전전(殿前)에 들어가 전배(展拜)를 마쳤다. 세제가 궁관에게 ‘어찌 곡례(哭禮)가 없느냐?’고 물으니, 궁관이 대답하기를,



“해조(該曹)의 절목(節目)이 소루(疏漏)한 것 같으나, 창졸간에 지금은 대조(大朝)에 품정(定)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우선 의주(儀註)에 따라 행례(行禮)할 것을 청하였다. 세제가 또 전내(殿內)에 들어가 살펴보려 하자, 궁관이 역시 예관(禮官)의 마련을 거치지 않았으니 행할 수 없다 하므로, 세제가 그대로 따랐다. 나와서 시사복(視事服)으로 갖추어 입고 빈양문(賓陽門)을 거쳐 안으로 들어갔다.

## ▶ 8권 2년 5월 12일 丙申

兩司【掌令李景說、持平金弘錫、正言鄭壽期·李眞淳】合啓, 請健命、泰采, 按律處斷, 不從. 憲府申前啓, 又啓曰: “水原、洪原等牧場, 本屬南陽牧官, 一自別設牧官以後, 爲弊特甚, 多設鹽盆於場內, 驅去牛馬, 長其草蘇, 以作煮鹽之資. 累百牛馬, 既不得食, 逸出場外, 蹂躪民田, 嚼吃禾稼, 環牧場八面數十里地, 慘被其害. 前監牧官鄭治, 受集賊指使, 割場內水草地, 太半爲集賊作沓. 渠亦同利, 督役嚴急, 鞭扑狼藉, 屯民、牧子, 皆不堪命. 其諂附權凶, 虐民規利之罪, 不可不嚴懲. 請洪原牧場, 依前屬之南陽牧官, 前監牧官鄭治, 拿問定罪.” 末端事從之, 餘不從. 諫院申前啓, 並不從.

양사(兩司)【장령(掌令) 이경열(李景說), 지평(持平) 김홍석(金弘錫), 정언(正言) 정수기(鄭壽期)·이진순(李眞淳)이다.】에서 함께(合啓)하여 이건명(李健命)과 조태채(趙泰采)를 안율(按律)하여 처단할 것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수원(水原)·홍원(洪原) 등의 목장(牧場)은 원래 남양(南陽)의 목관(牧官)에 소속된 것인데, 한 번 따로 목관을 설치한 이후부터 폐단이 특별히 몹시 많아졌습니다. 목장 안에 염분(鹽盆)을 많이 설치하여 우마(牛馬)를 몰아내고 그 풀을 길러 소금을 굽는 재료로 쓰니, 수백 마리의 우마(牛馬)가 이미 먹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되자, 목장을 빠져 나와 민전(民田)을 짓밟고 벼를 뜯어먹어 목장 주위의 여덟 개 면(面)의 수십 리나 되는 땅이 그 해(害)를 참혹하게 입었습니다. 전(前) 감목관(監牧官) 정치(鄭治)는 역적 김창집(金昌集)의 사주를 받고 목장 안에 있는 수초지(水草地)를 떼내어 태반을 역적 김창집을 위해 논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도 역시 이익을 같이 얻으므로 역사(役事)를 엄중하고 급하게 독촉하여 매질이 낭자하니, 둔민(屯民)과 목자(牧子)들이 모두 생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권흥(權凶)에게 아첨하여 불췌아 백성을 학대하며 이익을 노린 죄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홍원(洪原)의 목장을 전처럼 남양(南陽)의 목관(牧官)에 소속시키고, 전 감목관(監牧官) 정치(鄭治)는 나문(拿問)하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말단의 일은 그대로 따르고 나머지는 따르지 않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 10권 2년 12월 2일 癸丑

諫院【正言金重熙.】申前啓, 不從. 又啓曰: “前咸鏡監司尹憲柱, 自在郎署, 專事肥己, 已有起家之誚. 曾蒞星州, 僞增賑穀, 過蒙陞資之典, 人之唾罵, 至今未已. 頃爲北伯也, 手段既熟, 貪心益肆, 就其最著者言之, 進上首鬣, 自有定數, 憑藉濫定, 大邑多至四十柄, 小亦不下十餘柄. 質鬣之價, 皆出民間, 各邑所聚雜穀之數, 或至八九百石, 或至三四百石, 而及期來納之數, 較諸應納, 不啻倍蓰, 則取其已納者, 先爲封進. 至於未納之邑, 則一柄之價, 勒徵四升布三十疋, 諉以移給於已納之邑, 而去處不明, 此其罪一也. 營庫流來腐破木百餘同, 稱以改色, 分送於北關列邑, 每一疋使之換納六升布二疋, 而來納之時, 勒捧七八升布. 及其畢納之後, 托以賑資料辦, 一日之內, 盡出二百餘同細布, 一半則送于關西, 一半則送于京中, 竝無去處, 而給價京商換質, 尤甚麤短木, 以充留庫之數, 此其罪二也. 清查出來時, 各邑例給牛、猪、魚鹽等物種, 皆自營門防納, 而以其防納價穀物, 勒定廉價, 使之質布上送, 則各邑守令, 或有數其貪墨, 顯示叱責於文報者, 而安而受之, 恬不知愧, 此其罪三也. 監司巡歷時, 例賜邊軍衣資及試才賞格之物, 自備局下送者, 太半減給, 其餘竝皆質銀於高山新店, 盡入囊橐, 此其罪四也. 明、鏡兩邑, 斫出棺板百餘部, 調發民丁, 曳運船所, 陸續載來, 此其罪五也. 進上黃毛, 體樣稍長, 例用二條, 合作一條, 而發關各邑, 使勿合條, 勒捧三條, 及其封進, 減其一條, 以爲私用, 此其罪六也. 各邑鹽盆月捧二石, 前例則然, 而脅令饑民, 斫木煮鹽, 月捧十五石, 此其罪七也. 南北列邑工匠, 招集營門, 分坐庭中, 有若列肆, 而鑄鐵器皿, 日夜打造, 水運陸輦, 盡入其家, 此其罪八也. 北關則分定別麻紙, 南關則分定藁精紙, 大邑至於五六百卷, 小邑至於二三百卷, 猶以爲不足, 亦及於鎮堡, 而只以升斗皮穀, 塞責給價, 僧徒、紙匠, 怨聲載路, 此其罪九也. 本道卜馱往來, 邦禁至嚴, 且有高山點閱之事, 故畏人耳目, 且憚犯禁, 凡干牟利之物、染指之資, 締結商賈, 暗裏相換, 使之往納於京第, 取償於營庫, 此其罪十也. 其在懲勸之道, 不可不別樣重究, 以慰北人之心, 請前監司尹憲柱贓污之罪, 令攸司考律勘斷.” 從之.

【史臣曰: “尹憲柱之貪污, 卽舉世之所共唾鄙者也. 憲柱曾於出身之前, 筮仕爲部官時, 值乙、丙大歉, 朝家減價賣米於都民. 憲柱巧作名目, 僞增成冊, 納價受米, 還賣取贏, 而其時斗米, 直二百錢, 遂以此起家. 其射利肥己類此, 他尙何說? 今此臺啓臚列, 或涉苛細, 或不近理, 有若求罪者然, 而憲柱伎倆, 本自如此, 故人不以爲怪也.”】

간원(諫院)【정언(正言) 김중희(金重熙)이다.】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전(前) 함경감사(咸鏡監司) 윤헌주(尹憲柱)는 낭서(郎署)로 있을 때부터 오로지 이익을 차지하는 것만 일삼았으므로, 이미 집안을 일으켰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성주(星州)의 수령이 되어서는 진곡(賑穀)을 거짓 증대하여 지나치게 승자(陞資)하는 은전을 입으니, 사람들이 침을 뱉고 꾸짖었는데,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즈음 함경감사가 되어

서는 수단(手段)이 이미 익숙해지고 탐심(貪心)이 더욱 방자하여졌는데, 가장 드러난 것으로 말하면, 진상(進上)의 수체(首)는 스스로 정한 수량이 있는데, 넘치게 정하였다고 빙자하여 큰 고을은 40병(柄)에 이르도록 많고, 적어도 10여 병(柄)에 밀돌지 않았습니다. 수체를 무역하는 값은 모두 민간(民間)에서 내는데, 각 고을에서 모아 거둔 잡곡(雜穀)의 수량이 혹 8, 9백 석(石)에 이르거나, 혹은 3, 4백 석(石)에 이르렀으나, 기일(期日) 내에 와서 바친 수량을 응당 바쳐야 하는 수량과 비교하면 몇 갑절 될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납부한 것을 가져다가 먼저 봉진(封進)하고, 미처 바치지 않은 고을에 이르러서는 1병(柄)의 값을 억지로 4승포(四升布) 30필을 징수하고, 이미 바친 고을에 이급(移給)한다고 핑계대지만, 간 곳이 명확하지 않으니, 이것이 그 첫 번째 죄(罪)입니다.

영고(營庫)에 내려오는 부과목(腐破木) 1백여 동(同)을 개색(改色)한다고 핑계대어 북관(北關)의 열읍(列邑)에 나누어 보내고, 1필마다 6승포(六升布) 2필을 환납(換納)하게 하는데, 와서 바칠 때에는 강제로 7, 8승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바친 뒤에는 진자(賑資)를 요판(料辦)한다고 핑계대어 하루 안에 2백여 동의 세포(細布)를 죄다 내어 절반은 관서(關西)에 보내고, 절반은 경도(京都)에 보내었는데, 모두 간 곳이 없었으나, 값을 경상(京商)에게 주어 물건을 바꾸어 무역한 것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두었던 추단목(短木)으로 수량을 충당하였으니, 이것이 그 두 번째 죄입니다.

**청차(淸差)가 나왔을 때에 준 소·돼지·물고기·소금 등의 물종(物種)은 모두 영문(營門)에서 방납(防納)하는데,** 그 방납하는 값의 곡물(穀物)을 강제로 염가(廉價)로 정해서 포목(布木)을 무역(貿易)하여 올려 보내게 하고, 각 고을의 수령(守令)으로 혹 자주 탐묵(貪墨)한 자가 있으면, 이를 질책(叱責)하여 문보(文報)에 나타내 보이므로 편안히 이를 받고도 염연(恬然)히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그 세 번째 죄입니다.

감사(監司)가 순력(巡歷)할 때에는 비국(備局)에서 내려보낸 으레 하사하는 변군(邊軍)의 의자(衣資)와 시재(試才)에 상(賞)으로 주는 물종이 있는데, 태반(太半)을 줄여서 주고, 그 나머지는 모두 고산(高山)의 신점(新店)에서 은(銀)을 무역하여 전부 제 주머니에 넣었으니, 이것이 그 네 번째 죄입니다.

명천(明川)·경성(鏡城)의 두 고을에서 베어낸 관판(棺板) 1백여 부(部)를 민정(民丁)을 조발(調發)하여 선소(船所)에 끌어 운반하게 하여 계속 실어 왔으니, 이것이 그 다섯 번째 죄입니다.

진상(進上)하는 황모(黃毛)는 생김새가 조금 길면 으레 2조(條)로 쓰는 것을 1조(條)로 합작(合作)하는데, 각읍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합조(合條)하지 말도록 하여 강제로 3조를 받고, 그것을 봉진(封進)할 때에는 그 1조를 덜어서 사용(私用)하였으니, 이것이 그 여섯 번째 죄입니다.

각 고을의 염분(鹽盆)에서 한 달에 2석(石)을 받는 것은 전례(前例)가 그러하였는데, 기민(饑民)을 위협하여 나무를 베어다 소금을 굽게 하고는 한 달에 15석(石)을 받았으니, 이것이 그 일곱 번째 죄입니다.

남북(南北) 열읍(列邑)의 공장(工匠)들을 영문(營門)에 불러 모아 열사(列肆)와 같이 뜰 가운데 나누어 앉히고, 유철(鑄鐵)의 기명(器皿)을 밤낮으로 두들겨 만들고는 배로 운반하고 수레로 실어 날라서 죄다 그의 집에 들였으니, 이것이 그 여덟 번째 죄입니다.

북관(北關)에는 별마지(別麻紙)를 분정(分定)하고, 남관(南關)에는 고정지(靛精紙)를 분정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하여 큰 고을은 5, 6백 권(卷)에 이르고, 작은 고을은 2, 3백 권에 이르렀는데, 그래도 부족(不足)하게 여겨 또한 진보(鎭堡)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나 승두(升斗)의 피곡(皮穀)으로 겨우 값을 주어, 승도(僧徒)와 지장(紙匠)의 원성(怨聲)이 길에 가득하였으니, 이것이 그 아홉 번째 죄입니다.

본도(本道)에서 복태(卜)가 왕래하는 것을 금지한 국법이 지극히 엄준(嚴峻)한데다가, 또 고산(高山)에서 점열(點閱)하는 일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이목(耳目)을 두려워하고, 또 범금(犯禁)을 꺼려하여 무릇 모리(牟利)에 관계된 물건과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상고(商賈)와 체결(締結)하여 암암리에 서로 바꾸고, 그로 하여금 경제(京第)에 가서 납부(納付)하게 하고는 영고(營庫)에서 상환(償還)하였으니, 이것이 그 열 번째 죄입니다.

그 징려(懲勵)하는 도리에 있어서 별양(別樣)으로 거듭 구핵(究)해서 북인(北人)의 마음을 위안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전 감사 윤헌주(尹憲柱)의 장오죄(贓汚罪)를 유사(攸司)로 하여금 고을 감단(考律勘斷)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윤헌주(尹憲柱)의 탐오(貪汚)함은 곧 온 세상에서 모두 침을 빨아 더럽게 여기는 것이었다. 윤헌주가 일찍이 출신(出身)하기 전에 처음 관직(官職)에 나아가 부장(部將)이 되었을 때에 을해년과 병자년에 큰 흉년을 만나니, 조가(朝家)에서는 값을 덜어서 도민(都民)에게 쌀[米]을 팔았다. 이에 윤헌주는 교묘하게 명목(名目)을 만들어 거짓으로 증가하여 성책(成冊)하고, 값을 주고서 쌀을 받아다가 다시 팔아서 이익을 취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에 두미(斗米)의 값은 2백 전(錢)이었으니, 드디어 이로써 집안을 일으켰다. 그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만을 노려 사복(私腹)을 채운 것이 이와 같았으니, 달리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이제 이 대계(臺啓)에서 늘어놓은 것이 혹 잔단 데에 관계되고 혹 이치에 가깝지 않아서 죄를 구하는 것과 같음이 있지만, 윤헌주의 기량(技倆)이 본시 스스로 이와 같았으므로, 사람들이 괴이(怪異)하게 여기지 않았다.”】

### ▶ 11권 3년 3월 11일 庚寅

夜四更，上親行會盟祭於壇所。前二日，典設司設大次於壇外之南近東西向，設功臣幕次於東南北向，設饌幔於壇東。前一日，掖庭署設版位於壇下當中北向，典儀設諸功臣及陪祭官位於壇南北向，西上，俱每等異位重行。【勿分東西班新舊功臣及嫡長、衆子，爵次爲序，宗親每品，班西別設位。】又設典儀、謁者、贊引位於東階之西近北西向，北上。掌牲令牽大、小牢【牛、羊、豕。】及盟牲，【豕。】詣誓所。典祀官帥宰人，割大、小牢如常儀，設盟牲坎於壇北壬地，方深足容物，設血盤案於壇下之西。其日未行事前，奉常寺官，升設神位於壇上南向，席以莞。奠誓文於神位之右，【有玷。】設香爐、香盒，竝燭於神位前。次設牲匣，以西爲上，【先牛次羊次豕，竝藉莞席。】爵一在牲匣前，【有玷。】設尊於壇上東南隅北向，加勺罍，設洗於東階東南北向。罍在洗東加勺，簠在洗西南，實以巾，若爵洗之簠，則實以爵。前三刻，典祀官帥宰人，割盟牲，執事官以槃取血，置於案前。二刻，諸祭官及陪祭官、執事官，各具其服，【祭官祭服，陪祭官朝服。】皆就外位，分東西

如常儀. 前一刻, 典儀帥謁者、贊引, 入就壇南拜位, 重行北向西上四拜訖, 就位. 贊引讀誓文官及執事官就位, 典儀曰: “四拜.” 贊儀唱四拜, 讀誓文官以下, 皆四拜. 【凡贊引臚唱, 皆承典儀之辭.】贊引引詣盥洗位, 盥帨訖, 各就位. 謁者、贊引, 引諸功臣及陪祭官, 入就位, 執事官詣爵洗位, 洗爵拭爵訖, 置於篚, 捧詣中階, 置樽所. 典祀官進饌訖, 左通禮詣大次, 啓中嚴, 贊禮請行事. 上具冕服以出, 贊禮請執圭, 都承旨進圭. 贊禮導至版位北向立, 典儀曰: “四拜.” 贊禮跪請四拜, 在位者同拜. 【先拜者否.】贊禮導至盥洗位北向立, 贊禮請搯圭. 上搯圭, 盥帨訖, 還執圭. 贊禮導上陞自南階, 詣樽所西向立, 執樽者舉冪, 左承旨酌酒. 右承旨舉酌, 受酒. 贊禮導上詣神位前北向立, 搯笏跪, 在位者皆跪. 左承旨奉香, 同副承旨奉爐跪進, 上三上香, 奠爐於神位前. 左副承旨進爵, 上受而奠獻, 仍授右副承旨, 奠于神位前. 贊禮導上降自東階, 復位跪, 在位者皆跪. 右承旨進血幣, 上搯圭歃血, 諸功臣, 亦以次歃血. 訖, 讀誓文官進神位之右, 北向跪, 讀誓文曰:

天啓我邦, 夙秉禮義. 聖神敷教, 龐詰叶理. 扶綱挈常, 三百餘祀. 君臣之分, 截若天地. 委裘尙朝, 路馬無齒. 逮于寡昧, 值此凶燹. 噫噫! 老賊, 敢干乾紀. 魯家、晉卿, 遞據三事. 方予尸鬯, 已懷不利. 寧王赫臨, 畏莫敢肆. 予任不疑, 渠益無忌. 謂可同心, 反蓄異志. 陵土未乾, 禍焰孔熾. 侮予新郎, 顛弄神器. 祖唆其孫, 父縱其子. 族戚根盤, 黨與基置. 太和是方, 永貞敢擬. 詆誣之辭, 靡所不至. 潛嗾老將, 易置副帥. 約日陳兵, 圖撼天位. 推戴密議, 狼藉掌字. 廣聚銀貨, 陰締婦寺. 三手凶謀, 次第竝試. 赤箭藏鳩, 玄服衷匕. 視予如奕, 至草矯旨. 內朶鼎頤, 外掩鈴耳. 凶凶意氣, 莫之敢指. 庭班倏輟, 一唱千唯. 聯筭夜入, 操切惟意. 族凶肆亂, 莽、操、溫、懿. 變急蕭牆, 危甚卵累. 倘微神庇, 殆不國矣. 天方悔禍, 人有投匭. 鈎捕按驗, 蹤跡如是. 奸情逆節, 畢透無秘. 妖腰亂領, 咸伏藁市. 王法夫伸, 人綱不墜. 妖氣風掃, 國勢山峙. 實藉誠忠, 可忘勞勩. 疇封裂壤, 用侈恩賜. 勒之景鍾, 藏諸金櫃. 銅盤血盛, 玄玷壁植. 質彼蒼穹, 誓此白水. 舊德雲仍, 亦造班次. 與同休戚, 靡贊終始. 苟渝此盟, 神降監止.

讀訖, 上俯伏興四拜, 在位者皆拜. 禮畢, 贊禮導上還至幄次, 釋圭, 釋冕服. 贊引引諸功臣及陪祭官, 以次出, 讀誓文官取誓文加於牲上, 瘞于坎, 填土. 贊引引讀誓文官以下諸執事, 俱復拜位, 四拜訖, 以次出. 典儀率謁者贊引, 亦四拜而出, 典祀官遂撤饌而退, 上始還宮. 王世弟, 亦隨駕參祭.

밤 4경(四更)에 임금이 친히 회맹제(會盟祭)를 단소(壇所)에 행하였다. 이를 전에 전설사(典設司)에서 대차(大次)를 단(壇) 밖의 남쪽에다 동쪽으로 가깝게 서향(西向)하여 설치하고, 공신(功臣)의 막차(幕次)는 동남쪽에다 북향(北向)하여 설치하였으며, 찬만(饌慢)은 단의 동쪽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하루 전에 액정서(掖定署)에서 판위(版位)를 단 아래 한복판에다 북향하여 설치하고, 전의(典儀)가 모든 공신 및 배제관(陪祭官)의 자리를 판의 남쪽에다 북향하여 설치하였는데, 서쪽을 위로 하였으며 모두 매등(每等)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마련하였다. 【동반(東班)·서반(西班)의 신구 공신(新舊功臣) 및 적장(嫡長)과 중자(衆子)를 나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누지 않고 작차(爵次)로 차례를 삼았으며, 종친(宗親)은 매품(每品)마다 반열 서쪽에 따로 자리를 설치하였다.】 또 전의(典儀)·알자(謁者)·찬인(贊引)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서쪽에다 북쪽으로 가깝게 서쪽으로 향하되 북쪽을 위로 하여 설치하고, 장생령(掌牲令)이 대뢰(大牢)와 소뢰(小牢)와 【소·양·돼지이다.】 맹생(盟牲)을 【돼지이다.】 끌고 서소(誓所)로 갔다. 전사관(典祀官)이 재인(宰人)을 인솔하고 대뢰·소뢰를 상의(常儀)대로 도살하고, 맹생감(盟牲坎)은 단의 북쪽 임지(任地)에 설치하였는데, 바야흐로 깊이가 물건을 용납하기에 충분하였으며, 혈반안(血盤案)은 단 아래 서쪽에다 설치했다. 그날 아직 행사하기 전에 봉상시(奉常寺)의 관원이 올라가서 신위(神位)를 단상(壇上)에다 남향(南向)으로 하여 설치하였는데, 자리는 왕골로 하였다. 서문(誓文)은 신위의 오른쪽에 올려두고, 【점이 있다.】 향로(香爐)와 향함(香盒)을 초[燭]와 함께 신위 앞에 설치하였다. 그 다음에 생갑(牲匣)을 서쪽을 위로 하여 설치하였으며, 【소를 먼저 하고 다음에 염소로, 그 다음에 돼지로 하되, 모두 왕골자리를 깔았다.】 작(爵) 하나가 생갑 앞에 있는데, 【점이 있다.】 준(尊)을 단상(壇上) 동남쪽 모퉁이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작떡(勺)을 덮었으며, 세(洗)는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였다. 뇌는 세의 동쪽에 있는데, 작비(勺)를 얹어 세의 서남쪽에 있고 건(巾)으로 채웠다. 그리고 술잔을 씻는 비는 술잔으로 채웠다.

3각(刻) 전에 전사관(典祀官)이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맹생(盟牲)을 잡고 집사관(執事官)이 쟁반에 피를 담아 안(案)에 두었다. 2각(刻) 전에 모든 제관(祭官)과 배제관(陪祭官)·집사관(執事官)이 각각 그 복식을 갖추고, 【제관은 제복(祭服), 배제관은 조복(朝服)을 입었다.】 모두 외위(外位)로 나아가서 동서(東西)로 평상시의 의식(儀式)대로 나누어 섰다. 1각(刻) 전에 전의(典儀)가 알자(謁者)와 찬인(贊引)을 인솔하고 들어가서 단의 남쪽 배위(拜位)로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네 번 절하고 나서, 본래의 위치로 갔다. 찬인(贊引)이 독서문관(讀誓文官)과 집사관을 이끌고 자리로 나아가자, 전의(典儀)가 ‘사배(四拜)’라고 말하고, 찬의(贊儀)가 큰 소리로 ‘사배’를 외치니, 독서문관 이하가 모두 네 번 절하였다. 【무릇 찬인의 노창(唱)은 모두 전의(典儀)의 말을 이어 받는다.】 찬인이 관세(洗)하는 위치로 이끌고 나아가서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치고 나서 각각 그 자리로 나아갔다. 알자와 찬인이 모든 공신 및 배제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로 나아가자, 집사관이 작세(爵洗)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술잔을 씻고 그 술잔을 다 닦은 뒤에 비안에 담아서 이를 받들고 중계(中階)로 나아가서 준소(樽所)에 두었다. 전사관이 찬(饌)의 진설을 마치자 좌통례(左通禮)가 대차(大次)로 나아가서 중엄(中嚴)을 아뢰니, 찬례(贊禮)가 행사(行事)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면복(冕服)을 갖추고 나오니, 찬례가 규(圭)를 잡을 것을 청하였으므로 도승지(都承旨)가 규를 올렸다. 이에 찬례가 인도하여 관위(版位)에 이르러 북향하고 서니, 전의가 ‘사배(四拜)’라고 말하였다. 찬례가 꿇어앉아 사배하기를 청하고, 제 위치에 있는 자도 함께 절할 것을 청하였다. 【먼저 절한 자는 하지 않는다.】 찬례가 다시 인도하여 관세하는 자리에 이르러 북향하여 서니, 찬례가 규를 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규를 쏘고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친 뒤 도로 규를 잡았다. 찬례가 임금을 인도하여 남계(南階)로부터 올라가서 준소(樽所)로 나아가서 향하고 서니, 집준자(執樽者)가 먹을 들었고, 좌승지(左承旨)가 술을 따랐다. 이에 우승지(右承旨)가 술잔을 들어 술을 받았다. 찬례가 임금을 인도하여 임금이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서 홀(笏)을 쏘고 꿇어앉으니, 제 위치에 있는 자도 모두 꿇어앉았다. 좌승지가 향(香)을 받들고 동부승지(同副承旨)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니, 임금이 세

번 향을 사르고 향로를 신위 앞에 올렸다. 좌부승지(左副承旨)가 작(爵)을 올리니, 임금 이 받아서 전헌(奠獻)하며 그대로 우부승지(右副承旨)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렸다. 찬례가 임금을 인도하여 임금이 동계(東階)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되돌아와 꿇어앉으니, 제자리에 있는 자도 모두 꿇어앉았다. 우승지가 혈반(血盤)을 올리니, 임금이 규를 쫓고 삼혈(血)하였고, 모든 공신도 또한차례로 삼혈하였다. 삼혈이 끝나자 독서문관(讀誓文官)이 신위의 오른 쪽으로 나아가 북향하고 꿇어앉아 서문(誓文)을 읽었는데, 이르기를,

“하늘이 우리나라를 열면서 일찍부터 예의(禮義)를 본령(本領)으로 잡았고, 성신(聖神)이 교화를 넓히시어 이치에 크고 밝게 맞았다. 그리하여 강상(綱常)을 유지해온 지 어언 3백여 년, 군신(君臣)의 분의(分義)는 천지(天地)처럼 확연하여 위구(委)에도 아직까지 조회(朝會)하였고 노마(路馬)는 치열(齒列)이 없다. 그러나 과매(寡昧)에 이르러 흉역(凶逆)을 만났도다. 아! 저 늙은 역적들이 감히 군주의 권한을 침범하여 노가(魯家)와 진경(晉卿)처럼 번갈아 삼사(三事)의 자리를 차지하여 바야흐로 내가 시창(尸)할 때부터 이미 불리(不利)한 생각을 품고 있었으나, 영왕(寧王)께서 혁림(赫臨)하고 계신지라 두려워 감히 방자하게 굴지를 못하였는데, 내가 신임하고 의심하지 않자 저들이 더욱 거리낌 없어서 말로는 동심(同心)이라 했지만 도리어 다른 뜻을 길러 왔다. 그리하여 능(陵)의 흙이 채 마르기도 전에 재앙의 불꽃이 크게 타올라 내가 즉위한 것을 업신여기고 왕의 자리를 마음대로 희롱하였으니, 할 아비는 손자를 사주하고 아비는 자식을 조종하며, 족친(族親)이 뿌리를 박고 동당(同黨)이 바둑알처럼 깔렸었다. 태화(太和)가 바야흐로 한창인데, 영정(永貞)에다 감히 견주어 혈뜬고 무함하는 말이 미치지 않는 바가 없었다. 몰래 늙은 장수를 사주하여 부사(副師)를 바꾸어 두고는 날을 기약하여 군사를 동원해 천위(天位)의 동요(動撓)를 시도하였다. 추대(推戴)를 밀의(密議)한 것이 손바닥에 쓴 글자에서 낭자하게 드러났고, 은화(銀貨)를 널리 모아 은밀히 부시(婦侍)와 체결(締結)하여 삼수(三手)의 흉모(凶謀)를 차례로 시험하였다. 적전(赤箭)에 짐독(毒)을 감추고, 현복(玄服)에 비수(匕首)를 싸기도 하였으며, 나를 혁(突)처럼 보아 거짓 교지(敎旨)로 초(草)하기까지 하였다. 안으로는 정신(鼎臣)이 턱을 움직이어 지시하고 밖으로는 장신(將臣)의 귀를 가려서 흉흉(凶凶)한 의기(意氣)를 감히 가리켜 일컬을 수가 없었다. 정반(庭班)을 갑자기 건너치우되, 한 사람이 외치면 천 사람이 응답하였고, 연명(聯名)한 차자(笱子)를 밤에 들어 제 마음대로 조절(操切)하였다. 흉악한 족속의 방자한 난동이 망(葬)·조(操)·온(溫)·의(懿)와 같아서 조정안의 급한 변란이 누란(累卵)의 형세보다도 위태하였으니, 아마도 신의 비호(庇護)가 아니었더라면 거의 나라가 유지되지 아니했으리라.

하늘이 바야흐로 재앙을 누우치고 사람도 진언(進言)함이 있어서 탐색해 잡고 심문해 징험하니, 종적(跡)이 이와 같았다. 그 간정(奸情)과 역절(逆節)이 완전히 드러나 숨겨진 것이 없어서, 요망한 무리의 허리와 머리가 모두 길거리에서 처단되어 왕법(王法)이 채히 베풀어 지니, 인강(人綱)이 떨어지지 않았고, 요망한 기운이 바람에 소탕되었다. 국세(國勢)가 산악처럼 우뚝하게 섰으니, 이는 실로 성충(誠忠)에 힘입음이라, 그 노고를 어찌 잊으랴? 땅을 나누어 공로에 보답하고 은사(恩賜)를 넉넉하게 할 것이며, 다시 경종(景鍾)에 새기고 금櫃(金櫃)에 간직해야 할 것이다. 동반(銅盤)에 피를 담고 현점(玄)에 벽(璧)을 세워 저 푸른 하늘에 약속하고 이 맑은 물에 맹세한다. 옛 장덕(長德)의 운잉(雲仍) 또한 반차(班次)에 나와 더불어 휴척(休戚)을 함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을 것을 다짐하니, 진실로 이 맹세를 변한다면, 신(神)께서 감지(監止)를 내리실 것이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하였다.

읽기를 마치자 임금이 부복(俯伏)했다가 일어나 사배(四拜)하였으며, 제자리에 있는 자들도 모두 절하였다. 예(禮)가 끝나니 찬례(贊禮)가 임금을 인도하여 임금이 도로 악차(輅次)에 이르러 규를 놓고 면복을 벗었다. 찬인(贊引)이 모든 공신과 배제관을 이끌고 차례대로 나가자, 독서문관(讀誓文官)이 서문을 가져다 희생 위에 놓고 구덩이에 묻은 뒤 흙을 채웠다. 찬인이 독서문관 이하 모든 집사를 이끌고 함께 배위(拜位)로 되돌아가서 사배한 뒤 차례차례 나갔다. 전의(典儀)가 알자(謁者)와 찬인을 인솔하고 또 사배한 뒤 나갔고, 전사관(典祀官)이 드디어 찬(饌)을 거두고 물러나니, 임금이 비로소 환궁(還宮)하였다. 왕세제(王世弟)도 또한 어가를 따라 제사에 참여하였다.

### ▶ 14권 4년 3월 17일 辛卯

辛卯/雪. 忠淸、全羅等道，亦下雪，淸州牛產犢，一頭三目，兩口，兩鼻，兩舌，兩頤。

눈이 내렸다. 충청도·전라도에도 눈이 내렸으며, 청주(淸州)에서는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머리 하나에 눈이 셋이고, 입이 둘, 코가 둘, 혀가 둘, 턱이 둘이었다.

### ▶ 14권 4년 4월 5일 戊申

司諫尹會申前啓，俱不允。論：“漢城參軍俞廣基，諂附賊集，濫通仕籍，去年會盟、陳賀之班，俱不進參，誇務自中，有若立節，怨國之言，公肆發口。請削仕版。”從之。持平李重觀申前啓，上從李時弼依律正法之請。李光佐進曰：“時弼，初以聖候，與醫官商確而出此言，此是好意。既有好意，旋出惡言，無是理。且時弼輩故，不能聞他醫答辭，而反疑其不答，至有飼草牛後之說，而諸醫不諒，致有鞠問。但渠承款，故臺臣有此爭執，然時弼受刑遲晚之後，猶稱曖昧。臣問曖昧則何爲遲晚，渠曰：“向上豈敢發不道言？但不堪重刑，不得已遲晚。”故臣果請對陳達，崔錫恒亦上劄，傳之生議矣。今又允從臺啓，臣既知時弼承款非實，而不能盡暴所蘊，非事君之義。願以臣言，下詢筵臣。”金一鏡力言其可誅，上皆不答。重觀又論：“新溪縣令李衡秀，麤鄙忘廉，諂附濫仕，去年錄勳時，使弟行秀，書寫勳臣教書，苟參原從，贈其父贊成。鄙陋之態，有口皆唾，及授本職，亦事貪虐。請削仕版。金萬英，以鑄錢賊安龜瑞之甥姪，既因臺啓，使左右捕廳究問，而一任遷就，到今徑年，乃以一紙草記請放，誠甚駭然。龜瑞居在萬英家，銅鐵等物，全付萬英，日與宇寬、松等謀議。今龜瑞死後，當問者萬英也。諫院發啓後，萬英欲先事自殺，可知有同謀之實。請令左右捕廳，逐日開坐，究問萬英。”從之。

사간(司諫) 윤회(尹會)가 전에 아뢰었던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이



어서 논하기를,

“한성부(漢城府) 참군(參軍) 유광기(兪廣基)는 집적(集賊)에게 아첨하여 붙어서 사적(仕籍)에 외람되게 통과되었고, 작년 회맹(會盟)·진하(陳賀)의 반열에 모두 진참(進參)하지 않고는 스스로 중도를 지켰다고 자랑하고 으시대면서, 마치 절의나 세운 것처럼 하는가 하면 나라를 원망하는 말을 서슴없이 공공연하게 내뱉고 있습니다. 청컨대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지평(持平) 이중관(李重觀)이 전에 아뢰었던 일을 거듭 아뢰자, 임금이 이시필(李時弼)을 울대로 그 죄를 바로잡자는 청을 따르니, 이광좌(李光佐)가 앞에 나아가 아뢰기를,

“이시필이 당초에 성후(聖候)로 해서 의관(醫官)과 상의하고 이런 말을 한 것은 이는 좋은 뜻에서 한 말입니다. 이미 좋은 뜻을 가졌는데 곧바로 나쁜 말을 한다는 것은 이럴 이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시필이 귀가 먹었기 때문에 다른 의관(醫官)의 답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서 도리어 답을 하지 않는 것을 의심하여 심지어 ‘소 궁둥이에 풀을 먹이라.’는 말까지 하였던 것인데, 여러 의관들이 이를 이해하여 주지 않음으로 해서 국문을 받게 되었고, 다만 그가 자백을 하였기 때문에 대신(臺臣)이 이러한 쟁집(爭執)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시필이 형을 받고 지만(遲晚)함을 말한 뒤에도 오히려 애매하다고 하기에 신이, ‘애매하다면 어찌서 지만하다고 하였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주상을 향하여 어찌 감히 부도(不道)한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무거운 형벌을 건딜 수 없어서 부득이 지만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과연 입대(入對)를 청하여 진달(陳達)하였던 것이고, 최석항(崔錫恒)도 또 차자를 올려 살려 주자는 의논에 붙였던 것입니다. 이제 또 대간(臺諫)의 아뢰를 윤택하여 따르시는지라, 신이 이시필의 자백이 사실이 아님을 이미 알고서도 속에 있는 뜻을 제대로 다 토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군왕을 섬기는 의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신의 말을 가지고 연신(筵臣)에게 하문하여 보소서.”

하니, 김일경(金一鏡)은 그를 주살해야 옳다고 극력 주장하였는데, 임금이 모두 답하지 않았다. 이중관이 또 논하기를,

“신계현령(新溪縣令) 이형수(李衡秀)는 추잡하고 비루하여 염치를 모르고 아부만 하여 분수에 넘치는 벼슬을 하였거니와, 작년 녹훈(錄勳) 때는 그의 아우 이행수(李行秀)에게 훈신(勳臣)의 교서를 쓰도록 시켜서 자기를 구차스럽게 원종훈(原從勳)에 참여시켜 그 아비를 찬성(贊成)에 추증(追贈)토록 한지라 그 비루한 작태를 입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 침을 뱉었는데, 본직을 제수 받고도 탐학(貪虐)을 일삼고 있습니다. 청컨대 사판에서 삭제하게 하소서. 김만영(金萬英)은 돈을 주조(鑄造)한 도적 안귀서(安龜瑞)의 생질로서 이미 대간의 계청으로 인해 좌우 포도청으로 하여금 끝까지 신문하게 하였는데, 한 결 같이 임의로 미루어 이제 와서 해를 넘기고서야 한 장의 초기(草記)만으로 석방을 청하니, 참으로 너무 놀랍습니다. 안귀서가 김만영의 집에 살면서 동철(銅鐵) 등의 물건들을 전부 김만영에게 맡겨 놓고 날마다 정우관(鄭宇寬)·조송(趙松) 등과 더불어 모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안귀서가 죽은 뒤에 마땅히 심문받을 자는 김만영뿐입니다. 사간원에서 논계(論啓)를 발의한 뒤에 김만영이 지레 자살(自殺)을 기도하려고 하였으니, 여기에서도 같이 모의한 사실이 있음을 알 만합니다. 청컨대 좌우 포도청으로 하여금 날마다 개좌(開坐)하여 김만영을 끝까지 심문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 14권 4년 4월 13일 丙辰

平安道中和府, 風雹, 折木拔屋, 折農牛腰, 傷人臂脚.

평안도 중화부(中和府)에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려서 나무가 뽑히고 집이 쓰러졌으며, 소 허리가 부러지고 사람이 팔다리를 다치기도 하였다.

### ▶ 15권 4년 8월 2일 壬申

上疾連日彌留, 厭進水刺, 至是, 又有寒熱候, 藥房入診議藥, 進柴陳湯. 上自在東宮, 積憂畏, 遂成難狀之疾, 歷歲沈痼, 火熱上升, 有時昏迷. 連服局方所進牛黃六一散、滾痰丸等下利之劑, 猶未效. 士人李公胤, 性狂妄, 業醫有名, 而其術大抵以峻利爲主. 壬寅後, 薦入藥房侍疾, 公胤自言, 以桃仁升氣湯數服, 大蕩滌之, 上疾可立愈, 試之無驗. 公胤猶恣睢自衒, 更議柴平湯, 以大黃、枳實推盪之材爲君藥, 自癸卯以後, 至今春連進百數十貼. 上雖體膚外旺, 而脾胃內虛, 厭膳日久, 遂發寒熱之症. 李光佐不能覺公胤之妄, 反以大妃疾愈, 歸議藥功於公胤, 至請論賞, 識者惜之.

임금의 병환이 계속 여러 날 동안 낫지 않아 수라(水刺) 올리는 것마저 싫어하였는데, 이에 이르러서는 또 한열(寒熱)의 징후가 있어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고 약(藥)을 의논하여 시평탕(柴陳湯)을 지어 올렸다. 임금이 동궁(東宮)에 있을 때부터 걱정과 두려움이 쌓여 마침내 형용하기 어려운 병을 이루었고, 해를 지낼수록 깊은 고질이 되었으며, 더운 열기가 위로 올라와서 때로는 혼미(昏迷)한 증상도 있었다. 그래서 계속 국방(局方)에서 올린 우황육일산(牛黃六一散)과 곤담환(滾痰丸) 등 하리(下利)의 약제(藥劑)를 복용하였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그런데 사인(士人) 이공윤(李公胤)은 성질이 광망(狂妄)하였으나 의업(醫業)으로 명성이 있었는데, 그의 의술은 대체로 준리(峻利)를 위주로 하였다. 임인년 이후로 천거(薦舉)되어 약방(藥房)에 들어가 임금의 병환을 모시었는데, 이공윤이 스스로 말하기를 ‘도인승기탕(桃仁升氣湯)을 자주 복용하여 크게 탕척(蕩滌)해 내면 임금의 병환이 금방 나을 수 있다.’고 하여 그것을 시험해 보았지만 효험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공윤은 오히려 방자하게 노기 띤 눈으로 보면서 스스로 의술을 자랑하며, 다시 시평탕(柴平湯)을 의논하면서 대황(大黃)·지실(枳實) 등 추탕(推)하는 재료로 군약(君藥)을 삼아 계묘년에 시작하여 올봄에 이르도록 계속하여 1백 수십 첩(帖)을 올렸다. 그러자 비록 임금의 체부(體膚)의 외형(外形)은 왕성하나 비위(脾胃) 등 내장이 허하였고, 음식을 싫어하는 날수가 오래 되어 마침내 한열(寒熱)의 증세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이광좌(李光佐)는 이공윤의 망령됨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대비(大妃)의 병이 나은 것도 그 의약(議藥)의 공을 이공윤에게 돌리고 논상(論賞)을 청하기까지 하였으니, 식자(識者)가 이를 애석하게 여겼다.

## 24. 景宗修正實錄

### ▶ 5권 4년 4월 6일 己酉

己酉/持平李重觀申前啓, 上從李時弼依律正法之請. 時弼, 醫官也. 李光佐進曰: “時弼初以聖候, 與醫官商確而出此言, 此是好意. 既有好意, 旋出惡言, 無是理. 且時弼聾, 故不能聞他醫答辭, 而反疑其不答, 至有飼草牛後之說, 而諸醫不諒, 致有鞫問, 但渠承款, 故臺臣有此爭執. 然時弼受刑遲晚之後, 猶稱曖昧. 臣問曖昧則何爲遲晚? 渠曰: ‘向上豈敢發不道言? 但不堪重刑, 不得已遲晚.’ 故臣果請對陳達, 崔錫恒亦上筭, 傳之生議矣, 今又允從臺啓. 臣既知時弼承款非實, 而不能盡暴所蘊, 非事君之義. 願以臣言, 下詢筵臣.” 金一鏡力言其可誅, 上皆不答.

지평(持平) 이중관(李重觀)이 전에 아뢰던 것을 다시 아뢰니, 임금(李時弼)을 율법에 의거하여 정형(正刑)하라는 청을 따랐다. 이시필은 의관(醫官)이다. 이광좌(李光佐)가 나아가 말하기를,

“이시필이 처음에 성후(聖候) 때문에 의관들과 상의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하였으니, 이는 좋은 뜻에서 한 말입니다. 이미 좋은 뜻을 지니고 있었는데 곧바로 나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시필은 귀가 먹어서 다른 의관들의 답사(答辭)를 듣지 못하고 도리어 그가 답하지 않은 것을 의심하여 심지어는 ‘소 궁둥이에 풀을 먹이는 격(格)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의관들이 양해하지 않았습다. 그리하여 국문이 있게 되었고 그가 승복(承服)했기 때문에 대신(臺臣)들이 이렇게 쟁집(爭執)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시필이 형신을 받고 지만(遲晚)한 뒤에도 오히려 애매하다고 일컬었으므로, 신이 묻기를, ‘애매하다면 무엇 때문에 지만했는가?’ 하니, 그가 말하기를, ‘임금을 향해서 어떻게 감히 부도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무거운 형신을 견딜 수가 없어서 부득이 지만한 것입니다.’ 했기 때문에 신이 과연 청대(請對)하여 진달했었고, 최석항(崔錫恒)도 또한 차자(筭子)를 올려 생의(生議)에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대계(臺啓)를 윤종(允從)하셨습니다. 신이 이미 이시필의 승복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도 속에 있는 의견을 모두 드러내어 아뢰지 않는 것은 임금을 섬기는 분의가 아니니, 원컨대 신의 말을 가지고 연신(筵臣)에게 하순(下詢)하여 보소서.” 하고, 김일경(金一鏡)은 주참(誅斬)해야 한다는 것을 극력 아뢰었는데, 임금이 모두 답하지 않았.

### ▶ 5권 4년 8월 2일 壬申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壬申/上有疾彌留，又有寒熱之候，進柴陳湯。上自在東宮，積憂畏，遂成難狀之疾，歷歲沈痼，火熱上升，有時昏迷。連服局方所進牛黃六一散、滾痰丸等下利之劑，猶未效。士人李公胤，性狂妄，業醫有名，而其術大抵以峻利爲主。壬寅後，薦入藥房侍疾，公胤自言：“以桃仁升氣湯數服，大蕩滌之，上疾可立愈”，試之無驗。公胤猶恣睢自衒，更議柴平湯，以大黃、枳實推盪之材爲君藥。自癸卯以後，至今春連進百數十貼。上雖體膚外旺，而脾胃內虛，厭膳日久，遂發寒熱之症。李光佐不能覺公胤之妄，反以大妃疾愈，歸議藥功於公胤，至請論賞。

임금의 병이 더욱 위급해졌고 또 한열(寒熱)의 증후가 있었으므로 시진탕(柴陳湯)을 올렸다. 임금이 동궁(東宮)에 있을 때부터 걱정과 두려움이 쌓여서 드디어 형용하기 어려운 병이 생기게 되었는데, 해가 갈수록 더욱 고질이 되어 화열(火熱)이 위로 오르면 때때로 혼미(昏迷)하기도 했다. 국방(局方)에서 올린 우황육일산(牛黃六一散)·곤담환(滾痰丸) 등 하리(下利)시키는 약제를 잇따라 복용하였으나, 그래도 효험이 없었다. 사인(士人) 이공윤(李公胤)은 성품이 광망(狂妄)하지만 의학(醫學)을 공부하여 이름이 있었는데, 그의 의술(醫術)은 대체로 준리(峻利)를 주로 하였다. 임인년 이후 천거되어 약방(藥房)에 들어가 시질(侍疾)하고 있었는데, 이공윤이 스스로 말하기를,

“도인승기탕(桃仁升氣湯)을 자주 복용하여 아주 깨끗이 씻어내면 성상의 질환을 즉시 낫게 할 수 있습니다.”

하였으므로, 시험하여 보았으나 효험이 없었다. 이공윤이 그래도 방자하게 스스로 자랑하면서 다시 의논드리기를,

“시평탕(柴平湯)에다 대황(大黃)·지실(實) 등 밀어내고 씻어내는 약재(藥材)를 군약(君藥)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였으므로, 계묘년 이후 금년 봄에 이르도록 잇따라 1백 수십 첩을 진어하였다. 임금의 체부(體膚)가 밝은 편창아 보였으나 속으로 비위(脾胃)가 허하여져서 수라(水刺)를 싫어한 지가 오래 되자, 드디어 한열증(寒熱症)이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이광좌(李光佐)는 이공윤의 망령됨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대비(大妃)의 질환이 나았다는 것으로 약에 대해 의논한 공을 이공윤에게로 돌리고 논상(論賞)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 25. 英祖實錄

### ▶ 1권 즉위년 10월 29일 己亥

正言金浩申前啓, 不允. 又啓曰: “畿甸, 卽國家之根本, 而其土品之斥鹵, 民役之煩重, 比他道倍甚. 至若漣川、麻田、積城、朔寧等四邑, 則厥土尤下, 而結役偏多, 十夫之家, 終歲服力, 而不足以充其賦, 至於斥賣牛馬、貲產而納之, 民生之困瘁, 未有甚於此地. 諸道皆有隨起收稅之規, 此等邑未免不均之歎. 請令地部, 一一考出, 并依隨起收稅之例, 俾蒙朝家一視之德焉.” 上令廟堂稟處.

정언(正言) 김호(金浩)가 전에 아뢴 것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기(京畿)는 곧 나라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토질이 메마르고 백성의 노역이 가중되는 것이 다른 도(道)에 비해 갑절이나 심합니다. 연천(漣川)·마전(麻田)·적성(積城)·삭녕(朔寧) 등의 네 고을은 그 토질이 더욱 메마르는데 결역(結役)은 치우치게 많아서 열 가족(家族)의 집 일 경우 1년 동안 힘들여 농사를 지어도 그 부세(賦稅)를 충당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소와 말, 재산까지 팔아서 바치고 있으니,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하기가 이곳보다 더 심한 데가 없습니다. 제도(諸道)에서 모두 기경(起耕)하는 데 따라 수세(收稅)하는 법규가 있으니, 이러한 고을에는 공평하지 못하다는 탄식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지부(地部)로 하여금 일일이 상고해 내어 아울러 기경하는 대로 수세하는 규례에 의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라에서 한 걸 같이 대하는 혜택을 받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處)하게 하였다.

### ▶ 7권 1년 8월 28일 癸巳

吏曹參判李緯還鄉. 是日, 上御晝講, 講『孟子』. 緯以同經筵入侍, 釋奏文義曰: “宣王見穀觶之牛, 而不忍殺之, 則仁心本自藹然, 至於不能自解於百姓之言, 此心已昏蔽矣. 及『孟子』開陳仁術而後, 曰: ‘於予心有戚戚.’ 是則本心復發見矣. 然而此心之所以合於王者, 茫然莫省. 孟子以權度之說, 請王度之, 則似有犁然開悟之端, 而至於笑而不言, 則其所大欲者, 自知其歉愧而不欲言, 此又私心也. 及以吾愼, 請明以教我爲言, 則良心復發見, 而卒不能充擴, 以行王政. 此一篇之中, 宣王之心, 出入昏明, 歷歷可見矣. 夫人君, 孰無仁民之心, 而患不能體驗. 如此等章, 須勿看作告宣王之言, 常若親聽於孟子, 又以察識擴充爲務, 則足以保民, 而亦可謂善讀孟子矣.” 上稱善. 緯曰: “臣久在鄉間,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慣見民情. 民情遇豐年則良, 遇凶年則惡, 孟子之言, 信然. 今殿下之赤子, 飽乎? 苦乎? 死亡乎? 否乎? 殿下愍惻之意, 每溢於絲綸之間, 其視齊王之不忍一牛者懸殊, 而尙不能行一善政, 民不蒙其澤者, 何也? 宣王有此仁心, 而不能擴充者, 其所欲者, 固在於關土地朝秦、楚而然也. 臣不敢知, 殿下之欲, 在於何事歟?”

이하생략~

이조참판(吏曹參判) 이재(李穡)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날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가서 『맹자(孟子)』를 강독(講讀)하였는데, 이재가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로 입시(入侍)하여 문의(文義)를 해석하여 아뢰기를,

“제(齊)나라 선왕(宣王)이 무서워 벌벌 떠는 소[牛]를 보고 차마 그것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인심(仁心)이 본래 스스로 번져나갔던 것이고, 백성에 대하여 능히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이런 마음이 이미 어두워져서 가리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맹자(孟子)가 인술(仁術)을 개진(開陳)한 뒤에야 <선왕(宣王)이>말하기를, ‘내 마음에 척연(戚然)한 생각이 든다.’고 하였으니, 이는 본심(本心)이 다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마음이 왕정(王政)에 부합된다는 까닭을 까마득히 살피지 못했던 것입니다. 맹자가 ‘저울로 달고 척도(尺度)로 재 보아야 한다는 말로써, 청컨대 왕은 헤아려 보소서.’ 하였는데, 이연(然)히 깨닫는 단서가 있는 듯하였으나 웃으면서 말하지 않았으니, 그가 큰 욕망(慾望)을 내었던 것이 스스로 그 부족함을 알고 부끄러워서 말하려 하지 않은 것이니, 이는 또 사심(私心)입니다. <선왕이> ‘내가 사리(事理)에 어두우니, 청컨대 밝게 나를 가르쳐 주시오.’라고 말하게 된 것은, 양심(良心)이 다시 나타나긴 하였으나 마침내 확충(擴充)시켜서 왕정(王政)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일편(一篇)가운데에서 선왕(宣王)의 마음이 어둡고 밝은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릇 군주가 누군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마는, 능히 체험(體驗)하지 못하는 것이 근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장(章)은 반드시 선왕(宣王)에게만 고한 말로만 여겨 보지 말고 항상 맹자에게 직접 듣는 것처럼 하며, 또 살피서 알고 넓혀서 충실(充實)하는 일로써 힘쓴다면 족히 백성을 보존하고 또한 『맹자』를 잘 읽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잘 한다고 칭찬하였다. 이재가 말하기를,

“신(臣)이 시골에 오래 있으면서 민정(民情)을 익히 보아왔습니다. 민정은 풍년(年)을 만나면 선량(善良)하여지고 흉년(凶年)을 만나면 악독(惡毒)하여지니, 맹자의 말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지금 전하의 백성이 배가 부르다고 하겠습니까? 괴롭다고 하겠습니까? 죽어간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가없이 여기시고 측은하게 여기시는 뜻은 매양 사륜(絲綸)의 내용에 가득히 표현되는데, 그것을 제(齊)나라 선왕(宣王)이 한낱 소[牛]에 차마 못한다는 마음에 비한다면 현격하게 다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능히 한 가지 선정(善政)도 행하지 못하시어 백성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선왕(宣王)은 이런 인심이 있는데도 능히 넓혀 충실(充實)하지 못함이 있었던 것은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이 진실로 토지(土地)를 열어 넓히고 진(秦)나라와 초(楚)나라를 조회 받는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은 감히 전하의 하고 싶은 것이 어떤 일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하생략~

▶ 9권 2년 3월 3일 乙未

平壤人田夏成家，雌牛一產三犢，一雌二雄。

평양(平壤) 사람 전하성(田夏成)의 집에서 암소가 송아지 세 마리를 낳았는데, 암컷이 한 마리, 수컷이 두 마리였다

▶ 9권 2년 4월 5일 丁卯

上御晝講。講訖，侍讀官金龍慶，請釐六鎮弊瘼。一，開市時，我國穀物牛隻，毋得限外私發賣也。一，慶源市胡，定其人馬之數，限其淹留之期，毋使久滯也。一，六鎮守令，爲移陞閫帥之階，使之彈壓胡人也。上或令稟處，或令施行。時，龍慶以北評事，還朝也。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을 마치자 시강관(侍講官) 김용경(金龍慶)이 육진(六鎭)의 폐단을 고쳐 바로잡기를 청하였는데, 이르기를,

“시장(市場)을 열 때 우리나라의 곡물이나 소 등은 한도 외에 사사로이 판매하지 못하게 할 것, 경원(慶源) 시장의 호인(胡人)은 그 인마(人馬)의 수효를 정하고 머물러 있는 기한을 정하여 오랫동안 지체함이 없게 할 것, 육진(六鎭)의 수령(守令)은 곧수(帥)로 승진시키는 계제(階梯)로 삼아 호인(胡人)들을 탄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혹은 품하여 처리하게 하고 혹은 시행하게 하였다. 당시 김용경이 북평사(北評事)로 있다가 환조(還朝)하였기 때문이다.

▶ 10권 2년 9월 25일 甲寅

上御晝講。講訖，檢討官金龍慶，請特賜權忭諡，上許之。知經筵沈宅賢曰：“忠州胎室加封之時，石物曳運所經道傍田穀，多被傷損。或給價蠲役，以慰民情宜矣。”上曰：“分付道臣，參量處之。”仍下教曰：“胎峰之初定禁標，爲幾步？”宅賢曰：“初定二百步，今則又加百步，合三百步矣。”上曰：“大行朝胎室，事體重大，加封禁標，依此爲之，此後清州胎室【當宇胎室】加封之時，勿爲退定。該曹知悉。”宅賢曰：“聖上雖以恤民之意，有此下教，而禁標不廣，則亦豈無樵牧近逼之患乎？事體所在，不可如是矣。”上曰：“予若不墜先烈，則雖不廣定禁標，何患乎樵牧之近逼乎？”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진강(進講)이 끝나고, 검토관 김용경(金龍慶)이 특별히 권변(權)의 시호(諡號) 내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지경연 심택현(沈宅賢)이 말하기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를,

“충주(忠州)에 있는 태실(胎室)을 가봉(加封)할 때에 석물(石物)을 끌고 지나가는 길 곁의 밭곡식이 많이 손상되었으니, 더러는 값을 주기도 하고 더러는 역사를 감해 주기도 하여 백성의 심정을 위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어 하교(下敎)하기를,

“태실이 있는 봉우리에 당초에 정한 금표(禁標)가 몇 보(步)나 되었는가?”

하니, 심택현이 말하기를,

“당초에 정한 것이 2백 보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1백 보를 더하여 도합이 3백 보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대행조(大行朝)의 태실(胎室)은 사체가 중대하므로 가봉(加封)한 금표를 그대로 해야 하거니와, 이 뒤 청주(淸州)에 있는 태실을 【당저(當:현재의 임금. 곧 영조를 가리킴)의 태실이다.】 가봉할 적에는 물리어 정하지 말 것을 해조(該曹)가 알도록 하라.”

하매, 심택현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비록 백성을 돌보시려는 뜻으로 이런 분부를 내리시게 되었지만, 금표를 넓게 잡지 않는다면 또한 어찌 초부(樵夫)와 목동(牧童)들이 가까이 달려들게 되는 염려가 없겠습니까? 사체가 있기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만일 내가 선왕(先王)들의 업적을 떨어뜨리게 되지 않는다면, 비록 금표를 넓게 정하지 않더라도 어찌 초부와 목동들이 가까이 달려들게 될 염려가 있겠는가?”

하였다.

### ▶ 11권 3년 3월 10일 丁酉

前典籍許溥上疏, 請以勸農勤慢, 爲考績褒貶, 請禁屠, 請敬祀事, 請甄用鄉薦, 請嚴科場, 請內而戶曹、刑曹、京兆之官及外而守令, 勿令數遞, 請慎典, 請京司關文, 必待諸堂上僉議, 以防專擅之弊, 請嚴聽訟之法, 請嚴詞盜之法, 請行御史六察之法, 又陳天磨山城守堞虛疎之弊, 上令廟堂稟處.

전(前) 전적(典籍) 허부(許溥)가 상소하여, 권농(勸農)이 부지런했는지 대만했는지를 가지고 고적(考績)할 때에 포폄(褒貶)하고, 도살(屠殺)을 금단하며, 제사 지내는 일을 공경해서 하고, 향천(鄉薦) 받은 사람을 가려서 임용(任用)하며, 과장(科場)을 엄격해지게 하고, 안으로는 호조(戶曹)·형조(刑曹)·경조(京兆)의 관원과 밖으로는 수령(守令)을 자주 체직하지 말도록 하며, 사전(赦典) 내리기를 신중하게 하고, 경사(京司)의 관문(關文)은 반드시 모든 당상(堂上)들이 함께 의논함을 기다려 전천(專擅)하는 폐단을 방지하며, 청송(聽訟)하는 방법을 엄격하게 하고, 도독을 엄탐하여 잡는 법을 엄격하게 하여, 어사(御史) 육찰(六察)의 법(法)을 시행하기를 청하고, 또 천마산성(天磨山城)의 성첩(城堞) 수비가 허술한 폐단을 진달하



니, 임금이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處)하게 하였다.

▶ 11권 3년 윤3월 3일 庚申

忠淸道海美縣, 牛產一犢, 一頭二身, 兩目三耳, 一鼻八脚.

충청도 해미현(海美縣)에서 소가 머리는 하나에 몸둥이는 둘에다, 눈은 둘 귀는 셋 코는 하나 다리는 여덟의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다.

▶ 18권 4년 6월 10일 己丑

錦山郡幼學高萬雲家產犢, 雙頭, 四目, 三耳, 兩口, 兩鼻.

금산군(錦山郡)의 유학(留學) 고만운(高萬雲)의 집에서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이고 눈이 넷이고 귀가 셋이고 입이 둘이고 코가 둘이었다.

▶ 23권 5년 윤7월 6일 戊寅

慶尙道東萊府, 牛生犢, 一頭六足, 雙尾兩腎.

경상도 동래부(東萊府)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머리가 하나, 발이 여섯, 꼬리가 둘, 신(腎)이 두 개였다.

▶ 29권 7년 5월 22일 甲申

江原道平昌縣等邑, 雹災, 傷死者九人, 牛馬斃者亦五.

강원도 평창현(平昌縣)에 우박의 재변이 있어 부상(負傷)한 자와 죽은 자가 9인이고, 우마(牛馬) 역시 다섯 마리가 죽었다.

▶ 30권 7년 7월 5일 丙寅

丙寅/上引見大臣備堂. 吏曹判書宋寅明、刑曹判書尹游言: “刑・戶曹郎官, 是詞訟,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滿六朔，始可遷轉他官也。”上曰：“刑・戶曹、禁府、隸院郎監察等官，六朔前無得移差，至於陞差啓請邑，雖未準六朔懸註，若三朔前勿令舉論。”游又言：“徒配在逃，而準年未有者甚多，有二十年未還，有三四十年身故而未放者，宜有區別也。”上曰：“罪之重者，雖死，不可議也，輕者則限十年，別單書入，蕩滌可也。”游又言：“屠牛之律，初爲全家徙邊，而乙巳以後，減其律，至於刑三次放送。新有受教，罪同律異，合有歸一之道。”命從後受教。開城留守徐命均曰：“大興山城，中間拋棄，軍餉小而器械鈍，故略加修補。所謂泰安倉，在山城、青石洞之間，爲左右接應之處，而如干居民，逃散於戊申變亂之時，倉廩極涉虛疎。故前留守李箕鎮募民作哨，今幾爲九十餘名，稱以牙兵，而無器械之可恃。請令三軍門及守禦、摠戎兩廳，分給鳥銃，餘數之不足者，當自本府造備。”上可之。命均又曰：“開城府文臣之可合兵曹者、武弁之可合內三廳者，當依前許通，將校久勤者，若非窠窄時，依定式收用，教授以本府人差送，儒生之門地、才行，可合筮仕者，宜差相當職。”上依其言，飭于兩銓。禮曹判書申思喆曰：“遷陵時，外庭陪祭百官，勢難分參。請於丁字閣、靈幄殿中央爲班。”上命於紅箭門內陪祭。思喆又曰：“今此遷陵，與癸丑有異。丁字閣・靈幄殿，各設位，則守、侍殯官，往來將事，似有拘礙之端，宜各加出一員。代奠官有奠酌、讀祝之節，而又兼守殯官之任。焚香、奠酌讀祝升降，事體苟艱，請以都監郎廳中，二人擇差大祝。”上皆可之。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당상관(堂上官)을 인견(引見)하였다. 이조판서 송인명(宋寅明), 형조판서 윤유(尹游)가 말하기를,

“형조와 호조의 낭관(郎官)은 바로 사송(詞訟)이니 6개월을 채워야만 비로소 다른 관직으로 전직(轉職)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형조·호조·의금부·장례원(掌隸院)의 낭관이나 감찰(監察) 등의 관원은 6개월이 되기 이전에는 이차(移差)할 수 없고, 승차(陞差)나 읍(邑)을 계청(啓請)함에 있어서는 비록 6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현주(懸註)할 수 있으나, 만일 3개월이 되기 이전에는 거론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윤유가 또 말하기를,

“도배(徒配)를 당하여 도망을 가서 1년을 기준하여 사면하지 않은 자는 매우 많고, 20년 동안 돌아오지 않은 자도 있으며 3,40년이 지나 자신이 죽었는데도 석방되지 않은 자도 있으니, 마땅히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가 무거운 자는 비록 죽었더라도 의논할 수 없으며, 가벼운 자는 10년을 한도로 잡아 별단(別單)으로 적어 올려 탕척(蕩滌)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윤유가 또 말하기를,

“소를 도살하는 데 적용하는 형률은 처음에는 전가사변(全家徙邊)이었으나 을사년 이후로는 그 형률을 경감하여 심지어는 3차의 형(刑)을 가한 뒤 방송(放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새로 교령(敎令)을 받은 것은 죄질은 같은데 적용하는 형률은 다르니, 마땅히 귀일하는 도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니, 이다음에 다시 교령을 받을 것을 명하였다. 개성유수(開城留守) 서명균(徐命均)이 말하기를,

“대흥산성(大興山城)은 중간에 포기해서 군향(軍餉)이 적고 기계(器械)가 낡았습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보수를 가하였습니다. 이른바 태안창(泰安倉)이란 곳은 대흥산성과 청석동(靑石洞)의 중간에 있어 좌우의 접응(接應)하는 곳이 되는데, 약간의 거민(居民)들이 무신년의 변란(變亂) 때에 도망하여 흩어졌기 때문에 창고와 관아가 몹시 허술합니다. 그러므로 전유수(留守) 이기진(李箕鎭)이 백성을 모집하여 초(哨)를 만들었는데, 지금 거의 90여 명이 되고 아병(牙兵)이라 칭합니다만, 기계가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삼군문(三軍門)과 수어(守禦)·총융(摠戎) 두 청(廳)으로 하여금 조총(鳥銃)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족한 수효는 마땅한 본부(本府)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서명균이 또 말하기를,

“개성부의 문신(文臣)으로 병조에 적합한 자와 무변(武弁)으로 내삼청(內三廳)에 가합한 자는 마땅히 종전대로 허통(許通)해야 하고 장교(將校)로서 오래 근무한 자는 만일 벼슬자리가 모자랄 때가 아니면 정식(定式)에 따라 수용(收用)해야 하며, 교수(教授)는 본부(本府)의 사람으로서 차송(差送)하고, 유생(儒生)으로서 문지(門地)와 재행(才行)이 서사(筮仕)에 적합한 자는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직위를 주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에 따라 양전(兩銓)에 신칙(申飭)하였다. 예조판서 신사철(申思喆)이 말하기를,

“능(陵)을 천장(遷葬)할 때에 외정(外庭)에서 배제(陪祭)하는 백관(百官)들이 형편상 나누어 침례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정자각(丁字閣)과 영악전(靈輦殿) 중앙에다 반차(班次)를 만드소서.”

하니, 임금이 홍살문 안에서 배제할 것을 명하였다. 신사철이 말하기를,

“이번의 이 천릉은 계축년과는 다름이 있습니다. 정자각과 영악전에 각기 신위(神位)를 마련하니, 수빈관(守殯官)과 시빈관(侍殯官)이 왕래하며 일을 보는 데 구애스러운 단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땅히 각각 한 사람씩을 더 차출하여야 합니다. 대전관(代奠官)은 전작(奠酌)하고 독축(讀祝)하는 절차가 있는데, 또 수빈관의 직임을 겸하였습니다. 분향(焚香)·전작하고 독축하며 오르내리는 것은 사체(事體)가 구차스럽고 곤란한 점이 있으니, 청컨대, 도감낭청(都監郞廳) 중에서 두 사람을 대축으로 가려 차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겼다.

## ▶ 30권 7년 7월 28일 己丑

威鏡道, 有牛竝產三犢.

함경도에 있는 어떤 소가 한꺼번에 송아지 세 마리를 낳았다.

## ▶ 30권 7년 8월 19일 己酉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先是，禮曹進遷陵儀註。其略曰：

有司前期設拭梓宮，權安帳殿於羨道之南。又設拭巾、床褥、帳屏於玄宮之南，設大王王后紙榜於帳殿之西，設帳屏於幄內。紙榜依虞主尺數，書式依廟主例，書訖，大祝奉安于靈座。銘旌書寫官，依式跪書，舊銘旌焚於淨處。啓陵時，摠護使率司憲府執義，下壇。開封，各具衰服，就位哭盡哀，四拜訖。大祝進詣羨道之南，跪告開陵之由。左議政率昇梓宮官，以輪輿，引梓宮，奉安於丁字閣，設櫬宮，設靈座，右議政啓櫬塗訖，繕工監官率其屬，陞撤櫬塗。王后啓櫬亦如上儀。下玄宮後，仍行虞祭，百官以烏紗帽、烏角帶、白布團領，行辭陵禮。其日時至，內殿行望哭禮于別殿，素饌，自開陵日，至下玄宮翌日而復常。**停朝市，禁嫁娶，禁屠宰**，亦自開陵日，至下玄宮日而止。虞祭後，魂魄紙榜，埋于新陵潔地。大王、王后紙榜書寫官各一、【文臣正三品。】開閉封官、【執義。】大王紙榜出納大祝一、【文臣四品以上。】王后紙榜出納、【宮闈令二。】攝左通禮各八、攝司僕寺正各二、奉香爐・香盒者各一、告啓殯大祝各一、【文臣四品。】奉哀冊者各二、昇梓宮者各二、【武臣四品。】

이보다 앞서 예조에서 천릉(遷陵)의 의주(儀註)를 올렸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유사(有司)가 기일에 앞서 깨끗이 닦은 재궁(梓宮)을 설치하고, 연도(羨道)의 남쪽에 장전(帳殿)을 임시로 마련한다. 또 식건(拭巾)·상욕(床褥)·장병(帳屏)을 현궁(玄宮)의 남쪽에 설치하고, 대왕(大王)과 왕후(王后)의 지방(紙)을 장전(帳殿)의 서쪽에 설치하며, 장병(帳屏)을 악내(幄內)에 설치한다. 지방은 우주(虞主)의 척수(尺數)에 따르되 서식(書式)은 묘주(廟主)의 예(例)에 따르고, 쓰기를 마치면 대축(大祝)이 영좌(靈座)에 봉안(奉安)한다. 명정 서사관(銘旌書寫官)은 의식에 따라 꿇어앉아 쓰되 옛 명정은 깨끗한 곳에서 불태운다. 계릉(啓陵)할 때에는 총호사(摠護使)가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를 인솔하고 하광(下壇)·개봉(開封)할 때에 각기 최복(衰服)을 갖추어 입고 자리에 나가 곡(哭)하여 슬픔을 다 하고서 사배(四拜)한다. 이를 마치면 대축이 연도의 남쪽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능을 개봉하는 연유를 고한다. 좌의정이 재궁을 마주 드는 관원을 인솔하고 윤여(輪輿)로써 재궁을 이끌어 정자각(丁字閣)에 봉안한 뒤 찬궁(宮)을 설치하고 영좌(靈座)를 설치하며, 우의정이 빈궁(殯宮)에 둘러친 나무와 위에 도식(塗飾)한 것을 열기를 마치면 선공감관(繕工監官)이 그 관속(官屬)들을 인솔하고 올라가 둘러친 나무와 도식한 것을 걷어낸다. 왕후의 찬궁을 열 때에도 역시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현궁에 하관(下棺)한 뒤에는 이어서 우제(虞祭)를 행하되, 백관(百官)은 오사모(烏紗帽)·오각대(烏角帶)·백포 단령(白布團領) 차림으로 능(陵)을 하직하는 예(禮)를 행한다. 그날 시간이 당도하면 내전(內殿)에서 별전(別殿)에서 망곡례(望哭禮)를 거행하고 소찬(素饌)을 들며, 능을 개봉하는 날로부터 현궁에 하관하는 그 이튿날에 이르러 평상시대로 회복한다. **조시(朝市)를 정지하고 가취(嫁娶)를 금하고 도살(屠殺)을 금하여** 역시 능을 개봉하는 날로부터 현궁에 하관하는 날에 이르러 그치며, 우제를 지낸 뒤에는 혼백(魂魄)과 지방을 새 능의 정결한 곳에 묻는다. 대왕·왕후의 지방 서사관(紙書寫官) 각 1명, 【문신(文臣) 정3품(正三品)이다.】 개폐 봉관(開閉封官)【집의(執義)이다.】 대왕의 지방 출납(紙出納) 대축 1명, 【문신(文臣) 4품 이상이다.】 왕후의 지방 출납, 【궁위령(宮衛令)이다.】 섭좌통례(攝

左通禮) 각 8명, 섭사복시 정(攝司僕寺正) 각 2명, 향로(香爐)·향합(香盒)을 받드는 자 각 1명, 계빈(啓殯)을 고(告)하는 대축 각 1명, 【문신(文臣) 4품이다.】 애책(哀冊)을 받드는 자 각 2명, 재궁을 마주 드는 자 각 2명 【무신(武臣) 4품이다.】 이다.” 하였다.

### ▶ 31권 8년 1월 13일 辛未

辛未/校理權懋上疏, 略曰:

臣雖至愚, 其官則三司, 言雖寂寥, 所關則大義也. 夫以三司, 妄論大義, 而不得其言, 則臣實失其職也. 既失其職而猶復就列, 寧有是哉? 草草一疏, 無批還下, 至有不欲觀之教, 臣何敢以三司自居乎? 殿下任使臣僚之道, 既不博採言議, 務存實效, 惟欲俱收并用. 以飾文具, 催督爲事. 殆若繫馬牛而役奴隸, 在聖明禮使之義, 果何如也?

上下嚴教, 還給其疏

교리 권혁(權懋)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비록 매우 어리석기는 하지만 그 벼슬이 삼사(三司)에 속하며, 말은 비록 고요하지만 관련되는 것은 대의(大義)입니다. 대저 삼사의 관원으로 망령되게 대의를 논하다가 해야 할 말을 못한다면, 신은 실로 그 직분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미 그 직분을 상실하고서도 오히려 다시 반열에 나아가는 것은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올린 한번의 상소에 대해서도 비답(批答) 없이 도로 내리시고, 심지어 보고 싶지 않다는 전교가 있었으니, 신이 어찌 감히 삼사의 관원으로 자처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신료(臣僚)들에게 책임을 지워 부리는 방법이 이미 언의(言議)를 널리 채택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보존하도록 힘쓰지 아니하고, 오직 모두 거두어 함께 임용하고자 하여 형식을 꾸미고 독촉하는 것을 일삼음이 거의 마소[馬牛]에게 굴레를 씌워 노예(奴隸)처럼 부리는 것과 같으니, 성명(聖明)께서 예우하여 부리는 뜻에 있어 과연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엄중한 하교를 내리고 그 상소를 되돌려 주게 하였다.

### ▶ 32권 8년 8월 27일 辛巳

憲府【持平沈命說】申前啓, 不允. 又啓言: “前參議李世璉身爲名官, 廊底潛屠, 不能禁止. 被捉法府之後, 招致禁吏, 勒令放送, 事極駭然, 請罷職.” 答曰: “依啓.” 又啓言: “大司憲徐宗弼身爲憲臣, 固宜守法無私, 以伸邦禁, 而囚禁禁吏, 勒推贖錢, 還給犯禁之人, 請罷職不叙.” 答曰: “依啓.” 又啓言: “監察金東鉉以前持平閔堦牌招時, 未卽入來事, 招致陪吏, 數罪決答. 如許事體, 前所未有, 請汰去.” 答曰: “依啓.” 又啓言: “前持平閔堦身爲臺諫, 不能見憚, 所帶陪吏, 受罪於監察, 視以尋常, 恬不知愧. 其疲殘巽軟, 於此可知, 請罷職.” 答曰: “依啓.” 前啓中, 趙明翼事停啓. 大司諫鄭羽良申前啓, 不允.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又啓言：“喉司卽號令百司之地也。六房分職，各思其居，候曉而入，待申而退，所以看詳出納，警動稽慢，而近來紀綱漸解，或曉而不入，或未申而歸。霎時廳坐，惟便之圖，事甚寒心。不可無警，請諸承旨，竝從重推考。”答曰：“依啓。”又啓言：“銀臺長席，地望自別，梁聖揆、李廷燾之遽然通擬，有乖難愼，見駭物情。請令銓曹，勿復備擬。”答曰：“依啓。”

사헌부【지평 심명열(沈命說)이다.】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전 참의(參議) 이세진(李世璣)은 그 자신이 명관(名官)이 되어 낭저(廊底)에서 은밀히 도살(屠殺)하는 것을 능히 금지시키지 못했고, 또 법부(法府)에 체포된 뒤에는 금리(禁吏)를 불러 억지로 방송(放送)시키게 하였으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사헌 서종급(徐宗汲)은 자신이 헌신(憲臣)이 되었으니 진실로 법을 지키고 사심(私心) 없이 국가의 금령을 신장케 하여야 마땅한데도, 금리를 잡아 가두고 억지로 속전(贖錢)을 추진(推引)해 내어 범금인(犯禁人)에게 도로 지급하였으니, 청컨대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감찰(監察) 김동현(金東鉉)은 전 지평 민계(閔)를 패초(牌招)할 적에 즉시 들어오지 않았다 하여 배리(陪吏)를 불러다가 수죄(數罪)하고 태형(笞刑)을 가했습니다. 이런 사체는 전에 있지 않았던 것이니, 청컨대 태거(汰去)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지평 민계는 자신이 대관(臺官)이면서도 남에게 존중받지 못하여 데리고 있는 배리가 감찰에게 죄를 받았는데도 이를 예사로 보고 태연하게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니, 그의 나약하고 쫓대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전계 가운데 조명익(趙明翼)의 일은 정계(停啓)하였다. 대사간 정우량(鄭羽良)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후사(喉司)는 곧 백사(百司)를 호령하는 곳입니다. 육방(六房)이 직무를 나누어 각기 자신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새벽이 되기를 기다려 들어오고, 신시(申時)가 되기를 기다려 물러가는 것은 출납(出納)을 상세히 살피고 지체되거나 태만한 것을 경동(警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기강이 점차 해이해져서 혹 새벽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는가 하면 신시가 되기도 전에 물러가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잠시 청좌(廳坐)하고 오직, 편하기만을 도모하고

있으니, 일이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경책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니, 청컨대, 승지들을 모두 중중 추고(從重推考)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은대(銀臺)의 장관은 지망(地望)이 자별(自別)한데, 양성규(梁聖揆)·이정소(李廷)가 갑자기 그 자리에 의망(擬望)되었으니, 신중히 하고 어렵게 여기는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 물정(物情)이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전조(銓曹)로 하여금 다시 비의(備擬)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 33권 9년 1월 5일 丁亥

丁亥/正言沈命說上疏, 言十無實之戒曰:

蕩平之名非不美, 而實效則邈, 賑恤之政非不勤, 而實惠則小, 擇守令選初仕, 無愼簡之實; 搜人材訪幽隱, 無調用之實. 諫臣雖備, 而繩糾之實未見; 經筵雖設, 而啓沃之實靡聞. 奢侈日盛, 節儉之實蔑如; 偏私未祛, 恢公之實遠矣. 贓污之律雖嚴, 而無懲畏之實; 卯酉之法徒勤, 而無綜核之實. 此直由於殿下好名之心勝, 務實之誠淺故耳. 臣竊觀聖上用入之道, 不計其人之賢愚, 而惟以順受爵祿者向用之; 不問去就之是非, 而惟以恭承職名者專任之. 涇渭合流, 氷炭同器, 官方由是而混淆, 名節職此而壞損, 此上之失蕩平之實也. 廟堂之剡薦, 銓曹之注擬, 欲舉此邊一人, 則必舉彼邊一人, 不計才否, 而惟以互對爲至公. 至於臺閣之彈人, 欲論彼中一事者, 必論此中一事, 只以雙舉爲能事. 雖有不可不論者, 若不得其對, 則不敢偏論. 故公議不行, 直聲無聞, 此下之失蕩平之實也. 殿下崇儉之化, 只行於殿下一身, 而不能及侍御僕妾之列. 昨冬滌汭釐降之日, 資裝之華美, 宴需之浮濫, 人多傳說, 此亦有嫌於殿下恤費惜財之初心. 且聞駙馬之帶, 市人以百金貿納云, 一犀帶雖曰至寶, 豈至百金之多耶? 一帶如此, 他物可知. 向者掖隸被打, 遽有將校嚴刑之命. 將校之拳毆王人, 誠甚悖妄. 掖隸之橫行作挐, 亦當嚴禁, 而獨於將校刑訊之, 臣謂殿下之刑政, 未能無私也.

尾論吏曹參判申昉宰臣筵斥不公, 大臣囚禁政吏, 而不以一疏引咎, 揚揚赴政, 宜命譴罷. 且論李箕獻之庸駭儻侗, 遽擬正言之望; 朴奎文之輕狡鄙瑣, 濫授獻納之任. 權賅曾佐北幕, 道臣狀罷, 而猝通清望; 李滋蔑倫悖義, 鄉里擯棄, 而尙擬臺望, 并令改正. 居昌府使朴東樞侵暴百姓, 濫殺無辜, 宜令拿覈. 批曰: “疏中勉戒, 間或有未曉予意, 亦未脫俗習者, 而言俱切實, 深用嘉之. 申昉事, 爾言過矣. 李箕獻等事, 并依施. 朴東樞事, 遠外風聞, 何可盡信?” 後, 筵臣有白箕獻、滋事者, 命勿枳.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정언(正言) 심명열(沈命說)이 상소하여 실효(實)가 없는 열 가지 경계에 대해 말하기를, “탕평(蕩平)의 정책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 실제의 효과는 까마득하고, 진휼(賑恤)의 정책이 근실(勤實)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실제의 혜택은 적고, 수령(守令)을 뽑고 처음 벼슬하는 자를 선발하였으나 신중하게 선택하는 실상이 없고, 인재(人才)를 찾아내고 숨어 있는 이를 방문했으나 선발·등용하는 실적(實績)이 없고, 간신(諛臣)이 비록 갖추어졌으나 허물을 바로잡은 실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경연(經筵)을 비록 설치하였으나 계옥(啓沃)의 실적(實績)을 듣지 못하고, 사치가 날로 번성하나 절약하고 검소 하는 실적이 없고, 사정(私情)에 치우친 것이 제거되지 아니하여 공도(公道)를 넓힐 실효가 멀어졌고, 장오(贓汚)를 금하는 법이 비록 엄격하여도 징계되어 두려워하는 실적은 없고, 묘유(卯酉)의 법은 형식적일 뿐이고 종합적으로 밝히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는 다만 전하께서 명예를 좋아하는 마음이 앞서고 실적을 힘쓰는 성의가 얕기 때문입니다.

신이 삼가 성상께서 사람을 등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건대, 그 사람의 어질거나 어리석음은 헤아리지 않고 오직 작록(爵祿)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자만 채용하며, 나아가고 물러남에 있어 옳고 그른 것은 묻지도 않고 오직 직명(職名)을 공손하게 받드는 자에게만 맡기십니다. 그래서 경수(涇水)·위수(渭水)가 합류(合流)하고 얼음과 숯불이 같은 그릇에 담긴 풀이 되었습니다. 관원들의 기강(紀綱)이 이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워지고 명예와 절개가 이로 인해 무너졌으니, 이는 위에서 탕평(蕩平)의 실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묘당(廟堂)의 추천과 전조(銓曹)의 주의(注擬)에 있어서 이쪽의 한 사람을 등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저쪽의 한 사람을 등용하며 재능이 있고 없는 것은 헤아리지 않고 오직 서로 대거리가 되게 하는 일을 아주 공평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심지어는 대각(臺閣)에서 사람을 탄핵함에 있어서도 저쪽의 한 가지 일을 논핵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쪽의 한 가지 일을 논핵하여 반드시 양쪽 것을 다 논핵하는 것을 능사로 삼고 있으니, 비록 논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상대가 될 만한 일을 얻지 못하면 감히 한쪽만을 논핵하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공의(公議)가 시행되지 못하고 정직한 말이 들리지 못하는 것인데, 이는 아래에서 탕평(蕩平)의 실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검소함을 숭상하시는 교화는 다만 전하의 한 몸에만 행해질 뿐이고 전하를 모시는 사람과 노복(奴僕)과 비첩(婢妾)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옹주(翁主)의 결혼 때 혼수품의 화려함과 호화로운 연회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전해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하께서 낭비를 걱정하시고 재물을 아끼시던 처음의 마음에 흠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부마(駙馬)의 띠[帶]를 장사하는 사람이 백금(白金)으로 사서 바쳤다.’고 하는데, **한 개의 서대(犀帶)가 비록 매우 중요한 보물(寶物)이라고는 하더라도 어찌 백금이란 많은 값이 나가겠습니까?** 한 개의 띠가 이와 같다면 다른 물품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액정서(掖庭署)의 하례(下隷)가 구타를 당한 것에 대하여 갑자기 장교(將校)를 엄중하게 형벌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장교가 주먹으로 임금의 하례를 구타한 것은 진실로 매우 망령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액정서의 하례가 함부로 날뛰면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도 당연히 엄중하게 금해야 하는 것인데, 유독 장교에게만 형장(刑杖)을 치면서 신문하게 하였으니, 신은 전하의 죄인을 다스리는 정책에 사심(私心)이 없지 않다고 생각함



니다.”

하고, 끝부분에는 이조참판(吏曹參判) 신방(申昉)을 재신(宰臣)들이 경연(經筵)에서 배척한 것의 공평하지 못한 점과 대신(大臣)이 정리(政吏)를 구속하고서도 한마디의 상소로 인책(引責)하지 않고 의기양양하게 정무에 임하는 것을 논핵하면서 마땅히 건책(譴責)하고 파직(罷職)시킬 것을 명하게 하고, 또 이기헌(李箕獻)이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임에도 갑자기 정언(正言)으로 의망(擬望)된 것과 박규문(朴奎文)은 교활하고 자질구레한 자임에도 외람되게 헌납(獻納)의 임무를 준 것과 권해(權)는 북도(北道)의 감영(監營)에 비장(裨將)으로 있을 적에 도신(道臣)이 장계(狀啓)를 올려 파직시켰던 자인데 갑자기 청환(淸宦)의 의망(擬望)에 오르게 된 것과 이자(李滋)는 윤리를 무시하고 의리에 어긋났으므로 향리(鄉里)에서 버림받은 자인데 오히려 대망(臺望)에 주의(注擬)된 것을 논핵하면서 모두 개정(改正)해야 한다고 하였고, 거창부사(居昌府使) 박동추(朴東樞)는 백성을 침해 학대하여 죄 없는 자를 함부로 죽였으니 잡아다가 사실을 밝히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비답하기를,

“상소 중에 경계하도록 한 것에서 간혹 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고 아직 세속적인 습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러나 말한 것이 모두 절실하니 매우 칭찬할 만하다. 신방의 일은 그대의 말이 지나치다. 이기헌 등의 일은 모두 말한 대로 시행하겠다. 박동추의 일은 먼 곳의 풍문을 어찌 다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얼마 후 경연의 신하 중에 이기헌과 이자의 일을 아뢴 자가 있었는데, 벼슬길을 막지 말라고 명하였다

### ▶ 33권 9년 2월 10일 壬戌

因禮曹草記，敎曰：“『輿地勝覽』成均館註：‘辛卯春二月，親祀先聖，因御明倫堂，引館官及儒雅老成之臣，橫經問難。戊戌四月酌獻禮畢，御明倫堂，行養老禮，與群臣橫經問難。辛卯二月，用太牢祀先聖，御明倫堂，引文臣二品以上及館官，橫經問難。’以此觀之，則例各不同。且以春坊會講例觀之，師傅以下官僚無故者，并參經筵，領事、知事與本館知事爲侍講官，曾經經幄之人，自翰苑陞六之人及經筵官抄選之人在京者，勿論實職軍銜爲講書官，則無汎濫之弊。此非別爲抄選者，按官案舉行者。自政院依庭試試官例舉行，冊子以『周禮』、『近思錄』爲之。”仍命問議大臣儒臣，左議政徐命均、前執義朴弼周、祭酒鄭齊斗皆引『五禮儀』小註。敎曰：“大略與下敎相符，依前下敎舉行，而冊子則『書經』、『中庸』中，臨時稟旨焉。”

예조의 초기(草記)로 인하여 전교(傳敎)하기를,

“『여지승람(輿地勝覽)』의 성균관주(成均館註)에 ‘신묘년 2월에 선성(先聖)에게 친히 향사(享祀)를 마치고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 관관(館官)과 노성(老成)한 유신(儒臣)을 인견(引見)하고 경서(經書)를 가지고 문난(問難)하였으며, 무술년 4월에 작헌례(酌獻禮)를 마치고 명륜당에 나아가 양로례(養老禮)를 행하고 군신(群臣)과 더불어 경서를 가지고 문난하였으며, 신묘년 2월에 태뢰(太牢)로 선성께 향사를 마치고 명륜당에 나아가 문신(文臣) 2품(二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品) 이상과 관관(館官)을 인견하고 경서를 가지고 문난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살펴본다면 전례(前例)가 각각 같지가 않다. 그리고 춘방(春坊)의 회강(會講)하는 전례로 살펴본다면, 사부(師傅) 이하로 관료(官僚) 중에 사고(事故)가 없는 자는 모두 경연(經筵)에 참여하고, 영사(領事)·지사(知事)와 본관(本館)의 지사를 시강관(侍講官)으로 삼고, 일찍이 경연관(經筵官)을 지낸 사람과 한원(翰苑)에서 6품으로 승진된 사람과 경연관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서울에 있는 자는 실직(實職)과 군함(軍銜)을 막론하고 강서관(講書官)으로 삼으면 범람(汎濫)한 폐단이 없을 것이니, 이는 별도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관부(官府)의 문서를 고찰해 거행하자는 것이다. 승정원에서 정시(庭試)의 시관(試官)의 관례에 의하여 거행하고, 책자는 『주례(周禮)』와 『근사록(近思錄)』으로 하라.”

하고, 이어 대신(大臣)과 유신(儒臣)에게 문의하라고 명하였다. 좌의정 서명균(徐命均)과 전집의(執義) 박필주(朴弼周)와 제주(祭酒) 정제두(鄭齊斗)가 모두 『오례의(五禮儀)』의 소주(小註)를 인용하였다. 전교하기를,

“대략 이미 하교한 것과 서로 부합하는 것이며, 앞서의 하교에 의하여 거행하되, 책자는 『서경(書經)』·『중용(中庸)』 중에서 임시하여 품지(旨)하라.” 하였다.

### ▶ 33권 9년 2월 12일 甲子

上幸太學，親行酌獻禮，仍行視學。具遠遊冠絳紗袍，乘玉輜，由集春門出，至成均館，下玉輜，入大次，改具冕服，入文廟，以太牢行酌獻禮。禮畢，還入大次，以翼善冠袞龍袍，御明倫堂視學。侍講官三公及從二品以上五員及講書官正三品以下七員，先行四拜於階下，侍衛百官并具黑團領，儒生服青衿。承史備員，由東階上，進東楹內北向伏，侍講官分東西階上，沈壽賢、徐命均不入。金興慶由東階上，伏東楹內西向，金在魯、金取魯、尹游、尹惠教、洪鉉輔由西階上，伏西楹內東向。金興慶進御座右西向伏，侍衛諸臣分東西，立於承史之右，侍講官之後，講書官趙迪命、尹彙貞、趙明澤、趙明謙、朴弼載、俞最基、趙明履伏西階下補階上，大司成趙明翼率諸生，分入東西庭北向伏。上命國子長上伏侍講官列，同參講筵。命進趙明履講『周禮』『地官司徒』上篇及『考工記』，以明履，頗熟『周禮』也。又進尹彙貞、趙明謙，講『近思錄』。又進東齋掌議俞彥好，講『中庸』九經章，又進西齋掌議尹光績，講『書傳』『大禹謨』，又進館官安聖時，講『書傳』『堯典』，上與諸臣討論文義，且命各陳所懷，從容問難，日昃乃罷。

임금이 태학(太學)에 거둥하여 친히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이어 시학례(視學禮)를 행하였는데, 원유관(遠遊冠)·강사포(絳紗袍) 차림으로 옥교(玉輜)를 타고 집춘문(集春門)으로부터 나와 성균관(成均館)에 이르러 옥교에서 내려 대차(大次)에 들어가 면복(冕服)으로 바꾸어 입고 문묘(文廟)에 들어가 태뢰(太牢)로 작헌례를 행하였다. 예를 마치고 다시 대차에 들러 익선관(翼善冠)·곤룡포(袞龍袍) 차림으로 명륜당에 나아가 시학(視學)하였다. 시강관(侍講官)인 삼공(三公)과 종2품(從二品)이상 5명, 그리고 강서관(講書官)인 정3품(正三品) 이하 7명

이 먼저 뜰 아래에서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시위(侍衛)한 백관(百官)들은 모두 흑단령(黑團領) 차림을 하고 유생(儒生)은 청금(靑衿)을 입고, 승지·사관(史官)의 비원(備員)이 동계(東階)로부터 올라와 동영(東楹) 안에 나아가 북향(北向)하여 부복(俯伏)하고 시강관은 동계(東階)·서계(西階)로 나누어 올라가는데, 심수현(沈壽賢)과 서명균(徐命均)은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김흥경(金興慶)은 동계로부터 올라가 동영 안에 부복하여 서향(西向)하고, 김재로(金在魯)·김취로(金取魯)·윤유(尹游)·윤혜교(尹惠教)·홍현보(洪鉉輔)는 서계로부터 올라가 서영 안에 부복하여 동향(東向)하였다. 김흥경이 어좌(御座) 왼쪽으로 나아가 서향하고 부복하니, 시위(侍衛)한 여러 신하들은 동과 서로 나누어 승지와 사관의 오른편인 시강관 뒤에 서고, 강서관인 조직명(趙迪命)·윤휘정(尹彙貞)·조명택(趙明澤)·조명겸(趙明謙)·박필재(朴弼載)·유취기(兪最基)·조명리(趙明履)는 서계 밑인 보계(補階) 위에 부복하고, 대사성 조명익(趙明翼)은 여러 유생을 인솔하고 동정(東庭)과 서정(西庭)으로 나누어 들어가 북향하여 부복하였다. 임금이 국자감(國子監)의 장(長)에게 올라와 시강관(侍講官)의 반열에 부복하여 강연(講筵)에 동참(同參)하도록 명하였다. 조명리(趙明履)를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례(周禮)』의 지관사도(地官司徒) 상편(上篇)과 고공기(考工記)를 강(講)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조명리가 『주례』에 상당히 익숙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윤휘정·조명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근사록(近思錄)』을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동재(東齋)의 장의(掌議)인 유언호(兪彦好)를 앞으로 나오게 하여 『중용(中庸)』의 구경장(九經章)을 강하게 하고, 또다시 서재(西齋)의 장의인 윤광찬(尹光贊)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서전(書傳)』 대우모(大禹謨)를 강하게 하고, 또 관관(館官) 안성시(安聖時)를 앞으로 나오게 하여 『서전』의 요전(堯典)을 강하게 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과 글 뜻을 토론하고 또 각각 생각한 바를 말하게 하며 조용히 문난(問難)하다가 해가 기운 다음에야 그쳤다.

### ▶ 33권 9년 3월 21일 壬寅

更問濟東曰：“他賊已吐之招，何敢隱諱？汝父書中某事，托以賣買田土，已與台東之招相左。若是賣買，則有何可諱，而作此藏頭之語乎？”濟東供：“臣父不識字，且病風，若非台東代書，則似是不告父而自作。如見筆蹟，則可知矣。公衡等若作賊，則與賊黨面質，可知虛實，而第公衡之弟貴興素虛浪，臣弟台東亦與從遊，而貴興以喪人，偷其兄之牛而屠食。其奴斗化傳播此言，未幾貴興死，或以爲公衡陰害，而洞人成爾渚等聚會處，台東發此說，故臣於上京之路，見公衡問之，則答曰：‘其弟一夜急病，竟至身故。’且言其弟盜出家物無數，至於盜牛，其死無惜。且汝弟台東亦與屠牛之事云矣。貴興作賊，一鄉傳說，其兄亦以其弟謂賊，而台東輩與貴興相親，臣父嘗杖戒之矣。書中某事，無乃指此乎？”更問濟東曰：“判付內，汝以公衡之所親，汝弟台東亦親貴興，可謂難兄難弟，四人之中，汝獨漏乎？同氣之間，非極惡則忍出無惜之說？且公衡既同賊，則其有是說，亦極矛盾。所謂作賊，必有輕重。”嚴刑現推。濟東刑問一次，更供：“臣之往見公衡也，公衡以爲：‘其弟貴興盜渠兒駒賣食，締結賊黨，作都目。某家有錢當劫掠，大同上來時，亦可劫掠。’云云。後公衡來到臣所，又言：‘貴興且結賊洞內人成哥、宋哥諸人，錄作都目，龍川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里居興得, 年可十七八, 而以兩班子, 奪其都目投火云. 雖是同氣之間, 將欲告官.’ 云矣. 時, 成爾漵亦在坐參聽. 臣答以此不過偷竊錢兩之賊, 告官與否, 非吾所知, 公衡仍流涕而歸. 賊之輕重, 不過作明火賊.” 云矣.

다시 이제동(李濟東)에게 묻기를,

“다른 적도가 이미 사실대로 말한 공초의 내용을 어찌하여 감히 숨길 수 있겠는가? 너의 아버지의 봉서 가운데의 모사(某事)는 전지(田地)를 매매한 것이라고 핑계 대었으나, 이것은 이미 이태동의 공초와 서로 어긋난다. 이렇게 매매하였다면 무엇이 숨겨야 될 일이 있기에 이렇게 전말(顛末)을 숨기는 말을 만들어 썼단 말인가?”

하니, 이제동이 공초하기를,

“신의 아버지는 글자를 모르는데다가 풍병(風病)까지 앓고 있는 처지이니, 만약 이태동이 대서(代書)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께 고하지도 않고 스스로 만들어 쓴 것일 것입니다. 필적(筆蹟)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공형 등이 만약 적도(賊徒)가 되었다면 적당(賊黨)들과 면질시키면 허실(虛實)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공형의 아우 이귀홍은 본디 허랑방탕한 사람으로 신의 아우 이태동과 함께 종유(從遊)하는 사이인데 이귀홍은 상인(喪人)으로서 그 형의 소를 훔쳐 도살(屠殺)하여 먹었습니다. 그의 종 두화(斗化)가 이런 말을 전파시켰는데 얼마 안 있어 이귀홍이 죽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공형이 음해(陰害)하였다고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 성이집(成爾漵) 등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태동이 이런 말을 발설했기 때문에 신이 상경(上京)하는 길에 이공형을 만나서 물어보았더니, 답하기를, ‘내 아우는 어느 날 밤 급병을 앓다가 마침내 죽기에 이르렀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내 아우가 집안의 물건을 훔쳐낸 것이 수없이 많은데 심지어는 소까지 훔쳤으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그리고 너의 아우 이태동도 소를 잡는 일에 참여했다고 한다.’ 했습니다. 이귀홍이 도적질을 했다는 것은 온 고을에 전해진 이야기이고 그의 형도 그 아우를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이태동의 무리가 이귀홍과 서로 친했기 때문에 신의 아버지가 전에 매를 때리면서 경계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봉서(封書)의 모사(某事)는 아마도 이것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였다. 다시 이제동을 문초하기를,

“판부(判付) 안에 네가 이공형과 친하다고 했고 너의 아우 이태동도 이귀홍과 친하다고 했으니, 난형난제(難兄難弟)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네 명 가운데 유독 너만 빠졌단 말인가? 동기(同氣) 사이에는 극악(極惡)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공형이 이미 적도들과 뜻을 같이했다면 이런 말을 한 것이 또 한 매우 모순되는 것이다. 이른바 도적질을 한 것에도 반드시 경중(輕重)이 있을 것이다.” 하고, 엄형을 가하여 현고(現告)하도록 추국하였다. 이제동이 1차의 형문(刑問)을 받고 다시 공초하기를,

“신이 가서 이공형을 만났을 때 이공형이 말하기를, ‘내 아우 이귀홍이 나의 땅아지를 훔쳐 팔아먹었고 적당(賊黨)들과 체결(締結)하여 도목(都目)을 만들었다. 누구의 집에 돈이 있으니 겁략(劫掠)해야 하고 대동미(大同米)가 올라올 때에도 겁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뒤에 이공형이 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또 말하기를, ‘이귀홍이 또 적도(賊徒)로 동내(洞內) 사람인 성가(成哥)·송가(宋哥) 등 여러 사람들과 체결하여 도목을 만들어 성명을 기록했는데, 용천리(龍川里)에 사는 나이 17, 8세 된 이흥득(李興得)이란 사람은 양반의 자손인데 이 사

람이 그 도목을 빼앗아 불에 태워버렸다고 한다. 비록 동기(同氣) 사이이기는 하지만 장차 관(官)에 고발하려 한다.’ 했습니다. 이때 성이집(成爾湑)도 좌석에 있다가 그 말을 들었는데, 신이 답하기를, ‘이는 전량(錢兩)을 훔친 도둑에 불과한 것이다. 관에 고발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알 바 아니다.’ 하니, 이공형이 이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습니다. 적도의 경중(輕重)은 명화적(明火賊)에 불과합니다.”

하였다.

### ▶ 33권 9년 3월 24일 乙巳

乙巳/行推鞠. 斗柄、公衡面質. 公衡曰: “貴興日買酒, 與汝同醉, 汝豈非賊魁乎? 且貴興偷出吾家雜物, 與汝分食, 幾二十兩.” 斗柄曰: “設如汝言, 此豈爲賊魁耶?” 公衡曰: “吾遇汝問曰: ‘近來水北兩班多作賊.’ 云則汝豈不面赤曰: ‘豈特水北有兩班賊而已乎?’” 斗柄曰: “吾居水北, 故惡聞而言之矣.” 公衡曰: “貴興、仁寬兄弟, 盜牛買酒, 常都會汝家, 吾以是知汝爲賊魁矣.” 斗柄曰: “仁福是吾素昧, 可知汝言之虛妄也. 汝常薄待汝妹, 言其淫行, 故吾嘗切責矣. 以此汝常欲殺我矣.” 公衡曰: “當自辨而已, 何爲此不緊之言? 汝盜吾家牛, 將宰殺而爲賊會, 以爲聚人事, 冶匠立善之妻言之, 汝豈發明?” 斗柄曰: “賊會事, 汝不明言, 則汝爲盜矣.” 公衡曰: “貴興盜牛, 豈非用於賊會乎?” 斗柄曰: “汝弟自殺其牛而食之者, 果有之矣.”

추국(推鞠)을 행하였다. 김두병과 이공형을 면질시켰다. 이공형이 말하기를,

“이귀홍이 날마다 술을 사서 너와 함께 취하도록 마셨으니, 네가 어찌 적괴(賊魁)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귀홍이 우리 집의 잡물(雜物)을 훔쳐내어 너와 나누어 먹은 것이 거의 20냥이나 된다.”

하니, 김두병이 말하기를,

“설사 너의 말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어찌 적괴(賊魁)가 되겠는가?”

하였다. 이공형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만나 묻기를, ‘근래 수북(水北)의 양반들 가운데 도적이 된 자들이 많다.’고 하니, 네가 얼굴을 붉히면서 말하기를, ‘어찌 수북(水北)에 있는 양반들만 도적이 되었을 뿐이겠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니, 김두병이 말하기를,

“내가 수북에 살기 때문에 듣기 싫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이공형이 말하기를,

“이귀홍·이인관 형제가 소를 훔쳐 술을 사가지고 항상 너의 집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로써 네가 적괴(賊魁)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니, 김두병이 말하기를,

“이인복은 내가 본디 모르는 사람이니, 너의 말이 허망(虛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네가 늘 너의 누이동생을 박대하면서 그의 음행(淫行)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일찍이 준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절히 꾸짖은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네가 항상 나를 살해하려고 했었다.”

하였다. 이공형이 말하기를,

“마땅히 스스로 변명할 뿐이다. 무엇 때문에 이런 긴요하지 않은 말을 하는가? 네가 우리 집의 소를 훔쳐다가 장차 도살(屠殺)하여 도적들의 회합과 사람들을 모으는 데에 쓰려 했다는 것을 야장(冶匠) 입선(立善)의 처(妻)가 말했는데, 네가 어찌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니, 김두병이 말하기를,

“도적이 회합하는 데 대한 일을 네가 분명히 말하지 못하면 네가 도적이 된다.”

하였다. 이공형이 말하기를,

“이귀홍이 소를 훔친 것이 어찌 도적들의 회합에 쓰려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니, 김두병이 말하기를,

“너의 아우가 스스로 소를 잡아서 먹은 일은 과연 있었다.”

하였다.

### ▶ 34권 9년 5월 25일 乙巳

獻納李周鎮上疏, 略曰:

嗚呼! 三年亢旱, 八路饑荒. 天人不和, 民國俱病, 如此而不危者, 古未嘗有也. 夫安危之機, 在於公私二字. 心或有計較, 政或有宛轉, 或過明而流於察小, 或自大而易於輕下, 不能如日月之中天, 人得以共瞻, 則便是私也. 今殿下公私混淆, 大小顛錯, 目張而網漏, 末舉而本遺, 至若近日則又未免治不食效, 志不如初, 文質互變, 緩急倒置, 以省事爲制治之本, 息言爲御世之要. 近來士大夫風采漸就委靡, 承順之言, 日聞於上; 規正之習, 已絕於下. 殿下又以喜事疑之, 排軋繩之, 故事關 聖躬, 則率多觸忤之懼; 語涉異己, 則恐被挾雜之誅, 以致虛僞之風滋而直截之聲熄. 自外面觀之, 雖若目前無事, 而殆若滿腹皆膿, 不潰則不已. 如是而天安得不怒, 民安得不困哉? 黃再興等, 俱是鎮紀切族, 殺狗烹鷄, 情節狼藉. 請一體嚴鞫, 覈出紀賊之去處. 治逆, 宜急不宜緩, 請勿拘齋戒, 嚴鞫覈實. 江界、興陽兩邑倅, 貪鄙殘劣, 竝令改差. 前府使魚必遠遍汲都下井水, 洗其癩瘡, 還以洗瘡之水, 暗注本井, 挾出牛腸, 投身其中, 以出其瘡蟲, 賣肉屠肆, 事極醜污, 意在移毒. 宜施徙邊之律, 以絕民害.

批曰: “黃哥諸族窺捕事, 依施, 魚必遠事, 亦依施.”

헌납 이주진(李周鎭)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아! 3년 동안의 대단한 가뭄에 8도(道)가 흉년이 들어 하늘과 인심(人心)이 화합하지 아니하고 백성과 나라가 모두 병들었습니다. 이와 같은데 위태롭지 않은 적은 옛날에도 일찍이 없었습니다. 대저 편안하고 위태로운 기틀은 ‘공사(公私)’ 두 글자에 달려 있는데, 마음속에 혹시 계교(計較)함이 있거나 정사(政事)에 혹시 변화가 있거나, 혹은 밝은 데 지나쳐 작은 것을 살피는 데로 쏠리거나, 혹은 스스로 과대(誇大)하게 생각하여 아랫사람을 경시(輕視)하기 쉬워서 중천(中天)에 뜬 해와 달처럼 사람들이 함께 보도록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곧 사(私)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공과 사를 혼동하고 크고 작은 것이 전착(顛錯)되어 그물의 눈은 벌렸어도 버리줄[綱]을 빠Em리고 말단의 일은 시행하면서 근본은 빠뜨리고 있으며, 근일에 이르러서는 또 다스림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의지가 처음과 같지 않은가 하면, 형식과 본질(本質)이 서로 변하고 늦춤과 급하게 할 것을 뒤바꾸어 일을 더는 것으로 정치를 단속하는 근본을 삼고 말을 지식(止息)하게 하는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요체로 삼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래 사대부(士大夫)의 풍채(風采)가 점점 위축되어 순종하는 말만 날마다 위에 들리고 바로잡는 풍습이 이미 아래에서 끊어졌으며, 전하께서도 또 일을 좋아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배척하고 알력한다고 다스리기 때문에 일이 성상의 몸에 관계되면 마음을 거슬려서 노여움을 살까 하는 두려움이 대략 많고 말이 반대편에 관계되면 사심을 품었다는 주토(誅討)를 당할까 겁을 내어 허위(虛僞)의 풍습이 불어나고 직절(直截)의 소리가 사라졌으므로 바깥에서 볼 때는 비록 눈앞에 일이 없는 것 같으나 뱃속 가득하게 다 끓아서 썩어 문드러지지 않으면 말지 않을 것과 거의 같으니 이와 같고서도 하늘이 어찌 성내지 않으며 백성이 어찌 곤궁하지 않겠습니까?

황재흥(黃再興) 등은 모두 황진기(黃鎭紀)의 지친(至親)으로 개를 잡고 닭을 삶은 정상(情狀)이 낭자하게 알려지고 있으니, 청컨대 일체로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역적 황진기의 간 곳을 조사해 내게 하소서. 역적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는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마땅하고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니 청컨대 재계(齋戒)에 구애하지 말고 엄하게 국문하여 실상을 구명하게 하소서. 강계(江界)·흥양(興陽) 두 고을의 원은 욕심이 많고 비루하며 잔인하고 졸렬하니 아울러 개차(改差)시키소서. 전부사(前府使) 어필원(魚必遠)이 도하(都下)의 우물물을 두루 길어다가 그의 문둥병 부스럼[癩瘡]을 씻은 다음 도로 그 부스럼 씻은 물을 몰래 본래의 우물에 쏟아부었으며, 소 내장[牛腸]을 끓여내고 그 속에 몸을 넣어서 부스럼의 충(蟲)을 나오게 한 다음 그 고기를 푸줏간에 팔았으니 일이 매우 추하고 더러우며 독(毒)을 옮기는 데 그 뜻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사변(徙邊)의 형률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피해를 끊게 하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황가(黃哥)의 여러 족속들을 규포(窺捕)하는 일은 그대로 실시하고 어필원의 일도 역시 그대로 실시하라.”

하였다.

## ▶ 37권 10년 1월 1일 戊寅

下諭勸農于八道兩都曰：

勸農之道，其要有六，不奪農時也，使民奠居也，顧助農糧也，備給犁牛也，堤堰灌溉也，警飭懶惰也。 夫民之安否，繫農勤慢，不飭則慢，飭則勤。若飭勵而無其效，是予言之不信。咨爾方伯守令，體予至意，益勵無怠。

仍命承旨問『農家集成』板本所在，印其書而廣布，使我聖祖爲民撰輯之盛意無替焉。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 농사를 권면하는 유시(諭示)를 내리기를,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농사를 권면하는 방도에는 여섯 가지 요령이 있는데, 그것은 농사철에 부역을 시키지 말 것, 백성으로 하여금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할 것, 농량(農糧)을 보조하여 줄 것, 농기구와 농우(農牛)를 갖추어 지급하여 줄 것, 제언(堤堰)과 관개(灌溉) 시설을 갖추어 줄 것, 나태한 마음을 경칙(警飭)시킬 것 등이다. 대저 백성들의 생활이 편안하나 못하나 하는 것은 농사의 근만(勤慢)에 달려 있으니, 경칙하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경칙하면 부지런히 하기 마련인 것이다. 만일 경칙 면려시켰는데도 그에 대한 효험이 없다면, 이는 나의 말이 미답지 못한 것이다. 아! 그대들 방백(方伯)과 수령(守令)은 나의 이런 지극한 뜻을 본받아 나태함이 없이 더욱 면려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승지(承旨)에게 명하기를,

“『농가집성(農家集成)』의 판본(板本)이 있는 곳을 물어서 그 책을 인출(印出)하여 널리 반포함으로써 우리 성조(聖祖)께서 백성을 위하여 찬집(撰輯)한 성대한 뜻에 어긋남이 없게 하라.”

하였다.

### ▶ 37권 10년 1월 15일 壬辰

憲府【持平宋教明.】申前啓, 不允. 鄭道信事停啓. 又啓曰: “前持平金光世新除憲官, 別無情勢, 而無端三違, 終至坐罷, 宜罷職. 徽陵參奉張至大嗜酒狂悖, 全不赴直, 宜汰去.” 從之. 諫院【獻納安相徽.】申前啓, 不允. 三千事、李徽瑞事、政院文書送事, 停啓. 又啓曰: “中人濫職追贈, 已有先朝飭教, 而近來東西郊纍纍之塚, 立石以表者, 率多判書參判之贈, 名器玷汚. 請令該曹, 嚴塞中人輩濫職追贈之弊. 生民之源在農, 農之成在牛, 此國典所以重屠禁也. 請申其禁京外犯科, 勿許懲贖, 依法刑配.” 從之.

사헌부에서 【지평(持平) 송교명(宋教明)이다.】 전일의 계사(啓辭)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정도신(鄭道信)에 대한 일은 정계(停啓)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지평 김광세(金廣世)는 새로 헌관(憲官)에 제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무단히 세 번이나 소명(召命)을 어겼고 끝내 거기에 좌죄되어 파체(罷遞)당했으니, 마땅히 파직시켜야 합니다. 휘릉(徽陵)의 참봉(參奉)인 장지대(張至大)는 술을 즐겨 광패스런 짓을 자행하면서 전혀 숙직에 나아가지 않고 있으니, 마땅히 태거(汰去)해야 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간원에서 【헌납(獻納) 안상휘(安相徽)이다.】 전일의 계사(啓辭)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삼천(三千)의 일과 이정서(李徽瑞)의 일과 승정원(承政院)에서 문서를 보내어 보이게 한 일은 정계(停啓)하였다. 또 아뢰기를,

“중인(中人)들에게 외람되이 관직을 추증(追贈)하는 것에 대해 이미 선조(先朝)의 칙교(飭教)가 있었는데, 근래 동교(東郊)와 서교(西郊)에 줄줄이 늘어서 있는 분묘(墳墓)에 비석을 세워서 표시한 것은 거개가 판서(判書)나 참판(參判)의 증직(贈職)입니다. 이는 명기(名器)를 더럽히는 처사이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중인들에게 외람되이 관직을 추증하는 데에서 오



는 폐단을 엄하게 막게 하소서. 백성들이 생활을 유지하는 근원은 농사에 있고 농사를 짓는 것은 소[牛]에 있으니, 이것이 국전(國典)에서 소를 도살(屠殺)하는 법금을 증하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 법금을 신명(申明)시켜 경외(京外)에서 법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징속(徵贖)을 허락하지 말고 법에 따라 형배(刑配)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37권 10년 1월 20일 丁酉

全羅監司趙顯命以道內農牛鮮少，請得濟州牧場牛千餘頭。宋眞明曰：“濟州牛本不過千頭，而每年二十頭，以純黑者擇送京司，以供犧牲，事體不當。移給請送關西屯田牛千餘頭。”上可之。

전라감사(全羅監司) 조현명(趙顯命)이 도내(道內)에 농우(農牛)가 적다는 이유로써 제주(濟州) 목장(牧場)의 소 1천여 두(頭)를 보내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송진명(宋眞明)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의 소는 본디 1천 두에 불과한데 매년 빗갈이 검은 소로 20두씩을 가려서 경사(京司)로 보내어 희생(犧牲)에 제공하고 있으니 사체상 옮겨다 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관서(關西)의 둔전(屯田)에 있는 소 1천여 두를 보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38권 10년 8월 11일 甲寅

憲府【俞健基】申前啓，不允。又啓曰：“牛禁至嚴，而天安郡守金得大屠肆狼藉，斥賣場市，得大宜罷職。”允之。停驪善君壘及宗簿寺提調之啓。

사헌부(司憲府)【지평(持平) 유건기(俞健基)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휴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우금(牛禁)은 지극히 엄중한데도 천안군수 김득대(金得大)는 도살을 낭자하게 하여 시장에 내다 팔았으니, 김득대를 마땅히 파직시켜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윤휴하였다. 여선군(驪善君) 학 및 종부시제조(宗簿寺提調)의 계사(啓辭)는 정지하였다.

▶ 40권 11년 1월 25일 丙申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丙申/上御仁政殿. 以元子誕生, 受百官賀, 宣讀教文, 其文曰:

震維久虛, 方切含生之望, 離景重曜, 載欣錫羨之休. 既先正名, 詎緩敷告? 念予寡德, 履運多艱, 以眇爾一身, 獨奉宗祧之重, 每忱焉四顧, 深懷繼嗣之憂. 家國孤危, 凜群情之靡繫; 春秋晼晚, 懼先統之無傳. 迨十年閉銅龍之餘, 幸一日叶祿燕之吉. 蓋存亡興衰之判, 迫於斯須, 賴天地、社稷之靈, 錫此祚胤. 三宗之血脈復續, 予有拜廟之顏; 八路之癘跛皆興, 邦回綴旒之勢. 茲循盈庭之歡籲, 卽舉主器之嘉儀. 告以太牢, 戴經之彝章可稽; 育于中壺, 明德之故事式遵. 遂名加於元良, 寔奮若、屠維之嗣慶, 又文告於太寢, 繫祖功宗德之延庥. 宜飾以貞之祥符, 庸均作解之霈澤. 自本月二十五日昧爽以前, 雜犯死罪以下, 咸有除之, 在官者各加一資, 資窮者代加. 於戲! 式至今而根基永固, 尙撫往而感喜交并. 燕翼之謨采深, 思盡道於蒙養; 鵬飛之喻非偶, 庶改新於泰來. 故茲教示, 想宜知悉. 【大提學尹淳製進.】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원자(元子)가 탄생하였다는 것으로써 백관(百官)들의 하례를 받았고, 교문(敎文)을 선포하여 읽었으니, 그 글에 이르기를,

“동궁(東宮)의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바야흐로 만백성의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는데, 일월(日月)의 빛이 거듭 밝았으니, 이에 넉넉함을 주는 아름다움을 기쁘게 여기노라. 이미 먼저 원자의 명호(名號)를 바로 하였으니, 어찌 널리 이것을 고(告)하는 의식을 늦추겠는가? 생각하건대, 나 같은 과덕(寡德)이 왕위를 받들었으니, 언제나 두려워하여 사방으로 돌아보면서 후사(後嗣)를 계승할 걱정을 깊이 품었다. 집안과 나라가 외롭고 위태로우니 여러 사람의 마음을 매어둘 곳이 없을까봐 염려되었고, 내 나이 점점 늙어가니 선조의 대통(大統)을 전할 데가 없음이 두려웠었다. 동룡문(童龍門)이 닫힌 지 거의 10년의 나머지에 다행히 하루아침에 매신(神)이 아들을 점지(點指)하는 길사(吉事)를 얻었다. 대개 나라의 존망과 성쇠의 판가름이 이 순간에 닦였는데, 천지와 사직의 신령이 이와 같은 아들을 내려 줌을 힘입었다. 삼종(三宗)의 혈맥(血脈)을 다시 잇게 되었으므로, 내가 종묘에 배알(拜謁)할 면목이 서게 되었고, 팔도[八路]의 온 백성들이 모두 기뻐 일어나니 나라는 철류(綴旒)의 형세를 만회(挽回)하게 되었도다. 이에 궁정에 가득 찬 환호의 요청에 따라서, 즉시 종묘에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의식을 거행하였다. 태뢰(太牢)의 예로써 조상에게 고하였으니 예경(禮經)에 실린 아름다운 전장(典章)을 상고하였고, 원자를 중궁[中壺]에서 기르게 되었으니 밝은 부덕(婦德)의 고사(故事)를 이에 따랐다. 마침내 원량(元良)에게 명호(名號)를 더하였으니 이는 분약(奮若)·도유(屠維)에 후사(後嗣)를 잇던 경사와 같고, 또 글로써 태묘(太廟)에 고하였으니 조종(祖宗)의 공덕(功德)이 뻗치어 의지함이 오래일 것이다. 바른 상부(祥符)를 수식(修飾)함이 마땅하니, 이에 죄인들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은택을 골고루 베푸는 바이다. 이달 25일 새벽 이전부터 잡범(雜犯)으로서 사죄(死罪) 이하는 모두 용서하여 죄를 면제하고, 관직에 있는 자는 각기 한 자급(資級)을 더하며, 자궁(資窮)인 자는 대가(代加)하게 한다. 아! 지금에 이르러 나라의 근본이 길이 굳어졌으니, 오히려 지나간 일을 생각하매 감격과 기쁨이 아울러 일어난다. 자손에게 끼쳐 줄 대모(大謨)가 더욱 깊었으니 몽양(蒙養)하는 도리를 다할 것을 생각하였고, 대봉(大鵬)이 나는 것에 비유한 것은 우연이 아니니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개혁과 새로운 정치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노니, 생각하건

대, 신민들은 마땅히 이 사실을 자세히 알지어다.”  
하였다. 【대제학 윤순(尹淳)이 지어 올렸다.】

▶ 40권 11년 4월 24일 甲子

甲子/上召見全羅監司徐宗玉. 宗玉言: “湖南田結, 舊爲十九萬結, 而李匡德爲監司時, 得三萬結, 南渭老敬差時, 爲二十三萬結. 搜括無餘, 守令無所着手, 結稅輒致加徵, 此爲湖南大弊.” 上曰: “李匡德豈欲害民, 而但爬剔太過, 此反爲弊, 弛張在卿矣.” 又教曰: “湖南風俗, 左術者多, 予甚憫之. 移易之道, 非必矯之以威, 如古人買牛買犢之治, 則庶得矣.”

임금이 전라감사 서종옥(徐宗玉)을 불러서 보았다. 서종옥이 말하기를,  
“호남 지방의 전결(田結)은 옛날에 19만 결(結)이 되었는데, 이광덕(李匡德)이 감사로 있었을 때 3만 결을 얻었으며, 남위로(南渭老)가 경차관(敬差官)이 되었을 때는 23만 결이나 되었습니다. 더 찾아낼 만한 여지가 없으므로 수령들이 손을 쓸 곳이 없어 전결의 조세를 갑자기 더해서 징수하게 되니, 이것이 호남 지방의 큰 폐단이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광덕이 어찌 백성들을 해치고자 하였겠는가? 그러나 다만 세금을 끌어모은 것이 너무 지나쳤으니, 이것이 도리어 폐단이 되었다. 느슨하게 하거나 딱딱하게 하는 것은 경에게 달려 있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호남 지방의 풍속에는 좌도(左道)의 술수(術數)를 믿는 자가 많다고 하니, 내가 매우 가엾게 여긴다. 그러나 풍속을 바꾸는 방도는 관의 위엄으로써 이것을 바로잡을 것이 아니니, 마치 옛사람들이 ‘이미 소를 사고 송아지를 산다’는 것과 같은 정치를 베풀면 거의 고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 40권 11년 5월 3일 壬寅

平安道永柔縣牛生犢, 一體兩頭.

평안도 영유현(永柔縣)에서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몸은 하나요 머리가 둘이었다.

▶ 40권 11년 5월 16일 乙卯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乙卯/熊川有牛生五角. 黃海道海湓

웅천(熊川)에서 소가 뿔이 다섯 개인 송아지를 낳았다. 황해도에 해일이 있었다.

### ▶ 40권 11년 7월 27일 甲子

甲子/金山郡牛生犢, 三目兩鼻兩口.

금산군(金山郡)에서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눈이 세 개이고 코가 두 개이며 입이 두 개였다.

### ▶ 40권 11년 8월 10일 丙子

丙子/鏡城有牛生犢, 一體二首.

경성(鏡城)에서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몸뚱이는 하나이고 머리가 두 개였다.

### ▶ 40권 11년 11월 23일 戊午

戊午/持平李錫杓上疏言事, 賜優批, 補咸悅縣監, 使騎駟赴任. 錫杓, 判書寅燁之孫, 父夏坤以布衣能文, 有盛名. 錫杓亦早負聲稱, 連魁大小科, 而屢入臺, 無一言, 人或疑其循默. 至是, 上萬言疏, 極言衰闕時弊, 切直不諱.

其目一曰: 和梱內以篤聖化. 殿下於後宮寵遇偏隆, 賞賜頻數. 賞賜頻數, 則心志侈, 寵遇偏隆, 則權勢重. 以侈心恃重權, 則其能謹守抱樞之訓, 不犯當夕之譏乎? 其二曰: 教元子以養德性. 元子新降之初, 卽令製入錦靴、紋冠, 非以尙儉質, 以爲貽燕之謨. 向日大臣, 請以節損者, 非過言也. 其三曰: 抑近隸以肅內治. 掖隸驕橫, 每被容護, 馴至於藥院事矣. 今之所求者, 止於青竹耳, 青竹不已, 至於牛黃, 牛黃不已, 至於人蔘矣. 所辱者止於掌務耳, 掌務不已, 至於提調, 提調不已, 至於大臣矣.

이하생략~

지평 이석표(李錫杓)가 상소하여 정사를 논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리고 함열현감(咸悅縣監)에 보임하였는데, 그로 하여금 역마를 타고 부임하게 하였다. 이석표는 판서 이인엽(李寅燁)의 손자였는데, 그 아버지 이하곤(李夏坤)은 포의(布衣)로서 문장에 능하여 훌륭한 명망이 있었다. 이석표도 또한 일찍이 명성을 지고 연달아 소과(小科)와 대과(大科)에 장원

급제하여 여러 차례 대간의 자리에 들어갔으나 한마디의 말도 없었으니, 사람들은 혹시 그가 순묵(循默)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만언소(萬言疏)를 올려서 임금의 결점과 사폐(時弊)를 극언(極言)하였는데, 절실하고 곧아서 아무런 숨김이 없었다. 그 절목에 말하기를,

“첫째, 궁중(宮中)을 화목하게 하여 거룩한 교화(敎化)를 독실하게 해야 합니다. 전하께서 후궁(後宮)에 대하여 총애하는 것이 지나치게 융숭하여 상사(賞賜)를 너무 자주 행하는데, 상사가 너무 잦으면 사람들의 마음과 뜻이 사치스러워지고 은총이 지나치게 융숭하면 권세가 무거워집니다. 사치하는 마음으로써 무거운 권세를 의지하게 되면 포주(抱)의 교훈을 삼가 지켜 밤을 당하여 시침(侍寢)하는 기롱(譏弄)을 범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둘째, 원자(元子)를 가르쳐서 덕성(德性)을 길러야 합니다. 원자가 새로 탄생하신 초기에 금화(錦靴)와 문관(紋冠)을 만들어 들여오게 하셨는데, 이것은 검소하고 질박한 것을 숭상하여 후사(後嗣)에게 평안함을 남겨주는 모책(謀策)이 아니니, 지난날 대신들이 절약하라고 청한 것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셋째, 근시(近侍)와 액례(掖隸)를 억눌러서 내전(內殿)을 엄숙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액례가 교만하고 방자한데도, 언제나 용서와 보호를 받아서 점차 변하여 약원(藥院)의 일까지 빚어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요구하는 것은 청죽(靑竹)에 그쳤지마는 청죽에서 그치지 아니하면 우황(牛黃)에 이르게 되며, 우황에서 그치지 아니하면 인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한 자는 장무(掌務)에 그쳤지마는 장무에서 그치지 아니하면 제조(提調)에 이르게 되며, 제조에서 그치지 아니하면 대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하생략~

## ▶ 41권 12년 2월 10일 甲戌

甲戌/上引見大臣、備堂. 右議政宋寅明言: “陵幸後, 例當犒土, 用牛至數百頭. 方當發生之時, 不可多屠殺, 請以乾物給.” 命軍門考例行之. 左議政金在魯言: “丙辰萬科武及第年甲重回, 請依故判書李光迪故事, 賜花以榮之.” 上從之, 且命賜米肉尊灑. 時, 刑官以閭家奪入犯禁事面奏, 辭說紛然, 禮曹判書金東弼曰: “爲治之道, 貴持大體, 大體既得, 萬目自張矣. 臣於先朝, 屢以堂后入侍, 次對奏語, 非君德與時政, 卽關防大計, 生民宿弊, 上下論說, 無非實事. 今則以一有司微細之事, 至煩筵稟, 無補於國, 而徒損事體耳.” 上以爲然.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능행(陵幸) 뒤에는 호사(土)하는 것이 전례인데, 거기에 쓰이는 소[于]가 수백 마리에 이릅니다. 바야흐로 만물이 발생(發生)하는 때를 당하여 도살(屠殺)을 많이 하는 것은 불가하니, 청컨대 마른 물품을 지급하도록 하소서.”

하니, 군문(軍門)에 명하여 전례를 상고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재로(金在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魯)는 아뢰기를,

“병진년 만과(萬科)의 무과 급제(武科及第)의 연갑(年甲)이 다시 돌아왔으니, 청컨대 고(故) 판서(判書) 이광적(李光迪)의 고사(故事)에 따라 꽃을 내려 영화롭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쌀·고기·통술을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이때 형관(刑官)이 민가[閭家]를 빼앗아 들어가 금법(禁法)을 범하는 일을 가지고 면전에서 아뢰면서 이야기가 분분하자, 예조판서(禮曹判書) 김동필(金東弼)이 아뢰기를,

“다스리는 도리는 대체(大體)를 유지하는 것이 귀중하니, 대체를 이미 얻게 되면 모든 세목(細目)은 저절로 펴집니다. 신이 선조(先朝)에 여러 번 당후(堂后)로 입시하였는데, 차대에서의 주어(奏語)가 군덕(君德)과 시정(時政)에 관한 것이 아니면 바로 관방(關防)의 큰 계획이나 생민(生民)의 목은 폐단으로서 상하의 논설이 실질적인 일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개 유사(有司)의 잔단 일을 가지고 번거롭게 연품(筵稟)까지 하는 데 이르고 있으니, 이는 국가에 보탬이 없고 한갓 사체(事體)만 손상시킬 뿐입니다.”

하니, 임금도 그렇게 여겼다.

### ▶ 41권 12년 3월 27일 辛酉

慶尙道開寧縣有牛生一身兩頭，四目四口。

경상도(慶尙道) 개령현(開寧縣)에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몸뚱이 하나에 머리가 둘, 눈이 넷, 입이 넷이었다.

### ▶ 41권 12년 5월 6일 己亥

平安道義州民家火，六人燒死，博川郡又火，延燒一里，灰燼頽壓者，一百三十三家，而二人燒死，牛馬鷄犬皆爛斃，令本道顧恤。

평안도(平安道) 의주(義州)의 민가(民家)에 불이 나서 여섯 사람이 타 죽었으며, 박천군(博川郡)에 또 불이 나서 한 마을을 잇달아 태웠는데, 불이 타서 무너지거나 짓눌린 것이 1백 33가(家)였으며, 두 사람이 타 죽고 소·말·닭·개가 모두 타 죽었으므로, 본도(本道)로 하여금 고휜(顧恤)하여 주도록 하였다.

### ▶ 43권 13년 1월 27일 丙辰

先是，淸國禮部以中江開市，着內地商民貿易事，奉其主旨意移咨曰：

向來八旗臺站官兵，於每年二、八月間，攜帶貨物，前往中江，與朝鮮貿易。朕思旗人

等,俱有看守巡查之責,原無暇貿易,遠人到邊,恐致稽遲,守候多有未便.嗣後着內地商民,與朝鮮人貿易,卽令中江稅官,實力稽查,毋得勒措滋擾,以示朕加惠遠人之至意云.

卽遣齎咨官吳泰說,回咨曰:

小邦世蒙大朝覆燾之恩,無微不察,有願必遂,一域臣黎,孰不頌戴,而今又當邊門例市,特念貽弊遠人,誕降明諭,許令與內地商民貿易,又飭其平均交易,毋得滋擾,奉讀以還,不勝感激.惟當欽遵恩旨,仰承德意.顧惟小邦情實,有不敢自隱者,蓋此中江春秋之市,粵自順治三年,謹依戶部咨會,官辦農牛、鐮、鹽,到境設市,臺站軍民等持小青布和買,以資其耕作物種.既係恒定,開撤亦有常限,按例遵行,幸無他弊.頃在康熙三十九年,自盛京戶部移咨,欲令衆賣買人持緞布、氈帽、綿花,市易小邦,輒將難便事狀,耑咨懇陳,聖祖仁皇帝,特準所請.雍正十三年,自貴部又移咨小邦,咨覆如前,又蒙貴部許準.小邦仰戴恩私,一心謹畏,得以嚴戢冒濫,恪守教條,式至于今.今茲恩諭,又所以推嘉惠之意,廣交市之路,其爲小邦地者,至優渥也.惟是區區所私慮者,小邦邊民,貧瘠最甚,每當邊境市貿,捨命冒法,潛賒重貨,遂致逋負山積,計至累萬.向年小邦,緣此幾不免大戾,幸蒙世宗憲皇帝曲賜涵貸,特令免退,至今含恩訟咎,益自慙飭,幸不至重陷罪何.今若內地商民,前來貿易,則其勢自異於臺站軍民,必不免多帶雜貨,而恒例農牛、鐮、鹽,又非其所須.不過與小邦奸民,潛相賣買,畢竟賒質取與,積成逋欠,一如前習而已,此在內地商民,反失其望,而小邦不戢之罪,亦何敢每蘄曲赦?倘蒙矜察,如舊施行,則庶幾憑依成法,永賴慈庇.煩乞貴部,曲諒微懇,轉達天聽,使小邦獲被終始之恩.

이보다 앞서 청국(淸國)의 예부(禮部)에서 중강 개시(中江開市)에 내지(內地)의 상인들로 하여금 무역(貿易)하게 하는 일을 그들의 임금의 뜻을 받들어 이자(移咨)하기를,

“지난번 팔기대참(八旗臺站)의 관병(官兵)들은 매년 2월·8월에 화물(貨物)을 가지고 중강(中江)으로 가서 조선(朝鮮)과 무역을 해왔다. 생각건대, 기인(旗人)들은 모두 간수(看守)하고 순사(巡查)하는 책임이 있어 원래 무역할 겨를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먼 데 사람들이 변방에 왔다가 지체되고 수후(守候)에도 미편한 점이 많이 있을 듯하니, 뒤이어 내지(內地)의 상인들로 하여금 조선 사람들과 무역하게 하겠다. 그리고 즉시 중강의 세관(稅官)으로 하여금 실제로 힘써 조사하여 강제로 억매하거나 값을 불리는 일이 없게 함으로써 짐이 먼 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지극한 뜻을 보이겠다.”

했는데, 즉시 재자관(咨官) 오태열(吳泰說)을 보내어 회자(回咨)하기를,

“소방(小邦)이 대대로 대조(大朝)에서 보살펴주시는 은혜를 받아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살펴주지 않는 것이 없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셨으므로 온 나라의 신여(臣黎)들이 누군들 송축하면서 떠받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또 변방에서 전례에 의거하여 개시(開市)하는 때를 당하여 특별히 먼 데 사람에게 폐단을 끼칠 것을 염려하여 크게 분명한 유시(諭示)를 내리시어 내지의 상인들과 무역하게 할 것을 허락하고, 또 공평 균일하게 교역(交易)하게 함으로써 외람된 일이 없도록 신칙하셨으므로, 이를 받들어 읽은 이래 감격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마땅히 은지(恩旨)를 흠준(欠遵)하고 덕의(德意)를 우러러 따를 뿐입니다. 생각건대, 소방의 정실(情實)에 감히 스스로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강(中江)에서 봄·가을로 여는 개시(開市)는 순치(順治) 3년(1646)부터 삼가호부(戶部)의 자회(咨會)에 의거하여 관(官)에서 농우(農牛)·가래·소금을 판비(辦備)하여 변경에 이르러 시장을 개설하면, 대참(臺站)의 군민(軍民)들이 소청포(小青布)를 가지고 와서 화매(和買)하여 물종(物種)을 경작하는 데 쓸 밀천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는 이미 항정(恒定)에 관계된 것이고 개설하고 철폐하는 것도 일정한 기한이 있는 것이니, 전례를 따라서 준행하여 다른 폐단이 없게 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지난 강희(康熙) 39년(1700)에 북경(北京)의 호부에서 이자하여 많은 매매인(賣買人)으로 하여금 단포(緞布)·전모(帽)·면화(綿花)를 가지고 와서 소방에 시장을 열고 무역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곤란한 사상(事狀)을 가지고 자문을 올려 간곡하게 진달하니, 성조 인황제(聖朝仁皇帝)께서 특별히 청한 것을 준허(準許)하셨었습니다. 옹정(雍正) 13년(1735)에도 귀부(貴部)에서 또 소방에 이자하였으나, 자문에 대해 다시 전과 같이 해서 또 귀부의 준허를 받았습니다. 소방에서는 감싸주는 사은(私恩)을 우러러 받들어 일심(一心)으로 삼가고 두려워하여 엄중히 금지하면서 외람되게 교조(敎條)를 정성을 다하여 지켜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이 은유(恩諭)는 또 가상하게 여기는 은혜로운 뜻을 미루어서 교시(交市)하는 길을 넓히기 위한 것이니, 소방을 위한 조치가 지극히 우악(優渥)한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구구하나마 사사롭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소방의 변민(邊民)들은 가난에 찌든 것이 너무 극심한 까닭에 변경에서 개시하여 무역할 때를 당하면, 목숨을 걸고 법을 어기면서 몰래 많은 재화(財貨)를 외상으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진 포부(逋負)가 산처럼 누적되어 수만 금(金)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에 소방에서 이로 인하여 그 죄를 면치 못할 뻔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세종 헌황제(世宗憲皇帝)께서 곡진히 용서하시어 특별히 면퇴(免退)시켜 주심을 받게 되었으므로, 지금까지 은혜에 감사하고 잘못을 자송(自訟)하면서 더욱 스스로 삼가면서 거듭 죄에 빠지는 데 이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내지의 상민들이 나와서 무역한다면 그 사세가 자연히 대참(臺站)의 군민(軍民)들과는 다르므로, 반드시 잡화(雜貨)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항례(恒例)로 준비해 왔던 농우·가래·소금은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방의 간소한 백성들이 몰래 서로 매매하면서 마침내 외상으로 주고받게 될 것이므로 포함이 누적되는 것은 한 결 같이 그전의 습관과 같은 데 불과할 것이니, 이는 내지의 상민들이 도리어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에서 잘 금지하지 못한 죄를 또한 어떻게 감히 매양 곡진히 용서해 주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혹 불쌍히 여겨 살펴주어 그전처럼 시행하게 해주신다면 성법(成法)에 의거하여 영원히 사랑하여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의뢰할 수 있겠습니다. 번거롭게 귀부(貴部)에 요청하노니 하찮은 정성을 곡진히 양지하여 천청(天聽)에 전달(轉達)하여 소방으로 하여금 시종 한결같은 은혜를 받게 해주기 바랍니다.”

하였다.

▶ 43권 13년 3월 10일 戊戌



上引見大臣、備堂。右議政宋寅明曰：“臣近聞，醫官之入見春宮，多有請賜予者。國朝禮法絕嚴，此輩豈宜若是？”上曰：“無有。但見頃者，戲與醫官以酪粥，醫官亦請賜柑，以觀其對，此好意也。”然易以成習，卿言是矣。”守禦使趙尙綱陳白：“本廳牙兵之在湖西者，多以私賤換定，良兵漸減，不成軍制，請令廟堂稟處。”寅明曰：“守禦廳所屬五營之外，湖西則本非正軍，不過收米者。良軍收十二斗，私賤收六斗，故甲寅以良丁之難減，良軍一千名，代給私賤二千名於本營，少無所妨。宜置之。”左議政金在魯曰：“良兵終勝私賤，私賤則名數倍多，徒紊軍制矣。”上曰：“若以私賤爲軍，倍增其數，則私奴之叛主者皆投屬，此輩將焉用哉？湖西牙兵當罷則罷之，不罷則當用，良軍亦不可增數以私賤矣。”寅明曰：“湖西之有牙兵，非古制，乃逆鏡所創者，當革罷矣。況兵貴精，不務多乎？”上曰：“不必以逆鏡所創爲言，所創之事，若利於國，何可廢之？韓信多多益善，亦不可以不務多矣。”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송인명이 말하기를,

“신이 근래에 듣건대, 춘궁(春宮)에 입견(入見)하는 의관(醫官)들 가운데 사여(賜予)를 청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국조(國朝)의 예법은 매우 근엄한 것인데, 이 무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런 일이 없다. 단지 지난번 의관들에게 희롱삼아 낙죽(酪粥)을 준 일이 있었고, 의관들 또한 감골의 하사를 청하여 그 대답을 살펴보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좋은 뜻이었다. 그러나 습관으로 굳어지기 쉬운 것이니,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수어사 조상경(趙尙綱)이 진백(陳白)하기를,

“본청(本廳)의 아병(牙兵) 가운데 호서(湖西)에 있는 사람들을 사천(私賤)으로 환정(換定)한 것이 많아서 양병(良兵)이 점차 감소되고 있으므로, 군제(軍制)가 모양을 이룰 수 없으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處)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송인명은 말하기를,

“수어청에 소속된 오영(五營) 이외에 호서의 경우는 본디 정군(正軍)이 아니므로 쌀을 거두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양군(良軍)은 12두(斗)를 거두고 사천(私賤)은 6두(斗)를 거두기 때문에, 갑인년에 양정(良丁)을 감소시키기는 어렵다 하여 양군(良軍) 1천 명 대신 사천(私賤) 2천 명을 본영(本營)에 주었으니, 조금도 방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의당 버려두어야 합니다.”

하고, 좌의정 김재로는 말하기를,

“양병(良兵)이 결국 사천(私賤)보다 낫습니다. 사천은 명수(名數)가 배나 되지만 한갓 군제(軍制)만 문란시킬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만일 사천을 군사로 만들어 그 액수를 배로 증가시킨다면, 주인을 배반한 사노(私奴)도 모두 여기에 투속(投屬)할 것인데, 이런 무리를 장차 어디에다 쓰겠는가? 호서의 아병은 마땅히 혁파해야 한다면 혁파하고, 혁파하지 않아야 한다면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군은 역시 사천으로 액수를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호서에 아병을 둔 것은 고제(古制)가 아니고 곧 역적 김일경이 처음 만든 것이니, 마땅히 혁파해야 합니다. 더구나 군대는 정예로운 것이 귀한 것이요 많기를 힘쓸 필요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역적 김일경이 처음 만들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처음 만든 일이 나라에 이로우면 어떻게 폐지할 수 있겠는가? 한신(韓信)은 군병은 많을수록 더욱 좋다고 했으니, 또한 많기를 힘쓰지 않을 수가 없다.”

하였다.

### ▶ 47권 14년 2월 7일 己丑

時北關牛疫大熾，清差交市所用之牛六百，斃者五百五十餘。寅明請移送南關牛，上曰：“入送他牛，亦必病斃，此不可爲也。待其疫寢貿送。”

이때 북관(北關)에 우역(牛疫)이 크게 번져서 청나라 차원(差員)과 교시(交市)하는데 쓸 소 6백 마리 중에 죽은 것이 5백 50여 마리나 되었다. 송인명(宋寅明)이 남관(南關)의 소를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다른 소를 들여 보내도 반드시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니, 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역이 없어지기를 기다려서 무역하도록 하라.”

하였다.

### ▶ 47권 14년 11월 24일 壬申

壬申/憲府【持平金尙耆.】申前啓，不允。又啓言：“宮城掛書之變，至今未捕，請兩廳捕盜大將并罷職。”又啓言：“賤娼乘輜，憲臣出禁，而從中受賂，旋又放釋，請當該憲臣罷職。”又啓言：“湖右一路，未知有官長，凌蔑道臣，當面詬辱，請湖西士人凌辱道臣者，令本道遠地定配。”又啓言：“按廉之體，宜主法禁，而守令犯屠，先自低仰，請湖南御史南泰良推考。”又啓言：“日昨憲長以萊府犯禁，請削伊時邊臣，聖批令備局稟處，而邊禁至嚴，臺論宜遵，請前東萊府使具宅奎削職。”又啓言：“殺獄檢驗之時，部官多有操縱，請當該部參奉柳綵汰去。”又啓言：“臺官不可辱，冢宰宜自重，公坐凌蔑之言，人多傳說。章疏枯槁之語，駟不及舌，請吏曹判書趙顯命推考。”又啓言：“評事差遣，指名歷陳，有傷大體，請兵曹判書趙尙綱推考。”上曰：“捕將爲先從重推考，其餘并依啓。”

사헌부【지평 김상구(金尙耆)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궁성에 괘서(掛書)한 변고는 지금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으니, 청컨대 두 포도청(捕盜廳)의 포도대장을 모두 파직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친한 창녀(娼女)가 교자(轎子)를 탄 것을 헌신(憲臣)이 나가서 금지하다가 중간에 뇌물을 받고 바로 놓아주었으니, 청컨대 해당 헌신을 파직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호우(湖右)한 도에서는 관장(官長)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신을 능멸하여 대면하여 후욕(辱)했으니, 호서(湖西)의 사인(士人)으로 도신을 능욕한 자를 본도로 하여금 먼 지방에 정배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안렴(按廉)하는 체례(體例)는 마땅히 법금(法禁)에 주력해야 하는 것인데, 수령들의 범법하여 도살(屠殺)한 데 대해 스스로 먼저 축소하기도 하고 과대하기도 했으니, 호남어사 남태량(南泰良)을 추고(推考)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일전에 헌장(憲長)이 동래부에서 금법(禁法)을 범하였다 하여 그때의 변신(邊臣)을 삭직(削職)할 것을 청하자, 성상께서 비국으로 하여금 품처(處)하도록 하겠다고 비답하셨습니다. 변방의 금법은 지극히 엄격하고 대관(臺官)의 논계(論啓)는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이니, 청컨대, 전 동래부사 구택규(具宅奎)를 삭직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살옥(殺獄)에 대해 검험(檢驗)할 때 부관(部官)이 조종한 것이 많았으니, 해부의 참봉 유채(柳綵)를 태거(汰去)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대관(臺官)은 욕할 수가 없는 법이니, 총재(宰)가 마땅히 자중(自重)했어야 할 것인데, 공좌(公坐)에서 능멸하는 말을 하여 사람들의 전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소장(疏章) 가운데 ‘길고(桔)’라는 말도 입 밖에 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니, 청컨대 이조판서 조현명(趙顯命)을 추고(推考)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평사(評事)를 차견(差遣)하는 데 대해 지명(指名)하여 두루 진달한 것은 대체(大體)를 손상함이 있으니, 청컨대, 병조판서 조상경(趙尙綱)을 추고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포도대장을 먼저 중중추고(從重推考)하고, 나머지는 모두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 48권 15년 1월 15일 壬戌

上引見禮曹判書尹淳. 淳言: “親耕例於驚蟄後初亥, 而驚蟄在正月二十七日, 厥明即亥也. 地脈堅凍, 不利耒耜, 待二月亥日, 舉盛禮爲便.” 上曰: “禮用孟春之月, 況節候適在是月乎?” 淳曰: “以今月令觀之, 則二月桃始華, 未知三王之時, 春令尙早而然歟, 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今異宜，不可遵此。後梁天鑑年間，以二月行事，祖宗朝或行於正月，或行於二月，宜隨時變通矣。”上曰：“二月之初，何異於正月之晦？今番上從三代，次遵我朝，何必用後梁之禮乎？以今月二十八日行焉。”淳仍稟節目，命先遣大臣，看籍田親耕處。遂造御齋室二間，用土築墻，以戶曹判書爲耕籍使，穀種盛用青箱，牛用黃牛，覆以青色，頒教試士，竝依舊例。

임금이 예조판서(禮曹判書) 윤순(尹淳)을 인견(引見)하였다. 윤순이 말하기를,

“친경(親耕)은 으레 경칩(驚蟄) 뒤 첫 해일(亥日)에 행합니다마는, 경칩이 정월 27일에 있고 그 이튿날이 곧 해일인데 지맥(地脈)이 굳게 얼어서 쟁기질하기가 편리하지 않으니, 2월의 해일이 되거든 성례(盛禮)를 거행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禮)에는 정월로 하였는데, 더구나 절후(節候)가 이달에 있지 않은가?”

하였다. 윤순이 말하기를,

“지금 월령(月令)으로 보면 2월에 비로소 복숭아꽃이 피니, 삼왕(三王) 때에는 춘령(春令)이 오히려 일러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고금이 마땅한 것을 달리하니, 이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후량(後梁) 천감(天監) 연간에는 2월에 행사하였고, 조종(祖宗) 때에는 정월에 행하기도 하였고 2월에 행하기도 하였으니, 때에 따라 변통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2월 초가 어찌 정월 그믐께와 다르겠는가? 이번에는 위로 삼대(三代)를 따르고 다음으로 아조(我朝)를 따르는 것이다. 어찌하여 반드시 후량의 예(禮)를 써야 하겠는가? 이달 28일에 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순이 이어서 절목(節目)을 여쭙니, 먼저 대신(大臣)을 보내어 적전(籍田)의 친경할 곳을 살펴보게 하라고 명하였다. 드디어 어재실(御齋室) 두 칸을 짓고, 흙으로 담을 쌓고, 호조판서(戶曹判書)를 경적사(耕籍使)로 삼고, 곡물 종자는 푸른 상자에 담고, 소는 황소를 써서 청색으로 덮고, 교서(敎書)를 반포하고, 선비를 시취(試取)하는 것을 모두 전례대로 하기로 하였다.

### ▶ 48권 15년 1월 18일 乙丑

禮曹判書尹淳請對奏曰：“親耕儀註，『五禮儀』只載大綱，無他可據之典故，問議太常，僅成兩圖，仰稟裁矣。”上取圖覽之。淳曰：“親耕五推後，大臣、宗臣左右耦耕，而一畝之間，難容兩牛。故摸寫兩本，一則雙立耦耕，一則先後成行矣。”上曰：“雙立而後，可成耦耕，以此定儀可也。”淳曰：“勞酒禮有不賀不上壽之文矣。稽諸宋之『政和禮』、『大明集禮』，俱不賀赦，而我朝則蓋以舉曠典，稱賀試士，敢請上裁。”上曰：“祀先農親耕之後，豈無展禮於先師乎？試士事，先已頒布，不可欺多士，況當謁聖年次？名之曰親耕後謁聖，以三月行焉。”親耕，舊例有大護軍侍衛之節。上問服色，淳對以無可據。上曰：“曾見摠府，有傳來甲冑而今則變爲貼裏。既稱將軍，何可着貼裏乎？左右衛將軍則

具甲冑夾侍，上護軍依雲劍例，帽帶佩劍扶策，大護軍不可佩弓矢，而執鞭矣。”淳曰：“親耕田畔，不可無環衛矣。”上曰：“設布帳可也。”淳曰：“承旨所宣，爲外宣醢；中官所宣，爲內宣醢，而饌品各異，何以舉行乎？”上曰：“外宣醢太略，以內宣醢行焉，而令廚院依茶禮例，除油蜜果。宣醢時，大臣則錄事進饌，卿宰以下，書吏權行之，耆民則衛卒以紫衣巾行之可也。”又教曰：“勞酒當槌牛設饌，然親耕勸農，不可殺農牛，以猪代之。”

예조판서(禮曹判書) 윤순(尹淳)이 청대하여 아뢰기를,  
“친경의 의주는 『오례의(五禮儀)』에 대강이 실려 있을 뿐이고 의거할 만한 다른 전고(典故)가 없으므로, 태상(太常)에 문의하여 겨우 두 그림을 만들어 재결을 앙품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림을 거두어 보았다. 윤순이 말하기를,

“친경하여 쟁기를 다섯 번 미신 뒤에 대신(大臣)과 종신(宗臣)이 좌우에서 나란히 밭을 갈  
니다마는, 한 이랑 사이에 소 두 마리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두 본(本)을 그렸는  
데, 하나는 짝지어 서서 나란히 가는 것이고 하나는 앞뒤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짝지어 서고서야 나란히 가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이것으로 의주를 정하도록 하라.”

하니, 윤순이 말하기를,

“노주례(勞酒禮)에 경하(慶賀)하지 않고 상수(上壽)하지 않는다는 글이 있으며, 송(宋)나라  
의 『정화례(政和禮)』와 『대명집례(大明集禮)』를 상고하면 모두 경하와 사유(赦宥)를 하  
지 않는데, 아조(我朝)에서는 대개 드문 은전을 거행하기 때문에 경하를 아뢰고 선비를 시  
취(試取)합니다. 감히 위에서 재결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농(先農)을 제사하고 친경한 뒤에 어찌 선사(先師)에게 예를 행하지 않겠는가? 선비를  
시취하는 일은 이미 반포하였으므로 많은 선비를 속일 수 없는데, 더구나 알성(謁聖)할 해  
를 당한 때이겠는가? ‘친경후알성(親耕後謁聖)’이라 이름하여 3월에 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친경 때에는 전례에 대호군(大護軍)이 시위(侍衛)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임금이 복  
색을 물었다. 윤순이 의거할 만한 것이 없다고 대답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보니 총부(摠府)에 전해 오는 갑주(甲)가 있었는데, 이제는 철릭[帖裏]으로 바뀌었  
다. 이미 장군(將軍)이라 칭하였으면 어찌 철릭을 입을 수 있겠는가? 좌우위(左右衛)의 장군  
은 갑주를 갖추고 양편에서 시위하게 하라. 그리고 상호군(上護軍)이 운검(雲劍)의 예(例)에  
따라 모대(帽帶)를 갖추고 검을 차고 책(策)을 잡으면, 대호군은 궁시(弓矢)를 차고서 편(鞭)  
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윤순이 말하기를,

“친경하는 밭두둑에 둘러서서 호위하는 자가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포장을 치면 된다.”

하였다. 윤순이 말하기를,

“승지(承旨)가 전해 내리는 것은 외선온(外宣)이라 하고 중관(中官)이 전해 내리는 것은  
내선온(內宣)이라 하여 찬품(饌品)이 각각 다른데, 어떻게 거행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외선온은 너무 소략하니 내선온으로 거행하되 주원(廚院)을 시켜 다례(茶禮)의 예에 따라 유밀과(油密果)는 제외하게 하고, 선온할 때에 대신(大臣)에게는 녹사(錄事)가 음식을 바치고 경재(卿宰) 이하에게는 서리(書吏)가 임시로 거행하고 기민(耆民)에게는 위졸(衛卒)이 자의(紫衣)·자건(紫巾)을 갖추고서 거행하는 것이 가하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노주(勞酒) 때에는 마땅히 소를 잡아서 음식을 장만해야 하겠으나, 친경하여 농사를 권장할 때에 농우(農牛)를 죽일 수 없으니 돼지로 갈음하도록 하라.”

### ▶ 48권 15년 2월 22일 己亥

右議政宋寅明率卿宰求對，請進宴東朝，上曰：“予以率百官庭請，白于慈聖，幸承勉許。”命禮官涓吉舉行。上命入閔亨洙疏，令諸臣退閣門外。俄而更命大臣卿宰入侍，上曰：“向日處分後，意謂諸臣之心，有改於前矣。今有此疏，亦國之變亂也。”寅明先言亨洙等欲明其先父心事，微示伸救之意，繼言閔鎮遠、李光佐事曰：“領相之以甲辰諱疾，見疑於奉朝賀者，不過以其時驚惶急遽之故，而其心則斷斷無他也。殿下當以此知領相之心矣。奉朝賀則被竄在外之時，得聞流播凶言，故戊申後，遂疑其處事，不能盡善於是，疑阻之心太過，殿下當以此知奉朝賀之心矣。大概二人之心雖不同，而皆出於爲國之公心，不可偏扶偏抑。今亨洙爲其父明心事，語多過激，此雖非矣，而其心則自以爲的知，而堅持矣。”上曰：“十九下教已盡諭，雖非卿言，予亦欲置之度外矣。卿言可謂分解兩鬪者也。”寅明曰：“臣常謂今日處黨論者，當如庖丁之解牛、龔遂之治繩，各順其理矣。”上曰：“當辛壬時，非特領相，舉皆冥罔。其後領相自訟其失，可知其心之無他，追提甲辰事，予心益傷感矣。以不卽設侍藥廳爲罪，此豈成說乎？其時事，予所親見，往牒亦多有不設侍藥廳之時，使予當之，亦當不設，其將以予爲不忠乎？若以用鏡、夢爲不知人而罪之，領相亦將無辭，若以不設侍藥廳爲罪，極是深文。當時凶黨流布凶言，雖無甲辰事，其後有亂逆必矣。當初若設侍藥廳，則安知不以此爲罪乎？欲使領相以此僕僕稱罪，此何可從乎？所可惜者，領相不脫於色目中矣。若非色目，則應不見疑於人矣。人豈有的見乎？常習難解，而以先入爲主，轉入於曲逕，故奉朝賀雖自曰非黨，而疑之太過矣。凡事雖微而有相類，奉朝賀之視領相，若吳瑗之視吳光運。人之氣稟固不同，而時論又從而誤之。奉朝賀之心，予已知之，故左右握手，非以爲彼此黨首而然也。今亨洙極非矣。聞亨洙爲人，頗寬通云，而亦如此耶？向日府夫人入見慈殿也，予心欣然，追惟昔年。今府夫人所倚者，只在亨洙兄弟，而渠輩如此，予所以謂亨洙不孝子也。人若對舉，則反不爲辱其父乎？苟有所懷，只明其父心事猶可也。向日亂逆，今已盡治，雖有梟獍之輩，何敢復干，而乃以甲辰爲言乎？徐德修事，雖有處分，而到今乃敢提說，亦不欲爲國母乎？設使奉朝賀生呈此疏，亦極太過，況亨洙以其父遠謫，次骨於領相，而以諸相爲證者，尤極怪駭。泰彥予猶欲烹之，烹法獨不用於亨洙乎？此不下於胤命，如此者不問而何？”寅明曰：“此豈可鞠

問者耶?” 上曰: “予於聖后, 有感慕之心, 故如是, 而亨洙之罪當烹矣. 古所謂屈法伸恩者, 亦用於亨洙耶?” 寅明曰: “人心於仁顯聖母, 有百世不忘之思, 且故相臣閔鼎重、驪陽府院君閔維重皆是士類所推重, 今亨洙事雖過, 在聖上追慕聖后之道, 特爲屈法伸恩, 似得宜矣.” 上曰: “諸臣各陳所見爲宜.” 戶曹判書俞拓基曰: “閔鎮遠之心, 專出於苦心丹忠. 今亨洙欲明其父心事, 極言其根柢, 語勢安得不然乎? 聖教反以亨洙爲觀德修處分, 而乘機闢發, 此則臣知其不然也.” 上曰: “向者處分時, 戶判先揮涕陳情, 予謂此後更無前習矣, 今日與君上言, 乃不以亨洙爲非也?” 拓基曰: “臣初與奉朝賀不相親, 及其後當國, 與之同事, 深知其爲國苦心. 亨洙只欲明其父之心而已, 決非乘時逞憾之意也.” 寅明及備堂徐宗玉又申言, 爲仁顯聖母及東朝進宴, 請輕其罪, 上始堅不從, 末乃置而不問, 只還給其疏.

우의정(右議政) 송인명(宋寅明)이 경재(卿宰)를 거느리고 청대(請對)하여 동조(東朝)에 진연(進宴)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한 일을 자성(慈聖)께 아뢰어 다행히 애써 허락을 받았다.”

하고,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길일을 잡아서 거행하게 하였다. 임금이 민형수(閔亨洙)의 소(疏)를 들어오라고 명하고 신하들은 함문(閤門) 밖에 물러가 있게 하였다가 이윽고 다시 대신(大臣)·경재에게 명하여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 처분한 뒤로 여러 신하들의 마음에 전보다 고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제 이 소가 있으니, 또한 나라의 변란이다.”

하자, 송인명이 먼저 민형수 등이 그 선부(先父)의 심사를 밝히려 한 것을 말하고 신구(伸救)하려는 뜻을 조금 보이고, 이어서 민진원(閔鎭遠)·이광좌(李光佐)의 일을 말하기를,

“영상(領相)이 갑진년에 병환을 숨겨서 봉조하(奉朝賀)에게 의심받은 것은 그때 놀랍고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지나지 않고 그 마음은 참되어 다른 뜻이 없었으니, 전하께서 이것으로써 영상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봉조하는 귀양 가서 외방(外方)에 있을 때에 전파된 흉악한 말을 들었으므로 무신년 이후에 드디어 그 처사가 진선(盡善)하지 못한 것을 의심하고 그래서 의심하여 멀리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쳤으니, 전하께서 이것으로 봉조하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대개 두 사람의 마음은 비록 같지 않았더라도 다 나라를 위하는 공심(公心)에서 나왔으니, 치우치게 돕거나 치우치게 억눌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민형수가 그 아비를 위하여 심사를 밝히되 과격한 말이 많았으므로 이것이 비록 그르기는 하지만, 그 마음은 스스로 확실히 알아서 굳게 지킬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19일 하교에 이미 모두 말하였다. 경의 말이 아니더라도 나도 생각 밖으로 버려두려 하였다. 경의 말은 양편의 다툼을 분해(分解)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신은 오늘날 당론에 처한 자는 백정이 소를 해체하고 공수(叢)가 엉클어진 노끈을 풀듯이 각각 그 사리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신축년·임인년 당시에는 영상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사정에 어두웠고 그 뒤에 영상이 그 잘못을 스스로 하소연하였으므로 그 마음에 다른 뜻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데, 갑진년의 일을 뒤미처 제기하니, 내 마음이 더욱 감상(感傷)된다. 곧바로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죄로 삼으니, 이것이 어찌 말이 되겠는가? 그때의 일은 내가 친히 본 것이고 옛 기록에도 시약청을 설치하지 않은 때가 많이 있으며 내가 당하였더라도 설치하지 않았을 것인데, 나를 불충(不忠)하다고 할 것인가? 김일경(金一鏡)·박필몽(朴弼夢)을 등용한 것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 하여 죄준다면 영상도 할 말이 없겠으나, 시약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죄로 삼는 것은 매우 법문(法文)을 엄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당시 흉당(凶黨)이 흉악한 말을 유포하였으니, 갑진년의 일이 없었더라도 그 뒤에 난역(亂逆)이 있었을 것은 틀림없다. 당초에 시약청을 설치하였다면 이것을 죄로 삼았을는지 어찌 알겠는가? 영상이 이 때문에 번민하여 죄를 청하려 하니, 이것을 어찌 파를 수 있겠는가? 아까워하는 것은 영상이 색목(色目)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색목이 아니면 남에게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어찌 확실한 소견이 있겠는가? 늘 버릇된 것을 벗어나기 어려워서 먼저 들어온 것을 주장 삼아 점점 굽은 길로 들어가므로, 봉조하가 스스로 당(黨)이 아니라고는 하나 의심하는 것이 너무 지나쳤던 것이다.

모든 일은 작더라도 서로 닮은 것이 있는데, 봉조하가 영상을 보는 것은 오원(吳瑗)이 오광운(吳光運)을 보는 것과 같아서 사람의 기품(氣)이 본디 같지 않고 시론(時論)이 또 따라서 그르친다. 봉조하의 마음을 내가 이미 알았으므로 좌우로 손을 잡은 것이고 피차가 당수(黨首)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니, 이제 민형수가 매우 그르다. 민형수는 사람됨이 자못 너그럽다고 들었는데 역시 그러한가? 지난번 부부인(府夫人)이 자전(慈殿)을 뵈었을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옛일을 뒤미처 생각하였다. 이제 부부인이 의지하는 자는 민형수 형제만이 있을 뿐인데 그들이 이와 같으니, 내가 이 때문에 민형수를 불효자라고 하는 것이다. 남이 맞대어 거론하면 도리어 그 아비를 욕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 아비의 심사를 밝히기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난번 난역은 이제 이미 모두 다스렸으니, 효경(梟) 같은 무리가 있더라도 어찌 감히 다시 범할 수 있기에 갑진년의 일을 말하는가? 서덕수(徐德修)의 일은 처분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제 와서 감히 말을 제기하니, 또한 국모(國母)를 위하고자 함이 아닌가? 봉조하가 살아서 이 소를 올렸더라도 매우 지나친 것일 터인데, 더구나 민형수는 그 아비가 멀리 귀양갔다 하여 영상에 대하여 원한이 뼈에 사무쳐 여러 재상들을 증거로 삼았으니, 더욱이 매우 해괴하다. 조태언(趙泰彦)도 내가 오히려 삶아 죽이려 하였는데, 삶아 죽이는 법을 민형수에게 쓰지 않을 수 있는가? 이는 배운명(裴胤命) 못지 않는데 이러한 자를 묻지 않고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이 어찌 국문(鞫問) 할 만한 자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성후(聖后)에 대하여 감복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이러한 것이다. 민형수의 죄는 삶아 죽여 마땅하다. 예전에 이른바 법을 굽히고 은혜를 편다는 것을 또한 민형수에게 쓰겠는가?”

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인심은 인현 성모(仁顯聖母)에 대하여 백세(百世)토록 잊지 못하고 또 고(故) 상신(相臣)



민정중(閔鼎重)과 여양 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은 다 사류(士類)가 추중(推重)하는 바이니, 이제 민형수의 일은 지나쳤을지라도 성상께서 성후를 추모하시는 도리로서는 특별히 법을 굽히고 은혜를 파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각각 소견을 아뢰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호조판서(戶曹判書) 유척기(兪拓基)가 말하기를,

“민진원(閔鎭遠)의 마음은 오로지 고심(若心)과 단충(丹忠)에서 나왔는데, 이제 민형수가 그 아버지의 심사를 밝히려고 그 근저(根)를 극력 말하였으니, 어세(語勢)가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교(聖敎)는 도리어 민형수가 서덕수에 대한 처분을 보고 기회를 타서 불쑥 일어난 것으로 여기십니까마는, 이는 신이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 처분할 때에 호판(戶判)이 먼저 눈물을 흘리고 진정(陳情)하기에 내가 이 뒤에는 다 전의 버릇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는데, 오늘 임금에게 말하는 것은 민형수를 그르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유척기가 말하기를,

“신이 처음에는 봉조하와 서로 친하지 않았으나, 그 뒤에 나랏일을 맡게 되어 함께 일을 같이 하고서는 그가 나라를 위하여 고심하는 것을 깊이 알았습니다. 민형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밝히려 하였을 뿐이고 결코 때를 타서 유감을 부리려는 뜻이 아닙니다.”

하고, 송인명과 비국 당상(備局堂上) 서종옥(徐宗玉)이 또 인현 성묘와 동조께 진언할 것을 다시 말하고 그 죄를 가볍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처음에는 굳이 따르지 않았으나 나중에 는 버려두고 묻지 않고 다만 그 소를 돌려 주게 하였다.

## ▶ 49권 15년 6월 3일 戊寅

上行晝講. 特進官尹容曰: “臣待罪堤堰堂上, 嚴飭各道, 又以都事別差堤堰郎, 使審視馳報矣. 京畿則最多陳廢, 嶺南則或有新築處, 兩西則往往有折受起墾者, 或轉賣爲民田, 不可不稟處矣.” 知事趙顯命曰: “堤堰之政, 誠爲農政之大者, 實有奪造化之權, 而愚民不思遠計, 守令憚於作爲, 至於罷堰作畓, 多出奸民豪族之所爲. 臣嘗親見甌山二堰乃太祖二年所築, 而爲一邑所蒙利者, 有稱牛馬牧場, 欲爲起墾, 其他可推知矣.” 容曰: “已墾之田, 固難還陳貯水, 必有大警動, 然後可有實效也. 定州有一堰, 曾折受於孝章廟, 而堤下田夫等皆願替納折受之稅, 而還陳貯水. 以此觀之, 蒙利之重、民情之切, 概可知矣. 請與大臣細商, 待後日稟處.” 上可之.

임금이 주장을 행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윤용(尹容)이 말하기를,

“신이 제언사당상(堤堰司堂上)으로 있으므로 각도에 엄히 경계하고 또 도사(都事)를 제언랑(堤堰郎)으로 특별히 파견하여 살펴보고 치보(馳報)하게 하였는데, 경기가 목혀 폐기된 것이 가장 많고, 영남은 혹 새로 쌓은 곳이 있고, 양서(兩西)는 이따금 질수하여 개간한 것이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있고 혹 전매하여 민전(民田)이 된 것도 있으니, 품처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고, 지사(知事) 조현명이 말하기를,

“제언에 관한 정사(政事)는 참으로 농정 중에서 큰 것입니다. 실로 조화(造化)를 바꾸는 방도가 있는 것인데, 어리석은 백성이 먼 계책을 생각하지 않고 수령은 일을 일으키기를 꺼립니다. 독을 없애고 논을 만드는 것으로 말하면 흔히 간민(奸民)·호족(豪族)의 행위에서 나옵니다. 신이 전에 친히 보건대, 증산(甞山)의 두 독은 태조(太祖) 2년에 쌓은 것이고 한 고을이 이익을 입는 것인데 소·말의 목장이 맞는다 하여 개간하려 하였으니, 그 밖의 것은 미루어 알 만합니다.”

하고, 윤용이 말하기를,

“이미 개간한 전토는 워낙 도로 묵혀 물을 모아 두기 어렵더라도 반드시 크게 경계하는 것이 있고서야 실효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주(定州)에 일찍이 효장묘(孝章廟)에서 절수한 독 하나가 있는데 독 아래에 사는 농부들이 절수한 세를 대납하고 도로 묵혀 물을 모아 두기를 바라니, 이것을 보면 이익을 입는 것이 많고 백성의 뜻이 절실함을 대개 알 수 있습니다. 대신과 함께 상세히 헤아려 뒷날에 품처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희하였다.

### ▶ 50권 15년 9월 11일 乙卯

上御金商門，親鞫湖西罪人盧光錫、張翼虎、黃鎬、李友松、辛光稷、金鼎位、辛錫泰等，光錫伏誅。上問光錫曰：“護逆亦逆，就道等窮凶極惡，戊申所無。王法既伸之後，汝以么鷹鄉曲蟣蝨之輩，非徒護逆，登諸歌辭，樵牧皆誦，汝之心腸，有浮就道所告者。始博則此何關於朋黨，而所謂不辨偏論是非者，抑何意思；所謂擾亂國法者，其亦何意；所謂下施云者，亦何心腸？所謂黨論竝起、干戈相尋者，吁亦陰慘。其他以相雜淆亂，譏訕其君，亦其斷案，而末稱非法枉死者，尤極痛駭。初欲命本道，亟正邦刑，而拿致于此者，欲知其窮凶極惡之心耳。”光錫供：“實無作歌之事，在本道不勝杖誣招矣。”問金鼎位、黃鎬、張翼虎·翼麟·翼鵬、辛錫泰、辛光稷等，皆以歌辭卽光錫所作納供。錫泰、光稷與光錫面質，光錫語屈。仍命刑光錫，光錫以顧護惡逆，作爲歌謠，遲晚。斬，籍產如法。辛錫泰特放，餘并自本府，更爲推鞫。大司諫李春躋以與獻納權賢爲內外從，引避。掌令宋守謙申前啓，不允。

임금이 금상문(金商門)에 나아가 호서(湖西)의 죄인 노광석(盧光錫)·장익호(張翼虎)·황호(黃鎬)·이우송(李友松)·신광직(辛光稷)·김정위(金鼎位)·신석태(辛錫泰) 등을 친국(親鞫)하였는데, 노광석은 복주(伏誅)되었다. 임금이 노광석에게 묻기를,

“역적을 감싸는 것도 역적이다. 양취도(楊就道) 등의 극악(極惡)은 무신년에도 없었던 일인데 왕법(王法)이 이미 밝혀진 뒤에 네가 하찮은 시골의 개미나 이같은 무리로서 역적을 감쌀 뿐더러 여러 가사(歌辭)에 올려서 초부(樵夫)·목동(牧童)이 다 외우니, 네 마음은 양취도가 고한 것보다 더하다. 양시박(楊始搏)은 봉당(朋黨)에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편론(偏論)의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 한 것은 대체 무슨 뜻인가? 국법을 어지럽힌다 한 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 하시(下施)라 한 것은 무슨 마음인가? 당론(黨論)이 아울러 일어나서 다툼을 서로 준비한다 한 것은, 아! 또한 음참(陰慘)하다. 그 밖에 서로 섞여 혼탁하다고 임금을 헐뜯은 것이 또한 그 단안(斷案)인데 마지막에 비법(非法)으로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한 것은 더욱이 매우 놀랍다. 처음에는 본도(本道)에 명하여 빨리 방형(邦刑)을 바르게 하려 하였으나 여기에 잡아온 것은 그 극악한 마음을 알고자 한 것일 뿐이다.”

하였는데, 노광석이 공초(供招)하기를,

“실은 노래를 지은 일이 없는데, 본도에 있을 때에 매를 건디지 못하여 거짓으로 공초하였습니다.”

하였다. 김정위·황호·장익호·장익린(張翼麟)·장익봉(張翼鵬)·신석태·신광직 등에게 물었더니, 모두 가사는 노광석이 지은 것이라고 공초하였다. 신석태·신광직과 노광석을 면질(面質)하였더니 노광석의 말이 막혔으므로, 곧 노광석을 처형하라고 명하였다. 노광석은 악역(惡逆)을 돌보고 감싸느라 가요(歌謠)를 지었다고 지만(遲晚)하였으므로 법대로 참형(斬刑)에 처하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고, 신석태는 특별히 석방하고, 나머지는 모두 본부(本府)에서 다시 추국(推鞠)하게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이춘제(李春)가 헌납(獻納)이 권현(權賢)과 내외종(內外從)이 된다 하여 인피(引避)하였다. 장령(掌令) 송수겸(宋守謙)이 전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 50권 15년 9월 16일 庚申

藥院入診, 左議政金在魯、右捕將具聖任請對同入. 命設親鞫, 原任大臣、禁府堂上、兩司并牌招. 時有二男子到慶恩府院君家, 自稱居南原, 有戚誼令通之, 門者自外却之. 未幾又持狀而往, 奴輩以爲此非呈狀之處又逐之, 而其家疑其非常, 卽送言于捕廳. 捕廳跡而捕其一, 問其姓名, 卽梁纘揆也. 探其囊有二紙, 一則是呈府院君家書也, 一則是『感故園夢賦』, 句近二百. 其呈文語多妖惡奇怪, 賦中亦多隱語, 往往有凶悖陰譎之意. 聖任見之大驚, 言于在魯, 與之請對. 在魯白上曰: “此不過狂者耳. 若使古人當之, 不必上達, 而末世則難矣. 捕將旣請對, 故臣亦與之偕入矣.” 仍以書與賦上之. 上覽之曰: “漢時男子有稱太子者, 而此尤怪矣. 乘犢車者非狂, 故朱子書於『綱目』矣. 今此現形者極怪矣.” 蓋纘揆呈書中, 有自稱王子之說, 其事類漢時犢車男子, 故上教如是, 而在魯等皆以爲狂也. 上亦疑其狂, 而其賦多凶言, 故慮有一種凶徒, 嗾而教之, 遂命設鞫親問. 上曰: “捕將問其居住乎?” 聖任曰: “居在南原, 而與梁廷虎爲疎族, 其名字亦用梁聖揆之行, 且得糧於廷虎家云矣.” 上曰: “梁廷虎誤認爲族, 給糧不異矣.” 是日將暮, 上御金商門, 鞫纘揆. 纘揆供: “乙巳年爲僧, 甲寅年還俗, 受學於本郡人盧世琛, 今年六月, 世琛以『感故園夢』出題, 使之作賦, 而勸令上京, 依其家.” 云云, 其家卽指慶恩家而言也. 於是上問諸臣, 在魯曰: “似是接魍魎之人也.” 上曰: “雖眞狂, 安能免死乎? 宜直爲正刑.” 諸臣言: “此若先誅則獄情無以究竟.” 上從之, 命以明日更鞫. 大司諫柳復明申前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啓, 不允. 上仍問臺啓中聖鐸等三人誰也? 復明曰: “世貞、允昌也.” 蓋只舉末端, 故復明誤認, 而其實則姜世胤、李獻章也. 復明引避請遞, 命遞差, 以其中建院事故也. 掌令韓鳳朝申前啓, 不允.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할 때에 좌의정 김재로(金在魯)·우포장(右捕將) 구성임(具聖任)이 청대(請對)하여 함께 들어갔는데, 친국(親鞫)을 설행(設行)하고 원임 대신(原任大臣)·금부당상(禁府堂上)·양사(兩司)를 모두 패초(牌招)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두 남자가 경은 부원군(慶恩府院君)의 집에 이르러 스스로 남원(南原)에 산다고 청하며 척의(戚誼)가 있다고 하며 전하게 하였으나 문을 지키는 자가 밖에서 물리쳤는데, 얼마 안되어 또 서장(書狀)을 가지고 갔다. 종들이 여기는 서장(書狀)을 바치는 곳이 아니라 하고 또 쫓았으나, 그 집에서 심상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여 곧 포청(捕廳)에 말을 전하였다. 포청에서 뒤밟아 그 중의 한 사람을 잡아 그 성명을 물으니 곧 양찬규(梁贊揆)이었다. 그 주머니를 찾아보니 종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부원군 집에 바치는 글이고 하나는 ‘감고원몽(感故園夢)’이란 부(賦)로 거의 2백 구(句)나 되는 것이었다. 그 정문(呈文)은 요악(妖惡)하고 기괴(奇怪)한 말이 많았고 부 가운데에도 은어가 많았는데 흉패(凶悖)하고 음사(陰邪)한 뜻이 이따금 있으므로, 구성임이 보고 크게 놀라 김재로에게 말하고 함께 청대하였다. 김재로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이는 미친 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당하였으면 반드시 위에 아뢰지 않았겠으나, 말세(末世)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포장(捕將)이 이미 청대하였으므로 신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하고, 이어서 글과 부를 올리니,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

“한(漢)나라 때에도 남자가 태자(太子)라 칭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는 더욱이 괴이하다. 송아지가 끄는 수레를 탄 자는 미친 것이 아니므로 주자(朱子)가 『강목(綱目)』에 썼거니와, 이번엔 나타난 자는 매우 괴이하다.”

하였다. 대개 양찬규가 바친 글 가운데 스스로 왕자(王子)라고 칭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 일이 한나라 때의 송아지가 끄는 수레를 탄 남자와 비슷하므로 임금의 하교가 이러하였으나 김재로 등은 모두 미친 것이라 하였다. 임금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하였으나 그 부에 흉악한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일종의 흉도가 부추겼을 것을 염려하여 드디어 국청을 설치하여 친문(親問)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포장은 그가 사는 곳을 물었는가?”

하니, 구성임이 말하기를,

“남원에 사는데 양정호(梁廷虎)와는 먼 친족이 되고 그 이름자도 양성규(梁聖揆)의 향렬을 쓰며, 또한 양정호의 집에서 양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정호가 친족으로 잘못 알고 양식을 준 것은 이상하지 않다.”

하였다. 이날 저물어 갈 때에 임금이 금상문(金商門)에 나아가 양찬규를 국문(鞫問)하였다. 양찬규가 공초(供招)하기를,

“을사년에 중이 되었다가 갑인년에 환속(還俗)하여 본군(本郡) 사람 노세침(盧世琛)에게서 수학(受學)하였는데, 올해 6월에 노세침이 ‘감고원몽’으로 출제(出題)하여 부를 짓게 하고 서울에 올라가 그 집에 의탁하라고 권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 집이란 경은 부원군의 집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물었는데, 김재로가 말하기를,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으로 미쳤더라도 어찌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는가? 곧바로 처형해야 한다.”

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를 먼저 죽이면 옥정(獄情)을 끝까지 밝힐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내일 다시 국문하라고 명하였다. 대사간 유복명(柳復明)이 전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임금이 대계(臺啓) 가운데에 있는 김성탁(金聖鐸) 등 3인이 누구인지 물으니 유복명이 말하기를,

“세정(世貞)·박윤창(朴允昌)입니다.”

하였다. 대계 말단만을 들었으므로 유복명이 잘못 알았는데, 실은 강세윤(姜世胤)·이헌장(李獻章)이었다. 유복명이 인피(引避)하여 체직(遞職)을 청하니, 체차(遞差)하라고 명하였다. 서원(書院)을 세우는 일을 다시 아뢰었기 때문이었다. 장령(掌令) 한봉조(韓鳳朝)가 전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 52권 16년 12월 20일 丙辰

掌令李錫福上疏, 論京畿監司李益炡、江原監司鄭亨復守令貶目之當置下考者, 置諸中考, 請竝重推, 其守令竝罷黜. 又言:

牛酒兩禁解弛, 請更申嚴禁. 私屠者施以全家徙邊之律, 賣釀者亦施嚴刑一次之律.

又言:

前兵使趙儼、長淵府使申兼濟、密陽府使尹懋教冒禁乘輜, 請竝罷職.

又言:

李德壽、鄭羽良主文以後, 科體一變, 險怪假飾, 關係世變, 有識竊歎. 主文之人宜加警責.

又言:

司饗僉正元慶運之老悖、司宰別提李龜濟之闇劣, 竝請刊汰.

批曰: “守令不法者, 隨聞彈駁可也, 而殿最則有政院與銓曹, 非耳目之官所可察推. 私屠者自有其律, 宜可申飭. 趙儼等事竝依施, 文體之不同, 猝難釐改, 而所陳挾雜, 意涉不美.”

장령 이석복(李錫福)이 상소하여 논하기를,

“경기감사 이익정(李益炡)과 강원감사 정형복(鄭亨復)은 수령들의 폄목(貶目) 가운데 당연히 하고(下考)에 두어야 할 사람을 중고(中考)에 두었으니, 청컨대 모두 중추(重推)하고 그 수령들도 함께 파출(罷黜)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소와 술에 대한 법금이 해이해졌으니 다시 신칙하여 엄금하게 하소서. 사사로이 소를 도살하는 자는 전가 사변(全家徙邊)의 율(律)을 시행하고 술을 빚어 파는 자에게도 한 차례 엄형(嚴刑)을 가하는 율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전 병사 조엄(趙儼), 장연부사(長淵府使) 신겸제(申兼濟), 밀양부사(密陽府使) 윤무교(尹懋敎)는 법금을 무시하고 교자(轎子)를 탔으니, 모두 파직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이덕수(李德壽)·정우량(鄭羽良)이 주문(主文)이 된 이후 과체(科體)가 아주 달라져서 글이 험괴(險怪)하고 가식(假飾)이 많은데, 이는 세번(世變)에 관계되기 때문에 식견이 있는 이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된 사람에게 마땅히 경책(警責)을 가해야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사용원 첨정 원경운(元慶運)은 늙고 패려하고, 사재감 별제 이귀제(李龜濟)는 혼암하고 용렬하니, 모두 간태(刊汰)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수령 가운데 불법한 자는 듣는 대로 탄박(彈駁)하는 것이 좋겠지만, 전최(殿最)에 대한 것은 승정원과 전조가 있으니, 이목관(耳目官)이 추찰(推察)할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소를 도살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래 해당되는 율(律)이 있으니, 마땅히 신칙하겠다. 조엄 등에 대한 일은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겠다. 문체(文體)가 같지 않은 것은 갑자기 이개(釐改)하기 어려운 것인데 험잡(挾雜)이 있다고 진달한 것은 뜻이 불미스러운 데에 관계된다.” 하였다.

### ▶ 53권 17년 2월 27일 壬戌

上召承旨趙明履問曰：“皇壇初獻樂章，仍用於三獻乎？”明履曰：“然矣。”上曰：“太廟、社稷，皆曲拜，獨於皇壇，北向直拜者何也？此宜考於『大明集禮』也。且太廟用俗樂，皇壇用雅樂，亦未可曉也。”明履曰：“此乃隨壇禮而然矣。”上曰：“九成、神祿之禮，皆具焉。凡事當一遵廟禮，而獨於樂章，從壇禮，至於亞、終獻及迎神、送神，俱闕樂章，其宜釐正。況祭當用黑牛，而用黃牛亦何意也？”後又引見大臣、備堂，問皇壇事。承旨趙明履言：“考出『集禮』，則無諸侯朝見之儀，而文武諸臣皆北向拜，太廟時享亦如之。”上疑之，又問領議政金在魯，在魯曰：“五禮儀，宗廟之禮，必以曲拜者，以神祇之禮事之也，皇壇之禮，定以直拜者，以君臣之道行之也。”上又問黃牛之義，明履曰：“明以火德，故當用騂牛，而騂爲深黃色，黃近於騂，故用之以黃也。”在魯曰：“宜從大明祭禮，以騂色用之也。”上許之。又問樂章事，在魯曰：“亞、終、迎、送之不用樂章，似斑駁。然當初收議中，故相臣李畬合奏於九變之樂云者，乃迎神、九成之樂也。皇壇比之太廟、文廟，事體最尊，最尊者惟國社，故用社壇。禮而社壇乃地祇，皇壇卽人神，故九變者，乃用先農壇之禮，而樂章更定，今難輕議也。”

임금이 승지 조명리(趙明履)를 불러 하문하기를,  
“황단(皇壇)의 초헌 악장(初獻樂章)을 삼헌(三獻)에 그대로 쓰는가?”

하니, 조명리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태묘(太廟)와 사직(社稷)에는 모두 곡배(曲拜)하는데, 유독 황단(皇壇)에서는 북쪽을 향하여 직배(直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의당 『대명집례(大明集禮)』를 상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태묘에는 속악(俗樂)을 쓰는데, 황단에는 아악(雅樂)을 쓰니 이것도 알 수 없다.”

하자, 조명리가 아뢰기를,

“이것은 바로 황단의 의식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구성(九成)과 신관(神)하는 예(禮)는 모두 갖추어졌다. 모든 일은 마땅히 한 결 같이 모례(廟禮)를 준수해야 하는데, 유독 악장(樂章)만은 단례(壇禮)를 따르고, 심지어 아헌(亞獻)과 종헌(終獻) 및 영신(迎神)과 송신(送神)에 이르러서는 모두 악장이 빠졌으니, 그것을 이정(釐正)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제사(祭祀)에는 마땅히 흑우(黑牛)를 써야 하는데, 황우(黃牛)를 쓰는 것 또한 무슨 뜻인가?”

하였다. 뒤에 또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황단(皇壇)의 일에 대하여 하문하였다. 승지 조명리가 말하기를,

“『대명집례(大明集禮)』를 상고해 보았더니, 제후(諸侯)가 조현(朝見)하는 의식은 없고, 문무(文武)의 여러 신하들은 모두 북쪽을 향해 절을 하며, 태묘(太廟)의 시향(時享)도 그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의심스럽게 여겨 또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에게 묻자, 김재로가 말하기를,

“『오례의(五禮儀)』에 종묘의 예를 반드시 곡배(曲拜)로 하는 것은 신(神)을 공경하는 예로 섬기기 때문이며, 황단(皇壇)의 예에 직배(直拜)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군신(君臣)의 도리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황우를 쓰는 의미를 묻자, 조명리가 말하기를,

“명(明)나라는 화덕(火德)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성우(牛)를 써야 하는데, 성은 짙은 황색으로, 황색은 성에 가깝기 때문에 황색을 쓰는 것입니다.”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마땅히 명(明)나라의 제례(祭禮)를 따라 성색(色)으로 쓰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허락하였다. 또 악장(樂章)에 대한 일을 묻자, 김재로가 말하기를,

“아헌(亞獻)·종헌(終獻)·영신(迎神)·송신(送神)에 악장을 쓰지 않음은 조리가 뒤섞인 듯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수의(收議)하던 가운데 고 상신 이여(李)가 아홉 번 변하는 음악을 합주(合奏)하였다고 한 것은 바로 영신(迎神)과 구성(九成)의 악(樂)입니다. 황단(皇壇)을 태묘(太廟)와 문묘(文廟)에 비교하면 사체(事體)가 가장 높은데, 가장 높은 것은 오직 국사(國社)이기 때문에 사단례(社壇禮)를 씁니다. 그리고 사단(社壇)은 바로 지신[地祇]이고, 황단은 바로 인신(人神)이기 때문에 아홉 번 변한다는 것은 바로 선농단(先農壇)의 예를 쓴 것이니, 악장을 다시 정하는 것은 지금 경솔하게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하였다.

### ▶ 55권 18년 3월 18일 丁丑

上召見領議政金在魯、左議政宋寅明等。大臣請許引接臣僚，以釋中外憂疑，上曰：“諸黨各執迷見，世道如水投石，予實無歸拜之顏。嘗笑宋主‘寅朕何地’之言，而今予此教，乃予苦心至願也。”在魯等曰：“東宮尚在冲年，此非臣等所可承聞者，聖上亦不當萌此意也。”寅明曰：“聖上此舉，非由於倦怠，蓋緣朝臣不能奉承也。反而思之，聖心必釋然矣。”在魯請命惠廳堂上閔應洙，專任賑政，以濟流民填壑之患，寅明又以北路牛隻乏絕，廢農爲悶，請關西近北各邑官餉屯牛數百頭，移送北路，上竝許之。寅明又以嶺南北運穀之未及載送者，請以兵船載運，上允之。

임금이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와 좌의정 송인명(宋寅明) 등을 소견(召見)하였다. 대신이 신료의 인접을 윤택하여 중외의 우려와 의구(疑懼)를 풀어 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당파가 각기 미견(迷見)을 고집하여 세도(世道)가 마치 물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으니, 내가 실로 돌아가서 조종을 배알할 면목이 없다. 일찍이 송주(宋主)가 ‘짐(朕)을 어느 땅에다 두려고 이러느냐?’고 한 말을 비웃었더니, 지금 나의 이 전교는 바로 나의 고심(苦心)이며 지원(至願)이다.”

하였다. 김재로 등이 아뢰기를,

“동궁께서 아직 어린 나이이시니 이것은 신 등이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씀이며, 성상께서도 이러한 생각이 싹트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하였고, 송인명도 말하기를,

“이 일은 성상께서 게으른 데에 연유한 것이 아니라, 조정 신료들이 잘 받들어 모시지 못한 데서 온 일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성상의 마음도 반드시 풀리실 것입니다.”

하였다. 김재로가 선혜청 당상 민응수(閔應洙)에게 명하여 진정(賑政)을 전담하여 유민(流民)들이 죽어가는 환난을 구제하게 하기를 청하였고, 송인명이 또 북도(北道)에 소가 모자라 농사를 폐하는 것이 민망하니 관서(關西) 북도에 가까운 각 고을의 관향둔(官餉屯)에 있는 소 수백 두를 북도에 이송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모두 윤택하였다. 송인명이 또 영남의 곡물을 미처 북도로 실어 보내지 못한 것은 병선(兵船)으로써 실어 보낼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

### ▶ 56권 18년 12월 27일 壬子

獻納閔瑗上疏，略曰：

時氣乖和，癘疫孔熾，八路狀聞，有足驚心。朝家於濟民之政，飢饉則靡不用極，癘疫則每似闊略，甚非如傷之本意也。昔之宋仁宗，尙出內帑珍犀，以療民間癘疫，則矧以我



殿下恤黎元之念，其可委之於時運之適然，而不思救濟之術乎？兩活人署，專爲是設，而官員專不惕念，吏隸從中橫恣，非但救療失方，侵虐多端，故病民結幕於四郊，而不就於該署云。謂宜另飭，優給藥物，以示優恤拯濟之意也。國家之武科廣取額數者，蓋出收拾人才之意。人多窠窄，又取門地，故老死畎畝者，十居七八。旅食京邸，傾家破產，怨咨之興，亦傷和氣。臣意則五軍門哨官及教鍊等任，皆以有薦出身填差，則軍門有得人之喜，武士無向隅之歎。大政方行，宜有裁處申飭之道也。

批曰：“大小官制，自有古例。豈一臺臣所可務新而陳章乎？申飭事依施。”

헌납(獻納) 민원(閔瑗)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시기(時氣)가 조화(調和)에 어긋나 여역(疫)이 크게 번지니, 팔로(八路)의 장문(狀聞)이 족히 마음을 놀라게 할 만합니다. 하지만 조정에서 백성을 구제하는 정사(政事)는 기근(饑饉)이 들면 지극한 방도를 쓰지 아니함이 없으나 여역의 경우는 언제나 소략한 듯하니, 다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본래의 뜻이 아닙니다. 옛날 송(宋)나라 인종(仁宗)도 오히려 내탕(內帑)의 진귀한 서각(犀角)을 내놓아 민간의 여역을 치료하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 전하의 백성을 자식처럼 애호(愛恤)하시는 생각으로써, ‘시운(時運)이 때마침 그런 것이다.’라고 하며 구제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활인서(活人署)는 오로지 이 때문에 설치한 것인데, 관원(官員)들이 전혀 척념(忤)하지 아니하고 이례(吏隸)들이 중간에서 제멋대로 방자하게 구니, 비단 구료(救療)하는 방도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로 침학(侵虐)하기 때문에 병든 백성들이 사방 교외(郊外)에 움막을 치고 해서(該署)에 나아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각별히 신칙하고 약물(藥物)을 넉넉히 주어 우휼(優恤)하고 구제하는 뜻을 보임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무과(武科)를 보여 액수(額數)를 광범위하게 뽑는 것은 대개 인재를 수습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많고 벼슬자리는 적은데다 또 문지(門地)를 취하므로, 밭고랑 사이에서 늪어 죽는 자가 열에서 일고 여덟이나 됩니다. 그리고 경저(京邸)에서 숙식(宿食)하느라 가산을 기울여 재산을 날리기도 하니, 원망하는 소리가 일어나 또한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오군문(五軍門)의 초관(哨官) 및 교련관(教鍊官) 등의 직임을 모두 유천 출신(有薦出身)으로 전차(填差)한다면, 군문(軍門)에는 인재를 얻는 기쁨이 있고 무사(武士)는 향우(向隅)의 탄식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대정(大政)을 바야흐로 행하고 있으니, 재처(裁處)하고 신칙하는 방도가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대소(大小) 관제(官制)는 본디 고례(古例)가 있다. 어찌 한 대신(臺臣)이 새로움에 힘써 진장(陳章)할 것이겠는가? 신칙하는 일은 아뢰는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 57권 19년 4월 20일 癸卯

兵曹判書徐宗玉奏曰：“大射禮射耦，當稟定矣。”上曰：“大臣與正一品宗班爲耦，而其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下則文臣、武臣似當次第爲耦矣。”宗玉曰：“本禮則位卑者與位高者爲耦矣。”上曰：“自以所立之序射之，而左右弓則宜互換爲耦也。御射所用乘矢，亦宜用豆錫作鏃也。”寅明曰：“吏曹郎官，雖以八人爲限，而政官拘於圖陞之議，以不行公之人，苟然充八人之數，而舉皆陞品，在京行公者絕少。此後八人之數，以行公者計之，而絕勿陞擬，且陞品必待首堂陞擬之意，宜爲定式。”上可之。又教曰：“親耕時青牛以染青木衣之。而宗廟有青、紅蓋，所謂青蓋，卽黑蓋也。『五禮儀』青牛條，以黑牛懸註可也。”

병조판서 서종옥(徐宗玉)이 아뢰기를,

“대사례(大射禮) 때의 활을 쏘는 짝은 마땅히 품정(定)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은 정1품 종반(宗班)과 짝이 되고, 그 이하는 문신(文臣)과 무신(武臣)이 차례로 짝이 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다. 서종옥이 말하기를,

“본래의 예(禮)에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과 짝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 있는 차례(次序)에서 쏘되, 좌우의 활은 서로 바꾸어 짝이 되게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어사(御射)에 쓸 승시(乘矢)는 또한 마땅히 두석(豆錫)을 사용하여 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이조(吏曹)의 낭관(郎官)은 비록 8명으로 한정하나, 정관(政官)은 승품(陞品)을 도모하는 의논에 구애되어 행공(行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차하게 8명이란 숫자를 채우고 있는데, 모두 승품으로 서울에서 행공하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이후로는 8명이란 숫자를 행공하는 사람으로 계산하고 절대 승의(陞擬)하지 말며, 또 승품은 반드시 수당(首堂)의 승의한다는 뜻을 기다리도록 정식(定式)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또 하교하기를,

“친경(親耕) 때 청우(靑牛)는 푸른 색으로 염색한 무명을 입히고 있다. 그런데 종묘(宗廟)에 청개(靑蓋)·홍개(紅蓋)란 것이 있으니, 이른바 청개란 곧 흑개(黑蓋)이다. 『오례의(五禮儀)』 청우조(靑牛條)는 흑우(黑牛)로 주(註)를 달아 넣는 것이 옳다.”

하였다.

### ▶ 58권 19년 12월 20일 己巳

掌令許采上疏言：

渭原郡守朴宗誠，專事貪黷，龜城府使崔晟，庸駭貪暴，橫城縣監安允福，犯屠載饋。請并罷職。高敞縣監俞應基，昏憤無識，請改遞。

장령 허채(許采)가 상소하기를,

“위원군수(渭原郡守) 박종성(朴宗誠)은 오로지 탐독(貪)만 일삼았고, 귀성부사(龜城府使) 최성(崔晟)은 용렬하고 탐포(貪暴)하며, 횡성현감(橫城縣監) 안윤복(安允福)은 도살의 금법을 범하여 여러 사람에게 공케했습니다. 청컨대, 모두 파직하소서. 고창현감(高敞縣監) 유응기(兪應基)는 혼모(昏耗)하고 무식하니, 청컨대, 체개(遞改)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는다고 비답하였다.

## ▶ 60권 20년 8월 26일 庚午

庚午/引見大臣、備堂. 以‘東萊田雨章查事, 府使金漢喆不報營門, 直自處斷, 晚始謄報於封啓之後, 邊臣之自顯, 有非嚴邊情重體統之道. 且其狀本, 或稱殘劣, 或稱駭蠢, 強欲分等, 宜有責罰’, 領議政金在魯覆奏道臣之啓, 遂罷漢喆職. 仍命申禁倭供米作錢殖利之弊, 犯者斷以貪贓律. 右議政趙顯命曰: “牛馬廐, 卽國初所設之廐, 以馬廐橋之, 名見之, 可知也. 近因諸上司各軍門所侵, 至於罷廐, 廐基亦爲起壘, 所見極爲寒心. 宜令平市提調別爲主管, 更令設廐, 凡係廐人貽弊之端, 一切痛革.” 上允之. 顯命又曰: “近來成均館下人, 多繫牛隻於香橋邊, 而論價賣買, 所見寒心. 官長不能禁斷, 當該大司成, 宜重推.” 上允之. 在魯又以聯筭事稱謝曰: “殿下欲追踵舊典, 有如不及之歎, 臣等所共悶迫者, 又以過慮爲教. 今日欲爲稟行, 故率者社堂同入矣.” 上曰: “卿等初既非斥宗臣之疏, 末又陳請何也?” 在魯力請令該曹考例舉行, 上遍詢入侍諸臣, 無異辭, 遂允之. 禮曹判書李宗城曰: “己亥前例, 几杖自尙衣院造入, 御帖則奉入闕中, 而東宮親書之矣.” 上曰: “己亥則御帖新造故也. 而今予則當繼而書之, 不必奉入闕中矣. 予自書尊號與王字何如耶.” 在魯曰: “先朝有眼患, 故命東宮替書, 今殿下不必以自書爲嫌矣.” 上曰: “事無大小, 必告東朝而後可行也. 先展謁璿源殿, 仍詣靈壽閣展拜後書諸帖, 此後以此爲例可也.” 宗城請告廟稱慶, 上始不許, 力請乃允之, 而進箋外方物、物膳, 命只進獻東朝. 宗城等復請進宴, 上曰: “予意只欲追踵故事而已, 如此則是予賺受進宴也.” 大臣以上奉東朝, 事體自別, 力請之, 上曰: “東朝每以使予安靜勿擾, 予心卽安爲教, 當此靜攝, 若聞此事, 慈心必不安. 以此爲難, 非予之謙也.” 諸臣請自內陳請, 上許之. 校理金尙喆進曰: “俄者有司之臣, 以進几杖爲言, 此卽朝家所以賜篤老臣下者也. 今殿下若以此几杖爲便身之物, 則將置國事於何地耶? 古人於盤盂、几杖, 皆有銘焉. 殿下若於此几杖, 視以成湯之盤銘、武王之杖銘, 則於聖德益有光矣, 於陳請諸臣, 亦必有光矣. 願留聖意焉.” 上嘉納之.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동래의 전우장(田雨章)을 조사하라는 사건에 대하여 동래부사 김한철(金漢喆)이 영문(營門)에 보고하지 않고 직접 자신이 처단하였다는 것을 봉계(封啓)한 뒤에 늦게서야 비로소 등보(謄報)하였으니, 변신(邊臣)이 제멋대로 한 것은 변방의 사정을 엄하게 하고 체통을 중하게 여기는 도리가 아닙니다. 또 그 장계(狀啓)의 계본(啓本)에 혹은 「잔열(殘劣)하다.」라고 일컫기도 하고, 혹은 「어리석고 굸뜨다.」라고 일컬으면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서 억지로 그 등급을 나누고자 하였으니, 마땅히 <그에게> 질책과 형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한 도신(道臣)의 계본을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복주(覆奏)하니, 마침내 김한철을 파직하였다. 이어서 명하여 왜인(倭人)에게 공급하는 쌀을 작전(作錢)하여 이식을 늘리는 폐단을 거듭 금하게 하고, 이를 범하는 자는 탐장(貪贓)의 형률로써 처단하게 하였다.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

“우마전(牛馬廐)은 곧 국초에 설치한 전포(廐鋪)인데, 마전교(馬廐橋)라는 명칭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여러 상사(上司)의 각 군문(軍門)에서 이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전포를 없애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전포 자리를 또한 논밭으로 개간하였으니, 보기에 지극히 한심스럽습니다. 마땅히 평시서제조(平市署提調)로 하여금 특별히 주관하게 하여 다시 전포를 설치하도록 하고, 무릇 전인(廐人)에게 폐단을 끼치는 데 관련되는 단서를 일절 엄격히 없애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조현명이 또 말하기를,

“근래에 성균관(成均館)의 하인들이 우척(牛隻)을 향교(香橋) 주변에 많이 매어 두고 값을 논하여 매매하는데, 보기에 한심스럽습니다. 관장이 능히 이것을 금단하지 못하니, 해당 대사성(大司成)을 마땅히 중하게 추고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김재로가 또 연차(聯劄)를 올린 일 때문에 사과하면서 말하기를,

“전하께서 옛날 전장(典章)을 그대로 따르시고자 하여 미치지 못하는 듯한 탄식이 있었고 신 등이 함께 번민하고 괴롭게 여기는 것을 또 ‘지나치게 걱정한다.’고 하고하시었습니다. 금일에 품지해 시행하고자 하여 짐짓 기사 당상(耆社堂上)을 인솔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이 처음에는 이미 종신(宗臣)의 상소를 비난하여 배척하다가 끝에 와서 또 아뢰고 이를 청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김재로가 해당 조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여 거행할 것을 굳이 청하니, 임금이 입시(入侍)한 여러 신하들에게 두루 물어보았는데, 아무도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자, 드디어 이를 윤허하였다. 예조판서 이종성(李宗城)이 말하기를,

“기해년의 전례에서는 궤장(杖)을 상의원(尙衣院)에서 만들어 들었으며, 어첩(御帖)은 궐중(闕中)에 만들어 들었는데, 동궁이 친히 여기에 글을 썼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기해년이라면 어첩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마땅히 이에 연달아서 글을 쓸 것이니, 반드시 궐중에 만들어 들일 것은 없다. 내가 스스로 존호(尊號)와 왕(王)자를 쓰면 어떠하겠는가?”

하매, 김재로가 말하기를,

“선조(先朝)께서는 안질이 계셨기 때문에 동궁에게 명하여 대신 글을 쓰게 하였던 것이나, 지금 전하께서는 반드시 스스로 쓴다고 하여 혐의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반드시 동조(東朝)께 보고한 다음이라야 시행할 수가 있다. 먼저 선원전(璿源殿)에 전알(展謁)하고 이어서 영수각(靈壽閣)에 나아가 전배(展拜)한 뒤에 어첩에 글을 쓸 것이니, 이후로는 이것을 가지고 전례를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이종성이 고묘(告廟)하고서 경사(慶事)를 치르기를 청하자, 임금이 처음에는 허락하

지 아니하다가 굳이 청하니 그제야 이를 윤택하였는데, 전문(箋文)을 올리는 이외에 방물(方物)과 물선(物膳)은 단지 동조에게만 진헌하라고 명하였다. 이종성 등이 다시 진연(進宴)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뜻은 단지 고사(故事)를 따르고자 하는 것뿐이었는데, 이와 같이 한다면 이는 내가 예외의 이득으로 진연을 받는 것이다.”

하였다. 대신들이 위로 동조를 받들었으므로 사체가 특별히 다르다고 하여 힘써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동조께서는 언제나 나로 하여금 안정하고 동요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즉시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용히 조섭(調攝)하는 때를 당하여 만약 이러한 일을 듣는다면, 동조의 인자한 마음에서 반드시 불안하게 여길 것이다. 이 때문에 곤란하게 여기는 것이며, 나의 겸양이 아니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내전(內殿)에서 진청(陳請)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교리 김상철(金尙喆)이 나아와서 말하기를,

“조금 전에 유사(有司)의 신하가 궤장(杖) 올리는 것을 가지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곧 조정에서 연로(年老)한 신하에게 하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만약 이 궤장을 가지고 몸을 편안하게 하는 물건으로 삼는다면, 장차 국사(國事)를 어디에 두려고 하십니까? 옛날 사람들의 반우(盤盂)와 궤장에는 모두 명문(銘文)이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이 궤장에 대하여 성탕(成湯)의 반명(盤銘)과 무왕(武王)의 장명(杖銘)같이 보신다면 성덕(聖德)에 더욱 빛남이 있을 것이며, 진청(陳請)하는 여러 신하들에게도 또한 반드시 빛남이 있을 것입니다. 원컨대 성상의 뜻을 여기에다 유념하소서.”

하니, 임금이 가납하였다.

## ▶ 61권 21년 1월 22일 甲午

行晝講, 講『周禮』. 左議政宋寅明曰: “出入要會, 是緊要語, 眞廟堂之責. 而宮中之用, 無要會文書, 司僕寺馬牌, 亦以紙牌用之者無定數, 而蓋聞置內寺而用之, 亦有照檢者乎 中官中擇其廉謹曉事者, 主管宜矣.” 上可之. 寅明又曰: “近來風俗大壞, 倫常之獄甚多, 此由於教導之無術. 如金安國『警民』編、先正臣李珥鄉約, 其於化民, 不爲無效. 請令諸臣之有文識者, 講定節目, 啓下頒布.” 上從之. 寅明又言: “閭閻間有李夢鯉者, 生於卑微, 而孝悌飭躬, 志操堅固云. 孝子順孫之歲賜牛酒, 卽漢家之美制, 宜令該曹, 特賜米肉, 以爲風勵興起之地.” 上允之.

주강(晝講)을 행하여 『주례(周禮)]를 강하였다.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 ‘수입과 지출을 요회(要會)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중요한 말이니, 바로 묘당(廟堂)의 책임입니다. 궁중(宮中)의 수용(需用)에 요회 문서(要會文書)가 없고, 사복시(司僕寺)의 마패(馬牌) 역시 지패(紙牌)로 쓰는 것이 정해진 숫자가 없으며, 들건대 내시(內寺)에도 두고 쓴다고 하는데 역시 점검(照檢)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중관(中官) 가운데서 엄근(廉謹)하고 일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을 아는 자를 가려 주관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

“근래에 풍속이 크게 무너져 윤상(倫常)의 옥사(獄事)가 매우 많으니 이는 교도(敎導)하는 술책이 없는 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김안국(金安國)의 경민편(警民篇)이나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의 향약(鄉約)은 백성을 교화하는 데 효과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여러 신하 가운데서 문식(文識)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강정(講定)하여 계하(啓下)해 반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

“여염에 이몽리(李夢鯉)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한미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효제(孝悌)하고 몸을 단속하여 지조(志操)가 굳다고 합니다. 효자순손(孝子順孫)에게 해마다 쇠고기와 술을 내리는 것이 바로 한(漢)나라 때의 아름다운 제도이니, 마땅히 해조로 하여금 특별히 쌀과 고기를 내려 미풍양속(美風良俗)을 권장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 61권 21년 1월 22일 甲午

敎曰: “孟子豈不云乎人性善也? 而流於不義者, 無恒産故也. 噫! 涼德臨御, 政不能擇人於諸道, 惠不能濟民於蔀屋, 況荐飢之餘, 爲守令者不能撫民. 以無恒心之民, 雖或有不義之事, 此道臣、守令之過也, 推其本, 卽予之過也. 昔漢虞詡, 以一吏能令盜爲良民, 龔遂能令民解刀買犢, 此在於人. 噫! 今雖曰盜, 其本則吾赤子也, 以至於此, 非渠也, 卽予也. 頃者憲臣之請, 果若所陳, 此若已推而納諸溝中, 深夜興思, 歉然惻然. 分付備局, 所陳勿施, 將此意, 申飭該道, 益修撫摩顧恤之政, 使無恒心之吾民, 咸囿於實惠之中. 蓋日前掌令沈益聖, 以關西嘯聚賊黨捕治事, 陳啓蒙允故也.

하고하기를,

“맹자(孟子)가, ‘인성(人性)은 선(善)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불의로 빠지는 것은 향산(恒産)이 없기 때문이다. 아! 덕이 부족한 내가 임어(臨御)하여 정사는 제도(諸道)에 사람을 가려 보내지 못하였고, 은혜는 몇집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못하였는데 더군다나 흉년이 든 나머지인데도 수령인 자가 백성을 위무(慰撫)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항심(恒心)이 없는 백성들이 비록 불의의 일을 하더라도 이는 도신과 수령의 잘못이요, 그 근본을 따지자면 나의 허물인 것이다. 옛날 한(漢)나라 우후(虞)는 일개 관리로서 능히 도적을 양민(良民)으로 만들었고, 공수(龔)는 백성들로 하여금 칼을 팔아 송아지를 사도록 했으니, 이는 사람 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아! 지금 비록 도적이라 하더라도 본래는 나의 적자(赤子)인데 여기에 이른 것은 그들의 탓이 아니요 바로 내 탓인 것이다. 지난번 헌신(憲臣)의 청에서, ‘과연 진달한 바와 같이 한다면 이는 자신이 떠밀어 구렁으로 밀어 넣은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밤늦도록 생각해도 겹언쩍고 측은하다. 비록에 분부해 진달한 바를 시행하지 말고, 이런 뜻을 해당 도에 신칙하여 더욱 무마하고 보살피는 정사에 힘써 항심(恒心)이 없는 우리 백성

으로 하여금 모두 실제 혜택을 누리도록 하라.”

하였는데, 대개 일전에 장령(掌令) 심익성(沈益聖)이 관서(關西)에 모여 있는 도적의 무리를 잡아들여 치죄하라는 일을 진달해 윤허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 ▶ 62권 21년 7월 2일 壬申

上引見大臣、備堂。領議政金在魯曰：“祭享時甑羹，是大羹，不和五味者也，鉶羹是和羹，和五味加芼滑者。兩羹各三器，用牛、羊、豕三物者，見於『儀禮』及『文獻通考』等書，不啻分明。而聞太廟每位甑羹三器鉶羹三器，竝純用牛肉，大失禮意。此蓋由於牛肉有餘羊肉不足之致，莫重祭式謬誤如此，不可不及今釐正。經費之稍加，有不暇論，而但羊之一種，我國絕貴難繼，雖不可優數加定，姑以每祭前後殿，各一羊、豕加定，則或可推移分排矣。”上曰：“此則大違於禮，自今釐正羊牲一口、豕牲一口，增數封進。”判敦寧李箕鎮曰：“臣待罪畿輔，各陵奉審時見之，則翼陵、順懷墓之間，有一古塚表石，書以龍城大君之墓，此是睿宗朝親王子早夭者。墓在松樹茂密中，沙草盡剝，只餘塚土，所見慘然。令該曹修築爲宜。”上從之。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제향(祭享)할 때에 등갱(羹)은 곧 대갱(大羹)인데, 오미(五味)를 섞지 않은 것이고, 형갱(羹)은 화갱(和羹)이라고도 하는데, 오미를 타고 모골(芼骨)을 첨가한 것입니다. 이 양갱(兩羹)은 각각 세 그릇씩인데, 소와 양(羊)·돼지 세 가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의례(儀禮)』와 『문헌통고(文獻通考)』 등의 책에 분명히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듣건대 태묘(太廟)에서는 신위(神位)마다 등갱 세 그릇과 형갱 세 그릇은 모두 쇠고기만으로 사용한다고 하니, 예의 뜻에 크게 어긋납니다. 이는 대개 쇠고기는 넉넉하지마는 양고기가 부족한 소치에서 나온 것이겠으나, 막중한 제사 의식을 이와 같이 어긋나게 하니,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경비가 조금 더 나는 데 대하여 의논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양(羊)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귀하여 계속 공급하기가 어려우므로 넉넉하게 가정(加定)하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매번 제사를 올릴 때에 앞뒤의 전(殿)에 각기 양과 돼지를 한 마리씩 가정한다면 혹시 변통하여 분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예(禮)에 크게 어긋나니, 지금부터 바로잡아서 양생(羊牲) 한 마리와 시생(豕牲) 한 마리를 추가하여 봉진(封進)하게 하라.”

하였다. 판돈녕(判敦寧) 이기진(李箕鎮)이 말하기를,

“신이 기보(畿輔)에 부임하여 각능(各陵)을 봉심(奉審)할 때에 보니 익릉(翼陵)과 순회묘(順懷墓) 사이에 고총(古塚)의 표석(表石)이 하나 있는데 ‘용성대군지묘(龍城大君之墓)’라고 쓰여 있었으니, 이는 곧 예종조(睿宗朝)의 친왕자(親王子)로서 조요(早夭)한 분입니다. 묘가 술숲이 우거진 속에 있는데 사초(沙草)가 모두 벗어지고 총토(塚土)만 남아서 보기에 매우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참연(慘然)하였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수축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 63권 22년 3월 7일 癸酉

癸酉/上具遠遊冠絳紗袍，乘步輦，出自映花堂，至大報壇齋殿，親省牲。禮曹判書鄭羽良曰：“臣考見皇壇陳式圖，蓋依『大明集禮』陳設圖。而皇朝則用犢腥，我國則用大牛，禮以小爲貴。犢未有牝牡之情，故貴其誠慤而祀天及祭天子，皆用犢腥。今此皇壇祭禮，皆用祭天之禮，則當用犢腥，而反用大牛，恐不可矣。”上以臨時苟充，有不潔之慮，遂不改滌牛。後詢問大臣，定用犢腥。

임금이 원유관(遠遊官)에 강사포(降紗袍)를 갖추고 보련(步輦)을 타고 영화당(映花堂)에서 출발하여 대보단(大報壇)의 재전(齋殿)에 이르러 직접 희생(犧牲)을 살폈다. 예조판서 정우량(鄭羽良)이 말하기를,

“신이 황단진식도(皇壇陳式圖)를 살펴보니 대체로 명(明)나라의 집례진설도(集禮陳說圖)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조(皇朝)에서는 독성(犢腥)을 썼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우(大牛)를 썼는데, 예(禮)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송아지는 빈모(牝牡)의 정이 없기 때문에 그 순수함을 귀하게 여겨 하늘에 지내는 제사와 천자에게 지내는 제사에 모두 독성을 쓰는 것입니다. 이번 황단의 제례(祭禮)에도 모두 하늘에 제사지내는 예(禮)를 썼으니, 의당 독성을 써야 하는데, 도리어 대우(大牛)를 쓴 것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하였습니다. 임금이 임시하여 구차스럽게 충당시키는 것은 불결할 염려가 있다는 것으로 드디어 우리에게 기르는 소는 바꾸지 않았다. 뒤에 대신들에게 순문(詢問)하여 독성을 쓰기로 정하였다.

### ▶ 65권 23년 6월 5일 甲子

甲子/藥房入診. 上曰: “舊關白, 卽昔年致問之關白也. 追惟庚子, 感動于心. 勿論物之多少, 當聘問以表予意, 何待渡海譯官之來? 令備局, 卽爲稟處?” 典牲提調權穉曰: “犧牛疫斃, 近益特甚, 三十頭餘, 所餘只一, 而亦方痛欲死云. 秋享只隔數旬, 湖西各邑分養牛十餘頭, 使之上送, 分給貢人, 俾善畜養, 無至傳染之患宜矣.” 上曰: “犧牛之畜, 養於典牲署, 卽『周禮』繫于門之義也, 不可散處. 分給貢人, 使之救療, 雖斃, 勿爲代徵于貢人.”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구 관백(關白)은 바로 지나간 해에 위문한 관백이다. 경자년을 돌이켜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된다. 물품의 많고 적음을 논하지 말고 빙문(聘問)하여 나의 뜻을 표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무엇 때문에 바다를 건너간 역관(譯官)이 오기를 기다리는가? 비국으로 하여금 즉시 품처(處)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생서제조(典牲署提調) 권적(權)이 말하기를,

“희생(犧牲)으로 쓸 소가 전염병에 걸려 죽는 것이 요즈음에 더욱 심하여 30여 두(頭)에서 남은 것이 단지 한 마리뿐인데, 그것도 한창 앓고 있으며 죽으려 한다고 합니다. 추향(秋享)이 수십 일 밖에 남지 않았으니, 호서(湖西)의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도록 한 소 10여 두를 올려 보내게 하고, 공인(貢人)들에게 나누어 주어 잘 기르도록 해서 전염되는 데 이르는 근심이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희생에 쓸 소를 전생서(典牲署)에서 기르는 것은 바로 『주례(周禮)』의 <희생에 쓸 소를> 국문(國門)에다 매어 두고 기른다는 뜻이니, 훔쳐 놓을 수는 없다. 그러니 공인(貢人)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구료(救療)하게 하되, 비록 죽더라도 공인에게 대신 징수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 ▶ 65권 23년 6월 15일 甲戌

甲戌/上召見嶺南御史韓光肇, 光肇曰: “防軍布卽給代之物, 而非闔帥所可擅用者. 左水使申漫, 略干給代, 盡數取用. 米五十石、板材五具, 船載上送, 其他倭國物貨可以善事者, 不可勝計. 慶州前府尹鄭弘濟, 賑政頗善, 而料理九千餘石, 民多怨之, 又有犯手. 前左兵使柳東茂之不法, 具在文書. 興海郡守金德厚, 凡其馱載, 皆買牛以送, 其數爲九十四頭, 且以符同營裨, 虛譽頗多矣.” 上曰: “眞阿大夫也. 善治者誰也?” 光肇曰: “泗川縣監李思順, 地處雖微, 頗善治矣.” 上曰: “盈德獄事, 出鄉戰耶?” 光肇曰: “盈德故家、大族, 皆南人, 所謂新鄉, 則自稱爲西人者也. 近來則西人用事於學宮, 與舊鄉, 自相傾軋矣. 朱子畫像, 因雨漫漶, 故新鄉輩, 或慮聲罪, 遂生嫁禍之計, 匿其畫像, 竝匿先正臣宋時烈畫像倡言以南人偷竊. 因指摘某某七人姓名, 呈訴本縣, 本縣通于鎮營, 累年推覈, 刑杖酷毒, 人稱其冤. 臣下去之後, 推得其實, 然畫像去處, 終不直供, 以爲埋置案山, 因以沙汰云, 安知不投諸水火也?” 上曰: “頃年館學儒生不知如此, 陳疏矣.”

임금이 영남어사 한광조(韓光肇)를 불러 보았는데, 한광조가 말하기를,

“방군포(防軍布)는 바로 대가를 지급하는 물건이며 곧수(帥)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좌수사(左水使) 신만(申漫)이 약간만 대가로 지급하게 하고, 전부를 가져다 썼습니다. 쌀 50석(石)과 판재(板材) 5구(具)를 배에 실어 올려 보냈는데, 기타 왜국(倭國)의 물화(物貨)로 선물[善事]할 만한 것이 이루 셀 수가 없었습니다. 전경주부윤(前慶州府尹) 정홍제(鄭弘濟)는 진정(賑政)을 아주 잘하였으나, 9천여 석을 요리(料理)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많으며, 또 범수(犯手)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 좌병사 유동무(柳東茂)의 불법(不法)은 문서에 갖추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해군수(興海郡守) 김덕후(金德厚)는 그의 모든 짐바리를 모두 소[牛]를 사서 보냈는데, 그 수효가 94두(頭)나 되었으나, 또 서로 결탁한 영비(營裨)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가 거짓으로 칭찬한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참으로 아 대부(阿大夫)이다. 잘 다스린 사람은 누구인가?”

하자, 한광조가 말하기를,

“사천현감(泗川縣監) 이사순(李思順)은 지처(地處)가 비록 한미하기는 하나,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덕(盈德)의 옥사(獄事)는 향전(鄉戰)에서 나왔는가?”

하자, 한광조가 말하기를,

“영덕의 고가(故家)와 대족(大族)은 모두 남인(南人)인데, 이른바 신향(新鄉)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서인(西人)이 되었다고 일컫는 자입니다. 요즈음에는 서인이 학궁(學宮)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구향(舊鄉)과 서로 경알(傾軋)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자(朱子)의 화상(像)이 비가 스며든 것으로 인하여 더럽혀졌기 때문에, 신향의 무리가 간혹 그 죄를 성토할까 염려하여 마침내 화(禍)를 전가(轉嫁)시킬 계획을 꾸며 그 화상을 감추고, 아울러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의 화상도 감추어 버리고는 남인이 훔쳐 갔다고 말을 퍼뜨렸습니다. 인하여 모모(某某) 7인의 성명을 지적하여 본현(本縣)에 정소(呈訴)하였는데, 본현에서는 진영(鎭營)에 통보하여 여러 해 동안 추핵(推)하면서 형장(刑杖)이 혹독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원통하다고 일컬었습니다. 신이 내려간 뒤에 그 사실을 추핵하여 알아내었으나, 화상이 간 곳은 끝까지 바로 공초하지 않고, 안산(案山)에 묻어 두었는데 사태(沙汰)가 났다고 하니, 물과 불에 던져 버리지 않았음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몇 해 전에 관학 유생(館學儒生)이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고 상소하였었다.”

하였다.

### ▶ 66권 23년 10월 18일 乙亥

湖南量田使元景夏復命。上召見景夏曰：“臣下往湖南，則改量始役於昨春，故量事已了。當新起所得，爲六百餘結，充補白徵之數，所餘尚有百餘結。臣以我聖上損上益下之盛德，宣揚民間，全州則依定奪令道臣舉行矣。年事所見，與所聞異。至於海溢，則臣於格浦去路歷審，則被災處，皆成白茅之場，以臣所見，非海溢似是海盪也。自礪山至順天等二十五邑，一時被盪，以道里言之，則幾爲六七百里，此實前所未有的。此雖可憂，而牛疫大熾，農牛盡斃，明春將無耕作之望，亦非細憂矣。”上曰：“此亦時氣乖常之致也。卿之薦人，多至十八人，何以盡用乎？”景夏曰：“湖南古多名公、巨卿。晉州三壯士，皆湖南人也，一新七忠臣，亦皆湖南人也。臣採探人望，頃已疏陳，而前已入薦除職者多，除職或不仕者亦多。”仍歷舉諸人姓名及行誼，曰：“十八人，臣旣以薦進，自朝家甄用好矣。”上曰：“卿言似文具矣。”景夏曰：“聖上嘗以湖南多左道爲憫，臣意則收文學、行誼之士，以示朝家所取，在此不在彼，則一道風俗，或可不變矣。”上命高哲及安煌、鄭斯鋈

不待大政，隨窠錄用，他人已錄用者外，一體調用，贈丁酉殉節人林樸職。

호남(湖南) 양전사(量田使) 원경하(元景夏)가 복명(復命)하였다. 임금(임금)이 원경하를 불러 보니, 말하기를,

“신이 호남에 내려가니 개량(改量)이 작년 봄에 시역(始役)되었으므로 양사(量事)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새로 일으켜 얻은 바가 6백여 결(結)이 되어 백징(白徵)의 숫자에 채워 보태고도, 남은 바가 오히려 1백여 결이 되었습니다. 신이 우리 성상께서 위에 있는 것을 덜어 아래에 보태주려 하시는 성덕(盛德)을 민간에 선양(宣揚)하고, 전주(全州)는 정탈(定奪)에 의거해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사를 보니 들은 바와는 달랐습니다. 해일(海溢)에 이르러서는 신이 격포(格浦)에서 길을 떠나 두루 살폈더니 재해를 입은 곳에는 모두 백모(白茅)의 마당이 이루어져 신이 보기에 해일이 아니라 바다에 씻긴 듯 하였습니다. 여산(礪山)에서부터 순천(順天) 등에 이르기까지 25읍(邑)이 일시에 씻겨져 도정(道程)으로 말하면 거의 6, 7백 리가 되니, 이는 진실로 전에 있지 않았던 바입니다. 이것이 비록 근심스럽다고 하나 우역(牛疫)이 크게 극성하여 농우(農牛)가 다 죽어서 내년 봄에 장차 경작할 희망이 없는 것 역시 작은 근심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임금)이 말하기를,

“이 역시 시기(時氣)가 도리어 어긋난 데서 온 것이다. 경이 천거한 사람이 대다수 18명에 이르는데 어떻게 다 등용하겠는가?”

하였다. 원경하가 말하기를,

“호남은 옛날에 명공(名公)·거경(巨卿)이 많았습니다. 진주(晉州) 3장사(壯士)는 모두 호남 사람이고, 일신(一新)의 7충신 역시 모두 호남 사람입니다. 신이 인망(人望)을 채탐(採探)하여 지난번에 이미 소진(疏陳)했으나, 그 전에 이미 입천(入薦)되어 관직에 제수된 사람이 많았고,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혹은 출사(出仕)하지 않은 사람도 역시 많습니다.”

하고, 이어 여러 사람들의 성명 및 행의(行誼)를 두루 열거하고서 말하기를,

“18인은 신이 이미 천진(薦進)하였으니 조가(朝家)에서 견용(甄用)함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문구(文具)인 듯하다.”

하니, 원경하가 말하기를,

“성상께서 일찍이 호남에 좌도(左道)가 많은 것을 민망해 하셨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문학(文學)·행의의 선비를 거두시어 조가가 취하는 바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시면, 한 도(道)의 풍속이 혹시 크게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임금)이 말하기를,

“고석(高晷) 및 안황(安煌)·정사협(鄭斯鋏)은 대정(大政)을 기다릴 수 없으니, 자리에 따라 녹용(錄用)하고, 다른 사람들 중에 이미 녹용한 사람 이외는 일체를 조용(調用)할 것이며, 정유년(丁酉年)에 순절한 사람 임박(任樸)에게 증직(贈職)하라.”

하였다.

## ▶ 66권 23년 12월 22일 戊寅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戊寅/憲府【持平任命周.】申前啓, 不允. 又啓曰: “向日雷震, 振古所罕. 聖上之遇災警惕, 大開言路, 十行絲綸, 有足以感動群下. 而寂無以言應旨, 此亡國之兆也. 其爲變異, 豈不有甚於天災也哉? 伊後不言三司, 在外不及來者勿問, 其外一并罷職. 秋曹、京兆設爲佐貳, 隨事分理, 法意有在, 而頃因大臣陳達, 凡諸公事, 皆令首堂處斷, 如是則佐貳便是冗官, 將焉用哉? 大臣之意, 蓋慮其各隨所親, 不無循私之弊, 而此殆懲噎而廢食也. 三堂分理, 則訟者容有自就剛明之道. 今若專屬長官, 而或不得其人, 則民將焉訴? 其爲弊將有甚於分理之時. 請寢京兆、秋曹長官摠決亞堂不得擅斷之命. 近來紀綱解弛, 民不從令. 曾因大臣、臺臣之陳達, 特下傳教, 使之各服其役, 而江上之民, 憑恃強盛, 符同胥吏, 寢而不行, 此可見紀綱不振之一端. 如此亂法之民, 不可不嚴懲. 請江民爲頭作亂者及胥吏符同者, 一一摘發, 依律科罪. 向者三覆之日, 三司之臣, 同入合辭之論, 宜爭執而嚴教之下, 惶蹙失措. 儒臣引不當引之嫌, 憲臣發不成說之啓, 諫臣引嫌亦甚模糊, 苟且彌縫, 不得連啓而退, 直氣消鑠, 聽聞俱駭. 請伊日入侍三司, 一竝罷職不敘. 三司合啓, 乃一國之公議, 而一種死黨之徒, 尙不知悛, 以規避爲能事, 立異爲大節, 至於俞健基、徐志修停啓之論而極矣. 其忘君父護凶逆之罪, 可勝誅哉? 前大司諫俞健基、前應教徐志修削奪官爵, 門外黜送. 分館之法, 所以調用人才, 不可一毫循私, 而近來私意橫流, 公法漸乖, 隨其好惡, 任其低仰. 以甲子式年科分館言之, 不無遺珠濫竽之歎, 請其時上博士及掌務官, 竝命罷職. 今年牛疫熾盛, 農牛十無八九, 明春耕作, 誠爲可慮. 而每當歲時, 累日弛禁, 屠殺無數. 今年若復如此, 則民將廢農. 請申飭京外, 一切禁斷. 水原雙阜倉之設, 其來久矣. 以勝地得名, 從前權貴之家, 莫不流涎, 而自國初設倉之地, 不敢移動者, 固出於畏國法之意. 而廼者吏曹參判金尙魯, 自恃權勢, 敢生圖占之計, 密囑土倖, 利誘村氓, 假托民願, 勒令呈訴.

이하생략~

헌부(憲府)【지평(持平) 임명주(任命周)이다.】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며칠 전의 천둥은 예전에는 드물었던 바입니다. 성상(聖上)께서 재앙을 만나 두려워하시어 언로를 크게 열고 10행의 사륜(絲綸)을 내린 것은 못 신하들을 감동시키기에 족합니다. 그러나 고요히 응지(應旨)의 말이 없으니 이는 망국의 징조입니다. 그 변이(變異)가 어찌 천재(天災)보다 심함이 있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말하지 않은 삼사(三司)로서 외지에 있으면서 미처 오지 못한 자는 묻지 말고, 그 이외는 한 결 같이 아울러 파직하소서.

추조(秋曹)·경조(京兆)에 좌이(佐貳)를 설치하여 일에 따라 나누어 처리하는 것은 법의 뜻이 목적인 바가 있는 것인데, 지난번 대신(大臣)의 진달(陳達)로 인하여 무릇 여러 공사(公事)를 모두 수당(首堂)으로 하여금 처단토록 하였으니, 이와 같이 한다면 좌이는 문득 쓸모 없는 관원이 되는 것이니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대신의 뜻은 대개 그 각각 친한 바를 따라 사사로움을 좇는 폐단이 없지나 않을까 염려한 것이지만, 이는 자못 목맨 것을 경계하여 먹는 것을 그만 두는 것입니다. 삼당(三堂)이 나누어 처리하면 소송하는 자가 용이하게 스

스로 강명(剛明)한 도(道)로 나아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 오로지 장관(長官)에게 소속시켜서 혹시 그 적당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장차 어디에 하소연하겠습니까? 그 폐단됨은 장차 나누어 처리하는 때보다 심함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경조·추조의 장관이 총괄하여 결단하고 아당(亞堂)이 천단할 수 없도록 한 명령을 멈추소서.

근래 기강이 해이하여 백성이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일찍이 대신(大臣)·대신(臺臣)이 진달(陳達)한 것으로 인하여 특별히 전교(傳敎)를 내려 그들로 하여금 각각 그 역에 복무하도록 하였으나, 강상(江上)의 백성은 강성(强盛)한 것을 믿고 서리와 부동하여 멈추고 행하지 않으니 여기에서 기강이 떨치지 못한 일단(一端)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을 어지럽힌 백성들은 엄히 징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강민(江民)으로 우두머리가 되어 작란(作亂)한 자와 서리로 부동한 자를 하나하나 적발하여 법률에 의거해 죄주소서.

지난번 삼복(三覆)하던 날에 삼사(三司)의 신하가 함께 들어와서 합사(合辭)의 논의로 마땅히 쟁집(爭執)하여야 할 것인데, 엄교(嚴敎)의 아래에서 두려워서 움추려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유신(儒臣)은 인용하는 데 마땅치 않은 혐의를 인용하고, 헌신(憲臣)은 말도 되지 않는 계사(啓辭)를 끄집어내며, 간신(諫臣)의 인협은 또한 매우 모호하여 구차하게 미봉(彌縫)하다가 연계(連啓)하지 못하고 물러나니, 직기(直氣)가 사라져 없어짐에, 듣는 이가 모두 해괴하게 여겼습니다. 청컨대 그날 입시한 삼사를 한 결 같이 아울러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삼사의 합계는 곧 온 나라의 공의(公議)인데, 한 종류 사당(死黨)의 무리가 오히려 뉘우칠 줄은 알지 못하고서 규피(規避)를 능사로 삼으며, 이론을 세우는 것을 대절(大節)로 삼으니, 유건기(兪健基)·서지수(徐志修)의 정계(停啓)의 논의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 군부(君父)를 망각하고 흉역(凶逆)을 옹호한 죄를 이루 다 벌줄 수 있겠습니까? 전(前) 대사간 유건기와 전 응교 서지수를 삭탈 관작하여 문외 출송(門外黜送)하소서.

분관(分館)의 법(法)은 인재를 조용(調用)하는 것이기 때문에 털끝만치라도 사사로움을 따를 수 없는 것인데, 근래에는 사의(私意)가 횡류(橫流)하고 공법(公法)이 점점 어긋나서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 저양(低仰)을 임의대로 합니다. 갑자년 식년과(式年科)의 분관으로 말하면, 유주 남우(遺珠濫)의 탄식이 없지 않으니, 청컨대 그 당시 상박사(上博士)와 장무관(掌務官)은 아울러 파직을 명하소서.

**금년 우역(牛疫)이 극성을 부려 농우(農牛)가 열에 여덟·아홉이 없어졌으니 내년 경작이 진실로 염려됩니다. 그러나 매년 세시(歲時)를 당하여 여러 날 금령(禁令)이 느슨해지면 도살(屠殺)이 수도 없습니다.** 올해 만약 다시 이와 같이 한다면 백성들은 장차 농사를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경외(京外)에 신칙하여 일체 금단(禁斷)토록 하소서.

수원(水原)의 쌍부창(雙阜倉)은 그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승지(勝地)로 이름났기 때문에 종전에 권귀(權貴)의 집에서 군침을 흘리지 않음이 없었으나, 국초부터 창고를 설치한 땅을 감히 옮기지 못한 것은 진실로 국법을 두려워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조참판 김상로(金尙魯)가 스스로 권세를 믿고 감히 점유할 계책을 내어 은밀하게 지방 수령에게 부탁하고 이익으로 시골 백성을 꼬드겨서 민원(民願)을 가탁(假托)하여 억지로 하소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매우 교밀(巧密)하다. 정휘량이라고 일컫지 않고 다만 지방관이라고 하니 너는 누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구를 속이려 하는가?”

하고, 드디어 윤희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불언삼사의 일은 윤희하였고, 추조·경조가 총괄해 결정하는 일은 장관으로 하여금 총괄해서 결정하는 것이 대체로 그 직분을 금하는 것이 아니니 결단코 정침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사람을 부리는 일에 서로 다투는 것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니 치우치게 그 형률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해조(該曹)로 하여금 상세히 살펴 품처토록 하고 그 다른 뱃속에 가득한 당심(黨心)으로 몰래 인용하여 붙잡은 것은 이 대부 분 불경하여 예에 따라 비답을 내릴 수가 없으니, 그 계사(啓辭)는 이광의(李匡誼)의 예에 의거해 돌려 주게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의리가 사라진 것이 이와 같으니, 만약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장차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될 것이요,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기강이 있는 바 난역(亂逆)을 징토(懲討)함에 엄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임명주를 마땅히 친문(親問)하여 방헌(邦憲)을 명쾌하게 시행하되 왕부(王府)로 하여금 거행토록 하라.”

하였다. 뒤에 승지 엄우(嚴瑀)가 대계(臺啓)를 되돌려 주는 것이 뒷날의 폐단과 관계됨이 있다고 아뢰자 임금이 되돌려 주게 한 부분을 멈추라고 명하였다.

이하생략~

### ▶ 67권 24년 5월 6일 己丑

全羅監司韓翼謨辭朝，上引見．召都政所差守令飭勉．上問翼謨所懷，對曰：“我國三面環海，而島嶼之多，莫如湖南．其遠者或距官府三數百里，是惟得罪於國家者及逃奴婢之所萃，雖白晝殺人，官無由得知．所謂海濱遐遠，不霑王化之地，處置不得其宜，則實有無窮之慮．臣意欲觀島之大小，或置官長，或置里正，如各邑洞、面任之屬，以綱紀之，而亦難遙度．徐當審勢條奏焉．”上曰：“所奏誠是．到營後，商量狀陳，而必教之以賣刀買犢之意，使此輩，咸知有朝廷也．”

전라감사 한익모(韓翼謨)가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하였다. 도정(都政)에서 차임한 수령들을 불러서 계칙 면려하였다. 임금이 한익모에게 소회가 무엇이나고 하문하니,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섬들이 많기로는 호남(湖南)이 제일입니다. 먼 것은 혹 관부와의 거리가 수삼백 리나 되니, 이곳이 국가에 죄를 지은 자와 도망한 노비들의 소굴이 되고 있으므로 대낮에 사람을 죽여도 관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른바 왕화(王化)가 닿지 않는 먼 바닷가의 땅은 처치(處置)하기가 마땅하지 않아 실로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신의 의견은 섬의 대소(大小)를 살펴 관장(官長)을 두기도 하고 이정(里正)을 두기도 하는 것을 각 고을의 동임(洞任)이나 면임(面任)을 두는 것처럼 하여 기강으로 통제하려고 있습니다만, 또한 멀리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서서히 사세를 살펴 조목별로 주달하겠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내용이 참으로 옳다. 감영(監營)에 도착한 뒤에 상황을 헤아려 장계(狀啓)하되, 반드시 칼을 팔아 송아지를 사게 하는 뜻으로 가르쳐 이들로 하여금 모두 조정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 하였다.

▶ 68권 24년 8월 5일 丁亥

上召見通信使洪啓禧等，詳問倭國事情。時，倭人以我船失火，蔘幣焚燒殆盡，別賂海蔘十櫃，倭布三百匹，上以辭受兩難，問大臣，大臣請以授之萊府，以備不時之需，從之。

【史臣曰：春秋之法，大夫出疆，無外交如叔向、晏嬰尙矣。至如范雎之使齊，亦受牛、酒，而還餽金。今啓禧等乃私受蠻夷之餽，非洩國陰事，則必見賣狡敵也，其罪大矣。況其所贈紋布，乃我邦新禁之物也。朝廷宜先明使臣辱國之失，次還厥賂于倭人。夫如是，則交隣之道正，賤貨之德著，勅法之義嚴，倭奴雖強，必畏之矣。廟議不但却而已，反以羨不足，其可曰國有人乎？”】

임금이 통신사 홍계희(洪啓禧) 등을 소견(召見)하고 왜국(倭國)의 사정에 대해 상세히 하문하였다. 이때 왜인이 우리 배가 실화(失火)하여 삼폐(蔘幣)가 거의 다 타버렸다는 것으로 특별히 해삼(海蔘) 10궂(櫃)와 왜포(倭布) 3백 필(疋)을 보내 왔는데, 임금이 사양하기도 곤란하고 받기도 곤란하여 대신(大臣)에게 하문하니, 대신이 동래부에 주어 불시의 수요에 대비하게 할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랐다.

【사신은 말한다. “춘추(春秋)의 법에 대부(大夫)가 국경을 나가서는 외교(外交)가 없는 것을 숙향(叔向)과 안영(晏)처럼 하여야 하는 것이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범수(范)가 제(齊) 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적에도 쇠고기와 술은 받았으나 선물로 준 금(金)은 되돌려 주었다. 이제 홍계희 등은 이에 사사로이 오랑캐가 선물하는 것을 받았는데, 국가의 비밀스런 일을 누설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교활한 적에게 매수된 것이 틀림없으니, 그 죄가 크다. 더구나 그들이 증여한 무늬 놓은 베는 이에 우리나라에서 새로 금하는 물품인 것이다. 조정에서는 의당 먼저 사신이 나라에 오욕을 끼친 잘못을 밝히고, 다음에 왜인들이 보낸 것을 되돌려 주었어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했더라면 교린(交隣)하는 도리가 올바르게 되고 재화(財貨)를 천하게 여기는 덕이 드러나며 법을 삼가는 의의가 엄하여져 왜노(倭奴)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런데 묘당(廟堂)의 의논이 이를 물리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여분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 했으니,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 69권 25년 4월 3일 庚辰

上御崇文堂，引見戶、禮堂，命於皇壇樂章中，聖后之聖字，改以三字，牲依太廟例，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以一牛用於各位，猪、羊勿論親行攝行，位各用一。

임금이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가서 호조 당상·예조 당상을 인견하고 황단(皇壇)의 악장(樂章) 가운데 성후(聖后)의 ‘성(聖)’자를 ‘삼(三)’자로 고치도록 하고, 희생은 태묘(太廟)의 예에 의거하여 소 한 마리를 각위(各位)에 쓰고 돼지와 양은 친행(親行)이나 섭행(攝行)을 물론하고 신위(神位)마다 각각 한 마리씩 쓰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 ▶ 69권 25년 4월 10일 丁亥

上詣望禮位，四拜訖，陞壇奉審。壇高四尺，方闊二丈五尺，甃以方甗，四出陞九級，而於壇上設白帳爲殿，於殿內以黃帳爲三房，於房內北壁南向西上，設大明太祖開天行道肇紀立極大聖至神仁文義武峻德成功高皇帝神位於第一房，神宗範天合道哲肅敦簡光文章武安仁止孝顯皇帝神位於第二房，毅宗紹天繹道剛明恪儉揆文奮武敦仁懋孝烈皇帝神位於第三房，黃文席，黃純。上降自南陞，省器省牲，太祖、神宗、毅宗用騂牛一、羊三、豕三，是夜上齋宿映花堂，命以皇朝人後裔，差皇壇守僕。

임금이 망례(望禮)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기를 마치고 제단에 올라가 봉심하였다. 제단의 높이는 4척이었고, 사방의 넓이는 2장(丈) 5척이었으며, 네모난 벽돌로 쌓았고, 네 곳으로 나가 아홉 계단을 올라가는데, 단상에는 흰 장막을 쳐서 전(殿)을 만들었고, 전 안에는 황색 장막을 쳐서 3개의 방을 만들었으며, 방안 북쪽 벽에 남쪽을 향하여 서쪽을 위로하여 대명태조개천행도조기입극대성지신인문의무준덕성공고황제신위(大明太祖開天行道肇紀立極大聖至神仁文義武峻德成功高皇帝神位)를 제1방에, 신종범천합도철숙돈간광문장무안인지효현황제신위(神宗範天合道哲肅敦簡光文章武安仁止孝顯皇帝神位)를 제2방에, 의종소천역도강명각검규문분무돈인무효열황제신위(毅宗紹天繹道剛明恪儉揆文奮武敦仁懋孝烈皇帝神位)를 제3방에 설치하였는데, 황문석(黃文席)은 황순(黃純)이었다. 임금이 남쪽 섬돌로부터 내려와 제기와 희생을 살펴보았는데, 태조·신종·의종에게 붉은 소 한 마리, 양 세 마리·돼지 세 마리를 쓰도록 하였으며, 이날 밤에 임금이 영화당(映花堂)에서 재숙(齋宿)하고 황조 사람의 후예를 황단의 수복(守僕)으로 차임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 ▶ 70권 25년 10월 6일 辛巳

內醫院例進牛酪。一日，上見牝牛之後，小犢隨之，心甚惻然，命停御供酪粥。

내의원(內醫院)에서 전례에 따라 우락(牛酪)을 올렸다. 하루는 임금이 암소의 뒤에 작은 송아지가 따라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매우 측은(惻然)히 여기며 어공(御供)에 낙죽(酪粥)을 정지토록 명하였다.



▶ 71권 26년 1월 5일 己酉

時八路癘疫漸熾，死者枕藉．敎曰：“掩骸，王政之大者．況京外癘氣熾盛，死亡相續．噫！歲已新矣，萬品俱有春意，而吁嗟！吾民親戚、兄弟、孤兒、寡妻號呼而痛，思之及此，不覺惻怛．分付京外，已死者着意收瘞，生者另加救活．而況設賑之道，尤爲惻然，其賑其活，一例申飭．其勤其慢，予當廉問．若此之際，於耕於農，亦涉可悶．勸農之敎已下，助其農糧，相資農牛，亦節目中一事，着意舉行．其若勸農，宜先便民，今春水陸操，營將巡點，不待其請，竝令停止，以示予爲民之意．”

이때에 8도에 역질(疫疾)이 차츰 치성하여 죽은 자가 즐비하였다. 임금(王)이 하교하기를,  
 “시신(屍身)을 묻어 주는 것은 왕정(王政)의 큰일이다. 더군다나 경외에 역질이 치성하여 사망자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아! 해는 이미 바뀌어 만물이 모두 봄기운을 타고 있는데, 아! 우리 백성들은 친척·형제·고아(孤兒)·과처(寡妻)가 울부짖고 서러워하니, 생각이 여기에 미치매 저절로 처절해진다. 경외에 분부하여 죽은 자는 방법을 다하여 거두어 묻어 주고 산 사람은 특별히 구원하여 살려내게 하라. 더군다나 구휼을 실시하는 도리에서는 더욱 불쌍한 생각을 가져야 하니, 진휼하고 구휼함을 한 결 같이 하도록 신칙하라. 부지런하고 태만함을 내가 응당 염문(廉問)하리라. 이런 와중에 농사를 지을 일이 더욱 민망스럽다. 권농의 교서를 이미 내렸는데 농량(農糧)을 보태 주고 농우(農牛)를 빌려 주는 것도 절목에 있는 하나의 일이니, 방법을 다하여 거행하라. 농사를 권장하자면 의당 먼저 백성을 편하게 해주어야 할 터이니, 올 봄의 수륙 조련과 영장(營將)이 돌며 점검하는 일은 계청을 기다릴 것 없이 모두 정지하게 하여 나의 백성을 위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 71권 26년 5월 10일 辛亥

濟州陪持人六名，死於京中，求仕出身洪宇寬在其中．上命度支，給駕牛，宇寬妻孥，亦令本州顧恤．

제주(濟州)의 배지인(陪持人) 6명이 서울에서 죽었는데, 벼슬을 구하던 출신(出身) 홍우관(洪宇寬)도 그 속에 끼어 있었다. 임금이 탁지(度支)에 명하여 상여(喪輿)를 끌 소[牛]를 내주게 하고 홍우관의 처자도 본주로 하여금 돌보아 주게 하였다.

▶ 72권 26년 11월 30일 己巳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己巳/王世子引接大臣、備堂. 副校理金致仁曰: “今年癘疫死者無數, 秋冬以來, 日事埋葬, 以此之故, 秋收亦未及時. 且牛疫連三年熾盛, 秋耕間有以人代牛云, 誠可憫憐. 方今第一急務, 乃恤民之政也.” 王世子可之.

왕세자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접하였다. 부교리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금년의 여역(癘疫)에 죽은 자가 무수히 많아 추동(秋冬) 이래로 날마다 매장 하기를 일삼아 이때문에 추수(秋收) 역시 때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역(牛疫)이 연달아 3년 동안 치성(熾盛)해서 가을갈이를 하면서 소 대신 사람이 갈고 있다 하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지금의 제일 급선무는 바로 백성을 돌보는 정사입니다.”  
하니, 왕세자가 옳게 여겼다.

### ▶ 73권 27년 2월 29일 丁酉

丁酉/藥房入診. 左議政金若魯奏曰: “北評事李彝章上書, 又請得種子及農牛喂太二萬石. 而嶺南穀物亦垂盡, 浦項倉租太各五千石劃給, 而太則浦項所在亦甚不足云, 以他會付, 推移送之爲宜.” 上允之.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좌의정 김약로(金若魯)가 아뢰기를,  
“북평사(北評事) 이이장(李彝章)이 상서(上書)하여, 또 종자(種子)와 농우(農牛)를 먹일 콩 2만 석을 얻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영남(嶺南)의 곡물도 역시 바닥이 드러난 상태이니 포항(浦項) 창고의 벼[租]와 콩[太] 각각 5천 석을 획급(劃給)하도록 하였는데, 콩은 포항에 있는 것도 역시 매우 부족하다고 하니, 다른 것으로 회부(會付)하여 변통하여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 ▶ 75권 28년 1월 3일 乙丑

副校理尹光纘上書曰:

『小學』書之重講, 大朝培本之聖意, 尤可以仰見. 斯實我大朝修齊治平之所基始, 而堯、舜之極工, 良不外是, 則其可以既講之書, 幼少之學而忽易之乎? 至於民國之務, 邸下政宜日勤諮諏, 益務練習. 而近來承旨持公事入對, 不過應文而止. 賓接之頃稟, 已經累旬, 此雖由於國有喪故, 廊廟多事之致, 而邸下圖治之誠, 終欠篤實也. 竝願邸下, 刻意講討, 勵精董飭, 使睿學睿治, 俱臻與歲同新之休焉. 噫! 國依於民, 民依於農, 無農則無民, 無民則無國者, 此必然之理. 而比年以來, 農牛之死於疫者, 爲幾十萬, 農民之死於癘者, 爲幾百萬. 關北之妖鼠, 湖南之飛蟲, 已極萬萬驚心, 而京城之間, 虎豹縱橫. 時

變如此，而竊觀近日朝廷舉措，又有不勝其憂歎者。公道全闕，私意橫驚，科第則僥倖之門方開，官方則淆亂之弊轉甚。廉節都喪，風習日壞，譯胥爲權門之貴客，臺閣爲宰相之私人，阿好則名器有不假借，猜憚則攻逐猶恐不及，千奇百怪不可名狀。俾我大朝數十年苦心調協之治，必欲一切壞了，豈不大可寒心哉？一拂時議，次第擠排，前者既錮，後者方擊，彈射迭發，頭勢可怕。而大朝所倚用之人，餘者無幾。雖以近日一宰臣事言之，未知何所見忤於時而鄭漢奎先之，李弘稷繼之。一之已甚，再猶不足，而趙宗溥今又出矣，唇吻相接，斷斷不已。初既架鑿空地，末又摸把虛影，惟患詆之不力去之不速，至使一時佐銓之人，亦被餘波之激射，噫！亦甚矣。目今國事日非，世道日下，雖使世家世臣布列凝萃，尙患同異之間，易毀難成，而顧乃百計撼輒，惟以擊逐爲能事，致令大朝皇極至公之道，沮敗乃已。其所設意，殊未可曉，而設有憂國奉公之臣，舉將引義退靖，猶恐自謀之不暇。伏願邸下，洞察其情狀。凡前後藉借臺議，甘心黨伐者，并施譴罰，明示好惡，使乖亂之輩，無敢復售其習。年來荐歎之餘，畿甸之民力，大抵竭矣。顧今大役稠疊，客使又至，勞費多端，凋瘵可悶。大朝前後絲綸，惻怛懇至，在邸下仰體德音，曲軫民隱之道，亦不可不別致愍恤之典焉。

答曰：“所陳依施。”

부교리 윤광찬(尹光瓚)이 상서하기를,

“『소학(小學)』 책을 거듭 강(講)하게 한 것에서 대조(大朝)께서 근본을 배양하게 하는 뜻을 더욱 우리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실로 우리 대조께서 수제(修齊)와 치평(治平)의 기반과 시발로 삼으신 것이고 요순(堯舜)의 극진한 치공(治功)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니, 이미 강한 책이요 어릴 적에 배운 것이라 하여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백성과 나라의 정무(政務)에 대해 저하(邸下)께서 날마다 부지런히 자문(諮問)하여 더욱 힘써 익히고 연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래 승지가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대(入對)할 적에 공문에 응하고서 그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빈객(賓客)의 접대가 탈품(稟)된 지 이미 여러 달이 지났는데, 이는 비록 국가에 상고(喪故)가 있었고 낭묘(廊廟)에 일이 많았던 소치에 연유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저하께서 잘 다스리기를 도모하는 정성에는 끝내 독실히 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아울러 바라건대, 저하께서는 마음에 새겨 강토(講討)하고 정신을 가다듬어 동칙(董勅) 함으로써 예학(睿學)과 예치(睿治)가 모두 해와 함께 새로워지는 아름다움에 이르게 하소서. 아! 국가는 백성에게 의존하고 백성은 농사에 의존하는 것이니, 농사가 없으면 백성이 없게 되고 백성이 없으면 국가도 없게 되는 것은 이것이 필연(必然)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농우(農牛)가 여역(疫)에 의해 죽은 것이 수십만 마리가 되고, 농민(農民)이 여역에 의해 사망한 사람이 수백만 명이 됩니다. 관북(關北)의 요사스러운 쥐와 호남(湖南)의 날아다니는 벌레는 이미 더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인데, 경성에는 호랑이가 마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시변(時變)이 이러한데도 그웁이 근일 조정의 거조를 살펴보면 또 걱정과 탄식을 견딜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공도(公道)는 완전히 없어지고 사의(私意)가 멋대로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과제(科第)에는 요행을 바라는 문이 바야흐로 활짝 열려 있고 관방(官方)에는 난잡스러운 폐단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엄절(廉節)은 전부 없어져 풍습(風習)이 날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역서(譯胥)는 권문(權門)의 귀객(貴客)이 되어 있고 대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각(臺閣)은 재상(宰相)의 사인(私人)이 되어 있으며, 좋아하는 경우에는 명기(名器)를 주지 않는 것이 없고 시기하는 경우에는 공격과 축출이 오히려 뒤질까 두려워하여 백 가지 천 가지 기괴(奇怪)한 일들을 모두 이름 지어 형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대조(大朝)께서 수십년동안 고심하여 조절 화협시킨 정치를 기필코 일체 무너뜨리려 하고 있으니, 어찌 매우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한번 시의(時議)를 거스르면 차례(次第)로 배척하기 때문에 앞사람을 금고(禁錮)시키고 나서는 뒷사람을 공격하여 탄핵이 번갈아 발론되니, 앞으로의 형편이 두렵습니다. 따라서 대조께서 의지하여 기용한 사람 가운데는 남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비록 근일에 있었던 한 재신(宰臣)의 일을 가지고 말하여 보더라도 무엇이 시의에 거스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한규(鄭漢奎)가 먼저 앞섰고 이홍직(李弘稷)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나도 너무 심한 것인데 둘로도 오히려 부족하여 조종부(趙宗溥)가 이제 또 나와서 입술을 서로 맞대고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거 없는 일을 끌어내고 나서 끝에 가서는 또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오직 극력 비난하지 못하고 속히 제거하지 못할까만을 걱정하기 때문에 한때 좌전(佐銓)이었던 사람도 또한 격렬한 공격의 여파를 받기에 이르렀으니, 아! 또한 심한 일입니다. 지금 국사가 날로 잘못되어 가고 세도(世道)가 날로 저하되어 가므로 비록 세가(世家)와 세신(世臣)을 조정에 포열(布列)시켜 모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의견을 조정하는 사이에 무너지기는 쉽고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법인데, 도리어 온갖 계교로 선동하고 알력을 부리면서 오직 배격하여 쫓아내는 것만을 능사(能事)로 여김으로써 대조(大朝)께서 세워놓은 황극(皇極)과 지극히 공정한 치도(治道)를 저패(沮敗)시키고야 말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설의(設意)가 무엇인지 자못 알 수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설사 나라를 걱정하여 봉공(奉公)하려는 신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인의(引義)하면서 물러가려 함으로써 자신을 위해 도모하기에 겨를이 없을까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저하께서는 그 정상을 통찰하소서. 그리고 전후 대의(臺議)를 가차하여 당동벌이(黨同伐異)하는 것을 달갑게 여긴 자들에게 아울러 견벌(譴罰)을 시행하여 호오(好惡)를 분명히 보임으로써 공도를 괴란시키는 무리들로 하여금 감히 다시는 그런 습관을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연래(年來) 겹쳐 흉년이 든 나머지 기전(畿甸) 백성들의 힘이 대체로 고갈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 역사(役事)가 겹쳐 닥쳤던 판국에 객사(客使)가 또 나와와 노비(勞費)가 많게 되었으니, 조채(凋)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대조께서 전후 내리신 윤음(綸音)의 내용에 딱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간절한 마음이 지극하였었으니, 저하께서 그 덕음(德音)을 우러러 본받아 백성들의 고통을 꼭진히 걱정하는 도리에 있어 또한 특별히 안타깝게 여겨 돌보는 은전(恩典)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진달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 77권 28년 8월 29일 丁巳

丁巳/藥房入診. 上召見北評事南泰會, 問以北路凶荒. 泰會曰: “臣設粥分饋於還賑式例之外, 而牛馬糞壤中遺菽, 爭拾而食之, 推此可知其孔慘矣. 大抵北關痼弊, 卽清差時

徭役也. 所謂卜定牛、犁口、鹽石等物, 皆責徵於民, 故民皆流散, 自朝家除出嶺東、南耗穀, 限數年防給徭役, 然後可復業安集矣. 且北關海民付之均廳後, 令以純布納稅, 而海尺採魚、藿, 轉貨於德源、元山. 故得錢易而得布難, 民皆願以錢納, 而齊訴於臣行矣.” 上曰: “令均廳, 從民願收捧也.” 都提調金若魯曰: “舊北伯黃晟, 清簡善治, 賑政亦善. 而新道臣李宗白, 其母老且病, 雖爲強赴, 實難久居云矣.” 上曰: “北關雖已畢賑, 而三、甲又歉, 甫起之民, 不可付諸生手. 前監司黃晟仍任.”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의 북평사(北評事) 남태회(南泰會)를 소견하여 북로(北路)의 흉황(凶荒)에 대해 물었다. 남태회가 말하기를,

“신이 환진(還賑)의 식례(式例) 외에 죽을 쑤어 나누어 먹였는데, 우마(牛馬)의 똥이 섞인 흙 가운데 떨어진 콩을 다투어 주워서 먹었으니, 이로 미루어 매우 참혹함을 알 만합니다. 대저 북관(北關)의 고질적인 폐단은 청차(淸差)가 올 때의 요역(役)입니다. 이른바 복정(卜定)한 소[牛]와 보습과 염석(鹽石) 등의 물건을 모두 백성들에게 책임지워 징수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유산(流散)하고 있으니, 조정에서 영동·영남의 모곡(耗穀)을 덜어내어 몇 해를 한정해서 요역을 방급(防給)한 뒤에라야 다시 생업에 복귀하여 안집(安集)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북관의 해민(海民)을 균청(均廳)에 소속시킨 뒤 순포(純布)로 세금을 바치게 했는데, 해척(海尺)들은 물고기나 미역을 채취하여 덕원(德源)이나 원산(元山)에서 판매(販賣)합니다. 그러므로 돈은 얻기 쉬우나 포(布)는 얻기 어려워서 백성들이 모두 돈으로 바치기를 원하여 신이 떠날 때 일제히 호소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균청으로 하여금 백성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 받아들여지게 하라.”

하였다. 도제조 김약로(金若魯)가 말하기를,

“옛 북백(北伯) 황정(黃晟)은 청간(淸簡)하여 잘 다스렸고 진정(賑政)도 또한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새 도신(道臣) 이종백(李宗白)은 그 어미가 늙고 병들어 비록 억지로 부임은 하지만, 실로 오래 있기 어렵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북관은 비록 이미 진정을 끝냈다지만, 삼수(三水)·갑산(甲山)에 또 흉년이 들었으니, 이제 겨우 일어난 백성을 서툰 손에 맡길 수는 없다. 전 감사 황정을 잉임(仍任)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 ▶ 80권 29년 7월 9일 壬戌

壬戌/內局入侍, 命釐正堂上同入. 命兵曹判書金尙星許解, 以尙星撕捥也. 上曰: “凡事必也正名, 隱餘結屬之均役廳, 意實爲民, 名則不正. 自今均廳所屬隱餘結, 從其結數, 作爲免稅, 并與田大同及各稅而屬之均廳, 則田案自在度支, 其稅歸於均廳. 如此然後可以正其名而實其事矣. 以此載於節目本條, 此後勿論, 庚午前後隱結加現者, 自歸度支、均廳, 無敢下手於其間, 免稅均廳之田, 無敢折受於他處. 而陳田亦令度支勾管, 度支、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均廳若或有違令之事，則本廳既是三公所句管，該曹、該廳堂上草記重飭事，定式施行。”  
 又敎曰：“昔年則慈殿及大殿、世子宮外，皆無酪粥，於中宮殿乙亥後命設，其後賢嬪愴古，戊申年以入于東宮者，仍令進排。至於世孫宮，既封之後，事體無異於世子宮，故其令進排，而至於元孫宮，則定例中既與王子同，而內醫院酪粥誤爲進排矣。酪牛雖曰畜物，自昔年爲春耕而停封，酪牛之多，不至於此，今覽冊子，至於十八隻之多，而并其犢爲三十六也。『禮記』不云乎？於春，王者惜其卵、巢，爲五碗之粥，使十八犢飢乳，非仁政也。元孫宮待冊封後舉行，其牛令內醫院減數，一以示遵『禮記』之意，一以除市民之弊。”命書御製均役廳綸音及小誌，載于節目。仍敎曰：“統營事如何？”申晚曰：“御將則欲減數給之，領相則欲盡給萬兩矣。”上曰：“予則以靈城言爲是矣。卽今均廳雖有餘錢，將來此節目亦似不無闊狹，慎不可用之。”命李訥，讀江契冊子。訥曰：“江塵斷然罷之宜矣。”朴文秀曰：“此是正論，而三江五塵，皆是三百年流來之塵矣。”

내국(內局)에서 입시(入侍)하였는데, 이정 당상(釐正堂上)에게 명하여 같이 들어오게 하였다. 병조판서(兵曹判書) 김상성(金尙星)에게 명하여 해면(解免)을 허락하였으니, 김상성이 시애하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모든 일은 반드시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데, 은여결(隱餘結)을 균역청(均役廳)에 붙이는 뜻은 실로 백성을 위하는 것이나, 이름은 바르지 않다. 이제부터 균청(均廳)에 붙여진 은여결은 그 결수(結數)대로 면세(免稅)로 삼고 전대동(田大同) 및 각세(各稅)와 함께 균청에 붙인다면, 전안(田案)은 절로 탁지(度支)에 있게 되고 그 세(稅)는 균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야 그 이름을 바르게 하고 그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절목(節目)의 본조(本條)에 실으면 이 뒤로는 물론이고 경오년 전후에 은결(隱結)이 더 나타난 것도 절로 탁지와 균청으로 돌아가서 감히 그 사이에서 손댈 수 없고 면세된 균청의 전토(田土)도 감히 다른 곳에서 절수(折受)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진전(陳田)도 탁지에서 구관(句管)하게 하되, 탁지나 균청에서 만약 혹 영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본청(本廳)은 이미 삼공(三公)이 구관하는 것이거니와 해조(該曹)·해청(該廳)의 당상(堂上)을 초기(草記)하여 엄중히 신칙(申飭)하도록 하는 일을 정식(定式)하여 시행하라.”

하고, 또 하고하기를,

“예전에는 자전(慈殿)과 대전(大殿)·세자궁(世子宮) 밖에 모두 낙죽(酪粥)이 없었는데, 중궁전(中宮殿)에 올해년 이후 명하여 바치게 하였고, 그 뒤에 현빈(賢嬪)이 옛일을 슬퍼하므로 무신년에 동궁(東宮)에 들이던 것을 계속하여 진배(進排)하였다. 세손궁(世孫宮)으로 말하면 이미 책봉된 뒤에는 사체(事體)가 세자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진배하게 하였으나, 원손궁(元孫宮)으로 말하면 정례(定例) 가운데에서 이미 왕자(王子)와 같게 되어 있는데 내의원(內醫院)의 낙죽을 잘못 알고 진배하였다. 낙우(酪牛)가 비록 짐승이기는 하나 예전부터 봄갈이를 위하여 봉진(封進)을 멈추었으므로 낙우가 이토록 많지 않았는데, 이제 책자(冊子)를 보니 열여덟 마리가 되어 그 송아지를 아울러 서른여섯 마리이다. 『예기(禮記)』에 말하지 않았는가? 봄에 왕자(王者)가 알[卵]과 동지를 아끼어 주었는데, 이제 다섯 주발의 타락죽을 위하여 열여덟 마리의 송아지가 젖을 굶게 하는 것은 인정(仁政)이 아니다. 원손궁에는 책봉(冊封) 뒤에 거행하고 그 소는 내의원으로 하여금 수를 줄이게 하여, 한편으로는

『예기』를 따르는 뜻을 보이고 한편으로는 시민(市民)의 폐단을 덜라.”

하고, 어제(御製) 균역청 윤음(均役廳綸音)과 소지(小誌)를 써서 절목에 실으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통영(統營)의 일은 어떠한가?”

하매, 신만(申晩)이 말하기를,

“어장(御將)은 수를 줄여서 주려하고, 영상(領相)은 1만 냥(兩)을 죄다 주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영성(靈城)의 말을 옳게 여긴다. 지금 군청에 남은 돈[錢]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 절목에도 넓히거나 좁히는 일이 없지 않을 듯하니, 삼가서 쓰지 않아야 한다.”

하였다. 이후(李)에게 명하여 강계책자(江契冊子)를 읽게 하였다. 이후가 말하기를,

“강전(江塵)은 단연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를,

“이는 바른 논의입니다마는, 삼강(三江)의 다섯 시전(市廛)은 다 3백 년 동안 내려온 시전입니다.”

하였다.

## ▶ 80권 29년 12월 8일 戊子

戊子/命都監堂上入侍, 知事元景夏同入. 左議政李天輔請還收減膳之敎, 上曰: “戊申以雨減膳, 今年以日暖減膳, 非毫分有愷於群下矣.” 禮曹判書金尙星曰: “聖意所在, 臣固知之, 而亦豈敢空過明年也?” 上曰: “卿等聞紅犀帶事乎? 太祖賜戶長於癸酉年, 而今年癸酉奇矣.” 景夏曰: “臣未之聞矣. 安東權太師廟, 亦有犀帶, 戶長帶此而行祭云矣.” 上曰: “然乎.” 景夏曰: “慶州玉簫, 亦奇矣. 踰鳥嶺則簫聲不出云矣.”

도감당상(都監堂上)에게 명하여 입시(入侍)하게 하고 지사(知事) 원경하(元景夏)도 같이 입시하게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천보(李天輔)가 찬선(饌膳)을 줄이라는 하교를 도로 거두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신년에는 비 때문에 찬선을 줄였거니와, 올해에는 날씨가 따듯하기 때문에 찬선을 줄이니, 조금도 못 신하에게 분개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매, 예조판서(禮曹判書) 김상성(金尙星)이 말하기를,

“성의(聖意)가 있는 바를 신이 진실로 압니다마는, 또한 어찌 감히 내년을 헛되이 넘길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은 홍서대(紅犀帶)의 일을 들었는가? 태조(太祖)께서 계유년에 호장(戶長)에게 내리셨는데, 올해가 계유년이니 기이하다.”

하매, 원경하가 말하기를,

“신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안동(安東)의 권태사(權太師)의 사당에도 또한 서대(犀帶)가 있는데, 호장이 이것을 띠고 제사지낸다 합니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한가?”

하매, 원경하가 말하기를,

“경주(慶州)의 옥적도 또한 기이합니다. 조령(鳥嶺)을 넘으면 피리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합니다.”

하였다.

### ▶ 81권 30년 1월 1일辛亥

朔辛亥/上謁太廟、永禧殿，仍拜靈壽閣，閣卽太祖、肅宗入者社後奉安御牒之所也。上之二十年甲子，依故事繼入社，今年是聖上周甲，而又值太祖入社之歲，故特於元日展拜，仍手書小識于御牒，以寓追慕焉。是日歷拜毓祥宮，命書御製述懷詩及犀帶記。先是關東御史李顯重歸奏：“三陟府使李垓，得一紅犀帶於府中，傳言是洪武癸酉，太祖大王以三陟是穆祖外鄉，特賜犀帶於其時戶長，今回六癸酉，而始得之云。”上命本府，上送戶長金尙矩齋帶而來，上特召見，仍令銓曹除尙矩爲參奉。承旨李秀得奏曰：“尙矩若除是職，則必啓遐氓僥倖之心，恐非得宜。”上曰：“造命在人君，承宣敢欲沮遏耶？”命遞秀得，擢執義任瑋爲承旨。

【史臣曰：犀帶來歷及所賜年紀，俱未詳焉，且尙矩齋來，初無可賞之勞，則秀得之奏，誠得體，而特遞之後，無人伸救，銓堂親承下教，而亦不以一辭覆難，惜哉!】

임금이 태묘(太廟)와 영희전(永禧殿)에 전알(展謁)하고, 이어서 영수각(靈壽閣)에 전배(展拜)하였는데, 영수각은 태조(太祖)와 숙종(肅宗)이 기사(耆社)에 들어간 뒤에 어첩(御牒)을 봉안한 곳이다. 금상(今上) 20년인 갑자년에 고사(故事)에 따라 뒤이어 기사에 들어갔는데, 올해는 성상의 주갑(周甲)이고 또 태조가 기사에 들어간 해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원일(元日)에 전배(展拜)하고 이어서 어첩에 손수 소지(小識)를 써서 추모하는 뜻을 붙였다. 이날 육상궁(毓祥宮)에 들러 전배하고, 명하여 어제(御製)인 술회시(述懷詩)와 서대기(犀帶記)를 쓰게 하였다. 이에 앞서 관동어사(關東御史) 이현중(李顯重)이 돌아와 아뢰기를,

“삼척부사(三陟府使) 이협(李)이 부중(府中)에서 홍서대(紅犀帶) 하나를 얻었는데, 전하는 말로는 홍무(洪武) 계유년에 태조 대왕께서 삼척은 목조(穆祖)의 외향(外鄉)이라 하여 그때의 호장(戶長)에게 특별히 서대를 내리셨는데 이제 여섯번째의 계유년이 돌아와서 비로소 얻었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본부(本府)에 명하여 호장 김상구(金尙矩)를 올려 보내게 하였다. 김상구가 서대를 가지고 오니, 임금이 특별히 소견(召見)하고 이어서 전조(銓曹)로 하여금 김상구를 참봉(參奉)으로 제수(除授)하게 하였다. 승지 이수득(李秀得)이 아뢰기를,

“김상구에게 이 벼슬을 제수하면 반드시 먼 지방 백성이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열어 주게 될 것이니, 마땅한 일이 아닐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화복(禍福)을 주장하는 권세는 임금에게 있는데, 승선(承宣)이 막으려 하는가?” 하고, 이수득을 체차하고 집의 임위(任瑋)를 발탁하여 승지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서대의 내력과 내린 연기(年紀)는 모두 상세하지 못하고, 또 김상구가 가져온 것은 본디 상줄 만한 공로가 없다. 그렇다면 이수득이 아뢴 것은 참으로 체례(體例)에 맞는 것인데, 특별히 체차된 뒤에 신구(伸救)하는 사람이 없고 전조 당상(銓曹堂上)은 직접 하교를 받았는데 한마디도 부당함을 복계(覆啓)하지 않았으니, 애석하다.”】

## ▶ 81권 30년 윤4월 26일 乙亥

乙亥/慶尙監司李彝章, 以巨濟癘疫熾盛, 死亡相續, 泗川農牛, 出野輒自斃狀達.

경상감사 이이장(李彝章)이 거제(巨濟)에 여역(疫)이 치성(熾盛)하여 죽는 사람이 잇달고 사천(泗川)에서 농우(農牛)가 들에 나가면 곧 절로 죽는다고 장달(狀達)하였다.

## ▶ 82권 30년 11월 4일 己卯

王世子引接大臣、備堂。領議政李天輔以災異陳戒曰：“邸下之事大朝，與事天一也。大朝責教，雖或有過中，此出於至慈厚望之聖意也，邸下須勿忘惶蹙之心，然後凡百皆可不解矣。”時上因事切責世子於諸臣入侍時，天輔舉此陳勉。左議政金尙魯繼言：“邸下淵默太過。誠願頻賜引接，假以辭色，俾上下之意相通。”王世子嘉納之。天輔又言：“前威鏡監司尹得載，以本道牛疫大熾，會寧、慶源淸差開市時，農牛賣買狀請禁斷，而彼人開市專以買牛爲重，一向嚴防，恐或生梗，近日牛疫，亦頗寢息云，令道臣從略許賣之。”從之。刑曹判書李鼎輔言：“本曹雖掌刑獄，兼管京外公私賤，每當式年，各邑推刷奴婢後，例送續案於本曹，則本曹磨準，分送於掌隸院及戶曹，頃因嶺南釐正使李成中書啓，謂有邑弊，永革舊規，公賤之存歿增減，無路覈得。請還復舊例，用大臣言，令各道監營，收聚續案，直送于刑曹，俾無州邑修呈之弊。”戶曹判書李喆輔言：“頃以經用告乏，稟于大朝，請得海西詳定田米二千石，而惠堂洪鳳漢請以京廳田米移送，則大朝以京廳所儲如不滿數，稟于小朝，更請海西米爲教。今者惠廳所送只是三百石，請依大朝下教，取用海西米一千七百石。”從之。

왕세자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접하였다. 영의정 이천보(李天輔)가 재이(災異) 때문에 진계(陳戒)하기를,

“저하(邸下)께서 대조를 섬기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조께서 책망하시는 하교에 혹 지나친 것이 있더라도 이는 지극히 사랑하여 매우 기대하시는 성의(聖意)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이니, 저하께서는 모쪼록 두려워하고 삼가는 마음을 잊지 않은 후에야 온갖 일이 다 해이해지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임금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여러 신하들이 입시하였을 때에 세자를 매우 꾸짖었으므로, 이천보가 이 일을 거론하여 진면(陳勉)한 것이었다.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이어서 말하기를,

“저하께서는 너무 지나치게 침착하고 말이 적으십니다. 진실로 바라건대, 자주 인접하여 사색(辭色)을 보여 위아래의 뜻이 서로 통하게 하소서.”

하니, 왕세자가 가납하였다. 이천보가 또 말하기를,

“전 함경감사 윤득재(尹得載)가 말하기를, ‘본도에 우역(牛疫)이 크게 치성한 까닭에 회령(會寧)·경원(慶源)에서 청나라 차원(差員)이 개시(開市)할 때에 농우(農牛)를 매매하던 것을 금단하도록 장청(狀請)하였으나, 피인(彼人)들은 개시 때 오로지 소를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한 결 같이 엄히 막으면 혹 말썽을 일으킬까 염려되며, 근일에 우역도 자못 그쳤다.’”고 하니, 도신으로 하여금 조금 팔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형조판서 이정보(李鼎輔)가 말하기를,

“본조에서 비록 형옥(刑獄)을 관장하나 경외(京外)의 공천(公賤)과 사천(私賤)도 아울러 관장하므로, 번번이 식년(式年)을 당하여 각 고을에서 노비를 추쇄(推刷)한 뒤에 으레 본조에 속안(續案)을 보내면, 본조에서 마준(磨準)하여 장례원(掌隷院)과 호조에 나누어 보내었는데, 접때 영남 이정사(嶺南釐正使) 이성중(李成中)이 서계(書啓)하여 고을의 폐해가 있다고 함에 따라 옛 규례를 영구히 폐지하여 공천의 생사와 증감을 살펴 알아낼 길이 없어졌습니다. 옛 규례를 도로 회복하고, 대신의 말에 따라 각도의 감영(監營)에서 속안을 거두어 모아 곧바로 형조에 보내게 하여 고을에서 고쳐 바치는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호조판서 이철보(李喆輔)가 말하기를,

“접때 경용(經用)이 모자라서 대조께 여쭙어 해서(海西)의 상정 전미(詳定田米) 2천 석을 운허 받았는데, 혜청 당상 홍봉한(洪鳳漢)이 경청(京廳)의 전미를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대조께서 경청에 저축된 것이 수량이 차지 않았으면, 소조에게 품의하여 다시 해서의 쌀을 청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이번에 혜청에서 보낸 것은 3백 석뿐이니, 청컨대 대조께서 하교하신 대로 해서의 쌀 1천 7백 석을 가져다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 83권 31년 2월 24일 戊辰

問金沆, 沆供: “庚午年, 臣與林國薰、尹光哲、李孝植、林天大五人作稷, 士人則不能拊据錢穀, 故以官吏二人, 入其中矣.” 沆與介奉面質, 介奉卽志奴子也. 介奉曰: “汝與李孝植、林天大, 稱以稷會, 連夜來會, 今年正月夜, 亦來會, 夜分而歸, 羅州一城中人, 皆以爲其相親殊常矣.” 沆與天大面質, 天大曰: “去十二月屠牛時, 諸人欲飲酒出去後, 汝謂我‘以汝與我, 皆親於尹持平家, 而志頻頻以不緊語語我, 其事亦不妨, 故我方募人, 而汝亦能得幾人耶? 得入之道, 實不在他, 稱結稷, 聚多人好矣.’ 我云‘求之固難,

而試當求募矣.” 沆曰：“屠牛事果有之，而其日大風雪，何可爲此言乎？” 天大曰：“其時汝豈不謂我‘以尹持平，以無端事久謫，他人皆解謫，而彼獨未解可矜。其所言頗無妨，而舉事不可獨爲，吾方求得人，汝亦求得爲可’云乎？” 沆曰：“設有是事，酒會中豈爲此言乎？” 天大曰：“志常爲我言，‘汝亦須得人，如金生員稷’，而庚午結稷，始不過殖錢而已，自昨年後，始有此議，汝豈可謂不知乎？” 刑推沆與天大，又面質，天大曰：“汝之夜不來志家云者，千萬無據，正月喫牛肉之日，獨非夜會耶？” 又曰：“去臘月，汝與孝植夜會志家，仍與同歸，非但夜往，晝亦無日不往，志常處於內舍廊，汝往則必引入。從容一日吾欲尋汝，則汝在於志之內舍廊，夜或逢汝問之，則以爲自尹持平家來矣。” 沆曰：“稷會不過一年二次，以此謂我常往乎？” 天大曰：“稷會二次，是常往之事，而其外又不知其幾次往來矣。” 沆語屈。加刑肆惡，不着名，書刑殺二字，語極獷悖，尋物故。兩司啓請孥籍，上命依亂言律，只籍產。

김항(金沆)을 신문하니, 김항이 공초하기를,

“경오년에 신이 임국훈·윤광철·이효식·임천대 5인과 계를 만들었는데, 사인(士人)은 전곡(錢穀)을 길거(拮据)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 두 사람을 그 계중(中)에 들어오도록 하였습다.”

하므로, 김항과 개봉(介奉)을 면질(面質)하게 하였는데 개봉은 바로 윤지(尹志)의 종이다. 개봉이 말하기를,

“네가 이효식·임천대와 계회(會)를 핑계대고 밤마다 와서 모였으며 금년 정월의 어느날 밤에도 와서 모였고 밤중이 되어서야 돌아갔는데, 나주의 온 성중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

하였다. 김항과 임천대를 면질하게 하니, 임천대가 말하기를,

“지난 12월 소를 잡았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술을 마시려고 나간 뒤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너와 내가 윤지평(尹持平)의 집안과 모두 친하다고 하여 윤지가 자주 긴요하지 않은 말로 내게 말을 하였는데, 그 일 또한 해롭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야흐로 모집하는데 너도 몇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사람을 얻는 방법은 실제로 다른 데에 있지 않으니 계를 만든다고 핑계대면서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좋다.’고 하기에, 내가 ‘구하기는 진실로 어렵지만 시험 삼아 모집해 보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하였다.”

하니, 김항이 말하기를,

“소를 잡은 일은 정말로 있었지만 그 날은 바람이 심하게 불고 눈이 내렸는데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였다. 임천대가 말하기를,

“그때에 내가 나에게 ‘윤지평이 아무런 까닭도 없는 일로 오래도록 귀양살이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모두 귀양에서 풀렸지만 그만 유독 풀려나지 않으니 가엾게 여길 만하다. 그가 말하는 바는 자못 방해되지 않지만 거사(擧事)는 혼자서 할 수 없기에 내가 바야흐로 사람을 구하고 있으니, 너도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하니, 김항이 말하기를,

“설사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술을 마시려고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이 말을 하겠는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가?”

하였다. 임천대가 말하기를,

“윤지가 항상 나에게 말하기를, ‘너도 모름지기 사람을 모아 김 생원계(金生員契)처럼 하라.’고 하였는데, 경오년에 계를 만든 것은 처음에는 돈을 늘리는 데 불과했을 뿐이며, 작년 뒤로부터 처음으로 이런 의논이 있었는데 네가 어찌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였다. 김항과 임천대를 형추(刑推)하고 또 면질하게 하니, 임천대가 말하기를,

“네가 밤에 윤지의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너무나 근거가 없으며, 정월에 쇠고기를 먹던 날 혼자 밤에 모이지 않았던가?”

하고, 또 말하기를,

“지난 선달에 네가 이효식과 밤에 윤지의 집에 모였다가 인해서 함께 돌아갔으며, 밤에 갔을 뿐만 아니고 낮에도 가지 않은 날이 없었고, 윤지는 늘 내사랑(內舍廊)에 거처하였는데, 네가 가면 반드시 조용히 끌어들었다. 어느날 내가 너를 찾으려고 하니, 네가 윤지의 내사랑에 있기에 밤에 더러 만나 물으면 윤지평의 집에서 왔다고 하였었다.”

하였다. 김항이 말하기를,

“계회(會)는 1년에 두차례에 불과한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늘 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자, 임천대가 말하기를,

“두 차례의 계회에는 늘 가는 일이고, 그 밖에 또 몇 차례나 왕래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였는데, 김항이 말을 못하였다. 형신을 가하자 악한 성질을 마구 부려 이름을 붙일 수 없어 ‘형살(刑殺)’ 두 글자를 썼는데 말이 매우 흉악하고 도리에 어긋나더니 얼마 있다가 물고(物故)되었다. 양사(兩司)에서 노적(籍)하도록 계청(啓請)하니, 임금의 난언율(亂言律)에 의거하여 단지 재산만 적몰(籍沒)하도록 명하였다.

### ▶ 87권 32년 2월 25일 癸亥

上召見禮曹判書李成中、廣州留守洪鳳漢。上曰：“漢高祖太牢祀孔子之前，亦有能知尊聖師者耶？秦則必不爲此，秦以前則當未遑矣。”承旨蔡濟恭曰：“漢高之前，誰能爲此耶？”上曰：“太牢之祀，非漢高不能矣。卿等亦見漢高文章乎？予曾見古人爛編，多有漢高之作，而文章高矣。”李成中曰：“臣等未得見之矣。”濟恭曰：“雖以『大風歌』見之，可知其文章之非後人所可及矣。”上曰：“漢高何嘗學書於人而能之耶？”成中曰：“古人以言語發爲文章矣。”因命書綸音，略曰：

今番酌獻，無異釋菜。漢高以皇帝之尊，太牢祀先師。酌獻時親奠酌于四聖，以彰四聖之道，令儀曹舉行。此是特教，常時則一依『五禮儀』舉行。啓聖祠特遣都承旨奠酌。

又教曰：“昔光武能右文，而漢末清節，使奸雄戢伏。右文之道，王政宜先，其欲右文，宜先于本。海東道學始於圃隱，于今躬酌四聖之日，宜有尊慕之道。圃隱廟遣承旨致祭，以表予崇儒重道褒揚精忠之意。”仍命入『五禮儀』序例卷覽之。上曰：“古之文書，尙如是

錯誤矣. 配位初獻, 以議政爲之, 亞、終獻, 以正位亞、終爲之, 則王世子當在議政下耶? 以正位亞、終獻, 爲配位初亞獻然後方是矣. 癸丑始行視學, 而猶未的知古例. 設饌、講學, 而講學者何暇食耶? 今見『五禮儀』, 亦不可知矣. 侍講官之義亦如何? 似晝講或殿講矣.” 成中曰: “臣未之知矣. 今始見之, 果然矣.” 上曰: “侍講之義, 終未可知矣. 若如『五禮儀』, 則似無柁籤與試官也.” 仍命注書, 往問俞拓基、金在魯以奏. 鳳漢曰: “廣州軍餉, 蓋爲緩急之需, 自丙子以後, 百餘年之間其所儲蓄僅爲十數萬石, 聚穀之難, 類如是矣. 荐值凶歉, 太半耗縮, 卽今見在之數, 不過六萬餘石, 誠不勝其寒心. 又於此數中除出萬石, 給糶於畿邑事, 日前自備局覆奏啓下. 臣所當具由防啓, 而朝令既頒, 勢難還寢. 畿民遑急, 義在共濟, 今雖黽勉舉行, 待秋成令各該邑, 領民還納於本城, 預爲知委似宜矣.” 上可之.

임금이 예조판서 이성중(李成中)·광주유수 홍봉한(洪鳳漢)을 소견(召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태뢰(太牢)로서 공자(孔子)를 제사지내기 전에 또한 능히 성사(聖師)를 존숭(尊崇)할 줄을 알았겠는가? 진(秦)나라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진나라 이전에는 그럴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하니, 승지 채제공(蔡濟恭)이 말하기를,

“한나라 고조 이전에 누가 능히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태뢰 제사는 한나라 고조가 아니면 능히 할 수 없었다. 경(卿)들은 또한 한나라 고조의 문장을 보았는가? 내가 일찍이 고인(古人)의 난편(爛編)을 보니, 한나라 고조의 작품이 많이 있었는데 문장이 높았다.”

하니, 이성중이 말하기를,

“신 등은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채제공은 말하기를,

“비록 대풍가(大風歌)로서 보더라도 그 문장이 후세 사람의 미칠 바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나라 고조가 어찌 일찍이 남에게서 글을 배워 그렇게 능했었겠는가?”

하니, 이성중이 말하기를,

“옛날 사람은 말을 꺼내면 문장이 되었습니다.”

하였다. 인하여 윤음(綸音)을 쓰라고 명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금번 작헌(酌獻)을 보았더니, 석채(釋菜)와 다름이 없었다. 한나라 고조는 황제의 존귀(尊貴)함으로서 선사(先師)께 태뢰로 제사를 지냈다. 작헌할 때는 사성(四聖)에게 친히 전작(奠酌)하여 사성의 도를 밝힐 것이니, 의조(儀曹)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그러나 이는 특교(特敎)이니, 평상시에는 한 결 같이 『오례의(五禮儀)』에 의거하여 거행하라. 그리고 계성사(啓聖祠)에 특별히 승지를 파견하여 전작하게 하라.”

하였다. 또 하고하기를,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옛날 광무제(光武帝)는 능히 문교(文教)를 숭상하여 한나라 말기의 청절(淸節)이 간웅(奸雄)을 즈복(伏)케 하였다. 문교를 숭상하는 도(道)는 왕정(王政)에서 마땅히 먼저 해야 할 것인데, 문교를 행하려면 마땅히 근본을 먼저 해야 한다. 해동(海東)의 도학(道學)은 포은(圃隱)에게서 시작하였으니, 지금 몸소 사성(四聖)에게 전작하는 날에 받들어 사모하는 도가 있어야 마땅하다. 포은의 사당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여 내가 유도(儒道)를 존숭하고 충절(忠節)을 포양(褒揚)하는 뜻을 표하게 하라.”

하였다. 이어 『오례의』 서례권(序例卷)을 들여오라고 명하고 열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의 문서에도 오히려 이같이 착오(錯誤)가 있다. 배위(配位)에 초헌(初獻)은 의정(議政)이 하도록 하고, 아헌(亞獻)·종헌(終獻)은 정위(正位)의 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으로 하게 한다면, 왕세자는 마땅히 의정 아래에 있어야 하는가? 정위의 아헌관·종헌관을 배위의 초헌관·아헌관으로 한 뒤에야 옳게 될 것이다. 계축년에 비로소 시학(視學)을 행하였지만, 아직도 고례(古例)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설찬(設饌)과 강학(講學)을 한다 했는데, 강학하는 사람들이 어느 겨를에 먹는단 말인가? 지금 『오례의』를 보았지만 역시 알 수가 없다. 시강관(侍講官)의 뜻은 또 어떠한가? 주강(晝講)과 비슷하기도 하고 혹 전강(殿講)과 비슷하기도 하다.”

하니, 이성중이 말하기를,

“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처음 그것을 보았는데, 과연 그러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시강의 뜻은 끝내 알 수 없구나. 만약 『오례의』와 같다면 생첨(籤)과 시관(試官)이 없는 것 같다.”

하고, 이어서 주서(注書)에게 명하여 유척기(兪拓基)·김재로(金在魯)에게 가서 물어 아뢰라고 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광주(廣州)의 군향(軍餉)은 대개 완급(緩急)의 수요(需要)가 되는데, 병자년 이후로 백여 년간 저축한 것이 겨우 십수만 석(石)이니, 곡식 모으기의 어려움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연달아 흉년을 당하여 태반이 줄어들어 지금 남아 있는 숫자는 6만여 석에 불과하니, 진실로 한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수량 가운데에서 만 석을 털어내어 기읍(畿邑)에 조곡(穀)으로 지급한 일을 일전에 비국에서 복주(覆奏)하여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신이 마땅히 이유를 갖추어 방계(防啓)했어야 하나 조정의 명령이 이미 반포되었으니, 환침(還寢)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기민(畿民)이 황급한 형편에 있어 의리상 함께 구제해야 할 것이니, 이제 비록 힘써 거행하겠지마는, 추수(秋收)를 기다렸다가 각 해읍(該邑)으로 하여금 백성을 거느리고 본성(本城)에 환납(還納)케 함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 87권 32년 2월 26일 甲子

甲子/辰時, 上由集春門, 詣文廟, 具冕服, 行酌獻禮. 訖, 仍御明倫堂, 製下綸音, 曰: 昔我皇朝高皇帝, 書(太)〔大〕學(行)〔衍〕義於殿廡, 以代丹青, 猗歟盛哉! 于今士習

之不古，專由於『大』、『小學』之教不行而然也。頃在壬寅歲，予年廿九始學，而講『大學』經一章矣。我朝視學之法，卽倣漢明橫經問難之義。今予靜攝之中，強而行此者，體昔年右文之盛意也。命元良代理，雖撤法講，而近者時或講經，亦體孔聖好學之意也。于今望七之年，效漢高太牢祀孔子之意，躬酌獻于四聖，坐此堂而視學。大抵士之不讀書，今世之痼弊。噫！予雖涼德，於元良在君父之位，於諸生有君師之道焉。以予之氣，其復視學，豈易乎哉？其雖淺學，先行躬率之義，先讀朱夫子『大學』序，次試講書官、本館官及儒生，先諭此意。吁嗟！青衿咸須知悉，其各勉焉。

命承旨，以此宣諭於在庭諸生。又諭之曰：“今人不讀書，『小學』灑掃應對等節，雖似微細，皆治平之本矣。”上親讀『大學』序。畢，儒臣及諸生之被抄於講生者，以次講『詩傳』，上問難文義。至日暮，命大司成率兩掌議入侍，親製小序，書『大學』卷首，賜太學。遂下教曰：“代理之後，無法講之事，而今予視學者，亦有深意。儒生之不讀書，誠痼弊也。大成殿在前，況此冊有先師心法，可不讀而師之乎？皇朝二字，今年尤有深意，爾等其勉之。”遂命大司成，率儒生謝恩。禮畢還宮，駐輦碑閣，命承旨蔡濟恭高聲讀碑，諭掌議曰：“元良入學時建此碑，今年尤所當飭。碑面卽宗師之訓，諸生無以予言視之也。觀今日朝廷，似無告厥成功之氣像。孔子誅少正卯，不過以亂政。況今則有亂國之漸，孔聖若在，不知誅幾箇少正卯。當自賢關，先勅汝等，子子孫孫，毋使有少正卯。亦勿以今番從享爲幸，思其本源可也。歸而讀書。書中自有汝師矣。”

진시(辰時)에 임금이 집춘문(集春門)을 거쳐 문묘(文廟)에 나아가 면복(冕服) 차림으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예를 마치자, 이어서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 윤음(綸音)을 지어 내렸는데, 이르기를,

“옛날 우리 황조(皇朝)의 고황제(高皇帝)는 전무(殿)에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써서 단청(丹青)을 대신하였으니, 아! 거룩하도다. 오늘날 사습(士習)이 옛날 같지 아니한 것은 오로지 『대학(大學)』·『소학(小學)』의 가르침이 행해지지 아니한 데서 말미암아 그런 것이다. 지난 임인년에 내 나이 스물아홉에 학문을 시작하여 『대학』 1장(章)을 강(講)하였다. 우리나라 시학(視學)의 법(法)은 한(漢)나라 명제(明帝)의 횡경(橫經) 문난(問難)의 뜻을 본뜬 것이다. 지금 내가 정섭(靜攝)하는 가운데 억지로 이를 행하는 것은 옛날 문교(文教)를 숭상하던 성대한 뜻을 본받는 것이다. 원량(元良)에게 대리(代理)를 명하고 비록 법강(法講)을 그 만두었으나, 근래에 때때로 혹 경서(經書)를 강론(講論)하였으니, 또한 공성(孔聖)의 학문을 좋아하던 뜻을 본받는 것이다. 지금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한나라 고조가 공자에게 태뢰(太牢)로써 제사를 지낸 뜻을 본받아 몸소 사성(四聖)께 작헌(酌獻)하고 이 명륜당에 앉아 시학(視學)하노라. 대저 선비가 독서하지 않는 것은 금세(今世)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아! 내가 비록 부덕하나 원량에게는 군부(君父)의 위치에 있으며 여러 유생(儒生)에게는 군사(君師)의 도(道)가 있다. 나의 기력으로 이후 다시 시학(視學)함이 어찌 쉽겠는가? 비록 얕은 학문이 지마는 몸소 시범(示範)하는 의(義)를 먼저 행하여, 우선 주부자(朱夫子)의 『대학』 서문(序文)을 읽고 난 다음 강서관(講書官)과 본관(本館)의 관원 및 유생(儒生)을 시험하려고 먼저 이 뜻을 하유하노라. 아! 청금(靑衿)은 모름지기 다 알아 각각 힘쓰도록 하라.”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하고, 승지에게 명하여 이를 뜰에 있는 여러 유생들에게 선유(宣諭)하게 하였다. 또 하유하기를,

“지금 사람들이 독서하지 않으니, 『소학』의 ‘쇄소(灑掃)’·‘응대(應對)’ 등의 절차는 비록 미세한 듯하나 모두 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근본이다.”

하고, 임금이 직접 『대학』 서문을 읽었다. 읽기를 마치자, 유신과 여러 유생 중에서 강생(講生)으로 뽑힌 사람들에게 차례로 『시전(詩傳)]을 강하게 하고, 임금이 어려운 문의(文義)를 물었다. 날이 저물자 대사성(大司成)에게 명하여 두 장의(掌議)를 인솔해 입시하도록 하고, 직접 소서(小序)를 지어 『대학』 책머리에 써서 태학에 하사하였다. 드디어 하교하기를,

“대리한 뒤로 법강(法講)의 일이 없다가 이제 내가 시학(視學)하니, 또한 깊은 뜻이 있다. 유생이 독서하지 않음은 진실로 고질적인 병폐이다. 대성전(大成殿)이 앞에 있으며 더욱이 이 책은 선사(先師)의 심법(心法)이 실려 있으니, 읽지 않고 스승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황조(皇朝)’ 두 글자는 금년에 더욱 깊은 뜻이 있으니, 너희들은 힘쓰도록 하라.”

하고, 드디어 대사성에게 명하여 유생을 인솔하여 사은(謝恩)하게 하였다. 예를 마치고 환궁하다가 비각(碑閣)에 연(輦)을 멈추어 승지 채제공(蔡濟恭)에게 높은 소리로 비문을 읽으라 하고 장의에게 하유하기를,

“원량이 입학(入學)했을 때 이 비를 세웠으니, 금년에는 더욱 마땅히 신칙해야 할 것이다. 비면(碑面)은 종사(宗師)의 가르침이니, 여러 유생들은 나의 말이라 보지 말라. 오늘날의 조정을 보건대, 성공(成功)을 고하는 기상이 없는 듯하다. 공자가 소정 묘(小正卯)를 죽인 것은 난정(亂政) 때문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더욱이 지금은 난국(亂國)의 징조가 있으니, 공성(孔聖)이 만약 살아 있다면 몇 사람의 소정 묘를 죽일지 알 수 없다. 마땅히 현관(賢關)에서 먼저 너희들에게 신칙하니,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소정 묘가 있게 하지 말라. 또 금번 종향(從享)을 행운으로 여기지 말고 그 본원(本源)을 생각하는 것이 옳다. 돌아가 독서하라. 책속에 자연히 너의 스승이 있다.”

하였다.

### ▶ 87권 32년 3월 28일 丙申

丙申/藥房入診. 都提調俞拓基請命攝夏享, 上曰: “當觀氣候之如何, 可爲則爲之, 不可爲則不爲矣.” 上命禁推違牌玉堂, 教曰: “近日時或召見儒臣, 而不曰召對、晝講者, 蓋以先朝丁酉以後不行故也. 先朝所不行之事, 予不欲創行, 故近日雖不開筵, 而儒臣之連爲闕直, 極爲非矣.” 仍命諸承旨讀上言. 上曰: “故相李頤命, 聞躬臨之教, 卽日入城矣, 今之大臣, 承此下教而不爲入來. 予雖欲躬臨, 豈可往果川圉圉乎? 縣獄待命, 始於李光佐, 其前則無之矣. 光佐之每事, 皆以爲非, 而獨於此事效之, 予則笑之.” 命關東釐正御史李最中讀書啓, 上曰: “淮陽、金城空穀幾何?” 最中曰: “淮陽則五千石內, 空穀爲四千石; 金城則四千石內, 空穀爲一千石. 初則欲盡爲燒火, 更思之, 雖曰空穀, 累千石之一時燒火, 殆近於暴殄天物, 別爲封置於外庫而來矣.” 上命均給民人, 以飼農牛, 并



爲蕩滅. 又因最中陳達, 關東留庫還穀, 分數加分, 俾助饑民種糧. 賑穀加劃, 亦令備局稟處.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도 유척기(兪拓基)가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섭행(攝行)토록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기후(氣候)가 어떠한지를 보아, 할 만하면 하고 못할 것 같으면 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패초(牌招)를 어긴 옥당관(玉堂官)을 금추(禁推)하라고 명하고, 하교하기를,

“근래에 때때로 유신(儒臣)을 소견(召見)하였으나, ‘소대(召對)’니 ‘주강(晝講)’이니 하지 않은 것은 대개 선조(先朝) 정유년 이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조께서 행하시지 아니하던 일을 내가 처음으로 만들어 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요사이 비록 경연을 열지는 아니하였지만, 유신이 연달아 꺾직(闕直)하는 것은 지극히 그릇된 일이다.”

하였다. 이어서 여러 승지에게 상언(上言)을 읽으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고 상신(相臣) 이이명(李命)은 임금이 몸소 임한다는 하교를 듣고 그날 즉시 도성으로 들어왔지만, 오늘날의 대신은 이런 하교를 받들고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내 비록 몸소 임하고자 하더라도 어찌 과천(果川)의 감옥까지 갈 수 있겠는가? 현옥(縣獄)에서 대명(待命)한 것은 이광좌(李光佐)에게서 시작되었고,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광좌의 모든 일에 대해 죄다 그릇되었다고 하면서도 유독 이 일에 있어서는 본받으니, 내가 그것을 비웃는다.”

하였다. 관동이정어사(關東釐正御史) 이최중(李最中)으로 하여금 서계(書啓)를 읽으라고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회양(淮陽)·김성(金城)의 빈 껍질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이최중이 말하기를,

“회양은 5천 석 안에 빈 껍질이 4천 석이고, 김성은 4천 석 안에 빈 껍질이 1천 석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불태워버리고자 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았더니, 비록 빈 껍질이라 하더라도 수천 석을 일시에 불태운다면, 거의 하늘이 내려 준 물건을 마구잡이로 없애는 데 가까운 것 같아 따로 외고(外庫)에 봉해 두고 왔습니다.”

하자, 임금이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 농우(農牛)에게 먹이고, 모두 탕감해 주라고 명하였다. 또 이최중의 진달로 인하여 관동의 창고에 남겨둔 환곡을 수대로 나누어 더 분배하여 굶주린 백성들의 종자와 양식을 돕도록 하였다. 그리고 진곡(賑穀)을 더 획급(劃給)하는 것도 또한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 ▶ 89권 33년 1월 16일 戊申

戊申/上御明政門, 行朝參, 令東、西班各陳弊瘼, 監察張翰鳳, 以聖意自強、東宮勸學仰勉, 且陳擇守令之意, 上獎之, 命調右職. 戶曹判書閔百祥言: “關東、湖西兩道臣, 於年分田摠報勘之狀, 以查陳免稅等名色, 計除於比摠之內者, 有違事目.” 上命拿問兩道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臣. 左議政金尙魯言荒歲勸農爲急務, 及此春耕將始之時, 陳田起耕事, 不可不另加申飭. 陳田無論肯耕不肯耕, 量給種糧, 一一勸耕, 降等、降續一一親審, 毋或相混事, 分付各道. 當此飢荒, 窮民必不能保有農牛, 屠宰之禁, 亦宜申嚴.” 上可之. 綾昌君櫛請東朝進宴, 尙魯以爲: “時當春賑, 不敢遽請矣.” 上曰: “予以望七之年, 上奉望八國母, 實往牒所罕. 大臣宜於歲首仰請, 而尙此寂然, 乃以春賑爲言, 誠慨然矣.”

임금이 명정문(明政門)에 나아가 조참(朝參)을 행하고 동반·서반으로 하여금 각기 폐단을 진달하게 하였는데, 감찰 장한봉(張翰鳳)이 성의(聖意)를 스스로 힘써 가다듬을 것과 동궁(東宮)은 학문에 힘쓸 것을 우러러 권면하고, 또 수령을 가려 뽑아야 한다는 뜻을 진달하니, 임금이 그를 포장(褒獎)하여 우직(右職)에 조용(調用)하도록 명하였다. 호조판서 민백상(閔百祥)이 말하기를,

“관동(關東)과 호서(湖西) 양 도의 도신이 연분(年分)하는 전지의 총계를 마감하여 보고하는 장계에서 묵은 땅을 조사하고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등의 명색(名色)으로 비총(比摠) 내에서 제하고 계산한 것은 사목(事目)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양 도신을 잡아다 추문(推問)하도록 명하였다.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

“흥년이 든 해에는 농사를 짓도록 권면하는 일이 급선무인데, 이렇게 춘경(春耕)이 장차 시작되려는 시기에 이르러 묵은 전지를 기경(起耕)하도록 하는 일을 별도로 더 신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묵은 전지는 기꺼이 경작하려 하거나 기꺼이 경작하려 하지 않는 것을 논하지 말고 씨앗과 양식을 헤아려 지급하여 일일이 경작하도록 권면하고, 강등(降等)·강속(降續)은 일일이 직접 살펴보아 혹시라도 서로 뒤섞이는 일이 없도록 각도에 분부하소서. 그리고 흥년을 당하여 곤궁한 백성들이 반드시 농우(農牛)를 보유할 수 없을 것이니, 도살[屠宰]을 금지하는 일 또한 거듭 엄중히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능창군(綾昌君) 이숙(李)이 동조(東朝)에 진연(進宴)할 것을 청하자, 김상로가 말하기를,

“봄철의 진흥하는 시기가 닳쳤으므로, 감히 갑자기 청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70세를 바라보는 나이로 80세를 바라보는 국모(國母)를 위로 받들고 있는데, 진실로 지난 사책에도 드문 바이다. 대신은 세수(歲首)에 양청(仰請)했어야 마땅한데,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바로 봄철의 진흥 때문이었다고 말하니, 참으로 매우 서글프다.” 하였다.

### ▶ 95권 36년 6월 2일 甲戌

甲戌/上, 詣社稷齋宿, 奉審壇所後, 仍省器省牲, 教曰: “昔年親享後, 月餘不御牛肉, 予嘗仰觀. 今欲奉審祭器, 入神廚門, 犧牲已捧, 牛在其中, 衆人環立. 此將爲宰牲而然也, 看來矜惻, 奚徒齊宣之心.” 受膳體重, 不可闕也, 今番只封羊肉, 以示予體昔年盛德

之意.”

임금이 사직단에 나아가서 재숙하고 단소를 봉심한 뒤에 이어 성기(省器)와 성생(省牲)을 한 다음 전교하기를,

“옛날 친향(親享) 뒤에 달포 동안 쇠고기를 들지 않는 것을 내가 우러러 본 적이 있다. 지금 제기를 봉심하려고 신주(神)의 문에 들어서니 희생이 이미 올라와 있는데, 소는 그 한 가운데에 서 있고 뭇사람들이 빙 둘러 서 있었다. 이는 희생을 도살(屠殺)하려고 그러한 것이니 보기에 불쌍하기가 제 선왕(齊宣王)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보고 불쌍히 여긴 심정 정도가 아니었다. 번육(肉)을 받는 것도 중대한 예식인 만큼 희생을 빼놓을 수는 없으니, 이번에는 양육(羊肉)만 올려서 지난날의 성덕(聖德)을 범받겠다는 나의 뜻을 내보이라.” 하였다.

## ▶ 98권 37년 12월 19일 癸未

上親製箕聖廟祭文，命重臣致祭．上命中官，持御筓以來曰：“此起敬處也．”仍整坐，命書傳教曰：“漢高過曲阜，以大牢祀孔子，此爲漢之四百年基業也．噫！箕聖非徒孔聖稱仁，我東禮樂文物，侔擬中華者，寔箕聖之遺澤也．昔年取『箕子志』，命繕寫而粧焉，予於侍湯時仰觀而欽慕．今命讀『東史』，於『箕聖』紀，不覺蹶然．七星門外，雖丁閣象設儼然，何日奠酌？若不敘懷，獨不愧於漢高乎？”致祭於箕聖墓，祭文製下，以判尹金陽澤差遣．

임금이 기성묘(箕聖廟)의 제문(祭文)을 친히 짓고 중신(重臣)에게 치제(致祭)를 명하였다. 임금이 중관(中官)에게 어립(御筓)을 가져오라고 명하며 말하기를,

“이는 경의(敬意)를 일으키는 곳이다.”

하고, 이어서 정좌(整座)하여 전교(傳敎)를 쓰라고 명하고, 이르기를,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곡부(曲阜)를 지나면서 대뢰(大牢)로써 공자에게 제사를 지냈으니, 이는 한나라의 4백 년 기업(基業)이 된 것이다. 아! 기성(箕聖)은 한갓 공자가 인(仁)을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방의 예악(禮樂文物)이 중국에 짝하여 비길 만한 것은 바로 기성의 유택(遺澤)이다. 예전에 『기자지(箕子志)』를 가져다 정서(淨書)하여 장책(粧冊)할 때에 우러러 보고 흠모(欽慕)하였다. 지금 『동사(東史)』를 읽으라고 명하고는 기성기(箕聖紀)에서 벌떡 일어남을 깨닫지 못하였다. 칠성문(七星門) 밖에 비록 정자각(丁字閣)과 상설(象設)이 엄연(儼然)하나 어느 날에 잔을 드리겠는가? 만약 심회를 펴지 못한다면 유독 한나라 고조에게 부끄럽지 않겠는가?”

하고, 기성묘(箕聖墓)에 치제(致祭)하게 하였으며, 제문을 지어 내리고 판윤 김양택(金陽澤)을 차정(差定)하여 보냈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 98권 37년 12월 23일 丁亥

上御景賢堂，晝講『中庸』，仍爲引見大臣備堂。領議政洪鳳漢，以喬桐御史書啓，請本府陳田四十六結，特爲降等，隨起收稅，又以北道監市御史狀啓，請穩城流民還集後，身役徭役，限五年蠲免，農牛數十隻，自朝家區劃，上曰：“農牛以州倉米劃給，以示予意。”禮曹判書南泰齊曰：“日昨以嘉禮五禮，皆行於景賢堂，而御絳紗袍爲教，而臨軒戒時，自上御冕服，玉世孫亦具冕服，受戒後仍以其服親迎者，乃禮文所載。蓋醺戒，四禮中最重，故上服亦用冕服，可見制禮之本意。今雖行禮於便殿，服色似當依古禮行之。”上從之。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주강(晝講)하여 『중용(中庸)]을 강하고, 이어서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교동어사(喬桐御史)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본부(本府)의 진전(陳田) 46결(結)을 특별히 등급을 내리되 기경(起耕)함에 따라 세금을 거둘 것을 청하였고, 또 북도(北道) 감시어사(監市御史)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온성(穩城)의 유민(流民)이 돌아와 안집(安集)한 뒤에는 신역(身役)과 요역(役)을 5년을 한도로 면제(免除)하고 농우(農牛) 수십 척(隻)은 조정에서 구획(區劃)해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농우는 고을 창고의 쌀을 획급(劃給)하여 나의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예조판서 남태제(南泰齊)가 말하기를,

“일전(日前)에 가례(嘉禮)와 오례(五禮)를 모두 경현당(景賢堂)에서 행하되 강사포(絳紗袍)를 착용(着用)하겠다고 하교하시고, 헌함(軒檻)에 임하여 초례(醺禮)에 대해 서계(誓戒)할 때에 성상(聖上)께서 면복(冕服)을 착용하고, 왕세손도 또한 면복을 착용하며, 서계를 받은 뒤에 이어서 그 복장으로 친영(親迎)하는 것은 곧 예문(禮文)에 실려 있는 바입니다. 대개 초례에 대해 서계함은 사례(四禮)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복(上服)도 또한 면복을 썼으니 예를 제정(制定)한 본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비록 편전(便殿)에서 예를 행하더라도 복색(服色)은 고례(古禮)에 의하여 거행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 99권 38년 3월 1일 甲午

上召見禮堂。上曰：“皇壇用黑牲可也。”金時默曰：“考出『大明集禮』，則用黑牛矣。”上曰：“今用黃牛，而只用牛頭羊豕各一，蓋出於享天用特之意耶？予嘗疑皇壇六佾之非禮，更思之，乃祭以土之義也。”上曰：“大臣力請攝行，而皇恩報答之道，惟在於皇壇將事。況今年距甲申只一年，此心難抑，何可攝行乎？”

임금이 예당(禮堂)을 소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단에는 흑생(黑牲)을 써야 한다.”

하니, 김시묵(金時默)이 말하기를,

“『대명집례(大明集禮)』를 상고해 보았더니, 흑우(黑牛)를 썼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은 황우(黃牛)를 쓰는데, 단지 우두(牛頭)와 양(羊)·시(豕)를 각 하나씩만 쓰고 있으니, 대개 하늘을 제사할 때에 특생(特牲)을 쓰는 뜻에서 나온 것인가? 내가 일찍이 황단에서 육일(六佾)을 쓰는 것은 예(禮)가 아니라고 의심해 왔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사(士)를 제사하는 뜻이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이 섭행하기를 힘써 청하는데, 황은(皇恩)에 보답하는 도리는 오직 황단에 제사하는데 있다. 더군다나 금년은 <명나라 의종이 몰(歿)한> 갑신년<2주갑(周甲)>과는 1년의 간격(間隔)이 있어 내 마음을 억제하기가 어려운데, 어찌 섭행해야 되겠는가?”

하였다.

## ▶ 107권 42년 8월 24일 辛酉

辛酉/上親傳懿陵忌辰祭香於崇政殿庭，還御月臺，召司畜署官員，諭以今番進宴，若宰一牛，則當用守令犯屠之律。命宣傳官，招集城內外流丐，付賑恤廳軍資監，限二十日善饋以待命，通衢庶民耆老宴，考例舉行。又敕曰：“昔麥丘老人，豈不喻於齊桓公乎？君臣一堂同禮，此輩困窮，豈『孟子』與民同樂之意？況誦昔年肌膚何惜之教，今不繼述乎？此文王仁政也。試射頒賞後，當殿座興化門，施恤四民，漢城府預爲詳抄，兩都八道，亦爲分付。”

임금이 의릉(懿陵)의 기신제(忌辰祭)에 쓸 향(香)을 승정전 뜰에서 친히 전하였다. 도로 월대(月臺)에 나아가 사축서(司畜署) 관원을 불러, 이번 진연(進宴)에 만약 한 마리의 소라도 잡으면 마땅히 수령은 도살(屠殺)을 범한 율(律)을 적용한다고 유시(諭示)하였다. 선전관(宣傳官)에게 명하여 도성(都城)의 안팎 유개(流)를 불러 모아서 진휼청(賑恤廳)과 군자감(軍資監)에 부쳐 20일을 한정하여 잘 먹여 대명(待命)하게 하고, 통구(通衢) 서민의 기로연(耆老宴)은 전례를 상고하여 거행하게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예전 맥구노인(麥丘老人)이 제(齊)나라 환공(桓公)에게 깨우치지 아니하였던가? 임금과 신하가 한 당(堂)에서 같이 예(禮)를 행하는데, 이 무리는 곤궁하니, 어찌 맹자(孟子)의 백성과 즐거움을 같이하는 뜻이겠는가? 하물며 옛 해에 ‘살가죽인들 어찌 아끼겠느냐?’고 하신 하교를 외었는데, 이제 계술(繼述)하지 아니하겠는가? 이는 문왕(文王)의 어진 정사이다. 활쏘기를 시험하여 반상(頒賞)한 뒤에 마땅히 흥화문(興化門)에 전좌(殿座)하여 사민(四民)에게 진휼(賑恤)을 베풀겠으니, 한성부(漢城府)는 미리 자세히 초(抄)할 것이며, 양도(兩都)·팔도(八道)에도 또한 분부하라.”

하였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 108권 43년 1월 10일 乙亥

乙亥/上行朝講, 引見大臣備堂. 右議政金尙喆, 請久任春坊, 以責成效, 申飭賓客, 輪入書筵, 愼爵賞擇守令, 上嘉納. 禮曹判書申晦, 以親耕儀節, 王世孫當七推, 宗室大臣當七推仰達, 命冢宰以下, 皆以九推磨鍊, 太室告由, 當日舉行, 親耕時用黑牛, 習儀只一度舉行.

임금이 조강(朝講)을 행하고,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김상철이 춘방(春坊) 관원을 오래 유임시켜 효과를 이루기를 책임지우고, 빈객(賓客)을 신칙하여 윤번제로 서연(書筵)에 들어오게 하며, 작상(爵賞)과 수령의 선택을 신중히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예조판서 신회(申晦)가, 친경(親耕)하는 의절(儀節)은 왕세손은 마땅히 일곱 번 밀고, 종실(宗室)과 대신은 마땅히 아홉 번 밀어야 한다고 양달하니, 총재(宰) 이하는 모두 아홉 번 밀는 것으로 마련하고, 태실(太室)의 고유(告由)는 당일에 거행하되, 친경 때 흑우(黑牛)를 사용하며, 습의(習儀)는 한 번씩만 거행하도록 명하였다.

### ▶ 108권 43년 2월 28일 壬戌

壬戌/上幸南壇省耕, 王世孫隨駕. 命備堂侍立, 召見農民, 下詢農糧之有無. 命世孫進田畔看番, 仍命春坊官員入侍, 下詢曰: “世孫召見農民乎?” 文學李奎緯對曰: “王世孫親問農作之節, 勞苦之狀矣.” 仍行賓對於幕次. 左議政韓翼誓以民間農牛甚貴, 貧民有牛者少, 請使有牛者許借, 使之通功易事, 有無相濟, 右議政金尙喆, 請嚴禁中外役民之弊, 隨現論罪, 并允之. 大司憲安允行申前啓, 不允. 司諫李迪輔申前啓, 不允. 命大司憲安允行、大司諫沈璣, 司諫李迪輔罷職, 以允行・迪輔, 謄傳故紙, 璣昨參今不參也. 還宮時, 命校理趙琰廉察果川, 歷臨南關王廟, 教曰: “平生我愛壽亭, 公仰觀昔年御詩也.” 命致祭東南廟, 新備東南廟龍袍.

임금이 남단(南壇)에 행행하여 성경(省耕)하니, 왕세손이 수가(隨駕)하였다. 비국 당상에게 시립(侍立)을 명하고 농민을 불러보고 농사지를 양식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세손에게 밭 두렁에 가서 살펴보라고 명하고, 이어서 춘방(春坊) 관원의 입시를 명하여 하문하기를,

“세손이 농민을 불러서 보았는가?”

하니, 문학(文學) 이규위(李奎緯)가 대답하기를,

“왕세손께서 친히 농사짓는 절기와 노고의 정상을 물으셨습니다.”

하였다. 인하여 막차에서 빈대(賓對)를 행하였다. 좌의정 한익모가 민간의 농우(農牛)가 매우 귀하여 가난한 백성으로 소를 가진 자가 매우 적으니, 소를 가진 자로 하여금 빌려 주어 통공(通功)하는 것으로 품앗이를 하여 있고 없고 간에 서로 돕게 하기를 청하고, 우의정 김상철이 중외의 백성을 부리는 폐단을 엄금하여 드러나는 대로 논죄할 것을 청하였는데, 모

두 윤희하였다. 대사헌 안유행(安允行)이 전계를 거둬 아뢰었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사간 이적보(李迪輔)가 전계를 거둬 아뢰었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대사헌 안유행, 대사간 심발(沈), 사간 이적보를 파직하라 명하였는데, 안유행과 이적보는 고지(故紙)를 베껴서 전해 주었고, 심발은 어제는 참석했다가 오늘은 불참하였기 때문이었다. 환궁할 때에 교리(校理) 조준(趙)에게 과천(果川)을 염찰(廉察)하라 명하고, 남관왕묘(南關王廟)를 지나는 길에 들러 하교하기를,

“평생에 내가 수정공(壽亭公)을 사랑하였네.[平生我愛壽亭公]’라는 옛날 어시(御詩)를 우러러보는구나.”

하고, 동관왕묘와 남관왕묘에 치제(致祭)하고, 동관왕묘·남관왕묘에 용포(龍袍)를 새로 비치(備置)하라고 명하였다.

## ▶ 110권 44년 1월 12일辛丑

內局入侍. 敎曰: “春耕不遠, 酪粥停止. 其牛下送本縣用耕, 而纔取乳之牛, 入于屠肆, 豈仰體昔年青頭鴨之教乎? 當日下送用耕牛, 報內局事, 分付畿營.” 又敎曰: “噫! 豈特年深氣衰? 今年何年? 自前冬報春, 此心莫知幾層下矣. 以目下事觀之, 三陽回泰, 萬品皆蘇, 予莫知春. 頃者行禮, 於予誠僥倖. 禴祀蒸嘗雖不可言, [歲] 首展謁, 莫能起意, 此孝乎? 吁嗟! 大小臣工, 諒此心, 凡於祀典, 必誠必戒, 大小祭享, 莫敢退步, 副予此懷.”

내국에서 입시하였다. 하교하기를,

“봄같이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낙죽(酪粥)을 올리지 말라. 그 소는 본 고을로 내려 보내어 봄같이에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막 젖을 짰던 소를 도살장에 보낸다면 어찌 옛날 선왕께서 청등오리를 드시지 않았다는 가르침을 몸받은 것이겠는가? 당일에 봄같이에 사용할 소를 내려 보내도록 내국(內局)에 보고할 것을 경기 감영에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아! 어찌 나이가 많아 기운이 쇠약해졌을 뿐이겠는가? 올해가 무슨 해인가? 지난겨울에 봄이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이 마음이 몇 층이나 내려 앉은지 모를 정도였다. 목전(目前)의 일로 보건대 삼양(三陽)이 돌아와서 만물이 모두 소생하고 있는데도 나는 봄이 온 줄을 모르겠다. 지난번 예(禮)를 거행한 것은 나에게서 정말로 요행이었다. 약사증상(祀烝裳)의 예를 거행한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새해에 전알(展謁)하겠다는 생각도 나지 않으니, 이것이 효도란 말인가? 아! 대소 신료들은 이 마음을 살피어 모든 제사에 정성껏 하고 신중히 하여 대소의 제사에 퇴보하지 말아 나의 이 마음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 ▶ 110권 44년 1월 20일 己酉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引見大臣備堂. 領議政金致仁, 請分付諸道婚嫁喪葬之失時者, 隨便顧助, 允之. 致仁又請嚴飭私屠, 秋曹京兆諸堂, 一併重推, 允之.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여러 도에 혼사(婚事)나 장사(葬事)를 제때에 치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편리에 따라 돌보아주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윤허하였다. 김치인이 또 개인적으로 가축을 도살하는 것을 엄히 신칙하고, 추조(秋曹)와 경조(京兆)의 여러 당상을 일체 중하게 추고할 것을 청하였는데, 윤허하였다.

### ▶ 114권 46년 1월 25일 癸卯

癸卯/上御晝講. 以節候差早, 春耕不遠, 命停內局及耆社封進酪粥, 其牝牛亦令并犢即放. 又教曰: “國依於民, 民依於農, 而農之最緊者牛也.” 仍誦蔣冕老牛詩曰: “爲人終身勤勞, 而人則莫知其勞而屠宰, 是果仁術歟? 曾聞一故相, 以禁宰牛, 不食其肉. 而昔則諸臣宣醢, 不設牛肉, 予之禁內班院歲屠, 及每春入直軍犒饋, 例屠四牛, 而近皆除之, 亦此意也.” 遂有是命.

임금이 주강에 나아갔다. 절후(節候)는 조금 이르나 봄갈이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내의원(內醫院) 및 기로소(耆老所)에서 봉진(封進)하는 타락죽(駝酪粥)을 정지하라 명하고, 그 어미소도 송아지와 함께 곧 놓아주게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나라는 백성을 의지하고 백성은 농사에 의지하는데, 농사에 가장 긴요한 것은 소이다.”

하고, 이어 장면(蔣冕)의 노우시(老牛詩)를 외우고, 말하기를,

“소는 사람을 위하여 일생 동안 근로(勤勞)하였음에도 사람은 그 노고는 알아주지 않고 도살(屠殺)하니, 이것이 과연 인술(仁術)인가? 일찍이 듣건대 어떤 고 상신(相臣)이 소의 도살을 금하였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 옛날에는 여러 신하에게 선온(宣)함에 있어 쇠고기는 차리지 않았다. 내가 내반원(內班院)에서 해마다 도살하는 것을 금지한 것과 봄마다 입직(入直)하는 군사에게 호궐(饋)함에 있어 으레 4필의 소를 잡았는데, 요즘 모두 폐지시킨 것도 이러한 뜻이다.”

하고, 드디어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

### ▶ 114권 46년 2월 7일 甲寅

掌令崔崱上疏, 略曰:

“近來諸臣之說時務論君德者, 必須先下幾句好語, 宛轉說去, 左看右看, 一無圭角, 然後始敢投進, 一或有語非常腐, 意不陳冗, 輒示聲色, 過加譴斥. 初出愛君之忱, 終遭情外之教, 諸臣將何所利於身家, 而必陳逆耳之言哉? 保護湯劑時, 命退却, 效古繖覆, 輒



施譴罰，辭氣之間，未免過中，舉措之際，或致失當，臣竊不能無憾於天地之大也。夫牛松，國之大禁，守令宰殺，罪至罷官，生松一株，律有徙邊，大典之重，固可知矣，國綱漸弛，民不畏法，屠殺益甚，斧斤轉酷，瞻聆俱駭，有識寒心。噫！虞衡之政，三代所重，斧斤以時，可以養生送死。況自頃年蟲災以後，尤宜申飭。至於耕牛，即稼穡之本，勞其力而屠其肉，君子之所不忍。故程子至以年凶爲殺牛之致，此誠惻怛切至之言也。比來收牌之命屢下，此蓋同樂之盛意，出於賜酺之遺意。下民頑蠢，狃於無禁，私自椎屠，殆同日攘，不但有害於耕作，抑亦大關於紀綱，申加痛禁焉。”

批曰：“今者附陳，可見愛君。纔申飭內局，駱粥亦命停焉，意蓋此也。今則禁屠若前，豈有此弊？其於禁松，不若嚴禁牟利之輩，其令備局，或有此弊，嚴加痛懲可也。”

장령 최민(崔)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근래 여러 신하들이 시무(時務)를 말하고 군덕(君德)을 논함에 있어 반드시 먼저 몇 마디의 좋은 말을 하다가 이리저리 굴리면서 말을 만들어 왼쪽을 보나 오른쪽을 보나 조금도 모가 나지 않게 되어야만 비로소 감히 올리게 되며, 조금이라도 말이 정상적인 투식(套式)에서 벗어나거나 뜻이 순평(順平)하지 않으면 문득 성색(聲色)을 드러내어 지나치게 건책(譴責)을 가하십니다. 처음에는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에서 나왔으나 마침내는 뜻밖의 하교를 만나게 되니, 여러 신하들이 장차 자신과 가정에 무슨 이익이 된다고 임금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려 하겠습니까? 탕제(湯劑)를 돌보아 드릴 때면 물리치라 명하시고, 옛일을 본받아 성명(成命)을 거두기를 아뢰면 문득 책벌(責罰)을 내리시며, 사기(辭氣)의 가운데 중도(中道)에 지나침을 면하지 못하시고, 거조(舉措)의 즈음에는 간혹 타당성을 잃으시니, 신은 가만히 천지(天地)와 같은 크신 덕(德)에 섭섭함이 없지 않습니다. 무릇 소[牛]의 도살(屠殺)과 소나무의 남벌(濫伐)은 나라에서 크게 금하는 바로서 수령(守令)들이 소를 도살하는 경우 죄가 파직에까지 이르고, 산 소나무 한 그루를 베면 죄가 전가 사변(全家徙邊)의 율로 되어 있으니,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엄중함을 진실로 알 수 있을 것인데, 나라의 기강이 점점 해이해져 백성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소의 도살은 더욱 심하고 소나무의 벌채(伐採)는 갈수록 늘어나니 보고 듣는 자들이 모두 놀라워하고 식자(識者)들이 한심스럽게 여깁니다. 아! 산림 천택(山林川澤)에 대한 정책은 삼대(三代) 때에 소중히 여긴 바이니, 벌채를 때에 맞추어 하게 되면 생존한 자를 봉양하고 죽은 이를 장송(葬送)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근년의 충재(蟲災)를 입은 뒤부터 더욱 신칙함이 마땅합니다. 경우(耕牛)에 있어서는 곧 농사 짓는 근본인데, 그 힘을 부리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군자(君子)가 차마 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정자(程子)는 ‘흉년은 소를 도살한 소치(所致)이다.’라고까지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가엾게 여긴 간절한 말입니다. 요즈음 금패(禁牌)를 거두라는 명령이 여러 차례 내려졌는데, 이는 대체로 백성들과 같이 즐기려는 성대한 뜻이며, 사포(賜)의 전해 내려온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래 백성들은 미련하고 무식하여 금하지 않는 데에 버릇이 되어 사사로이 도살하기를 거의 매일처럼 하게 되니, 이는 다만 경작(耕作)에 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강에도 크게 관계가 되니, 거듭 통금(痛禁)을 가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지금 아뢴 내용에서 임금을 사랑함을 알 수 있다. 방금 내국(內局)에 신칙하여 낙죽(駱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粥)도 정지하라 명하였음은 뜻이 대체로 이에 있다. 지금은 도살의 금지를 전과 같이 하고 있으니, 어찌 이러한 폐단이 있겠는가? 그 금송(禁松)에 있어서는 모리배(牟利輩)들을 엄금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으니,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혹시라도 이런 폐단이 있으면 엄중히 처벌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 115권 46년 6월 18일 壬辰영

壬辰/敎曰: “近八暮年, 欲一省弊. 時原任備堂在京侍從臣皆入侍, 薇垣柏府牌招.” 上御延和門, 敎曰: “亂杖〔治〕盜之刑, 我國獨有, 極其慘毒, 予欲除焉. 其各陳之.” 諸臣一辭仰贊. 仍敎曰: “子曰‘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周有五刑, 而漢文除肉刑, 見明堂圖而唐宗除笞背, 至於亂杖, 五刑所無, 漢唐以後亦無. 噫! 壓膝格刑, 以次除去, 因重臣所奏, 又除朱杖撞問, 況亂杖乎? 雖非亂杖, 既有周牢, 自可嚴禁. 何必斷人足指, 然後法立歟? 張子西銘云, ‘民吾同胞, 物吾與也’, 雖下賤, 既全而生之, 其欲全而歸之, 常情也. 且玉石不辨之地, 無辜罹此刑, 毀傷其體者, 不知爲幾人, 興惟及此, 此心難耐. 噫! 四十六年臨御, 無一仁政, 今於暮年, 欲除歷代所無之刑, 臨門詢問, 僉議大同, 自今日京外亂杖之刑, 一切除之, 使吾民全而見其親, 以此敎, 載之『備考』.” 司諫李顯祚啓曰: “亂杖, 卽我國戢奸禁盜之刑, 而殿下臨門廣詢, 卽命除之, 欽恤惻怛之德意, 可以感動臣隣, 而有光簡冊. 昔齊宣王‘不忍殺觫之牛’, 而孟子稱之‘以是心足王’. 苟使孟子在於今日, 則其贊揚聖德, 容有極乎? 第今日藹然之德意, 只及於奸宄之小民, 而獨未及於搢紳世祿之臣. 噫! 我殿下, 以一時飭勵之聖意, 有罪者雖命竄謫, 非欲必置於死地. 而如濟州大靜黑山楸子島, 俱係遠惡, 流配相續. 茫茫溟海, 身載孤舟, 或有家有父母, 情理絕悲者, 其不倚檣而痛哭者幾希. 殿下若燭其眞境, 則必恤然而矜惻矣. 奸宄之不能全其父母之體, 猶爲聖心之憫惻, 以言獲罪之臣, 萬一有往而無還, 使其父母之體, 爲鯨〔鯢〕之食, 則其於好生之德, 果如何哉? 臣非敢欲以臣言, 仍廢海島之罰, 如減死酌處之類, 無所不可, 而至於三司之論事獲罪者, 雖非海島, 不患無竄配之地. 伏願下詢入侍諸臣, 裁處之.” 上曰: “所奏不無意焉. 不舉其名, 予亦是之矣. 一張一弛, 文武之道, 霜雪雨露, 其亦王政. 金若行外海島處分者, 一并以陸地配焉.”

하교하기를,

“여든이 가까운 늙은 나이에 와서 한 결 같이 폐단을 줄이고자 한다. 시암·원암의 비국당상과 서울에 있는 시종신은 모두 입시하고, 사간원과 사헌부도 패초(牌招)하라.”

하고, 임금이 연화문에 나아가 하교하기를,

“난장(亂杖)으로 도둑을 다스리는 형정(刑政)은 우리나라만이 있는 것으로, 하도 참독(慘毒)하여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바이니, 그것을 각기 개진하라.”

하니, 여러 신하들이 똑같은 말로 우러러 찬성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공자(孔子)의 말씀에, ‘정령(政令)으로 인도하고 형벌로써 바로잡으면 백성이 죄를 면하되 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하였고, 『주례(周禮)』에 오형(五刑)이 있으나 한(漢)나라 문제(文帝)는 육형(肉刑)을 제거하였으며, 당(唐)나라 태종(太宗)은 명당도(明堂圖)를 보고서 태배(笞背)를 제거하였으니, 난장에 있어서는 오형에도 없고 한·당(漢唐) 이후에도 없었던 것이다. 아! 압슬(壓膝)과 낙형(烙刑)을 차례로 제거하였고, 중신(重臣)의 아뢰므로 인하여 주장당문(朱杖撞問)도 또 제거하였는데, 더구나 난장이겠는가? 비록 난장이 아니더라도 이미 주리[周牢]가 있어서 나름대로 엄금할 수 있다. 어찌 꼭 사람의 발가락을 끊고 나서야 법이 시행된다는 말인가? 장자(張子)의 서명(西銘)에 이르기를, ‘백성은 나의 동포요 만물은 나와 함께한다.[民吾同胞 物吾與也]’ 하였으니, 아무리 하천인(下賤人)이라 하더라도 이미 온전히 태어났다면 그 육신을 온전히 가지고 돌아가려 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常情)이다. 그리고 옥석(玉石)을 가리지 못하는 처지에 죄 없이 이 형벌에 걸려들어서 신체를 다치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가 없으니, 생각이 여기에 미치매 이 마음을 억제하기가 어렵다. 아! 46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단 한 가지의 인정(仁政)도 베푼 것 없이 이제 노년(老年)에 와서 역대에 없었던 형벌을 제거하고자 하여 문에 나아와 순문(詢問)한 바, 여러 사람의 의논이 똑같으니, 오늘부터 경외(京外)의 난장형을 일체 제거하여 우리 백성들이 온전한 몸으로 제 아버지를 만나보도록 하고, 이 하교를 『문헌비고(文獻備考)』에 기재하라.” 하였다. 사간 이현조(李顯祚)가 아뢰기를,

“난장은 바로 간도(奸盜)를 금지하자는 우리나라의 형벌인데, 전하께서 연화문(延和門)에 임어하셔서 널리 자문을 구하여 곧바로 제거할 것을 명하시니, 백성을 돌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덕의(德意)는 신하들을 감동시키고 사책(史冊)에 빛을 낼 만합니다. 옛날 제(齊)나라 선왕(宣王)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소[之牛]를 차마 못보겠다.’고 한 것에 대해 맹자(孟子)는 칭찬하기를, ‘그러한 마음가짐이라면 왕천하(王天下)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맹자가 오늘날에 있었다면 성덕(聖德)에 대한 찬양이 어찌 한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거룩한 덕의가 간악한 소민(小民)에게만 미치고 유독 진신(摺紳)과 세록지신(世祿之臣)에게는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전하께서 일시 칙려(飭勵)하는 성의(聖意)에서 비록 죄 있는 자를 유배시키라고 명하였으나, 기어코 사지(死地)로 몰아 넣으려고는 하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이를테면 제주도(濟州島)의 대정(大靜)이라든가 흑산도(黑山島)와 추자도(楸子島)는 모두 멀고 나쁜 곳으로 유배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외로운 배에 몸을 싣고 나면, 더러는 집에 부모를 두고 와서 정리(情理)로서 아주 슬퍼하는 자가 뚝에 기대어 통곡하지 않는 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그 실정을 살피신다면 반드시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셔야 할 것입니다. 간악한 무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는 것도 전하께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면서, 간언(諫言)으로 죄를 얻는 신하가 만에 하나라도 한번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고래의 밥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성덕에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이 감히 신의 이 말로 해서, 해도(海島)로 유배하는 형벌을 그만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사형을 감하여 적절히 처리하는 일이라면 어느 것이든 아니 될 것이 없지만, 다만 일을 논하다가 죄를 얻은 삼사(三司)의 관원에 있어서는 비록 해도가 아니더라도 유배할 곳이 없다고 근심할 것은 없습니다. 옳드려 바라건대 입시한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보시어 참작하여 처리하소서.”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내용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이름을 들지 않은 점도 나 역시 옳다고 여긴다. 한번 죄고 한번 늦추는 것은 문치(文治)와 무위(武威)를 겸용하는 방법이고, 상설(霜雪)의 위엄과 우로(雨露)의 은택도 또한 왕도 정치의 한 부분이다. 김약행(金若行) 외에 해도로 처분한 자를 모두 육지로 정배 하라.”  
하였다.

### ▶ 115권 46년 11월 2일 甲辰

敎曰: “昔者 成湯, 恩及飛鳥, 予雖涼德, 豈不若齊宣? 今聞左相所奏, 因此大覺. 歲時禁牌, 至初春時, 已聞禁肉, 遍滿街道, 噫彼齊宣, 一牛猶矜惻, 況此乎? 令五部嚴飭.”  
蓋於日前, 有禁牌下敎閭里, 犯屠者狼藉, 左議政韓翼暮奏之也.

하교하기를,

“옛날 성탕(成湯)은 은혜가 나는 새에까지도 미치었는데, 내가 비록 덕이 없지마는 제(齊)나라 선왕(宣王)보다 못할 수야 있겠는가! 지금 좌상의 아뢰를 듣고 나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 세시(歲時)에 금패(禁牌)를 하는데도 초봄이면 벌써 금하는 고기가 가도(街道)에 가득히 찬다고 하니, 저 제나라 선왕은 한 마리의 소도 불쌍히 여겼는데, 더구나 이처럼 많은 소이겠는가? 오부(五部)로 하여금 도살을 엄중히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으니, 이는 일전에 금패(禁牌)를 내려 마을에 하교하였는데도 도살을 범한 자가 하도 많았기 때문에 좌의정 한익모(韓翼謨)가 이 일을 상주하였던 것이다.

### ▶ 116권 47년 1월 24일 丙寅

行夕講. 侍讀官李鎭衡進曰: “今當歲首, 連行朝參常參, 飭勵諮訪之意, 至及於禁旅, 而許多備堂, 無一人進前, 奏事誠爲慨然. 請伊日備堂, 一併推考.” 左議政韓翼暮曰: “牛是農家所重, 近來法禁解弛, 不但閭里私屠, 爲守令者, 無不犯禁. 方當農作, 請嚴飭京外.” 從之.

석강(夕講)을 행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이진형(李鎭衡)이 나아가 말하기를,

“지금 세초(歲初)를 당하여 연달아 조참(朝參)과 상참(常參)을 행하시어 경계하고 면려하며 의견을 묻는 뜻이 금려(禁旅)에까지 미치는데도, 허다한 비국 당상 가운데서 한 사람도 앞으로 나아가 일을 아뢰는 사람이 없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청컨대 그날의 비국 당상을 모두 추고(推考)하게 하소서.”

하였다. 좌의정 한익모(韓翼謨)는 말하기를,

“소[牛]는 바로 농가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바인데, 요즈음에 와서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

이 해이해져 여리(閭里)에서 사사로이 도살할 뿐만 아니고, 수령(守令)이 된 자가 금지하는 법을 범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바야흐로 농사철을 당하여 청컨대 서울과 지방에 엄중히 신칙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 118권 48년 1월 16일 壬子

掌令柳薰上疏, 略曰:

臣於年前, 不勝疾惡之腸, 略論洪相直之貪饕浮囂, 而噫彼狠怒, 久而不釋, 必欲陰中而後已, 果然報復之斥, 出於相直同開碁酒之伴. 臣雖疲軟, 豈忍與此輩交口呶呶也. 臣方乞免, 不宜贅他事, 在目下, 略效一日之責. 頃因前正言鄭景仁違牌, 傳旨之留滯, 使臺臣兩朔虛糜, 致勤聖教, 惟允之義, 顧安在哉? 臣謂其時當該承宣, 亟施遣罷之典可也. 臣伏見歲末傳教下者, 以歲時前三日後三日, 特命禁牌, 而頑民不遵朝令, 恣意屠買, 街路之上, 便開肉市, 而未聞秋曹京兆之禁, 抑何故也? 臣謂秋曹京兆堂上, 并推考可也. 向者嶺南金女, 爲父鳴冤, 誠孝所格, 聖心驚憐, 處分隨下, 聽聞有光. 第聽之與人之言, 又憑嶺人之來傳, 前後道臣之屢查決給, 不啻四五. 亦有春曹之覆啓蒙允, 皆與金女之言相反. 事端出於爭財, 立落亦關倫常. 罪如萬銖而終售奸僞之計, 冤如昌濬, 而遽被刑配之典云. 臣謂特命該曹, 詳考其文案, 亦不可不一番嚴查於本道而處之.

批曰: “承旨推考事依施. 末端事, 令道臣嚴查, 狀聞後稟處.”

장령 유훈(柳薰)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연전에 미워하는 마음을 금하지 못하여 홍상직(洪相直)의 탐욕스럽고 경박함은 대략 논했었는데, 아! 그가 한 노(怒)를 오랫동안 풀지 않은 채 반드시 음험하게 증상하려고 하더니, 과연<신을> 보복하는 배척이 홍상직과 같은 마을에서 바둑 두고 술 마시는 동료에게서 나왔습니다. 신이 비록 피연(疲軟)하다 하나, 어찌 차마 이 무리와 다룰 수 있겠습니까? 신이 바야흐로 해면(解免)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다른 일에 대해 쓸데없이 말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나, 현재의 일에 있어서 대략 1일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전(前) 정언 정경인(鄭景仁)은 패초(牌招)를 어기고 전지(傳旨)를 머물러 지체하였음으로 인해 대신(臺臣)으로 하여금 두 달 동안 헛되이 잡아 두게 하고 성교(聖敎)를 수고롭게 하였으니, 허락하시는 뜻이 돌아보건대 어디 있었습니까? 신은 당시의 해당 승선(承宣)에게 빨리 견과(譴罷)의 형전(刑典)을 시행하게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이 삼가 세말(歲末)에 내리신 전교를 보건대, 세시(歲時) 3일 전과 3일 후 동안 특별히 금패(禁牌)를 명하셨는데, 완악(頑惡)한 백성들이 조령(朝令)을 준수하지 않은 채 방자한 뜻으로 도살(屠殺)하여 거리에서 문득 육시(肉市)를 열어 놓고 팔면서 추조(秋曹)와 경조(京兆)의 금령(禁令)을 듣지 못했다고 한 것은 또한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신은 추조와 경조의 당상을 아울러 추고(推考)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영남의 김녀(金女)가 아버지를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성효(誠孝)가 성심(聖心)에 통하여 놀라 불쌍히 여기시고 처분을 내리시니, 청문(聽聞)에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빛이 있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복고 또 영남 사람이 와서 전한 것을 의거해보건대 전후에 도신이 여러 차례 조사하여 결급(決給)한 것이 4, 5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춘조(春曹)에서 복계(覆啓)하여 윤희 받은 것도 있었으나, 모두 김녀의 말과 상반(相反)되었습니다. 일의 단서는 재산을 다투는 데에서 나온 것들이었고, 입락(立落)한 것 또한 윤상(倫常)에 관계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죄는 만규(萬)와 같아서 마침내 간위(奸僞)의 계책을 이루었고, 억울함은 창준(昌濬)과 같아서 갑자기 형배(刑配)의 형전(刑典)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해조(該曹)에 특별히 명하여 그 문안(文案)을 자세히 고찰하게 하고, 또한 한번 본도에서 엄중하게 조사하여 처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승지를 추고하는 일은 아된 대로 시행하게 하라. 말단의 일은 도신으로 하여금 엄중히 조사해서 장문(狀聞)하게 한 후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 ▶ 119권 48년 7월 7일 庚子

庚子/掌令李師曾上疏, 論三水府邑弊民瘼:

其一, 邊民潛越採蔘之弊也. 三水一府府使及十一邊將, 各自嚴禁, 至有五日一點之規, 十一邊堡中, 羅暖堡、仁遮外堡、舊芻坡知堡、新芻坡知堡、小農堡、自作堡六堡邊將, 自五十年前, 闕點士卒, 徵捧杖贖, 一名之贖, 乃一錢蔘也. 每當採蔘之時, 兵使送幕裨點考, 則其亦徵捧贖蔘, 一依邊將之例, 府使送鄉任點考, 則其亦徵捧贖蔘, 又如營裨之例. 大抵五日一點之規, 自五月爲始, 至九月爲限, 本府一境, 或過百餘里, 或過數百里, 必使五日逢點, 則將不免廢其農務. 其二, 鹿茸進上時, 代錢濫捧之弊也. 三水地十一邊堡, 各有鹿茸一條, 而兵營審藥, 每爲退却, 必捧代錢, 而一條代錢, 多至五十四兩. 各堡初非用錢之地, 故邊將計無所出, 出債於北青商賈, 今年出債五十四兩, 則明年倍償以一百八兩, 分徵於該堡士卒, 而士卒或不過數十戶, 或不過十餘戶, 所業不過織布耕粟. 而以過百金倍償之債, 分徵於數十戶十餘戶之士卒, 辛苦所織之布, 所耕之粟, 亦不爲掩身糊口之資, 其勢將不能支保, 安得無離散也? 究其弊源, 則不可專咎於兵營審藥也, 實由於內局醫官以下胥吏輩, 濫捧情債之致耳. 其三, 三水府使, 以大同布換蔘料辦之弊也. 蓋本府田結捧稅之規, 近境小米, 遠境大同布, 而每年公用數爰, 歲末自本府文報於監營. 大抵公用, 多出於因公往來時, 卜馬雇賃, 故府使備立私馬, 替當往來之役, 而大同布則乃自取用. 其所取用之數, 不捧布匹, 代捧人蔘, 而每以一匹之布, 代捧一錢之蔘, 若論其直, 則五升布一匹之價, 本不過錢一兩, 而至於蔘一錢, 則小不下五升布二匹也. 以布易蔘, 非但勒捧, 乃是倍利, 前後府使無不爲此, 已成謬例, 或有二三同布代蔘者, 或有四五同布代蔘者矣. 其四, 三水地十一邊堡士卒, 投入於本府軍官之弊也. 蓋十一堡, 距本府或過百餘里, 或至三四百里, 脫有緩急, 勢將各自防禦, 而邊將之所賴者, 惟士卒也.

各堡士卒，謀避該堡苦役，投入本府軍官，無他服役，只以貂皮一張，納於本府，已成規例。大抵本府親率軍官五十名，自有定額，脫有不虞，則府使親率其五十軍官，而防禦之意也，當以本府近境之民，精抄充額，教鍊戎務，俾爲緩急之可恃。而今乃以遠外各堡士卒之冒入者，多占額外之數，徒取貂皮之利者，萬萬駭然。邊將與府使，便同上下官，邊將既不能據法爭執，府使每不免憑公營私，少不如意，則府使輒推捉邊將之下吏，略無顧忌。一番推捉下吏情債，例至十餘匹布，此則收斂於該堡士卒，故邊將雖欲爭執，慮其推捉下吏，濫費情債，終不免因循姑息矣。其五，三水府鄉品輩，行賂冒入之弊也。蓋本府本無土族，故所謂鄉任爲其第一任役，一得鄉名，終身閑遊，奔競之弊，去而益甚。土民之可合軍官將校及良丁軍保之類，併皆行賂，冒入於鄉任，行賂自有定規，乃以一牛納之本府。本府利其一牛之路，不問其人之可否，差帖連贖便作賣鬻，名以官府，受賂差任，已極駭然。其六，邊堡砲手徵贖之弊也。三水地十一堡，各置砲手二名，使之獵得鹿茸麝香，以爲進上者，乃是朝家令甲。而每當春秋釋菜，自本府推捉十一堡砲手，使之獵獸，以補享祀之需，砲手不能獵捉，則輒徵闕獵之贖，乃以一牛納之。各堡砲手，畏其闕獵之贖，種種逃走，今年逃走，則明年代定，明年逃走，則又明年代定。大抵聖廟享祀之節，事體至重，自有八路各邑辦備通行之規。則本府推捉砲手，責以獵捉，已涉苟簡，設令獵捉，而本府砲手之在於近境者，不爲不多，則何必推捉邊堡砲手之應役於進上者乎？況且一牛徵贖，尤是非理之侵漁。

答曰：“爲一釋菜，勒徵於十一堡二十二人砲手，此爲守令之盜牛也。所論皆涉切實，併令備局，一切嚴禁。至於捧牛事，復若有此弊，當該府使，施以禁錮終身之律。三水若此，甲山可知。令備局亦爲嚴飭。其犯蔘貂者，當施此律，今後則貂蔘進封守令，亦用贓律，京中若捧者，付諸耳目，隨現重繩。”

장령 이사증(李師曾)이 상소하여 삼수부(三水府)의 고을이 피폐함과 백성들의 폐단을 논하기를,

“첫째는 변방 백성이 몰래 국경을 넘어 삼(蔘)을 캐는 폐단입니다. 삼수 중 한 부의부사와 11명의 변장(邊將)이 각자 엄금하고 닷새마다 한번씩 점고(點考)하는 규정까지 있으나 11개의 변보(邊堡) 가운데서 나난보(羅暖堡)·인차외보(仁遮外堡)·구갈파지보(舊架坡知堡)·신갈파지보(新架坡知堡)·소농보(小農堡)·자작보(自作堡)의 여섯 보의 변장은 50년 전부터 점고(點考)의 빠진 토졸(士卒)에게 장속(杖贖)을 징수해 받았는데, 한 명의 속전(贖錢)이 1전(錢)의 삼이었습시다. 매양 삼을 켤 때를 당하여 병사(兵使)가 막비(幕裨)를 보내 점고하면 그때 역시 속삼(贖蔘)을 징수해 받기를 한 결 같이 변장의 예로 따르고 부사(府使)가 향임(鄉任)을 보내 점고하면 그때 역시 속삼을 징수해 받기를 또 영장의 예처럼 합니다. 대저 5일에 한번 점고하는 규정은 5월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로 한정하고, 본부의 한 경내(境內)가 혹 1백여 리를 넘거나 혹은 수백 리가 넘기도 하니, 반드시 5일마다 점고를 받게 하면 장차 그들이 농사일을 폐하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 둘째는 녹용(鹿茸)을 진상할 때에 대전(代錢)을 지나치게 받아들이는 폐단입니다. 삼수 땅에는 11개의 변보로 각기 녹용 1조(條)씩이 있는데, 병영(兵營)에서 약을 살피면서 매양 퇴각하고 반드시 대전을 받아 1조의 대전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이 54냥에 이르도록 많습니다. 각보가 처음부터 전(錢)을 쓰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변장이 계책을 내지 못해 북청(北靑)의 상고(商賈)에게 빚을 내는데, 금년에 낸 빚이 54 냥이니 명년에는 배가 되는 1백 8냥을 갚아야 하고 이것을 해당 보의 토졸에게 나누어 징수해야 하는데, 토졸이 수십 호(戶)나 혹은 10여 호에 불과하며 하는 직업은 베를 짜고 농사짓는 데 불과합니다. 그런데 1백 금(金)이 넘게 배상(倍償)하는 빚을 수십 호나 10여 호의 토졸에게 나누어 거두게 되므로 고생하여 짠 베와 농사지은 곡식으로도 몸을 가리고 호구(糊口)할 밑천을 삼지 못해 그 형세가 앞으로 지탱하고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어찌 홀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폐단의 근원을 따지면 오로지 병영의 심약(審藥)만을 나무랄 수는 없으며 실제로는 내국(內局)의 의관(醫官) 이하 서리(胥吏)가 정채(情債)를 지나치게 받아들이는 소치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셋째는 삼수부사가 대동포(大同布)를 삼료(蔘料)로 바꾸어 마련하는 폐단입니다. 대개 본부(本府)의 전결(田結)에서 세를 받아들이는 규정은 가까운 경내는 소미(小米)이고 먼 곳은 대동포인데, 세말(歲末)에 본부에서는 스스로 매년 공용(公用)의 수효를 감영(監營)에 문보(文報)합니다. 대저 공용은 공무로 왕래할 때에 복마(卜馬)의 고용채(雇用債)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부사가 사마(私馬)를 준비해 두었다가 왕래하는 역(役)을 당함에 그와 교체하고 대동포는 바로 자신이 가져다 씁니다. 그 가져다 쓰는 수를 포필(布匹)로 받지 않고 인삼으로 대신 받는데, 매양 베 한 필 대신 1전의 삼을 받으니, 만약 그 값을 논하자면 오승포(五升布) 한 필의 값이 본래는 돈 1냥에 불과하고, 삼 1전에 이르면 적어도 오승포 2필에 밀돌지 않습니다. 베로써 삼을 바꾸면 비단 역지로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익을 배로 남기는 것으로 전후의 부사가 모두 이렇게 하지 않음이 없어 이미 잘못된 예로, 혹 2, 3동(同)의 베를 삼으로 대신하는 자도 있으며, 혹 4, 5동의 베를 삼으로 대신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 네번째는 삼수 땅 11개 변보의 토졸을 본부의 군관(軍官)으로 투입하고 있는 폐단입니다. 대개 11개 보는 거리가 본부에서 혹 1백여 리가 넘기도 하고 혹은 3, 4백 리에 이르기도 하여 혹시 급한 일이 있게 되면 형편이 각자 방어해야 할 처지인데, 변장(邊將)이 의뢰할 바는 오직 토졸뿐입니다. 각보의 토졸이 해당 보의 고역(苦役)을 모피(謀避)하고자 본부의 군관으로 들어가면 다른 복역(服役)이 없고 단지 초피(貂皮) 한 장만 본부에 바치는 것이 이미 규례로 되었습니다. 대저 본부에서 친히 거느리는 군관은 본래 50명이 정원으로 있어서 혹 뜻밖의 일이 있으면 부사가 그 50명의 군관을 친히 거느리고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뜻이니, 마땅히 본부 가까운 경내의 백성 가운데서 정밀하게 뽑아서 정원을 채워 군사 일을 훈련시켜 급할 때 믿을 만한 군사를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먼 외방 각보의 토졸로 모입(冒入)한 자로 본래의 정원 이외 숫자를 많이 점유해서 단지 초피의 이익만 취하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변장과 부사는 곧 상하 관계의 관원과 같아서 변장이 이미 법에 의거하여 쟁집(爭執)하지 못하니, 부사가 매양 공사를 빙자하여 사(私)를 영위함을 면치 못하며 조금만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부사가 번번이 변장의 하리(下吏)를 추착(推掇)하기를 조금도 거리낌 없이 합니다. 한번 하리를 추착하는 정채(情債)가 으레 10여 필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해당 보의 토졸에게 거두고 있기 때문에 변장이 비록 쟁집하고자 하더라도 하리를 추착할 것을 염려하여 지나친 정채를 써서 끝내 인순(因循)·고식(姑息)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삼수부의 향품(鄕品) 무리들이 뇌물을 써서 모입하는 폐단입니다. 대개 본부에는 본래 사족(士族)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향임(鄕任)이 제일가는 임역(任役)이어서 한번 향임이란 이름을 얻으면 종신토록 한가히 지내



게 되어 분경(奔競)하는 폐단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민(土民)으로 군관·장교 및 양정(良丁)·군보(軍保)에 합당한 무리들이 모두 뇌물을 쓰고 향임에 모입되는데, 뇌물을 쓰는 데는 스스로 정해진 규정이 있으니, 바로 소 한 마리를 본부에 바치는 것입니다. 본부에서는 그 소 한 마리의 뇌물을 이롭게 여겨서 그 사람의 가부(可否)를 묻지 않고 차첩(差帖)을 연속하여 매매하고 있는데, 명색이 관부(官府)이면서 뇌물을 받고 차임하는 것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 변보의 포수(砲手)에게서 징속(徵贖)하는 폐단입니다. 삼수 땅 11개보에 각기 포수 2명씩을 두어 그로 하여금 사냥을 해서 녹용(鹿茸)과 사향(麝香)을 얻어 진상하는 것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조정의 법령입니다. 그런데 매양 봄·가을의 석채(釋菜)를 당하면 스스로 본부에서는 11개 보 포수를 재촉해서 그로 하여금 짐승을 사냥하게 하여 이로써 제수(祭需)에 보태며, 포수가 사냥해 잡지 못하면 번번이 사냥에 빠진 속(贖)을 받는데, 바로 소 한 마리를 바칩니다. 각보의 포수가 사냥에 빠진 속을 두려 위하여 이따금 도주하기도 하는데, 금년에 도망하면 명년에 대정(代定)하고, 명년에 도주하면 또 그 다음 해에 대정하고 있습니다. 대저 성묘(聖廟)에 향사(享祀)하는 의절은 사체(事體)가 지극히 중하여 본래 팔도 각 고을에서 통행(通行)의 규정을 마련하여 준비하고 있으니, 본부에서 포수를 추착하여 사냥해 잡도록 하는 것이 이미 구차스러움에 관계되며, 설령 사냥해서 잡더라도 본부의 포수로 가까운 경내에 있는 자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하필이면 변보의 포수로 진상(進上)하는 역에 응하는 자를 추착해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소 한 마리의 징속은 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 침탈(侵奪)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한 번의 석채(釋菜)를 위해서 11개 보의 22명의 포수에게서 능징(勒徵)하니, 이는 수령이 소를 흠치는 것이 된다. 논한 바가 모두 절실하니, 아울러 비국으로 하여금 일체 엄금하게 하겠다. 소를 받아들이는 일에 이르러서는, 다시 이런 폐단이 있게 되면 해당 부사에게 종신토록 금고(禁錮)하는 율을 시행하겠다. 삼수가 이와 같으니, 갑산(甲山)도 알 만하다. 비국으로 하여금 역시 엄칙하게 하겠다. 삼과 초피를 범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이 율을 시행하고 금후에는 초피와 삼을 진봉(進封)하는 수령에게도 역시 장률(贓律)을 적용하며, 경중(京中)에서 받아들이는 자는 이목지신(耳目之臣)에게 맡겨 드러나는 대로 중히 다스리게 하겠다.”

하였다.

## ▶ 120권 49년 5월 18일 丙子

羅州幼學李陽來, 應旨上疏, 陳民瘼, 一言黃口白骨徵布之弊, 二言還穀作錢之弊, 三言買農牛之弊, 四言依癸未增廣例, 各給依募守卒, 使自作自書, 五言致祭于壬辰戰亡遺址, 上, 下備局回啓.

나주(羅州) 유학 이양래(李陽來)가 응지(應旨)로 상소하여 백성들의 폐막(弊)을 아뢰었는데, 첫 번째는 황구(黃口)와 백골(白骨)에게서 베를 징수하는 폐단을 말하고, 두 번째는 환곡(還穀)을 작전(作錢)하는 폐단에 대해 말하였으며, 세 번째는 농우(農牛)를 사들이는 폐단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을 말하였고, 네 번째는 계미년 증광시(增廣試)의 예(例)대로 각각 의막수졸(依幕守卒)을 지급하여 스스로 짓고 쓰게 할 것을 말하였으며, 다섯 번째는 임진란(壬辰亂) 때에 전망(戰亡)한 유적지에 사람을 보내서 제사를 지낼 것을 말하니, 임금(世宗)이 비국에 내려 회계(回啓)하게 하였다.

### ▶ 124권 51년 3월 22일 庚午

仁川幼學李漢運上疏, 論還穀料理, 水軍疊役之苦, 及均廳貿穀, 濫屠農牛之弊.

인천(仁川)의 유학(幼學) 이한운(李漢運)이 상소하여, 환곡(還穀)을 헤아려 처리하는 일과 수군(水軍)의 부역이 거듭되는 고통 및 균역청에서 쌀을 무역하고 농우(農牛)를 함부로 도살하는 폐단에 대해 논하였다.

### ▶ 125권 51년 11월 13일 丙戌

敎曰: “因一時之食慾, 宰殺勤勞之農牛, 是豈忍也? 嚴禁疊屠及私屠.”

하교하기를,

“한때의 식욕(食慾)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는 농우(農牛)를 잡아 죽이는 것을 어찌 차마 하겠느냐? 중첩된 도살이나 사사로이 도살하는 것을 엄중히 금하게 하라.”  
하였다.

## 26. 正祖實錄

### ▶ 1권 즉위년 5월 15일 乙酉

配徐完碩于金海府. 完碩以康津縣監, 詬罵隣倅, 摔曳邑子. 國哀成服之前, 恣意宰屠, 斷獄之際, 公受賂物, 料理結錢, 幻弄國穀之罪, 拿問捧供, 勘以徒配. 仍教曰: “思效塵刹之報, 固不可責之於廝役之賤, 而渠亦具秉彝, 則渠之不法, 既至於此. 徐完碩雖已發配, 不可仍置近侍之列, 汰名別軍職.”

서완석(徐完碩)을 김해부(金海府)에 귀양 보냈다. 서완석이 강진현감(康津縣監)일 적에 이웃 고을 원을 욕설하여 매도하고 읍자(邑子)를 휘어잡아 끄는 짓을 하고, 국상(國喪) 때 성복(成服)하기 전에 멋대로 도살하는 짓을 하고, 옥사(獄事)를 결단할 적에는 공공연히 뇌물을 받았고, 결전(結錢)을 요리하여 국가의 곡식을 농간한 죄를, 잡아다가 국문하여 공술을 받아 도배(徒配)하기로 감단(勘斷)했었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잠시라도 쉬지 않고 보답하기를 다하려 생각하는 것을 본시 미친한 머슴에게는 책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도 또한 병이(秉)를 갖춘 사람인데 그의 불법이 이미 이에 이르렀다. 서완석을 비록 이미 발배(發配)하도록 했지만, 근시(近侍)의 반열에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별군직(別軍職)의 이름을 빼 버리라.” 하였다.

### ▶ 2권 즉위년 8월 18일 丁巳

~이상생략

康熙十三年, 朝鮮國王【顯宗大王御諱.】薨逝, 五十九年朝鮮國王【肅王大王御諱.】薨逝, 具蒙恩加祭一次, 用祭文二道, 除銀壺銀爵照例備辦外, 其香帛及牛犢折價銀兩, 均加一倍給與, 又雍正二年, 朝鮮國王【景宗大王御諱.】薨逝, 照例致今一次奏准, 所有恤典, 卽交與冊封嗣王之正副使, 帶往等因各在案. 祭朝鮮國王【大行大王御諱.】薨逝, 應請照例致祭一次, 恭俟命下, 臣部行文各該衙門, 遵照辦理, 至所給諡號, 交內閣具題請旨, 所有恤典照例, 交與冊封嗣王之正副使帶往, 臣等未敢擅便, 謹題請旨, 謹將致祭朝鮮國王.”

~이상생략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강희 13년(1674)에 조선국왕【현종대왕 어휘이다.】이 홍서하고, 59년에 조선국왕【숙종대왕(肅宗大王) 어휘이다.】이 홍서하였는데 모두 한 차례 치제의 은전을 받았고 제문은 이도(二道)를 사용하였으며, 은호(銀壺)·은작(銀爵)을 전례에 따라 갖추어 놓은 외에 향백(香帛)과 송아지[牛犢]의 절가 은냥(折價銀兩)은 균일하게 한 갑절을 더하여 주었고, 또 옹정 2년에는 조선 대왕【경종대왕 어휘이다.】이 홍서하니, 전례에 따라 한차례 치제하였고, 홀전은 곧 책봉한 사왕의 정사와 부사에게 교부해 주어 가지고 가게 한 등인(等因)이 각각 문안에 있습니다.

이제 조선국왕【대행대왕 어휘이다.】이 홍서하였으니, 응당 전례에 따라 한 차례 치제해야 하므로 공손히 명이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신부(臣部)에서 각 해당 아문(衙門)에 행문(行文)하여 준례(準例)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것이요, 시호를 주는 것에 이르러서는 내각에 교부하여 갖추어 써서 황지를 청하고 홀전은 전례에 따라 책봉한 사왕의 정사와 부사에게 교부하여 가지고 가게 할 것이나 신 등이 감히 천단하지 못하여 삼가 써서 황지를 청하였으니, 삼가 조선국왕에게 치제를 행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 ▶ 3권 1년 1월 2일 己巳

己巳/下勸農綸音于八道兩都曰：“農者天下之大本，民之所以爲天者也。歲首董飭，卽我列聖務本之盛意，而守令七事，農又居首，則承流之臣，守土之官，罔敢或忽，事理則然，而逮至挽近，便作文具，無一實效，可勝歎哉！況今年歲首，卽予元年元朝，凡在恤民之政，安民之道，宜無所不用其極，以體我列祖子惠之德，而莫切於民產，最關於邦本者，惟農事是已。噫！古語有之，一夫耕之，十人食之。霑體塗足，夏畦爲甚，而秋場纔收，冬糧輒渴，官租僅免，餅罌已空，薳屋呼庚之狀，如在目中。是知終歲之勤勞，竟歸王國官府之需，則雖使日闢閑土，歲起荒田，民產之不敷，固無怪矣。重之以莅民者，未有佩犢之戒，超末者實多遊食之弊。不幸而間值饑饉，則流而之四，至於墳壑，勢之然也。『經』曰：‘三年耕，必有一年之食。’又曰：‘既富方穀。’既不得仰事俯育之樂，則又何責親君死長之義哉？分憂之臣，體宵旰之愍恤，念民生之疾苦，省耕課農，補其不足，堤堰灌溉，務興實惠。滿車盈箱，爲農夫之慶，遺秉滯穗，伊寡婦之利，使地無不闢，民樂其業，庸副慇懃之諭。”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 농사를 권면하는 윤음(綸音)을 내리기를,

“농사(農事)는 천하의大本(大本)인 것으로, 백성들이 하늘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수(歲首)에 동칙(董飭)하는 것은 곧 우리 열성(列聖)들께서大本을 힘쓰게 하는 성대한 뜻인 것이며 수령(守令)의 칠사(七事) 가운데도 농사가 첫 번째에 들어 있으니, 풍교(風敎)를 받드는 감사(監司)·곤수(帥)와 고을을 다스리는 수재(守宰)들이 감히 만에 하나 소홀히 함이 없게 하는 것은 사리에 있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문득 문구(文具)가 되어 하나도 실효가 없으니, 개탄스

러움을 견딜 수 없다. 더구나 금년의 세수(歲首)는 곧 내가 즉위한 원년(元年)이요 원조(元朝)이니, 무릇 백성을 구휼하는 정치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도에 대해 의당 극진히 하지 않는 것이 없게 함으로써 우리 열성조(列聖祖)께서 백성을 사랑하여 은혜를 베푸는 덕을 본받아야 한다. 백성의 산업(産業)에 있어 더없이 절실하고 방본(邦本)에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오직 농사가 바로 그것인 것이다. 아! 옛말에도 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 열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온 몸이 땀에 젖고 밭에 진흙을 묻히면서 여름에 농사짓느라 극심하게 시달려도 가을에 마당에서 타작하여 수확하자마자 겨울 양식이 금방 떨어지게 되고 관조(官租)를 가까스로 바치고 나면 저축이 이미 고갈되어 버리니, 가난한 농가(農家)에서 곡식이 떨어져 울부짖는 정상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이것으로 1년 내내 부지런히 일해도 결국 나라의 관부(官府)의 수요로 들어가고 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날마다 한지(閑地)를 개간하고 해마다 황전(荒田)을 다시 경작하더라도 백성의 산업이 넉넉해지지 않는 것은 진실로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

**엮친 데 덮치는 격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이 칼을 팔아 송아지를 사서 기르도록 경계하는 이가 있지 않으며,** 말리(末利)만을 추구하는 자들 가운데는 놀고먹기만 하는 폐단이 많이 있다. 때문에 불행히 흉년을 당하게 되면 떠돌아 사방으로 흩어져 구령을 매워 나뭇굴게 되는 것은 사세가 그러한 것이다. 『예경(禮經)』에 이르기를, ‘3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1년 먹을 곡식이 저축되어야 한다.’ 하였고, 또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부유하게 된 다음에야 바야흐로 착하게 된다.’ 했는데, 이미 우리러 아버지를 섬기고 아래로 처자를 먹여 살리는 즐거움이 없다면 또 어떻게 임금을 친애(親愛)하고 관장(官長)을 위하여 사력(死力)을 다하는 의리를 바랄 수 있겠는가?

나의 걱정을 나누는 지방관들은 나의 밤낮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본받고 민생의 질고(疾苦)를 생각하여 경작하는 것을 살피고 농무(農務)를 권면함에 있어 부족한 것을 도와줄 것이며 제언(堤堰)을 만들어 물을 대는 데 지장이 없게 함으로써 실제의 혜택이 있게 할 것을 힘쓰라. 곡식이 수레에 가득하고 궤에 가득 차는 것이 농부들의 경사인 것이고 빠뜨린 곡식과 떨어진 이삭은 과부(寡婦)들의 이익인 것이니, 땅을 모두 개간하고 백성들이 생업(生業)을 즐기게 하여 나의 은근한 하유(下諭)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 ▶ 3권 1년 1월 2일 己巳

諭咸鏡、江原道臣及北道監賑御史曰：“予以寡昧，纘承我列祖丕丕基，志切愛民，政先利物，而治不及於朞月，化未洽於生民，夙夜祇懼，罔或暇逸。矧茲新正，卽余元年，陽春布和，萬物方暢，思欲對天之時，體天之仁，普濟我億兆生靈，而不幸東北二方，饑饉最甚。旱澇風雹，收穫無幾，凍餒盈扉，流散居多，有土之民，無穀可食，無土之民，失所靡依。催稅納租，室家如罄，扶老携幼，道路行丐。噫！予爲牧民之主，一夫之飢，猶己之飢，一夫之寒，猶己之寒，況今萬姓顛隕，如在涸轍？爲民父母，使赤子不獲其所，靜念厥咎，玉食靡甘。賑賑之策，夙宵講究，既付於道臣，申之以御史、守令之辭陞者，亦莫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不諄諄面飭. 凡任分憂之責者, 體予至意, 竭誠撫摩, 盡心調恤, 使飢困者免於溝壑, 流亡者得以安堵. 種糧之俱乏者, 耕牛之未備者, 區劃勸分, 毋令東作失期, 以貽嗣歲之憂. 嗚呼! 一命之士, 存心愛物, 猶有所濟, 況予爲一國之主, 豈不能活我兩道之民乎? 咨爾監司暨御史, 申飭列邑, 布告父老, 凡可以利吾民而濟吾民者, 或以便宜, 或以狀聞, 俾有實效. 東北子大夫之有私積者, 苟能體朝廷之德意, 以獨活爲恥, 周急恤窮, 多所拯濟, 則豈惜褒賞之典乎? 嗚呼! 德未能格天, 惠未能及民, 至於蕩析離居, 今雖發倉移粟, 董飭分賑, 是不過使飢者免死, 走者復還而已. 是豈足爲安生樂業之實惠也哉?”

함경도·강원도의 도신(道臣)과 북도(北道)의 감진어사(監賑御史)에게 하유하기를,

“내가 부덕한 몸으로 우리 열조(列祖)의 크나큰 기업(基業)을 이어받았으므로 뜻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간절하고 정치는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을 먼저 하려하고 있다. 그런데 다스린 지 한 달이 못 되고 교화가 생민에게 흠족하지 못했으니, 밤낮으로 삼가고 두려워하면서 혹시라도 편안할 겨를이 없었다. 더구나 이 신정(新正)은 곧 내가 즉위한 원년(元年)인데, 양춘(陽春)이 화기(和氣)를 펴고 있어 만물이 바야흐로 창성(暢盛)하고 있으니, 천시(天時)가 바뀌는 때를 당하여 하늘의 인애(仁愛)를 본받아 나의 억조 생령(生靈)을 널리 구제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동쪽과 북쪽 두 지방에 가장 극심한 기근(饑饉)이 들어 가뭄과 홍수에다 바람이 불고 우박이 떨어져 수확(收穫)할 것이 거의 없게 되었으니, 춥고 배고파 신음하면서 떠돌아 흩어진 사람이 태반인데, 땅이 있는 백성들은 먹을 곡식이 없고 땅이 없는 백성은 살 곳을 잃어 의지한 데가 없다. 그런데다가 세금 채촉에 못 이겨 세금을 내고 나면 실가(室家)가 텅 비게 되니, 어린 것의 손을 잡고 노인을 부축하면서 도로(道路)로 떠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있다. 아! 내가 백성을 기르는 주인이 되었으니 한 사람이 굶주려도 나 자신이 굶주리는 것 같고 한 사람이 추위에 떨어져도 나 자신이 추위에 떠는 것과 같은데, 더구나 지금은 만백성이 몹시 굶주려 사경(死境)에서 해매고 있음이겠는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적자(赤子)로 하여금 살 곳을 얻지 못하게 하였으니, 고요히 그 허물을 생각하노하면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를 지경이다.

진구(賑救)할 방법을 밤낮으로 강구하여 이미 도신(道臣)에게 부탁하고 어사(御史)에게 신칙하였으며, 수령(守令)의 사폐(辭陞) 때에도 거듭 자상하게 면대해서 신칙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무릇 걱정을 나누는 책임을 맡은 관원들은 나의 이런 지극한 뜻을 본받아 정성을 다하여 무마하고 마음을 극진히 하여 돌보아 구제함으로써 굶주려 지친 사람이 구렁에 나뒹구는 것을 면하게 하고 떠돌아 흩어진 사람은 편안히 살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종자(種子)와 양식(糧食)이 떨어진 자와 농우(農牛)를 갖추지 못한 자를 구획(區劃)하여 권분(勸分)하게 해서 농사의 시기를 놓쳐 다음해에 걱정을 끼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

아! 미관말직(微官末職)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두어 오히려 구제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더구나 나는 일국의 주인이 되었으니 어찌 우리 양도(兩道)의 백성을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 그대 감사와 어사는 각 고을에 신칙하고 부로(父老)들에게 포고(布告)하여 나의 백성을 이롭게 하고 나의 백성을 구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혹은 편의에 따라 시행하기도 하고 혹은 장문(狀聞)하기도 하여 실제의 효과가 있게 하라. 동쪽과 북쪽 지방에 사는 사대부(士大夫)들 가운데 사사로운 축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진실로 조정의 덕의(德義)를

잘 본받아 혼자만 살아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곤궁하고 급박한 사람들을 돌보아 구제하여 살려낸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어찌 포상(褒賞)하는 은전(恩典)을 아끼겠는가? 아! 덕이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은혜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여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제 창고를 열어 곡식을 옮겨 나누어 진구(賑救)할 것을 동칙(董飭)하여도 이는 굶주린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을 면하게 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것이 어찌 편안히 살면서 생업을 즐기게 하는 실속 있는 혜택이 될 수 있겠는가?”

하였다.

### ▶ 6권 2년 12월 22일 戊寅

刑曹, 以恩彦君祔家潛屠, 當該宮奴, 請照法嚴處啓. 敎曰: “本曹之守法不撓, 至於草記, 可謂舉職. 予甚嘉乃. 而王孫之違法屠牛, 潛自發賣. 毆打禁吏, 流血狼藉云. 莫非予覲然處. 愧惡之極, 無以爲喻. 然法雖不屈, 罪則可掩. 屠牛贖錢, 令內司償給本曹, 勿爲徵贖於王孫家.”

형조에서 은언군(恩彦君) 이인(李)의 집에서 몰래 소를 도살(屠殺)한 것 때문에 해당 궁노(宮奴)를 조율(照律)하여 엄히 조치할 것을 아뢰니, 하교하기를,

“본조에서 동요하지 않고 법을 지켜 초기(草記)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으니, 내가 이를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왕손(王孫)이 법을 어기고 소를 잡아 몰래 그 고기를 파는가 하면 금리(禁吏)를 구타하여 피가 낭자하게 흘렀다고 하니, 이는 모두 나의 얼굴을 뜨겁게 하는 점이어서 너무도 부끄러워 하유할 말이 없다. 그러나 법은 굽히지 않아야 하지만 죄는 덮어주어야 하는 것이니, 소를 잡은 데 대한 속전(贖錢)을 내사(內司)로 하여금 본조에 상급(償給)하여 왕손의 집에서 징속(徵贖)하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 ▶ 8권 3년 12월 3일 癸丑

內醫院以別質牛黃事啓. 敎曰: “御藥事體 何等重大? 而至於臘劑, 亦是御藥之故, 每年列書別單, 先期稟定, 然後待啓下舉行, 一如湯劑製入之例. 則今番初無筵稟, 又無微稟, 而自下任意折衷定式, 萬萬無嚴. 此雖小事, 名以御藥, 則如是擅恣者, 誠有不可勝言之弊. 此不嚴勘, 重御藥之意, 將掃地矣.” 仍命該醫官金光國, 刊名醫籍, 下該府照律重繩. 都提調洪樂純胥命金吾, 命勿待命.

내의원(內醫院)에서 우황(牛黃)을 별무(別質)하는 일을 아뢰니, 하교하기를,

“어약(御藥)의 사체(事體)가 얼마나 중대한가? 납제(臘劑)로 말하더라도 어약하기 때문에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해마다 별단(別單)에 죽 벌여 써서 시기에 앞서 품정(稟定)한 뒤에 계하(啓下)를 기다려서 거행하는 것이 탕제(湯劑)를 지어 들이는 규례와 마찬가지로인데, 이번에는 당초에 연품(筵稟)이 없고 또 미품(微稟)이 없었는데 아래에서 임의로 절충하여 정식(定式)하였으니, 매우 무엄하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지는 하나 명색이 어약이라면 이처럼 방자한 것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엄하게 감죄(勘罪)하지 않으면 어약을 중히 여기는 뜻이 땅을 쓴 듯이 없어질 것이다.”

하고, 이어서 당해 의관(醫官) 김광국(金光國)을 의적(醫籍)에서 제명하고 해부(該府)에 내려 조율(照律)하여 엄중히 다스리라고 명하였다. 도제조(都提調) 홍낙순(洪樂純)이 금오(金吾)에서 서명(胥命)하니, 대명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 ▶ 10권 4년 7월 19일 乙未

乙未/次對. 召見湖西按覈御史金履禧. 左議政徐命善曰: “伏見御史書啓, 李秉鼎之無嚴不法, 死有餘罪. 牛贖追徵, 合爲一千八百七十六兩. 或有再昨年犯屠, 而昨冬納贖者, 或有赴任前犯禁, 而秋冬間徵贖者, 盡爲私用. 昨年十月, 以其生日, 行關公山等十六邑及一驛, 使之輸送官酒列邑, 或只送酒壺, 或竝饋肴羞. 一路傳笑, 殆若童謠. 到營後, 所買田, 爲七石十三斗下種之地、所換驛田, 爲二十七斗地、禁松犯斫樑柱材十六株、板材七十立. 私役丁夫, 鴻山等四邑分定之數, 合爲一千六百名, 而不給雇價. 富民千光周等, 有美田不願賣, 則假以裨將之帖, 操切勒買, 至有涕泣之說. 則所買田, 竝宜還退, 以解民怨. 利仁前察訪洪昌源之恟於威喝, 聽換公田. 水使柳鎮說之不畏公法, 許斫禁松之罪, 俱不可不嚴處. 藍浦縣監李尙顯, 凡於擾民之政, 一皆承順, 惟令是從, 亦合重究爲言. 秉鼎罪狀, 箇箇綻露於繡衣按覈之時. 以此觀之, 則當初吞吐於嚴問之下者, 尤極痛惋. 既經詳查之後, 揆以國體, 別無更爲盤問之端, 令該府, 依本律處斷. 水使柳鎮說所管安眠島養松之政, 何等嚴重, 而初既畏恟許斫, 末又錯報株數, 不可不重勘. 藍浦縣監李尙顯、鴻山縣監徐直修、庇仁縣監李家煥、青陽縣監李命瑀, 凡係役民之事, 朝家飭禁, 不啻諄復, 則雖有營關, 何敢任自調發, 至於千餘名之多乎? 後弊所關, 亦宜嚴處. 利仁前察訪洪昌源, 近來驛路之凋殘, 實由位田之闕失, 身爲郵官, 不顧公法, 聽換私田, 論其罪狀, 合施當律. 竝令該府, 拿問定罪. 所換驛田, 卽爲推還. 富民田之勒買者, 御史既請還退, 宜一體許施.” 上曰: “所犯諸條, 無論大小, 皆是罔赦. 若使李秉鼎, 知有朝廷, 焉敢爲是? 守令贓污, 尙難容貸, 況按藩者之罪惡, 彰露至此乎? 竝依施.”

차대하였다. 호서 안핵어사(湖西按御史) 김이희(金履禧)를 불러 보았다. 좌의정 서명선이 말하기를,

“삼가 어사의 서계(書啓)를 보니, 이병정(李秉鼎)의 무엄하고 불법한 짓은 죽어도 남은 죄가 있습니다. 소 도살에 대해 추징한 속전(贖錢)이 도합 1천 8백 76냥이나 됩니다. 혹은 지난해에 도살을 범한 것을 지난해 겨울에 벌금을 받은 것도 있고, 혹은 그가 부임하기 전



에 불법으로 도살하였던 것을 가을과 겨울 사이에 벌금을 징수한 것도 있는데, 모조리 사사로운 용도로 써버렸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그의 생일이라고 하여 공산(公山) 등의 열여섯 고을 및 한 역(驛)에 공문을 돌려 관청의 술을 수송하게 하였는데, 여러 고을에서 혹은 술만 보내기도 하고, 혹은 안주까지 아울러 보내기도 하여, 온 도에 웃음거리가 되어 거의 마치 동요(童謠)처럼 되었습니다. 감영에 도착한 뒤에 매입한 전지는 7석(石) 13두(斗)의 파종(播種)한 땅이고, 바꾼 역전(驛田)은 27두의 땅이었습니다. 금송(禁松)을 벌채한 것은 들보와 기둥감 재목이 열여섯 주(株), 판재(板材)가 70립(立)이었습니다. 사사로이 정부(丁夫)를 부린 것은 홍산(鴻山) 등 네 고을에 분정(分定)한 숫자가 도합 1천 6백 명인데, 고용한 값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천광주(千光周) 등이 소유한 좋은 전지를 팔려고 하지 않자, 거짓 비장(裨將)의 첩(帖)으로써 조절하여 억지로 매입하여 눈물까지 흘렸다는 설이 있었으니, 매입한 전지는 모두 마땅히 되돌려주어 백성들의 원망을 풀어주어야 하겠습니까. 이인(利仁)의 전 찰방 홍창원(洪昌源)이 위협과 공갈에 겁을 먹고 공전(公田)을 바꿔준 것과 수사(水使) 유진열(柳鎭說)이 공법(公法)을 두려워하지 않고 금송의 벌채를 허락한 죄는 모두 엄중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포현감(藍浦縣監) 이상현(李尙顯)은 백성을 소란케 하는 정사를 한 결 같이 다 순종하여 오직 명령한 대로 따랐으니, 또한 마땅히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병정의 죄상이 어사가 안핵할 때에 낱알이 탄로났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당초 엄중하게 신문할 때 종잡을 수 없이 말을 한 것이 더욱 몹시 분개합니다. 이미 상세한 조사를 마친 뒤이니 나라의 체모로 헤아려 볼 때 다시 자세히 신문할 단서가 별로 없습니다. 의금부로 하여금 본율(本律)에 따라 처리하게 하소서. 수사 유진열이 관할하는 안면도(安眠島)의 소나무를 기르는 정사가 얼마나 엄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미 위세에 겁을 먹고 벌채를 허락하였고, 나중에는 또 주수(株數)를 잘못 보고하였으니, 무겁게 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포현감 이상현, 홍산현감 서직수(徐直修), 비인현감(庇仁縣監) 이가환(李家煥), 청양현감(靑陽縣監) 이명우(李命瑀)는 무릇 백성에게 부역을 시키는 일에 대해 조정에서 매우 자상하게 신칙하였으니, 비록 감영의 공문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감히 멋대로 천여 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징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후일의 폐단에 관계되니 또한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인 전 찰방 홍창원은 근래에 역참이 폐폐된 것은 실로 위전(位田)을 호지부지 잃어버린 것에 말미암은 것인데, 우관(郵官)의 신분으로 공법을 돌아보지 않고 사전(私田)으로 바꾸도록 허락해 주었으니, 그 죄상을 논하여 해당하는 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문초하여 죄를 정하고 바꿔준 역참의 전지는 곧바로 추심하게 하소서. 부자의 전지를 억지로 매입한 것은 어사가 이미 도로 되돌려 주게 할 것을 요청하였으니, 마땅히 일체 시행하라고 허락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범법한 여러 조항들은 대소를 막론하고 다 용서할 수 없다. 만일에 이병정이 조정이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면 어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수령이 장오죄를 지은 것도 오히려 용서하기 어려운데, 더구나 도(道)를 안찰하는 자의 죄악이 이 지경까지 드러났으니, 말할 것이 있겠는가? 모두 아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 10권 4년 7월 20일 丙申

丙申/配李秉鼎于端川府. 敎曰: “世祿之家, 鮮克由禮, 立朝乏匪躬之節, 處官多濟己之謗. 不幸三數年來, 其罹于法、陷于辟者, 非貪則逆, 朝著一空, 殆同網打, 免者幾希. 嗚呼! 此曷故焉? 豈但世臣之不幸? 卽國家之不幸也. 每一念至, 寧欲無叱. 能使今日臣僚, 徵前愆後, 忘私奉公, 則夫安有是? 而彼識蔑資淺者, 間或有蹈藉先蔭, 驟躡華顯, 則驕心易生, 素志不守, 朝見燎原之禍, 夕犯滔天之惡. 試看前後, 種種遭罹, 又不知爲幾人, 而至若李秉鼎, 又其中一人也. 究厥辜犯, 可勝誅哉? 諉以煖寒之會, 列郡徵生日之需, 稱以奪屬之物, 安島斫禁山之松, 私發丁夫. 其名無實, 勒取郵田, 厥數不些, 富民之壤, 啗利而攘, 贖牛之金, 年久後徵. 凡此數件, 不可但謂不法而已. 其爲貽辱清朝, 施及搢紳, 莫有甚於此者. 誅之殛之, 明正常刑, 渠亦豈有容喙之端? 而噫! 所可懼者, 貪風未見紓息, 世家日就夷滅也. 昨於繡啓, 以千餘金贖貨, 盡歸私用爲言, 而然猶不卽抵律, 更使納招者, 庸寓求生必死之義也. 及觀爰辭區處, 或多有據. 其中四百金用處, 雖近私用, 亦曰遞等帖下云爾, 則此內外營闔通行之事, 未可便以私橐論也. 設令外此, 有染指肥己之事, 不一其緒, 此姑未發於朝廷, 朝廷當從已發者勘斷可也. 且念前此一二贓污之吏, 猶以未承款酌配. 則況秉鼎所犯, 明有大小之別歟? 說者以爲: ‘更查爲可’云, 而予則曰: ‘有傷國體, 無係國綱’, 及此決折, 不害爲罪疑之典. 李秉鼎, 特爲減等, 邊遠定配. 今日之敎, 非失於寬也. 欲望外內在官之臣, 職思其居, 直哉惟清. 是不但予區區之幸也, 抑亦不忝乃祖乃父也. 并須知悉.”

이병정을 단천부(端川府)에 정배하였다. 하교하기를,

“대대로 녹을 먹는 집안이 제대로 예(禮)를 지키는 경우가 드물어 조정에서는 자신의 이해를 돌아보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정신이 결핍되어 있고 관직에 나가서는 자기 이익만을 챙긴다는 비방을 많이 듣는다. 불행하게도 2, 3년 이래로 법에 저촉되고 형벌을 받은 자가 탐관오리가 아니면 역적이어서 조정이 온통 비어 거의 일망타진되다시피 하여 죄를 면한 자가 거의 드물다. 아! 이것이 어찌된 까닭인가? 어찌 다만 세신(世臣)의 불행일 뿐이겠는가? 바로 국가의 불행이다. 매양 한번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차라리 아무 말도 안하고 싶다. 만일 오늘날의 신료들이 앞날의 일을 징계하여 뒷일을 조심하고 사욕을 잊고 나라를 위하여 진력하였다면 무릇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저 지식이 없고 자질이 천박한 자들이 간혹 선음(先蔭)을 등에 지고 좋은 벼슬자리에 갑자기 뛰어 오르면, 교만한 마음이 쉽게 생기고 본래의 뜻을 지키지 않아 아침에 요원(燎原)의 화를 보고도 저녁에 하늘에 닿는 죄악을 범한다.

시험 삼아 전후에 걸쳐서 보건대, 종종 죄를 지어 법에 걸린 자가 또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인데, 이병정에 있어서는 또 그 가운데의 한 사람이다. 그가 범한 죄를 따져 본다면 어떻게 다 책망할 수 있겠는가? 한란(寒煖)의 모임으로 핑계대고 생일에 필요한 물품을 여러 군에 징수하였고, 탈속(奪屬)의 물건이라 칭하고서 안면도에서 금산(禁山)의 소나무를 벌채하였으며, 사사로이 정부(丁夫)를 징발하였으니 그는 명분이 없었고, 역참의 전

지를 강제로 탈취한 수량이 적지 않으며, 부자의 땅을 이익으로 피어 빼앗았고, 도살의 벌금을 해가 오래된 뒤에 징수하였으니, 무릇 이 몇 건은 불법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그것이 맑은 조정에 치욕을 끼치고 벼슬아치들에게까지 치욕을 미치게 한 것이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없으니, 처형하여 상형(常刑)을 밝혀 시행하더라도 그가 또한 어찌 변명할 단서가 있겠는가? 아! 두려운 바는 탐욕의 풍속이 종식됨을 볼 수 없고 대대로 녹을 먹는 집안들이 날로 없어져 간다는 점이다. 어제 어사의 장계에서 숙전으로 받은 천여 냇을 모조리 사적인 용도로 들어갔다고 말하였다. 그런데도 오히려 곧바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다시 공초를 받도록 하였던 것은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살릴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는 의의를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그의 공초를 살려 보니, 구획 처리한 것이 근거가 있는 것도 많았다. 그 가운데 그가 사용한 4백 냇은 비록 사사로이 쓴 것 같았으나 또한 친구(新舊) 관리가 교체할 때 첩하(帖下)하였다고 말하였고 보면, 이것은 안팎 영곤(營)에서 통행하는 일로서 무턱대고 사사로이 착복하였다고 논할 수는 없다. 설령 이 밖에 남의 재물을 부정하게 취하여 자기의 주머니를 채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아직 조정에서 제기되지 않은 것이니, 조정에서는 이미 제기된 것만 논죄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또 생각건대, 이보다 앞서 장오죄를 지은 한두 명의 관리가 오히려 자백하지 않았는데도 참작해서 귀양을 보냈는데, 더구나 이병정이 범한 바는 분명히 대소의 구별이 있는데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말하는 자들은 ‘다시 조사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만 나는, 그러면 나라의 체면에만 손상되고 나라의 기강에는 관계가 없으니, 이때 결단을 내려도 죄가 의문이 있을 경우에 경미하게 처벌하라는 가르침에 해롭지 않다고 여긴다. 이병정을 특별히 죄를 감하여 먼 변방으로 징배하라. 오늘의 하교는 너무나 과도하게 관대한 것이 아니라 내외의 관직에 있는 신하들이 관직에 충실하여, 정직하고 청렴하게 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나의 구구한 다행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또한 그대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는 길이기도 하니, 모두 잘 알아야 할 것이다.”

## ▶ 10권 4년 11월 28일 壬寅

檢閱李集斗上疏曰：

臣承命馳往實錄廳，摘奸之時，堂上蔡濟恭，獨稱病處房中，迫而後出，借着冠帶，不犀而金。駭瞻聆而壞朝體。 臣奉命貽辱，受侮不少，乞削臣職。

批曰：“重臣之不出見，非爾之罪。借着金帶，殊乖事面，後重推考。”尋因大臣論奏，濟恭削職。

검열 이집두(李集斗)가 상소하기를,

“신이 분부를 받들고 실록청(實錄廳)에 달려가서 적간(摘奸)할 때에 당상 채제공(蔡濟恭)만 병을 핑계대고 방안에 있다가 재촉한 뒤에야 나왔는데, 관대(冠帶)를 빌려 착용하여 서대(犀帶)가 아닌 금대(金帶)를 띠었으므로 보고 듣는 이를 놀라게 하였고 조정의 체통을 무너뜨렸습니다. 신이 분부를 받아 치욕을 끼쳤고 적지 않게 수모를 받았습니다. 신의 관직을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삭제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중신(重臣)이 나와서 보지 않은 것은 그대의 죄가 아니다. 금대를 빌려서 착용한 것은 자못 사체에 어긋났으니, 중하게 추고하라.”

하였다. 조금 후에 대신의 논핵으로 인하여 체제공의 관직을 삭제하였다.

### ▶ 12권 5년 11월 27일 乙丑

漢城府啓言: “左捕廳校卒, 狼藉犯屠於本廳之內, 被捉於禁吏. 捕將徐有大, 謂以佩符之校, 不可捉去. 屠牛, 乃賊物許給云. 屢度往復, 終不起送. 大將推考, 該捕校照律爲宜.” 敎曰: “近來凡有官守者, 事事以無痕爲妙方, 卽目下難矯之弊俗. 卿府之按法草記、該廳之引例持難, 不害爲各有可觀. 然牛可還主, 故令屠食. 捕將推考, 儘是許給之物, 則似無移罪於捕校之端. 更加探察, 明有私屠之跡, 該捕校卒, 依草記照法勘處.”

한성부에게 아뢰기를,

“좌포청(左捕廳)의 교졸(校卒)이 본청(本廳) 안에서 낭자하게 도살(屠殺)하는 죄를 범하다가 금리(禁吏)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장(捕將) 서유대(徐有大)가 말하기를, ‘부신(符信)을 차고 있는 포교는 체포해 갈 수 없고 잡은 소는 이에 도둑의 물건으로 허급(許給)해 준 것이라.’고 하면서 누차 왕복하였으나 결국 보내주지 않았으니, 대장(大將)은 추고(推考)하고 해당 포교(捕校)는 조율(照律)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근래에 무릇 관수(官守)로 있는 사람들은 일마다 하자를 없애는 것을 묘방(妙方)으로 삼고 있으니, 곧 당장 형편으로는 바로잡기 어려운 폐속(弊俗)이다. 경의 부(府)에서 안법(按法)한 초기(草記)와 해청(該廳)에서 전례를 인용하여 지난(持難)하는 것이 각기 불만한 것이 있는 것에 해가 되지는 않겠으나, 소는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잡아먹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포장은 추고(推考)하라. 그리고 진실로 허급한 물건이라면 그 죄를 포교에게 옮길 단서가 없는 것 같다. 다시 염탐하여 살펴서 분명히 사사로이 도살한 증거가 있으면 해당 포교는 초기(草記)에 의거 조율(照律)하여 감처(勘處)토록 하라.”

하였다.

### ▶ 12권 5년 11월 29일 丁卯

竹山幼學朴聖素應旨上疏曰:

民田給災, 副尹者主張, 而逐年新差. 納賂圖占, 陳田躡驗, 渠獨爲之, 可給五六七八負之處, 則不過以把束懸錄, 及其作夫出送, 稱以乞負, 無名虛負, 倍倍加出. 上自鄉廳, 下至官隸面任輩, 所給情債, 動至十餘結之多, 則主事者之所食, 據此可知. 然則朝家所

給之災，民得以蒙惠乎？軍政之白骨、黃口之弊，累勤聖慮，而狎校族屬，俱免良役，奸鄉隣里，皆免軍丁。宰相墓直，投托者多免，校任奴輩閑遊者無數。有限人丁，若是隱匿，逃故充定之時，白骨、黃口之簽，烏可免乎？至於糶糴之政，守令之犯分，倉色之逋欠，奸鄉之都給，面任之虛戶，皆是朝家之所禁。而犯分一事，繡衣之廉探，上營之糾察，自可綻露，而至若下輩之偷出，專由於庫門之數開。面任之虛戶，都出於富民之漏糶，而倉色、面任，互相締結，借手弄奸，闖其負穀紛踏之時，偷出多石，及其還納也，面面動鈴，家家求乞，專以空穀，充數入庫，方其分給也，民納精實者，吏輩食之，則小民所食及種子，專以虛穀給之，其爲冤憤當如何哉？學宮者，風化之所關，禮義之相先，而專以出沒場市，討酒閭里，魚魯無分，菽麥不辨者，掌是任。朝家劃給之物，足以奉聖祀、供土類，而所謂齋任者，若有一椽一瓦之可改者，則張皇大談，請得願納。所謂願納，從民願納錢二十兩，一生免役者也。一年二次，每捧願納，願納者亦絕無而莖有。**然而多出校隸，家有一犢，則稱以富民，白地勒捧，傾家破業，納而後已。**或有官家之禁斷，鄉黨之是非，則至以鄉會關通等說，藉重恐喝，不過數十金容易可辦之事，必請數百兩財。此等財力，既非官家所出，又非校中所辦，而皆自願納中出。無告殘民，何以支保乎？臣意則創立通判一窠，自鄉中，博採公議，擇其博識能文之士，薦于本邑，本邑試其才識文藝，升之監營，監營升之太學，太學試才，一如本邑之例，而後因爲上聞，假以通判之名，許以馳啓之路，委任校中凡事，使爲士林領袖。所謂願納與害民之事，一切革罷，則校弊自可杜矣。糶政，則前期分給，分給冊子，勿滿一戶，一依統記，分爲大中小三等，定爲五家統。一戶所受，限以三斗，則一統所掌，合爲一斛。使其統首都受，各分統戶。一年所給，定以十等，則頻數來往，亦涉妨農，春三朔所受者，則歲首以三斛出給統首。夏三朔所受者，夏初亦如之。其餘四等，都給於麥嶺，永爲定式，則庫無數開之弊，民無頻入之勞。開庫出穀之際，勿使官隸、面任輩干預，只使統首輩，親入負出，固鎖印封。

이하생략~

죽산(竹山)의 유학(幼學) 박성소(朴聖素)가 유지(有旨)에 응하여 상소하기를,

“민전(民田)에 관한 급재(給災)는 부윤(副尹)이 주장(主張)하는 것인데, 해마다 새로 차임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바치고 점유하기를 도모하거나 진전(陳田)을 답험(踏驗)하는 것을 그가 혼자서 조치하기 때문에 5, 6이나 7, 8부(負)를 급재해 주어야 할 곳을 파·속(把束)으로 현록(懸錄)하는 데 불과할 뿐인가 하면 작부(作夫)를 내보내기에 미쳐서는 결부(乞負)라고 일컬으면서 이름도 없는 허부(虛負)를 몇 배씩 더 냅니다. 그리하여 위로는 향청(鄉廳)에서부터 아래로 관례(官隸)·면임(面任)에게 이르기까지 정채(情債)를 지급하는 것이 걸핏하면 10여 결(結)이나 되도록 많기에 이르니,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먹는 것은 이에 의거하여 보면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니 조가(朝家)에서 급재하여 주는 것에 대해 백성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군정(軍政)의 백골(白骨)·황구(黃口)의 폐단에 대해 누차 성려(聖慮)가 있었습시다만, 교환한 교임(校任)의 족속들은 모두 양역(良役)을 면하고 간사한 향임(鄉任)의 이웃들도 모두 군정(軍丁)을 면하였으며, 재상(宰相)의 묘직(墓直)으로 투탁(投托)한 자들은 많이 면제되고 교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임의 노예를 한가히 노니는 자들은 수없이 많게 되었습니다. 한정이 있는 인정(人丁)이 이렇게 은닉(隱匿)되고 있으니 도고(逃故)된 인원을 충정(充定)시킬 적에 백골과 황구가 첨정(簽丁)되는 것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조적하는 정사에 이르러서는 수령(守令)이 분수를 범하고 창색(倉色)이 포흠(逋欠)하는 것과 간향(奸鄉)의 도급(都給), 면임(面任)의 허호(虛戶)는 이것이 모두 조가(朝家)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수를 범하는 한가지 일에 대해서는 수의(繡衣)의 염탐과 상영(上營)의 규찰에서 절로 탄로날 수 있는 것입니다만, 하배(下輩)들이 훔쳐내는 것은 오로지 고문(庫門)을 자주 여는 것에 연유된 것이고, 면임의 허호는 모두가 부민(富民)들의 누적(漏)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색(倉色)과 면임(面任)이 서로 교결하여 손을 빌려 농간을 부리면서 곡식을 지고 나르느라 분답(紛踏)스러운 때를 엿보아 많은 석수(石數)를 훔쳐냈다가 환납(還納)할 때에 이르러서는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구걸을 하여 완전히 빈 껍질로 숫자를 채워 입고(入庫)시킵니다. 이것을 다시 나누어 지급할 때를 당하여서는 백성들이 바친 정실(精實)한 곡식은 아전들이 먹고 백성들이 먹을 것과 종자(種子)는 전부 빈 껍질을 지급하고 있으니, 억울하고 통분스러운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학궁(學宮)은 풍화(風化)에 관계되는바 예의(禮義)를 서로 숭선하여야 되는데도, 오로지 시장 통에만 드나들고 여리(閭里)에 다니면서 술만 찾고 있으며, 어로(魚魯)를 구분하지 못하고 숙맥(菽麥)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로 이 직임을 맡게 하였습니다. 조가(朝家)에서 획급(劃給)하는 물품이 성사(聖祀)를 받들고 사류(士類)를 공궤(供饋)하기에 충분한데도, 이른바 재임(齎任)이란 자가 만일 서까래 하나 기와 하나라도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장황하게 큰 일이 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원납(願納)을 할 수 있게 해 주기를 청합니다. 이른바 원납이란 것은 민원(民願)에 따라 돈 20냥을 바치고 일생 동안 면역(免役)되는 것을 말합니다. 1년에 두 차례 시행하는데, 원납을 받을 적마다 원납하는 사람이 또한 전혀 없는 가운데 어찌다가 겨우 하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례(校隸)들을 많이 내보내어 집에 송아지 한 마리라도 있으면 부민(富民)이라고 일컬으면서 생판 강제로 받아내어 가업(家業)이 파산되어도 납입시키고야 맙니다. 간혹 관가(官家)의 금단(禁斷)이나 향당(鄉黨)에서 시비(是非)하는 경우가 있으면 향회(鄉會)와 관통(關通) 등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중(藉重)하여 공갈하는가 하면 불과 수십 금(數十金)이면 쉽사리 판비(辦備)할 일을 만드니 수백 냥의 재화(財貨)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재력(財力)은 이미 관가에서 내어놓은 것도 아니고 또 향교(鄉校)에서 판출하는 것도 아니며 모두 원납(願納)에서 나오는 것이니, 고할 데 없는 지친 백성들이 어떻게 지탱하여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통판(通判)의 일과(一)를 새로 만들어서 그 고장에서의 공의(公議)를 널리 채집하여 식견이 넓고 글에 능한 선비를 가려서 본읍(本邑)에 천거하면 본읍(本邑)에서는 그의 재식(才識)과 문예(文藝)를 시험보인 다음 감영(監營)으로 올려 보내게 합니다. 감영에서는 이를 다시 태학(太學)으로 올려보내고 태학에서는 재능을 시험보이는 것을 한 결 같이 본읍에서 예(例)와 같이 한 연후에 위에 아뢰어 통판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치계(馳啓)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준 다음 향교의 여러 가지 일을 위임시켜 사림(士林)의 영수(領袖)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른바 원납과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을 일체 혁파시킨다면 향교로 인한 폐단은 절로 막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적정(政)은 기일에 앞서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준 책자(冊子)에는 1호(戶)도 누락시키지 말

게 하는 것을 한 결 같이 통기(統記)처럼 하여 대·중·소(大中小) 3등(等)으로 나누어 오가통(五家統)으로 정합니다. 그리하여 1호에서 받는 것을 3두(斗)로 한정하면 1통(統)에서 관장하는 것이 합계하여 1곡(斛)이 되는데, 이를 통수(統首)로 하여금 도거리로 받게 하여 각각 통호(統戶)에 나누어 주게 합니다. 1년에 지급하는 것을 10등으로 정하면 자주 왕래하게 되어 또한 농사짓는 데 방해가 되니, 봄 석 달에 받는 것은 세수(歲首)에 3곡(斛)으로 통수에게 내어주고 여름 석 달에 받는 것은 초여름에 또한 같이 내어주게 하며, 그 나머지 4등은 보릿고개에 모두 내어주는 것을 영구히 법식으로 정한다면, 창고를 자주 여는 폐단이 없게 되고 백성들이 자주 들어가는 노고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창고를 열고 곡식을 내어주는 즈음에 관례(官隸)와 면임(面任)들로 하여금 간예하지 말게 하고 단지 통수들로 하여금 직접 들어가서 지고 나오게 한 다음 자물쇠를 굳게 잠그고 봉인(封印)하게 합니다. 또 고을 안을 두루 염찰하여 만일 간범(干犯)한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추환(推還)하여 엄형(嚴刑)을 가함으로써 징계 면려해야 합니다.

이하생략~

### ▶ 13권 6년 6월 2일 丁卯

僉知中樞府事鄭述祚上疏曰：

~중략~

牛、酒、松三禁，乃國家恒有之法也，當此穀貴之時，凡係糜費之弊，尤當嚴防。 通計八道釀酒之費，則譬之民食，似爲三四分之一，而以京城言之，當居其半。方今萬民翳桑，一粒如金之日，豈可使濫費於無益之地哉？惟大小祀饗及喪葬所用外，潛匿大釀，列販賣之類，一竝嚴禁，庶爲救弊之一助矣。

이하생략~

첨지중 추부사 정술조(鄭述祚)가 상소하기를,

~중략~

소·술·소나무 이 세 가지에 대한 금법[三禁]은 바로 국가에 항상 있는 법인 것인데, 이렇게 곡식이 귀한 때를 당하여는 모든 미비(糜費)에 관계되는 폐단은 더욱 마땅히 엄히 방금해야 됩니다. 팔도(八道)에서 술을 빚는 데 허비되는 것을 통틀어 계산하여 보면 이를 백성의 식량에 견줄 경우 삼사분의 일은 될 것 같습니다만, 경성(京城)을 가지고 말하여 보건대 의당 반의 숫자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방금 만백성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 낱알 하나가 금(金) 같은 때를 당하여 어떻게 함부로 무익한 곳에다 곡식을 허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대소의 사향(祀饗)과 상장(喪葬)에 소용되는 것 이외에 몰래 술을 많이 빚어서 여러 집포에서 판매하는 부류들은 일체 아울러 엄금하게 되면 거의 폐단을 구제하는 데 일조(一助)가 되겠습니다.

이하생략~

▶ 16권 7년 7월 18일 丁未

大司憲洪良浩上疏曰：

臣於向來，猥膺專對之命，往來燕、薊之間，山川城邑，皆是堯、禹舊跡，而衣冠文物，非復昔日，顧瞻寤歎，益恨未及見皇王盛時也。然地是中華之舊；人是先王之民。流風餘俗，尚有可徵。至於利用厚生之具，皆有法度。蓋是周官舊制，百代相傳，雖有金火之屢嬗，華夷之迭入，而民國之大用，亘古不易，終非外國之所可及者。臣嘗於簡編中，粗有一二究揣者。而耳聞不如目見，乃今身履其地，蓋有犁然可信者。夫觀風、詢俗，使臣職也。謹取其有裨於國計，最切於民用者，分爲六條，開列于左，惟聖明垂察焉。一曰車制。昔黃帝氏始作舟車，以濟不通，號以軒轅者，可見萬世之功，莫盛於造車也。禮問國君之富，數車以對，可見有國之用，莫大於車也。『周禮』『考工記』，百工之事，各一其官，而獨於車也，有輪人、輿人、車人、輶人等職。徑、圍、尺、寸之制，長、短、崇、博之式，纖悉如畫，足令人手按而斤斲焉。先儒之言曰：“車有天地之象，人在其中，法易之三才六畫。”又可見生民之器，莫重於車也。夫如是，故行則有乘車焉，戰則有戎車焉，任載有大車，農家有役車，灌田有水車，千百其制，各致其用，內而中國，外而四裔，莫不用車也。試以今行所見言之，燕京之內，輪轂相擊，填街溢巷，苟非賤隸、婁兒，則舉皆乘車而行。自燕至遼千餘里之間，軌轍相連，如印一跡，鑾鈴相聞，日夜不絕。關、陝、川、蜀之險，江、浙、閩、廣之遠，豪商、鉅賈，如行門庭。此不但通道大國，財貨殷富之致，足見用車之利，什百於馬也。今以行用商車觀之，一乘所駕，不過五六騾馬，而所載之任，可敵數十匹之力，至於一驢輕車，三人竝乘，獨輪小輶，一夫後推，亦可見事半而功倍也。蓋車者不食之馬，行路之屋也。生民之大用，有國之利器，無大於是。而獨我東方，不能用車者何也？人之恒言，大約有二。一曰道路之巖險也，一曰牛馬之鮮少也。臣請逐一辨之。夫天下之險，莫過蜀道，而相如之赤車駟馬，嘗過成都矣；諸葛之木牛流馬，亦行劍棧矣。直以臣之所經言之，則青石、摩天之峻，殆過於我國之洞仙嶺，而車行無礙，商旅相望，舉一而可推其餘也。然則道路之險，不足憂也。夫我東牛馬之鮮少，非生畜之不殖也，特由牧養之不得其方，服乘之不順其性也。耽羅之產，素稱大宛之種。北關之馬，不讓冀北之駿。島場、沙苑，基置雲布，豈真無馬耶？職由牧子之耗蠹，監守之疎惰也，是謂失在於牧養也。至於牛畜之蕃，莫如我國。京外屠殺，一日不知幾千，而生生不息，則土風所宜，不言可知。『經』曰：“服牛乘馬。”蓋謂牛宜於服箱，馬宜於騎乘，未嘗言用馬載物也。傳曰：“牛以引重，馬以致遠。”引重者，引車之稱，非謂以背負重也。致遠者，行致之稱，非謂致物於遠也。於以見馬宜騎行，而引重之力不如牛；牛可服箱，而致遠之健，不如馬也。亦未嘗言用牛載物也。我國則不然，牛馬皆任其背，牛則尚可，馬其殆矣。由是之故，江上載米之馬，率半年而易。城中運柴之蹄，過三冬而力盡，大抵不斃則蹇，以之屠肆矣。此豈馬之罪哉？是謂失在於服乘也。然則二者之說窮矣，何苦而不用車也？臣則謂非不能也，乃不爲也，非不爲也，蓋未嘗求行之之術也。豈惟是哉？君子安於循常，



不欲爲變通之論，衆人狃於見聞，不樂爲稀異之事，故國家未嘗設法而禁之，終無一人創行者，雖或有慨然有志，而苟非朝廷之令，則力有所不及，行之有不便焉耳。臣嘗宦游諸路，亦見國中，多用車之處。嶺南之安東、義城，海西之長淵、信川，關北之咸興以南六鎮諸邑，皆用一兩牛之車，運穀載柴，往來數百里之間，而制樣粗鈍，不能行遠，專由於未得其法，而亦可見車無不可行之理也。今欲行車，莫如取法於中國。先令諸軍門及兩西監、兵營，義州等處，送付車工於燕，使摸來諸車之制，各造幾輛，先使行用，各見便利，則列邑效之，他道效之，富戶效之，不過幾年，遍於一國，而其利之博，不可勝言矣。試言其大者，一則商賈轉輸，百貨流通也；一則貢獻賦稅，雇賃費省也；一則馬力不困，騎馬可裕也。以至戎車備，而武威自壯；傳車成，而駟騎少閒；水車行，而田野大闢矣。且以使行言之。三价所帶驛馬、刷馬，至於數百匹之多，及到柵內，歲幣乾糧，輒雇車運，其直費銀數千。此皆逐年尾閭之洩也。豈若我車我載，可行可止？既省雇賃之費，又除遲淹之弊，利害豈不較然乎？誠自灣府，較量使行馬匹，造成幾輛輕車，以備載運往來，則所把之馬，可減三五之一，而彼之雇價，因此自除。計一年造車之費，不過捐數年雇馬之資，而永除無窮之費矣。『易』曰：“不言所利，大矣哉。”王政，不必言利，而節用，所以愛民。苟便於民，則國受其福矣。此所謂不言之大利也。故一行車制，則國不期富而自富，民不期足而自足，兵不期強而自強矣。豈少補哉？惟是治道之政，不無少費，而嶺陲橋梁，則自官治之。衢路、阡陌，則使民修之，不過一號令之間耳。

『詩』曰：“彼岨矣岐，有夷之行。”又曰：“周道如砥，其直如矢。”治道一事，亦是王政所先，不獨爲行車地也。二曰甃法，夫甃之所起，不見於經傳，而陶器，肇於虞帝，瓦屋，始自夏后，則燔土之法，瓦甃一也。以甃爲城，亦未知昉於何代，而城之爲文，從土從成，蓋謂築土以成也；甃之爲文，從壁從瓦，蓋謂以瓦成壁也。城者墻壁之大者也。『易』曰：“城復于隍。”言城崩而復於土也。『詩』曰：“土國城漕。”亦見城以土而不以石也。所謂土築者，不當以散渙之土，成仡仡之墉也。“都城百雉。”見於『春秋』，雉堞之形，非燔土則不可。由是觀之，甃之爲城，厥惟舊矣。史言：“夏王勃勃，蒸土爲城，堅不可拔。”蒸土者，燔甃之謂也。秦之長城，曾聞用甃，而猶未之詳，臣於今行，目見舊城之周絡山頂者，皆是甃也。夫巫、閭之石，不可勝用，而必用甃焉者，誠以甃之勝於石也。蓋石非不堅也，惟其太堅，故可斲而不可礪，萬石之衆，長短不可盡齊也，累仞之築，縫線不可盡合也。風雨之所蕩擊，丸礮之所撞撲，一石或缺，全堞皆動，曷若燒土爲甃，範出一型，長短廣厚，均齊方平，千層萬疊，鑿鑿相合者乎？夫如是，故內而宮城、都城，外而州府郡縣，小而烽臺、譙樓，虹蜺之門，碑碣之字，皆用甃築，其制則一縱一橫，長短互錯，若左若右，厚薄齊等，太牙相銜，魚鱗相聯，而兩甃之交，填以泥灰，混合膠固，泯然成石，直如斤削，滑如礪磨，雖猿猱之捷，不可攀緣，其堅完精緻，非累石之比也。夫以中國之富，築城之法，大抵如此，則古人規畫之意，豈徒然哉？甃之爲用，不寧惟是？宮室焉、倉廩焉，以此墻壁也、階庭也，以此花甃紋甃，錯落枝梧，機巧百狀。不費人工，故大廈之材，不過棟椽牕牖而已，用木既寡，釘鐵隨省，其費至簡，其制極完。外絕穿窬之患，傍無延燒之憂。官舍民居，亦惟甃是賴。甃之爲器，豈不大哉？其利之博，正與車等矣。蓋嘗思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之, 車者以木爲質, 而成器於金; 甃者以土爲質, 而成器於火. 此乃天地生成之材, 爲生民之大用者也. 故『虞書』曰: “水火金木土穀惟修.” 『春秋傳』曰: “天生五材, 民并用之.” 生之者天也, 修之者人也. 古昔聖人, 觀象制器, 備物致用者, 皆所以財成, 天地之宜也. 且夫車者, 形圓而以動爲用; 甃者, 形方而以靜爲利. 方圓動靜, 而陰陽具焉. 一陰一陽, 而萬化生焉. 此殆天地造化之寓於器, 而自然爲萬世生民之利者, 實非人力所能爲也. 況甃與車, 其利雖均, 而其費至微, 取具於無禁之土, 責成於不窮之薪. 是眞斯民之無盡藏, 而天下之所公共者也. 惟我國, 不能用焉. 豈無土也, 豈無薪也? 人顧不用耳, 寧不惜哉? 臣於今行, 目見甃窰, 大略如我國之瓦窰, 而所燔之土, 亦與瓦同, 處處在在, 初非難得. 至於印割、燔造, 別無奇方. 而但熱火之法, 非燒乃蒸, 故一窰之薪, 不過蜀忝幹數十擔而足, 其費可謂至薄矣. 史所稱蒸土云者, 誠得其實, 而古人名言之不苟, 蓋如此. 然則用甃之易, 尤非用車之比, 臣請亦令軍門, 遣人取制於燕行, 如法蒸造, 先從宮城, 始隨缺改築, 仍頒其制於諸道, 凡關防、州郡, 有城而當修補, 無城而可新築處, 悉令用甃, 而揀築之法, 一倣華制, 其爲固國壯圉之道, 豈不大哉? 至若公私室屋生民日用之資, 乃是次第事耳. 三曰牧驢羊. 夫地上之用, 莫大於牛馬, 故以畜物之微, 應乾坤之象, 聖人之重之也如此. 然牛馬之生息有數, 生民之需用無窮, 必有以繼之, 然後斯乃不匱, 繼之維何? 驢羊, 是也. 蓋驢羊者, 馬牛之同類異族也. 故三牲之享, 柔毛亞於大武, 四牡之馳, 劣衛或補下駟, 此亦畜物之良者也. 古禮, 國君無故不殺牛, 而我國之俗, 宰殺無藝, 蓋由賓祭之差, 無物可代故耳. 特以牛產素蓄, 不至絕乏, 而農家耕犁, 每患不備, 今若多畜羊羔, 以代俎實, 則牛不過耗, 而耕有餘耦矣. 況羊之爲物, 最稱易生, 列於六畜, 徧於四方, 皮、毛、腸、角, 靡不中用. 故臣於出疆之前, 已有陳白, 今行略有貿來, 而每年曆貢之行, 邊門之市, 輒令和買, 漸致孳息, 則可以救萬牛之命, 開三農之利矣. 驢之爲物, 健不如馬, 而性馴易使, 價輕易求, 故中國之人, 家家畜之, 以之駕車, 以之載物, 以之服犁, 或令磨粟運水, 惟意指使, 如僮僕, 然其代人勞, 而分馬力甚大. 至若騾者, 出於驢, 而健於驢, 眞同雀生鷄, 而獮生狼也. 任重致遠, 兼牛馬之長, 故明皇幸蜀, 常乘青騾而疾馳. 宋之姚平仲, 乘白騾一日蹕八百里, 信蹄物之奇品也. 況又其性易長, 墮地半年, 輒勝騎馳, 故華人之愛之也, 有甚於馬. 我國驢騾, 雖有自北來者, 未嘗孳長, 力盡而斃, 是不閑牧畜之過也. 誠能多貿燕市, 放諸牧場, 取其種息, 以備國用, 則服乘有餘, 戎馬自足, 而車制若行, 用以駕載, 可當牛馬之半, 商旅流行, 民蒙其利矣. 大抵畜牧之政, 費少而利遠, 畜驢羊, 乃所以畜牛馬也. 牛馬蕃, 則民富而兵強矣.

이하생략~

대사헌 홍양호(洪良浩)가 상소하기를,

“신이 그 동안에 외람되게도 전대(專對)하는 사명(使命)을 띠고 연경(燕京)과 계주(州) 사이를 왕래해 보건대 산천(山天)과 성읍(城邑)은 모두가 요(堯)임금과 우(禹)임금 때의 고적(古跡)이었지만, 의관(衣冠)과 문물(文物)은 다시 옛날의 것이 아니었기에 둘러보고서 자다가도 한탄스러웠다고, 더욱이 황왕(皇王)의 훌륭한 시절을 보게 되지 못했음이 한스러웠습

니다. 그러나 땅은 곧 옛 중화(中華)의 것이고 사람은 곧 선왕(先王)들의 백성이어서, 흘러온 풍습과 남아 있는 세속은 그래도 징거(徵據)할 만한 것이 있었고, 이용(移用)과 후생(厚生)의 기구에 있어서도 모두 법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대개 주관(周官)이 옛 제도가 백대(百代)토록 서로 전해지면서, 비록 여러 차례 병화(兵火)의 변이 있어 화이(華夷)가 번갈아 들게 되었지만, 민생과 국가의 큰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고금(古今)의 변함이 없는 법이어서, 마침내 어느 외국(外國)이 어찌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간편(簡編) 내용에서 조금이나마 한두 가지를 연구하여 헤아린 것이 있었는데, 해도, 귀로 듣게 된 것이 눈으로 보게 된 것만은 못한 법인데, 이제 와서 몸으로 그 땅을 밟아 보니 대개 놀랍게도 믿을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저 풍습을 관찰하고 세속을 물어봄은 사신(使臣)의 직책인 것이기에, 삼가 국가의 계책에 도움이 되고 민생의 사용에 절실한 것들을 취택하여 여섯 가지 조목으로 나누어 아랫 구절에 개열(開列)하였으니, 오직 성명께서 살펴보아 주소서.

첫째는, 수레 제도[車制]를 말하겠습니다. 옛적에 황제씨(皇帝氏)가 비로소 배와 수레를 만들어 통행할 수 없는 데를 건너가게 하였기에 현원(軒轅)이라고 이름하였음은, 만세의 공로가 수레를 만든 것보다 더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일이고, 예법에 그 나라 임금의 부(富)를 묻게 되면 수레의 수효를 들어 답변하였음은, 그 나라의 사용하는 것으로 수레보다 더한 것이 없음을 보게 되는 일입니다. 『주례(周禮)』의 고공기(考工紀)에 온갖 공장(工匠)의 일은 각각 구실이 한 가지씩인데, 오직 수레에 있어서는 윤인(輪人)·여인(輿人)·거인(車人)·주인(人) 등의 직책이 있고, 경(徑)·위(圍)·척(尺)·촌(寸)의 제한과 장(長)·단(短)·숭(崇)·박(博)의 식(式)이 그림처럼 섬실(纖悉)하게 되어 있어, 누구나가 손으로 대보며 자귀로 깎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유(先儒)의 말이 ‘수레는 천지의 형상을 갖춘 것으로, 사람이 그 속에 있게 됨은 역리(易理)의 삼재(三才) 육획(六畫)을 본받은 것이라.’고 했으니, 또한 민생의 기구(器具)는 수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대저 이러한 까닭에 다닐 적에 승차(乘車)가 있게 되고 싸울 적에는 용차(戎車)가 있게 되고, 짐을 실을 때는 대차(大車)가 있고 농가에는 역차(役車)가 있고 밭에 물을 댈 적에는 수차(水車)가 있으며, 천백(千百) 가지의 제작으로 각각 사용을 하게 되어, 안으로는 중국(中國)과 밖으로는 사방의 변방까지 수레를 사용하지 않는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시험삼아 이번의 사행(使行)에 본 것으로 말을 하건대 윤곡(輪)이 서로 거리에 그득하고 항간(巷間)에 넘치었는데, 진실로 비천(卑賤)한 노예나 가난한 아이들이 아니면 거개 모두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연경(燕京)에서 요동(遼東)까지 1천여 리의 사이에 궤도(軌道)가 서로 이어져 마치 하나의 도장[印]을 찍어 놓은 것 같았는데, 방울 소리가 서로 들리며 낮이나 밤이나 끊어지지 않았습다. 섬서(陝西) 관중(關中)·사천(四川) 촉도(蜀道)의 험악한 길과 강소(江蘇)·절강(浙江) 및 민월(越)·광둥(廣東) 등의 먼 길을 호상(豪商)과 대고(大賈)들이 마치 문정(門庭)을 드나들듯이 했는데, 이는 단지 길이 뚫린 대국(大國)이고 재화(財貨)가 풍부한 소치 만이 아니라, 수레를 사용하는 편리가 말을 쓰는 것보다 몇십, 몇백 배가 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용하여 운행하고 있는 수레를 두고 보건대 1승(乘)을 메는 말이 5, 6의 나마(馬)에 지나지 않았는데 적재(積載)하는 짐은 수십 필(匹)의 힘이 들게 되는 것이었고, 당나귀 한 마리가 끌고가는 가벼운 수레도 세 사람이 함께 타고 다니며, 바퀴가 하나인 작은 원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轅)은 하나의 지아비가 뒤에서 밀고 다니니, 또한 일은 절반이나 하고 공효는 배나 됨을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수레라는 것은 먹이지 않아도 되는 말이자 길을 다니는 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민생들이 크게 사용하게 되고 온 나라의 편리하게 쓰는 기구가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유독 우리 동방(東方)에서는 수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대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로가 험악하다는 것이고 하나는 우마(牛馬)가 희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컨대 신이 하나하나 변해(辨解)하겠습니다. 대저 천하에 험악한 길은 촉도(蜀道)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도,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적차사마(赤車駟馬)로 일찍이 성도(成都)를 지나갔었고, 제갈량(諸葛亮)은 또한 목우유마(木牛流馬)로 검각(劍閣)의 잔교(棧橋)를 통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신이 지나가 본 바를 가지고 말하건대, 청석령(靑石嶺)과 마천령(摩天嶺)의 험준(險峻)은 자못 우리나라의 동선령(洞仙嶺)보다도 더했지마는, 수레가 거리낌 없이 다녔고 상인과 나그네가 서로 바라보았으니, 이 하나만 들어도 여타의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험악한 것은 근심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대저 우리 동방(東方)에 우마(牛馬)가 희소한 것은 생산이 번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특히 사육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부리기를 그의 성질대로 하지 못해서입니다. 탐라(耽羅)에서 나는 말은 본래부터 대완(大宛)의 종자라고 했고, 북관(北關)의 말도 기북(冀北)의 준마(駿馬)만 못하지 않습니다. 도장(島場)과 사원(沙苑)에 여기저기 놓여 있는데 어찌 참으로 말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진실로 목자(牧子)들이 좀먹듯이 소모해 버리고 감독하여 지키는 사람이 허술하여 태만하기 때문인 것이니, 이는 잘못이 목양(牧養)에 있다고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축(牛畜)의 번성이 우리나라 만한 데가 없습니다. 서울과 외방(外方)에서 도살하는 것이 하루에도 몇 천 마리가 되는지 알 수 없는데도 생산이 쉬지 않게 되니, 풍토(風土)가 합당한 것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역경(易經)』에 ‘복우 승마(服牛乘馬)’라 하였으니, 대개 소는 복상(服箱)하기에 합당하고 말은 기승(騎乘)하기에 합당함을 말한 것으로, 일찍이 말에다 물건을 적재(積載)함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전(傳)에 ‘소로써 인중(引重)하고 말로써 치원(致遠)한다.’고 했는데, 인중이란 것은 수레를 끄는 것을 말한 것이지 등에다 무거운 것을 짊어짐을 말한 것이 아니요, 치원이란 것은 행진(行進)하는 것을 말한 것이지 물건을 먼 데까지 가져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있어서 말은 타고 다니기에 합당한 것이지 인중(引重)하는 힘은 소와 같지 못함을 볼 수 있고, 소는 복상(服箱)하기에 좋지만 치원(致遠)하는 힘은 말만 같지 못함을 볼 수 있는 것이니, 또한 일찍이 소에다 물건을 적재(積載)함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아니하여, 소와 말이 모두 등에다 짐을 지게 되는데, 소는 그래도 가능하지만 말은 위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에 강가에서 쌀을 실어 나르는 말은 대부분 반년이면 한 번씩 바꾸어야 하고, 성 안에서 시목(柴木)을 운반하는 말은 삼동(三冬)이 지나고 나면 힘이 다 되어버려, 대체로 죽지 않으면 앓은뱅이가 되는 탓에 따라서 도살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말의 죄이겠습니까? 이는 잘못이 복승(服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말한 것은 궁하게 된 것인데, 무엇이 괴로워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불가능(不可能)한 것이 아니라 곧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일찍이 시행해 갈 방법을 찾지 않는 것이라 여깁니다. 어찌 오직

이것뿐이겠습니까? 군자(君子)들은 상례대로 하기만 편안히 여겨 변통해 가는 의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중인(衆人)들은 견문(見聞)에만 익숙하여 희귀하고 특이한 일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찍이 법을 만들어 금하지 않는데도 마침내 한 사람도 창시(創始)하여 실행해 가는 수가 없는 것인데, 비록 더러 분발하여 뜻을 가지게 된다하더라도 진실로 조정에서 명령하게 되지 않는다면, 힘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게 되어 실행하기가 편리하지 못함이 있게 되는 법입니다.

신이 일찍이 여러 도에 벼슬살이 다닐 적에 또한 우리나라 안에도 수레를 사용하는 데가 많음을 보았습니다. 영남(嶺南)의 안동(安東)과 의성(義城), 해서(海西)의 장연(長淵)과 신천(信川), 관북(關北)의 함흥(咸興) 이남 육진(六鎭)의 여러 고을들이 모두 한두 마리의 우차(牛車)를 사용하여, 곡식을 운반하고 시탄(柴炭)을 실어나르느라 수백 리의 사이를 오고가고 했는데, 제작이 거칠고 둔하여 멀리 가기는 불가능했음은 오로지 법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니, 또한 수레를 운행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레를 운행하려고 한다면 그 방법을 중국에서 취해 오는 것이 좋으니, 먼저 여러 군문(軍門) 및 양서(兩西)의 감영(監營)·병영(兵營)과 의주(義州) 등의 곳으로 하여금 수레 공장(工匠)을 연경(燕京)에 보내어 모든 수레의 제작을 모사(摸寫)해다가 각각 몇 양(輛)씩을 만들도록 하고, 먼저 내다 사용하여 각자가 현리함을 보도록 한다면, 각 고을들이 본받게 되고 여타의 도(道)에서도 본받게 되며 부호(富戶)들도 본받게 되어,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온 나라에 퍼지게 되어, 이익이 넓어짐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시험삼아 그 중에도 큰 것을 들어 말한다면, 하나는 상고(商賈)들이 전수(轉輸)하여 온갖 화물(貨物)이 유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부세(賦稅)를 거두어들이는 데에 고임(雇賃)을 덜게 되는 것이며, 하나는 말의 힘이 지치지 않게 되어 탈 말이 넉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거(戎車)에 있어서도 구비되어 자연히 무위(武威)가 씩씩해지게 될 것이고, 체전(遞傳)하는 수레도 이루어져 역마(驛馬)가 다소 한가로워지게 될 것이며, 수차(水車)가 운행되어 전야(田野)가 크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사행(使行)으로 말하더라도 세 사신(使臣)이 대동(帶同)하는 역마(驛馬)와 쇄마(刷馬)가 수백 필(匹)이나 되도록 많은데, 책문(柵門) 안에 이르게 되면 세폐(歲幣)와 건량(乾糧)을 오래 수레를 샅을 주고 운반하여, 대가로 수천의 은(銀)을 소비하게 되니, 이는 모두가 해마다 한정 없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 수레에 우리가 신고서, 갈려면 가고 쉬려면 쉬는 것만 하겠습니까? 이미 고임(雇賃)의 허비가 줄어들게 되고 또한 지체하게 되는 폐해가 제거될 것이니, 그 이해가 어찌 교연(較然)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만부(蠻府)에서 사행(使行)의 마필(馬匹)을 해아려 보고 몇 양(輛)의 가벼운 수레를 만들어서 신고 왕래하도록 예비해 놓는다면, 잡혀야 하는 말[馬]을 3분의 1이나 5분의 1로 감하게 될 수 있고 그 고가(雇價)도 이에 따라 자연히 제감될 것입니다. 1년의 수레 만드는 비용을 해아려 보더라도 두어 해의 말을 세내는 비용에 지나지 않으면서, 영구히 한없는 소비를 제감하게 될 것입니다. 『역경(易經)』에 ‘이롭게 되는 바를 말하지 않았으니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였듯이, 왕정(王政)은 이로움을 말할 필요가 없이 용도(用度)를 절약함은 곧 민생들을 애호(愛護)하게 되는 바인 것이니, 진실로 민생들에게 편리하게 되면 국가도 따라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말할 것이 없는 큰 이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수레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국가는 부유(富裕)해지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자연히 부유해지며, 민생들이 풍족해지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풍족해지고, 군사를 강해지기를 기약하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지 않아도 자연히 강해지는 법이니, 어찌 도움이 적은 일이겠습니까? 오직 도로를 닦는 행정에 있어서는 다소 비용이 없지 않게 될 것입니다만, 고개의 좁은 목과 교량(橋梁)에 있어서는 관(官)에서 닦아가고, 가로(街路)와 천맥(阡陌)에 있어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닦아가게 하면 되어, 한 번 호령을 내리는 사이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경(詩經)』에 ‘저 험악한 기산(岐山)에 평탄한 길을 내도다.’라고 하였고, 또 ‘숫돌 같은 한 길이 화살처럼 곧았다.’고 했습니다. 길을 닦는 한 가지 일은 또한 왕정(王政)이 먼저 해야 하는 바인 것이고 유독 수레가 다니기 위한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는, 벽돌 만드는 법을 말하겠습니다. 대저 벽돌이 생겨난 것은 경전(經傳)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도기(陶器)는 우제(虞帝) 때에 시작되었고 와옥(瓦屋)은 하후(夏后) 때에 비롯되었는데, 흙을 구어서 만드는 방법은 기와나 벽돌과 똑같습니다. 벽돌로 성을 쌓았음은 또한 어느 시대에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성(成)’이란 문자(文字)는 ‘토(土)’로 되고 ‘성(城)’으로 되어 있으니, 대개 흙을 쌓아 이루게 됨을 말한 것이고, ‘벽’이란 문자는 ‘벽(壁)’으로 되고 ‘와(瓦)’로 되어 있으니, 대개 기와로 벽을 이루게 되었음을 말한 것입니다. 성(城)이란 것은 장벽(牆壁)을 크게 쌓은 것입니다. 『역경(易經)』에 ‘성복우황(城復于隍)’이라 했는데, 이는 성이 무너져 흙으로 되돌아갔음을 말한 것이고, 『시경(詩經)』에 ‘토국성조(土國城漕)’라 했으니, 또한 성은 흙으로 쌓고 돌로 쌓은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른바 흙으로 쌓았다는 말은, 마땅히 풀리어 흩어지는 흙으로 높다란 담장을 이루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성(都城)이 백지(百雉)였다.’는 말이 『춘추(春秋)』에 있는데, 치첩(雉堞)의 형태는 흙을 구운 것이 아니고서는 안되니, 이로 본다면 벽돌로 성을 쌓았음은 그 유래가 오래 된 것입니다. 사책(史冊)에 ‘하(夏)나라 임금 발발(勃勃)이 흙을 찌서 성을 쌓았는데 견고하여 함락시킬 수 없었다.’고 했으니, 흙을 찌다는 것은 벽돌 구운 것을 말한 것입니다. 진(秦)나라 만리장성도 일찍이 듣건대 벽돌을 사용했다고 했었지만 지금껏 자세하게 알지 못하다가, 신(臣)이 이번 사행(使行) 길에 목도(目觀)하건대 산 정상에 주밀하게 이어져 있는 것이 모두 곧 벽돌이었습니다. 대저 무산(巫山)과 여산(閩山)의 둘은 이루 쓸 수 없는 것인데도 반드시 벽돌을 사용하였음은, 진실로 벽돌이 돌보다고 낫기 때문입니다.

대개 둘은 견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오직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깎을 수는 있어도 갈 수는 없기에, 많고 많은 돌들의 장단(長短)을 모두 가지런하게 할 수가 없고, 여러 길을 쌓을 적에 봉선(縫線)을 모두 딱 맞출 수 없어서입니다. 비와 바람이 쳐 씻기게 되고, 총과 포(砲)에 부딪치어 돌이 혹시 하나라도 빠져나가게 되면 치첩(雉堞) 전체가 모두 움직이게 될 것이니, 흙을 구어 만든 벽돌은 하나의 틀로 찍어내는 것이라 장단과 광후(廣厚)가 균일하고 방정하여, 천층만층을 쌓더라도 착착 들어맞게 되는 것과 어찌 같게 되겠습니까?

대저 이러하기 때문에 안으로는 궁성(宮成)·도성(都城)과 밖으로는 주부(州府)·군현(郡縣)과 작계는 봉수대(烽燧臺)·초루(樓)에나, 홍예문(虹門)과 비갈(碑碣)의 집까지 모두 벽돌을 사용하여 쌓게 되는 것입니다. 쌓는 방법은 하나는 종(從)으로 하고 하나는 횡(橫)으로 하여 장단(長短)이 서로 어긋나게 되면서 좌(左)인듯 하기도 하고, 우(右)인듯 하기도 하여 후박(厚薄)의 등급이 가지런하며, 견아(犬牙)가 서로 물리듯 하고 어린(魚鱗)이 서로 연결된 듯 한데, 두 벽돌의 사이는 회(灰)를 이기어 매우므로 견고하게 혼합되어 널찍하게 성석(成石)하여 자귀로 깎은 듯이 직선(直線)이게 되고 숫돌로 갈듯이 매끄럽게 되는지라, 비록 날랜 원숭이라 하더라도 발붙이지 못하게 되는데, 견고하고도 완전하고 정미하고도 치밀함이 돌

로 쌓은 것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대저 부요(富饒)한 중국(中國)으로도 성 쌓는 방법이 대저 이와 같았고 보면, 옛사람이 규칙(規)한 뜻이 어찌 그저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벽돌을 사용함은 오직 이것만이겠습니까? 궁실(宮實)에 있어서도 창고에 있어서도 이로써 짓고 장벽(牆壁)과 계정(階庭)에 있어서도 이로써 쌓는데, 꽃 벽돌과 문의(紋儀) 벽돌로 뒤섞어 괴어 놓아 온갖 형상으로 기교(機巧)를 부립니다. 사람의 공력을 허비할 것이 없게 되기 때문에 대하(大廈)의 목재(木材)도 기둥과 서까래나 창틀과 들창의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어서 목재를 씌이 이미 적게 되로 따라서 정철(釘鐵)도 감하게 되어 비용이 지극히 간략하지만 제도는 지극히 완전하게 되어, 밖에도 도둑맞게 될 염려가 없고 곁에서 화재가 나도 연소(延燒)하게 될 우려가 없습니다. 관사(官舍)도 민가(民家)도 또한 오직 벽돌을 힘입게 되니, 벽돌이란 이기(利器)로 어찌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익이 넓음은 바로 수레와 동등하게 됩니다.

대개 일찍이 생각해 보건대, 수레란 것은 목재(木材)로 바탕을 하여 쇠로 이루어지는 이기(利器)이고, 벽돌이란 것은 흙으로 바탕을 하여 불로 이루어지는 이기로서, 이는 곧 천지가 생성(生成)해 놓은 자재(資材)가 민생들의 큰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서(虞書)에는, ‘오직 수(水)·화(火)·금(金)·목(木)·토(土)·곡(穀)을 닦는다.’고 하였고, 춘추전(春秋傳)에는, ‘하늘이 낸 다섯 가지 자재(資材)를 민생들이 모두 사용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생성(生成)하는 자는 하늘이고 닦아가는 자는 사람인 것입니다. 옛적에 성인들이 천문(天文)을 관찰하여 이기(利器)를 마련하고 물건을 구비하여 사용하게 하였음은 모두가 천지에 합당하게 재성(財成)해 간 것입니다.

또한 그 수레란 것은 형체가 둥근 것을 움직여서 사용하게 되고, 벽돌이란 것은 형체가 모난 것을 인정시켜 이용하는 것이니, 모난 것과 둥근 것의 움직임과 안정됨은 음(陰)과 양(陽)을 갖춘 것이고,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니, 이는 자못 천지의 조화(造化)가 이 이기(利器)가 붙여지면서 자연히 만세(萬世)토록 민생들의 이익이 되어진 것이지 진실로 사람이 힘으로 능히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벽돌과 수레는 비록 이롭기는 균등하면서도 비용(費用)은 지극히 미미하여, 금단(禁斷)할 수가 없는 흙에서 재료를 취하게 되고, 한 없는 쉼나무[薪]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 이는 참으로 만백성들의 무진장(無盡藏)이고 천하가 공공(公共)으로 하게 되는 바의 것입니다.

오직 우리나라에서는 능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은 어찌 흙이 없어서이고 어찌 쉼나무가 없어서겠습니까? 돌아보건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서이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이번의 사행(使行)에 벽돌 굽는 가마[窯]를 목도(目覩)하건대, 대략 우리나라의 기와 굽는 가마와 같았고, 구워 내는 흙도 또한 기와를 굽는 흙과 똑같아 곳곳마다 산재(散在)해 있는 것이기에 당초부터 구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찍어내기와 번조(燔造)에 있어서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곧 찌는 것이기 때문에 가마 하나에 들어가는 쉼나무가 촉서(蜀黍) 대 수십 단이 되지 않아도 족했으니, 그 비용이 지극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책(史冊)에 말한 바 ‘증토(蒸土)’라는 말은 진실로 사실대로 된 것으로, 옛사람들은 구차하지 않게 이름을 불혀 말을 함이 대개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벽돌 사용이 용이함은 더욱 더 수레 사용과도 비교가 안되는 것이니, 신(臣)은 청컨대 또한 군문(軍門)으로 하여금 연경(燕京)의 사행(使行)에 사람을 팔려 보내 제작하는 방법을 가져다가 그 법대로 증조(蒸造)하도록 하여, 먼저 궁성(宮城)에서부터 시작하여 헐어지는 대로 개축(改築)하게 하고, 이어 제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작하는 방법을 제도(諸道)에 반포(頒布)하여 모든 관방(關防)과 주군(州郡)의 성(城)이 있는 데도 마땅히 보수(補修)해야 할 데와 성이 없어서 새로 쌓아야 할 데에 모두 벽돌을 쓰도록 하되, 쌓아 가는 방법은 한 결 같이 중화(中華)의 제도대로 하도록 한다면,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고 변방 방어를 튼튼하게 하는 방도에 있어서 어찌 대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公私)의 가옥이나 민생들이 일용(日用)하는 자재가 되어질 것에 있어서는 곧 그 다음의 일입니다.

셋째는, 당나귀와 양을 길러 내야 하는 일을 말하겠습니다. 대저 땅 위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소와 말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미한 축산물(畜產物)이지만 건(乾)과 곤(坤)의 상징(象徵)으로 하게 된 것이니, 성인들도 이처럼 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소와 말의 생식(生殖)은 수효가 있는데 민생들의 수용(需用)은 한이 없게 되니, 필경에는 뒤를 이어 가는 것이 있는 다음에야 동이 나게 되지 않을 것인데, 오직 무엇으로 이어 가야 할 것입니까? 당나귀와 양이 곧 그것입니다.

**대개 당나귀와 양은 말이나 소와 동류(同類)이면서도 다른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삼생(三牲)의 제향(祭享)에는 유모(柔毛)가 대무(大武)의 다음이 되고, 사모(四牡)로 달리게 될 적에도 더러는 하사(下駟)를 열위(劣衛)로 보충하게도 되는 법이니, 이것들도 또한 축산물 중에 좋은 것들입니다. **옛적의 예법은 임금도 일이 없이는 소를 잡지 않았었는데, 우리나라의 풍속에서 법도가 없이 도살을 하게 됨은 대개 손님 대접과 제사 반찬에 있어서 대신할 만한 물건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소는 생산이 본시 번성하는 것이어서 아주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도, 농가(農家)에서 쟁기질하게 될 적에는 매양 구비되지 못하여 걱정하게 되니, 만일 지금부터라도 양을 많이 길러 제사 접시에 채우는 것을 대신하게 된다면, 소를 지나치게 소모하지 않게 되어 쟁기질하기에 남아도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양이란 것은 가장 생산하기 쉽다는 것으로 육축(六畜)에 끼어 사방에 펼쳐져 있고, 가죽·털·내장(內腸)·각재(角材)가 사용에 맞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臣)이 국경(國境)을 나가게 되기 전에 이미 진백(陳白)했던 것이고, 이번의 사행(使行)에 조금 사오기도 했습니다만, 역공(曆貢)의 길에 변문(邊門)의 저갓거리에서 으레 화매(和買)하도록 하여 점차로 번식시켜 간다면, **소 1만 마리쯤의 생명을 구출하여 삼농(三農)의 이익을 열어 놓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나귀의 뒤통이는 말처럼 건장하지는 못하지만 성질이 길들이어 부리기 쉽고 값이 싸서 구하기도 쉽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키우면서 이로써 수레를 매기도 하고, 이로써 물건을 싣기도 하며, 이로써 쟁기질을 하기도 하고, 더러는 곡식을 갈기도 하고 물을 운반하기도 하여, 마음대로 부리기를 마치 동복(僕) 부리듯이 하므로, 사람의 노력을 대신해주고 말의 힘을 분담(分擔)함이 매우 큼니다.

노새라는 것에 있어서는 당나귀에서 나온 것인데 당나귀보다도 건장하여, 참으로 참새가 송골매를 낳고 추호(虎)가 이리를 낳은 것과 같은 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멀리 갈 수 있어 소와 말의 장점을 겸한 것이기 때문에,** 명(明)나라 황제가 촉(蜀)으로 행행(幸行)할 적에도 항시 과란 노새를 타고서 질주(疾走)했었고, 송(宋)나라의 요평중(姚平仲)도 흰 노새를 타고서 하루에 8백 리를 뛰었었으니, 제물(蹄物) 중에 기이한 물건입니다. 하물며 그의 성질이 쉽게 자라 태어난 지 반년이면 으레 타고 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화(中華) 사람들이 아끼기를 말보다도 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나귀와 노새를 비록 북방(北方)에서 가져온 것이 있기는 해도 일찍이 새끼 쳐 자라게 되지 않고 힘이 다하여 죽어버리게 되니, 이



는 목축(牧畜)에 익숙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진실로 연경(燕京)의 저잣거리에서 많이 사다가 목장(牧場)에 놓아기르며 종자가 번식한 것을 가져다가 국가의 사용에 대비한다면, 타고 다닐 것이 여유가 있게 되고 용마(戎馬)도 자연히 족하게 될 것이며, 혹시라도 수레 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타고 다니거나 싣고 다니기에 사용한다면 소와 말의 절반을 담당하게 되어, 상인(商人)과 행려(行旅)들이 퍼지게 되고 민생들이 복리(福利)를 입게 될 것입니다. 대저 목축(牧畜) 행정은 비용이 적고 이익이 원대해야 하는 법이니, 당나귀와 양을 기르는 곧 소와 말을 기르게 되는 것으로써, 소와 말이 번성하면 백성들이 부유해지고 군사가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하생략~

## ▶ 17권 8년 6월 15일 戊戌

戊戌/諭判中樞府事徐命善曰：“卿豈可自處以外廷臣耶？昇卿訓局都提舉，間又行大將事，凡幾次矣？卿可默會。丁酉以後，團束自別，于今八年，都相及主將，未嘗遞改，予亦視之若頗、牧，然部下將官，未必人人得人，則必須兩等考課，可以黜陟，此事關係，豈不重大？所管他司，雖不磨勘，本局決不可任置，予方臨殿，待貶目入來，然後京司啓本，始可開坼。卿須諒之，卽爲舉行。”命善胥命，屢加敦勉，有躬駕迎之之教，命善惶恐趨入，命入侍。教曰：“卿之處義過矣。予所以屢下促教者，非不知敬禮之義，而不如是則無以勉出故也。”命善曰：“臣雖無似，名以大官。遭罹之後，便卽揚揚赴公，自同無事，則臣雖不足言，而國體果將如何？此所以寧被罪而不敢承命者也。”上曰：“卿則以今日世道朝象，爲如何耶？隄防不嚴，義理益晦，人心至於陷溺，俗習甘於玩愒，今年不如去年，明年甚於今年，雖謂之日非可也。予之所倚以爲治者，惟輔相，而今則好惡不明，趨向靡定。今日之是甲而非乙者，明日則反是乙而非甲，毋論事之當否，義之曲直，惟視時議而俯仰，初無擔着明張底意，夫有國然後有其身，無其國則大臣亦安得自有乎？大臣如此，卿宰如此，下至於微末庶僚，悠悠泛泛，似睡非睡，如此而其國能安者，未之聞也。以蔡濟恭事言之，大臣、三司，譁而攻之者，何嘗有一半分眞贓之把捉者乎？忽於尹得孚疏出後，群起衆斥，指無謂有。夫刑政有國所重也，雖在尋常庶獄，必得其十分精實，然後流放竄殛，無所不可。而名曰討逆，如此無形迹沒摸捉之事，前古史牒之所未聞、所未有者也。且卿以尹得孚疏，爲孰所指喉也？蔡濟恭則聲討雖甚狼藉，臭類不啻馬牛，豈可以依稀然疑之迹，勒歸之於不干之人耶？至若宮筵云云，其設心造意，尤極巧密，予則以爲蔡濟恭不足疑也，宮筵主人亦不必疑也。別有一種不逞之徒，背馳國是，血戰公議，乘機俟釁，必欲甘心於卿家者矣。卞莊之術，明若觀火，此輩不除，則朝著無清明之日。今日諸臣，若嫌薰蕕之同器，早效鷹鷂之逐鳥，則予雖急於鎮安，豈無所以處之者乎？惜乎，諸大臣之誤國至此也。今日筵教，大臣聞之，必以爲不安，而國事罔涯，憂虞彌中，臨殿待卿，略布心曲。從今以後，勿以卿之一身廉隅，復事自引。”仍命行訓局貶坐。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관중주부사 서명선에게 유시하기를,

“경이 어찌 외정신(外廷臣)으로 자처하는가? 경으로 하여금 훈국도제거를 삼고, 가끔 대장(大將)의 일을 행하게 한 것이 무릇 몇 차례였는데, 경은 묵묵히 이해하여 정유년 이후에 단속함이 자별하여 이제 8년이 되었다. 도상(都相)과 주장(主將)은 일찍이 체개(遞改)함이 없는 것을 나 역시 보았다. 염파(廉頗)와 이목(李牧)과 같아서, 부하 장관(將官)을 반드시 사랑마다 제 사람을 얻어야 하고, 모름지기 두 차례의 고과(考課)를 하여 출척(黜陟)하여야 하니, 이런 일은 관계됨이 어찌 중대하지 않겠는가? 관장하고 있는 다른 사(司)는 비록 마감하지 않더라도 본국은 결코 방치해 두어서는 안되므로, 내가 바야흐로 전(殿)에 임하여 폄목(貶目)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연후에 경사(京司)의 계본(啓本)을 비로소 개탁(開帙)할 수 있으니, 경은 모름지기 이해하여 즉시 거행하라.”

하였다. 서명선이 서명(胥命)하자 여러 차례 돈면(敦勉)을 가하고, 몸소 가서 맞이해 오겠다는 하교까지 있자, 서명선이 황공하여 달려 들어오니, 입시를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경의 처의(處義)가 지나치다. 내가 여러 차례 재촉하는 하교를 내린 것은 경례(敬禮)하는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써 나오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니, 서명선이 말하기를,

“신이 비록 못났으나 이름이 대관(大官)인데, 환(患)을 당한 후에 즉시 양양하게 공청에 나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면, 신은 비록 말할 것이 없더라도 국체가 과연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차라리 죄를 입을지언정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오늘날의 세도(世道)와 조정의 기상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제방(防)이 엄하지 못하고 의리가 더욱 어두워져 인심이 함몰되고, 습속이 세월만 보내기를 즐겨서 금년이 지난 해만 못하고 명년은 금년보다 심해서, 비록 날로 글러진다고 해도 옳다. 내가 의지하여 다스리는 것은 오직 보상(輔相)인데 지금은 호오(好惡)가 밝지 못하고 추향(趨向)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오늘은 갑(甲)이 옳고 을(乙)이 그르다가 내일은 이와 반대로 을이 옳고 갑이 그르다고 하여, 일의 함당 여부와 의리의 곡직(曲直)을 물론하고, 오직 시의(時議)만 보아 부양(俯仰)해서 처음부터 책임지고 분명하게 펼치는 철저한 뜻이 없다. 대저 나라가 있는 연후에 자신이 있어서, 나라가 없으면 대신 역시 어찌 있겠는가? 대신이 이러하고 경재(卿宰)가 이러하여, 아래로 미관 말직의 서료(庶僚)에 이르기까지 유유하고 범연하게 조는 것 같으나 조는 것도 아니니, 이렇게 하고도 그 나라가 편안할 수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체제공의 일로 말하더라도 대신과 삼사(三司)에서 시끄럽게 공격하는 것이 어찌 일찍이 반분의 확증이라도 잡아낸 것이겠는가? 갑자기 윤득부의 상소가 나온 연후에야 여러 사람이 일어나고 무리를 지어서 배척하지만, 지적해 말한 것이 없다. 대저 형정(刑政)이란 나라의 중한 바가 있어서 비록 예사로운 서옥(庶獄)이라도 반드시 십분 정밀한 사실을 얻은 연후에 유방(流放)하거나 찬국(竄)해도 불가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름을 토역(討逆)이라 하면서 이처럼 형적이 없고 꼬집어낼 일이 없는 일은 전고의 역사책에서도 듣지 못했고 없었던 바이다. 또 경은 윤득부의 상소가 누가 시켜서 나온 것이라고 여기는가?

체제공은 성도함이 비록 매우 심히 낭자하지만 취류(臭類)가 우마(牛馬)일 뿐만이 아닌데, 어찌 회미한 의심의 형적을 가지고 애써 관계 없는 사람에게 돌리는가? ‘궁연(宮筵)’ 운운한

것에 이르러서는, 그 마음을 쓰고 뜻을 만든 것이 더욱 아주 교묘(巧密)한데, 내 생각에 채제공은 의심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기며 궁연(宮筵)의 주인 역시 의심할 필요가 없다. 별도로 일종의 좋지 못한 무리가 있어서, 국시(國是)와 배치되게 공의(公議)와 혈전을 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틈을 기다려 반드시 경의 집에 감심(甘心)하려는 자가 있다. 변장(卞莊)의 술책이 명약 관화(明若觀火)하여, 이런 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조정에 청명한 날이 없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제신은 마치 훈유(薰)를 한 그릇에 담은 것처럼 꺼려서 일찍부터 새매가 새를 쫓는 것만 배우는데, 내가 비록 진안(鎭安)하는 데 급하더라도 어찌 처리할 것이 없겠는가? 애석한 것은 여러 대신이 나라를 그르침이 이에 이른 것이다. 오늘의 연교(筵敎)를 대신도 들어서 반드시 불안해 할 것인데, 나라의 일이 끝이 보이지 않고 근심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전(殿)에 임해서 경을 기다려 대략 마음을 펴는 것이다. 이후부터는 경의 일신상 염치만 생각하여 다시는 자인(自引)하지 말라.”

하고는, 이어서 훈국의 폄좌(貶坐)를 행하라 명하였다

## ▶ 18권 8년 7월 7일 庚申

貽燕綸音曰：“嗚呼！貽謨燕翼，聖王所以裕後也，遠猷辰告，明廷所以綏衆也。肆予告廷臣以貽燕之猷，其尙明聽之。嗚呼！有子而欲子之安者，人情之所同，而人主爲甚，何者？其子安，然後朝廷安；朝廷安，然後萬民安。故欲安萬民、安朝廷，則必先乎其子。其子安而朝廷、萬民皆安矣。故曰人主爲甚。然人主之安其子也，非獨身教已也，卽朝廷百工，與有力焉。『詩』不云乎：‘濟濟多士，文王以寧。’由此觀之，武王之所以貽，成王之所以燕，庸非多士之助乎？然則今予又曷其不求助于多士乎？嗚呼！燕翼之道，在乎貽燕，則訓謨而導其志，典章以垂其教，禁暴舉賢，以防其奸，而固其衛，何莫非燕翼之謨？而如欲舉其要而言之，則以燕貽燕也。何謂以燕貽燕也？和平則致福，靖恭則召休，理之常也，故形和而氣和，氣和而聲和，聲和而天地之和應之。吾以和平靖恭，致福召休，而享其休福者，在吾子若孫，則豈非所謂以燕貽燕者耶？故若稽虞、夏、商、周之書，曰協和萬邦，曰協恭和衷，曰輯寧爾邦家，曰大和會，曰播民和。皆吾所謂貽燕也。至若武王之貽燕，亦不在於總干駟伐，而在於放牛、散馬，崇五教而綏萬邦。故予則以謂：‘若無武亂，皆坐之治，則澧水有芑之詩，未必作也。’蓋遺子以財者，必有其財者也。豈有不能自有其燕，而能燕其子者乎？嗚呼！我先大王值艱虞之會，塞禍亂之源，王道蕩平，建其有極，化干戈而爲揖讓，拔坑塹而奠衽席，彌綸調劑，煦濡覆育，躋朝廷於太和元氣之中。厥享國五十有二年，俾小子獲有今日，貽燕之謨，至矣盡矣。小子不能有以繼述志事，乃卽阼之初，朝著多事，是其責固在小子，而亦不能無慨於文王之士矣。嗚呼！向檢誅鋤之政，豈予所欲哉？蓋不得已也。過此以往，予惟以鎭安爲急務，亦諸臣之所知也。乃者錫我祚胤，載誕元良，位號既定，縟儀將舉。當此之時，予之欲貽謨燕翼，其意尤豈不深切也哉？嗚呼！今日朝廷，何其無事而有事也？大抵言議乖激，舉措顛錯，逆順判於呼吸，波瀾起於康莊。至於同室之內，或欲操戈，異趣之地，太涉吹毛，與所謂和平靖恭底氣像，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不幸相反，則其何以召休致福哉？此予所以不得不頗費辭令，而及今申誥者也。凡人於吉慶之日，不欲打壞器皿者，忌其類也。況人與人類，而吾爲億兆之主者哉？故予於近日，尤欲人人得所，事事圓成，蓋出於以燕貽謨之意也。嗟！爾諸臣，若能深體此意，則其變乖激爲和平，易顛錯以靖恭，直是轉移間事，何難之有哉？由是而朝廷安，由是而萬民安，由是而安我翼子，以安千萬年邦基，則亦豈非諸臣之所願哉？嗚呼！莫大之慶，罔非先大王貽燕攸暨，而若予所以貽燕於後日者，惟茲一事。咨爾諸臣，其各惕念承弼，毋負予求助之心。”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윤음(綸音)에 이르기를,

“아! 계책을 물려주어 자손을 보익(補翼)하게 하는 것은 성왕(聖王)이 후손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 원대한 계책을 제때에 포고하는 것은 밝은 조정에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나는 자손들에게 물려줄 큰 계책을 조정의 신하들에게 알리는 것이니, 그것을 분명하게 들을지어다.

아!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것은 사람들의 똑같은 심정인데, 임금의 경우에는 더욱 심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자식이 편안한 다음이라야 조정이 편안하고, 조정이 편안한 다음이라야 만백성이 편안하게 되는 까닭에, 만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조정을 편안하게 하려면 반드시 자식을 먼저 편안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자식이 편안하면 조정과 만백성이 모두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더 심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이 그 자식을 편안하게 하자면, 비단 자신을 모범으로 삼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바로 조정의 백관(百官)과 더불어 함께 힘을 써야 한다. 『시경(詩經)』에, ‘홀륭한 선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왕이 편안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보건대, 무왕(武王)이 성왕(成王)에게 편안한 계책을 물려준 것은 어찌 많은 선비들의 도움이 아니었겠는가? 그렇다면, 오늘날 내가 또한 어찌 많은 선비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겠는가?

아! 후손들을 위한 방도가 편안한 것을 물려주는 데 있다면, 모훈(謨訓)으로 그 뜻을 이끌어주고, 전장(典章)으로써 가르침을 베풀며, 나쁜 사람을 금하고 어진 사람을 내세움으로써 간사한 것을 방지하고 보위(保衛)를 굳건히 하는 것이 어찌 후손들을 위한 큰 계책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만일 그 요령을 들어 말한다면, 편안한 것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편안한 것을 자손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화평(和平)하면 복을 불러오고 조심하면 상서로움을 불러오니, 이것은 정상적인 이치이다. 그러므로 형(形)이 화평하면 기(氣)가 화평하고, 기가 화평하면 성(聲)이 화평하고, 성이 화평하면 천지가 화응(和應)한다. 나는 화평하고 조심하는 것으로 복을 불러오고 상서를 불러오는데, 이 상서와 복을 누리는 것은 나의 아들과 손자이니, 이것이 어찌 이른바 편안한 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만일 우(虞)나라·하(夏)나라·상(商)나라·주(周)나라에 대한 기록을 상고하면, 『서경(書經)』에서는, ‘모든 나라를 화평하게 한다.’고 하였고, ‘협조하고 조심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일해 나간다.’고 하였으며, ‘너희 나라를 화목하고 편안하게 한다.’고 하였고, ‘화평한 기회를 크게 열어 놓는다.’고 하였으며, ‘백성들에게 화평한 세상을 베푼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모두 내가 이른바 편안한 것을 물려주는 까닭이다. **주나라 무왕이 후손에게 편안한 것을 물려준 것과 같은 것도, 또한 무예의 숭상에 달려 있지 않고, 우마(牛馬)를 풀어놓고 오교(五敎)를 숭상하며 만방(萬邦)을 편안하게 하는 데 달려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무란(武亂)도 없고 모두 앉아서 정치를 한다면, ‘풍수(水)에 기풍이 있다.’는 시(詩)를 지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개 재물을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사람은 반드시 재물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자신이 편안한 도리를 지니지 못하고 자식을 편안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 우리 선대왕(先大王)은 간고한 때를 만나 화란(禍亂)의 근원을 막고 탕평(蕩平)한 왕도(王道)를 표준으로 세워 무기를 예절로 바꾸고, 싸움터를 편안한 잠자리로 만들었으며, 두루 다스리고 조절하며 따뜻이 천지를 덮어 주어 길러 주고 조정을 대화(大和)와 원기(元氣) 가운데 올려놓았다. 52년 동안 왕위에 앉아 있으면서 나 소자(小子)로 하여금 오늘이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니, 자손에게 물려준 계책은 지극하고 극진한 것이었다. 소자는 그 뜻과 위업을 능히 계승(繼述)하지 못하여, 왕위에 오른 초기에 조정에서는 사건들이 많았으니, 그 책임은 실로 소자에게 있는 것이지만, 또한 조정에 있는 선비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을 수 없다. 아! 지난날 주서(誅鋤)의 정사는 어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었겠는가? 대개 부득이한 것이었으니, 이를 겪은 이후로 내가 오직 백성들을 진정시키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던 것을 또한 여러 신하들도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전번에는 나에게 복스러운 자손을 주어 원량(元良)이 태어났고 지위와 칭호를 이미 정한 만큼, 장차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려 한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내가 후손들에게 계책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어찌 더욱더 깊고도 간절하지 않겠는가?

아! 금일의 조정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어찌하여 사건으로 만드는가? 대저 언론이 서로 과격하고 거조(擧措)가 전도되어 역순(逆順)이 순식간에 갈라져서 파란(波瀾)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심지어는 한집안 안에서도 혹은 칼을 잡고, 취향을 달리하려는 처지인데, 너무 취모 먹자(吹毛覓疵)하여 이른바 더불어 화평하고 안정하는 기상과는 불행하게도 상반되고 있으니, 그것이 어찌 상서로움을 불러오고 복을 가져오겠는가? 이것이 내가 많은 사령(辭令)을 내려서 지금까지 거듭 고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무릇 사람들이 길(吉)한 경사의 날에 그릇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유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하물며 사람은 사람들과 동류가 되고, 나는 억조창생(億兆蒼生)의 임금이 되는데야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근일(近日)에 더욱 사람마다 자기 위치를 찾고 일마다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대체로 후손들에게 계책을 물려주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아! 그대들 여러 신하들이 만일 이 뜻을 깊이 몸받는다면 과격한 논쟁을 화평(和平)으로 바꾸고 전도된 것을 안정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순간적인 일이 될 것이니, 무엇이 어렵겠는가? 이로부터 조정이 안정되고, 이로부터 만백성이 안정되며, 이로부터 나의 자손들이 편안하게 됨으로써 천만 년 토록 나라의 터전이 안정된다면, 이 어찌 여러 신하들의 소원이 아니겠는가?

아! 더없이 큰 경사는 모두 선대왕이 편안한 것을 물려준 혜택이 미친 보람이고, 내가 뒷날에 물려줄 것은 오직 이 한 가지 정사(政事)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대 여러 신하들은 각각 정신을 가다듬고 도움을 바라는 나의 마음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 18권 8년 11월 5일 丙辰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監賑使李在學，以北關事情，別單以聞。備邊司覆奏言：“長坡設鎮事，長津設邑事，問於道帥臣，詳審狀聞。端川設防營事置之，北關軍制事，嚴飭道、帥臣措置。別、親騎衛設置事，折衷施行。北兵營軍弊，依統營三鎮例施行。北兵營綿布分授各邑事，分付道臣，論理狀聞。穀簿查正事，令道臣，限年還作，六鎮牛犁鹽價量給事，知委六鎮，載之定例。北關量田事，鱗次舉行。人材事，申飭兩銓。”教曰：“茂山，土沃人衆，今成雄府。長坡，介於茂、甲之間，最爲兩關之咽喉，脫有緩急，管攝至難。土地則有汙萊之歎，關防則有疎虞之慮。設鎮一款，恐爲得宜。創始之初，糜費不少，茂山穀簿，以多爲患，割出經紀，未爲不可。曾經兵判、道、帥臣爛議，登對時稟處。長津堡設邑事，坐處迂回，官府夤緣，西而寧陽，北而平高，若吏若奴若民，避罪避逋避丁，爭先仝集，徒增奸僞。斷岸之村落，翻成撲地之人烟。鎮況昔儉今裕，鎮窠始避終願，觀於年前訓將禁堂之奏，可驗該鎮之不可拋棄，設邑之論，儘有意見，而衙庾之建置，糶糴之貯蓄，將於何辦出，持久不決，政坐是耳。略倣羣山、法聖或古羣山已例，或作履歷窠，或作兼營將窠，或作邊地窠，就武弁中有地望步趣人擇擬，則句檢撫摩，兩得其宜。兵判、訓將，與曾經西北道帥臣人爛議。又就議大臣，指一稟處。端川設防營事，端之爲治，處在天、雲兩嶺之交，財賄之所輻輳，商市之所絡繹。其產，銀、蔘、貂鼠。其利，魚鹽、泉布，以至攻玉採石，皆資日用器什。是非所謂一都會乎？然而差遣之際，多不慎揀，便作訓、判、都、經應遷之窠，巖邑安有所恃乎？防營如難遽設，兩銓長相議稟處。北關軍制事，一入校鄉，羞隸軍伍，奚但北路爲然？等威日就凌夷，流弊安得不至於此？苟求弊源，責在朝廷，所期先自廟堂而淬礪。別、親騎衛設置事，此說之可否八年，迄無定論。北人之有識慮者，必以朝廷事事姑息，相與竊歎。更勿如前因循。就評事沈豐之、監司趙重晦・趙琰、兵使李漢膺・徐有大・安宗奎等，狀辭節目，施行當否，決定以聞。兵營軍弊事，此亦民也。民之爲弊，乃至於斯，宜講矯揉之策。但其一保加給，雖似無難，十二番軍數，至三千，三千之保，又當爲三千。閑丁日縮之時，許多保軍，何處得來？賑使所請元數三千名除番代布，似無掣礙之端。卿等既請，道帥臣論理狀聞，依回啓施行。綿布殖利事，與曾經道伯人及監賑吏，相議稟處。穀簿查正事，依回啓施行。**六鎮清市，牛犁、鹽價穀布參半事，依回啓施行。**近來釐正事件，果若一一添載於定例乎？曾經道伯一人，差校正堂上，無論開市定例，本道詳定冊子，逐段添錄。北關量田事要之，待豐爲好。舉行遲速，惟在道臣量宜措置，不必指一分付。人才搜訪事，深北人物，在在俊偉，士馬之精壯，勝於南關。以至冠儒服儒者，亦莫不明秀，特以逖矣遐陬，既難致身自銜，亦不搜羅旁探，大有違於懷綏之政。間有求仕，徬徨旅托，畢竟成就，不過是殘署冷廳。甚者往往空往空來。此特指文蔭而言也，最可矜悶者，武士是已。付料之式，抄上之規，有以仰祖宗朝慰悅遠人之聖意，而銓曹收用，只是西之植松，北之造山等窠。曷嘗有拔例超擢者乎？又若固窮自守者，豈肯入於近日道伯之薦目乎？振拔之要，將如何爲得，對揚之方，望在廊廟。此意傳于大臣，武弁中如韓光濟者，特差別軍職，令道伯給馬起送。”

감진사(監賑使) 이재학(李在學)이 북관(北關)의 사정을 별단(別單)으로 보고한 것에 대하여 비변사에서 복주(覆奏)하여 말하기를,

“장파(長坡)에 진(鎭)을 설치하는 일과 장진(長津)에 고을을 설치하는 일을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물어서 자세히 조사하여 장문(狀聞)하게 하고, 단천(端川)에 방어영(防禦營)을 설치하는 일은 그대로 두게 하소서.

북관의 군제(軍制)에 대한 일은 도신과 수신에게 엄격히 신칙하여 조치하게 하고, 별기위(別騎衛)·친기위(親騎衛)를 설치하는 일은 절충해서 시행하도록 하소서. 북병영(北兵營)의 군사 폐단은 통영(統營) 삼진(三鎭)의 관례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고, 북병영의 면포(綿布)를 각 고을에 나누어 주는 일은 도신에게 분부하여 사리를 따져서 장문(狀聞)하도록 하소서. 곡부(穀簿)를 사정(査定)하는 일은 도신으로 하여금 연한을 정하여 환작(還作)하게 하며, 육진(六鎭)의 소와 쟁기와 소금값을 헤아려 주는 일은 육진에 통지하여 정례(定例)로 기재하게 하소서. 또 북관의 양전(量田)하는 일은 순차대로 거행하게 하고 인재의 선발에 대한 일은 두 전조(銓曹)에 거듭 신칙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무산(茂山)은 토지가 비옥하고 인구가 많아서 지금 큰 고을을 형성하고 있다. 장파는 무산과 갑산(甲山)의 중간에 끼어 있어서 남관(南關)과 북관(北關)의 가장 중요한 길목이 되는데, 만약 위급한 때를 당하게 되면, 관섭(管攝)하기가 매우 어렵겠다. 토지는 늪지대와 풀밭으로 변하는 탄식이 있고, 관방(關防)은 허술해지는 우려가 있다. 진(鎭)을 설치하는 한 가지 조항은 아마 타당할 것 같다. 새로 시작하는 초기에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갈텐데, 무산은 곡부(穀簿)가 많은 것이 걱정인 만큼 떼어 내어서 운영하더라도 불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찍이 병조판서나 도신·수신을 지낸 사람들과 충분히 의논하여 등대(登對)할 때 품처(稟處)하게 하라.

장진보(長津堡)에 고을을 설치하는 일은 위치가 외진 곳이고, 관부(官府)가 너무 멀며, 서쪽은 양지바른데다가 북쪽은 평탄하고 높아서, 아전이나 남종이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지어 도망하거나, 관청의 재물을 훔쳐 도망하거나, 군역을 회피하려는 자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바람에 간사하고 속이는 무리들이 늘어나고, 낭떨어지에 있는 촌락들이 사람들의 밭짓는 연기로 가득 찼으며, 진의 형편도 옛날에는 가난하였으나 지금은 넉넉하며, 진장(鎭將)의 벼슬자리는 처음에는 회피하는 자리였지만 마침내 자원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연전에 훈련대장과 의금부 당상의 주본(奏本)을 보고 징험할 수 있었다. 해당 진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과 고을을 설치하자는 의논은 모두 여러 의견(意見)이 있으나, 관아와 창고의 건치(建置)라든가 조적의 저축을 장차 어떻게 마련해 내야할지 오래 끌면서 결정을 짓지 못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략 군산(群山)·법성(法聖)이나 혹은 고군산(古群山)의 전례를 모방하여 혹은 이력과(履歷)로 만들거나, 혹은 겸영장파(兼營將)로 만들거나, 혹은 변지파(邊地)로 만들어서, 무관 가운데 문벌과 명망과 역량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의망(擬望)하게 되면 고을 일을 주관하고 백성들을 무마하는데 있어서 양쪽으로 다 잘될 수 있을 것이다. 병조판서와 훈련대장은 일찍이 서북(西北)의 도신·수신을 지낸 사람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다시 대신(大臣)들과 의논하여 하나로 지적하여 품처(稟處)하라.

단천(端川)에 방어영(防禦營)을 설치하는 일은 단천 고을의 치처(治處)가 마천령(摩天嶺)과 마운령(摩雲嶺)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재물이 집중되는 곳이고, 장사아치들이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계속 왕래하는 곳으로 되고 있다. 그 산물은 은(銀)·삼(蔘)·초서피(貂鼠皮)이고, 백성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어염(漁鹽)과 천포(泉布)를 비롯하여 옥돌을 캐고 돌을 뜨는 것인데, 모두 일용 도구의 재료로 되고 있다. 이야말로 하나의 큰 도회(都會)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고을 수령을 임명해서 보낼 때에 흔히 신중하게 가리지 않고 문득 훈련원 판관·도사·경력(應遷)하는 자리가 되고 있으니, 산골에 자리잡은 고을이 어디에 밭을 데가 있겠는가? 방어영은 만일 갑자기 설치하기 곤란하면 이조판서와 병조판서가 서로 의논해서 품처하게 하라.

북관의 군제에 관한 일은 한번 교생(敎生)이나 향임(鄕任)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군오(軍伍)에 매이는 것을 수치로 여기니 이것이 어찌 북로(北路)만 그러하겠는가? 등위(等威)가 날로 해이해지고 있으니, 그 유폐(流弊)가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폐단의 근원을 따지자면 그 책임은 조정에 있으며, 기대하는 바는 먼저 묘당(廟堂)에서부터 힘을 다하자는 것이다. 별기위(別騎衛)와 친기위(親騎衛)를 설치하는 일은 이 의견의 가부(可否)에 대하여 8년 동안이나 끌어왔으나 아직껏 정론(定論)이 없다. 북로의 사람 가운데 식견과 사려가 있는 자들은 필시 조정에서 일마다 모든 일을 고식으로 처리한다고 서로 더불어 탄식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는 전과 같이 인순(因循)하지 말라. 평사(評事) 심풍지(沈豐之), 감사(監司) 조중회(趙重晦)·조준(趙), 병사(兵使) 이한응(李漢應)·서유대(徐有大)·안종규(安宗奎) 등은 장문한 절목(節目)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의 당부(當否)를 결정해서 보고하도록 하라.

병영(兵營)의 군사 폐단에 대한 일은 이 또한 백성들에게 관계되는 일이다. 백성들에게 폐단이 되는 것이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의당 바로잡아 구제할 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단지 보군(保軍) 1명을 더 주는 것은 무난할 것 같으나 12번군(番軍)의 숫자가 3천 명에 이르는데 3천 명에 대한 보군이 또한 마땅히 3천 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정(閑丁)이 날로 줄어드는 때에 허다한 보군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감진사(監賑使)가 요청한 원래의 숫자 3천 명에 대해서 입번(立番)하는 것을 면제하고, 그대신 군포(軍布)를 물리는 것은 장애가 될 일이 없을 듯하다. 경 등이 이미 도신과 수신에게 사리를 따져 장문(狀聞)하도록 청하였으니, 회계(回啓)한 대로 시행하라. 면포(綿布)를 가지고 이식(利殖)하는 일은 일찍이 도백을 지낸 사람 및 감진사와 상의해서 품처하게 하라. 곡부(穀簿)를 조사하여 바로잡는 일은 회계한 대로 시행하라. **육진에서 청(淸)나라가 개시(開市)에서 사가는 소·쟁기·소금의 값을 곡식과 포(布)로 절반씩 참작하여 받는 일은 회계한 대로 시행하라.** 근래에 이정(釐正)한 사건들을 과연 낱낱이 정례(定例)에 첨부하여 기재하고 있는가? 일찍이 도백(道伯)을 지낸 사람 한 명을 교정 당상관(校正堂上官)으로 임명하여 개시(開市)의 정례(定例)와 본도(本道)의 상정 책자(詳定冊子)를 막론하고 조항별로 보태서 기록하라. 북관(北關)에서 양전(量田)하는 일은 요컨대 풍년들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거행을 늦추거나 빨리하는 것은 오직 도신이 적당히 조치하기에 달려 있을 뿐이니 하나를 가리켜서 분부할 필요는 없다.

인재(人材)를 찾아내는 일은 깊은 북쪽 지방의 인물(人物)들은 가는 곳마다 뛰어나고 군사 와 말이 건강하기는 남관(南關)보다 우수하다. 심지어 유복(儒服)차림의 유자(儒者)들까지도 또한 명석하고 우수한데, 특히 멀고 먼 지방에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제 자란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찾아내고 널리 구하지도 않으니, 먼데 사람을 보살피고 무마하는 정치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간혹 벼슬길을 구하여 객지에서 헤매다가 필경 성취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부서의 시시한 무관 자리에 불과하고, 심한 경우에는 왕왕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다만 문관이나 음관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고 가장 불쌍한 것은 무사(武士)들이다. 부료(付料)의 규칙과 사람을 뽑아서 올리는 규례에는 조종조(祖宗朝)의 먼데 사람을 위로하는 거룩한 뜻을 우리러 볼 수 있는데, 전조(銓曹)에서 수용하는 것은 단지 관서의 식송(植松)과 관북의 조산(造山) 등의 자리가 고작이다. 언제 관례를 뛰어넘어 사람을 등용한 적이 있는가? 또한 곤궁한 속에서도 자기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 근일에 도백이 추천하는 명단 가운데 어찌 기꺼이 들어가려고 하겠는가? 그들을 진작시킬 방도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것을 대양(對陽)하는 방도에 대하여 나는 조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러한 뜻을 대신(大臣)들에게 전하고, 무관 가운데서 한광제(韓光濟)와 같은 사람은 특별히 별군직(別軍職)으로 임명하여 도백을 시켜 말을 주어 떠나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 18권 8년 11월 29일 庚辰

下綸音于濟州牧曰：“我邦壤地褊小，道凡有八州，府郡縣僅三百六十有奇。星羅碁布，可按圖而知已。一有水旱饑饉，管領甚便而獨耽羅一域，僻在海外，陸行幾千餘里，水路則倍之。聲響既漠於京師，撫摩只付於長吏。尋常啓牘之來，動費半年。凡島民之疾苦憂樂，莫之憑悉，豈朝廷懷保之澤，或間於島陸而然歟？今歲之秋，八路大熟，廟堂之上，無事乎荒政，惟予宵旰一念，亦庶幾小弛矣。廼者陽至之後，守臣始以州饑聞。於是乎丙枕蹶坐，益歎道塗之云邈。若使耽羅，不海而陸，遠止於北之六鎮、西之七邑，則豐歉之聞，豈此之遲乎？歲饑而莫予之知也，民窮而亦莫之救也。島民亦吾赤子，爲爾等父母，烏在其父母之責也？噫！自在我列聖朝，軫念茲土，罔間於內服，慰撫之悶恤之，靡不用極，深仁厚澤，浹爾髓而淪爾肌。逮予寡人嗣服之初，首遣持斧之臣，文武則設科試取其才，父老則詢弊瘼採其隱。以至崇孝而褒烈，輕徭而薄賦，凡所以便爾等之身，悅爾等之心者，事靡巨細，無願不從。此非予一人惠也，亦所以仰體我祖宗朝柔遠之澤耳。至愚而神，爾等其或知之否？羅里之倉，爲爾等設也。倉穀不敷，至有沿邑移粟之議，而重撓湖民，在所難愼。就比塗抹，亦足接濟。夫何愛數千穀包，不以慰諸子弟望哺之情？本倉遺儲若租、若牟，已令按道之臣，刻期督運，不日裝發。計於歲底，陸續往泊，明春開賑，自可無顧領之憂矣。前此耽羅設賑之時，問有發送繡衣，督運監賑之例，而儉歲廚傳，反貽爾等迎送之勞。曾在先朝己丑，爲念是弊，亦命道伯句管，今亦謹遵右例，不送繡衣，而但念此時牧伯遞易，必妨賑之政，前牧使嚴思晚，特令限麥秋仍留，兼付監賑之責，使之悉心賑事。守臣狀請，纔令廟堂，覆奏許施，而往歲諸路之歉，凡貢獻物種及民之出於身而納于官者，果與御供御藥而另行蠲除。所以施於陸民者，獨不施於島民可乎？**薦新黃果，祭享黑牛，係是莫重薦獻之需。**又若貢馬，亦關戎政，有難輕議。外此遠方珍獻，何惜吾民？各殿朔膳、物膳，三名日方物、內局進上藥材、京外各衙門各營門進排物種、內局及各司各宮房奴婢身貢，特併停減，留補賑資。既承慈教，慈殿宮所獻方物、物膳、朔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膳, 亦併停減. 今年停退條之竝與明年條, 而督納於明秋, 亦所當恤, 明年條仍許停退. 噫! 今者蠲免, 豈云施惠, 而其於紓民力、裕民食之道, 或有萬一之助否耶? 自見守臣之狀, 念爾等顛連遑遑之狀, 宛在予目中. 舟車不至而慙遷無路, 瓶罍告罄而契活罔涯. 鶉衣卉服, 呼號於浦村海岸之間, 目望船粟之來哺, 此予所以愍爾等饑寒, 有倍於他道之歎也. 但賴而忘憂者有之, 州治隔以重溟, 除非三州之境, 則難以往來, 不待朝家之勞來還集, 而自可安土奠業, 當不至於蕩析流居耳. 九重雖憂, 臨之孔邇, 爾等須各恃而無恐, 永固我陶甄之化.”

제주목(濟州牧)에 윤음(綸音)을 내리기를,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도(道)는 모두 8도이고, 부(府)·군(郡)·현(縣)은 겨우 360개 있다. 별처럼 흩어져 있고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어서 지도를 펴보면 알 수 있다. 한 번 수재나 한재로 인한 기근이 들어도 관할하기가 매우 편리하지만, 유독 탐라(耽羅) 한 지역만은 바다밖에 외파로 자리 잡고 있어서 육지로는 몇 천여 리(里)를 가고 수로(水路)로는 그 곱절이나 가야한다. 그 소식은 서울에서 아득히 멀고, 보살피 주는 일은 다만 장리(長吏)에게만 맡기고 있다. 보통 때의 계문(啓文)이 오는 데만 걸췌하면 반년이나 걸린다. 모든 도민(島民)의 질병(疾苦)과 걱정과 즐거움에 대하여 조정에서 모조리 알 수가 없으니, 어찌 조정에서 그들을 품어주고 보호하는 혜택이 육지와 섬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겠는가?

금년 가을에는 팔도에 큰 풍년이 들어 묘당(廟堂)에서는 구황(救荒)의 정사를 보지 않게 되었으므로, 나의 소의한식(宵衣寒食)하는 일념(一念)도 좀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지난번에 동지가 지난 다음 수신(守臣)이 비로소 고을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에 밤중에 자리를 차고 일어나 앉아서 그 길이 멀다고 더욱 탄식하였다. 만약 탐라가 바다에 있는 섬이 아니고 육지라면, 멀어도 함경도의 6진(六鎭)이나 평안도의 7읍(七邑)정도만 되도 풍년이 들거나 흉년이 들거나 간에 어찌 이처럼 소식이 늦을 수가 있겠는가? 흉년이 들어도 내가 알 수 없고, 백성들이 곤궁해도 역시 구제할 수 없다. 도민(島民)들도 나의 적자(赤子)들인데 그대들의 부모로서 어찌 그 부모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 우리 열성조(列聖朝)부터 이 땅에 대하여 진념(軫念)한 것은 내륙과 차이가 없었으며, 위무(慰撫)하고 불쌍히 여겨 돌보는 데에 지극한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깊은 사랑과 두터운 혜택이 그대들의 골수에 젖어 있고, 그대들의 살에 스며있을 것이다. 나같은 과인이 등극한 처음에 먼저 부월(斧鉞)을 가진 신하를 보내고, 문무(文武)에 대해서는 과거 시험을 베풀어 인재를 뽑고, 부로(父老)에게는 폐단을 물어서 고통을 풀어주었다. 심지어 효자와 열녀를 표창하고, 요역과 부세를 경감시키는 등 모든 그대들의 일신을 편안하게 하고 그대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라면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들어주지 않은 소원이 없었다. 이것은 나 한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또한 우리 조종조(祖宗朝)의 먼 곳의 사람을 편안히 보살피던 혜택을 우러러 본받은 것이다. 지극히 어리석지만 신통한 그대들이 혹시라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나리포(羅里浦)의 창고는 그대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창고의 곡식이 넉넉하지 못하여 심지어 바닷가의 고을들에서 이속(移粟)하자는 의논까지 있었는데, 호남 백성들에게 거둬 부담을 주므로 신중히 해야 할 바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글로써 지우고 고치더라도 또한 충분히 접제(接濟)할 수 있다. 몇 천 포(包)의 곡식을 무엇 때문에 아껴서 먹여 줄 것을 바라는 여러 자제(子弟)들을 위로하지 않겠는가? 본 창고의 남아

있는 저축에서 조세(租稅)나 모맥(牟麥)은 이미 도신(道臣)을 시켜서 기일을 정하고 운반을 독촉해서 며칠 안으로 포장하여 떠나보내도록 하였다. 세월에 연달아 배가가서 당도록 계획하였으니, 내년 봄에 진휼(賑恤)을 베풀 때에 자연히 굶주리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이전에 탐라에 진휼을 베풀 때에 간혹 수의어사(繡衣御使)를 파견하여 곡식 운반을 감독하고 감진(監賑)하게 한 규례가 있었는데, 도리어 그대들에게 접대하는 비용과 맞이하고 보내는 수고를 끼쳤다. 일찍이 선조(先朝) 기축년에 이러한 폐단을 염려하여 역시 도백(道伯)에게 명하여 구관(句管)하게 하였는데, 이번에도 위의 관례를 따라 수의어사를 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이때에 목사(牧使)를 교체하면 반드시 진휼을 베푸는 정사에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전목사 엄사만(嚴思晩)을 특별히 보릿가을까지 한하여 유임시키고, 감진(監賑)하는 책임을 겸하여 맡게 하여 그로 하여금 진휼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도록 하였다. 수신(守臣)이 장계하여 청한 것을 방금 묘당으로 하여금 복주(覆奏)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지난해 여러 도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공헌(貢獻)과 물종(物種) 및 백성들의 몸에서 나와 관청에 바치는 것 가운데 정말로 궁중에 바치는 물건과 어약(御藥)조차도 특별히 면제시켰었다. 육지의 백성들에게 실시한 것을 어찌 섬 백성들에게 실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천신(薦新)하는 황과(黃果)와 제향(祭享)에 쓰는 검은 소[黑牛]는 더없이 중요한 제사에 바치는 물건이고, 또 공마(貢馬)하는 것도 또한 군정(軍政)에 속하는 만큼 경솔히 의논할 수 없다. 이밖에 먼 지방에서 바치는 진귀한 물건들은 우리 백성들에게 무엇을 아껴서 감면해주지 않겠는가? 각전(各殿)에 바치는 삭선(朔膳)과 물선(物膳), 삼명일(三名日)에 바치는 방물(方物), 내국(內局)에 바치는 진상 약재(進上藥材), 중앙과 지방의 각 아문과 각 영문(營門)에 진배(進排)하는 물종(物種), 내국 및 각사(各司), 각 궁방(宮房) 노비 등의 신공(身貢)을 특별히 모두 기일을 물려받거나 견감하여 진자(賑資)로 그대로 보태도록 하라. 이미 자전(慈殿)의 하교도 받았으니, 자전과 자궁에 바치는 방물·물선·삭선도 모두 기일을 물려받거나 견감하도록 하라. 올해의 정퇴조(停退條)를 내년의 정퇴조까지 합쳐서 내년 가을에 독촉하여 바치도록 하는 것도 마땅히 구휼해야 할 것이다. 내년 정퇴조는 그대로 정퇴하도록 허락하라.

아! 이번에 견감하는 것을 가지고 어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마는, 백성들의 힘을 덜어주고 백성들이 먹는 것을 넉넉하게 해준 방도에 있어서는 혹시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있지 않겠는가? 수신(守臣)의 장계(狀啓)를 본 뒤로 그대들이 굶주려서 죽어 넘어지고 어쩔줄 모르는 모습이 완전히 내 눈에 선하였다. 배와 수레가 닿지 않아서 곡식을 옮기려고 애를 써도 길이 없고, 쌀단지는 비어 있으니 살아나갈 가망이 막막하다. 남루한 옷과 풀로 만든 옷을 걸치고 어촌과 해안 사이를 울부짖고 헤매면서, 날마다 배의 곡식이 와서 먹여주기를 기다릴 것이니, 이에 나는 그대들의 배고픔과 추위에 떠는 것을 다른 도의 흉년보다 갑절이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단지 의지하고 근심을 잊게 하는 것이 있으니, 고을의 치소(治所)가 넓은 바다로 막혀 있고, 세 고을의 경계를 벗어나면 왕래하기가 어려우므로 조정에서 위로하여 불러들이고 안집(安集)시키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 땅에 안착하여 생업에 종사하게 되면 분산되고 떠돌아다니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구중 궁궐이 비록 멀리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대들에게 임하는 것은 매우 가깝다. 그대들은 모름지기 각각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길이 나의 도견(陶甄)의 교화 가운데 있도록 하라.”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하였다.

### ▶ 19권 9년 1월 2일 壬子

壬子/教曰: “我國之壇享, 卽古之方丘也. 陶瓠銅羹, 掃地將事, 而明靈洋洋, 如水之在, 州、府、郡、縣, 莫不有社稷之責. 曾在先朝, 以外邑壇社之欠潔, 屢下飭教, 而近聞諸路社壇, 多不修治. 壇墻則剝落, 箭門則頽圯, 而守宰輩視之若城隍諸壇, 致使莫重禋祀之地, 鞠爲樵牧之場云, 事體之屑越, 未有甚於此. 至若享禮之不遵儀式, 祭品之不能精潔, 推此可知. 夫守令之職, 民社爲重, 此不致誠, 餘何足觀? 令該曹申明關飭各邑, 社壇之可合修治處, 隨卽葺理, 各置守護校卒, 定其標限, 另禁雜人. 每朔月終, 以社壇有無事論報營門, 自營門轉報儀曹, 以爲考勤慢之地. 外此享禮也、祭品也, 判堂錄出一通粘關. 依此遵行, 俾無如不祭之歎.” 仍命載之社稷署儀軌.

하교하기를,

“우리나라의 제단 제사[壇享]는 곧 옛날의 방구단(方丘壇) 제사이다. 질그릇과 표주박에 하잘것없는 제물을 담아놓고 땅을 쓸어내고 제사를 지내지만, 밝은 신령은 세상에 가득차서 물처럼 모여드니, 주·부·군·현에서 사직단(社稷壇)을 모실 책임이 없지도 않다.

일찍이 선왕조(先王朝)에서 지방 고을들의 사직단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여 여러 번 신칙하는 하교를 내렸었다. 근래 들으니, 여러 도에서 사직단을 보수하지 않은 것이 많아서 제단을 둘러싼 담은 떨어져 나가고 홍살문(紅箭門)은 허물어졌으나, 수령[守宰]들이 여러 성황당(城隍堂)의 제단같이 여기므로, 너무나 중요한 제사를 지내는 땅으로 하여금 나무하고 소 먹이는 장소로 만들었다고 하니, 사체(事體)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다. 심지어 제사 예절을 의식대로 따르지 않고 제품(祭品)을 능히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따위는 이것으로써 미루어 알 수 있다.

대저 수령의 직책은 백성들과 사직을 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렇게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 밖의 나머지 일은 넉넉히 알 수 있다. 해당 조로 하여금 거듭 각 고을에 관문(關文)으로 신칙하게 하여, 사직단을 보수하여야 마땅할 데는 즉시 수리하게 하고, 각각 지키는 군사를 두고 경계표식을 세워 잡인들을 특별히 금지하도록 하라. 매달 월말에는 사직단에 제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영문(營門)에 통보하고, 영문에서 예조[儀曹]에 전보(轉報)하여 근만(勤慢) 상황을 상고하게 하라. 이 밖에 제사지내는 예절이나 제품 같은 것은 판당(判堂)이 기록하여 한통의 비밀 관문을 제출하도록 하라. 이것에 의해서 준행하게 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은 한탄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이어서 이것을 사직서(社稷署)의 의궤(儀軌)에 기록하라고 명하였다.

### ▶ 19권 9년 3월 22일 辛未

辛未/謝恩書狀官李泰永進別單曰：

千叟宴，曾於康熙五十年壬寅歲設行，今年，亦以臨御五紀，特遵故事，須詔各省，有爵秩者限六十五歲，爲兵民者，限七十以上，皆令赴宴，合爲三千六百餘人。一，去年七月，皇玄孫載錫生，卽皇曾孫輔國將軍奕純之子也。皇一子，和碩安親王永璜，生綿德，綿德生奕純，奕純生載錫，以爲五世同堂，人世所難，況帝王家，尤是罕有，曉諭天下，若有五世同居者，來會京師，有蜀民人應旨而來者云。一，去年太學彝倫堂重修，仍命大起辟雍，卽創設也，制遵古式。今二月六日，親行釋奠，仍臨辟雍，使衍聖公及太學士，率十哲子孫，五經博士行進講之禮。仍使諸生，圍橋聽之，倣漢朝故事云。一，甘肅卽西涼州也，民甚稀少，地多閒曠，年前屢征回子，擒其民人，徙置於甘肅，徒售强悍之習，每懷叛歸之心，兼以甘肅總督勤爾謹，頗事黷貨，使不安業，致有作亂之舉。皇帝卽命安置勤爾謹，以李侍堯代爲總督矣。上年夏間，回部酋長田五等，又作亂，命陝、隴諸路，起兵討平，分開兩路，使男女各立，男丁則盡數坑殺，婦女則分給軍兵，而亦有執致京師者。又以侍堯之不善，禁戢抄沒家產，仍囚於甘肅地方。一，暹羅國在南海中，距廣東水路萬餘里，自廣東距燕京陸路五千里。其國長新立，遣使請封、貢使，卽三品官。從者五十餘人，進京納貢。表文，名曰金葉表，橫寫字行，恰似梵書，全不可解，使廣東通事，僅僅翻漢以奏。皇帝使九卿，會議閣老阿桂，以爲：“請冊重事，不用品高大臣，只送年少微官，殊欠尊敬之義。且其奏文，大違程式，不可依準。”皇帝則特以柔遠之意，欲爲許施，而群議不一，故只收其禮幣與方物，厚賞其國長及使臣而遣之。臣每於班行，見其容貌，無異常人，冠服極其詭異。剃其頭髮，項垂金珠，所着帽子，鏤金爲之，高幾尺餘，上漸尖細，若牛角然，而末懸眞珠一枚。衣則金絲織布，雜以紅色，繡以花紋，狹袖長裙，腰纏大帶，所着甚薄，不勝寒逼，雖有言語，亦不能盡解。一，吏部尚書和坤，去年陞爲軍機大臣，子尙皇女，女配皇孫，權勢日隆，皇帝且遣內侍輪番其第。勢焰薰天，搢紳趨附，惟閣老阿桂，勳代既盛，而清謹自持，爲坤敬憚，朝野頗以倚賴云。工部尚書金簡，亦以威晚，恩寵甚赫，賜與便蕃，爲和坤之亞。一，彼朝上下，全沒儀節，徒尙便捷，動駕未見劍佩之列，行軍不用旗鼓之屬。惟和坤、福長安輩數人，俱以大臣常在御前，言不稱臣，必曰奴才，隨旨使令，殆同皂隸，殊無禮貌，可見習俗之本然。一，皇帝去年南巡，供億浩繁，州縣凋弊，農民舉未息肩，商船或不通津，雖值豐登，無異歉荒。至於蠶桑，亦失其時，絢緞之屬，天下專靠於南邊，而今年則燕京人衣裳之資，鞋襪之屬，絕貴於常年。

사은사(謝恩使) 서장관(書狀官) 이태영(李泰永)이 별단(別單)을 올렸는데, 그 별단에 이르기를,

“천수연(千宴)은 일찍이 강희(康熙) 50년 임진년에 설행(設行)되었는데, 금년이 또한 황제가 즉위한지 50년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고사(故事)를 따라서 각 성에 조서(詔書)를 반포하여, 작질(爵秩)이 있는 사람은 65살까지, 군사와 백성인 경우에는 70살 이상까지 모두 연회에 참가하게 하였는데, 도합 3천 6백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1. 지난해 7월에 황제의 현손(玄孫)인 애친 재석(愛親載錫)이 태어났는데, 그는 바로 황제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의 증손인 보국장군(輔國將軍) 애친 혁순(愛親奕純)의 아들입니다. 황제의 맏아들인 화석 안친왕(和碩安親王) 애친 영황(愛親永璜)이 애친 면덕(愛親綿德)을 낳고, 애친 면덕이 애친 혁순을 낳고, 애친 혁순이 애친 재석을 낳았습니다. 그리하여 5세대가 한 집에 있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인데, 더구나 제왕의 집에서는 더욱 드문 일이라고 하여 새벽에 천하에 유시하기를, ‘만일 5세대가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경사(京師)에 모이게 하라.’ 하였는데, 촉(蜀)지방에 사는 백성으로서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1. 지난해에 태학(太學) 이론당(彝倫堂)을 증수하였고, 이어서 벽옹(壁雍)을 크게 일으켜 세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로 창설하는 것인데, 제도는 옛날 법식을 따랐습니다. 금년 2월 6일 황제가 친히 석전제(釋奠祭)를 행하고, 이어서 벽옹에 남시어 연성공(衍聖公)과 태학사들로 하여금 10철(十哲) 자손들을 거느리고 오경박사(五經博士)가 진강(進講)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어서 여러 생도들로 하여금 다리를 둘러싸고 이것을 듣게 하였는데, 그것은 한(漢)나라의 고사를 본판 것이라고 합니다.

1. 감숙(甘肅)은 곧 서량주(西涼州)인데, 백성은 아주 작고 땅은 매우 넓습니다. 몇 해 전에 여러번 회족[回子]을 정벌하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감숙 지방에 옮겨 놓았는데, 그들은 다만 사납고 무서운 버릇을 가지고 언제나 배반하고 돌아갈 마음을 품고 있는 데다 감숙 총독(甘肅總督)인 근이근(勤爾謹)이 뇌물 받는 짓만 일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농사에 안착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난리를 일으키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즉시 명령하여 근 이근을 귀양 보내고, 이시요(李侍堯)를 대신 총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작년 여름에 회부(回部)의 추장 전오(田五) 등이 또 난리를 일으키니, 섬서(陝西)·농서(西) 여러 지방에 명령하여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여 평정하게 하였는데, 두 길을 나누어 열어놓고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각각 따로 서게 한 다음에 남자는 다 구덩이에 파묻어 죽이고, 여자들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또한 북경까지 잡아온 자도 있었습니다. 또 이시요가 잘 단속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의 집 재산을 몰수하고, 이어서 감숙 지방에 가두었습니다.

1. 섬라국(暹羅國)은 남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광둥(廣東)에서 뱃길로 1만 여 리나 떨어져 있으며, 광둥에서부터 연경(燕京)까지의 거리는 육로로 5천리입니다. 그 나라 국왕[國長]이 새로 즉위하여 사신을 보내어 책봉하여 주기를 청하였는데, 공사(貢使)는 바로 3품관이었고, 종자(從者)는 50여 인이었으며, 북경에 들어와 공물을 바치고 표문(表文)을 ‘금엽표(金葉表)’라고 이름 하였는데, 가로 쓴 글자들의 줄들이 범서(梵書)와 같았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광둥통사(廣東通使)를 시켜서 근근이 한문으로 번역하여 상주(上奏)하였습니다. 황제는 9경(九卿)으로 하여금 모여서 의논하게 하였는데, 각로(閣老)인 아계(阿桂)는 말하기를, ‘책봉을 요청하는 중요한 일에 품계가 높은 대신을 보내지 않고 다만 나이 젊은 미관(微官)을 보냈으니, 황제를 존경하는 뜻이 전혀 없다. 또 그 주문(奏文)도 정식(程式)에서 크게 벗어나니 허락해 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황제께서는 특별히 먼 나라를 너그럽게 대하는 뜻으로서, 허락하여 주고자 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그 예물과 방물만을 받고 그 국왕과 사신에게 후하게 상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신이 언제나 반열에서 서서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았는데,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었으나, 관복(冠服)은 지극히 괴이하였습니다. 그 머리털을 깎고 목에는 금구슬을 드리웠으며, **그들이 쓴 모자는 금실로써 만들었는데 높이가 거의 한자 남짓하고 윗부분이 점점 가늘고 뽕죽하여 마치 소뿔처럼 되었으며, 끝에는 진주 하나를 매달아줍니다.** 옷은 금실로써 짠 천에

붉은 빛깔이 섞이고 꽃무늬로 수를 놓았으며, 소매는 좁고, 치마는 길며, 허리에는 큰 띠를 매었는데 그들이 입은 옷이 너무 얇아서 추위를 견디지 못하였으며, 비록 말은 하였지만 또 한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 이부 상서 화신(和)은 지난해에 군기대신(軍機大臣)으로 승진(陞進)하고, 아들이 황제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며, 딸은 황제의 손자에게 시집을 가서 권세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황제계서도 그 집에 번갈아 가며 내시를 보냅니다. 그리하여 세력이 하늘을 찌를듯이 대단하여, 조정의 관리들이 불쫓지만 오직 각로(閣老)인 아계(阿桂)만은 대단한 공신의 가문임을 자랑하고 청렴하고 근신하는 마음을 스스로 지녔으므로, 화신의 공명과 꺼림을 받고 있어 조야에서 자못 신임한다고 합니다. 공부 상서 김간(金簡)도 또한 황제의 외척으로서, 은총을 많이 받으며 상사가 자주 빈번하여 세력이 화신의 다음 간다고 합니다.

1. 저쪽 조정에서 상하간에 예절이 전혀 없고, 다만 간편한 것만을 숭상하므로, 황제가 행차할 때 칼을 찬 사람들의 행렬을 볼 수 없고, 행군할 때에 기나 북 같은 것을 쓰지도 않습니다. 오직 화신과 복장안(福長安) 등 몇 사람은 모두 대신(大臣)으로서 언제나 황제 앞에 있는데, 말할 때에 신하라고 칭하지 않고 반드시 노재(奴才)라고 하였으며, 명령을 받는 사령(使令)들도 거의 조례(隸)와 같이 전혀 예모(禮貌)가 없었는데, 풍속이 본래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황제가 지난해에 남쪽 지방으로 순행하였는데, 그 공역(供億)이 너무 방대해서 주(州)·현(縣)들이 조잔해지고 농민들은 다 쉴 사이가 없었으며, 상선(商船)들도 혹은 나루에 다니지 못하였으며, 비록 풍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흉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누에치기 같은 것도 또한 그 때를 놓쳤기 때문에, 비단 같은 물건들도 천하에서 오로지 남쪽 지방에 의존하여 왔는데, 금년에는 연경의 사람들의 의상(衣裳)의 물자와 신발 등 물건이 보통해보다 아주 귀하다고 합니다.”

## ▶ 20권 9년 5월 22일 庚午

大司憲洪秀輔上疏，請亟將金漢耆罪犯，洞諭朝廷，明正典刑，漢耆疏批後，所下傳教，亦卽反汗。未曰：

嗣服以來，許多逆豎所以處之者，一意雍容，專事覆蓋。訊囚之初，先防黨與之拖引；勘案之際，唯恐窩藏之綻露。凶醜之種，鼓掌而潛肆，日後事變，有不可測。伏望深惟遠圖，奮發乾剛，期臻廓清寧謐之域焉。被謫蒙放人李奎緯，本以凶穢之徒，重犯贓污之罪，阿鼎之烹，卽其當律，而特蒙好生之德，倖追常憲，則渠當進還故居，沒齒息影，而今忽移接於楊根深峽之素稱別區，擅代禁松，大起屋宇，私發農時之民，恣意役使，勒買村舍，而初不給價，攘屠隣牛，而獨自牟利。其他肆虐、作弊之事，難以毛舉。宜令道臣，查實啓聞，按諸荒裔。

批曰：“首陳事，悉諭諸批，次陳事，豈可如是容易說及？不可以言官曲恕。附陳事，不宜盡物取之，魚鱉尙然，況乎人類？李奎緯事，傳聞豈足取信，然不可置之黷昧，拿問查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處.”

대사헌 홍수보(洪秀輔)가 상소하여, 장차 김한기(金漢耆)의 범한 죄를 속히 조정(朝廷)에 밝히 알려서 형법을 명정(明正)하게 하고, 김한기의 상소에 대하여 비답한 뒤에 내린 전교(傳敎)도 즉시 도로 거두기를 청하고, 끝에 이르기를,

“전하께서 왕위를 계승하신 이래 허다한 난역(亂逆)들을 처치(處置)하신 바는 한결 같이 온화(溫和)하여 오로지 덮어두는 것을 일삼아 처음에 죄수를 신문할 때에 먼저 자기편 당(黨)들을 끌어내는 것을 막고,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오직 그 숨은 소굴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흉악한 무리들은 손뼉을 치며 몰래 날뛰고 있으니 뒷날의 사변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깊이 원대한 뜻을 생각하고 군강(君剛)을 분발하시어 깨끗하고 편안한 지역이 되기를 기약하소서. 유배되었다가 석방된 이규위(李奎緯)는 본래 흉악하고 더러운 무리로서 뇌물을 받은 죄를 거듭 범하였으니, 가마술에 삶는 극형(極刑)으로 처단하는 것이 곧 그에게 합당한 형률(刑律)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성상의 은덕(恩德)을 입어 요행히 상법(常法)을 벗어났으니, 그는 마땅히 옛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 일생 동안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인데도, 지금 갑자기 양근군(楊根郡)의 깊은 산골 명승(名勝)이라 일컫는 곳으로 옮겨 함부로 금송(禁松)을 벌채하여 큰 제택(第宅)을 지으면서 농사철의 백성들을 사사로이 동원하여 멋대로 사역(使役)을 시켰고, 촌사(村舍)를 강제로 사들여 애당초 값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웃 소[牛]를 빼앗아 도살하여 홀로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 밖에 포박한 짓과 폐단을 끼친 일에 대해서는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여 먼 변방으로 보내 버림이 마땅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첫 머리에 진달한 일은 여러 비답에서 다 유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진달한 일에 대해서는 어찌 이와 같이 용이하게 말할 수 있는가? 언관(言官)이라 하여 법을 굽혀서 용서할 수 없다. 덧붙여 진달한 문제에 대해서는 물건을 모조리 취함은 마땅치 않으니 물고기와 자라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 이겠는가? 이규위 문제는 소문을 어찌 족히 믿을 수 있겠는가만은 흐리멍덩하게 둘 수도 없으니, 잡아다 신문하여 조사 처리하라.” 하였다.

### ▶ 20권 9년 6월 1일 戊寅

配李奎緯于德源府. 義禁府以奎緯供啓. 供曰: “臺臣之構案聲罪, 雖托於伐松役民、買舍攘牛, 而精神旨意, 全在於楊根深峽, 素稱別區, 若以爲如凶賊之避地深入者然. 其曰: ‘擅伐禁松, 大起屋宇.’ 此乃楊根郡守尹駟構報道臣. 領議政徐命善又謂: ‘斫訓局禁松之拱抱者三百株, 作瓦家七十間.’ 以此狀語, 訓將使之啓聞論罪, 訓將急走營卒, 探問山直, 則元無一株松斫痕, 其言落空. 其曰: ‘私發農時之民.’ 建屋在於二月初, 而爲駟所擾, 而停役, 其時東作, 非所可論, 役丁則依鄉俗借送也. 其曰: ‘勒買村舍事.’ 所買三處草舍, 其主以秋冬償價. 攘屠隣牛事, 歲時祭用一牛, 歲後藥用一牛, 過葬婚諸家, 合宰



一牛. 其外屠牛牟利, 駟報所無之言, 臺臣從何得聞? 以此無實之言, 構彼必殺之案, 日月照耀, 雖欲翳之, 其可得乎? 其謂: ‘不可置之邦畿密邇之地.’ 臣雖無狀, 亦王臣之一也, 迷源亦王土也. 王土不容王臣, 欲使誰居之? 若此不已, 薄海窮山, 使作無人之地耶? 南竄北謫, 惟國命之是行, 若臣家屬, 是國家赤子. 伏乞命道臣, 嚴飭倅駟, 少戢其毒云矣.” 判曰: “爰辭, 自有爰辭之體, 豈敢以題外不繫之說, 張皇煩浼乎? 此蓋谷山事, 覩縷之供, 不曾嚴處, 致有此舉措. 噴薄說話, 極其怪駭. 此囚定配, 俾思知戢之方.”

이규위(李奎緯)를 덕원부(德源府)에 정배(定配)하였다. 의금부에서 이규위의 공초(供招)를 아뢰었는데, 공초에 이르기를,

“대신(臺臣)이 죄안(罪案)을 만들어 죄를 성토(聲討)한 것은 비록 금송(禁松)을 베고 백성을 사역(使役)시켰으며, 촌사(村舍)를 사들이고 소[牛]를 훔친 것으로 이유를 대었으나, 그 주된 관심은 본래 명승(名勝)이라 일컫는 양근군(楊根郡)의 깊은 산골에 전적(全的)으로 있으니, 마치 흉적(凶賊)이 몸을 피하여 깊숙히 숨어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금송(禁松)을 함부로 베어 가옥(家屋)을 크게 지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양근군수(楊根郡守) 윤일(尹駟)이 도신(道臣)에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 보고한 것입니다.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또, ‘훈련도감(訓鍊都監)의 아람드리 금송(禁松) 3백 그루를 베어 기와집 70칸을 지었다.’라고 하고 이 장계(狀啓)를 훈련대장(訓鍊大將)에게 말하고 계문(啓聞)하여 죄를 논하라고 시키니, 훈련대장이 영졸(營卒)을 급히 보내 산지기에게 탐문(探問)하였으나, 본래 한 그루의 소나무도 벤 흔적이 없어서, 그 말은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말한 바 ‘농사철의 백성을 사사로이 동원시켰다.’라고 한 것도 집을 지은 때가 2월 초였으나, 윤일(尹駟)의 말쑥으로 역사(役事)를 정지하였으니, 그때에 봄철의 경작(耕作) 문제는 논할 바가 아니며, 역정(役丁) 문제는 향속(鄉俗)에 따라 빌려서 보낸 것입니다. 그가 말한 바 ‘촌사(村舍)를 강제로 사들였다.’라고 한 것은 사들인 3곳의 초사(草舍)는 그 주인에게 가을과 겨울에 값을 보상(補償)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웃 소를 훔쳐서 잡았다는 문제는 설날에 제사용(祭祀用)으로 한 마리를 잡았고, 설을 원 후에 약용(藥用)으로 한 마리를 잡았으며, 장사(葬事)와 혼인(婚姻)을 치르는 여러 집이 합하여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밖에 소를 잡아 이익을 취하였다는 말은 윤일의 보고에도 없는 것인데, 대신(臺臣)이 어디로부터 들었던 말입니까? 이와 같은 실상이 없는 말로써 저처럼 죽일 죄안(罪案)으로 엮어 만들었으니 해와 달이 밝게 비치는데 비록 가리려 하나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도성(都城) 가까운 경기도(京畿道)에 두어서는 안된다.’라고 하였는데, 신이 비록 무상(無狀)하나 역시 왕신(王臣)의 하나이며, 미원현(迷源縣)도 역시 왕토(王土)입니다. 왕토에 왕신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누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렵니까? 이와 같이 하여 그치지 않아서 바닷가나 산에 이르기까지 곧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만드시렵니까? 남쪽으로 귀양 보내든, 북쪽으로 귀양 보내든, 오직 국명(國命)에 따라 가겠으나, 신의 가족(家屬)같은 것도 국가의 자식이니 바라건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부관(副官) 윤일(尹駟)에게 엄중히 신칙하여 조금 그 해독을 그만두도록 명(命) 하소서.”

하니 판부(判付)하기를,

“원서(爰書)는 본래 원서의 격식(格式)이 있다. 어찌 감히 주제(主題) 밖의 긴요치 않은 말로 장황히 번거롭게 한단 말인가? 이는 대체로 산골짜기의 일이었는데 수다(數多)스런 공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초를 일찍이 엄중 차단하지 않아 이러한 거조가 있게 되었다. 뽑어 낸 말은 매우 해괴하니, 이 죄수를 정배(定配)함으로써 그만둘 줄 아는 방법을 생각해서 알게 하라.” 하였다.

### ▶ 21권 10년 6월 1일 癸酉

前掌令魚錫齡上疏曰：

嗚呼！設置藥院，非爲觀美也，揀取醫官，非爲渠發身也。疹患流行，千人一候。雖婦孺之愚者，不敢近甘醬、牛肉，則況蓼附乎？殿下深居九重，例症用藥之方，雖無由聞知，提舉、醫官，乃耳聞焉、目覩焉，若使渠輩，家有疹症，有勸蓼附，則彼必大怒，而抑獨何心，忍用此不忍用之藥邪？乳道，卽小兒之性命也。老人，亦有服乳延齡，以漢時張蒼事觀之，可知。何嘗有未滿五六歲，未經大小疫，徑先停乳之理乎？其在調養之任者，惟當勸進之不暇，乃反仰請而停乳乎？雖未知託爲何說，而揆之常理，不得其說。殿下念衆民之夭瘥，許醫給藥，賴以生活，不啻千百，皆牛黃、安神涼劑，以此濟活生靈，而獨不能保我春宮，此豈天哉？特以保護之不得其人故也。側聽屢日，尙稽當施之律，又以親執看檢爲敎，有若曲護藥院者然，臣竊惑焉。程夫子爲其姪醴泉令之喪，移書於謝帥，請治庸醫殺人之律，而其書曰：“誤不如”本方殺人者，徒二年半。故不如本方者，以故殺傷論。’以此觀之，疹後蓼附，謂之誤不如本方可乎？故不如本方可乎？醴泉令之病，醫人不過論藥而已，看檢前藥，其家人必當爲之，而程夫子未嘗有所寬恕，此豈非今日之明證乎？夫醫官，當建白廣選，惟才是取，而近所薦引者，若非顏私，乃是姻親，惟爲發身之計，未聞擇其術業之精者，罪一也。患候之有加也，安危立判於一投劑之間，而乃以姑觀夕間動靜後用藥爲啓，虛過如年之長日，過時之後，雜試鍼藥，竟遭罔極之變，罪一也。且進御之藥，雖薑桂茶飲，必頒朝紙，自初十日至翌日藥名，無一書布，及乎兩司筭出，始知荐用蓼附，此必渠輩，亦知蓼附之萬萬不當，姑爲此掩諱之計者也。若此不已，則方來之憂，無所不至，罪一也。惟願殿下，按之以祖宗之法，以洩神人之憤。當此無前之變，含生之倫，莫不疾首痛心，三司之列，亦當有勃勃按住不得底意，而晚後合辭，草草了當，有若塞責彌縫者然，臣竊痛之。

批曰：“悉諭合辭之批矣。”

전 장령 어석령(魚錫齡)이 상소하기를,

“아! 약원을 설치한 것은 미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의관(醫官)을 가려 뽑은 것은 그들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홍진의 유행은 천 사람이 똑같은 증세입니다. 비록 어리석은 아녀자라도 감히 감장(甘醬)이나 우육(牛肉)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삼(蓼)이나 부자(附子)겠습니까? 전하께서 구중궁궐에 깊이 계시므로 예증(例症)에 약을 쓰는 처방을 들으실 길이 없지마는, 제조와 의관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으니, 만약 그들의 집안에 홍진을 앓는 사람이 있는데 삼이나 부자를 쓰라고 권할 경우 그들은 필시 매우 노할 것입니다. 그

런데 유독 무슨 마음으로 잔인하게도 차마 쓰지 못할 약을 썼단 말입니까? 젖은 어린아이의 생명줄입니다. 노인도 젖을 복용하여 수명을 연장하였으니, 한(漢)나라 때 장창(張蒼)의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찌 5, 6세도 차지 않고 크고 작은 홍역을 치르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지레 먼저 젖을 때는 이치가 있었던 말입니까? 기르는 책임을 맡은 사람은 젖을 먹이라고 권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양청하여 젖을 떼단 말입니까? 비록 그들이 무슨 설을 가탁하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상리(常理)로 헤아려 볼 때, 그에 대한 설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많은 백성들이 요사하는 것을 생각하여 의원들에게 약을 지급하라고 허락하여 그에 힘입어 살아난 사람이 매우 많은데, 모두 우황(牛黃)이나 안신(安神)의 양제(涼劑)였습니  
다. 이것으로 백성들을 구제하였는데 오직 우리 준궁만 보호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천명이겠습니까? 다만 보호하는 사람을 제대로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날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여전히 해당된 법을 시행하지 않고 또 몸소 살펴서 하였다고 말씀하여 마치 약원을 곡진히 옹호하는 것처럼 하였으니, 신은 의혹하고 있습니다. 정부자(程夫子)께서 그의 조카인 예천령(醴泉令)의 상(喪)을 위하여 사수(謝帥)에게 편지를 보내어 용렬한 의원이 살인한 죄를 다스려 주라고 요청하였는데, 그 편지에 ‘본방(本方)과 같이 약을 쓰지 못한 사람은 도(徒) 2년 반이고, 고의로 본방과 같이 약을 쓰지 않은 사람은 고의로 살인한 것으로 논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홍역 뒤에 삼과 부자를 쓴 것이 본방과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고의로 본방과 같이 쓰지 않았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예천령이 병이 났을 때 의원은 약을 논한 데에 불과하였고, 살피고 약을 달인 것은 필시 그 집안사람이 하였을 것인데, 정 정부자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오늘날의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의관은 널리 선발하자고 건의하여 인재만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추천한 사람은 사사로이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인척으로서, 오직 출세하려고 꾀하였지 의술에 정통한 사람을 선발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 죄의 하나이며, 증세가 더하여 안위(安危)가 한 번의 투약으로 당장 판가름이 나는데 잠시 저녁의 동태를 본 뒤에 약을 쓰겠다고 아뢰으로써 1년과 같은 긴 시간을 헛되이 보내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침과 약을 잡되게 써서 결국 망극한 변을 당하고 말았으니, 그 죄의 하나이며, 그리고 진어(進御)하는 약은 비록 강계다음(薑桂茶飲)이라도 반드시 조보(朝報)에 실어야 하는데 10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약 이름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가 양사(兩司)의 차자가 나온 뒤에야 비로소 삼과 부자를 거듭 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필시 그들도 삼과 부자는 절대로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는 일부러 이처럼 숨기려고 꾀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않는다면 앞으로의 걱정이 말이 아닐 것이니, 그 죄의 하나입니다. 전하께서는 조종의 법을 시행하여 사람과 신의 분노를 풀어주소서. 이처럼 전에 없는 변을 당하여 생명이 있는 무리는 너나없이 이마를 찡그리고 마음 아파하고 있으니, 삼사의 반열에 있는 사람도 안절부절 안정하지 못하는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야 합사(合辭)하여 대충대충 끝마쳐 책임이나 메꾸고, 임시 미봉하는 것처럼 하였으므로 신은 통분해 하고 있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합사의 비답에 모두 말하였다.”

하였다.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 23권 11년 5월 4일 庚午

慶尙右道暗行御史李書九復命. 陝川前郡守朴仁榮、尙州前牧使沈基泰、金海府使李邦榮、三嘉縣監金啓淳、安義縣監朴師郊、昆陽郡守趙雲履等不法之罪, 竝拿問勘罪, 沈基泰減死邊遠杖配. 別單曰:

一, 賑政事, 本道賑邑十四, 臣所未及躬歷者, 只是河東、南海耳. 惟我聖上, 憫茲災荒, 念彼黎元, 淵鑑畢燭於菀屋, 飭教屢勤於絲綸. 道臣、守宰, 又皆至誠對揚, 悉心撫摩, 其最無能者, 臣已論列於原啓, 而其餘, 則治蹟之減否或殊, 賑政之優劣不懸, 故雖是牧叟、竈婦鵲衣鵲形之輩, 亦莫不稱頌聖德, 咸戴國恩. 至於冤漏之類, 豈曰盡無, 而臣於潛行時, 每邑所得, 少纔一二, 多亦三四. 雖因審察之未遍, 可驗抄付之已廣. 然而吏校之循私, 面任之作奸者, 亦皆隨現懲治. 又以詳覈加抄之意, 或關飭、或面諭, 無籍流離者, 亦令隨其形勢, 或懸保給糶, 或一體付賑. 若夫虛張飢口, 盜弄賑穀之弊, 旣無的聞, 不敢論列.

이하생략~

경상우도 암행어사 이서구(李書九)가 복명(復命)하였다. 함천전군수(陝川前郡守) 박인영(朴仁榮)·상주전목사(尙州前牧使) 심기태(沈基泰)·김해부사(金海府使) 이방영(李邦榮)·삼가현감(三嘉縣監) 김계순(金啓淳)·안의현감(安義縣監) 박사담(朴師郊)·곤양군수(昆陽郡守) 조운리(趙雲履) 등의 불법(不法)을 저지른 죄를 논핵하여 모두 감죄(勘罪)하고, 심기태는 감사(減死)하여 먼 변방으로 장배(杖配)하였다. 별단(別單)에 이르기를,

“1. 진정(賑政)의 일은, 본도(本道)의 진읍(賑邑)이 14곳이나 신이 몸소 다 들러 보지 못한 곳은 하동(河東)과 남해(南海)뿐입니다. 우리 성상께서 이런 재황(災荒)을 민망스럽게 여겨서 저 백성들을 염두에 두시어 깊이 살피심이 초가집까지 다 비추어서 칙교(飭敎)가 사륜(絲綸)에 누차 부지런하였습니다. 도신(道臣)과 수령들이 또한 모두 지성으로 대양(對揚)하여 마음을 다해 무마(撫摩)하였는데 그중 가장 무능한 자는 신이 이미 원계(原啓)에서 논열(論列)하였고, 그 나머지는 치적(治蹟)의 장부(臧否)가 혹 다르지만 진정(賑政)의 우열(優劣)은 현격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소 치는 늙은이나 부엌의 부녀자로 헤진 옷과 몹시 굶주린 모습의 무리라 하더라도 성덕(聖德)을 칭송하고 국은(國恩)을 입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누락되어 원통해 하는 무리에 이르러서는 어찌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 신이 잠행(潛行)할 때에 매 고을에서 알아낸 바가 적게는 겨우 한둘뿐이었고 많아도 3, 4명이었습니다. 비록 두루 자세히 살피지 못한 탓이기는 하나 기민을 뽑아 기록한 것이 이미 많았음을 징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교(吏校)가 사정(私情)을 따르고 면임(面任)이 작간(作奸)한 자 역시 드러나는 대로 징치(懲治)하였습니다. 또 자세히 조사해서 더 뽑으라는 뜻으로써 혹 공문으로 신척하기도 하고, 혹은 면대(面對)하여 타이르기도 하였고, 호적이 없어서 유리(流離)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그 형세에 따라서 혹 현상(懸賞)하여 조를 주는 것을 보장하기도 하고, 혹은 일체로 진휼에 불이도록 하였습니다. 기민의 숫자를 거짓으로 과장하여 진곡(賑

穀)을 도둑질하여 농간하는 폐단에 대해서는 이미 확실하게 들은 바가 없으므로 논열(論列)할 수가 없습니다.

이하생략~

## ▶ 24권 11년 10월 10일 甲辰

甲辰/備邊司進使行齎去事目:

一, 凡本朝應諱之事, 不得漏洩, 犯者杖一百、徒三年. 關係重者, 用一律. 【『大典通編』、『續典』.】 一, 齎定數外物貨者, 杖一百. 挾帶雜文書及我國書冊者, 杖一百流三千里. 【『大典通編』及『禮曹原事目』. 原事目, 則年條未詳. 我國書冊, 壬寅禁條.】 一, 公文外, 潛賣禁物. 【闊細布、綵文席、厚紙、豹皮、土豹皮、海獺皮、水獺皮之類.】 杖一百徒三年. 重者 **【金、鐵、牛馬、珠玉寶石、焰硝軍器之類.】** 用一律. 【『大典通編原典』水獺皮壬寅禁條.】

이하생략~

비변사에서 사행 재거 사목(使行齎去事目)을 바쳤다.

“1. 모든 본조(本朝)의 기회(忌諱)해야 할 일은 누설할 수 없는데도 범한 자는 장 1백 도 3년(杖一百徒三年)에 처하고 관계가 중한 자는 일률(一律)을 적용한다. 【『대전통편(大典通編)』과 『속대전(續大典)』에 있다.】

1. 정수(定數) 밖의 물화(物貨)를 가져가는 자는 장 1백에 처하고 잡문서(雜文書)와 우리나라의 서책을 몰래 지닌 자는 장 1백 유 3천 리(杖一百流三千里)에 처한다. 【『대전통편』과 예조 원사목(禮曹原事目)에 있다. 원사목의 연조(年條)는 알 수 없다. 우리나라의 서책은 임인년의 금조(禁條)에 있다.】

1. 공문 외(公文外)에 몰래 금물(禁物) **【활세포(闊細布)·채문석(綵紋席)·후지(厚紙)·표피(豹皮)·토표피(土豹皮)·해달피(海獺皮)·수달피(水獺皮) 따위다.】** 을 사면 장 1백 도 3년에 처하고 중한 자 **【금(金)·철(鐵)·우마(牛馬)·주옥(珠玉)·보석(寶石)·염초(焰硝)·군기(軍器) 따위다.】** 는 일률을 적용한다. 【『대전통편』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있다. 수달피는 임인년의 금조에 있다.】

이하생략~

## ▶ 24권 11년 12월 28일 辛酉

命祈穀攝儀, 陞列大祀. 敎曰: “祈穀祭, 不列於祀令, 非親行, 則單獻、小牢, 無樂舞. 我朝祈穀, 始自肅廟, 而于社不于郊, 攷倣斟酌, 聖意可以仰認, 第於攝儀, 尙有缺典. 若用春秋仲時享儀, 三獻、太牢, 具樂舞陞列於大祀, 允合禮宜, 令禮曹, 問議大臣.”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기곡(祈穀)을 섭행(攝行)하는 제의(祭儀)를 높여서 대사(大祀) 줄에 넣으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기곡제(祈穀祭)는 사령(祀令)에 끼지 않았으므로 친행(親行)이 아니면 단헌(單獻)·소뢰(小牢)로 하고 악무(樂舞)도 없다. 아조(我朝)의 기곡은 숙묘(肅廟)에서 비롯하였는데, 사(社)에서 하고 교(郊)에 하지 않은 것은 상고하고 본떠서 짐작한 것이니, 성의(聖意)를 우러러 알 수 있다마는, 섭행하는 제의에는 오히려 결전(缺典)이 있다. 춘(春)·추(秋) 중월(仲月)의 시향의(時享儀)를 써서 삼헌(三獻)·태뢰(太牢)로 하고 악무도 갖추어 늘여서 대사 줄에 넣으면 예의(禮宜)에 맞을 것이니, 예조를 시켜 대신(大臣)에게 문의하게 하라.” 하였다.

### ▶ 25권 12년 6월 27일 戊午

太僕牽夫南莫突，以悍馬付小兒，慮馬逸，拴轡兒手，插鞭牆角而去，馬忽驚奔，兒隨倒曳。馬益驚，兒益顛，遂死于衢。該部按驗，刑曹以莫突當償命啓。判曰：“參以事情，罪無可執。雖欲爲死人洩冤，深看艱覓由我之律，在莫突，無可言，參酌決處。畜物何知？而因畜殮人，則登時戮其畜，以寓重人賤畜之義可也。馬匹出給屍親。”刑曹又啓言：“因南莫突勘處，考律文，則『大明律』『畜產咬踢人條』云：‘馬牛觸舐踢咬人，而記號拴繫不如法，因以殺傷人者，以過失論’者，政爲此事準備，南莫突依過失律勘放。記號二字，問于律官，則以爲：‘皇明之法，牛馬之咬踢人者，另加標識，掛在該馬牛身上，故老相傳如此。’云。可以仰見皇朝用意仁厚，制法嚴密之盛德宏規。大抵馬牛之悍惡難制，咬踢觸舐人者，不知其數。今若記號標識，搭在馬牛身上，使人人望而避之，各思處變應猝之方，則一歲之中，八方之內，人命之全活必多。竊欲贊聖朝好生之德，敢附執藝之義。”教曰：“欲裨好生之政，陳此師古之請，意可嘉也。許令廟堂稟處。”備邊司覆奏，以標識掛搭之未詳其方，難之。命刑曹，指一更稟。刑曹啓言：“標識之方，要不出掛牌於額，懸鈴於項。悍馬之網口，惡牛之鋸角，民間通行之規，就此推廣而已。”教曰：“額牌未易辨知，項鈴適增跳踉。網口鋸角，民間通行之式，不必別更頒令。令出惟行，硬定而旋止，則不如不爲。標識畜物之羈絡馭制，莫如彼中。況皇朝遺制，想亦遺傳於公私日用者，令廟堂，來頭使行，詳探以來。”後竟寢不行。

태복(太僕)의 견부(牽夫) 남막돌(南莫突)이 사나운 말을 어린아이에게 맡기고는 말이 달아날 것을 염려하여 말고삐를 아이의 손에 묶고 채찍을 담장에 꽂아두고 떠났다. 그가 떠난 뒤 말이 갑자기 놀라 내달으니 아이는 고삐에 매어달린 채 끌려갔다. 말이 더욱 놀라 달릴수록 아이는 더욱 떨어져 끌려가서 마침내 거리에서 죽었다. 사복시가 조사해 증거를 세우니, 형조가 막돌을 사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었다. 판결하기를,

“사정을 참작해 보면 막돌에게 죄를 줄 수 없다. 비록 죽은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우리의 율문을 까다롭게 찾아보더라도 막돌에게 적용시킬 만한 조문이 없으니, 형조가 참작

해 처벌하라. 짐승이 무엇을 알겠는가마는 짐승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으니 즉시 그 짐승을 죽여 사람을 중하게 여기고 짐승을 천하게 여기는 뜻을 붙이는 것이 옳다. 그러니 그 말을 죽은 자의 부모에게 내어주라.”

하였다. 형조가 또 아뢰기를,

“남막들을 조사해 처분하는 문제로 올문을 상고해 보건대 『대명률』 축산교척인조(畜産咬人條)에 ‘사람을 받거나 물고 차는 우마(牛馬)에 기호(記號)로 표시하거나 묶어두기를 법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살상(殺傷)한 자는 과실(過失)로 논죄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한 것이니, 남막들을 과실율(過失律)로 처벌해 방면하소서. 기호라는 두 자를 율관(律官)에게 물었더니, 명나라 법에는 사람을 받거나 물고 차는 우마에게는 따로 그 우마의 몸에 표지를 한다고 하는데, 고로(故老)들이 전하는 말이 이리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명조(明朝)의 마음을 쓰는 것이 인후(仁厚)하고 법제(法制)가 엄밀한 성대한 덕과 큰 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나워 제어하기 어렵거나 사람을 물고 차거나 받는 우마가 수도 없이 많으니, 지금 만약 우마의 몸에 기호로 표지해서 사람들이 보고는 피하여 각자 급변에 대응할 방도를 생각하게 한다면 1년 중 팔도 안에서 해를 입는 인명을 살리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조(聖朝)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을 기리고자 하여 감히 집법(執法)의 뜻을 붙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호생의 정사를 돕기 위해 사교(師古)의 청을 진달하였으니, 뜻이 가상하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표지를 거는 방법을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복주(覆奏)하니, 형조가 일일이 지적해 품처하라고 명하였다. 형조가 아뢰기를,

“표지의 방법은 이마에 패를 달고 목에 방울을 다는 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나운 말은 입에 망(網)을 씌우고 사나운 소는 뿔을 자르는 것이 민간에 통행하는 방식이니 이를 미루어 넓힐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마에 패를 거는 것은 쉽게 판별해 알 수 없고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은 다만 더 날뛰게 할 뿐이다. 입에 망을 씌우고 뿔을 자르는 것은 민간에 통행하는 방식이니 다시 시행령(施行令)으로 반포할 필요가 없다. 명령이 나가면 행해야 하는 것인데, 생소한 방식을 시행령으로 정하여 이내 폐지한다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우마에 굴레를 씌우고 부리는 방법이 중국과 다르다. 명나라 때의 유제(遺制)가 오늘날 공사(公私) 일용(日用)에 전해오는 것이 있을 것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앞으로 가는 사신 편에 표지에 관해 자세히 탐지해 오도록 하라.”

하였다. 그러나 뒤에 끝내 정지되고 행해지지 않았다.

## ▶ 26권 12년 11월 25일 癸未

前郡守李胤馥上疏, 請箕聖廟用太牢之典, 嘉山曉星嶺、金川靑石洞, 皆築城, 以固關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防, 昌城昌洲鎭罷鎭設營, 以嚴防禦. 批曰: “爾以鄉外之人, 陳此道內事情, 其心可嘉. 許令廟堂稟處.”

전군수 이윤복(李尹馥)이 상소하여, 기성묘(箕聖廟)에 태뢰(太牢)의 전례(典禮)를 사용할 것, 가산(嘉山) 효성령(曉星嶺)·금천(金川) 청석동(靑石洞)에 모두 성을 쌓아 관방(關防)을 건고히 할 것, 창성(昌城)의 창주진(昌洲鎭)에 진을 얹애고 영(營)을 설치하여 방어를 엄중하게 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그대는 타향 사람으로서 이 도내의 사정을 진술하였으니 마음이 가상하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 ▶ 27권 13년 4월 1일 丁亥

丁亥朔/召對. 分兵曹參知朴孝參上疏曰:

外邑還穀之爲民瘼最甚者, 居昌、咸陽、山淸、安義、三嘉是已. 五邑穀摠, 殆至十萬, 而三營之穀居其半, 空穀之數, 三之二也. 所捧實穀, 皆入吏屬之偷弄, 其外分給, 全是空穀, 民或投棄, 空手歸家, 而一石租之直, 不過六七分錢. 故官與吏, 爭相貿取, 仍留庫中. 及至秋糴, 以其貿置之空穀, 屬之已捧, 至於新捧之實穀, 以錢代徵. 還糴之際, 斗粟難辦, 將差遍搜里閭, 而甕儲已罄. 飢男寒女, 號哭相續, 甚至於父子兄弟之親, 恩情或傷, 鄉里族屬之間, 讎冤輒生, 此莫非糴糴之致. 且近年以來, 使本邑作錢, 移送沿邑穀少處, 而空穀無以發賣於場市, 故抄出境內之稍饒者, 或給百石, 或給五六十石, 每石定以一兩零錢, 嚴督勒徵. 當此錢荒之時, 末由備納, 或捐牛馬, 或賣田庄, 漸致蕩敗. 以此觀之, 勿論貧富, 竝受其殃. 若欲永祛此害, 以虛穀三石, 換作實穀一石, 及其秋糴, 一直精捧, 則此雖四五萬石, 而生民之疾苦可祛也. 又定其穀摠, 大邑八萬石, 中邑五萬石, 小邑三萬石. 至若元會穀, 則折半分留, 比營穀加倍, 而監營穀, 則自是盡分者也. 每邑限以一萬石, 則七十一州之耗條, 爲七萬一千石, 此甚豐厚也. 兵統營之穀, 量宜定限, 每邑置以四五千石足矣. 如是定制, 然後元會耗, 則待春作錢, 納于地部, 以補經費, 三營穀則歸于該營, 以爲需用. 且耗條作錢, 勿論山沿, 通同發賣, 不爲偏留, 以貽民害, 則當此昇平之世, 豈有流離之氓乎?

仍及居昌府使元宅鎭、咸陽前府使李得駿貪酷與各邑官吏, 定額精抄之意. 批曰: “目下急務, 莫先於懷保. 苟欲懷保, 先從懲貪始. 大抵吏不畏法, 廉聲莫聞, 此常所切慨者, 際見爾疏. 居昌倅元宅鎭、咸陽前倅李得駿事, 果如爾言, 烹阿之典, 不施於此輩而何爲? 召問道伯及伊時繡衣, 皆反以畏法善賑, 有治聲爲言. 於是乎兩說, 未免矛盾, 不可無明覈勘罪. 元宅鎭、李得駿先令該府拿來, 反復嚴問, 期於輸情. 仍令時道伯, 拔例詳查狀聞, 若有疎漏, 更當別遣繡衣按查. 所陳穀摠吏額事, 令廟堂稟處. 爾以疎蹤, 有此疏舉, 其心可嘉矣.”



소대하였다. 분 병조참지 박효삼(朴孝參)이 상소하기를,

“지방 고을에서는 대체로 환곡(還穀)이 백성들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곳이 거창(居昌)·함양(咸陽)·산청(山淸)·안의(安義)·삼가(三嘉)입니다. 이 다섯 고을은 각각 곡식의 총수가 거의 10만 석에 이르지만, 세 영(營)의 곡식이 절반을 차지하고 또 빈 쪽정이가 3분의 2나 됩니다. 받아들이 실곡(實穀)은 모두 아전들의 절취와 농간으로 들어가고, 이 밖에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곡식은 순전히 빈 쪽정이이므로 백성들 중에는 아예 버리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빈 쪽정이만 있는 벼 한 섬의 값이 6, 7푼전[分錢]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원과 아전들이 앞다투어 사서 그대로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가을이 되어 환곡을 받아들이 일 때에 미처서는 전에 사서 쌓아두었던 빈 쪽정이를 이미 받아들이는 것으로 문서에 올리고서, 새로이 받아들이 실곡은 돈으로 대신 받아들이입니다.

환곡을 받아들이 일 때면 한 말의 곡식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장차(將差)들이 마을들을 두루 수색하기 때문에 쌀독이 이미 바닥이 나서 추위와 굶주림에 신음하는 남녀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계속되고, 부자·형제 같은 지친(至親) 사이에도 은정(恩情)이 상하고 한 마을의 친족 사이에도 원한이 쌓이기까지 하였으니, 이 모두가 조적의 소치입니다. 그리고 근년 이래로 본 고을들로 하여금 작전(作錢)해서 곡식이 적은 연해(沿海)의 고을들로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 빈 쪽정이어서 시장에 내다 팔수가 없기 때문에 경내의 형편이 조금 넉넉한 자들을 골라내어 혹은 1백 석, 혹은 5, 60석씩 배당시켜 한 섬에 1냥으로 값을 정해서 엄하게 독려하여 강제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돈이 귀한 이때를 당하여 배정된 돈을 다 바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러는 마소를 팔기도 하고 더러는 전장(田庄)을 팔기도 하므로 점차 가산(家産)이 탕진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볼 것 같으면 빈부를 막론하고 함께 그 재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폐해를 영원히 제거하고자 한다면 빈 쪽정이가 3석을 실곡 1석으로 환산해서 가을에 받아들이 일 때에 미처 곧바로 정밀하게 받아들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양이 비록 4, 5만 석에 불과하지만 백성들의 고통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곡식의 총수(總數)를 정하되 큰 고을에는 8만 석, 중간 고을에는 5만 석, 작은 고을에는 3만 석으로 하소서. 원회부곡(元會付穀)으로 말하면 절반을 환곡으로 나누어주고 절반은 창고에 보관해 두는 것이니 감영의 곡식에 비해 갑절이나 더 많습니다. 감영의 곡식은 원래 다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고을마다에 감영곡을 1만 석씩으로 한정하면 71고을에서 받아들이는 모곡(耗穀)이 7만 1천 석이 될 것이니 이는 매우 풍부한 양입니다. 병사영(兵使營)과 통제사영(統制使營)의 곡식도 알맞게 헤아려 한정하되, 매 고을마다 4, 5천 석씩을 두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도를 정한 뒤에 원회 부곡의 모곡은 봄을 기다려 작전(作錢)해서 호조에 바쳐 경비에 보충하고, 세 영의 곡식에서 나온 모곡은 당해 영으로 보내어 용도에 따라 쓰게 하소서. 그리고 모곡을 작전하는 데는 산읍(山邑)이나 연읍(沿邑)을 막론하고 통틀어 발매(發賣)하게 하고, 편벽되어 남겨 두는 곳이 있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한다면 이런 태평한 세상을 만나 어찌 이리저리 떠도는 백성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어 거창부사 원택진(元宅鎭)과 전함양부사 이득준(李得駿)의 탐혹(貪酷)한 정상을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논하고, 또 각 고을의 아전들을 액수(額數)를 정하여 정선(精選)할 것을 언급하였다. 비답하기를,

“오늘날의 급한 일로는 백성들을 안정시켜 보호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니, 진실로 안정시켜 보호하고자 하면 먼저 탐관(貪官)을 징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체로 관리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청렴하다는 명성이 들리지 않으니, 이것이 내가 항상 매우 개탄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이러한 즈음에 너의 상소를 보았다. 거창부사 원택진과 전 함양부사 이득준의 일이 과연 너의 말대로라면 팽아(烹阿)의 형전(刑典)을 이런 무리에게 시행하지 않고 어디에다 쓰겠는가?

그래서 도백(道伯)과 그 당시의 어사(御史)를 불러 물어 보았더니 모두 도리어 ‘법을 두려워하고 진휼(賑恤)을 잘하여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두 말이 모순됨을 면치 못하니 밝게 사실을 조사해서 죄를 처단하지 않을 수 없다. 원택진과 이득준은 우선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가 반복해 엄히 신문하여 기어이 실토를 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당시의 도백으로 하여금 규례에 상관말고 자세히 조사해서 장계로 아뢰게 하되, 만약 소루함이 있을 때에는 다시 따로 어사를 보내어 조사시킬 것이다. 진술한 곡식의 총수와 아전의 정원에 대한 일은 묘당으로 하여금 품의해 처리하게 하겠다. 너는 소원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상소하는 일을 하였으니 그 마음이 가상하다.”

하였다.

### ▶ 29권 14년 2월 20일 辛未

竄慶尙道前觀察使金尙集、金光默于大丘府。慶尙道觀察使李祖源以咸陽還穀釐正狀聞，敎曰：“國非民何依，民非國何恃？一夫一婦之轉于溝壑，爲民父母，尙不忍立視其匍匐就死，況一邑五千戶之水火塗炭乎？每說穀多病民之弊，先舉嶺南，而嶺南咸陽爲最。銳意查正，必欲拯拯，邑倅則拔例差遣。仍飭道伯，撫實報聞者，蓋出大更張之微意，而觀此狀辭，一看瞠再看眙，看之又看，惻然恤然，久而無語，不覺坐夜之將曉。毒急燃眉，怨深入髓，而咸民之不盡劉，尙有孑遺，誠屬理外。豈或牽於懷土之情，切於俟我之願，而少須臾耐至於今耶？予不能盡父母之責，弊到極處，始乃摸索於傳聞，仍得以識其詳。興言及此，怒焉如飢。大抵十萬包民食，包包塵土，粒粒糠粃，腐穀陳臭，牛馬之所不食。往古來今，自有倉廩，孰若是郡之穀者乎？重之斂散，百瘼蝟集蠆射，以益其墨倅猾胥吮啄之資。何辜咸民，胡寧忍斯？邑牒、道啓，雖有勒加區別，強立留作條、發賣條、連欠條等項名色，又分之以優劣難易，諸般層節，結之曰：‘恭俟處分。’問于廟堂，廟堂之見，亦無甚異同，而萬有一派析，排比之際，致令愈困而愈虐，則是所謂徒有不忍之心。不能行不忍之政，其尙曰：‘迺續咸民之命乎？’如庫中塵土、虛穀與反逋鬼錄。并付火。狀請中留作條、發賣條通融簸揚，減定三萬數量宜分留，俟準狀請五萬數，然後始行半分之常式，耗勿留錄。弊源所自，雖難的據年條，丙午以後之說，既登於道啓，朝家處分，只及守宰，而在道伯則曲恕之可也，知而不發，甚非仁人之心。丙午以後勘簿道伯，道內大丘地，

亟施投竄之典，守宰亦令攸司，照法勘斷。此傳教繡衣齋往，曉告民庶與邑倅，逐倉考視，付火者付火，簾分者簾分後復命。”

경상도 전(前) 관찰사 김상집(金尙集)·김광묵(金光默)을 대구부(大丘府)에 찬배(竄配)하였다. 경상도 관찰사 이조원(李祖源)이, 함양(咸陽)의 환곡에 대한 폐단을 바로잡을 것을 계문(啓聞)하니, 하교하기를,

“나라가 백성이 아니면 누구를 의지하며, 백성이 나라가 아니면 무엇을 믿겠는가? 한 쌍의 부부라도 구덩이에 굴러 죽는 데 대하여 백성의 부모 된 사람으로서는 차마 그들이 죽을 곳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인데, 더구나 한 고을의 5천 호(戶)가 진구렁에 빠지고 불에 타는 듯한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늘 곡식은 많은데도 백성들은 병들고 있는 폐단을 말할 때면, 먼저 영남(嶺南)을 들고 영남에서도 함양(咸陽)이 첫손에 꼽힌다. 주의깊게 조사하여 기어코 이들을 구해 살리기 위하여 고을 수령을 특례(特例)로 파견하였고, 이어 도백(道伯)에게 신칙하여 사실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대체로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은미한 뜻에서 나온 일이었다.

그러나 이 장계(狀啓)의 내용을 보건대, 처음 볼 때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재차 볼 때는 입이 딱 벌어지고, 보고 또 보게 되면 측은하고 가엾어서 한참동안 말이 없이 앉아 있노라니, 어느새 날이 새는 것도 몰랐을 지경이었다. 해독은 눈썹에 불이 붙은 것처럼 다급하고 원망은 뼈 속에 사무치도록 깊은데도 함양 백성들이 다 죽어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정말 상상 밖의 일이라고 하겠다. 혹시 고장을 뜨기를 아쉬워하는 생각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절실하여, 조금씩조금씩 참다가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백성들의 부모 된 직책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여, 폐단이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하는 소문에서 더듬어 찾아보고는 그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다. 말이 여기에 미치면 마치 배고픈 사람처럼 허출해진다.

**대체로 10만 포(包)나 되는 백성들의 식량이 포대마다 먼지와 흙이고 낱알들이 쪽정이인 데다 썩고 묵어 냄새가 나므로, 마소도 먹을 수 없을 지경이다.** 고금을 통하여 창고를 설치한 이래로 이 고을의 곡식과 같은 경우가 어디에 있겠는가? 거기에다가 나눠주고 거두어들이는 데서 온갖 폐단이 집중적으로 몰려들어 탐욕스러운 고을 수령과 교활한 서리(胥吏)가 빨아먹을 밑천을 더해주고 있다. 함양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어찌 이런 것을 참아내야 한단 말인가.

고을의 첩보와 도의 장계에서 비록 억지로 구별을 하여 유작조(留作條)니, 발매조(發賣條)니 포함조(逋欠條)니 하는 항목의 명색(名色)을 강제로 붙이고, 또 낮고 못한 것과 어렵고 쉬운 것을 구별해 놓긴 하였으나, 그 여러 항목에 대해 모두 결론짓기를 ‘삼가 처분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이에 묘당에 물었더니 묘당에서도 보고 별다른 이견(異見)이 없었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이것을 갈라서 배분할 때에 더욱 지치고 더욱 못살게 군다면, 이것은 이른바 한갓 차마 못하는 마음만 있을 뿐 차마 못하는 정사는 시행하지 않는 셈이 된다. 그러고도 함양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준다고 할 수 있겠는가? 창고 안에 있는 먼지 흙과 쪽정이, 축난 것을 갇았다는 거짓 장부는 전부 불에 태워버리고, 장계 가운데에 있는 유작조와 발매조를 통틀어 놓고 키로 까불러서 3만 섬의 수량으로 줄여 정한 다음, 나누어 보관하여 장계에서 요청한 5만 섬의 수량을 맞춘 후에야 비로소 그 절반을 나눠주는 상식(常式)을 시행할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것이되, 감모분(減耗分)은 기록에 남겨두지 말라.

폐단의 근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연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병오년 이후 부터라는 말들은 이미 도신의 장계에 올라 있는 이상, 조정의 처분이 단지 수령에게만 미치고 도백에 대해서는 극진히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어진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병오년 이후의 장부를 마감한 도백에 대해서는, 도내의 대구(大丘) 땅에 빨리 귀양 보내는 법을 적용하고 수령들에 대해서도 유사로 하역금 법에 비추어 처벌하도록 하라. 이 전교를 어사가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한편, 고을 수령과 함께 창고마다 조사해보고 불에 태울 것은 불살라 버리고, 키로 까불러 나눠줄 것은 까불러서 나눠준 다음 복명(復命)을 하라.” 하였다.

### ▶ 29권 14년 3월 14일 甲午

削副校理李晴職. 晴上疏曰:

臣於丙午, 忝叨侍講之列, 其時進講籤紙, 在於『中庸』二十八章. 昨年夏更入本館, 則伏觀法講冊子, 纔畢『中庸』, 始至『大學』經一章. 四年之間, 所講若是其少, 則經筵之稀闊可想. 堂堂聖朝, 許多儒臣, 其經術文學, 豈無可與講討者也? 亦未聞有頻賜晉接, 朝夕論思者. 此雖出於群下無足擬於聖心, 而亦不能無憾於天地之大. 大僚、儒臣之前後敷陳, 輒賜嘉納, 迄無實效, 伏願益加勉勵焉. 臣於向日西行, 目見流民滿路, 間或有馱之牛馬, 有若搬移者然. 故臣怪而問之, 則皆以爲: “流丐彌滿, 求乞成弊. 安居者亦不能支存, 貧富俱困, 胥至流離” 云. 及於歸路, 又見列邑吏校領率流民, 各送其土, 莫不頌祝聖德, 而第聞西來人言, 則流民初既傾家破產, 今雖返故, 猝難奠居云, 此亦不可不念.

이하생략~

부교리 이청(李晴)을 삭직(削職)하였다. 이청이 상소하기를,

“신이 병오년에 외람스레 시강(侍講)의 반열에 몸을 담게 되었는데, 그 당시 진강(進講)의 첨지(籤紙)가 『중용(中庸)』 제 28장(章)에 끼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다시 본관(本館)에 들어가서 삼가 법강(法講)하신 책자(冊子)를 보니, 겨우 『중용』을 마치고 『대학(大學)』 경 1장(經一章)을 시작하였습니다. 4년 동안 강론한 것이 이처럼 적은 것으로 보아 경연(經筵)을 드물게 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당(堂堂)한 성상의 조정에 허다한 유신(儒臣)들 가운데 그 경술(經術)과 문학(文學)이 더불어 강토(講討)할 만한 수준에 이른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자주 접견하여 조석(朝夕)으로 논사(論思)를 하였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못신하들이 성상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점이 없어서 그러한 것이겠지만, 역시 천지처럼 커다라야 할 성상의 도량에 대해 유감이 없을 수 없습니다. 대신과 유신들이 전후로 의견을 진술할 때마다 번번이 가상히 받아들이기는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 실효(實效)가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한결 더 노력하소서.

신이 지난번 서쪽 지방에 갔을 적에 유민(流民)들이 길에 가득찬 것을 목격하였는데, 간혹 마소에 짐바리를 싣고 가는 것이 마치 이사를 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괴이하게 여기고 물어보았더니, 다들 말하기를, ‘유랑 결식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하여 구걸하는 것이 폐단이 되었다. 그리하여 편안히 살던 사람들 역시 버티지 못하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두 살기가 고달파서 서로들 고향을 떠나 떠돌게 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또 보니, 열읍(列邑)의 아전과 군교(軍校)들이 유민들을 데리고 각기 제 고향에 돌려보내고 있었는데, 누구나 다들 성상의 은덕을 송축(頌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쪽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유민들이 처음에 이미 집안 재산을 모두 거덜냈기 때문에 지금 비록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갑자기 안착(安着)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점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하생략~

### ▶ 30권 14년 4월 26일 丙子

司諫宋銓上疏曰:

~중략~

若夫峽滯沿匱之患, 誠緣營穀折色之弊. 爲方伯者, 罔念穀簿之不均, 惟問米價之貴賤, 遣裨校而詞探, 飭列邑而高下. 舟車不通之鄉, 陳腐相仍, 市直翔踊之邑, 困儲都罄, 今番咸陽之事, 足以反隅. 哀彼蔀屋, 終歲力作, 所收幾何, 而未及仲冬, 瓶罍俱竭, 至於賣犢販釜之不足, 十室九空, 在在皆然, 其所釐正之方, 不容少緩. 既不能大更張, 則目下救急之道, 只有沿峽哀益之政. 然而移彼就此之際, 或有道里遼窶之弊, 受東納西之時, 必有陳朽勒給之患. 苟不十分消詳, 務盡方便, 則雖有將來之實效, 而未免目前之利害. 臣意則一從郡邑之遠近, 從民所願, 使之次次轉移, 切勿勒令強給, 亦令該邑守令, 凡於割給之際, 無或彼我其民, 精劣惟均之意, 各別嚴飭.

批曰: “附陳關西外諸道贓貪事, 爾言甚好, 當留意矣. 侈風事, 爾言甚好. 此非所以言教者, 必因躬遵之未盡而然. 若使宮中有大布大帛之化, 今日侈風, 寧至此極? 此所以自勵, 而欲望一世之觀感者也. 贓吏計繼置辟事, 日前一倖之律止勘配, 非屈法也. 外官富戶勒貸之弊, 令廟堂別般嚴飭. 穀簿裒益, 道里遠近, 一從民願事, 依所請, 令廟堂嚴飭該道.”

사간(司諫) 송전(宋銓)이 상소하기를,

~중략~

그리고 산골 고을에는 곡식이 남아돌고 연해 고을에는 곡식이 동이나는 폐단은 실로 감영에 바칠 곡물을 돈으로 대신 바치는 폐단과 관련됩니다. 그러나 감사로 있는 자는 곡식장부가 고르지 못한 것을 생각지 않고 오직 쌀값의 높고 낮은 것만 따지면서 부하 군교들만 파견하여 염탐하고 각 고을에 신칙하여 값을 올리고 내리곤 합니다. 배나 수레가 통하지 못하는 고을에는 계속 묵어 썩는가 하면, 시가가 양등하는 고을에는 창고의 저축이 온통 바닥이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나는 것을 이번 함양의 사례로도 족히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불쌍하게도 저 농가에서 1년 내내 힘써 농사를 짓지만 거두어들이는 것이야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동짓달도 되기 전에 곡식 향아리가 모두 텅 비는 것입니다. 이에 송아지를 팔고 술을 팔아도 부족하여 열집에 아홉 집은 사람이 비는 상황이 가는 곳마다 다 마찬가지이니 이를 바로잡는 방법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미 대대적으로 뜯어고치지 못하는 입장에서 우선 당장의 급한 것을 구제하는 방도로서는 산골 고을의 곡식을 떼다가 연해 고을에 보태주는 정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쪽의 것을 옮겨 이쪽으로 실어 가는데 혹은 거리가 먼 폐단도 있고, 동쪽에서 받아다가 서쪽에 바치노라면 필경 썩은 곡식을 억지로 내주는 폐단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십분 소상히 밝혀 방편을 강구하지 않으면 비록 장래의 실효가 있다 하더라도 눈앞의 곤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한 결 같이 고을과 고을의 거리에 따라 백성들의 소원대로 차례차례 옮기게 하고 절대로 무리하게 명하거나 강제로 내주지 말며, 또 해당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배정해 주게 하되, 혹시라도 네 고을 백성, 내 고을 백성을 구분하지 말고 알찬 것과 거친 것을 고루 분배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신칙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덧붙여 진술한 관서와 이외 여러 도의 탐오에 대한 일은 그대 말이 매우 훌륭하니 유념 하겠다. 사치스러운 풍습에 대한 일도 그대 말이 매우 훌륭하다. 이는 말로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닌만큼 필시 술선수범이 미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되었을 것이다. 만약 궁중에서 거친 포백(布帛)의 옷을 입는 교화를 보였더라면 오늘날의 사치를 숭상하는 풍습이 왜 이처럼 극한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이야말로 스스로 노력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감동하도록 해야 할 일이다. 탐오한 관리의 돈 꾸러미를 따져 처벌하는 데 대한 일은 일전에 어떤 고을 수령에게 적용한 율문이 정배에 그치고 말았는데 이는 법을 굽힌 것이 아니다. 수령이 부유한 백성들의 재물을 강제로 차용하는 폐단에 대해서는 묘당으로 하여금 특별히 신칙하게 할 것이며, 곡식 장부에서 많은 데 것을 떼어 적은 데 보태며 거리가 멀고 가까운 데 대한 것을 한 결 같이 백성들의 소원에 따르자는 일에 대해서는 소청에 따라 묘당으로 하여금 해도에 엄히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 ▶ 31권 14년 10월 14일 辛酉

辛酉/原春道觀察使尹師國狀啓, 陳海戶蘇殘之方曰:

~중략~

而道伯所進冊子中, 生乾獐名色之朔膳與臘肉, 已許代捧, 獨於物膳無特教, 尙今仍舊云, 事甚斑駁. 物膳生獐, 一體代封, 乾獐與獐脯, 不緊莫甚, 竝爲除封. 牛禁, 法典所在, 除非享祀、太牢宴禮大膳, 牛肉皆不得用之. 獨於本道貢獻, 有片脯名色, 此必襲謬而然. 亦令自今除減. 又見該道所進冊子, 貢獻物種, 或多無價收捧名色云. 此委折, 令廟堂查問, 可以釐正者釐正. 內局藥材中, 難辦諸種, 令該院量其用處緊歇, 草記釐正.” 備邊司

又啓言：“見原春道臣尹師國所報則以爲：‘貢獻物種之或有無價事，在昔魚採甚豐，土產至賤，無價封進，已成邑例，至今行之。情債變通事，本道異於湖南各邑，禮吏初無相關於營主人，營主人亦無周旋於進上，從中作奸，其勢末由。況情債之數，節目所載，給代之舉，狀聞變通，則弊復如前，恐無是理。依前狀請許劃，而錢穀取利之方，錢任蔘商，穀付各邑，歛散糶糴，營邑句管，則生弊耗縮，似無其慮。釋奠祭魚鱸，事關祀典，令該曹磨鍊下送，以爲定式’爲辭矣。貢獻物種中無價收捧者，既已登徹之後，有難置之。山菜、山果外，生魚物、生兔等種，使之詳定中給價。情債給代事，名以營下情債，自朝廷給代，恐不成事面，此則置之。釋奠祭魚鱸，令該曹定數知委。其餘諸條，依節目施行爲宜。”允之。

원춘도 관찰사 윤사국(尹師國)이 장계를 올려 해변 민호를 소생시킬 방법을 진술하기를,  
~중략~

그리고 감사가 바친 책자에 의하면 생노루 고기와 말린 노루 고기의 명목으로 달마다 바치는 물선은 납육(臘肉)과 함께 이미 대봉(代封)을 허락하였는데, 유독 물선에 대해서만 특별 지시가 없어 아직까지 이전대로 바치고 있다 하니, 일이 몹시 고르지 못하다. 물선으로 바치는 생노루는 똑같이 대납하게 할 것이며, 말린 노루 고기와 장포(獐脯)는 별로 긴요하지 않으니 전부 봉진하지 말게 하라.

소 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전에 실려 있는 것으로서 만약 제사에 큰 상을 차리거나 연회에 크게 음식을 차리는 일이 아니면 모두 쇠고기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오직 본도의 공납에만 편포(片脯)의 명목이 있으니 이는 필시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여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 역시 이제부터 면제해 주도록 하라.

또 본도에서 바친 책자를 보니 공납하는 물종 가운데는 간혹 대가를 주지 않고 거두어 바치는 명목이 많다고 한다. 이 곡절도 묘당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시정해야 할 것은 시정하게 하고, 내국(內局)에 바치는 약재 가운데서도 마련하기 어려운 종목은 약원으로 하여금 그 용처의 완급을 헤아려서 초기를 올려 시정하게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또 아뢰기를,

“원춘감사 윤사국이 보고한 것을 보면 ‘공납하는 물종 가운데 간혹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이 있다는 일은, 옛날에 해산물이 매우 흔하고 토산물이 지천일 때 값 없이 봉진하던 것이 이미 고을의 전례로 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채(情債)를 변통하는 일은, 본도는 호남의 각 고을과 달라서 예방아전은 애초부터 영주인과 상관이 없고 영주인 역시 진상하는 일을 주선하는 일이 없으므로 그 중간에 험잡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정채의 수량은 항목에 실려 있는 것이라 대신 주는 일을 장계로 보고하게 하여 변통한다면 폐단이 다시 종전처럼 생길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장계로 요청한 대로 허락할 것이며, 돈과 곡식의 이자를 늘리는 방법에서는 돈은 인삼 상인에게 맡기고 곡식은 각 고을에 넘겨 거두어들이고 나누어 주는 일을 감영과 고을에서 주관한다면 폐단이 생기거나 축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가, 석전제에 쓰는 어포는 제사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해조로 하여금 수량을 정해 내려 보내 규정으로 삼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공납 물종 중 값 없이 거두어들인 것은 이미 그 사실이 보고된 이상 그대로 두기는 어렵습니다. 산나물과 산과일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이외에 생어물(生魚物)과 생토끼 등의 물종은 규정에 있는 값을 주게 할 것이며, 정채를 대신 주는 일은 명목이 감영의 정채라고 하면서 조정에서 대신 주게 한다는 것은 사리에 합당치 않을 것 같으니 그대로 덮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석전제에 쓸 어포는 해조로 하여금 수량을 정하여 알리게 할 것이며 그 나머지 여러 조항은 세목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윤희하였다.

### ▶ 31권 14년 11월 18일 甲午

夜三更，密招承傳宣傳官及壯營、訓營知穀官，教曰：“今夜欲行暗營之制。軍書雖有明營暗徙時號令，而住營之祛燈炬，無指的概見者。軍無常形，貴在隨時通變。送長令箭二枝，又以黑高招雙燈連旗，點各營燈火通點然後，即將燈火，蓋藏原處，炬火視此即祛之。蓋暗號，一也。徙與住差殊，但不當用小短箭矣。”仍命諸校，各陳所見。諸校或言黑信箭一枝，代長箭輪示，次行號令爲便；或言長令箭二枝、小短箭一枝，不可不竝發，以長箭示發號，二枝示密令，小短箭示嚴急爲便；或言不用金鼓之聲、旗招之色，則只傳物件行止，軍書所謂傳草木枝、石塊、鷄狗牛馬之聲者，是也，以別物密傳爲便；或言夜黑之時，方色亦當尙黑，以黑旗相準爲便。各說參差，而暗營之令，本係嚴急，不許開口出聲，違者以常律從事，即軍書所載也。諸校猝當此令，悚懾戰慄，喉燥舌硬，更不敢出一口氣。將致稽時，其中壯營校池得龜爲名者，躍前低聲曰

이하생략~

밤 3경에 전교를 받은 선전관과 장영(壯營)·훈영(訓營)의 지구관(知官)을 은밀히 불러 전교하기를,

“오늘 밤에 야간 군영의 제도를 실시하려 한다. 병서에는 비록 군영의 주간 행동과 야간 행동 때의 호령이 있으나, 주둔한 군영에서 등불과 횃불을 없앤다는 것은 정확히 지적할 만한 규정이 없다. 군이란 일정한 형식이 없고 중요한 것은 때에 따라 변통하는 데 있다. 긴 영전(令箭) 2대를 쏘아 보내고 또 검은 고초쌍등(高招雙燈)을 깃대에 달아 각 군영에 신호하여 각 군영의 등불이 다 켜진 뒤에 곧 등불을 가져다가 원래의 장소에 간직하고 횃불은 이것을 보는 즉시 없애버리도록 하라. 대개 암호는 다 마찬가지지만 이동할 때와 주둔할 때가 좀 다르다. 그러나 작고 짧은 화살을 쓰는 것은 부당하다.”

하고, 이어 여러 군교들에게 각기 의견을 말하게 하니, 여러 군교들 가운데 어떤 자는 말하기를,

“검은 신전(信箭) 1대로 긴 화살을 대신하여 돌려 보인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고, 어떤 자는 말하기를,

“긴 영전(令箭) 2대와 작고 짧은 화살 1대를 한꺼번에 쏘지 않으면 안 되며, 긴 화살로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표시하되 2대는 비밀 명령이란 것을 표시하고, 작고 짧은 화살은 급박



하다는 것을 표시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어떤 자는 말하기를,

“징과 북의 소리와 깃발의 빛깔을 쓰지 않을 경우 단지 어떤 물건을 전하여 군사를 행동하고 정지하게 하는 것인데, 병서에 이른바 초목의 가지, 돌이나 흙덩이, 닭·개·소·말의 소리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니, 이런 별다른 물건으로 은밀히 전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어떤 자는 말하기를,

“감암한 밤에는 방향을 알리는 빛깔도 또한 마땅히 검은 것을 숭상하여 검은 기로 서로 맞추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는 등 각자의 말이 서로 달랐는데, 야간 군영의 명령은 본디 급박한 것이므로 입을 열어 소리를 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위반하는 자는 일정한 군율에 처하는 것이 병서에 쓰여 있다는 명이 내리자, 군교들이 갑자기 이 명령을 받고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 목이 타고 혀가 굳어져 다시는 감히 아무런 말소리도 내지 못하고 시간을 끌 무렵에 그중 장영의 군교 지득귀(池得龜)란 자가 앞으로 뛰어나와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를,  
이하생략~

## ▶ 32권 15년 1월 22일 丁酉

民人朴弼寬擊鼓，請禁吏民之結契、常賤之僞譜、屠牛無節、生松濫斫。又言豪右兼并之弊，請奴婢無過三十口、庄土無過三十結、軍人收布無過二十尺。敎曰：“井田尚矣，限田最近古，而惟東漢行之。豪右之兼并，終難禁抑，庄土以三十結爲準，奴婢三十口爲定云者，言非不好，而未講措施之策，徑頒分限之令，反恐致繹騷。收布，尤非容議。惟結契、僞譜、屠牛、斫松等事，飭諸道嚴禁。”

백성 박필관(朴弼寬)이 신문고를 쳐서 아전과 백성들이 계(契)를 맺는 것, 상민과 천민들이 거짓으로 족보를 만드는 것, 소를 기준 없이 도살하는 것, 생 소나무를 함부로 베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청하였다. 또 토호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폐단을 말하면서 노비는 30구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고 토지는 30결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고, 군인에게 베를 거두는 것도 20자를 넘지 못하게 하도록 청하니, 전교하기를,

“정전법(井田法)은 먼 옛날 일이고 한전법(限田法)은 가장 옛 제도에 가까우나 오직 동한(東漢) 시대에만 시행하였다. 토호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은 억제하기 어렵다. 토지를 30결을 기준으로 한정하는 것과 노비를 30구로 한정하자는 말은 그 말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나, 시행할 방식을 강구하지 않고 갑자기 제한하는 명부터 내린다면 도리어 소란만 초래하게 될까 염려된다. 베를 거두는 것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다. 다만 계를 맺는 것과 거짓 족보를 만드는 것과 소를 잡는 것과 소나무를 베는 것과 같은 문제는 모든 도에 엄히 금지하도록 신칙하라.”

하였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 32권 15년 4월 12일 丙辰

命昌寧前縣監徐有豐，卽其地定配，前慶尙道觀察使李祖源施不斂之典。義禁府啓言：“昌寧前縣監徐有豐，民結之不得防納，朝禁至嚴，牛贖之關由營門，法例則然，而初不報營，任自徵捧，客舍修改，雖曰不可已之事，嶺穀移貿之舉，寔是軫民弊之盛意，則詳定外加斂民錢之數，至於三千七百兩之多，罪不可容貸。以徒二年定配照律。”敎曰：“加捧，不法，加用，亦不法。無論捧用之入於修繕與否，若十分審慎，到底詳明，設欲強意覓疵，必無可執之跡，則道啓何爲而出乎？朝家於辛壬被禍諸臣家人，非大罪，不欲置對，竝與金吾之銜，必卽曲諒，意蓋深矣。況於聖后私親，豈或歇後看過乎？渠能善爲，而不冒不法之案，則亦豈久置囹圄乎？道伯旣不能先事嚴防，則朝家處分，惟有公法在焉。以渠地處，有渠查事，徒年之律，失之太輕，卽其地定配，加用盡報。公廨訖役後，令道臣狀聞，欲待查啓來到後處分矣，今觀查啓，道伯事誠駭然矣。近來本道穀移貿之舉，出於爲民弊之苦心，而當初屢加難慎，他道飭教，亦當聞知，則道伯守令之詳定外犯科，不能防戢，看作西穀例賣取剩之謬例者，是豈成說乎？觀於一徐有豐，而安知無幾箇有豐，伏在未發覺中乎？雖令七十州，只有一有豐其爲不察則一也。前道臣李祖源，亟施不斂之典。先自昌寧剩錢，令新伯，一一還給於民間。萬一不勤，有現發之弊，則新伯亦難免重勘，令廟堂，各別嚴飭。此舉卽爲嶺民示信朝令也，或有未發覺之類，避罪之逕，綽有餘地。若此而道伯闔眼，守令渙忍，其可曰國有法乎？”

전창녕현감 서유풍(徐有豐)을 그곳에다 유배하고 전 경상도 관찰사 이조원은 서용하지 않는 법을 적용시킬 것을 명하였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전창녕현감 서유풍은 백성의 세금을 방납(防納)해서는 안 된다는 조정의 법이 지극히 엄격하고 소를 도살한 자에게 속죄금을 받을 경우 감영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감영에 보고도 하지 않고 멋대로 받아들여 객사(客舍)를 개축하였 습니다. 그것이 비록 부득이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영남의 곡식을 다른 곳으로 옮겨 매매하게 한 일은 민폐를 걱정하시는 성대한 뜻임에 비추어볼 때 상정(詳定) 이외로 백성에게 더 거둔 돈이 3천 7백 냥이나 되니, 죄를 그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도형 2년의 귀양을 보내는 율을 적용시켜야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더 받아들이는 것도 불법이고 더 쓰는 것도 역시 불법이다. 받아서 쓴 것이 객사를 수리하는 데에 들어갔건 말았건 논할 것 없이 십분 삼가하고 철저히 살폈더라면 설사 억지로 흙을 잡으려 해도 반드시 잡을 만한 흔적이 없었을 것이다. 감사의 장계가 무엇 때문에 나왔겠는가? 조정에서 신사년과 임오년에 화를 당한 여러 신하의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큰 죄가 아니면 면대하여 죄를 물으려 하지 않았고 의금부 관리들까지도 반드시 곡진하게 용서해 주려 했던 것은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왕후의 본가 친척에 대해 어찌 혹시 법연하게 보아넘길 수 있었겠는가? 그가 잘하여 법을 어긴 죄안을 뒤집어쓰지 않았다면 또한

어찌 오래 옥에 가두어두었겠는가? 도백이 이미 사전에 엄히 방지하지 못하였으니, 조정의 처분은 오직 공법만 있을 뿐이다. 그의 처지에서 조사를 당한 그런 일이 있었으니 도년의 율은 너무 가볍다. 그 지방에다 유배하라.

더 받아 쓴 것을 모두 돌려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해(公)의 역사가 끝난 뒤에 도신에게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조사하여 아뢰는 것이 도착한 뒤에 조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조사하여 아뢰는 것을 보니 도백의 일은 정말 놀랍다. 요즈음 본도의 곡식을 다른 곳으로 옮겨 매매하는 것은 민폐를 고려한 고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당초에 여러 차례 신중히 하도록 당부하였고 다른 도에 신칙한 하교도 역시 들어서 알 것인데, 도백이 수령들의 상정 이외에 거둬들여 법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고 관서의 곡식을 으레 팔아서 이문을 남기는 잘못된 규례로 보았으니, 이 어찌 말이 되는가? 한 명의 서유풍을 보면 몇 명의 유풍이 발각되지 않은 가운데 숨어있지 않다고 어찌 장담하겠는가? 70개 고을에 유풍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그가 살피지 못한 잘못은 매 한가지이다. 전 도백 이조원에게 서용하지 않는 법을 서둘러 시행하라.

그리고 우선 창녕에서 더 받아낸 돈은 새 도백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돌려주게 하라. 만일 삼가하지 않아서 드러난 폐단이 있다면 신 도백도 역시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묘당으로 하여금 각별히 엄히 신칙하게 하라. 이번의 조치는 곧 영남 백성들에게 조정의 법이 신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혹시라도 발각되지 않은 무리가 있다면 죄를 도피할 길은 얼마든지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데도 도백은 눈감아주고 수령은 흐리멍덩하게 군다면 어찌 나라에 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 ▶ 34권 16년 2월 30일 己巳

己巳/次對. 仍行抄啓文臣親試及日次儒生殿講. 上曰: “顧今教化之不敷, 予方自反瞿然, 而乃有此不拜孔子者云, 天下寧有是也? 此若仍置, 卽非生道殺人之義, 故至有按覈之舉矣. 右相卽伊時道伯, 道內如許之事, 豈不聞知乎? 大抵予於此事, 別有所寒心者. 年前亦有所云云, 而予之一念, 惟在於全恩一事. 當全恩處, 則必欲全恩, 當用法處, 則必欲用法, 蓋用法於此輩, 然後始可全恩故也. 如翼魯者, 千斬萬戮, 在法當然, 今之權璋, 亦一翼魯. 向以築堰等事, 出沒於該宮, 蹤跡既綻, 而特未及置法矣. 如渠函醜, 敢作通文泮中之舉, 此而置之, 便同率衣冠而歸禽獸之域, 不得不敷示本末矣. 蓋築堰事, 卽年前起訟於秋曹者也, 曾經秋判戶判之人, 孰不知之? 欺人取物, 猶屬餘事, 渠之罪惡何如, 而今又跳踉若此, 致使其名, 復登於絲綸之間, 豈不痛駭乎? 此等醜類, 各別痛治, 然後同氣可保. **俗云: ‘非汝牛角, 何壞我墻?’** 若無翼魯、權璋輩, 則初豈有如彼海島之行乎? 此等漢, 卽予血讎, 必欲一番報復, 而士子也, 泮長也, 訖無一言, 寧不寒心?”

이하생략~

차대(次對)하였다. 이어서 초계문신(抄啓文臣)들의 친시(親試)와 일차 유생(日次儒生)의 전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강(殿講)을 거행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교화(敎化)가 두루 미치지 않아서 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는 중인데 공자의 사당에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두면 곧 백성을 살리는 도(道)로 악한 자를 죽이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하라는 조치까지 있게 된 것이다. 우의정은 바로 그때의 감사인데, 도내에서 일어난 이같은 일을 어찌 들어 알지 못했겠는가? 대저 내가 이 일에 대하여 특별히 한심스럽게 여기는 점이 있다. 연전에도 또한 운운한 바가 있었지만 나의 일념(一念)은 오직 은혜를 온전히 하는 한 가지 일에 있다. 은혜를 온전히 해야 할 곳에는 반드시 은혜를 온전히 하려 하고 법을 사용해야 할 곳에는 반드시 법을 사용하려고 하니, 대저 이러한 무리들에게 법을 사용한 뒤라야 비로소 은혜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익노(翼魯)와 같은 자로 말하면 가차없이 참수하는 것이 법에 당연하고, 지금의 권위(權緯)도 익노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제방을 쌓는 등의 일로 해궁(該宮)에 드나들어 자취가 이미 드러났으나 다만 미처 법으로 처벌하지 못했다. 저와 같이 흉악한 자가 감히 성균관에 통문(通文)을 돌리는 짓을 하였으니, 이런 일을 그대로 두면 의관(衣冠)을 한 선비들을 거느리고 금수의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기에 부득불 본말(本末)을 펴 보이는 것이다. 대개 그는 제방을 쌓는 일로 바로 연전에 형조에서 송사를 일으킨 자였으니, 일찍이 형조판서와 호조판서를 지낸 사람치고 누군들 알지 못하겠는가? 사람을 속이고 물건을 취한 것은 오히려 여사(餘事)에 속하니 그의 죄악이 어떠하겠는가? 그런데 지금 또 이처럼 날뛰어 그 이름이 다시 조문(詔文)에 오르게 되었으니 어찌 몹시 놀랄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한 무리들을 각별히 통렬하게 다스린 뒤라야 동기(同氣)도 보전할 수 있는 것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너의 소꿉이 아니면 어찌 우리 답이 무너졌겠는가?’ 하였으니,** 만약 익노(翼魯)와 권위(權緯) 같은 무리가 없었다면 당초부터 어찌 저처럼 바다 섬으로 귀양 가는 일이 있었겠는가? 이놈들은 바로 나의 원수이니, 반드시 한 번 보복하려고 하는데, 선비들과 대사성이 지금까지 한 마디 말이 없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하생략~

### ▶ 35권 16년 8월 8일 甲戌

甲戌/承旨徐榮輔啓言: “『五禮儀』所載南壇, 方二丈二尺, 高二尺七寸, 故試以營造尺量之, 則方二十四尺五寸, 前高二尺八寸矣. 『五禮儀』所用之尺, 自『文獻備考』, 已言其未詳, 而以今營造尺所量較之, 則約略相符, 無甚參差. 四陛兩壇之制, 宛然可識. 樂則用雅樂, (以)舞以六佾, 奏以六成, 六佾, 宗社、山川之所通用也, 六成, 天神六成之制也. 神座位置, 則風雲雷雨位居中, 山川位居左, 城隍位居右, 并在此南向, 一如『五禮儀』所載, 而『五禮儀』圖則三位并列一行, 而今則山川、城隍位稍前爲別行, 如品字樣. 蓋緣主位每獻四站, 配位必稍前, 然後爵站前面, 方爲齊一, 故久遠之例如此云矣.” 教曰: “此則似然矣.” 榮輔曰: “南壇神位版奉安、還安, 用神輿, 而自兵曹, 定送衛將,

以爲陪奉云. 儀節殊未免草草, 其在重事體之道, 恐涉未安矣.” 上曰: “昨於知申學條, 亦有定式, 而觀於祝版之稱臣書姓諱, 祭禮之莫嚴莫尊, 可知. 廟社諸享香祝奉詣也, 猶用香亭、儀仗. 雖有大、中祀之別, 清道之節, 在所不已. 此後前導用細仗, 而半仗與幾柄, 令禮判, 參酌磨鍊, 亞獻官陪奉往來可也.” 榮輔曰: “壇之前面石築, 頗完緻, 而餘三面, 則莎草堆覆, 僅可以莎草枯盛, 微辨其方折之形. 禮郎、部官, 既有奉審之式, 則不能致審者, 不可無飭. 此後則永爲定式, 禮郎奉審, 如有當改而不改者, 則當該部官, 自該曹草記論罪宜矣.” 上曰: “禮郎奉審, 雖有年前新定之式, 既有字內軍門禁樵、禁松之法. 自今勿委參軍, 該將臣春秋親審可也.” 榮輔曰: “壇壇之必樹之以木, 禮意甚好, 而壇所四方岡麓環抱處, 僅有大松略干株, 而離立稀疎, 殊無觀瞻之美. 此必守護之漸不如初而然, 嚴飭該營, 另加禁養宜矣.” 上曰: “一體嚴飭播種, 俾有依舊蔚然之效可也.” 榮輔曰: “『五禮儀』序例, 大羹、和羹皆三色, 而今則只用和羹之羊豕. 牛牲之不用, 自昔伊然, 則序例之以三色磨鍊, 而今之單用和羹二色者, 莫曉其故矣.” 教曰: “當問議大臣矣.” 榮輔曰: “祭享笏記, 見用之件, 不甚污損, 而此亦不可無修補之節. 分付戶曹, 定爲年限, 隨即修改. 壇所墻垣, 壘土覆莎, 僅存形址, 出於掃地之義, 今不必改以瓦覆而, 申飭戶曹, 善爲修治. 祀享行禮, 自有時刻, 而南壇行祀, 無奏時之例, 事面極爲疎略. 使該曹, 造出行漏一坐, 每祭享時以爲進排之地. 樂器載運車子, 自漢城府進排, 而難保其精潔, 分付樂院, 與該曹商議, 從長變通, 務爲致潔之地恐好.” 竝可之. 榮輔曰: “問于壇直, 則四傍禁耕, 以百步爲限, 而元無禁標之植. 分付字內營門, 量宜定界宜矣.” 上曰: “已定界處, 嚴飭該部及字內營門, 使之掃除雜草, 先令所管營門將臣, 奉審後書啓可也.” 榮輔曰: “清道一款, 昨日都承旨, 已筵稟蒙允, 而壇之南北, 皆有大路禁斷之節. 令參軍祭享後退去事, 永爲定式. 壇直四名, 自本洞, 望報於當部差出, 而蚩氓殘疲, 不成貌樣. 莫重守護之地, 不宜如是苟且, 申飭該部, 各別擇定, 而判尹句管, 以爲察飭之地恐好.” 從之.

승지 서영보가 아뢰기를,

“『오례의』에 실려 있기로는 남단은 넓이가 2장(丈) 2척(尺), 높이가 2척 7촌(寸)이기 때문에 시험 삼아 영조척(營造尺)으로 재어 보았더니 넓이가 24척 5촌, 앞의 높이가 2척 8촌이었습니다. 『오례의』에서 사용한 자는 『문헌비고(文獻備考)』에서 이미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제 영조척으로 헤아려 비교해 보니 대략 서로 부합하여 별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4층으로 된 섬돌과 양쪽 담장의 제도를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악은 아악(雅樂)을 쓰며 춤은 육일(六佾)로, 연주는 육성(六成)으로 하니 육일은 종사(宗社) 산천(山川)에 통용되고 육성은 천신 육성(天神六成)의 제도입니다. 신좌(神座)의 위치는, 풍운(風雲)과 뇌우(雷雨) 두 위(位)가 중앙에 있고 산천(山川)의 위가 왼쪽에 있으며 성황(城隍)의 위가 오른쪽에 있는데 모두 북쪽에 있으면서 남향(南向)한 것이 한 결 같이 『오례의』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례의』의 그림은 세 위가 한 줄에 나란히 늘어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산천과 성황의 위가 조금 앞으로 나와 다른 줄로 된 것이 ‘품(品)’자 모양과 같습니다. 이는 대개 주위(主位)에는 매양 4점을 올리니 배위(配位)는 반드시 조금 앞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으로 한 연후에야 작점(爵)의 전면(前面)이 바야흐로 가지런하게 되기 때문에 오래된 예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그럴 듯하다.”

하자, 서영보가 아뢰기를,

“남단의 신위판(神位版)을 봉안(奉安)하거나 환안(還安)할 때에는 신여(神輿)를 사용하는 데, 병조에서 위장(衛將)을 정해 보내 모시고 간다고 합니다. 의절(儀節)이 너무도 간략하여 사체를 중히 하는 도리에 있어서 미안한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지신사(知申事)의 거조(擧條)에도 역시 정식(定式)이 있었는데 축판(祝版)에 ‘신(臣)’이라 일컫고 성휘(姓諱)를 쓴 것으로 보아 제례(祭禮)가 더없이 존엄함을 알 수가 있다. 묘사(廟社)의 여러 제향에 향축을 받들고 가는데도 오히려 향정(香亭) 의장(儀仗)을 쓰고 있다. 비록 대사(大祀)·중사(中祀)의 구별이 있지만 청도(淸道)하는 절차는 그만둘 수 없다. 이 뒤로 선도자는 세장(細仗)을 쓰게 하되 반장(半仗)을 몇 자루로 할 것인지는 예조판서에게 참작하여 마련하게 하고 아헌관이 받들고 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자, 영보가 아뢰기를,

“단(壇)의 전면은 석축(石築)이 제법 완전하나 나머지 삼면은 사초(莎草)가 덮히어 겨우 사초의 고성(枯盛)으로 그 방절(方折)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랑(禮郎)·부관(部官)에게 이미 봉심하게 하는 정식이 있으니, 잘 봉심하지 못한 자는 신칙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후에는 영원히 정식을 삼아서 예랑이 봉심하여 만일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관을 해조에서 초기(草記)하여 논죄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랑이 봉심하는 것에 대해 비록 연전에 새로 정식한 것이 있으나 이미 자내의 군문(軍門)에서 금초(禁樵)·금송(禁松)하는 법이 있다. 지금부터는 참군(參軍)에게 맡기지 말고 해부의 대장이 봄·가을에 친히 봉심해야 할 것이다.”

하자, 영보가 말하기를,

“단선(壇)에 반드시 나무를 심는 것은 예(禮)의 뜻이 좋은데 단소(壇所) 사방을 두른 언덕 기슭에 겨우 큰 소나무 몇 그루가 따로따로 드물게 서 있어 아주 보기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는 반드시 수호(守護)함이 점차 처음만 못해서 그런 것이니, 해당 영에 엄칙하여 별도로 금하고 기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체로 엄칙하여 파종(播種)해서 예전처럼 울창한 효과가 있게 하라.”

하자, 영보가 아뢰기를,

“『오례의』의 서례(序例)에는 대갱(大羹)·화갱(和羹)은 모두 3색(色)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단지 화갱에 양과 돼지 2색을 쓰고 있습니다. 소 희생을 쓰지 않는 것이 예전부터 그러했다면, 서례에는 3색으로 마련했는데 지금 화갱에만 2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영보가 아뢰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향의 홀기(笏記)가 그다지 더럽혀지지 않는 것은 이 역시 보수하는 절차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호조에 분부하여 연한을 정해놓고 곧바로 고치도록 하소서. 단소의 담장은 흙을 쌓고 때를 입혀 겨우 형체만을 남겨 둔 것은 깨끗이 하려는 뜻에서 나왔으니, 지금 기와로 고쳐 덮을 필요는 없으나 호조에 신칙하여 잘 수리하게 해야겠습니다. 향사의 행례(行禮)는 본디 시각이 있는데 남단의 행사(行祀)는 시각을 알리는 예가 없어 일의 체면이 매우 소략하니, 해조로 하여금 행루(行漏) 하나를 만들게 하여 매 제향 때에 진배(進排)하는 터전을 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악기(樂器)를 실어나르는 수레는 한성부(漢城府)에서 진배하는데 정결하다고 보장하기가 어려우니, 악원(樂院)에 분부하여 해조와 상의해 장점을 따라 변통해서 깨끗하게 하기를 힘쓰는 터전을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모두 옳게 여겼다. 영보가 이르기를,

“단직(壇直)에게 물었더니 사방으로 금경(禁耕)을 1백 보 이내로 한정하였으나 원래 금지 뜻말을 세워놓지는 않았다고 하니, 자내의 영문(營門)에 분부하여 알맞게 헤아려 경계를 정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경계를 정해놓은 곳에는 해부 및 자내의 영문에 엄칙하여 잡초를 뽑게 해야 하니 우선 관할 영문의 장신(將臣)으로 하여금 봉심한 후 서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영보가 아뢰기를,

“청도(淸道)하는 한 조항은 어제 도승지가 이미 연석에서 품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단의 남북에는 모두 큰 길이 있으니 금지하는 절차는 참군(參軍)으로 하여금 제향 후에 물러가게 하는 일을 영원한 정식으로 삼게 해야 합니다. 단직(壇直) 4명은 본동(本洞)에서 해당부에 망(望)을 보고해 차출하는데 어리석은 백성이 쇠잔하여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중하게 수호해야 할 곳을 이처럼 구차하게 해서는 마땅치 않으니 해부에 신칙하여 각별하게 가려 정하되 관윤(判尹)이 관장해 살펴 단속하는 터전을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 ▶ 35권 16년 8월 12일 戊寅

戊寅/敎曰: “今之南壇, 卽昔日郊祀之園壇也. 禮, 士庶不得祭五祀, 大夫不得祭社稷, 諸侯不得祭天地, 惟杞、宋、魯以諸侯而祭之者, 或因大國之後, 或酬元聖之功也. 我東建邦, 創自檀君, 而史稱自天而降, 壘石行祭天之禮, 則後皆因之者, 以其不受大國之分茅, 而不至於大僭逼也. 至于我朝, 嚴於別嫌明微之義, 以園壇之禮, 或涉於小國之不敢以祭, 光廟以後, 園壇之號, 改曰南壇, 蓋用郡國州縣, 各祭風師、雨師之制也. 主壇曰風雲雷雨, 而位居中面以南, 祝稱朝鮮國王臣姓諱, 遣正一品官爲初獻. 樂則用六成, 特於祀令, 列於中祀. 時日涓以兩仲, 配以山川、城隍之版於左右, 竝面南. 於是乎專享爲合享, 而以示不敢祭之微意. 若乃致敬、致潔之誠, 豈或以園壇、南壇之殊, 稱異制而有所間然也哉? 文獻脫遺, 有司多襲謬例, 近來見行之式, 反不如農蠶、釋菜. 甚至獻官爵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品, 古之正一品, 今爲從二品, 古之三色大羹、和羹, 今爲羔、豕二色, 與『五禮儀』, 若是差舛. 旣知之, 不可不亟修原儀, 事係典禮, 問議大臣以聞. 外此節目間疎漏處, 令禮曹、太常釐正.” 禮曹啓言: “問議大臣, 則左議政蔡濟恭以爲: ‘『五禮儀』, 卽我朝一王之制也, 永千萬年, 遵而守之, 孰敢議到於增損乎? 第其祭品式例, 不無可疑, 大羹和羹各爲三色, 此用太牢之禮也. 有曰: 「凡牲牢, 大祀牛一羊一豕一, 中祀羊一豕一, 而文宣王, 以騂牛代羊.」 以此律之, 南壇旣以中祀祀之, 則太牢不當用, 旣不用太牢, 則大羹、和羹, 何得爲三色乎? 今之羊、豕二色, 雖似有司襲謬之致, 而以一有司, 恣意減損, 必無是理. 臣本固陋, 文獻莫徵. 雖以獻官品數言之, 正一品旣爲初獻, 則亞獻當爲正二品, 今乃曰: 「堂上正三品爲亞, 堂下三品爲終.」 未知緣何而越正從二品歟? 以今從二品之爲初獻官推之, 無乃正一品之一字刊印時, 錯誤而然耶? 聖教中, 又以或不如農蠶爲訝, 而先朝親耕、親蠶以後, 每有獻官擇送之命. 農蠶亦中祀, 而獻官之高於南壇者, 或由此歟? 此皆臣臆料, 惟願使多聞博識之臣, 更爲考奏’ 云. 大臣之議如此, 請上裁.”

이하생략~

전교하기를,

“지금의 남단(南壇)은 바로 옛날 교사(郊祀)하던 원구단(丘壇)이다. 예(禮)에 사서인(士庶人)은 오사(五祀)에 제사할 수 없고, 대부(大夫)는 사직(社稷)에 제사할 수 없으며, 제후(諸侯)는 천지(天地)에 제사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오직 기(杞)·송(宋)·노(魯)나라만이 제후로서 제사한 것은 혹 대국(大國)의 후손이거나 혹은 원성(元聖)의 공로를 인해서였다. 우리 동방은 나라를 세운 것이 단군(檀君)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역사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쌓아 제천(祭天)의 예를 행하였다고 하였다. 그 후에도 모두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대국에서 분묘(分茅)를 받지 않았고 크게 참람하기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아조(我朝)에 이르러서는 혐의를 구별하고 미세함을 밝히는 뜻이 엄하여 원구단의 예가 혹 소국(小國)에서 감히 지낼 제사가 아니라 하여 세조(世祖) 이후에는 원구단의 호칭을 남단이라 고쳐 일컫게 되었으니, 대개 군국(郡國)·주현(州縣)에서는 각기 풍사(風師)·우사(雨師)에게 제사지내는 제도를 쓴 것이다. 주단(主壇)을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이라 하는데 위(位)는 중앙에 있고 남면(南面)을 하며 축(祝)에서는 ‘조선국왕 신 성휘(朝鮮國王臣姓諱)’라고 일컬으며 정1품 관원을 보내 초헌관을 삼는다. 악(樂)은 육성(六成)을 사용하여 특별히 사령(祀令)은 중사(中祀)의 열에 두었다. 시일은 양중월(兩仲月)에서 가리고 산천(山川)과 성황(城隍)의 위판(位版)을 좌우로 배열(配列)하는데 모두 남면이다. 이에 전향(專享)을 합향(合享)으로 하여 감히 제사지내지 못한다는 미의(微意)를 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지만 치경(致敬)·치결(致潔)의 정성은 어찌 혹시라도 원구단과 남단이란 칭호와 제도가 다르다 하여 차이를 두겠는가? 문헌이 없어져 유사(有司)가 흔히 잘못된 예(例)를 답습해 근래에 현행식은 도리어 농잠(農蠶)과 석채(釋菜)만도 못하여 심지어 헌관의 작품(爵品)이 옛날에는 정1품이던 것이 지금은 중2품이며, 옛날에는 3색(色)의 대羹(大羹)·화羹(和羹)으로 하던 것을 지금은 양(羊)·시(豕) 2색으로 하여 『오례의』와 이처럼 어긋난다. 이미 알았으니 빨리 원래의 의식(儀式)대로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일이 전례(典禮)에 관계되니 대신에게 물어 의논하여 아뢰라. 이밖의 절목(節目)이 소루한 곳은 예조와 태상(太常)으로 하여금 바로잡게 하라.”



하였는데,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신에게 물었더니,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말하기를 ‘『오례의』는 바로 우리나라 한 왕조의 제도로 천만 년 동안 준수해야지 누가 감히 의논하여 증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제품(祭品)의 식례(式例)만은 의심이 없을 수 없으니 대갱과 화갱을 각기 3색으로 하면 이는 태뢰(太牢)의 예(禮)를 사용한 것입니다. 말하기를 「생뢰(牲牢)는 대사(大祀)에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이며, 중사(中祀)에는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이며, 문선왕(文宣王)은 털이 붉은 소로 양 대신 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맞추어 보면 남단을 이미 중사로 제사지낸다면 태뢰를 써서는 부당하고, 이미 태뢰를 쓰지 않는다면 대갱·화갱을 어찌 3색으로 하겠습니까. 지금 양과 돼지 2색이 비록 유사가 잘못된 예를 답습해서 그렇게 된 듯하나 한 유사가 마음대로 감손했을 이치는 없습니다. 신은 본디 고루하여 문헌을 징험하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헌관의 품수(品數)로 말하더라도 정1품이 이미 초헌관이 되었다면 아헌관(亞獻官)은 마땅히 정2품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하기를 「당상 정3품이 아헌관이 되고 당하 3품이 종헌관(終獻官)이 된다.」라고 하니 무슨 일을 인연해서 정(正)·종(從) 2품은 건너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종2품으로 초헌관을 삼는 것으로 추측해 보면 아마 ‘정1품’이란 ‘일(一)’자를 인쇄할 때 잘못 찍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교 가운데 또 「농잠(農蠶)만도 못하다.」고 의아해 하셨는데 선조(先朝)에서는 친경(親耕)·친잠(親蠶) 이후에 매양 헌관을 가려 보내라는 명이 계셨으니, 농잠 역시 중사여서 헌관이 남단(南壇)보다 높은 것은 이에서 말미암은 것인 듯합니다. 이는 모두 신의 억측이니, 오직 많이 듣고 박식한 신하로 하여금 다시 상고하여 아뢰게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신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상께서 재단(裁斷)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하생략~

## ▶ 38권 17년 9월 11일辛丑

大司諫林濟遠上疏曰：

今秋三南之農，雨暘如期，播耘不愆不失，爲挽近罕有之豐，而第聞有田而未之移者居多，旣移而失於晚者亦夥。此雖飢饉癘疫，人力不逮之致，而實緣耕牛之絕貴也。農家長物，以牛爲本，而畜產繁庶，漸不如前日，宰殺狼藉，最甚於近年。名邑大都，泮隸設舖；窮鄙殘閭，頑民分肉。甚至通衢列肆之間，販鬻爲事，有肉如坻。若論其弊，兩湖爲先。如是也，故一牛之直，幾至百金，無牛可耕，以人代鑿。未移與晚移，固其勢致然，此豈歲之罪也？噫！犯屠，有國之大禁也。況今傷農之弊，一至於此，則申明禁條，正爲急務，道臣嫌於收贖而不問，邑倅慮或擾民而任他，十數年內，付之例飭，蕩然爲無禁之域。若此不已，幾何不田野不闢乎？另飭諸道，嚴加禁斷，法外宰殺之類，一切痛繩，恐有補於爲民重農之實政也。凡干災政，每當凶年，則朝家軫念營邑着意，惟恐把束之見漏，故爲小民者，庶免冤徵，至於豐年，較數歲之中而執其總，點退爲事，操切成規，可哀者民，偏被其害，尤不可不慮也。今年雖大豐也，而所以爲災者，大抵有三。一曰初不也，一曰內不也，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一曰晚移也. 全不落種之謂初不, 半移而半不移之謂內不, 雖畢移而節序已過, 稂莠未祛, 竟不得食實者, 通謂之晚災. 此皆人力不逮, 牛畜絕貴而然也. 近來執災之規, 初不一條, 自在應免, 而內不與晚災, 虛實易混, 故多不舉論. 況此雨澤周洽之歲, 此等災名, 不近事理, 守令不敢言於道臣, 道臣不敢聞於廟堂. 畢竟白徵, 不無其慮, 則僅收升斗之穀, 準納(秸) [結] 總之賦者, 尤爲可冤. 至於水災, 大關國計, 限以結數, 自有定式, 而昨年無前之水, 溝澮間成平陸, 畦畛或經滄桑, 決非一兩年內所可還起者. 濫報如嶺南, 則誠有不審之失, 而外此諸道, 一遵定數者, 又安知無多少白徵之弊? 此亦不可不慮也.

批曰: “牛事, 卿言可謂適宜. 再昨筵中, 飭令廟堂別般講確, 卿疏又如此, 嚴飭諸道, 俾有實效. 田政事, 今番諸道勤慢, 一付之廟堂. 此政民生艱樂之大關捩, 更令廟堂, 枚舉嚴飭, 毋或有把束之勒徵.”

대사간 임제원(林濟遠)이 상소하기를,

“올 가을 삼남(三南) 지방 농사 형편은 비오고 개이는 일기가 알맞아 파종과 김매는 시기를 잃지 않은 관계로 이 근래에 보기 드문 풍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에 눈이 있는데도 모를 내지 못한 곳이 많이 있고 이미 모를 내기는 하였으나 너무 늦게 낸 곳도 많다고 합니다. 이는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퍼져서 인력이 미치지 못한 소치이기도 하지만 실은 일소[農牛]가 너무나 귀한 소치라고 합니다. 농가의 으뜸으로 치는 물건 중에는 소가 제일인데 소를 길러 번식시키는 일은 점차 그전만 못하고 날마다 마구 잡아먹는 일은 이 근년에 가장 심해졌습니다. 이름 있는 고을이나 큰 도회지에는 성균관 하례들이 푸줏간을 설치하고 가난한 집과 피폐한 마을에서는 미옥한 백성들이 소를 잡아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심지어 큰 거리의 늘어선 가게에는 쇠고기 파는 것을 업으로 삼는데 쌓아놓은 고기가 마치 산더미 같습니다.

그런데 그 폐단을 논하자면 호서(湖西)와 호남(湖南)이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소 한 마리의 값이 거의 백금(百金)이나 되어 논밭을 갈 만한 소가 없어서 사람이 대신 논밭을 파게 되므로 모를 내지 못한 것이나 늦게 내는 것은 형편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어찌 세운(歲運)의 탓이겠습니까.

아, 소를 도살하는 일을 나라 법으로 크게 금하고 있고 더구나 지금 농사를 망치는 폐단이 모두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금지하는 법을 거듭 밝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도신(道臣)은 속전(贖錢) 거두는 일을 꺼려하여 묻지도 않고, 수령은 혹간 백성들을 소란스럽게 할까봐 내버려두어 수십 년 동안 언제나 하는 단속으로만 그침으로써 금지하는 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다간 논밭이 어떻게 묵지 않겠습니까. 각도에 특별히 신칙하여 엄중히 금지시키고 법을 어기면서 소를 도살하는 무리들은 일체 엄한 벌로 다스리면 아마 백성을 위하고 농사를 중히 여기는 실질적인 정사에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재해에 관한 정책은 흉년이 들 적마다 조정에서는 마음을 써서 걱정하고 감영과 고을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혹시 조그마한 면적의 땅이라도 재해에 대한 면세에서 빠질까봐 애를 쓰기 때문에 백성들이 억울한 징세(徵稅)를 면할 수가 있지만, 풍년이 든 해에는 몇해 동안의 수확량을 평균으로 따져서 그 해의 총수확량으로 잡고 퇴짜 놓는 것을 일삼아 각박

하게 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가련한 백성들만 그 해를 입고 있어 그것을 더욱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올해는 큰 풍년이 들기는 하였으나 재해가 된 것이 대체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초불(初不)’이고 또 한 가지는 ‘내불(內不)’이고 또 한 가지는 ‘만이(晩移)’입니다. 완전히 씨를 뿌리지 못한 것을 ‘초불’이라고 하고 절반은 모를 내고 절반은 내지 못한 것을 ‘내불’이라고 하고 모를 전부 내기는 하였으나 제철이 벌써 지났거나 김을 매지 못하여 끝내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을 통틀어서 ‘만재(晩災)’라고 합니다. 이는 모두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소가 아주 귀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래 재해를 잡는 규정에 있어 ‘초불’ 한 가지는 응당 면세 대상이 되지만 ‘내불’과 ‘만재’는 허실(虛實)이 뒤섞이기 쉬운 까닭에 흔히 거론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올해처럼 비가 충분히 내린 때에는 이런 따위의 재해 명목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수령은 감사에게 감히 말하지도 못하고, 감사는 묘당(廟堂)에 감히 보고하지 못하여 필경에는 백징(白徵)하게 되니, 이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겨우 얼마 되지도 않는 곡식을 수확하고서 정량의 세금을 맞추어 바치게 되니 더욱더 억울한 일입니다.

영재(永災)에 있어서는 나라 재정에 크게 관계되는 만큼 결수(結數)를 한정하여 정한 규정이 전부터 있으나, 작년 같은 전에 없던 수재로 붓도량이 평지가 되고 논밭 두렁이 뒤바뀐 경우는 결코 한두 해 동안에 도로 논밭으로 일굴 수가 없습니다. 영남 지방처럼 마구 보고한 경우는 참으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그 밖의 각도에 있어 정해진 숫자대로 똑같이 따른다면 다소 백징의 폐단이 없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소에 대한 문제는 경의 말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그저께 연중(筵中)에서 묘당으로 하여금 별도 대책을 강구하여 정하도록 신칙하였었는데 지금 경의 상소 내용이 또 이와 같으니 각도에 엄히 신칙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야겠다. 조세 문제는 이번에 각도의 근만(勤慢)에 대해 그 일체를 묘당에 위임하였다. 그 일이라면 민생 고락에 크게 관계되는 일이므로 다시 묘당으로 하여금 낱알이 신칙하여 조그마한 면적의 땅에 대해서라도 무리한 조세 징수가 없도록 하라고 해야겠다.”

하였다.

## ▶ 38권 17년 12월 3일 壬戌

有獸似麟，見于原州鳴鳳山。外史楊口縣監趙德潤陰晴記曰：**“原州判官元羽孫牒報云：‘有獸馬首馬尾牛目圓蹄，大如三歲牛犢。毛灰色而鮮潤，額上有毛，長可數三寸，其中隱有角。’**去十一月十五日，現於沙堤面民家，十二月初九日，自鳴鳳山，遵大路入建登山，行不履草，食不害穀，見人搖尾，如馴獸。”云。”

기린(麒麟)과 비슷한 짐승이 원주(原州)의 명봉산(鳴鳳山)에 나타났다. 외사(外史)인 양구현감(楊口縣監) 조덕윤(趙德潤)의 음청기(陰晴記)에 기록하기를,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원주 판관 원우손(元羽孫)이 첩보(牒報)하기를 ‘어떤 짐승이 있는데 머리와 꼬리는 말과 같고 소의 눈에 발굽은 등글며, 크기는 세 살난 송아지만하고 털은 잿빛인데 반짝반짝 윤이 나며 이마 위에는 길이가 두서너 치쯤 되는 털이 있고 그 사이에 숨겨진 뿔이 있었다. 지난 11월 15일에 사제면(沙堤面)의 민가에 나타났고 12월 9일에는 명봉산으로부터 큰길을 따라 건등산(建登山)으로 들어갔는데, 다닐 때는 풀을 밟지 않고 곡식을 뜯어먹지 않으며, 사람을 만나면 꼬리를 흔들며 마치 길들인 짐승과 같았다.’고 하였다.” 하였다.

### ▶ 39권 18년 1월 3일 辛卯

敎曰: “享先之道, 莫尚於誠敬, 誠敬篤至, 然後可以言格神. 禘之既祿, 聖人猶歎其怠忽焉. 今之太廟大享儀文, 合有商量者多. 如使誠敬, 無差於迎神之初, 雖於至重至嚴之典禮, 當有所十分研究. 其中有助於誠敬, 無損於儀文, 卽捧俎節次之釐正也. 執事多而無以慎擇. 既無以慎擇, 則其能人人齋潔, 未可知也. 況登陞駿奔之際, 雜遝顛錯, 至於薦獻之遲滯, 猶屬第二件. 且以億萬年悠久之計言之, 其所裁酌, 尤當致意. 況時用圖式之有違原儀, 亦由於床卓之窄狹. 今若以牛羊豕俎三匣, 合盛於外大匣, 使捧俎官一人入傳于薦俎官, 薦俎官受而授大祝, 大祝與廟司奉奠于俎床. 自今年春享大祭, 著以爲例. 牲匣之造置已久, 待春展謁日定式, 蓋寓告其由之義也. 如是則捧俎官之差填, 親享時各室各一人, 攝享通差五人, 而大享陳設圖式, 一依原儀圖式, 藏于本署.”

전교하였다.

“조상을 제사하는 도리는 성경(誠敬)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성경이 지극한 다음에야 신명의 감응을 말할 수 있다. 채 제사에서 이미 강신(降神)을 한 다음에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정성이 없어져서 태만하다고 공자(孔子)도 탄식하였다. 지금 태묘의 큰 제사를 지내는 데에 대한 의문(儀文)에는 조절해야 할 부분이 많다. 만일 성경이 처음 신(神)을 맞이할 때와 차이가 없게 하려면 지극히 중하고 엄격한 전례(典禮)라 하더라도 의당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성경에 도움이 되고 의문에 손상이 없는 것은 바로 적대(炙臺)를 받드는 절차를 바로잡는 일이다. 집사가 많다 보니 신중하게 고를 수 없고 이미 신중하게 고르지 못하고 보니 사람마다 몸을 깨끗하게 재계하였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올라다니며 바쁘게 움직일 때에는 혼잡하여 뒤죽박죽이 되니, 제물을 올리는 일이 지체되는 것은 오히려 이차적인 일에 속한다.

또한 억만 년 영구히 행할 대책으로 말하더라도 조절할 것에 대하여 더욱 마음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현재 사용하는 도식(圖式)이 원래 정한 의절과 어긋나고 있는 것도 상탁(床卓)이 좁은 데에 연유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 소·양·돼지의 적대를 담은 세 상자를 바깥 큰 상자에 합하여 담아 놓는다면, 봉조관(捧俎官) 한 사람이 들어와서 천조관(薦俎官)에게 전달하고 천조관은 이를 받아서 대축(大祝)에게 주고 대축은 묘사(廟司)와 함께 적대의 상에 받들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올해의 춘향대제(春享大祭)부터 이를 기록하여 규례로

삼으라. 희생(犧牲)을 담는 상자를 만들어 둔 지가 벌써 오래되었으나 봄철의 참배하는 날을 기다려 규정을 정하는 것은 대체로 그 사유를 미리 고하는 의리를 부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봉조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 친향(親享)할 적에는 각 묘실(廟室)에 1명씩 배정하고 섭향(攝享)할 적에는 통틀어 5명을 배정하면 된다. 그리고 대향(大享) 때의 진설도식(陳設圖式)은 한 결 같이 원의도식(原儀圖式)의 예에 따라 종묘서(宗廟署)에 보관하도록 하라.”

## ▶ 40권 18년 6월 3일 戊午

江原道觀察使沈晉賢狀啓言：

鬱陵島搜討，間二年，使邊將輪回舉行，已有定式，故搜討官越松萬戶韓昌國處，發關分付矣。該萬戶牒呈：“四月二十一日，幸得順風，糧饌雜物分，載四隻船，與倭學李福祥及上下員役、格軍八十名，同日未時量，到于大洋中，則酉時，北風猝起，雲霧四塞，驟雨霹靂，一時齊發，四船各自分散，莫知所向。萬戶收拾精神，戎服禱海，多散糧米，以餽海神後，使格軍輩，舉火應之，則二隻船舉火而應，一隻船漠然無火矣。二十二日寅時，怒濤漸息，只見遠海之中，二隻船帆自南而來。格軍輩舉手指東曰：‘彼雲霧中隱隱如雲者，疑是島中上峰也。’萬戶詳細遠望，則果是島形也。親自擊鼓，激勵格軍，即爲到泊於島之西面黃土丘尾津。登山看審，則自谷至中峰三十餘里，而山形重疊，谷水成川，其中有可作水田六十餘石下種之地。谷則狹窄，有瀑布，而左爲黃土丘尾窟，右爲屏風石。其上又有香木亭，故斫取香木，而以間年斫取之故，漸就稀少。二十四日到桶丘尾津，則谷形如桶，前有一巖在海中，與島相距可爲五十步，而高近數十丈，周回皆是絕壁。谷口巖石層層，僅僅攀登而見之，則山高谷深，樹木參天，雜草茂密，通涉無路。二十五日到長作地浦，谷口果有竹田，非但稀疎，舉皆體小。其中擇其稍大者斫取後，仍向東南楮田洞，則自洞口至中峰爲數十里許，而洞裏廣闊基址，顯有三處，可作水田數十石下種之地。前有三島，在北曰防牌島，在中曰竹島，在東曰瓮島。三島相距，不過百餘步，島之周回，各爲數十把，險巖崒岬，難以登覽，仍爲止宿。二十六日轉向可支島，四五箇可支魚，驚駭躍出，形若水牛。砲手齊放，捉得二首，而丘尾津山形，最爲奇異，入谷數里，則昔日人家遺址，宛然尚存。左右山谷，甚爲幽深，難於登陟。仍遍看竹巖、幘布巖、孔巖、錐山等諸處，行到桶丘尾，禱山祭海，待風留住。蓋島周回，摠爲論之，則南北七十八里許，東西五六十里許。環海則皆是層巖絕壁，四方山谷，則間有昔日人居之土址，而田土可墾處，合爲數百石下種之地。樹木則香、栢、藁、檜、桑、榛，雜草則青芹、葵、艾、苧、楮。其餘異樹奇草，不知名，難以盡記。羽蟲則雁、鷹、鷗、鷺，毛蟲則貓、鼠，海產則藿、鰻而已。三十日發船，初八日還鎮。島中所產可支魚皮二令、篁竹三箇、紫檀香二吐莫、石間朱五升、圖形一本，監封上使”云。并上送于備邊司。

강원도 관찰사 심진현(沈晉賢)이 장계하였다.

“울릉도의 수토(搜討)를 2년에 한 번씩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돌아가며 거행하기로 이미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정식(定式)을 삼고 있기 때문에, 수토관 월송만호(越松萬戶) 한창국(韓昌國)에게 관문을 띄워 분부하였습니다. 월송만호의 첩정(牒呈)에 ‘4월 21일 다행히도 순풍을 얻어서 식량과 반찬거리를 4척의 배에 나누어 싣고 왜학(倭學) 이복상(李福祥) 및 상하 원역(員役)과 격군(格軍) 80명을 거느리고 같은 날 미시(未時)쯤에 출선하여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는데, 유시(酉時)에 갑자기 북풍이 일며 안개가 사방에 자욱하게 끼고, 우리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일시에 출발한 4척의 배가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 만호가 정신을 차려 군복을 입고 바다에 기원한 다음 많은 식량을 물에 뿌려 해신(海神)을 먹인 뒤에 격군들을 시켜 횃불을 들어 호응케 했더니, 두 척의 배는 횃불을 들어서 대답하고 한 척의 배는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22일 인시(寅時)에 거센 파도가 점차 가라앉으면서 바다 멀리서 두 척의 배 돛이 남쪽에 오고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던 참에 격군들이 동쪽을 가리키며 ‘저기 안개 속으로 은은히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 아마 섬 안의 높은 산봉우리일 것이다.’ 하기에, 만호가 자세히 바라보니 과연 그것은 섬의 형태였습니다. 직접 북을 치며 격군을 격려하여 곧장 섬의 서쪽 황토구미진(黃土丘尾津)에 정박하여 산으로 올라가서 살펴보니, 계곡에서 중봉(中峰)까지의 30여 리에는 산세가 중첩되면서 계곡의 물이 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논 60여 섬지기의 땅이 있고, 골짜기는 아주 좁고 폭포가 있었습니다. 그 왼편은 황토구미굴(黃土丘尾窟)이 있고 오른편은 병풍석(屏風石)이 있으며 또 그 위에는 향목정(香木亭)이 있는데, 예전에 한 해 걸러 향나무를 베어 갔던 까닭에 향나무가 점차 듕성듬성해지고 있습니다.

24일에 통구미진(桶丘尾津)에 도착하니 계곡의 모양새가 마치 나무통과 같고 그 앞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닷속에 있는 그 바위는 섬과의 거리가 50보(步)쯤 되고 높이가 수십 길이나 되며, 주위는 사면이 모두 절벽이었습니다. 계곡 어귀에는 암석이 층층이 쌓여 있는데, 근근이 기어 올라가 보니 산은 높고 골은 깊은데다 수목은 하늘에 맞닿아 있고 잡초는 무성하여 길을 헤치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25일에 장작지포(長作地浦)의 계곡 어귀에 도착해보니 과연 대밭이 있는데, 대나무가 듕성듬성할 뿐만 아니라 거의가 작달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큰 것들만 베어낸 뒤에, 이어 동남쪽 저전동(楮田洞)으로 가보니 골짜기 어귀에서 중봉에 이르기까지 수십 리 사이에 세 곳의 널찍한 터전이 있어 수십 섬지기의 땅이었습니다. 또 그 앞에 세 개의 섬이 있는데, 북쪽의 것은 방패도(防牌島), 가운데의 것은 죽도(竹島), 동쪽의 것은 웅도(瓮島)이며, 세 섬 사이의 거리는 1백여 보(步)에 불과하고 섬의 둘레는 각각 수십 파(把)씩 되는데, 험한 바위들이 하도 쭈뼛쭈뼛하여 올라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거기서 자고 26일에 가지도(可支島)로 가니, 네댓 마리의 가지어(可支魚)가 놀라서 뛰쳐나 오는데, 모양은 무소와 같았고, 포수들이 일제히 포를 쏘아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미진(丘尾津)의 산세가 가장 기이한데, 계곡으로 십여 리를 들어가니 옛날 인가의 터전이 여태까지 완전히 남아 있고, 좌우의 산곡이 매우 깊숙하여 올라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어 죽암(竹巖)·후포암(幬布巖)·공암(孔巖)·추산(錐山) 등의 여러 곳을 둘러보고 나서 통구미(桶丘尾)로 가서 산과 바다에 고사를 지낸 다음, 바람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대저 섬의 둘레를 총괄하여 논한다면 남북이 70, 80리 남짓에 동서가 50, 60리 남짓하고 사면이 모두 층암절벽이며, 사방의 산곡에 이따금씩 옛날 사람이 살던 집터가 있고 전지로 개간할 만한 곳은 도합 수백 섬지기쯤 되었으며, 수목으로는 향나무·잣나무·황벽나무·노송나

무·뽕나무·개암나무, 잡초로는 미나리·아욱·쑥·모시풀·닥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그 밖에도 이상한 나무들과 풀은 이름을 몰라서 다 기록하기 어려웠습니다. 우충(羽)으로는 기러기·매·갈매기·백로가 있고, 모충(毛)으로는 고양이·쥐가 있으며, 해산물로는 미역과 전복뿐이었습니다.

30일에 배를 타고 출발하여 새달 8일에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섬 안의 산물인 가지어 가죽 2벌, 황죽(篁竹) 3개, 자단향(紫檀香) 2토막, 석간주(石間朱) 5되, 도형(圖形) 1벌을 감봉(監封)하여 올립니다.’ 하였으므로, 함께 비변사로 올려 보냅니다.”

## ▶ 41권 18년 10월 7일 辛酉

司憲府【執義李秉喆.】啓言：“人臣告君之辭，固當明白直陳，而噫彼金履成之疏，全篇旨意，陰晦閃忽. 向來亞卿陞擢，宣出於我聖上曲費造化，進之爲人之地，則渠當感激頌祝，而乃反視之若浼，自以爲：‘恥二品職名，斷然自割，榮先之典，亦不承受.’此何意也，此何故也？其在關邪距諛之道，不可置而不論. 請同義禁金履成施以屏裔之典.” 又啓言：“近來各宮奴屬，作弊多端. 日前本府禁吏，捉一私屠罪人，使之查實，則稱以於義宮貿易，以廉價勒買懸房之肉，潛自放賣，而被捉者也. 究厥罪狀，有浮於私屠，爲先嚴治牢囚，方欲移送秋曹之際，懸房所屬，來訴以：‘此漢輩之憑藉假托，惟意橫奪，各懸房一日所失，其數夥然，許多典僕，勢難支保.’云. 以今現發者推之，其所恣橫，不但止於此漢而已. 且當歲歉穀貴之時，如此弊端，安知不更及於他民耶？請令攸司，嚴覈重繩，亦爲嚴立科條，俾絕奸弊.” 批曰：“金履成事，凡有私義，欲爲辭官者，豈獨履成一人？至於不爲榮先之說，亦不過苦辭中出來，則是豈如是把作重案之事乎？況兩司俱發，反乖臺體，爾則推考. 此啓若以不允例批，則將爲謄傳之故紙，而履成疏語中，前生後生之說，果疎忽，施以罷職之典，兼爲此啓之究竟法. 宮奴差人事，前後飭禁何如則焉敢更有干犯？令該曹嚴刑懲治，其餘諸宮同犯之類，嚴加查實，照法處置.”

사헌부가【집의 이병철(李秉喆)이다.】 아뢰기를,

“신하가 임금에게 고하는 말은 진실로 명백하고 바르게 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김이성의 상소는 전편의 내용이 음험하고 흐리멍덩하였습니다. 지난번 아경으로 승진하여 발탁하였던 것은 참으로 우리 성상의 곡진한 교화로 그를 등용하여 사람을 만들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그로서는 감격하여 송축하였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마치 자신을 더럽히는 듯이 보고 스스로 말하기를 ‘2품의 직명을 부끄럽게 여기어 단연코 스스로 단념할 것이며 영선의 은전 또한 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 무슨 뜻이며 무슨 연고입니까. 그 부정을 막고 치우침을 바로잡아야 하는 도리상 그냥 두고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지의금부사 김이성에게 변방으로 물리치는 형전을 시행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근래에 각궁의 노속(奴屬)들이 갖가지로 폐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전에 본부의 금리(禁吏)가 사사로이 도살을 했다는 죄인 한 명을 잡아왔는데 조사시켜 봤더니, 어의궁(於義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宮)에서 무역하는 것이라 핑계대고 싼 값에 현방(懸房)의 고기를 강제로 사서 몰래 스스로 팔다가 잡힌 자였습니다. 그 죄상을 따져보면 사사로이 도살한 것보다 더 지나치기에 우선 엄히 다스리고 단단히 가두어 놓은 뒤 바야흐로 형조로 이송하려는 즈음에, 현방의 무리들이 와서 하소연하기를 ‘이러한 놈들이 위세를 빙자하고 가탁하여 제멋대로 횡포를 부리며 빼앗아 각 현방에서 하루에 잃는 것이 그 숫자가 적지 않으므로 허다한 전복(典僕)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발각된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 방자하게 횡포를 부린 것이 이들에게 그칠 뿐만이 아닙니다. 흥년까지 들어 곡식이 귀한 이때에 이러한 폐단이 다시 다른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으리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유사로 하여금 엄히 조사하여 중하게 다스리게 하고 또한 엄히 법조문을 세워 간악한 폐단을 끊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김이성의 일은, 무릇 사사로운 의리가 있어서 벼슬을 사직하고자 하는 자가 어찌 이성 한 사람뿐이겠는가? 영선을 하지 않겠다고 까지 말한 것은 또한 굳이 사양하려는 가운데 튀어나온 말에 불과한 것이니, 이 어찌 이토록 중대한 안건으로 삼을 일이겠는가? 더구나 양사가 함께 발론하였으니 도리어 대각의 체모에 어긋나는 것이다. 너희들을 추고하겠다. 이 계사를 만약 예대로 윤택하지 않는다고 비답하면 장차 베껴다 전하는 낡은 종이쪽지가 될 뿐이다. 이성의 상소 말 가운데 전생이니 후생이니 하는 설은 과연 소홀하였으니 파직의 형전을 시행하라. 아울러 이 계사의 끝에 있는 법궁(法宮)의 노복들과 차인(差人)들에 대한 일은 전후로 신칙하여 금한 것이 어떠하였는데 어찌 감히 다시 범한단 말인가. 해조로 하여금 엄형으로 다스리게 하고 그 나머지 제궁의 같은 죄를 범한 무리들에 대해서도 엄하게 사실을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치하라.”

하였다.

### ▶ 41권 18년 10월 13일 丁卯

召見赴燕三使臣，敎曰：“國俗專尚階分，尤重於仕路，而士族以外，醫譯爲次。士族然後爲卿大夫，非士族而爲卿大夫之資格，腰犀而頂玉者，醫與譯也。在昔譯官之解事識務，有直差專對之任，蓋出於別異也。近聞使行赴燕也，首譯之露臀棍打，看作常事云。今人不若古人，未能自持而見重而然耶？首譯爲使臣之次，則如彼處置，殊非假威借重之意。且嘗聞之故事，使行到彼，首譯犯科，勿棍還渡江，啓聞勘罪，著爲式。今因拜表，召見使臣，諭以遵守法式，而稍久，又安知不更出謬例？今下傳敎，揭板該院。此舉重使事也，尊國體也則後之爲首譯者，不修職任，藉今日之敎而怠慢，行中有兩使及行臺，院中有都提舉提舉兼敎授，自當隨現啓聞，其所懲勸，必倍於棍打，此意知悉。”

연경에 가는 세 사신을 불러 보았다. 하교하기를,

“나라의 풍속이 전적으로 신분만을 숭상하고 사로(仕路)에서는 더욱 신분을 중하게 여기는데, 사대부 외에는 의원과 역관이 그 다음이다. 사대부 집안이라야 경대부가 될 수 있는



데, 사대부 집안이 아니면서도 경대부의 자격이 되어 무소불 뿔 띠고 옥관자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의관과 역관이다. 옛적에는 사무를 잘 알고 일을 아는 역관을 곧바로 사신의 임무로 보낸 적이 있으니, 이는 대개 역관을 특별히 대우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듣건대, 사신의 일행이 연경으로 갈 때에 수석 역관의 볼기를 벗기고 곤장을 치는 것을 예사로운 일로 여긴다고 한다. 지금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만 못하여 스스로 몸가짐을 잘하여 중하게 여김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수석 역관으로 말하면 사신의 다음가는 자리인데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자못 위중(威重)함을 빌려준 뜻이 아니다. 그리고 일찍이 고사를 듣건대, 사신 일행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수석 역관이 죄를 범하여도 곤장을 치지 않고, 돌아와 강을 건너와서야 보고하고 죄를 처분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았다고 한다.

이번에 배표(拜表)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신들을 불러들여 만나보고 법식을 준수할 것으로 유시하기는 했지만 조금 지나면 또다시 규례를 그르치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 어찌 알겠는가? 이번에 내린 이 전교를 판에 써서 사역원에다 게시하도록 하라. 이 거조는 사신의 일을 중히 여기고 나라의 체면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뒤에 수석 역관이 된 자들이 맡은 직책을 잘 수행하지 않으면서 오늘의 이 전교를 빙자하여 태만하게 구는 경우에는, 일행 중에 두 사신과 행대(行臺)가 있고 사역원에는 도제거와 제거 겸교수가 있으니 응당 나타나는 대로 보고하도록 하라. 그러면 징계하고 면려하는 것이 곤장을 치는 것보다 반드시 배가 될 것이니, 이 뜻을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 ▶ 42권 19년 4월 25일 乙巳

乙巳/展拜景慕宮，次對於齋殿。敎曰：“外方祭品之以羔代羊處，既是單牲，則代品一也，羔豕何擇？此後隨其所有，從便通用。又若羔豕并用之祭品，謹遵先朝受教中鹿醢代，又用醢醢，不顧二器之嫌之法意，用豕二事定式，或有代用鷄牲處云，此則仍舊，牲品易具。事體不苟，監憲而師古，可謂一舉而兩便，令廟堂分付諸道。”

경모궁(景慕宮)을 참배하였다. 재전(齋殿)에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하교하였다.

“외방에서 제품(祭品)을 양 대신에 염소를 쓰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일단 단생(單牲)인 상황에서 제품을 대신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보면 염소나 돼지를 가릴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 뒤로는 있는 데에 따라 편한대로 통용토록 하라. 또 만약 염소와 돼지를 제품으로 함께 쓸 때에는 사슴 식혜 대신에 또 육장을 쓰도록 선조(先朝) 때 분부받은 사항을 준수토록 하라. 그리고 두 그릇을 피하는 법의(法意)를 돌아보지 않은 채 돼지고기 두 가지를 쓰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거나 혹은 닭고기로 대용(代用)하는 곳이 있다 하는데, 이 경우는 옛날의 제품 그대로 하게 하는 것이 갖추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면 사체(事體)도 구차스럽게 되지 않을 뿐더러 법 정신에도 맞고 옛 법도를 따르는 것이 되어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제도(諸道)에 분부토록 하라.”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 44권 20년 1월 3일 庚戌

庚戌/御仁政殿親押祈穀祭香祝，仍詣社壇，至鍾街駐輦，召貢市人及五部父老，勞問曰：“歲律已新，爾等各安其生乎？”市人父老等，拜稽攢祝，仍詢弊瘼，至社壇省器省牲，上問典牲署提調李得臣曰：“一歲用犧牲幾何？”得臣曰：“濟州牛三十五頭，巨濟牛五頭，優爲進排於一年，而羊則只用燕羊，不用土產，故每患苟簡矣。”上曰：“今後通融進排。”

인정전에 나아가 친히 기곡제의 향축(香祝)을 주관하고, 인하여 사직단으로 가는 길에 종가(鍾街)에 이르러 연(輦)을 멈추고 공시인(貢市人) 및 오부(五部)의 부로(父老)를 불러 위로해 묻기를,

“새해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각기 편안하게 살고 있느냐?”

하니, 부로들이 절하고 손을 비비며 축수하였다. 인하여 폐단을 묻고, 사직단에 이르러서 제기(祭器)와 희생(犧牲)을 살펴보았다. 상이 전생서제조 이득신(李得臣)에게 묻기를,

“한 해에 희생은 얼마나 쓰는가?”

하니, 득신이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소 35두와 거제(巨濟)의 소 5두이면 1년 동안 넉넉하게 차려 놓을 수 있는데, 양(羊)은 중국산 양만 쓰고 우리나라 양은 쓰지 않기 때문에 매양 구차하게 된 것이 걱정입니다.”

하므로, 상이 이르기를,

“이제부터는 융통하여 차리도록 하라.”

하였다.

### ▶ 44권 20년 3월 13일 己未

敎曰：“廟宮享祀親行，則雖非四時及臘，皆用大享例，自是禮典所載，近於宮享朔望，以省約之意，權用酌獻之儀，再明日望祭親行時，依禮用樂、用太牢。”

전교하였다.

“묘궁(廟宮)의 향사를 친행하는 것은 비록 사시(四時) 및 납일(臘日)이 아니더라도 모두 대향의 예를 쓴다는 것이 예전(禮典)에 기록되어 있다. 근래에는 궁향(宮享)의 삭망(朔望)에 생략하는 뜻으로 헌작(獻酌)의 의식을 임시로 쓰고 있는데, 모레 망제(望祭)의 친행 때에는 예(禮)에 따라 악(樂)을 쓰고 태뢰(太牢)를 쓰라.”

### ▶ 44권 20년 4월 4일 己卯

右議政尹著東啓言：“濟州貢馬，在本場時，舉皆體健有步趣，及當進貢之際，必值盛炎，動軍驅捉，馬群雜沓，橫跳亂蹴，牝者落雛，雄者致傷。各場馬額之漸縮，未必不由於此，而及其乘船下陸，病瘦已甚，驅策上京，輒多致斃，誠爲可惜。牧使每年秋，例爲歷巡，而點馬爲大政。自今年定式，每場各十四，驅點時擇取，令喂養過冬，待時進貢，則牛島外十三場，當得一百三十四。熟馬性氣既馴，飲齕如常，雖駕海登程，庶無生病，又除調發時官民之弊，驅捉時減縮之患。臣曾待罪本牧，略知其便否，且採島民之言，今因言端仰達。請以此申飭耽羅守臣。”從之。又啓言：“倭學譯官擔當單蔘，近四十年，無弊舉行。癸丑以尾蔘添價事，不無隱情之可罰者，元貢中除出尾蔘條，而別給方外人，已三年矣。渠輩雖有罪，奪此畀彼，殆同蹊田而奪牛。自今年尾蔘作貢，還屬倭譯宜矣。”從之。

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공마(貢馬)가 본 목장에 있을 때에는 모두 건강하여 걸음걸이가 씩씩하였는데, 진상할 때에 이르러서는 날씨가 매우 더운 계절에다 말을 모는 자들이 마구 몰아대어 말무리가 뒤엉켜 날뛰는 바람에 암말은 새끼가 떨어지고 숫말은 부상하게 됩니다. 또 각 목장의 말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거의 이런 점에서 연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에 싣고 육지에 내릴 때에 이미 심히 병들고 허약하며 몰아서 상경하는 과정에서 다수 죽게 되니 참으로 애석합니다. 목사가 매년 가을에 연례적으로 두루 순찰하면서 말을 점검하는 것을 큰 법식으로 삼으소서. 그리하여 목장마다 말을 점검할 때에 14필씩을 골라내어 외양간에서 사육하여 겨울을 넘긴 뒤에 정해진 때에 바치게 한다면 우도(牛島) 말고도 13개 목장에서 1백 30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숙마(熟馬)는 야성이 길들여져 여물을 먹는 것이 평상시와 같으므로 비록 바다를 건너 이동하는 길에 오르더라도 병이 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발(調發)할 때에 관민에 생기는 폐단과 몰고 다닐 때에 사고로 감소되는 탈을 없앨 수 있습니다. 신은 전에 본 제주목에 재직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의 편부(便否)에 대하여 대략 알고 있고 또 섬 백성들의 말도 들어보았기에 지금 말이 난 김에 아뢰입니다. 이것으로 탐라의 목사에게 신칙하소서.”

하니, 따랐다. 윤시동이 또 아뢰기를,

“왜학역관(倭學譯官)이 단삼(單蔘)을 담당한 지가 40년에 가까운데 아무런 폐단없이 거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계축년에 미삼(尾蔘)에 값을 덧붙인 것은 실정을 숨긴 점이 충분히 처벌할 만한 것이었고, 이것으로 하여 원공(元貢) 속에서 미삼 조항을 삭제하고서 외방인에게 따로 준 지가 이미 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에게서 빼앗아 외방인에게 준 것은 소가 밭을 짓밟고 지나갔다고 해서 소를 빼앗아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금년부터는 미삼에 대한 공납을 왜학 역관에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따랐다.

▶ 46권 21년 1월 8일 己酉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己酉/敎曰: “大禮大享之稱令稱郎者, 太常正曰耕籍令, 用於親耕, 掌樂正曰協律郎, 用於祀饗, 典牲署官曰掌牲令, 用於省牲. 省牲之禮, 『五禮原儀』, 不以親行載錄, 至先朝, 遵『大明集禮』, 始舉躬省之禮. 此所以耕籍, 而協律郎之皆用下三品正, 獨於掌牲令, 依舊秩卑, 尙今因循者也. 今番祈穀執事官, 仍用聽誓戒之人, 牲官亦然. 而今聞卽雜岐主簿云, 主簿, 卽其署之長官, 其外皆參外七八品官. 設令地閥稍勝, 烏帶之末蔭, 焉敢牽牲告腠於版位之前乎? 雖不加設正窠, 何以則稍尊其官, 另擇其人, 令吏、禮曹廣採文獻, 兼攷官方以聞.” 吏、禮曹啓言: “省牲之禮, 自漢以來, 大祭祀則天子親臨夕牲, 至晉太始六年, 亦用是禮. 而掌牲官之品秩, 無所攷. 『開元禮』, 有(稟)廩犧令告腠, 太常卿視牲之文, 宋制光祿卿, 巡牲告充, 備光祿丞巡牲告腠. 唐之廩犧令, 卽太常寺屬官, 而唐之太常卿, 乃是正三品, 則廩犧令, 當爲三品以下, 宋之光祿卿, 卽從三品, 則告腠之光祿丞, 又當在從三品之下. 然此皆有司省牲之儀, 非天子親莅, 則職品高下, 未可爲今日之證. 惟『大明集禮』, 有皇帝前享一日親省牲之禮, 而執事官牽牲詣廚, 所謂執事官, 今以『會典』所載參考, 則恐爲太常・光祿寺官, 而品秩高下, 不可詳矣. 我朝原『五禮儀』, 只載有司省牲之儀, 而掌牲令下, 但稱典牲主簿有故, 則直長代之. 至先朝乙丑, 始以從周之聖意, 特命省牲之親行, 儀文完備. 而掌牲官之仍舊用從六品之主簿, 豈或未遑而然歟. 然典牲署, 旣以從六品衙門, 載於『經國大典』, 主簿爲長官, 今若依太常・掌樂兩正例, 加設正一窠, 則六品衙門, 以正三品爲其長官, 恐有違於大典官方. 臣等愚見則主簿一窠, 陞作判官, 依太常判官, 以曾經三司之人, 通融擬差, 恐宜. 請以此定式.” 批曰: “牲署三郎, 分掌牛、羊、豕, 不欲別設正窠, 意在勿出冗官也. 卿等獻議, 斷斷於衙門三品六品之間, 而旋請主簿之陞作五品判官, 何其自相矛盾也? 第令依卿等議施行, 茁壯長之方, 不係於文蔭, 依前以蔭官差除.”

하교하기를, “대례(大禮)나 대향(大享)에서 영(令)이니 낭(郎)이니 하는 말을 쓰는데, 대상시의 정(正)을 경적령(耕籍令)이라 하여 친경(親耕)에 쓰고, 장악원의 정을 협률랑(協律郎)이라 하여 사향(祀饗)에 쓰고, 전생서의 관원을 장생령(掌牲令)이라 하여 성생(省牲)에 쓴다. 성생하는 예절은 『오례원의(五禮原儀)』에는 임금이 친행(親行)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선조(先朝) 때에 와서 『대명집례(大明集禮)』에 따라 처음으로 임금이 몸소 살피는 예를 거행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적령이나 협률랑에는 모두 정3품의 정(正)의 품계를 쓰면서 유독 장생령만 옛날의 예에 따라 낮은 품계 그대로이며 지금까지도 인습하고 있다. 이번 기곡대제의 집사관(執事官)은 서계(誓戒)를 들은 자들을 그대로 쓰는데 생관(牲官)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잡기주부(雜主簿)라고 하는데, 주부는 그 관서(官署)의 장관(長官)이며 그 밖에는 모두 참외(參外)의 7, 8품의 관원들이다. 설령 지벌(地閥)이 좀 뽕찮다고 하더라도 오대(烏帶)의 말음(末蔭)이 어찌 감히 희생(犧)을 이끌고 판위(版位) 앞에 가서 고돌(告)할 수 있겠는가? 정(正)의 벼슬자리를 더 설치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벼슬을 좀 높이고 그 사람을 특별히 가릴 수 있겠는지, 이조와 예조로 하여금 널리 문헌을 찾고 관제(官制)를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조와 예조가 아뢰기를,

“희생을 살펴보는 예는, 한(漢)나라 이래로 큰 제사에는 천자가 직접 석생(夕牲) 하였으며, 진(晉)나라 태시(太始) 6년에도 이 예를 썼습니다. 그러나 장생관(掌牲官)의 품계에 대해서는 고증할 곳이 없습니다. 개원례(開元禮)에는 능희령(稟犧令)이 고돌하고 태상경(太尙卿)이 시생(視牲)한다는 글이 있고, 송(宋)나라 제도에는 광록경(光祿卿)이 순생(巡牲)하여 잘 갖추어졌음을 고하고 광록승(光祿丞)이 순생하여 고돌하였습니다. 당(唐)나라의 능희령은 곧 태상시(太尙寺)의 속관(屬官)인데, 당나라의 태상경이 정3품이므로 능희령은 당연히 3품 이하일 것이며, 송나라의 광록경은 종3품이므로 고돌하는 광록승은 역시 당연히 종3품 아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유사(有司)가 성생(省牲)하는 의식이며 천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직품(職品)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는 지금의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명집례(大明集禮)』에 황제가 제향 하루 전에 친히 성생하는 예를 행하고 나서 집사관(執事官)이 희생을 끌고 주간(廚間)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른바 집사관이란 지금 『회전(會典)』에 실려 있는 것을 참고한다면 태상시나 광록시(光祿寺)의 벼슬인 것 같으나 품질의 높고 낮음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원 『오례의』에는 유사(有司)가 성생한다고만 기록되어 있고, 장생령(掌牲令) 밑에 전생서의 주부가 유고(有故)하면 직장이 대신한다고만 하였습니다.

선조(先朝)의 을축년에 와서 처음으로 ‘주(周)나라의 제도를 따르겠다.’는 공자의 뜻을 따라 특별히 성생하는 예를 친히 행하게끔 명함으로써 의문(儀文)이 완전히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장생관은 예전대로 종6품의 주부를 쓴 것은 아마도 미처 겨를이 없어서 그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생서는 이미 종6품 아문(衙門)으로 『경국대전』에 실려 있고 주부가 장관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금 만약 태상시나 장악원의 두 정(正)의 예에 따라 정의 벼슬자리 하나를 더 설치한다면 6품 아문의 장관을 정3품으로 하는 것이 되므로 『경국대전』의 관제(官制)에 어긋날 듯합니다. 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주부 한 자리를 관관으로 승격시키고 태상 관관의 예에 따라 삼사(三司)를 거친 사람으로 통틀어 의차(擬差)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것으로 정식(定式)을 삼으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전생서의 세 낭관이 소·양·돼지를 분장하는 것은 정(正)의 자리를 따로 설치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쓸데없는 관직을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인 것이다.** 경들이 올린 의논은 그 아문이 3품이나 6품이나 하는 것에만 매달려 있으면서 도리어 주부를 5품의 관관으로 승격시키자고 하니, 어찌 이처럼 스스로 모순된단 말인가? 아무튼 경들이 의논한 바에 따라 시행하되, 희생의 살짐에 대한 판단에는 문음(文蔭)이 관계가 없으니 전과 같이 음관(蔭官)으로 차출하도록 하라.”

하였다.

## ▶ 46권 21년 4월 24일 甲午

甲午/賜几杖于領議政洪樂性. 先是, 命賜几杖, 時拜用一坐再至之禮, 賜樂導自闕門外, 參宴諸賓, 祇迎教書, 仍圍繞, 至其家, 樂性上疏辭, 上命只除祇迎之節. 是日上御集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福軒, 元子侍坐. 樂性及應參諸臣入庭諸臣四拜, 【時任大臣、政府東西壁、吏曹判書、禮曹三堂、漢城府判尹在東, 原任大臣、兵·刑·工曹判書在西.】樂性一坐再至. 宣教官讀教書, 若曰: “鄒書著三達之稱, 尊高年所以長長, 思傳揭九經之義, 敬大臣次於親親, 斯乃主政之所當先, 厥惟國典之不可闕. 是以虞庠懋惠養之政, 授曲凡於國賓, 漢廷重優禮之規, 須玉杖於大耋, 榮實邁燕毛, 貳膳奚但曠世之異? 恩禮則同駟馬, 安車抑亦昭代之美事. 惟卿忠貞世業, 靖惠家聲, 地望襲嬋嫣之榮, 粵自長公主休蔭. 風期遭宥密之托, 矧是我慈宮懿親? 進退持身端凝, 李沆之風範, 夷險藉手, 勤謹安世之規模. 先朝宿望, 旣八座之歷遍, 賢尉餘思, 遂三公之再毗. 乃者一介臣白髮丹心, 二十年黃扉、赤舄, 笙鏞黼黻, 國太平而家太平, 鍾鼎園林, 素富貴而行富貴, 唐中書升四考, 郭汾陽之榮祿兼全, 宋耆英十三人, 富鄭公之名位居最. 槐堂餘慶, 庭有登龍之孫, 杏園高名, 歲回司馬之榜, 惟其吉祥事咸湊, 莫非仁壽域同休. 時則值歲乙卯山呼之春, 偉然爲萬甲子人瑞之首. 延禧堂上犀帶, 屹內外之班, 洛南軒中兕觥, 尊朝野之序.宸藻播響, 詠喬木之千章, 華誥生輝, 揭題帖於萬戶. 迨邦休載闡於獻歲, 又卿壽恰滿於杖朝. 秦樓之晬筵追思, 適回二甲, 絳縣之遐齡歷數, 更添七籌. 中人七旬, 尙稱古來之亦罕, 上相八耋, 豈非邦家之爲光? 歷稽四百載舊乘, 鮮有二三臣匹美. 位雖躋於首揆, 固難南極之并輝, 年或過於頤期, 率多西樞之引退. 惟吾卿茂祿之俱享, 亦文母餘福之攸推.

이하생략~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에게 궤장(杖)을 하사하였다. 이보다 먼저 궤장을 하사할 때의 절은 일좌 재지(一坐再至)하는 예(禮)를 쓰고 음악을 내려 대궐 문 밖에서부터 인도하며, 연회에 참석한 제빈(諸賓)은 교서를 경건히 영접하고서 에워싼 채로 그의 집에 이르도록 명하였는데, 홍낙성이 상소하여 사양하니, 상이 단지 영접하는 절차만 없애도록 명하였다. 이날 상이 집복헌(集福軒)에 나아갔는데 원자(元子)가 시좌(侍坐)하였다. 홍낙성 및 참석해야 하는 여러 신하들이 뜰에 들어와서, 여러 신하들은 네 번 절을 하고, 【시임 대신·의정부 동벽(東壁)과 서벽(西壁)·이조판서·예조의 세 당상관·한성부판윤은 동쪽에 있고, 병조판서·형조판서·공조판서는 서쪽에 있었다.】 홍낙성은 일좌 재지하였다. 선교관(宣教官)이 교서를 읽었는데, 그 교서에 이르기를,

“추서(鄒書)에 삼달존(三達尊)을 드러내어 일컬으면서 나이 많은 이를 높이게 한 것은 어른을 어른으로 대우하는 까닭이며, 사전(思傳)에 구경(九經)의 뜻을 게재하면서 대신(大臣)을 공경하는 것을 친한 이를 친애한 다음에다 하였는데, 이는 바로 왕도 정치에서 당연히 우선해야 할 바이며 국가의 전례(典禮)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우상(虞庠)에서는 은혜로 양성하는 행정에 힘써 국빈(國賓)에게 곡례(曲)를 주었으며, 한정(漢廷)에서는 우례(優禮)하는 규정을 중하게 여겨 대질(大)에게 옥장(玉杖)을 내려 주었는데, 그 영광은 실로 연모(燕毛)와 이선(貳膳)보다 뛰어났으니, 어찌 세상에 드문 특이한 은혜뿐이겠는가? 예우(禮遇)는 사마(駟馬)의 안거(安車)와 같게 하니 그것도 훌륭한 세대의 아름다운 일이다.

오직 경은 충정(忠貞)의 세업(世業)에다 정혜(靖惠)의 가성을 지녀 지체와 명망은 아름다운 영화를 계승하였는데, 그것은 장공주(長公主)의 빛나는 음덕에서 시작되었다. 임금과 신

하가 서로 마음이 통하여 유밀(有密)한 의탁을 만났는데, 더구나 우리 자궁(慈宮)과는 의친(懿親)인 관계임에라. 진퇴하면서 몸가짐이 단정하고 엄중하기는 송(宋)나라 이항(李沆)의 풍범(風範)과 같고, 순경(順境)이나 역경(逆境)에 대처하여 조심하고 근신하기는 한(漢)나라의 장안세(張安世)의 규모와 같았다. 그래서 선조(先朝)에서 오래 전부터 지닌 명망으로 이미 팔좌(八座)를 두루 거쳤고, 어진 영안위(永安尉)의 남은 기대로 마침내 삼공(三公)의 지위에서 두 번이나 돕게 되었다. 이에 한 사람의 신하가 머리가 회도록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20년 동안 황비(黃扉)·적석(赤)에다 생용(笙鏞)·보물로 국가와 집안을 태평하게 하였으며, 종명정식(鍾鳴鼎食)하는 원림(園林)에서는 본래부터 부귀하여 부귀를 누리니, 당(唐)나라 중서(中書) 24고(考)에서 곽분양(郭汾陽)이 영화와 복록을 온전하게 겸하고 송(宋)나라 기영(耆英) 13인에서 부정공(富鄭公)이 명망과 지위가 최고를 차지한 듯하다. 괴당(槐堂)의 남은 경사는 집안에 과거 급제한 손자가 있고, 행원(杏園)의 높은 명망은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했던 해가 돌아왔으니, 그 길하고 상서로운 일들이 모두 모인 것은 어진 이가 오래 사는 지역에서 아름다움을 함께 하는 것 아님이 없다. 때는 을묘년의 산호(山呼)하던 봄을 만났으며, 뛰어나게 만갑자(萬甲子) 인서(人瑞)의 으뜸이 되었도다. 연희당(延禧堂) 위의 서대(犀帶)는 내외의 반열에서 우뚝하고, 낙남헌(洛南軒) 가운데의 시평은 조야의 차례에서 높다. 신조(宸藻)로 음향을 전파하여 교목(喬木)의 1천 장(章)을 읊고 화고(華誥)가 빛이 나서 첩(帖)을 써서 1만 가호에다 걸었도다. 나라의 경사가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에 열렸고 또한 경의 향수(享壽)가 조정에서 지팡이를 짚는 나이에 가득 찼도다. 진루(秦樓)에서의 수연(筵)을 미루어 생각하니 마침 이갑(二甲)이 돌아온 격이고 강현(絳縣)에서의 하령(遐齡)을 낱알이 세어보니 다시 칠주(七籌)하고도 덧붙은 나이를 헤아려 보게 한다. 보통 사람의 칠순도 오히려 옛날부터 드물다고 일컫는데 영의정의 80나이가 어찌 국가의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4백 년 동안의 역사를 낱알이 상고하여 보아도 두세 명의 신하만 아름다움을 짝할 정도로 드물다. 지위는 비록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남극성(南極星)과 함께 빛나기는 진실로 어렵고, 나이는 간혹 1백 세가 넘었으나 거의 서추(西樞)에서 인퇴(引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오직 우리 경은 융성한 복록을 함께 누리니 그것 또한 자궁의 음덕으로 나온 복이 미친 것이다.

둘

이하생략~

## ▶ 46권 21년 5월 22일 辛酉

先是，關西儒生等，上疏請改稱仁賢書院，爲箕聖影殿，且言：“牲用太牢，日用中丁，太牢用泮宮之禮，中丁待鄉賢之禮也，宜亟釐正。箕子墓守衛之節，亦當依羅、麗始祖諸陵例，置卒守直。”左議政蔡濟恭奏請，令道臣，酌量便否以聞，上，可之。至是，觀察使朴宗甲狀啓曰：“今日之崇報箕聖，當以師道，書院之稱，未爲不可。府內既有崇仁殿，以奉位版，則豈可一城之內，又設二殿？至於日用中丁，宜卽釐正。”濟恭復奏曰：“道臣既以一殿之內，疊置兩殿爲難愼，則改稱仁賢學宮爲宜。且臣於此，有區區愚見，箕子墓，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人或有所疑之議，而但天使以箕子墓三字，書之碑面，則中國人亦以爲箕聖衣履之藏．夫我朝凡於祀典，雖屬前代陵墓，靡不畢舉，而獨於聖人之藏，未有寒食一開門之禮，臣之意，別定守直，義起歲一祭之禮，恐不可已．”上，詢于諸臣．右議政李秉模曰：“院是講道之所，而箕聖所傳者道也，書院之稱，恐不必改．至於墓祀，異於廟饗，崇奉之道，初不在於創新禮而立新典矣．”漢城府判尹金文淳、上護軍金持默、開城府留守黃昇源、是濟恭議，刑曹參判徐龍輔、原任奎章閣直閣金祖淳、承政院右承旨洪仁浩，是秉模議．備邊司堂上李書九則曰：“中國亦有箕子墓，則在平壤者，豈出傳疑？享祀之不舉，非有歉於崇報．創行新典，恐難遽議．”教曰：“東國稱小中華，而三韓以前，大樸之尙爾，儀文多草創，至今未遑於應行之典禮而然乎？與院名一款，更令禮判，博考指一草記．”

이전에 관서(關西)의 유생(儒生)들이 상소하여 인현서원(仁賢書院)을 기성영전(箕聖影殿)으로 개칭하도록 청하고, 또 말하기를,

**“회생은 태뢰(太牢)를 쓰며 날짜는 중정(中丁)을 쓰는데, 태뢰는 반궁(泮宮)의 예를 쓴 것이며 중정은 향현(鄉賢)을 대우하는 예이니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기자(箕子)의 묘를 지키는 절차도 신라나 고려 시조의 능에 대한 예에 의거하여 군졸을 배치하여 지켜야 합니다.” 하였는데,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주청하여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편의 여부를 참작하여 아뢰도록 하니, 상이 재가했었다. 이때에 이르러 관찰사 박종갑(朴宗甲)이 장계하기를,

“오늘날 성인 기자(箕子)를 높이고 은덕을 갚는 것은 사도(師道)로써 해야 하니 서원(書院)이라고 일컫는 것도 불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府) 안에 이미 숭인전(崇仁殿)이 있어 위판(位版)을 받들고 있으니, 어찌 한 성 안에 또 두 전(殿)을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날짜를 중정(中丁)으로 쓰는 것에 있어서는 즉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하니, 채제공이 복주하기를,

“도신이 한 전 안에다 겹으로 두 전을 설치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니, 인현학궁(仁賢學宮)으로 고쳐서 일컫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이 이 일에 대하여 구구한 소견이 있으니, 기자의 묘는 사람들이 간혹 진위를 의심하는 의논이 있습니다만, 중국 사신이 ‘기자묘(箕子墓)’란 세 글자를 비면(碑面)에다 썼고 보면 중국 사람들 역시 기자의 무덤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대저 우리 조정에서는 일반적인 사전(祀典)에 대해서 전대의 능묘에 속한다 하더라도 모두 거행하지 않음이 없는데, 유독 성인의 묘에만 한식(寒食)에 한 번 문(門)을 여는 의식조차 없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따로 수직(守直)을 정하여 해마다 한 번 제사지내는 예(禮)를 의리로 일으키는 것을 아마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제신에게 물었다.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서원은 도(道)를 익히는 곳이며 성인 기자가 전한 것은 도이니 서원이라는 칭호를 고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묘사(墓祀)에 이르러서는 묘향(廟饗)과는 다르니, 높이 받드는 도리가 애당초 새로운 예(禮)를 창설하고 새로운 법을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였는데, 한성부판윤 김문순(金文淳), 상호군 김지묵(金持默), 개성부유수 황승원(黃昇源)은 채제공의 의논을 옳게 여기고, 형조참판 서용보(徐龍輔), 원임 규장각 직각 김조순(金祖淳), 승정원 우승지 홍인호(洪仁浩)는 이병모의 의논을 옳게 여기니, 비변사 당상 이서구(李書九)가 아뢰기를,



“중국에도 기자의 묘가 있으니 평양(平壤)에 있는 것은 어찌 의심스러운 사실을 의심스러운 그대로 전하는 데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향사(享祀)를 거행하지 않는 것은 높이고 은덕을 갚는 데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법을 창설하여 시행하는 것은 아마도 갑자기 의논하기 어려운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우리나라를 소중화(小中華)라고 일컫는데, 삼한(三韓) 이전에는 순수함이 아직도 남아 있어 의문(儀文)을 처음으로 만든 것이 많아서 지금까지 당연히 행하여야 할 전례(典禮)를 거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서원(書院) 명칭에 대한 한 건과 더불어 다시 예조판서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의견 일치를 보아 초기(草記)를 올리게 하라.”

하였다.

## ▶ 46권 21년 6월 24일 癸巳

右議政李秉模啓言：“丁若鏞自明之疏，引喻多不當理，如曰孟子之闢楊墨，朱子之闢蘇、陸云者，雖出於斷章取義，而邪學本不可以異端論。只是『虞書』所謂‘寇賊奸究之類，士師所當剿殄而無遺’者也。豈可與楊、墨，比而同之哉？文字罪人，雖非厚風，而此則事屬規警，足爲遷善之一助，請施罷職之典。”上曰：“渠方如螫蟲聞雷，如絕復蘇，其在方張不折之義，何必如是？邪學之弊，曾對左相，亦有言此弊，使之釐正。而予則曰不可以刑法治之。大明升則螢燭自息，元氣實則外氣不干，若能內修外攘，先治根本，使詩禮家人，皆守故家之遺風，不失禮教之防範，則彼亦將不期熄而自熄矣。”上曰：“屠牛本系禁條。近年申嚴之後，營邑之臣，苟能實心奉行，則豈不能去其太甚乎？近古以上，公坐會飯，不食牛肉，國忌齋戒，朝官皆兩日蔬食，先朝初年猶如此云矣。惟太享之太牢，進宴之大膳，乃用牛肉，卽古人無故不殺牛之義。而今則此法蕩然，如各宮房，皆有所屬牛肆，視作應然之事，如有執法有司之臣，先自宮房屬肆而嚴加操切，則豈有冒濫之弊乎？”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정약용(丁若鏞)이 스스로 변명한 상소에 인용한 비유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많으니, 맹자(孟子)가 양주(楊朱)와 목적(墨翟)을 배격하고 주자(朱子)가 소동파(蘇東坡)와 육상산(陸象山)을 배격했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은 그것이 비록 문장을 잘라다 뜻을 취한 데서 나왔다 하더라도 사학(邪學)은 본래 이단(異端)으로만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단지 우서(虞書)에서 이른바 ‘구적(寇賊)과 간구(奸究)의 부류는 사사(士師)가 베어 없애 남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양주와 목적에 비교하여 그들과 같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자(文字)를 이유로 사람을 죄주는 것은 후덕한 풍습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규경(規警)에 속하는 사안인만큼 착한 데로 옮겨가게 하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되기에 충분하니, 과직하는 법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그는 바야흐로 움추려 있던 벌레가 우레 소리를 듣고 절명한 듯하다가 다시 소생한 것과 같으니, 그 한창 자라는 가지를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에 있어서 하필이면 이와 같이 해야 하겠는가? 사학의 폐단은 일찍이 좌상(左相)을 대했을 때 이미 말하고 바로잡도록 하였다. 그러나 나는 형법(刑法)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하다고 여긴다. 태양이 떠오르면 반딧불과 햇불은 저절로 빛을 잃게 되며 원기(元氣)가 충실하면 외기(外氣)는 침범하지 못하니, 만약 내수(內修)와 외양(外攘)을 잘하여 먼저 근본을 다스려 시례 가문(詩禮家門)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고가(故家)의 유풍(遺風)을 지키고 예교(禮敎)의 모범을 잃지 않게 한다면 저들 역시 앞으로 없어지기를 기약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를 도살하는 것은 본래 금지 조항에 관계된다. 근년에 거듭 엄격히 한 뒤로 감영과 고을의 수신(守臣)이 진실로 성실한 마음으로 잘 봉행한다면 어찌 아주 심한 자들을 제거할 수 없겠는가? 가까운 옛날에는 공좌(公坐)의 회반(會飯)에서 쇠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국기(國忌)로 재계할 적에도 조관(朝官)은 모두 이를 동안 소식(蔬食)을 하였는데, 선조(先朝) 초년에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대향(大享)의 태뢰(太牢)와 진연(進宴)의 대선(大膳)에 쇠고기를 사용하니, 그것은 바로 옛날 사람들이 까닭 없이 소를 도살하지 않았던 뜻이다. 지금은 이 법이 아주 없어져 각 궁방(宮房)같은 데도 모두 소속된 우사(牛肆)가 있으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로 보는데, 만일 법을 집행하는 유사(有司)인 신하가 먼저 궁방 소속의 우사부터 엄중히 조절(操切)을 가한다면 어떻게 모람(冒濫)된 폐단이 있겠는가?”

하였다.

### ▶ 47권 21년 10월 7일 壬寅

右參贊沈煥之啓言: “整理之名, 昉於陵幸時, 戶曹判書爲整理使之例. 而以殿下愛日之聖孝, 頃當萬千年一遇之慶會, 奉慈駕而詣華城, 誕舉呼嵩之盛典. 上自內府供億之費, 下至從官軍馬盤纏糗糧之資, 不煩大農之經用, 營邑之供給, 而默運聖智, 別爲區劃, 此所以整理諸臣之奉, 而舉行者也. 聖教若曰: ‘當是年是日, 行是地是禮. 而民吾赤子, 既無以家給牛酒, 人皆醉飽, 則於予心豈不欲然乎?’ 遂以整理用餘錢, 分送諸道, 俾以一兩之錢, 作爲皮穀一包, 自其明年, 春散秋歛. 或爲種資, 或爲農糧, 貽我嘉種, 傳之悠久, 出自聖孝, 覃以慈惠, 留有餘不盡之澤, 爲用敷厥庶之本. 則雖愚夫愚婦之微, 亦當知其粒粒皆恩, 人人同慶之盛德至善, 此卽乙卯整理穀之所以建置者也.

이하생략~

우참찬 심환지가 아뢰기를,

“정리(整理)의 명칭은 능행(陵幸) 때에 호조판서를 정리사(整理使)로 삼은 전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아버이를 사랑하는 성효(聖孝)로 지난번 천만 년에 한 번 만나는 경사를 당하여 자궁(慈宮)의 법가(法駕)를 받들고 화성(華城)에 나아가서 만세를 축수

하는 성전(盛典)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때 위로는 내부(內府) 공역(供億)의 비용에서부터 아래로 종관(從官) 군마(軍馬)의 노자와 양식의 자본에 이르기까지 대농(大農)의 경용(經用)과 영읍(營邑)의 공급을 번거롭게 쓰지 않고 성지(聖智)를 묵묵히 운용하여 별도로 구획(區劃)하셨으니, 이것이 정리 제신(整理諸臣)이 받들어 거행하게 된 까닭입니다. 성상께서 하교하시기를 ‘이해 이날을 당하여 이 땅에서 이 예를 행하였다. 백성은 내 적자인데 이미 집집마다 소고기와 술을 주어 사람들이 모두 취하고 배불리 먹게 하지 못하였으니 내 마음에 어찌 서운하지 않겠는가?’ 하고, 드디어 정리소에서 쓰고 남은 돈을 제도(諸道)에 나누어주어 한양의 돈으로 피곡(皮穀) 한 포(包)를 바꾸어 만들어 그 명년부터 봄에 흔어주고 가을에 거두어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혹 종자의 밭천으로 삼기도 하고 혹은 농사철의 양식으로 삼게 하기도 함으로써 우리에게 아름다운 종자를 끼쳐주어 유구히 전하게 하였는데, 이는 자궁의 은혜를 널리 베풀려는 성상의 효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계속 여유가 있게 하는 은력을 남겨둠으로써 서민을 잘 살게 하는 근본으로 삼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비록 어리석고 미천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한알 한알의 곡식이 모두 은혜에서 나온 것으로서 사람마다 같이 경하(慶賀)하게 하려는 성대한 덕과 지극한 선을 알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을묘년 정리곡(整理穀)을 설치하게 된 까닭입니다.

이하생략~

## ▶ 49권 22년 8월 26일 丁巳

~이상생략

丕惟我先世子邸下，邃學宏謨，盛德至善，克誕聖躬，後祿無疆，民之仰之如天如地。天地之禮，以小爲貴，其所以事之也，惟其內心故爾。夫天地德產，至大至廣，如欲充類而準報之，則雖盡天下之物，極天下之數，無以稱其盛而答其殷，故母寧約而簡之，撮而小之。 不壇而地，不璧而陶，不太牢而特牲以象，夫至愛之無容，至敬之無文者，此乃貴小之禮然也。以此意推之，則今此式廓之張大，無或過於禮乎？臣於城役之後，今始來覩，既有所覩，不敢不言。惟聖明，恕其愚而察其衷焉。

이하생략~

~이상생략

삼가 생각건대, 우리 선(先) 세자저하(世子邸下)께서는 학문이 깊고 계책이 광대하셨음은 물론 성덕(盛德)과 지선(至善)을 갖추셨는데 성상을 탄생시키시어 뒷날의 복록이 무궁하게 되셨으므로 백성들이 하늘과 땅처럼 흠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天地)에 대한 예(禮)는 작게 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천지를 섬김에 있어서는 오직 내심(內心)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저 천지가 덕을 베풀어 내놓는 것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넓은 만큼 완전히 이에 걸맞게 보답하려면 천하의 물건을 다 동원하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극진히 한다 하더라도 그 성대한 덕에 맞게 보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요약해서 간단히 하고 축약해서 작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壇)을 쌓지 않고 맨 땅에 하며 옥그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룻을 쓰지 않고 흙 그릇으로 하며 태뢰(太牢)로 하지 않고 특생(特牲)으로만 하여, 지극히 사랑스러운 것은 형용할 수 없고 지극히 공경스러운 것은 수식할 수 없음을 상징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작게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예의 소이연인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헤아려 보건대 지금 이렇듯 규모를 장대하게 한 것이 혹 예에 지나치지는 않겠습니까. 신이 성의 공사를 일으킨 뒤에 지금 처음으로 와서 보게 되었는데 일단 보고 느낀 바가 있는 이상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상께서는 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그 충정을 살펴 주소서.

이하생략~

### ▶ 50권 22년 11월 30일 己丑

~이상생략

鄭錫猷疏曰:

“臣請先論我國之地利田土農器，後論不失時之義不失所之方。沃沮，山多而濱海，帶方，峽窮而川深，樂浪，西北背山，東南開野。三南，水深土饒，海西畿甸，土薄而山峻，瀕海多斥鹵，近海多沙石。臣嘗於圭竇之中，有所揣摩者，可以遍用於一國，而宜於燥濕高下者，惟田車是已。蓋其利有五。春則有糞車，一車之運，當五牛之載，一人用一車，減四牛四人，牛力紓而人力寬，其利一也。方農之時，糞田尤急，先一時則穀倍，後一時則穀減。若用糞車，則敏事而及時，其利二也。秋則有役車，方其收穫之時，有牛有餘力，無牛亦無任負之勞，其利三也。郡縣捧糶之時，冰雪塞塗，牛足怯滑，人肩將穿，若用役車，則大者駕之，小者推之，其利四也。且夫牛馬之病，常在於背足，由於馱重而力竭。若用車，則牛馬竝全，其利五也。臣聞祖宗朝，欲行錢貨，而民不悅，時則有若故相臣金瑬，請行之自站舍。始站舍者，行路之所共由也，耳目之所共慣也。今車制亦自站舍始，則必漸效而民不撓矣。凡八路貢賦之輸，例皆貫馬，計千里而償二千錢，一馱之貫，殆當一馬之價。若自郡縣凡馱運之物，皆以車輸，則站舍之貫馬者，亦將以車代馬，不失生涯，轉轉相效，將遍於國也。(失其所則器不足賴也。)”又曰：“當今之急務，莫如祛二害興四利。何謂二害，曰冗官也，冗兵也。何謂四利，曰擇賢材也，均田制也，闢閑土也，和糶糴也。”

이하생략~

~이상생략

정석유(鄭錫猷)의 상소에 아뢰기를,

“신은 먼저 우리나라의 지리(地利)와 전토(田土)와 농기구에 대하여 논한 다음 시기를 농치지 않는 방도와 살 곳을 잃지 않는 방도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옥저(沃沮)는 산이 많고 바다를 끼고 있으며, 대방(帶方)은 골짜기가 깊고 냇물이 깊으며, 낙랑(樂浪)은 서북쪽은 산을 등지고 있고 동남쪽은 들판이 널려 있습니다. 삼남 지방은 물이 깊고 토질이 비옥하며, 해서와 경기 지방은 토질이 척박하고 산이 가파르는데다가 바닷가

에는 염분이 많고 바다 가까운 곳에는 모래와 돌이 많습니다.

신이 일찍이 집에 있으면서 궁리한 바가 있는데, 온 나라에서 두루 쓸 수 있는 것으로 마른 땅이나 습한 땅이나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쓰기에 알맞은 기구는 오로지 달구지[田車]뿐입니다. 대개 달구지를 쓰면 이로운 점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봄에는 거름 수레가 되는데, 수레 1대가 운반하는 양이 소 5마리에 싣는 것만큼이나 되니 한 사람이 수레 한 대를 쓰면 소 네 마리와 사람 네 사람을 줄이는 격으로 소와 사람의 노동력이 모두 여유가 있게 되는 바, 이것이 첫번째 이로운 점입니다. 농사가 한창 바쁠 때에는 밭에 거름주는 일이 더욱 급하여 한시라도 먼저 내면 소출이 배로 늘어나고 한시라도 늦으면 수확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만약 거름 수레를 쓰면 제때에 맞춰 일을 민첩하게 할 수 있는 바, 이것이 두 번째 이로운 점입니다. 가을에는 부리는 수레[役車]가 되는데, 곡식은 한창 거두어들일 때 소가 있으면 노동력이 남게 되고 소가 없더라도 지게로 지고 다니는 수고가 없는바, 이것이 세 번째 이로운 점입니다. 각 군현(郡縣)에서 환곡을 받아들일 때 눈이나 빙판으로 길이 막히게 되면 소발굽은 미끄러질까 겁나고 사람들의 어깨는 빠질듯 아프게 되는데, 이때 만약 부리는 수레[役車]를 이용하면 큰 수레는 멍에를 지워 끌고 작은 수레는 뒤에서 밀면서 갈 수 있는바, 이것이 네 번째 이로운 점입니다. 그리고 소나 말의 병은 항상 어깨와 발에 나는데, 이는 짐은 무거운데 힘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수레를 쓰면 소나 말이 모두 병나지 않을 것인바, 이것이 다섯 번째 이로운 점입니다.

신이 듣건대, 조종조 때 전화(錢貨)를 통용시키려고 하였지만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자, 당시 고(故) 상신 김육(金堉)이 역참(驛站)에서부터 시행하기를 청하였다고 합니다. 대개 역참에서부터 시행하기를 청한 것은, 역참은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모두 지나는 곳이며 익숙히 보고 들어왔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수레에 대한 제도도 역참에서부터 시행한다면 반드시 점차적으로 본받아서 백성들이 소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개 팔도의 공부(貢賦)를 운반하는 때에 으레 모두 말을 전세내어 운반하는데, 1천 리를 운반하는 경우 2천 전(錢)을 전세값으로 주는바, 짐 한 바리를 운반하는 값이 거의 말 한 마리 값과 맞먹습니다. 만약 군현에서 운반하여야 하는 모든 짐바리들을 죄다 수레로 운반한다면 역참에서 말을 세놓는 자들도 앞으로 말 대신 수레를 세놓아 생업을 잃지 않을 것이며, 점차적으로 이를 서로 본받아서 온 나라에 두루 퍼질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오늘날에 있어서 급선무는 두 가지 해로운 것을 제거하고 네 가지 이로운 것을 일으키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두 가지 해로운 것이냐 하면 쓸데없는 관리와 쓸데없는 군사가 그것입니다. 무엇이 네 가지 이로운 것이냐 하면 어진 인재를 가려 뽑고, 전제(田制)를 고르게 하며, 노는 토지를 개간하고 환곡법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하생략~

## ▶ 50권 22년 12월 13일 壬寅

壬寅/次對. 上曰: “軍丁之弊, 未有甚於近日. 我朝定制, 古之定制, 自十六歲至六十一, 而納身布上番者勿徵, 與唐之租庸調法暗合. 而均役以後, 一夫之二疋, 減爲一疋,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比之租庸調，其所減役當如何？民生庶幾祛塗炭奠衽席。而今雖減疋，民不堪其苦，此何故也？宣朝朝五衛之制，騎步兵，卽輦下親兵，士夫與民人，皆納身布。自五衛罷而訓局出，禁御資保，又古無而今有，統以計之，殆近百萬，雖至窮之民，身布一疋，則年例收納。然而古則家出一丁，故一家雖有十丁，只出一夫之身布，所以稱戶，不稱名也。近來一戶之內，逐口徵布，而黃口白骨亦不免，此豈成說？一分蘇掾之道，減額爲第一策，而先從吏胥輩情費，一切防杜，然後將見效益。古之士夫，自司直以下，逐戶徵布，而民間猶未免倒懸。況今大同騎步兵布，與其外各色之難以毛舉者，皆出於民，民何以聊生乎？目今京司中弊局，無如兵曹廳布。俗謂：‘步兵，則下於大同木，’卽布也。各樣軍布之上納兵曹者，以布品尺數之不足，或多點退，吏緣爲奸，郎亦受囑。其間亦不無好品，而此則一未分給於各樣朔下，只爲曹吏之弄奸，雇兵朔下之布，全是不堪着者云。然則六升四十尺之布，盡歸何處乎？此緣郎官之不擇人而然矣。自備局，或摘奸於朔下分給時，隨現請勘可也。”左參贊鄭民始曰：“古之以綿布行用也，只論其尺數之多寡，不論其升數之好否。自行錢以後，隨其布品，價以之多寡。今若減其升尺，則下邑上納者，必當全不成樣。來頭之弊，不若仍舊之爲愈也。”上，謂左議政李秉模等曰：“今日次對，卽一年十二月民國事都會計之日也。未明求衣，若將有爲，而午鼓已下，無一猷爲，三百六十州民心之所望於朝廷者，有何一分所副耶？言念及此，不覺覩然。卿等職在輔相，古所稱相業之業字，不啻重且大，隨處彌綸可也。”又謂刑曹、漢城府堂上等曰：“牛禁非創行，乃舊制也。京外有司之臣，雖非朝家指揮，但當如法禁之而已。近則舉措乖舛。昨年以此事騷擾，畿伯之要路防守，將臣之送校把門，大段駭妄。重門擊柝，以待暴客云者，豈此之謂耶？卿等爲有司之任，自有禁止之道。何必騷擾民間乎？”

차대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정(軍丁)의 폐단이 근래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다. 우리 조정의 규정과 옛날의 규정은 모두 16세부터 61세까지 신포(身布)를 바치고 상번(上番)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은연중에 당(唐)나라의 조庸조법(租庸調法)과 합치되었다. 그리고 균역법(均役法)을 시행한 이후에는 한 사람이 2필을 내던 것을 1필로 감하였으니, 조庸조법에 비하여 부담을 줄여준 것이 어떠하였던가. 이에 백성들이 도탄에서 벗어나 편하게 지내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필수를 줄여주었는데도 백성들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선조조(宣祖朝) 때의 오위제도(五衛制度)에서는 기병과 보병은 바로 왕궁의 친위병이었고 사대부와 백성들이 모두 신포를 바쳤었다. 오위의 제도가 폐지되면서부터 훈련원이 설치되었으며, 금위영과 어영청의 자보(資保)는 예전에는 없던 것이 지금 생겨난 것으로, 통틀어서 계산하면 거의 1백만 명에 가까웠는데 아무리 가난한 백성이라도 신포 1필은 해마다 으레 바쳤다. 그러나 예전에는 한 집에서 장정 1명만 내었으므로 한 집안에 비록 장정이 10명이 있더라도 단지 한 사람의 신포만 내었기 때문에 몇 호라고만 부르고 몇 명이라고는 부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한 호 안에서도 장정수에 따라 신포를 징수하는데, 어린이와 죽은 사람까지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조금이나마 이

폐단을 구제하고 백성을 소생시키기 위한 방도로는 정원수를 줄이는 것이 첫번째 계책인데, 우선 먼저 아전들이 거두어들이는 인정가(人情價)부터 일체 거두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에야 앞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사대부에 대해서도 사직(司直) 이하부터 호구에 따라 신포를 징수하였는데도 백성들이 오히려 고통을 면치 못하였다. 그런데 더구나 지금은 대동포(大同布)와 기병포(騎兵布)·보병포 및 그외 일일이 거론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각종 명목의 포를 모두 백성들이 내야 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현재 경사(京司) 가운데 폐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는 병조에서 거두는 거친 군포(軍布)만한 것이 없다. 세속에서 이르기를 ‘보병포는 대동목(大同木)보다도 더 나쁘다.’고 하는데, 바로 이 포를 말하는 것이다. 병조에 바치는 각종 군포는 포의 품질과 잣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이 퇴짜를 놓는데, 아전들이 이를 틈타 험잡질을 하고 낭청들 역시 뇌물을 받는다. 그 사이에도 품질이 좋은 포목이 없지는 않지만 이것은 각종의 삭하(朔下)로는 전혀 나누어주지 않고 단지 서리들이 농간을 부리는 물품으로만 되어 샅을 받는 군사들이 삭하로 받는 포목은 전혀 입을 수가 없는 것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40자 되는 육승포(六升布)는 죄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것은 낭관을 제대로 가려뽑지 못하여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비변사에서 혹 삭하를 나누어줄 때 적간하여 드러나는 대로 죄주기를 청하는 것이 옳다.”

하니, 좌참찬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옛날에 면포를 쓸 때에는 단지 잣수의 많고 적음만 따지고 승수(升數)가 좋은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돈을 통용한 이후부터는 베의 품질에 따라 값의 많고 적음을 정하였습시다. 지금 만약 승수와 잣수를 줄일 경우에는 하읍(下邑)에서 상납하는 베가 반드시 꼴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예전대로 그대로 두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좌의정 이병모 등에게 이르기를,

“오늘의 차대는 바로 1년 열두 달의 민사(民事)와 국사(國事)에 대해 모두 회계(會計)하는 날이다. 이른 새벽 옷을 갖추 입을 때에 무엇인가 할 것 같았는데, 정오가 이미 지났는데도 한 가지 계책도 내놓는 것이 없으니, 조정에 기대를 걸고 있는 전국 3백 60고을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조금이나마 부응할 수 있겠는가?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치니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진다. 경들은 보필하는 재상 자리에 있는데, 옛날에 칭하던 상업(相業)의 ‘업(業)’자는 그 뜻이 중차대할 뿐만이 아니니 일마다 잘 조처해 나가는 것이 옳다.”

하고, 또 형조와 한성부의 당상에게 이르기를,

**“소의 도살을 금하는 규정은 새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전부터 있어온 제도이다.** 경외의 유사(有司)들은 비록 조정에서 지시를 내리지 않더라도 마땅히 법대로 금지시키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처사가 도리에 어그러졌다. 작년에는 이 문제로 소요를 일으켜서 경기감사가 요로(要路)를 지켰고 장수는 군교를 파견하여 성문을 지켰는바, 몹시 해괴하였다. 문을 겹겹이 세우고 딱따기를 치면서 경계하여 포악한 자를 막는다는 뜻이 어찌 이것을 두고 한 말이겠는가? 경들은 유사의 임무를 맡고 있으니 자연 금지할 방도가 있을 것이다. 어찌 반드시 민간에 소란을 피울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 50권 22년 12월 14일 癸卯

敎曰: “紀綱每與舉措相須, 而行舉措之得宜與否, 而紀綱隨而張壞. 昨年聞前左相之言, 意謂適然, 今年又聞右相言, 果亦然矣. 朝廷自有體貌, 凡涉在法可禁之節, 既有法司, 則何法之不可施? 而近於歲時禁屠也, 堂堂法司, 借力於畿伯及將臣, 有把門防路搜驗卜物之舉云, 此果何許法例, 亦在於何許法書乎? 舉措之自輕若此, 紀綱安得不掃地乎? 漢法寬大, 而田不闢則殺刺史二千石. 所以闢田之物, 卽耕牛也, 牛可殺乎? 此所以屠牛之律, 比殺越之減二等, 而爲杖徒也. 年前故相申禁之請, 只示肯可, 至于今未嘗別下傳敎者, 自有舊章, 只欲觀舉行之如何. 而且欲修明於懈弛之餘, 則烏可無束濕之舉? 而其云把車防路等無於法之舉措, 徒與大畏民志之意相反. 復問襲謬之意, 面飭有司諸臣於賓對, 而畿伯則似未聞知. 以此分付若是者, 不無有助於紀綱舉措邊. 若是而令不立, 有司之罪也, 焉追關石乎?” 仍諭京畿道臣曰: “年來把路搜卜之無於法之舉措, 無難爲之, 列邑犯科, 幾乎無邑不然. 未聞殿最書下, 或狀聞罷黜. 最不畏尤無嚴之類, 若是而紀綱何以立乎? 既除防路之涉於擾民者, 官府之侍下外, 狼藉犯科者, 爲先申加嚴禁, 先從現發者, 啓聞論罪. 前此非不知之, 卿之尙今默然, 卿可謂奉法乎? 姑付之味爽, 欲觀前頭, 此意一體知悉.”

전교하기를,

“기강은 매번 거조와 서로 맞물려서 행해지는바, 거조가 제대로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기강이 서고 무너진다. 작년에 전임 좌상의 말을 듣고는 속으로 그럴 것이라고 여겼는데, 금년에 또 우상의 말을 들으니 과연 그러하였다. 조정에는 나름대로 체모가 있는 법이니, 법에 있어서 금지해야 할 절목에 관계되는 것은 이미 법사(法司)가 있는데, 무슨 법인들 시행할 수 없겠는가? 그런데 새해 초가 가까워져 도살을 금지하는 때에 당당한 법사가 경기감사와 장신(將臣)의 힘을 빌려서 문을 지키고 길을 막으며 짐바리를 수색하는 거조가 있었다고 하니, 이것이 과연 무슨 규례이며, 또한 어느 법전에 그런 내용이 실려 있는가? 거조를 스스로 가볍게 하기를 이와 같이 하고서야 기강이 어찌 땅을 쓴듯이 허물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漢)나라의 법이 관대하였지만 토지가 개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사(刺史)와 태수(太守)를 죽였다. 토지를 개간하는 것은 바로 밭가는 소이니, 소를 도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소를 도살한 데 대한 율을 살인한 죄에 비해 두 등급을 감하여서 곤장을 치고 유배보내는 까닭이다. 연전에 고(故) 정승이 거듭 금지시킬 것을 청했을 때 단지 고개만 끄덕이고 지금까지 특별한 전교를 내리지 않았던 것은,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옛법이 있으므로 단지 거행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해서였다. 그리고 또 해이해진 뒤끝에 다시 신명하고자 하면 어찌 지나치게 가혹하게 하는 일이 없겠는가? 그런데도 문을 지키고 길을 막는 등 법에도 없는 거조를 하였다는 것은 한갓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뜻과 상반될 뿐이다. 잘못을 답습하지 말라는 뜻으로 접견하는 자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신하들에게 직접 유시하였는데도 경기감사는 듣지 못한 듯하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이 분부하는 것이니



기강과 거조에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데도 영이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사의 죄이니 어찌 벌을 면하겠는가?”

하고, 이어 경기감사에게 유시하기를,

“연래에 길목을 지키고 짐바리를 수색하는 등 법에도 없는 거조를 함부로 하였는데 여러 고을들이 법을 범하여 거의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은 고을이 없었다. 그런데도 근무 평정에 하를 써넣거나 혹 장계를 올려 파직시켜 내쫓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가장 외람되고 더욱 무엄한 무리들에 대해 이와 같이 하고서야 기강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이미 길을 막아 백성들을 소요시킨 데 관계된 자들 중에 관부(官府)의 시하(侍下)를 제외하고 함부로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선 엄하게 금지시키고, 먼저 발각되는 자부터 계문하여 논죄하라. 전에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데 경이 아직까지도 아무말 없이 잠자코 있었으니, 경이 법을 봉행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선은 잘 몰라서 그랬다고 덮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 보고자 하니, 이러한 뜻을 모두 잘 알도록 하라.”

#### ▶ 51권 23년 5월 27일 甲申

明禮宮、壽進宮、於義宮、龍洞宮貿易奴，勒買作弊於猪廬，備邊司覈實以聞，教以：  
“牛肉勒買之弊，嚴禁何如，則猪廬行惡，又現發？勿論多寡踈數，名以宮房之屬，一有干禁者，其律宜用加於凡民幾倍矣。內司奴屬及首奴漢，令刑曹用右律，犯科宮奴，亦令該曹嚴治。猪廬若此，後前嚴禁之懸房，亦必依舊。卽爲查問草記。次知中官之不能操切，駭然甚矣。昨日本司盤覈之事，仍爲掩置，此弊一開，來頭中官輩掩蔽之奸僞，何以防之？該中官所當別樣嚴治。而年過七十，爲先令該府拿處，施以流三千里之律，收贖放送。不爲來告首吏，流一千五百里後。又有討索作挐於懸房，命宮屬嚴刑定配，次知中官，削名內侍府。”

명례궁(明禮宮), 수진궁(壽進宮), 어의궁(於義宮), 용동궁(龍洞宮)의 무역하는 종놈들이 돼지전[猪廬]에서 강제로 매매를 하며 폐단을 일으켰는데, 비변사가 사실을 조사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쇠고기를 강제로 사들이는 폐단을 엄금하기를 어떻게 하였으면 돼지전에서의 악행이 또 드러났단 말인가. 수량이나 횡수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명색이 궁방(宮房)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금법을 한번이라도 범한 자는 일반 백성들보다 몇 배의 죄를 더 주어야 한다. 내수사의 종 및 우두머리 종놈은 형조로 하여금 위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죄과를 범한 궁방의 종들도 또한 해조로 하여금 엄하게 다스리게 하라. 돼지전이 이와 같다면 전부터 엄금해 오던 현방(懸房)도 필시 예전과 같을 것이다. 즉시 조사하여 적어 아뢰도록 하라.

담당 중관(中官)이 엄하게 단속하지 못한 것도 매우 놀라운 일이다. 어제 본사에서 조사하는 일을 그대로 덮어두었는데, 이 폐단이 한번 열리면 앞으로 중관들이 덮어주고 가려주면서 간사하게 속임수를 쓰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는가? 해당 중관은 마땅히 엄하게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다스러야 한다. 다만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우선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잡아다 처분하여 유삼천리(流三千里)의 법률을 적용하여 속전(贖錢)을 받고 석방하도록 하라. 와서 보고하지 아니한 우두머리 서리는 유 일천 오백 리에 처하도록 하라.

이 뒤에 또 현방에서 토색질을 하며 폐단을 부리는 자가 있으면, 궁방의 하인들은 엄한 형벌을 가하여 귀양을 보낼 것이며 담당 중관은 내시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 ▶ 54권 24년 4월 16일 戊戌

召見御史權峻. 上, 謂峻曰: “三陟燒戶, 近於官門, 結構奠接之道, 猶勝於外村耶?” 峻曰: “吏戶居半, 故營構大勝於村民, 今已畢奠接矣.” 上曰: “平海則年事民弊何如? 而本邑漁戶, 猶有三十餘兩徵出之弊云, 御史下往後, 果已釐正耶?” 峻曰: “今則夫爲釐正, 而昨年年事稍登, 故幾皆安保矣.” 上曰: “向來嶺東邑海弊釐正之後, 海夫之前日出沒於十丈水者, 今則不入於數丈淺流, 此不爲也, 非不能也. 以此觀之, 雖竝除魚鹽之船稅, 其弊則當如前. 近聞海夫輩, 或有擡冠者, 然否? 承旨曾爲此地御史, 想備諳民俗矣.” 承旨趙弘鎮曰: “大抵陸民之視海夫, 殆同屠牛(坦). 一錄於海案, 無得與平民相抗, 故渠輩子孫, 皆諱渠祖之爲海夫. 旣自朝家, 夫祛海弊, 則渠輩必欲雪其前羞. 其中不無擡冠讀書者云矣.” 上曰: “民固不知足也. 甚至些少進上物種并除之, 然後當快於心, 而不然也故, 尙云有弊端耶? 兼春秋曾經該邑, 癸卯以後, 果何如?” 兼春秋金啓濂曰: “一自海弊釐革後, 昔之衣服藍縷者, 全不應役矣.” 上曰: “此亦侈靡之一端矣. 松政則近來何如?” 峻曰: “書啓所陳外, 別無犯斫之可達者矣.” 上曰: “廟堂之先爲糾察者, 卽松政一事也. 爾於還任之路, 言于道伯, 各別禁斷, 而若逢着守令輩, 另加申飭.”

어사 권준을 불러 접견하였다. 상이 권준에게 이르기를,  
“삼척의 불탄 가구들은 관가의 문에서 가깝다 하는데 새로 집을 지어 들어가서 사는 상황이 바깥 마을보다는 좀 낫던가?”  
하니, 권준이 아뢰기를,  
“아전의 집이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새로 집을 짓는 것이 민가보다 훨씬 나아 이제는 전부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해(平海)는 농사 형편과 민폐가 어떻던가? 그리고 본읍의 어호(漁戶)에 30여 냥을 징수해 내는 폐단이 있었다 하는데, 어사가 내려간 뒤에 과연 이미 시정하였던가?”  
하니, 권준이 아뢰기를,  
“지금은 완전히 시정되었으며 지난해에 농사 형편이 조금 좋았기 때문에 거의 다 안정이 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전에 영동(嶺東) 고을 어부에 대한 폐단을 시정한 뒤로 그전에는 열 길 물속에 드나들

던 어부가 지금은 두세 길 얇은 물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하니, 이는 하지를 얹아서이지 못해서가 아니다. 이로써 보면 어염(漁鹽)의 선세(船稅)를 다 없애더라도 그 폐단은 분명히 예전과 같을 것이다. 요즘 들어보면 어부들 가운데 갓을 쓴 자도 있다 하는데 사실 그렇던가? 승지는 일찍이 그 지방의 어사로 나갔으므로 아마도 민속을 잘 알 것 같다.”

하니, 승지 조홍진(趙弘鎭)이 아뢰기를,

“대체로 육지 백성이 어부를 보는 것은 거의 소 잡는 백정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번 해안(海案)에 이름이 기록되기만 하면 평민과 서로 겨룰 수 없으므로 그들의 자손은 모두 그들 할아버지가 어부라는 사실을 숨깁니다. 이미 조정에서 어부에 대한 폐단을 없애주었으니, 그들은 반드시 지난날의 수치를 씻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갓을 쓰고 글을 읽는 자도 없지 않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백성은 참으로 만족해 할 줄 모른다. 심지어 사소한 진상품까지 모조리 없앤 뒤에야 마음이 시원할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폐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겸춘추(兼春秋)는 일찍이 그 고을 수령을 지냈는데, 계묘년 이후에는 과연 어떻던가?”

하니, 겸춘추 김계렴(金啓)이 아뢰기를,

“한번 어부에 대한 폐단을 시정하여 고친 뒤로는 과거에 남루한 옷을 입던 자들이 전혀 부역에 응하지 않았습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또한 사치 풍조의 일단이다. 송정(松政)은 요즘 어떻던가?”

하니, 권준이 아뢰기를,

“서계(書啓)에서 아뢴 것 이외에 범작(犯斫)에 관해 아뢴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묘당에서 우선적으로 규찰할 것은 곧 송정 한 가지 일이다. 그대는 임지로 돌아가는 길에 감사에게 말해 각별히 단속하도록 하고 만일 수령들을 만나거든 잘 당부하라.”

하였다.

## ▶ 54권 24년 윤4월 26일 戊寅

前持平康聖翊上疏曰：

“濟州之頻值歉荒，軫沿邑之移粟，自備局移關本州，設庫收穀，豫備饑歲，故其時牧使，辦備數千石穀，新設別庫，分置三邑，爲島民救荒之策。第念本州自春至秋，颶風瘴雨，無日不作，雖村閭房室之內，甕罍包橐之儲，未及數年，腐敗生綠，隨手糜粉，竟爲不可食之物，自古島中無儲穀，良由於此。又況土築之庫，委積之穀，安保其經蠹不敗歷歲不腐乎？島民之無知，皆以爲‘此後賑政，惟靠於是移來一節，其路永塞，數萬民口，將何所恃乎’，衆口一談，爭言不便。臣竊以爲新庫所儲，量宜變通，以其他逐年糶糴之穀，擇取其精實者，換置新庫，歲一改色，則於此於彼，兩全而無害。伏乞令廟堂稟處。且以本州國馬欠縮言之。甲乙之歉，前古(已)〔未〕有，人命之重，未遑相保，牛馬之賤，尤無可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論, 國屯之故斃, 至於一千五百零. 其時牧使, ‘以荒年之餘, 勢難代徵之由’ 狀聞, 則備局 ‘許寬五年之限, 準數徵捧’ 事, 有所關下, 今年卽當捧之年. 而數年之間, 牧卒之飢故, 其數夥然, 白骨徵出, 已無可言, 而徵族徵隣, 勢所必至. 所謂私畜, 十空七八, 官令雖嚴, 何處質納乎? 邇來國畜漸就蕃息, 計今見在之數, 比諸甲乙以前之摠, 猶爲剩餘矣. 臣出海之時, 殘氓疲卒之呼訴於船頭者, 數日不絕, 此實一島之民情. 臣何敢有聞不達.” 批曰: “爾以待從中在遐外之人, 而有此民弊之指陳, 甚可嘉也. 穀品之設庫備置, 其時大臣筵奏, 出於爲島民俾免坐待海外之輸致, 意固美矣, 爾言亦有意見, 許令廟堂, 草記稟處, 以爲兩便之地. 馬政事, 公畜既蕃於前摠, 則何必更徵於牧屬乎? 徵族徵隣, 其弊自當歸於牧屬外平民, 寧不矜甚? 新倅之尙無一言, 可謂溺職. 卽令廟堂, 關問其剩摠, 不卽報司之委折, 使之論理狀聞, 而回下前, 切勿更徵. 以爾爲掌令, 此後登筵, 更以島中事陳之.”

전 지평 강성익(康聖翊)이 상소하기를,

“제주 지방이 자주 흉년을 만나고 연읍(沿邑)에서 곡식을 수송해 오는 폐단을 근심하여 비국에서 본주에 공문을 보내 창고를 설치하여 곡식을 거두어 흉년을 대비하라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목사가 곡식 수천 석을 마련한 뒤에 별도의 창고를 세 고을에 신설하여 섬백성의 구황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본주는 봄부터 가을까지 축축하고 후덥지근한 비바람이 없는 날이 없기 때문에 촌가의 방안에 향아리며 자루 속에 놓아둔 곡식이라도 몇년도 되지 않아 썩어 곰팡이가 생기므로 손만 대면 가루가 되어 끝내 먹지 못할 물건이 되고 마니, 옛날부터 섬 안에 저축해 둔 곡식이 없는 것은 실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또 더구나 흙으로 쌓은 창고에 많이 쌓아둔 곡식이 장마를 치러도 팬참고 여러 해를 넘겨도 썩지 않는다고 어찌 보장하겠습니까.

무지한 섬 백성들은 모두 생각하기를 ‘앞으로 나라에서 구제해 주는 일은 이 창고만 의지할 뿐 곡식을 옮겨오는 문제는 그 길이 영원히 막히게 되었으니, 수만 명의 백성들이 장차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고, 이구동성으로 그 제도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은 삼가 생각건대, 새로 설치한 창고에 저축해 둔 것을 적당한 수량을 헤아려 변통하되 꾸어주었다가 받아들인 다른 지방의 환자곡 가운데 잘 마르고 알찬 것을 골라 해마다 한 번씩 새 창고의 것과 바꾼다면 이쪽이나 저쪽이 다 온전하여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아울러 본주의 국둔마(國屯馬)의 수요가 감축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인·을묘년의 흉작은 역사상 일찍이 그 유례가 없던 일로서 소중한 인명도 미처 보전하지 못한 판국이라 미천한 마소야 더 말할 나위가 없었으니, 쓰러져 죽은 국둔마의 수요가 1천 5백 마리에 달했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가 ‘흉년을 치른 뒤라서 형편이 대징(代徵)을 하기가 어렵다.’는 사유로 장계를 올리자 비국에서 ‘5년을 기한으로 그때에 가서 전량 받아들일 것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공문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금년이 곧 받아들여야 할 해입니다. 그런데 몇해 사이에 굶어 죽은 목졸(牧卒)이 수없이 많아 죽은 사람의 몫으로 징수해 내는 일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겨레불이나 이웃사람에게 징수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말 형편입니다. 이른바 개인소유로 기르는 것도 열 가구 중에 일곱 여덟 가구는 비었으니 관가의 명령이 아무리 엄

중하더라도 어디서 사들여 바치겠습니까. 요즘에 와서 국가 소유로 기르는 말이 차츰 늘어나 현재의 수효를 감인·을묘년 이전의 수효와 비교해 볼 때 조금 여유가 있는 형편입니다. 신이 육지로 나오려 할 때 뱃머리에서 호소하는 잔악한 백성과 목졸들이 며칠동안 끊이지 않고 찾아왔으니, 이는 실로 온 섬안의 민정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한번 들은 일을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그대는 시종신 가운데 먼 지방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민폐를 지적하여 아뢰었으니, 매우 가상하다. 곡물을 창고를 설치해 비치하자는 것은 그 당시 대신이 연석에서 아뢴 때, 섬 백성을 위해 그들이 육지에서 보내오는 곡식을 앓아서 기다리는 것을 면하게 해 주자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의도는 사실 좋았는데, 그대의 말도 일리가 있으므로 묘당으로 하여금 초기(草記)로 품쳐하게 하여 양쪽이 다 편리하게 하겠다. 마정(馬政)에 관한 일은 공축(公畜)이 이미 앞서의 수효보다 늘어났다면 어찌 굳이 또 목졸에게 징수할 것이 있겠는가? 겨레불이와 이웃사람에게 징수하면 그 폐단은 저절로 목졸 이외의 평민에게 돌아갈 것이니, 어찌 매우 불쌍한 일이 아닌가. 새로 부임한 수령이 아직까지 그에 관해 한마디 말도 없는 것은 그 직무를 유기했다 할 수 있다.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공문을 띄워 그 수효가 남은 사실을 즉시 해사에 보고하지 않은 곡절을 묻고 그로 하여금 조리 있게 장계로 보고하게 할 것이며 회답이 내려가기 전에는 절대로 더 징수하지 말게 하라. 그대를 장령으로 삼겠으니 나중에 연석에 올라올 때 다시 섬 안의 일을 아뢰어라.”

하였다.

## ▶ 54권 24년 5월 2일 癸未

左議政沈煥之啓言：“言而禁之，是謂防民，古語云：‘防民，甚於防川’，謂不可防也。今設法而禁，三司不得言某事某事者，非聖世之事也。惟我聖上，學貫天人，德侔堯、舜，但此一事，抑有愧於漢、唐中主，而甚至有依啓而不下傳旨者矣。今殿下一言一動，皆爲春宮法，奚但爲天下萬世法哉？伏願亟收禁言之令，以光聖德，以靖世道焉。”上曰：“設禁不得已也，傳旨之未下，非其時也。”煥之曰：“聖人固有不得已之事，如不得已而用兵者，亦何嘗經年閱歲，久而未已乎？且用言之道，言可用則用之，言不可用則置之，又或可罪則罪之而已。以此設禁，俾不得言，于今幾年，尙靳反汗之音，此豈聖世之所宜有哉？”上曰：“卿言好矣。大抵禁令云者，如國典之牛酒松，外此凡百禁令，皆欲使民，不犯于有司也。今則在法當勘者，以言設禁，使之言此而不得言。彼書之臺閣，付之院壁，臺臣眩於舉行，入院者多不知爲何事，古往今來，寧有如許國體，而後世若又引用，則其弊當如何哉？此亦時措之宜，而有不獲已者存焉。苟使朝廷之上，舉措稱停，雖或有參差異同之論，奉承違拂之間，若能有一副規模，則初何至於設禁而防之乎？於是，不得已有禁令，而近來風俗，比前稍勝，若使俗弊丕變，朝象改觀，則禁令之收還，亦非難事矣。”

이하생략~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좌의정 심환지(沈煥之)가 아뢰기를,

“말을 하지 못하게 금하는 것은 곧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을 뜻하는데 옛말에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냇물을 막는 일보다 어렵다’ 하였으니,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특별한 법을 만들어 삼사(三司)에게 어떤 일과 어떤 일은 말을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은 어진 임금의 다스리는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상께서는 학문은 천인(天人)을 통달하고 덕은 요순과 어깨를 나란히 하시지만 이 한 가지 일만은 한당(漢唐) 시대 평범한 군주보다 못하여, 아뢰 대로 하라고 윤허를 하시고서도 전지(傳旨)를 내리지 않는 일까지 있습니다. 전하의 한 마디 말씀과 한 가지 동작은 다 동궁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니 어찌 천하 만대의 법만 되겠습니까. 삼가 원컨대 말을 하지 못하게 한 금령을 빨리 거두어 성덕(聖德)을 빛내고 세도(世道)를 안정시키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령을 만든 것은 부득이한 조치이며, 전지를 내리지 않은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이다.”

하니, 환지가 아뢰기를,

“성인이라도 사실 부득이한 일이 있는 법이니, 이를테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벌이는 경우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찌 여러 해를 넘겨가면서 오랫동안 계속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채용하는 도리는 어떤 말이 채용할 만하면 채용하고 채용할 수 없으면 도외시해 버리며 또 혹시 죄를 줘야 한다면 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금령을 만들어 그에 대해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명을 거두지 않으시니, 이 어찌 어진 임금의 다스리는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은 좋다. 대체로 금령이라는 것은 국법으로 정한 바 소 잡는 일, 술을 빚는 일, 소나무를 베는 일을 금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밖의 여러 가지 금령은 모두 백성으로 하여금 유사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법으로 보아 마땅히 조사해야 할 일을, 말을 못하게 하는 금령을 만들어 이것은 말을 하고 저것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대각(臺閣)에 써놓고 승정원 벽에 붙여 두어, 간관은 어떻게 거행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승정원에 들어온 자는 대부분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니, 고금에 어찌 이와 같은 나라의 체면이 있겠으며 후세에 만일 또 이것을 인용한다면 그 폐단이 과연 어떻겠는가? 그러나 이 또한 특정한 때의 경우에 맞게 조처한 일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 조정안에서 조처하는 일이 법도에 들어맞아, 이러쿵저러쿵 서로 맞지 않는 말들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의 명을 받들거나 거부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규모가 있었다면 처음에 어찌 금령을 만들어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았겠는가?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금령이 생겼던 것인데, 근래에는 풍속이 예전에 비해 조금 나아졌으니 만일 나쁜 풍속이 크게 변하고 조정의 기상이 바뀐다면 금령을 거두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였다.

이하생략~

## 27. 純祖實錄

### ▶ 2권 1년 4월 5일 辛亥

校理鄭晩錫疏. 略曰:

顧今朝廷之上，姑息是務，而無奮勵之舉，虛偽成習，而無核實之政。急於營私，而絕希見義，若嗜之風，工於謀身。而罕有憂國如家之人，民憂國計，不知那邊，擔却禮義廉恥，不識甚件物事，譬如萬斛巨艦，放在大洋，而去碇失舵，衣裯無備，一遇風浪，安所止泊也。似此恬嬉兪惰之象，比之一二年前，不知落下幾層，臣實太息流涕之不已也。今日所當言者，不勝其衆，難以毛舉，而先以爲治切急之要，爲殿下陳之。其目有三，曰講學以立治本，曰親賢以資治術，曰安民以成治功。所謂講學以立治本者。昔殷高宗亮陰三年，恭默思道，以致嘉靖殷邦。其天姿德性，隣於生知，宜無所事乎學，而高宗猶曰，‘台小子舊學于甘盤。’傳說又告之曰，‘惟學遜志，念終始典于學。’且夫子之‘從心所欲不踰矩，未嘗不本於十五之志于學，則雖生知之聖，亦必資學而成之也。’朱子曰，‘天下之大本，在人主之一心，人主之心正，則天下事無有不正，人主之心不正，則天下事無由得正。’然則爲人主者，當以正心爲先，而但本心之善，其體至微，利慾之攻其端甚衆，故必考稽經、史，窮理居敬，然後虛靈本體，湛然常存。而凡天下事之是非・得失、人之邪正・醇疵，瞭乎心目之間，不容毫髮之隱，而沛然應夫千變萬化，其端無窮之幾矣。所謂親賢以資治術者。昔諸葛亮有言曰，‘親賢臣，遠小人，此先漢所以興隆也，親小人，遠賢臣，此後漢所以傾頽也。’程夫子亦曰，‘人主一日之中，親賢士大夫之時多，親宦官宮妾之時，少，則可以涵養氣質，薰陶德性。’此皆切至之論也。故朱子嘗舉此爲言，而深惜其兩君之不能用，此豈非後世人主之所當鑑戒也耶？竊聞殿下自昨年來，軍職之昵侍近密者、掖屬之別作名色者，次第汰出。夫韎韐不學，類多僂薄，賤流嗜利，徒事儉媚，此皆易惑聖心，易累聖政，而一朝退而遠之。此政朱夫子所謂，‘內自禁闥，外徹朝廷，洞然無毫髮私邪之間者’也。既又屢降綸綍，招延賢德，積玉之藏愈深，而束帛之禮益勤，遠近傳聞，無不聳動欽歎。誠能推是力行，慎終如始，則夫何難乎小往大來，朝著清明也？惟殿下，廓天地之公，昭日月之明，聽言觀行，辨別賢邪，博詢精擇，惟賢必得，得之惟恐不任，任之惟恐不專。與之講劇經籍，與之討論治道，雖在燕閒，頻賜召接，虛心和顏，受其忠益，則聖德日新，聖治日隆矣。所謂安民以成治功者。蓋君依於國，國依於民，民心之向背，而國家之安危係焉。是故古之爲民父母者，必保之如赤子，省刑薄斂，匡翼振德，使各樂其樂，利其利而享受祈天永命之休矣。念彼蔀屋生涯，終歲盼盼，糞壤灌畦，播種芟草，星出而携耒提鋤，露歸而霑體塗足。雨暘寒暑，喫苦飫辛，及秋登場，不盈車箱，數口計糊，旬僅三食。此際縣吏，如虎徵租絲，并督倉糴，瓶罄杼空，太半未輸。於是乎賣田析屋，貨牛鬻子，無所不至。隣族之替徵、營邑之別徭，與夫不記歲年之舊糴，又從而火督，剝肉醫瘡，勢單力竭，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速獄忍扑, 怨咨無告. 豐歲猶尙如此, 況值凶歉乎? 又況有田宅有牛畜者, 凡幾人哉? 孟子所云, ‘樂歲終身苦, 凶年不免於死亡’者, 政謂是也. 竊聞殿下特罷內司奴婢, 燒其官籍, 永爲良民. 嗚呼! 先大王惻怛如傷, 矯革未究之事, 而殿下初元發政, 首先行之, 遠近鼓舞, 歡聲若雷. 聖孝之繼述, 孰不欽仰? 而天命之迓續, 實基於此. 昔齊王以羊易牛, 而孟子謂之, 以‘是心足以王.’ 宋帝避螻蛄, 而程子勸之以推及四海. 今此幾萬口奴婢, 不啻一牛一蠅之比, 而仁心所及, 加於兩君萬萬, 誠能推是力行, 慎終如始, 何遠之不覃, 何衆之不濟? 惟殿下誕保我祖宗受民, 懷綏之, 惠鮮之, 節用以紓其力, 務本以厚其生, 均役以奠其業, 懲貪以祛其害焉. 蓋此三說者, 雖若各爲一事, 其實本無二致. 而講學爲其本焉, 一或學之不講, 心有不正, 則雖憊精勞力, 以求親賢, 而賢人終不可得, 以求安民, 而民生終不可保. 中國授室, 徒爲文具, 河內移粟, 未見實效矣.

批曰: “三條所陳, 語甚切至, 可見忠愛之意. 近日上疏中初見, 豈不服膺? 爾其勿辭, 從速察職, 頻參講席.”

교리 정만석(鄭晩錫)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돌아보건대, 지금 조정에서는 고식적인 것만 힘쓰고 있어서 분발하여 힘쓰는 일이 없으며, 허위가 버릇이 되어서 실상을 조사해서 밝히는 정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리(私利)를 경영하는 데 급급하여 정의를 실행하는 일이 매우 드물고, 기완(嗜玩)의 풍습은 자신을 위한 계모에 공교합니다. 따라서 집안일처럼 나라를 근심하는 사람이 드물어서 민우(民憂)와 국계(國計)는 어디로 치웠는지 알지 못하고 예의와 염치는 어떤 사물인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비유하건대, 이는 만斛(萬斛)을 실은 거함(巨艦)이 대양(大洋)에 떠 있다가 닻과 키를 잃어버리고 아무 대비도 없이 한 번 풍랑을 만났을 경우 어디에 정박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안일하고 게으른 풍습이 1, 2년 전에 견주어 몇 층이나 낙하(落下)되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이니, 신은 실로 크게 탄식하며 흐르는 눈물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마땅히 말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낱말이 거론하기가 어려우니, 우선 다스리는 방도에 있어서 절급한 요체만 전하를 위해 진달하고자 합니다. 그 조목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강학(講學)함으로써 치본(治本)을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어진 이를 가까이 함으로써 치술(治術)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백성을 편안히 살게 하여 치공(治功)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른바 강학함으로써 치본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은(殷)나라 고종(高宗)은 3년 동안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공손한 태도를 견지하여 묵묵히 올바른 도(道)만 생각함으로써 은나라를 안정되게 하였습니다. 그 뛰어난 자질과 덕성(德性)이 생지(生知)에 가까워서 마땅히 학문을 일삼을 것이 없었으나, 고종은 오히려 말하기를, ‘이 소자(小子)가 옛날에 감반(甘盤)에게 배웠다.’ 하였고, 부열(傅悅)이 또 고하기를, ‘배움에 있어서는 오로지 겸손한 뜻을 지녀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학문에 힘쓰소서.’ 하였습니다. 또 공부자(孔夫子)는, ‘70세가 되어 마음 내키는 대로 하였으나, 법도를 넘어서는 일이 없었다.’고 하였는데 일찍이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던 것을 근본으로 삼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비록 생지(生知)의 성인(聖人)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학문에 힘입어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천하의大本(大本)은 인주(人主)의 일심(一心)에 달려 있으므로, 인주의 마음이 올바르면 천하에 올바르지 않은 일이 없을 것이고, 인주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천하의 일은 올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주가 된 사람은 마땅히 마음을 올바르게 갖는 것[正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할 것인데, 단지 사람은 그 본심의 착한 바탕이 지극히 미소(微小)한데 이욕(利慾)의 공격하는 단서가 매우 많으므로, 반드시 경사(經史)를 상고해서 헤아려 보며 이치를 탐구하고 경(敬)으로써 덕성을 함양한 연후에야 허령(虛靈)의 본체(本體)가 편안한 가운데 항상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천하의 일에 있어서 시비(是非)·득실(得失)과 사람에게 있어서 사정(邪正)·순자(醇疵)는 마음과 눈 사이에 명료하여 털끝만큼도 숨길 수 없어 패연히 천만 가지 변화에 응하는 것이니, 그 단서는 무궁한 빌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어진 이를 가까이 함으로써 치술(治術)에 도움이 되게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갈량(諸葛亮)이 말하기를, ‘현신(賢臣)을 가까이 하고 소인(小人)을 멀리한 까닭에 전한(前漢)은 흥성(興盛)했었고, 소인을 가까이 하고 현신을 멀리한 까닭에 후한(後漢)은 기울어져 멸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정 부자(程夫子) 또한 말하기를, ‘인주(人主)는 하루 가운데 어진 사대부(士大夫)를 가까이 하는 때가 많고 환관(宦官)·궁첩(宮妾)을 가까이 할 때가 적어야 기질을 함양하고 덕성을 훈도(薰陶)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지극히 절실한 의논입니다. 그러므로 주자가 일찍이 이를 들어 말하여 그 두 임금이 임용에 능하지 못했던 것을 매우 애석하게 여겼으니, 이것이 어찌 후세의 인주들이 마땅히 거울로 삼아 경계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적이 듣건대, 전하께서는 작년 이래로 군직(軍職) 가운데 친근한 근밀(近密)과 액속(掖屬) 가운데 따로 명색(名色)을 짓는 자들을 차례로 태거(汰去)하였다고 합니다. 대저 무관(武官)은 학문을 익히지 않은 까닭에 대부분 경박(輕薄)한 자가 많고 미천한 무리는 이익을 좋아하여 한갓 아첨하기를 일삼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심(聖心)을 현혹시키기 쉽고 성정(聖政)에 누를 끼치기 쉬우니, 하루아침에 물리쳐서 멀리해야 합니다. 이는 바로 주 부자(朱夫子)의 이른바 안으로 금달(禁)에서부터 밖으로 조정에 이르기까지 명백하여 털끝만큼도 사사롭고 간사한 틈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또 여러 번 윤발(綸)을 내려서 어질고도 덕망을 갖춘 사람들을 불러 들였는데 지조를 더욱 굳게 지켜 징소(徵召)에 응하지 않으니 예폐(禮幣)의 절차가 더욱 은근하고 간절했으므로 멀고 가까운 곳에서 전해 듣고 용동(聳動)하며 흠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실로 이를 미루어 끝까지 처음에 한 것처럼 신중하게 힘써 행하신다면, 대저 소인(小人)은 물리치고 대인(大人)은 나오게 하여 조정이 청명해질 수 있게 하는 일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오직 전하께서는 천지의 공변됨을 확장하고 일월(日月)같은 밝음을 발휘하셔서 말을 듣고 행실을 살펴보아 어질고 간사함을 변별(辨別)하시되, 널리 묻고 정밀하게 가려서 오직 어진 이 얻기를 기필하고 어진 이를 얻었으면 임용하지 못할까 걱정하며 이미 임용하였으면 전적으로 맡기지 못할까 염려하소서. 그리고 더불어 경적(經籍)을 강마(講磨)하시고 더불어 치도(治道)를 토론하시되, 비록 한가한 때에도 자주 불러서 접견하여 공평무사한 마음과 화락한 얼굴로 그 충익(忠益)을 받아들인다면, 성덕(聖德)이 날로 새로워지고 성치(聖治)가 날로 융성해질 것입니다. 이른바 백성을 편안히 살게 함으로써 치공(治功)을 이룬다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뢰하고 나라는 백성에게 의뢰하므로, 민심(民心)의 향배(向背)는 국가의安危(安危)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백성의 부모가 된 이는 반드시 적자(赤子)를 보살피듯 하여 형벌을 줄이고 세금을 적게 매겨서 이들을 감싸주고 혜택(惠澤)을 주어 각각 그 즐거움을 즐기고 그 이익을 이용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장원(長遠)하고 아름다운 운명(運命)을 누리도록 하였습니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다. 저 오막살이에 사는 백성들의 생애를 생각하건대, 해가 다하도록 수고하여 땅에 거름을 주고 물을 대며 씨를 뿌리고 김을 매는데 새벽에 쟁기와 호미를 들고 들판에 나갔다가 밤이슬을 맞으며 땀에 젖은 몸과 진흙에 더럽혀진 발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비가 오거나 햇별이 나거나 춥거나 덥거나 온갖 고생을 다 겪는데, 가을이 되어 수확하더라도 공간을 채우지 못하니, 몇 식구의 호구(糊口)를 계산해 보면 10일 동안 겨우 세 끼 밖에 먹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즈음에 현리(縣吏)가 호랑이처럼 사납게 굴면서 온갖 세금을 거두고, 아울러 환곡(還穀)을 독촉하니 모든 것이 죄다 떨어져 텅 비게 되어도 절반 이상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전답(田畓)을 팔고 집을 팔며 소를 팔고 어린아이를 파는 등 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족(族)의 침징(侵徵)과 영읍(營邑)의 별요(別)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해묵은 환곡을 또 따라서 성화같이 독촉하여 마치 살을 깎아 종기를 치료하듯이 하니, 형세가 고단하고 힘이 다한 나머지 옥에 갇혀 매질을 참으며 원망하여 탄식하면서도 고할 곳조차 없습니다. 풍년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흉년이 든 경우이겠습니까? 또 더욱이 전답과 집이 있고 소와 가축이 있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맹자(孟子)가 이른바, ‘풍년이 들어도 평생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흉년이 든 경우에는 사망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적이 듣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내사 노비(內司奴婢)를 혁파하고 그 관적(官籍)을 불태워 영구히 양민을 삼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아! 선대왕께서 부상(負傷)한 자처럼 몹시 측은하게 여기셔서 교혁(矯革)하고자 하시고서도 미처 하지 못하셨던 일인데, 전하께서 초원(初元)의 정사에 제일 먼저 이를 행하셨으니, 멀고 가까운 곳에서 고무되어 기뻐하는 소리가 마치 우레와 같았습니다. 계술(繼述)하신 성효(聖孝)를 누군들 흠양하지 않겠습니까? 천명(天命)을 이어서 맞이하는 것이 진실로 이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옛날에 제(齊)나라 선왕(宣王)은 소 대신 양을 쓰도록 하였는데, 맹자가 말하기를, ‘그러한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으면, 족히 왕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宋)나라 신종(神宗)이 땅강아지를 피하여 밟지 않으니, 정자(程子)가 이러한 마음으로 사해(四海)에 추급(推及)하게 할 것을 권면(勸勉)하였습니다. 지금 몇 만 명이나 되는 노비는 한 마리 소나 한 마리의 땅강아지에 견줄 것이 아니니 어진 마음이 미치는 바가 두 임금보다 몇 만 갑절이 되는데, 진실로 이것을 미루어 끝까지 처음에 한 것처럼 신중하게 힘껏 행하신다면, 어찌 원방(遠方)에까지 은혜가 미치지 않겠으며, 어찌 여러 사람을 구제하지 못하겠습니까? 오직 전하께서는 우리 조종(祖宗)에게 물려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여 무마(撫摩)하고 돌보아 주실 것이며, 용도를 절약함으로써 그 힘을 퍼게 하시고, 근본에 힘쓰심으로써 그 삶을 넉넉하게 하시며, 부역을 고르게 함으로써 생업(生業)이 안정되게 하고, 탐학을 경계함으로써 그 폐해가 제거될 수 있게 하소서. 이 세 가지 말은 비록 각각 한 가지 일이 되는 것 같으나, 실제의 근본은 두 가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학(講學)을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혹시라도 학문을 강하지 않아서 마음속에 올바르게 못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비록 정성을 들이고 노력해서 어진 이를 구하려 해도 어진 이는 끝내 얻을 수 없을 것이고, 백성이 편안하게 살 것을 구해도 백성을 마침내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 안에서 장가들어 집을 짓고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한 갓 문구(文具)가 되고, 흉년(凶年)에 다른 도(道)의 곡식을 옮겨 구제한다는 것도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세 조목은 내용이 지극히 긴절(緊切)하니 충애(忠愛)의 뜻을 볼 수가 있다. 이는 근일에 상소한 것 가운데 처음 보는 것이니, 어찌 복응(服膺)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무를 살필 것이며, 강석(講席)에 자주 참여하도록 하라.” 하였다.

▶ 3권 1년 11월 27일 庚子

庚子/藥院入診, 命牛黃膏二丸, 金銀花茶, 調入.

약원에서 입진하였는데, 우황고(牛黃膏) 두 환에 금은화차(金銀花茶) 차를 조제하여 들이라고 명하였다.

▶ 5권 3년 4월 6일 庚午

召對, 講『綱目』『東漢紀』. 至明帝幸孔子宅, 上曰: “明帝幸孔子宅, 不以太牢祀之, 只與諸王子說經, 何也?” 侍讀官元在明曰: “似當祀之矣.” 上曰: “若祀孔子, 則史之不書何也? 雖小事必書之, 而祀聖盛典也, 何不特書也? 光武亦以太牢, 祀孔子矣.”

소대하여 『통감강목(通鑑綱目)』 동한기(東漢紀)를 강하였다. 명제(明帝)가 공자(孔子)의 제택(第宅)에 거동한 데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명제가 공자의 제택에 거동하여 태뢰(太牢)로서 제사하지 않고 여러 왕자들과 경서(經書)를 논설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였는데, 시독관 원재명(元在明)이 말하기를,

“마땅히 제사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공자에게 제사지냈다면 사책(史冊)에 쓰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비록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썼는데, 성인에게 제사지내는 성전(盛典)을 어찌 특별히 쓰지 않았겠는가? 광무제(光武帝)도 또한 태뢰로써 공자에게 제사를 지냈다.” 하였다.

▶ 5권 3년 8월 9일 辛未

司諫李東植疏, 略曰:

文武恬嬉, 法綱頽弛, 以至劍契之名出, 而俗敗世壞極矣. 一種無賴之輩, 嘯聚成黨, 帶牛佩犢, 謂天不怕, 擊狗屠猪, 無日不醺, 以生刳爲家計, 以凌犯爲長技. 甚至橫行朱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門, 詬辱宰相, 突入深閨, (毆)〔毆〕搏婦女, 蔑分亂紀, 殆無餘地, 探囊拊篋, 特其細故. 在今日司寇之任者, 尤宜嚴法峻刑, 詰慝懲亂, 而既得罪人, 草草勘斷, 以致端緒幾露, 巢穴未窮, 蘖芽已綻, 根荄莫鋤, 烏在其掌邦禁之義也? 況今懲討不嚴, 芟除未盡, 邪獄餘孽, 不無更熾之患, 卽此劍契之跳踉, 乃其遺燼餘醜. 而都民之漸染誑誤, 相率入彼者, 亦罔非酒所致也. 噫! 都下長腰, 皆入於釀戶, 市上魚肉, 盡歸於酒家, 近來物價之騰踊, 民食之艱乏, 職此之由. 固知禁酒之令, 亦係撓民之端, 雖不可全然禁斷, 至於街上大釀盛肴, 豈可任他尾閭, 以貽無窮之弊乎? 伏願申飭秋曹及京兆、捕廳, 凡諸姦宄之名入劍契者, 一竝譏捕, 期於勦絕, 都下巨釀, 亦爲嚴禁, 以塞其源. 京外邪黨, 更加偵探, 以折其萌, 兩捕將之悠泛度日, 不能舉職者, 爲先捧現告, 竝施譴罷之典. 前刑曹判書蔡弘履, 亟命刊削. 前亞銓李勉兢之疏, 始以前望未復之人, 不有公議, 肆然首擬於司寇之任, 以致僚席之因此自引, 在渠道理, 固當受而爲過, 縮伏摧謝之不暇. 而乃反汲汲反冒, 盛氣噴薄, 至以大臣酬酢, 變幻其辭, 粧撰爲說, 登諸章奏, 人之無嚴, 胡至於此? 臣謂前吏曹參判李勉兢, 施以竄配之典.

批曰: “疏辭, 令廟堂稟處. 前刑判事, 何必更勘? 李勉兢事, 依施.” 尋因左相筭救, 還收李勉兢竄配之命.

사간 이동식(李東植)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문무백관(文武百官)이 게으르고 법강(法綱)이 해이해졌으며, 검계(劍契)의 이름이 나오기에 이르러 풍속이 허물어지고 세도가 무너짐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일종의 무뢰한 무리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당(黨)을 이루고, 소와 송아지를 팔아서 검(劍)을 차고 다니며 하늘을 두렵게 여기지 않고, 돈을 주렴하여 개와 돼지를 잡지 않는 날이 없으며, 약탈하는 것을 가계(家計)로 삼고, 능범(凌犯)하는 것을 장기(長技)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문(朱門)에 횡행(橫行)하여 재상을 꾸짖어 욕보이고, 깊은 규방(閨房)에 돌입하여 부녀자를 때리는 등 분의(分義)를 멸절시키고 기강을 어지럽힘이 거의 여지(餘地)가 없으니 주머니를 털고 상자를 열어 물건을 훔치는 것은 단지 자질구레한 일일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구(司寇)의 직임에 있는 자는 더욱 엄중한 법과 혹독한 형벌로써 간악한 자들을 징치(懲治)함이 마땅할 것인데, 이미 범죄한 사람을 잡아 허술하게 감단(勘斷)하고도 단서가 거의 드러났는데 소혈(巢穴)을 끝까지 조사하지 못하고 짝이 이미 났는데도 그 뿌리를 캐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방금(邦禁)을 관장하는 뜻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징토(懲討)가 엄중하지 못하여 죄다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사옥(邪獄)의 여孽(餘孽)들이 다시 치열해질 근심이 없지 않으니, 곧 이는 검계(劍契)가 함부로 날뛰던 바로 그 남은 여추(餘醜)입니다. 그런데 도성의 백성들이 점차 물들어 서로 이끌고 저들 편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또한 술의 소치가 아님이 없습니다. 아! 도하(都下)의 장요(長腰)는 모두 술을 만드는데 들어가고, 저자의 어육(魚肉)은 죄다 술집에 돌아가니, 근래에 물가가 오르고 백성들의 생활이 고생스러운 것은 주로 이런 때문입니다. 진실로 금주령(禁酒)이 또한 백성을 소요(騷擾)케 하는 단서에 관계됨을 알고 있으니, 비록 전연 금단(禁斷)할 수는 없다 하나, 거리에서 풍성한 안주에 술판을 벌이는 데 이르러서는 어떻게 낭비하는 데에 맡겨두어 무궁한 폐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추조(秋曹)와 경조(京兆)·포청(捕廳)에 신칙해서 무릇 간귀(姦貴)한 이름이 검계(劍契)에

들어간 자는 한 걸 같이 모두 기포(譏捕)해서 기필코 초절(初絶)할 것이며, 도하(都下)의 큰 양호(釀戶)도 또한 엄금함으로써 그 근원을 막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京外)의 사당(邪黨)은 거둬 정탐을 더함으로써 그 조짐을 제거하게 하고, 두 포장(捕將)이 아무 하는 일 없이 세월만 보내며 그 직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현고(現告)를 받아 아울러 견과(譴罷)의 율을 시행해야 합니다. 전 형조판서 채홍리(蔡弘履)는 빨리 간삭(刊削)의 명을 내리소서. 전 아전(亞銓) 이면궁(李勉兢)은 상소하여 처음에는 전망(前望)을 회복시키지 않은 사람으로서 공의(公議)를 무시하고 방자하게 사구(司寇)의 직임에 수망(首望)으로 주의함으로써 요석(僚席)에서 이로 인해 스스로 인책하는 데 이르렀으니, 그의 도리에 있어서는 진실로 마땅히 받아들여 자신의 허물로 삼고, 위축되어 엎드려 사죄하는 데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조금하게 험뜯으며 대단한 기세로 격렬하게 질책하였으며, 심지어는 대신(大臣)과 수작한 것으로 그 말을 변환(變幻)시켜 거짓 꾸며서 말을 만들어 장주(章奏)에 올리기에 이르렀으니, 사람으로서 무엄함이 어찌 이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신은 전 이조참판 이면궁에게 찬배(竄配)의 율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한 내용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전 형조판서에 대한 일은 어떻게 다시 감단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면궁에 대한 일은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는데, 얼마 안되어 좌상이 차자를 올려 구원함으로 인해 이면궁을 찬배시키게 한 명을 도로 거두었다.

## ▶ 9권 6년 6월 14일 庚寅

庚寅/修撰金履喬疏, 略曰:

臣伏見族姪大司憲金義淳疏本, 則其聲討祿賊也, 援引臣事與再從兄故參判金履成筵對而爲言矣. 此事之關係, 何如? 則雖微憲疏之起端, 臣固當言之. 臣期期知此賊不可緩, 殿下何至今斬允於三司之請也? 此賊以千萬古所無之逆, 凶圖莫售於當日, 傳法寔繁於其徒, 綱繆醞釀, 滋蔓難圖, 于今四十餘年之久. 而乾道不誣, 一朝黜伏, 則不留晷刻剗殄無遺, 卽一國之言也. 而殿下獨難之, 臣竊惑焉. 嗚呼! 先朝時事, 臣亦聞之, 請拭血而陳之. 再從兄之筵對也, 聖教若曰, ‘此事予亦知之, 但此罪難以名言, 且同惡之賊, 由他事而自抵誅殛者已數人. 今於旣故之物, 不欲更起事端, 自有深意, 姑且忍之.’ 然則先朝旣已昭其奸矣, 刑章之姑屈, 特未之舉耳. 噫! 此賊之始倡凶言也, 大言不諱, 煽動人心, 及其敗露, 而不容於鄉里, 則知其事者, 豈獨臣一人? 而偏受毒鋒, 幾陷危禍者, 特以臣祖父副學時榮, 辨之早而斥之嚴, 言重當時尤所忌憚, 而教戒子、侄, 世守其論, 故其積怨餘怒, 叢萃於後承, 必欲湛滅而後已也. 臣自兒少時, 習聞家內父兄, 語及漢祿, 未嘗連姓呼之, 已知漢祿之爲凶逆, 而及夫稍長, 益詳其事. 蓋親聞凶言而斥之者, 族叔金教行、從叔金毅行是也, 皆臣祖之堂內子、侄, 而毅行是猶子也. 以其言, 奔告於臣祖, 則臣祖性嚴辭峻, 以爲, ‘此由於傾軋之漸, 患失慮後, 至及於不敢言之地, 卽此萌心而發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口.’已是凶逆，顧何有於援古而證今？及至甲申以後，臣祖解謫家居，則當其時凶言未熄，餘憂猶深，臣祖每憤惋憂慮，顧語子、侄曰，‘吾今罪累且死，若輩識之。苟有立朝者，不可忘也。’明言顯斥，及聞於渠輩，則渠雖敢怒不敢言。而盜憎主人，理所必至，反生掩覆之計，與其黨，竝力擠之，使臣祖子侄，不得一日立於朝。臣之從叔故承旨金悌行，再被流竄，不得一登君門而死，臣父爲凶黨蜚語所中，至入鞠獄，再從兄履成，釋竭十年不調。惟我先大王聖明，無不照燭，察其本實，明其被擠，故臣父之蒙放於戊戌獄也，聖教若曰，‘此家素所與彼輩不同論，予所稔知。’又下判付曰，‘再被縲係，俱得白脫，可謂不辱乃父。’自是以後拂拭，臣父與再從兄，次第收用，而再從兄先被寵引，得寓沐浴之義，筵席之奏，非止一、再。雖其時有利詘，言不獲施，至今爲忠臣、義士之所腐心，然一脈正論，不遂絕於天壤之間者，實賴於此。而矧又當時聖教，昭如日星，森於鈇鉞，則此賊之爲凶窩亂本，婦、孺、耄、牧，皆可曉然知之。而獨奈世道既壞，人心愈詖，駭蚩者迷不知反，桀黠者譬不畏誅，糾結譸張，愈往愈甚，及至再從兄既沒之後，則凶黨顯事，氣焰方熾，巨慝竊相權而爲藪，妖蔭干朝議而鼓簧。賁持之計，首及臣身，必欲取必於言語之間，泯滅其已往之跡，恐嚇以生死之柄，啗說以榮利之資，浚踏顛齷，無所不至，臣以孑然弱植，固知必不免矣。而先臣之若心血誠，不敢自臣而湮沒，義理之撐天亘地，不敢自臣而磨滅，矢心堅守，以死爲期，往復辨斥，俱有證據。渠輩之百般誘脅，無奈臣何，而甘心臣家之計，於是乎益急，此憲疏所謂，‘知其事而幾陷危禍’之顛末也。噫嘻！此賊未討於當日，故凶黨之掩護迷藏，至於此極，今若既發之後，不能拔本塞源，復使芻萌而流伏，則昔日之憤，猶可洩於今日，未成之憂，將有甚於已然。伏願亟從臺閣設鞠之請，使天討大行，上以雪君親之讎，下以壹臣民之志，以鞏我四百年艱大之基。

批曰：“見爾疏，明白痛快，益知其所不知。賊祿輩之凶悖、陰譎，尤萬萬憤惋，然至於孥籍、設鞠二事，予之靳許之本意，已悉於前後諸批，爾見之，亦可諒之。凶計之可畏如彼，而大義不泯，專賴爾家諸人，予甚感歎。”

수찬 김이교(金履喬)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삼가 족질(族姪) 대사헌 김희순(金義淳)의 소본(疏本)을 보니, 그가 역적 김한록을 성토(聲討)함에 있어 신의 일과 재종형(再從兄) 고 참판 김이성(金履成)이 연대(筵對)한 것을 끌어대어 말하였습니다. 이 일의 관계됨이 어떠합니까? 비록 대사헌의 상소에서 단서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신이 진실로 당연히 말했을 것입니다. 신이 떠듬거리지만 이 역적에게 너그럽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지금까지 삼사(三司)의 청에 윤택하심을 아끼십니까? 이 역적은 천만고(千萬古)에 없었던 역적으로 흉악한 계획을 당일에 써먹을 수 없게 되자, 전법(傳法)을 그 도당(徒黨)에게 번성시켜 주도면밀하게 남을 모함하고 어려운 흉계를 무성히 펼친 지가 지금까지 40여 년이나 오래 되었는데, 건도(乾道)는 속이지 못하여 하루아침에 출복(黜伏)되었으니, 한 시각이라도 머무르지 말고 빠짐없이 배어 없애야 된다는 것이 곧 온 나라 안의 말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유독 곤란해 하시니, 신은 그욕이 의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선조(先朝) 때의 일을 신도 역시 들었으니, 청컨대 피눈물을 닦고 진달하겠습니다. 재

종형이 연대할 때에 성교(聖敎)에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나도 역시 알고 있지만 이 죄는 명언(明言)키 어렵고, 또 똑같은 흉악의 역적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저절로 저촉되어 주극(誅)된 자가 이미 몇 사람이다. 지금 이미 물고(物故)된 인물에 대하여 다시 사단(事端)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혼자 깊은 생각을 두고 아직도 또 참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조 때에 이미 그 간악함이 밝혀졌는데, 형장(刑章)을 잠시 굽히고 특별히 거행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아! 이 역적이 흉언(凶言)을 처음 창도했을 때에는 꺼림이 없이 큰소리를 쳐서 인심을 선동하였는데, 그 일이 실패되어 드러나서 향리(鄉里)에도 용납되지 못하기에 미쳤으니, 그 일을 아는 자가 어찌 유독 신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런데 독봉(毒鋒)을 치우치게 받아서 위화(危禍)에 거의 빠지게 된 사람은 특별히 신의 조부인 부제학 김시찬(金時燦)으로 일찌감치 분변하고 준엄하게 배척하였으며 말을 신중히 하여 당시에 더욱 기탄하는 바였는데, 자질(子姪)을 가르쳐 훈계하여 대대로 그 변론을 지켜 왔으므로 그 쌓인 원망과 남은 분노가 후승(後承)에게 한테 모이어 반드시 함몰 멸망시킨 다음에 그만두려고 하였습니다. 신이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부형(父兄)들이 김한록에게 말이 미치면 일찍이 성(姓)을 잇달아 부르지는 것을 익히 듣고는 이미 김한록의 흉역(凶逆)이 되었음을 알았었는데, 점점 성장하면서부터는 그 일을 더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대저 흉언을 직접 듣고서 배척했던 사람은 족숙(族叔) 김교행(金敎行)과 종숙(從叔) 김의행(金毅行)으로 이들은 모두 신의 조부 당내(堂內)의 자질인데, 김의행은 곧 친조카입니다. 그 말로써 신의 조부에게 달려와 알리자 신의 조부가 엄한 성격으로 준절히 말하기를, ‘이는 경알(傾軋)함이 점차 늘어나 잃을까를 걱정하고 뒤를 염려하는 것에 말미암아 감히 말지 못할 자리에까지 이르렀으니 곧 이는 마음에 싹트워 입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이는 흉역이니, 돌아보건대 옛일을 끌어내어서 지금 증거로 삼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갑신년 이후에 이르러서는 신의 조부가 적지(謫地)에서 풀려 집에 있었으니, 그때를 당하여 흉언이 지식되지 않았고 남은 근심이 아직도 깊어서 신의 조부는 늘 분개 한탄하고 우려하여 자질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지금 죄에 연루(連累)되었고 또 죽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알아두라. 진실로 조정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고, 분명한 말로 드러내어 배척하였는데, 그들 무리에게 들리게 되어서는 그들이 비록 감히 성내었을지라도 감히 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주인을 미워함은 이치에 반드시 오는 바로, 도리어 가리워 덮을 계책을 내어서 그 당(黨)과 더불어 힘을 모아 배제(排)하여 신 조부의 자질로 하여금 하루도 조정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신의 종숙 고 승지 김제행(金齊行)은 두 번이나 유찬(流竄)을 당하여 군문(君門)에 오르지 못하고 죽었으며, 신의 아버지는 흉당(凶黨)의 유언비어에 맞힌 바가 되어 국옥(鞠獄)에 들어가기까지 하였고, 재종형 김이성은 석갈(釋褐)한 지 10년이 되도록 조용(調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선대왕의 성명(聖明)으로 밝게 통촉하지 않으심이 없이 그 본실(本實)을 살피어 그 배제당했음을 밝혔기 때문에 신의 아버지가 무술년의 옥사(獄事)에서 석방되는 은전을 입었는데, 성교(聖敎)에 말씀하시기를, ‘이 집은 본래 저 무리들과 더불어 동론(同論)해서는 안 되는 사실을 내가 익히 아는 바이다.’ 하였고, 또 판부(判付)를 내리시기를, ‘두 번이나 유계(係)를 당했다가 함께 죄 없는 것이 판명됨을 얻었으니, 가히 아버를 옥되게 하지 아니했다고 이를 만하다.’ 하였습니다.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이로부터 그 이후로 불식(拂拭)되어 신의 아버지와 재종형이 차례로 수용(收用)되었는데, 재종형은 먼저 종인(寵引)을 입어서 목욕(沐浴)의 의리를 위탁하여 연석(筵席)에서의 주달도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습시다. 비록 그 시기가 이롭고 굴함이 있어 말이 실시됨을 얻지 못하여 지금까지 충신(忠臣)·의사(義士)의 마음 썩이는 바가 되었지만, 그러나 한 맥락의 정론(正論)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마침내 끊어지지 않은 것은 실로 여기에 힘입었습니다. 하물며 당시의 성교(聖敎)는 일성(日星)과 같이 환하고 부월(鉞)보다 삼엄하였으니, 이 역적이 흉악한 소굴과 반란의 뿌리가 되는 것은 부녀자나 어린이, 김 매고 마소 먹이는 아이라도 다 환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만, 유독 어찌하여 세도(世道)가 이미 허물어졌고 인심(人心)이 더욱 비뚤어져, 어리석은 자는 미혹되어 돌이킬 줄을 모르고 교활한 자는 강하여 주륙(誅戮)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서로 결탁하여 터무니없이 속이는 것이 갈수록 더 심해지다가, 재종형이 이미 죽은 뒤에 미쳐서는 흉당(凶黨)이 일을 마음대로 하여 대단한 기세가 바야흐로 치성하였는데, 큰 간특(姦慝)이 정승의 권병(權柄)을 훔쳐서 소인이 모여드는 곳을 만들었고, 요망한 음관(陰官)이 조정의 의논에 간여하여 교묘한 말로 남을 현혹시켰습시다. 위협해 대항하려는 계획이 댐 먼저 신의 몸에 미쳐서, 반드시 언어(言語)의 사이에서 마음대로 할 것을 취하고 그 이미 지나간 자취를 없이하려 하여, 생사(生死)시킬 수 있는 권력으로 으르고 영리(榮利)하게 한다는 밀천으로 꺾어서, 능멸하여 짓밟고 성내어 이를 갈며 이르지 않은 바가 없었으니, 신이 혈연(孑然)히 나약한 처지로 반드시 면치 못하리라는 것을 본디 알고 있었습시다만 선신(先臣)의 애쓰시던 마음과 지극했던 정성을 감히 신에게 와서 인멸(湮滅)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의리가 하늘에 닿고 땅 끝까지 뻗었던 것을 감히 신에게 와서 닳아 없어지게 해서는 안 되겠기에, 마음으로 맹세하여 굳게 지키기를 죽을 각오로 작정하여 왕복하며 밝게 배척했던 일이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무리의 갖가지 유혹하고 위협하는 짓으로도 신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자 신의 집을 마음대로 할 계획이 이에 더 급해졌으니, 이는 대사헌의 상소에 이른바 ‘그 일을 알고서 거의 위화(危禍)에 빠져 들었다.’는 전말입니다.

아! 이 역적을 당일에 성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흉당들의 감싸고 숨겨 줌이 이런 극도에 이르렀는데, 지금 만약 이미 발표된 뒤에도 능히 부리를 뽑고 근원을 막지 않아서 다시 넘어진 나무에 썩이 나고 흘러서 스며들게 둔다면, 옛날의 분노는 오히려 오늘에 줄일 수 있을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근심은 장차 이미 지나간 것보다 심함이 있을 것입니다. 삼가 원컨대, 대각(臺閣)에서 설국(設鞫)하자는 청을 빨리 좇아서 천토(天討)가 크게 행해지도록 하여, 위로 군친(君親)의 원수를 설욕하고 우리 4백 년 동안의 간대(艱大)한 기반을 튼튼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대의 상소를 보니, 명백하고 통쾌하여 그 알지 못하였던 바로 더 알게 되었다. 역적 김한록의 흉패(凶悖)·음흉(陰譎)함은 더욱 심히 분통하고 한탄스러우나, 노적(籍)과 설국의 두 가지 일에 이르러 내가 윤희를 미루는 본뜻을 이미 앞뒤의 여러 비답에서 자세히 나타냈으니, 그대도 보면 역시 양해할 것이다. 흉계(凶計)의 두려울 만함이 저와 같았는데, 대의(大義)가 민멸되지 않는 것은 오로지 그대의 집 여러 사람에게 힘입었기로 내가 심히 감탄하는 바이다.”

하였다.



▶ 12권 9년 5월 12일 辛未

~이상생략

又以屢朔亢旱，命祈雨祭，不卜日設行．載瓚又啓言：“產室設廳後，京外各衙門舉行之節，既無舊例之可據，無以指一舉行．日前筵教，有法司坐衙，懸房設屠，各處用刑，勿拘爲之之命，定以一定之期，自今著式，俾無此後迷於舉行之弊，似好矣．”教曰：“坐衙設屠，雖當朔，非臨時，勿拘爲之．既有大臣之所奏，用刑則當朔姑停．”承旨朴宗薰啓言：“產室設廳以後，臺諫傳啓與否，昔在先朝，有令政院考奏之命．其時承旨，以避嫌新啓外，雖行公臺諫，亦無詣臺傳啓，皆以呈辭呼望之意仰奏，下教若曰，‘已例果然云，以此意，兩司知悉，可也．’可據之例，既如此，似當直爲監察茶時．而不可不一經稟定，故仰達矣．”上可之．載瓚又啓言：“近來京外儒疏之頻繁，殆過於三司交章之時，未知古亦如此．而每謂設廳分徵錢財於藩閫，四都三百六十邑排定數爻，推捉邸吏，勒令先納，若或少遲，則刑杖交加，無異法司之徵債，且縱泮學下隸，推徵橫挈，無處不到，下隸亦多憑藉，甚至於攫奪市廛，毆脅百端云．昔年以此事，先朝受教，至爲截嚴，至於各司官員之借送下隸者，論罪官長，使之痛加禁斷．而今乃比前尤甚，邸吏輩莫可支堪云．分付成均館、四學、京兆，一切嚴禁，後若如此，則先自大司成京兆堂上，從重論勘．”教曰：“年前大臣，以此事提奏，而今又聞大臣所奏，其弊至今猶在云．士習如此，實爲慨歎．依所奏嚴飭京兆尹、國子長論勘事，亦爲申明定式．”吏曹判書南公轍啓言：“清州萬東廟，卽先正臣宋時烈臨命，托其門人權尙夏，義起創建者也，此是古人一間茅屋，祭昭王之義．而其後推上朝廷，增其制度，官供祭需，事體之尊重，亞於大報壇，今不可以私設祠院論矣．今聞其廟門，新經回祿，不成廟貌，而以本廟財力，無以經紀云．昔在英廟朝故相臣閔鎮遠，筵白廟事，增置祭田．其後修樂之役，又自朝家，助給軍丁，至今爲士林之美談．今此廟門改建，事役不至浩大，若得如干物力，可以措劃．若自朝廷顧助，則此雖一事，聽聞甚好，故敢達．令該道道臣，從速改建後，以公穀會減之意分付”從之．

~이상생략

또 여러 달 동안 심하게 가물었다는 것으로 기우제(祈雨祭)를 날짜를 가리지 말고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김재찬이 또 아뢰기를,

“산실청(産室廳)을 설치한 뒤, 경외(京外)의 각 아문(衙門)에서 거행하는 절목(節目)에 대해 이미 증거달 만한 구례(舊例)가 없어 하나를 지적하여 거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전의 연교(筵教)에서 법사(法司)의 좌아(坐衙)와 현방(懸房)에서 도살(屠殺)하는 것과 각처(各處)에서의 용형(用刑)에 있어 구애하지 말라는 명이 있으셨습니다만,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금부터 법식으로 드러냄으로써 이 뒤로는 거행하는 데 있어 혼란을 야기 시키는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좌아(坐衙)하고 도살(屠殺)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월(當月)이라도 임시(臨時)가 아니면 구애하지 말게 하라. 이미 대신(大臣)의 주달이 있었으니 용형(用刑)에 대해서는 당월에는 우선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승지 박종훈(朴宗薰)이 아뢰기를,

“산실청을 설치한 이후 대간(臺諫)의 전계(傳啓) 여부는 옛날 선조(先朝) 때 정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게 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그때 승지가 피혐(避嫌)하는 신계(新啓) 이외에는 비록 행공(行公)하는 대간일지라도 또한 대각(臺閣)에 나아가 전계하지 않고 모두 정사(呈辭)와 호망(呼望)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양주(仰奏)하니, 하교하시기를 ‘이왕의 전례가 과연 그러하다고 하니, 이런 내용을 양사(兩司)에 알리라.’ 하였습니다. 증거할 만한 전례가 이미 이러하니, 곧바로 감찰 다시(監察茶時)를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번 품정(稟定)을 거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양달(仰達)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김재찬이 또 아뢰기를,

“근래 경외(京外)에서 유소(儒疏)를 자주 올리는 것이 자못 삼사(三司)에서 서로 소장을 다투어 올리던 때보다 더한데 옛날에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양 청(廳)을 설치하고 번곤(藩)에서 전재(錢財)를 나누어 징수함에 있어 사도(四都) 3백 60고을에 배정(排定)된 숫자를 저리(邸吏)들을 추적해 잡아와서 강제로 먼저 바치게 하는데 만일 조금이라도 지체하게 되면 형장(刑杖)을 마구 가하는 것이 법사(法司)에서 독책하여 징수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은 물론이고 또 반학(泮學)의 하례(下隷)들을 풀어서 멋대로 잡아다가 추징(推徵)할 적에 가지 않는 곳이 없으며, 하례들도 빙자하여 저지르는 일이 많아 심지어는 시전(市廛)에서 온갖 방법으로 때리고 협박하면서 강탈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 때문에 선조(先朝)의 수교(受敎)가 지극히 엄절(嚴截)하여 각사(各司)의 관원(官員)이 하례를 차송(借送)하는 경우에 이르러서도 관장(官長)을 논죄(論罪)하여 통렬히 금단(禁斷)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에 견주어 더욱 극심하기 때문에 저리(邸吏)들이 지탱하여 견뎌낼 수 없다고 합니다. 성균관(成均館)·사학(四學)·경조(京兆)에 분부하여 일절 엄히 금단하게 하며, 이뒤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먼저 대사성과 경조의 당상부터 중한 쪽으로 논하여 감죄(勘罪)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시기를,

“연전(年前)에 대신(大臣)이, 이 일 때문에 거론하여 아뢰었었는데 이제 또 대신이 아뢰는 내용을 들으니, 그런 폐단이 아직도 있다고 한다. 사습(士習)이 이러하니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아뢴 대로 경조윤(京兆尹)·국자장(國子長)을 엄히 신칙하여 논감(論勘)하겠다는 것으로 또한 신명(申明)시키고 법식으로 정하라.”

하였다. 이조판서 남공철(南公轍)이 아뢰기를,

“청주(淸州)의 만동묘(萬東廟)는 곧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이 운명(殞命)할 적에 문인(門人) 권상하(權尙夏)에게 부탁하여 의리에 의거 창건한 것으로, 이는 옛사람이 한 칸 모옥(茅屋)에서 소왕(昭王)을 제사지낸 의리인 것입니다. 그뒤 이를 조정(朝廷)으로 추상(推上)하여 그 제도를 증가시키고 관(官)에서 제수(祭需)를 공급하게 되었으므로 사체의 존중(尊重)함이 대보단(大報壇)의 버금에 해당되니, 이제 사사로이 설립할 사원(祠院)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듣건대 그 만동묘의 문이 새로 화재를 겪었으므로 묘(廟)의 모양이 체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본묘(本廟)의 재력(財力)으로는 영건(營建)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과거 영묘조(英廟朝) 때 고 상신(相臣) 민진원(閔鎭遠)이 연석(筵席)에서 만동묘에 대한 일을 아뢰어 제전(祭田)을 증치(增置)하였는데 그뒤 수축(修築)하는 역사(役事)가 있으면 또 조가(朝家)에서 군정(軍丁)으로 도와 주었으므로 지금까지 사림(士林)에서 미담(美談)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묘문(廟門)을 다시 건립하는 것은 그 사역(事役)이 그리 호대(浩大)한 데 이르지 않는 것이니, 약간의 물력을 가지면 조획(措劃)할 수 있습니다. 만일 조정에서 돌보아 도와준다면 이것이 비록 한 가지 일이지만 사람들이 듣기에 매우 좋을 것 같기에 감히 주달합니다.海道(該道)의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속히 개건(改建)하게 한 뒤에 공곡(公穀)으로 회감(會減)하라는 내용으로 분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 12권 9년 5월 30일 己丑

~이상생략

一, 今此屯田, 皆是伐木作菑之地, 則一斧一鋤, 足爲農器. 而今、明年之內, 至於農牛, 初無可用, 姑待再明年, 水上、水下屯牛各二十隻, 勢將設置. 而所入牛價, 先爲貸下於民庫後, 以其農穀, 次次充報. 牛隻數乏, 則有不可預定, 臨時量宜加減. 一, 沿江六百里, 俱是無人之境, 秋收後, 防卒例當撤還, 穀物不可拋棄. 今年則凡百既係草創, 農穀未料多少, 姑爲從便區處. 水上則置之厚州境, 水下則置之慈城境, 明年以後, 觀其農作之善成與否, 如或穀物夥多, 則運輸與設倉間, 再作商量.】

~이상생략

1. 이번의 이 둔전(屯田)은 모두 나무를 베어내고 일구어 놓은 땅이니, 도끼 하나 호미 하나면 모두 농기(農器)가 되기에 충분하다. 금년과 명년 안에는 농우(農牛)를 세운다고 해도 애당초 쓸 데가 없으니, 우선 재명년(再明年)을 기다려 수상(水上)·수하(水下)에 둔우(屯牛)를 각각 20척(隻)씩을 사세상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드는 우가(牛價)는 우선 민고(民庫)에서 대하(貸下)한 뒤 농곡(農穀)으로 차차 충보(充報)하게 한다. 우척(牛隻)의 수효에 대해서는 미리 정할 수 없고 임시(臨時)하여 헤아려서 가감(加減)하는 것이 마땅하다.

1. 강가 6백 리(里)는 모두 사람이 거처하지 않는 곳이므로 추수(秋收)한 뒤에는 방졸(防卒)을 으레 철환(撤還)시켜야 하는데, 곡물(穀物)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금년에는 제반 일들이 이미 초창(草創)에 관계되어 농곡(農穀)의 다소(多少)를 헤아릴 수가 없으니, 우선 편의한 대로 구처하게 한다. 수상은 후주(厚州)의 지경(地境)에 곡식을 가져다 두고 수하는 자성(慈城)의 지경에 가져다 두게 하되, 내년 이후 농작의 선성(善成) 여부를 살펴서 곡물이 매우 많을 경우에는 운수(運輸)하든지 창고(倉庫)를 설치하든지간에 다시 상량(商量)토록 한다.】

## ▶ 12권 9년 6월 5일 甲午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甲午/次對. 上曰: “六次祈雨, 雨意邈然, 誠甚憫矣. 今若得雨, 則年事庶有可望乎?” 右議政金思穆曰: “趁此時, 如或得雨, 則豐年雖無望矣, 而百姓猶可爲賦稅之資矣.” 上曰: “八道總論, 則年事何如云耶?” 思穆曰: “兩西則稍勝, 而三南則移種者, 不得爲三分之一云矣.” 上曰: “見朴孝成之疏, 言開城府投石之變, 此事未知緣何而作也? 大臣亦或聞之乎?” 思穆曰: “臣亦未能詳知. 而閭巷之間, 所謂白丁者, 至甚賤者, 而不敢與常人同矣. 今聞該府有白丁者婚娶, 而着冠服, 張日傘, 故邑中之人, 因是起鬧, 亂打借官服之人, 毀撤白丁之家, 因號訴於本府, 而謂其不能嚴治其罪, 朋與作梗, 遂至投石於府衙云矣.” 上曰: “疏批今將下, 而此事亦自廟堂, 各別查實稟處, 可也.” 又教曰: “疏中又有言, ‘先朝有守令之罷軟不勝任者, 一竝斥罷’云, 此事果有之乎?” 都承旨沈象奎曰: “先朝甲寅年, 有大風大水之災, 年事大無. 其明年四月, 命諸道設賑, 其時申飭道臣, 果有斥罷守令之衰病難勝任者矣.” 上曰: “今則殿最不遠, 此舉似迫急矣.” 戶曹判書李晚秀曰: “亢旱彌月, 上下渴悶之情, 曷有極哉? 備豫救荒之政, 不可不及今爲之. 俄者大臣, 以盡誠節用之言, 仰勉矣, 誠今日之第一代天莅民之道. 而竊伏見殿下臨御以來, 經用之費, 何嘗有過重之舉? 而國用漸至於艱乏, 一年經費, 不能支一年, 臣實不知其由也. 臣謹考孝廟朝一年經費, 不過爲九萬兩, 而今則一年經費, 恰爲三十萬兩, 而猶爲不敷. 孝廟時, 國家之多事, 非比今日, 而經費之少, 則比今爲三分之一, 而猶無不足之歎. 細究其故, 則專由於自上節用之致也. 夫所謂節用者, 言之則易, 而行之不易. 節用之實, 則只在於祛奢侈而已, 而奢侈之風, 莫盛於今日. 大凡奢侈之害, 有甚於天災, 此不可以政事、言語、威令、刑罰而禁止者也. 轉移風俗之道, 只在於君上導率之化矣. 自上若有大布、大帛之治, 則下之觀感, 捷於影響者, 自然之理也.” 上嘉納之.

차대(次對)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섯 번째 기우제를 지냈는데도 비가 내릴 기미가 아득하기만 하니 참으로 매우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비가 내린다면 연사(年事)를 거의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하니, 우의정 김사목(金思穆)이 말하기를,

“이때에 혹 비가 내리게 되면 풍년은 비록 바랄 수 없겠습니다만 백성들이 그래도 부세(賦稅)의 밀천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팔도(八道)를 통틀어 논한다면 연사(年事)가 어떻다고 하던가?”

하니, 김사목이 말하기를,

“양서(兩西)는 조금 나으나 삼남(三南)의 경우는 이종(移種)하지 못한 것이 삼분의 일이 된다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박효성(朴孝成)의 상소를 보건대, 개성부(開城府)에 돌을 던진 변이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이 일이 무엇으로 연유하여 생긴 것인지 모르겠다. 대신(大臣)은 혹 들은 일이 있는가?”

하니, 김사목이 말하기를,

“신도 또한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여항(閭巷) 사이에 이른바 백정(白丁)이란 자들은 매우 비천한 자들이어서 감히 상인(常人)과도 같이하지 못하는데, 이제 듣건대 해부(該府)에 있는 백정이 혼취(婚娶)에 관복(冠服)을 입고 일산(日傘)을 받쳤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소란을 일으켜 관복을 빌려 준 사람을 난타(亂打)하고 백정의 집을 훼손(毀撤)한 다음 인하여 본부(本府)에 호소하였으나 그 죄를 엄히 다스리지 않는다고 여겨 떼지어 일어나 행패를 부리고 드디어 부아(府衙)에 돌을 던지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상소에 대한 비답(批答)을 이제 내려야 하는데, 이일 또한 묘당(廟堂)에서 각별히 사실을 조사하여 품처(稟處)하는 것이 옳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상소 내용에 또 말하기를, ‘선조(先朝) 때에는 수령으로서 노쇠하고 잔약하여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일체 아울러 척파(斥罷)시켰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과연 있었는가?”

하니, 도승지 심상규(沈象奎)가 말하기를,

“선조 갑인년에 큰 태풍과 큰 홍수의 재해(災害)가 나서 연사(年事)가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해 4월 제도(諸道)에 진장(賑場)을 설치하였는데, 그때 도신(道臣)에게 신칙하여 과연 수령 가운데 늙고 병들어 직임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는 척파시키라고 하였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은 전최(殿最)가 멀지 않았으니 이 일이 급박한 것 같다.”

하였다. 호조판서 이만수(李晩秀)가 말하기를,

“모진 가뭄이 여러 달 계속되고 있으니 상하의 목마른 듯한 안타까운 마음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구황(救荒)하는 정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지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대신(大臣)이 정성을 극진히 하고 용도를 절약하라는 말로 양면(仰勉)하였습시다만, 참으로 이것이 오늘날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에 있어 제일의 급선무인 것입니다. 삼가 살피건대, 전하께서는 임어(臨御)하신 이래 경용(經用)의 비용을 어찌 과중하게 하신 일이 있었겠습니까만, 국용(國用)이 점점 간핍(艱乏)한 데 이르게 되어 1년의 경비(經費)를 가지고 1년을 지탱할 수가 없으니, 신은 실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이 삼가 상고하건대, 효묘조(孝廟朝)의 1년 경비는 9만 냥(兩)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년의 경비가 도합 30만 냥이나 되는데도 오히려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효묘 때 국가에 일이 많은 것이 오늘날에 견줄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경비가 적었던 것은 오늘날에 비해 삼분의 일이었으나 그래도 부족하다는 탄식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상세히 따져보건대, 이는 오로지 위에서 용도를 아낀 데서 연유된 소치인 것입니다. 대저 이른바 용도를 아낀다고 하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용도를 아끼는 실상은 단지 사치(奢侈)를 제거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인데, 사치의 풍속이 오늘날보다 더 성한 적이 없습니다. 대저 사치의 폐해는 천재(天災)보다 더 극심하니, 이는 정사(政事)·언어(言語)·위령(威令)·형벌(刑罰)로 금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속(風俗)을 전이(轉移)시키는 방도는 단지 임금이 도술(導率)하는 교화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상께서 대포(大布)와 대백(大帛)을 입는 정치를 한다면 아래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그림자나 메아리보다 빠를 것은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 14권 11년 3월 30일 戊寅

~이상생략

其一, 黃澗所在守禦廳屯土, 依糧餉屯田例, 勿送屯監, 自官上納, 屯牛稅錢及犢價, 自今永蠲, 天安屯田, 每年踏驗, 俾無白徵之弊, 而舊屯稅, 依他屯例, 以錢上納事也. 黃澗等二邑屯土之京監下送, 自是該廳已例, 則作弊一款, 斷當嚴禁而已. 至於屯牛之設置, 今過六十餘年, 牛隻之見存無幾, 屯民之死亡亦久, 隣族之徵, 勢所必至, 特以寧失之意, 竝爲革罷. 而天安四屯之災傷白徵, 亦甚可駭, 自該廳一番踏驗後, 當年除免及永爲除免者, 區別定式, 舊屯之納米, 未知當初定式之如何, 而以本色租收納, 則公私兩便, 庶爲屯民紓力之道. 其一, 陰城地狹民少, 忠州石隅以西, 移屬本縣事也. 忠州石隅以西, 移屬本縣, 雖有故相金堉未徹之疏, 而割此與彼, 事難遽議. 關問該道, 與兩邑守令, 爛商便否, 而更爲報來以爲稟處. 其一, 永春調字船一隻之獨當, 不無偏苦, 依定式更與陰城分當事也. 調字站船修改之殘邑獨當, 宜有偏苦之歎. 令本道, 依庚申釐正定式施行之意, 請分付.” 允之.

이하생략~

~이상생략

1. 황간(黃澗)에 있는 수어청(守禦廳)의 둔토(屯土)는 양향청(糧餉廳) 둔전(屯田)의 사례에 의거하여 둔감(屯監)을 보내지 말고 자관(自官)에 상납하게 하며, 둔우(屯牛)에 대한 세전(稅錢) 및 송아지 값은 지금부터 영영 줄이도록 하고, 천안(天安)의 둔전은 해마다 답험(踏驗)하여 백징(白徵)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며, 옛날의 둔세(屯稅)는 다른 둔전 사례에 의거하여 돈으로 상납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황간 등 두 고을의 둔토에다 경감(京監)을 하송(下送)하는 것은 바로 해당 관청에서 결정한 사항이니, 폐단을 일으키는 한 가지 건에 대해서만 단연코 엄금(嚴禁)하는 것이 합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둔우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60여 년을 경과하여 현재 남아 있는 우척(牛隻)이 거의 없고, 둔민(屯民)이 죽거나 유망한 지도 역시 오래되어, 인족(隣族)에 대한 징수가 반드시 따르게 될 형편이니, 특별히 영실(寧失)의 뜻으로 모두 혁파하게 하소서. 그리고 천안 네 곳 둔토의 재해(災害)로 인한 곡물의 손상과 백징 또한 매우 놀랄 만하니, 해당 관청에서 한차례 답험한 뒤에 당년(當年)에 면제해야 할 것 및 영구히 면제해야 할 것을 구별해서 규정을 정하고, 옛날의 둔토에 대하여 쌀을 바치게 한 것은 애당초 규정을 어떻게 정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세를 바치는 명목으로 수납하게 한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양쪽이 편리하여 둔민이 힘을 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1. 음성(陰城)은 지역이 좁고 주민도 적으니 충주(忠州)의 석우(石隅) 이서(以西) 지역을 본현(本縣)에다 이속(移屬)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충주 석우의 이서(以西) 지역을 본현에다 이속하게 하는 것이 비록 고(故) 상신(相臣) 김육(金堉)의 등철(登徹)되지 못한 상소에 있었으나, 이쪽을 분할하여 저쪽에 주는 일은 갑자기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도에다 공문으로 하문하여 두 고을의 수령과 편부(便否)를 충분히 상의하여 다시 보고하도록 해서 품처하

게 하소서.

1. 영춘(永春)에서 조자선(調字船) 한 척을 홀로 담당하게 되어 치우친 괴로움이 없지 않으니 정식(定式)에 의거하여 다시 음성(陰城)과 나누어서 담당하게 하는 데 대한 일입니다. 조자 참선(調字站船)을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일을 영세한 고을에서 홀로 담당하니 치우치게 괴롭다는 탄식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본도로 하여금 경신년에 이정(釐正)한 정식(定式)에 따라 시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게 하소서.”

하니, 윤희하였다.

이하생략~

## ▶ 15권 12년 2월 7일 庚戌

庚戌/平安監司啓言: “卽接節度使朴基豐今月初四日所報, 以爲 ‘造成輪梯, 高可俯城. 外設厚板, 又遮牛皮, 上伏銃手, 內藏驅卒, 以爲肉薄踰城之計. 而巡營中軍李鼎會, 博川郡守李運植, 廝殺東南, 咸從府使尹郁烈, 襲擊西門, 朔州府使尹敏東, 前府使閔修顯, 判官張洛賢, 出身金禹鍾等, 來攻東北, 順川郡守吳致壽, 羽林將許沆進攻小西門, 哨官李基鼎, 埋伏東門外, 執事李東殷, 別武士梅景殷等, 埋伏西門外, 定州牧使徐春輔, 肅川府使李儒秀, 嘉山郡守鄭周誠, 把摠尹之謙, 哨官方禹鼎等, 合擊南門, 价川郡守柳相弼, 爲留陣將, 守護輜重, 節度使則統領馬步兵, 殿後策應. 昨日五更, 一齊攻打, 則凶賊待輪梯進入四五十步, 放銃射矢, 官軍之伏在輪梯者, 亦爲放丸, 則賊皆隱避廠內. 自朝至昏, 援桴督戰, 日已昏黑, [凶] 賊則隱身譙樓, 隨裝輪放, 官軍則露坐冒雨, 銃藥俱濕, 萬無措手之道, 不得已還陣. 而京、鄉軍中丸死者十三名, 被傷者七十二名.’ 云.”

평안감사가 아뢰기를,

“방금 절도사 박기풍(朴基豐)의 이달 4일의 보고를 받아보았더니, ‘운제(輪梯)를 만들었는데, 높이는 성을 굽어 볼 만합니다. 바깥에는 두터운 판자를 설치하고, 또 쇠가죽으로 가려, 위에는 총수(銃手)를 숨겨두고 안에는 구졸(驅卒)을 감추어 육박전으로 성을 넘을 계책으로 삼았습니다. 순영중군(巡營中軍) 이정회(李鼎會)·박천군수(博川郡守) 이운식(李運植)이 동남쪽을 시살(殺)하고, 함중부사(咸從府使) 윤옥렬(尹郁烈)이 서문(西門)을 습격하고, 삭주부사(朔州府使) 윤민동(尹敏東)·전부사(府使) 민수현(閔修顯)·판관(判官) 장낙현(張洛賢)·출신(出身) 김우중(金禹鍾) 등이 동북쪽을 협공하고, 순천군수(順川郡守) 오치수(吳致壽)·우림 장(羽林將) 허항(許沆)이 소서문(小西門)으로 진공하고, 초관(哨官) 이기정(李基鼎)이 동문 밖에서 매복하고, 집사(執事) 이동은(李東殷)·별무사(別武士) 매경은(梅景殷) 등이 서문 밖에 매복하고, 정주목사(定州牧使) 서춘보(徐春輔)·숙천부사(肅川府使) 이유수(李儒秀)·가산군수(嘉山郡守) 정주성(鄭周誠)·파총(把摠) 윤지겸(尹之謙)·초관 방우정(方禹鼎) 등이 남문을 함력해 공격하고, 개천군수(价川郡守) 유상필(柳相弼)이 유진장(留鎭將)이 되어 치중(輜重)을 지키고, 절도사는 마보병(馬步兵)을 통령(統領)하여 뒤에서 책응(策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5경(更)에 일제히 공격하자, 흉적들이 운제가 4, 5십 보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총과 활을 쏘므로, 윤제에 매복해 있던 관군들도 또한 총탄을 쏘았더니, 적들이 모두 헛간 안으로 숨고 피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채를 잡고 독전(督戰)했는데, 날이 저물어 캄캄해지자 흉적들은 몸을 숨긴 채 성가퀴를 따라 돌아가며 총을 쏘았고, 관군들은 노출된 채 앉아 비를 맞았기에 총의 화약이 모두 젖었으므로 손을 쓸 방도가 없어 부득이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경군(京軍)·향군(鄉軍) 중에서 탄환에 맞아 죽은 자는 13명이고 다친 사람은 72명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 15권 12년 4월 21일 癸亥

行陣及各邑守堞時，士民助餉秩。【義州幼學洪得周，出各穀一千二百十八石，錢五千二百兩，爲最多。都合錢一萬四千四百九十六兩。各穀二千一百四十四石，牛一百六十一隻。】

행진(行陣) 및 각읍에서 수첩(守堞)할 때 사민(士民)이 보조한 군량의 질(秩) 【의주(義州)의 유학(幼學) 홍득주(洪得周)가 곡식 1천 2백 18석과 돈 5천 2백 냥을 내어 가장 많았다. 합계는 돈 1만 4천 4백 96냥이고, 각 곡식 2천 1백 44석, 소 1백 61마리였다.】

### ▶ 17권 13년 12월 25일 戊午

命各司藏牌，備局啓言，“歲時藏牌，卽出於爲都民餞迎之資，有此特施之典者也。第今京外牛畜，比前大縮，畿湖之間，間多無牛廢耕之處，甚至於服田之民，往往有以人代畜云。春耕當前，民事切悶。請特寢成命。”敎曰：“已命藏牌，依前下教爲之。”

각 관사에서 장패(藏牌)하도록 명했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설에 금패(禁牌)를 회수·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곧 도민(都民)들의 전영(餞迎)을 돕는 데에서 나와 이렇게 특별히 실시하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만, 지금 경외(京外)의 소[牛]가 전보다 많이 줄어서 기호 지방에서는 소가 없어 폐경(廢耕)한 곳이 허다하고, 심지어 농사짓는 백성들이 이따금 사람으로 소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봄갈이가 목전에 닥쳤는데, 백성들의 농사일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성명(成命)을 중지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미 금패를 회수·보관하라고 명하였으니, 전의 하교에 따라 하라.”  
하였다.

### ▶ 17권 14년 3월 5일 丙申



濟州察理使李在秀馳啓言：“曾前奉命臣入島之時，八十以上老人，因下教設宴以饗之，賜米肉及手巾木。此蓋出於聖世優老之典，島民曲恤之恩也。今番旌義縣設宴，八十以上一百三十人，大靜縣設宴，八十以上一百二十五人，本牧設宴，八十以上四百五人。宴需則各備六簋，小米則各分二斗，牛肉則各給二斤，而九十以上，則加一斤。手巾木三尺，則繫於鳩杖。宴需及分給穀物，取用於本牧補民庫，及戶庫留儲木中。”

제주 찰리사(濟州察理使) 이재수(李在秀)가 치계하기를,  
“앞서 신이 왕명을 받들고 섬에 들어갔을 때, 하교하심을 따라 80세 이상 노인에게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고 쌀과 고기 및 수건목(手巾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성세(聖世) 때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과 섬 백성들을 곡진히 구제하는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 정의현(旌義縣)에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는 80세 이상이 1백 30인이었고, 대정현(大靜縣)에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는 80세 이상이 1백 25인이었으며, 본 제주목에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는 80세 이상이 4백 5인이었습니다. 잔치 음식은 각자마다 여섯 그릇씩 마련하였고 소미(小米)는 두 말씩 나누어 주었으며 쇠고기는 두 근씩 지급하였는데, 90세 이상자에게는 한 근을 더 주었습니다. 수건목은 석 자씩을 구장(鳩杖)에 매달아 주었습니다. 잔치 비용과 나누어 준 곡물 등은 제주목의 보민고(補民庫)와 호고(戶庫)에 저축되어 있던 무명[木]에서 취용(取用)하였습니다.”  
하였다.

## ▶ 18권 15년 12월 10일 庚申

命飭京外牛禁，大臣以歉餘，農牛大縮，雖值歲時，恐不必輒許藏牌，爲奏也。

서울과 지방에 소의 도살 금지[牛禁]를 신칙하도록 명하였으니, 대신이 흉년 끝에 농우(農牛)가 크게 줄어 비록 신정(新正)을 맞더라도 굳이 장패(藏牌)를 허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뢰었기 때문이다.

## ▶ 24권 21년 8월 15일 壬辰

敎曰：“都下輪行怪疾，漸有熾盛，民情騷擾云，誠爲可悶。限五日勿爲禁屠事，分付各司。”

하교하기를,  
“도성에 유행하는 괴질(怪疾)이 점차 치성하여 민심이 뒤숭숭하다고 하니, 참으로 민망스럽다. 5일을 한하여 도살을 금하지 말라고 각사(各司)에 분부하라.”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하였다.

### ▶ 24권 21년 8월 25일 壬寅

壬寅/備局啓言：“都民死亡之餘，譬不畏法，自唱訛言，頃刻奔波，斫取四山生松者，不知爲幾萬株。不能操束之三營將臣，竝施譴罷，四山參軍及哨官，竝出付兵曹，嚴棍汰去，京兆堂上，亦爲罷職，五部官員，令該府，拿問勘處，現捉民人等，并移法司刑配。且許屠之日，限已過，而一直亂屠，遍於街路，法司堂上及左右捕將，竝從重推考，使之卽爲禁斷。”敎曰：“都民死亡之患，尙不寢息，誠萬萬矜惻，而至於昨日事，則無前之變怪也。苟有一分嚴畏國法之心，豈容如是縱恣乎？矜惻自矜惻，紀綱自紀綱，犯斫被捉之漢，令該曹，嚴刑遠配，以懲亂習，限後犯屠之類，亦令一體嚴繩。雖以三營將臣法司堂上言之，苟能先事禁戢，豈至此境乎？所當一竝罷職，而見今大事當前，舉行極爲浩繁，爲安徐，竝越俸三等。”

비국에서 아뢰기를,

“도성 백성들이 사망한 끝에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언 비어를 퍼뜨리면서, 잠시 사이에 떼를 지어 달려가서 사산(四山)의 소나무를 베었는데, 몇 만 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를 단속하지 못한 삼영 장신(三營將臣)은 모두 파직하고 사산의 참군(參軍) 및 초관(哨官)들은 모두 병조에 회부하여 엄히 곤장을 친 다음 도태시키고, 한성부 당상도 파직하고, 오부(五部)의 관원들도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처단(處斷)하게 하고, 현재 체포된 백성들은 법사(法司)에 인계하여 형장을 가한 후 유배해야 합니다. 또 도살의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도 한 결 같이 함부로 도살하여 길거리마다 <판매하는 자가> 널려 있으니, 법사의 당상과 좌우 포장들을 모두 종종 추고(從重推考)하여 즉시 금단(禁斷)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도성 백성들이 사망하는 우환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으니 매우 측은하다만, 어제의 일에 있어서는 전에 없던 변괴이다. 참으로 조금이라도 국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찌 이와 같이 방자할 수 있겠는가? 측은한 것은 측은한 것이고 기강은 기강이니, 소나무를 남벌(濫伐)하다가 체포된 놈들은 해조(該曹)에서 엄한 형장을 가한 후 외딴섬으로 유배하여 난잡한 습관을 징계하고 기한이 지난 후에 도살을 한 무리들도 일체 엄하게 다스리라. 비록 삼영 장신과 법사 당상으로 말하더라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금지하고 단속하였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모두 파직함이 마땅하지만 지금 앞에 당한 대사를 거행하기가 매우 엄청나니, 우선 보류해 두고 모두 월봉(越俸) 3등을 하라.”

하였다.

### ▶ 28권 26년 5월 1일 壬午

壬午朔/敎曰：“酒禁專爲災歲糜穀之故也。今則賑事已畢，兩麥亦向熟，自明日弛禁，昨秋以來犯禁編配之類，竝特放。**大抵牛酒松三禁，卽國之大禁**，其大釀及街路酗酒，法司申明舊典，嚴加禁斷，亦自廟堂，時時警飭，俾有實效。”

하교하기를,

“주금(酒禁)은 오로지 재해(災害)가 든 해에 곡식 소모하는 것을 위한 이유에서이다. 지금은 진휼(賑恤)하는 일이 이미 끝났고 양맥(兩麥)이 또한 익어가고 있으니, 내일부터는 금령(禁令)을 늦추도록 하고, 작년 가을 이후로 금령을 범하여 편배(編配)된 무리는 모두 특별히 석방하도록 하라. **대저 소[牛], 술[酒], 소나무[松]에 대한 세 가지 금령은 곧 나라의 큰 금법이다.** 그 대량으로 술을 빚는 일과 길거리에서 술주정하는 것은 법사(法司)에서 옛 법전을 거듭 밝히어 엄중히 금단(禁斷)을 가하고, 또한 묘당(廟堂)으로부터 때때로 경칙(警飭)하여 실효(實效)가 있도록 하라.”

하였다.

## ▶ 29권 27년 5월 29일 甲辰

甲辰/兵曹判書金迪根書略曰：

臣於日前，悉陳危苦慙痛之情狀。庶幾俯垂鑑諒，卽賜斥退，俾臣得以杜門訟愆，沒齒自靖矣。及奉下答，不惟不加哀矜，乃反操切縛束，必欲使臣，顛倒昌披，喪其所守而後已。何邸下薄臣爲人，至於此極也？臣聞人臣之義，不徒以趨走爲恭，承奉爲忠，進退出處之間，惟視其義理之當否而已。義固可進，卽駕屨在所不辭，苟爲不然，循牆亦謂之恭，何嘗有一切之法，硬定而不易者哉？以臣之情地與所遭，對人言笑食息如常，尙論之士，猶或非之。今若迫於嚴命，諉以趨走承奉，拚棄禮義，冒沒廉恥，揚揚貪進，爲世所棄，是宜邸下之所甚不欲也。臣之一身，固不足恤，而聖朝四百年培養士大夫禮防，果何如哉？臣之平日言行，雖無裨益於世道，而亦不忍國家四維之壞亂，自臣始也。臣之昏闇庸愚，昧於事理，當滿驟之時，蹈禍災之地，而進進不已。圖占雄藩，此乃所以天奪其魄，俾至顛覆也。中路慘變，振古所無，不於臣身，橫及無辜，使臣抱終身之恨，負難洗之累。天之惡盈忌滿，報施於臣者，亦甚著矣。臣固知無知妄作，理宜一敗。**今者亡羊補牢，雖曰晚時，折臂成醫，尙有餘日，榮途一步，鐵限在前。**臣自西歸時，寸心已矢。人言雖在於矢心之後，矢心愈堅於人言之後。以此以彼，臣之不可以常人自處，婦孺皆可知之，尙復何云哉？答曰：“余爲卿洞言之矣。余之所依賴於卿家者，奚但外家而已哉？卿家之於王國，勲勞之大，誠忠之切，其果何如？而一个趙璟鎮，暗懷不良之心，外施嘗試之計，驟看而論之，處分雖似過中，徐察而言之，烏棘猶屬輕寬。且此非渠所可自辦，慫慂指使，明若觀火，則未及查得，先爲解放，豈不爲群不逞之適中所願乎？未得根窩之前，璟鎮雖老死海中，不可使生出烏棘，余意已決矣。以卿家謙謹之規，以此爲萬萬難安者，不害爲美事。在朝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家防微杜漸之道，豈可不嚴懲而痛斥乎？且卿若還朝，供職如前，宵小之窺覘，永無影形，則曲從卿言，以安卿心，余無所惜。而今何可議到於有還乎？自卿之來住近郊，思變之情，一倍難抑，卿亦豈無是心耶？人情克伸，則天理無悖，卿其毋復固執，卽速入來，以慰許久相阻之情也。余言至此，卿亦豈不犁然？”令曰：“余則言必敷心，而兵判則一向固執，揆以道理，實爲可歎。公私之際，私不掩公，兵曹判書金迢根，爲先下義禁府推考，”旋令禁推分揀，招致政院，問達以入。又令曰：“問達置之，肅單捧入。”政院以兵判不爲肅謝，徑出禁局，請從重推考，令曰：“前後書答，敷心洞言，今夜飭令，有足感回，而一向固執，直爲出去者，非但大違道理，余心之缺望，尤當如何？事既至此，不可仍置。兵曹判書金迢根，施以罷職之典。雖以爾等言之，傳令之地，不能據職，坐見其出禁局者，誠爲萬萬寒心。竝遞差。”

병조판서 김유근(金根)이 상소 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일전에 괴롭고 참통한 정상을 모두 다 진달하였기에 양찰하시고 즉시 신을 물리쳐서 신으로 하여금 문을 닫고 허물을 자책하며 평생 동안 조용히 지내게 해 주실 줄로 여기었습니다. 그런데 내리신 하답을 받아 보니,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단단히 붙들어 매서 반드시 신으로 하여금 거꾸러져 창피한 꼴을 당하여 지키는 바를 잃게 하고야 말려고 하셨습니다. 어찌면 그렇게도 저하께서는 신의 사람됨을 박하게 여겨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하십니까? 신은 듣건대, 신하의 의리는 추종하는 것만 공경이라 하거나 받들어 따르는 것만 충성이라 하지 않고, 나아가고 물러갈 때 의리에 타당한지의 여부만 본다고 했습니다. 의리상 진실로 나아가야 될 것 같으면 수레를 타거나 신발을 신지도 않고 나아가야 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답을 따라 달아나는 것도 역시 공순하다고 할 것이니, 어찌 한결같은 법으로 정해져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정리와 참변을 당한 처지에 있어 남을 대하여 말하고 웃으며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도 논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엄명(嚴命)에 부딪겨 추종하고 승봉(承奉)한다고 핑계댄 채, 예의를 버리고 염치를 무릅쓰고서 의기 양양하게 나가는 것만 탐한다면 세상의 버림을 받을 것이니, 이는 저하께서 매우 바라지 않는 바일 것입니다. 신의 한 몸은 진실로 돌아볼 것조차도 없습니다만, 열성조(列聖朝)께서 4백 년간 배양해 온 사대부의 예의는 과연 어찌 되겠습니까? 신의 평일 언행이 비록 세도(世道)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지만, 또한 차마 신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예의염치를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은 어둡고 용렬하여 사리에 어두워서, 지위가 갑자기 높을 때에 화근의 땅을 밟으면서 나가기만 하고 그치지 않다가, 큰 지방 장관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니 이 때문에 하늘이 혼을 빼앗아 거꾸러지게 한 것입니다. 도중의 참변은 예전에도 없던 것이었는데, 신이 당하지 않고 엉뚱하게 무고한 사람이 당하였으니, 신이 종신의 한을 품게 되고 씻을 수 없는 누를 입었습니다. 하늘이 성만(盛滿)을 미워하여 신에게 보시(報施)한 것이 또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신은 정말 무지하게 망령되어 일을 하여, 마땅히 한번 실패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비록 때가 늦었다 하더라도 팔을 분질르다 의사가 될 날이 아직도 남아 있으나, 영예로운 길을 나가는 한 발자국에도 철벽 같은 한계가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신이 서쪽에서 돌아올 때에 마음에 이미 맹세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마음에 맹세한 후

에 말하였으나, 사람들의 말한 뒤에 맹세한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신이 보통 사람으로 자처할 수 없는 것은 부녀자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일이니, 다시 말해 뵈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내가 경을 위해 시원스럽게 이야기하겠다. 내가 경의 집안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찌 단지 외가이기 때문에 그러하겠는가? 경의 집안이 나라에 얼마나 공로가 크며 성의와 충성이 얼마나 간절하였는가? 그런데 일개 조경진(趙璟鎭)이 몰래 불량한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떠보는 계책을 썼으니, 언뜻 보고 논할 때에는 처분이 지나친 것 같지만 천천히 살펴보고 말할 것 같으면 섬에다 우리 안치한 것도 관대한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는 그가 혼자 사주를 받은 것이 명약관화하고 보면, 조사하기 전에 먼저 석방할 경우 어찌 불량한 무리들이 원하는 바에 적중하지 않겠는가? 그 뿌리를 찾아내기 전에는 조경진이 바다 가운데에서 늪터라도 살아서 섬 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 경의 집안처럼 겸손하고 삼가는 규모로 볼 때 이를 편치 않게 여기는 것은 미덕(美德)에 지장이 되지는 않겠지만, 조정에서 나쁜 싹이 돌아나는 조짐을 단절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엄하게 징계하고 통렬히 배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경이 만약 조정에 돌아와 전처럼 직무에 봉사하고 틈을 엿보는 무리들이 영원히 없어진다면, 경의 말에 따라 하여 경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애석하게 여길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용서하여 돌아오게 의논할 수 있겠는가? 경이 근교에 왔을 때부터 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 깊어져 억제할 수 없는데, 경에게도 어찌 이런 마음이 없겠는가? 인정이 퍼진다면 천리(天理)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니, 경은 다시 고집부리지 말고 빨리 들어와서 오랫동안 못 본 정리를 달래주기 바란다. 내 말이 이에 이르렀는데 경도 어찌 감동되지 않겠는가?”

하였다. 하령하기를,

“나는 말할 때마다 심곡을 다 쏟았는데, 병조판서는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도리로 보아 실로 한탄스럽다. 공사간에 사적인 것으로 공적인 일을 무시할 수 없으니, 병조판서 김 유근을 우선 의금부에 내려 추고케 하라.”

하였다가, 다시 영을 내려 추음을 분간(分揀)하게 하고, 승정원에 불러들여 사연을 물어 오라고 하였다. 또 하령하기를,

“물어서 아뢰게 하는 것은 그만두고, 사은숙배의 단자를 받아드려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병조판서가 사은숙배하지 않고 곧바로 췌문을 나갔다고 하여 중하게 추고할 것을 청하니, 하령하기를,

“앞뒤의 하답에서 마음을 다하여 말했고, 오늘밤에 내린 칙령(飭令)도 족히 마음을 돌릴 만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곧바로 나가버렸으니 도리에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실망이 어떠하겠는가? 일이 이미 이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냥 둘 수 없다. 병조판서 김유근에게 파직의 법을 시행하라. 그대들로 말하더라도 명을 전하는 곳에 있으면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앉아서 췌문을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으니, 정말로 한심하다. 모두 체차하라.”

하였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 30권 29년 11월 9일 己亥

捕廳啓: “罪人金守溫招以爲, ‘渠以牛皮紅蔘, 往來燕京, 商業不利, 幾至蕩敗, 故敢生不測之心。’ 今八月募得有膂力膽略者朴完植兄弟, 張雲興、元明肅、金今哲、張汝男, 渠五寸叔重振、安光植、林得喆、李命祥、張千云等, 詭稱牛皮載船, 使蘭芝島船人車汝眞, 流泊於保寧串, 先送金履溫、金命喆渠船兩人, 而仍與諸漢, 天祭于萬峰, 約以兄弟, 仍乘渠船, 使朴義瑞、崔蔑致、李再玉定爲沙格, 抵於保寧串車汝眞船隻處, 以生面人張汝男, 着天翼, 稱以從事官, 朴完植着戰服, 稱以捕校, 李命祥、張雲興、林得喆、朴昌仁等, 稱以捕卒, 安光植以紅絲結縛, 作爲罪人吼喝曰: 「牛皮本是禁物, 而汝等符同金守溫, 潛載以去云, 吾等捉此罪人, 搜驗次下來,」 仍指金履溫、金今哲曰: 「此是守溫所送之人」 卽地結縛, 送于渠船, 車哥船人十四名, 次次結縛, 移囚小船, 一名式招上錢三四十兩式抱縛投水後, 錢一萬二千兩, 移載渠船. 張千云欲爲逃走, 故又爲撲打投水, 錢則或貿物貨, 或給家用, 而往松都, 貿得緞紬, 造胡服十六件, 及旗幟刀鞭槍劍等物, 藏置船中, 約曰: 「吾等六七人, 着胡服, 持槍劍入往南大門內, 衝火於米廩, 又衝火於六曹前假家後, 出往新門外, 換服乘船遠走, 則必有騷屑」 而不可無智略勇力之人, 故張雲興、林得喆, 分送關東湖南, 使之募聚云.’ 又言 ‘渠於昨年, 因鄭興魯之周旋, 得差包蔘別將, 又以牛皮都賈事言及, 則興魯言, 已圖出文蹟云, 而約以渠則作賊於江上, 興魯爲內應, 爲招安之計云,’ 與興魯面質, 則, ‘供以欲殺興魯, 爲此誣招云,’ 又引崔命烈、徐普運等, 命烈、普運, 卽宮人之弟侄.” 敎曰: “以鄭興魯觀之, 牟利之徒, 虛張誇勢, 明若觀火, 而崔、徐兩漢, 必有酬酢, 竝施威嚴問, 期於得情.”

포청에서 아뢰기를,

“죄인(罪人) 김수온(金守溫)의 공초(供招)에 의하면, ‘저는 우피(牛皮)와 홍삼(紅蔘)을 가지고 연경(燕京)을 드나들며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고 재산을 거의 탕진하여 거덜이 났으므로, 감히 불측(不測)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금년 8월에 완력이 있고 담차며 피가 많은 자들인 박완식(朴完植) 형제와 장운흥(張雲興)·원명숙(元明肅)·김금철(金今哲)·장여남(張汝男)과 그의 5촌숙(寸叔)인 장중진(張重振), 그리고 안광식(安光植)·임득철(林得喆)·이명상(李命祥)·장천운(張千云) 등을 모집하고는, 우피(牛皮)를 배에 싣는다고 거짓 핑계를 대어 난지도(蘭芝島)의 선인(船人) 차여진(車汝眞)으로 하여금 보령곶(保寧串)에 <배를> 정박(碇泊)시키게 한 다음, 먼저 김이온(金履溫)·김명철(金命喆) 두 사람을 보내고, 이어서 여러 놈들과 함께 만봉(萬峰)에서 천제(天祭)를 지내고 형제가 되기를 약속하였습니다. 이어 그 자들의 배를 타고 박의서(朴義瑞)·최멸치(崔蔑致)·이재옥(李再玉)을 사격(沙格)으로 삼아, 보령곶(保寧串) 차여진(車汝眞)의 선척(船隻)이 있는 곳에 다달았는데, 낮 모르는 사람으로 장여남(張汝男)은 천익(天翼)을 착용시켜서 종사관(從事官)이라 칭하게 하고, 박완식(朴完植)은 전복(戰服)을 입혀 포교(捕校)라 칭하게 하였으며, 이명상(李命祥)·장운흥(張雲興)·임득철(林得喆)·박창인(朴昌仁) 등은 포졸(捕卒)로 칭하게 하여, 안광식(安光植)을 붉은 실로 결박하고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공갈하면서 말하기를, 「우피(牛皮)는 본래 금(禁)하는 물건인데, 너희들이

김수온(金守溫)과 같이 몰래 실어 갔다고 하였으므로, 우리들이 이 죄인을 잡아가지고 증거를 찾아내기 위하여 내려왔다.」 하고는, 이어 김이온(金履溫)·김금철(金今哲)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자들이 김 수온이 보낸 사람이다.」 하고, 곧바로 결박하여 그 자들의 배에 보내고는, 차가(車哥)의 뱃사람 14명을 차례차례 결박하여 작은 배에 옮겨 가둔 후, 1명씩 불러 올려서 돈 30, 40냥씩을 내라고 하며 포박(捕縛)하여 물에 던진 다음, 돈 1만 2천 냥을 그 자들의 배에 옮겨 실었습니다. 장천운은 도주(逃走)하려고 하였으므로 두들겨 패서 물에 던져버리고, 돈은 물화(物貨)를 사기도 하고 혹은 가용(家用)에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송도(松都)에 가서는 비단과 명주를 사가지고 호복(胡服) 16벌과 기치(旗幟)를 만들었으며, 칼·채찍과 창검(槍劍) 등의 물건을 배에 보관해 두고 약속하기를, 「우리들 6, 7인이 호복(胡服)을 입고 창검(槍劍)을 지참하여 남대문(南大門) 안으로 들어가서, 미전(米廩)에 불을 지르고 또 육조(六曹) 앞에 있는 가게방에 불을 지른 후에, 새문 밖[新門外]으로 나가 옷을 갈아 입고 배를 타고 멀리 달아난다면, 반드시 소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지략과 용력(勇力)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장운흥(張雲興)·임득철(林得喆)을 관동(關東)과 호남(湖南)에 나누어 보내어 이들로 하여금 모집하여 오게 하였습니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저는 작년에 정흥로(鄭興魯)의 주선으로 포삼 별장(包蔘別將)에 차출되게 되었는데, 또 우피(牛皮)를 도매하는 일을 가지고 언급한 내용은 정흥로가 문적(文蹟)을 이미 도출(圖出)하였다고 하므로, 저는 강 위에서 도적질을 하고 정흥로는 내응(內應)하여 초안(招安)할 계책을 약속 하였습니다.」고 하므로, 정흥로를 대질(對質)시켰는데, 말하기를, 「정흥로를 죽이고자 하여 이렇게 허위로 공초(供招)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최명렬(崔命烈)·서보운(徐普運) 등을 끌어대었는데, 최명렬과 서보운은 곧 궁인(宮人)의 아우와 조카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정흥로(鄭興魯)에 대해 살펴보건대, 모리배(牟利輩)들이 허위로 과장해 말한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나, 최명렬·서보운 두 놈은 반드시 수작(酬酌)한 것이 있을 것이니, 모두 엄중히 신문하여 실제 정상(情狀)을 알아내도록 하라.”

하였다.

## ▶ 31권 30년 8월 27일 壬子

副修撰申冕周陳疏, 請金鑑、洪起燮、李寅溥等快正常憲, 請沈英錫、韓鎮辰放還. 仍言:

閣監掖屬瑣屑之輩, 固無足泚筆論列. 而國言之所喧藉者, 卽秦東奭、金在溫、朴英秀也. 此輩締結金鑑, 大開賂門, 蠹國病民, 罔有其極, 蓋其牛皮、紅蔘之還收, 難掩藉弄欺誣之罪, 而且以前訓導秦東益言之, 講定兩國之好, 睿度天大, 使之戴罪行公, 則固當下往萊府, 竭蹶奉行行之不暇. 而挾其弟東奭之勢, 偃處其家, 無所忌憚, 如此之類, 不可以蟣蝨之賤而置而勿論. 請竝施島配之典.

批曰: “爾是嶺南之人, 宜有質厚之風, 何爲效近日浮動曉訛之習, 以予所不欲聞之說,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張皇如此乎? 諸人姑舍之, 彼四箇卑賤之類, 卽所謂蟣蝨之不足誅也, 何至請王府勘律? 且遣辭之際, 亦有不當追提而不之審思者, 殊涉未妥, 然予亦不深責焉.”

부수찬 신면주(申冕周)가 상소하여 김노(金)·홍기섭(洪起燮)·이인부(李寅溥) 등을 몇몇한 법으로 쾌하게 바로잡기를 청하고, 심영석(沈英錫)·한진호(韓鎭)를 방환(放還)하도록 청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각감(閣監)과 액속(掖屬)의 자질구레한 무리들은 진실로 붓을 적셔가며 논열(論列)할 대상이 못됩니다. 하지만 나라 사람들에게 말이 왁자하게 퍼진 자는 바로 진동식(秦東奭)·김재온(金在溫)·박영수(朴英秀)입니다. 이 무리들은 김노(金)와 체결(締結)하여 뇌물을 받아들이는 문을 크게 열어 나라를 좀먹게 하고 백성을 병들게 한 것이 그 다함이 없으니, 대체로 그가 우피(牛皮)와 홍삼(紅蔘)을 환수(還收)하게 하고 평계를 대며 장난을 하고 속인 죄는 엄폐하기 어렵고, 또 전 훈도(訓道) 진동익(秦東益)을 가지고 말하면 양국(兩國)의 수호(修好)를 강정(講定)하면서 예탁(睿度)이 하늘처럼 커서 그로 하여금 죄를 부담하고 공무를 집행하게 하였으면 진실로 당연히 동래부(東萊府)로 내려가서 정성을 다하여 앞뒤를 돌보지 아니하고 받들어 행하기를 겨를 하지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진동석의 세력을 믿고 그 집안에서 편안하게 기거하면서 기탄(忌憚)하는 바가 없었으니, 이와 같은 부류가 서캐처럼 미천하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논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컨대 모두 섬으로 귀양을 보내는 법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대는 영남(嶺南)의 사람이니 바탕이 후덕(厚德)한 기풍이 있어야 마땅한데, 어찌하여 근일(近日)의 가볍게 동요되고 시끄럽게 속이는 풍습을 본받아 내가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을 이와 같이 장황(張皇)하게 하는가? 여러 사람은 우선 그만두고 저 네 명의 비천(卑賤)한 부류는 바로 이른바 서캐 같은 부류로 주벌(誅罰)하기에 부족한데, 어찌 왕부(王府)에서 감률(勘律)하도록 주청하는 데 이르는가? 그리고 말을 표현하는 즈음에 역시 뒤쫓아 제기(提起)하는 것이 부당한데도 그것을 자세히 살피거나 생각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너무나 타당하지 못한 데 관계가 된다. 그러나 나도 또한 심하게 책망하지 않겠다.”

하였다.

### ▶ 34권 부록 순조 대왕 행장(行狀) ①

~이상생략

每觀前史, 爲將者, 或不免以屠戮爲事, 甚則殺害平民, 虛增首級, 此皆上干天和, 下虧人理者也, 焉有仁人在上, 不忍於人如彼哉? 今王師致討, 雖是不得已之事, 以吾民殺吾民, 亦何安於心? 況舊染汙俗, 咸與維新, 聖人攸訓. 而漢光武焚書篋, 以安反側, 褻度以皇帝命, 赦蔡人. 豈非可法於今日關西之事者乎? 今日之急務, 誅戮反輕, 而招徠爲重, 曉諭爲先, 而奠安爲次. 體予良苦之至意, 紓予西顧之憂者, 顧不在於方伯·閫鎮·守宰之一心對揚乎?



이하생략~

~이상생략

대양 전대의 사서(史書)를 살펴보면 장수가 된 자는 혹 도살(屠殺)로 일을 삼는 것을 면치 못하였는데, 심한 경우 평민을 살해하여 수급(首級)의 수효를 허위로 증가시켰으니, 이는 모두 위로 천화(天和)를 간범하고 아래로는 인리(人理)를 손상시키는 것인 것이다. 어찌 어진 사람이 위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하는 것을 저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왕사(王師)가 역적을 주토(誅討)하는 것은 이것이 그만둘 수 없는 일이지는 하지만 나의 백성을 데리고 가서 나의 백성을 살해하는 것이 또한 어떻게 마음에 편안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오랫동안 오속(汚俗)에 물들었던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여 유신(維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성인(聖人)이 훈계한 것이다. 한(漢)나라 광무제(光武帝)는 문서 상자를 불태움으로써 반측자(反測者)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주었고 당(唐)나라 때 배도(裴度)는 황제(皇帝)의 명에 의해 채주(蔡州) 사람들을 사면(赦免)시켰으니, 이것이 어찌 오늘날 관서(關西)의 일에 있어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날의 급선무는 주륙(誅戮)하는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고 초래(招徠)하는 것이 중한 일이며, 효유하는 것이 우선이고 전안(奠安)시키는 것이 그 다음이다. 내가 진실로 안타깝게 여기는 지극한 뜻을 본받아 나의 서쪽을 돌아보는 걱정을 풀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방백(方伯)·곤진(鎭) 수재(守宰)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양(對揚)하는 데 달려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하생략~

## 28. 憲宗實錄

### ▶ 6권 5년 7월 13일 丙午

備邊司啓言：“卽見忠淸右道暗行御史趙徽林別單，則其一，牛禁蕩然，專在罰輕，自今凡有犯屠，勿許納贖，必準徒限，遇赦毋得輕放事也。禁屠一款，既有筵奏行會及籌關別飭，更當別岐廉探，如或如前冒犯，道臣守令，將有論責。更以繡單辭意，申明分付。其一，邪學蔓延，申明五家作統之法，嚴立竝坐之律事也。本道素稱士大夫之冀北，敦敗彝倫之說，豈或行之，而若其蠢蠢下愚，惑其妖法，不無駸駸之慮矣，燎原之勢，早宜撲滅。五家作統之法，不告竝坐之律，更加申明，期於剷殄無遺。” 竝允之。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지금 충청우도암행어사(忠淸右道暗行御史) 조휘림(趙徽林)의 별단(別單)을 보았더니, 그 하나는, 우금(牛禁)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오로지 벌이 가벼운 때문인데, 이제부터 무릇 도살(屠殺)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속전(贖錢)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반드시 도형(徒刑)의 한년(限年)에 준거하여 사유(赦宥)를 만나더라도 가볍게 석방하지 말라는 일이었습니다. 도살을 금한 한 조항은 이미 경연(經筵)에서 아뢰어 행회(行會)한 것과 비변사(備邊司)에서 관문(關文)을 보내어 특별히 신칙(申飭)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다른 방법으로 엄탐(廉探)해서 만약 혹시라도 전과 같이 무릅쓰고 범하는 자가 있으면, 도신(道臣)과 수령(守令)을 논책(論責)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어사의 별단의 내용을 가지고 거듭 명백히 분부하소서.

그 하나는 사학(邪學)이 만연(蔓延)되었으니, 오가 작통법(五家作統法)을 거듭 밝혀서 아울러 연좌시키는 율(律)을 엄중하게 세우라는 일입니다. 본도(本道)는 본래 사대부(士大夫)의 기북(冀北)으로 일컬어져 왔으니 이륜(倫)을 무너뜨리는 말이 어찌 혹시라도 행해지겠습니까마는, 만약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그 요법(妖法)에 미혹된다면 빨리 물들 염려가 없지 않으니 요원(燎原)의 기세는 일찌감치 박멸함이 마땅합니다. 오가작통법과 고하지 않으면 아울러 연좌시키는 율을 거듭申明(申明)해서 남김없이 코를 베어 진멸(殄滅)시키소서.”

하니, 아울러 율허(允許)하였다.

### ▶ 6권 5년 10월 10일 壬申

高陽人金命吉，以蓋草載牛，曉到西小門外，有一漢，要路願買，有一漢旁促之，先牽

其牛而去，一漢拉牛主，入酒家，饋以飴糖，喫訖遂殞絕，蓋置毒於糖也。當部及京兆兩檢，服毒實因，同命要路人金振成，取招結案，旁促人金允吉，次律施行。

고양(高陽) 사람 김명길(金命吉)이 개초(蓋草)를 소에 싣고 새벽에 서소문(西小門) 밖에 이르렀는데, 어떤 한 놈이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소를 사기를 원하자 다른 한 놈이 곁에서 재촉하며 먼저 그 소를 끌고 가고, 한 놈이 소 주인을 납치해 술집으로 들어가서 엿을 먹었는데, 그 엿을 먹고는 마침내 죽어버렸으니, 엿 속에 독(毒)을 넣었기 때문이다. 당부(當部)와 경조(京兆) 양쪽에서 독을 먹은 실인(實因)을 검사하였는데, 길에서 기다렸던 사람 김진성(金振成)을 취초(取招)해 결안 취초(結案取招)하고 곁에서 재촉했던 사람 김운길(金允吉)은 차율(次律)을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 ▶ 6권 5년 12월 10일 壬申

壬申/上御熙政堂，引見大臣備局堂上。右議政趙寅永啓言：“蔭武前銜，一斥不復，其中最可矜者，卽未經外職，在任遭喪之參上與初仕耳。自今每都政，吏兵曹，各以參上一窠，初仕一窠，作爲在任遭喪者懸注檢擬之地。”從之。寅永請申嚴屠牛之禁，大王大妃敎曰：“牛禁本是國典，近來蕩然，實爲可悶。雖不藏牌，多有歲時潛屠之弊，故或有不得不藏牌之時矣。事關農作，以此預加申飭，無或如前泛忽。”

임금이 회정당(熙政堂)에 나아가서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조인영(趙寅永)이 아뢰기를,

“전함(前銜)의 음무(蔭武)로서 한 번 배척받아 복직(復職)되지 못한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는 곧 외직(外職)을 거치지 않고 재임(在任) 중에 상(喪)을 당한 참상(參上)과 초사(初仕)뿐입니다. 이제부터 도정(都政) 때마다 이조(吏曹)·병조(兵曹)에서 각각 참상 한 자리와 초사 한 자리를 가지고 재임 중에 상을 당했던 자를 주(注)를 달아 검의(檢擬)하는 바탕으로 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인영이 도우(屠牛)의 금법(禁法)을 거듭 엄중하게 단속하기를 청하니,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下敎)하기를,

“도우(屠牛)를 금하는 것이 본래 국법(國法)인데, 근래에 탕연(蕩然)해지니 진실로 민망스럽다. 비록 장패(藏牌)하지 않더라도 때로 몰래 도살(屠殺)하는 폐단이 많이 있으므로, 혹 장패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있었다. 이 일은 농작(農作)에 관계가 되니, 이로써 미리 더 신칙(申飭)해서 혹시라도 전과 같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 ▶ 7권 6년 1월 30일 辛酉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辛酉/執義金鼎元疏略曰：

臣伏念叔世帝王一治之機，惟在於言路之開閉。歷攷往牒，柄臣專則言臣縮，諛臣盛則言臣瘠，盜臣進則言臣伏。以近來邪獄事言之，自辛酉大懲創後，潛滋四十年，卒致滔天之勢者，孰使之然哉？此亦不得不歸於臺閣無人之歎也。夫以磨滅爲好生之論，糾禁爲喜事之戒，至於蕃舶，出沒於域中，洋堅橫行於轂下，而莫之誰何。推是論之，雖有許大禍變，迫於呼吸之間，人誰肯爲殿下一陳之哉？幸而大臣陳奏，慈教截嚴，此誠遏絕根萌，廓清氛穢之一大機會。而側聽半載，用法非不嚴矣，殺人非不多矣。無知之賤類多死，而傳授之根脈自如也，舊染之餘孽或誅，而貫通之聲氣莫問也。購來洋賊，決非一譯官所可爲，超越牢獄，決非一女子所能辦，兩司諸臣，面面相覷，迄無一人論及，獄情之肯綮，囚供之端緒。想其漆室幽獨之中，未必無仰屋潛唏者，特外懼指喉之流言，內羞挾雜之群疑，懲前毖後，莫敢先發耳。臣於洋書，未嘗掛眼，實不知何等醜污，而斷以爲無父無君，夷狄之一法耳。祭天似休屠堂獄，取釋迦初無新奇動人之語，以荒誕不經，神其術以報應相酬，邀其功陰欲擺脫，名教充盈，嗜慾爲自私自利之計。天地造化之權，肱箠也，君親愛敬之誠，壑舟也，聖賢傳授之訓，弁髦也，教主、神父之尊，嚴臨乎衆生之上，則舉天下萬物，皆爲一己之所私。有苟非然者，搢紳章甫之頗聰明識道理者，豈皆誠心好之而篤行之歟？是以，厭然自掩於稠廣之處，而陰主其道於隱密之所。混男女而帷薄不設，則怨曠者聚焉，**一貴賤而等威不別，則屠沽者往焉**，籠貨利而有無相周，則貧窮者悅焉，分排布置，若張角之三十六方，而其尊無上，其富無對矣。唉！彼愚騃之衆，男婦墮此術中，迷不知悟，情願就死於歐刀之場者，實可哀而不足誅也。我朝崇儒重道，群賢輩出，人服程、朱之訓，家傳洙泗之教，第自中葉以來，國家之所培養者，不出榮名利祿，而朝著之間，又相分黨各立，主國論者，常以克伐怨欲之私，驅之，駸駸至於今日，以媵婀取容，爲保身之長策，詭隨無良，爲涉世之妙方。上焉而居位者蠹國財攘民利，而有徒隸無恥之心，下焉而修業者覘蹊徑索門庭，而無恬靜自守之操。國有變故，晏若尋常，而私相忤恨，期於刻深，身有職事，無不怠玩而勢所驅使，舉皆猖狂，伊川被髮之歎，蓋亦所由來漸矣。是則洋術雖有邦禁，而其道實徧行於一世也，在今轉移之機，亦惟曰立聖志典聖學而已。立志，典學之誠也，典學，立志之事也，非今日立志，明日典學也。雖然，志欲立而無挾持之助，則志不强，學欲典而無開導之益，則學未醇。經筵、臺閣之臣，極擇其人，使之更出迭入，不離跬步，導之使言，激之使勸，變委靡難振之習，爲直切不諱之風，則王綱整而怪孽消，正學明而邪說熄，彼所謂洋胡邪術，特一法司之治耳。故相臣蔡濟恭，當時秉執，爲一隊儕友之推服，暮年當軸，每以西來邪種，將爲禍人家國，深惡痛斥，屢形於言語文字，同時闢異之論，倚以爲重，使相臣，若見西獄滋蔓，則豈不痛悔於鍾、薰、家、敏之不能早正王法乎？去年原州儒生，有故判書臣丁範祖，故判書臣韓致應院享之議，見其歷述之通章，多有着之夸辭。乃以老謬之見，手裁短牘，略及其妄引先賢之失矣，繼有儒論掇拾臣言，首言‘邪獄之不合，比擬於前代黨禍，而元老之見累，特不幸爾。’臣固不省作者之意，果出於此，而一種伎克之輩，發憤於院議之崖異，移怒於獄案之迫提，反以爲‘拖及宿累，’侵辱相臣。一唱百和，無然四起，前後醜詈，皆首引正廟朝御製誅文，

勒歸之於背馳義理，諱秘一邪字，以杜千萬人之口。御製誅文，何嘗隻字半辭之依俛髣髴於斥邪一款，而敢爲藉重之說，獨不念追誣聖旨之爲臣子大不敬耶？”

批曰：“治邪不嚴，予亦憂之。爾今以兩司之知而不言，譏斥憂歎，爾亦居其職矣，又不洞言直陳何也？末端事之推上，尤無嚴矣。”

집의 김정원(金鼎元)이 상소(上疏)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생각하건대, 말세의 임금이 한 번 다스려 볼 만한 기틀은 오직 언로(言路)가 열리고 닫히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두루 상고해 보건대, 병신(柄臣)이 전횡하면 언신(言臣)이 움츠리고, 유신(諛臣)이 성하면 언신이 병어리가 되고, 도신(盜臣)이 나아가면 언신이 숨었습니다. 근래 사옥(邪獄)의 일로 말하면, 신유년에 크게 징벌한 이후로 40년 동안 몰래 불어서 마침내 하늘에 사무치는 형세가 된 것은 누가 그렇게 되게 한 것이겠습니까? 이 또한 대각(臺閣)에 사람이 없다는 한탄에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저 마멸(磨滅)하면 살리기를 좋아하는 논의를 하고 규금(糾禁)하면 일을 만들기 좋아한다는 경계를 하기 때문에 외국 배가 강역 안에 출몰하고 서양사람이 도성에 횡행하여도 아무도 힐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미루어 논하건대, 큰 화변(禍變)이 한번 호흡하는 사이에 닥치더라도 누가 기꺼이 전하를 위하여 한 번 아뢰려 하겠습니까? 다행히 대신이 아뢰어 자교(慈敎)가 준엄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뿌리가 싹트는 것을 막고 더러운 기운을 맑게 하는 큰 기회입니다. 그러나 반년 동안 옆에서 듣건대, 법을 쓴 것이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지한 천류(賤類)는 많이 죽었으나 전수(傳授)하는 근맥(根脈)은 여전하고, 구염(舊染)의 여열(餘孽)은 혹 죽었으나 관통(寬通)하는 성기(聲氣)는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양적(洋賊)을 구해 오는 것은 결코 한낱 역관(譯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뇌옥(牢獄)을 넘어 달아나는 것은 결코 한낱 여자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양사(兩司)의 신하들은 각자 서로 엿보며 아직까지 한 사람도 옥사(獄事)의 정상 가운데 요긴한 것과 죄수가 공초(供招)한 단서를 논(論)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킁킁한 방에서 고요하고 외로운 가운데 반드시 지붕을 쳐다보고 남몰래 한탄하는 자가 없지 않을 것이나, 다만 밖으로는 사주받았다는 유언(流言)을 두려워하고, 속으로는 험잡이라는 못 의심을 부끄러워하며, 전의 일에 징계되어 후환을 경계하느라 감히 먼저 발설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신은 양서(洋書)를 본 적이 없어서 실로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모릅시다마는, 단연코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다고 여기는 것은 오랑캐와 한 가지 법일 따름입니다. 하늘에 제사하는 것은 중들과 비슷하고 천당·지옥은 석가(釋迦)에게서 본뻗으므로, 애초에 사람을 감동시킬 새로운 말이 없는데, 허황되고 도리에 어긋난 말로 그 술법을 신묘(神妙)하게 꾸미고, 보응(報應)하여 서로 갚는다는 말로 그 공효(功效)를 바라며, 넉지시 명교(名敎)를 제거하고 기욕(嗜慾)을 채워서 자기 이익만 피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천지가 조화(造化)하는 권세는 좀 도둑이고, 임금과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정성은 구렁에 있는 배와 같고, 성현(聖賢)이 전수한 가르침은 변모(弁)이며, 존귀한 교주(敎主)·신부(神父)가 엄연히 못 백성 위에 임한다면, 온 천하의 만물이 다 자기 한 사람의 사유(私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못 총명하고 도리를 아는 벼슬아치와 선비가 어찌 다 성심으로 좋아하고 독실하게 행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스스로 혼잡하고 넓은 곳에서 가려서 엄폐하고 은밀한 곳에서 그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도(道)를 몰래 주장합니다. 남녀를 섞어 놓고 휘장과 밭을 치지 않으면 홀아비와 홀어미로서 시집이나 장가 못간 자가 모일 것이고, 귀천을 한가지로 보고 위의(威儀)의 등차(等差)를 구별하지 않으면 가축을 도살하고 술을 파는 자가 같 것이고, 화리(貨利)를 농락하여 있고 없는 물건을 바꾸어 서로 구제하면 가난하고 곤궁한 자가 기뻐할 것인데, 장각(張角)의 36방(方)처럼 배치하여 그보다 위가 없이 높고 그에 맞설 것이 없이 부유합니다. 아아! 저 어리석어 술수에 빠져서 혼미하여 깨달을 줄 모르고 목을 베는 형장에서 죽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저 어리석은 못 남녀는 실로 불쌍하여 죽일 것도 못됩니다.

우리나라는 유(儒)를 숭상하고 도를 존중하므로 못 어진 이가 배출되었고, 사람마다 정자(程子)·주자(朱子)의 가르침을 따르고, 집집이 공자(孔子)의 가르침을 전해 왔습시다마는, 중엽 이래로 국가에서 배양한 자가 영명(榮名)·이록(利祿)을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조정(朝廷)에서는 또 서로 당을 나누어 각각 독립하여 국론(國論)을 주장하는 자가 늘 승벽(勝癖)·자만(自慢)·원망(怨望)·탐욕(貪欲)의 사의(私意)로써 몰았으므로, 점점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우물쭈물하여 용납받는 것으로써 자신을 보전하는 장책(長策)으로 삼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남을 따르며 양덕(良德)이 없는 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묘방(妙方)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로는 직위에 있는 자가 나라의 재물을 좀먹고 백성의 이익을 빼앗고도 노예처럼 수치를 모르는 마음이 있고, 아래로는 학업을 닦는 자가 셋길을 엿보아 권세 있는 집을 찾으려서 평온하게 스스로 행실을 지키는 지조가 없습니다. 나라에 변고가 있어도 심상한 듯이 태연하면서 사사로운 원한에는 거슬러 원한을 품고 반드시 가혹하게 하고, 자신에게 직무가 있어도 모두 게을리 하면서 세력에 구사(驅使)되면 모두 미쳐 날뛰니, 이천 피발(伊川被髮)의 한탄은 대개 또한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러하면 양술(洋術)에 대하여 나라의 금령(禁令)이 있더라도 그 도는 실로 한 세상에 두루 행해질 것이니, 지금 전이(轉移)할 기회에 있어서는 오직 성지(聖志)를 세우고 성학(聖學)에 힘쓰는 것은 뜻을 세우려 하여도 옆에서 부촉하는 도움이 없으면 뜻이 굳세지 못할 것이고, 학문에 힘쓰려 하여도 개도(開導)하는 도움이 없으면 학문이 순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연(經筵)·대각(臺閣)의 신하를 마땅한 사람으로 극진히 선택하여 번갈아 출입하여 조금도 떠나지 말고 말하도록 이끌고 권면하도록 격려하여, 쇠퇴하여 떨치기 어려운 버릇을 직절(直切)하여 숨기지 않는 풍습으로 바꾼다면, 왕강(王綱)이 가다듬어져서 괴열(怪孽)이 사라지고 정학(正學)이 밝아져서 사설(邪說)이 그칠 것이니, 저 양호(洋胡)의 사술(邪術)이라는 것은 법사(法司)에서 다스리는 것일 뿐입니다.

고(故) 상신(相臣) 채제공(蔡濟恭)은 당시에 상도를 지켰으므로 한 무리의 벗들이 추앙하여 따랐는데, 만년에 당국(當局)하여서는 번번이 서양에서 온 간사한 종자가 장차 남의 나라에 화를 입힐 것이라 하여 매우 미워하고 통렬하게 배척하여 여러 번 말과 글에 나타냈으므로, 그때 이단(異端)을 물리치는 논의가 의지하여 중하게 여겼으니, 상신이 신유년의 옥사가 더욱 퍼진 것을 보았다면, 어찌 정약중(丁若鍾)·이승훈(李承勳)·이가환(李家煥)·홍낙민(洪樂敏)을 일찍 처형하지 못한 것을 매우 뉘우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해 원주(原州)의 유생(儒生)이 고 판서(判書) 신 정범조(丁犯祖)·고 판서 신 한치응(韓致應)을 서원(書院)에 향사(享祀)하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그 두루 기술한 통문(通文)을 보았더니, 드러내지 않은 과장된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망한 소견으로 짧은 글을 손수 지어 망령되게 선현(先賢)을 끌어낸 잘못에 대해 대략 언급하였더니, 이어서 유생의 논의가 있었는데, 신의 말을 주워 모아 맨 먼저 말하기를, ‘사옥(邪獄)의 적함하지 못함을 전대(前代)의 당화(黨禍)에 견

주었는데, 원로(元老)가 허물을 입은 것이 단지 불행할 따름이다.’ 하였습니다. 신은 글을 지은 자의 뜻이 과연 이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보지 않았으나, 일종의 원망하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무리가 원의(院議)가 틀린 데에 발분(發憤)하여 옥안(獄案)이 뒤미처 제기된 데에 노여움을 옮겨서 도리어, ‘오래된 허물까지 언급한다.’ 하여 상신을 침욕(侵辱)하였습니다. 하나가 앞장서고 백이 따라서 세차게 사방으로 일어났는데, 전후에 혈뜯어 욕할 때에는 모두 정조(正祖) 때의 어제 뇌문(御製文)을 끌어대어 억지로 의리에 어그러지는 것으로 돌리되 사(邪)자를 숨겨서 천만 사람의 입을 막았습니다. 어제 뇌문이 어찌 한 자나 반마디 말이라도 척사(斥邪)의 한 조항과 방불하였기에 감히 위중(威重)한 데에 의지하는 말을 하며, 성지(聖旨)를 뒤미처 속이는 것이 신하의 대불경(大不敬)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였는데, 비답(批答)하기를,

“사교(邪教)를 다스리는 것이 엄하지 않은 것은 나도 이를 근심하고 있다. 네가 이제 양사에서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 하여 혈뜯어 배척하고 근심하여 한탄하고 있는데, 너도 그 벼슬에 있으면서 또한 죄다 말하고 바르게 아뢰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끝의 일을 위에 미룬 것은 더욱 무엄하다.”

하였다.

## ▶ 9권 8년 6월 5일 壬午

上御熙政堂, 引見大臣備局堂上. 領議政趙寅永曰: “水旱之來, 實關氣數, 未可謂盡由人事所召, 而若其財成輔相之方, 又不容不備盡人力. 夫然後, 農不愆期, 民不乏食, 卽聖人所謂水火金土木穀惟修者也. 雖以我朝典例言之, 其切於農務, 而昔所痛禁, 今皆弛廢者, 概爲四條. 其一曰, 移秧之禁也. 水源豐足之地, 移插與否, 自無關於雨暘, 則未嘗非大減除草之役, 至若土品高燥, 泉脈淺短者, 則只可乾播水付, 不宜一例移秧, 而乃其惰怠僥倖之徒, 舉憚鋤耘之力, 惟懷霑潤之望. 四五月之間, 或值一朔亢旱, 便成全坪荒蕪, 故在前此禁, 載在令甲, 而慢不察飭, 仍作習俗, 雖遇饑饉而莫之悔, 豈不痛哉? 其二曰, 私屠之禁也. 牛畜之關於農政何如, 而挽近法禁, 在在蕩然, 邑必有庖, 場必有屠, 坐肆估販之類, 締結牛賊, 至於計束給價, 以分其利, 譏捕無以禁偷竊之源, 孳息無以當宰殺之數, 歲耗月損, 耒耨失時, 甚或一頭百金之直, 而曾所罕聞. 先從此禁申嚴之後, 庶可爲務農勸耕之要矣. 其三曰, 山腰火田之禁也. 蓄燒日入, 舉皆童濯, 關防無林藪之阻, 山峽乏材木之用, 固已萬萬悶歎. 而以其赭山之故, 上而雲氣不興, 下而泉源不滋, 無以蒸成沛澤, 此實爲惜乾之一端. 而旱則谿澗斷絕, 灌溉失利, 潦則沙石崩頽, 填闕爲害, 所以法典之設禁也. 苟非然者, 何以棄許多生穀之土, 不爲斯民之食乎? 古人作事, 舉皆爲經遠之圖, 而今人則全事苟簡, 惟計目前, 故如此等事, 一向拋置, 無復有語到者, 恐非制法之本意也. 其四曰, 堤內起壘之禁也. 築堤, 所以儲水, 儲水, 所以備旱. 苟使疏濬如法, 濬洩以時, 則堤下疇隴, 俱成膏沃, 豈有乾枯失稔之患? 而小民無知, 苟圖咫尺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之地，今歲冒耕，明年侵界，以至於堤水盡涸，而徒歸一夫之私，竟貽千畝之害．言念及此，寧不寒心？今此仰陳四條，俱係國典所載，非臣臆見．而若謂之申明此禁，以救目下遑汲之狀，則比如臨渴掘井，無以濟事，苟使州郡長吏，的知此禁，爲來後備豫之方，則行之一歲，必有一歲之效，行之二歲，必有二歲之效，惟在以實心行實事，勿以爲一場閑語話而已．以此意，措辭關飭於諸道諸都，條條禁斷，亦以爲守令黜陟之政何如？”上曰：“各別嚴飭，俾有實效．”

임금이 회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 당상(堂上)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조인영(趙寅永)이 아뢰기를,

“수한(水旱)이 오는 것은 실로 기수(氣數)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다 인사(人事)로 말미암아 부른 것이라고는 이를 수 없으나, 그 국가 비용의 과다함을 억제하고 부족함을 보충 구제하는 방법과 같은 것은 또 인력(人力)을 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저 그런 뒤에야 농사는 시기를 어기지 않고, 백성은 식량이 궁핍하지 않을 것이니, 곧 성인(聖人)의 이른 바, 수(水)·화(火)·금(金)·목(木)·토(土)·곡(穀)은 오직 닦는 자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전례(典例)로써 말하더라도 그 농사일에 긴절하였었는데 예전에 몹시 금하던 것이 지금에 모두 이 폐(弛廢)된 것은 대개 네 조목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양(移秧)을 금(禁)하는 것입니다. 수원(水源)이 풍족한 땅은 옮겨 쪼는 것의 여부(與否)가 본시 우양(雨陽)에 관계되지 않으니, 아닌게아니라 제초(除草)하는 역사를 크게 감(減)하였습니다만, 토품(土品)이 높고 건조하며, 썸 줄기가 얇고 짧은 것과 같은 데 이르러서는 단지 건파(乾播)하고 물을 주는 것이 옳으며, 한 결 같이 모내기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데도 그 게으르고 요행만을 바라는 무리가 거개 김매는 노력을 꺼리고 오직 비가 내리는 것만을 바랍니다. 4, 5월 사이에 혹시 한 달 동안 극심한 가뭄을 만나면 문득 들 전체가 황폐하는 까닭으로 전에도 이 금법이 있어 영갑(令甲)에 실려 있는데도 등한히 하고 살펴 신척하지 않음이 이내 습속(習俗)이 되어 비록 기근(饑饉)을 만나더라도 뉘우칠 줄 모르니, 어찌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 사사로이 도살(屠殺)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소를 기르는 것이 농정(農政)에 관계됨이 어떠한가에, 근래에는 법으로 마련된 금제(禁制)가 곳곳마다 흔적도 없어져 읍(邑)에는 반드시 푸줏간이 있고, 저자에는 반드시 백정[居漢]이 있어 가게에서 값을 매겨 판매하는 무리가 우적(牛賊)과 체결하고 썸을 한데 묶어 값을 주고서 그 이익을 나누기까지 하니, 기찰(機察)하여 잡아도 도둑질하는 근원을 금할 수 없고, 번식함이 재살(宰殺)하는 수효를 감당하지 못하여, 세월이 갈수록 모손(耗損)되어 밭 갈고 김매는 시기를 잃으며, 심지어는 혹 소 한 마리에 백금(百金)의 값을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일찍이 드물게 들었던 일입니다. 먼저 이 금법을 따라 거듭 엄하게 밝힌 뒤에야 거의 농사에 힘쓰고 경작을 권면하는 요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산 중턱[山腰]에 화전(火田) 일구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파비밭을 일구기 위해 불사르는 자가 날로 들어가서 거의 모두가 초목이 없이 깨끗하여 관방(關防)에는 숲[林藪]의 막힘이 없고, 두메[山峽]에는 재목(材木)으로 쓸 나무가 없으니, 진실로 대단히 민망하고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데 벌거숭이산이 되었으므로 위로는 운기(雲氣)가 일지 않고, 아래로는 썸의 근원이 불어나지 않는지라, 증발하여 쾌택(沛澤)을 이루지 못하니, 이것



은 실로 가뭄을 애통하게 여기는 한 가지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가물면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끊기어 관개(灌溉)의 이로움을 잃고, 장마가 지면 사석(沙石)이 무너져서 메우고 막히는 피해를 입는지라, 이리하여 법전(法典)에 금령을 세운 것입니다. 진실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찌 허다하게 곡식을 생산하는 전토를 버려서 이 백성의 식량을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이 일을 만들 때는 거의 모두가 먼 후일을 도모하여 경영하였는데, 지금 사람은 모든 일이 구차하고 간략하여 오직 눈 앞의 일만을 계획하는 까닭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한결 같이 버려 두고 다시는 지극히 말하는 자가 있지 않으니, 이는 아마도 법을 제정한 본의(本意)가 아닐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방죽 안(堤內)에서 기간(起墾)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방죽을 쌓는 것은 저수(儲水)하기 위함이고, 물을 모아 두는 것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진실로 개울을 소통시키고 치기를 법(法)과 같이 하고, 물을 모우고 줄이는 것을 때를 맞추어 하게 하면, 방죽 아래의 논·밭두둑[疇]이 모두 비옥하게 될 것이니, 어찌 말라 죽고 실임(失稔)하는 우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이 무지하여 구차하게 지척(咫尺)의 땅만을 도모하여, 금년에는 모경(冒耕)하고 명년에는 침계(侵界)하여 방죽 물이 다 말라서 한갓 한 사람의 사유물로 돌아가 마침내는 천묘(千畝)의 농지에 해를 끼칩니다. 말과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어찌 한심(寒心)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양진(仰陳)한 이 4개 조목은 모두가 국전(國典)에 실려 있는 것에 관계되고 신의 역견(臆見)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금법을 신명(申明)하는 것을 현금의 황급(惶汲)한 상황만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이른다면, 비유하건대 목마른 뒤에 우물을 파는 것과 같아서 급한 일을 구제하지 못할 것이나, 진실로 주군(州郡)의 수령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이 금법을 알게 하여 후래(後來)를 예비하는 방도를 삼게 하면, 시행한 지 1년에는 반드시 1년의 효험이 있고, 시행한 지 2년에는 반드시 2년의 효험이 있을 것이니, 오직 실심(實心)으로 실사(實事)를 행하게 하고 일장(一場)의 한가로운 설화(說話)로 삼지 않는데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말을 만들어서 제도(諸道)·제군(諸君)에 관칙(關飭)하여 조목마다 금단(禁斷)하게 하고, 또한 수령(守令)을 출척(黜陟)하는 정사로 삼으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임금이) 말하기를,

“각별히 엄칙(嚴飭)하여 실효가 있도록 하겠다.”

하였다.

## ▶ 9권 8년 11월 10일 甲寅

甲寅/上御熙政堂, 引見大臣備局堂上. 右議政鄭元容啓言: “保民之本, 惟在務農, 作農之具, 牛爲最重. 近年以來, 此禁太弛, 村里場市, 宰屠狼藉, 自官不惟不禁, 或有設庖收稅之處, 牛盜恣行, 牛價倍騰, 窮村之廐養絕罕, 荒田之犁耕幾廢, 大關民事, 依律重繩, 該守令亦爲隨聞論勘.” 從之.

임금이 회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당상(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 정원용(鄭元容)이 계언(啓言)하기를,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보민(保民)하는 근본은 오직 농사를 힘씀에 있으며, 농사를 짓는 기구로는 소[牛]가 가장 소중합니다. 근년 이래로 이를 금하는 법이 크게 해이(解弛)하여, 마을과 저지에서 도살[宰屠]이 낭자(狼藉)한데도 관(官)으로부터 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은 푸줏간을 설치하여 세금을 거두는 곳이 있어서, 소 도둑이 자행되고 소 값이 갑절로 뛰어서 궁촌(窮村)에는 외양간에 기르는 곳이 극히 드문가 하면 황량한 전토를 쟁기로 가는 일이 거의 폐지된 상황에 있으니 이는 민사(民事)에 크게 관계되는 것으로서 율(律)에 따라 엄중히 다스리고 그 수령도 듣는대로 논핵하여 감죄(勘罪)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 14권 13년 8월 9일 乙卯

佛蘭西漂夷去夷爲七百許人. 兩船俱壞, 別送一從船, 往江南省上海縣, 僱三大舶來, 計其往來, 爲十五日. 其所云領回文者, 卽前年洪州外烟島來泊瑟西耳之抵, 我輔相書之答也. 上, 命優遺牛、猪、糧、米、菜茹, 以柔其遠. 及其去, 有抵全羅道臣書.

불란서 사람으로서 표류하여 온 자와 떠난 자가 7백 인쯤 된다. 두 배가 다 깨졌으므로 한 종선(從船)을 따로 보내어 강남성(江南省) 상해현(上海縣)에 가서 큰 배 셋을 샀내어 왔는데, 그 왕래를 셈하면 15일이 된다. 그들이 이른바 회문(回文)을 받겠다는 것은 지난해 홍주(洪州) 외연도(外烟島)에 와서 정박한 슬서이(瑟西耳)가 우리 보상(輔相)에게 보낸 글의 답을 말하는 것이다. 임금이 소·돼지와 양식 쌀과 채소를 넉넉히 보내어 먼에서 온 사람을 희유하라고 명하였다. 그들이 떠날 때에 전라도 도신(道臣)에게 보내는 글이 있었다.

### ▶ 16권 부록 현종 대왕 행장 ①

行狀:

王姓李, 諱旻, 字文應, 翼宗孝明大王適嗣, 純宗成孝大王之孫. 母孝裕王大妃豐壤趙氏贈領議政豐恩府院君忠敬公萬永女, 丁亥七月辛酉, 生王于昌慶宮之景春殿. 先是, 薨翼宗, 以雕玉樹匣而授之, 已而有身, 誕彌之辰, 有鶴一群, 翔于殿上盤旋, 久之乃去, 宮中人異之. 王, 龍睛犀角, 日表秀朗, 覃訏之音, 若發金石, 未百日而能起立. 數歲通周興嗣『千字文』百餘字, 翼宗, 意其目習也, 試之他書, 輒指其宿所知曰, 是某字, 翼宗, 大奇之曰, ‘好學其將勝予乎.’ 嘗所御屏畫人物, 戒人勿令壓之曰, ‘畫中兒疼矣,’ 其聰明仁愛特達之著於天賦者, 已如此. 翼宗代聽國政四年, 以庚寅五月壬戌賓天,

이하생략~

행장(行狀)은 이르기를,

“왕의 성(姓)은 이(李)이고 휘(諱)는 환이요 자(字)는 문응(文應)이니 익종 효명 대왕(翼宗

孝明大王)의 적사(嫡嗣)이고 순종 성효 대왕(純種成孝大王)의 손자이다. 어머니 효유 왕대비(孝裕王大妃) 풍양 조씨(豐壤趙氏)는 증 영의정(贈領議政) 풍은 부원군(豐恩府院君) 충경공(忠敬公) 조만영(趙萬永)의 따님인데, 정해년 7월 18일(신유)에 창경궁(昌慶宮)의 경춘전(景春殿)에서 왕을 낳으셨다. 이에 앞서 익종께서 옥을 아로새긴 나무를 담은 갑(匣)을 주시는 꿈을 꾸고 나서 잉태하셨고, 탄생하신 날에는 한 무리의 학(鶴)이 전상(殿上)에서 날아 오래 돌다가 갔으므로, 궁중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왕은 용청(龍睛)에 서각(犀角)이고 외모가 준수하고 명랑하며 큰 목소리가 마치 금석(金石)에서 나오는 것 같으며 백일이 되기 전에 능히 일어서셨다. 수세(數歲) 때에 주흥사(周興嗣)의 『천자문(千字文)』 중에서 1백여자를 통하셨는데, 익종께서 눈에 익혀진 것이리라고 생각하여 다른 글에서 시험하시면 문득 그 전부터 알던 것을 가리키며 이것은 아무자입니다. 하시니, 익종께서 매우 기특히 여겨 ‘학문을 좋아하는 것이 앞으로 나보다 낫겠다.’ 하셨다. 일찍이 쓰시는 병풍에 그린 인물을 사람들에게 경계하여 누르지 말게 하며 ‘그림 가운데의 아이가 아프겠다.’고 하셨으니 그 특달(特達)한 총명과 인애(仁愛)가 천성에서 나타난 것이 이미 이러하셨다. 익종께서 4년 동안 국정(國政)을 대리 청정(代理聽政)하시다가 경인년 5월 6일에 빈천(賓天)하셨다. 이하생략~

## 29. 哲宗實錄

※ 『哲宗實錄』에는 소(牛)관련 기사가 나타나지 않음.

## 30. 高宗實錄

### ▶ 1권 즉위년 12월 10일 壬午

初十日. 禮曹進服制節目【嗣王斬衰三年, 嗣位服冕服. 卒哭後視事服, 布袍、布裏翼善冠、布裏烏犀帶、白皮靴. 中宮殿斬衰三年, 大王大妃殿齊衰三年, 王大妃殿與大王大妃殿服同. 嬪及內外命婦、貴人、淑儀以下服, 與中宮殿服同. 宗親及文武百官斬衰三年, 妻齊衰三年, 守陵官、侍陵官、內侍斬衰三年. 民人及僧徒白衣、白笠、白帶, 祥而除.】

예조(禮曹)에서 복제 절목(服制節目)을 올렸다. 【왕위를 물려받을 임금은 참취(斬衰)로 3년을 입되 왕위에 오르는 의식에서는 면류관(冕旒冠)과 곤룡포(袞龍布) 차림을 할 것입니다. 졸곡(卒哭) 제사가 지난 다음에 정사를 치결하는 자리에서는 베로 만든 큰 겹옷을 입고 베로 쓴 익선관(翼善冠)을 쓰며 검은 무소뿔로 만든 띠[烏犀帶]를 베로 짜서 차고 흰 가죽으로 만든 화(靴)를 신을 것입니다. 왕비(王妃)는 참취로 3년을 입고 대왕대비(大王大妃)는 자취(齊衰)를 1년을 입을 것이며 왕대비(王大妃)는 대왕대비와 복을 같이 입고 빈(嬪)이라든지 내외 명부(內外命婦)라든지 귀인(貴人)과 숙의(淑儀) 이하의 후궁(後宮)들은 왕비와 복을 같이 입을 것입니다. 종친(宗親)과 문무백관들은 참취로 3년을 입고 그 아내들은 자취로 1년을 입을 것입니다. 수릉관(守陵官)과 시릉관(侍陵官), 내시(內侍)는 참취로 3년을 입을 것이며 일반 백성이나 승도(僧徒)는 흰옷에 흰 갓과 흰 띠를 하며 소상(小祥) 제사까지 지내고 나서 그만두게 할 것입니다.】

### ▶ 2권 2년 10월 4일 乙未

議政府啓: “即見京畿監司俞致善所報, 則‘高陽屠漢李石東, 刺殺楊州居朴甲京, 奪牛屠賣’云矣. 殺越于貨, 法有定文, 而竊盜之懲戡, 時日爲急. 請移送坡州防營, 大會軍民, 梟首警衆.” 允之.

의정부(議政府)에서 제의하기를, “지금 경기감사(京畿監司) 유치선(俞致善)의 보고를 보니 고양(高陽)의 백정인 이석동(李石東)이 양주(楊州)에서 사는 박갑경(朴甲京)을 죽이고 그의 소를 빼앗아 잡아서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경계를 넘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것은 해당한 법조문이 있지만 도적들을 징벌해야 할 시일이 급하니 파주 방어영(坡州防禦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營)에 이송하여 군사와 백성들을 많이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다른 사람들을 경계시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승인하였다.

### ▶ 3권 3년 7월 15일 辛未

黃海監司朴承輝狀啓, 以爲: “卽接黃州牧使丁大植所報則‘黃州牧三田坊外松山里前洋, 異樣船來泊矣. 初八日寅時量, 卽到異樣船所泊處, 使刑吏李耆魯、營吏辛夢辰等先通地方官問情之由, 則答以來見云, 故舟泊於彼船近處. 彼人數十名, 各持銃刀, 排立船頭, 始許登船. 彼四人, 或倚坐或坐梢頭, 仍請同坐後. 書問「何國人? 緣何到此?」則書答「我等乃是西洋三國之人, 而上座崔蘭軒、何噶特, 竝居英吉利, 普來屯居美利堅, 巴使居但國」云. 舉皆深目高鼻, 碧眼黃髮, 的是西洋人無疑, 而崔蘭軒一人, 非但善爲華語, 稍解我國言, 或可辨或不可辨. 至於舉談, 盡委於李八行. 然船中事, 渠皆主張. 所謂李八行、趙半良, 係是中國人, 被英聘爲幕客. 其餘二十四人, 或暹羅及廣東上海縣人, 爲鄉導、爲雇傭、爲水手, 均是從人云. 而欲問其姓名, 則係我舟中之事, 無關君等. 問但國所在, 則答「在西洋, 距兩國一千五百里, 而三國人同爲行商. 今七月初一日, 自山東離發, 歷白翎、椒島串、席島, 轉向平壤. 而我舟貌似兵船, 實欲通商貴地. 紙、米、金、蔘、貂皮等物, 換我洋布、器皿, 別無相害之心. 換貨早畢, 直自平壤回舟, 不然, 雖往王京, 通商後歸」云. 故問「既云往平壤通商, 則有我國人相應交易者乎?」答「沒有.」又以「來泊外洋, 容或無怪, 而越入內洋, 我國原有邦禁, 不可前進爲言.」則答「誰敢攔我, 一直要往, 若值西風, 隨卽發往.」問爾船有同來與否, 則答「此事, 我等不能細述, 亦非我事, 乃國事耳.」更無所答. 船制, 則內塗灰外塗墨, 加油如漆, 上有白粉. 四方板屋兩處, 一住官人, 一住從人, 而面面窓孔皆嵌玻璃. 兩桅俱是松木, 精治塗油. 上豎白洋木方旗, 帆葉以白色洋大綾爲之. 兩傍各設大砲一坐, 下架木輪上安鐵箭, 而上狹下廣. 三次示放, 聲若轟雷, 驚人耳目. 又有巡更長銃三柄, 穴端插鎗, 刃可一尺許. 鳥銃, 則小佩大掛, 難以枚數. 環刀, 則西洋四人, 各持一柄, 舉皆明晃閃爍. 屋內書冊、畫張、琴、鍾、膏藥等雜貨, 歷觀一遍, 無以盡記. 欲見從人所居, 則謂以禮不必往觀, 防遮不見. 下繫小艇, 如我國小漁舟樣, 其色碧. 裝載, 則云有洋木等通商之貨. 而船底, 則不使之見, 未能明知積置虛實數爰. 而酬酢之際, 忽地書示「請君遣价, 賜我大米、牛肉、鷄子、蔬菜、柴木等物, 以洋布答謝」云云. 而若值中國人與各國人漂到者, 則例致館廩, 而洋人之越入內洋, 事出意外, 且有難自下擅便, 故答「以此等僻村, 猝難辦備, 且候風直發, 尤難施行」云. 則崔蘭軒顯加辭色曰: 「撒謊! 撒謊! 諸君如有欲賜之意, 我舟雖行, 亦近君地, 沿江而走, 亦非難事, 何拘此地彼地乎?」自撕問情紙, 摺入懷中, 連加催行. 故不得已, 以行船在卽, 歸當備送爲答, 則回嗔作喜, 出給問情紙, 更說「送必答謝」云. 故以「不必答謝」爲言. 大米一石、牛肉三十斤、鷄子六十箇、菁菜二十束、柴木二十丹, 入

給計料. 而彼船離發之前, 有難徑歸, 姑留津頭近處, 以觀動靜. 而同洋人姓名、年歲、居住、服著及船隻長廣器械什物, 竝修成冊上送矣. 登船問情之際, 自多遲滯, 以致修報之經日, 不勝惶悚.’ 而一時到付, 臣營虞候申永翰所報及譯學李容肅手本內辭緣, 與牧使所報, 一辭同然. 而鱗次黃州牧吏丁大植, 初九日申時牒報內, ‘問情之由, 纔已牒報. 彼人所請米肉等物, 辦備之際, 少爲遲滯矣. 當日申時, 彼船發向平壤所去水路. 故使首吏, 米肉等物, 載船隨往於止泊處給之之意, 飭送.’ 雖緣伺察動靜之意, 自邑擅便, 極涉未安. 而大抵該牧, 本非沿海之邑也, 猝當罕見之事, 生疎做錯, 容或無怪. 而彼船既云發向平安道地方, 則畢竟回路, 由黃州等地, 故沿海各邑瞭望防守之節, 各別舉行之意, 發關嚴飭. 而彼人姓名、年歲、容貌、服著、居住及船隻長廣器械什物, 一依該兵使所報, 開錄于後, 竝以馳啓崔蘭軒: ‘年三十六, 長七尺五寸, 面鐵, 頭髮黃, 圈鬚黑. 服色則灰色, 氈帽黑白斑絨, 單衫黑皮靴子. 腰有革帶, 佩小洋銃及環刀. 文職四品, 英吉利人也.’ 何噶特: ‘年三十七, 長七尺, 面鐵髮黃, 鬚髻黧. 服色則白, 洋布裏帽, 黃繭單衫袴, 跣足藤鞋. 革帶佩小洋銃及環刀. 武職一品, 英吉利人也.’ 普來屯: ‘年四十八, 長七尺五寸, 面鐵髮黃, 圈鬚白髭. 服色則黑, 氈帽白洋木單衫, 黃繭單袴, 色絲交織鞋. 革帶佩小洋銃及環刀. 武職一品, 美利堅人也.’ 巴使: ‘年四十五, 長七尺五寸, 面鐵鬚髮黃圈. 服色則黑, 緞裏帽紫絨單衫, 白木單袴, 黑皮鞋革帶, 佩小洋銃時表及環刀. 但國人也.’ 李八行, 年三十, 趙半良, 年二十八, 皆長七尺, 面鐵、髮辮、鬚無. 服色則白木單衫袴, 鴉青三升鞋, 竝大清人也. 二十四人姓名年記問之, 則崔蘭軒泛稱下人, 不容詳問, 未能的知, 而容貌、服色、頭鬚, 均是大清人樣也. 船樣: ‘長十八丈, 廣五丈, 高三丈. 兩桅, 一個高十五丈, 一個高十三丈, 大三圍. 二大帆色白, 桅繩又係二小帆, 亦色白. 熟麻漚, 桅帆左右各十二條. 其餘船用雜物, 一體問情, 彼不錄示, 故未得詳錄. 而什物器械各人所持外, 藏在船底者居多, 不使開見, 又不詳答, 實難照數. 而從船, 長三把, 廣二把, 綠漆, 無桅帆’云云.”

황해감사(黃海監司) 박승휘(朴承輝)가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러하였다.

“방금 황주목사(黃州牧使) 정대식(丁大植)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주목(黃州牧) 삼전방(三田坊) 밖에 있는 송산리(松山里) 앞바다에 이양선(異樣船)이 와서 정박하였습니다. 8일 인시(寅時)에 곧 이양선(異樣船)이 정박하고 있는 곳까지 가서 형리(刑吏)인 이기로(李耆魯)와 영리(營吏)인 신몽신(辛夢辰) 등으로 하여금 우선 지방관이 사정을 물어보는 사유를 정하게 하였더니 와서 만나보자고 대답하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배가 있는 가까이에 우리 배를 정박시켰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사람들 수십 명이 각기 총을 메기도 하고 칼을 차기도 하고서 뱃머리에 정열해선 다음 비로소 배에 오르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들 4명은 혹 기대어 앉기도 하고 혹은 키머리에 앉기도 한 다음 이어 우리더러 함께 앉자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글로 써서 어느 나라 사람이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는가를 물었더니 서면으로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서양의 세 나라 사람들입니다. 뢰자리에 앉은 최난헌[崔蘭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軒, 토마스]과 하갈특[何特, 호가스]은 다 같이 영국 사람이며 보래둔[普來屯, 프레스톤]은 미국 사람이며 파사[巴使, 빼지]는 덴마크 사람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거의 모두가 눈은 우묵하게 들어갔고 콧마루는 덩실하게 높았으며 눈알은 시퍼렇고 머리칼은 샛노란 사람들로써 확실히 서양인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난헌이라는 사람은 비단 중국말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어지간히 알고 있어 혹은 알아듣기도 하고 혹은 알아듣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팔행(李八行)이라는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나 배 안의 일에 대해서는 그가 모두 주관하였습니다.

이른바 이팔행(李八行)과 조반량(趙半良)은 중국인들로서 영국인이 데려다가 자기 부하로 삼은 사람들이었으며 그 나머지 24명은 혹 타이인이거나 광둥(廣東) 상해현(上海縣) 사람들로써 길안내를 하기 위하여 고용되기도 하고 수수(水手) 노릇도 하였는데 모두가 시중꾼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물으려고 하니 우리 배 안의 일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덴마크의 위치를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서양에 있으며 두 나라와 거리는 1,500리인데 세 나라 사람들은 다같이 장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 7월 1일 산둥(山東)에서 출발하여 백령도(白翎島), 초도곶(椒島串), 석도(席島)를 거쳐 방향을 바꾸어 평양(平壤)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배가 모양은 전선(戰船) 같지만 실상은 상품들을 무역하려고 합니다. 당신네 나라에서 종이와 쌀, 금, 인삼, 초피(貂皮) 등 물품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온 양포(洋布), 기명(器皿)들과 바꾸면 서로 해로울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품 교환이 일찍 끝나면 곧장 평양에서부터 뱃머리를 돌리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비록 서울에 올라가서라도 상품을 바꾼 다음에야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묻기를, 「이미 평양에 가서 물품을 교환하겠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에 호응하여 물품을 교환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말하기를, 「먼 바다에 와서 정박한다고 하더라도 혹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데 더구나 남의 나라 안바다에까지 넘어 들어온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본래부터 국법(國法)으로 금지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전진해갈 수 없다。」라고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누가 구태여 우리를 막습니까. 우리는 곧바로 가려고 합니다. 만약 서풍이 불어 오면 곧 떠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들의 배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온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다고 하니 대답하기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자세히 말해줄 수 없으며 또한 이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라일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의 모양과 규격을 보면 내부에는 회칠을 하였고 밖은 먹칠을 하였는데 그 위에 옷칠을 하듯이 기름칠을 하였으며 위에는 흰 가루가 있었습니다. 사면을 판자로 만든 집이 두 칸 있었는데 한 곳은 관리들이 들고 한 곳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면마다 창문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모두 유리를 끼웠으며 두 대의 돛대는 모두 소나무를 잘 다듬고 그 위에 기름칠을 하였으며 배의 위에는 백양나무 막대기에 깃발을 달아 세웠고 돛은 흰 빛의 울이 굵은 서양 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좌우의 두 견에 각각 대포(大砲) 1문씩 설치하였으며 하가(下架)와 목륜(木輪) 위에는 철



통을 놓았는데 윗부분은 좁고 밑이 넓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시범적으로 쏘았는데 그 소리는 마치 요란한 우뢰소리와 같아서 사람들을 몹시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밖에 또한 밤에 순찰할 때에 메는 장총이 3자루 있었는데 총구멍 끝머리에 1척(尺) 쯤 되는 창날이 꽂혀 있었습니다. 조총은 차고 다니는 자그마한 것과 메고 다니는 큼직한 것 등 이루다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환도(環刀)는 서양인 4명이 각각 한 자루씩 찼는데 모두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방안에는 책이며 그림책, 거문고와 쇠북, 의약품 등 잡다한 물건들이 펼쳐져 있었는데 한 번 죽 훑어보니 이루다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거처하는 방을 보려고 하자 예의상 볼 필요가 없다고 하며 막아서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배 밑에는 우리나라의 자그마한 고기배 모양의 작은 배를 달아뒀는데 거기에 실은 물품들은 양목(洋木) 등 무역할 물품들이라고 말하였으나 배 안을 보여주지 않아 물품을 실은 실태와 그 수량에 대해서는 똑똑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말을 주고 받고할 때에 갑자기 「청하건대 당신네들이 관리를 파견하여 우리들에게 입쌀, 소고기, 계란, 채소, 땔나무 등 물품들을 준다면 양포(洋布)로 그에 답례해 주겠습니다.」라고 글로 써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중국인이나 각 나라 사람들로써 우리나라에 표류하여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으레 객관(客館)에 데려다 요식(料食)도 주곤 하지만 서양인들이 불법적으로 우리나라 안바다를 넘어 들어온 것은 뜻밖의 일이며 또한 아랫사람으로서는 스스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대답하기를, 「이와 같은 외진 벽촌에서 갑자기 그런 물품을 마련하기는 곤란하며 또 순풍을 기다렸다가 곧장 떠나간다는 것은 더욱이 시행하기 곤란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최난현은 현저하게 낮 색을 달리 하면서 말하기를, 「허튼소리를 그만두시오. 허튼소리를 그만두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주려는 생각만 있다면 우리 배가 비록 간다고 해도 역시 당신네 나라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강을 따라 가는 것도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이곳인가 저곳인가에 구애될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서 사실을 알아보기 위하여 쓰던 종이장을 끌어당겨다가 접어서 품속에 넣고 연속 떠나가자고 재촉하였습니다.

때문에 부득이 떠나는 배에서 곧 마련해 보내겠다고 대답해 주었더니 성이 풀리고 기뻐하면서 사실을 알아보기 위하여 쓰던 종이장을 꺼내주면서 다시 「물품을 보내주면 틀림없이 답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답례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입쌀 1석, 소고기 30근, 계란 60알, 채소 20뿍음, 땔나무 20단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들의 배가 떠나기 전에 앞질러 돌아오기 어려운 점이 있어 나루터 근처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의 동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양인들의 이름, 연령, 거주지, 옷차림과 배의 크기, 여러 가지 기계들과 물건들에 대하여 다 적어서 문건으로 만들어 올려 보냅니다.

그런데 배에 올라 사실을 알아볼 때에는 많은 시간을 지체시켜 글로 써서 보고하는 것이 날짜를 경과하게 되어 황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부쳐온 신의 감영의 우후(虞候) 신영한(申永翰)이 올린 보고와 역관(譯官) 이용숙(李容肅)이 보내온 보고서 내용과 황주목사(黃州牧使)의 보고는 한 마디도 틀림없이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황주목사 정대식(丁大植)이 연속하여 9일 신시(申時)에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사유에 방금 이미 서면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요구한 쌀과 고기 등 물품들은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마련할 때에 조금 시간을 지체시켰습니다.

그날 신시에 그들의 배가 평양으로 떠나갔습니다. 가는 뱃길에 대해서 일부러 수리(首吏)로 하여금 쌀과 고기 등 물품들을 배에 싣고 그들이 정박해있는 곳까지 따라가서 줄 데 대한 내용으로 신칙해 보냈습니다.’

비록 동정을 탐지하고 살피려는 뜻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더라도 고을에서 제멋대로 하는 것은 매우 타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대체로 해당 황주목으로 말하면 본래 해변가에 있는 고을은 아닌데다 갑자기 보기 드문 일에 맞닥들이니 일에 생소하여 잘못 처리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들의 배가 이미 평안도(平安道) 일대로 향해갔다고 한 만큼 필경 돌아올 때에 황주 등 고을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연해의 각 고을에서 감시하며 방어하는 등 일을 각별히 잘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공문을 띄워 엄격히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의 이름과 연령, 얼굴 생김새, 옷차림, 거주지와 배의 크기, 여러 가지 기계들과 잡다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해당 병사가 보고한 데 따라 아래에 적어서 함께 급히 보고하는 바입니다.”

“최난헌은 나이는 36살, 키는 7척(尺) 5촌(寸), 낫색은 철색(鐵色)이며 머리칼은 누런 빛의 고수이고 수염은 검은다. 옷차림은 회색 탄자천으로 만든 모자를 썼고 검은 색과 흰 색깔로 반점이 간 두툼한 비단천으로 만든 홀적삼을 입었으며 검은 빛의 가죽으로 만든 목이 긴 신을 신었다. 허리에 혁띠와 자그마한 서양식 총과 환도를 찼다. 문직(文職)의 4품 관리로서는 그는 영국인이었다.

하갈특은 나이가 37살, 키는 7척, 낫색은 철색이며 머리칼은 노랑고 수염이 텁수룩하게 났다. 옷차림은 흰 서양천으로 만든 머리둥이개와 모자를 썼으며 누런 빛의 인견직으로 만든 홀적삼과 바지를 입었으며 맨발에 쇠무릎풀로 만든 신을 신었다. 혁띠를 띠고 자그마한 서양식 총과 환도를 찼다. 무직(武職)의 1품 관리로서 그는 영국인이었다.

보래둔은 나이는 48살, 키는 7척 5촌, 낫 색은 철색이고 머리칼은 누런 빛의 고수였으며 흰수염이 길게 났었다. 옷차림은 검은 빛의 탄자천으로 만든 모자를 썼고 흰 빛의 서양 무명으로 만든 홀적삼과 홀바지를 입었으며 색실로 얼기설기 짠 천으로 만든 신을 신었다. 혁띠를 띠고 자그마한 서양식 총과 환도를 찼다. 무직(武職)으로서 1품 관리였는데 그는 미국 사람이었다.

과사는 나이는 45살, 키는 7척 5촌, 낫 색은 철색이고 머리칼은 누런색이면서도 고수였다. 옷차림은 검은 빛의 비단으로 만든 쓰개와 모자를 썼다. 자지색 비단으로 만든 홀적삼을 입고 흰 무명으로 만든 홀바지를 입었다. 검은 색의 가죽신을 신고 혁띠를 띠었으며 자그마한 서양식 총과 환도를 찼다. 그는 덴마크 사람이었다.

이팔행(李八行)의 나이는 30살이었고, 조반량(趙半良)의 나이는 28살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다같이 키는 7척이었고 낫 색은 철색이었으며 머리는 땅아 올렸고 수염은 없었다. 옷차림은 흰 무명으로 만든 홀적삼과 바지를 입고 검푸른 빛의 3승포(三升布)로 만든 신을 신었는데 그들은 다 같이 청나라 사람이었다.

24명의 인원과 이름과 나이에 대하여 물어보니 최난헌은 하인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면서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므로 자세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얼굴 생김새와 옷차림, 머리칼을 보면 모두 청나라 사람과 같은 모양이었다.

배의 모양을 놓고 보면 길이가 18장(丈), 넓이가 5장, 높이가 3장이었으며 돛대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높이가 15장이었고 하나는 높이가 13장이었으며 굽기는 3위(圍)가량 되었다. 두 개의 큰 돛은 흰색이었으며 돛대의 밧줄에는 또 작은 돛 두 개를 얹어매었는데 역시 흰갈색이었다. 익힌 삼밭줄을 돛대와 돛 좌우에 각각 12줄씩 늘였다. 그 밖의 배에서 사용하는 잡다한 물건들에 대해서 모두 물어봤으나 저들이 글로 써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다. 잡다한 물품들과 기계들, 매 사람들이 휴대한 물품 외에 배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으나 보여주지도 않았고 또 자세히 대답도 해주지 않았으므로 그 수량을 실로 알기 어려웠다. 큰 배에 딸려 있는 작은 배는 길이가 3장, 넓이는 2장이었으며 푸른색으로 칠하였는데 돛대와 돛은 없었다.”

### ▶ 3권 3년 9월 8일 甲子

江華留守李寅夔狀啓: “本月初七日未時, 彼人等突入東城, 銃放所及, 我人之被傷、被死爲二人, 把守軍校, 不能阻擋. 醜類毀破城堞而踰入, 周覽城內後, 還爲出去. 而事既到此, 十分遑急, 長寧殿兩聖御眞, 權奉于本府西門外白蓮寺. 而臣處在關防, 未得捍禦, 使彼醜類, 若是猖獗, 惶恐待罪.” 教曰: “勿待罪.” 又以“異樣船下陸登山之由, 已爲馳啓, 而彼船仍爲停泊, 似有經夜之意. 故令本府經歷金在獻, 問情次出送矣. 回報: ‘問情次出往之路, 彼人幾十名, 攔阻於中路, 引入堂峴路邊村舍. 故書示以問情之由, 則彼人揮手不知云. 引往甲串津海門內閭家, 則彼人幾百名, 各持鎗銃, 屯聚排立. 故書問「爾們萬里風波, 能無疾病邪?」 彼人不答. 繼書示「爾們未知何國人, 而緣何事來此邪?」 彼又不答. 渠自修書, 竝與問情書, 送于渠船, 而與我國書不同矣. 居無何, 彼請上船, 故隨往彼船, 則無數洋人, 左右排列而引入, 二層船間則燈燭輝煌, 洋人一名主壁, 坐傍有我國服色者一人, 交椅坐, 以我國之言問之曰: 「江華留守邪?」 答曰: 「非也. 地方官也」云. 則彼問「誰送爾邪?」 答「我以地方官, 問情次來到」云爾, 則彼問「今春間, 汝國以何故殺洋人九名乎?」 答「果於春間, 有此事. 而爾國人, 隱伏都城, 姦昵婦女, 奪人財貨, 暗售不軌, 則於國法, 難遑一律, 故果爲行刑. 大抵我國人, 若入爾國, 行此非法, 則爾國亦當鋤誅之矣.」 彼云: 「今方殺汝也.」 答「死則不懼也. 但通使問情人之殺害, 自古未有也. 爾們斯速返棹」云爾, 則彼拔劍促去, 不得已還爲下陸, 到鎮海門內. 一隊醜類, 拔劍持鎗, 遮攔道中, 且請食物. 故牛三隻許給之意書示, 則彼不滿意, 終不開路. 以其柔遠之意, 不得已牛五隻、豬五首、鷄五十首許給之意書示, 則彼人始乃通路. 而彼船三隻, 留碇於甲串前洋, 以十餘隻從船, 恣意下陸, 奪人閭家, 滿山遍野. 船形烟篙火輪, 依如前日上來船樣子, 而船中洋人, 不知幾百名’云. 連接廣城堡別將金濬模所報, 則‘異樣船四隻內, 三隻已爲過去. 落後一隻, 又爲入來, 掛在於本鎮前洋越邊通津地方沙五嶼’云”啓.

강화유수(江華留守) 이인기(李寅夔)가 보고하기를, “이달 7일 미시(未時)에 그들이 동쪽 성에 돌입하여 총을 마구 쏘아대는 바람에 우리 사람으로서 부상당했거나 죽은 사람이 2명입니다. 파수군(把守軍)들이 저지시키지 못하여 추악한 무리들은 성을 파괴하고 넘어 들어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와 온 성 안을 두루 싸다니며 본 다음 도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미 이 정도에 이르렀으나 더없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장녕전(長寧殿)에 모셔둔 두 어진(御眞)을 임시로 본 고을 서쪽문 밖에 있는 백련사(白蓮寺)에 옮겨갔습니다.

신은 요새지에 있으면서 방어를 잘 하지 못하여 저 추악한 무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제멋대로 날치게 만들었으니 두렵고 황송하여 처분을 기다립니다.”라고 하였다.

지시하기를, “처분을 기다리지 말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보고하였다.

“이양선(異樣船)의 사람들이 육지에 올라 산에 오른 경로는 이미 급보를 올렸습시다만 저놈들의 배가 그냥 정박하여 있으면서 밤을 새울 것 같기 때문에 본 고을 경력(經歷) 김재헌(金在獻)으로 하여금 내막을 물러보도록 하기 위해 떠나보냈습니다. 그의 회답 보고는 이러합니다.

‘내막을 물어보기 위해 나가는 길인데 저들이 수십 명이 중도에서 길을 막아나서며 당현(堂峴) 고개의 길옆에 있는 촌마을 집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내막을 물어보러 오게 된 사유를 글로 써서 보이니 그들은 손을 내저으며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갑곶진(甲串津) 해문(海門)에 있는 농가로 끌고 갔는데 그들 수백 명이 창과 총을 각각 휴대하고 모여들어서는 쪽 늘어섰습니다. 그리하여 글로 써서 묻기를, 「당신들이 수만 리 풍파를 헤치고 왔는데 앓는 사람은 없습니까?」라고 하니 그들은 없다고 대답 하였습니까? 계속하여 글로 써서 묻기를, 「당신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무슨 일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라고 하였으나 저들은 또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들 자체로 쓴 글을 우리의 내막을 물어보는 글과 함께 저들의 배에 보내주었는데 저것들의 글은 우리나라의 글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가서 저것들이 우리들더러 배에 올라가자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 그들의 배에 올라갔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서양사람들이 좌우에 늘어섰으며 2층에 있는 배칸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방 안에는 들불과 촛불이 환히 밝게 켜져 있었는데 서양사람 하나가 한가운데 앉아있고 그곁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옷차림을 차려입은 한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우리나라 말을 하면서 묻기를, 「강화유수(江華留守)입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지방관입니다.」라고 하자 그는 묻기를, 「누가 당신을 보냈습니까?」라고 하므로 대답하기를, 「나는 지방관으로서 내막을 물어보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묻기를, 「금년 봄에 당신네 나라에서는 무엇 때문에 서양사람 9명을 죽였습니까?」라고 하므로 대답하기를, 「실로 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네 나라 사람이 수도에 잠복해 있으면서 여인들을 강간하고 남의 재물과 돈을 빼앗고 암암리에 반역 음모를 꾸몄으므로 나라의 법에 비추어 사형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처형하였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 당신네 나라에 들어가 이와 같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면 당신네 나라에서도 역시 응당 사형에 처하였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놈들은 말하기를, 「지금 당신을 죽이겠습니다.」라고 하므로 대답하기를,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관(譯官)으로서 내막을 물어보러 온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예로부터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빨리 배를 돌려 갈 것입니다.」라고 하자 그놈들이 칼을 빼들고 가라고 독촉하기 때문에 부득이 도로 육지에 올라와 진영의 해문 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추악한 자들이 칼과 창을 뽑아들고 길 가운데에 막아서서 음식물을

요구하였습니다. 때문에 소 3마리를 주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글로 써서 보였는데 그들은 흡족하게 여기지 않고 끝끝내 길을 막아서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해주어야 하는 뜻으로부터 부득이 소5마리, 돼지 5마리, 닭 10마리를 주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써서 보였더니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의 배 3척은 갑곶진(甲串津) 앞바다에 정박해 있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내며 온 산과 들을 마구 싸다녔습니다. 배모양이며 연통이며 기계들은 지난번 올라왔던 배 모양과 같았으며 배 안에 있는 서양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 광성보 별장(廣城堡別將) 김준모(金濬模)가 보내온 보고에 의하며 이양선(異樣船) 4척 가운데서 3척은 이미 지나가고 뒤에 떨어졌던 1척의 배가 또 들어와서 본 진영의 건너편에 있는 통진(通津) 지방의 사오서(沙五嶼)에 정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 3권 3년 9월 12일 戊辰

敎曰: “出征軍兵處, 白米二十石、黃牛十隻、酒十器, 令度支當日下送犒饋.” 又敎曰: “舟橋校卒之多日露處, 亦甚可悶. 遣宣傳官勞問.”

지시하기를, “전장(戰場)에 나간 군사에게 백미 20석(石), 황소 10마리, 술 10그릇을 호조(戶曹)를 시켜 당일로 내려보내주어 먹이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지시하기를, “주교사(舟橋司)의 장교와 병졸들이 여러 날 동안 밖에 있었으니 역시 몹시 걱정스럽다. 선전관(宣傳官)을 보내어 위로해주고 알아보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 3권 3년 9월 20일 丙子

敎曰: “畿內諸邑, 以招兵支勅, 無暇矣. 此時, 駱牛之執捉, 民間自多騷擾. 今年則駱  
粥供上, 自至月初一日舉行事, 分付藥院.”

지시하기를, “경기(京畿) 안의 여러 고을들은 군사를 초모하여 중국 사신(使臣)들을 접대 하느라고 겨를이 없는 이때에 젓소들을 민간에서 잡아들이는 것은 자연히 소란스러운 일이 많을 것이다. 올해는 줄인 우유를 바치는 것은 동지달 초하룻날부터 집행하도록 약원(藥院)에 지시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 3권 3년 10월 20일 乙巳

~이상생략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仍敎曰：“巡撫營撤罷。”巡撫營土民助餉秩：【幼學李重允牛三隻，李海祚一萬兩，李容夏牛二隻，李錫柱牛一隻、草二把，閔升鎮牛一隻，所任卓聖宗柴四駄三負、馬太一駄、馬草一駄，閑良趙仁甲柴三百束，幼學閔德容截草二斗、草二十把、紅柿十二貼、乾柿一貼、熟栗一斗、牛一隻，所任金永業柴七駄、馬太二十五束、草十四把，高潛位柴八駄、馬太一駄、馬草一駄、南草八把，出身朴麟英白米一石、牛二隻、草五把，幼學金思薰牛一隻，丁大柱馬太三斗、草二把，金定鉉馬太三斗、草五把，沈能泰牛五隻、草五把，李枝榮牛三隻，李相鳳牛一隻，張永奎生栗十五斗、草五把，張漢雲米三斗、醬一壺、柴一駄，金順釗草三把，崔興商草三把，金用大草十七把、柴五駄、折草三石、太三束，李漢衡白米二石、牛一隻，韓橡燦馬料二石、馬太十五束、草十把，金好福柴二百束、穀草一百束、青太七十束，白南升牛二隻，白南恒牛二隻，鄭重儉松炬三千柄、民魚十尾，金允七松炬二千柄，李福賢白鰕鹽五甕、土醬一甕，李承準甲冑一件，洪鍾淵十兩，金龍九、金鴻九各米二十石，金命九米五石，盧義鎬二百兩，鄭龍燦黃豆五石，金舜柱一百兩，李錫範一百兩，林鳳章牛二隻，李義祥石花鹽三甕、白鰕鹽半甕、石魚三束、醬肉二甕、清酒十盆、熟肉十斤、草十斤，玄濟昇五百兩、米十石，金基碩米一石，李性善牛五隻，玄鐸百兩，金麟性正肉三百斤、截餅二千四百介、湯三甕、清酒三十盆，河靖一黃牛二隻，宗親府書吏等黃牛三隻，權頭等牛一隻，使令等牛二隻，鄭德煥白米五石，訓練都監庫直金道瀾白米十石，政府書吏等白米十石、黃豆十石，使令等黃豆十石，安膺煥牛二隻，張淳奎白米三十石，金鎮裕牛十隻，李福賢白米二十石，權永斗牛一隻、草六把，申在學牛四隻、良醬三盆、草五十把，奉城里人民白餅三十四器、牛一隻、醬七十碗，車允行一百兩，金重孝米十石，曹仁植一百兩，朴啓煥一百兩，千義賢三百兩，李碩燁三百兩，李秉悌二百兩，李洽牛一隻、浸柿三貼、紅柿一貼，朴命珏柴八百二十同，顛流里民人等米三石、馬草太四駄，登山里民人等馬料枯草四石、青絕太二石，李益秀柴一駄、草二把，金弘潤柴三百同，西明洞民人等馬青太一百六十一束、柴一百七十束、草五把，金命孫柴三駄，廉振玉柴二百四十八同，李龍漢米一石牛一隻，李參鉉牛一隻，安起善柴一駄，俞致宗柴一駄，金判孫柴一百四同，金才石柴八十四束，韓在斗鹽六石、瓢二箇、草三把，沈奎之柴二十二同，趙漢永柴三十束，梁仁榮柴一駄，朴連釗柴一駄，吳應周柴一駄，李在澤牛一隻，崔虎大牛一隻，李海斗牛一隻、猪二口，金學準二百兩，金完祖二百兩，金禹鼎一百兩，劉在韶米五石，金鎮漢一百兩，金應相鹽五石，洪璋炫牛一隻絕餅千箇，洪璋炫、李禮崇各牛一隻，鄭憲教米五石，金在洙米三石太二石，千相鎬五十兩，諫院書吏等米五石，文義說米十石，戶吏金斗植米五石，崔錫祐米五石，通津權鳳憲酒五甕、牛二隻、紅柿四貼、糟糠四石，趙漢永再次牛一隻、馬太十束，李相錫、李圭永各牛一隻，閔龍植柴七十束，金相郁柴七十束，李宗憲柴七十束，陽存里民人等柴一百八十束、馬草二十束，大坡里民人等柴二百束，張漢雲糟糠六石、柴一駄，李吉遠民魚十二尾、石魚五束、眞魚二束三尾，李紀遠民魚十二尾、石魚五束、眞魚二束三尾，崔光潤柴三駄，崔遇永沈菜十桶、太三駄，金得淵馬太四束、糟糠三斗，李丕伊馬太二十二束，李相錫牛一隻、草十七把，李圭永牛一隻，沙草里民人等濁酒十九盆，霞隱洞民人等濁酒二

十四盆, 閔義復太二駄, 黃進源沈柿千箇、石花鹽一盆, 朴漢英米十石, 白之延米三石、土醬三盆, 李膺秀將卒三十二人糧饌全當, 五臺市民千兩, 廉在鎭牛二隻, 鄭在昕一百兩, 李俊壽、李鼎禹百兩, 姜泰鉉米五石, 李仁石米五石, 政院書吏等牛二隻, 使令等牛二隻, 惠吏吳道烈等米二十石、黃豆二十石, 庫直高鎭垚等米二十石、黃豆二十石, 使令尹昌燁等米十石、黃豆十石, 壽進宮掌務李承業二百兩, 麻西里洞民等柴五十九束、青太二十束、糟糠二石, 折遇里濁酒二十九盆, 權炳斗馬太一駄, 權秉憲馬太一駄, 朴致西馬太一駄, 朴太三馬太一駄, 李俊永馬太一負、南草四把, 閔義達、林允得皮太十束、馬草六束、糟糠一石, 唐浦洞民等馬太一石、糟糠三石、柴草十駄, 秦繼煥、姜和淳、車允行各一百兩, 孫澄洙牛二隻、民魚十尾, 李宗哲良醬一甕、白鯢鹽一盆, 白樂善一百兩、米五石、牛二隻, 秦繼煥、金景遂、姜和淳各一百兩, 朴敏浩一百兩, 朴大永三百兩, 白木廬市民二千兩, 劉淵哲一百兩, 洪就源米五石、黃豆二石, 內閣使令等牛一隻, 禁府羅將等黃豆十石, 金得憲米五石、錢一百兩, 崔致斗一百兩, 李承幹牛十隻, 李雲祥牛四隻, 李紹榮北魚二十快、眞醬一盆十碗、肉燭五百柄, 冬乙山里濁酒十一盆, 千巖回柴七百同, 沈能藝沈柿六百箇、鹽十二斗, 李東成米二石、牛一隻, 尹茂性黃豆十石, 宋應駿黃豆十石, 宣吏尹義錫黃豆十石, 兵吏石燦永米五石, 尹營參牛一隻、唐米一石、草五把, 鄭繼聖米五石, 尹營浩牛一隻、小米一石、草十把, 金仁豐一百兩, 田基弘二十兩, 溫水同民人等牛一隻、草五十四把, 高啓哲犢一隻, 梁忠煥牛一隻、草一百斤、肉燭二千柄、生梨二百箇, 金永孝牛一隻、草二十斤, 李群玉石魚五束、魚卵五部, 朴孝鎭石魚二束、牛油一盆, 劉振汝細鹽一盆, 姜在逸牛一隻濁酒一甕, 松牙里糟糠一石、太十斗, 勒洞里太二石、糟糠四石, 總戎廳白南升再次牛三隻, 李福賢再次白鯢鹽三甕, 魚物廬市民民魚一百尾、甘藷一百同, 前守門將李濟鉉米三十石牛二隻, 前五衛將朴時銓、幼學權基周米一百石.】

~이상생략

순무영(巡撫營)에서 군량을 도운 선비들과 백성들에 대하여 기록한 문건은 이러하였다.

유학(幼學) 이중윤(李重允)이 소 3마리, 이해조(李海祚)가 돈 1만냥(兩), 이용하(李容夏)가 소 2마리, 이석주(李錫柱)가 소 1마리와 쥔 2파(把), 민승진(閔升鎭)이 소 1마리, 소임(所任) 탁성종(卓聖宗)이 뿔나무 4태 3부(負)와 말먹이 콩 1태와 마초(馬草) 1태, 한량(閑良) 조인갑(趙仁甲)이 뿔나무 300속(束), 유학(幼學) 민덕용(閔德容)이 썬담배 2두(斗)와 쥔 20파(把)와 홍시 12첩(貼)과 꽃감 1첩과 삶은 밤 1두(斗)와 소 1마리, 소임(所任) 김영업(金永業)이 뿔나무 7태와 말먹이 콩 25속과 쥔 14파와 고잠위(高潛位) 뿔나무 8태와 말먹이 콩 1태와 마초 1태와 남초(南草) 8파, 출신(出身) 박인영(朴麟英)이 백미(白米) 1석(石)과 소 2마리와 쥔 5파, 유학(幼學) 김사훈(金思薰)이 소 1마리, 정대주(丁大柱)가 말먹이 콩 3두와 쥔 2파, 김정현(金定鉉)이 말먹이 콩 3두와 쥔 5파, 심능태(沈能泰)가 소 5마리와 쥔 5파, 이지영(李枝榮)이 소 3마리, 이상봉(李相鳳)이 소 1마리, 장영규(張永奎)가 생밤 15두와 쥔 5파, 장한운(張漢雲)이 쌀 3두와 장 1독과 뿔나무 1태, 김순쇠(金順釧)가 쥔 3파, 최흥상(崔興商)이 쥔 3파, 김용대(金用大)가 쥔 17파와 뿔나무 5태와 썬담배 3석과 콩 3속, 이한형(李漢衡)이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백미 2석과 소 1마리, 한상혁(韓橡熾)이 말떡이 2석과 말떡이 콩 15속과 쥔 10과, 김호복(金好福)이 뽕나무 200속과 곡초(穀草) 100속과 푸른콩 70속, 백남승(白南升)이 소 2마리, 백남항(白南恒)이 소 2마리, 정중검(鄭重儉)이 관솔 3,000자루[柄]과 민어 10마리[尾], 김윤칠(金允七)이 관솔 2,000자루, 이복현(李福賢)이 백하젓 5항아리와 토장(土醬) 1항아리, 이승준(李承準)이 갑옷과 투구 1건(件), 홍종연(洪鍾淵)이 돈 10냥(兩), 김용구(金龍九)와 김홍구(金鴻九)가 각각 쌀 20석, 김명구(金命九)가 쌀 5석, 노희호(盧羲鎬)가 돈 200냥, 정용혁(鄭龍熾)이 콩 5석, 김순주(金舜柱)가 돈 100냥, 이석범(李錫範)이 돈 100냥, 임봉장(林鳳章)이 소 2마리, 이의상(李義祥)이 굴젓 3항아리와 백하젓 반항아리와 조기 3두름과 육장 2항아리와 청주 10동이와 삶은 고기 10근(斤)과 쥔 10근, 현제승(玄濟昇)이 돈 500냥과 쌀 10석, 김기석(金基碩)이 쌀 1석, 이성선(李性善)이 소 5마리, 현탁(玄濯)이 돈 100냥, 김인성(金麟性)이 정육 300근과 절편 2,400개(介)와 탕(湯) 3항아리와 청주 30동이, 하정일(河靖一)이 황소 2마리, 종친부(宗親府)의 서리(書吏) 등이 황소 3마리, 권두(權頭) 등이 소 1마리, 사령(使令) 등이 소 2마리, 정덕환(鄭德煥)이 백미 5석,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창고지기 김도익(金道翼)이 백미 10석, 의정부(議政府) 서리 등이 백미 10석과 콩 10석, 사령 등이 콩 10석, 안응환(安膺煥)이 소 2마리와 쥔 6과, 장순규(張淳奎)가 백미 30석, 김진유(金鎭裕)가 소 10마리, 이복현(李福賢)이 백미 20석, 권영두(權永斗)가 소 1마리와 쥔 6과, 신재학(申在學)이 소 4마리와 간장 3동이와 쥔 50과, 봉성리(奉城里) 백성들이 흰 절편 34그릇과 소 1마리와 장(醬) 70사발, 차유행(車允行)이 돈 100냥, 김중효(金重孝)가 쌀 10석, 조인식(曹仁植)이 돈 100냥, 박계환(朴啓煥)이 돈 100냥, 천의현(千義賢)이 돈 300냥, 이석엽(李碩燁)이 돈 300냥, 이병제(李秉悌)가 돈 200냥, 이흠(李洽)이 소 1마리와 침시(浸柿) 3첩과 감 1첩, 박명각(朴命珏)이 뽕나무 820동(同), 전류리(顚流里) 백성들이 쌀 3석과 마초와 콩 4태, 등산리(登山里) 백성들이 말떡이 마른 쥔 4석과 청절(靑絶)콩 2석, 이익수(李益秀)가 뽕나무 1태와 쥔 2과, 김홍윤(金弘潤)이 뽕나무 300동, 서명동(西明洞) 백성들이 말떡이 푸른콩 161속과 뽕나무 170속과 쥔 5과, 김명손(金命孫)이 뽕나무 3태, 염진옥(廉振玉)이 뽕나무 248동, 이용한(李龍漢)이 쌀 1석과 소 1마리, 이삼현(李參鉉)이 소 1마리, 안기선(安起善)이 뽕나무 1태, 유치중(兪致宗)이 뽕나무 1태, 김판손(金判孫)이 뽕나무 104동, 김재석(金才石)이 뽕나무 84속, 한재두(韓在斗)가 소금 6석과 박 2개와 피 2과, 심규지(沈奎之)가 뽕나무 22동, 조한영(趙漢永)이 뽕나무 30속, 양인영(梁仁榮)이 뽕나무 1태, 박연쇠(朴連釧)가 뽕나무 1태, 오응주(吳應周)가 뽕나무 1태, 이재택(李在澤)이 소 1마리, 최호대(崔虎大)가 소 1마리, 이해두(李海斗)가 소 1마리와 돼지 2마리, 김학준(金學準)이 돈 200냥, 김완조(金完祖)가 돈 200냥, 김우정(金禹鼎)이 돈 100냥, 유재소(劉在韶)가 쌀 5석, 김진한(金鎭漢)이 돈 100냥, 김응상(金應相)이 소금 5석, 홍장현(洪璋炫)이 소 1마리와 절편 1,000개, 김귀성(金貴星)과 이예승(李禮崇)이 각각 소 1마리, 정헌교(鄭憲敎)가 쌀 5석, 김재수(金在洙)가 쌀 3석과 콩 2석, 천상호(千相鎬)가 돈 50냥, 훈련원(訓練院) 서리 등이 쌀 5석, 문의설(文義說)이 쌀 10석, 호리(戶吏) 김두식(金斗植)이 쌀 5석, 최석우(崔錫祐)가 쌀 5석, 통진(通津) 권봉헌(權鳳憲)이 술 5항아리와 소 2마리와 감 4첩과 지게미와 쌀겨 4석, 조한영(趙漢永)이 두 번째로 소 1마리와 말떡이 콩 10속, 이상석(李相錫)과 이규영(李圭永)이 각각 소 1마리, 민용식(閔龍植)이 뽕나무 70속, 김상옥(金相郁)이 뽕나무 70속, 이종헌(李宗憲)이 뽕나무 70속, 양존리(陽存里) 백성들이 뽕나무 180속과 마초 20속(束), 대파리(大坡里) 백성들이 뽕나



무 200속(束), 장한운(張漢雲)이 지게미와 쌀겨 6석과 땔나무 14태, 이길원(李吉遠)이 민어 12마리와 조기 5두름과 준치 2두름 3마리, 이기원(李紀遠)이 민어 12마리와 조기 5두름과 준치 2두름 3마리, 최광윤(崔光潤)이 땔나무 3태, 최우영(崔遇永) 칩채 10통(筒)과 콩 3태, 김득연(金得淵)이 말먹이 콩 4속과 지게미와 쌀겨 3두, 이돌이(李玆伊)가 말먹이 콩 22속, 이상석(李相錫)이 소 1마리와 짚 17파, 이규영(李圭永)이 소 1마리, 사초리(沙草里) 백성들이 탁주 19동이, 하은동(霞隱洞) 백성들이 탁주 24동이, 민희복(閔羲復) 콩 2태와 침시(沈柿) 1,000개와 굴젓 1동이, 박한영(朴漢英) 쌀 10석, 백지연(白之延) 쌀 3석과 토장 3동이, 이용수(李膺秀)가 32명의 장수와 군사들의 군량을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며, 오전(五廛) 시민들이 돈 1,000냥, 염재진(廉在鎭)이 소 2마리, 정재흔(鄭在昕)이 돈 100냥, 이준수(李俊壽)와 이정우(李鼎禹)가 돈 100냥, 강태현(姜泰鉉)이 쌀 5석, 이인석(李仁石)이 쌀 5석, 승정원(承政院) 서리들이 소 2마리, 사령들이 소 2마리, 선혜청(宣惠廳) 서리 오도열(吳道烈) 등이 쌀 20석과 콩 20석, 창고지기 고진대(高鎭岱) 등은 쌀 20석과 콩 20석, 사령 윤창엽(尹昌燁) 등이 쌀 10석과 콩 10석, 수진궁 장무(壽進宮掌務) 이승업(李承業)이 돈 20냥, 마서리동(麻西里洞) 백성들이 땔나무 59속과 푸른 콩 20속과 지게미와 쌀겨 2석, 절과리(折過里)에서 탁주 29동이, 권병두(權炳斗)가 말먹이 콩 1태, 권병헌(權秉憲)이 말먹이 콩 1태, 박치서(朴致西)가 말먹이 콩 1태, 박태삼(朴太三)이 말먹이 콩 1태, 이준영(李俊永)이 말먹이 콩 1부와 담배 4파, 민희달(閔羲達)과 임윤득(林允得)이 겹질 콩 10속과 마초 6속과 지게미와 쌀겨 1석, 당포동(唐浦洞) 백성들이 말먹이 콩 1석과 지게미와 쌀겨 3석과 땔나무 10태, 진계환(秦繼煥), 강화순(姜和淳), 차유행(車允行) 등이 각각 돈 100냥, 손형수(孫滢洙)가 소 2마리와 민어 10마리, 이종철(李宗哲)이 간장 1항아리와 백하젓 1동이, 백낙선(白樂善)이 돈 100냥과 쌀 5석과 소 2마리, 진계환(秦繼煥), 김경수(金景遂), 강화순(姜和淳) 등이 각각 돈 100냥, 박민호(朴敏浩)가 돈 100냥, 박대영(朴大永)이 돈 300냥, 백목전(白木廛) 시민(市民)들이 돈 2,000냥, 유연철(劉淵哲)이 돈 100냥, 홍취원(洪就源)이 쌀 5석과 콩 2석, 규장각 사령(奎章閣使令)들이 소 1마리, 의금부 나장(義禁府羅將)들이 콩 10석, 김득헌(金得憲)이 쌀 5석과 돈 100냥, 최치두(崔致斗)가 돈 100냥, 이승간(李承幹)이 소 10마리, 이운상(李雲祥)이 소 4마리, 이소영(李紹榮)이 북어 20두름과 진장 1항아리와 10사발, 소기름으로 만든 초 500대, 동을산리(冬乙山里)에서 탁주 11동이, 천암회(千巖回)가 땔나무 700동, 심능예(沈能藝)가 침시 600개와 소금 12두, 이동성(李東成)이 쌀 2석과 소 1마리, 윤무성(尹茂性)이 콩 10석, 송응준(宋應駿)이 콩 10석, 선혜청 서리(宣惠廳胥吏) 윤의석(尹義錫)이 콩 10석, 병조(兵曹) 서리 석찬영(石燦永)이 쌀 5석, 윤영삼(尹營參)이 소 1마리와 당미 1석과 짚 5파, 정계성(鄭繼聖)이 쌀 5석, 윤영호(尹營浩)가 소 1마리와 좁쌀 1석과 짚 10파, 김인풍(金仁豐)이 돈 100냥, 전기홍(田基弘)이 돈 20냥, 온수동(溫水洞) 백성들이 소 1마리와 짚 54파, 고계철(高啓哲)이 송아지 1마리, 양충환(梁忠煥)이 소 1마리와 짚 100근과 소기름으로 만든 초 2,000개와 배 200알, 김영효(金永孝)가 소 1마리와 짚 20근, 이군옥(李群玉)이 조기 5두름과 어란 5부, 박효진(朴孝鎭)이 조기 2두름과 우유 1동이, 유진여(劉振汝)가 가는 소금 1동이, 강재일(姜在逸)이 소 1마리와 탁주 1동이, 송아리(松牙里)에서 지게미와 쌀겨 1석과 콩 10두, 늑동리(勒洞里)에서 콩 2석과 지게미와 쌀겨 4석, 총융청(總戎廳)의 백남승(白南升)이 두 번째로 소 3마리를 바쳤으며, 이복현(李福賢)이 두 번째로 백하젓 3동이, 어물전(魚物廛)의 시민들이 민어 100마리와 미역 100동, 전 수문장(守門將) 이제현(李濟鉉)이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쌀 30석과 소 2마리, 전 오위장(五衛將) 박시전(朴時銓)과 유학(幼學) 권기주(權基周)가 쌀 100석을 바쳤다.】

### ▶ 4권 4년 1월 2일 丁巳

初二日. 議政府啓: “即見咸鏡監司金有淵、北兵使鄭岐源狀啓, 則‘俄羅斯人五名來到慶興府, 稱以『我國鄭才旭家牛二隻, 爲彼們所奪, 今爲推來還給』云. 而投書于該府使處. 故垢書以看則乃我人越居彼地者之所製也. 而『鄭才旭處有債給條, 錢四兩六錢與兒產牛一隻, 故放賣牛一隻, 推給本錢, 零在文與牛一隻, 今爲還送』云. 則書與物相左, 事甚訝惑. 姑爲受置, 以待朝家處分’云矣. 隔江結幕, 已是叵測, 越境投書, 又此無難. 甚至於任自來往, 防限蕩然, 揆以邊政, 寧欲無言. 凡所戒嚴, 纔有前飭, 而可以防守則防守, 可以曉諭則曉諭. 牛隻相左, 詳查措處之意, 請分付.” 允之.

의정부(議政府)에서 제의하였다.

“함경감사(咸鏡監司) 김유연(金有淵)과 북병사(北兵使) 정기원(鄭岐源)의 장계(狀啓)에 의하면 ‘러시아인 5명이 경흥부(慶興府)에 와서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정재욱(鄭才旭)의 집에 있는 소 2마리를 저편 사람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찾아와서 돌려준다.』’라고 하면서 해당 부사가 있는 곳에 글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글을 뜯어서 보니 바로 저편 땅에 넘어간 우리 사람이 쓴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정재욱(鄭才旭)에게 빚으로 꾸어준 것이 돈 4냥 6전과 송아지 1마리이기 때문에 소 1마리를 팔아서 본전을 찾아주고 남은 돈과 소 1마리를 이제 돌려보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결국 글의 내용과 물건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일이 매우 이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 직은 그대로 받아두고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막을 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망측한데다 국경을 넘어와서 글을 넘겨주는 것을 또한 이렇게 조심성 없이 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멋대로 왔다갔다하면서 안중에 두지 않으니 변경에 대한 일을 놓고 볼 때 어찌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대체로 경계를 엄하게 할 데 대하여 앞서 신칙한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 방어할만 하면 방어하고 해설하여 줄만 하면 해설하여 줄 것이며 소의 마리수가 서로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하여 대책을 취하라는 내용으로 지시하기 바랍니다.”

승인하였다.

### ▶ 6권 6년 3월 30일 壬寅

全羅監司徐相鼎以“順天府使柳弼牒呈內: ‘即接本府三日浦面下赤洞洞任所報, 則『本洞所屬牛孫島, 處在洋中, 只崔永吉一人居生矣. 今二十一日夜, 白巾賊百餘名, 乘船來泊, 攔入崔家, 家庄器物, 沒數奪取, 屠殺農牛, 捉魚次入 去該島之本洞漁人二名及崔家

雇奴金總角，結縛載船而去矣。 聞卽率洞軍入去，則賊船不知去處。詳聞於崔永吉家眷，則『船爲二隻內，一隻一帆，一隻二帆，計其賊數，爲百餘名』云矣。海賊之奪取家庄，載去人物，極爲驚駭。多發校卒，期於譏訶爲辭矣。當此戒嚴之時，亂類之侵擾島民，極爲驚駭。今方發關五鎮營，期於不日捕捉”啓。

전라감사(全羅監司) 서상정(徐相鼎)이 보고하였다.

“순천부사(順天府使) 유협(柳協)의 공문에 의하면, 본부와 접하고 있는 삼일포면(三日浦面) 하적동(下赤洞) 동임(洞任)의 보고에서, ‘본 동(洞)에 소속된 우손도(牛孫島)는 바다 가운데 있으며 거기에는 최영길(崔永吉) 한 집이 살고 있습니다. 이달 21일 밤에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른 100여명의 도적들이 배를 타고 와서 최가의 집에 뛰어들어 가장 기물을 있는 대로 빼앗고 소를 도살하여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이 섬의 본동의 어민 2명과 최가 집의 종 김충각을 묶어서 배에 싣고 갔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은 즉시로 동에 있는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 보니 도적배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영길의 가족들에게 자세히 알아보니 배는 2척인데 한 척은 돛을 하나 달고 다른 한 척은 돛을 두 개 달았으며 그 도적수를 헤아려보면 100여명이었다고 합니다. 해적들이 가장 기물을 빼앗고 사람까지 싣고 달아난 것은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많이 동원하여 알아내고야 말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엄격하게 경계하고 있는 이 때에 어지러운 무리들이 섬의 백성들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바로 다섯 진영에 공문을 내어 며칠 안으로 잡아낼 작정입니다.”

## ▶ 9권 9년 1월 7일 壬辰

敎曰：“向以北路虎警，有所祭之舉。而嗣後登啓者，往往有驚心慘憫。哀彼幾州生靈，荐經歉荒，已不得聊生。沉重之以惡獸之患，將何以保有餘喘乎？且聞牛疫大熾，耕作無望云。民而無牛則田不闢，田而不闢則民無食。興言及此，寢食靡甘。而民事攸關，不可以常例論。別降香祝，並令虔誠設祭於道內嶽瀆諸處，期獲靈應，少紓予北顧之憂。祭文令大提學撰出。”

지시하였다.

“지난날 북쪽 지방에 범이 싸다니는 것과 관련하여 액막이 제사를 지낸 일이 있는데 그후의 보고에 의하면 놀랍고 참혹한 일들이 자주 있었다. 저 불쌍한 몇개 고을의 백성들로 말하면 거둬 흉년을 겪고나니 벌써 생계도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인데 게다가 또 사나운 짐승에 의한 폐단까지 입고 있으니 무슨 수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겠는가?

그리고 듣자니 소 전염병이 크게 터져서 밭갈이 할 가마가 없다고 한다. 백성들에게 소가 없으면 밭을 갈 수 없고 밭을 갈지 못하면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된다. 말이 여기까지 미치고 나니 침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백성들의 문제와 관계되는 것은 일반규례로 논할 수 없다. 특별히 향과 축문을 내려보낼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것이며 아울러 도 안의 산과 강 등 여러 곳에 정성껏 제사를 지내게 하여 신령의 응답을 얻음으로써 북쪽지방 사람들을 걱정하는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것이다. 제문(祭文)은 대제학(大提學)을 시켜서 짓게 할 것이다.”

### ▶ 10권 10년 1월 13일 癸巳

十三日. 敎曰: “私屠設禁, 法司攸掌, 而必待別飭後始禁者, 此可曰舉職也乎? 引耒中田, 賴以粒食; 服箱四方, 任厥重載; 爲人之用, 有若是焉, 則無故殺牛, 亦豈可行者乎? 顧今三陽布澤, 犁耙將出, 而牛疫在在方熾云. 言念民事, 萬萬悶然. 內而刑漢, 兩司, 外而八道、四都, 未知糾禁之果何如? 而互相勉察, 毋敢悠泛, 期有實效事, 自廟堂行會.”

지시하였다.

“불법적으로 소를 잡는 것을 막는 것은 법사(法司)에서 맡아할 일인데 꼭 신칙을 해서야 금지하고 있으니 이것을 직책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소가 보습을 끌며 밭을 가는 데에 썰알을 먹게 되는데다가 수레를 끌고 사방으로 다니며 무거운 짐들을 나르고 있으니 사람을 위해 그와 같이 쓸모가 큰 데 까닭 없이 소를 잡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지금 정월달이 되어 밭갈이를 당장 하게 되었는데 소 전염병이 곳곳에서 한창 성하고 있다하니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면 몹시 안타깝다. 중앙에서는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 두 관청에서, 지방에서는 8도(八道)와 4도(四都)에서 어떻게 규찰하고 있는지 과연 알 수 없다. 서로 힘써 살피면서 허술하게 대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성과가 있게 하도록 묘당(廟堂)에서 공문을 띄울 것이다.”

### ▶ 11권 11년 1월 13일 丁丑

十三日. 次對. 領議政李裕元曰: “此月將半, 臣等尤不勝歡忭顯望之忱矣. 伏未知諸節, 近果若何?” 敎曰: “平順矣.” 裕元曰: “歲籥載新, 景籙彌長, 慈殿愛日之誠, 而域陽春之澤, 歡聲協氣, 洋溢區宇, 此正迓新吉慶之會也. 成湯待朝之勤、大禹卑宮之儉、帝堯如天之仁、文王緝熙之敬, 皆爲壽福之基. 而人主居天之位, 代天之工, 凡於事爲之間, 法祖如『詩』『雅』之率由舊章, 愛民如『書』『誥』之誠小祈永. 則上帝眷佑, 吉無不利; 導迎和氣, 嘉祥竝臻. 享悠久無疆之壽, 膺昌熾繁衍之福, 躋壽一國, 錫福庶民, 億萬斯年, 歌頌太平之盛. 伊自今日, 伏望殿下懋哉! 懋哉!” 敎曰: “所陳切實, 當服膺矣.” 裕元曰: “暖律已屆, 東作不遠. 耒耜之利, 惟牛最重, 挽近以來, 牛禁無效, 場市之間, 宰屠狼藉, 自官不惟不禁, 或有設庖收稅之處. 重之以牛疫熾行, 窮村之牧畜絕罕, 荒田之耦耕幾廢, 大關民事, 誠非細憂. 另飭京外, 如有冒犯現捉者, 依律重繩, 該守令隨聞論勘. 都下潛屠之弊, 亦爲各別痛禁之意, 一體分付於秋曹、漢城府何如?” 敎曰: “各別

嚴飭可也.”

이하생략~

차대(次對)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말하기를, “이달도 절반이 지나가도록 신 등은 기뻐서 고대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중궁의 건강이 요즘 과연 어떠한지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편안하다.”라고 하였다.

이유원이 말하였다.

“새해에 들어오자 크나큰 기쁨이 넘쳐나고 자전(慈殿)이 부모를 섬기는 정성과 봄날같이 따사로운 혜택이 온 나라를 감싸니 환성과 서로 돕는 기운이 온 나라에 차고 넘칩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맞아서 경사를 복되게 할 때입니다.

성탕(成湯)이 조정에서 대기하던 근면성과 하우(夏禹)가 궁을 낮추던 검박성, 당요(唐堯)의 하늘같은 사랑과 문왕(文王)의 밝은 공경심은 모두 영원한 복을 누리는 기초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하늘같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늘을 대신하여 정사를 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일에서 조상을 본받기를 『모시(毛詩)』의 <소아편(小雅編)>나 <대아편(大雅編)>에서 전통으로 된 옛 제도를 따르고 백성을 사랑하기를, 『상서(尙書)』의 ‘강고’나 ‘소고’편에서 처럼 화락하게 하고 조심한다면 상제(上帝)가 돌보고 도와주어 불리한 일이 없게 되고 화기를 맞아들여 상서로운 일이 겹쳐서 오게 될 것이며 오래도록 끝없는 장수를 누리게 되고 자식이 번성하는 복을 만나게 될 것이며 온 나라는 영원한 길에 오르고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어 억만년을 두고 이 해의 태평성대를 노래하게 될 것이니 이제부터 전하는 노력하고 또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지시하기를, “진술한 것이 절실한 만큼 마음에 새겨두겠다.”라고 하였다.

이유원이 말하였다.

“따뜻한 날씨가 돌아와 농사철이 멀지 않습니다. 밭갈이 하는 데는 소가 가장 중하지만 최근에는 소를 잡지 말라는 금령(禁令)이 효력을 보지 못하여 저자에서는 도살이 막 벌어지고 있으나 관청에서 금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혹 도살장을 만들어 놓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곳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역이 계속 성행하여 가난한 마을에서는 소를 기르는 것이 매우 드물어서 거치른 밭은 거의 갈지 못하니, 농사와 크게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사실 작은 근심이 아닙니다. 특별히 온 나라에 신칙하여 만약 함부로 법을 위반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는 자가 있으면 법조문대로 중하게 다스리고 해당 수령(守令)에 대해서는 보고되는 즉시 죄를 줄 것입니다. 수도에서 몰래 도살하는 폐단에 대해서도 각별히 엄금하도록 함께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에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시하기를,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하생략~

## ▶ 11권 11년 4월 5일 丁巳

初五日. 次對. 領議政李裕元曰: “士者, 國之元氣也. 我東方立國規模, 以崇儒重道爲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根基. 列聖朝培養扶植, 靡不用極. 爲士子者, 固當飭躬勛工, 琢磨淬礪, 薰陶於菁莪、棧樸之中. 而挽近以來, 士趨不端, 儒籍之外, 悖類混入, 固窮讀書, 已無可論. 而如逢科時, 莫重禮圍, 看作鬪鬪之場. 以今番試所事言之, 聖教何等截嚴? 而少無知戢, 群聚無賴, 蹴踏場屋, 甚至於侵逼試官, 罔念師生之重, 豈非士子之羞恥而科規之日頹乎? 似此不已, 將有莫可收拾之境. 興言及此, 萬萬寒心. 悖類首唱者, 已自秋曹牢囚, 待用刑時, 別般嚴處, 以懲惡習. 而每當設場, 惹起鬧端, 專由於爭接隨從輩攔入淆雜之致也. 見今大科初試不遠, 先事操飭, 一切嚴禁, 而若有冒犯者, 則依律處置之意, 分付於四館所及刑、漢兩司何如?” 教曰: “向日科場事, 是無前之變也. 首唱亂類之見囚者, 必用加倍之律, 然後可懲後弊. 而今又科日不遠, 各別嚴飭也.” 裕元曰: “禁衛營所在各樣軍器, 厥數不少, 近日以財力之不敷, 尙未了役. 而鉛鐵、銅、錫、箇、簞、羽、革, 皆可爲陰雨之備. 臣意以爲竝分屬各營門, 使之竣完, 俾有終始之效何如?” 允之. 又曰: “固城邑之移設統營, 未嘗非經遠之圖, 而聞營邑之間, 事多掣礙, 吏民俱謂不便, 還移之論, 不無意見. 而甚至於物力之辦儲已久, 以待朝令. 且舊基爲海路要衝, 不可仍廢云. 事當及今移設, 以副民望, 而既有銷刻之嫌, 論其形便, 亦難遙度. 關問便否於道臣及統使後, 量宜處之何如?” 允之. 又曰: “向以牛禁事, 有所筵奏, 至蒙嚴飭之處分矣. 曾未幾月, 私庖之說, 狼藉入聞, 此莫非紀綱解紐之致也. 母論京外, 元定庖外, 一切痛禁之意, 更爲嚴飭.而如是申復之後, 一向不戢, 則法司堂上及道守臣, 難免其責, 該守令當爲重勘, 以此行會何如?” 教曰: “各別嚴禁可也. 朝令之下, 豈如是解弛乎?” 裕元曰: “卽見慶尙監司俞致善所報, 則以爲: ‘後漕倉漕船, 到泊京江後, 有「稷米」名色, 每於上納之前, 先爲奪去, 以致元納之見縮, 竟爲船主之冤徵, 請令嚴禁’爲辭矣. 幾十年前, 船漢積累之債, 稱爲稷米, 橫侵於千萬不當之沙格. 因此而正供見縮, 充納之際, 畢竟排族後已. 言念漕法, 極爲可駭. 非但嶺南一路, 湖西、湖南, 此弊尤爲成癩. 分付京兆及該衙門, 各別糾察, 隨現痛懲. 以此意亦爲行會於三南道臣何如?” 教曰: “別般嚴飭, 更無如此之弊可也.” 仍教曰: “三軍府職之不得兼總管者, 有何職務相妨而然乎? 且舊例所無之事, 自今使之行公可也.” 裕元曰: “行之既久, 而自三軍府草記啓遞者也.” 教曰: “三軍府草記, 更勿爲之. 今日筵說中, 此條頒布朝紙可也.” 裕元曰: “因海伯狀請, 還穀割本取用, 社倉耗移補事, 雖蒙許施之教, 有所仰達者矣. 臣曾經道伯, 本道事已所稔悉. 今道臣爲治, 綜覈事勢, 不得不然, 故有此狀請. 然第目下戶曹經費不足, 社耗無以闊狹. 臣意則令該道臣從他便宜, 指劃六萬石, 姑爲貸下, 而原狀啓判下, 特爲還收, 恐好矣.” 教曰: “然則判付當還收, 從便爲之好矣.” 又教曰: “向以萬東廟門名製下爲言, 而以‘陽秋門’命名, 則何如乎?” 裕元曰: “門名誠好矣.” 教曰: “松都幸行時, 過善竹橋, 奉審英廟朝御筆碑閣後, 有所御筆寫下者, 未知問已碑閣畢役云耶?” 裕元曰: “聞松留言, 則畢役狀啓, 數日間當入徹云矣.” 教曰: “城役則何如乎?” 裕元曰: “松嶽山高脊之地, 則姑未築城云矣.” 教曰: “城役使之停止可也.” 裕元曰: “平地皆已築城云, 山上則似不必更築矣.”

차대(次對)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말하였다.

“선비는 나라의 원기(元氣)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에 규정을 세움으로써 유학(儒學)을 숭상하고 도를 중하게 여기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선대의 여러 임금들이 선비들을 배양하고 육성하는 데 방법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비로 있는 사람은 애초에 자신을 경계하면서 공부에 힘쓰고 학문을 닦으면서 재능있는 사람들의 감화를 받았 습니다.

이 몇 해째 오면서 선비들의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고 유적(儒籍) 밖에 있는 고약한 무리 들까지 섞여들어 공부에 전심하는데 대해서는 이미 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때를 만나면 더없이 중한 시험장을 싸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장에서 있는 사건 을 놓고 말하더라도 전하의 지시가 얼마나 엄하였습니까. 그런데 조금도 그만둘 생각을 앓 하고 술한 무뢰한들이 모여들어 시험장을 차고 짓밟았으며 심지어 시관(試官)을 침범하면서 스승과 제자 간의 중한 도리를 생각지 않았으니 어찌 선비의 수치가 아니며 과거의 규율이 날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막지 않으면 앞으로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되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못된 무리의 주모자는 이미 형조(刑曹)에서 든든히 가두고 형벌을 적용할 때에 가서 특별히 엄하게 처리함으로써 나쁜 버릇을 징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번 시험을 칠 때마다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전적으로 심부름꾼들이 자리다툼을 하면서 마구 뛰어들어 난장을 치는 결과 에서 초래됩니다.

지금 대과 초시(大科初試)가 멀지 않았는데 사전에 신칙하여 일체 엄금하며 함부로 위반 하는 자가 있으면 법조문대로 처리하도록 사관소(四館所)와 형조(刑曹), 한성부(漢城府) 두 관청에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지시하기를, “지난 번 과거장에서 있는 사건은 전에 없는 변고이다. 먼저 들고 일어 난 난동자로서 간혀 있는 자는 반드시 급결 엄중한 법조문을 적용한 후에야 뒷날의 폐단을 징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 기일이 멀지 않았으니 각별히 엄하게 신칙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유원이 말하기를, “금위영(禁衛營)에 있는 각종 무기는 그 수효가 적지 않지만 최근에는 재력이 부족하여 아직 일을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연(鉛), 철(鐵), 동(銅), 석(錫), 화살을 만드는 대와 깃, 가죽은 모두 사전에 갖추어야 하는 만큼 신의 생각에는 모두 각 영문에 나누어 주어 완성하게 함으로써 결국 성과가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라고 하 였다.

승인하였다.

또 말하였다.

“고성읍(固城邑)에 통제영(統制營)을 옮기는 것은 멀리 내다보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 없으나, 듣자니 영과 고을 사이에서 일들이 많이 꼬여서 아전들과 백성들이 모두 불편하 다고 하는 만큼 다시 옮기는 데 대한 논의에는 견해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력 에 대해서 말하면 준비하고 저축한 지 오래되어 조정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터는 해안의 요충지인 만큼 그냥 폐지할 수 없다고 하니 문제는 지금 옮겨다 설치함으로써 백성들의 기대에 부합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없애버릴 작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멀리에 앉아서 그 형편을 타산하고 논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공문으로 편리어부에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대하여 감사(監司)와 통제사(統制使)에게 물어보고 적당히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인하였다.

또 말하였다.

“지난날 소 도살을 금지한 문제를 가지고 접견 석상에서 이야기 올리고 엄하게 신칙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사적으로 소를 잡는다는 말이 자자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율이 해이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도나 지방을 물론하고 원래 도살을 정한 외에는 일체 엄격히 금지하도록 다시 엄하게 신칙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 강조한 뒤에도 계속 그만두지 않으면 법사(法司)의 당상관(堂上官)과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해당 수령(守令)은 중한 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공문을 띄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각별히 엄하게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 조정의 지시가 내려갔는데 어찌 이렇게 해이될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유원이 말하였다.

“방금 경상감사(慶尙監司) 유치선(兪致善)의 보고에 의하면, ‘후조창(後漕倉)의 조운선(漕運船)이 경강(京江)에 도착한 후에 ‘계미(米)’라는 명색을 가지고 언제나 상납하기 전에 먼저 빼앗아 가기 때문에 원래 납부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며 결국 선주(船主)가 억울하게 물어내게 되니 엄금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몇십년 전에 뱃군들이 쌓아오던 빚을 ‘계미’라고 하면서 천만부당하게 사공(沙工)과 그 격군(格軍)에게서 마구 빼앗아냅니다. 이 때문에 정공(正供)량이 줄어들어 그것을 채울 때에 필경 뱃군들에게 배당하고 맙니다. 조운법으로 말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영남(嶺南) 한 개 도뿐만 아니라 호서(湖西)와 호남(湖南)에서도 이 폐단이 특히 고질이 되었습니다. 수도와 해당 관청에 분부하여 각별히 규찰하여 나타나는 대로 엄하게 징계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역시 남쪽 세 도의 감사들에게 공문을 띄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지시하기를, “특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폐단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어 지시하기를, “삼군부(三軍府)의 벼슬에 있는 사람이 총관(總管)을 겸임할 수 없는 것은 직무상 서로 무엇이 방해되어서 그런가. 그리고 옛 규례에도 없는 일이니 이제부터는 공무를 집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니 이유원이 말하기를, “집행하고 있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삼군부에서 간단히 제의서를 내어 갈리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지시하기를, “삼군부에서는 간단한 제의서 제작을 다시는 하지 말 것이다. 오늘 접견석상에서 이야기된 이 조항을 조보(朝報)로 반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유원이 말하였다.

“황해감사(黃海監司)의 장계(狀啓) 요청에 따라 환곡(還穀)의 본곡(本穀)을 떼내어 쓰고 사창(社倉)의 모곡(耗穀)을 가져다가 보충하도록 설사 허락하는 지시가 내리긴 하였지만 이야기가 올릴 것이 있습니다.

신이 그 전에 감사로 있었기 때문에 본 도의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가 종합하여 확인하는 정사를 하고 있는 만큼 형편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계(狀啓)를 올려 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호조의 경비가 부족하여 사창(社倉)의 모곡을 가지고 변통할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해당 도의 감사가 다른 편리를 따르게 하고 6만섬을 떼내어 우선 꾸어주고 원래 장계(狀啓)에 대한 비준은 특별히 철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비준한 지시는 철회하고 편리할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또 지시하기를, “지난 번에 만동묘(萬東廟)의 문이름을 지어서 내려 보내겠다고 말하였는데 양추문(陽秋門)이라고 이름 짓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여 이유원이 말하기를, “문이름이 정말 좋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송도(松都)으로 행차할 때 선죽교(善竹橋)를 지나다가 영조(英祖)의 친필비각(親筆碑閣)을 본 후에 필적(筆跡)을 모사(模寫)하여 내려보낸 것이 있는데 그동안 비각공사(碑閣工事)가 끝났는지 모르겠는가?”라고 하니 이유원이 말하기를, “개성유수(開城留守)의 말을 들으니 공사를 끝낸 만큼 장계(狀啓)는 며칠 안으로 들어가 닿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 쌓는 공사는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니 이유원이 말하기를, “송악산(松嶽山)의 높은 등마루에는 아직 쌓지 못하였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지시하기를, “성 쌓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니 이유원이 말하기를, “평지에는 이미 다 성을 쌓았다고 하니 산꼭대기에는 다시 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 ▶ 11권 11년 10월 30일 己亥

議政府啓: “卽見京畿暗行御史姜文馨別單, 則‘其一, 逐邑改量, 雖難遽行, 隨結釐正, 俾虛實區別’事也. 改量查陳, 前後朝飭, 非止一再, 而訖無實效, 良覺慨然. 營邑爛加商確, 申明舊規. ‘其一, 洞布雖爲矯弊, 而或涉失均, 從其家座實數, 務爲均定’事也. 洞布與家座, 邑規各異, 不可以一概而論, 使之從便釐正. ‘其一, 糶糴不遵法例, 爲弊多端, 今以社倉之法, 移爲邑倉通行之例’事也. 邑倉自有舊法, 社倉亦有新規, 其在新不創、舊不革之義, 猝難變通, 博採物議而處之. ‘其一, 畿邑守令, 依他道例, 呈由巡營, 粘移吏曹’事也. 守令曠官, 最是隳瘵之源, 而畿邑之無常往來, 尤爲痼弊. 粘移一款, 依前飭施行. ‘其一, 私屠勿許收贖, 一竝刑配’事也. 私庖禁令, 不啻截嚴, 外邑之專事拋置, 極爲可駭. 而罰鍰與編配, 雖是一例, 此亦不可用一切之法, 分輕重酌處事, 分付何如.” 竝允之.

의정부(議政府)에서 제의하였다.

“방금 경기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강문형(姜文馨)의 별단(別單)을 보았습니다.

그 한 가지는 고을마다 다시 토지를 측량하는 것이 설사 갑자기 하기는 어렵더라도 결수에 따라 바로잡아 실제 없는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구별할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측량하여 묵은 밭을 조사하도록 앞뒤로 조정의 신칙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닌데 도무지 실제 성과가 없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감영이 있는 고을에서 충분히 토의하여 옛 규례를 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시 명백히 강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동포(洞布)’가 아무리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균등하지 못한 현상도 있으니 가호의 실제 수효에 따라서 될수록 고르게 정하도록 할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포’의 가호에 대해서는 읍마다 규정이 다른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으니 좋은 편을 따라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환곡(還穀)을 내주고 받아들이는 것을 규정대로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많으니 이번에 사창(社倉)의 법을 읍창(邑倉)에 옮겨서 통행할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읍창(邑倉)은 원래 옛 법이 있고 사창(社倉)도 새로운 규정이 있는 만큼 문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옛날 것을 고치지 않는 원칙에서 갑자기 변통하기는 곤란하니 공론을 받아들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경기 고을 수령은 다른 도의 규례에 근거해서 감영에 휴가를 신청하고 그 문건을 부쳐서 이조(吏曹)에 넘기는 문제입니다.

수령이 관청을 오래도록 비우는 것은 심한 폐단의 근원이 되며 경기의 고을에서는 대중없이 오고가는 것이 특별히 고질적인 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건을 부쳐서 넘기는 문제는 이전에 신칙한 대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불법적으로 가축을 도살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죄금을 받지 말고 모두 다 형장을 쳐서 귀양 보내는 문제입니다. 불법 도살에 대한 금령이 매우 엄하였으나 지방 고을에서는 아예 지키지 않고 있으니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속죄금을 받거나 귀양을 보내는 것이 한 가지 규레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 경중을 가려서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모두 승인하였다.

### ▶ 12권 12년 12월 18일 辛巳

議政府啓: “私庖禁飭, 前後何如? 而城闔之內, 江郊之間, 憑藉班戶, 宰屠狼藉, 聽聞極爲可駭. 掌法糾察之地, 苟能築底痛禁, 隨現嚴懲, 則寧有若是懈弛之理乎? 刑漢兩司堂上及左右捕將, 竝從重推考, 犯屠諸漢, 這這刑配事, 分付何如?” 允之.

의정부(議政府)에서 제의하였다.

“개인이 도살을 하지 말도록 한 신칙이 전후 어떠하였습니까? 그런데 성문 안의 한강 교외에서 양반집이라고 빙자하여 낭자하게 도살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 몹시 놀라운 일입니다. 법을 장악하고 규찰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철저히 금지하고 드러나는 대로 엄하게 징벌하였다면 어찌 이와 같이 해이될 수가 있겠습니까.

형조와 한성부 두 관청의 당상관과 좌우포도대장은 모두 중한 편을 따라 과오를 추궁하며 도살한 놈들을 낱알이 형장을 쳐서 귀양 보내도록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인하였다.

▶ 13권 13년 윤5월 12일 癸酉

議政府啓: “私屠禁令, 前後何如? 而閭里之間, 一直狼藉云, 故另飭兩捕廳, 使之這這偵捕矣. 聞自左捕廳, 捉得一漢, 旋即放送, 違拒朝令, 擅自闊狹. 揆以事體, 萬萬駭然. 左捕將白樂貞, 施以譴罷之典. 且以右捕廳言之, 詞察之政, 甚涉慢忽, 頭目捕校, 略施棍治矣. 該捕將, 謂以情蹤難安, 昨夜不爲發巡云. 挽近法綱漸弛, 朝體一壞, 前所未有的之習, 乃至於此. 右捕將金箕錫, 亦施譴罷之典何如?” 允之. 旋因廟啓, 分揀.

의정부(議政府)에서 제의하였다.

“개인의 도살에 대한 금령(禁令)이 전후로 어떠하였습니까. 그런데 항간에서는 한 결 같이 낭자하게 도살한다고 하기 때문에 두 포도청(捕盜廳)을 특별히 신칙하여 낱낱이 탐지하여 잡아내도록 하였습니다.”

듣자니 좌포도청(左捕盜廳)에서 한 놈을 붙잡았다가 곧바로 놓아보내어 조정의 지시를 어기고 제멋대로 변통하였는데 원칙으로 따져보면 만만번 놀라운 일입니다.

좌포도대장(左捕盜大將) 백낙정(白樂貞)은 견책하여 파면시키는 처벌을 시행할 것입니다. 우포도청(右捕盜廳)으로 말하면 염탐하고 살피는 정사를 몹시 게을리하고 있으니 수교(首校)는 곤장을 좀 쳐서 다스렸습니다. 해당 포도대장(捕盜大將)은 마음이 편안치 못하여 어제 밤에는 순찰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하니 근래에 법과 기강이 점점 해이되고 조정의 체모가 모두 무너져 전에는 없던 버릇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포도대장(右捕盜大將) 김기석(金箕錫)도 견책하여 파면시키는 처벌을 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인하였다가 곧바로 묘당(廟堂)에서 제의하는 바람에 용서하였다.

▶ 15권 15년 5월 5일 甲寅

初五日. 北兵使鄭雲翼以“即接今月十一日到付慶興府使徐珩淳馳報內, 初三日西水羅權管牒呈內, ‘當日丑時, 砲聲忽起, 匪類幾百名, 突入鎮庭, 打破窓壁. 鎮屬及砲軍, 相與防禦, 砲軍朴長碩、鎮吏金京洛、鎮軍朴文國, 被丸俱倒, 幸不至死. 而鎮民九戶人口與什物, 沒數載去. 又打四戶, 其內什物及牛二頭, 奪取. 而匪類持來船隻, 大一、小六, 當日午時, 歸去. 九戶中姜成叔, 迫及越邊, 萬端哀乞, 當日酉時, 率其妻、女三口回來’云. 發遣臣營軍官矣, 所告與邑鎮所報, 無異. 犯越諸漢, 乘彼匪類之來, 率其家眷, 收其什物, 登船順去, 不無平日和應之端. 而該堡前權管許璧, 初不知機, 亦不防禦, 其罪狀, 令攸司稟處. 慶興府使徐珩淳, 臣營馳進之間, 變出不意, 故不敢擅自論罪. 該邑座首、兵校, 該社風憲、約正, 該堡兵校、海望將等, 竝捉囚邑鎮, 犯越漢家幕、田土, 姑爲典守, 待回下舉行, 嗣後戒嚴, 別加申飭”啓.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북병사(北兵使) 정운익(鄭雲翼)이 보고하였다.

“이달 11일에 도착한 경흥부사(慶興府使) 서형순(徐衡淳)의 급보 중에는 3일날 서수라 권관(西水羅權管)의 첩정(牒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3일 축시(丑時)에 총성이 갑자기 나면서 못된 무리 수백명이 진영(鎭營) 마당에 뛰어들어 창문과 벽을 들부셨습니다. 진영의 아전(衙前)과 포군(砲軍)이 함께 방어하였는데 포군 박장석(朴長碩), 진영 아전 김경락(金京洛), 진영의 군사 박문국(朴文國)은 탄알을 맞고 모두 넘어졌으나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영 사람 9집의 물건들을 전부 빼앗아 싣고 갔으며 또 4채의 집을 들부시고 그 안의 물건들과 소 두 마리를 빼앗아갔습니다.”

못된 자들이 가지고 온 배는 큰 것이 1척, 작은 것이 6척인데 그날 오시(午時)에 돌아갔습니다.

아홉집 가운데서 강성숙(姜成叔)이 뒤따라가 국경을 넘어가서 백방으로 빌어서 그날 유시(酉時)에 처와 딸 3명을 데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영의 군관(軍官)을 보냈는데 그 보고한 바는 읍진(邑鎭)에서 보고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국경을 넘어간 여러 놈들은 그 못된 무리들이 오는 기회를 타서 가족을 데리고 물건들을 건어가지고 배에 올라 순탄하게 가버렸는데 평상시 호응한 기미가 없지 않습니다.

해당 보(堡)의 전 권관(前權管) 허벽(許璧)이 애초에 그 기미를 몰랐고 방어도 역시 못하였으니 그 죄상은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토록 하며 경흥부사(慶興府使) 서형순(徐衡淳)은 본영에 급보를 올리는 사이에 변란이 뜻밖에 생겼기 때문에 감히 마음대로 죄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을의 좌수(座首)와 해당 마을의 풍헌(風憲)과 약정(約正), 해당 보루의 장교와 바다를 감시하는 장교 등은 모두 고을과 진영에 잡아가두며 국경을 넘어간 자들의 집과 토지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회답지시가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거행하여 이후부터는 엄하게 징계 하도록 특별히 신척하겠습니다.”

### ▶ 15권 15년 5월 18일 丁卯

禮曹啓: “謹稽『五禮儀』及『喪禮補編』, 則卒哭後自上視事服, 以布裏翼善冠、布袍、布裏烏犀帶、白皮靴, 載錄, 而公除後卒哭前視事服色, 無可據之文. 故丙申年, 因丁丑已行之例, 以自內書下者, 令尙衣院製入矣. 今亦依此舉行何如?” 允之.

예조(禮曹)에서 제의하였다.

“삼가 『오례의(五禮儀)』와 『상례보편(喪禮補編)』을 상고하여 보니 졸곡(卒哭) 제사 후 임금이 일을 볼 때의 옷차림은 베를 감은 익선관(翼善冠)을 쓰고 베도포를 입으며 베를 감은 검은 무소뿔띠를 띠고 흰 가죽신을 신는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공식적인 거상 기간이 끝난 후부터 졸곡(卒哭) 제사 전에 일을 볼 때의 옷차림은 근거할 만한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신년(丙申)에는 정축년(丁丑年)에 이미 시행한 규례에 근거하여 안에서 써서 내려 보낸

것을 가지고 상의원(尙衣院)으로 하여금 옷을 지어 들여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인하였다.

▶ 15권 15년 11월 19일 甲子

十九日. 議政府啓: “勅行牌文, 今既出來矣. 行大護軍南廷順, 伴送使差下何如?” 允之. 又啓: “牛禁國之大禁也. 其有關於農政, 果何如? 況前後朝令, 不遑申復嚴截, 而京都閭里, 列邑場村, 無處不狼藉, 無時不蕩弛. 先自卿宰、士夫之家, 各有主張開屠, 而莫之敢誰何, 隸屬輩又從以締結雜類, 自作窩窟, 不少顧忌. 大抵大民爲小民之標準, 而肆行其惡習, 有法而至於無法, 有禁而歸於無禁, 則將有何事之可做、可講者哉? 內而法司、捕廳, 既有其職矣; 外而方伯、守令, 既任其責矣, 駭歎之極, 寧欲無言. 姑付令申之義, 使之築底糾摘, 班戶則這這指名, 啓聞嚴勘; 小民則切勿許贖, 直爲刑配. 而有闊狹操縱之弊, 則中外掌法之官, 自本府草記論罷. 且近日雜技熾盛, 殆與攘奪無異. 多民蕩析之患, 由於是; 諸處竊發之患, 亦由於是. 而第其中爲之媒罔者, 非班家郎屬, 則卽法司下隸也. 此不可不別般禁止, 犯者隨所捉, 治以治盜之律, 不飭之家長及官員, 竝當重究之意, 揭示坊里, 俾各知悉何如?” 允之.

의정부(議政府)에서 제의하였다.

“칙사(勅使) 일행의 패문(牌文)이 벌써 나왔습니다. 행 대호군(行大護軍) 남정순(南廷順)을 반송사(伴送使)로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인하였다.

또 제의하였다.

“소의 도살은 나라에서 크게 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사와 관련되는 것이 과연 어떠합니까. 하물며 앞뒤로 조정의 지시가 엄하게 금지하도록 반복하여 강조한 정도만이 아닌데 수도의 여염집과 각 고을의 장시(場市)와 마을에서 낭자하게 도살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금령이 해이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선 재상과 사대부의 집에서부터 각각 도살을 주관하지만 누구도 감히 어찌지 못하고 있으며 하인들도 따라서 잡된 무리들과 결탁하여 스스로 소굴을 만들기를 조금도 꺼리지 않습니다.

대체로 양반들은 일반 백성들의 표준이 되는데도 방자하게 악습(惡習)을 행하여 법이 있지만 법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 금령이 있지만 금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니 장차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으며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안으로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 포도청(捕盜廳)은 이미 그 자기의 직책이 있고 밖으로 감사(監司)와 수령들이 이미 그 책임을 맡고 있는데 너무도 놀랍고 한탄스러워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선은 법을 밝히는 의리를 당부하여 그로 하여금 조사적발하게 하되 양반집이면 낱낱이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이름을 지적하여 보고해서 엄하게 죄를 주고 일반 백성이면 절대로 속전(贖錢)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곧장 형장(刑杖)을 쳐서 귀양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간질하여 조종하는 폐단이 있으면 중앙과 지방의 법 맡은 관리들은 본부에서 초기(草記)를 올려 규탄하고 파면시킬 것입니다.

또 근래 투전놀이가 성행하여 빼앗는 것과 거의 다름없습니다. 백성들이 유랑할 근심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고 곳곳에서 도적이 생기는 우환도 역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연줄을 놓는 것은 양반집 하인이 아니면 형조(刑曹)나 한성부(漢城府)의 아전(衙前)들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금지하지 않을 수 없으니 위반하는 자들은 잡는 대로 도적을 다스리는 법조문으로 취급하며 신척하지 못한 집주인과 관원(官員)은 모두 중하게 추궁한다는 내용을 마을마다 내걸어 각자가 다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인하였다.

### ▶ 20권 20년 9월 23일 壬子

又啓: “即見忠清右道暗行御史李容鎬別單, 則‘其一, 各營所納移割、結作米, 所謂江主人, 報留元穀, 討索情費, 多致元納之不足. 江主人, 自今永革. 而移割米, 則勿以石數排割於各邑, 直就惠廳所捧中, 除出分送. 結作米, 則邑有當納之總, 亦自惠廳一依年前定式, 都捧出給’事也. 惟在各軍門之操制、禁束. 以此捧甘申飭. ‘其一, 舟師十八邑鎮搜討軍名色, 全無其實, 自今永爲革罷. 荒唐船, 則只使各其面里任, 隨時瞭察, 面而聞官, 官而報營’事也. 搜討之爲弊, 在所當禁. 而其革、其存, 令道帥臣量宜措處. ‘其一, 保寧, 自罷邑屬營以後, 令出二門, 民有兩役之苦、吏有奔走之勞. 自營距府, 爲二十里, 凡干舉行, 甚爲難便, 民、吏呼籲不止, 今若分設, 則民得省弊之效、營有居重之體, 令廟堂稟處’事也. 營、府分設之論, 曾有繡單, 且有儒章, 今又所陳, 如是纖悉. 分付道臣爛商, 具意見登聞. ‘其一, 各邑川浦之全無形址, 永不起壅者, 爲數百結. 而若當無災之時, 則全數白徵, 民莫支保. 尤其中, 多有無主之結稅, 橫侵於不關之該里, 特許更爲摘奸, 從實登聞後, 準數蠲頃. 仍令著力勸耕, 隨其壅闢, 次次還錄’事也. 民隱攸關, 不容不軫念. 待年修啓, 當有斟酌措處, 查報與漏結, 使之一一執稅. ‘其一, 各邑私屠販, 卽巡營營屬輩, 藉託補弊. 納賂圖得付屬之後, 永作渠物, 各邑場庖之官廚補用者外, 巡營屬補弊名色, 一竝革罷, 如有付囑者, 施以刑配之典’事也. 犯屠之禁, 爲其耕作而然. 而謂以補弊, 許多設庖, 揆以法意, 即可寒心. 這這嚴防, 干囑設庖者, 隨其現發, 勘以刑配. ‘其一, 巡營所用雜物, 分定各邑, 取用本色, 大爲民邑之弊. 更以代錢, 從時價, 恒定收捧, 曾有啓下定式. 而近年謂以物價之高騰, 每兩頭六錢式, 數外加捧, 至近五千金. 纔經稱罷, 旋即復設, 嚴辭關飭, 成節目下送. 如有數外加用之物, 必以時價, 自營買取’事也. 時價恒定, 既著定式, 則數外加捧, 豈容若是? 從今以後, 一例定式施行. ‘其一, 各邑官廩中, 油清紙筆墨等價米, 卽儲置大同中舊米. 而每石以代錢三兩割給, 則其邑倅, 固當依此取用. 而三兩條出給, 該邑苟充上納, 必以新米中, 計石責納, 有若元定之需米. 以

致該邑之生逋，或偶代錢分給民間，收捧本色，怨聲狼藉，別般痛革’事也。以舊米換新米，則利歸於何、害及於誰乎？嚴飭列邑，亟令痛革，而如或有襲謬之守令，自本道啓聞論勘。‘其一，各邑官用物種之必遵時價，年前有朝飭，而邑倅則藉其邑例，責納無節，及其會計而減削。且各庫加下，多至數千金，而仍不報給。嚴辭關飭，先自巡營，凡係官用物種，一從時價，更爲恒定，各成節目。如有違越不遵者，施以贓汙之律’事也。此與上款條陳，一般無異。現發之守令，亦爲啓勘，而成節目報本府施行事，知委道臣。‘其一，近來公行，濫把，下隸誅求，殆無限節，而京捕校之出沒行惡，尤有甚焉。各驛渙散，絕站在卽，亟令該曹別立條規，頒行新式’事也。各驛之弊，極涉悶念。而濫把與誅求，何不猛察而痛禁乎？此後則這這指名馳報，按法懲治。‘其一，舒川一境之以丘爲姓者數千人，而年前丘鎮圭爲名者，不得於門內，敢懷不逞之憾，謂以渠姓之觸犯大聖諱字爲未安，改丘爲具之意，雇人擊錚。依願許施，而一箇悖孫，行此圯族，數千丘民，無故易姓，反有徵斂，舉皆敗亡。特爲分付，依舊復姓’事也。事實既如此，令禮曹關問本道後稟處。‘其一，牛痘之法，創自西醫，百試百驗，萬無一失。故以查徵二千九百餘兩，設置牛痘局於錦營營底，使嶺醫教其術，所用器械、諸般應備，皆有料理措劃。亟令內醫院行關該道，期圖善終之效’事也。有試輒驗，不勸自應。且既設局教術，好觀來效，先自營邑隨宜勉飭。‘其一，林川幼學李溟翼、扶餘幼學閔泳龍、洪州前司果金窩根、前承旨鄭憲朝、德山幼學閔載坤，學行嘉尚。扶餘孝子徐鎮文、錦營孝子金德潤，竝合施褒贈之典’事也。此則依已例，令各該曹稟處何如？”竝允之。

이하생략~

또 아뢰었다.

“방금 충청우도암행어사(忠淸右道暗行御史) 이용호(李容鎬)의 별단(別單)을 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1. 각 군영(軍營)에서 받는 이획미(移劃米)와 결작미(結作米)는 이른바 강주인(江主人)이 원곡을 눌러놓고 인정비[情費]를 토색질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원래 바친 것이 부족하게 되니, 강주인은 이제부터 영원히 없애고 이획미(移劃米)는 섬수를 각 고을들에 배정하지 말고 직접 선혜청(宣惠廳)에서 받은 중에서 떼내어 갈라보내며, 결작미(結作米)는 읍에서 응당 바쳐야 할 조세이지만 역시 선혜청(宣惠廳)에서 몇 해 전의 규정에 따라 몽땅 받아서 내어 줄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각 군영(軍營)에서 통제하고 단속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아 올리도록 신칙(申飭)할 것입니다.

1. 배타는 군사에서 18개의 고을과 전에 두고 있는 수토군(守土軍)은 명색만 있고 그 실체는 전혀 없으니 이제부터는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며, 이양선(異樣船)에 대해서는 각 해당면(面)의 이임(里任)이 수시로 망을 보아 면에서는 고을에 보고하고 고을에서는 군영(軍營)에 보고할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토군(守土軍)이 폐단으로 되는 것만큼 응당 금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없애고 살리고 하는 문제는 감사(監司)와 수사(水使)가 적당히 조치를 취하게 할 것입니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1. 보령(保寧)의 읍을 없애고 군영(軍營)에 소속시킨 이후부터 지시가 두 곳에서 나오고, 백성들은 두 쪽에서 사역되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아전(衙前)들은 분주히 몰아치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군영(軍營)에서 부(府)까지는 20리 노정인데, 하는 일들이 모두가 어려운 것만큼 백성들과 아전(衙前)들이 끊임없이 신소(伸訴)하고 있으니 이제 갈라놓으면 백성들에게 폐해가 덜어지게 되고 군영(軍營)은 무게가 있게 될 것이므로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할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군영과 부(府)를 갈라서 설치할 것에 대해서는 언제인가 암행어사(暗行御史)의 보고에서 제기되었고, 또 유생들의 상소문에서도 논의되었으며, 이번에 또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었습니다. 감사(監司)에게 분부하여 충분히 토의하고 그 의견들을 보고하게 할 것입니다.

1. 각 고을들에서 강바닥으로 되어버린 토지가 전혀 형체도 없고 영원히 부칠 수 없는 것도 수백 결이나 되는데, 재해가 없을 때에는 몽땅 백판에서 징수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대부분은 주인이 없는 조세를 관계없는 그 마을에 대고 마구 받아내고 있으니 특별히 다시 조사하여 사실대로 보고한 뒤에 재난을 당한 수량대로 면제할 것이며, 힘을 내어 개간하게 하고 개간하는 자체로 다시 등록할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관계되는 만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사형편을 판정하여 보고하면 참작하여 처리하고 조세에서 누락된 것을 조사보고한 것은 일일이 조세를 물리게 할 것입니다.

1. 각 고을에서 사적으로 짐승을 도살하여 팔아먹는 것은 감영(監營)과 군영(軍營)의 아전(衙前)들인데, 폐단을 수습한다는 구실을 대고 있으며, 뇌물을 먹이고 들어붙은 다음에는 고기를 공급하는 각 고을의 푸줏간으로 되어 영영 고을관청 주방에 고기를 보태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의 감영(監營)에 소속되어 폐단을 수습한다는 명색을 모두 없애버릴 것이며, 만일 청탁하여 붙은 사람이 있으면 귀양처분을 적용할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에 대한 도살을 금지하는 것은 소를 발갈이에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폐단을 수습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푸줏간을 내오는 것은 법의(法意)를 고려할 때 한심한 일이니 이러한 현상을 엄하게 방지하고, 청탁하여 푸줏간을 내오는 것은 적발 되는데로 귀양처벌을 적용할 것입니다.

1. 감영(監營)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각 고을에 분담시켜 본색(本色)으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백성들과 고을들에 큰 폐해로 됩니다. 다시 대신 돈으로 시가(市價)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언제인가 비준을 받아서 규정을 정한 것이 있는데, 최근 연간에는 물가가 뛰어오른다고 하면서 두 마리마다 6푼씩의 수량 밖에 더 받아내는 것이 거의 5,000냥이나 됩니다. 방금 없애버린다고 하고는 곧 다시 설치하고 있으니 엄하게 공문을 만들어 신칙(申飭)하고 세칙을 작성하여 내려보낼 것이며, 만일 수량 외에 더 쓸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시가(市價)로 군영(軍營) 자체가 사울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가(市價)를 정해놓은 규정이 있으므로 수량 외에 더 받아들여온 것을 어찌 이와 같이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모두 정해놓은 규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1. 각 고을 창고 안에 있는 기름·꿀·종이·붓·먹 같은 물건의 값으로 되어있는 쌀은 바로



저축해둔 대동미(大同米) 중의 오랜 쌀입니다. 그런데 매 1섬 대신 돈으로 3냥씩 떼어주면 해당 수령(守令)은 응당 이대로 가져다가 써야 하겠으나, 3냥뭇을 내어주고 해당 고을에서는 상납하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반드시 새 쌀 중에서 섬수에 따라 받아내기를 마치도 원래 규정해놓은 필요되는 쌀이 있는 듯이 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고을에서 죽나는 현상이 생기거나 대신 돈으로 민간에 나누어주고는 본색으로 받아들이므로 원성이 자자한 결과를 가져오니 특별히 철저하게 고칠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묵은 쌀을 가지고 새 쌀로 바꾸면 이득은 어디로 돌아가고 폐해는 누가 보게 되겠습니까. 각 고을들에 엄격히 신칙(申飭)하여 속히 철저히 고치게 할 것이며, 옳지 못한 것을 답습하는 수령(守令)이 있거나 하면 본 도에서 보고하여 죄를 논하게 할 것입니다.

1. 각 고을들에서 쓰는 물건들에 대하여 반드시 시가(市價)를 따르라고 몇 해 전에 조정에서 신칙(申飭)한 적이 있었으나, 수령(守令)들은 자기 고을의 전례를 구실 삼으면서 대중 없이 받아내고 있으며 회계할 때에는 도리어 깎아버리고, 또 각 창고에서 더 지출한 것이 수천냥에 달하지만 의연히 보상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엄한 말로 공문을 만들어 발송하여 우선 감영(監營)에서부터 일체 관청용 물품에 대하여 모두 시가(市價)를 따르도록 다시 규정을 정하고 각각 세칙을 만들 것이며, 만일 무시하고 준수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탐오 법 조문을 적용할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위의 조항에서 조목별로 진술한 문제와 일반적으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현재 발각되는 수령(守令)도 보고하여 죄를 주어야 하며, 세칙을 만들어 본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고 시행할 것에 대하여 감사(監司)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1. 근래에 와서 공적인 행차에 역참(驛站)말을 되는 대로 쓰고, 하인들의 토색질은 제한이 없으며, 서울 포교들의 출입에서 그 악행이 특별히 심하여 각 역참(驛站)에서 사람들이 흠어지고, 역참(驛站)길이 완전히 끊어질 형편이 눈 앞에 닥쳐왔으니 속히 해당 조(曹)에서 따로 규정을 세우게 하고 새 법을 반포하여 시행할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각 역참(驛站)의 폐해가 대단히 근심됩니다. 그런데 역말을 함부로 쓰고 토색질을 하는 것을 어찌서 눈을 밝히고 조사하여 철저히 금지하지 못합니까. 이후부터는 일일이 지명하여 급보를 올리고 법에 따라 징벌해야 할 것입니다.

1. 서천(舒川) 경내에는 구씨(丘氏) 성(姓)을 가진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되는데, 몇해전에 구진규(丘鎭圭)라고 하는 사람이 집안에서 용납되지 못하게 되자 감히 나쁜 감정을 품고 그 성이 공자(孔子)의 이름자에 저촉되어 미안하다고 하면서 ‘구(丘)’자(字)를 ‘구(具)’자(字)로 고치기 위하여 사람을 고용하여 신문고(申聞鼓)를 쳤습니다. 결과 소원대로 하라고 허락하였으나 그 고약한 후손의 행동 때문에 수천명의 구씨 백성들이 까닭없이 성을 고치게 되자 도리어 징렴(徵斂)에 시달리게 되어 거의다 망하게 되었으니 특별히 분부하여 종전의 성(姓)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이 이러한 조건에서 예조(禮曹)에서 공문으로 본 도(道)에 알아본 다음에 품처(稟處)하게 할 것입니다.

1. 우두법(牛痘法)은 서양 의학에서 시작된 것으로써 백번 시험해도 백번 효과가 있으며, 만 번에 한 번의 실수도 없습니다. 2,900여냥을 내어 충청감영(忠淸監營)에 우두국(牛痘局)을 설치하고, 감영(監營)에서 경상도(慶尙道)의 의원들에게 그 기술을 배워주도록 하며, 소용되는 기구와 여러 가지 비용은 다 타산하여 조치를 취하였으니 속히 내의원(內醫院)에서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해당 도(道)에 공문을 발송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에 할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쓰기만 하면 즉시 효과를 내는 일은 권고하지 않아도 도입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국(局)을 설치하였으므로 기술만 배우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만큼 우선 군영(軍營)과 고을에서부터 노력하도록 신칙(申飭)할 것입니다.

1. 임천(林川)에 사는 유학(幼學) 이명익(李溟翼), 부여(扶餘)에 사는 유학(幼學) 민영용(閔泳龍), 전홍주사과(前洪州司果) 김준근(金窩根), 전승지(前承旨) 정헌조(鄭憲朝), 덕산(德山)에 사는 유학(幼學) 민재곤(閔載坤)은 학문과 행실이 다 훌륭합니다. 부여(扶餘)의 효자 서진문(徐鎭文), 충청감영(忠淸監營)의 효자 김덕윤(金德潤)에 대해서는 다 표창으로 벼슬을 줄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례대로 해당 각 조(曹)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이하생략~

### ▶ 21권 21년 9월 26일 丁卯

二十六日. 召見義州府尹李畚永. 辭陞也. 教曰: “灣府, 非但邊上重地, 關市交易, 比前有異, 稅則與諸般事, 不容不益加善處. 下去後, 實心對揚也.” 又教曰: “置兵所以禦侮也. 邊關重地, 宜有養兵, 而聞‘邑甚凋弊, 歲又大荒’云, 爲民情悶然矣.” 畚永曰: “年形已近大無, 民情轉益遑汲, 誠不知何以懷保? 而保民及所以養兵也.” 教曰: “鍊兵之節, 該道臣下直時, 已有筵教, 與道臣爛商措處可也.” 畚永曰: “當與道臣相議爲之矣.” 教曰: “聞灣府曾有設置之兵, 而未詳其數爰矣.” 畚永曰: “臣亦近始聞知, 姑未詳其數爰, 而蓋養兵不貴多數, 貴其精銳.” 教曰: “交易之利, 在乎出多入少. 而必也天造物少, 人告物多, 然後可以興旺矣.” 畚永曰: “誠如聖教矣.” 教曰: “日本則出口物中, 何者最多乎?” 畚永曰: “絲茶最多矣.” 教曰: “日本之絲茶、英·米之麥、佛蘭之緞、俄羅之牛皮、德之磁器, 皆國產之盛稱者, 爾嘗見之乎?” 畚永曰: “臣於年前日本行時, 或有得見者矣.” 教曰: “我國產物中, 如大豆及牛皮, 見貴於各國云矣.” 畚永曰: “見釜山出口, 則牛皮、大小豆、海菜等物爲多, 似爲各國之所貴者也.” 教曰: “柵門以後至九連城, 以大豆取油, 大利於民云. 灣之距此不遠, 取法教民好矣.” 畚永曰: “利民之事, 曷不圖效乎?” 教曰: “厚昌、慈城、江界、昌城, 樹木鬱密, 近來清人, 無難斫去云, 豈可任其斫伐乎? 送人看檢, 依例定稅好矣. 不爾則一草一木, 不可無端與人, 一切嚴禁可矣.” 畚永曰: “送人看審後, 當與道臣相議措處矣.” 教曰: “灣府之於彼境, 只隔一衣帶水, 而若成冰, 則便同陸地, 無難犯越, 大關邊情. 若依他處港口例通路, 則可無是弊詳察形便, 參酌事勢, 論報政府, 亦或狀聞可也.” 畚永曰: “聖教切當. 下去後, 詳察形便, 廣探物議爲之矣.” 教曰: “九連城創設蔘稅, 以銀爲兩六七錢之多. 是爲大弊, 今番使行, 欲圖變通. 爾亦與三使臣相議爲之也.”

의주부윤(義州府尹) 이현영(李永)을 소견(召見)하였다. 하직인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하교하기를,

“의주부(義州府)는 비단 변방의 중요한 지대일 뿐 아니라 관시(關市)에서 서로 물건을 무역하는 것이 이전에 비해 다르므로 세금규정과 그밖에 여러 가지 문제를 더 잘 처리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내려가게 되면 진심으로 받들어 잘 집행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군사를 두는 것은 적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변방의 중요한 지대인 만큼 응당 군사를 양성해야 할 것인데 듣자니 고을이 매우 영락된데다 올해에 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 백성들의 사정이 딱하다.”

라고 하였다.

이현영이 아뢰기를,

“농사형편이 이미 큰 흉년에 가까워서 백성들의 정상이 갈수록 더욱 황급하여지고 있으니 참으로 어떻게 회유하고 보호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성을 보존해야 바로 군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군사를 훈련시키는 문제는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가 하직할 때 이미 연석(筵席)에서 하교하였으니 관찰사(觀察使)와 잘 토론해서 조치를 취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다.

이현영이 아뢰기를,

“관찰사(觀察使)와 토의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듣건대 의주부(義州府)에 이미 군사를 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인원수를 잘 모르겠다.”

라고 하자 이현영이 아뢰기를,

“신도 요즘에야 비로소 듣고 있어서 아직은 그 인원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군사를 양성하는 데서는 인원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정예로운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무역하는 데서의 이득은 내가는 것이 많은 반면에 들어오는 것이 적은데 달려있는 것이다. 자연히 생산되는 것이 적고 사람이 만든 물건이 많아야 흥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현영이 아뢰기를,

“참으로 전하의 하교와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일본은 수출품 가운데서 어떤 것이 제일 많은가?”

라고 하자 이현영이 대답하기를

“실과 차가 가장 많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일본의 실과 차, 영국과 미국의 보리, 프랑스의 비단, 러시아의 소가죽, 독일의 자기(磁器)는 모두 그 나라에서 알아주는 생산품들인데 너는 본 일이 있는가?”

라고 하니 이현영이 아뢰기를,

“신이 연전에 일본에 갔을 때 더러 보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건 가운데서 콩과 소가죽 같은 것들은 각국에서 귀하게 여기고 있다.”

라고 하자 이현영이 아뢰기를,

“부산(釜山)에서 수출되는 것을 보면 소가죽·콩·팥·미역류 등의 물품이 많은데 각국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책문(柵門)에서 구련성(九連城)까지의 사이에서 콩으로 기름을 짜서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의주(義州)는 이곳과 가까우니 그 방법을 배워다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자 이현영이 아뢰기를,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일인데 어찌 본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후창(厚昌)·자성(慈城)·강계(江界)·창성(昌城)에 나무가 무성한데 근래에 청(淸)나라사람들이 꺼리낌없이 찍어간다고 하니 어찌 마음대로 찍어가도록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사람을 보내어 가서 보고 규례대로 세금을 정하도록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일목일초(一木一草)도 까닭없이 남에게 줄 수 없으니 일체 엄금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니 이현영이 아뢰기를,

“사람을 보내어 조사해보게 한 다음 관찰사(觀察使)와 토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하교하기를,

“의주(義州)는 청(淸)나라와 한 줄기의 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 만약에 강이 얼어붙기만 하면 육지와 같아지므로 어렵지 않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어 이것은 변경문제와 크게 관계된다. 만약 다른 지방의 항구의 규례대로 길을 연다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이니 형편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태를 참작하여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거나 혹은 장계(狀啓)로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니 이현영이 아뢰기를,

“전하의 하교가 아주 지당합니다. 내려가서 형편을 자세히 살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널리 알아봐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하교하기를,

“구련성(九連城)에서 인삼세[蔘稅]를 처음으로 제정하였는데 은전(銀錢)으로 단위를 정한 것이 자그만치 6~7전(錢)이나 된다. 이것이 큰 폐단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신이 가는 편에 변통해보려고 하니 너도 세 사신(使臣)들과 토의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 ▶ 21권 21년 12월 24일 甲午

議政府啓: “即見江華留守趙秉鎬狀啓, 則‘本營兵丁赴于京陣, 與營下將士, 把守各處者, 本府人民, 或納錢財而助需, 或納牛隻、魚蠶而饋軍, 迨此時出義願納, 事甚嘉尙. 各人褒賞之典, 請令廟堂稟處’矣. 爲念兵士之勞若, 有此錢物之願助, 其所出義, 誠爲嘉尙. 各人, 竝令該營請量宜施賞.” 允之. 又啓: “即見忠淸監司朴齊寬狀啓, 則‘甲戌胎封時, 沿路結城等六邑舊災冤徵條, 三百三十六結六負, 特蒙十年停稅. 限年已過, 而地無寸墾, 人多流亡, 徒擁結簿, 遍徵族隣. 上項六邑蒙頃結, 特許更展十年之限, 使各該邑著力勸耕, 隨起執卜事, 請令廟堂稟處’矣. 限滿而輒請更展, 揆以國結所重, 固難議. 而第此幾邑之朝家軫念, 與他有異, 不可無終始懷恤. 特許限五年停稅何如?” 允之.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강화유수(江華留守) 조병호(趙秉浩)가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이르기를, ‘본 감영(監營)의 군사로서 수도의 부대에 나와 군영(軍營)의 군사들과 함께 각 곳에서 파수보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본 부(府)의 백성들이 혹은 돈과 재물을 바쳐 비용을 보태주기도 하고 혹은 소·물고기·미역을 바쳐 군사들을 먹이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때에 와서 의기를 떨쳐 자원하여 물품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게 여길 만합니다. 매 사람들에게 표창하는 은전(恩典)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군사들이 수고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처럼 돈과 재물을 자원하여 도와주고 있으니 그 의기가 참으로 좋게 여길만 합니다. 매 사람들에게 모두 해당 군영(軍營)에서 적당하게 표창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충청감사(忠淸監司) 박제관(朴齊寬)이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이르기를, ‘갑술년(甲戌年)에 왕실의 태(胎)를 묻을 때 길가의 고을들인 결성(結城) 등 6개 고을에 대하여 이전에 재해지로 잡아주었다가 억울하게 물리는 몫 336결(結) 6부(負)를 특별히 10년간 조세를 바치는 기간을 연기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한이 지난 데다가 땅은 한 치도 개간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많이 떠나가서 그저 빈 토지장부만 안고 있다보니 가까운 이웃과 친족에게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두루 물려야 할 형편입니다. 이상의 6개 고을에 대하여 사고토지로 잡아주어 특별히 다시 더 10년을 한정해서 연기하여 주도록 허락하여 주는 동시에 해당 각 고을에서 착실히 받을 갈도록 장려하고 일구는대로 조사해서 등록할 것에 대하여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기한이 찻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연기하여 줄 것을 청한다는 것은 나라의 중요한 토지면적을 놓고 볼 때 원래 논의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할 때에 이 경기(京畿) 고을로 말하면 조정에서 생각하여 주는 것이 다른 데보다 특이한 조건에서 시종 돌봐주지 않을 수 없으니 특별히 5년간 기한을 연기하여 주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 27권 27년 4월 23일 壬戌

二十三日. 禮曹啓: “謹稽『五禮儀』及『喪禮補編』, 則卒哭後, 自上視事服, 以布裹翼善冠、布袍、布裹烏犀帶、白皮靴載錄, 而公除後卒哭前, 視事服服色, 無可據之文. 故丙申年因丁丑年已行之禮, 以自內書下者, 令尙衣院製入, 而庚申、乙丑、辛巳、甲午、己酉、丁巳、癸亥、戊寅, 亦依稟旨舉行矣. 今亦依此舉行事, 分付該院何如?” 允之.

예조(禮曹)에서 “『오례의(五禮義)』과 『상례보편(喪禮補編)』을 상고하면, 졸곡(卒哭) 후에 임금이 정사를 볼 때에 입는 옷차림은 삼베[布]로 쓴 익선관(翼善冠), 삼베 도포, 삼베로 쓴 검정 물소발 띠, 흰 가죽신으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거상 기간을 끝낸 후 졸곡(卒哭) 전에 정사를 볼 때 입는 의복에 대해서는 근거할 만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신년(丙申年)에는 정축년(丁丑年)에 이미 시행한 예법대로 안에서 적어 내려 보낸 것을 가지고 상의원(尙衣院)을 시켜 만들어 들여보내게 했고, 경신(庚申) 을축(乙丑) 신사(辛巳) 갑오(甲午) 기유(己酉) 정사(丁巳) 계해(癸亥) 무인(戊寅)에도 지시를 받은 대로 거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도록 상의원(尙衣院)에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의하니, 승인하였다.

### ▶ 28권 28년 10월 16일 丁未

議政府啓: “挽近, 牛疾無年無之, 而未有甚於今年, 在在傷縮, 殆不可數計. 凡民耕作, 專藉牛力, 而甚至服田者, 以人代畜云, 嗣歲農憂, 靡有止屆. 況又閭巷村里之間, 憑藉病牛, 爛漫宰屠, 苟使京外掌法之臣按典從事, 則全無畏憚, 豈至於此? 此, 不可不嚴加防禁. 自今內而正供進排與貿易懸房外, 一竝使之撤屠, 外而官庖、場市庖, 亦令一一撤罷, 俾不得擅屠一牛. 如有冒犯者, 隨提刑配事, 申飭刑、漢兩司、左右捕廳、八道五都, 一體行會何如?” 允之. 仍教曰: “近聞牛疾尙熾, 十無一完, 村里之廐養殆空, 田野之犁

耕將廢，嗣歲東作，寧不憂悶？顧今天氣漸寒，迄可止熄，而彼愚夫愚婦先生恐怯，設有不病之牛，輒又斥賣於庖肆，若此不已，其將無遺。道臣、守宰苟有愛物重農之，心必不待朝令，自當嚴立防禁，而亦何可一向拋置乎？自今祀典所用與貿易懸房外，無論京外一竝撤屠。如是提飭之後，或有冒犯者，則直爲嚴刑遠配事，刑曹、漢城府郎廳、左右捕廳從事官，發牌聽傳教。”

의정부(議政府)에서 제의하였다.

“근년에 소의 돌림병이 돌지 않는 해가 없었지만 올해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곳곳에서 마리 수가 줄어드는데 거의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체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는 전적으로 소의 힘에 의거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농사꾼이 사람의 힘으로 소를 대신하기까지 한다고 하니, 오는 해 농사에 대한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더구나 또 거리와 마을들에서는 소가 병에 걸렸다고 빙자하여 마구 잡아 먹는데 만일 중앙과 지방의 법을 맡은 관리들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게 한다면 전혀 법을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이 어찌 이런 지경에까지야 이르겠습니까?

그래서 금지하는 규정을 더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안에서는 정식공납이나 푸줏간에서의 매매를 제외하고는 일체 도살하지 못하게 하고 지방에서는 관청 푸줏간[官]이나 시장 푸줏간[場市]도 죄다 철폐하여 한 마리의 소라도 마음대로 잡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위반하는 자가 있다면 체포하는 대로 형장을 쳐서 귀양을 보내도록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 두 관청과 좌포도청[左捕廳]과 우포도청[右捕廳], 8도(八道)와 5도(五都)에 신칙하여 다 같이 공문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인하고 이어 지시하였다.

“요즘 들건대 소의 돌림병이 아직 성해서 열에 하나도 완전한 것이 없고, 마을의 외양간이 거의 비어서 전야의 농사를 폐지하게 되었다고 하니 오는 해 봄철 농사를 어찌 걱정하지 않겠는가?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마침내 병이 멎을 수 있는데 저 무식한 백성들은 겁이 앞서 병들지 않은 소까지 걸핏하면 푸줏간에 팔아버리니 계속 이렇게 가다간 남아 있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감사(監司)와 수령들에게 만일 만물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조정의 지시를 기다릴것 없이 응당 엄하게 금지하는 규정을 세워야 할 것인데 어째서 전혀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는 제사에 쓰는 것과 푸줏간에서 매매하는 것 외에는 중앙과 지방을 물론하고 일체 도살을 그만 둘 것이다. 이렇게 신칙한 후에 혹시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곧 엄하게 형장을 쳐서 멀리 귀양을 보내도록 형조(刑曹), 한성부(漢城府)의 당하관(堂下官)과 좌포도청(左捕廳)과 우포도청(右捕廳)의 종사관에게 패(牌)를 돌려 지시를 집행하게 하도록 하라.”

▶ 29권 29년 7월 18일 癸卯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이상생략

‘其一，元山鎮，以海口重地，還總爲五百石，鎮民爲七百戶，島民難支，漸至渙散，不過三百戶。而五百石依舊分捧，此若無變通，不幾年，餘民又將盡散。該鎮還上，截半移送于洪州’事也。關問道臣後稟處。‘其一，沿浦各邑，均廳魚鹽元稅外，年來新設稅，無論公私，逐條革罷，統禦營新設稅，一切革罷’事也。以新設雜稅，纔有控實啓稟，至承截嚴之批旨，府關已頒，待其修報，行將有釐正之舉。‘其一，近因牛價高騰，處處撤庖，牛既不屠，皮亦不存。而以統禦營軍需責納，電局及營庫，掄弊責納，屠漢專事逃走，邑吏枉受椎剝。邑弊民冤，莫切於此。左右道牛皮代錢，更勿責徵，電局及兩營所需，從他措劃’事也。一依繡單許施。‘其一，左道進上藥材，近來移納于統禦營矣。藥院則以本來之數，截半分捧於兩營監營，則左道藥材價及情費，更勿責捧，俾無峽民疊徵’事也。依此遵行之意，申飭藥院及該道臣處。‘其一，稷山前委員李承七，自稱負商班首，多率無賴，私設刑具，推捉良民，無辜致斃，非止一再。令該府拿覈施律，痛懲負商之弊’事也。所謂李承七，未知何許悖流，而名在前銜，自謂負商之班首，擅施毒刑，戕害無辜，觀於繡單，不勝驚惋。此等癡頑之徒，決不當尋常勘治。令本道拿覈，亟施當律，負商操制之節，另飭商理局，更無得侵擾民間。‘其一，淸風前都正權克善，老而窮經，貧而樂道，槐山進士洪祐臣，讀書行義，到老愈篤，合施優異之典。魯城故學生李豐鎮、海美故學生蔡永胤，至孝出天，學行卓異，合施褒贈之典。洪州故縣監鄭基泰妻李氏，夫死之成服日，從容處義，合施褒旌’事也。篤行節烈，若是卓異，竝令該曹稟處何如?’ 竝允之。

이하생략~

~이상생략

또 쓰기를, ‘원산진(元山鎮)은 바닷가의 출입구인 중요한 지대인데 환곡(還穀) 총량이 500석(石)이고 진(鎭)의 백성은 700호나 되지만 섬의 백성들이 견디기 어려워 점점 흩어지더니 300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500석을 종전대로 배정하여 받으니 이것을 만일 변동하지 않는다면 몇 해 지나자 없어서 남아 있는 백성들도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전의 환곡을 절반으로 나누어 홍주(洪州)에 이관시킬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사(監司)에게 공문으로 문의한 후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할 것입니다.

또 쓰기를, ‘바닷가 포구(浦口)의 각 고을에는 균역청(均役廳)에서 원래 정한 어세(漁稅), 염세(鹽稅) 외에 근년에 새로 만든 세(稅)는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빠짐없이 모두 없애 버리고 통어영(統禦營)에서 새로 만든 세들도 일체 없애버릴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설한 잡세(雜稅)는 방금 사실대로 보고하여 문의한 바 있었고 엄격한 비답(批答)을 받았으며 의정부(議政府)에서 공문을 이미 반포하였으니 회답보고를 기다려서 바로잡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 쓰기를, ‘요즘 소 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푸줏간을 헐어버려 소도 잡지 않고 가죽도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통어영(統禦營)에서 군사에 소용되는 물자로 바칠 것을 요구하고 전보국(電報局)과 감영(監營) 창고에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물자로 바칠 것을 요구하므로 백정(白丁)들은 도망가는 것을 일삼고 읍리(邑吏)들은 억울하게 추책을 받게 됩니다.



고을의 폐단과 백성들의 원망스러운 일치고 이보다 더 심한 일은 없습니다. 좌우도(左右道)에서 소가죽 대신 내는 돈에 대해서는 다시는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전보국(電報局)과 두 감영(監營)에서 소용되는 것은 다른 데서 마련하여 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암행어사(暗行御史)가 올린 글대로 시행하게 할 것입니다.

또 쓰기를, ‘좌도(左道)에서 바치는 약재를 근래에 통어영(統禦營)에 옮겨서 받게 되었으니 내의원(藥院)에서는 본래의 수량을 절반으로 나누어 두 감영(監營)에서 나누어 받고 감영에서는 좌도에 약재 값과 중간비용을 다시 독촉하지 말게 하여 산골백성이 이중으로 내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대로 시행하도록 내의원(藥院)과 해당 감사(監司)에게 신칙할 것입니다.

또한 쓰기를, ‘전(前) 직산 위원(稷山委員)인 이승칠(李承七)은 부상(負商)의 반수(班首)로 자칭하면서 무뢰한을 많이 거느리고 사사로이 형구(刑具)를 만들어 양민을 잡아다가 형벌을 가하여 죄없는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 한두 번만이 아니니 법말은 관청으로 하여금 잡아다가 조사하고 법조문을 적용함으로써 부상의 폐단을 엄격히 징계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이승칠(李承七)이 어떤 고약한 무리인지 알 수 없으나 전함(前銜)에 이름이 올라 있고 스스로 부상(負商)들의 반수(班首)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가혹한 형벌을 가하여 죄없는 백성을 죽였다는 것을 암행어사(暗行御史)의 글에서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흉악한 무리는 결코 심상하게 다스려서는 안될 것이니 본 도(道)로 하여금 잡아다가 조사하고 빨리 해당한 법조문을 적용하게 할 것이며 부상(負商)을 통제하는 것은 특별히 상리국(商理局)에 신칙하여 다시는 백성들을 침해하여 소란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 쓰기를, ‘전(前) 청풍 도정(淸風都正) 권극선(權克善)은 늙었지만 경학(經學)을 깊이 탐구하고 가난하면서도 도(道)를 배우기를 즐기며, 괴산(槐山)에 사는 진사(進士) 홍우신(洪祐臣)은 글공부와 의로운 처신이 늘어갈수록 더욱 성실하니 특별히 우대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할 것이며, 노성(魯城)의 죽은 학생(學生) 이풍진(李豐鎭)과 해미(海美)의 죽은 학생 채영운(蔡永胤)은 남달리 뛰어난 효성을 지닌 사람들로써 학문과 덕행이 특중하니 응당 표창으로 벼슬을 추증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죽은 홍주현감(洪州縣監) 정기태(鄭基泰)의 처 이씨는 남편이 죽은 후 성복일(成服日)에 조용히 의리를 지켜 죽었으니 응당 표창으로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착실한 행실과 훌륭한 절개는 그와 같이 특출하니 모두 해당 조(曹)로 하여금 문의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모두 다 승인하였다.

이하생략~

## ▶ 31권 31년 4월 11일 丁巳

十一日. 議政府啓: “即見忠淸監司趙秉鎬查啓, 則‘枚舉德山郡守金炳琬牒呈, 前兵使李廷珪武斷諸條, 及覩查案, 果無差爽. 而‘各年所奪錢爲三萬七千八百五十兩, 而諸般零瑣之數, 不爲舉論. 其外米租、鹽苞、牛馬、田畝、家舍、山麓、柴場、材木、藥草、漁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網、船隻等物之侵奪及人命致死、致傷之許多行虐，有難枚舉。故一依邑報，別成冊子，上送于議政府爲辭矣。民之始因呼冤，轉以紛集，至於放火作鬧，其情雖曰可念，其習亦宜痛懲。詳覈其首唱之漢，令道臣按法嚴勘。前兵使李廷珪，武斷鄉曲，侵虐平民，乃有人命之致斃。而若其網打重傷，殆遍隣里，其百般攘奪，不可枚舉，民訴與查案，符合無差。道啓臚列，不啻可駭，可見其貪殘之行，使闔境黎庶，不能安堵，迫於困厄，激而致騷，究厥罪狀，不可仍置。施以邊遠竄配之典何如?” 允之。

의정부(議政府)에서 제의하였다.

“방금 충청감사(忠淸監司) 조병호(趙秉鎬)의 조사 보고를 보니 덕산군수(德山郡守) 김병완(金炳琬)의 보고에서 전 병사(前兵使) 이정규(李廷珪)가 위세를 부린 여러 조항을 낱낱이 들었는데 막상 조사한 문건을 보니 과연 틀림없이 여러 해에 걸쳐 빼앗은 돈이 3만 7,850냥[兩]이고 여러 가지 사소한 수는 논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쌀, 벼[租], 소금[鹽], 뇌물[苞], 소[牛], 말[馬], 논밭[田畓], 집[家舍], 산림[山林], 땔나무밭, 짚, 고기그물[漁網], 배[船] 등 약탈한 물건과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는 등 허다한 학정은 이루다 들기 어려우므로 고을에서 보고한 그대로 따로 책을 만들어 의정부에 올려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억울한 사정을 하소하는 일에서 한걸음 나가서 모여서 불을 지르고 소란을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니 그 정상은 비록 고려할 만하지만 그 버릇은 역시 엄하게 징계하여야 할 것이니 먼저 제창한 놈을 자세히 조사하여 감사(監司)로 하여금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게 할 것입니다.

전 병사(兵使) 이정규(李廷珪)는 시골에서 함부로 위세를 부리고 평민들을 못살게 굴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는데 사람을 때려 크게 상한 것은 자못 이웃 고을에까지 미쳤고 온갖 약탈행위는 이루 다 들 수 없으며 백성들의 신소와 조사 문서는 차이없이 꼭 들어맞습니다. 감사(監司)의 보고에서 나열한 것은 놀라울 뿐 아니라 그의 탐욕스럽고 잔인한 행동이 온 경 내의 백성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여 고통에 시달리던 끝에 격하여 소요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죄상을 따져보면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먼 변방에 귀양 보내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인하였다.

### ▶ 32권 31년 7월 21일 乙未

議政府啓: “今聞江原、咸鏡兩道客兵所過之地，各該地方官，凡於糧草、牛馬等物，排斂民間，大致民邑之騷擾。此事初無政府知委，而沿路各官，何敢擅行，以貽民弊乎? 事體所在，不可無警。該道臣竝推考，各該地方官，使之戴罪舉行何如?” 允之。

의정부(議政府)에서 제의하였다.

“방금 듣건대 강원(江原), 함경(咸鏡) 두 도(道)에 다른 지역의 군사들이 지나간 곳에서는 여러 해당 지방관(地方官)들이 군량, 말먹이, 소, 말 등을 민간에 배분시켜 걷어들이기 때문

에 백성들과 고을에 큰 소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애당초 의정부(議政府)에서 통지한 적도 없는 일인데 연도(沿道)의 각 고을에서 어찌 감히 제멋대로 하여 백성들에게 폐를 끼친단 말입니까. 원칙으로 보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해당 감사(監司)들은 모두 과오를 추궁하고 여러 해당 수령들은 죄를 진채 일을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인하였다.

### ▶ 32권 31년 11월 4일 丙子

兩湖都巡撫營以“卽見敎導所領官李軫鎬所報，則‘去十月二十六日，與日兵大隊及鎮南營兵丁，合勢進發，到懷德地，匪徒幾千名，隔水成陣，故混戰一場，逐殺數十名，生擒朴聖燁等七名，仍卽砲殺，餘黨四散逃竄，而獲得銃丸旗鼓等物及牛馬三十四匹，隊官李敏宏率一隊兵，偵察於報恩、清安等地，捉得匪徒接司安武玄等四漢，竝卽砲殺”啓。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에서 보고하였다.

“방금 교도소영관(敎導所領官) 이진호(李軫鎬)의 보고를 보니, ‘지난 10월 26일에 일본군(日本軍) 대대(大隊)와 진남영(鎭南營)의 군사들과 합세하여 회덕(懷德) 지방에 이르니 비적(匪賊) 수 천명이 강 건너에 진(陣)을 치고 있기에 한바탕 혼전을 벌린 끝에 수십명을 쫓아가 죽이고 박성엽(朴聖燁) 등 7명을 사로잡아 그 자리에서 쏘아 죽였더니 나머지 무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으며 총알, 깃발, 북 등 물건과 소와 말 30마리를 획득하였습니다. 대관(隊官) 이민굉(李敏宏)은 한 개 대(隊)의 군사를 거느리고 보은(報恩), 청안(淸安) 등지에서 정찰하다가 비적의 접사(接司) 안무현(安武玄) 등 네 놈을 잡아 모두 그 자리에서 쏘아 죽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 32권 31년 12월 2일 甲辰

初二日. 藥院都提舉義和君垞以“伏聞入診醫官立言，脈候縱臻勝度，而風熱尙繁餘崇，搔癢終遲快差. 湯劑以 加味消風散議定矣，一貼今方煎入，外塗以蕉汁加牛黃調進，而區區下情，一倍焦灼，臣等職忝嘗藥，不敢遽退私次. 自今日本院竝直之意”上秦. 批曰：“湯劑製入，竝直置之.” 又以“既承批旨，雖不得竝直，而在臣等情理，終不敢退歸私次，木院輪直之意”上奏. 批曰：“輪直亦置之.”

내의원 도제거(內醫院都提舉)인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垞)이 제의하였다.

“들어가 진찰한 의관(醫官)의 말을 듣건대 맥박은 비록 나아가지만 풍열증(風熱症)이 아직 심하고 남은 증세인 온몸이 가려운 것은 끝내 빨리 낫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탕약으로는 ‘가미소풍산(加味消風散)’을 의논하여 정하고 한첩을 이제 달여 들어오며 길에 바를 것으로는 파초즙에 우황(牛黃)을 섞어서 지어 들여 오겠습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의 구구한 심정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은 더욱 초조하니 약을 맡은 직책에 있는 신 등으로서는 감히 자기 집에 물러 갈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본 원(院)에서 교대없이 당직을 서겠습니다.”

비답을 내리기를, “탕약은 지어 들여오고 교대없이 당직을 서는 것을 그만 둘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제의하기를, “이미 비답을 받았으니 교대없이 당직을 설 수는 없지만 신 등은 인정과 도리로 보아 아무래도 감히 자기 집으로 물러갈 수는 없으므로 본 원(院)에서 돌림으로 당직을 서겠습니다.”라고 하니 비답을 내리기를, “돌림으로 당직을 서는 것도 그만 둘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 32권 31년 12월 10일 壬子

總理大臣、內務大臣、法務大臣奏：“地方官制改定之先，部內訴訟，姑令漢城府尹聽理何如？”總理大臣、內務大臣奏：“警務副使減下，增置警務官五員，總巡十員，使之部分職務，而其繁劇之部，置三品警務官何如？”總理大臣奏：“即見關西宣諭使趙熙一論列吏治臧否，平安前監司閔丙奭六年施措，則褊裨壅蔽，一朝搶攘，而脫身遠行，竝與印符，下落無處。辜負至此，合有當律，令該衙門拿問勘處。肅川前府使申德均、順川前郡守徐廷喆、江東前縣監閔泳純、寧邊前府使任大準、郭山前郡守韓致愈、祥原前郡守李國應、楚山府使鄭春基，既請令該衙門稟處，更無可論，申德均、李國應前有拿命而又有贓犯，添問目勘處。定州牧使趙贊顯，捐廩設店，挪貸買牛，惠洽軍民，譽播直路，三和府使李敬器，梟警亂民，一境畏戢，鳩聚利械，群盜屏跡。竝許用水使履歷，中和府使吳泰泳，處殘局而百弊賴整，貿軍糧而萬金自備，嘉山郡守洪淳旭，支放與修廨，鑄斂而捐廩，兩朔之間，吏民安堵。竝加資。永柔縣令趙東立，積逋盡刷，兼務善就，孟山縣監南哲熙，邑村無警，吏懷民安。竝施以陞敘之典何如？”竝允之。

총무 대신(總務大臣), 내무대신(內務大臣), 법무대신(法務大臣)이 제의하기를, “지방 관제를 고쳐 정하기 전까지 부(部) 내의 소송은 당분간 한성부윤(漢城府尹)이 접수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총리대신(總理大臣)과 내무대신(內務大臣)이 제의하기를, “경무부사(警務副使)를 줄여버리고 경무관(警務官) 5명과 총순(總巡) 10명을 더 두어 직무를 분담하되 일이 복잡한 부에는 3품인 경무관(警務官)을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총리대신이 제의하였다.

“방금 관서선유사(關西宣諭使) 조희일(趙熙一)이 관리들의 정사 실태에 대하여 따져 열거한 것을 보건대 전 평안감사(前平安監司) 민병석(閔丙奭)은 6년 동안 정사에서 부하 장수들에게 가리어 하루아침에 변란이 일어나자 몸을 빼서 멀리 도망친데다가 인장(印章)과 부신(符信)마저 어디에 떨어뜨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죄가 이 지경에 이른 만큼 응당 해당하는 법조문이 있겠으니 해당 아문(衙門)에서 잡아다 신문하고 처벌하게 할 것입니다.

전 숙천부사(前肅川府使) 신덕균(申德均), 전순천군수(前順天郡守) 서정철(徐廷喆), 전강동현

감(江東縣監) 민영순(閔泳純), 전전영변부사(前前寧邊府使) 임대준(任大準), 전곽산군수(郭山郡守) 한치유(韓致愈), 전상원군수(祥原郡守) 이국응(李國應), 초산부사(楚山府使) 정춘기(鄭春基)는 이미 해당 아문에서 제의하여 처리하게 할 것을 청했으나 다시 논할 것이 없으나 신덕균과 이국응은 이전에도 잡아오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또 탐오죄를 범하였으니 신문 조목에 첨부하고 처벌할 것입니다.

정주목사(定州牧使) 조지현(趙贊顯)은 자기의 녹봉(祿俸)을 일부 내어 점방(店房)을 차려 놓고 돈을 빌려주어 소[牛]를 사게 하여 혜택이 군사와 백성들에게 미치고 칭찬이 그 일대에 자자하며, 삼화부사(三和府使) 이경기(李敬器)는 난민을 효수(梟首)하여 많은 사람들을 경계한 결과 온 경내가 겁을 먹고 잠잠해지고 무기를 걷어 모아 무리 도적이 자취를 감추게 하였습니다. 모두 수사(水使)의 이력으로 해 줄 것입니다.

중화부사(中和府使) 오태영(吳泰泳)은 영락된 고을에 있으면서 모든 폐단을 바로잡고 군량을 사는데 많은 돈을 스스로 마련하였으며 가산군수(嘉山郡守) 홍순욱(洪淳旭)은 지출과 관청 건물 수리에서 백성들의 부담을 덜고 자기 녹봉을 들이민 결과 두 달 동안에 아전과 백성들이 안착되었습니다. 모두 품계를 올려 줄 것입니다.

영유현령(永柔縣令) 조동립(趙東立)은 여러 해 동안 축이 난 조세를 다 정리하고 두 가지 직무를 겸하여 성과를 올렸으며 맹산현감(孟山縣監) 남철희(南哲熙)는 고을과 마을에 변고가 없게 하며 아전들과 백성들을 돌보고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모두 승급시키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모두 승인하였다.

### ▶ 33권 32년 3월 10일 辛巳

初十日. 內務衙門訓示于各道曰: “我國의 固有한 獨立基礎를 立히며 百度革新한 銳氣가 人民과 更始하야 文明域에 進코저 하야 本大臣鹵愚不才를 不顧하고 百弊를 芟除하야 土民의 安寧幸福을 期하야 茲에 條列訓示하니 其各遵守勿違함을 望하노라.”

【第一條, 民을 臨하느 道는 心을 用하를 公平히 하야 貴賤과 親疎로써 毫末이라도 差別이 有케아니할 事. 第二條, 儒任과 鄉任을 差別이 업게할 事. 第三條, 里任을 該洞으로서 圍薦할 事. 第四條, 儒鄉任과 軍門職을 空帖과 借衡이 업게 할 事. 第五條, 座首의 任을 偏僻히 邑中大姓에게 歸케 勿할 事. 第六條, 大小民이 官庭에 跪하고 立하느 節과 民이라 稱하고 小人이라 稱하느 例를 一切自便케하고 勒行치 말을 事. 第七條, 官長이 胥隸에게와 主人이 雇傭에게 專히 强暴로써 待치 勿할 事. 第八條, 都有司掌議와 모든 幼學生等으로 專히 科文六體를 習하게 勿할 事. 第九條, 東學과 南學黨의 名色을 各별 禁防할 事. 第十條, 人民을 몬저 本國史、本國文을 教할 事. 第十一條, 京鄉에 出沒하며 訛言을 煽動하느 人을 一切禁斷할 事. 第十二條, 窮困한 鰥寡孤獨과 身體不具한 民을 救護하느 法을 設할 事. 第十三條, 棄한 兒를 반다시 法을 設하야 養育할 事. 第十四條, 男女가 毒을 飲하야 命을 害하며 身體를 毀傷함과 다못 婦女가 毒을 飲하야 墮胎하를 禁할 事. 第十五條, 富貴를 貪惑하야 子孫의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腎囊을 腐<sup>호</sup>며 割<sup>호</sup>는 悖俗을 一切嚴禁<sup>호</sup> 事. 第十六條, 寡女를 威脅<sup>호</sup>야 改嫁<sup>호</sup>를 禁<sup>호</sup> 事. 第十七條, 淫罪에 犯<sup>호</sup> 女를 官婢에 沒役지 말을 事. 第十八條, 破瓜之年이 未滿<sup>호</sup> 女는 妓案에 入<sup>호</sup>지 말을 事. 第十九條, 家夫가 妻에게 專히 强暴<sup>호</sup>를 禁斷<sup>호</sup> 事. 第二十條, 幼年의 嫁娶<sup>호</sup>를 禁<sup>호</sup>되 機務處議案을 依<sup>호</sup>야 男二十歲、女十六歲에 許婚<sup>호</sup> 事. 第二十一條, 子孫을 教育<sup>호</sup>되 專히 强暴<sup>호</sup>를 行<sup>호</sup>를 禁止<sup>호</sup> 事. 第二十二條, 人民에게 曉諭<sup>호</sup>야 疾病이 有<sup>호</sup>거든 卽地服藥<sup>호</sup>고 巫瞽의 呪咀를 用<sup>호</sup>지 勿<sup>호</sup> 事. 第二十三條, 土豪의 武斷을 一切嚴禁<sup>호</sup> 事. 第二十四條, 班家奴隸의 行悖<sup>호</sup>를 一切嚴禁<sup>호</sup> 事. 第二十五條, 官衙의 吏民을 呼來捉去치 못<sup>호</sup>게 事. 第二十六條, 民이 軍律에 犯<sup>호</sup>치 아니<sup>호</sup>야스면 兵水營에 上使를 應<sup>호</sup>치 아니<sup>호</sup> 事. 第二十七條, 大罪가 아니어든 校卒을 發差<sup>호</sup>지 勿<sup>호</sup> 事. 第二十八條, 坐裸負商을 一切禁斷<sup>호</sup> 事. 第二十九條, 裸負商의 奪婦와 掘塚<sup>호</sup>는 諸般弊習을 一切嚴禁<sup>호</sup> 事. 第三十條, 裸負商等이 他商民에게 賄儀를 討索<sup>호</sup>는 弊를 一切嚴禁<sup>호</sup> 事. 第三十一條, 原典에 載<sup>호</sup> 尺量外에 山訟을 聽<sup>호</sup>지 勿<sup>호</sup> 事賜牌地와 官文蹟私文書가 分明<sup>호</sup>즉 山主의 許可<sup>호</sup>업시 入葬<sup>호</sup> 事 禁<sup>호</sup> 事. 第三十二條, 田畓中에 新葬<sup>호</sup>를 許<sup>호</sup>지 勿<sup>호</sup> 事. 第三十三條, 賞錢을 掛<sup>호</sup>야 土民으로 竊<sup>호</sup>盜를 捕<sup>호</sup>케 事. 第三十四條, 賊盜를 暗養<sup>호</sup>는 捕校와 捕卒을 一切嚴禁<sup>호</sup> 事. 第三十五條, 窩主와 煙主를 賊魁로 治<sup>호</sup> 事. 第三十六條, 該洞의 保證을 受<sup>호</sup> 後에야 廚店을 設<sup>호</sup>를 許<sup>호</sup> 事. 第三十七條, 官과 民이 相接<sup>호</sup>되 下情을 詳察<sup>호</sup>야 吏胥輩로 竊<sup>호</sup>居 中奸弄<sup>호</sup>이 업<sup>호</sup>게 事. 第三十八條, 詞訟<sup>호</sup>는 節을 刑房으로 由<sup>호</sup>지 勿<sup>호</sup>고 官庭에 直告<sup>호</sup> 事. 第三十九條, 官衙의 門禁을 解<sup>호</sup>야 訟民으로 竊<sup>호</sup>擊鼓<sup>호</sup>야 鳴冤<sup>호</sup>케 事. 第四十條, 一切朝令을 不留時刻<sup>호</sup>고 卽地舉行<sup>호</sup> 事. 第四十一條, 一切朝令을 各里洞中에 卽地揭壁<sup>호</sup> 事. 第四十二條, 官榜을 揭壁<sup>호</sup> 近處에는 私通文과 私榜을 塗付<sup>호</sup>를 許<sup>호</sup>지 勿<sup>호</sup> 事. 第四十三條, 各里諸民의 産業을 營<sup>호</sup>는 것과 工藝를 一一查明<sup>호</sup>고 奸猾遊食<sup>호</sup>는 民을 法을 設<sup>호</sup>야 禁斷<sup>호</sup> 事. 第四十四條, 巫女와 淆雜<sup>호</sup> 類를 一切禁斷<sup>호</sup> 事. 第四十五條, 裸負商等類가 鄉村에 飯을 討索<sup>호</sup>는 弊를 一切禁斷<sup>호</sup> 事. 第四十六條, 各洞里任과 頭民에게 令<sup>호</sup>야 雜技를 嚴禁<sup>호</sup> 事. 第四十七條, 雜技場의 贓錢을 告者와 捕差를 分賞<sup>호</sup> 事. 第四十八條, 鬪錢骨牌雜技場의 該主를 受贖嚴懲<sup>호</sup> 事. 第四十九條, 道路左右에 樹木을 植養<sup>호</sup>를 勸<sup>호</sup>고 每戶의 籍內와 空間<sup>호</sup> 地에 果木이며 桑木을 各別히 栽植<sup>호</sup> 事. 第五十條, 各里의 主山과 護龍과 水口와 堤堰과 陂池等處에 大株와 穉木을 山板主라도 斫伐<sup>호</sup>치 못<sup>호</sup> 事. 第五十一條, 各里의 現在<sup>호</sup> 戶數와 人口를 一一實錄<sup>호</sup>야 脫漏<sup>호</sup>이 업<sup>호</sup>게 事. 第五十二條, 奴戶를 主戶에 付<sup>호</sup>지 勿<sup>호</sup>고 分戶<sup>호</sup>야 應役<sup>호</sup> 事. 第五十三條, 戶役等分을 衆議를 從<sup>호</sup>야 公正<sup>호</sup>게 事. 第五十四條, 流商과 流民의 原籍과 原住를 懸錄<sup>호</sup>고 留住<sup>호</sup>지 一月이 過<sup>호</sup>거든 該洞에 應役<sup>호</sup> 事. 第五十五條, 雇傭<sup>호</sup>는 率人도 人口帳內에 懸錄<sup>호</sup> 事. 第五十六條, 各里農作人의 當年에 耕<sup>호</sup>는 畓幾斗落과 田幾日耕과 火田幾息耕과 養<sup>호</sup>는 牛馬와 力作<sup>호</sup>는 人口와 該田畓主를 一一히 懸錄<sup>호</sup>되 田畓主를 奴名과 借名으로 冒錄<sup>호</sup>미 업<sup>호</sup>게 事. 第五

十七條, 內地와 島嶼荒蕪한 處에 民이 開拓함을 許하되 本衙門에 報하야 准可할 事. 第五十八條, 大路를 各里로 하여금 分掌하야 恪勤히 修築할 事. 第五十九條, 導水修梁함과 除草填塹함을 農時를 拘지 勿하고 隨現隨治하야 潦歲와 霖月이라도 往來하는 人이 跋涉하미 便케 할 事. 第六十條, 汙水를 道路에 濫瀉하지 勿할 事. 第六十一條, 津渡의 船을 時時檢査하야 힘써 堅固케 할 事. 第六十二條, 津渡舵工의 役價와 津船改造하는 費를 各里로 하여금 分排할 事. 第六十三條, 行載와 往來의 船價를 受치 勿할 事. 第六十四條, 舵工의 家屋을 津頭近地에 在하게 할 事. 第六十五條, 該邑內의 才德聰俊藝能이 有한 者를 卽時薦報할 事. 第六十六條, 各里에 在한 軍物과 銃刀、鉛丸、火藥을 一一히 收納하야 或遺漏함이 毋하게 하되 軍門職과 官砲手와 軍牢外에 掩置하는 者가 有하면 現하는 日로 重贖할 事. 第六十七條, 鴉片을 吸하며 鴉片을 賣하는 者를 嚴禁할 事. 第六十八條, 津浦의 民戶를 加役하지 勿할 事. 第六十九條, 官定式한 一切物種을 革罷할 事. 第七十條, 諸山の 産하는 山蔘、鹿茸等物種과 諸海의 産하는 珍珠、玳瑁等物種과 其地諸般珍寶의 物을 歇價로 勒奪치 勿할 事. 第七十一條, 場과 市에 官差使를 派하야 商賈에게 討索하지 勿하게 할 事. 第七十二條, 旅閣主人과 監考名色을 一切革罷할 事. 第七十三條, 還穀을 加耗擾作과 虛給하고 實捧함을 勿할 事. 第七十四條, 官長이 吏民의 賂를 受하며 上官과 勢家에 贈遺함을 一切 말을 事. 第七十五條, 宮府官衙와 公門巨家の 私立案과 私收稅는 並革罷하고 空荒한 地를 開墾할 時에 立案한 거슨 論치 말을 事. 第七十六條, 執卜하는 色吏의 加卜하고 移卜하는 弊를 一切禁斷할 事. 第七十七條, 風憲과 勸農의 加歛하며 隱役하는 弊를 一切禁斷할 事. 第七十八條, 諸般殖利하는 錢을 加利하며 重利하지 勿할 事. 第七十九條, 京邸吏와 營主人의 役價弊를 攄正할 事. 第八十條, 別卜別賃와 進上卜定을 邑에 徵하며 民에 徵하지 말을 事. 第八十一條, 作廳과 將廳의 楔房과 例送하는 弊와 差使의 例賃를 一切嚴禁할 事. 第八十二條, 不孝와 不弟와 淫姦의 罪名을 洞報가 有치 아니하거든 舉論치 말을 事. 第八十三條, 酗酒과 毆打를 各洞에 令하야 嚴禁할 事. 第八十四條, 近邑官吏의 不法과 貪虐하는 事를 一一히 查探하야 本衙大臣에 秘報할 事. 第八十五條, 各邑守令이 受由하야 上京하거든 本衙에 來現하고 還官할 時에 面辭할 事. 第八十六條, 明과 淸國을 尊崇하지 말고 我朝의 開國紀元이 定하얏스즉 諸般明文과 契書等項에 淸國年號를 記치 勿할 事. 第八十七條, 人民에게 日本이 我의 獨立自主를 助하는 形便을 曉諭할 事. 第八十八條, 作奸犯科하는 一切罪案을 힘써 照律嚴辦하야 紀綱을 立하고 風俗을 正할 事. 右八十八條를 各洞에 分給하야 吏民이 一體遵守하되 訓示에 違背하는 弊가 有하거든 本衙門에 來告할 事.】

내무아문(內務衙門)에서 각 도(道)에 훈시(訓示)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독립 기초를 세우며 모든 제도를 혁신한 날카로운 기세가 인민들과 함께 다시 시작해서 문명한 경지로 나가려고 본 대신(大臣)은 어리석고 무능한 것을 돌아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보지 않고 온갖 폐단을 제거하여 선비와 백성의 안녕과 행복을 바란다. 이에 조목별로 훈시 하니 각각 준수하고 어기지 말기를 바란다.

【제1조. 백성들을 대하는 도리로는 마음을 공정하게 써서 귀하고 친한 것과 친근하고 먼 것으로 털끝만치라도 차별을 두지 말 것.

제2조. 유임(儒任)과 향임(鄉任)을 차별이 없게 할 것.

제3조. 이임(里任)을 해당 동(洞)에서 동그라미를 쳐서 추천할 것.

제4조. 유임과 향임, 군문직(軍門職)에 대하여 공첩(空帖)과 차함(借銜)이 없게 할 것.

제5조. 좌수(座首)의 직책을 편벽되게 고을에서 세력이 큰 집에만 돌아가게 하지 말 것.

제6조. 높고 낮은 백성들이 관청 뜰에 꿇어앉거나 서는 절차와 민(民)이라고 부르거나 소인(小人)이라고 부르는 규례를 일체 스스로 편리한 대로 하게 하고 억지로 시행하지 말 것.

제7조. 관장(官長)이 서예(胥隸)를 대하고 주인이 품팔이군을 대하는 데서 순전히 포악하게만 굴지 말 것.

제8조. 도유사(都有司), 장의(掌議)와 모든 유학생(幼學生)들이 오로지 과거(科擧) 보는 여섯 가지 문체만을 익히게 하지 말 것.

제9조. 동학(東學)과 남학당(南學黨)의 명색(名色)을 특별히 금지할 것.

제10조. 인민들에게 우선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글을 가르칠 것.

제11조. 중앙과 지방에 드나들면서 거짓말을 선동하는 사람을 일체 단속할 것.

제12조. 빈궁한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법을 세울 것.

제13조. 내버린 아이를 반드시 법을 세워 기를 것.

제14조. 남녀가 독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으며 몸을 상하게 하는 것과 부녀자가 독약을 마시고 아이를 떨구는 일을 금지할 것.

제15조. 부귀(富貴)를 탐내어 자손의 신낭(腎囊)을 썩히고 베어내는 고약한 풍속을 일체 엄금할 것.

제16조. 과부(寡婦)를 위협하여 개가(改嫁) 시키는 것을 금할 것.

제17조. 음란한 죄를 범한 여자를 관비(官婢)로 박아넣지 말 것.

제18조. 16세가 되지 못한 여자는 기생(妓生) 명단에 올리지 말 것.

제19조. 남편이 아내에게 전적으로 포악하게 구는 것을 금할 것.

제20조. 어린 나이에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을 금지하되 기무처(機務處)의 제안에 의하여 남자는 20살, 여자는 16살에 혼인하는 것을 허락할 것.

제21조. 자손을 교육하되 전적으로 포악하게 구는 것을 금지할 것.

제22조. 인민들을 타일러서 병이 있으면 즉시 약을 먹고 무당(巫堂)이 방자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 것.

제23조. 토호(土豪)들의 무단(武斷)을 일체 엄금할 것.

제24조. 양반집 노비들이 행패질하는 것을 일체 엄금할 것.

제25조. 관아(官衙)의 명령 없이는 이민(吏民)을 불러오거나 잡아가지 말 것.

제26조. 백성이 군사 규율을 범하지 않았으면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에서 잡아가는 데 응하지 말 것.

제27조. 큰 죄가 아니면 장교와 나졸을 내보내지 말 것.



제28조. 좌상(坐商)이나 보부상(裸負商)을 일체 금지시킬 것.

제29조. 보부상이 부인을 빼앗거나 무덤을 파내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폐습을 일체 엄금할 것.

제30조. 보부상 등이 다른 장사하는 백성에게 부의(賻儀)를 억지로 빼앗는 폐단을 일체 엄금할 것.

제31조. 원전(原典)에 실려 있는 척량(尺量) 외의 무덤을 쓴 데 관한 산송(山訟)을 접수하지 말 것. 사패지(賜牌地)와 관청 문서, 개인 문서가 분명하면 산(山)주인의 허가 없이 장사지내는 것을 금할 것.

제32조. 전답(田畓) 가운데다 새로 장사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

제33조. 상금을 내걸고 관리와 백성들로 하여금 도적을 잡게 할 것.

제34조. 도적을 몰래 키워주는 포교(捕校)와 포졸(捕卒)을 일체 엄금할 것.

제35조. 와주(窩主)와 연주(煙主)를 도적의 우두머리로 다스릴 것.

제36조. 해당 동(洞)의 보증을 받은 후에야 음식점을 설치하도록 허락할 것.

제37조. 관리와 백성이 서로 접촉함에 있어서 백성들의 형편을 잘 살피어 이서(吏胥)들이 중간에서 농간질하는 일이 없게 할 것.

제38조. 사송(詞訟)하는 절차에서 형방(刑房)을 거치지 말고 관청 뜰에 가서 직접 신고할 것.

제39조. 관아(官衙)의 문단속을 해제하여 송사(訟事)하는 백성들이 복을 쳐서 억울한 사정을 하소하게 할 것.

제40조. 일체 조정의 명령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집행할 것.

제41조. 일체 조정의 명령을 즉시 각 리(里)와 동(洞) 중의 벽에 내걸 것.

제42조. 관청의 방문(榜文)을 벽에 내건 근처에는 사적인 통문(通文)과 사적인 방문(榜文)을 붙이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

제43조. 각 동리의 모든 백성들이 경영하는 산업(產業)과 공예(工藝)를 하나하나 조사하여 밝히고 놓고 먹는 간사한 백성을 법을 세워 금지시킬 것.

제44조. 무녀(巫女)와 난잡한 무리들을 일체 금지시킬 것.

제45조. 보부상 등과 같은 무리들이 향촌에서 먹을 것을 억지로 빼앗는 폐단을 일체 금지시킬 것.

제46조. 각 동의 이임(里任)과 두민(頭民)들에게 명령하여 잡기(雜技)를 엄금할 것.

제47조. 잡기(雜技)를 하는 곳에서 몰수한 돈은 고발한 사람과 붙잡으려 파견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표창한다.

제48조. 투전(鬪錢)이나 골패(骨牌)와 같은 잡기를 하는 곳의 해당 주인은 속죄금을 받아 엄격히 징계할 것.

제49조. 도로(道路)의 좌우에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것을 장려하고 집집마다 울타리 안과 빈 땅에 과일 나무며 뽕나무를 각별히 심도록 할 것.

제50조. 각 동리의 주산(主山)과 산의 원줄기, 물어귀와 제언(堤堰), 못 등에 큰 나무와 어린 나무는 산판(山板)의 주인이라도 찍지 말 것.

제51조. 각 동리에 현재 있는 호수와 인구를 일일이 사실대로 등록하고 누락시키는 일이 없게 할 것.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제52조. 노호(奴戶)를 주호(主戶)에 붙이지 말고 호(戶)를 갈라서 부역(賦役)을 지을 것.

제53조. 호역(戶役)의 등분(等分)을 여럿의 의견을 따라서 공정하게 할 것.

제54조. 유상(流商)과 유민(流民)들의 본적과 원거주지를 등록하고 머물러 있는 지 1개월이 지나면 해당 동에서 역(役)을 지을 것.

제55조. 고용한 품팔이군도 인구 대장에 올릴 것.

**제56조. 각 동리의 농사짓는 사람이 그 해에 부치는 논이 몇 마지기이고 밭이 몇 일경(日耕)이며 화전(火田)이 몇 식경(息耕)인가와 기르는 소와 말, 농사짓는 사람수와 해당 논밭의 주인을 일일이 대장에 올리되 논밭 주인을 종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속여 등록하는 일이 없게 할 것.**

제57조. 내륙 지대와 섬의 황무지를 백성들이 개간하도록 허락하되 본 아문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을 것.

제58조. 대로(大路)를 각 동리에서 나누어 맡아 가지고 각별히 수리하게 할 것.

제59조. 물길을 이끌고 다리를 수리하며 풀을 베고 구덩이를 메우는 일은 농사철에 구애됨이 없이 나타나는 대로 하도록 하며 장마지는 해와 장마달이라도 왕래하는 사람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데 편리하게 할 것.

제60조. 보수(洩水)가 도로에 마구 쏟아지지 않게 할 것.

제61조. 나룻배를 수시로 검사하여 힘껏 든든하게 할 것.

제62조. 나루터 배사공의 역가(役價)와 나룻배를 개조하는 비용을 각 동리에 분배할 것.

제63조. 사람이나 짐을 싣고 왕래하는 배값을 받지말 것.

제64조. 사공(沙工)의 집을 나루터 근처에 두게 할 것.

제65조. 해당 읍내의 재주와 덕행, 총명과 재능이 있는 자를 즉시 추천하여 보고할 것.

제66조. 각 동리에 있는 군수 물자와 총, 칼, 연환(鉛丸), 화약을 하나하나 거두어들이어 혹시라도 놓치는 일이 없게 하되 군문(軍門)의 벼슬아치, 관가의 포수(砲手), 군노(軍奴) 이외에 감추어두는 사람이 있으면 드러나는 대로 속죄금을 물릴 것.

제67조. 아편을 피우며 아편을 파는 것을 엄금할 것.

제68조. 나루와 포구의 민호에 역(役)을 더 지우지 말 것.

제69조. 관청에서 규정한 일체 물건의 종류를 없앨 것.

제70조. 여러 산들에서 나는 산삼과 녹용 등 물건과 여러 바다에서 나는 진주(珍珠), 대모(玳瑁) 등 물건, 그 밖의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을 헐값으로 억지로 빼앗지 말 것.

제71조. 장터와 저자에 관청 파견 관리를 보내어 장사치들에게서 억지로 빼앗지 말게 할 것.

제72조. 여각(旅閣) 주인과 감고(監考)의 명색을 일체 없앨 것.

제73조. 환곡(還穀)을 감모(減耗) 몫으로 덧붙이거나 다른 곡식과 바꾸며 거짓으로 주고 실지로 받아들이는 것을 못하게 할 것.

제74조. 관장(官長)이 이민(吏民)의 뇌물을 받으며 상관(上官)과 세력있는 집에 물건을 선사하는 것을 그만둘 것.

제75조. 대궐 관청과 벼슬하는 세력있는 집에서 사적으로 확인서를 떼거나 사적으로 세를 거두는 것을 죄다 없애 버리고 황폐된 빈 땅을 개간할 때 확인서를 때준 것은 따지지 말 것.

제76조. 조세를 매기는 색리(色吏)가 더 매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 매기는 폐단을 일체 금지할 것.

제77조. 풍헌(風憲)과 권농(勸農)이 더 거두어들이거나 역(役)을 숨기는 폐단을 일체 금지할 것.

제78조. 여러 가지 식리(殖利)하는 돈에 대하여 이자를 늘이거나 높이지 말 것.

제79조. 경저리(京邸吏)와 영주인(營主人)의 역가(役價)와 관련한 폐단을 바로잡을 것.

제80조. 별복정(別卜定)이나 별무(別貿), 진상 복정(進上卜定)은 고을에서 거두고, 백성들에게서 거두지 말 것.

제81조. 질청(作廳)과 장청(將廳)의 서리에게 뇌물을 주는 것과 으레 보내 주는 폐단, 차사(差使)가 으레 주는 돈을 일체 엄금할 것.

제82조. 부모에게 효성스럽지 못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없으며 간음하는 죄는 동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논의하지 말 것.

제83조. 술주정을 부리고 구타하는 것을 각 동리에 명령하여 엄격히 금할 것.

제84조. 이웃 고을 관리들의 비법 행위와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실을 일일이 조사하고 탐지하여 본 아문의 대신(大臣)에게 비밀리에 보고할 것.

제85조. 각 수령(守令)이 말미를 받고 상경(上京)하면 본 아문에 와서 만나보며 고을로 돌아갈 때는 만나서 하직할 것.

제86조. 명(明)나라와 청(淸)나라를 떠받들지 말고 우리나라의 개국 원년(開國元年)이 정해진 만큼 제반 문서와 계약서 등에 청나라 연호(年號)를 쓰지 말 것.

제87조. 백성들에게 일본이 우리의 자주 독립을 도와 주는 형편을 깨우쳐 줄 것.

제88조. 간사한 짓을 하며 법을 어기는 일체 죄목을 힘써 법조문에 비추어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잡을 것.

이상의 88개 조항을 각 동에 나누어 주어 이민(吏民)들이 똑같이 준수하되 훈시(訓示)와 어긋나는 폐단이 있으면 본 아문에 와서 신고할 것】 ”

## ▶ 38권 35년 12월 9일 (陽曆)

前參書官安泰遠疏略:

“夫所謂民會者，各國規例，臣固未知。而古昔聖王之治天下也，或詢諸芻蕘，或采其風謠，街談巷議，亦不之禁。要使下情得而上達，而上之人樂聞其過，有則改之，無則勉之已矣。曷嘗有督迫脅持大臣，潛移威福之柄，如今所謂民會者哉？駭凜之舉，危怖之機，今不能一一枚舉，而就論其最著者。始則搖頭轉目，相與聚談，其漸涓涓不絕，終焉撐眉攘臂，公肆呼嘯，其勢浩浩莫遏。甚至喧聒禁門，開會通衢，前喁後于，千百爲群，商民、游女、僧尼、屠坦，雜遝環擁。藉爲聲勢，各社新聞，外國譯報，譸張街幻，顯示譏訕。末乃條定規制，脅請奏可，有若強隣劇敵，以力要盟者然。此誠亘萬古所未有之變也。凡今日腰紳垂笏，北面而立於陛下之廷者，苟有一半分秉彝之性，則宜其明目張膽沫血飲泣，而顧乃坐云則坐，立云則立，曰進則進，曰退則退，相率赴會，惟言是從，署名書可，如恐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不及。是重民人脅上之論，重於重君上御下之令也。或發通緝紳，聚集如市，或派定任名，盤結爲黨，畢竟打成一片，回賓爲主，名之曰‘官民共同會’。問其題，則忠君愛國；問其事，則直言極諫。夫忠君愛國，直言極諫，是人臣所以藉手事君之職分內事耳。今日有一闕焉，則今日直言極諫，而補其闕，然後是可謂忠君愛國也。明日有一失焉，則明日直言極諫，而掇其失，然後始可謂忠君愛國也。自陛下臨御以後，朝夕左右，出入邇密，居輔導言議之任者，顧非此輩耶？今日有一闕，而未聞有直言極諫而補之者。明日有一失，而未聞有直言極諫而掇之者。馴至三十五年之間，禍變層生，凶逆踵出，民志靡定，橫議沸騰之後，始敢揚揚于于，胥煽以訛，隱然自占於忠君愛國直言極諫之名，使主勢孤立、民情滋騷。是其心眞箇出於斷斷無他乎？藉曰往固莫追，來猶可及。今欲匡救闕失，以贖前日容容噤默之罪，則何不各陳所見、各達所懷，如推車子之相與踰險，而今乃聚召成黨，先示其不可勝誅之勢，又何也？嗚呼！噫嘻！君猶舟也，民猶水也。有位者，顧非任梢工之責者耶？今夫水有卒然風濤之險、湍瀨之急，則操柁順流，使夫舟得以利涉，始可謂副手也。此輩則不惟不能順流，乃反激水之性，揚波助瀾而曰：‘吾將使水載舟，而不覆舟也。’將誰欺？欺天乎？此輩亦嘗出而爲方面郡縣之官者也。試以方面郡縣言之，官或有拂民之情，而民或相與怨咨，喧擾於官門之前，爲吏胥卒隸之屬者，不思所以綏戢之道，相驅而入於民黨之中，而乃於時移事往之後，怏然若無事，恬然無愧色曰：‘致今日之事者，非我也，官也’，爲官者，其心將何如也？此輩不幸而遭此，則將以吏胥卒隸之屬，謂忠我也、愛我也，置之勿問乎？以此推之，則自非冥頑至愚者，亦可以仰揣聖上今日之心，而猶復如此，何也？古語曰：‘鄙夫不可與事君’，言患得患失而無所不爲也。不知義理，惟利是趨，權在於宗室戚里，則附宗室戚里，權在於宦官、宮妾，則結宦官、宮妾。甚則權在外國，而通外國者有之，權在寇敵，而連寇敵者有之。歷稽往牒，何代無之？而比年以來，喜新驚遠之輩，捨我良法美規，樂彼奇技巧藝，上而蠱惑君心，下而眩亂民志，欲用他國民主共和之俗，一變我邦君主專制之規，卒之有甲午、乙未之變。則於是乎君權、民權之名，雖未嘗顯然而著，而君權、民權之實，隱然分而爲岐，迭相進退。則今日此輩，得非以權在民故趨於民，如右之患得患失者，附戚里、結宦官、通外國、連寇敵者之爲乎？所謂民者，舉天下而言也。假如一郡萬人而拔衆人所推服無異辭者一二焉，一省百萬而拔衆人所推服者一二百焉，咸聚京師，使之會議朝政，則亦不害爲詢芻採謠之一助，而今所謂民會者則不然。職不過街巷市井之子，或浸染於外國之教，或出入乎權貴之門者，相聚爲黨。以此而藉重曰：‘民手足也，民赤子也。’雖人君，無如民何？遂使手足有癱疽之患而不能潰決之，赤子化龍蛇之頑而不敢驅放之，則過此以往，安知無大奸巨慝，或雇以重貨，啗以厚利，或怵之威，或結之恩，聚爲黨伍，潛移威福者乎？伏願陛下廓然澄省，以新一世之耳目，使天下曉然知聖心之大公至正。彼所陳六條，未始不切中時弊，竝令政府一一亟施。內之各部，外之各省，事有所當行，弊有所當祛，竝令舉而行之、矯而祛之。緝紳中位高地密，而冒禁赴會，貽辱朝廷者，民會中瞽不知畏，煽惑衆情者，雖不能一一鋤治，以快人心，至其姓名著而情跡露，肆然無憚，自歸於要君之科者，此誠犯分干紀，在法罔赦。竝令警廳緝捕、法部懲辦，施以當律焉。”

批曰：“爾言非不好矣.”

전 참서관(參書官) 안태원(安泰遠)이 글을 올렸는데 그 요지는 이러하였다.

“대체로 이른바 민회(民會)에 대한 각국의 규례에 대해서 신은 물론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훌륭한 임금들은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풀베는 아이나 나뭇군에게 묻기도 하고 풍속을 담은 노래에서 채용하기도 하였으며 향간의 의견 역시 금지하지 않았는데 요는 아래의 실정이 위에 전달되도록 하며 위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즐겨 듣고서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더 힘쓰도록 했을 뿐입니다. 어찌 일찍이 이른바 오늘의 민회(民會)와 같이 대신을 협박하고 위협하여 위엄을 보이고 복을 주고 하는 권한을 몰래 움기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놀랍고 무서운 일과 위태롭고 두려운 기미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가장 드러난 것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를 흔들고 눈알을 굴면서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였는데 그런 일이 차츰 계속 되다가 나중에는 눈썹을 곤두세우고 소매를 걷어 올리고는 공공연히 고함을 지르게 되었는데 그 형세는 점차 확대되어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대궐문에서 떠들어대고 네거리에서 모임을 가지며 앞뒤에서 서로 소리로 회답하면서 수 백, 수천 명이 무리를 지었는데 장사치, 논다니, 중, 백성들이 왁자지껄 모여들어 빙 둘러쌌습니다.** 명성과 위세를 돋우는 데 핑계대고 각 사(社)의 신문(新聞)과 외국의 보도에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선전하여 드러내놓고 비방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곧 조목별로 규제를 제정하고 보고하여 승인할 것을 위협하여 청하는데 마치 강한 이웃 나라의 사나운 적이 힘으로 맹약을 요구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만고에 있어보지 못한 변고입니다.

대체로 오늘 관리들이 홀을 드리우고 북쪽을 향해서 폐하의 조정에 선 사람들이 만일 조급이라도 타고난 뿔뿔한 도리를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깜짝 놀라서 피로 얼굴을 씻고 눈물을 흘려야 하겠는데 도리어 앉으라면 앉고 서라고 하면 서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서 회에 쫓아가 말하는 대로 따르며 서명을 하여 가하다고 쓰는데 마치 요구에 미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임금을 위협하는 논의를 임금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시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관리들에게 통문을 돌려 장군같이 모이게 하여 혹은 갈래를 정하고 이름을 맡겨 서로 엉키어 패거리를 못하고 마침내는 한 덩어리로 되고 돌아가며 서로 주인이 된다고 하여 이름지어 이를, ‘관민 공동회(官民共同會)’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며 하는 일이 무엇인가고 물어보면 바른 말로 극력 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바른 말로 극력 간하는 이것은 신하들이 지니고 임금을 섬기는 직분내에 속하는 일일 뿐입니다.

오늘 한 가지 부족점이 있으면 오늘 바른 말로 극력 간하여 그 부족점을 보충한 후에야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다음 날에 한 가지 잘못이 있으면 다음 날 바른 말로 극력 간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은 후에야 비로소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폐하가 왕위에 오른 이후부터 늘 곁에 있고 가까이에서 드나들면서 돕고 이끌어주고 바른 말을 올리는 책임을 맡고 있는 자가 어찌 이 무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가지 부족점이 있어도 바른 말로 극력 간하여 도와주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다음 날 한 가지 잘못이 있었으나 바른 말로 극력 간하여 바로잡았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럭저럭 35년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화와 변고는 자주 일어나고 흉악한 역적이 잇달아 일어나서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부당한 논의들이 물끓듯 일어났습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감히 뜻을 이루었다는 듯 꺼떡대면서 저마다 거짓말을 내돌리고 은연중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바른 말로 극력 간한다는 이름을 스스로 차지하고는 임금의 형세가 고립되도록 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더욱 소란하도록 했으니 그들의 마음이 진짜로 탄 마음이 없는 확고한 한 가지 신념에서 나왔다고 하겠습니까.

지나간 일은 물론 뒤쫓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닥쳐오는 일에 대해서는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주고 도와주어 전날에 세상 돌아가는 대로 따라가고 침묵을 지킨 죄를 속죄하려고 한다면 왜 각각 자기 소견을 진술하고 속에 품어오던 생각을 말하기를 마치 수레를 미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험한 데를 넘어서는 것과 같이 하지 못하고 오늘 바로 패거리를 불러서 무리를 지어 죽일 수 없다는 위세를 먼저 보인다는 것은 또 무엇 때문입니까.

아, 슬픔입니다.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습니다. 해당한 위치에 있는 자들은 뱃사공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물이 갑자기 풍랑을 일으킬 위험에 부닥치고 여울물의 급함을 만난다면 키를 잡고 물살을 쫓아 배로 하여금 무사히 가도록 해야만 조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물살을 쫓아 흐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물살을 거슬러 물결을 일으키면서도 내가 장차 물위에 배를 띄워가며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니 앞으로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하늘을 속이겠습니까.

이 무리들 역시 일찍이 지방에 나가서 관찰사(觀察使)나 수령(守令) 노릇을 한 자들입니다. 시험 삼아 관찰사나 수령의 경우를 두고 말한다면 수령이 백성들의 마음을 거슬러서 백성들이 혹은 사로 원망을 품고 관청문 앞에서 떠들썩하여 소요를 일으키는데 아전(衙前)들은 그것을 안정시켜 제지할 방도는 생각하지 않고 서로 백성의 패거리들 속으로 몰고들어 갔다가 세월이 가고 일이 지나간 후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고 뻔뻔스럽게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말하기를, ‘오늘날의 일을 초래케 한 것은 내가 아니고 수령이다.’라고 한다면, 수령으로 된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무리들이 불행하게도 이런 경우를 만난다면 아전불이들을 나에게 충실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버려두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미루어 생각한다면 원래가 미욱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면 역시 폐하의 오늘의 마음을 우러러 헤아릴 수 있을 것인데도 다시 이와 같이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옛글에 이르기를, ‘용렬한 사나이는 그와 더불어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벼슬을 못하면 벼슬을 얻지 못해서 근심하고 벼슬을 얻은 뒤에는 벼슬을 잃을까봐 근심하면서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의리를 모르고 오직 잇속만을 바라서, 권력이 임금의 집안과 임금의 외척에게 있을 때는 임금의 집안이나 외척에게 가 붙고, 권력이 내시(內侍)나 궁인(宮人)에게 있으면 내시와 궁인과 결탁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권력이 외국에 있으면 외국과 통하는 자가 있으며, 권력이 외척에게 있으면 외척과 연계를 맺는 자가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죽 상고해 볼 때 어느 시대엔들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만 근년에 와서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먼 데 것을 따르는 무리들은 우리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규례는 버리고 저 신기한 기술과 교묘한 재주를 좋아해서, 위로는 임금의 마음을 외혹시키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뜻을 현란하게 해서 다른 나라의 민주와 공화의 풍속을 채용하며 우리나라의 군주 전제법을 일체 고치려고 해서 마침내는 갑오년(甲午年)과 을미년(乙未年)의 변칙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의 권력과 백성의 권리란 명칭에 대해서는 비록 현저히 드러내지 않았지만 임금의 권력과 백성들의 권리는 사실 은연중에 나누어져 두 갈래로 되어 서로 엇바꾸어서 나오고 물러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무리들은 권력이 백성들에게 있다고 보아 백성들을 쫓아가기를 마치 옛날에 벼슬을 못하면 벼슬을 얻지 못해서 근심하고 벼슬을 얻은 뒤에는 벼슬을 잃을까봐 근심하는 자들이 임금의 친척에게 붙고 내시와 결탁하여 다른 나라와 통하고 외척과 연계를 맺는 자들과 같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백성이란 온 천하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한 고을의 인구가 1만명이라고 하면 백성들이 따라 복종하면서 다른 말이 없는 사람 1, 2명을 뽑고 한 개 도의 인구가 100만명이라고 하면 못사람들이 따라 복종하는 사람 100명, 200명을 뽑아서 모두 수도에 모여 모임을 가지게 하여 조정의 정사를 의논하게 한다면 그것은 역시 나뭇군에게 묻고 풍속을 담은 노래에서 채용하는 방도에 하나의 도움을 주는 일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민회(民會)란 그렇지 않습니다. 민회에 속한 성원은 저자 거리의 장사치의 자식들에 지나지 않는데 더러는 외국의 종교에 젖고 더러는 권세있는 자들의 집에 드나드는 자들로서 서로 모여 패거리를 모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성은 팔과 다리라느니 백성은 자식이라느니 하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임금이라도 백성들이 없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과 발로 하여금 종치가 있어도 뜯어내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이 우악스러운 용과 뱀과 같이 되어버리는데도 감히 몰아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없이 간특한 자들이 더러는 많은 재물에 팔려 후한 잇속을 얻어먹게 되고 더러는 위엄에 겁을 먹고 더러는 은혜로 결탁되어 가지고 서로들 모여들어 패거리가 모아져서 슬그머니 표창과 형벌의 권한이 그들의 손에 옮겨지는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는 시원스레 잘 살피서 한 세상의 견해를 새롭게 하여 온 천하로 하여금 폐하의 마음이 지극히 공정하다는 것을 환히 알게 하며 저 진술한 바의 6개 조항은 현재의 폐단에 맞지 않는 것이 없는 만큼 모두 다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하나하나 빨리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되 안으로는 각 부서들과 밖으로는 각 도들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과 마땅히 제거해야 할 폐단들을 모두 다 들어서 시행하며 바로잡고 제거해 버리도록 할 것입니다.

관리들 가운데서 지위가 높고 가까이 있으면서 금지된 것을 무릅쓰고 민회(民會)에 나가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서 조정을 욕되게 한 자들과 민회중에서 전혀 두려움을 모르고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의혹을 품게 한 자들을 비록 하나하나 김 매듯이 다스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줄 수는 없지만, 이름이 드러나고 그 사실이 탄로되어 내놓고 거리낌없이 굴면서 세력을 믿고 임금을 강박한 죄에 저절로 귀결되는 자는 진실로 분수를 어기고 기율에 저촉되는 것인 만큼 법에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다 경무청(警務廳)으로 하여금 잡도록 하고 법부(法部)에서 처벌하여 해당한 법조문을 적용할 것입니다.”

비답을 내리기를, “네가 한 말은 물론 나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 ▶ 39권 36년 4월 22일(陽曆)

二十二日. 召見全州、三陟奉審宰臣. 【特進官李載崐、特進官李重夏】 辭陞也. 上曰: “此是列聖朝未遑之事, 而其在繼述之道, 今行設壇豎碑, 奉審地形之際, 宜其十分審慎矣.” 載崐曰: “壇所當設於塋域, 疑似處階下. 而若值地形不便, 則或左右近處, 隨宜建築, 長廣隨地形, 而高則以幾尺磨鍊乎?” 上曰: “我國各處壇所, 竝幾尺高乎?” 載崐曰: “臣未敢詳知, 而社稷壇高爲五尺餘, 外各壇二尺七寸內外也.” 上曰: “壇高以三尺爲準, 相其地形, 隨宜建築也.” 載崐曰: “臣聞正宗朝, 以封山守護節目, 成置該府東西南北各三千三百餘步云. 臣到該府, 卽當搜考. 而若爲奸猾輩掩諱滅跡, 則勢將依山形, 新定尺步, 未知以幾步尺定界乎?” 上曰: “依正廟朝守護節目舉行, 而聞度支地尺, 只有一箇, 方勅造數箇, 卽當內下矣, 以此定步也.” 載崐曰: “偷塚堀移, 該道臣似已舉行矣. 臣聞正宗朝, 有以偷塚事大懲創, 而年久幾塚, 特許安徐, 故塚主輩或藉此呼訴. 又或無主, 無以督掘云, 竝當如何處之乎?” 上曰: “偷塚似已督掘, 而事勢不可仍置也.” 載崐曰: “年久而無主者, 事勢實難督掘矣.” 上曰: “擇一空地, 移葬亦無妨. 與觀察使相議, 量宜爲之也.” 載崐曰: “封山守護, 聖意若是慎重, 當另飭於該道臣矣.” 仍奏曰: “守奉官祿俸, 依法頒給, 壇直山直輩廩餼, 以冒耕田畝, 執數量排. 至於守奉官入直時支供之節, 更無變通之策, 未知從何取用乎?” 上曰: “壇直山直料布, 入直官支供, 冒耕田畝中打量, 而不足之數. 湖南所在宗正院屯土中, 與道臣爛商措處也.” 仍教曰: “湖南宗正院屯土, 有幾處乎?” 載崐曰: “淳昌地有宗正院蒙賜屯土, 而陞總後屯民, 拒納賭祖矣. 以此劃付, 令該道臣查實措處, 恐無妨矣.” 上曰: “以此爲之可也. 且三陟事文獻不足, 待卿奉審, 而還可以議定, 而奉審之際, 博考古籍, 審視四山, 務盡詳慎也.” 重夏曰: “事係莫重, 謹當詳細奉審矣.” 仍奏曰: “蘆洞、東山兩處禁養界限, 年久不明, 以致居民之犯葬. 今奉勅命, 將定四山界限, 而步數當幾何爲定乎?” 上曰: “依乾止山例, 定步數禁養爲宜, 而隨其地勢山形, 量宜定界也.” 重夏曰: “定界後禁限內犯葬者, 當一一掘去, 稍遠年久之塚及無主者, 則何以爲之乎?” 上曰: “犯葬者雖稍遠處, 何可仍置也?” 重夏曰: “無主古塚, 掘移亦甚難便矣.” 上曰: “須詳探後隨宜善處也.” 重夏曰: “謹見邑誌, 則舊有守護軍八名. 給復一結, 而此亦年久廢止云矣. 今於特命奉審之後, 守護之節, 宜加敬慎, 守



護軍與給卜之節，何以爲之乎?” 上曰：“諸般守護之節，待復命當有議定矣。” 重夏曰：“伏聞山下居宗姓人等，未知自何年爲始，而建齋舍歲一祀云。莫重之地，有此私設，事甚驚悚。奉審後措處，實係難便矣。” 上曰：“私設驚悚極矣，奉審後詳探以來也。” 重夏曰：“奉審後宜有登聞，而新式後無狀啓，則當以書奏爲之乎?” 上曰：“以書奏爲之也。” 上曰：“肇慶壇設壇後，當有歲一祀之禮乎?” 載崐曰：“今番告由祭，似當行事於肇慶壇，而設壇後宜有歲一祀之禮矣。” 上曰：“然則典祀廳一體營建可也。” 載崐曰：“當以此分付於該監董矣。” 上曰：“三陟府奉安犀帶奉審後，帶匣如有壞傷處，卽爲修改，復命時登聞也。” 重夏曰：“謹當依下教爲之矣。” 上曰：“所經各邑，以今奉審宰臣下去事，有所知委耶?” 重夏曰：“似別無知委矣。” 上曰：“新式以後，外邑全無奉命接應之節，況今遐方人心，必視之以凡常行人矣。令宮內府各別措辭訓勅各邑也。” 載崐曰：“謹當筵退後，傳諭於宮內府矣。” 上曰：“奉使之印，令秘書院覓來帶往也。”

전주(全州)와 삼척(三陟)의 능을 돌아보고 올 재상【특진관(特進官) 이재곤(李載), 특진관 이중하(李重夏)】 들을 불러서 만나보았다. 하직 인사를 하였던 것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선대의 여러 임금들이 미처 하지 못한 일인데 선대의 일을 계승하는 도리로 놓고 보아 이번 제단을 설치하고 비를 세우며 지형을 돌아볼 때 응당 심분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니 이재곤(李載崐)이 말하기를, “제단은 무덤 구역에 설치해야 하겠는데 섬돌 아래에 놓일 것 같습니다. 만약 지형상 불편한 경우에는 좌우 근처의 합당한 곳에 건축하고 길이와 너비도 지형에 따라 해야 할 것인데 그 높이는 몇 자 정도로 마련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각 곳에 있는 제단은 모두 몇 자 높이로 되었는가?”라고 하니 이재곤(李載崐)이 말하기를, “신은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지만 사직단(社稷壇)의 높이는 5척(尺)이고 기타 각 제단은 2척 7촌(寸) 안팎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단의 높이는 3척을 기준으로 하고 그 지형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할 것이다.”라고 하니 이재곤(李載崐)이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정종(正宗) 때 나라에서 무덤 구역을 지키며 보호하는 세척을 만들어 해당 부에 두었는데 동, 서, 남, 북이 각각 3,300여 보(步)라고 합니다. 신이 해당 부(部)에 가서 곧 찾아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간사한 무리들이 흔적을 없애버렸다면 형편상 산세를 따라 새로 거리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만한 거리로 경계를 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종(正宗) 때의 무덤 구역을 지키며 보호하는 세척대로 집행할 것이다. 그런데 듣자니 탁지부(度支部)에 땅을 재는 자가 한 개 뿐이라고 하여 방금 몇 개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금방 내려 보내게 될 것이니 이것으로 거리를 정할 것이다.”라고 하니 이재곤(李載崐)이 말하기를, “불법으로 쓴 무덤을 파 옮기는 것은 해당 도의 관찰사(觀察使)가 이미 거행하였을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정종(正宗) 때 불법으로 무덤을 쓴 데 대해서 크게 징벌하였으나 세월이 오랜 몇 개 무덤은 특별히 놔두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덤 주인들이 이에 빙자하여 신소하기도 하고 또 무덤 주인이 없어서 파가라고 독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모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불법으로 쓴 무덤은 이미 독촉해서 파내간 것 같으니 형편상 그대로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하니 이재곤(李載崐)이 말하기를, “세월이 오래되어 무덤 주인이 없는 것은 형편상 파가라고 독촉하기 곤란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지를 선택하여 옮겨 묻어도 무방할 것이다. 관찰사와 의논하여 적당히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니 이재곤(李載崐)이 말하기를, “무덤 구역을 지키고 보호할 데 대한 폐하의 뜻이 이와 같이 신중하니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특별히 신칙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제의하기를, “수봉관(守奉官)의 녹봉은 규정대로 나누어주고 제단지기, 산지기의 요미(料米)는 비법적으로 경작한 논과 밭에서 난 수량을 가지고 적당히 배정할 것입니다. 수봉관(守奉官)이 당직을 설 때의 공급에 대해서는 더 변통할 방법이 없으므로 어디서 가져다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단지기, 산지기의 요미와 베[布], 당직을 서는 관리의 봉급은 불법적으로 경작한 논과 밭에서 나오는 양을 가지고 타산하고 부족되는 수량은 호남(湖南)에 있는 종정원(宗正院)의 둔토(屯土)에서 나는 양을 가지고 관찰사와 잘 의논하여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지시하기를, “호남(湖南)에 있는 종정원(宗正院)의 둔토(屯土)는 몇 곳에 있는가?”라고 하니 이재곤(李載崐)이 말하기를, “순창(淳昌) 지방에 종정원에서 받은 둔토가 있는데 원 토지대장에 올린 후 둔민(屯民)들은 도조(賭租)의 납부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떼주도록 해당 관찰사가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삼척(三陟)의 문제는 문헌이 부족하니 경이 능(陵)을 돌아보고 돌아온 다음에 의논하여 정할 것이다. 그런데 돌아볼 때 옛날 문적들을 널리 상고하고 네 먼의 산을 살펴보면서 되도록 자세하고 신중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니 이중하(李重夏)가 말하기를, “일이 더없이 중하고 신중히 대해야 하는 만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제의하기를, “노동(蘆洞)과 동산(東山) 두 곳의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한 금지 구역계선이 세월이 오래여 명백하지 않으므로 거기서 사는 백성들이 불법적으로 막 무덤을 쓰는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이번에 지시를 받들고 주위의 산에 경계를 정하겠는데 거리는 얼마로 정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건지산(乾止山)의 규례대로 보수(步數)를 정하고 단속하면서 나무를 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니 그 지세와 산세에 따라서 적당히 계선을 정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중하(李重夏)가 말하기를, “계선(界線)을 정한 후 금지 구역 안에 불법적으로 무덤을 쓴 것은 일일이 파내야 하겠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오래된 무덤과 주인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불법적으로 쓴 무덤에 대해 설사 조금 먼 곳에 있다고 해서 어떻게 그대로 둘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중하(李重夏)가 말하기를, “주인 없는 오랜 무덤을 파웁기는 것은 역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드시 자세히 살핀 후 좋을 대로 잘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중하(李重夏)가 말하기를, “삼가 『읍지(邑誌)』를 보니 옛날에는 수호군(守護軍) 8명을 두고 토지 1결을 주었는데 이것도 세월이 오래되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 지시를 받고 돌아본 후 지키며 보호하는 일을 더욱 공경스럽고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키

며 보호하는 사람과 토지를 떼주는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반 지키며 보호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녀온 보고를 한 다음에 의논하여 정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중하(李重夏)가 말하기를, “삼가 듣건대 산 아래에 사는 임금의 일가 성(姓)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해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재사(齋舍)를 세우고 해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더없이 중한 곳에 이렇게 사적으로 세우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돌아본 후에 처리하는 문제는 사실 곤란한 일입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적으로 세운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돌아본 후 자세히 알아보고 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중하(李重夏)가 말하기를, “돌아본 후 마땅히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새 규정이 나온 후에는 장계(狀啓)를 올리는 제도가 없으니 서면으로 보고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면으로 보고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경묘(肇慶廟)에 제단을 설치한 다음 해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라고 하니 이재곤(李載崐)이 말하기를, “이번에 고유제(告由祭)는 조경묘에서 지내야 할 것 같으며 제단을 설치한 뒤에는 한 해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전사청(典祀廳)을 함께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니 이재곤(李載崐)이 말하기를, “이런 내용을 공사 감독관에게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삼척부(三陟府)에 보관한 무소 뿔띠를 돌아본 뒤에 띠를 넣는 갑에 만일 못쓰게 된 곳이 있으면 곧 수리하고 다녀온 보고를 할 때 보고할 것이다.”**라고 하니 이중하(李重夏)가 말하기를, “삼가 지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나가는 각 고을들에 이번에 무덤을 돌아보는 재상들이 내려간다는 것을 통지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니 이중하(李重夏)가 말하기를, “별로 통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새 규정이 나온 후 지방 고을에서는 지시를 받들고 나가는 관리들을 접대하는 일이 전혀 없다. 더구나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반 행인으로 볼 것이다. 궁내부(宮內府)에서 각별히 글을 만들어 고을에 신칙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니 이재곤(李載崐)이 말하기를, “삼가 접견 석상에서 물러간 다음 궁내부(宮內府)에 전달해 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시를 받고 나가는 관리의 인장은 비서원(書院)에서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 39권 36년 5월 24일(陽曆)

二十四日. 召見奉審宰臣李重夏. 三陟墓所奉審後入來也. 上曰: “見卿之書奏與古事抄, 甚爲消詳, 有可以領略者矣. 世宗丁卯, 始築墳墓, 而成宗庚戌, 修築封域, 旋命停役. 雖未知其所以然, 而蓋愼之也. 宣祖庚辰監司鄭澈之啓, 顯宗壬寅府使許穆之記, 豈無所考而然乎? 此在今日, 可謂確據也.” 重夏曰: “三陟兩墓所, 粵在太祖朝, 則未詳所在, 果有失傳之歎. 此必龍興之鄉, 在北方絕遠之地故也. 至于世宗朝, 始遣臣訪問, 尋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得兩墓所. 故成宗朝乃有封築之命, 始役而旋停. 其時事由, 雖未敢仰揣, 而伊時監司臣鄭澈所啓, 府使臣許穆所記, 則證確辦明, 未有可疑, 而中間希覬之輩, 妄指黃池, 造言眩惑, 以後修墓之議亦停矣. 第以列聖朝未遑之典言之, 實由十分慎重之意, 而以文獻之可考言之, 既有『輿覽』、邑誌之所載, 且『璿源譜略』, 卽肅廟朝始纂也. 而亦有所揭載, 則國朝文獻之所重, 豈有加於此乎?” 上曰: “山圖及坐向, 與故相臣鄭澈所啓無異. 到今事體, 不可但以守護而已也.” 重夏曰: “皇上追遠之誠, 臣不勝萬萬欽頌, 而修築之節, 惟在聖裁矣.” 上曰: “乾止山形址未分明, 所以設壇, 而三陟則文獻所在, 無可疑者矣. 豎碑置官, 依全州例爲之. 塋域封築, 敬依北寢儀行之, 而典祀廳齋舍, 將新建, 而碑石與瓦材, 可以求用於近處耶?” 重夏曰: “墓所局內, 多有連抱之木, 若以新材瓦創建, 則可以取用. 若以所重之地, 不必斫用, 則三陟之府, 多有舊廡之廢止者, 瓦與材可以搬用, 而碑石材則近處十里, 有可採處云矣.” 上曰: “府舍所奉紅犀帶何如耶?” 重夏曰: “奉安于雲漢閣, 而自古敬奉守護, 而年久渝弊, 制樣亦古朴矣.” 上曰: “或有蠹損乎?” 重夏曰: “年代既久, 略有蠹損, 以重櫃奉安, 而櫃上有英廟朝序文矣.” 上曰: “活著洞石垣形址之至今尙存, 亦稀貴之事也. 當依湧珠里古事, 立碑記實. 而此洞在兩墓所之間, 道里既均, 若建齋舍於此, 則垓字內守護之節, 似便好矣.” 重夏曰: “然矣.” 上曰: “石垣形止何如?” 重夏曰: “雜石積於東南邊五六間假量, 而是謂舊垣形址矣.” 上曰: “石垣前地形何如?” 重夏曰: “今爲麥畝, 而絕峽中此地最寬平, 而自古謂之王垓云矣.” 上曰: “其中無人家乎?” 重夏曰: “以穆祖舊基, 故居民不敢築室於此矣.” 上曰: “宗姓人常歲一設享云, 祝式何以措辭云乎?” 重夏曰: “臣取見其祝文, 則以當日參祀人, 隨其行列, 稱以幾代孫某, 敢昭告于幾代祖將軍公之墓云矣.” 上曰: “當初何以辦乾坤位乎?” 重夏曰: “此是分載於『璿譜』, 而『璿譜』始纂之時, 似必取考『輿覽』、邑誌矣.” 上曰: “自今以後, 國家當設行歲祭矣.” 重夏曰: “惟在聖裁矣.” 上曰: “『羹牆錄』, 亦有三陟事乎?” 重夏曰: “臣未得詳記矣. 正廟朝『關東賓輿錄』中御製策題中, 有耒耜之桑麻舊陌粉榆之物色, 以此見之, 正廟朝聖意, 亦以此地, 比之於漢之粉榆矣.”

돌아보고 온 재상 이중하(李重夏)를 불러서 만나보았다. 삼척(三陟)에 있는 무덤을 돌아본 후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서면 보고와 옛날의 일을 뽑은 것을 보았는데 매우 자세하여 대체로 이해가 간다. 세종(世宗) 정묘년(丁卯年)에 처음으로 무덤을 쌓았으며 성종(成宗) 경술년(庚戌年)에 수리하고 무덤 구역을 정하였으며 조금 있다가 공사를 중지시켰다. 비록 그 원인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신중히 하자는 것이었을 것이다. 선조(宣祖) 경진년(庚辰年)에 감사(監司) 정철(鄭澈)의 제의와 현종(顯宗) 임인년(壬寅年)에 부사(府使) 허목(許穆)이 기록은 어찌 상고한 것이 없이 그렇게 하였겠는가? 이것은 오늘에 와서 확실한 근거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중하(李重夏)가 말하였다.

“삼척(三陟)의 두 무덤에 대하여 멀리 태조(太祖) 때에는 그것이 있는 것을 잘 몰랐으니 과연 전해오지 못한 한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태조가 일어난 북쪽 고향에서 매우

먼 지방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종(世宗) 때 이르러 비로소 신하를 파견하여 수소문하여 두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종(成宗) 때에 봉분을 할 데 대한 지시가 있었고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조금 지나서 중지하였습니다. 그 때 사연에 대해서는 감히 짐작할 수 없지만 이 때의 감사(監司) 정철(鄭澈)의 보고와 부사(府使) 허목(許穆)의 기록은 증거가 명백히 판명되는 만큼 의심할 것이 없는 데 중간에서 잇속을 노리는 무리들이 황지(黃池)가 요언(妖言)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망탕 지적한 후에 무덤을 수리할 데 대한 의논도 중지되었습니다.

다만 선대 임금들이 미처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말한다면 사실 매우 심중히 하자는 뜻이었으며, 사고할 수 있는 문헌을 놓고 말한다면 이미 『여지승람(輿地勝覽)』과 『읍지(邑誌)』에 실려 있고, 그리고 『선원보략(璿源譜略)』은 바로 숙종(肅宗) 때 편찬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거기에도 기재되어 있으니 우리 왕조 문헌의 소중함이 어찌 이르 능가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묘자리의 그림과 좌향(坐向)은 옛날 정승 정철(鄭澈)의 보고와 다름이 없다. 오늘에 와서 체면상 단지 지키며 보호하는 데만 그칠 수 없다.”라고 하니 이중하(李重夏)가 말하기를, “폐하가 옛 선대를 추모하는 성의에 대해서 신은 천만 번 칭송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무덤을 수리하는 문제는 오직 폐하의 결재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건지산(乾止山)의 묘는 그 자리가 분명치 않는데도 제단(祭壇)을 설치하였는데 삼척(三陟)은 문헌에 있는 것으로서 의심할 것이 없다. 비를 세우고 관리를 두는 것은 전주(全州)의 규례대로 할 것이다. 무덤 구역을 정하고 쌓는 것은 북쪽 능의 의식 절차대로 하되 전사청(典祀廳)과 재실(齋室)을 새로 건설하고 비(碑)를 세울 돌과 기와, 재목은 가까운 곳에서 구해서 쓸 수 있는가?”라고 하니 중하가 말하기를, “무덤 구역 내에 아름답리 나무가 많이 있으니 새로 건설하는 데 드는 재목과 기와 같은 것은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지역이어서 나무를 베다 쓸 수 없다면 삼척부(三陟府)에 낡은 관청 건물을 첩버린 것이 많이 있으니 기와와 재목은 실어다 쓸 수 있으며 비를 세울 돌은 가까운 10리 안에 캐올 곳이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고을 건물에 모셔놓은 붉은 색 무소뿔띠는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니 이중하(李重夏)가 말하기를, “운한각(雲漢閣)에 모셔놓고 예로부터 공경스럽게 받들고 지키며 보호하였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어지러워지고 모양도 낡고 수수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혹 짐이 먹어 손상을 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니 이중하(李重夏)가 말하기를, “세월이 오래되어 조금 짐이 먹어 손상이 간 곳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궤 속에 모셔 놓았으며 궤 위에는 영조(英祖)의 서문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활기동(活耆洞) 돌담(石垣)의 형태가 오늘에 와서도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역시 희귀한 일이다. 마땅히 용주리(湧珠里)의 고사(古事)대로 비(碑)를 세워고 사적(史蹟)을 기록해야 하겠다. 그리고 이 동(洞)은 두 무덤 사이에 있고 두 무덤과 상거한 거리가 같은 만큼 만약 이곳에 재실을 세울 것 같으면 무덤 구역을 지키며 보호하는 데 편리하고 좋을 것 같다.”라고 하니 이중하(李重夏)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돌담의 형태는 어떤가?”라고 하니 이중하(李重夏)가 말하기를, “잡돌로 동쪽과 남쪽의 변두리를 5, 6간 가량 쌓았는데 이것이 옛날 담의 형태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임금이 말하기를, “돌담 앞의 지형은 어떤가?”라고 하니 이중하(李重夏)가 말하기를, “지금은 보리밭으로 되었는데 깊고 험한 골짜기에서 이곳이 제일 평평하며 예로부터 왕터라고 하였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가운데 인가는 없는가?”라고 하니 이중하(李重夏)가 말하기를, “목조(穆祖)의 옛집터라고 하여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감히 이곳에 집을 짓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의 일가 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축문(祝文)은 어떤 내용으로 한다던가?”라고 하니 이중하(李重夏)가 말하기를, “신이 그 축문을 가져다 보니 당일제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 향렬에 따라 줄지어 서서는 몇 대손 아무개가 몇 대의 조상인 장군공(將軍公)의 무덤에 감히 고함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자리를 판단하였는가?”라고 하니 이중하(李重夏)가 말하기를, “이것은 『선원보략』에 나누어 실었는데 『선원보략』을 처음 편찬할 때 아무래도 『여지승람』과 『읍지』를 가져다 상고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나라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야 하겠다.”라고 하니 이중하(李重夏)가 말하기를, “오직 폐하의 결재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갱장록(羹牆錄)』에도 삼척(三陟)에 관한 일이 있는가?”라고 하니 이중하(李重夏)가 말하기를, “신은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조(正祖) 때 『관동빈흥록(關東賓興錄)』중에 임금이 지은 책문(策文) 제목에 미노리(未老里)의 옛날 뽕나무와 삼발 언덕과 흰 누릅나무의 정경이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정조(正祖)의 생각에도 이 지대를 한(漢)나라의 분유(楡)에 대비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 40권 37년 7월 11일(陽曆)

召見山陵都監堂上以下. 【山陵都監提調李道宰、宮內府大臣署理尹定求、學部大臣金奎弘、掌禮院少卿沈相璜、學部技師李秉憲、相地官洪鍾燮·吳擇泳·諸葛炯·朴寅根·李鍾高·吳聖根·崔錫永·鄭海準】 初看審後入來也. 上曰: “諸臣往見諸處, 則何地爲最勝乎?” 奎弘曰: “臣素昧地理, 不敢仰達. 而諸地師待令, 則當爲下詢, 可以詳燭矣.” 命諸地師次第入侍, 各陳所見擇其尤者而奏之也. 炯曰: “今番初看次, 諸處周覽, 則大用之地, 只是五處矣.” 上曰: “五處則皆好云耶?” 炯曰: “金谷則乙坐, 而花腦圓實, 牛角輔傍, 可謂上地, 但嫌穴淺. 軍藏里壬坐, 而三台作主, 穴堂豐厚, 龍虎重重, 三帳俱備, 可謂上地. 車踰峴則壬坐, 而開帳鮮明, 穴暈實圓, 四獸宛然, 君子攸居之地, 可謂上等. 花蛛洞則戌坐, 而少祖特高, 行龍蝶絲, 平地作穴, 突兀起伏, 龍眞穴的, 可謂上地. 此外更無注目之處也.” 其外相地官等, 次第論奏奏辭, 大同大異. 上曰: “擇其尤者, 再看審可也.” 仍命再看審時, 總護使、時原任大臣以下進去.

산릉도감(山陵都監)의 당상관(堂上官) 이하 【산릉도감제조(山陵都監提調) 이도재(李道宰),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 윤정구(尹定求), 학부대신(學部大臣) 김규홍(金奎弘), 장례원소경(掌禮院少卿) 심상황(沈相璜), 학부기사(學部技師) 이병헌(李秉憲), 상지관(相地官) 홍종혁(洪鍾赫), 오택영(吳擇泳), 제갈형(諸葛炯), 박인근(朴寅根), 이종설(李種畲), 오성근(吳聖根), 최석영(崔錫永), 정해준(鄭海準)】를 불러서 만났다. 산릉(山陵)을 처음으로 살펴보고 들어 왔던 것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가본 여러 곳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던가?”라고 하자 규홍(奎弘)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풍수(風水)보는 데는 어두워서 감히 아뢴 수 없으나 여러 지사(地師)들을 대령시켰으니 물어본다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여러 지사들이 차례로 들어와서 각각 본 것 중에서 나은 곳을 골라 보고하라고 명하였다. 형(炯)이 아뢰기를, “이번 첫 걸음에 여러 곳을 두루 돌아 보았는데 아주 쓸만한 곳은 다섯 곳 뿐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섯 곳에 대해서는 다들 좋다고 하던가?”라고 하니 형이 아뢰기를, “금곡(金谷)은 을방(乙方)을 등지고 앉았는데 ‘화뇌(花腦)’가 원만하고 ‘우각(牛角)’이 서로 의지하고 있으니 상등(上等) 자리라고 할 수 있으나 다만 무덤 자리가 낮은 것이 계름합니다. 군장리(軍藏里)는 임방(壬方)을 등지고 앉았는데 ‘삼태(三台)’가 주산을 이루고 무덤 자리가 봉긋하며 동, 서 양쪽의 산줄기가 거둑 쌓였고 ‘삼장(三帳)’이 구비되었으니 상등 자리라고 할만 합니다.

차유현(車踰峴)은 임방(壬方)을 등지고 앉았는데 ‘개장(開帳)’이 선명하고 무덤 자리 언저리가 동실하며 네 방위가 뚜렷하여 군자(君子)가 자리잡을 만한 곳이어서 상등 자리라고 할만 합니다.

화주동(花蛛洞)은 을방(乙方)을 등지고 앉았는데 뒷맥이 우뚝 솟은 데다가 원줄기를 따라 결줄기들이 그득하며 평탄한 지대에 자리잡고 우뚝 솟은 산줄기가 좋고 자리가 명백하므로 상등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더 주목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밖의 지관들이 차례로 의견을 올렸으나 그 내용은 비슷비슷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잘 살펴서 제일 좋은 곳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어 다시 살펴보러 갈 때에는 총호사(總護使)와 현임 및 전임대신(大臣) 이하 관리들이 가보라고 명하였다.

## ▶ 40권 37년 9월 26일(陽曆)

掌禮院卿李胄榮奏：“洪陵遷奉時，自上進御服色，下詢于時原任議政、在外儒賢處之事，奏下矣。發遣郎廳問議，則奉朝賀金炳國·宋近洙、特進官沈舜澤·趙秉世·宋秉璿，病未獻議。議政尹容善以爲：‘謹按古今禮說，應服三年者，改葬服緦，非三年服者，弔服加麻，葬畢除之。’又曰：‘改葬妻當用素服加麻之制，此通行之例也。今此洪陵遷奉時，自上服制，亦當用素服加麻之制。然取考乙未服制改正條例，則皇帝服制，以齊衰、杖菴磨鍊。而既行十一月練、十三月小祥、二十五月大祥、二十七月禫之制，則抑以『禮記註疏』，天子爲后服期，以三年包之之文而然歟？臣實愚昧，未敢知皇朝典禮之如何，而以右禮說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而論之，則今日服制之用素服加麻，固也。以陛下已行服制而論之，則事體與前有異，又難遽議。以前此通行之禮，弔服加麻之外，只有服總一條，而『讀禮通考』亦謂總亦弔服。然參考歷代，無他可援，未敢臆封。伏乞博詢而裁處’云。大臣、儒賢之議如此，伏候聖裁。”制曰：“議政之議如此，以總制磨鍊。”又奏：“『杜氏通典』改葬服議曰‘惟應服三年者，服總；周親以下，無服。’『大明集禮』曰‘孝子以下，總麻服；周親以下，素服。’而在前遷陵時，周親以下參酌淺淡服磨鍊，終三月而除矣。今此洪陵遷奉時，明憲太后服色，依已例，自啓舊陵日，進御淺淡服，終三月而除。令尙衣司舉行。”允之。掌禮院進遷陵時，服色別單：“一，皇帝、皇太子，極細熟布，總服、白皮鞋。【視事服，白袍、翼善冠、烏犀帶、白皮靴，燕居，黑笠、白直領衣、白條兒。】一，皇太子妃，極細熟布大袖、長裙、蓋頭、頭巾及帶白皮靴。【燕居，白衣裳、黑蓋頭、頭巾及帶、白皮靴。】一，內命婦服，與皇太子妃服同。一，尙宮以下，白衣裳、蓋頭、頭巾及帶、白皮鞋。【常時，白衣裳、黑蓋頭、頭巾及帶、白皮鞋。侍婢以下無蓋頭。】一，守閨以下服，與尙宮內下服同。一，親王服與皇太子服同。一，親王妻服，與皇太子妃服同。一，宗親文武百官及無祿官、諸道大小使臣、外官，【前銜官同】細熟布總服、白皮鞋。【公行，白布團領、烏紗帽、黑角帶、白皮靴；常時，黑笠、白衣、白帶。】駐筭外國公使館官員以下，勿爲變服。一，奉侍、司謁、司鑰、飯監服，與百官服同。一，別監各差備人，白衣、黑頭巾、黑帶。一，園丘壇、宗廟署、社稷署、各陵殿官員，入直，並常服；出外，與百官服同。一，景孝殿官員，入直，白布團領、烏紗帽、黑角帶、白皮靴。一，代奠官、侍殯、奉侍服，與百官服同。一，本陵官員服，與百官服同。一，士庶人，黑笠、白衣、白帶。一，各殿宮總服，則自啓舊陵望哭日，終三月而除。【百官亦同】”裁下頒布。

장례원경(掌禮院卿) 이주영(李胄榮)이 아뢰기를,

“홍릉(洪陵)을 옮길 때의 폐하의 복색(服色)에 대하여 현임과 전임의 의정(議政), 지방에 있는 선비 출신의 신하들에게 문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낭청(郎廳)을 보내어 문의한 결과 봉조하(奉朝賀) 김병국(金炳國), 송근수(宋近洙), 특진관(特進官) 심순택(沈舜澤), 조병세(趙秉世), 송병선(宋秉璿)은 병으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의정 윤용선(尹容善)은 이르기를, ‘예로부터 내려오는 예설(禮說)에는 3년복을 입는 사람은 무덤을 옮길 때 시마복(麻服)을 입으며 3년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조복(弔服)에다가 머리에 두르는 삼베 둘레 차림을 하고 장례가 끝나면 벗는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고는 또 이르기를, ‘처의 무덤을 옮길 때에는 흰 옷차림에다가 머리에 두르는 삼베 둘레 차림을 하는 제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을미년(乙未年)의 의복 제도를 고쳐 바로잡은 조례(條例)를 상고한 데 의하면 황제의 옷차림은 단을 박은 거상(居喪) 옷에 장기복(杖菴服)으로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11달만에 연제(練祭)를 지내고 13달만에 소상(小祥) 제사를 지내며 25달만에 대상(大祥) 제사를 지내고 27달만에 담제(祭)를 지내는 제도를 진행하였으니 그것은 『예기(禮記)』의 주석에 천자가 황후를 위하여 기년복(基年服)을 입는 것은 3년복과 같이 본다는 글에 의거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은 참으로 어리석고 몽매하여 감히 황실의 예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상의 예설로 논하다면 오늘날 상복 제도로는 흰 옷에다가



머리에 두른 삼베 둘레 차림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폐하가 이미 실행하던 상복 제도에 대하여 논한다면 형편이 이전과 다르고 또 이전에 흔히 쓰던 규례에 대하여 갑자기 논의하기는 어려우나 조상(弔喪)하는 옷에 머리에 두르는 삼베 둘레 차림 외에 다만 시마복을 입는 1개 조목이 있는데 『독례통고(讀禮通考)』에 역시 시마복(麻服)도 조상하는 옷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대의 예법(禮法)을 참고하여도 끌어낼 만한 것이 없으므로 감히 억측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널리 문의하여 채택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신과 선비 출신의 관리들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폐하의 처결을 바랍니다.”라고 하니 지시하기를, “의정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시마복으로 마련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었다.

“『두씨통전(杜氏通典)』의 무덤 옮길 때의 상복 제도에 대한 논의에 이르기를, ‘3년복을 입는 자만이 3달복을 입고 가까운 친척 이하는 복(服)을 입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대명집례(大明集禮)』에 이르기를, ‘아들 이하는 시마복(麻服)을 입고 아주 가까운 친척 이하는 흰 옷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전에 능을 옮길 때 가까운 친척 이하는 참작해서 옥색옷으로 마련하고 3달이 지나면 그만두었습니다. 이번에 홍릉(洪陵)을 옮길 때 명헌 태후(明憲太后)의 옷차림은 전래대로 옛 능을 파는 날부터 옥색옷 차림을 하고 3달이 지나면 그만둘 것입니다. 상의사(尙衣司)를 시켜 거행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승인하였다.

장례원에서 능을 옮길 때의 복색 별단(服色別單)을 올렸다.

“1. 황제, 태자는 아주 가는 익힌 베로 지은 3달복에 흰 가죽신 차림을 합니다. **【일을 볼 때에는 흰 도포에 익선관(翼善冠)을 쓰고 검은 무소뿔 띠를 띠고 흰 가죽신을 신으며 평상시에는 검은 갓을 쓰고 갓이 끈은 흰 옷에 흰 실띠를 띠니다.】**

1. 태자비(太子妃)는 아주 가는 익힌 베로 지은 큰 소매가 달린 저고리에 긴 치마를 입고 머리쓰개를 쓰고 베 댕기를 매고 띠를 띠며 흰 가죽신을 신습니다. **【평상시에는 흰 옷에 검은 머리쓰개를 쓰고 베 댕기를 매고 띠를 띠며 흰 가죽신을 신습니다.】**

1. 작위를 가진 왕궁 안의 부인의 의복은 태자비의 옷과 같습니다.

1. 상궁(尙宮) 이하는 흰 옷차림에 머리쓰개를 쓰고 댕기를 매고 띠를 띠며 흰 가죽신을 신습니다. **【평상시에는 흰 옷을 입고 검은 머리쓰개를 쓰고 베 댕기를 매고 띠를 띠고 흰 가죽신을 신으며 시비(侍婢) 이하는 머리쓰개를 쓰지 않습니다.】**

1. 수궐(守闈) 이하의 옷은 상궁 이하의 옷과 같습니다.

1. 친왕(親王)의 옷은 태자의 옷과 같습니다.

1. 친왕의 처의 옷은 태자비의 옷과 같습니다.

1. 임금 집안과 문무의 모든 관리 및 녹봉이 없는 관리, 지시를 받고 여러 도에 나간 크고 작은 관리들, 지방 관리 **【전직 관리들도 같음】** 들은 익힌 가는 베로 만든 시마복(麻服)에 흰 가죽신 차림을 하며 **【공무를 집행할 때에는 흰 베로 지은 갓이 둥근 옷에 검은 사모(紗帽) 차림을 하고 검은 띠를 띠고 흰 가죽신을 신으며, 평상시에는 검은 갓을 쓰고 흰 옷을 입으며 흰 띠를 띠니다.】** 외국 공사관에 주재하는 관리 이하는 옷차림을 달리 하지 않습니다.

1. 봉시(奉侍), 사알(司謁), 사약(司), 반감(飯監)의 옷은 모든 관리들의 옷과 같습니다.

## 제Ⅱ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1. 별감(別監)의 각 차비인(差備人)들은 흰 옷을 입고 검은 두건에 검은 띠를 띠는다.

1. 환구단(丘壇), 종묘서(宗廟署), 사직서(社稷署), 각 능과 전의 관리들은 당번 때에는 모두 평상시의 옷차림을 하며 밖으로 나갈 때에는 모든 관리들의 옷차림과 같습니다.

1. 경효전(景孝殿) 관리는 당번 때에는 흰 베로 지은 갓이 둥근 옷을 입고 검은 사모를 쓰고 검은 띠를 띠며 흰 가죽신을 신습니다.

1. 대전관(代奠官), 시빈(侍賓), 봉시(奉侍)의 옷은 모든 관리들의 옷과 같습니다.

1. 본 능 관리의 옷은 모든 관리의 옷과 같습니다.

1. 선비와 백성은 검은 갓을 쓰고 흰 옷을 입고 흰 띠를 띠는다.

1. 각 전(殿)과 궁(宮)의 시마복은 옛 능을 파고 곡하는 날부터 석달 동안 입고는 벗습니다. 【모든 관리들도 같습니다.】 ”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 ▶ 40권 37년 10월 14일(陽曆)

掌禮院進璿源殿失火後，應行事目別單。裁下。【一，皇帝變服，翼善冠、黻袍、烏犀帶、白皮靴；皇太子變服，翼善冠、黻袍、烏犀帶、白皮靴。舉哀，避正殿，減膳，撤樂，自今日三日而止事。一，明憲太后、皇太子妃，自今日進淺淡服，三日而止事。一，宗親、文武百官變服，淺淡服、烏紗帽、黑角帶、白皮靴，三日而止。二品以上即日間安事。一，當日爲始，停朝、市，去刑戮，禁屠殺，斷音樂，三日而止事。】

장례원(掌禮院)에서 선원전(璿源殿)에 불이 난 뒤의 응행 사목 별단(應行事目別單)을 바치자 재가(裁可)하였다. 【1. 황제의 변복(變服)은 익선관(翼善冠)을 쓰고 검푸른 빛갈의 큰 옷을 입고 검은 무소뿔 장식을 한 띠를 띠고 흰 가죽신을 신으며, 태자의 변복은 익선관을 쓰고 검푸른 빛갈의 큰 옷을 입고 검은 무소뿔 장식을 한 띠를 띠고 흰 가죽신을 신으며, 상사(喪事)를 발표하고 정전(正殿)을 피해 앉으며 끼니 음식의 가지수를 줄이고 음악을 중지하며 오늘부터 3일이 되면 그만둘 것이다. 1. 명헌 태후(明憲太后), 태자비(太子妃)는 오늘부터 옥색 옷을 입으며 3일이 되면 그만둘 것이다. 1. 종친(宗親)과 문무백관(文武百官)의 변복은 옥색 옷에 검은 사모 차림을 하고 검은 띠를 띠고 흰 가죽신을 신으며 3일이 되면 그만두되 2품 이상의 관리들은 그 날로 문안할 것이다. 1. 당일로부터 시작하여 조회(朝會)와 저자를 중지하고 죄를 주거나 죽이는 것을 그만두며 집짐승 잡는 것을 금지하고 음악을 중지하되 3일이 되면 그만둘 것이다.】

### ▶ 41권 38년 3월 29일(陽曆)

節目。【一，皇帝翼善冠、黻袍、烏犀帶、白皮靴，皇太子翼善冠、黻袍、烏犀帶、白皮靴，自內變服、避正殿、減膳、撤樂，自今日三日而止事。一，宗親、文武百官變服、

淺淡服、烏紗帽、黑角帶、白皮靴、三日而止事。一，軍警服裝依定式，左臂上繞纏黑色布廣二寸三日而止事。一，當日爲始停朝市、去刑戮、禁屠殺、斷音樂，三日而止事。】

절목. 【1. 황제는 익선관(翼善冠), 검푸른 빗갈의 큰 옷, 검은 빗갈의 무소뿔 띠, 흰 빗갈의 목 긴 가죽신 차림으로, 황태자는 익선관, 검푸른 빗갈의 큰 옷, 검은 빗갈의 무소뿔 띠, 흰 빗갈의 목 긴 가죽신 차림으로 대궐 안에서 옷차림을 고치고 정전에서 거처를 옮기며 끼니 음식의 가지 수를 줄이고 음악을 연주하지 말되 오늘부터 사흘동안만 할 것입니다.

1. 종친(宗親)들, 문무의 모든 관리들은 옥색 빗갈의 옷, 검은 사모(紗帽), 검은 빗갈의 띠, 흰 빗갈의 목 긴 가죽신 차림으로 사흘 동안만 옷차림을 고칠 것입니다.

1. 군경(軍警)들의 옷차림은 정해진 규정대로 오른쪽 어깨 위에 너비 2치 짜리 검은 빗갈의 베친을 사흘 동안만 두를 것입니다.

1. 당일부터 사흘 동안 조회를 중지하고 저자를 보지 말며 형벌과 처단을 그만두고 도살을 금하며 음악을 중지할 것입니다.】

## ▶ 41권 38년 5월 29일(陽曆)

二十九日。法部大臣署理李載崑奏：

接準平理院裁判長具永祖質稟書，內開：“被告金太雄、朴明重、尹召史、姜文賢、金允明、金元克、金亨克案件，由檢事公訴審理，則被告金太雄，五年前陰神接身，踪跡閃忽，而在古今島時，夢得奇兒，到光州郡，夢得天降朝服，著之身上，天賜長劍，除危延壽云。故心甚異之，祈禱於智異山次，轉到雲峰山內里留連。陰曆上年閏八月分，逢著黃根墨，備說前後所經夢兆，則黃根墨言於被告曰：‘汝則自天降之，乃是來世天子之人也。吾觀狀貌，且察左掌上有聖字文，右掌上有井字王字文，此是大聖人之格。吾家在於晉州眞珠庵。追後來訪’云。故被告如其言往訪，則黃根墨出示木圖章、『京甲易』等物曰：‘此於吾家後眞珠山，百日祈禱後得之。’給與祝文，其文曰：‘鄭秀民爲邦民之聖天子，黃璣爲儒佛之聖天子’云云等說。被告與黃根墨、朴明重、高斗山、姜渭連、姜文賢等十餘人，間日祈禱，因屢有吉夢，意在天子。黃根墨言於被告曰：‘汝爲天子後，朴明重、高斗山爲政丞。’被告又因黃根墨勸媒，與尹姓女作配居生。九月初，偶得一夢，則智異山神靈，抱給二兒，故心甚異之。自其後被告及妻尹女，俱爲孕胎，浮動腹中之諸般謊說，雖是失眞，事極凶悖。被告朴明重，上年陰曆九月分，葬地求得次，往見黃根墨，則黃根墨出示『京甲易』曰：‘吾之大先生在此’云。故同往姜渭連家，逢見金太雄，其夜黃根墨、金太雄，同爲天祭，故見其祝文，則有‘天子鄭秀臣’之句語。怪而問之，則黃根墨曰：‘我曾讀『易』達理。推數庚子、辛丑，世上紛紜，四方正士，咸集於雲峰、咸陽之間，九鄭相鬪矣。當其時剿滅九鄭，爲眞天子者，金太雄是也。其姓非金伊鄭，其名秀臣。’自冊裏出示錄紙，故被告披覽後，黃根墨又謂被告曰：‘壬寅、癸卯紛紜之日，吾輩不死而生，則咸、雲等地相逢’云。黃根墨生日，被告與張基包往訪，得喫酒餅，得見天祭祝文。然被告爲政丞之說，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初不得聞於黃根墨，晉州府被提取招時，高斗山及被告爲守令、監司之說，得聞於金太雄橫豎納供之場。被告尹召史，上年陰曆閏八月分，被誘於黃根墨，同月二十五日，與李春俠同往黃家，則黃根墨勸該女曰：‘金太雄手掌，有王字、井字、聖字文，來世必爲大聖人。七年祈禱於智異山，夢得木劍、木印，來世爲天子。’又曰：‘各處富人，與我皆有親分，使汝內外，不飢不寒’云。故無知沒覺之致，不得已作配同室居生，同年九月孕胎，其後金太雄祈禱時，同黨三十餘名，相聚設牛猪酒餅等物，齋沐上山，祝文書天子鄭秀臣之言，但聞之，而初不同參。被告姜文賢，與黃根墨接隣相親，而被告兄渭連，從黃根墨指揮，寄留金太雄於渠家。黃根墨恒言金太雄隣居鄭老之子云，故不信其言。同年九月分，因黃根墨要請往見，則黃根墨指金太雄曰：‘此人有奇異夢兆，必爲來世天子’云。故被告得聞此言，心寒骨冷。答曰：‘天無二日、國無二君，雖有夢兆，此等說，何可發口乎？卽爲歸家’云。然祈禱時種種往參，金太雄供辭明的。被告金允明，隣居黃根墨，要來金太雄，容接姜渭連家，厚誼款待曰：‘此人大先生’云。故多日相從，金太雄謂以還鄉，故使金元克兄弟，其行具擔負以送，金太雄有地術神眼云，故欲爲經驗，同往河東郡白雲山被捉。金太雄取招時，始聞自稱天子，自託陰神接身，或稱天衣在身，天賜長劍之說云。然隨往金太雄時，黃根墨勸被告曰：‘金太雄今行持『京甲易』，往河東郡，則必有好事，汝須隨往’云。故依其言隨往之致，昭載於郡道取招，而屢回盤覈，抵賴推諉。然爲占山地隨往云者，粧撰情節，掀露無餘。被告心甚悅服於金太雄，多日相從，則不參天祭，亦無其理。被告金元克、金亨克，俱以山谷愚氓，年少沒覺。而上年陰曆九月分，黃根墨來言曰：‘金太雄通知豐凶、地理、卜筮等之理人，而來客甚煩，將避跡於僻靜處。暫借房屋，使之寄留’云。故被其甘誘，許以容接。同月二十八日，金太雄知河東民砲調探之機，自怯避身之際，因金允明指使，厚給雇價，故擔負其行具而隨往，被捉於河東，則其被誘情跡，不無可矜，容接隨往，難以全恕。黃根墨、高斗山、姜渭連在逃未捉。而右諸事實，被告等陳供，自服明白。被告金元克、金亨克，照『大明律』『雜犯編』不應爲條，凡不應得爲而爲之事理重者律，竝處答八十。而被告金太雄，照『大典會通』『推斷條』，凡亂言若干犯於上情理切害者律，『大明律』『祭祀編』禁止師巫邪術條，左道亂正之術，或隱藏圖像，燒香集衆，夜聚曉散，佯修善事，煽惑人民，爲首者律，同律名例二罪俱發以重論條，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文，依『刑律名例』第六條，處斬。被告朴明重、尹召史、姜文賢、金允明，照『大明律』『祭祀編』禁止師巫邪術條，左道亂正之術，或隱藏圖像，燒香集衆，夜聚曉散，佯修善事，煽惑人民爲從律，處答一百、懲役終身宣告，玆質稟”云矣。該犯朴明重、尹召史、姜文賢、金允明，依原擬律處辦之意，指令該院，金太雄，依原擬律處斬何如？

允之。又以“各道裁判所審理殺獄罪人張召史等十三名處絞案，開錄上奏。”允之。

법부대신서리(法部大臣署理) 이재곤(李載)이 제의하였다.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구영조(具永祖)의 문의서에 의하면 이러합니다.

‘피고 김태웅(金太雄), 박명중(朴明重), 윤 소사(尹召史), 강문현(姜文賢), 김윤명(金允明), 김

원극(金元克), 김형극(金亨克)의 안건을 검사(檢事)의 공소(公訴)에 의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 김태웅은 5년 전에 귀신이 몸에 붙어서 종적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였는데 고금도(古今島)에 있을 때는 꿈에 기이한 아이를 얻었고 광주군(光州郡)에 가서는 꿈에 하늘이 주는 조복(朝服)을 얻어 몸에 입었으며 하늘이 장검(長劍)을 주면서 위험을 없애고 오래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지리산(智異山)에 가서 기도를 드리려고 운봉산(雲峯山) 안의 동리에 가서 묵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음력 윤8월에 황근묵(黃根墨)을 만나 전후한 꿈 징조를 자세히 말하니 황근묵이 피고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늘이 내려보낸 사람으로서 앞으로 천자가 될 사람이다. 내가 관상을 보고 또 손바닥을 살펴보니 왼손 바닥에는 성인 성자가 있고 오른손 바닥에는 우물 정자와 임금 왕자가 있으니 이것은 큰 성인 격이다. 우리 집이 진주(晉州)의 진주암(眞珠庵)에 있으니 뒤에 찾아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그의 말대로 찾아갔더니 황근묵(黃根墨)이 나무 도장과 『경갑역(京甲易)』 등의 물건을 꺼내 보이며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 집 뒤 진주산(眞珠山)에서 100일 동안 기도를 드리고 나서 얻은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축문(祝文)을 주었는데 거기에는 이르기를 ‘정수민(鄭秀民)은 나라 백성의 성스러운 천자가 될 것이고 황기(黃璣)는 유학자와 불자(佛子)의 성스러운 천자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 씌여 있었습니다.

피고는 황근묵(黃根墨), 박명중(朴明重), 고두산(高斗山), 강위련(姜渭連), 강문현(姜文賢) 등 10여 명과 함께 하루건너 기도를 드리던 끝에 여러 번 좋은 꿈을 꾸었는데 그 뜻은 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황근묵이 피고에게 말하기를, ‘네가 천자로 된 후에 박명중과 고두산은 정승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또 황근묵의 중매로 윤씨 성을 가진 여자와 배필을 맺고 살았습니다. 9월 초에 우연히 한 꿈을 꾸었는데 지리산 산신령이 두 아이를 안아다 주는 것이었으므로 괴이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로부터 피고와 처인 윤씨 성을 가진 여자가 다같이 아이를 뱃속에서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여러 가지 황당한 말이 비록 사실은 아니지만 흉악하고 고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피고 박명중(朴明重)은 지난해 음력 9월에 묘자리를 잡으려고 황근묵(黃根墨)을 만났더니 황근묵이 『경갑역(京甲易)』을 내보이며 말하기를, ‘나의 큰 선생이 여기에 와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위련(姜渭連)의 집에 가서 김태웅(金太雄)을 만났는데 그날 밤에 황근묵과 김태웅이 함께 하늘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축문을 보았는데 ‘천자 정수신(鄭秀臣)’이란 귀절이 있었습니다. 괴이해서 물으니 황근묵이 말하기를, ‘나는 일찍이 주역(周易)을 읽고 이치를 꿰뚫었다. 운수를 보건대 경자년과 신축년에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온 나라의 바른 선비들이 모두 운봉(雲峰)과 함양(咸陽) 사이에 모이고 아홉 정씨가 서로 싸울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아홉 정씨를 쓸어버리고 진짜 천자로 될 사람은 바로 김태웅(金太雄)이다. 그의 성은 김씨가 아니라 정씨이며 이름은 수신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책 속에서 글을 적은 종이를 꺼내 보기에 피고가 보고 난 뒤에 황근묵이 또 피고에게 이르기를, ‘임인년, 계묘년에 세상이 어지러워질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남으면 모두 함양과 운봉 등지에서 서로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황근묵(黃根墨)의 생일날 피고는 장기포(張基包)와 함께 찾아가서 술과 떡을 얻어 먹었고 하늘에 지낸 제사의 축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정승이 된다는 말을 애초에 황근묵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에게서 듣지 못했으며 진주부(晉州府)에 잡혀가서 신문받을 때 고두산과 피고는 수령이나 감사가 된다는 말을 김태웅(金太雄)이 횡설수설 공술하는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피고 윤 소사(尹召史)는 지난해 음력 윤8월에 황근목의 꼬임 수에 넘어 그 달 25일날 이 춘협(李春俠)과 함께 황가네 집에 갔더니 황근목이 그 여자에게 권하기를 ‘김태웅의 손바닥에 임금 왕자와 우물 정자, 성인 성자가 있으니 장차 틀림없이 큰 성인이 될 것이다. 7년 동안 지리산에 기도를 드리고 꿈에 나무 검과 나무 도장을 얻었으니 앞으로 천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각 처의 부유한 사람들이 모두 나와 친분이 있으니 너의 내외를 주리게 하거나 추위에 떨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각이 없는 탓으로 할 수 없이 배필을 맺고 한집에서 함께 살았으며 그 해 9월에는 아이를 배게 되었습니다. 그후 김태웅이 기도를 드릴 때 같은 무리 30여 명이 모여 소고기, 돼지고기, 술, 떡과 같은 물건을 차려 놓고 목욕 재계를 하고는 산에 올라가 축문에다 천자 정수신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애초에 함께 참여하지는 않았습  
다.

피고 강문현(姜文賢)은 황근목과 이웃에 살면서 서로 친하였는데 피고의 형인 위련이 황근목이 시키는 대로 자기 집에다 김태웅을 유숙시켰습니다. 황근목이 늘 김태웅은 이웃에 사는 정 노인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해 9월에 황근목이 청하는 대로 가보았더니 황근목이 김태웅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기이한 꿈을 꾸었으니 반드시 내세의 천자로 될 것이다.’라고 하므로 피고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섬짓하고 뼈마디가 싸늘해서 대답하기를,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나라에는 두 임금이 없는 법인데 설사 꿈 징조가 있더라도 어찌 이런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는가? 당장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드릴 때 자주 가서 참가하였다는 것은 김태웅의 공술에서 명백하여졌습니다. 피고 김윤명(金允明)은 이웃에 사는 황근목이 김태웅이 거접하고 있는 강위련(姜渭連)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후하게 환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큰 선생이다.’라고 하기에 여러날 상종하였으며 김태웅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김원극(金元克) 형제에게 그의 행장(行裝)을 짐지워 보냈고 김태웅의 풍수보는 것이 신통하다고 하기 때문에 시험해 보려고 하동군(河東郡) 백운산(白雲山)에 함께 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스스로 천자라고 하면서 몸에 신이 붙었다고 의탁하고 하늘이 준 옷을 입었다거나 하늘이 장점을 주었다거나 라고 한 말들은 김태웅에게서 공술을 받을 때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태웅을 따라갈 때 황근목이 피고에게 권하기를 ‘김태웅이 이번에 『경갑역(京甲易)』을 가지고 하동군에 가니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너는 꼭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기에 그 말대로 따라갔다는 것은 도(道)와 군(郡)에서 공술받은 내용에 명백히 실려 있건만 여러번 신문하였는데도 버티면서 남에게 넘겨씌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묘자리를 잡기 위해 따라갔다고 말한 것은 꾸며낸 말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피고가 김태웅과 여러 날 상종하였다는 것을 선뜻 자복한 이상 천제(天祭)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럴리가 없습니다.

피고 김원극(金元克)과 김형극(金亨克)은 모두 산골의 어리석은 백성들로서 나이가 어리고 지각이 없습니다. 지난해 음력 9월에 황근목(黃根墨)이 와서 ‘김태웅(金太雄)은 풍년과 흉년, 지리, 점치기 등의 이치를 통달한 사람으로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 시끄러워 궁벽

하고 조용한 곳으로 피하려고 한다. 그러니 얼마동안 방을 빌려주어 그가 묵도록 하라.’고 하기에 그의 달콤한 피임에 넘어가 집에 묵게 하였습니다.

그 달 28일 날 김태웅이 하동 민포군(民砲軍)들이 엄탐하는 기미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겁에 질려 피신할 때 김윤명(金允明)이 시키는 대로 품삯을 후하게 주기 때문에 그의 행장을 지고 따라갔다가 하동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러니 피임수에 넘어간 사실은 가공하지만 집에 묵게 하고 따라간 데 대해서는 완전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황근목, 고두산, 강위련은 도망친 것을 붙들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여러 사실은 피고 등이 공술에서 명백히 자복하였습니다.

피고 김원극과 김형극은 『대명률(大明律)』 <잡범편(雜犯編)>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데 관한 조목 중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으로써 사실과 이치로 보아 엄중한 자에 관한 법 조문에 적용시켜 모두 태형(笞刑) 80대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김태웅(金太雄)은 『대전회통(大典會通)』 <추단조(推斷條)>의 임금에게 저촉되는 불온한 말로써 정리와 사리로 보아 매우 해로운 데 관한 법 조문, 『대명률(大明律)』 <제사편(祭祀編)> 무당과 간사한 술법을 금지하는 조목 중 바른 것을 문란시키는 간사한 방법으로 그림을 은근히 감추고 향을 피우며 많은 사람을 모았거나 밤중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며 좋은 일을 한다는 핑계 아래 백성들을 선동하고 유혹시킨 경우 주모자에 관한 법 조문, 『대명률(大明律)』 명례(名例) 중 두 가지 죄가 동시에 드러났을 경우에는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는 법조문에 적용시켜 명례명례(刑律名例) 제6조대로 참형(斬刑)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박명중(朴明重), 윤소사(尹召史), 강문현(姜文賢), 김윤명(金允明)은 『대명률(大明律)』 <제사편(祭祀編)> 무당의 간사한 술법을 금지하는 조목 중 바른 것을 문란시키는 간사한 방법으로 그림을 은근히 감추고 향을 피우며 많은 사람을 모았거나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며 좋은 일을 한다는 핑계 아래 백성들을 선동하고 유혹시킨 경우 추종한 자에 관한 법 조문에 적용시켜 태형 100대를 쳐서 종신 징역에 처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고하자고 문의합니다.’

해당 범인 박명중(朴明重), 윤 소사(尹召史), 강문현(姜文賢), 김윤명(金允明)은 원래 법 조문에 적용시킨 대로 처리하라는 뜻으로 해당 원에 지시하고 김태웅(金太雄)은 원래 법 조문에 적용시킨 대로 참형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인하였다.

## ▶ 47권 43년 4월 20일(陽曆)

議政府“因度支部請議, 漢城府雜給增額四百五十六圓、外交顧問須集雲【수집운】官舍增築及修繕費一萬一千八百二十二圓、全南觀察府警務顧問·補佐員·通譯員住接處所修理費一百圓十七錢、官設屠獸場設備費一萬三百六十八圓六錢, 豫備金中支出事, 經議上奏.” 制曰: “可.”

의정부(議政府)에서는 탁지부(度支部)에서 요청한 의견과 관련하여 한성부에 잡비로 줄 증가액 456원, 외교 고문(外交顧問) 【수집운(須集雲)】 의 관사 증축(官舍增築)과 수리비 1만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1,822원, 전라남도 관찰사부에서 경무고문(警務顧問), 보좌원(補佐員), 통역원(通譯員)의 거처소(居處所) 수리비 100원 17전, 관청에서 설치하는 도살장(屠殺場) 설비비 1만 368원 6전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할 데 대하여 토의를 거쳐 제의하니 비준하기를, “좋다.”라고 하였다.

### ▶ 47권 43년 5월 28일(陽曆)

太醫院入診. 都提調李根命曰: “聖候靡寧, 今至屢日. 口奏之批, 連伏承漸有勝度之教, 而通順散進御後, 諸節更若何?” 上曰: “始則胸膈, 痰崇甚苦, 呼吸不順矣, 今稍有勝度. 通順散不無其效, 而腰脅尙微牽疼, 上部或有發表之症. 必是風火之散於外者矣.” 根命曰: “此是風火之候, 或試外治之藥乎?” 上曰: “以臘雪水洗之, 塗牛黃、熊膽矣.” 根命曰: “陛下寶齡, 已爲向衰, 自異於春秋鼎盛之時. 攝養、保壽之方, 宜倍加留神矣. 古人論治病之法曰: ‘清心寡慾.’ 雖似迂遠, 實則切要. 如節飲食、慎起居、省思慮、養精神, 皆所謂清心寡慾之事矣.”

태의원(太醫院)에서 들어와 임금을 진찰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근명(李根命)이 말하기를, “폐하의 몸이 불편한 지 이제는 여러날이 되었습니다. 구두 제의에 대하여 연이어 내린 비답에서 조차 차도가 있다는 지시를 받았는데 통순산(通順散)을 든 후에 몸이 어떤 것 같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가슴에 가래가 차서 심히 고통스러웠으며 호흡이 순조롭지 못하더니 지금은 좀 차도가 있다. 통순산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허리와 옆구리가 아직 약간 걸리는데 위쪽에서 좀 뜨끔거린다. 필시 풍기와 화기가 겹으로 흩어지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근명이 말하기를, “이것은 풍기와 화기의 징조인데 겹을 다스리는 약을 써보았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달 눈 녹인 물로 씻고 우황과 옹담을 발라보았다.”라고 하였다.

이근명이 말하기를, “폐하의 연세가 이미 노년기에 들어선 만큼 한창 나이 때와 다릅니다. 섭생과 보신하는 방도에 곱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논하여 말하기를,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고 욕망을 적게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거리가 먼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절실한 요령입니다. 음식을 조절하고 생활을 조심한다든지 생각을 적게 하고 정신을 기르는 것과 같은 것이 모두 이른바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고 욕망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 48권 44년 2월 20일(陽曆)

議政府因度支部請議, “日本特使宴接費四百三圓, 國內牛疫消防費四千三百七十五圓,



豫備金中支出”事, 經議上奏. 制曰: “可.”

의정부(議政府)에서는 탁지부(度支部)에서 요청한 의견과 관련하여 일본 특사를 위한 연회, 접대비 403원, 국내 소 전염병을 소멸 방지하기 위한 비용 4,375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할 데 대하여 의논을 거쳐 제의하니 비준하기를, “좋다.”라고 하였다.

## 31. 純宗實錄

### ▶ 2권 1년 8월 26일(陽曆)

二十六日. 詔曰: “自今以後로 壇廟殿社宮祭享時所用犧牲을 享日趁期하야 收聚於前奉常司하야 令掌禮院官으로 看品準尺後卽其地宰殺하야 仍爲陪進于祭所하라” 又詔曰: “自今以後로 壇廟殿社大祭時誓戒肄儀를 竝以停廢하고 若值親祭則只行肄儀하라.”

지시하기를, “이후부터는 단(壇), 묘(墓), 전(殿), 사(社), 궁(宮)들에 제사지낼 때 써야 할 짐승은 제사날을 앞두고 봉상사(奉常司)에 모아둘 것이며 장례원(掌禮院)의 관리를 시켜 품위를 간평한 뒤에 그곳에서 도살하여 그대로 제사지내는 데 올리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지시하기를, “이후부터는 단, 묘, 전, 사, 궁들에 대제(大祭)를 지낼 때에 서계(誓戒)와 의식 연습을 모두 그만둘 것이며 직접 지내는 제사인 경우에는 의식 연습만을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 3권 2년 8월 21일(陽曆)

二十一日. 法律第二十四號, 屠獸規則, 裁可頒布.

법률 제24호 「짐승 도살 규정」을 비준하여 반포하였다.

## 32. 純宗實錄附錄

### ▶ 6권 8년 3월 24일(陽曆)

本職職員事務分掌規程改正如左.李王職事務分掌規程:

第一條. 李王職에 左의 一司六課를 置호야 事務를 分掌함.掌侍司、庶務課、會計課、主殿課、祭祀課、農事課掌苑課. 第二條. 掌侍司에서난 左의 事務를 掌함. 一, 昌德宮의 身側에 關한 事項. 二, 昌德宮의 診候調藥及衛生에 關한 事項. 三, 昌德宮內人에 關한 事項. 四, 昌德宮의 供膳及饗宴에 關한 事項. 五, 儀式賓客接待에 關한 事項. 六, 王家譜牒詞章古印等の 管守에 關한 事項. 第三條. 庶務課에서난 左의 事務를 掌함. 一, 職員의 進退身分에 關한 事項. 二, 長官次官의 官印及職印의 管守에 關한 事項. 三, 宮規其他重要한 公文書의 起草及審査에 關한 事項. 四, 公文書類의 接受發送編纂保管及統計報告에 關한 事項. 五, 圖書의 保管出納及縱覽에 關한 事項. 六, 贈答에 關한 事項. 七, 他의 主管에 屬지아니 한 事項. 第四條. 會計課에서난 左의 事務를 掌함. 一, 出納及用度에 關한 事項. 二, 財産에 關한 事項. 三, 美術工場及廐舍에 關한 事項. 四, 公家의 會計監督에 關한 事項. 第五條. 主殿課에서난 左의 事務를 掌함. 一, 宮第及昌德宮內所在廳舍並其附屬物의 管守에 關한 事項. 二, 營繕에 關한 事項. 第六條. 祭祀課에서난 左의 事務를 掌함. 一, 祭祀에 關한 事項. 二, 廟、殿、宮、陵、園、墓의 管守에 關한 事項. 第七條. 農事課에서난 左의 事務를 掌함. 一, 林業에 關한 事項. 二, 農場에 關한 事項. 三, 種馬牧場及乳牛場에 關한 事項. 第八條. 掌苑課에서난 左의 事務를 掌함. 一, 博物館에 關한 事項. 二, 動物園에 關한 事項. 三, 庭苑及植物苑에 關한 事項. 第九條. 李太王附職員은 左의 事務를 掌함. 一, 德壽宮의 身側에 關한 事項. 二, 德壽宮의 診候調藥及衛生에 關한 事項. 三, 德壽宮의 供膳及饗宴에 關한 事項. 四, 德壽宮內人에 關한 事項. 五, 德壽宮의 庶務에 關한 事項. 六, 德壽宮內所在宮第廳舍並其附屬物의 管守에 關한 事項. 七, 其他德壽宮에 關한 一切事項. 第十條. 王世子附職員은 左의 事務를 掌함. 一, 昌德若宮의 身側에 關한 事項. 二, 昌德若宮의 診候調藥及衛生에 關한 事項. 三, 昌德若宮의 庶務에 關한 事項. 四, 其他昌德若宮에 關한 一切事項. 第十一條. 公族附職員은 各公家의 庶務及會計를 掌함. 本規則은 大正四年四月一日부터 此를 施行함.

이왕직 직원 사무 분장 규정(李王職職員事務分掌規程)의 개정은 다음과 같다.

이왕직 사무 분장 규정(李王職事務分掌規程)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제1조 이왕직(李王職)에 아래의 1사(司) 6과(課)를 설치하여 사무를 분장함.  
장시사(掌侍司) 서무과(庶務課) 회계과(會計課) 전주과(殿主課) 제사과(祭祀課) 농사과(農事課) 장원과(掌苑課)

제2조 장시사(掌侍司)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함.

1. 창덕궁(昌德宮)의 신체에 관한 사항
2. 창덕궁(昌德宮)의 진료조약(診候調藥) 및 위생(衛生)에 관한 사항
3. 창덕궁(昌德宮)의 나인(內人)에 관한 사항
4. 창덕궁(昌德宮)의 공선(供膳) 및 향연(饗宴)에 관한 사항
5. 창덕궁(昌德宮)의 의식(儀式) 빈객 접대(賓客接待)에 관한 사항
6. 왕가의 보첩(譜牒) 사장(詞章) 고인(古印)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서무과(庶務課)에서는 아래의 사무를 관장함.

1. 직원(職員)의 신분 진퇴(進退身分)에 관한 사항
2. 장관(長官) 차관(次官)의 관인(官印) 및 직인(職印)에 관한 사항
3. 궁규(宮規) 기타 중요한 공문서(公文書)의 기초(起草) 및 심사(審査)에 관한 사항
4. 공문서류(公文書類)의 접수(接受) 발송(發送) 편찬(編纂) 보관(保管) 및 통계 보고(統計報告)에 관한 사항

5. 도서(圖書)의 보관(保管) 출납(出納) 및 반납(返納) 종람(縱覽)에 관한 사항
6. 증답(贈答)에 관한 사항
7. 이외의 주관(主管)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4조 회계과(會計課)에서는 아래의 사무를 관장함.

1. 출납(出納) 및 용도(用途)에 관한 사항
2. 재산(財産)에 관한 사항
3. 미술공장(美術工場) 및 구사(廐舍)에 관한 사항
4. 공가(公家)의 회계 감독(會計監督)에 관한 사항

제5조 전주과(殿主課)에서는 아래의 사무를 관장함.

1. 제(宮第) 및 창덕궁(昌德宮) 내에 소재의 청사(廳舍)와 아울러 그 부속물(附屬物)의 관수(管守)에 관한 사항

2. 영선(營繕)에 관한 사항

제6조 제사과(祭祀課)에서는 아래의 사무를 관장함.

1. 제사(祭祀)에 관한 사항
2. 묘(廟) 전(殿) 궁(宮) 능(陵) 원(園) 묘(墓)에 관한 사항

제7조 농사과(農事課)에서는 아래의 사무를 관장함.

1. 임업(林業)에 관한 사항

### 2. 농장(農場)에 관한 사항

### 3. 종마 목장(種馬牧場) 및 우유장(牛乳場)에 관한 사항

제8조 장원과(掌苑課)에서는 아래의 사무를 관장함.

1. 박물관(博物館)에 관한 사항
2. 동물원(動物園)에 관한 사항
3. 정원(庭苑) 및 식물원(植物苑)에 관한 사항

제9조 이 태왕(李太王)의 부속 직원(附職員)은 아래의 사무를 분장함.

1. 덕수궁(德壽宮)의 신체에 관한 사항
2. 덕수궁(德壽宮)의 진료 조약(診候調藥) 및 위생(衛生)에 관한 사항
3. 덕수궁(德壽宮)의 공선(供膳) 및 향연(饗宴)에 관한 사항
4. 덕수궁(德壽宮)의 나인(內人)에 관한 사항
5. 덕수궁(德壽宮)의 서무(庶務)에 관한 사항
6. 덕수궁(德壽宮) 내 소재의 청사(廳舍)와 아울러 그 부속물(附屬物)의 관수(管守)에 관한 사항

7. 기타 덕수궁(德壽宮)에 관한 일체 사항

제10조 왕세자(王世子)의 부속 직원(附職員)은 아래의 사무를 분장함.

1. 창덕약궁(昌德若宮)의 신체에 관한 사항
2. 창덕약궁(昌德若宮)의 진료 조약(診候調藥) 및 위생(衛生)에 관한 사항
3. 창덕약궁(昌德若宮)의 서무(庶務)에 관한 사항
4. 기타 창덕약궁(昌德若宮)에 관한 일체 사항

제11조 공족(公族)의 부속 직원(附職員)은 각 공가(公家)의 서무(庶務) 및 회계(會計)를 분장함.

본 규칙(規則)은 대정(大正) 4년 4월 1일부터 시행함.

## ▶ 7권 9년 6월 10일(陽曆)

十日. 本職事務分掌規程中改正. 【第一條, 李王職에 左의 七課를 置함. 庶務課、會計課、主殿課、祭祀課、儀式課、農事課、掌苑課. 第二條, 掌侍司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함. 一, 昌德宮의 近側에 關한 事項. 二, 昌德宮의 診候調營에 關한 事項. 三, 昌德宮의 供膳에 關한 事項. 四, 昌德宮의 內人에 關한 事項. 五, 王家의 譜牒詞章古印等に 關한 事項. 第五條에 左의 一號를 加함. 三衛生에 關한 事項. 第六條의 二儀式課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함. 一, 儀式에 關한 事項. 二, 賓客接待饗宴에 關한 事項. 本規程은 大正五年六月十日부터 施行함.】 本職改正事務分掌規程全文, 如下.

第一條. 李王職에 左의 一司七課를 置함. 掌侍司、庶務課、會計課、主殿課、祭祀課、儀式課、農事課、掌苑課. 第二條. 掌侍司는 左의 事務를 掌함. 一, 昌德宮近側에 關한 事項. 二, 昌德宮診候調藥에 關한 事項. 三, 昌德宮供膳에 關한 事項. 四, 昌德宮內人에 關한 事項. 五, 王家譜牒詞章古印等管守에 關한 事項. 第三條. 庶務課는 左의 事務를 掌함. 一, 職員의 進退身分에 關한 事項. 二, 長官次官의 官印及職印管守에 關한 事項. 三, 宮規其他重要한 公文書의 起草及審査에 關한 事項. 四, 公文書類의 接受、發送、編纂、保管及統計報告에 關한 事項. 五, 圖書의 保管出納及縱覽에 關한 事項. 六, 贈答에 關한 事項. 七, 他的 主管에 屬지아니한 事項. 第四條. 會計課는 左의 事務를 掌함. 一, 出納及用度에 關한 事項. 二, 財産에 關한 事項. 三, 美術

## 제II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工場及廐舍에 關한 事項. 四, 公家の 會計監督에 關한 事項. 第五條. 主殿課는 左의 事務를 掌함. 一, 宮第及昌德宮所在廳舍並其附屬物の 管守에 關한 事項. 二, 營繕에 關한 事項. 三, 衛生에 關한 事項. 第六條. 祭祀課는 左의 事務를 掌함. 一, 祭祀에 關한 事項. 二, 廟祭殿祭宮墳塋의 管守에 關한 事項儀式課는 左의 事務를 掌함. 一, 儀式에 關한 事項. 二, 賓客接待饗宴에 關한 事項. 第七條. 農事課는 左의 事務를 掌함. 一, 林業에 關한 事項. 二, 農場에 關한 事項. **三, 種馬牧場及乳牛場에 關한 事項.** 第八條. 掌苑課는 左의 事務를 掌함. 一, 博物館에 關한 事項. 二, 動物團에 關한 事項. 三, 庭園及植物苑에 關한 事項. 第九條. 李太王附職員은 左의 事務를 掌함. 一, 德壽宮의 身側에 關한 事項. 二, 德壽宮의 診候、調藥及衛生에 關한 事項. 三, 德壽宮의 供膳及饗宴에 關한 事項. 四, 德壽宮內人에 關한 事項. 五, 德壽宮의 庶務에 關한 事項. 六, 德壽宮內所在宮第廳舍並其附屬物の 管守에 關한 事項. 七, 其他德壽宮에 關한 一切事項. 第十條. 王世子附職員은 左의 事務를 掌함. 一, 昌德若宮의 身側에 關한 事項. 二, 昌德若宮의 診候調藥及衛生에 關한 事項. 三, 昌德若宮의 庶務에 關한 事項. 四, 其他昌德若宮에 關한 一切事項. 第十一條. 公族附職員은 各公族家の 庶務及會計를 掌함.

本職事務官多田恒等二十人並被免. 因官制改正也.

이왕직(李王職)의 사무분장(事務分掌) 규정을 개정한다.

【제1조 이왕직에 다음의 7개과(課)를 설치한다.

서무과(庶務課), 회계과(會計課), 주전과(主殿課), 제사과(祭祀課), 의식과(儀式課), 농사과(農事課), 장원과(掌苑課)

제2조 장시사(掌侍司)에서는 아래 사무를 맡아 함.

1. 창덕궁(昌德宮)의 측근에 관한 사항 2. 창덕궁(昌德宮)의 안부를 살펴 조약(調藥)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창덕궁(昌德宮)에 음식을 공급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창덕궁(昌德宮)의 내인(內人)에 관한 사항 5. 왕가(王家)의 강첩(講牒)과 사장(詞章), 고인(古印)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아래 1호(號)의 사항을 더함.

3. 위생에 관한 사항

제6조의 2 의식과(儀式課)에서는 아래 사무를 맡아 함.

1. 의식에 관한 사항. 2. 빈객(賓客)의 접대와 향연에 관한 사항

각 규정은 대정(大正) 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함】

본직(本職)의 개정된 사무를 분장하는 규정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이왕직에 아래와 같이 1사(司) 7과(課)의 장시사(掌侍司), 서무과(庶務課), 회계과(會計課), 주전과(主殿課), 제사과(祭祀課), 의식과(儀式課), 농사과(農事課), 장원과(掌苑課) 등을 설치한다.

제2조. 장시사(掌侍司)는 다음의 사무를 맡아함.

1. 창덕궁(昌德宮)의 측근에 관한 사항 2. 창덕궁(昌德宮)의 안부를 살펴 조약(調藥)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창덕궁(昌德宮)에 음식을 공급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창덕궁(昌德宮)의

내인(內人)에 관한 사항 5. 왕가(王家)의 강첩(講牒)과 사장(詞章), 고인(古印)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서무과(庶務課)는 다음의 사무를 맡아 함.

1. 직원의 진퇴와 신분(身分)에 관한 사항 2. 장관(長官)과 차관(次官)의 관인(官印)의 관리와 보관에 관한 사항 3. 궁규(宮規) 및 기타 중요한 공문서의 기초 및 심사(審査)에 관한 사항 4. 공문서류의 접수, 발송, 편찬, 보관 및 통계 보고에 관한 사항 5. 도서의 보관과 출판 및 종람(縱覽)에 관한 사항 6. 증답(贈答)에 관한 사항 7. 다른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조. 회계과(會計課)는 다음의 사무를 맡아 함.

1. 출납 및 용도에 관한 사항 2. 재산에 관한 사항 3. 미술 공장 및 마굿간에 관한 사항 4. 공가(公家)의 회계 감독에 관한 사항.

제5조. 주전과(主殿課)는 다음의 사무를 맡아 함.

1. 궁제 및 창덕궁(昌德宮)에 소재한 청사와 나란히 그 부속건물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에 관한 사항 2. 영선에 관한 사항 3. 위생에 관한 사항.

제6조. 제사과(祭祀課)는 다음의 사무를 맡아 함.

1. 제사(祭祀)에 관한 사항 2. 묘제(廟祭), 전제(殿祭), 궁(宮)의 선영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에 관한 사항. 의식과(儀式課)는 아래와 같이 사무를 맡아 함. 1. 의식(儀式)에 관한 사항 2. 빈객을 접대하는 향연에 관한 사항.

제7조. 농사과(農事課)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아 함.

1. 임업에 관한 사항 2. 농장에 관한 사항 3. **3. 종(種) 목마 및 우유장(牛乳場)에 관한 사항.**

제8조. 장원과(掌苑課)에서는 아래의 사무를 맡아 함.

1. 박물관에 관한 사항 2. 동물원에 관한 사항 3. 정원 및 식물원에 관한 사항.

제9조. 이태왕(李太王)에 딸린 직원은 다음의 사무를 맡아 함.

1. 덕수궁(德壽宮)의 신변과 측근에 관한 사항 2. 덕수궁(德壽宮)의 진후(診候)와 조약(調藥)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덕수궁(德壽宮)에 음식물을 공급하는 일과 향연(饗宴)에 관한 사항 4. 덕수궁(德壽宮)의 내인(內人)에 관한 사항 5. 덕수궁(德壽宮)의 서무에 관한 사항 6. 덕수궁(德壽宮) 안에 소재한 궁제(宮第), 청사(廳舍)와 함께 그에 부속된 건물 관리와 간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덕수궁(德壽宮)에 관한 일체 사항.

제10조. 왕세자에 딸린 직원은 다음의 사무를 맡아 함.

1. 창덕약궁(昌德若宮)의 신변과 측근에 관한 사항 2. 창덕약궁의 진후(診候)와 조약(調藥)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창덕약궁의 서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창덕약궁에 관한 일체 사항.

제11조. 공족(公族)에 딸린 직원은 각 공족 집의 서무와 회계를 맡아 함.

이왕직(李王職)의 사무관(事務官) 다전환[多田桓, 다다 칸] 등 20인이 모두 면직되었다. 관제(官制)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 ▶ 17권 19년 4월 2일(陽曆)

## 제 II 편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소(牛) 자료(2)

---

二日. 典醫金東錫等入診. 進御牛黃清心元.

전의(典醫) 김동석(金東錫) 등이 들어와 진료하였다. 우황청심원(牛黃清心元)을 드시게 하였다.



## 제Ⅲ편

#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이창언(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 해 제

### 1. 구성과 방법

소는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소가 우리의 생활문화에서 의·식·주의 물질적인 측면과 민간신앙 및 의례와 같은 정신적인 측면 모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민속에 국한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생업체계를 비롯하여 각종 의례, 신앙, 놀이, 설화, 민속예술 등에서 소가 언급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 속에서 소가 지닌 의미를 민속분야의 주제에 국한하여 파악하기 위함이 본 자료집의 목적이다. 소와 관련된 민속분야의 자료 집성을 위해서 이미 세시풍속과 설화를 중심으로 제1차년도 작업을 마친 바 있다. 이번 2차년도에서는 소와 관련된 지명, 속담, 해몽, 놀이 및 기타로 분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소와 관련된 지명에 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한글학회에서 1966년부터 20여년간에 걸쳐 발간한 『한국지명총람』을 참고하였다. 모두 20권으로 발간된 지명총람을 모두 살펴 소와 관련된 지명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한국지명총람(총20권)」, 한글학회, 1966-1986

- 제1권 : 한국 지명 총람 1 (서울편), 1966
- 제2권 : 한국 지명 총람 2 (강원편), 1967
- 제3권 : 한국 지명 총람 3 (충북편), 1970
- 제4권 : 한국 지명 총람 4 (충남편 상), 1974
- 제5권 : 한국 지명 총람 4 (충남편 하), 1974
- 제6권 : 한국 지명 총람 5 (경북편 1), 1978
- 제7권 : 한국 지명 총람 5 (경북편 2), 1978
- 제8권 : 한국 지명 총람 6 (경북편 3), 1979
- 제9권 : 한국 지명 총람 7 (경북편 4), 1979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제10권 : 한국 지명 총람 8 (경남편 1), 1979  
제11권 : 한국 지명 총람 9 (경남편 2), 1980  
제12권 : 한국 지명 총람 10 (경남편 3), 1980  
제13권 : 한국 지명 총람 11 (전북편 상), 1981  
제14권 : 한국 지명 총람 12 (전북편 하), 1981  
제15권 : 한국 지명 총람 13 (전남편 1), 1982  
제16권 : 한국 지명 총람 14 (전남편 2), 1982  
제17권 : 한국 지명 총람 15 (전남편 3), 1983  
제18권 : 한국 지명 총람 16 (전남편 4), 1984  
제19권 : 한국 지명 총람 17 (경기편 상), 1985  
제20권 : 한국 지명 총람 18 (경기편 하), 1986

이와 본 자료집을 통해 수집한 소 관련 속담, 해몽, 놀이와 기타 사항에 관해서는 소를 비롯한 우리 민족이 갖가지 동물을 속담에 인용한 『동물속담사전』을 비롯하여 주로 사전류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 송재선, 1997, 「동물속담 사전」, 동문선.  
김승호, 2008, 「꿈 해몽 대사전」, 선영사.  
김종덕, 2006, 「현대인을 위한 꿈 해몽」, KG북플러스.  
김종일, 2003, 「해몽 해몽법」, 삼한출판사.  
오재연 편저, 1998, 「꿈보다 해몽」, 동학사.  
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편, 1991, 『한국민속대사전』, 민족문화사.

## 2. 지명

소와 관련된 지명은 한국지명총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각 시·도별로 나누어진 전권 순서대로 정리하였고 세부적으로는 구·동·리 별로 순서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소와 관련된 지명은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2차년도 민속관련 자료집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소와 관련된 지명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해 있었고, 대상도 다양하였다. 작게는 바위나 못(池, 沼)과 같은 것에서부터 크게는 고개, 골짜기, 천(川), 마을, 행정구역 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소와 관련된 지명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지형이나 지세 및 풍수와 관련된 지명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와우산(臥牛山), 와우암(臥牛岩), 쇠뿔산, 우각리(右角里), 각산동(角山洞), 우복리(牛腹里), 쇠목여울, 우미동(牛尾洞), 명우산(鳴牛山) 등이 있다. 지형이나 지세가 소의 머리, 꼬리, 배, 뿔, 목 등 소의 일부분이나 소 전체와 형상이 유사하여 붙여진 지명이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듯하다.

둘째, 소와 관련된 실제 상황 혹은 실생활과 관련된 지명이 있다. 소가 많이 지나가서 소똥이 많다는 의미의 소똥고개, 우시장이 있던 쇠전거리, 소를 먹이던 풀이 많은 골짜기인 소땃골, 소를 묶어두었던 언덕배기인 소두둑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산적이 많아 날이 어두워지면 소를 몰고 가지 못하게 했던 우금고개(牛禁峙)도 있다. 이처럼 소와 관련된 실생활을 반영한 지명도 소를 닮은 지형이나 지세에 붙인 지명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지명이 있다. 의병이 소와 말을 먹이던 골짜기란 의미의 쇠물안골과 조선 중기 이괄의 난이 발생하자 난리를 피해 가다가 소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는 우성면(牛城面)이 이에 해당한다. 소와 관련된 지명 가운데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설화와 관련된 지명이 있다. 와우산의 소가 굴레를 벗어 두었다는 굴레방천과 소를 묶어 두었더니 이무기가 나와 소를 잡아먹고 사라졌다는 못을 가리킨 쇠목소 같은 지명이 이에 해당한다. 역시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 3. 속담 및 해몽

속담은 간단한 문구의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도덕적, 종교적, 철학적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속담을 구성하는 내용은 일상적인 내용, 비속한 내용, 교훈과 경계, 풍자와 냉소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sup>1)</sup>

무수히 많은 속담 중에서 동물을 소재로 다룬 동물속담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전체 속담 가운데 동물속담이 25%를 차지하고 있다.<sup>2)</sup> 김병웅은 한국에 25,557개의 속담이 있으며, 이 중에서 동물을 소재로 한 속담이 4,302개로 16.8%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속담의 소재가 된 동물 중에서 호랑이가 464개(10.8%), 개는 584개(13.3%), 소는 296개(6.9%)의 순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sup>3)</sup>

소와 관련된 속담을 성격별로 분류하면 농사 및 경제와 관련된 속담, 지능과 관련된 속담, 심성과 관련된 속담, 쉽고 어려움에 관련된 속담, 생태와 상황에 관련된 속담, 언어와 관련된 속담, 경거망동에 관련된 속담 등이 있다. 그런데 소와 관련된 속담은 개, 말, 돼지 등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표현하는 것이 많다. 즉, 소의 어리석음, 둔함, 고집스러움 등과 관련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sup>4)</sup>

속담에서 소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것은 설화 등에서 소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설화와 민요 등에서 다루어지는 소의 상징성은 충성심과 의로움, 사랑, 우직함과 순진함, 희생과 헌신, 힘과 창조적 에너지, 재생과 부활, 부와 풍요, 정직함, 깨달음, 미련함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sup>5)</sup> 이로써 설화에서 다루어지는 소의 상징성은 대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속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속담이 간결한 어구를 사용하여 주로 교훈과 경계, 풍자와 냉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꿈은 조상, 산소, 자식, 재물, 협조자, 사업체, 부동산을 상징한다고 한다.<sup>6)</sup> 꿈에 소를 보면 바로 조상이 무엇인가 후손에게 할 말이 있어서 나타난 것이고, 그의 태도에 따라서 자손은 장래를 점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체로 자손의 미래에 불길한 일이 있어서 알려 주려고 나왔다고 생각하기에 꿈에 소를 보면 근심이 생긴다고 하였다. 소는 재물의 상징으로 소가 꿈속에 집안으로 들어오거나, 끌어다 매는 꿈은 재물이 들어오는 꿈이고,

1) 유용현, 2000, 「한국동물속담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18쪽.

2) 유용현, 앞의 논문, 2쪽(이기문, 1997, 『속담사전』, 일조각 재인용)

3) 천진기, 1996, 「한국문화에 나타난 소의 상징성 연구」, 『소의 생태와 관련 민속』, 국립민속박물관, 27쪽 (김병웅, 1993, 「한국동물속담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재인용)

4) 천진기, 앞의 논문.

5) 김영민, 2000, 「소의 상징성 고찰: 소와 관련된 설화와 민요를 중심으로」, 『문화연구』 제4집, 한국문화학회. 한편 천진기는 소를 부, 풍요, 힘, 희생, 재물, 축귀, 순박, 근면, 우직, 충직, 여유, 한가함, 평화로움, 고집, 아둔함의 상징성을 가진다고 하였다(천진기, 위의 논문, 38쪽). 이를 통해서 소의 상징성은 부지런한 농민의 심성과 희망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천진기, 위의 논문, 32쪽(김민정·신임수, 1992, 『꿈풀이·복풀이』, 도서출판 대성, 재인용)

소가 꿈속에서 밖으로 나가거나 낭패와 곤란한 일을 당하면 불길한 징조이다. 소는 누렁소가 최상의 털색이다. 그 외에 검은 소, 점박이, 잡색의 소가 꿈에 나타나면 불길한 징조이다.<sup>7)</sup>

한편 소꿈은 집안에 임신부가 있을 경우에는 태몽이 될 수 있다. 태몽으로서 소꿈은 대부분 아들을 임신할 태몽이다. 아들일 경우 근면, 성실, 정직으로 자수성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모두 소의 긍정적인 상징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드물게 딸에 대한 태몽일 경우, 집안의 부를 일으키고, 남편을 출세시킬 현모양처를 낳을 꿈으로 해석된다. 태몽이 아닐 경우에는 앞서 보았듯이 소는 권세, 재물, 선물, 근면, 성실, 정직, 희망, 믿음, 협조 등을 상징한다. 또한 소꿈은 조상이나 자신과 관련되어 해석되기도 한다.

---

7) 천진기, 위의 논문, 32쪽.

## 4. 놀이

민속놀이는 예로부터 전승되어 온 다양한 종류의 경기, 오락, 연희, 곡예 등을 가리킨다. 민속놀이는 놀이 주체의 성격, 시기에 따라 집단적으로 행하는 놀이와 개인적 놀이, 세시놀이와 평상시 놀이 등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민속놀이는 행해지는 시기에 따른 계절성, 지역에 따라 놀이의 빈도와 내용을 달리하는 지역성, 그리고 예술성의 가미 정도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sup>8)</sup>

농경사회에서 장정 16명의 노동력과 맞먹는 힘을 발산하는 소가 농경세시와 관련하여 의례, 풍속, 놀이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셈이다. 한 해가 시작되는 정월에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예측하는 놀이와 행사가 집중되기 마련이다. 전통사회의 주요 생업이었던 농사에서 빠질 수 없는 구성 요소였던 소가 이러한 기풍의례와 놀이에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sup>9)</sup> 전통사회에서 민속놀이, 특히 집단적으로 행하고, 계절적인 주기성을 지니는 민속놀이는 세시풍속 혹은 농경세시와 깊은 관련성을 지녔다. 따라서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민속놀이는 전통사회에서 주요한 명절인 설과 정월, 단오, 추석의 세시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민속놀이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 본 소와 관련된 놀이로는 목우회, 소놀이, 소걸이, 소싸움, 소꼬리치기 등이 있다. 목우회는 쇠머리대기로도 알려져 있으며, 소놀이는 다시 소먹이 놀음과 입춘 소놀음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소먹이 놀음에서 대표적인 양주소놀이 곳은 중요무형문화재 70호로 지정되었으며, 봉산탈춤의 한 장면을 구성하는 소꼬리치기와 함께 예술성이 크게 가미된 형태이다.

목우회(木牛戯)는 입춘에 나무로 만든 소를 가지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풍속이다. 이는 설이나 입춘을 전후로 하여 농사의 시작과 권농을 알리는 일종의 상징적인 활동이다. 이처럼 목우회는 놀이라기보다는 정월이나 입춘을 맞이하여 정기적으로 행하는 의례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목우회는 다양한 형태의 놀이로 표현되기도 한다. 예컨대 경기도와 황해도 지방에서는 입춘이나 한가위에 소놀이를 한다. 이때 목우 대신에 한지와 형견 따위로 소 형상을 만들고 가족에 흠뻑 물감을 칠한 뒤 들기름을 먹인다. 그 안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소처럼 천천히 움직이면서 물이끈을 따라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그 뒤에는 농악대와 마을 사람들이 뒤따른다. 보통 부잣집을 찾아다니며 덕담을 하고 춤추고 놀면, 그 대가로 주인은 돈이나 술, 쌀 따위로 대접한다. 봄에 노는 소놀이가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라면, 한가위 때 소는 복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닌다. 소놀이는 지방에 따라 정월 대보름이나 팔월 보름에 행해지기도 하나, 본래는 입춘에 주로 행했다. 이처럼 놀이와 의례는 분리할 수 없으며, 놀이가 곧 의례가 되는 것이다.

---

8) 김용덕, 2004, 「민속놀이」, 『한국민속문화대사전』, 도서출판 창술, 710쪽.

9) 소와 관련되거나 소를 소재로 한 세시풍속에 관해서는 제1차년도 자료집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본 자료집에서는 생략하겠다.



이와 더불어 영산의 쇠머리대기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의례에서 변화된 놀이이다. 쇠머리대기는 쇠머리처럼 생긴 나무 조형물을 서로 부딪치며 노는 놀이로 중요무형문화재 26호로 지정되기 전에는 우전, 목우전, 나무쇠싸움, 쇠머리대기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지정 당시 영산쇠머리대기(木牛戰)로 결정되면서 쇠머리대기란 이름으로 고정되었다. 옛날에는 정월 대보름놀이로 즐겼으나, 현재는 3·1민속문화제 때 발표회를 겸한 연례행사로 치러진다.

목우회와 쇠머리대기가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의례적 성격이 짙었다면, 팔월 추석을 전후한 시기에 행하는 소놀이는 한 해 농사를 감사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추석 때 명석을 쓰고 소모양으로 치장하여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즐겁게 놀아주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놀이이다. 이는 농경사회의 필수 요소인 일꾼과 소의 노고를 위로하는 놀이로 소먹이놀이라고도 한다.

소싸움은 소와 관련된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두 마리 황소를 맞붙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다. 소를 중요한 생산수단으로 여겼던 전통사회에서 소싸움은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마을 또는 여러 마을에서 마을을 대표하는 소를 끌고 나와 연례적으로 벌인 소싸움은 경상남도 일원과 경상북도 청도 지역 등 이른바 가야문화권에서만 전승되어 있다.

## 자 료

### 1. 속담과 韓牛

<참고문헌>

「동물속담 사전」 송재선, 동문선, 1997

가다보면 중도 보고, 소도 본다.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일도 당하게 된다는 뜻.

가을 빛은 소도 잡아먹는다.

(1) 가을에는 빛을 얻어 쓰기가 쉬우므로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씹씹이가 헤쳐진다는 뜻.

(2) 가을에 가서 갯을 빛이라면 당장 먹을 것이 곤란한 판에 아끼지 말고 쓰자는 뜻.

가을에는 소 발자국에 고인 물도 먹는다.

가을은 하늘도 맑고 물도 맑기 때문에 고인 물도 깨끗하다는 뜻.

강물에 소 지나간 자리다.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뜻.

갯바치는 소 죽기만 고소원(固所願)한다.

갯바치는 소가죽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이야 어떻게 되든 제 욕심만 차리듯이, 무슨 일이 나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욕심을 내게 된다는 뜻.

· 갯바치 : 가죽신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 고소원 : 원래부터 바라던 일.

개울물에 소 건너간 자리다.

개울물에 소가 지나가도 흔적이 남지 않듯이, 무슨 일을 하였어도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뜻.

**개 잡아 할 잔치 소 잡아 한다.**

경비를 조금만 들여도 될 것을 공연히 많이 들여서 낭비를 한다는 뜻.

**개천에 든 소다.**

개천에 든 소는 양쪽 독의 풀을 먹을 수 있듯이, 매우 유리한 처지에 있다는 뜻.

**거들거리는 소는 받지 않는다.**

사람을 뜰 듯이, 거들거리는 소는 뜨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는 소가 뜬다는 뜻.

**걸음새 뜬 소가 천리를 간다.**

소 걸음은 비록 느리지만 쉬지 않고 꾸준히 가기 때문에 천리라도 가듯이, 일은 꾸준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

**검은 풀 먹이면 소 죽는다.**

검은 풀은 질소 성분이 많으므로, 이런 풀을 먹이면 체내에 질산염이 축적되고 중독을 일으켜 소가 약해지기 때문에, 인산과 가리분이 있는 사료가 요구된다는 뜻.

**겨울 소가 값은 떨어지고, 봄 소값은 오른다.**

농한기(農閑期)인 겨울에는 소를 부리지 않으므로 소 값이 떨어지고, 봄이 되면 소를 많이 부리기 되므로 값이 오르게 된다는 뜻.

**겨울 소띠는 팔자가 편하다.**

봄이나 여름철에 난 소띠는 팔자가 고되지만, 겨울철에 난 소띠는 팔자가 편하다는 뜻.

**겨울 소 팔자다.**

겨울 소는 놀면서 편하게 지내듯이, 일하지 않고 편하게 놀고먹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계집아이도 외양간 치는 것도 가르쳐 시집 보내됐다.**

농촌 처녀는 소 먹이는 것도 가르쳐서 시집을 보내야 한다는 뜻.

**고랑에 든 소다.**

고랑에 든 소는 양쪽에서 풀을 먹을 수 있듯이, 매우 유리한 처지에 있다는 뜻.

**고집이 소 고집이다.**

소처럼 고집이 매우 센 사람을 비유하는 말.

**관에 들어간 소 걸음이다.**

도살장에 죽으러 가는 소처럼 정신을 잃고 힘이 하나도 없다는 뜻.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관에 들어간 소 나오는 것 못 봤다.

한번 남의 손에 들어간 것은 되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

그들에 누운 여름 소 팔자다.

더운 여름 그들에 누운 소처럼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길마 무거워 소가 드러누울까?

(1) 큰일을 함에 있어서 힘은 들지만 참고 이겨내야 한다는 뜻.

(2) 남의 일을 쓸데없이 걱정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 길마 : 짐을 실으려고 소의 등에 얹는 안장.

길 터진 밭에 마소 안 들어갈까?(제주도)

(1) 입구를 터놓은 밭에는 마소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

(2) 바람기 있는 여자에게는 남자가 따르게 된다는 뜻.

꼬리 없는 소가 남의 소 등에 파리 쫓는다.

제 일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일을 거들어 주듯이, 주제님께 남의 일에 간섭하다는 뜻.

꿈에 백장을 보면 소가 죽는다.

불길한 꿈을 꾸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는 뜻.

나무는 소가 다 때고, 양식은 머슴이 다 먹는다.

쇠죽 주는 땀감이 밥하는 땀감보다 더 들고, 머슴이 밥을 많이 먹는다는 뜻.

날뛰는 소는 새끼로 묶어서는 안 된다.

포악한 사람은 엄벌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뜻.

남의 소 도망치는 것은 구경거리라고.

남의 소가 도망치는 것을 보고도 붙잡지 않고 구경만 하듯이, 남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보고만 있다는 뜻.

남의 소에 길마 얹는다.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이 엉뚱하게도 남의 일을 하였다는 뜻.

남이 둔 것은 소도 못 찾는다.(제주도)

남이 둔 물건은 큰 물건이라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뜻.

낮짜이 얼룩소 오줌 같다.

얼굴을 씻지 않아 더러운 사람을 비유하는 말.

**내일 쇠다리보다 오늘 개다리가 낫다.**

현실성이 없는 것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당장 가능한 것을 택하는 편이 낫다는 뜻.

**내일 쇠다리보다 오늘 메뚜기 다리가 낫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이득은 적지만 당장 손에 들어오는 것이 낫다는 뜻.

**네 담이 아니면 내 쇠뿔이 부러지랴?**

(1) 남의 탓으로 자기가 손해를 보았다는 뜻.

(2) 자기 잘못으로 입은 피해를 공연히 남에게 전가하는 뜻.

**네 쇠뿔이 아니면 내 담이 무너지랴?**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남만 원망한다는 뜻.

**네 쇠뿔이 아니면 내 쇠뿔이 부러지랴?**

자기도 책임이 있으면서 모든 책임을 남에게만 전가한다는 뜻.

**농사꾼은 아비 없이는 살아도 소 없이는 못 산다.**

예전에 농촌에서는 소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소가 소중하였다는 뜻.

**농우에는 누런 소를 기르고, 승마에는 흰 말을 기르랬다.**

누런 소는 힘을 여무지게 쓰기 때문에 농우에 좋고, 검은 소는 고기 맛이 있어서 육우에 좋다는 뜻.

**농우 팔아 세금 내고, 집 헐어 불 댄다.**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한 까닭에 농촌이 극도로 피폐되어 농민들이 이농을 하게 된다는 뜻.

**농아먹인 소다.**

배우지 못하여 예의범절과 버릇이 없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누렁소나 황소나.**

같은 일을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변명을 한다는 뜻.

**누운 소 똥 싸듯 한다.**

소가 누워서 똥을 싸듯이 무슨 일을 하는데 힘도 안 들이고 수월하게 한다는 뜻.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누운 소타기다.**

일하기가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이루어진다는 뜻.

**누워서 찌르는 소다.**

소는 누워서도 뿔로 받듯이, 보기에는 맥을 놓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나운 사람이라는 뜻.

**눈 먼 소에 멍에가 아홉이다.**

눈 먼 소라고 업신여겼던 소가 부리기에 좋듯이, 업신여겼던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뜻.

**느린 소도 성낼 때가 있다.**

동작이 느리고 성미가 부드러워 보이는 소도 성을 낼 때가 있듯이, 마음씨 고운 사람도 화를 낼 때가 있다는 뜻.

**단김에 쇠뿔 뺀다.**

일이 성숙되었을 때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빨리 해치우라는 뜻.

**단 쇠뿔 뺐듯 한다.**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빨리 해치우라는 뜻.

**닭 잡아 잔치할 것 소 잡아 잔치한다.**

(1) 간단히 할 일을 크게 벌인다는 뜻.

(2) 적은 경비로도 될 일을 지나치게 낭비한다는 뜻.

**담 허물어진 밭에 우마 안 들어갈까?(제주도)**

제주도 밭 둘레에 친 담이 허물어지면 우마가 들어가듯이, 집 단속을 하지 않으면 도둑이 들게 된다는 뜻.

**대감댁 소는 백장 무서운 줄 모른다.**

대감집 소는 대감의 세력을 믿고 백장을 무서워하지 않듯이, 권세를 가진 고관의 아랫사람들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한다는 뜻.

**더위 먹은 소는 달만 봐도 허덕인다.**

여름 햇볕에 더위를 먹은 소는 달만 봐도 겁을 먹듯이, 사람도 어떤 것에 놀라면 그와 유사한 것만 봐도 놀라게 된다는 뜻.

**덴 소 날뛰듯 한다.**

물인지 불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날뛰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도깨비도 숲이 있어야 모이고,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무슨 일을 하려면 의지할 곳이 있어야지 혼자서는 못한다는 뜻.

**도랑에 든 소다.**

도랑에 든 소는 양쪽 독에서 풀을 먹을 수 있듯이, 매우 유리한 곳을 차지하였다는 뜻.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걸음이다.**

근심과 공포에 떨면서 억지로 끌려 들어간다는 뜻.

**도살장에 들어가는 소 상이다.**

도살장에 죽으러 가는 소와 같이 절망에 빠졌다는 뜻.

**도살장에서 불쌍한 소를 잡지 말라는 격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로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는 뜻.

**독 안에서 소잡기다.**

미련하고 소견 없는 짓을 한다는 뜻.

**동상갑冬上甲에 비가 오면 우마가 동사한다.**

동지가 지난 첫 갑일인 12월 하순경에 비가 오는 것은 기온이 하강하여 혹한이 도래할 징조라는 뜻.

**동쪽 놀에는 냇가에 소를 매지 말랬다.**

노을은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에 햇빛이 비쳐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아침에 동쪽으로 노을이 끼면 동쪽은 맑지만 서쪽은 저기압성 기류가 다가와 비가 올 징조이므로 소를 강가에 매지 말라는 뜻.

**되는 집에는 소도 대우만 낳는다.**

잘 되는 집안에서는 소가 새끼를 낳아도 큰 소가 될 좋은 송아지를 낳듯이, 복이 있는 집은 무슨 일이나 다 잘된다는 뜻.

**되는 집에는 암소가 셋이고, 안 되는 집에는 계집이 셋이다.**

집안이 잘 되는 집은 암소가 여러 마리라 새끼를 많이 나서 땅을 사게 되지만, 첩 많은 집은 가정불화로 집안이 망하게 된다는 뜻.

**두 동서 사이에 산 쇠다리 벤다.**

다정한 두 동서는 산 쇠다리도 슬쩍 베듯이, 두 사람이 매우 정다운 사이라는 뜻.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들 적 며느리요, 날 적 소다.**

며느리는 시집을 오면 일만 하게 되고, 소는 들에만 가면 일을 하게 된다는 뜻.

**똥구멍 찢린 소 뛰듯 한다.**

돌연히 똥구멍을 찢린 소가 날뛰듯이, 겁을 먹고 날뛰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뛰는 소는 눈을 보고, 뜯 소는 뺨을 보랬다.**

사나운 소를 부릴 때는 소의 동작을 주의 깊게 감시하라는 뜻.

**마른 소에 파리 쫓는다.**

없는 놈은 만만하여 아무나 덤벼든다는 뜻.

**만 마리의 소도 못 당할 고집이다.**

쇠고집보다 몇 천 배나 셀 정도로 강한 고집의 소유자라는 뜻.

**말같이 먹고, 소같이 마신다.**

음식을 말같이 많이 먹고, 국이나 물을 소같이 많이 마신다는 뜻.

**말 없는 소가 성낸다.**

말 없는 사람이 말 많은 사람보다 더 무섭다는 뜻.

**말 없는 양반이 소 탄다.**

할 말을 하지 않고 점잔만 빼는 사람은 남들이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뜻.

**먹다가 죽은 대장부나, 발갈이하다 죽은 소나.(제주도)**

죽는 마당에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라는 뜻.

**먹성 좋은 소가 부리기도 좋다.**

소는 먹성이 좋아야 살도 찌고 힘도 세어서 부리기가 좋다는 뜻.

**먹성 좋은 소가 살도 찢다.**

소는 먹성이 좋아야 살도 찌고 힘도 세어서 부리기가 좋다는 뜻.

**먹은 소가 기운도 쓴다.**

음식을 넉넉히 먹어야 힘든 일도 잘 할 수 있다는 뜻.

**먹은 소가 똥도 누고, 든 들에 낮 붉게 마련이다.**

무슨 일이나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뜻.

**먹은 소가 똥도 썩다.**



(1) 소도 먹은 것이 있어야 똥을 누듯이, 밀천이 있어야 돈도 벌 수 있다는 뜻.

(2)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게 된다는 뜻.

**며느리는 소 잘 되는 집에서 얻으랬다.**

농촌 며느리는 농사일뿐만 아니라, 가축에도 식견이 있는 여자를 데려와야 한다는 뜻.

**목 마른 소 우물 들여다보듯 한다.**

목 마른 소가 우물을 들여다보면서 먹을 수 없어 애만 태우듯이, 되지도 않을 일을 멍청하게 기다린다는 뜻.

**목초牧草가 짧으면 소 턱이 부딪쳐 붓는다.**

목초가 짧으면 소가 풀을 뜯을 때 소 턱이 지면에 부딪쳐서 붓게 되므로 목초는 잘 키워야 한다는 뜻.

**무지개가 서쪽에 서면 강 건너에 소를 매지 말랬다.**

무지개가 서쪽에서 뜨는 날 아침에는 비가 오므로 소를 강 건너에 매지 말고 집 가까이 매라는 뜻.

**물 많이 먹은 소가 오줌도 많이 누다.**

(1) 죄진 사람이 별도 받게 된다는 뜻.

(2) 빳진 사람은 반드시 갚게 된다는 뜻.

**바늘도둑이 따로 있고, 소도둑이 따로 있다.**

좀도둑은 언제나 좀도둑질을 하게 되고 소도둑은 언제나 소도둑을 하듯이, 도둑도 처음에 배운 대로 한다는 뜻.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도둑질도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숙달이 될수록 점점 큰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뜻.

**방둥이 부러진 소 사돈 아니면 못 팔아먹는다.**

나쁜 물건을 속여서 파는 데는 친한 사람을 속이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뜻.

**발갈이 못하는 소가 멍에 나무란다.**

실력 없는 사람이 언제나 이러저러한 핑계를 잘 낸다는 뜻.

**발갈이 하는 소가 밭을 훑으면 비가 온다.**

고온다습한 저기압일 때는 산소 농도가 희박해지고 소도 피곤하여 혀로 밭을 훑는데, 이는 비가 올 징조라는 뜻.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발갈이하다 죽은 소나, 놀다 죽은 염소나, 죽으면 저승가기는 일반이다.**

일하다 죽은 사람이나 편히 놀다 죽은 사람이나 죽기는 매일반이라는 뜻.

**발담 터지면 소 든다.(제주도)**

제주도 발 주위에 친 돌담이 무너지면 마소가 들어가게 되므로 돌담에 유의하라는 뜻.

**백장집 소는 저 죽을 날 모른다.**

백장집 소는 잡으려고 사온 소이기 때문에 죽음은 기정사실이지만 시일은 모르듯이,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뜻.

**벼락 맞은 소고기 나누어 먹듯 한다.**

임자 없는 물건은 아무나 나누어 가지게 된다는 뜻.

**벼락 맞은 소고기 뜯어먹듯 한다.**

임자도 모르는 벼락 맞은 소의 고기 뜯어먹듯이, 빨리 먹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뜻.

**보지 못하는 소에 멍에가 아홉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뜻.

**봄바람이 소를 넘어뜨린다.**

봄바람은 소를 넘어뜨릴 정도로 세다는 뜻.

**봄 소띠는 고되고, 겨울 소띠는 편하다.**

소해(牛年)에 태어난 사람 중 생일이 봄이면 봄의 소처럼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생일이 겨울이면 겨울의 소처럼 신세가 편하다는 뜻.

**부자집 소 개비하듯 한다.**

부자집은 돈이 넉넉하기 때문에 소를 살 때 좋은 것을 사서 늙을 때까지 부리게 되므로 오래 기른다는 뜻.

**불 난 강변에 텐 소 날뛰듯 한다.**

불에 텐 소가 날뛰듯이, 무슨 일을 당황하며 한다는 뜻.

**불 탄 쇠가죽 오그라지듯 한다.**

쇠가죽을 불에 구우면 몹시 오그라지듯이, 무슨 일이 펴지지 않고 오그라들기만 한다는 뜻.

**비 오는 날 쇠꼬리 같다.**

비에 젖은 쇠꼬리를 이리저리 젖듯이, 아무 주견도 없이 이리저리 흔들어진다는 뜻.

**비지 먹은 소 배때기다.**

배가 불룩한 사람을 놀리는 말.

**빈 외양간에 소 들어간다.**

가난한 집에서 모처럼 외양간에 소를 매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뜻.

**빈집에도 소 들어갈 날 있다.**

없는 사람도 형제하여 잘 살 날이 있다는 뜻.

**빠른 소나 느린 소나, 웅덩이가기는 일반이다.**

빨리 가는 소나 느리게 가는 소나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목적지에 가기는 마찬가지로라는 뜻.

**뿔 바로잡으려다가 소 잡는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뜻.

**뿔 빠진 쇠 상이다.**

중요한 것을 빼앗기면 모양이 불품없고 괴상하다는 뜻.

**뿔 빠진 암소 같다.**

뿔이 빠진 암소처럼 불품없는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사돈과 소를 어울려 탄 것 같다.**

사돈과는 서로 어려운 사이인데 소를 함께 타듯이, 매우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라는 뜻.

**사지四肢가 흰 소를 먹이면 주인이 해롭다.**

네 발이 흰 소를 먹이면 주인을 해치게 된다는 뜻.

**산 소 한 마리는 먹어도 죽은 소 한 마리는 못 먹는다.**

산 소는 똥만 버리고는 다 먹지만, 병든 소의 고기는 병든 곳은 버리게 되므로 다 못 먹는다는 뜻.

**살림이 거덜나게 되면 봄에 소 판다.**

패가하는 농가는 소를 한창 써야 할 봄철에 팔게 된다는 뜻.

**삶은 소가 옷다가 꾸레미 터지겠다.**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라 가소로워서 말도 할 수가 없다는 뜻.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꾸레미 : 소를 부릴 때 풀을 못 뜯어먹게 하기 위하여 주둥이에 씌우는 부리망의 방언

**삶은 소 대가리가 웃겠다.**

어떤 일이 지나치게 사리에 어긋나 삶은 소가 웃을 지경이듯이, 무슨 일이 지나치게 경우에 어긋난다는 뜻.

**새 잡아 할 잔치를 소 잡아 한다.**

경비를 조금 들이고도 할 일을 공연히 경비를 많이 들여서 낭비한다는 뜻.

**새 풀에 소 살찐다.**

겨울철에 건초만 먹을 때보다 봄철에 새 풀을 먹으면 비타민과 영양분이 많이 위의 기능도 활발해져 살이 찐다는 뜻.

**서쪽에 무지개가 뜨면 강 건너 소 물고 오랬다.**

서쪽에서 무지개가 뜨면 큰비가 오게 되므로 홍수가 있기 전에 미리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라는 뜻.

**서 푼짜리 소는 이빨도 들쳐보지 말랬다.**

너무 값이 싼 물건은 보지도 말라는 뜻.

**섬 속에서 소 잡는다.**

(1) 되지도 않은 일을 소견 없이 한다는 뜻.

(2) 소견이 없어 답답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

**소가 개 보듯 한다.**

소가 개를 보듯이, 무엇을 무심하게 본다는 뜻.

**소가 건너간 풀이다.**

쇠고기 국에 고기는 한 점도 없고 멸건 국물만 그득하다는 뜻.

**소가 굵으로 흙을 뿌리면 비가 온다.**

소가 굵으로 흙을 파서 사람에게 뿌리면 비가 올 징조라는 뜻.

**소가 길마 무서워 드러누울까?**

소가 늘 하는 길마질을 무서워하지 않듯이, 사람도 늘 하는 일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뜻.

**소 가는 데 말도 간다.**

소 가는 길이면 말도 갈 수 있듯이, 서로 잘 통하는 사이라는 뜻.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 잡는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공교롭게도 잘 이루어졌다는 뜻.

**소가 말은 못해도 열두 가지 덕은 있다.**

덕 있는 사람은 말없이 행동이 앞선다는 뜻.

**소가 밝아도 꿈쩍없다.**

(1) 어떤 물건이 매우 튼튼하다는 뜻.

(2) 매우 건실하고 믿음성이 있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소가 산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 뇌우가 온다.**

소는 기압 변화에 예민하기 때문에 뇌우가 올 징조가 있으면 높은 산에서 낮은 지대로 내려온다는 뜻.

**소가 새끼 나면 원 새끼를 외양간에 쳐서 부정을 막는다.**

소도 새끼를 나면 금줄을 외양간에 쳐서 부정을 막아 주어야 송아지가 잘 큰다는 뜻.

**소가 새끼 난 지 사흘 안에는 외양간에 타인은 못 들어가게 한다.**

어미 소와 송아지가 놀라거나 부정을 탈 수 있으므로, 소가 새끼를 난 지 사흘 안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뜻.

**소가 새끼 난 지 이레 안에 간장을 남에게 주면 어미젖이 마른다.**

가축이 새끼 난 지 일주일 이내에 간장을 남에게 주면 어미의 젖이 마르므로 주지 말라는 뜻.

**소가 새끼 난 지 이레 안에 상주가 외양간에 가면 부정 탄다.**

소가 새끼를 난 지 일주일 이내에 상주가 외양간에 들어가면 송아지가 부정을 타서 잘 자라지 못한다는 뜻.

**소가 새끼 낳 때 여자가 보면 나쁘다.**

소가 새끼를 낳는데 여자가 참견하면 송아지에게 해롭다는 뜻.

**소가 새끼를 나면 바로 그 태반을 썰어서 어미를 먹인다.**

어미 소에게 태반을 먹여야 살이 찌고 젖이 많이 난다는 데서 유래된 말.

**소가 앞발로 흙을 제 등에 뿌리면 비가 온다.**

소가 발굽으로 흙을 파서 등에 뿌리면 비가 올 징조라는 뜻.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소가 여우보다 낫다.**

- (1) 여우는 변덕스러워서 믿지 못하지만, 소는 굼뜨기는 하나 믿음성이 있어서 낫다는 뜻.
- (2) 간사한 여자보다 말없는 여자가 낫다는 뜻.

**소가 울면 들릴 거리다.**

소의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는 뜻.

**소가 웃다가 코뚜레 터지겠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보았을 때 하는 말.

**소가 웃을 일이다.**

소가 웃을 정도로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뜻.

**소가 제 덕석 뜯어먹기다.**

소가 추울 때 덮는 제 덕석을 뜯어먹듯이, 자신이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한다는 뜻.

**소가 쥐구멍에 들어가는 격이다.**

- (1) 도저히 되지도 않을 일을 망상한다는 뜻.
- (2) 소견이 너무도 없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소가 크다고 왕 노릇할까?**

소가 크다고 왕 노릇을 하지는 못하듯이, 힘만 세다고 무슨 일이나 다 할 수는 없다는 뜻.

**소가 푸줏간 들어가듯 한다.**

- (1) 소가 죽으러 푸줏간에 끌려가듯이, 몹시 겁을 낸다는 뜻.
- (2) 낙망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

**소가 하품하고, 개가 웃을 일이다.**

가당치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는 뜻.

**소가 힘 세다고 왕 노릇할까?**

무슨 일이나 순리대로 해야지 완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

**소 살 데 말 갈 데 다 다녔다.**

- (1)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다녔다는 뜻.
- (2) 무슨 일이나 가리지 않고 한다는 뜻.

**소 값을 물어서 말 값을 안다.**

소 값을 알게 되면 그 값으로 미루어 말 값도 짐작할 수 있듯이, 간접적으로 물정을 알아본다는 뜻.

**소 같고, 곰 같다.**

고집이 소와 같고, 미련하기는 곰과 같다는 뜻.

**소같이 마시고, 말같이 먹는다.**

음식을 폭음 폭식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

**소같이 먹는다.**

소와 같이 음식을 많이 먹는 대식가를 비유해서 이르는 말.

**소같이 별어서 쥐같이 먹어라.**

소같이 일은 많이 하고 음식을 아껴먹으면 살림이 윤택해진다는 뜻.

**소같이 일한다.**

소처럼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한다는 뜻.

**소 건너간 물로 끓인 국이다.**

(1) 쇠고기국에 고기는 없고 멸건 국물만 있다는 뜻.

(2) 감옥에서 명절 때 쇠고기국이라고 주는 국에 고기는 없고 멸건 국물만 있는 것을 이르는 말.

**소 걸음이다.**

소가 느릿느릿 걸으면서도 꾸준히 걷듯이, 빨리는 가지 않아도 꾸준히 걷는다는 뜻.

**소고기는 겨울이 돼야 제 맛이 난다.**

여름 소의 고기는 풀만 먹었기 때문에 고기에서 풀내가 나지만, 겨울에는 콩깍지 · 여물 · 겨 등을 먹기 때문에 풀내가 없어지고 제 맛이 난다는 뜻.

**소고기 열 점이 새고기 한 점만 못하다.**

쇠고기 열 점보다 참새고기 한 점이 더 맛이 있듯이,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좋다는 뜻.

**소 고삐가 길면 잡힌다.**

나쁜 짓을 끊지 않고 오래하면 잡힌다는 뜻.

**소 고집에 닭 고집이다.**

소의 고집이나 닭 고집은 못 고치듯이, 고집이 매우 센 사람을 비유하는 말.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소 과줄 먹는 격이다.**

(1) 분에 넘치는 짓을 하였다는 뜻.

(2)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뜻.

\* 과줄 : 밀가루를 기름과 꿀에 반죽한 뒤 과줄판에 박아서 기름에 지진 유밀과.

**소 귓소리 들듯 한다.**

뜻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듣는다는 뜻.

**소 궁둥이에 꼴던지이다.**

소 궁둥이에 꼴을 던져 주면 소가 먹지 못하듯이, 일머리를 모르고 하는 일은 헛수고라는 뜻.

**소 귀는 편편해야 성미가 순하고, 돼지 귀는 아래로 처져야 성미가 순하다.**

귀가 편편하게 생긴 소가 뜨지 않고 순하며, 돼지는 귀가 아래로 처진 것이 성미가 순하여 기르기가 편하다는 뜻.

**소 귀는 편편해야 성미가 순하다.**

귀가 좁게 말린 소는 성미가 순하지 못하고, 편편한 소는 순해서 기르기가 좋다는 뜻.

**소 귀신보다 질기다.**

고집이 센 소 귀신처럼 고집불통이라 상대할 수 없다는 뜻.

**소 귀에 경읽기다.**

소에게 경을 읽어 주어도 알 리가 없듯이, 아무런 성과 없는 일을 한다는 뜻.

**소금 먹은 소가 물도 켜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도 있다는 뜻.

**소금 먹은 소, 술 우물 들여다보듯 한다.**

(1)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골몰하게 생각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

(2) 일을 하지 않고 보기만 한다는 뜻.

**소금 먹은 소가 물 켜듯 한다.**

소금을 먹은 소가 물을 먹듯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게 된다는 뜻.

**소 꼬리보다 닭 대가리가 낫다.**

큰 집에서 하인 노릇을 하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편이 낫다는 말.

**소 꿈은 선조先朝 만난 꿈이다.**



소 꿈을 꾸는 사람은 꿈에서 그 선조를 만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농민들이 소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뜻.

**소 꿈을 꾸면 길하다.**

소는 믿음직한 동물이기 때문에 꿈에 보아도 길하다는 뜻.

**소 꿈을 꾸면 재수가 좋다.**

꿈에 소를 보는 것은 길몽이라는 뜻.

**소나 말이 기린 될까?**

본래 타고난 바탕은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다는 뜻.

**소는 검정 소고기가 맛이 있고, 개는 흰 개 고기가 맛이 있다.**

쇠고기는 검은 소의 고기가 맛이 좋고, 개는 흰 개 고기가 맛이 좋다는 말.

**소는 귀가 있어도 듣기는 코로 듣는다.**

소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코로 듣는다는 옛말에서 유래된 말.

**소는 농가에 밀천이다.**

농가에서 소는 땅 다음 가는 큰 밀천이라는 뜻.

**소는 농가에서 땅 다음 가는 재산이다.**

예전에는 농가의 재산목록에서 1호가 토지이고 2호가 소였다는 뜻.

**소는 농가의 조상이다.**

소는 농가에 소중한 존재이므로 조상 모시듯이 잘 사육하라는 뜻.

**소는 눕는 것을 좋아하고, 말은 서는 것을 좋아한다.**

소는 누워 있는 것을 좋아하고, 말은 반대로 서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

**소는 누워 기르고, 말은 세워 기른다.**

소의 습성은 누워 있기를 즐기고, 말은 서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

**소는 닭을 보지 못한다.**

소 눈에 닭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는 닭을 보아도 본 체하지 않는 데서 유래된 말.

**소는 몰아야 잘 가고, 말은 끌어야 잘 간다.**

소는 뒤에서 몰아야 잘 가고, 말은 앞에서 끌어야 잘 간다는 뜻.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소는 믿고 살아도 좋은 믿고 못 산다.**

- (1) 소는 미련하여도 믿음성은 있다는 뜻.
- (2) 좋은 주인에게 아침을 하기 때문에 믿음성이 없다는 뜻.

**소는 믿어도 사람은 못 믿는다.**

- (1) 소는 미련스럽기는 하지만 성격이 순박하여 믿음성이 있다는 뜻.
- (2) 순박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성이 없다는 뜻.

**소는 바깥주인을 따르고, 개는 안주인을 따른다.**

소 먹이는 바깥주인이 주기 때문에 소는 바깥주인을 따르고, 개밥은 안주인이 주기 때문에 개는 안주인을 따르게 된다는 뜻.

**소는 보고, 양은 보지 못했다.**

큰 소는 보고 작은 양은 보지 못하듯이, 작은 것에 대해서는 실수할 때가 있다는 뜻.

**소는 뿔만 봐도 안다.**

소의 특징은 뿔이기 때문에 뿔만 보아도 소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어떤 것이나 그 특징 하나만 봐도 전체를 알 수 있다는 뜻.

**소는 뿔을 아낀다.**

소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뿔을 아끼듯이, 누구나 자기의 소중한 것은 아끼게 된다는 뜻.

**소는 움직이면 똥을 쐈다.**

소는 움직일 때면 똥을 싸듯이 일을 하면 흔적이 남게 된다는 뜻.

**소는 입이 넓죽해야 살이 쥘다.**

소의 입은 넓죽하게 생겨야 먹성 좋고 살도 찌서 부리기에 좋다는 뜻.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한다.**

소와 닭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대하듯이, 서로 이해관계가 없으면 무관심하게 된다는 뜻.

**소 닭 보듯 한다.**

소가 닭을 무심히 보듯이,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이는 무관하게 된다는 뜻

**소더러 한 말은 안 나도, 처(妻)더러 한 말은 난다.**

여자에게 한 말은 비밀이 보장되기가 어렵다는 뜻.

**소도 대우大牛라면 좋아한다.**

소도 큰 소라고 부르면 좋아하듯이, 사람도 존대해 주면 좋아한다는 뜻.

**소도둑 맞고는 살아도, 줌도둑 맞고는 못 산다.**

큰 도둑은 한 번 맞고 살지만, 줌도둑을 자주 맞고는 못 산다는 뜻.

**소도 먹어야 똥을 쉰다.**

먹으면 으레 똥을 싸듯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된다는 뜻.

**소 앞에서 한 말은 안 나도, 어미한테 한 말은 난다.**

소는 말을 못하니까 옮기지 못하지만, 여자는 참지 못하고 말을 누설한다는 뜻.

**소에게 거문고 소리 들려주기다.**

(1) 둔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는 뜻.

(2) 아무런 성과도 없는 일을 한다는 뜻.

**소에게 물리고, 말에게 뜨였다.**

(1) 착각하고 있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2) 문제를 반대로 해석한다는 뜻.

**소에게 물린 것 같다.**

사실이라도 남들이 믿어 주지 않는 말은 할 수가 없다는 뜻.

**소에게 염불하기다.**

무슨 일을 하여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헛된 일을 한다는 뜻.

**소에게 한 말은 안 나도 아내에게 한 말은 난다.**

(1) 여자는 비밀을 지키기 어렵다는 뜻.

(2) 비밀을 못 지키는 사람은 소만도 못하다는 뜻.

**소에 붙은 진드기는 잡아도, 숨은 서캐는 못 잡는다.**

보이는 도둑은 잡아도 숨은 도둑은 못 잡는다는 뜻.

**소 오줌에 말똥이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뜻.

**소 옹두리 우리듯 한다.**

(1) 소의 옹두리뻘을 우리듯이, 폭 우린다는 뜻.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2) 무슨 일을 오래 두고 처리한다는 뜻.

\* 옹두리 : 옹두리뻘, 짐승의 정강이에 불통하게 나온 뻘.

**소와 돼지를 한우리에서 기르면, 소는 마르고 돼지는 살찐다.**

소와 돼지를 한우리에서 기르면, 소는 마르고 돼지는 살이 찌게 되므로 소와 돼지는 우리를 따로 해서 길러야 한다는 뜻.

**소와 염소가 산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 뇌우가 있다.**

소나 염소 같은 동물은 기압 변화에 예민하기 때문에 저기압이 되면 산에서 낮은 곳으로 피한다는 뜻.

**소와 염소를 함께 기르면 소가 살찌지 않는다.**

소와 염소를 한데 기르면 염소의 노린내로 인하여 소가 마르게 된다는 뜻.

**소와 천리마의 동행이다.**

느린 소와 빠른 천리마는 동행할 수 없듯이, 상대가 안 된다는 뜻.

**소 우는 데 소 간다.**

소가 울면 소가 가듯이, 사람도 서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친하게 된다는 뜻.

**소 잃고 소 찾는다.**

큰 손해를 보고 적은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손해가 많다는 뜻.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 잃고 난 뒤에 외양간을 고치듯이, 일을 그르친 뒤에 대책을 세운다는 뜻.

**소 잃은 놈은 소 찾고, 말 잃은 놈은 말 찾는다.**

물건을 잃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물건을 먼저 찾으려고 한다는 뜻.

**소 입에서 소 말 나오고, 개 입에서 개 말 나온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인품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

**소 잡아 대접할 손님 있고, 닭 잡아 대접할 손님 있다.**

손님에 따라서 대접도 다 각각 다르게 한다는 뜻.

**소 잡아먹겠다.**

소를 잡으려면 칼이 잘 들어야 하는데, 몹시 무딘 칼로 일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

**소 잡아먹고 동네 인심 잃는다.**

(1) 인색한 행동을 하면 남에게 인심을 잃게 된다는 뜻.

(2) 음식을 혼자서 먹으면 인심을 잃게 된다는 뜻.

**소 잡아먹는 물귀신이다.**

소 잡아먹는 물귀신이 소를 잡아 싫도록 먹듯이, 실속 있는 행동만 한다는 뜻.

**소 잡아먹는 흔적은 없어도, 게 잡아먹는 흔적은 있다.**

(1) 소는 잡으면 버릴 것이 없어서 먹어도 흔적이 없지만, 게는 버릴 것이 많아서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뜻.

(2) 큰일은 아무 말 없이 잘하는데, 사소한 일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

**소 잡아먹을 궁리만 한다.**

큰 소를 남들이 모르게 잡아먹으려고 속으로 꿩꿩이 궁리만 한다는 뜻.

**소 잡아 잔치할 것을 새 잡아 잔치한다.**

(1) 경비를 많이 들어서 할 일을 경비를 적게 들여 알뜰하게 한다는 뜻.

(2) 푸짐하게 할 잔치를 절약하여 간소하게 하듯이, 예상외로 경비를 많이 절약하였다는 뜻.

**소 잡아 제사 지내려고 하지 말고, 살아서 닭 잡아 봉양하랬다.**

부모가 죽은 뒤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서 불효 노릇이나 하지 말라는 뜻.

**소 잡은 자리는 없어도, 게 잡은 자리는 있다.**

소는 잡으면 똥밖에 버릴 것이 없는데, 버린 똥도 거름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흔적이 없지만 게는 먹고 나면 껍질을 버리므로 흔적이 남듯이, 흔적을 남기는 것은 물체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에서 결정된다는 뜻.

**소 잡은 집 마당에 개 모이듯 한다.**

소 잡은 집에 비린내를 맡은 개가 모이듯이, 잔칫집이나 곱한 집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비유하는 말.

**소 잡은 집에 장이 손해 간다.**

모든 일은 주모자 되는 사람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하게 된다는 뜻.

**소 잡은 칼로 닭 잡는다.**

일하는 도구를 너무 큰 것으로 사용하여 역효과를 낸다는 뜻.

**소 장화 신고 건너간 물이다.**

감옥에서 명절 때면 주는 고깃국에, 고기는 없고 기름과 채소 몇 조각만 떠 있는 멀건 국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을 풍자적으로 이르는 말.

**소 저 죽는지 모른다.**

- (1) 죽음을 미리 아는 사람은 없다는 뜻.
- (2) 소는 저 죽는 줄 모르고 죽도록 일만 한다는 뜻.

**소전은 노름전이다.**

장날 소전의 한쪽에서 으레 노름판이 벌어진 데서 유래된 말.

**소 젓꼭지는 붉어서 새끼를 잘 낳는다.**

소는 유방이 발달되고 젓꼭지가 붉어야 건강하며, 이런 암소는 새끼를 잘 낳는다는 뜻.

**소 좋은 것하고 과부 좋은 것은 동네에서 나가지 않는다.**

좋은 소는 판다고 하면 장에 가지 않아도 동네 사람이 사게 되고, 암전한 과부는 외부로 시집가기 전에 동네 홀아비가 차지하듯이, 좋은 물건은 살 사람이 많아서 제자리에서 잠깐 동안에 다 팔린다는 뜻.

**소 주둥이는 넓죽해야 먹성이 좋다.**

소 주둥이가 넓죽하면 먹성이 좋아서 살이 찐다는 뜻.

**소 죽 술에 달걀 삶아먹기다.**

무슨 일을 할 때 결들여서 하면 손쉽게 할 수 있다는 뜻.

**소 죽은 귀신이다.**

말도 하지 않고 미련을 부리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소 죽은 녀이다.**

소 죽은 녀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몹시 미련하다는 뜻.

**소 타고 소 찾는다.**

소를 타고 소를 찾듯이, 정신 없는 사람을 야유하는 말.

**소 탄 양반 꼬덕꼬덕, 말 탄 양반 꼬덕꼬덕**

옛날 양반은 말을 하면 이래도 저래도 그저 고개만 꼬덕꼬덕했다는 데서 유래된 말로서, 분명한 결론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

**소 탄 양반이 송사 결정한다.**

외모는 보잘것 없으나 송사의 판결은 명철하다는 뜻.

**소 털 뽑아 제 구멍에 꼽기다.**

- (1) 소견과 융통성이 없는 답답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
- (2) 일을 창발적으로 못하고 기계적으로 하여 진척이 없음을 비유하는 말.

**소 팔러 가는 데 개 따라가듯 한다.**

남의 일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참견한다는 뜻.

**소 팔러 가는 집에 여자가 들어오면 나쁘다.**

소를 팔러 가는데 여자가 참견하면 소 매매에 불리하게 된다는 뜻.

**소 팔아 쇠고기 사먹는다.**

큰 것을 잃고 적은 이득을 보게 된다는 뜻.

**소하고 남자는 집어 쥐야 먹는다.**

소는 주인이 꼴을 집어 주어야 먹고, 남자는 아내가 음식을 해주는 대로 먹게 된다는 뜻.

**소한테 물렸다.**

- (1) 상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뜻밖의 손해를 당했다는 뜻.
- (2)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일이라는 뜻.

**소한테 염불하기다.**

소한테 염불해야 아무 소용이 없듯이, 성과 없는 일은 하지 말라는 뜻.

**소 힘도 힘이요, 새 힘도 힘이다.**

- (1) 크나 작으나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뜻.
- (2) 큰 것과 작은 것은 그 쓰임새가 다르다는 뜻.

**쇠고기 열 점보다 새고기 한 점이 낫다.**

쇠고기 맛보다 새고기 맛이 훨씬 낫다는 뜻.

**쇠고집이다.**

소처럼 몹시 고집이 센 사람을 비유하는 말.

**쇠귀는 편편해야 성미가 순하다.**

성미가 순한 소를 고를 때는 귀가 편편한지를 보라는 뜻.

**쇠귀를 잡는다.**

- (1)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일에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뜻.
- (2) 어떤 일을 좌지우지한다는 뜻.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쇠귀신이다.**

남의 말은 도무지 듣지 않는 고집쟁이를 비유하는 말.

**쇠귀에 거문고 소리 들리기다.**

소에게 거문고 소리를 들려주어도 이해하지 못하듯이 아무 성과도 없는 일을 한다는 뜻.

**쇠귀에 북소리다.**

소에게 북소리를 들려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듯이, 효과도 없는 일을 어리석게 한다는 뜻.

**쇠귀에 염불하기다.**

아무 효과도 없는 일을 멍청하게 한다는 뜻.

**쇠꼬리보다 개 대가리가 낫다.**

남에게 매여사는 것보다는 자기 주관에 따라 독자적으로 사는 것이 낫다는 뜻.

**쇠꼬리보다 닭 대가리가 낫다**

남의 밑에 예속된 것보다는 독자적으로 일하는 자리가 낫다는 뜻.

**쇠 눈 말 눈이 크다 해도 의눈보다 큰 것 없다.**

소 눈이나 말 눈이 크다 해도 의눈만큼은 크지 않듯이, 무슨 일이나 의논을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뜻.

\* 의눈 : 의논의 와음.

**쇠대가리 걸어 놓고 말고기 판다.**

(1) 상인들이 진열장에는 좋은 물건을 내놓고 실제로는 좋지 않은 물건을 판다는 뜻.

(2) 광고한 상품과 실제 상품의 질이 다르다는 뜻.

**쇠대가리에 말 꼬리 달아 놓은 것 같다.**

(1) 맞춤이 어울리지 않게 되어 보기가 흉하다는 뜻.

(2) 만들어진 것이 실제와는 판판이라는 뜻.

**쇠똥도 마르면 땀감으로 쓰인다.**

(1) 세상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

(2) 못 쓰게 된 폐물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뜻.

**쇠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흔하던 것도 쓰려고 하면 귀하다는 뜻.

**쇠똥에 미끄러져 개똥에 주저앉는다.**



신수가 나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없다는 뜻.

**쇠똥에 미끄러져 코 방아 찧는다.**

불행한 사람은 연거푸 불행한 일만 당하게 된다는 뜻.

**쇠똥에 얹어지고, 개똥에 코 갠다.**

재수가 없을 때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없다는 뜻.

**쇠똥은 개도 안 먹는다.**

개도 쇠똥을 먹지 않지만, 거름으로는 중요하게 쓰인다는 뜻.

**쇠똥이 지짐떡으로 보인다.**

(1) 굶주린 사람 눈에는 먹을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

(2) 전혀 가망 없는 일을 바란다는 뜻.

**쇠 뜻이고, 말 뜻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국회에서 사사오입으로 통과시켰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의 출마를 원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소나 말의 뜻이라고 야유한 데서 유래된 말.

**쇠 먹미레 같다.**

소의 먹미레처럼 무엇이 축 늘어졌다는 뜻.

**쇠목에 방울달기다.**

쇠목에 필요하지도 않은 방울을 달 듯이, 별로 효과도 없는 일을 한다는 뜻.

**쇠 병이 유행할 때는 박하, 장뇌, 사향 등을 천에 싸서 소머리에 달아 준다.**

박하, 장뇌, 사향 등을 천에 싸서 소의 머리에 달아두면 소가 유행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

**쇠불알 떨어지기만 기다린다.**

여름에 쇠불알이 축 늘어진 것을 보고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무슨 일을 어리석게 헛수고만 한다는 뜻.

**쇠불알이 떨어질까 하고 장작 지고 다닌다.**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헛수고만 한다는 뜻.

**쇠뺨다귀 삼년 우려먹는다.**

쇠뺨다귀를 두고두고 우려먹듯이, 무슨 일을 오랫동안 물고 늘어진다는 뜻.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쇠뺨다귀 우려먹듯 한다.**

쇠뺨다귀를 꼭 우리듯이,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번 이용한다는 뜻.

**쇠뿔도 각각, 염주도 뿔뿔이다.**

(1) 무슨 물건이나 다 각각 맡은 뿔이 따로 있다는 뜻.

(2) 사람마다 제각기 특성이 있어서 일하는 솜씨도 다르다는 뜻.

**쇠뿔도 단김에 빼고, 호박떡도 더운 김에 먹으랬다.**

무슨 일을 할 때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였으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실행하라는 뜻.

**쇠뿔도 손댔을 때 뽑아야 한다.**

무슨 일이나 망설이지 말고 시작했을 때 끝을 내야 한다는 뜻.

**쇠뿔 바로 잡다가 소 죽인다.**

사소한 일을 바로잡으려다가 전체적으로 일을 망쳐 버린다는 뜻.

**쇠불에 달걀쪄기다.**

뽀족한 쇠뿔에 달걀을 쪄으려고 하듯이 되지도 않을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뜻.

**쇠살에 말 빠다.**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 일을 어리석게 한다는 뜻.

**쇠새끼 죽는 녀이다.**

몹시 미련하고 고집이 센 사람을 욕하는 말.

**쇠 입에서 쇠 말 나오고, 개 입에서 개 말 나온다.**

착한 사람은 착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뜻.

**쇠죽 가마에 달걀 삶아먹기다.**

(1) 훈계를 한다는 것이 도리어 나쁜 짓을 가르친다는 뜻.

(2)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하게 한다는 뜻.

**쇠죽을 가는 막대기로 저으면 소가 마른다.**

쇠죽을 끓일 때 가는 나무로 쇠죽을 저으면 소가 가는 나무처럼 마른다는 뜻.

**쇠 짐 기운 데 돌로 쇠발받치기다. (제주도)**

쇠 짐이 한쪽으로 기운 때는 돌을 가벼운 쪽에 쏘으면 되는 것을 돌로 쇠발 빌을 괴듯이,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헛일을 한다는 뜻.

**쇠코를 제 코라고 우긴다.**

- (1) 뻥히 틀린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뜻.
- (2) 말도 안 되는 일을 갖고 우긴다는 뜻.

**쇠털 같은 세월이다.**

쇠털보다 많은 날을 쉬지 않고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쉬어가며 하라는 뜻.

**쇠털같이 많다.**

쇠털처럼 수량이 많은 것을 비유하는 말.

**쇠털같이 많은 날에 일만 하다 죽는다.**

가난에 시달려서 한평생을 두고 한번도 편히 쉬어보지 못하고 일만 한다는 뜻.

**쇠털같이 허구 많은 날이다.**

세월은 무한하고 일할 날은 많으므로, 일만 죽도록 할 것이 아니라 피로도 풀어가며 일을 하라는 뜻.

**쇠털 뽑아 제 구멍에 박기다.**

뽑은 털을 제 구멍에 도로 박는 일밖에 모르듯이, 융졸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

**쇠털 세어보기다.**

- (1) 공연히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뜻.
- (2) 막연한 짓을 한다는 뜻

**쇠파리가 소를 쫓는다.**

쇠파리가 물면 소가 놀라서 뛰듯이,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뜻.

**쇠파리 쇠꼬리에 붙듯 한다.**

쇠파리가 악착같이 쇠꼬리에 붙듯이, 죽는 줄 모르고 달라붙는다는 뜻.

**쇠 힘은 쇠 힘이고, 새 힘은 새 힘이다.**

돈 많은 사람은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 듯이, 세상에는 빈부의 차가 있다는 뜻.

**순한 소도 고삐는 매두랬다.**

아무리 순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이라도 규범으로 무원칙한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는 뜻.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순한 소도 성낼 적이 있다.**

아무리 순한 사람이라도 참는 데는 한도가 있으므로 화를 낼 수 있다는 뜻.

**술 담배 참아 소 샀더니 호랑이가 물어간다.**

재산은 모으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써야 한다는 뜻.

**시시하기는 비 오는 날 쇠똥 같다.**

쇠똥도 비가 맞아 풀어지면 쇠똥 구실을 못하듯이, 사람도 절도 없이 시시하게 행동을 하면 아무일도 못한다는 뜻.

**아버지 없이는 농사를 지어도, 소 없이는 농사를 못 짓는다.**

농촌이 기계화되기 이전에는 소로 논밭을 갈거나 비료 곡식류 썰나무 등을 운반했기 때문에, 소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뜻.

**아침 풀에 소는 살찌고 농사는 잘 된다.**

식전에 풀을 많이 베면 소는 살이 찌게 되고, 쇠똥은 거름이 되어 농사도 잘 된다는 뜻.

**아침 뇌성에는 강 건너 소를 매지 말랬다.**

아침에 뇌성이 있으면 그날 비가 많이 올 징조이므로, 소를 강 건너에 매지 말고 가깝고 안전한 곳에 매라는 뜻.

**안개 낀 날 소찾기다.**

안개가 끼어 지척도 분간하기 어려운데, 잃어버린 소를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뜻.

**앞 이마에 별박이 소는 주인을 해친다. (제주도)**

소의 앞 이마에 흰점이 박힌 것은 주인을 해친다는 뜻.

**양 고랑에 든 소다.**

양 고랑에 든 소는 양쪽 고랑의 풀을 먹을 수 있듯이, 먹을 복이 많다는 뜻.

**양 언덕에 든 소다.**

두 언덕 사이에 든 소가 이쪽저쪽 언덕의 풀을 먹듯이, 먹을 복이 많은 사람을 비유하는 말.

**양을 잃고 소를 얻는다.**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어서 이익을 보았다는 뜻.

**양하고 소를 바꾼다.**

작은 것을 두고 큰 것을 얻어 이득을 보았다는 뜻.

**어미 소가 송아지를 활아 주는 모정(母情)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정은 위대하다는 뜻.

**어미 소 제 새끼 활듯 한다.**

어미 소가 제 새끼를 혀로 활듯이, 자식은 어미의 모정 속에서 큰다는 뜻.

**얼룩소를 기르면 화를 당한다. (제주도)**

얼룩소는 주인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뜻.

**얼음판에서 소 탄 것 같다.**

얼음판에서 소를 탄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

**얼음판에 자빠진 소 눈깔 같다.**

큰 눈을 멀뚱멀뚱하면서 두리번거리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

**영덩이 부러진 소, 사돈이 아니면 못 팔아먹는다.**

흠이 있는 물건은 매매된 뒤에 물리자고 하지 못할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는 뜻.

**여름 소고기 맛은 풀내 난다.**

여름에 풀만 먹은 쇠고기는 풀냄새가 나서 겨울 쇠고기 맛만 못하다는 뜻.

**여름 소는 파는 사람이 이롭고, 겨울 소는 잡는 사람이 이롭다.**

여름 소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유리하고, 겨울 소는 값이 싸기 때문에 잡아서 고기로 파는 사람이 이롭다는 말.

**여름 황소 불알 떨어지기만 바란다.**

여름 소의 불알이 축 늘어져 곧 떨어질 듯 하면서도 떨어지지 않듯이, 곧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일을 무턱대고 기다린다는 뜻.

**여물 마다는 소 없고, 물 마다는 말 없다.**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다 할 리는 없다는 뜻.

**여물 많이 먹은 소, 똥 눌 때 알아본다.**

(1) 무슨 일이나 그 성과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는 뜻.

(2) 범 죄는 반드시 노출되기 마련이라는 뜻.

(3) 밀천을 들이면 들인 대로 성과가 있다는 뜻.

**여물 안 먹고 일 잘하는 소다.**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밀친을 얼마 들이지 않고도, 이득은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뜻.

**여우가 소만 못하다.**

여우같이 간사스러운 여자는 소같이 무뚝뚝한 여자만 못하다는 뜻.

**여우하고는 살아도 소하고는 못 산다.**

애교 떠는 여자하고는 살아도, 고집이 세고 무뚝뚝한 여자하고는 살기가 어렵다는 뜻.

**여원 소 순대가 크다.**

(1) 여원 짐승일수록 많은 먹는다는 뜻.

(2) 여원 짐승은 잡아도 고기가 적어서 먹을 것이 별로 없다는 뜻.

**여원 소에 파리 피듯 한다.**

건강이 나쁠 때에는 귀찮게 덤비는 것도 많다는 뜻.

**여자로 태어나느니 소로 태어난 팔자가 낫다.**

예전 여자들은 과로와 굶주림과 시집살이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였다는 뜻.

**열 새끼 낳은 소 명예 벗을 날 없다.**

자식 많은 어머니는 자식 치다꺼리를 하느라고 편히 쉴 날이 없다는 뜻.

**염소와 소를 한 외양간에서 기르면 소가 마른다.**

염소와 소를 한 외양간에서 기르면 염소의 노린대로 인해 소가 마른다는 뜻.

**오뉴월 쇠불알 늘어지듯 한다.**

무슨 일을 질질 끌면서 한다는 뜻.

**오뉴월 쉬불알 떨어지기만 기다린다.**

여름철에 축 늘어진 쇠불알이 떨어질 줄 알고 기다리듯이, 되지도 않을 일을 착각하면서 기다린다는 뜻.

**오복 간신이 농우소 팔아먹는다.**

임금에게 간사한 짓을 하는 신하가 농민의 소를 팔아먹듯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쁜일을 한다는 뜻.

**오쟁이 안에서 소 잡는 격이다.**

무슨 일을 좁은 데서 비비적거리면서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

\* 오쟁이 : 짚으로 엮어 만든 작은 섬.

**외상이면 사돈집 소도 잡아먹는다.**

외상이라면 사돈집 소도 잡아먹듯이, 염치도 없이 외상을 좋아한다는 뜻.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외상이라면 앞뒤도 가리지 않고 마구 사들인다는 뜻.

**외양간 소가 듣고 옷을 노릇이다.**

너무 어이없고 가소로운 말이라 소도 웃겠다는 뜻.

**우마(牛馬)가 기린(麒麟)되랴?**

소나 말이 기린이 될 수는 없듯이, 천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

**우황 든 소다.**

마음속에 있는 분을 못 이겨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 우황 : 소 쓸개에 병으로 뭉친 물건. 약재에 쓰임.

**우황 든 소 앓듯 한다.**

겉으로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걱정을 한다는 뜻.

**유두(流頭)에 소 타지 말고, 추석에 소 타랬다.**

농사가 잘 된 집에서는 명절날 머슴을 소에 태우고 부락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민속놀이가 있었는데, 유두 명절의 벼농사를 보고 소에 태우는 것보다 수확기를 앞둔 추석 때의 상황을 보고 태우는 것이 더 정확하듯이, 일은 결과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뜻.

**으르렁대는 소는 받지 않는다.**

겉으로 큰소리치는 사람은 실력이 없다는 뜻.

**의붓아비 소 팔러 보낸 것 같다.**

못 믿는 사람에게 큰 재물을 맡겨서 매우 걱정이 된다는 뜻.

**의붓자식 소 팔러 보낸 것 같다.**

일은 시켰으나 믿음직스럽지 못해 매우 불안하다는 뜻.

**인사 앓는 놈이 쇠 썰힌다.**

평소에 말 한 마디 하지 앓는 놈이 엉뚱한 짓은 잘한다는 뜻.

**일년 농사가 벼락 맞은 쇠고기가 되었다.**

일년 동안 지은 농사에 벼락 맞은 소의 고기만 가져가듯이, 타작마당에서 모두 나가고 하나도 없다는 뜻.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일은 소같이 하고, 먹기는 쥐같이 먹으랬다.

일은 소같이 많이 하고, 조금씩만 먹고 쓰고, 저축은 많이 하라는 뜻.

일하다 죽은 소나 놀다 죽은 염소나, 죽기는 일반이다.

죽는 마당에는 편하게 놀면서 살던 사람이나 일만 하며 고생스럽게 살던 사람이나 매한가지라는 뜻.

입구 터진 말에 마소 안 들어갈까?(제주도)

말에 들어가는 문이 터지면 마소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

입 큰 소가 살이 찐다.

입이 큰 소가 대체로 먹성이 좋기 때문에 살이 잘 찐다는 뜻.

자라 콧구멍에 소 물고 간다.

(1) 소견이 없는 답답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

(2) 되지도 않을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뜻.

잘 되는 집에는 소개 새끼를 나도 대우만 낳는다.

재운이 있는 집에서는 소가 새끼를 낳아도 큰 소가 될 송아지만 낳는다는 뜻.

\* 대우 : 소의 종자 가운데 큰 소를 가리킴.

잘 되는 집에는 암소가 쌍태만 한다.

재운이 있는 집안은 암소가 새끼를 낳아도 한꺼번에 두 마리씩 낳는다는 뜻.

장에 가는 쇠배때기 같다.

팔리 가는 소를 크고 살이 찌보이게 하기 위하여 많이 먹여 배가 나오듯이, 배가 나온 사람을 조롱하는 말.

쟁기질 못하는 놈이 소 탓만 한다.

젊었을 때 무슨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 희떠운 소리를 하는 사람을 비웃는 말.

점잖은 척하는 놈이 쇠 씹힌다.

겉으로 얌전한 척하는 사람이 뒤로는 갇은 못된 짓을 한다는 뜻.

정월달 일진(日辰)에 축자(丑字)든 날, 쇠뿔에 붉은 물감을 칠해 주면 무병하다.

음력正月달 일진에 축자가 든 날, 쇠뿔에 붉은 물감을 칠해 주면 그 해 소의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



**정월 보름날 아침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 든다.**

음력 1월 15일 아침, 소에게 밥과 나물을 주었을 때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이 든다는 뜻.

**정월 보름날 아침에, 소에게 찰밥과 아홉 가지 채소를 먹이고, 외양간 밖으로 끌고 다니면 그 해 소가 무병하다.**

음력 1월 15일 아침에, 소에게 찰밥과 각종 채소 아홉 가지를 먹이고, 소를 외양간 밖으로 끌고 다니면 그 해 소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

**정월 열나흘날, 해 뜨기 전에 동쪽으로 뺀 복숭아 가지로 둥근 고리를 만들어 소머리에 걸어 주면 물 것이 덤비지 않는다.**

음력 1월 15일, 해가 뜨기 전에 동쪽으로 뺀 복숭아 가지로 둥글게 고리를 만들어 쇠뿔에 걸어 주면, 그 해 소에게 물 것이 덤비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

**정월 초하루부터 계산해서, 첫 번째 축일(丑日)에 짝수가 되면 소 값이 떨어지고, 홀수가 되면 소 값이 올라간다.**

음력 1월 1일부터 계산해서 첫 번째 든 축일이 짝수일 경우에는 그 해 소 값이 떨어지고, 홀수일 경우에는 소 값이 오른다는 뜻.

**정월 초하룻날, 소에게 밥과 나물을 주어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이 든다.**

음력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소에게 밥과 나물을 주었을 때 나물을 먼저 먹으면 그 해 흉년이 든다는 뜻.

**제 덕석 뜯어먹는 소다.**

소가 제 덕석을 뜯어먹으면 저만 춥듯이, 제가 손해 가는 것만 한다는 뜻.

**제삿밥 먹고 소 몰아간다.**

도와 준 은인에게 은혜를 저버리고 손해를 끼친다는 뜻.

**제 소를 몰고 가도 남의 소 몰고 간다고 하겠다.**

자기 소를 몰고 가도 남의 소를 도둑질해 가는 것으로 오해를 받듯이, 외모가 험상궂고 행동이 수상하면 피해를 보게 된다는 뜻.

**제작부리 제 가늌 못하면서 싸움질 한다.**

자신이 자신의 실력도 모르고 싸우면 지게 된다는 뜻.

\* 제작부리 : 뒤로 흰 쇠뿔.

**죽은 소고기 나누어 먹듯 한다.**

임자 없이 죽은 쇠고기를 나누어 먹듯이, 손쉽게 나누어 먹는다는 뜻.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취구명으로 소를 몰려고 한다.**

도저히 되지도 않는 일을 미련스럽게 하는 사람을 비웃는 말.

**진상 가는 소 배때기 차고 볼기 맞는다.**

공연한 짓을 하고 화를 당하듯이, 쓸데없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뜻.

\* 볼기 : 엉덩이

**질기기는 쇠심줄이다.**

(1) 무슨 일을 질질 끌면서 힘들게 한다는 뜻.

(2) 고집이 센 사람을 비유하는 말.

**짚만 먹은 쇠대가리 같다.**

얼굴은 훌쩍하게 마르고, 머리털은 더부룩하게 기른 사람을 야유하는 말.

**춘상갑자일春上甲子일에 비가 오면 흑한으로 소돼지가 얼어죽는다.**

입춘(2월 3일경)이 지난 첫 번째 갑자일에 비가 오면 기온이 급강하하여 소·돼지 등의 가축이 동사한다는 뜻.

**칼 팔아 소 산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에 농업을 시작한다는 뜻.

**콩밭에 소를 풀어 놓고도 할 말이 있다.**

일을 잘못된 사람도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다는 뜻.

**콩밭에 소 매고도 할 말이 있다.**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도 나름대로 할 말은 있다는 뜻.

**큰 소라도 여물 마다다 할까?**

부자라고 돈을 마다다 하지 않듯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다 요구한다는 뜻.

**큰 소만큼 별면, 큰 소만큼 쓴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쓰는 것도 역시 많이 된다는 뜻.

**큰 소 큰 소 하면서 꼴 아니 준다.**

잘한다 잘한다 추켜세우면서 아무런 대우도 하지 않고 빈 인사만 한다는 뜻.

**파린 소에게 파리 쫓는다.**

소가 병들어 파리하게 되면 파리떼가 몰려들 듯이, 사람도 병들어 누워 있으면 물 것이

더 덤빈다는 뜻.

**푸줏간에 들어가는 소 걸음이다.**

소도 도살장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힘없이 들어가듯이, 사람도 죽을 처지를 당하면 행동이 변하게 된다는 뜻.

**푸줏간에 들어가는 쇠 상이다.**

죽으려 들어가는 쇠 상처럼 죽을 지경에 이르면 제 정신을 가지기 어렵다는 뜻.

**풍년에는 소에게 콩도 주지만, 흉년에는 사람이 풀을 먹는다.**

풍년이 들면 곡식이 흔해서 소도 곡식을 먹이지만, 흉년이 들면 곡식이 없어서 사람도 소 같이 풀을 먹게 된다는 뜻.

**하늘이 꺼져도 소 도망칠 구멍은 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빠져 나갈 길을 있다는 뜻.

**하루 가다 보면 소도 보고 말고 본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풀 저 풀 보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라는 뜻.

**하룻길 가다 보면 소 탄 놈도 보고 말 탄 놈도 본다.**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별의별 사람이 다 살고 있다는 뜻.

**한 소 등에 두 길마 못 지운다.**

한 사람이 두 가지를 책임지고 일하기는 어렵다는 뜻.

**허기진 소는 풀을 가리지 않는다.**

굶주린 사람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마구 먹는다는 뜻.

**홍두깨로 세 번 맞아 담 안 뛰어넘는 소 없다.**

매로 때리며 일을 시키면 평소에 못하던 일도 하게 된다는 뜻.

**홍두깨로 소 몬다.**

급하다 하여 무슨 일을 무리하게 억지로 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

**화로 들고 쇠불알 떨어지기만 기다린다.**

되지도 않을 일을 따라다니듯이, 공연히 헛수고만 한다는 뜻.

**화정화丁 아이 미워서 소 못 잡아먹는다.**

배에서 식사를 담당한 아이가 미워 잡을 소도 안 잡듯이, 알미운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전체에 피해를 주게 된다는 뜻.

**훗장 쇠다리가 이 장 개 다리만 못하다.**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는 미래의 큰 이익보다는 당장의 작은 이익이 낫다는 뜻.

**훗장 쇠다리 먹자고 이 장에 개 다리 안 먹을까?**

믿음성이 없는 훗장 쇠다리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당장의 개 다리가 낫다는 뜻.

**흉년이 들면 소 값이 내린다.**

흉년이 들면 돈은 귀해지고 소는 부릴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 값이 떨어지게 된다는 뜻.

**가난이 소새끼만도 못하다.**

사람이 가난하여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것은 잘 먹고 지내는 짐승만도 못한 것이라는 뜻.

**가난이 쇠 아들이다.**

가난하면 소처럼 일만 많이 하게 된다는 뜻.

**갓난 송아지 뱀 무서운 줄 모른다.**

소견 없고 아무것도 모르면 무서운 것이 없다는 뜻.

**강 건너간 송아지다.**

일은 이미 끝이 났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는 뜻.

**같은 값이면 검정 송아지다.**

가격이 같으면 고기 맛이 좋은 검정 송아지를 키우는 것이 유리하듯이, 같은 값이면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뜻.

**과부집 송아지는 백장 부르러 간 줄 모르고 날뛰다.**

위급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멍모르고 호기를 부리고 있다는 뜻.

**나쁜 소도 좋은 송아지를 낳는다.**

못난 부모에게서도 훌륭한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뜻.

**날 적 송아지 들 적 며느리라.**

송아지는 날 적에만 귀염을 받고, 며느리는 시집왔을 때에만 대접을 받는다는 뜻.

**남의 집 금송아지가 내 집 송아지만 못하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남의 것은 나쁜 내 것만 못하다는 뜻.

**대감댁 송아지는 백장 무서운 줄 모른다.**

배경이 좋은 사람이라도 배경만 믿고 지내다가는 화를 당하게 된다는 뜻.

**도랑에 든 송아지다.**

도랑에 든 송아지처럼 먹을 복이 없다는 뜻.

**동네 송아지는 이웃집 황소를 닮고,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다.**

동네 송아지는 그 동네 종우種牛인 수소를 닮게 되고, 자식은 그 아버지를 닮게 된다는 뜻.

**동네 송아지는 커도 송아지라고 한다.**

한동네에서 자란 송아지는 큰 소가 되어도 송아지 소리를 듣듯이, 한동네에서 자란 사람은 커도 어른 대접을 못 받는다는 뜻.

**만만한 것이 송아지 죽인다.**

송아지는 어미의 젖을 먹기 때문에 송아지 죽에는 별관심이 없듯이, 무슨 일을 소홀히 취급한다는 뜻.

**목 마른 송아지 우물 들여다보듯 한다.**

목 마른 송아지가 아무리 우물을 들여다보아도 소용이 없듯이,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애만 태운다는 뜻.

**목 맨 송아지다.**

남이 끄는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부자유한 신세가 되었다는 뜻.

**못난 소도 좋은 송아지를 낳는다.**

어미는 비록 못났어도 자식은 잘날 수 있다는 뜻.

**못된 송아지가 엉덩이 뿔 난다.**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 빗나가는 행동을 했을 때 욕하는 말.

**미련한 송아지가 백장 무서운 줄 모른다.**

미련한 사람은 저 죽는 것도 모르고 날뛰는다는 뜻.

**백장집 송아지는 저 죽을 날 모른다.**

위험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위험성을 짐작하지 못한다는 뜻.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불 타는 강변에 송아지 날뛰듯 한다.**

불 타는 강변에 맨 송아지가 놀라서 날뛰듯이, 몹시 당황하여 날뛰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사릅 송아지는 이도 들어보지 말랬다.**

쓸모없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상관하지 말라는 뜻.

\* 사릅 : 말 · 소 · 개 따위의 나이로 세 살을 말함.

**산에 송아지 간 밭자국만 있고, 온 밭자국은 없다.**

산신제山神祭에 제물로 바친 송아지는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듯이, 한번 가서 다시 오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새끼 많은 소 명예 벗을 날 없다.**

많은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뜻.

**새끼 아홉 둔 소 길마 벗을 날 없다.**

자식이 많은 부모는 자식들을 기르느라고 고달프다는 뜻.

**새해 들어 처음에 송아지를 보면 누워서 먹고, 망아지를 보면 뛰면서 먹는다.(제주도)**

새해에 맨 먼저 송아지를 보면 그 해 일하지 않으며 편히 지내고, 망아지를 보면 일을 많이 하게 된다는 뜻.

**소가 새끼를 나면, 바로 송아지 덧굽을 떼어 천에 싸서 어미 소 왼뿔에 걸어 준다.**

갓난 송아지 굵에 붙은 것을 떼어 어미 소 왼뿔에 걸어 주면 송아지가 어미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유래한 말.

**소 못 본 사람은 송아지도 크다고 한다.**

(1) 문견聞見이 없는 사람은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뜻.

(2) 크고 작은 것은 상대적이라는 뜻.

**소새끼는 제주로 보내고, 사람새끼는 서울로 보낸다.**

송아지는 제주도로 보내야 잘 먹고 잘 자라게 되고, 자식은 서울로 가야 글을 배워 출세를 하게 된다는 뜻.

**송아지 낳을 때 곡식을 내가지 않는다.**

송아지 낳 때 외부로 곡식을 내가면 송아지가 부정을 탄다는 뜻.

**송아지는 이웃 황소 닮고,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다.**

송아지는 이웃 황소가 아비이기 때문에 닮듯이,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마련이니 아비 노릇

을 잘해야 한다는 뜻.

**송아지는 첫 젖을 먹이랬다.**

동물의 첫 젖에는 고단백의 영양가가 많을 뿐 아니라 면역체도 들어 있으므로 꼭 먹여야 한다는 뜻.

**송아지도 몽둥이 세 대만 맞으면 담 안 뛰어넘는 송아지 없다.**

매 앞에는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뜻.

**송아지만 보아도 소 큰 죽을 안다.**

크기는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일부분만 보아도 바로 알 수 있다는 뜻.

**송아지 못된 것이 엉덩이에 뿔 난다.**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르는 말.

**송아지 못된 것이 장마당으로만 돌고, 사내자식 못된 것이 남의 안방으로만 돈다.**

송아지 못된 것은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이 장 저 장 끌고 다니게 되고, 못된 사내는 남의 안방만 찾다니며 계집질을 한다는 뜻.

**송아지 물 건너갔다.**

송아지가 이미 물을 건너가고 없듯이, 일은 끝장이 났다는 뜻.

**송아지 어미 따라다니듯 한다.**

송아지가 어미를 떨어지지 않고 따라다니듯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다닌다는 뜻.

**송아지에게 천자 가르치기다.**

송아지에게 글을 가르치듯이, 무슨 일이나 대상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는 뜻.

**송아지 온 발자국은 있어도 간 발자국은 없다.**

산신제에 쓸 송아지는 잡았기 때문에 온 발자국은 있어도 간 발자국은 없듯이, 일은 이미 끝이 났다는 뜻.

**송아지 울음소리가 크면 비가 온다.**

저기압일 때는 지면에서 대류對流와 난류亂流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뜻.

**송아지 웅덩이 내려다보듯 한다.**

위험한 것도 모르고 얼빠진 사람처럼 보고만 있다는 뜻.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어미 떨어진 송아지 젖 찾듯 한다.**

어미를 잃은 송아지가 어미젖을 찾듯이, 고아는 어미가 그림고 배가 몹시 고프다는 뜻.

**어미 뎌 송아지다.**

갑자기 어미를 잃은 아이가 어미가 그리워 몹시 슬퍼한다는 뜻.

**어미 잃은 송아지다.**

뛰어나거나 할 송아지가 답답하게 외양간에만 매여 있듯이, 몹시 부자유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뜻.

**잘 되는 집은 황소가 송아지를 낳는다.**

재운이 있는 집안은 남들은 안 되는 일도 모두 잘 된다는 뜻.

**젖 떨어진 송아지를 함께 기를 때는 송아지 외양간도 따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소를 사육하려면 외양간은 각각 주어서 활동을 자유롭게 해야 병이 없이 잘 자란다는 뜻.

**죽은 쇠가죽 팔아 송아지 산다.**

언제나 본전은 없어지지 않도록 남겨둔다는 뜻.

**진상 가는 송아지 배때기 차고 불기 맞는다.**

공연히 쓸데없는 짓을 하고 화를 당한다는 뜻.

**집구석이 되려면 집 나간 송아지가 새끼 배서 들어온다.**

집안이 잘 되려면 좋은 일이 저절로 생긴다는 뜻.

**집에 둔 금송아지 애기는 하나마나다.**

재물은 써야 할 때 당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있으나마나라는 뜻.

**참외장수 하다가 송아지 팔아먹는다.**

참외장수는 잘못하면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는 뜻.

**처녀와 부록송아지는 쓸데 써봐야 안다.**

처녀는 커서 시집갈 때에야 얹전한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부록송아지는 다 큰 뒤에야 부리기가 좋고 나쁨을 알게 된다는 뜻.

\* 부록송아지 : 길이 들지 않은 송아지

**칠월 송아지다.**

배부르게 먹고 제멋대로 잘 뛰고 논다는 뜻.



**코 꿰인 송아지다.**

코 꿰인 송아지는 끌고 다니는 대로 따라다니듯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게 된다는 뜻.

**코뚜레 없는 송아지다.**

코뚜레를 하지 않은 송아지처럼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뜻.

\* 코뚜레 : 소의 코를 꿰뚫어 끼는 고리 모양의 나무

**큰 소가 송아지 적 생각을 못한다.**

사람이 출세를 하면 자신이 과거에 고생하던 생각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뜻.

**큰 소는 잃고, 송아지는 뛰쳐 나갔다.**

큰 것도 잃고 작은 것도 잃고 모두 손해만 당했다는 뜻.

**큰 소도 잃고, 송아지도 잃었다.**

크고 작은 일 모두 손해를 보아서 곤궁하게 되었다는 뜻.

**큰 소를 못 본 사람은 송아지도 크다고 한다.**

크고 작은 것은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으면 크고 작은 것을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

**큰 소 잃고 송아지 얻는다.**

어떤 일에서 실패하여 큰 손해를 보았다는 뜻.

**같은 값이면 검정 소를 잡아먹으랬다.**

가격이 같을 바에야 맛이 더 좋은 검정 소를 잡아먹듯이, 같은 값이면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뜻.

**같은 외상이면 검정 소를 잡아먹는다.**

동일한 조건이면 그 중에서 유리한 것을 고른다는 뜻.

**검은 소가 맛은 있다.**

쇠고기 맛은 누런 소의 고기 맛보다 검은 소의 고기 맛이 더 좋다는 뜻.

**검정 소가 진상 간다.**

쇠고기는 검은 소가 맛이 좋다 하여 1750년(영조 26년) 전라도 가파도加波島에 검은 소를 사육시켜 진상케 한 데서 유래된 말.

**검정 소도 흰 송아지를 낳는다.**

악한 사람의 자식 중에는 착한 아들도 있을 수 있다는 뜻.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기왕이면 검정 소를 잡아먹으랬다.**

같은 조건이면 맛이 좋은 검은 소를 잡듯이, 기왕 할 바에는 유리한 것을 선택하라는 뜻.

**소는 검은 소를 기르고, 말은 흰 말을 기르랬다.**

소는 검은 소가 고기 맛이 좋기 때문에 검은 소를 기르는 것이 좋고, 말은 흰 말이 돋보이기 때문에 흰 말을 기르는 것이 좋다는 뜻.

**소는 검정 소를 기르랬다.**

검정 소는 성미가 순하여 기르기가 쉬울 뿐 아니라 고기 맛이 유별나게 좋다는 뜻.

**외상이면 검은 소를 잡아먹는다.**

현금이 아니고 외상일 때는 맛이 좋은 검은 소를 잡아먹듯이, 외상이라면 안사도 될 것까지 산 뒤에 빚으로 곤욕을 치른다는 뜻.

**이월 바람에 검은 쇠뿔이 오그라진다.**

음력 2월 바람은 쌀쌀하면서도 세다는 뜻.

**칠월 저녁 해에 검정 소 뿔 빠진다.**

음력 7월(양력 8월) 더위는 오후가 되어도 쇠뿔이 녹아빠질 정도로 덥다는 뜻.

**늙은 소가 송아지 활듯 한다.**

늙은 어미 소가 혀로 송아지를 활듯이, 부모는 자식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뜻.

**늙은 소가 여물 마다다 할까?**

아무리 늙었어도 할 짓은 여전히 해야 한다는 뜻

**늙은 소가 콩 마다다 할까?**

늙었어도 먹을 것은 다 먹게 된다는 뜻.

**늙은 소가 콩밭으로 간다.**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행동을 잘한다는 뜻.

**늙은 소는 바소 견디듯 한다.**

(1) 아픈 것을 잘 참는다는 뜻.

(2) 늙은이가 병은 잘 참는다는 뜻.

\* 바소 : 굵은 데 짙은 침.

**늙은 소도 콩깍지 실로 갈 때는 재다.**

(1) 늙은 사람도 저 먹을 일에는 부지런하다는 뜻.

(2) 게으른 사람도 먹을 일에는 부지런하다는 뜻.

**늙은 소라고 콩 주는데 마다다 할까?(제주도)**

아무리 늙었어도 먹을 것은 다 먹어야 한다는 뜻.

**늙은 소를 잡을 때는 자기가 잡지 말랬다.**

오랫동안 기르던 소를 주인이 직접 잡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괴로우니 참여하지 말라는 뜻.

**늙은 소 밤길 가듯 한다.**

늙은 소는 과거에 다니던 길이라 밤에도 짐작으로 잘 찾아간다는 뜻.

**늙은 소 콩 마다다 할까?**

비록 몸은 늙었어도 먹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뜻.

**늙은 소 흥정하기다.**

늙은 소라 잘 팔리지 않아 흥정이 더디듯이,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

**누워 뜨는 소다.**

행동이 매우 느리고 달의達意진 사람을 비유하는 뜻.

**뜨는 소가 부리기 좋고, 성깔 있는 머슴이 일 잘한다.**

성깔도 있고 과단성이 있는 사람이라야 일도 잘한다는 뜻.

**뜨는 소가 부리기는 좋다.**

사람을 뜨는 소가 일은 잘하듯이, 사람도 성미가 사나운 사람이 일은 박력 있게 잘한다는 뜻.

**뜨는 소가 푸줏간에 먼저 간다.**

성깔이 나쁘고 남을 해치는 사람은 화를 당하게 된다는 뜻.

**뜨는 소는 빨을 보고, 뛰는 소는 눈을 보랬다.**

뜨는 소는 빨 놀림을 보면 알 수 있고, 뛰는 소는 눈을 보면 뛰는 방향을 알 수 있듯이, 무슨 일이나 요령이 있어야 잘 할 수 있다는 뜻.

**뜨는 소는 소리 없이 뜬다.**

소가 사람을 뜰 때는 소리도 내지 않고 돌연히 뜰듯이, 남을 해치는 사람은 불의의 습격을 한다는 뜻.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뜨는 소는 썩 소리도 하지 않는다.**

소가 뜰 때는 소리도 없이 돌연히 뜰듯이, 적을 공격할 때는 불의의 습격을 해야 성과가 크다는 뜻.

**뜨는 소는 부리기에 달렸다.**

성미가 사나운 소도 주인이 다루는 솜씨에 따라 뜰수도 있고 못 뜰 수도 있다는 뜻.

**뜰 소 울 넘는다.(제주도)**

- (1) 성난 소가 울타리를 넘듯이, 성이 나면 힘도 난다는 뜻.
- (2) 평소에 느린 사람도 화가 나면 동작이 빠르게 된다는 뜻.

**뜰 소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려면 아무도 모르게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뜻.

**받는 소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남을 해치려는 사람은 상대방이 모르도록 습격한다는 뜻.

**받는 소는 썩 소리도 없이 받는다.**

적을 공격할 때는 적이 모르도록 하고 급습을 해야 성공한다는 뜻.

**성깔 있는 머슴이 일은 잘하고, 뜨는 소가 부리기는 좋다.**

머슴은 흐리멍덩한 사람보다 성미가 있는 사람이 부지런하여 일을 잘하고, 소도 순하고 느린 소보다는 성깔이 있는 소가 부리기 좋다는 뜻.

**암소가 새끼를 낳을 때 암송아지는 앉아서 낳고, 수송아지는 서서 낳는다.**

어미 소는 암송아지보다 수송아지 낳기가 더 힘들다는 뜻.

**암소 고기가 맛있다.**

암소 고기가 황소 고기보다 연해서 맛이 좋다는 뜻.

**암소 곧 달음질하듯 한다.**

암소는 늘 곧바로 가듯이,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

**암소는 교미시킨 뒤 바로 냇물을 건너게 하면 수태受胎되지 않는다.**

암소를 교미시킨 후 바로 냇물을 건너게 하면 배가 냉각되므로 수태하지 않게 된다는 말.

**암소한테 물린다.**

평소에 만만하게 여겼던 사람에게 다부지게 혼이 났다는 뜻.

**오뉴월 더위에 암소 뿔이 물러빠진다.**

음력 5월과 6월 더위는 쇠뿔이 녹을 정도로 덥다는 뜻.

**외양간 하나에 암소가 두 마리다.**

(1) 욕심을 내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뜻.

(2) 한집에 여자가 둘이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는 뜻.

**육칠월 더위에 암소 뿔이 빠진다.**

음력 6~7월(양력 7~8월)에는 쇠뿔도 녹아서 빠질 정도로 몹시 덥다는 뜻.

**잘 되는 집은 소가 새끼를 나도 쌍태만 한다.**

재복이 있는 집은 소가 새끼를 나도 한 번에 두 마리씩 낳아 수입이 많게 된다는 뜻.

**정이월 바람에 검은 암소 뿔이 오그라진다.**

음력 정월과 이월에 부는 바람은 암소의 뿔이 오그라질 정도로 몹시 춥다는 뜻.

**종달리 소금 실은 암소 마을 돌 듯 한다.(제주도)**

제주도 구좌읍舊左邑 종달리에서 생산된 소금을 소에 지워서 각 부락을 돌면서 판다는 뜻.

**키 큰 암소 똥 누듯 한다.**

큰 암소가 느슨하게 똥을 누듯이, 동작이 매우 느린 사람을 조롱하는 말.

**한 외양간에 암소가 두 마리다.**

(1) 똑같은 것이 함께 있으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

(2) 한집에 여자가 둘이라는 뜻.

**기운이 세다고 황소가 왕 노릇할까?**

세상일은 순리대로 해야지 힘으로 무리하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

**놀다가 죽은 암소나 발갈이 하다 죽은 황소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한가하게 놀면서 잘 먹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며 고되게 살던 사람이나, 죽기는 마찬가지라는 뜻.

**누런 소는 힘이 세고, 검은 소는 고기가 맛 좋다.**

누런 소는 힘이 세고, 검은 소는 고기 맛이 좋다는 뜻.

**눈 큰 황소요, 발 큰 도둑이다.**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황소의 눈은 크고 도둑놈은 도망을 잘 친다는 뜻.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 걸음이다.

황소는 느릿느릿 걸어도 꾸준히 걷기 때문에 먼길을 갈 수 있다는 뜻.

되는 집에는 황소가 새끼를 낳는다.

집안이 잘 되는 집은 예상도 못한 횡재를 하게 된다는 뜻.

드문드문 걸어도 황소걸음이다.

드문드문 걷는 황소 걸음이 느린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느리지 않듯이, 보기와는 판판이라는 뜻.

바늘 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

겨울철 추울 때는 작은 문구멍으로 들어오는 찬바람도 춥다는 뜻.

받으러 덤비는 황소 같다.

(1) 성이 나서 받으려고 덤비는 소는 사납다는 뜻.

(2) 사납게 달려드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밤중에 황소가 울면 초상이 난다.

밤중에 황소가 울면 그 동네에 초상이 난다는 뜻.

빈집에 황소 든다.

가난한 집에서 오랜만에 황소를 매게 되어 몹시 기쁘다는 뜻.

빙판에 넘어진 황소 눈이다.

얼음판에 넘어진 황소가 일어서지 못하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듯이, 큰 눈을 두리번거리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

성난 황소 바위받기다.

성난 소가 화풀이를 바위에 해봤자 저만 아프듯이, 무모한 행동은 하지 말라는 뜻.

성난 황소 영각하듯 한다.

성난 황소가 크게 울듯이, 무섭게 큰소리를 친다는 뜻.

\*영각 : 황소가 암소를 찾아 길게 뿔아 우는 소리.

순한 황소가 뜨면 더 무섭다.

평소에 순한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더 무섭다는 뜻.

**얼음판에 넘어진 황소 눈이다.**

얼음판에 넘어진 소가 일어나지 못하고 눈만 멀뚱멀뚱하듯이, 초점을 잃고 눈을 멀뚱거리  
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

**오뉴월에 겉불 피우고 황소 불알 떨어지기만 기다린다.**

오뉴월에 쇠불알이 축 늘어진 것을 보고 떨어질 줄 알고 기다리듯이, 되지도 않을 일을  
될 줄 믿고 헛기다린다는 뜻.

**오뉴월 황소 불알 떨어지기만 기다린다.**

가망 없는 일에 미련을 가지고 헛되게 기다린다는 뜻.

**이웃간에는 황소 한 마리 가지고도 다투지 않는다.**

예전에 농촌에서 황소 한 마리면 큰 밑천이지만, 이웃간에는 황소 한 마리 정도의 이해관  
계로는 다투지 않을 정도로 친밀하게 지냈다는 뜻으로서, 이웃간에는 친밀하게 지내야 한다  
는 말.

**칠월 더위에 황소 뿔이 녹는다.**

음력 7월의 늦더위가 더 지독하게 덥다는 뜻.

**황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 잡는다.**

미련하고 느린 사람이라도 요행이 무슨 일을 할 때가 있다는 뜻.

**황소가 바늘구멍으로 빠져 나가겠다.**

아무 가망성 없는 일을 공상하고 있다는 뜻.

**황소가 뽕아도 꿈쩍없다.**

(1) 매우 강하고 든든한 것을 비유하는 말.

(2) 어떤 역경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성이 있다는 뜻.

**황소가 심하게 울면 폭풍이 분다.**

황소가 심하게 울면 폭풍이 불 징조라는 뜻.

**황소가 얼음판 걷듯 한다.**

황소가 얼음판을 조심스럽게 가듯이, 위험스러운 일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비유하  
는 말.

**황소가 제 덕석 뜯어먹기다.**

황소가 제 방한구인 덕석을 뜯어먹어 못 쓰게 되듯이, 자신이 자신에게 손해 가는 것을  
한다는 뜻.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덕석 : 추울 때 소의 등에 덮어 주는, 명석처럼 만든 것.

**황소가 힘이 세도 지붕에는 못 오른다.**

아무리 힘이 세도 세상일은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

**황소도 호박냉쿨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

힘이 세다고 자만하다가는 사소한 일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뜻.

**황소 뒷걸음질에 개구리 뛴다.**

무슨 일을 하다가 우연히 자신도 모르게 남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는 뜻.

**황소 불알 떨어지기를 바라고 소금 짐 지고 따라다닌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헛수고만 한다는 뜻.

**황소 불알 떨어지면 구워먹으려고 숯불 가지고 다닌다.**

아무 가망성도 없는 일을 가지고 쓸데없이 헛노력만 한다는 뜻.

**황소 제 덕석 뜯어먹기다.**

자신이 자기에게 손해 가는 행동을 한다는 뜻.

**힘이 세다고 황소가 왕 노릇할까?**

세상일은 모두가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힘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



## 2. 전통민속과 韓牛

### 1) 한국세시풍속사전

#### <참고문헌>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2005

#### 소줄꼬기

정의 : 소를 부리는 데 필요한 줄을 꼬는 작업.

내용 : 음력 정월 대보름에 소줄꼬기를 하는 농촌이 많다. 경상도, 충청도 지역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새끼나 소줄을 꼬기도 하였으며, 각 농가마다 개별적으로 작업하기도 한다. 먼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작업을 하는 경우를 보면, 마을 농기(農器)밑에 모 농사를 짓는 남자들이 모여 앉아 줄을 꼈다. 한편 집집마다 개별 작업을 하는 경우를 보면, 벼 수확을 마치고 농한기로 접어들면서 사랑방에 집안 남자들과 이웃 몇 명이 모여 앉아 새끼를 꼬아 두었다가 정월 대보름날 소줄을 꼈다. 농민들은 아침일찍 새끼를 마당에 내어놓고 가는 새끼줄 세 가닥을 ‘자새’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한 가닥의 굵은 줄을 꼈다. 이렇게 만든 소줄을 나무에 걸고 양끝에 돌맹이를 매달아 줄이 팽팽하게 늘어나도록 한다. 소줄의 종류는 소를 몰고 다닐 때 손에 쥐고 쓰는 고삐, 쟁기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붓줄·씨레줄 등 다양하다.

의의 : 음력 정월 대보름은 당제(堂祭)등 제의(祭儀)가 행해지는 날이다. 농기는 마을과 농업의 신성한 상징이다. 이렇듯 상징성이 강한 시간과 장소를 택한 것으로 보아 소줄꼬기에는 상당한 종교적 관념이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 목우희(木牛戲)

정의 : 입춘에 나무로 만든 소를 가지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풍속. 소는 나무 이외에도 흙 [土牛] 또는 종이 [紙牛], 철 [金牛] 등으로 만들기도 하며, 소의 머리는 종이 또는 나무로 만들고 몸체는 명석으로 대신하여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소로 분장하기도 한다. 이 소들은 입춘에 행해지는 곳에서 자주 등장한다.

유래 및 역사 : 민간에서는 설이나 입춘을 전후로 하여 농사의 시작과 권농(勸農)을 알리는 상징적인 활동을 했다. 『고려사(高麗史)』 권3 「세가(世家)」 성종 7년(988) 2월 임자(壬子)에 “농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입춘 전날에 흙으로 빚은 소 [土牛] 를 길거리에 세워 놓았다(立春前出土牛以示農事之早晚).”는 기록과 『고려사(高麗史)』 권64 「지(志)」 18 단종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6년에 “토우(土牛)로써 한기를 쫓고자 흙으로 소머리 네 개를 만들었는데 길이는 1척이고 높이는 5촌이다(季冬之月命有同大儺旁磔土牛以送寒氣).”고 적고 있다.

『후한서(後漢書)』 「예의지(禮儀志)」에도 “입춘날…… 흙으로 빚은 소와 사람을 성문밖에 설치하여 사람들에게 농사시기를 가르쳐 주었다.(立春之日…… 施土牛耕人于門外 以示兆民 至于立夏).”고 적고 있다. 『세시광기(歲時廣記)』 「산정월령(刪定月令)」에도 “겨울철 토우를 보고 농사의 시기를 알 수 있었다.(季冬出土牛 以示農耕之早晚).”고 적고 있다. 이처럼 농민들은 관가에서 만든 소와 사람의 위치를 보고 농사의 시기를 파악했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목우(木牛)에 대한 기록은 15~16세기 문헌에 보인다. 이행(李荇)의 『용재집(容齋集)』에는 목우와 관련된 풍습을 적고 있는데, 목우를 만든 것은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농사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토우를 만든 이유를 “농사에 힘을 쓰기로는 소에 비길 것이 없고, 만물을 낳아 기르지게 하는 것은 흙이니, 두 가지를 합쳐 만든 토우가 그만이다.”고 적고 있다. 또한 청명한 입춘에 제단을 설치하고 유사가 재계하고 정성을 모아 채찍으로 세 번 치는 행위, 소를 이끌고 마을로 다니는 행위, 토우를 부서뜨려 가루를 내는 행위 등은 한기를 몰아내고 농사를 권장하는 풍속으로 묘사하고 있다.

조선시대 유희춘(柳希春)의 『미암집(眉巖集)』에서는 나무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나경(裸耕)풍습에 대하여 적고 있다. “매년 입춘 아침에 관문(官門)의 길 위에서 목우를 몰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하여 풍 · 흉년을 점치고 풍년을 기원한다. 이 때 밭을 가는 자와 씨를 뿌리는 자는 옷을 벗게 한다.”고 적고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입춘조(立春條)에도 “함경도에서는 입춘이 되면 나무소를 관청에서 끌고 나와 마을을 돌아다녔다 이것은 입춘 전날 흙으로 빚은 소를 길거리에 내놓던 관례를 모방한 것으로 농사를 장려하고 풍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이다(關兆俗是日作木牛自官府達于閭里 遍出于路盖倣出土牛之制 而所以勸農 祈年之意也).”고 적고 있다. 『탐라록(耽羅錄)』에도 “관복을 입은 호장이 나무로 만든 쟁기를 소에 매어 끄는 가운데 어린 기생들이 뒤를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의식은 20세기 초까지도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통해 토우가 정적(靜的)이라면 목우는 동적(動的)이고, 토우가 목우로 바뀌면서 놀이 요소도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문헌에서는 나무로 만든 소의 형태와 크기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원전장(元典章)』 권32에 “나무소의 골격은 뽕나무로 만들며, 머리에서 꼬리까지 참죽나무로 그 길이는 8척…… 꼬리 길이는 1척 2촌…… 높이는 4척이며, …… 채찍은 버드나무 가지로서 길이는 2척 4촌이다(春牛用桑柘木爲胎骨 牛頭至尾椿八尺…… 牛尾一尺二寸…… 高四尺…… 鞭子用柳枝兒 長二尺四寸).”고 적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소를 그려 국가에 바치고 관청으로부터 소를 끌어내어 채찍질을 하며 소를 부리는 의식을 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중국에서는 타춘(打春) · 편토우(鞭土牛) · 창춘우(唱春牛) · 도춘우(跳春牛) · 춘우회(春牛會) 등 다양하게 부른다. 이것 역시 봄 농사철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의식이다. 타춘(打春)의 습속은 송대(宋代) 맹원로(孟元老)의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과 명대(明代) 『제경경물략(帝京景物略)』, 청대(清代)의 지방민속지에도 상세히 적혀 있다.

토우 · 목우 · 지우 등을 만들던 풍속은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춘우

도(春牛圖)’이다. 춘우도는 천간지지(天干地支) ·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다. 예로부터 갑자년(甲子年)은 양(陽), 을축년(乙丑年)은 음(陰)으로서 소의 입이 벌어져 있고 꼬리가 좌측에 위치한다면, 음년(陰年)에는 입은 다물어져 있고 꼬리는 우측에 있다. 이 밖에도 소의 색깔, 뿔 · 귀 · 꼬리의 색깔도 천간지지(天干地支)에 따라 달라진다. 흙과 나무 뿐만 아니라 청동으로도 소를 만들었다. 중국에서는 동지와 입춘 사이에 청동으로 만든 소를 어깨에 메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봄을 알렸다. 그리고 집안으로 들어가 쌀 향아리나 곡식 창고 주위를 좌우로 각각 세 바퀴 돌고, 띠와 24절기가 적혀 있는 소 판화 그림을 나누어 준다. 주인은 그 답례로 돈을 준다. 이러한 행위는 길상을 알리고, 농사시기를 일러주는 하나의 의식이다.

지역사례 : 입춘 때 목우 만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1999년을 전후로 하여 제주도 입춘굿보존회에서는 입춘 때 목우를 만들어 제를 지내고 시청에서 관덕정까지 소몰이를 한다. 이 때 회장을 비롯한 마을의 유지들이 참여하며, 제주도의 풍년을 기원한다. 목우는 매년 만드는데, 소의 생김새를 보고 그 해의 날씨와 풍년을 점치기도 한다. 가령 소가 선한 모습이면 날씨가 좋고 풍년이 들 징조로 여기고, 소가 험한 모습이면 날씨가 춥고 농사가 좋지 못할 것이라고 여긴다.

경기도, 황해도 지방에서는 입춘이나 한가위에 소놀이를 한다. 목우 대신에 한지(韓紙)와 형겔 따위로 소 형상을 만들고 가족에 흙빛 물감을 칠한 뒤 들기름을 먹인다. 그 안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소처럼 천천히 움직이면서 물이끈을 따라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그 뒤에는 농악대와 마을 사람들이 뒤따른다. 보통 부잣집을 찾아다니며 덕담을 하고 춤추고 놀면, 그 대가로 주인은 돈이나 술, 쌀 따위로 대접한다. 봄에 노는 소놀이가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라면, 한가위 때 소는 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送牛’의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소놀이는 지방에 따라 정월 대보름이나 팔월 보름에 행해지기도 하나, 본래는 입춘(立春)에 놀았던 것이다.

의의 : 소는 농가의 재산이자 가장 큰 노동력이다. 목우를 만드는 것은 농사의 시기를 알리는 행위이자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목우를 때리는 행위 등은 채찍 소리로 한기(寒氣)를 몰아내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소를 만들어 세워놓는 의식(出土牛)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해서 궁정은 물론 민간에서도 행해졌고, 오늘날에는 놀이로서 그 풍습이 남아 있다.

### 영산 3·1 민속문화제(靈山三一民俗文化祭)

정의 : 경상남도 창원군 영산면에서 매년 2월 28일(또는 29일)에서 3월 3일까지 열리는 민속문화제, 경상남도 내 3·1독립만세운동 발상지인 영산 지역 항일 애국선열의 충절을 기리고, 영산의 대표적 전통 민속놀이인 쇠머리대기와 줄다리기의 시연을 통한 전통 문화계승과 주민 화합을 목적으로 1961년부터 열고 있다. 3·1문화제, 3·1민속문화제라 부르기도 한다.

유래 : 경남 창원군 영산면은 3·1독립만세운동이 봉기될 당시 24인의 결사대가 조직되어 독립만세를 외치다 일본 경찰과 충돌한 역사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3·1절이 되면 결사대원 24인 중 생존자를 중심으로 기념행사를 성대히 개최해 왔다. 그러나 영산과 가까운 진주의 개천예술제(1949)와 밀양의 아랑제(1957)같은 문화제 행사가 전국 각처에서 우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후죽순 격으로 열리는 것을 보며 자극을 받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1961년 초 20여 명의 지역 유지와 청년들을 중심으로 삼일문화향상회(三一日文化向上會)를 결성, 3·1절을 기하여 3·1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제1회 문화제(1961년)는 백일장과 사생대회, 웅변대회, 시조경창대회, 시화전, 국악 공연과 무용 공연 같은 주로 문화예술행사를 중심으로 열렸다. 그러나 2회부터는 씨름, 농악대회, 문호장굿 같은 지역 민속 행사가 등장하였고, 영산줄다리기도 이때부터 시도되었다. 4회부터는 이틀이었던 행사 기간을 사흘로 늘렸으며, 영산 쇠머리대기를 새로 발굴하여 공연에 포함하였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10년간 이어 온 3·1문화제는 본격적인 기금 조성을 바탕으로 11회 행사 때부터는 대회 명칭을 ‘3·1민속문화제’로 개칭하고, 삼일문화향상회장과 민속문화제대회장을 분리하여 본격적인 종합 문화제로 변모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3·1민속문화제의 중심 행사인 쇠머리대기와 줄다리가 국가 중요무형문화제 제25호와 제26호로 지정(1969년)되자 이때부터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민속문화제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내용 및 특징 : 현재 개최되는 3·1민속문화제는 모두 30여가지 행사로 진행된다. 중요무형문화제 제25호와 제26호로 지정된 영산쇠머리대기와 영산줄다리기 발표회, 문호장굿, 구계목도놀이, 원다리밟기, 팽이말타기, 장사시름대회, 전국연날리기대회 같은 민속 문화 행사가 중심이 되며, 제등 축하 퍼레이드, 불꽃놀이, 봉화놀이, 전국시조경창대회와 각종 백일장이 부대 행사로 치러진다.

3·1민속문화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중요무형문화제로 지정된 영산쇠머리대기와 영산줄다리기이다. 쇠머리대기는 쇠머리처럼 생긴 나무 조형물을 서로 부딪치며 노는 놀이로 중요무형문화제로 지정되기 전에는 우전, 목우전, 나무쇠싸움, 쇠머리대기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나, 지정 당시 영산쇠머리대기(木牛戰)로 결정되면서 쇠머리대기란 이름으로 고정되어 전한다. 옛날에는 정월 대보름놀이로 즐겼으나, 현재는 3·1민속문화제 때 발표회를 겸한 연례행사로 치어진다.

#### 쇠머리대기

본격적인 결전 이전에 서낭대대기와 진잡이놀이로써 먼저 승부를 결정하는 데, 서낭대대기는 쇠머리대기에 앞선 전초전으로 행해진다. 10미터 정도 되는 대나무 위를 꿩깃으로 장식하고, 서낭옷을 입혀 싸움을 벌인다. 동서 양쪽에서 차출된 장정들이 마주 보고 건들거리는 서낭대싸움을 벌이는데, 양군에서는 장군을 위시하여 풍물과 기치, 응원단이 모두 합세해 응원전을 펼친다. 서낭대싸움은 흔들리는 서낭대를 맞부딪쳐 한쪽 서낭대가 땅에 떨어지거나 부러지는 쪽이 패하게 된다.

쇠머리대기의 앞 놀이에는 진잡이놀이가 전개되는데, 장정들이 오색 깃발과 농악대를 앞세워 적진을 향해 함성을 지르며 돌진해 일대 공방전을 펼친다. 때로는 깃발이 찢어지고 부러지며 상처를 입는 사람도 생길 정도로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열기를 느끼게 한다. 서낭대대기와 진잡이놀이가 끝나면 장군들이 나무소를 타고 독전을 위한 칼춤을 추며, 농악대와 군중들이 쇠머리를 에워싼다. 이어서 두 마리의 소가 맞부딪쳐 한쪽의 쇠머리가 기울어져 땅에 누우면 승부가 끝난다.

쇠머리대기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전투놀이 형태를 취한다. 서낭대싸움을 시작으로 진잡이놀이가 각 진지를 두고 양구의 공방전을 치열하게 만들어 쇠머리를 대는 일은 최후의

승패를 가름하는 일대격전으로 벌어지는 것이다. 쇠머리대기를 할 때에는 영산 주민들만이 아닌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삶들이 몰려와 잔치 기분을 만끽한다.

의의 : 영산 3·1민속문화제는 3·1독립만세운동 때 구국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24인의 선열을 기리고 그들의 정신을 기념하는 위령제와 기념행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개최 초기에는 단순히 백일장, 공연 같은 일반적인 문화예술 행사를 결합한 형태였으나, 해가 거듭하는 동안 3·1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많은 유형, 무형의 민속문화재를 발굴하여 육성함으로써 향토 문화 전반의 향상을 도모하는 종합 민속문화제로 발전하였다. 또한 다른 문화제와 달리 중심이 되는 쇠머리대기와 줄다리가 모두 놀이꾼과 구경꾼 구분 없이 참여하는 행사라는 점이 영산 3·1민속문화제의 특색이라 할 만하다. 축제는 지역민 모두가 혼연 일체가 되어 즐기며 흥겨운 놀이판을 벌이는 화합의 큰 잔치이자 대동의 장이 되고 있다.

### 소 군둘레 끼우는 날

정의 : 강원도 삼척에서 단오(端午)를 일컫는 다른 말. 표준어로는 ‘소 코뚜레 끼우는 날’이다.

내용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에서는 5월 단오에 마을마다 그네를 뛰는데, 이 날 특별히 해먹는 음식은 없지만 ‘소 군둘레 끼우는 날’이라 해서 음식을 차리기도 한다. 그리고 제삿술 남긴 것을 꺼내어 쭈욱을 베어다 술을 뿜어 약쭈욱을 만들었으며, 이것을 엮어서 매달아 놓았으니 일종의 벽사(辟邪)의식으로 볼 수 있다. 소에게 군둘레가 끼워진다는 말은 소가 행하는 통과의례의 한 부분이다.

### 소 시집가는 날

정의 : 강원도 삼척지역에서 단오(端午)를 일컫는 다른 말.

내용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풍속으로, 이 날 쇠꼴 중에서 ‘얕은뱅이’같이 보들보들하고 좋은 꼴을 베어다가 소에게 먹인다. 지금은 그 같은 전통이 흔하지 않지만 ‘소의 코를 꿸 날’이라 해서 ‘소 시집가는 날’이란 명칭이 생긴 것이다. 황소 한 마리가 장정 16명이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소를 하나의 인격체로 다루었다. 소 시집가는 날은 다른 아닌 소가 행하는 통과의례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쇠코 꿸 날

정의 : 강원도 삼척에서 단오(端午)를 일컫는 다른 말.

내용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과 미로면에서는 소를 인격체로 보아 단오를 소 시집가는 날, 소 군둘레 끼우는 날, 쇠코 꿸 날이라고 부른다. 이 날 보들보들하고 좋은 꼴을 베어다가 먹이는 풍속이 있다. 정월대보름에는 키에 오곡밥을 담아 먹이지만, 단오에는 양질의 꼴을 먹인다는 점이 다르다. 쇠코 꿸 날은 ‘소 군둘레 끼우는 날’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 쇠미꼬지

정의 : 백중날 늦게까지 소를 방목하면 귀신이 따라온다고 일찍 귀가하는 풍속. 지역에 따라 ‘소 일찍 끌고 들어오기’라고 한다.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내용 및 지역사례 : 쇠미꼬지는 주로 경상도 서부 지역의 세시풍속이다. 경남 합천군 서산면 서산리에서는 7월 백중날 아침 일찍 소를 먹이러 나갔다가 해가 진 후 늦게 귀가하면 소꼬리에 귀신이 붙기 때문에 이날은 반드시 일찍 돌아온다고 한다. 만약 늦게 귀가하여 소꼬리에 귀신이 붙으면 소의 꼬리에 밀가루를 묻혀놓고 “귀신 붙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회초리로 소를 때리면 귀신이 떨어진다고 한다. 경북 고령에서는 산골짜기에 소를 방목할 때는 낮에 점심 먹고 소를 데려다놓았다가 저녁에 일을 끝내고 들어올 때 끌고 온다. 대개 해가 저서 어두울 때 소를 끌고 들어오는데, 백중날 늦게 소를 데려오면 귀신이 따라온다고 하여 해가 지기 전에 소를 일찍 끌고 들어온다. 이를 소 일찍 끌고 들어오기라고 한다. 그리고 경남 합천에서는 소먹이는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각자 음식을 준비하여 소먹이는 산에 올라 소에게 탈이 없게 해달라는 뜻에서 7월 백중고사를 지내고 가져간 음식을 먹고 노는 연회를 쇠미꼬지라고 한다.

소를 위한 이같은 의례는 제주도의 소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백중고사’ 혹은 ‘테우리고사’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경남 통영시 한산면 염호리에 있는 세미곶산은 ‘쇠미이는 풀(소먹이는 풀)’이 무성했던 산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것으로 보아 ‘쇠미’는 소를 먹이는 일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쇠미꼬지는 소먹이기를 잘하기 위해 행하는 의례이면서 유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소놀이와 거북놀이

소놀이는 명석을 쓰고 소모양으로 가장하여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즐겁게 놀아주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풍년 기원 놀이이다.

두 사람이 서로 궁둥이를 맞대고 엮드린 후 그 위에 명석을 씌운다. 앞사람은 명석 밑에서 잘 깎은 막대기 두 개를 내밀어 마치 뿔처럼 보이게 하고 뒷사람은 동아줄을 한 가닥 늘어뜨려 마치 쇠꼬리처럼 보이게 한다. 이때 농부 한 사람이 앞에서 소의 고삐를 잡고 끌고 간다. 소 뒤에는 풍물패가 따르며 흥을 돋운다. 소를 앞세운 일행은 부자집을 찾아간다. 대문 앞에서 쇠고삐를 잡은 사람이 “소가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여물과 뜨물을 주시오.”라고 소리치면 주인은 음식을 차려 대접한다. 이렇게 여러 집을 찾아다니며 마을 사람 모두가 즐겁게 보낸다. 거북놀이는 소 대신 거북으로 가장하여 노는 것이다. 소는 농부와 마찬가지로 농사일을 하는 존재로서 생구(生口)라 할 정도로 가족의 일원으로 여겼다. 거북은 십장생에도 등장하는 영물로서 수신(水神)과 농경신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 놀이들은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례의 성격을 지닌다.

#### 소놀이

정의 : 추석 때에 소를 중심으로 놀이를 하면서 사람들이 한 해 농사의 풍요를 마음껏 즐기는 세시놀이. 농경사회의 필수 구성 요소인 일꾼과 소의 노고를 위로하는 놀이이다. 이를 달리 소먹이놀이라고도 일컫는다.

내용 : 소놀이는 우리나라 농경 사회의 전통 속에서 생긴 놀이이다. 놀이의 중심인 소와 상일꾼의 노고를 위로하는 놀이로 추수를 앞두고 소를 기리고 사람들의 놀이를 위해서 행한 의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놀이는 농악대와 소로 가장(假裝)한 사람들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농악대를 구성해서 농악놀이를 한 뒤에 모이면

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남자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소놀이를 한다. 두 사람에게 명석으로 만든 소를 씌우면 앞사람은 막대기로 뿔을 만들어 소의 머리를 구성하고, 뒷사람은 새끼를 꼬아서 꼬리를 만들어 소 시늉을 한다. 이처럼 소놀이 도구가 만들어지면 소놀이를 벌일 수 있는 준비가 끝난다. 그리고 한 해에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이나 마을의 부농에게 가장한 소를 데리고 가서 소놀이를 행한다.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소놀이를 하는데 내용은 문놀이, 소맞이놀이, 끝막음놀이를 구성된다. 문놀이는 문긔 가락을 치고 가서 일단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놀이의 서두에 해당한다. 대문 앞에서 “소가 배가 고프고 구정물을 먹고 싶어 왔으니 달라.”라고 놀이패의 상쇠가 외치면, 집 주인이 나와서 일행을 맞이하고 마당에서 한바탕 놀이를 벌인다. 소를 앞세우고 일행들이 앞마당으로 들어가서 농악을 치며 노래하고 춤추면서 놀이를 벌이면 집주인은 술, 떡, 찬을 차려서 이들을 대접한다. 주인과 한바탕 어울려서 놀이를 한껏 한 뒤에 소놀이를 마친다. 다른 집에 가셔도 이 놀이를 반복하며, 해가 지도록 논다.

한편 이 놀이의 마지막 부분에 그해 가장 일을 잘한 상머슴을 뽑아 소에 태우는 놀이를 한다. 이 놀이를 상머슴놀이라고 하는데, 마을을 돌면서 자랑을 하고 뽑힌 사람을 높이 내세운다. 소 등에 상일꾼을 태우고 그의 공적을 치하하는 것이다. 아울러서 상일꾼만이 아니라 소에게도 영광을 돌려서 이를 기념하는 놀이를 벌이는 것이 이 놀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듬해 머슴의 새경을 정할 때 상일꾼은 일정한 우대를 받는다.

### 소싸움

정의 : 두 마리 황소를 맞붙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 소를 중요한 생산수단으로 여겼던 전통사회에서 소싸움은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임시로 벌이는 소싸움이 아니라 두 마을 또는 여러 마을에서 마을을 대표하는 소를 끌고 나와 연례적으로 벌인 소싸움은 경상남도 일원과 경상북도 청도 지역 등 이른바 가야문화권에서만 전승되어 있다.

내용 : 연례적으로 벌어진 놀이로서 소싸움은 주로 추석(秋夕) 무렵에 행해졌다. “정월 씨름, 팔월 소싸움”이라는 경북 청도 지역의 향언(鄉言)은 이를 말해준다. 이 시기는 수도재배의 힘든 노동이 일단락되는 농한기이다. 이 기간 중에 직접 농업생산에 종사한 일꾼들이 주도한 놀이가 바로 소싸움이었다. 현재까지도 소싸움이 강성한 경남 진주 지역에서 “소싸움 날은 상머슴의 날이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추석이 되면 인접한 두 마을에서는 자연스레 소싸움 이야기가 나오고 각 마을에서는 싸움에 나설 소를 가린다. 싸움소는 평소 초동(樵童)들의 소싸움 등을 통해서 마을에서 가장 강하다고 공인된 소로서, 싸움에 대비하여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싸움 장소는 통상 두 마을의 경계지역에 있는 개천이나 논밭이다. 개천에서 싸울 경우, 소들은 하상(河床)에서 싸우고 사람들은 개천 독에서 응원한다. 소싸움에 참여하는 마을사람들은 그 싸움을 자기 마을의 위신이 걸린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은 마을 대항전으로 벌어진 소싸움의 사례이다.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대 현리의 소싸움을 보면, 인접한 두 마을인 봉기리와 현리에서는 1930년대 중반까지 매년 추석 뒷날이나 그 다음 날에 두 마을 사이에 있는 개울에서 소싸움을 벌였다. 각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황소 한 마리씩 출전하는데 소의 목에는 적 · 청 · 황의 세 천을 엮은 ‘이남기(끈)’를 둘러주었다. 소를 앞세우고 마을의 남녀노소가 함께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싸움터에 나가며 이때 풍물패를 꾸려 자기 마을 소를 응원하였다. 위낙 싸움이 거칠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망라한 마을사람들은 개울의 독 위에서 열렬히 응원하였고, 소들은 하상(河床)에서 싸움을 벌였다. 이때 소를 몰고 나온 머슴이나 소 주인은 싸움소를 따라 움직이며 싸움을 독려했다.

승부는 머리를 맞대고 싸우다가 먼저 도망가는 쪽이 패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대개 단판으로 결정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패한 마을에서 다른 소를 끌고 나와서 이긴 마을의 소와 한 번 더 싸움을 붙인 적도 있다. 이 싸움에는 어떤 상품도 걸려 있지 않으며, ‘승부[勝負]’와 마을의 ‘세도’ 때문에 싸웠다고 한다. 싸움에서 이기면 풍물패를 앞세우고, 머슴이 소를 타고 마을로 돌아오며 소의 주인집에서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내놓아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

인접한 두 마을 간의 대항전이 아니라 근동(近洞), 혹은 관내의 다수 마을이 참여하는 보다 큰 규모의 소싸움 역시 추석 무렵에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경남 의령의 경우, 20세기 초엽에 적어도 수십개 마을의 소들이 출전하고 난장이 서는 대규모 소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1909년, 위암(韋菴) 장지연(張志淵) 선생이 진양잡영(晉陽雜詠) 12수를 발표하면서 소싸움을 평하기를 “당지(當地)의 투우(鬪牛)가 심히 성하여 천백(千百)명의 같은 무리들이 크게 충돌을 벌이면 그 등약(騰躍)하고 포효하는 모습이 진실로 일대 장관이더라.”라고 한 것도, ‘수무바다’라고 일컫던 남강 백사장에서 벌어진 대규모의 소싸움을 본 소감을 피력한 것이다. 다음은 여러 마을의 소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소싸움의 사례이다.

경북 의령의 소싸움을 보면, 소싸움은 바쁜 논농사일이 한풀 끝난 칠월 백중이나 팔월 한가위 무렵에 행해졌다. 싸움은 넓은 모래사장이나 풀밭에서 이루어졌는데, 의령읍의 남산천과 정암진의 모래사장, 가례면의 한내변, 유곡면의 세간천변, 부림천변 등이 소싸움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싸움의 장소가 정해지면 음식장사들이 미리 몰려들어 일대 난장을 이룬다. 고배와 코뚜레를 푼 싸움소들은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상머슴이나 주인에게 이끌려 싸움터의 이곳, 저곳을 돌면서 자기편 관중들로부터 열렬한 격려와 쓰다듬을 받는다. 싸움터에 나간 싸움소가 잠깐 동안 상대를 응시하다가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허를 찔러 급소를 공격해 들어가면 모래사장, 혹은 풀밭은 격투장으로 변한다. 관중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소들은 ‘빨길이’, ‘옆목치기’, ‘들치기’ 등의 공격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밀어 붙인다. 이때 주인은 채찍으로 소를 때리면서 ‘받아라’, ‘찍어라’, ‘이러이러’하고 외치면서 소를 독려한다. 약한 쪽이 싸움을 포기하고 달아날 때까지는 보통 몇 분이 소요되지만 길게는 수십 분이 소요될 경우도 있다. 싸움의 결과는 소의 동작을 보면 미리 알 수 있다. 달아날 방향을 찾는 듯이 눈동자를 옆으로 굴리거나 꼬리를 흔들고, 뒷배가 들쭉날쭉하면서 똥을 싸거나 입에 흰 거품을 내뿜으면 이미 자신을 잃었다는 표시이다. 싸움에서 이긴 소는 목과 뺨을 비단과 들꽃으로 장식하기도 하며 소등에는 상머슴이나 주인이 올라타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풍물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개선하는 군사들처럼 마을로 돌아온다. 마을로 들어오면 소의 주인집에서 마련한 음식으로 밤늦도록 잔치를 즐긴다.

이와 같이 보다 큰 규모의 소싸움, 즉 청도의 풍각면이나 이서면처럼 이름난 우시장을 중심으로 면관내의 각 마을들이 참여하던 소싸움이나 의령, 진주, 김해 등지에서 행해진 고을 규모의 초대형 소싸움이 역사상 어떠한 시점에서 시작되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보면 이양법(移秧法)이 널리 퍼짐으로써 집약적인 노동력 투입이



요청되고 그에 따라 두레 등의 협업관행이 활성화되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집락(集落)이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고 축력의 이용이 획기적으로 증대된 조선 후기의 말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처럼 범공동체적인 소싸움이 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소싸움의 주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두 마을 간의 소싸움일 경우, 싸움에 참여하는 각 마을에서 가장 세다고 공인된 소를 싸움소로 내세운 점, 그 소가 지게 되면 마을의 다른 소를 데리고 와서라도 이기려고 했다는 점, 풍물패가 함께 했다는 점, 소싸움을 마을 간의 ‘세도(세력)싸움’으로 인식하고 자기 마을 소의 승리를 마을의 승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은 소싸움이 단순히 소 주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 소가 속해 있는 마을 간의 싸움이었음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은 성격은 여러 마을들이 참여하는 보다 큰 규모의 소싸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싸움에 참여하는 소가 있으면 마을의 풍물패들이 그 소와 함께 싸움터로 나아가서 열렬히 응원할 뿐만 아니라 몸소 싸움에 참여한다. 마을 사람들이 싸움에 참여하는 방식은 대단히 직접적이다. 자기 마을의 소가 불리하면 상대방 소의 꼬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상대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되면 소싸움판은 난장판이 되게 마련이다. “센 소도 그 마을의 세력이 없으면 진다.”라는 말이 통용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싸움이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소를 앞세우고 풍물을 잡히며 함께 돌아온다. 승리하였을 경우 마을은 온통 잔치판이 되고 대개 부농인 소 주인은 음주가무가 따르는 뒤풀이를 주선하게 마련이다.

이처럼 각 수준의 소싸움이 공동체의 참여와 후원 아래 행해졌고, 그 승패를 마을의 승패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소싸움은 줄당기기, 동채싸움, 팔매싸움 등과 마찬가지로 대동놀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체→소 주인 →소↔소←소 주인←공동체

소 싸움은 외형상 소들의 싸움이지만 그 배후에는 우선 소 주인이 있고 다음으로 그 소가 속한 공동체가 있다. 이 싸움에는 일차적으로 소 주인의 명예와 위신이 걸려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속 공동체의 위신과 명예가 걸려 있다. 따라서 ‘소-소 주인-공동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싸움의 주체를 이루게 된다.

전통적 소싸움에는 이렇다 할 물질적 유인(誘因)이 없다. 두 마을 간의 싸움인 경우에는 상품이 전혀 없었다. 이길 경우 소 주인이 마을사람들에게 한턱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손해였다. 여러 마을이 참여하는 보다 큰 규모의 소싸움에서는 우승한 소에게 ‘광목필’정도를 걸어주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보다 후대에 나타난 것이었다. 이처럼 특별한 물질적 유인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싸움이 대단히 치열하게 전개된 것은 무언가 다른 유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보자들은 이것을 흔히 ‘싱백’ 즉 싸움에 이기고자 하는 욕구, 혹은 ‘세도’ 즉 마을의 힘, 내지는 위세의 과시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소싸움은 물질적 유인 때문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 소 주인, 보다 깊게는 해당 지연 공동체의 명예, 혹은 위신의 과시라는 비물질적 유인 때문에 행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싸움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 속에서 소와 싸움의 의미는 어떠할까? 우선 싸움소는 소 주인,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대리하는 존재이다. 소는 곧 마을사람들을 대신해 싸우는 존재로서 마을사람들은 그들의 싸움을 소에게 위임한다. 이러한 위임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은 싸움소와 그들을 동일시하며 그러한 동일시는 소의 수성(獸性)에 대한 인간의 참여와 소에 대한 인성(人性)의 부여라는 교환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마치 소가 말귀를 알아듣는 듯 싸움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의 요령을 알려주고 격려와 응원의 고함을 쉴 새 없이 내지르는 소 주인과 마을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싸움소는 소속 지연공동체의 모든 소를 대리하는 존재이자 소와 함께 농업생산을 주도하는 일꾼들, 즉 마을사람들의 대리자라는 점에서 마을의 모든 남성, 나아가서는 모든 마을사람들을 대표하는 존재이다. 마을의 소들 그리고 마을 일꾼들의 힘의 총합은 곧 해당 지연공동체의 현재의 생산력 및 미래의 생산력을 표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마을을 대표하여 소싸움에 나서는 황소는 곧 그 마을의 생산력 그리고 생산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소싸움은 각 마을 간의 생산력의 경합이라는 문화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던 전통적 소싸움은 1970년대에 이르러 경남 진주를 시작으로 이른바 투우대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되면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우선 전통적 소싸움의 주체였던 마을공동체가 뒤로 물러나고 소 주인이 싸움의 주체가 되었으며 엄격한 경기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 소싸움에는 없던 체급 구분이 이루어지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각 체급의 우승 소를 가리게 되었다. 또한 우승 소에게는 거액의 상금을 주고, 그 소의 몸값도 몇 배나 오름으로써 물질적 유인이 소싸움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현재 소싸움은 대구, 경북 청도, 경남 의령·진주·김해·창원, 전북 정읍 등에서 연중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청도에서는 대규모 실내 투우장을 건설하여 소싸움을 상설화하고 우권(牛券)을 발행하여, 그 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소싸움 도박을 양성화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 양주소놀이굿(楊洲-)

정의 : 경기도 양주(楊洲) 지역에서 전승되는 소놀이굿. 주로 음력 8~9월에 소놀이굿의 형태로 전하는 것이 이 놀이굿의 세시절기 의례를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 양주소놀이굿은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 70호로 지정되어 있다.

유래 : 현지 조사자들이 소놀이굿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놀이는 양주지방에서 신산(神山)으로 여기는 감악산(紺岳山)의 감악사(紺岳祠)에서 나왔다. 비똥대왕을 위하는 감악산신의 위무 절차로 이 놀이가 발생했다고 하는 설이다. 둘째, 농경의례의 하나로 풍년을 빌던 의례에서 유래했다. 주술적인 풍농을 기원하는 의례로 본다면 의의가 있으므로, 이를 소놀이굿의 기원으로 보는 것이다. 셋째, 순전히 기원적인 의례보다는 실용적인 목적 아래에서 소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던 데에서 나왔다는 설이다. 넷째, 이와는 다르게 궁중의례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도 있다. 다섯째, 순전히 놀이패를 위하여 굿의 여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동네 놀이패들이 있어서 이들을 위해 놀이하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 가설은 모두 양주소놀이굿 기원의 배경은 될 수 있겠으나 직접적인 발생의 근거는 아니다. 현재 양주 일대에 전승되어 오는 소놀이굿은 다른 지방에서 배워온 것인지 양주지방의 무속에서 형성된 것인지도 불명확한채 소놀이굿 보유자들이 팽수천(彭壽天)으로부터 배워 전하고 있다.

다른 고장의 사례를 참고해서 보면 이 소놀이굿의 발생과 형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수 없고, 다만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우마송배와 농경의례인 소맥이놀이에 그 기원을

두고, 무속의 제석거리와 마마배송굿의 마부타령의 자극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내용 : 농경사회에서 소를 위하고 풍농을 기원하며 풍농에 감사드리는 전통은 소를 위하는 곳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전통이 소놀이굿의 형태로 전하는 것을 우리나라 여러 고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놀이굿은 제석거리에서 명석으로 소를 꾸며 만들고 제석거리의 주관자인 무녀와 마부가 재담과 소리를 주고받는 놀이로, 경사(慶事)굿의 연장선에서 굿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석굿에 이어서 노는 것이 현재 전승되는 소놀이굿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렇듯 소놀이굿이 굿이라고 하는 측면은 제석굿의 연장선에서 놀기 때문이다. 소놀이굿은 대체로 풍농을 기원하는 주술적 목적 아래 제석굿의 일환에서 행해지므로 제의적 성격이 뚜렷하다. 제석굿은 생명을 진작하고 인간에게 복록(福祿)을 가져다주는 신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제석굿의 무녀는 사제자이다. 복색을 보면 고깔에 흰 장삼을 입고 붉은 띠를 댄므로 전형적인 사제자임이 확인된다. 반면 소놀이굿의 마부는 전립에 청채자를 걸치고 있으며 사제자가 아니고 단순한 놀이꾼이라는 점에서 둘의 성격에 차별성이 있다. 무녀와 마부의 합작에 의해서 소놀이굿이 완성되는 것을 쉽사리 인정할 수 있다. 두 인물의 성격상 사제자와 놀이꾼이 합쳐서 연행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제석굿 말미에 연행하는 소놀이굿의 본질을 재론하는데 요긴한 단서가 된다.

소놀이굿은 소를 꾸며 소는 흔히 어미소와 새끼소 또는 큰소와 작은소라고 해서 두 마리를 만들어 사용한다. 소머리와 몸체를 강조해서 만들어 사용한다. 소머리와 몸체를 강조해서 만들어 실제 연행에서 구체적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굿에서 동물을 구체적 형상을 꾸며서 놀이하는 다른 고장의 사례로는 황해도평산소놀이굿과 동해안 지역의 범굿이 있다.

범굿은 호식(虎食)을 당할 팔자를 면하거나 흔히 바닷가의 풍어를 비는 굿인데, 이 과정에서 범의 실제 모습을 실감나게 꾸며서 연행한다. 범과 포수가 남무인 양중이 사제하는 곳에 등장해서 포수가 닭을 물고 달아나려고 하는 범을 쏘아 죽이고 범의 가죽을 벗겨서 굿당 밖에서 태우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 이러한 모습은 범굿이 범의 환난 가운데 하나인 호식을 면하자는 뜻도 있으나, 바닷가에서 놀기 때문에 풍어를 비는 뜻도 있다. 그 과정에서 소놀이굿의 소와 범굿의 범은 굿에서 꾸며지는 구체적 대상으로 상징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놀이굿은 무녀와 마부의 재담과 소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춤, 노래, 음악, 연희의 네 가지 측면이 총괄적으로 운용되는 민속극과 민속놀이의 연행 방식과 상통한다. 재담과 소리를 적절하게 배합하고 교체하면서 연행하기 때문에 이완과 긴장의 묘미가 청중에게 감동을 준다.

소놀이굿은 놀이와 굿이 합쳐진다. 소놀이굿의 직접적인 기원을 이루는 것은 소놀이이며 그 중에서도 소맥이놀이이다. 소맥이놀이는 민속놀이의 일환으로 노는 것으로 정월대보름과 추석에 흔히 행하였다. 소맥이놀이의 핵심은 장정 두 사람이 명석을 뒤집어쓰고 머리와 꼬리를 만들어, 주인과 머슴 네 사람이 소를 물고 부잣집에 가서 소 울음을 울고 “옆집 소가 평생 즐기는 싸리꼬챙이와 뜸물을 먹고 싶어서 찾아왔다.”라고 하면 주인이 산적과 술을 내놓아 대접한다. 이때 농악대가 뒤따르면서 놀이를 한다.

소맥이놀이가 변형된 사례로 기호(畿湖)지방에서 노는 거북놀이가 있다. 거북놀이는 소놀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이와 흡사하나, 다만 소의 멍석 대신에 수숫대 잎이나 짚을 써서 거북의 모양을 만든 것이 특징이며, 풍농을 기원하는 행사 가운데 하나였다. 거북이 지니는 신령한 동물의 영험성으로 인해서 거북놀이를 소놀이와 함께 놀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소와 관련된 민속놀이로 영산쇠머리대기도 있다. 이 놀이는 소싸움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며, 쇠머리 두 개를 만들어서 마을 사람 전체가 가지고 노는 것이 곧 쇠머리대기이다. 쇠머리대기의 핵심은 소머리 두 개를 가지고 싸워서 풍농을 기원하는 풍농의례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소맥이놀이, 거북놀이, 쇠머리대기는 소를 가장해서 놀았거나 소 대신에 거북을 사용하거나 더 나아가서 쇠머리를 꾸며서 격렬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놀이의 방식 자체가 화합하는 것과 갈등하는 것으로 양분되는데, 이 두 가지 놀이 방식이 소를 두고 공존한다.

소놀이굿에는 화합하는 방식은 잘 드러나지만 소싸움과 같은 격렬한 형태는 등장하지 않는다. 굿이 지닌 성격 자체가 화합의 주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놀이굿은 소를 잘 위하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를 잘 위하게 되면 명(命)과 복(福)이 깃든다고 하는 사고(思考)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맥이놀이와 같은 행태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소놀이굿의 또 다른 측면은 굿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굿은 무엇이 잘 되라고 기원하는 것이다. 무당이 사제자가 되어서 무당굿놀이의 일환으로 노는 것이 그러한 단적인 사례이고, 실제로 소놀이굿이라는 말 속에 그러한 현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석굿의 마지막에 소놀이굿을 달아짓기로 하는 것은 이러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소놀이굿에서 굿과 관련이 있는 요소 가운데 마부와 무녀가 함께 놀이를 하는 형식에서는 마마배송굿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 소놀이굿과 마마배송굿 및 범굿의 굿으로서의 성격을 비교하는 데 훌륭한 비교거리가 된다. 무녀와 마부가 상대역을 하는 굿거리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장문잡기, 군웅노정기, 뒗전이 이에 해당한다. 이 굿거리들에서 무녀와 남무(男巫)의 대화에 의해서 일부 굿거리가 진행되는 특징이 있으나 소놀이굿에서는 마부가 축원과 덕담을 하면서 끝을 맺는다. 마마배송굿은 위협적인 진언으로 마마를 배송하는데 소놀이굿에서는 화합하자는 주술적 의도가 훨씬 강화되어 있다.

마마배송굿의 극단화된 대결 형식이 곧 범굿이다. 범굿은 포수와 범이 직접적인 대결 형태로 발전하였다. 자연의 대표자인 범과 자연의 재앙을 물리치는 포수가 대결하는 것이 범굿이다. 마마배송굿에서는 마마를 쫓아내기는 하되, 잘 위하는 동시에 마지막 대목에서 육갑과 진언을 해서 쫓아내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결말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세 가지 굿은 대상에 대한 접근 방식과 어떠한 대결의 방식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소놀이굿에서는 마부고 무녀가 재담과 소리로 대화하고 소를 잘 위하자는 생각이 결말에 나타난다. 그러나 마마배송굿에서는 무녀와 마부가 재담과 소리를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잡귀 따위를 진언과 육갑으로 축출한다. 이와는 다르게 범굿에서는 행위와 극적 연출을 통해서 범을 퇴치하자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본디 행위로 연출되던 것이 재담과 소리로 변질되고, 잡귀나 재앙을 물리치던 것에서 오히려 대상을 기리고 축원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놀이굿은 소를 위하자는 굿이지 소를 협박해서 물리치자는 굿은 아니다. 소를 위하는 굿이므로 소의 내력을 높이 내세우고 소의 여러 모습을 거듭 칭송하여 사설로 늘어놓는 특

정이 있다. 소를 위하는 곳이 아니면 소를 제물로 삼고 범곳에서처럼 소머리를 땅에 묻어서 범을 위로하는 곳 대목이 첨가되게 마련이다.

요컨대 소놀이곳은 민속놀이와 곳이 합쳐져서 파생된 독자적인 무당 곳놀이이다. 곳놀이는 무녀와 마부가 서로 재담과 소리를 주고받으면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소놀이곳은 농경의례의 일환으로 놀아지면서 마을 사람이 무당곳에 참여하여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무당곳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놀이곳이 전승된 고장은 옛 기록에서 찾을 수 있으나 오늘날 전승되는 자료는 다음의 네 가지만 있을 따름이다. 경기도 양주, 황해도 평산과 연백, 우옥주 무당의 자료는 소놀이곳의 존재 의의를 밝혀주는 요긴한 자료가 된다. 소놀이곳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곳의 일환으로 놀아졌다는 것이 명백하다.

곳에서 무당이 곳놀이를 벌이는 사례는 소놀이곳 외에도 많다. 이를테면 경기도 도당곳의 군웅노정기나 뒷전은 소놀이곳에 못지않게 확장되어 있는 사례이다. 이 밖에 동해안 지역에 전승되는 범곳 역시 무당곳놀이와 비교될 수 있는 적절한 사례이고, 제주도지방의 ‘맞이’와 같은 사례는 다양한 제주도 곳놀이를 확인시켜 주는 사례이다.

소놀이곳은 다른 지역의 무당곳놀이와 차별된다. 우선 마을의 놀이패가 소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점이 중요하다. 무당 자신이 놀이의 주체가 되고 상대역이 되는 것이 명백히 다르다. 마을의 놀이꾼과 무당이 합작해서 만든 작품이 소놀이곳이다.

경기도 도당곳의 뒷전이나 군웅노정기가 참여하여 곳을 확장해 놀이하는 것이 일치되나, 이들의 참여는 무녀의 남편인 화랭이놀이 방식이라는 점에서 소놀이곳과 구별된다. 소놀이곳은 무녀가 매개하여 마을의 놀이패와 더불어 노는 것이므로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놀이곳은 제석곳과 관련되어 노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제석곳과 소놀이곳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은 고찰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경기도 북부의 제석곳은 제석본풀이 없이 진행되고 오히려 이 대목에서 소놀이곳이 부가되는 점이다. 제석본풀이의 전국적 분포 가운데 공백을 보이는 지역이 경기도 북부와 해서(海西)지역이다. 제석곳에 소놀이곳이 부가되면서 놀이적 형식이 강화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소놀이곳이 있으면 제석본풀이가 없는 사실은 분명하다.

두 곳의 소놀이곳은 무당곳놀이가 주술적 의례에서 예술적 놀이로 발전하는 다각도의 사례를 응집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한 시사가 필요하다. 소놀이곳 자체에 기본적 유형과 이질적인 확대·발전형의 두 가지 사례가 있어서 소놀이곳의 의의가 여러 차원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놀이곳은 신화에서 연극으로 또 의례에서 놀이로 발전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다양한 곳과 놀이가 복합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소놀이곳으로 분화되고 잔존하고 있다.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소놀이곳과 비교되는 거북놀이와 게줄다리가 있어서 좋은 대조가 된다. 거북놀이와 게줄다리 역시 풍농을 기원하는 점에서 소놀이곳과 비교되지만 결정적으로 무녀의 참여가 있다는 점에서 소놀이곳과 차별성을 가진다. 예사 사람들의 민속놀이기 때문이다.

소놀이곳은 무당곳놀이의 전반적인 갈래와 다르고, 민속놀이와도 차이가 있는 민속놀이와 무당곳놀이의 중간적 구실을 하고 있다. 소놀이곳은 경기도 북부와 해서 지역의 독자적인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무당굿놀이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의의 역시 이 점에서 찾아야 마땅하다.

### 2) 민속대사전

#### <참고문헌>

「한국민속대사전 下」,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편, 민족문화사, 1991

#### 소걸이

민속놀이인 씨름을 달리 부르는 말. 씨름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소를 상으로 주는데 소를 걸고하는 내기라 하여 소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소걸이씨름은 장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의 장정들이 나와 서로 맞붙잡고 재간을 부리는 것을 보면 마치 큰 황소끼리 싸움을 하는 것과 같다. 여기에는 규제가 없이 들어오는 대로 넘어뜨려서 나중에 겨루는 사람이 없어야 이기는 것이다. 맨 나중에 남게되는 우승자는 상으로 탄 소에 타거나 소를 끌고 씨름판을 누비며 기세를 올린다.

#### 소꼬리치기

봉산탈춤 제2과 중이 한 동작. 팔목중춤 첫목 과정에서 첫목이 누었다가 일어날 때, 큰 적을 하듯이 두 팔의 한삼을 이마 앞에 모아 엮드린 자세에서 한쪽 팔의 한삼을 뒤로 빼어 엉덩이를 치며 소가 꼬리를 치듯 강하게 뿌리는 동작이다.

#### 소나이먹기

정월 보름날에 소에게 약밥과 채소등을 먹이는 풍속.

#### 소놀음

소에 관한 민속놀이의 총칭. 이 소놀음은 정월 보름이나 팔월 보름에 행하기도 하나 원래 입춘에 하였다. 즉 입춘이란 햇볕이 점점 따뜻해지고 봄이 시작되는 날이므로 이 날에 농사를 권장하고 풍년을 축원하기 위한 행사를 행하였다. 이런 놀음이 세월과 지역의 차이로 변하고 달라져 소먹이놀음·입춘소놀음·나무쇠놀음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① 소먹이 놀음 : 경기도·황해도 지방에서 정월대보름, 팔월·추석날에 행하는 놀이이다. 놀이 규모는 지방에 따라 다르다. 재료는 한지와 형짚 따위로 풀을 칠하여 소형상을 만들고 가죽에 흙빛 물감을 칠한 뒤 들기름을 먹인다. 이렇게 만든 소 속에 두 사람이 들어간다. 즉 앞에 한 사람과 뒤에 한 사람이 들어가 소와 같이 느린 걸음으로 걸으며 소몰이꾼에게 끌리어 가게 된다. 그 뒤에 농악대와 사람들의 일행이 따른다. 소몰이꾼은 비교적 부유

한 집을 찾아가서 소 울음소리를 내며 대문을 두드린다. 그 집주인이 나오면 소몰이꾼은 “이웃집 소가 배가 고파서 왔으니 짚여물과 쌀뜨물을 줘 주십시오.” 하며 또 소울음소리를 낸다. 그러면 집 주인이 “어서 들어오십시오.”하고 일행을 대문 안으로 맞아들인다. 그러면 일행은 그 집마당에서 풍장을 치며 음악에 맞추어 한바탕 춤을 추고 놀이를 벌인다. 한참 지나 술과 음식이 나오면 일단 놀이를 중단하고 먹고 마신다. 대표적인 것으로 양주 소놀이 곳이 있다.

② 입춘 소놀이 : 제주도에서 입춘날에 짚으로 소를 만들어 바퀴 달린 판자 위에 올려서 끌고 가는데, 그 앞에는 씨할아버지가 씨를 뿌리는 형용을 하면서 가고, 뒤에는 쟁기를 권호장이 밭갈이 흉내를 내면서 간다. 그 뒤로 많은 농민들이 호미를 손에 쥐고 또 팽이와 삼을 어깨에 메고서 거리를 행진하는 것이다. 이때 무당들은 징과 북을 치면서 소놀이곳을 하며 풍년을 기원한다. 이 놀이는 농사를 권장하고 풍년을 축원하는 세시풍속이다.

③ 나무쇠 놀음 : 영산쇠머리대기를 참조할 것.

### 소달짓날

정월 정축일에 우마에 일을 시키지 않고 위로하는 날. 이날은 우마에게 일을 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나물과 콩을 삶아 먹여 위로하면서 살지기를 축원한다. 농가에서는 이날 연장을 만지면 농사 지을 때 쟁기나 보습이 부러진다고 하고, 방아를 찧으면 소가 일할 때에 기침을 하게 되며, 식량을 집 밖으로 내보내면 소가 죽거나 힘이 빠진다고 한다. 농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이다. 이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정월의 소날에는 특별히 소를 잘 먹이고, 음력 보름날에는 밥과 떡 등을 상에 담아서 소 외양간 앞에 놓고 1년 내내 소가 아무 사고없이 일 잘하고 병에 걸리지 않기를 기원한다. 어느 지방에서는 밥과 나물 등을 상이나 키에 담아다가 직접 소에게 먹이기도 하는데, 이 때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곡식이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목화가 잘 된다고 한다.

### 소맥이 놀이

기호지방 민속놀이의 하나. →소놀이.

### 소방아리 붙이기

새해에 소를 훈련시키는 행사.

이것은 겨우내 집에서 먹었던 소를 논밭에 끌고 가 쟁기를 썩어 몇 두렁의 땅을 뜨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때 방아리란 논밭의 독을 가리킨다. 이 행사는 대개 농경이 시작되는 봄의 길일을 택하여 시행하는데, 보통 입춘날에 행하게 된다. 어떤 곳에서는 일부러 상축일에 행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봄 소갈이 전의 좋은 날로서 소의 건강을 위해서 더 의의 있는 행사이다.

### 소배내기

남의 소를 빌어다 길러서 다 자라거나 또는 새끼를 낸 뒤에 임자와 나누어 가지는 일. 일명 동벨리소·동변리소·타적소·어울리소·배내소라고 부른다. 돈 있는 사람이 노동력이 있는 사람에게 송아지를 사서 기르게 한다. 소가 자랐을 때 양자 가운데 한 쪽이 살림이 어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려워서 소를 팔아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되면, 소를 즉각 팔아 원금은 떼어서 소값을 임자에게 주고 나머지 잔돈을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눈다. 이런 의미에서 타작소라고 불린다. 이때 쌍방은 어느 한 쪽도 상대방의 타작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 소부리는 말

소를 부릴 때 쓰는 일종의 신호 또는 구령. 소부리는 말은 지방에 따라 다른데, 출발 신호할 때 안동 지방은 ‘이라 쫓쫓’, 원주 지방은 ‘이라’, 안양 지방은 ‘이러 어더어더’라고 한다. 소 모는 소리에도 그 지방의 자방색이 나타난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우측으로 : 일로로 일러러(안동), 이리 돌아서(원주), 이러(안양) ②좌측으로 : 어띠어띠(안동), 저리 저리(남원), 지라(안양) ③정지 : 워(남원), 워워(안동), 워서(안양) ④후퇴 : 무러(고삐를 당긴다;남원), 물러물러(안동), 물러서(원주) ⑤발들어라 : 발 들어 (고삐를흔든다;남원), 들어(안동)등이다.

#### 소삼신

소 새끼를 낳는데 조력하는 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원새끼 줄에 백지를 매달아 하루에서 3일간 대문이나 소막 앞에 쳐놓거나, 삼발 지붕에 치는 삼장을 소막에 받쳐 놓는다. 이는 금기로 상가집 다녀온 부정한 삶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다. 만약 송아지를 낳을 때 부정한 사람이 출입하여 송아지가 젖을 빨지 못하면 무당을 불러다가 우마대장경을 외우고, 보통밥과 반찬을 차려놓고 구정물을 떠놓고 소삼신한테 이런 저런 일이 있으니 낮게 해달라고 빈다. 한편으로 소가 새끼를 낳는데 고생하고 힘이 들어 할 때는 밥을 해놓고 소삼신한테 빈 후에 소에게 그 밥을 주기도 한다.

#### 소삼신 동정

소와 관계된 일을 할 때 좋은 날을 택하는 것. 즉 구유(구시)를 들여오거나 외양간(소막)을 고칠 때 길일을 택하여 일을 처리하게 된다. 이것을 ‘소삼신이 동정한다’라고 말한다.

#### 소죽바가지

소의 죽을 끓이는데 사용하는 바가지. 이것을 지칭하는 지방별 명칭은 다음과 같다. 남바가지(김해 생림), 가매바가지(거창 의천), 자리박(함양 다천), 나무바가지(동해 기장), 쇠물박(경기 반월), 여물바가지(경기 반월·강원 도계), 구배기(강원 도계), 소쪽배기(강원 도계), 쇠물 구박지(강원 도계), 개맏바가지(전남 보성), 자루바가지(경기 용인), 남곽(전북 본동), 가달박, 가맏박적 등이다.



### 3. 지명과 韓牛

소와 관련된 지명은 한국지명총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각 시·도별로 나누어진 전권 순서대로 정리하였고 세부적으로는 구·동 별 순서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참고문헌>

「한국지명총람(총20권)」, 한글학회, 1966-1986

제1권 : 한국 지명 총람 1 (서울편), 1966

제2권 : 한국 지명 총람 2 (강원편), 1967

제3권 : 한국 지명 총람 3 (충북편), 1970

제4권 : 한국 지명 총람 4 (충남편 상), 1974

제5권 : 한국 지명 총람 4 (충남편 하), 1974

제6권 : 한국 지명 총람 5 (경북편 1), 1978

제7권 : 한국 지명 총람 5 (경북편 2), 1978

제8권 : 한국 지명 총람 6 (경북편 3), 1979

제9권 : 한국 지명 총람 7 (경북편 4), 1979

제10권 : 한국 지명 총람 8 (경남편 1), 1979

제11권 : 한국 지명 총람 9 (경남편 2), 1980

제12권 : 한국 지명 총람 10 (경남편 3), 1980

제13권 : 한국 지명 총람 11 (전북편 상), 1981

제14권 : 한국 지명 총람 12 (전북편 하), 1981

제15권 : 한국 지명 총람 13 (전남편 1), 1982

제16권 : 한국 지명 총람 14 (전남편 2), 1982

제17권 : 한국 지명 총람 15 (전남편 3), 1983

제18권 : 한국 지명 총람 16 (전남편 4), 1984

제19권 : 한국 지명 총람 17 (경기편 상), 1985

제20권 : 한국 지명 총람 18 (경기편 하), 1986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1) 서울

<서울 산천>

**마장-내**(馬場-) [마장천, 노림천] 【내】

옛날 우마를 기르던 원지목 근처로 흐르는 내. 끝이 도림동으로 흐름.

**와우-산**(臥牛山) 【산】

마포구 서강동 뒷 산으로 세교동까지 걸쳐 있는 산. 산 모양이 와우형(臥牛形)으로 소가 누운 것처럼 생겼음.

**우면-산**(牛眠山) 【산】

영등포구 신동 출장소 양재동의 우마니 뒷산. 산 모양이 소가 졸고 있는 형국이라 함. 현재는 미군에서 군사중요기지로 쓰고 있음.

**농-바위** [통바위] 【바위】

①바위 모양이 물가에 농처럼 솟아 있음.

②와우산 소의 죽통에 해당하는 바위라 함.

**굴레방-다리**1 [늑교] 【다리】

북아현동 163번지 남쪽 네거리에 있는 다리.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큰 소가 있는데, 길마는 무악산에다 벗어 놓고, 굴레는 이곳에다 벗어놓고 서강을 향하여 내려가다가, 와우산(臥牛山)에 가서 누웠다 함.

**굴레방-다리**2 [굴렐방다릿굴, 늑교동] 【마을】

굴레방다리 부근에 있는 마을이므로, 굴레방다릿굴, 굴레방다리, 또는 한자명으로 늑교동(勒橋洞)이라 함.

<성동구>

**송파-동**(松波洞) 【동】

송파는 원래 광주군 동부면 선리에 있던 시장인데, 홍수로 인하여 광나루 건너 암사리별로 옮겨다가, 또한 수재를 입고 이전 삼전도로 옮겨 포목, 말, 소의 매매와 삼남에서 올라오는 조세의 환전을 호조에 공납하며, 삼전도진 별장이던 것을 송파 별장으로 고쳐서 서울 오진의 하나가 되어 이곳을 수비하였는데, 1911년 경기도 구역 획정에 따라 광주군 중대면 송파리라 하였다가, 1925년 을축 7월 18일, 큰 물로 인하여 온 마을이 강으로 변하고 오직 이름만 전해오다가,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에 편입됨에 따라 석촌동, 삼전동, 가락동을 합하여 송파동이 됨.

<성북구 방학-동>

**황소-바위** 【바위】

방학굴에 있는 바위. 모양이 황소와 같음

**황소바윗-굴** 【굴】

황소바위가 있는 골짜기

<성북구 상계-동>

**소고지 【들】**

원터 옆에 있는 들.

**쇠시미 【들】**

옹굿들 너머 싱에 끝에 있는 들.

<성북구 쌍문-동>

**소귀-고개** [우이동고개, 우이령] **【고개】**

우이동으로 가는 고개이므로, 소귀고개, 또는 우이동고개, 한자명으로 우이령(牛耳嶺)이라 함.

<성북구 우이동>

**우이-동** [소귀, 쇄귀] **【동】**

본동은 본래 한성부 숭신방(崇信坊)의 지역으로서, 이곳에서 보면 삼각산(三角山)의 백운대(白雲臺)와 인수봉(仁壽峯)이 소의 귀와 같이 보이므로, 소귀, 쇄귀, 또는 우이리(牛耳里)라 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부제 실시에 따라, 성 밖 시오리(城底十五里)의 지역이 되므로,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숭인면(崇仁面)에 편입되었다가, 1949년 8월 15일, 서울 특별시 구역 확장에 의하여, 다시 서울 특별시에 편입됨에 따라, 우이동으로 고쳤음. 수석이 아름다워서 놀이터로 유명함.

**소귀-내** [우이천] **【내】**

우이동에서 발원하여 한내로 흐르는 내이므로 소귀내, 또는 우이천(牛耳川)이라 함.

**우이교**(牛耳橋) **【다리】**

우이천에 놓은 다리, 서울에서 의정부로 통함.

<영등포구 상도동>

**소쇠울-개천** **【내】**

상도동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하천의 하류를 이름.

<영등포구 상도 제2동>

**소쇠-울** **【마을】**

상도동을 꿰뚫고 흐르는 개울 아랫 마을.

<영등포구>

**방배-동**(方背洞) **【동】**

남성동에 딸린 행정구역명의 하나. 원래는 과천군(果川郡) 동면(東面), 혹은 과천군(果川郡) 상북면(上北面)이었다가, 1913년 군면 폐합때 다시 시흥군(始興郡) 신동면(新東面)이 되었다가 1962년 11월 21일, 법령 제 1,172호로 영등포구(永登浦區)에 편입됨. 우면산(牛眠山)을 등지고 있는 동리라 하여 방배(方背)라 함.

<영등포구 사당-동>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소-바위【바위】

소처럼 생긴 바위.

#### <영등포구 사당-동>

**백정-바위【바위】** : 옛날 이 바위에서 소를 잡아 먹었다고 함.

**소창-미【산】** : 효창 공원의 안산이라 함.

#### 아랫-마당【터】

소를 매던 우면산 아랫 기슭에 있는 터.

#### 우면산 약수터【약】

우면산에 있는 약수터.

#### 우면산 폭포【폭】

우면산에 있는 폭포

#### 웃-마당【터】

소를 매던 우면산 위쪽에 있는 터.

#### <영등포구 우면동>

#### 우면-동(牛眠洞) [우마니] 【동】

양재동에 딸린 행정구역명의 하나, 전에는 시흥군(始興郡) 신동면(新東面)이었다가, 1963년 1월 1일 영등포구로 편입됨.①우면산 아래 골짜기에 산대한 동리.②"우면리"를 “우면이”라 하다가 변한 이름.

#### 구룡-배미【논】

우면산 소 형국의 구유에 해당하는 논.

#### <영등포구 우면동>

#### 알-봉【산】

큰말, 밤에 뒤에 각각 하나씩 있는 산. 우면산의 소 불알에 해당하는 산이라 함.

#### <영등포구 신정동>

#### 김진성 목장【농】

6.25 이후에 김진성씨가 경영하는 목장. 천여 평의 목장에 20여 마리의 젖소를 가지고 있음.

#### <영등포구 향동>

#### 와우-산【산】

항굴 앞산으로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

#### <영등포구 천왕동>

#### 쇠-뻬이【논】

소먹이는 풀이 무성하였다 함.

<중구 도동2가>

**우수재** [우수현] 【고개】

도동에서 후암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우수 선생이란 학자가 이 부근에 살았으므로, 우수재, 또는 우수현(牛首峴)이라 함. 해마다 정월 보름이 되면 문 안과 문 밖 청년들이 이 곳에 모여 돌로 편쌈을 하는 터가 되어, 만리재, 종로의 비파정, 동대문 밖 안감내, 신당동의 무당내와 함께 서울 편쌈 터로 유명함.

## (2) 강원도

<강원도 산천>

**쇠뿔산** [우각봉, 우각산] 【산】

홍천군(洪川郡) 두촌면(斗村面) 괘석리(掛石里)와 인제군(麟蹄郡) 남면(南面) 김부리(金富里)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123m. 봉우리가 소의 뿔처럼 뿔죽함.

<강릉시 입암동>

**와우산**(臥牛山) 【산】

입암동 뒤에 있는 산. 소가 드러누운 형국이라 함.

**우와지**(牛臥地) [외지] 【마을】

입암 옆에 있는 마을. 지형이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함.

<강릉시 포남동>

**신촌**(新村) [세장평, 수뭇골] 【마을】

40여 년 전에 새로 생긴 마을. 최근에 우시장(牛市場)이 섬.

<고성군 산천>

**명우산**(鳴牛山) 【산】

죽왕면(竹旺面) 구성리(九成里)와 마좌리(麻佐里) 경계에 있는 산. 높이 337m. 모양이 소가 우는 형상이라 함.

<고성군 간성면 장신리>

**쇠똥령** [소종령] 【고개】

새마을 남서쪽에 있는 고개. 인제, 양구, 서울 등지로 통하는데, 소와 말이 많이 다녀서 쇠똥이 많았다 함.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고성군 거진면 자산리>

**와우산**(臥牛山) [자우산] 【산】

자산리 뒤에 있는 산. 암소가 누운 것처럼 생겼다 함.

<명주군 왕산면 고단리>

**덕우소**(德牛沼) [와우소] 【소】

고단이 서남쪽, 덕우산 아래에 있는 소.

<명주군 주문진 교향리>

**쇠장** 【장】

주문진 남쪽에 있는 소 시장. 장성거리에 있었는데 1964년에 옮겼음.

<명주군 주문진 주문리>

**소돌1** [우암진] 【마을】

방끝 동쪽에 동해 가에 있는 마을. 소돌이 있음.

**소돌2** [우암] 【바위】

소돌 마을에 있는 큰 바위. 소처럼 생겼다 함.

<삼척군 도계면 구사리>

**우왕말**(우왕촌) 【마을】

소를 기르면 잘 크다 함.

<삼척군 도계면 도계리>

**방우지**(放牛地) [반우리] 【마을】

지형이 우목하르륵 소를 놓아 길렀음.

<삼척군 도계면 마교리>

**쇠터골** [우기곡] 【곡】

소가 잘 되는 마을.

**통수미기소** 【소】

쇠죽통처럼 생긴 소.

<삼척군 미로면 활기리>

**준경묘**(濬慶墓) 【묘】

능골이 있는 이태조(李太祖)의 오대조(五大祖) 조부(祖父) 곧 목조(穆祖)의 아버지 이양무(李陽茂)의 무덤. 전에는 이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각처로 찾아본 결과 세종(世宗) 29년(1447)에 늙은이들의 전하는 말과 기록을 참고하여, 여기라고 단전하고 고종(高宗) 3년(1899)에 수축(修築)하였음. 이 무덤을 쓸 때에 지관(地官)의 말이 소 백 마리를 잡아 개토제(開土祭)를 지내고 넣은 금으로 하면 자손에 임금이 날 것이라 하였는데, 살림이 넉넉지

못하여 소 백 마리 대신 백소(흰소)를 잡고 금관(金棺)대신으로 황금빛 보리짚으로 널을 싸서 묻었더니 뒤에 이태조(李太朝)가 났다 함.

<삼척군 북평면 천곡리>

### **쇠자리 【개】**

가새와 한섬 사이, 쇠머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음.

<삼척군 삼척면 갈천리>

### **소갯재약수 【약】**

소자릿등에 있는 약물.

### **쇠자릿재능 【묘】**

와우산에 있는 큰 무덤.

### **와우산(臥牛山) 【산】**

소가 누워 있는 모양이라 함.

<속초시 장항리>

### **와우암(臥牛岩) [식당바우] 【바위】**

쌍둥암 밑에 있는 와우형으로 되었다 하는데, 백여 명의 승려가 모여 앉아 공양하던 곳이라 함.

<속초시 장항리>

### **흔들바우 [쇠뿔바우, 동석] 【바위】**

계조암 아래 곧 와우암 위에 놓인 크고 둥근 바위. 한사람이나, 백사람의 힘으로 흔들어도 그 움직이는 정도가 한결같다 하며, 그 모양이 소의 뿔과 같다 함.

<양구군 방산면 금악리>

### **말바소 【소】**

옛날에 이무기가 있어, 부근에 소나 말을 메어 놓으면 잡아 먹는다 함.

<양양군 서면 오가리>

### **소바우 [우암] 【바위】**

높이 100여 척이나 되는 소처럼 생긴 바위.

<양양군 손양면 우암리>

### **우암리(牛岩里) [소바웃골, 우암] 【리】**

본래 양양군 남면의 지역으로서, 소바위가 있으므로 소바웃골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버덩말, 안말을 병합하여 우암리라 하여 손양면에 편입됨.

### **소바우 [우암] 【바위】**

우암리 입구에 있는 바위. 모양이 소와 흡사함.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양양군 양양면 남문리>

**우시장(牛市場)** [우전, 쇠전] 【장】

남대천 다리 앞에 있는 시장. 소, 돼지, 닭 따위를 매매하는 시장.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

**소맏골** 【마을】

명지리에 있는 마을. 예전에 이곳에 풀이 무성하여 소를 먹이던 곳이라 함.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리>

**쇠나드리1** [우탄] 【마을】

쇠나드리 여울 옆에 있는 마을.

**쇠나드리2** [우탄] 【여울】

법수치리 동쪽 어구에 있는 여울지대가 험하므로 물이 세어서 마소만 겨우 건너다닐 수 있다 함.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풀밭재** [초전치] 【고개】

가잔리에서 풀밭재로 가는 재. 풀이 많이 있어서 소를 놓아 먹이었음.

<영월군 북면 문곡리>

**두목** [두목동] 【마을】

강구 서남쪽에 있는 마을. 사방으로 산이 막혀 있어, 소를 놓아 먹이던 곳이라 함.

<영월군 상동면 내덕리>

**목우산(牧牛山)** 【산】

내덕리 서쪽에 있는 산. 전에 소를 먹이던 목장이 있었다 함.

<영월군 상동면 녹전리>

**목우산(牧牛山)** 【산】

소를 먹이던 목장이 있었다 함.

<영월군 수주면 도원리>

**쇠재1** [우치] 【마을】

쇠재 밑에 있는 마을.

**쇠재2** [우치] 【고개】

피두리에서 운학리 하일로 넘어가는 재. 중턱에 소처럼 생긴 바위가 있음.

<영월군 영월면 문산리>



**운중암(雲中岩) 【절】**

한우골에 있는 절.

**한우골 【골】**

금수암 밑에 있는 골짜기.

<영월군 하동면 내리>

**목우산(牧牛山) 【산】**

지동 뒤에 있는 산. 예전에 소를 놓아 먹였던 곳이라 함.

<원주시 태장동>

**소일 [우곡] 【마을】**

태장 남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지형이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함.

**소일저수지 [언니] 【저수지】**

소일에 있는 저수지.

**우곡교(牛谷橋) 【다리】**

소일 앞에 있는 다리.

<원주시 평원동>

**쇠전거리 [우시장거리] 【길】**

삼청거리 남쪽에 있는 길. 예전에 쇠전이 있었음.

<인제군 기린면 서리>

**쇠나드리 [우탄동, 바람부리] 【마을】**

진혹리 동쪽 냇가에 있는 마을. 내의 여울이 급하고 바람이 세어서 소가 건너 다니기 힘들다 함.

<인제군 남면 부평리>

**소동 [우동] 【마을】**

청구리 남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쇠리 [우와리] 【마을】**

쇠밭골 밑에 있는 마을. 우와(牛臥)형의 명당이 있다 함.

**쇠밭골 [우적동] 【골】**

석리 위쪽에 있는 골짜기. 개울 가 바위에 소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 함.

<인제군 인제면 귀둔리>

**쇠물안골 [우마동, 소말골] 【마을】**

의병란 때 의병의 소, 말을 먹이던 곳이라 함.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인제군 인제면 덕적리>

**소와골** [우와곡] 【마을】

셋말 동쪽에 있는 마을.

<철원군 동송면 오덕리>

**소두독** 【들】

소를 매던 들.

<철원군 서면 도창리>

**소둔지** 【들】

소를 매던 곳이라 함.

**안산** 【산】

우구머리 안에 있는 산.

**우구머리** [우구동] 【마을】

태봉 밑에 있는 마을. 소의 입처럼 생겼다 함.

<철원군 서면 와수리>

**쇠목** [우항] 【마을】

지새 동북쪽에 있는 마을. 뒷 산 모양이 소의 목처럼 생겼음.

**쇠목고개** 【고개】

쇠목 뒤에 있는 고개.

<춘성군 남면 발산리>

**소못들어가는골** 【골】

소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짜기.

**위소못들어가는골** 【골】

소못들어가는골의 위쪽 골짜기.

<춘성군 남면 방곡리>

**쇠새끼난골** 【골】

소가 새끼를 낳은 골짜기.

<춘성군 동산 품안리>

**쇠메깃들** 【들】

소를 먹이던 곳이라 함.

<춘성군 서면 서상리>

**쉬메기** 【골】

소가 누운 형국의 골짜기.

**어영꿀【꿀】**

외양간 모양으로 생긴 꿀짜기.

<춘성군 신동 의암리>

**쇠빨꿀【바위】**

쇠빨처럼 생긴 바위.

**쇠목여울【여울】**

쇠목처럼 생긴 여울.

<춘천시 우두동>

**우두동(牛頭洞)【소머리, 우두리】 【동】**

본래 춘천군 북내면(北內面)의 지역으로서, 소의 머리처럼 생긴 우두산(牛頭山)이 있으므로, 소머리 또는 우두(牛頭)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우두상(牛頭上), 우두중(牛頭中), 우두하(牛頭下)의 세 리(里)를 병합하여 우두리라 하다가, 1939년 읍제 실시에 의하여 우두동으로 고침.

**소슬피【묘】**

우두산 꼭대기에 있는 옛 무덤. 소가 뿔로 봉분을 파 놓아도 하룻밤만 지나면, 그 자국이 도로 솟아난다고 하며, 아들 없는 사람이 벌초를 하고 지성으로 위하면 아들을 얻는다 함. 일제 때는 일인들이 내선일체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들의 조상“스사노 오노 미꼬도”가 우리나라에 와서 살았다는 소시모리가 바로 이 “소슬피”라 하여 신사까지 지은 일이 있음.

**우두산(牛頭山)【우뚝산】 【산】**

소양강 서안에 있는 산. 꼭대기에는 소슬피와 조양루, 충렬탑 등이 있고, 산의 곳곳에는 기왓장등의 옛 유물이 흩어져 있음.

**우뚝뚝산【산】**

우두산 뒤(북쪽)에 있는 산.

**우뚝뚝【들】**

우두동 앞에 있는 큰 들.

**우뚝소【소】**

우두산 동쪽 소양강에 있는 소.

<평창군 진부면 용전리>

**쇠덕꿀【꿀】**

하용전 북쪽 왼쪽 골짜기. 예전에 소도둑이 이 곳에서 소를 잡아 먹었다 함.

<홍천군 산천>

**쇠빨봉【우각봉, 우각산】 【산】**

남면(南面) 용수리(龍水里)와 북방면(北方面) 팔봉리(八峯里)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123m. 봉우리가 소의 뿔처럼 뿔죽함.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쇠목소 【소】**

연못골에 있는 못. 이조 때 좌수(座首)가 이 못가에 소를 매 두었다가, 저녁 때 끌어 오려고 가보니, 소가 없어지고 고삐만 못 가운데 떠 있으므로, 이무기가 소를 잡아 먹은 것이라 함.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범개소 【소】**

구성포 앞에 있는 소. 큰 구렁이가 있어서 부근에 매웠던 소를 잡아 먹었다 함.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씻고리여울 【여울】**

씻골 부근의 여울.

**씻골 【우미동】 【골】**

소의 꼬리 형국이라는 골짜기.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소중골 【골】**

“소 죽은 골”에서 변한 이름.

**쇠중골고개 【고개】**

소중골에 있는 고개.

<횡성군 둔내면 영랑리>

**쇠죽골 【소죽골】 【골】**

중산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소를 놓아 먹였다 함.

<횡성군 안흥면 산전리>

**우복골 【우각동】 【마을】**

너렁바우 위쪽에 있는 마을.

<횡성군 안흥면 산전리>

**우복골 저수지 【저수지】**

우복골 앞에 있는 저수지.

<횡성군 우천면>

**우천면(牛川面) 【우내면】 【면】**

횡성군 8면의 하나. 본래 모내의 이름을 따서 우내면(牛內面)이라 하다가, 우천면(牛川面)으로 고쳐서, 정암(正庵), 두곡(杜谷), 상수남(上水南), 중수남(中水南), 하수남(下水南), 법주(法周), 백달(白槎), 조원(鳥原)의 8개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청룡면(靑

龍面)의 남산(南山), 생운(生雲), 조곡(鳥谷), 주동(楸洞)의 4개리를 병합하여 다시 우천면으로 하여 12개리를 관할하는데, 1940년에 상수남리를 우항리(牛項里)로, 중수남리를 양적리(陽赤里)로, 하수남리를 문암리(文岩里)로 고침. 동쪽은 안흥면(安興面), 남쪽은 원성군(原城郡) 소초면(所草面), 서쪽은 횡성면(橫城面), 북쪽은 횡성면과 안흥면에 닿음.

<횡성군 우천면 법주리>

**우천저수지** 【저수지】

고개땀 남쪽에 있는 저수지. 1963년에 준공했음.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소고리골** 【마을】: 줄봉 위쪽에 있는 마을.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우항리**(牛項里) 【쇠목, 우항, 상수남리】 【리】

본래 횡성군 우천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소의 목처럼 생겼다 하여 쇠목, 또는 우항(牛項)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수재울, 물언치, 모란, 새말을 병합하여 무네미 위쪽이 되므로, 상수남리(上水南里)라 하다가, 그 후에 우항리로 고침.

### (3)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소니뿔** 【칼봉】 【산】

오가리 남쪽에 있는 산. ①모양이 소의 뿔처럼 생겼음. ②또는 칼과 같다 함.

**쇠재** 【우령】 【고개】

오가리 동남쪽에 있는 큰 고개. 연풍면 유상리 요골로 넘어감.

**쇠재동광** 【광】

쇠재 동쪽에 있는 동광. 현재 폐강됨.

**쇠젯골** 【우령골】 【골】

쇠재 밑에 있는 골짜기.

**쇠젯말** 【우령】 【마을】

쇠젯골 입구에 있는 마을.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

**소골** 【우동】 【마을】

무릉리에서 중심되는 마을.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단양군 단양면 고평리>

**우복등(牛腹燈) 【등】**

안골 동쪽에 있는 등성이. 지형이 소의 배처럼 생겼다 함.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소통소 【소】**

똥골 동쪽에 있는 소. 소의 죽통처럼 생겼음.

<단양군 매포면 별곡리>

**황소바위 【바위】**

가마소 동쪽 한강에 있는 바위. 황소처럼 생겼음.

<단양군 매포면 상시리>

**소코바위 【바위】**

새들과 속들 사이에 있는 바위. 소의 코처럼 생겼다 함.

<보은군 마로면 갈평리>

**와우산 [땅재] 【산】**

안탈 동쪽에 있는 산. 소가 누워 있는 모양이라 함.

<보은군 보은면 신함리>

**황소고개 【고개】**

원신함에서 감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보은군 수한면 성리>

**소메기고개 【고개】**

바리에서 소계리 소메기로 가는 고개.

<보은군 수한면 소계리>

**소계리 [소메기, 우항] 【리】**

본래 보은군 수한면의 지역으로서 소의 목이 되므로 소메기 또는 우항(牛項)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말관리(末串里)와 묘북리를 병합하여 소계리라 함.

<보은군 외속리면 오창리>

**암소바위 【마을】**

장자불 남쪽에 있는 마을. 모퉁이에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에 암소 발자국과 같은 자국이 있다 함.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리>

**쇠목꿀고개** 【고개】

만마루에서 회북면 문암리로 넘어가는 고개. 지형이 소의 목처럼 생겼다 함.

<보은군 회남면 법수리>

**우무동**(牛舞洞) [하창리] 【마을】

법수 동남쪽에 있는 마을. ①지형이 소가 춤추는 형국이라 함. ②옛날에 큰 군창이 있었음.

<보은군 회북면 쌍암리>

**북우실** [보고곡, 북우곡] 【마을】

쑤티 북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소가 엎드려 있는 형국이라 함.

<영동군 산천>

**쇠내** [우천] 【내】

황간면(黃澗面) 서송원리(西松院里) 남동쪽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흘러 노근리(老斤里)를 지나 우천리(牛川里)에서 석천(石川)으로 들어감.

<영동군 상촌면 궁촌리>

**새막골** [쇠막, 우막] 【마을】

점마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처음에 새로 막을 짓고 소를 키우며 살았다 함.

<영동군 양강면 목정리>

**쇠코바위** 【바위】

산막골 어귀에 있는 바위. 모양이 쇠코처럼 생겼다 함.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소골** [우곡] 【골】

호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영동군 황간면 우천리>

**우천리**(牛川里) [쇠내, 우천] 【리】

본래 황간군(黃澗郡) 서면(西面)의 지역으로서, 쇠내 가가 되므로 쇠내 또는 우천(牛川)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연화동(蓮花洞)과 도동(挑洞)을 병합하여, 우천리라 해서 영동군 황간면에 편입됨.

<영동군 황간면 원촌리>

**솔티** [송우티] 【고개】

서원말 북서쪽에서 용암리로 넘어가는 고개. 옛날 이 고갯길로 소가 곡식이나 소금 짐을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많이 운반했다 하며, 근처에 큰 느티나무 정자가 있음.

**송우티(松牛峙) 【고개】**

솔티.

<옥천군 이원면 우산리>

**우산리(牛山里) [췌봉산, 우산] 【리】**

본래 옥천군 이내면(伊內面)의 지역으로서, 췌봉산 밑이 되므로 췌봉산 또는 우산(牛山)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영동군(永洞郡) 서일면(西一面)의 당현리(唐峴里) 일부를 병합하여 우산리라 해서 1929년 이원면에 편입됨.

**내촌(內村) [내우산리] 【마을】**

우산 안쪽에 있는 마을. 근처에 “와우형(臥牛形)”의 명당이 있다 함.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쇠머리고개 산제당 【당】**

쇠머리재에 있는 산제당.

**쇠머리재 【고개】**

갯골 동쪽에서 우산리 메취골로 넘어가는 고개. 산형이 소의 머리처럼 생겼다 함.

<음성군 금왕면 도청리>

**쇠늪골 【마을】**

되자니 서북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소가 누워 있는 것처럼 생김.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쇠머리 [우두] 【마을】**

연호동 서남쪽에 있는 마을. 근처의 지형이 와우형으로, 이 곳은 쇠머리에 해당됨.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

**쇠메기고개 【고개】**

큰대실에서 안성군 일죽면 금산리와 이천군 율면 용산리로 넘어가는 고개.

**쇠메기산 【산】**

큰대실 북쪽에 있는 산. 산형이 소의 목처럼 생김.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

**쇠메기고개 【고개】**

방개울에서 덕정리 새터로 가는 고개.

**쇠메기구레 【골】**

쇠메기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

<음성군 생극면 갑산리>



**암소골 【골】**

탐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음성군 소이면 금고리>

**우미기 [우목] 【마을】**

삼고십리 북쪽에 있는 마을.

<음성군 원남면 주봉리>

**와우산(臥牛山) 【산】**

산형이 소가 누워 있는 것처럼 생김.

<제천군 백운면 도곡리>

**우경(遇慶, 牛耕) 【마을】**

도곡 동쪽에 있는 마을.

<제천군 봉양면 명암리>

**목우너미1 [목우동] 【마을】**

목우너미 밑에 있는 마을. 모래 가루가 있음.

**목우너미2 【고개】**

미력댕이 동남쪽에 있는 고개. 지형이 소가 풀을 먹는 것처럼 생겼다 함.

<제천군 송학면 오미리>

**소바우1 [우암] 【마을】**

소바우가 있는 마을.

**소바우2 [우암] 【바위】**

나막신골 서쪽에 있는 바위.

<제천군 수산면 수리면>

**도서장거리 [도소장] 【마을】**

장터 동북쪽에 있는 마을. 도수장이 있음.

<제천군 한수면 역리>

**소쇠바우 【바위】**

역말 동쪽 장자봉 밑에 있는 바위. 모양이 소의 혀처럼 생겼다 함.

<중원군 금가면 잠병리>

**황소소개 【고개】**

싸리골에서 엄정면 울릉리로 넘어가는 고개.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중원군 살미면 공이동>

**암소바위【바위】**

하리 앞 산에 있는 바위. 모양이 암소처럼 생겼다 함.

<중원군 엄정면 지당리>

**쇠바우봉【산】**

지본말 남쪽에 있는 산.

<진천군 산천>

**우천(牛川) [백곡천] 【내】**

백곡면(柏谷面) 양백리 서쪽 서운산(瑞雲山)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용덕리를 지나 석현리(石峴里)에 이르러, 서쪽 엽둔재에서 오는 물을 합하고 계속 동남쪽으로 흘러 진천면(鎭川面) 건송리(建松里)에 이르러 진천저수지(鎭川貯水池)를 이루고 동쪽으로 꺾여 진천읍을 지나 문백면(文白面) 북동쪽 살피를 거쳐 초평면(草坪面) 경계에서 미호천으로 들어가 우담(소두무니)을 이룬다.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우시장말 [삼거리] 【마을】**

대소, 맹동, 진천으로 가는 삼거리에 있는 마을. 소시장이 있음.

<진천군 만승면 월성리>

**쇠산고개【고개】**

쇠산골에 있는 고개. 담안에서 대소면 내산리 방울미로 감.

**쇠산골【골】**

담안 남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함.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소가리 [우경촌] 【마을】**

사양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소가 밭을 가는 형국이라 함.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소두머니1【마을】**

소두머니 옆에 있는 마을.

**소두머니2 [우담] 【소】**

반여울 서북쪽에 있는 큰 소.

<청원군 산천>

**와우산(臥牛山) [상봉] 【산】**

남이면(南二面) 양촌리(陽村里)와 남일면(南一面) 장암리(壯岩里) 경계에 있는 산. 소가 누

운 형국이라 함.

<청원군 남이면 양촌리>

**소바위 【바위】**

양촌 동북쪽에 있는 바위.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

<청원군 미원면 어암리>

**쇠바우 [소암] 【마을】**

어미 동북쪽에 있는 마을. 동리 바위가 쇠머리 같다 함.

<청원군 북이면 호명리>

**황소바위 【바위】**

분투골 초압에 있는 바위. 모양이 황소처럼 생긴.

<청원군 북일면 우산리>

**우산리(牛山里) [우산] 【리】**

본래 청주군 산외 일면(山外一面)의 지역으로서, 소처럼 생긴 산이 있으므로 우산(牛山)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내대리(內垈里), 평산리(平山里), 인본리(仁本里), 저곡리(楮谷里) 일부와 산외 이면(山外二面)의 보두리(寶豆里) 일부를 병합하여 우산리라 해서 북일면에 편입됨.

<청원군 오창면 신평리>

**우산(牛山) 【마을】**

오리풀 서남쪽에 있는 마을. 뒷 산형이 소처럼 생겼다 함.

<충주시 단월동>

**쇠코바우 【산】**

쇠코바우가 있는 산.

**쇠코바우 【바위】**

하단 동북쪽에 있는 바위. 쇠코바우 산이 소의 형국으로 그 코에 해당되는 곳에 박혀있다 함.

<충주시 종민동>

**쇠코바우 【바위】**

계명산에 있는 바위. 모양이 쇠코처럼 생겼다 함.

<충주시 충의동>

**쇠전거리 【터】**

충의동 141번지 근처에 있는 터. 몇 년 전까지 우시장이 섰음.

#### (4) 충남

<공주군 산천>

**우교천**(牛橋川) [소다릿재] 【내】

탄천면(灘川面) 반송리(盤松里) 삭대울고개에서 발원하여 광명리(光明里)와 장선리(長善里) 소다리를 지나서 논산군(論山郡) 석성천(石城川)으로 들어감.

**우성들**(牛城-) [우성평야, 우성수리관개지]

**우성면**(牛城面)

동대리(銅大里), 상서리(上西里), 대성리(大城里), 옥성리(玉城里)에 걸쳐 있는 큰 들. 유구천(維鳩川)의 물을 이용하는데, 땅이 비옥하고 크기로 공주(公州)에서 으뜸감.

<공주군 계룡 경천리>

**와우산**(臥牛山) 【산】

경천 뒤에 있는 산. 모양이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함.

<공주군 계룡면 기산리>

**소와리** [우와리(牛臥里)] 【마을】

다래울 동쪽에 있는 마을. 뒷산이 소가 누운 모양이라 함.

**우와교**(牛臥橋) 【다리】

소와리 앞에 있는 다리. 길이 12m가 되는데, 공주읍에서 전라도로 통함.

<공주군 공주 금학동>

**우금고개1**(牛禁-) [우금리, 선황당이, 성황당이] 【마을】

지막골 서쪽에 있는 마을. 우금고개 밑이 되며 성황당이 있음.

**우금고개2**(牛禁-) [우금재, 우금티, 비우금고개] 【고개】

금학동에서 이인면 주미리로 넘어가는 높은 고개. 전에는 이곳에 도둑이 많이 있었으므로, 저물게 소를 끌고 다니는 것을 막았다 함. 고종 31년(1894) 11월에 동학군이 이곳에서 관군과 싸워 크게 패해서 10여만명이 죽었다 함.

<공주군 신평>

**우성면**(牛城面) 【면】

공주군 12읍면의 하나. 본래 인조대왕이 이괄(李适)의 난(亂)을 피하여 공주 쌍수산성(雙樹山城)으로 갈 때, 타고 오던 소에게 물을 먹인 우물이 있으므로 그 이름을 따서 우정면(牛井面)이라 하여, 귀암, 신기, 상문동, 심산, 검암, 하문동, 월명, 승산, 내동, 남계, 약산, 동리, 중대, 성조동, 죽계, 부곡, 율리, 장대, 경사, 구화, 용강, 동천, 월굴, 지곡, 단평, 분토, 약천, 도산, 해포, 중윤, 동조, 상조, 신곡, 우천, 상촌, 월은, 월곡, 상우, 남화, 운산, 별운산, 오류, 서산, 목동, 방축, 상류, 외동, 문동, 함적, 오산, 서풍, 이목, 오정, 반곡, 평촌, 상당, 하당, 중촌, 노산, 안티, 서주막, 암회, 철목, 신대, 선무, 상미, 하미, 감천, 평목, 영천, 한산

의 71개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성두면의 만성, 세동, 대문, 사동, 작동, 상성, 늑리, 매당, 원대, 내창, 묵방, 신흥, 보적, 신대, 산직, 이목, 내동, 묵포, 봉명, 사룡, 수현, 산현, 포수옥, 용산, 사동, 용신, 신영, 입암, 봉촌, 평동, 반곡, 독안, 고양, 중신, 덕암, 건천, 하어, 장가, 강당, 죽림, 상어의 41개리와 사곡면의 외안영, 난대의 2개리와 동부면의 상신, 하신, 신산의 3개리와 남부면의 신영, 용진의 2개리와 반탄면의 소명, 운암의 2개리와 요당면의 수촌리와 정산군 묵면의 석화, 건지의 2개리를 병합하여, 우정과 성두의 이름을 따서 우성면이라 하여, 귀산, 내산, 동대, 단지, 도천, 동곡, 대성, 목천, 방문, 반촌, 방흥, 보흥, 봉현, 상서, 신웅, 쌍신, 월미, 옥성, 용봉, 안양, 어천, 오동, 죽당, 평목, 한천의 25개리로 나누어 관할함. 동쪽은 외당면과 장기면, 공주읍, 남쪽은 금강을 건너 공주읍과 이인면, 탄천면, 서쪽은 신평면과 청양군, 정산면, 북쪽은 사곡면과 정안면에 닿음.

<공주군 우성면 동대리>

**우성교(牛城橋) 【다리】**

동대리 앞 유구천에 놓은 다리. 1931년에 놓았는데, 공주에서 청양으로 통함.

<공주군 우성면 목천리>

**소물 [소우물, 우천, 우정] 【마을】**

월곡 남서쪽에 있는 마을. 소우물이 있음.

**소우물 [우천, 우정] 【우물】**

소물에 있는 우물. 인조가 이 괘의 난을 피하여 공주로 갈 때, 타고 가던 소가 기갈이 심하여 물을 먹이고 갔으므로 유명해졌으며, 먼 이름도 우정면이라 하여 70개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우성면이 되었음.

<공주군 유구면 명곡리>

**명우산(鳴牛山) 【산】**

명곡리 서쪽에 있는 산. 높이 296m가 되는데, 소가 우는 형국이라 함.

<공주군 이인면 주미리>

**우금재1(牛禁-) [우금티] 【마을】**

우금재 밑에 있는 작은 마을.

**우금재2(牛禁-) [우금티] 【고개】**

공주읍 금학동의 “우금재”

<공주군 장기면 금암리>

**소진골 [우진] 【마을】**

창암 북쪽에 있는 마을. 와우형(臥牛形)의 명당이 있다 함.

<공주군 장기면 봉안리>

**소미1 [우산(牛山)] 【마을】**

소미 밑에 있는 마을.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소미2 [우산(牛山)] 【산】

봉산 남쪽에 있는 산. 모양이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함.

<공주군 탄천 장선리>

#### 소다리 [우교] 【다리】

장선리 앞에 있는 다리.

<금산군 금산 중도리>

#### 금산우시장(錦山牛市場) [쇠전] 【장】

강변담 앞에 있는 소를 팔고 사는 시장.

<금산군 금성 마수리>

#### 적우실 [적우곡(積牛谷), 소곡리, 적은실] 【골】

웃말머리 동쪽 작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

<금산군 금성 의총리>

#### 넘벌 [와우평(臥牛坪)] 【들】

파초 앞에 있는 들.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

<금산군 금성 하신리>

#### 소고개 [우현동(牛峴洞)] 【마을】

소고개 밑에 있는 마을.

<논산군 산천>

#### 쇠머리산 [우두산, 고정산] 【산】

연산면(連山面) 고정리(高井里)와 부적면(夫赤面) 신흥리(新豊里)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44m. 모양이 쇠머리처럼 생겼다 함. 고려 광종(光宗) 때 은진(恩津) 미륵을 이 산에 있는 돌로 만들었다 함.

<논산군 가야곡 중산리>

#### 쇠목 [우항(牛項), 우항리(牛項里)] 【마을】

산내리(山內里) 남동쪽에 있는 마을. 소의 목과 같이 되었으므로 쇠목, 또는 우항(牛項)이라 함.

<논산군 부적면>

#### 대우리(大牛里) [큰소울, 큰술, 대우동] 【리】

본래 노성군(魯城郡) 상도면(上道面)의 지역으로서, 소울의 큰 마을이므로, 큰소울, 또는 큰술, 대우동(大牛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소우동(小牛洞)을 병합하여 대우리(大牛里)라 하여 논산군 상월면에 편입됨.

<논산군 상월 대우리>

**소울** [우곡(牛谷)] 【마을】

대우동(大牛洞)과 소우동(小牛洞)을 통틀어 일컫는 말. 지형이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

<논산군 상월면 주곡리>

**우치**(牛峙) 【고개】

개티(술골에서 소울로 가는 고개. 효자 박장손이 소울에서 살 때 좋은 물건을 만나면 개티에 실어서 그 아버지가 사는 술골로 보냈다고 함).

<논산군 성동면 >

**우곤리**(牛昆里) [소골, 소곤, 우곤] 【리】

본래 석성군의 지역으로서, 뒷산이 소와 같이 생기었으므로 소골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소곤, 우곤, 또는 우곤면(牛昆面)이 되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상리, 월외리, 포전리, 서당동의 각 일부와 비당면의 옥산리 일부와 현내면의 창리, 남산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우곤리라 하여 논산군 성동면에 편입됨.

<논산군 성동면 원복리>

**쇠죽골** 【마을】

군계다리 남서쪽에 있는 마을. 와우형(臥牛形)의 명당이 있다 함.

<논산군 연산면 고정리>

**쇠머리** [우두촌, 우수] 【마을】

거정터 남쪽에 있는 마을. 쇠머리산 밑에 있으므로, 쇠머리 또는 우수(牛首), 우두촌(牛頭村)이라 하는데, 고려 광종 때 은진(恩津) 미륵을 이곳에 있는 돌로 만들었음.

<논산군 연산 송정리>

**소바우** [우암(牛岩)] 【바위】

북계(北鷄) 서쪽 산기슭에 있는 바위. 그 모양이 소와 비슷한데, 호남선 철로를 놓을 때 그 바위의 등을 잘라서 두 동강이 되어 있음.

<당진군 고대면 진관리>

**쇠코샘** [개물, 개정] 【우물】

서개정 서쪽에 있는 샘. 큰 반석이 덮여 있고 그 밑의 벽에서 물이 쇠코에서 땀이 나듯 스며 나옴.

<당진군 당진면 사기소리>

**소눈이** [臥牛] 【골】

동살미 서쪽에 있는 마을. 부락의 형상이 소가 누운 것과 같다 함.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당진군 당진면>

**우두리**(牛頭里) [소머리, 우두] 【리】

본래 당진군 군내면(郡內面)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소의 머리처럼 생겼으므로 소머리, 또는 우두(牛頭)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어리(漁里), 대성리(臺城里) 일부를 병합하여 우두리라 해서 이배면(螭背面)에 편입됨.

**소고개** [우현(牛峴)] 【고개】

소머리 남쪽에 있는 고개. 우두리에서 읍내리로 감.

**하우두**(下牛頭) 【마을】

우두 아래쪽에 있는 마을.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우무도**(牛舞島) [우모도(牛母島)] 【섬】

소난지도 남쪽에 잇는 섬. 지형이 암소가 꿇어 엎드린 것 같고, 맞은 편에 있는 조그마한 바위가 송아지 같다 함. 암자가 있음.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

**소뿔** [소미, 우산(牛山)] 【마을】

당미 등쪽에 있는 마을. 와우형(臥牛形)의 명당이 있다 함.

<당진군 송산면 매곡리>

**소타미** [우타미(牛打尾)] 【마을】

매리미 서쪽에 있는 마을. 소타미(군, 산천)밑이 됨.

<당진군 송악 본당리>

**쇠머릿들1** [우두평(牛頭坪)] 【마을】

쇠머릿들에 있는 마을.

**쇠머릿들2** [우두평(牛頭坪)] 【들】

미력댕이 북쪽에 있는 들. 지형이 소의 머리처럼 생겼다 함.

<당진군 >

**우강면**(牛江面) 【면】

당진군 2읍 10면의 하나. 본래 면천군의 지역으로서 34개 동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범천면이라 해서 당진군에 편입되어 12개리로 개편관할하였다가 1942년 10월 1일 지방 행정 구역 명칭 변경에 의하여 이곳에 있는 우평(牛坪), 강문(江門)의 이름을 따서 우강면으로 고쳐 지금에 이름. 동쪽은 바다 건너 아산군 인천면과 선장면, 남쪽은 합덕읍, 서쪽은 순성면, 북쪽은 신평면과 바다에 닿음.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쇠뿔재 【산】** : 음산말 남쪽에 있는 산. 쇠뿔처럼 생겼다 함.

<대덕군 기성면 도안리>

**소태봉(-胎峯) [우태봉(牛胎峯)] 【산】**

도안 남서쪽에 있는 산.

<대덕군 기성면 산직리>

**증각골 [정각동(正角洞)] 【마을】**

동산리 북동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소의 뿔과 같다 함.

<대덕군 기성면 >

**우명리(牛鳴里) [울어울, 울어동, 우명(牛鳴)] 【리】**

본래 진잠군(鎭岑郡) 하남면(下南面)의 지역으로서, 사방이 둘러싸였으므로, 울어울, 또는 울어동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우명이 되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조동리(鳥洞里)와 연산군(連山郡) 대곡면(代谷面)의 조동 일부를 병합하여 우명리라 하여 대전(大田, 大德)군에 편입됨. 예전에 이곳에서 녹반(綠攀)이 났었다 함.

<대덕군 기성면 평촌리>

**명에배미 【논】**

평촌리에 있는 논. 명에처럼 생겼음.

<대덕군 동면 주촌리>

**우두목 【마을】**

배말 서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쇠머리의 목과 같음.

<대덕군 신탄진 삼정리>

**소골 [소곡, 우곡(牛谷), 산촌] 【마을】**

삼정골 남쪽 작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 와우형(臥牛形)의 명당이 있어서 삼정승이 날 자리라 함.

<대덕군 진잠면 내동리>

**암소바위 [자우암(雌牛岩), 권돌, 지석] 【바위】**

솔마루 앞 들 건너 곧 망골 동쪽 낮은 산 등성이에 있는 바위. 본래 옛적이 권돌인데, 그 바위에 작은 구멍이 여러 개 있으므로 암소의 젖과 같다 하여 암소바위라 하며, 또는 이 부근에 “와우형(臥牛形)”의 대지(大地)가 있다 함.

**씨앗골 [소왓골, 섯골] 【마을】**

날근한우물 북쪽 산등 너머에 있는 마을. 작은 골짜기인데,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

<대덕군 진잠면 방동리>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새우내 [신천] 【마을】

장성배기 북쪽에 있는 마을. 성북리에서 내려 오는 쇠골내의 이름을 따서 새내, 또는 새우내, 신천이라 함.

#### <대덕군 진잠면 용계리>

#### 접소 [접우(接牛), 접수(接水)] 【마을】

칼재울 북쪽에 있는 마을. ①이 부근에 있는 명당인 “와우형(臥牛形)”의 소가 된다 함. ② 학하리에서 흐르는 내와 진잠천(군 산천)이 이곳에서 합하므로 접수라 한다 함.

#### <대덕군 탄동 학하리>

#### 소등그려죽은골 【골】

윗상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 산이 매우 험하여 소가 뒹굴어 죽었다 함.

#### <대덕군 탄동면 반석리>

#### 쇠젓골 【골】

아홉고랭이 아래에 있는 골짜기.

#### 우미동(牛尾洞) 【마을】

우미(우산봉)(도, 산천)밑에 있는 마을.

#### <대덕군 탄동면 추목리>

#### 우마장(牛馬場) 【마을】

숫골 서쪽에 있는 마을. 1928년부터 1941년까지 우마장을 두었었음.

#### <대전시 대화동>

#### 황수(黃水) [황소, 황우(黃牛), 황물(黃栗)] 【마을】

구마니 동쪽에 있는 마을. 황우형(黃牛形)의 명당(明堂)이 있다 함.

#### <보령군 미산면 삼계리>

#### 쇠꼬리 【산】

은새뜸 서쪽에 있는 산. 길게 뻗혀 있어서 마치 소의 꼬리처럼 생겼다 함.

#### <영보리>

#### 우티1(牛峙) 【마을】

소재고개 밑에 있는 마을. 영보리에서 가장 큼

#### 우티2(牛峙) 【고개】

소성리의 “소재”

#### <보령군 웅천 수부리>

#### 우이티(牛耳峙) [우티(牛峙)] 【고개】

상부리에서 미산면 하개리(下介里)로 넘어가는 큰 고개. 지형이 소와 같다 함.

<보령군 주산면 야룡리>

**쇠마담골 【골】**

성죽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전에 소를 매었다 함.

<보령군 주산면 증산리>

**쇠섬 [우도(牛島)] 【섬】**

시루포 서쪽에 있는 섬. 썰물이 진 때는 다닐 수 있는데 소(牛)처럼 생겼다 함.

<부여군 남면 마정리>

**소머리 【마을】**

마정 동북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소의 머리처럼 생겼음.

<부여군 석성면 석성리>

**황소바위 【바위】**

향교골 안에 있는 바위. 황소가 누운 것 같다 함.

<부여군 세도면 동사리>

**소매 [우산(牛山), 우산리(牛山里)] 【마을】**

방죽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 산의 모양이 소가 누운 것처럼 생겼다 함.

<부여군 세도면 수고리>

**쇠바리 [소바리] 【마을】**

수랑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 근처에 쇠 밭처럼 생긴 산이 있음.

<장산리>

**소바위 【바위】**

중산 서쪽 길가에 있는 바위. 모양이 소가 앉은 것처럼 생겼음.

<서산군>

**무수산 [물소산] 【산】**

태안읍 상옥리와 인평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07m. 모양이 물소처럼 생겼다 함.

**고구-현(高丘縣) [우견,목우] 【폐현】**

본래 백제의 우견현(牛見縣)인데 신라 제35대 경덕왕이 목우(目牛)로 고쳐서 이산군(伊山郡:덕산)에 딸린 현(縣)으로 하였다가, 고려 초에 고구로 고치고, 제 8대 현종9년(1017)에 홍주(洪州)에 붙였음. 현재 홍성군 갈산면과 서산군 고북면의 지역이 됨.

<서산군 고북면 용암리>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황소-고개【고개】

용바위에서 해미면 산수리의 저수지 쪽으로 가는 고개.

<서산군 근흥면 가의도리>

#### 소등-도 [우배도] 【섬】

거무섬 서쪽에 있는 섬. 모양이 소의 등처럼 생겼다 함.

<서산군 근흥면 두야리>

#### 소-목 [우항] 【마을】

마금 남서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소의 목처럼 되었음.

<서산군 근흥면 안기리>

#### 소-등【모래톱】

궁틀 남쪽에 있는 모래톱.

<서산군 남면 양잠리>

#### 황소-머리【마을】

적돌 북쪽에 있는 마을. 황소의 머리처럼 생겼다 함.

<서산 양대리>

#### 소굴(우곡)【마을】

양대리에 있는 마을. 소를 먹이었다 함.

<안면 신야리>

#### 우서지(牛西地)【마을】

신야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안면 창기리 >

#### 소우포(小牛浦)【마을】

작은 수해. 수해의 작은 마을

#### 우포(수해)【마을】

절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소처럼 생기고 앞에 개가 있음.

<운산 와우리>

#### 누운고개1(와우리)【마을】

누운고개 밑이 되므로 와우현, 우현이라 하였음. 와우리는 우현리와 슬리, 먼천군 마산면 을사리 일부를 병합하여 와우리라 하였음.

#### 누운고개2(와우현)【고개】

누운고개 마을 북쪽에 있는 고개. 지형이 소가 누운 것처럼 생겼다 함.

**암소고개(자우현) 【마을】**

누운고개 남쪽에 있는 마을

<음암 상흥리>

**황소바위 【바위】**

말목 동쪽에 있는 황소처럼 생긴 바위.

<이북 사창리>

**소머리산(우두산) 【산】**

태포 동쪽에 있는 산. 모양이 소의 머리처럼 생겼음.

<지곡 도성리 >

**소섬(쇠섬, 우도) 【섬】**

새섬 서쪽에 있는 작은 섬. 모양이 소처럼 생긴 바위가 있음.

**쇠섬양식장(우도양식장) 【양식장】**

쇠섬에 있는 굴 양식장.

<해미 휴암리>

**황소고개 【고개】**

부영산과 개절미 사이에 있는 고개.

<서천군 마서 죽산리>

**소매1(우산, 산소, 하소) 【마을】**

소매 산 밑에 있는 마을.

**소매2(우산) 【산】**

죽산 남쪽에 있는 산. 지형이 소처럼 생겼다 함.

<문산 북산리 >

**우산(牛山) 【마을】**

북산리에 으뜸되는 마을.

<문산 은곡리 >

**황소논 【논】**

박상골 동남쪽에 있는 논. 황소를 주고 샀다 함.

<비인 관리>

**시설고개2(우아티, 새소고개) 【고개】**

관골 동북쪽에 있는 고개. 옛날에 소 세 마리가 오다가 이곳에서 죽었다 함.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비인 구복리 >

**쇠재1(牛嶺)(우령) 【마을】**

쇠재 밑에 있는 마을.

**쇠재2(牛嶺)(우령) 【고개】**

구복리 오산 북쪽에 있는 고개.

<서면 개야리>

**소섬 【섬】**

안개목 동쪽에 있는 섬. 지형이 소처럼 생겼다 함.

<장항 옥산동>

**쇠머리(우두산) 【산】**

가장멸과 태피산 사이에 있는 산.

<한산 송곡리>

**소재(쇠재,철촌) 【마을】**

솔피 남쪽에 있는 마을.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

<아산군 도고 기곡리>

**황소고개 【고개】**

텃골 남쪽에 있는 고개. 텃골에서 신언리 감나무골 도고 초등학교로 감.

<배방 갈매리>

**암소고개(자우리, 자우티) 【마을】**

그머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 암소가 누워있는 모양이라 함.

**황소모랭이 【마을】**

오얏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

<배방 수철리>

**소잡아먹은골 【골】**

망경산 중턱에 있는 골짜기. 절터가 있는데, 산이 너무 후미져서 도둑들이 소를 끌어들  
잡아 먹었음.

<송악 강당리>

**소먹은평덩 【골】**

병목안 위에 있는 골짜기.

<아산군 신창 득산리>

**수미(樹味) [웅산] 【산】**

치학산(군, 산천) 서북쪽에 있는 편뎀으로 된 산. 풀이 무성하여 마소의 양육장으로 되었

있음.

<아산군 수장리>

**여무시** [여무실, 신리] 【마을】

텃밭 서쪽 등 너머에 새로 된 마을. 짙은 맛이 있는 우물이 있으며, 또는 뒷산이 누운 소 모양으로서 이곳이 여물통과 같다 함.

<아산군 온양 온천리>

**쇠고개** [우고개] 【마을】

너더리 동쪽에 잇는 마을. 와우형이 있다.

<아산군 탕정 동산리>

**쇠빨바위** 【바위】

쇠장골에 잇는 바위. 두 바위가 쇠빨처럼 되었음.

<연기군 산천 >

**황우산**(黃牛山) 【산】

동면 명학리와 합강리에 걸쳐 잇는 산. 높이 192되는데, 그 모양이 황소와 같다하여, 황우도강형(黃牛渡江形)의 명당이 있다 함.

<연기군 금남면 금천리>

**와우산**(臥牛山) 【산】

원금천 뒤에 잇는 산. 소가 누운 형국의 명당이 있다 함.

<연기군 남면 종촌리>

**소바위** 【바위】

다락바위 위쪽에 잇는 바위. 모양이 소가 누운 것 같음.

<연기군 서면 용암리>

**위줄**(渭茁) [위지울] 【마을】

외양골 위에 잇는 마을. 지형이 “와우형”이라 함.

<예산군 대술 이터리>

**소거리** [소고리, 우명리] 【마을】

당거리 동쪽에 잇는 마을. 소장수들이 이곳에서 소를 놓아 쉬어 갔다 함.

<예산군 예산 신례원리>

**황소바위** 【바위】

바윗골에 잇는 바위. 황소가 누운 것처럼 생겼음.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구수논【논】**

원형리 동쪽에 있는 논. 구수(구유)처럼 생겼다 함.

<예산군 응봉면 건지화리>

**소눈재【산】**

젓말 서쪽에 있는 산.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

<예산군 응봉면 지석리>

**쇠마뎡【버덩】**

장구피 남쪽에 있는 버덩. 소를 매던 곳임.

<천안시 두정동>

**쇠죽골【골】**

새터말 앞에 있는 골짜기.

<천안시 신당동>

**소애〔방산, 방산리〕【마을】**

신흥 남쪽에 있는 마을. ①지형이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②뒷산이 깨끗한 잔디밭으로 되어서 매우 아름답음.

<천안시 원성동>

**도수장거리【마을】**

구원거리 동쪽에 새로 된 마을. 도수장(屠獸場)이 있었음.

<천원군 광덕면 광덕리>

**쇠머리편던【버덩】**

장군바위 북쪽에 있는 버덩

<천원군 광덕면 매당리>

**쇠머리는【논】**

당계울 앞에 있는 논. 숙종 때 천안군수 송치중이 나라 죄인을 잃고 고민하던 중 영밀공류 청신의 선몽으로 그 죄인을 잡았으므로 그 은덕에 보답하려고 쇠머리는 일곱마지기를 영밀공의 제사답으로 제공하여 지금에 이름.

<천원군 광덕 무학리>

**소골고개〔우곡터〕【고개】**

저우실에서 연기군 전의면 운당리 옷골로 넘어가는 고개.



<천원군 병천면 용두리>

**와우고개** [와우현] 【고개】

무드리에서 칙뿔말로 넘어가는 고개. 효종 때 학자 노재(蘆齋) 류 지빈(柳之賓)의 묘소가 와우형인데 그 뒤가 됨.

<천원군 성거면>

**소우리**(所牛里) 【리】

본래 직산군 이남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소조리와 명우리를 병합하여 소우리라 하여 천안(천원)군 성거면에 편입됨.

**명우리**(鳴牛里) 【마을】

바조리 북쪽에 있는 마을. 어미소가 새끼를 부르는 형국이라 함.

<천원군 수신 장산리>

**쇠죽골** [우죽곡, 서자동] 【골】

질꾸마루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와우형(臥牛形)의 명당이 있다 함.

**우걱골** [우각동(牛角洞)] 【골】

술안 서쪽에 있는 마을. 쇠뿔의 형국이라 함.

<청양군 대티면 수석리>

**쇠코바위1** 【마을】

쇠코바위가 있는 마을.

**쇠코바위2** 【바위】

방죽골 북쪽에 있는 바위. 사람이 지게를 지고 지나갈 수 있게 큰 구멍이 뚫렸는데 그 모양이 소의 콧구멍과 같다 함.

**우금산**(牛金山) 【마을】

방죽말 북쪽 우금산(군, 산천)말에 있는 마을.①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②사금이 났었음.

<청양군 적곡 분향리>

**소바위** 【바위】

상축 북서쪽, 망월산(군, 산천)위에 있는 큰 바위. 위에 소 발자국 같은 흔적이 있음.

<청양군 화성 화강리>

**우영골** [우영동(右永洞), 우형동(牛形洞)] 【마을】

대야골 남쪽에 있는 마을.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

<홍성군 광천 매현리>

**쇠도독골** 【골】

жат골 서쪽 계기산(군, 산천)기슭에 있는 골짜기. 전에 이곳이 매우 음침해서 쇠도독이 자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주 나타났다 함.

<홍성군 서부 양곡리>

**쇠머리티**1 [쇠물티, 우두티] 【마을】

쇠머리티 고개 밑에 있는 마을.

**쇠머리티**2 [우두티, 서낭당이고개] 【고개】

서동굴에서 어사리로 넘어가는 고개. ①지형이 소의 머리처럼 생겼다 함. ②서낭이 있음.

**쇠머리티방죽** [우두티제] 【못】

쇠머리티에 있는 방죽. 둘레111자, 깊이 1자.

## (5) 경북 1

<경북-산천>

**소머리산**(우두산) 【산】

금릉군 대덕면 대리와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군암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901m. 모양이 소의 머리처럼 생겼음.

**쇠꼬리산**(우미산, 우무산) 【산】

달성군 가창면 우록동과 청도군 각북면 지슬동 경계에 있는 산. 높이 636m. 모양이 소의 꼬리처럼 생겼다 함.

**와우산**(臥牛山) 【산】

김천시 다수동과 금릉군 봉산면 덕전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391m.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 함.

**우수산**(牛首山) 【산】

성주군 월항면 수죽동과 칠곡군 약목면 각산동 경계에 있는 산. 높이 360m. 모양이 소의 머리처럼 생겼음.

<경산-산천>

**소구재** [우봉산] 【산】

용성면 내촌동과 매남동에 걸쳐 있는 산. 높이 449m.

<경산읍 계양동>

**청우**(靑牛) [청우동] 【마을】

구청 동쪽에 있는 마을

<경산읍 대정동>

**송아지웅디** 【웅덩이】

보리숫굽 서쪽에 있던 웅덩이. 송아지가 빠져죽었다 함.

**송아지웅디** 【밭】

송아지웅디 옆에 있는 밭.

<고산 매호동>

**소산** [우산, 쇠매] 【산】

외매 뒤에 있는 산. 지형이 소형국으로 되었다 함.

**우산** [소산, 우산리, 쇠매] 【마을】

외매 북쪽에 있는 마을. 우산(군 산천)밑이 됨.

<고산 옥수>

**소방우** [효암] 【바위】

자산 북쪽에 있는 큰 바위. 옥수동에 살던 천가 이 근처의 풀이 좋으므로 소를 먹이려 왔다가 먼저 와 있던 다른 소와 싸움이 붙어 이를 말리려다가 소와 함께 쓰러져 죽었다 함.

<고산 갈지동>

**소공동산** 【산】

곳안돼배기 북쪽에 있는 산. 병든 소가 죽으면 묻는다고 함.

<남산 >

**우복골**(牛伏) 【골】

우금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함.

<남천 금곡동>

**쇠미기** 【고개】

경흥사 서북쪽에서 달성군 가창면 행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고갯길이 슬음.

<안심 >

**각산동**(角山洞) [각산, 소바우, 소방우, 우암동, 우암곡] 【리】

본래 하양군 안심면(읍)의 지역으로서, 쇠뿔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하여, 소방우, 소바우, 또는 우암곡, 우암동이라 하였는데, 이조말엽에 현감 송 현명이 그 조상 송시열의 호와 같다 하여 각산으로 고쳤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하막동을 병합하여 각산동이라 해서 경산군에 편입됨.

<안심 각산동>

**뿔방우** [우암, 소바우, 소방우] 【바위】

무덤찌미 서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쇠뿔처럼 생겼다 함.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우암교(牛岩橋)【다리】**

이안못 동쪽에 있는 다리.

<안심 동내동>

**소바탕뿔등【등】**

남암골 동쪽에 있는 등성이. 소를 먹이는 버덩 뒤편이 됨.

<압량 점촌동>

**소마당【골】**

큰갓양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 소를 놓아 먹이던 곳임.

<압량 조영동>

**소똥말랭이【산】**

지자말랭이 남쪽에 있는 산. 옛날에 쇠장이 쪼갰다 함.

<와촌 강화면 >

**소부골【골】**

피밭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전에 이곳에서 소를 먹였다 함.

<용성면 부일동>

**소지뺏골【골】**

땅고개 서쪽에 있는 골짜기. 소를 먹이는 곳임.

<용성면 외촌동>

**몽애뱀【논】**

주개뱀 동쪽에 있는 논. 지형이 몽애(멍애)처럼 생겼음.

<용성면 용전동>

**몽애배미【논】**

횃대배미 남쪽에 있는 논. 몽애(멍애)처럼 생겼다 함.

<용성면 용천동>

**몽애배미【논】**

혈방골 남쪽에 있는 논. 몽애(멍애)처럼 생겼다 함.

<쟁광동>

**몽애배미【논】**

장구배미 옆 서쪽에 있는 논. 몽애(멍애)처럼 생겼다 함.

<자인면 계남동>

**몽애배미【논】**

장구배미 남쪽에 있는 논. 지형이 멩에처럼 생겼음.

<동부동>

**소전거리【마을】**

배끝장터 남쪽. 쇠전이 있는 마을.

<자인면 북사동>

**소전거리【마을】**

백대촌 옆에 있는 마을. 전에 이곳에서 쇠장이 썼는데, 약 41년 전 죽새미로 옮겨 갔다가 그 후 동부동으로 옮김.

<진량면 대원동>

**귀끼배미【논】**

미꾸라지배미 동남쪽에 있는 논. 지형이 소구꾸(쇠코뚜레)처럼 생겼다 함.

**멍애배미【논】**

큰당골못 동쪽에 있는 논. 지형이 멩에처럼 생겼다 함.

<진량면 부기동>

**멍애배미【논】**

무창지 북판에 있는 논. 지형이 멩에처럼 생겼다 함.

<북동>

**멍애배미【논】**

백새 서쪽에 있는 논. 지형이 멩에처럼 생겼다 함.

<상림동>

**멍애배미【논】**

붓갓새 북쪽에 있는 논. 지형이 멩에처럼 생겼다 함.

<하양 대조동>

**송아지도랑【보】**

새각단 남쪽에 있는 붓도랑. 큰 붓도랑을 갈라서 새로 작은 도랑을 냈음.

<경주시 덕동 출장소>

**소미기【들】**

유리방 서쪽에 있는 버덩. 소를 놓아 먹이었음.

**소바탕【버덩】**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소바탕골에 있는 버덩. 소를 놓아 먹이었음.

#### **소바탕골【골】**

유리방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소바탕이 있음.

<경주시 덕동 출장소 신평동>

#### **명애배미【논】**

황대배미 서북쪽에 있는 논. 모양이 명애처럼 생겼었음.

<경주시 덕동 출장소 >

#### **소바탕【버덩】**

물탕골 서쪽에 있는 버덩. 소를 놓아 길렀음.

<경주시 불국사 출장소 구정동>

#### **소방우1【소방우논】【논】**

소방우 부근에 있는 논.

#### **소방우2【바위】**

장터말 서쪽에 있던 바위. 모양이 소처럼 생겼음.

<고령군 개진 인안동>

#### **소늬【늬】**

치산 앞에 있는 늬. 옛날에 이 늬가에 소를 매어 두었는데, 이무기가 소를 잡아 먹었다 함.

<고령군 다산 평리동>

#### **소마우1【바위】**

웃밤시 남쪽, 낙동강 가에 있는 바위.

#### **소마우2【들】**

소마우가 있는 들.

<고령군 덕곡 백동>

#### **송아짓골【골】**

산신골 옆에 있는 골짜기.

#### **소통골【골】**

도장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

<고령군 덕곡 성동>

#### **명애배미【구릉밭미】【들】**

예동 서쪽에 있는 들. 명애처럼 생긴 논이 있음.

<고령군 성산면 삼대동>

**소대가리【산】**

삼대 남서쪽에 있는 산. 모양이 소의 머리처럼 생겼음.

<상룡동>

**소디골【골】**

용소 뒤에 있는 골짜기.

<고령군 쌍림 안화동>

**소밭덤밋【골】**

참새미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

**소잡아먹은골【골】**

큰재 옆에 있는 골짜기. 전에 도둑이 소를 훔쳐다가 이곳에서 잡아 먹었음.

<고령군 >

**우곡면(牛谷面)【면】**

고령군 8면의 하나. 본래 고령군 하미면의 지역으로서 도진, 사부, 저동, 대곡, 아라, 월오, 연동, 하산, 부레, 부동, 사동의 11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군면 폐하에 따라 우촌면의 사촌, 황성, 야정, 아곡, 속동의 5개 동리와 전 현풍군 답곡면의 조지, 답곡, 회정, 아곡의 4개 동리와 같은 군 왕지면의 포동, 후동, 객기의 3개 동리를 병합하여 우촌과 답곡의 이름을 따서 우곡면이라 하여 도진, 예곡, 답곡, 조지, 포동, 객기, 연동, 월오, 대곡, 사전, 야정, 속동, 사촌의 13개 동리로 개편 관할함. 동쪽은 낙동강 건너 달성군 구지면, 남쪽은 달성군 구지면과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과 함천군 덕곡면, 서쪽은 쌍림면, 고령면, 북쪽은 개진면에 닿음.

<구미시 봉곡동 >

**의우총(義牛塚)【묘】**

각골에 있는 소의 무덤. 선조 때, 진수발(陳洙發)의 아내 박씨가 소를 정성껏 길러서 개령장에 갖다 팔았는데, 그 뒤에 박씨가 병이 들어 죽어서 장사를 지내려 하자, 그 소가 고삐를 끊고 달려와서 아주 슬프게 울다가 죽었으므로, 이곳에 묻고 부윤(府尹) 박수홍(朴守弘)이 비를 세워 의우총이라 하였다 함.

<군위군 군위면 내량동>

**명예골【골】**

명예산에 있는 골짜기.

**명예산【산】**

내북 동쪽에 있는 산. 지형이 명예모양으로 되었음.

<군위군 소보면 산법동>

**명예배미【논】**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다넷들에 있는 논. 모양이 멍에처럼 생겼다 함.

<군위군 우보면 모산동>

**소실** [우곡(牛谷)] 【마을】

모산동에서 으뜸되는 마을. 이조 때 우곡역이 있었음.

<문덕동>

**소실** 【마을】

문덕동에서 으뜸되는 마을. 이조 때 우곡역(牛谷驛)이 있었음.

<군위군 우보면 봉산동>

**소젓밭** [우유산(牛乳山)] 【마을】

외원당 서쪽에 있는 산.

<금릉군 감천면 도평동>

**우시장** 【장】

평산리 안에 있는 장. 1962년 일시 중단했다가 그 뒤 다시 3일, 8일에 섬.

<금릉군 구성면 마산리>

**우두령**(牛頭嶺) 【고개】

질매재와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흥덕리의 흥덕 사이에 있는 고개. 산의 형상이 소의 머리 형국이라 함.

<금릉군 구성 임천리>

**황소고개** 【고개】

장자동에서 북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금릉군 남면 송곡동>

**시미기** [쇠목, 우두(牛頭), 우항(牛項)] 【고개】

솔방 동북쪽, 오봉동의 사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오봉동의 쇠바탕이로 가는 길목이 됨.

<금릉군 남면 오봉동>

**우장**(牛場) [쇠바탕이] 【마을】

모랫등 동쪽에 있는 마을.

<금릉군 농소면 덕곡동>

**소젓골** 【골】

봉곡동 뒤 서쪽에 있는 골짜기. 작은 샘이 있는데, 물이 소젓처럼 나온다 하여 생긴 이름이라 함.



<금릉군 대덕면 대리>

**우두령**(牛頭嶺) [소머리재] 【고개】

새목에서 거창으로 넘어가는 고개. 지형이 쇠머리처럼 생겼음.

<금릉군 아포면 예동>

**우릉골** [우능동(牛能洞)] 【골】

신촌 동쪽에 있는 골짜기.

<금릉군 아포면 제석동>

**우령산**(牛嶺山) 【산】

양산 서쪽에 있는 산.

<금릉군 조마 삼산동>

**쇠머리들** 【들】

시머리모퉁이 북쪽에 있는 들.

**시머리모퉁이** 【모퉁이】

누산에서 삼정으로 가는 모퉁이. 모양이 소의 머리와 같이 생겼음.

<신곡동>

**눈가리** [누우리, 와우리(臥牛里)] 【마을】

나부동 동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소가 누운 것처럼 생겼음.

<달성군 구지면 예현동>

**소골** [우곡(牛谷)] 【골】

이제 북쪽에 있는 골짜기.

**소골산** [우곡산(牛谷山)] 【산】

소골 뒤에 있는 산. 높이 115m.

<달성군 월배면 도원동>

**우리못** [도원지(桃源地), 우리지(牛里池), 우리제(牛里堤)] 【못】

도원골에 있는 못. 우릿들에 물을 댐.

<달성군 화원면 명곡동>

**소근골** 【골】

전염병으로 죽은 소를 이곳에 묻었음.

<대구시 동구 신암동>

**소머리** [쇠머리, 신머리] 【마을】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신암동 동쪽에 있는 큰 마을. 지형이 소의 머리처럼 생겼다 함.

<대구시 북구 내당동>

**소전거리** [소전길, 우시장, 대구가축시장] 【장】

반고개 북동쪽에 있는 가축 시장.

<대구시 중구 시장북로>

**소전골목** 【마을】

말전골목 아래 북쪽에 있는 마을. 소전이 있었음.

**우마시장**(牛馬市場) 【장】

시장북로 남쪽에 있는 장. 조랑말과 소를 매매하였음.

<문경군 농암 사현리>

**소바우** 【바위】

지피골 서쪽에 있는 바위.

**소밧골** 【골】

소바우가 있는 골짜기.

**시똥밧골** 【골】

물많은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이곳의 나무를 베어서 쇠죽통을 만들었음.

<문경군 농암 화산리>

**쇠코바우** 【바위】

우복산 위에 있는 바위. 쇠코처럼 생겼음.

**우복산**(牛伏山) 【산】

귀밀 북쪽에 있는 산. 모양이 소가 엎드린 것 같이 되었다 함.

<문경군 마성 하내리>

**소밧골** 【골】

구랑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동네에서 소를 매어 놓는다 함.

**소바우** 【바위】

가경지 남쪽에 있는 바위. 모양이 소처럼 생겼다 함.

<문경군 문경 갈평리>

**쇠코바우** 【바위】

바깥갈불 남쪽에 있는 바위. 소의 코처럼 생겼음.

<문경군 문경 용연리>

**쇠뜯골** 【골】

살구밭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풀이 좋아서 소를 잘 뜯긴다 함.

<문경군 문경 중평리>

**송아짓골【골】**

여우목 남쪽에 있는 골짜기.

<문경군 문경 팔령리>

**소재(우령)【고개】**

바바리 서쪽에서 지곡리의 안모짓골로 넘어가는 재.

**소재밑【고개】**

소재 밑에 있는 마을.

**소갯등【등】**

소재에 있는 등성이

**손논논골【골】**

지핏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풀이 좋아서 소를 놓아 먹임.

<문경군 문경 평천리>

**시통소【소】**

개그늘 동쪽에 있는 소. 지형이 소통(소의 구유)처럼 생겼다 함.

<문경군 점촌 >

**우지리(牛地里)〔소못, 소못골, 우지동〕【리】**

본래 문경군 호서남면(점촌읍)의 지역으로서 소못이 있었으므로 소못골, 소못 또는 우지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흥덕리, 창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우지리라 함.

<문경군 호계 >

**우로리(牛老里)〔우로실, 우로곡〕【리】**

본래 문경군 호현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늙은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하여 우로실, 또는 우로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연역곡, 주진, 도덕곡을 병합하여 우로리라 해서 호계면에 편입됨.

**소사골【골】**

연역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봉화군 산천>

**황우산(黃牛山)〔선서봉〕【산】**

명호면 관창리와 신라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601m.

<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리>

**우병골〔우방동〕【마을】**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마당모기 북쪽에 있는 마을.

<봉화군 춘양 >

**우구티리**(牛口峙里) [우구재, 우구티] 【리】

본래 봉화군 상동면의 지역으로서 우구재 밑이 되므로 우구재, 또는 우구티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춘양면의 서벽리 일부를 병합하여 우구티리라 해서 춘양면에 편입됨.

<봉화군 춘양 우구티리>

**우구재** 【고개】

우구티리에서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으로 넘어가는 큰 고개.

<봉화군 춘양 학산리>

**우실재** 【고개】

상조에서 천성면 우곡리 중대골로 넘어가는 고개.

<상주군 산천>

**쇠머리산** [우두산] 【산】

내서면 고곡리와 서만리, 서원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444m. 모양이 소의 머리처럼 생겼음.

<상주군 산천 >

**우산**(牛山) [자양산, 원통산] 【산】

화동면 손교리, 관곡리와 화서면 봉촌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596m. 꼭대기에 철마(무쇠로 작은 말)가 있음. 동학란 때 사람이 많이 죽었음.

<상주군 공성 산현리>

**우시장**(牛市場) 【장】

옥산역 북쪽에 있는 쇠장.

<상주군 모동면 금천리>

**소파탕** 【버덩】

재너머 밑에 있는 버덩. 전에 소를 훑아 먹이던 곳이라 함.

<상주군 상주 서곡리>

**우암광**(牛岩鑛) 【광】

도림사 서쪽에 있는 광산.

<상주군 상주 성동리>

**소전 【마을】**

성동 북쪽에 있는 마을. 남성리 상주장의 소전이 있음.

<상주군 상주 인평리>

**우암리(牛岩里) 【마을】**

인평이구 서쪽에 있는 마을.

**우암산(牛岩山) 【산】**

우암 북서쪽에 있는 산.

<상주군 화서 봉촌리>

**쇠똥방우 【바위】**

검박골 안에 있는 바위. 모양이 쇠똥처럼 생겼음.

<사산리>

**우산(牛山) 【마을】**

황산 위쪽에 있는 마을. 천택산(군 산천)밑이 됨.

<선산군 도개면 도개동>

**암소방구 【바위】**

칭치나골 북쪽에 있는 바위. 모양이 암소처럼 생겼음

**황소방구 【바위】**

암소방구 옆에 있는 바위.

<선산군 도개 신림동>

**소골 [우곡] 【마을】**

새터 동쪽에 있는 산너머 골짜기에 있는 마을. 1400년 전, 모례라는 장자가 소 수천 두를 먹인 곳임.

**우곡지(牛谷池) 【못】**

소골 북쪽에 있는 못.

<선산군 무을 송삼동>

**우자리 [우산] 【마을】**

서낭대이 동쪽에 있는 마을. 산 모양이 소가 엮드린 것 같이 생겼다 함.

<선산군 산동 신당동>

**왕동 [우향동] 【마을】**

뒷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소의 목처럼 생겼음.

<선산군 산동 인덕동>

**소무덤골 【골】**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의우총 북쪽에 있는 골짜기.

<선산군 선산 완전동>

**우시장(牛市場) 【시장】**

공설시장 동쪽에 있는 소를 매매하는 시장.

<선산군 옥성 농소동>

**시미기 [소목, 우향] 【들】**

이실 동북쪽에 있는 들.

**시미기쭈 【숲】**

시미기에 있는 숲.

<선산군 옥성 옥관동>

**우복광산 【광】**

중마 남쪽에 있는 광산.

<선산군 옥성 초곡동>

**소방구 【바위】**

구시당곡 뒷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 모양이 와우처럼 생겼는데 산제를 지냄.

<선산군 해평 낙산동 >

**소골 【골】**

비등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소를 많이 먹였음.

<선산군 해평 도문동>

**소코방구 【바위】**

남일 동쪽에 있는 바위. 모양이 소의 코처럼 생겼음.

<성주군 금수면 >

**소도골 [소도동] 【마을】**

대내 북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소의 머리처럼 생겼다 함.

<성주군 대가면 후평동>

**한우단지(韓牛團地) 【단지】**

후평동 전역에 걸쳐 있는 한우단지. 1969년에 시작됨.

<성주군 대가면 도남동>

**한우단지(韓牛團地) 【단지】**

도남동에 있는 소먹이는 단지.

<성주군 벽진 가암동>

**소바우** [금암] 【마을】

가암동에서 으뜸되는 마을. 소처럼 생긴 바위가 있음.

**소바우고개** 【고개】

소바우에서 해평동으로 가는 고개.

<성주군 성주 대항동>

**소샘골** [우천] 【마을】

구팅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 큰 샘이 있었는데, 현재 연못이 있었음.

<성주군 용암면 덕평동>

**우미기** [우항동] 【마을】

덕평 동남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우묵함.

<성주군 월항면 보암동>

**우남지**(牛南池) 【못】

죽방 남쪽에 있는 못. 우수산(도 산천) 남쪽이 됨.

<성주군 초전 용봉동>

**한우단지**(韓牛團地) 【단지】

용봉동 일원에 걸쳐 있는 한우단지. 1969년에 한우를 사육함.

<안동군 남선 외하리>

**우뚫골** [우두곡] 【골】

큰 마 북동쪽에 있는 골자리. 소의 머리처럼 생겼다 함.

<안동군 녹전 구송리>

**우부림** [우보, 우보리] 【마을】

꿀땡이 남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전에 마, 소를 놓아 먹이던 곳이라 함.

<안동군 도산 선양리>

**소마담팍** 【산】

지사미 뒤에 있는 산. 소와 말을 놓아 먹였음.

<안동군 도산면 태자리>

**소정** [반정, 반정리] 【마을】

자산 남쪽에 있는 마을. “와우형(臥牛形)”의 명당이 있다 함.

<안동군 서후 이개리>

**와우실** [와우곡] 【마을】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귀여비 북서쪽에 있는 마을.

<안동군 예안 미질리 >

**등계바위** 【바위】

구계 북쪽 냇가에 있는 바위. 모양이 등계(등에)처럼 생겼음. 맞은편에 고성 이씨의 묘가 있는데, 와우형으로서, 등계가 있어서 소를 물어야 소가 힘을 잘 낸다 하여, 이씨들이 돌로 소등계처럼 만들어 놓았음.

<안동군 와룡 서현리>

**새마** [우두산] 【마을】

서현리에서 가장 큰 마을. 뒷산 모양이 “와우형”이라 함.

<안동군 와룡 오천리>

**우모실** [우모곡] 【마을】

외내 북서쪽에 있는 마을.

<안동군 와룡 지내리>

**소눗골** [솔누골] 【골】

중들 아래에 있는 골짜기.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

<안동군 임하리>

**쇠답** [마답] 【마을】

임하리 서쪽에 있는 마을. 임하현 대 우마장이었다 함.

<안동시 읍세동>

**두우티1**(斗牛峙) [두우현동] 【마을】

두우티 고개 밑에 있는 마을.

**두우티2**(斗牛峙) 【고개】

밋두루 서쪽에 있는 고개. 지형이 소의 머리처럼 생겼다 함.

<영덕군 산천 >

**축산천**(丑山川) 【내】

축산면 화천리 국사당산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기암리에 이르러 북쪽으로 꺾여서, 한실내와 칠성내를 합하여 부곡리 원포에 이르러 동쪽으로 꺾여 축산리에서 동해로 들어감.

<영덕군 강구 하저리>

**와우형**(蝸牛形)

이성지공묘.



<영덕군 남정 구계리>

**와우산**(臥牛山) [산]

연화동 남쪽에 있는 산. 소가 누운 모양이라 함.

<영덕군 남정리 남호리>

**소맛골** 【골】

남호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함.

<영덕군 남정 부경리>

**소덕빠리** 【바위】

셋들 북서쪽 끝에 있는 바위. 모양이 소덕빠리(쇠머리)처럼 생겼음.

**소뭇고개** [소미깃재] 【고개】

원진나리 북쪽에서 장사리로 가는 고개. 풀이 좋으므로 소를 많이 먹었다 함.

<영덕군 남정 사암리>

**소무듬골** 【골】

텃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병들어 죽은 소를 묻었음.

<영덕군 남정 쟁암리>

**적은 황소벌** 【버덩】

황소벌의 작은 버덩.

<영덕군 남정 쟁암리>

**큰 황소벌** 【버덩】

황소벌의 큰 버덩.

**황소벌** 【버덩】

쟁암리에 있는 버덩.

<영덕군 남정 회리>

**소뺏골** [우현곡] 【골】

피밭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소근해막골** 【골】

속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소매기** [소모기웅골, 소모기] 【마을】

갯길 서북쪽에 있는 마을. ①전에 소를 많이 길렀다. 함. ②골이 좁음.

<영덕군 영덕 남산리>

**소방우** 【바위】

두일 남쪽 골짜기에 있는 바위. 소처럼 생겼음.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수박골** [소박골, 소방웃골] 【골】

소방우가 있는 골짜기.

<영일군 구룡포 대보리>

#### **소등골** 【들】

한내 동북쪽에 있는 들. 소의 등처럼 생겼다 함.

<영일군 기계면 내단리>

#### **소미기들** 【들】

소밋골 아래에 있는 들.

#### **소밋골** 【골】

종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영일군 대송면 옥명리>

#### **소고기재** [소곡재, 서우재] 【고개】

버든골 위에 있는 재. 지형이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

<영일군 대송면 제내리>

#### **소곡** 【골】

소곡재 아래에 있는 골짜기.

#### **소곡재** [서우재] 【고개】

모산 남쪽에 있는 재.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

<영일군 동해면 상정리>

#### **우곡지**(牛谷池) 【못】

우룻골에 있는 못. 1950년에 뚫음.

#### **우룻골** 【골】

대박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영일군 송라면 대전리>

#### **방웃골** [방우곡(芳牛谷), 방어곡(芳於谷)] 【골】

심방골 북서쪽에 있는 못.

#### **방웃골못** [방우곡지(芳牛谷池), 방화지(芳化池), 심방제(尋芳堤)] 【못】

방웃골에 있는 못. 고려때 용씨, 하씨 부부가 뚫다 하는데, 조선 숙종 때에 장마로 인하여 메워졌으므로, 1952년에 이태하(李泰夏)가 주선하여 다시 복구했다 함.

#### **소무기들** 【들】

심방골 위에 있는 들. 소를 놓아 먹였다 함.

<영일군 신광 >

#### **우각리**(牛角里) [우각(牛角)] 【리】

본래 홍해군 신광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쇠뿔처럼 생겼다 하여 우각이라 하였다 하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송동, 당내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우각동이라 해서 신광면에 편입됨.

<영일군 신광 흥곡리>

**소머기【산】**

마조 앞에 있는 산.

**소머기못【못】**

소머기 아래에 있는 못.

<영일군 연일 >

**우복리(牛伏里)〔우복(牛伏), 우로동(牛老洞)] 【리】**

본래 영일군 서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소가 엎드린 형국이라 하여 우복, 또는 우로동이라 하였다 하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홍사, 가동을 병합하여 우복동(리)이라 해서 연일면에 편입됨.

<영일군 의창면 성곡리>

**소티재〔우티(牛峙), 우현(牛峴), 우월령(牛越嶺), 연산현(燕山峴)] 【고개】**

충곡리 남쪽에 있는 고개. 홍해에서 포항시로 통합.

<영일군 의창면 옥성리>

**흥발산(興發山)〔임허대(臨墟臺), 임허산(臨墟山), 와우산(臥牛山), 와우대(臥牛臺)] 【산】**

홍해 향교가 있는 산. 소가 누운 것처럼 생겼다 하며, 임허사가 있음.

<영일군 의창면 용천리>

**소똥골【골】**

사답골 옆에 있는 골짜기.

<영일군 의창면 >

**우목리(牛目里)〔우목구미, 우목(牛目), 왜목동(倭目洞), 왜혜음진(倭兮音津)] 【리】**

본래 홍해군 동하면의 지역으로서 우목구미, 우목, 또는 왜목동, 왜혜음진이라 하였는데, 1911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우목동(리)이라 하여 영일군 홍해면에 편입되었다가, 1956년 홍해면과 곡강면이 병합됨에 따라 의창면(읍)의 관할이 됨.

**우목못〔우목지(牛目池), 소눈제, 왜목제(倭目堤)] 【못】**

우목리에 있는 못.

<영일군 죽장면 석계리>

**소똥골〔송동곡, 송동골] 【마을】**

새진 서쪽에 있는 마을.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소똥골덧산【산】**

소똥골 뒤에 있는 산.

<영일군 죽장면 하옥리>

#### **소머리들【들】**

상배지미 북쪽에 있는 들.

<영일군 지행면 방산리>

#### **황소말재【산】**

팔어실 서쪽에 있는 산.

<영일군 지행면 죽정리>

#### **소매기【골】**

죽실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영일군 청하면 미남리 >

#### **소등골【골】**

호룻갓 너머에 있는 골짜기. 소의 등처럼 생겼다 함.

<영일군 청하면 서정리>

#### **새발산〔우족산(牛足山)〕【산】**

금정 북쪽에 있는 산. 높이 280m. 쇠의 발처럼 생겼다 함.

<영주군 봉현면 노좌리>

#### **소목재1【산】**

소목재 고개 위에 있는 산.

#### **소목재2【고개】**

상말에서 고향리(예천군 상리면)로 가는 고개. 소의 목처럼 생겼음. 소목 입고 초행을 안 다닌다 함.

<영주군 봉현면 두산리>

#### **소미〔우산동(牛山洞)〕【마을】**

두산리에서 중심되는 마을. 서쪽 산이 소가 누워 있는 형국임.

<오현리>

#### **소산등【등】**

영고개 남쪽에 있는 등성이. 소 형국이라 함.

<영주군 부석면 소천리>

#### **소천리(韶川里)〔쇠내, 소내, 우천(牛川), 소천(韶川)〕【마을】**

본래 순흥군 봉양면의 지역으로서 쇠내, 소내, 또는 우천, 소천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상사문지, 하사문리, 북지리 일부를 병합하여 소천리라 해서 영주군 부석면에 편입됨. 부석면의 중심지가 되어, 면사무소, 경찰지서, 학교, 우체국, 시장들이 있음.

**새직이** [와우산(臥牛山)] 【산】

남산 남쪽에 있는 산. 높이 316m. 소가 누워있는 형국임.

<영주군 부석면 용암리>

**송아지밭골** 【골】

사지밭골(새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영주군 부석면 임곡리>

**소골** 【마을】

한밤실 북서쪽에 있는 마을.

**소바우골** [우암곡(牛岩谷)] 【골】

소바위가 있는 골짜기.

**소바위** [우암(牛岩)] 【바위】

장리골 북쪽에 있는 바위. 소처럼 생겼음.

<영주군 이산면 석포리>

**소마우** [소암(素岩)] 【마을】

번개 종쪽에 있는 마을. 소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음.

<영주군 풍기면 금계리>

**쇠바리** [모랭이, 우족(牛足)] 【마을】

장선 남서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소의 발처럼 생겼다 함.

<영주군 풍기면 미곡리>

**서드랭이** [우배언(우배언)] 【들】

동범바위와 서범바위 사이에 있는 들. 모양이 소 등처럼 생겼음.

<영주군 풍기면 백신리>

**우우실**(牛牛室) [우이실(牛耳室)] 【마을】

백신리에서 중심되는 마을. 지형이 소의 귀처럼 생겼다 함.

<영천군 산천>

**소내** [우천(牛川)] 【내】

청통면 보성리 대왕산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신원리, 호암리에서 꺾이어 동남쪽으로 흘러 청통면이 허리를 뚫고 경산군 와촌면의 동쪽 일부를 지나 금호강으로 들어감.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영천군 북안면>

**효리**(孝里) [소골, 우곡(牛谷), 소동] 【리】

본래 영천군 비소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소처럼 생겼다 하여 소골, 또는 소동, 우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장재동을 병합하여 효동(리)이라 해서 북안면에 편입됨.

<영천군 영천면 도림리>

**우릴이못** [우로제(愚老堤), 우로리제(牛老里堤)] 【못】

윗마 동쪽에 있는 못.

<영천군 영천 완산리>

**소전결** 【장】

신시장 동쪽에 있는 장. 주로 소를 팔고 삼.

<영천군 영천면 조교리>

**우로들** [우로평(牛老坪)] 【들】

좋은달 서북쪽에 있는 들.

<영천군 임고면 수성리>

**소미기들** 【들】

구만 남쪽에 있는 들. 전에 소를 놓아 먹이던 곳이라 함.

<영천군 자양면 도일리>

**큰황소등** 【산】

신당 동북쪽에 있는 산. 높이 602m. 큰 황소처럼 생겼다 함.

<영천군 청통면 >

**우천리**(牛川里) [아래소내, 하우천(下牛川), 하우(下牛)] 【리】

본래 영천군 산저면의 지역으로서 보성리 소내(목성) 아래쪽이 되므로 아래소내, 또는 하우천, 하우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용연동 일부와 북습면의 어부동, 상평동을 병합하여 우천동(리)이라 해서 청통면에 편입됨.

<영천군 청통면 우천리>

**우천교**(牛川橋) 【다리】

용연 동쪽에 있는 다리.

<영천군 화산면 구호리>

**우목골** [우목곡(牛牧谷)] 【골】

구일 서쪽에 있는 골짜기.

<영천군 화산면 부계리>

**울뱅이** [울방(鬱防), 우계(牛溪)] 【마을】

부계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예천군 감천 관현리>

**쇠꼬리등** 【등】

장자곡과 쇠죽골 사이에 있는 긴 등성이. 소의 꼬리처럼 생겼음.

**쇠실** [우곡, 금곡] 【등】

한산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부자가 많이 살았으며, 임진왜란 때에도 온전하였다 함.

**쇠죽골** [우죽곡] 【골】

쇠꼬리등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예천군 개포 신음리>

**우대골** 【마을】

섬마 북서쪽에 있는 마을. 고려 때 행인의 편의를 제공하던 우두원(牛頭院)이 있었음.

**우대궁터** [우두원터] 【터】

신음리 164번지, 곧 우대골에 있는 터. 고려 때 우두원이 있었는데, 공민왕이 홍건적을 피하여 안동에 있다가 상주로 갈 때 이곳에서 묵어서 갔음.

**우감리**(牛甘里) [소감, 우감] 【리】

본래 예천군 개포면의 지역으로서 소감, 또는 우감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도장동, 승동과 이사동 일부를 병합하여 우감동(리)이라 함.

<예천군 보문 오암리>

**소마우산** [우암산] 【산】

문바우 서쪽에 있는 산. 높이 191m. 황소만 한 바위가 있음.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

**황소재** 【산】

모시골 뒤에 있는 산.

<예천군 예천 남본리>

**쇠장** [우시장] 【장】

외남본에 있는 쇠장.

<예천군 지보 신평리>

**황소말** 【마을】

방아골 북쪽에 있는 마을.

<예천군 풍양 청곡리>

**소늣골** [소늣골] 【마을】

별실 동남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울릉군 울릉 사동리>

**우복동 안골짜기**〔우복동내곡〕【골】

우복동 안쪽에 있는 골짜기.

<울진군 근남 구산리>

**쇠뿔재**【고개】

탐들 동남쪽에서 원남면 매화리로 가는 고개. 누워있는 소의 형국이라 함.

<울진군 근남 수곡리>

**소마답**【논】

비월 남쪽에 있는 논. 논 위에 소를 매어두고 풀을 먹인다 함.

<울진군 북면 검성리>

**소마등편대**【등】

중검성과 상검성 사이에 있는 등성이. 지형이 소의 형국이라 함.

**우우재**【고개】

황토매기 남쪽에 있는 고개. 부구리, 상검성, 나곡리로 가는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지형이 와우 형국이라 함.

<울진군 북면 나곡리>

**쇠잡은골**【골】

큰지경 남쪽에 있는 골짜기. 쇠(소)를 잡았다 함.

<울진군 북면 주인리>

**소마답평전**【터】

절골 서북쪽에 있는 터. 동네 소를 매는 곳임.

<울진군 서면 전곡리>

**소경터**【마을】

자랭이 서쪽에 있는 마을.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인 “와우혈(臥牛穴)”의 명당이 있다 함.

**소방우**【밭】

원곡 서쪽에 있는 밭. 소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음.

**소미기산**〔효잠, 우산, 우잠〕【산】

양남면 석읍리, 효동리, 상라리와 양북면 죽전리의 경계에 있는 산. 높이 334m.

<월성군 감포면 산천>

**와우산**(臥牛山)【산】

내남면 박달리와 건천읍 화천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280m. 누워 있는 소의 형국으로 되었다 함.



<월성군 감포 전동리>

**소바짐** [소바지미, 소팔조] 【마을】

우마루 동북쪽에 있는 마을. 팔조리의 바지미보다 작음.

**소바짐들** 【들】

소바짐 부근에 있는 들.

**소빨** [우각] 【버덩】

서상 서남쪽에 있는 버덩. 소를 놓아 먹였음.

**소빨못** 【못】

소빨에 있는 못.

**소빨재** 【고개】

소빨 위에 있는 고개. 서상에서 팔조리의 홍두테로 넘어감.

<월성군 건천 방내리>

**소똥바위** 【바위】

불췌방우 서남쪽에 있는 바위. 쇠똥처럼 생겼음.

<월성군 산내 내칠리>

**소산** 【산】

청나뭇골 위에 있는 산. 소의 형국이라 함.

<월성군 서면 아화리>

**목이장등** [목우장등] 【등】

최못갯 서쪽에 있는 등성이. 소를 먹이던 목우장이 있었다 함.

<월성군 양남 환서리>

**소미기** [소재, 효재, 우령] 【고개】

소미기산 (군 산천)에 있는 고개

<월성군 외동 제내리>

**소미깃골** 【골】

사일 서쪽에 있는 골짜기.

<월성군 천북 모아리>

**속고개** [우현] 【고개】

노린골 남쪽에서 동산리로 넘어가는 고개.

<월성군 현곡 금장리>

**황소고개** 【고개】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황숫골 있는 고개. 석장 서쪽에서 상구리의 가목골로 넘어감.

**황소못 【못】**

황숫골에 있는 못.

**황숫골 【골】**

절텃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월성군 현곡 상구리>

**소똥골 【골】**

한골 서쪽 위에 있는 골짜기.

<의성군 구천 유산리>

**우산(牛山) [유산] 【산】**

유산 서쪽 뒤에 있는 산. 지형이 와우형이라 함.

<의성군 다인 용곡리>

**쇠실 [금실, 우실, 우곡] 【마을】**

용곡리 중앙에 있는 마을. 소가 잘 된다 함.

<의성군 단북 신하리>

**소못못 [우제지] 【못】**

우제와 상연 사이에 있는 못. 못이 되기 전에 소를 먹이던 곳임.

**소못밀 【골】**

소못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우제(牛堤) 【마을】**

연제리 중앙에 있는 마을. 소못못이 있음.

**우제다리 [연제교] 【다리】**

누룩바우 동남쪽에 있는 다리.

<의성군 사곡면 공정리>

**쇠무덤골 【골】**

깨방수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소 무덤이 있음.

<의성군 사곡 매곡리>

**우평(愚坪) [우평동] 【마을】**

놀매 서북쪽에 있는 마을.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

<의성군 사곡 작승리>

**소골 [우곡] 【골】**

토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의성군 안계 용기리>

**우시장**(牛市場) [소시장] 【장】

장터 동쪽에 있는 쇠장터.

<의성군 의성 정자리>

**소바우덤** 【바위】

도리봉 서북쪽 산기슭에 있는 바위.

**소바우들** 【들】

소바우덤 밑에 있는 들.

<의성군 의성 업리>

**우두동**(牛頭洞) [쇠머릿골] 【마을】

업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쇠머리처럼 생겼음.

<의성군 춘산 사미리>

**황소봉** [봉미] 【마을】

사미리 남쪽에 있는 마을.

<청도군 각북면 >

**우산리**(牛山里) [아우산, 우산] 【리】

본래 대구군 각북면의 지역으로서 아우산, 또는 우산이라 하였는데, 고종 광무 10년(1906)에 청도구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저대동을 병합하여 우산동이라 함.

**우산**(牛山) 【산】

우산 마을 남쪽에 있는 산. 모양이 소처럼 생겼다 함.

<청도군 금천 동곡리>

**소바우** 【바위】

소바우되배기에 있는 바위.

**소바우되배기** 【산】

동곡리에 있는 산. 밑에 소바우가 있음.

<청송군 남부 하속리>

**소똥바우** 【바위】

하속 서쪽에 있는 바위. 쇠똥처럼 생겼음.

<청송군 진보면 고현리>

**쇠빨방우** 【바위】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남각산(군 산천)남쪽 산 위에 있는 바위. 양쪽으로 두 바위가 솟아 있는데 쇠뿔처럼 생겼음.

<청송군 현서면 수락리>

**쇠매깃골** 【골】

주추박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쇠불알등** 【등】

쇠매깃골 동쪽에 있는 등성이. 쇠불알처럼 생겼음.

<칠곡군 동명 금암리>

**소바우** [우암] 【바위】

소바우장터에 있는 바위.

**태봉**(台峯) [우암, 금암장터] 【마을】

금암리 남쪽에 있는 마을.

①태봉산이 있으며, 금암장터가 있음.

②소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다 함.

<포항시 두호동>

**소공장** [소금장] 【골】

관지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 소를 잡는 공장이 있었음. 일제 때 우리나라 각처의 소를 모아서 좋은 것은 일본으로 보내고, 좋지 않은 것은 이곳 공장에서 처리하였음.

<포항시 >

**우현동**(牛峴洞) [소티, 소티골, 우티, 우티곡] 【동】

본래 흥해군 동상면의 지역으로서 소티재 밑에 있으므로 소티, 소티골, 또는 우티, 우티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여천동 일부를 병합하여 우현동이라 해서 영일군 포항면(포항시)에 편입됨.

**소티재** [우티, 우현] 【고개】

우현동 북서쪽에 있는 재. 소가 누운 모양이라 함. 포항시에서 흥해를 거쳐 영덕으로 통함. 1950년 6.25사변 때 국군이 괴뢰군을 맞아 크게 격전 끝에 이겼으나, 피차 살상이 많았음.

<포항시 장성동>

**우구머리** [우구리, 장흥, 장흥동] 【마을】

장성동에서 으뜸되는 마을.

①지형이 소의 입처럼 생겼다 함.

②전라도 장흥 고을을 산 사람이 살았다 함.

## (6) 경남

<거제군 사등면 창호리>

**송치대목** [송아치대목] 【산】

신전 북쪽에 있는 산. 지형이 송아지 형국으로 되었다 함.

<거제군 신흥면 문동리>

**빨바우** 【바위】

개여시바우 서쪽에 있는 바위. 소의 빨처럼 생겼다 함.

<거제군 장승포 아양리>

**우마실** [우산] 【마을】

관송 남쪽에 있는 마을.

<거제군 하청면 하청리>

**구장터** [우시장, 하청장] 【장】

장터고개에 있던 장.

<거창군 거창면 금천리>

**소시장** [창남시장터] 【장】

샛터에 있는 장.

**우빙잇재** 【고개】

장고개 북쪽에 있는 고개. 소의 등처럼 되었다 함.

<거창군 남상면 봉산리>

**새막골** 【골】

홀튼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소의 전염병이 들 때 이곳에 막을 치고 병든 소를 격리시켰다 함.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쇠바우** [세바우, 삼암] 【바위】

쇠바윗들에 있는 바위.

**쇠바윗들** [우암평] 【들】

평촌 서쪽에 있는 들. 쇠바우가 있음.

**쇠바윗들보** 【보】

쇠바윗들에 있는 보.

<거창군 마리면 율리>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쇠똥바위【바위】

장풍 남쪽 냇가에 있는 쇠똥처럼 생긴 바위.

<거창군 북상면 하고리>

#### 우각산【산】

가는골 남쪽에 있는 산.

#### 우뱃골〔우배곡〕【골】

씨악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 도둑놈소잡아먹은골【골】

큰피나뭇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도둑놈이 소를 잡아 먹었다 함.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 소공동묘지모령이【모령이】

아래창선 동북쪽에 있는 모령이.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 왕우설【골】

아랫만청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와우혈(臥牛穴)이라 함.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 와우혈(臥牛穴)【묘】

구수 동남쪽에 있는 연안 이씨의 묘.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함.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 와우혈(臥牛穴)【산】

구시골 남쪽에 있는 산. 연안 김씨의 묘가 있는데, 와우혈(臥牛穴)이라 함.

#### 우두령(牛頭嶺)〔소머리재〕【고개】

어인골 북쪽에 있는 고개. 경상북도 금릉군 대덕면 대리로 넘어감.

#### 우랑당산【산】

우랑 앞에 있는 산. 해마다 당산제를 지냈다 함.

#### 우랑동(牛郎洞)〔우랑〕【마을】

우두령 아래에 있는 마을.

#### 우랑새미【우물】

우랑 북편에 있는 샘. 가물어도 물이 줄지 않고, 맛이 좋다 함.

<고성군 개천면 좌련리>

#### 소바구【바위】

못땀 북쪽에 있는 바위. 소처럼 생겼음.

<고성군 개천면 청광리>

**소뿔땀** [우각촌] 【마을】

미암산 서쪽에 있는 마을.

<고성군 고성면 우산리>

**우산리**(牛山里) [소슬, 우산] 【리】

본래 고성군 서읍면의 지역으로서, 산이 소가 누운 것처럼 생겼으므로 소슬 또는 우산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내우산동, 외우산동, 특곡을 병합하여 우산리라 해서 철성면(고성읍)에 편입됨.

**소슬** [우산] 【산】

우리산에 있는 산. 와우(臥牛)형국으로 생겼음.

**숙소슬** [외우산, 큰우산] 【마을】

소슬 아래에 있는 마을.

**암소슬** [내우산, 안우산] 【마을】

외우산 서북쪽에 있는 마을.

<고성군 구만면 용와리>

**소바구** [우암산, 탕근재] 【산】

돌장재 서북쪽에 있는 산. 높이 368m. 소처럼 생긴 바위가 있음.

**우암산**(牛岩山) 【산】

소바구.

<고성군 구만면 저련리>

**우르리티** [우티] 【고개】

모시골에 있는 고개. 지형이 와우형이라 함.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

**소을산** [소뿔산] 【산】

송계리에 있는 산.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쇠목재** 【산】

비룡골 동남쪽에 있는 산. 소를 놓아 먹인다 함.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쇠피이골** [우평] 【산】

검포 북쪽에 있는 골짜기. 소의 형국이라 함.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소꼬랑이끝** 【산】

도미개 남쪽에 있는 산. 쇠꼬리 형국이라 함.

<고성군 상리면 척변정리>

**새막골** [우막곡] 【골】

웃땀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쇠막이 있었다 함.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수바구** [우암] 【산】

당항 동북쪽에 있는 산.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우색재**(牛色一) [울비티, 우비티, 우색티, 울비태] 【고개】

덕농개 동북쪽에 있는 고개. 호암산(도 산천)밑이 됨.

<김해군 김해면 내동리>

**소바위** [소바우, 우암리] 【마을】

내리에서 중심되는 마을.

<김해군 김해면 삼계리>

**우복산** 【산】

삼거리 서쪽에 있는 산. 모양이 소가 옆드려 있는 것 같음.

<김해군 김해면 서상리>

**우시장**(牛市場) 【장】

서상리에 있는 우시장.

<김해군 녹산면 미읍리>

**소마당거리** 【들】

미읍 동쪽에 있는 들. 전에 소를 떼었다 함.

<김해군 진영면 우동리>

**우동리**(牛洞里) [소동, 우동, 소골] 【리】

본래 김해군 하계면(진영읍)의 지역으로서 와우산 밑이 되므로 소골 또는 우동, 소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서천을 병합하여 우동리라 함.

**와우산**(臥牛山) 【산】

우동 북쪽에 있는 산.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쇠마당【산】**

천동 북쪽에 있는 산. 소를 많이 매었다 함.

<남해군 남면 당항리>

**우왓등(牛臥一)【산】**

천상사 안쪽에 있는 산. 소가 누워 있는 형국임.

**우형(牛形)【마을】**

탐촌 서쪽에 있는 마을.

**우형교(牛形橋)【다리】**

우형 앞에 있는 다리.

<남해군 남면 상가리>

**쇠마당【들】**

평지촌 북서쪽에 있는 작은 들. 소를 놓아 먹였음.

<남해군 남해면 평현리>

**우모(牛毛) [우모동, 우무] 【마을】**

평현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

<남해군 서면 서상리>

**쇠마당【산】**

서상 북쪽에 있는 산. 소를 놓아 먹였음.

<남해군 서면 작장리>

**쇠널【산】**

작장 서쪽에 있는 산. 소먹이던 산이라 함.

<남해군 서면 정포리>

**우미도(牛尾島)【섬】**

정포 서쪽에 있는 섬.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와우산 [득피] 【산】**

오용 뒤쪽에 있는 산. 어미소를 따른 새끼소의 형상이라 함.

<마산시 우산동>

**우산동(牛山洞) [소머리, 쇠머리, 우두, 우산] 【동】**

본래 함포현의 지역으로서 산의 소의 머리처럼 생겼으므로 소머리, 쇠머리, 또는 우두, 우산이라 하였는데, 조선 제3대 태종 때 창원부에 편입되고, 제27대 순종 융희4년(1910) 마산부제 실시에 따라 마산부 구산면엔 편입되었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의하여 현동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리 일부를 병합하여 우산리라 해서 창원군 구산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대통령령 제 6542호에 의하여 마산시에 편입됨.

**우두점(牛頭店) 【터】**

쇠머리장에 있는 점터.

**우산교(牛山橋) 【다리】**

소머리 북서쪽에 있는 다리. 1928년 준공됨. 길이3m.

<마산시 합성동>

**우복실 [우복곡] 【골】**

외성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황소가 엮드린 형국이라 함.

<밀양군 단장면 구천리>

**소고분등골 【골】**

각개내골 밑에 있는 골짜기.

<밀양군 밀양면 용평리>

**암소다리 【다리】**

선불 서남쪽에 있는 다리.

<밀양군 삼랑진읍 삼랑리>

**소전거리 [우시장거리] 【마을】**

상부 중앙에 있는 마을.

<밀양군 삼랑진읍 삼랑리>

**우곡리(牛谷里) [우곡, 우실] 【리】**

본래 밀양군 하동면(삼랑진읍)의 지역으로서 우실 또는 우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덕촌, 새장터, 엄동, 점말, 추진을 병합하여 우곡리라 함.

**우곡교 【다리】**

우곡교 앞에 있는 다리. 1914년 준공.

<밀양군 청도면 고법리>

**소시등 【등】**

골안 위에 있는 등성이. 소의 혀 모양이라 함.

<밀양군 청도면 소태리>

**우와등(牛臥一) [소수분등] 【등】**

개안골 남쪽에 있는 등성이.

<밀양군 초동면 명성리>

**성암(星岩) [우암] 【마을】**

명성리에서 중심되는 마을.

**소싱구1 [소싱들] 【들】**

성암 동남쪽에 있는 들.

**소싱구2 [소싱들보] 【보】**

소싱구들에 있는 보.

<밀양군 초동면 성만리>

**소바우 [우암] 【바위】**

가매바우 남쪽에 있는 바위. 소처럼 생겼음.

<밀양군 하남면 양동리>

**소바우1 [우암] 【마을】**

서당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 뒷산에 소바우가 있음.

**소바우2 【바위】**

소바우 뒤에 있는 바위.

<사천군 곤명면 성방리>

**소다리 [우교] 【마을】**

정동 서북쪽에 있는 마을. 뒷산이 와우(臥牛) 형국인데, 이 마을은 그 다리에 해당한다 함.

<사천군 곤양면 남문외리>

**우시장(牛市場) 【장】**

옥거리에 있는 쇠장.

<사천군 곤양면 서정리>

**소티 [우티] 【마을】**

사동 남쪽에 있는 마을.

<사천군 사남면 사촌리>

**쇠바우 【바위】**

우암지 밑에 있는 바위.

**쇠바우들 【들】**

쇠바우가 있는 들.

**우암들(牛岩一) 【들】**

우암지그 있는 들.

**우암지(牛岩池) 【못】**

사촌 남쪽에 있는 못.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사천군 사남면 죽천리>

**소장터【산】**

초전 북쪽에 있는 산.

**숫데골목【목】**

소장터 남쪽에 있는 길 목. 소를 많이 매어 둔다 함.

<사천군 사천면 사주리>

**소뚝뚝거리【길】**

사주 북쪽에 있는 길. 연못 근처에 백정이 살았었는데, 양반이 되고 싶어 밤에 의관을 하고 거닐다 양반에게 발각되어 참살당했다 함. 그 뒤 소가 자주 이 연못에 빠져 죽으므로, 원귀를 위로하기 위해 못을 메워 5봉을 만들고 밑에 각각 작은 뚝뚝 하나씩을 만들었다가, 비행장 건설 때 모두 없앴다 함.

<사천군 사천면 정의리>

**소전 [우시장] 【장】**

정의리에 있는 쇠장.

<사천군 서포면 내구리>

**우무섬(牛舞一)【섬】**

군포 남쪽에 있는 섬. 소가 춤을 추는 형국이라 함.

<사천군 용현면 구월리>

**와우산(臥牛山)【산】**

마월 북쪽에 있는 산.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함.

<사천군 용현면 선진리>

**소시장【장】**

신기 중심에 있는 축산물 거래 시장.

<사천군 축동면 가산리>

**뚝메등【산】**

조창 서쪽에 있는 산. 송아지가 누워 있는 형국으로 따로 떨어져 있음.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서너울 [소너울, 우탄] 【여울】**

창주 동쪽에 있는 여울.

<산청군 금서면 자혜리>

**썰목덩이썰 【소】**

썰목덩이 아래쪽에 있는 소. 용이 숨어 옆에 매어둔 소(牛)를 잡아 먹었다 함.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

**쫓썰 【소】**

산짓골에 있는 소. 소가 빠졌다 함.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새드리 [우평] 【들】**

묵실 동쪽에 있는 들.

<산청군 단성면 호리>

**대우세보탕 【골】**

소태박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진양군 수곡면 자매리의 대우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소를 놓아 먹었다 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쇠머기 [쇠모기, 쇠목, 우목] 【고개】**

바랑골에서 유평리 산밭골로 넘어가는 고개.

<산청군 삼강면 평촌리>

**소골티안 【등】**

질등 북쪽에 있는 등성이.

**소룽골 【골】**

대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소막골 [세막골, 씨막골] 【골】**

평촌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소안골 【골】**

명상 남쪽에 있는 골짜기.

<산청군 생비량면 도전리>

**소거니 【골】**

새터 앞에 있는 골짜기.

**우개골 【골】**

도장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산청군 생초면 계남리>

**한우육성단지 【단지】**

서당골에 있는 한우를 사육하는 단지.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산청군 생초면 상촌리>

**독구미【골】**

남산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송아지가 어미소를 돌아보는 형국이라 함.

**소덕이【소덕】【산】**

새터 남쪽에 있는 산. 소대가리 형국이라 함.

**소멀리【들】**

새터 동쪽에 있는 들. 지형이 소머리 형이라 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소뿔바위【바위】**

두루동 남쪽에 있는 바위. 소뿔같이 생겼음.

<산청군 신등면 가술리>

**독갯골【골】**

칸치미 동쪽에 있는 골짜기.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 함.

<산청군 신안면 청현리>

**우장골【골】**

청현 북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우장처럼 생겼음.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암쇠골【골】**

황쇠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암소의 형국으로 되었다 함.

**황쇠골【골】**

아릿공고니 동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황소처럼 생겼다 함.

<산청군 오부면 일물리>

**독우머리【산】**

일물 동북쪽에 있는 산. 지형이 송아지가 어미소를 돌아보는 형국이라 함.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우룡산(牛龍山)【소룡산】【산】**

오휴 동북쪽에 있는 산.

<산청군 차황면 부리>

**쇠평잇들【들】**

맥골 남쪽에 있는 들. 소등처럼 편편함.

<삼천포시 동금동>

**소전거리** [우시장] 【마을】

동금동에 있는 소전거리. 1966년에 선구동에서 옮겨왔는데, 4일, 9일에 장이 섬.

<삼천포시 실안동>

**소마지** [우향산] 【산】

응산 밑에 있는 산. 소의 목처럼 생겼음.

<삼천포시 신벽동>

**쇠뚝바우** 【바위】

칼바우 옆에 있는 바위.

<양산군 기장면 당사리>

**우독골** [우독곡] 【골】

당사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송아지처럼 생겼음.

<양산군 기장면 대변리>

**소로방1** [우암] 【바위】

불맏개안 동쪽에 있는 바위. 소 모양임.

**소로방2** [우암] 【불】

소로방이 있는 불.

<양산군 물금면 범어리>

**소탄방우** 【바위】

동넷갯 아래에 있는 바위. 소를 타고 앉아 있는 것처럼 생겼음.

<양산군 물금면 어곡리>

**소막골** 【골】

새터 남쪽에 있는 골짜기. 막을 지어 놓고 전염병에 걸린 소를 격리 치료했다 함.

<양산군 상북면 내석리>

**소매골** [소막골] 【골】

내석 남쪽에 있는 골짜기. 막을 치고 전염병에 걸린 소를 격리시켰다 함.

<양산군 상북면 소토리>

**소새바우** 【바위】

북방우 남쪽에 있는 바위. 소의 혀처럼 생겼음.

**우유**(牛遊) 【마을】

소토리에 있는 마을.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양산군 서생면 위양리>

**와그덤** [와우산] 【산】

막골 동쪽에 있는 산. 지형이 소가 누워 있는 것 같다 함.

**와기덤** 【들】

와그덤 밑에 있는 들.

<양산군 웅상면 명곡리>

**소맷골** 【골】

솔밭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풀이 좋아서 소를 많이 메어 두었다 함.

<양산군 웅상면 삼호리>

**소막터** 【들】

뜸밭등 동쪽에 있는 들.

**소바탕** 【버덩】

대운재 남쪽에 있는 버덩. 소를 놓아 먹임.

**안소바탕** 【버덩】

소바탕 안쪽에 있는 버덩.

<양산군 일광면 신평리>

**소똥대** 【대】

식송 뒤에 있는 대.

<양산군 장안면 기룡리>

**손막골** 【골】

팬절 서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소치는 막처럼 생겼다 함.

<양산군 장안면 좌천리>

**구장텃걸** [우마장] 【논】

북판에 있는 논. 쇠장이 있었음.

<양산군 정관면 용수리>

**새점물** [쇠쫓물, 사점] 【골】

덕전 서쪽에 있는 골짜기.

**우두논** 【논】

평전 서쪽에 있는 논.

<울산시 명촌동 >

**소똥섬** 【들】

명촌에 있는 들. 소를 많이 먹였다 함.



<울산시 서동>

**소똥비알【산】**

신성방우 서쪽에 있는 산. 소를 많이 매어서 쇠똥이 많음.

<울산시 우정동>

**우정동(牛亭洞)【동】**

본래 울산군 상부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창성동과 강정동, 우암동, 상안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우암과 강정의 이름을 따서 우정동이라 해서 부내면(울산읍)에 편입되었다가, 1962년 울산시에 편입됨.

**소바우 [우암, 우암촌] 【마을】**

우정동 서쪽에 있는 마을. 소처럼 생긴 바위가 있음.

<울산시 방어진 방어동>

**소방우【바위】**

동진에 있는 바위. 모양이 소처럼 생겼음.

<울산시 방어진 일산동>

**우지리 [우진암] 【바위】**

넙섬 북쪽에 있는 바위.

<울산시 방어진 전하동>

**소누분방우 [와우암] 【바위】**

새다리 남쪽에 있는 바위. 소가 누워 있는 것처럼 생겼음.

<울주군 강동면 당사리>

**소집골 [우가] 【마을】**

당사 동남쪽에 있는 마을. 지대가 솟으며, 지형이 소의 형국이라 함.

**우가산(牛家山)【산】**

우가 뒤편에 있는 높은 산.

<울주군 농소면 매곡리>

**소구붓재【고개】**

마동 동북쪽에 있는 고개. 가팔라서 소가 자주 굴렀다 함.

**소바탕【버덩】**

큰골 동쪽에 있는 버덩. 풀이 좋아서 소를 많이 놓아 먹였다 함.

<울주군 농소면 창평리>

**소미기【마을】**

범방우 동남쪽에 있는 마을.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소미기못 【못】**

소미기에 있는 못.

**소미기아랫못 【못】**

소미기못 아래쪽에 있는 못.

**소미기웃못 【못】**

소미기못 위쪽에 있는 못.

**소미갯들 【들】**

소미기 앞에 있는 들.

**소싯골 【골】**

큰갯등 남쪽에 있는 골짜기.

<울주군 농소면 천곡리>

**소맏골 [소못골] 【골】**

순금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소숫골 【골】**

남명 남쪽에 있는 골짜기. 소를 먹이는 풀(소죽)이 많음.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소누골 【논】**

외와 북쪽에 있는 논. 소가 누워있는 형국임.

**소누골보 【보】**

소누골에 물을 대는 보.

<울주군 두서면 차리>

**소새등 【등】**

가는등 서쪽에 있는 등성이. 소의 혀처럼 생겼음.

<울주군 범서면 굴화리>

**소돌아가는방우 【바위】**

노랑방우 북쪽 긴 모퉁이에 있는 바위. 길이 좁아서 사람과 소가 함께 가지 못하고 소가 돌아서 나간 뒤로 사람이 뒤따라 감.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소바탕이 【버덩】**

배나무땀대기 북쪽에 있는 버덩. 풀이 좋아서 소를 놓아 먹임.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소막【마을】**

별장 서남쪽에 있는 마을. 옛날에 소를 많이 사육했다 함.

<울주군 삼남면 출강리>

**소대가리등【등】**

가는골 남쪽에 있는 등성이. 지형이 소의 대가리처럼 생겼다 함.

**소대가리등골【골】**

소대가리등 위쪽에 있는 골짜기.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복수낭구소바탕이【버덩】**

대소무등 남쪽에 있는 버덩. 복숭아나무가 있었으며, 풀이 좋아 소를 놓아 먹임.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소디미【골】**

명촌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풀이 좋아 소를 놓아 먹임.

**소디미논【논】**

소디미에 있는 논.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소방우〔우암〕【바위】**

우는방우 서북쪽에 있는 바위.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소똥골【골】**

젓목 서쪽에 있는 골짜기. 소를 놓아 먹이던 곳으로 소똥이 많다 함.

<울주군 언양면 다개리>

**소새등【등】**

주산등 서쪽에 있는 등성이. 지형이 소의 혀처럼 생겼다 함.

<울주군 언양면 반천리>

**소미기【마을】**

큰골 서쪽에 있는 마을.

**소미기고개【고개】**

소미기 서쪽에서 동부리로 넘어가는 고개

**소미기뭇〔고모지〕【뭇】**

소미기에 있는 뭇. 고무재 서쪽이 뭇.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울주군 언양면 어음리>

**소미기재** 【고개】

나리미 북동쪽에서 반천리 소미기로 넘어가는 고개.

<울주군 언양면 태기리>

**우막골** [우막곡] 【골】

탱장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병든 소를 격리시키던 우막이 있었음.

<울주군 온산면 우봉리>

**우봉리**(牛峯里) [소당개, 우봉개, 소당포, 우봉] 【리】

본래 울산(울주)군 온산면의 지역으로서 우봉산 밑이 되므로 소당개, 우봉개 또는 소당포, 우봉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우봉리라 함.

<울주군 온산면 화산리>

**소굴** [소굴, 우곡] 【골】

돌당 서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소처럼 생겼다 함.

**소굴못** [소굴못, 오곡지] 【못】

소굴에 있는 못.

**소굴못고개** 【고개】

수굴못 위쪽에 있는 고개. 석당에서 온양면 덕신리로 넘어감.

<울주군 온양면 대안리>

**소똥골** 【골】

큰골웃못 북쪽에 있는 골짜기. 소를 많이 메어두므로 소똥이 많음.

<울주군 온양면 동상리>

**안우무정** 【마을】

우무정 안쪽에 있는 마을.

**우무정** [우문정, 운무정] 【골】

동상리에 있는 골짜기.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소대가리방우** 【바위】

남악재 밑에 있는 바위. 모양이 소대가리처럼 생겼음.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소맷골** 【골】

벨봉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소를 놓아 먹였다 함.

**소맷골재** 【고개】

벨봉에서 온양면 내광리로 넘어가는 고개.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소바탕【골】**

두리등 어귀에 있는 골짜기. 소를 놓아 먹였다 함.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소대가리등【등】**

덕산 북동쪽에 있는 등성이. 지형이 소대가리처럼 생겼음.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소매골【골】**

돌뱅잇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울주군 청량면 율리>

**소맷골【골】**

뿔당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소새방우【바위】**

얼기덤 서쪽에 있는 바위. 소의 혀처럼 생겼음.

<의령군 가례면 괴진리>

**우실〔우곡〕【마을】**

괴진 북쪽에 있는 마을.

<의령군 낙서면 아근리>

**소맹산〔우명산〕【산】**

상포 남쪽에 있는 산.

<의령군 유곡면 칠곡리>

**우두방〔우두봉〕【골】**

칠곡 남쪽에 있는 골짜기.

<의령군 의령면 하리>

**소장골【골】**

성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소를 많이 먹이였음.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쇠꼬동바위【바위】**

포외 동북쪽에 있는 바위. 소의 코처럼 생겼음.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진양군 금곡면 가봉리>

**우봉동(牛峯洞) 【마을】**

가봉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뒷산이 소처럼 생겼음.

<진양군 금곡면 두문리>

**소전 【장】**

세경 북서쪽에 있는 소시장.

<진양군 금곡면 정자리>

**소죽밭 【산】**

정자 서쪽에 있는 산. 풀이 많아서 소를 놓아 먹였다 함.

<진양군 대곡면 와룡리>

**소장 【장】**

와룡 남쪽에 있는 소의 거래 시장.

<진양군 대평면 당촌리>

**황소골 [대우동] 【마을】**

사평 서쪽에 있는 마을. 앞산 모양이 황소 형국임.

<진양군 문산면 동물리>

**소독골 [우독곡] 【골】**

소음 북쪽에 있는 골짜기.

<진양군 수곡면 사곡리>

**대우(大牛) 【마을】**

상대와 하대에 걸쳐 있는 마을.

<진양군 이반성면 용암리>

**쇠덩어리 【등】**

본동 동쪽에 있는 등성이. 지형이 소의 등처럼 생겼다 함.

<진양군 이반성면 평촌리>

**소머리산 【산】**

삼거리 서쪽에 있는 산. 지형이 소머리처럼 생겼다 함.

**소머리뚝뚝 【뚝뚝】**

소머리산 앞에 있는 뚝뚝.

<진양군 지수면 용봉리>

**우미기(牛尾一) [우고미] 【마을】**

안계 동쪽에 있는 마을.

<진양군 진성면 대사리>

**와우티고개**(臥牛峙一) 【고개】

상촌 서쪽에서 문산면 상문리로 넘어가는 고개. 지형이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함.

## (7) 부산 (경남 3)

<경산남도 의창군 구산면 구산리 >

**쇠섬** [소도, 우도] 【섬】

아래가 동쪽에 있는 섬. 지형이 소가 누워 있는 것 같다 함.

<의창군 대산면 우암리>

**소바우** 【바위】

소바우 마을 서쪽에 있는 바위. 모양이 소가 누워 있는 것 같음.

<의창군 동면 단계리>

**우곡사**(牛谷寺) 【절】

서매 남쪽에 있는 절.

**우곡사 약물** 【약】

우곡사 북동쪽에 있는 약수터.

**우곡저수지**(牛谷貯水地) 【저수지】

외단계 남쪽에 있는 저수지.

<의창군 웅동면 대장리>

**소막골** 【골】

굴암산(도 산천)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 소막을 치고 병든 소에게 약수를 먹였더니 나았다 함.

<의창군 진동면 요장리>

**수우도**(水牛島) 【마을】

작은 수우도 안쪽에 있는 마을.

**수우섬**(水牛一) [수우도] 【섬】

중촌 동남쪽에 있는 섬. 무소처럼 생겼음.

**작은수우섬** [소수우도, 작은수우도] 【섬】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수우섬 서쪽에 있는 작은 섬.

<의창군 진전면 오서리>

**우곡저수지**(牛谷貯水地) 【못】

울빛 동쪽에 있는 못.

**우산대**(牛山臺) 【대】

울빛재 꼭대기에 있는 대. 허 학중.

<창령군 산천>

**소내** [우천] 【내】

하왕산 밑에서 발원하여 고암면 우천리를 지나 대암리에 이르러 토평천에 들어감.

<창령군 계성면 계성리>

**쇠꼬랑뎡이** [우천, 우미동, 내곡촌] 【마을】

절산 서남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소 형국인데, 그 꼬리에 해당한다.

<창령군 대지면 효정리>

**소코덤** 【산】

안소림 서북쪽에 있는 산. 와우형이 있는데, 이곳은 소의 코에 해당된다 함.

<창령군 대함면 모전리>

**우미실**(牛尾室) [우미곡] 【마을】

떠방굴 남서쪽에 있는 마을. 소가 꼬리를 두르고 있는 형국이라 함.

<창령군 대함면 십이리>

**소전거리** [소전길] 【마을】

장터 남쪽에 있는 마을. 쇠전(우시장)이 있었음.

**소전길 다리** 【다리】

소전길 옆에 있는 작은 다리.

<창령군 영산면 서리>

**소전거리** 【길】

서리 서쪽에 있는 길. 지금도 우시장이 있음.

**소벌** [우포] 【들】

둔터에 있는 벌.

**우포**(牛浦) 【들】

소벌.

<창령군 이방면 성산리>

**소바우1** [우암동, 각산동] 【마을】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통영군 옥지면 연화리>

**소섬** [우도] 【섬】

본촌 서북쪽에 있는 섬.

**우도**(牛島) 【마을】

소섬에 있는 마을.

<통영군 용남면 동달리>

**소바우** [우암, 동암] 【마을】

달애 동남쪽에 있는 마을.

<통영군 용남면 장평리>

**새널끝** [새낫끝, 우두] 【산】

신촌 동쪽에 있는 산. 누운 소 형국임.

<통영군 용남면 화삼리>

**소풀섬** [우초섬, 우초도] 【섬】

뱀섬 서북쪽에 있는 섬.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수우제** [세굴재, 황토재] 【고개】

방화에서 횡천면 애티리 온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소가 잠을 자는 형국이라 함. 황토로 되었음.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오양광산**(五洋鑛山) 【광】

우억 남쪽에 있는 광산.

**우억**(牛億) 【마을】

서황 서쪽에 있는 마을.

<하동군 악양면 중대리>

**소마구골** 【골】

상중대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마굿간처럼 생겼음.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우방산**(牛芳山) 【산】

양지땀 서쪽에 있는 산. 높이 569m.

**우봉** 【산】

양지땀 북쪽에 있는 산.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우계리**(牛溪里) [우리실, 우이곡, 우계] 【리】

본래 진주목 적량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우리처럼 되었으므로 우리실 또는 우이곡, 우계라 하였는데, 숙종 28년(1702)에 하동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신촌동, 상우동, 공월동을 병합하여 우계리라 함.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쇠막골** 【골】

지곡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소 형이라 함.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우아들** 【들】

모암 남쪽에 있는 들.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함.

**우아들보** 【보】

우아들에 물을 대는 보.

<함안군 가야면 산서리>

**소바구1** [축암] 【마을】

삼거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

**소바구2** [축암] 【바위】

소바구에 있는 바위.

<함안군 가야면 설곡리>

**바우치** 【산】

월성 북쪽에 있는 산. 소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함.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

**소목이** [우향] 【골】

구수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소정지** [우정자] 【들】

사랑목 동남쪽에 있는 들.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소똥골** 【골】

딸밭굴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함안군 산인면 운곡리>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소바얹다 【산】**

분득골 남쪽에 있는 산. 소 모양의 바위가 있음.

<함양군 마천면 덕전리>

#### **소꼬랭이 몰랑 【산】**

내마 북쪽에 있는 산. 지형이 쇠꼬리처럼 생겼음.

#### **와우산(臥牛山) 【산】**

내마 앞에 있는 산. 지형이 와우형임.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 **소바우 【바위】**

소바웃골에 있는 바위. 모양이 소처럼 생겼음.

#### **소바웃골 【골】**

웃안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소바우가 있음.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 **우명리(牛鳴里) [소우리, 우명] 【리】**

본래 함양군 모간면의 지역으로서 소우리 또는 우명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구라동, 가성동을 병합하여 우명리라 해서 수동면에 편입됨.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 **소문산 [우산] 【산】**

공배 남쪽에 있는 산. 소가 누워 있는 혈이라 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 **소잡아북은골 【골】**

수여동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함양군 함양면 난평리>

#### **쇠머리골 [우두곡] 【들】**

신기 남쪽에 있는 들. 지형이 쇠머리처럼 생겼음.

<함천군 가야면 구원리>

#### **써구 [석우] 【골】**

뒷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함천군 가야면 죽전리>

#### **소바우 【바위】**

소바우먼당에 있는 바위. 소처럼 생겼음.

**소바우먼당** [소바우듬, 소바우듬] 【산】

죽전동 서북쪽에 있는 산. 소바우가 있음.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쇠코바우** 【바위】

쇠코바웃재에 있는 바위. 쇠코처럼 생겼음.

**쇠코바웃재** [코바굿재] 【고개】

백련암 북쪽에서 성주군 가천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쇠코바우가 있음.

<합천군 가야면 둔내리>

**쇠죽바우** 【바위】

버무기 동쪽에 있는 바위.

<합천군 가회면 중촌리>

**우장바우** 【바위】

바랑바우 옆에 있는 바위. 모양이 우장처럼 생겼음.

<합천군 대병면 성리>

**우석골** 【골】

박실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 우소혈(牛笑穴)의 명당이 있다 함.

<합천군 덕곡면 학리>

**수월이** [소우리] 【들】

열미 동쪽에 있는 들. ①소가 들을 갈다가 너무 길고 지루하여 운다 함. ②물이 넘었다 함.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우산재**(牛山一) 【고개】

신내 남쪽에서 우산(군 산천)으로 가는 고개.

<합천군 봉산면 행정리>

**쇠말등** 【등】

행정 남쪽에 있는 등성이. 쇠말이 있었다 함.

**쇠바우** [범바우] 【바위】

행정 서쪽에 있는 바위.

**쇠바우모티** 【모퉁이】

쇠바우 밑에 있는 모퉁이.

<합천군 삼가면 두모리>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소곶골면당 [우이곡] 【산】

골안 북서쪽에 있는 산.

<합천군 쌍책 상포리>

#### 소목재 [우항] 【고개】

상포 동북쪽에 있는 고개.

<합천군 야로면 하림리>

#### 우거(牛巨) 【마을】

하림 동남쪽에 있는 마을.

#### 우거릿들 【들】

우거 앞에 있는 들.

<합천군 용주면 우곡리>

#### 우곡리(牛谷里) [우실, 우곡] 【리】

본래 합천군 가의면의 지역으로서 우산(군 산천)밑이 되므로 우실 또는 우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계성동, 봉기동 일부를 병합하여 우곡리라 해서 용주면에 편입됨.

#### 머애배미 【논】

우실 앞에 있는 논. 지형이 멩에처럼 굽었음.

#### 우산들 【들】

우실 북쪽에 있는 들.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 쇠등 【등】

낙민 동쪽에 있는 등성이. 지형이 소처럼 생겼음.

<합천군 합천면 외곡리>

#### 소매못 [연못] 【마을】

소맷들에 있는 못

#### 소맷들 [우산들] 【들】

소매못 앞에 있는 들. 소가 많이 있었음.

<부산시 남구면 우암동>

#### 우암동(牛岩洞) [소바우, 우암] 【리】

본래 동래구 남면의 지역으로서 소처럼 생긴 바위가 있으므로 소바우 또는 우암이라 하였는데, 고종 33년(1896)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부산부 용주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우암동이라 해서 동래군 서면에 편입되었는데, 1936년에 다시 부산부(시)에 편입되었고, 1957년 1월 1일 법률 제407호에 의하여 동래구에 편입되었다가,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6호에 의하여 남구에 편입됨. 1976년 12월 1일 조례 1025호에 의하여 갈라서 우암 제1동, 제2동회로 함.

**소바우**〔우암〕【바위】

우암동에 있는 바위. 소처럼 생겼음.

**우암변전소**【변전소】

우암동에 있는 변전소.

**우암천**(牛岩川)〔새미거렁〕【내】

우암동에 있는 내.

**우암포**(牛岩浦)【개】

우암동 앞에 있는 포구.

〈부산시 동구 범일동〉

**소고마을**【마을】

범일 제1동에 있는 마을. 옛날 이곳에서 소를 많이 쳤다 함.

〈부산시 동구 수정동〉

**소마골**【마을】

수정 제2동에 있는 마을. 옛날에 도수장이 있었음.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사거리**〔소전거리, 소전, 소정그래〕【길】

명륜동에 있는 네 갈래의 길. 옛날 소전이 있었음.

## (8) 전북

〈고창군 고수면 우평리〉

**우평-리**(牛坪里)〔소들,우평〕【리】

본래 고창군 오서면의 지역으로서 소들 가가 되므로 소들 또는 우평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죽천리, 용지리, 오운리, 산동, 양지리와 오동면의 도산리 일부와 대아면의 오향리 일부를 병합하여 우평리라 해서 오산면에 편입되었다가, 1933년 행정 구역 재조정에 의해 고수면에 편입됨.

〈고창군 고수면 우평리〉

**소-들 우평**〕【들】

우평 앞에 있는 넓은 들. 지형이 와우 형국으로 되었다 함.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와우-등**(臥牛一) 【등】

그물매기 동쪽에 이는 등성이. 지형이 소가 누워 있는 것 같다 함.

<고창군 대산면 갈마리>

**와웃-들** [와우평,우평] 【들】

갈마 앞에 있는 들. 와우형이라 함.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구수-밭** 【밭】

두동 앞에 있는 밭. 중매의 뒷산이 와우형이라 하는데, 이곳은 그 소의 구유와 같다 함.

<고창군 무장면 덕림리>

**각-골** [각동] 【들】

방죽안 앞 골짜기에 있는 들. 방죽안의 지형이 와우형(臥牛形)이라 하는데 이곳은 와우의 뿔과 같이 되었다 함.

**각-동**(角洞) 【들】

각골.

**구수-시암** 【우물】

쌍시암 밑에 있는 샘. 모양이 소 구유처럼 되었다 함.

<고창군 무장면 신촌리>

**우장-골**(牛藏一) 【골】

평장 동쪽에 있는 골짜기. 와우혈(臥牛穴)이 있다 함.

<고창군 상하면 석남리>

**우와-섬**(牛臥一) 【등】

소라리 앞 들에 있는 작은 등성이. 전에는 바닷물이 이곳까지 들어와서 섬이었다 함.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와우-등**(臥牛嶺) 【등】

각골 뒤에 있는 등성이. 지형이 와우 형국이라 함.

<고창군 성내면 월성리>

**와웃-등** 【등】

늘잇골 동쪽에 있는 등성이. 지형이 소가 누워 있는 것 같이 되었다 함.

<고창군 성송면 피치리>



**쇠-바탕【골】**

양실 북쪽에 있는 골짜기. 와우 형국으로 되었다 함.

**주경-골【골】**

쇠바탕 북쪽에 있는 골짜기.

**죽통-배미【논】**

양실 동쪽에 있는 논. 논 모양이 쇠바탕의 와우의 구유처럼 되었다 함.

<고창군 심원면 연화리>

**돼지-바우 [소바우] 【바위】**

각시매 위에 있는 큰 바위. 모양이 돼지라 흡사함. 전에는 소와 흡사하다 하여 소바우라 하였음.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쇠뿔-바우【바위】**

명에바우 위에 있는 바위. 소뿔처럼 뾰족하게 생겼음.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

**소-매 [우봉] 【산】**

우봉 동쪽에 있는 산. 소의 형국이라 함.

**우-봉1(牛峯)【마을】**

성산 서남쪽에 있는 마을. 뒷산이 소의 형태라 함.

<고창군 해리면 안산리>

**소-매 [우산] 【마을】**

안산 남쪽에 있는 마을. 소의 형국이라 함.

**소맷-재【고개】**

소매에서 송산리 임해로 가는 고개.

**우-산(牛山)【마을】**

소매.

<고창군 흥덕면>

**흥덕-면(興德面)【면】**

목우(牧牛)

<고창군 흥덕면 신덕리>

**신덕-리(新德里) [신덕] 【리】**

목우촌

**목-우(牧牛)【마을】**

신덕 서쪽에 있는 마을.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고창군 흥덕면 신송리>

**구시-배미【논】**

신송 앞에 있는 논. 지형이 소 구시(구유)처럼 되었다 함.

<군산시 개복동 >

**경마장-뜸 [경마장, 쇠전매] 【마을】**

개복동에 있는 마을. ① 경마장이 있었음. ②쇠전이 있음.

**쇠전매【마을】**

경마장뜸.

<김제군 금구면 용지리>

**와우-등【등】**

우산 남쪽에 있는 등성이.

**우-산(牛山)【마을】**

광현 서남쪽에 있는 마을. 뒷산이 와우형임.

<김제군 금구면 하신리>

**쇠-골 [우동] 【골】**

상송 동쪽에 있는 골짜기.

<김제군 김제읍 순동리>

**소-못 [개미방죽, 금이제, 소매방죽, 우제] 【못】**

순동 동쪽산 너머에 있는 큰 못. 전에 순채가 많이 있었음.

<김제군 백구면 부용리>

**거먹소-구래【논】**

오가우뜸 남쪽에 있는 논. 와우형임.

<김제군 백구면 삼정리>

**우담(牛潭) [신기촌] 【마을】**

고잔 남쪽에 있는 마을.

**우담-교(牛潭橋)【다리】**

우담 남쪽에 있는 다리. 길이 40m.

**우담-방죽【못】**

우담 남쪽에 있는 못.

<김제군 백구면 영상리>

**와우-혈(臥牛穴)【등】**

새터 동쪽에 있는 등성이. 와우형임.

<김제군 봉남면>

**봉남-면**(鳳南面) 【면】

우산(牛山)

<김제군 성덕면 남포리>

**소-산** [우산, 남포산] 【산】

남포 서남쪽에 있는 산.

<김제군 월촌면 북죽리>

**우독**(牛牖) [중리] 【마을】

개머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 뒷산이 소처럼 생겼음.

**우성**(牛城) 【마을】

우독 서쪽이 되는 마을.

<김제군 월촌면 연정리>

**너추리** [여초] 【마을】

신원 남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소가 풀을 뜯어 먹고 있는 형국이라 함.

<남원군 금지면 방촌리>

**소바우** 【바위】

문바우 옆에 있는 바위. 누워 있는 소의 형국임.

**수두산**(首頭山) 【산】

고리봉(군 산천)북쪽에 있는 산. 소머리 같이 생겼음.

<남원군 금지면 서매리>

**소바우** 【바위】

큰골 서남쪽에 있는 소처럼 생긴 바위.

<남원군 대강면 사석리>

**가마바우** 【바위】

소바우 남서쪽에 있는 바위. 가마같이 생겼음.

**소바우** 【바위】

원머리 남쪽에 있는 바위. 소같이 생겼음.

**장가바우** 【바위】

소바우 남동쪽에 있는 바위.

<남원군 보절면 금다리>

**소코빼기** 【산】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다산 동쪽에 있는 산. 소 코 같은 형국이라 함.

<남원군 보절면 금다리>

**외아별【들】**

소타정이 서쪽에 있는 들. 모양이 소의 한쪽 뿔 같다 함.

**우산【산】**

백산 남쪽에 있는 산.

<남원군 산등면 목동리>

**백우암(白牛庵) [원불교산불지부] 【절】**

목동 동북쪽에 있는 절. 쇠머리와 같은 하얀 돌벼랑이 있음.

**소웃음바위【바위】**

뒷들쑤에 있는 바위. 소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임.

<남원군 송동면 두산리>

**우라대【골】**

우라대 방죽 밑에 있는 골짜기.

**우라대방죽【못】**

소두곡 남쪽에 있는 방죽. 와우형이라 함.

<남원군 아영면 봉대리>

**소매골【골】**

숲길 동쪽에 있는 골짜기. 소를 많이 매둔다고 함.

<남원군 운봉면 덕산리>

**와우등【산】**

수정봉(군 산천) 북쪽 아래에 있는 산. 와우형국이라 함.

<남원시 산곡동>

**소골【골】**

산성촌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어미 잃은 송아지가 풀을 뜯어 먹는 형국이라 함.

**소바위【바위】**

산성촌 북동쪽에 있는 바위. 소처럼 생겼음.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숫들1 [우평] 【마을】**

철목 동쪽에 있는 마을. 뒷산의 지형이 소같다 함.

**숫들2【들】**

철목 서쪽에 있는 들.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소투재** [괴대] 【고개】

섬말에서 적상면 사신리 마산으로 가는 고개. 고개 북쪽 적상면 쪽에 서낭당이 있었으며, 와우형(臥牛形)이라 함.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쇠남바우** 【바위】

외북창 북서쪽 날날맹이에 있는 바위. 쇠눈같이 생겼음.

<부안군 부안면 부곡리>

**소비재** 【마을】

진목동 북서쪽에 있는 마을. 뒷산이 소 고삐 형이라 함.

**어시논** 【논】

댄수논 동쪽에 있는 논. 지형이 소 어시(멍에)같이 생겼음.

<부안군 보안면 상입석리>

**와우사리** 【논】

절논 서쪽에 있는 논. 지형이 누운 소(와우)처럼 생겼음.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우동리**(牛洞里) [우동, 동편] 【리】

본래 부안군 입하면의 지역으로서 우반동의 동쪽이 되므로 우동 또는 동편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변경에 따라 우서리, 우감리, 우신리와 신활리, 만화동의 각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우동리라 하여 보안면에 편입됨. 숙종 때 실학자 반계(磻溪) 류형원(柳馨遠)이 우반동에서 살았음.

**우서리**(牛西里) 【마을】

우반동 서쪽에 있는 마을.

**우신**(牛新) [서편] 【마을】

우동 서쪽에 새로 된 마을.

**원우동**(元牛洞) 【마을】

우동리의 원 마을.

<부안군 상서면 장동리>

**빨바우** [우각봉] 【산】

청림 동쪽에 있는 산. 산봉우리가 소의 빨처럼 되었다 함.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우실치** 【고개】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남성동에서 하서면 석상리 용와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지형이 와우혈(臥牛穴)로 되어 있는데, 이곳이 소의 무릎에 해당한다 함.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우포리**(牛浦里) [소왓개, 우포] 【리】

본래 부안군 건선(줄포)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소가 누워 있는 것과 같다 하여 소왓개 또는 우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우동리, 우중리, 해사리, 선양리, 감역리와 웅암리, 동령리, 원동리의 각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우포리라 함.

<순창군 구림면 금천리>

**소바우** 【바위】

치내 북서쪽에 있는 소모양의 바위.

<순창군 구림면 운북리>

**소구시** 【굴】

구신밭등 꼭대기 동쪽에 있는 굴. 소 구유형의 수직굴임.

**청천등** 【굴】

구신밭등 서쪽에 있는 골짜기. 와우혈(臥牛穴)이 있다 함.

<순창군 복흥면 산정리>

**안외양실** [내오, 내우] 【들】

외양실 안에 있는 들.

**외양실** [외오, 외우] 【마을】

서정 동남쪽에 있는 마을.

<순창군 쌍치면 학선리>

**외양실** [입신동] 【마을】

승어실북쪽에 있는 마을. 와우혈의 명당이 있어서 이 마을은 외양간에 해당한다 함.

**외양실재** 【고개】

승어실에서 외양실로 가는 고개.

<순창군 풍산면 우곡리>

**우곡리**(牛谷里) [소실, 자근쇠실, 우곡] 【리】

본래 순창군 오산면의 지역으로서 소실, 자근소실 또는 우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지내리 일부를 병합하여 풍산면에 편입됨.

<옥구군 개정면 통사리>

**소-매** [우산] 【마을】

금동 남쪽에 있는 마을.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

<옥구군 대야면 지경리>

**우-덕**(牛德) [우덕실] 【마을】

만자 동쪽에 인접해 있는 마을. 뒷산 형이 소 형국이라 함.

**우덕실-방죽** 【못】

우덕실에 있는 못.

**우덕실-산** 【산】

우덕실 북쪽에 있는 산.

<옥구군 서수면 취동리>

**복-우**(伏牛) 【마을】

밭무장 남쪽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 소가 엎드려 있는 형국이라 함.

<옥구군 성산면 대명리 >

**쇠-실** [우곡] 【마을】

옥실 동남쪽에 있는 마을. 뒷산이 소 모양이라 함.

<옥구군 옥구면 선제리>

**선제-리**(船堤里) 【리】

우치리

**우치-산1**(牛峙山) 【마을】

수력이 동쪽에 있는 마을.

**우치-산2**(牛峙山) 【산】

수력이 동북쪽에 있는 산. 동쪽 기슭에 마을이 있음.

<옥구군 옥구면 우포리>

**쇠아-들** [우포들] 【들】

우포 동쪽에 있는 들.

**쇠-애** [우포, 우포일리] 【마을】

신기촌 동북쪽에 있는 마을. 전에 개 어귀였던 곳을 개간하여 마을을 이루었음.

**우포-이리**(牛浦二里) 【마을】

가산 동남쪽에 있는 마을. 우포에서 갈리었음.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어우-리**(於牛里) [어우, 어우정] 【리】

본래 고산군 군내면의 지역으로서 뒷산이 와우형이라 하여 어우 또는 어우정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봉동과 서면의 봉곡리, 남면의 용암리, 신기리 각 일부와 신덕리를 병합하여 전주(완주)군 고산면에 편입됨.

**어우-제방**(於牛提防) 【뚝】

장성배기 동쪽에 있는 뚝. 고산천의 제방이 됨.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쇠코-바우** 【바위】

단지동 북쪽에 있는 바위. 소의 코처럼 생겼음.

**쇠코바우-모룽이** 【모룽이】

단지에서 신월리로 돌아가는 모룽이. 쇠코바우가 있음.

**우무-재1** [우미치] 【마을】

우무재 밑에 있는 마을.

**우무-재2** [우미치] 【고개】

선돌에서 고산면 성채리 시랑골로 넘어가는 고개. 지형이 소의 꼬리처럼 생겼음.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우행-산**(牛行山) 【산】

서당리 동쪽 뒤에 있는 산. 와우(臥牛)형이라 함.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우목-실** [우목곡] 【골】

별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소의 눈처럼 생겼다 함.

<완주군 삼례읍 석전리>

**우두-산**(牛頭山) 【산】

학동 북쪽에 있는 산. 모양이 소머리 같다 함.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쇠똥-바우** 【바위】

바우모퉁이에 있는 바위. 모양이 쇠똥처럼 생겼음.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솔모랭이-방죽** [쇠말똥박중] 【못】

솔모랭이 옆에 있는 방죽. 방죽가에 소 말뚝이 있음.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쇠아찻-골1** 【골】

은다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 산세가 송아지 형국이라 함.

**쇠아찻-골2** 【들】

쇠아찻골에 있는 들.

<완주군 화산면 승치리>

**쇠목-재** 【고개】

되재에서 충남 논산군 가야곡면 중산리 우암으로 가는 고개. 지형이 소의 목처럼 생겼음.



<완주군 화산면 와룡리>

**쇠머리-배미** 【논】

가양 동쪽에 있는 논. 소의 머리처럼 생겼음.

<완주군 화산면 우월리>

**우월-리**(牛月里) [소두러니, 우월] 【리】

본래 고산군 운서상면의 지역으로서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하여 소두러니 또는 우월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병암리, 죽동, 봉황리, 동봉리, 용복리를 병합하여 우월리라 해서 화산면에 편입됨.

**우월-공동묘지**(牛月共同墓地) 【묘】

우월과 죽동 사이에 있는 공동묘지.

**우월-방죽** [우월제] 【못】

우월 북쪽에 있는 방죽. 넓이 1,200여평.

**원-우월**(元牛月) 【마을】

우월리의 원 마을.

<이리시 신동>

**소눈-골** 【들】

와우혈산 남쪽에 있는 들.

**와우혈-산**(臥牛穴山) 【산】

대신 북쪽에 있는 산. 누운 소 형국임.

<이리시 신흥동>

**멍에-다리** 【다리】

신흥동에 있는 다리. 소 멍에같이 생겼음.

<익산군 낭산면 낭산리>

**소곤-니** [우금동] 【마을】

하랑 서북쪽에 있는 마을. 와우형임.

**암소-바위** 【바위】

암소박골에 있는 바위. 암소가 새끼를 돌아보는 모양이라 함.

**암소박-골** 【골】

주막거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 암소바위가 있음.

**우금-제**(牛今堤) 【못】

우금 동쪽에 있는 못.

<익산군 망성면 무형리>

**황소밭-들** 【골】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선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

**엄수-골** [암소] 【골】

어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암소 형국임.

<익산군 삼기면 간촌리>

**쇠뿔-배미** 【들】

숫대배기 동쪽에 있는 들. 쇠뿔같이 생겼음.

<익산군 여산면 대성리>

**와우-지리** 【들】

관연 서남쪽에 있는 들.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

<익산군 오산면 송학리>

**송아치-배미** 【논】

학동에 있는 논. 송아지같이 생겼음.

<익산군 용안면 화실리>

**쇠-등이** [우배치] 【산】

양촌 동쪽에 있는 산.

<익산군 웅포면 제성리>

**암소-바위** 【바위】

성동 남쪽에 있는 바위. 암소 발자국이 있음.

<익산군 춘포면 인수리>

**독수-모퉁이** 【들】

인수리에 있는 들. 소가 죽을 먹는 형국이라 함.

<익산군 함라면 신대리>

**와-우**(臥牛) [와우영, 내창굴] 【마을】

신대 서남쪽에 있는 마을. 모양이 누워있는 소 같다 함.

**와우-절** 【절】

와우 서쪽에 있는 절.

<익산군 황등면 율촌리>

**우두-머리** 【마을】

우두산 북쪽 끝에 있는 마을.

**우두-산**(牛頭山) 【산】

반을 남쪽에 있는 산. 소머리 형국 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숫등-날** 【산】

손실 서쪽에 있는 산. 소의 등같이 생겼다 함.

<임실군 관촌면 복흥리>

**우근-이** [우근] 【마을】

금정 남쪽에 있는 마을. 와우형의 명당이 있음.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소-바우** 【바위】

소박골 서쪽에 있는 바위.

**소박-골** [소바웃골] 【골】

청룡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소바우가 있음.

**쇠죽-골** 【들】

덕치 남쪽에 있는 들.

<임실군 둔남면 대명리>

**쇠속골-방죽** [우동제] 【못】

임성골 동남쪽에 있는 못. 1945년 한해대책으로 만듦.

**우동-제**(牛洞堤) 【못】

쇠속골방죽.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

**쇠전-거리** 【길】

후리 서쪽에 있는 거리. 쇠전(우시장)이 컸었음.

<임실군 삼계면 학정리>

**사우시** [사촌, 사구시] 【마을】

학정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앞산이 죽어 누워 있는 소의 형국이라 함.

<임실군 성수면 삼청리>

**쇠막-골** 【골】

만비내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와우형이라 함.

**희초-골** 【골】

쇠막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소먹이풀이 좋다 함.

<임실군 성수면 태평리>

**소농-골** 【골】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양암 동쪽에 있는 와우형(臥牛形)의 골짜기.

<임실군 운암면 선거리>

**구렁-바우**【바위】

내리바우 북쪽에 있는 바위. 소같이 생겼음.

<임실군 운암면 학암리>

**늘목재** [와우평] 【들】

오상골 동쪽에 있는 들.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여우-치**(如牛峙)【마을】

마근담 북쪽에 있는 마을. 지세가 와우형(臥牛形)이라 함.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북녘-코빼기**【들】

실곡 북쪽에 있는, 소코 형국의 들.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풀밭자리-목**【고개】

구석들 남쪽에 있는 고개. 소먹이 풀이 난다 함.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

**쇠-바탕** [우장평] 【들】

궁들 남서쪽에 있는 들. ①옆산 형국이 소가 누운 것과 같음. ②소를 먹이던 곳임.

<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쇠막-골**【골】

희평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초맛골에 있는 와우혈의 소가 쉴 막과 같이 되었다 함.

**초맛-골**【골】

입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이 안에 와우혈의 명당이 있다 하는데 그 소의 먹이 풀과 같이 되었다 함.

<장수군 반암면 유정리>

**와-룡**(臥龍)【마을】

모래재 남서쪽에 있는 마을. 와우혈이 있다 함.

<장수군 산서면 하월리>

**외얏-골**【골】

지금당 앞에 있는 골짜기. 와우혈(臥牛穴)이 있다는데, 그 소의 외양간과 같다 함.

**우농-제(牛農堤) 【못】**

하월 북동쪽에 있는, 1944년 3월 3일에 준공된 못. 물리 면적 10정.

**우덕-골 [우두동] 【골】**

등동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소머리 형이라 함.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

**수웃-들 [수우평] 【들】**

신사랫들 동남쪽에 있는 들. 지형이 소가 물을 먹고 있는 것 같다 함.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수씨-소 【소】**

용추동 서북쪽에 있는 소. 모양이 소 구유처럼 생겼다 함.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구시-논 【논】**

구시논들 북쪽에 있는 논. 지형이 소 구시(구유)처럼 되었다 함.

<장수군 천천면 봉덕리>

**소-고개 【고개】**

고금 서쪽 산에 있는 고개. 지형이 와우혈이라 함.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번짓-재 【고개】**

연화정이 서쪽에서 진안군 진안읍 가막리로 가는 고개. 지형이 소의 번지와 같이 되었다 함.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소바탕-거리 【길】**

지네울 남동쪽에 있는 거리. 풀이 좋아 소를 매놓았다 함.

**외양-실 【골】**

새금텃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소의 외양간과 같다 함.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구시-쏘 【소】**

낚은터 위 남쪽에 있는 소. 모양이 소 구시(구유)처럼 되었다 함.

<전주시 동완산동>

**소-꼬랭이 【골】**

청학루 밑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소 꼬리 같다고 함.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쇠전-터 [우전터] 【터】

현 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서쪽, 옛 서촌교(西川橋)와 완산교(完山橋) 일대의 냇가에 있는 우시장 터. 처음에는 싸전다리(전주교) 근처에서 쇠전이 서다가 1925년 이 자리로 옮겼으며, 1946년 노송동으로, 1962년에는 덕진동으로 옮김.

#### 우목-실 [우목실, 우목리] 【마을】

만수동 서쪽에 있는 마을. 산형이 우목형(牛目形)이라 함.

#### 우목실-고개 [석산재, 석산치] 【고개】

석산과 우목실 사이에 있는 고개. 우목실쪽에서는 석산재, 석산쪽에서는 우목실고개라 함.

#### 우목실-방죽 【못】

우목실 서쪽에 있는 소류지. 넓이 약 1,000평.

#### <전주시 우아동>

#### 우아-동(牛牙洞) 【동】

1957년 11월 6일 법률 제 453호에 의하여 완주군 초포면의 우방리와 용진면의 아중리, 산정리 일부(석소)를 편입하여, 같은 해 12월 12일 전주시 조례 제 108호에 의하여 우방과 아중의 이름을 따라서 우아동이라 하는 동시에 아중리를 우아동 1가로, 석소리를 우아동 2가로, 우방리를 우아동 3가로 하였다가,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 6542호에 의하여 1가, 2가, 3가를 합하여 우아동이 됨.

#### 우방-리(牛方里) 【마을】

본래 전주군 초곡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장재리, 반암리, 안덕리, 신덕리와 부북면의 신기리, 성지리, 백동과 회포면의 신성리 일부를 병합하여 우방리라 해서 초포면에 편입되었는데, 1957년 11월 6일 전주시에 편입되고, 같은 해 12월 12일 전주시 조례 제 108호에 의하여 우아동 3가가 되었다가,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 6542호에 의하여 우아동에 편입됨.

#### <전주시 인후동>

#### 와우형-모퉁이 【모퉁이】

도마다리와 서낭당이 사이에 있는 모퉁이. 이곳에 길쭉네 선산이 있었는데, 와우형이라 함.

#### <전주시 효자동>

#### 목고-실 [묶어실, 동거리] 【마을】

용수멸 서쪽에 있는 마을. 뒷산의 모양이 누워 있는 소를 묶어 놓은 것 같다 함.

#### 목고실-방죽 【못】

목고실 남쪽에 있는 소류지.

#### 서우-리(西牛里) 【마을】

숫골 동쪽에 있는 마을.

#### 소태-정이 【터】

반송정이 동북쪽에 있는 터. 와우형(臥牛形)이라 함.

**소태정잇-들【들】**

소태정이 옆에 있는 들.

<정읍군 감곡면 대신리>

**구수-배미【논】**

송아치배미 북쪽에 있는 논. 구수(구유)처럼 생겼는데, 송아치배미의 송아지가 구유의 먹이를 먹는 형국이라 함.

**송아치-배미【논】**

천촌 동쪽에 있는 논. 흥년이 들었을 때 송아지와 바꾸었다 함.

<정읍군 감곡면 오주리>

**명애-밭【밭】**

질마배미 서쪽에 있는 밭. 소의 명애(명애)와 같이 생겼음.

<정읍군 감곡면 진흥리>

**소제(蘇堤) [대사리] 【마을】**

진교리 남쪽에 있는 마을. 소가 뜰 안에서 풀을 뜯고 있는 형국임.

**소제-방죽 [소제지] 【못】**

소제 동쪽에 있는 방죽.

<정읍군 감곡면 화봉리>

**쇠젓-골【골】**

천곡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소의 젓과 같이 생겼다 함.

<정읍군 내장면 송산리>

**선소-골【골】**

송학 남쪽에 있는 골짜기. 와우형(臥牛形)이라 함.

<정읍군 내장면 신월리>

**선소-골 [입우동] 【마을】**

신성리와 구정리 사이에 있는 마을. 소가 서 있는 형국이라 함.

<정읍군 덕천면 달천리>

**영달(永達) 【마을】**

용두 서쪽에 있는 마을. 뒷산이 소 형이라 하며 마을은 소 방울 형이라 함.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

**쇠야뺨이-골【골】**

송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 송아지를 매어 두었다 함.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좃바-꼴【꼴】

송산 북쪽에 있는 꼴짜기. 와우형(臥牛形)이라 함.

<정읍군 북면 구룡리>

#### 쇠젓-모탱이【모롱이】

구량 서북쪽에서 용호동으로 돌아가는 모롱이. 소젓처럼 생겼다 함.

<정읍군 북면 북흥리>

#### 새-터〔우탄〕【마을】

탐성리 서남쪽에 새로 된 마을. 소가 시냇물에서 물을 쓰는 형이라 함.

<정읍군 산외면 종산리>

#### 여우-치(如牛峙)【마을】

원바실 동쪽에 있는 마을. 와우형의 묘지가 있다 함.

<정읍군 소성면 중광리>

#### 구수-바우【바위】

광조 서쪽에 있는 바위. 와우형(臥牛形)으로 구수(구유)처럼 생겼음.

<정읍군 신태인읍 우령리>

#### 우령-리(牛嶺里)〔우령골, 우령동, 동녘말〕【리】

본래 태인군 북촌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우령처럼 생겼으므로 우령골 또는 우령동 또는 소목이의 동쪽이 되므로 동녘말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하삼리, 신흥리, 제룡리의 각 일부와 용산면의 우항리 일부를 병합하여 우령리라 해서 정읍군 용북면(신태인읍)에 편입됨.

#### 소-목이〔우항동〕【마을】

동녘말 서북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소의 목과 같다고 함.

<정읍군 용동면 산성리>

#### 우-동(牛洞)【마을】

산성동 북쪽에 있는 마을. 뒷산이 와우형(臥牛形)이라 함.

#### 우동-방죽【못】

우동 동남쪽에 있는 방죽. 넓이 4,000평.

<정읍군 이평면 두지리>

#### 구수-배미【논】

대독 앞(서)쪽에 있는 논. 와우형(臥牛形)이라 함.

<정읍군 이평면 오금리>

#### 각목-동(角木洞)【마을】



오정 동북쪽에 있는 마을. 소뿔처럼 산맥이 부락을 휘감고 있다 함.

<정읍군 이평면 창동리>

**소새-밭두** 【논】

오쟁이밭두 옆에 있는 논. 소새(소의 혀)처럼 기다랗게 생겼다 함.

**와우-등** [흰비석등] 【등】

창동 서쪽에 있는 등성이. 와우형(臥牛形)이라 하며 비석이 많다 함.

<정읍군 이평면 청량리>

**소목-논** 【논】

버드쟁이 옆에 있는 논. 소처럼 생겼다 함.

<정읍군 입암면 단곡리>

**꼭다-우** [꼭다곡] 【마을】

다라월 동북쪽에 있는 마을. 뒷산이 소뿔의 형국이라 함.

<정읍군 입암면 신면리>

**구수-바위** 【바위】

구면내 서쪽에 있는 바위. 와우형이라 함.

<정읍군 입암면 신정리>

**소죽엄-재** 【고개】

서당촌 남쪽에서 순창군 북룡면 봉덕리로 넘어가는 고개. 소가 죽었다 함.

<정읍군 입암면 연월리>

**소갈-재** 【고개】

반월 서쪽에서 고창군 신탄면 가평리로 넘어가는 고개. 전에 소가 깔려 죽었다 함.

<정읍군 입암면 지선리>

**우봉이-재** 【고개】

어룡포 북쪽에서 소성면 봉양리 안양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와우혈(臥牛穴)이 있다 함.

<정읍군 정우면 우산리>

**우산-리**(牛山里) [소산, 우산] 【리】

본래 고부군 장순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소처럼 생겼으므로 소산 또는 우산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시동, 송배리, 비선리, 서당리와 사포리, 원두리, 사거리, 망담리의 각 일부와 우일면의 남산리 일부를 병합하여 우산리라 해서 정읍군 우순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정우면에 편입됨.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정읍군 칠보면 무성리>

**암소-고개【고개】**

은석 남서쪽에서 반곡리 백화로 넘어가는 고개. 와우형(臥牛形)이라 함.

<정읍군 칠보면 반곡리>

**소당-봉〔소정봉〕【산】**

석탄 동쪽에 있는 산. 쇠젓처럼 생겼다 함.

**큰-우골【골】**

뒗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큰 늪은 소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함.

<정읍군 칠보면 와우리>

**와우-리(臥牛里)【리】**

본래 태인군 고현내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명천리와 도산리, 욱리, 원촌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지형이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 하여 와우리라 해서 정읍군 칠보면에 편입됨.

**와우-소류지(臥牛小溜池)【못】**

점터 동쪽에 있는 소류지.

<정읍군 태인면 태서리>

**와우-등(臥牛一)【골】**

분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정주시 상평동>

**산우-동(山牛洞)【마을】**

상평 서쪽에 있는 마을. 주변의 산세가 와우형(臥牛形)이라 함.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황소마-재【고개】**

가래골에서 성수면 중길리 중군으로 넘어가는 고개.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하누-재〔한우치〕【고개】**

정수암에서 칠성대로 넘어가는 고개.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우정-리(牛井里, 牛亭里, 牛丁里)【마을】**

세동 서남쪽에 있는 마을. 앞에 갈마봉이 있고 터가 물을 마시는 소형이라 함.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방각(方角) 【마을】**

장성박이 서남쪽에 있는 마을. 와우혈(臥牛穴)의 명당이 있고, 소뿔이 사방을 가리키는 형국임.

<진안군 상전면 갈현리>

**농우-실 【골】**

섯반이 동쪽에 있는 골짜기. 와우형(臥牛形)이라 함.

**우름-실 【골】**

중터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와우형(臥牛形)이라 함.

<진안군 상전면 운산리>

**유-산(乳山) 【마을】**

검북 서쪽에 있는 마을. 뒷산이 와우형(臥牛形)이고, 유봉(乳峰)이 있으며, 또 샘이 있음.

**피정이 [신흥리] 【마을】**

유산 남쪽에 있는 마을. ① 소의 목과 같은 형국이라 하는데 백정들이 살았다 함. ② 빈촌이라 새로 흥하라는 뜻임.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

**항-골 [항동] 【마을】**

월포 동남쪽에 있는 마을. 황우도강형(黃牛渡江形)의 목에 위치한다 함.

**항골-보 【보】**

항골 남쪽에 있는 보.

<진안군 성수면 신기리>

**신기-리(新基里) [눈소골, 새터, 신기] 【리】**

본래 진안군 일서면의 지역으로서 전에 큰 마을이 있었다가 화재로 소실되고 뒤에 새로 마을이 들어섰으므로 새터 또는 신기라 하고 뒷산에 와우형의 명당이 있어 눈소골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내곡리와 평지리 일부를 병합하여 신기리라 해서 성수면에 편입됨.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오-암(五岩) [우암] 【마을】**

중군 남쪽에 있는 마을. 와우 명당이 있다 함.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우제-산(牛蹄山) [우족산] 【산】**

중앙동 동북쪽에 있는 산.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황소-배미 【논】**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구렁들에 있는 논.

### (9) 전남

<전라남도 산천>

**기우산(騎牛山) 【산】**

담양군 대덕면 갈전리와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경계에 있는 산.

**서우산(犀牛山) 【산】**

장성군 서삼면, 황룡면과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520m.

<강진군 산천>

**우두봉(牛頭峯) [일봉산] 【산】**

강진읍 남성리, 동성리와 성전면 송학리, 군동면 파산리에 걸쳐 있는 산. 높이 420m. 쇠머리같이 생겼다 함.

<강진군 강진읍 영파리>

**쇠바탕골 【골】**

재경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소를 놓아 먹이는 쇠바탕이 있음.

<강진군 군동면 금강리>

**우목골(우목곡) 【골】**

솔정자 서쪽에 있는 골짜기. 와우형(臥牛形)이라 함.

**우목정(牛目井) 【우물】**

우목골에 있는 우물.

<강진군 군동면 쌍덕리>

**굴레바위 【바위】**

평덕 입구에 있는 바위. 소의 굴레처럼 생겼음.

<강진군 대구면 원포리>

**한우봉 【산】**

원포 북쪽에 있는 산.

<강진군 도암면 강정리>

**우와논【논】**

북배미 옆에 있는 논. 와우형(臥牛形)이라 함.

**자우논【논】**

우와논 옆에 있는 논.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쇠눈갈바위【바위】**

버텅굴에 있는 바위. 쇠눈같이 생겼음.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가우도(駕牛島)【바위】**

망호 동쪽에 있는 섬. ① 가우(거위)같이 생겼음. ② 소의 멍에처럼 생겼다 함.

**가우섬【마을】**

가우도에 있는 마을.

<강진군 도암면 용흥리>

**소바위【바위】**

우암 앞에 있는 바위.

**우암(牛岩)【외미】 【마을】**

언뚝 동쪽에 있는 마을. 와우형(臥牛形)이라 함.

**우암부두【나루】**

외미 동쪽 끝에 있는 선창.

**우암뿌저리【부리】**

소바위 북쪽에 있는 부리.

<강진군 병영면 한학리>

**사또샘【쇠춤물】 【우물】**

대삿골 동쪽에 있는 샘. ① 지형이 와우형인데, 소의 입에서 나오는 침이라 함. ② 물이 좋아서 병사가 늘 이 물을 마셨다 함.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황소배미【논】**

बाट터시 남쪽에 있는 논. 황소처럼 큼.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와우등【산】**

처인 북쪽에 있는 산.

<강진군 움천면 영산리>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쇠똥골 【골】**

어딩굴 밑에 있는 골짜기. 돌이 쇠똥처럼 생겼음.

<강진군 칠량면 단월리>

#### **쇠뿔동 【산】**

율변 북쪽에 있는 산. 쇠뿔처럼 생겼음.

<고흥군 산천>

#### **우미산(牛尾山) 【산】**

점암면 우천리와 남열리에 걸쳐 있는 산. 높이 40m. 쇠꼬리처럼 생겼음.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

#### **거명소바위 【바위】**

장전 동쪽에 있는 바위. 검은 소 모양임.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 **우도1(牛島) 【마을】**

우도에 있는 마을.

#### **우도2(牛島) 【섬】**

도야 서북쪽에 있는 섬.

<백일리>

#### **봉알바구 【바위】**

내백 서쪽에 있는 바위. 쇠봉알(쇠불알)처럼 생겼음.

#### **송춘목 【목】**

진지 서쪽에 있는 목. 송아지처럼 생겼음.

<고흥군 과역면 호덕리>

#### **소매봉 【산】**

호덕 남쪽에 있는 산. 높이 약 124m.

<고흥군 금산면 신전리>

#### **쇠머리 [우두] 【마을】**

궁전 서남쪽 바닷가에 있는 마을. 쇠머리처럼 생겼음.

#### **연홍도(連洪島) [마도, 맛도, 연호도] 【마을】**

우두 서북쪽에 있는 섬. 쇠머리에 연해 있고, 말같이 생겼음.

<고흥군 도양읍 도덕출장소 가야리>

#### **우시리 [당남, 당하, 당하리, 우월] 【마을】**

당동 남쪽에 있는 마을.

<고흥군 도양읍 도덕출장소 용동리>

**소죽거리【들】**

한적 남쪽에 있는 들.

<고흥군 두원면 용반리>

**쇠재【금성, 소재, 우치】【마을】**

용반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뒷산이 와우형(臥牛形)이라 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우마장(牛馬場)【버덩】**

사지개 동쪽에 있는 버덩. 소와 말을 기름.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쇠야지골【골】**

한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고흥군 점암면 여호리>

**우모도(牛毛島)【섬】**

방내 서북쪽에 있는 섬.

<고흥군 점암면 천학리>

**소죽은뽕쥐【선유곡】【골】**

구천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고흥군 점암면 양사출장소 금사리>

**쇠부랑끝【산】**

오도 동북쪽 끝에 있는 산. 소의 불알처럼 생겼음.

<우천리>

**우천리(牛川里)【리】**

본래 흥양(고흥)군 점암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우두리, 신성리, 간천리, 우암리를 병합하여 우두와 간천의 이름을 따서 우천리라 하며, 1966년 점암면 양사출장소의 관할이 됨.

**소바구1【우암, 우암리】【마을】**

우천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뒷산에 소바구가 있음.

**소바구2【바위】**

우암 뒷산에 있는 바위. 쇠머리처럼 생겼음.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쇠머리** [우두] 【마을】

쇠빨산 밑에 있는 마을. 지형이 쇠머리처럼 생겼음.

**쇠빨산** [우각산] 【산】

우천리에 있는 산.

**우암선착장**(牛岩船着場) 【나루】

우암 동쪽 바닷가에 있는 나루터. 여수로 가는 여객선도 정박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우산1**(牛山) 【마을】

옥강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우산2**(牛山) 【산】

우산 뒤쪽에 있는 산.

**우산염전**(牛山鹽田) 【염밭】

우산 앞쪽에 있는 염밭.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우래기** [우락, 낙동] 【마을】

연동 서쪽에 있는 마을.

**우래깃들** 【들】

우래기 앞쪽에 있는 들.

<고흥군 풍양면 매곡리>

**쇠바구** 【바위】

백석 서쪽에 있는 바위. 소머리 형국임.

<고흥군 풍양면 풍남리>

**소코리산** 【산】

강동 서북쪽에 있는 산. 높이 247m.

<곡성군 겸면 현정리>

**소뚝골** 【골】

늘랑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곡성군 목사동면 용봉리>

**갈우골** [갈우동, 용전] 【골】

평지말 동쪽에 있는 골짜기. 전에 마을이 있었는데, 1972년 평지말에 합쳐짐. 갈우음수혈의(渴牛飲水穴)명당이 있다 함.

<곡성군 삼기면 월정리>



**구시골 【골】**

채알봉 서쪽에 있는 골짜기. 소 구시(구유)처럼 생겼음.

**와우형(臥牛形) 【산】**

두리봉 북쪽에 있는 산. 와우 형국이라 함.

〈곡성군 삼기면 의암리〉

**쇠미 [우음] 【마을】**

반석 서쪽에 있는 마을. 소가 물을 마시는 형국이라 함.

**쇠미들 [들] :** 쇠미 앞에 있는 들.

**왕산 [와우산] 【산】**

쇠미 서쪽에 있는 산. 와우(臥牛) 형국이라 함.

**우음제(牛飲堤) 【못】**

쇠미 앞에 있는 못.

〈곡성군 석곡면 죽산리〉

**와얏등 [와우등] 【등】**

죽산 북쪽에 있는 등성이. 와우 형국으로 되었음.

〈곡성군 오곡면 명산리〉

**식깃등 [등]**

돌무래기 북쪽에 있는 등성이. 와우의 새끼(고삐)에 해당한다 함.

**어덕거리 [어덕평] 【들】**

가랫들 남쪽에 있는 들. 명산이 와우형이므로 소매는 어덕(언덕)에 해당한다 함.

**와우암(臥牛形) [와우형] 【바위】**

구시골 북쪽에 있는 바위. 누운 소 형국으로 되었음.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독정골 [독종곡] 【골】**

지랑촌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어미소를 따르는 송아지 형국이라 함.

**와우산(臥牛山) 【산】**

반석과 탐동 사이에 있는 산. 와우(臥牛) 형국임.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소툫재 [우치] 【고개】**

주산에서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금곡리의 호성으로 넘어가는 고개.

**질매봉 【산】**

주산 서쪽에 있는 산. 소의 질매(길마) 형국으로 되었음.

〈곡성군 입면 만수리〉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덕석바우【바위】**

덕석박골에 있는 바위. 쇠 등에 입히는 덕석처럼 넓적함.

#### **덕석박골【골】**

시암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덕석바우가 있음.

<광산군 대촌면 구소리>

#### **소맷등거리【보】**

초장논 위에 있는 논. 소를 주고 샀다 함.

<대지리>

#### **소학시암【우물】**

송곳논 위에 있는 샘. 소 혈이 있다 함.

<광산군 대촌면 승촌리>

#### **쇠아찻등1【등】**

승촌 동북쪽에 있는 등성이. 송아지 형국임.

#### **쇠아찻등2【들】**

쇠아찻등에 있는 들.

<광산군 동곡면 유계리>

#### **구숫등【등】**

동각 동쪽에 있는 등성이. 지형이 소 구수(구유) 형국으로 되었다 함.

#### **와우산(臥牛山)【산】**

본촌 북쪽에 있는 산. 높이 44m.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함.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 **가장골【골】**

고암 북쪽에 있는 골짜기. 가장(가매장)을 했음.

#### **과우【고아우, 고암, 와우, 고와우, 광암】【마을】**

을림 서북쪽에 있는 마을.

#### **과웃보【보】**

과우와 동호리에 걸쳐 있는 붓도랑.

<광산군 비아면 신창리>

#### **황소산【산】**

반촌 서쪽에 있는 산.

<광산군 삼도면 대산리>

#### **한우지【골】**

가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

<광산군 삼도면 송학리>

**소대고랑【들】**

들빠우 밑에 있는 들. 풀이 좋아 소를 놓아 먹였음.

<광산군 삼도면 신동리>

**와우산(臥牛山)【산】**

내기 뒤에 있는 산.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함.

<광산군 서창면 풍암리>

**와뜸봉**

운리 남쪽에 있는 산. 와우 형국이라 함.

<광산군 서창면 도호리>

**쇠아치방죽**

신도호 동쪽에 있는 못. 송아지가 빠졌다 함.

<광산군 송정읍 신촌리>

**쇠양치방죽〔쇠양치방죽〕【못】**

야촌 북쪽에 있는 못. 쇠양치(송아지)가 빠졌다 함.

<광산군 임곡면 광산리>

**백우산(白牛山)【산】**

광산리에 있는 산.

<광산군 임곡면 박호리>

**소혈【마을】**

응지편 남쪽에 있는 마을.

**소혈골【골】**

박매 남쪽에 있는 골짜기. 소혈이 있다 함.

<광산군 임곡면 신통리>

**와우개1【골】**

날근터 동쪽에 있는 골짜기. 와우혈이 있음.

**와우개2【들】**

와우개에 있는 들.

<광산군 임곡면 오산리>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우평(牛坪) [와산] 【마을】**

상촌 동북쪽에 있는 마을.

<광산군 평동면 동산리>

**와웃등 [등]**

뒷등 동쪽에 있는 등성이. 이씨의 묘가 있는데, 소가 누워있는 혈의 명당이라 함.

<광산군 평동면 옥동리>

**섬배미쇠빨배미**

밭에 있는 논. 섬이 있었음.

**쇠빨배미 [논]**

도둑들에 있는 논. 지형이 쇠빨(소의 빨)처럼 생겼음.

**우릿재 [우리치] 【고개】**

기곡 북서쪽에서 삼도면 지평리로 가는 고개.

<광양군 골약면 마동리>

**와우(臥牛) 【마을】**

마흘 동남쪽에 있는 마을. 뒷산이 소가 누운 형국임.

**와우저수지(臥牛貯水池) 【저수지】**

와우 서북쪽에 있는 저수지.

<광양군 골약면 중군리>

**쇠몽골 [골]**

숫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쇠(소)를 놓아 먹였다 함.

**쇠몽골재 【고개】**

쟁골에서 광양읍 호암으로 가는 고개.

<광양군 골약면 중동리>

**소와목재 【고개】**

세동 동쪽에 있는 고개.

<광양군 골약면 태인출장소 금호리>

**금호리(金湖里) [소섬, 금도, 금호도, 금호] 【리】**

본래 돌산군 태인면의 지역으로서, 소 형국으로 된 섬이라하여 소섬 또는 금도, 금호도, 금호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삼화도리, 비운도리를 병합하여 금호리라 해서 광양군 골약면에 편입됨.

**쇠모가지 [산]**

큰물 뒤 북판에 있는 산. 소의 목 형국임.

<광양군 광양읍 구산리>

**소머리** [우두] 【마을】

새터 서북쪽에 있는 마을.

<광양군 광양읍 우산리>

**내우정** [니우정, 사우정] 【마을】

우산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광양군 다압면 하천리>

**쇠바구** 【바위】

새편이 남동쪽에 있는 바위. 소처럼 생겼음.

<광양군 봉강면 조령리>

**쇠바구** 【바위】

쇠바구장날에 있는 바위. 소처럼 생겼음.

**쇠바구장날** 【등】

하군 동쪽에 있는 등성이. 쇠바구가 있음.

<광양군 봉강면 지곡리>

**구시소** 【소】

쇠머리 앞에 있는 소. 구유처럼 생겼음.

**소머리보** 【보】

쇠머리에 있던 보.

**쇠머리1** [우두] 【마을】

작정 남쪽에 있는 마을. 우두 산 밑이 됨.

**쇠머리2** [우두] 【산】

우두 동쪽에 있는 산. 소 형국으로 되었는데 그 머리쪽이 됨.

<광양군 옥곡면 수평리>

**췌골** 【골】

수평 서쪽에 있는 골짜기. 소처럼 생겼음.

<광양군 옥룡면 율천리>

**쇠바탕** 【버덩】

율곡 동남쪽에 있는 버덩. 바탕(마당)처럼 넓고 평평하며 풀이 좋아 소를 놓아 먹임.

<광양군 진상면 어치리>

**소죽골** 【골】

포구남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광양군 진상면 청암리>

**쇠뿔병【뿔병】**

배나무뿔병 남쪽에 있는 뿔병. 소 구유처럼 생겼음.

<광주시 동구 월남동>

**쇠바위【바위】**

주남 북쪽에 있는 바위. 소처럼 생겼음.

<나주군 산천>

**소소리 방죽〔우습제, 우습교제〕【못】**

동강면 안동리와 공산면 동촌리, 화성리에 걸쳐 있는 방죽. 전에 이곳을 지나던 군사가 소 열 마리를 잡아 먹었다는 전설이 있으며 앞에 다리가 있었음.

<나주군 공산 중포리>

**우왕산(牛王山)【산】**

훈도제 동쪽에 있는 산.

<나주군 금천 동악리>

**소목굴【굴】**

중야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소 먹이를 함.

<나주군 남평 수원리>

**쇠양치 배미【논】**

수청 남쪽에 있는 논. 쇠양치(송아지) 한 마리와 바꾸었다 함.

<나주군 노안면 계림리>

**숫다리 방죽〔신미제〕【못】**

계동 서북쪽에 있는 방죽. 소의 다리 또는 꼬리같이 생겼다 함.

<나주군 노안면 금동리>

**쇠머리〔우두〕【등】**

금암 뒤편에 있는 등성이.

**쇠아구【등】**

금암 동쪽에 있는 등성이.

<나주군 다시면 영동리>

**쇠바탕〔쇠밭뚝〕【들】**

흑암 북쪽에 있는 들. 소 먹이는 뚝이었음.

<나주군 봉황면 만봉리>

**우봉(牛峯) 【마을】**

만봉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우봉산(牛峯山) 【산】**

우봉 남쪽에 있는 산. 높이 218m.

<나주군 세지면 동곡리>

**우동(牛洞) 【마을】**

삼미 동북쪽에 인접해 있는 마을.

**우동앞 【들】**

우동 앞쪽에 있는 들.

<담양군 고서면 분향리>

**소탕매 【산】**

관수정 북쪽에 있는 산. 지형이 소 형국으로 되었음.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서석골 [우식곡] 【골】**

다랭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소동쟁이 【들】**

개정자 서쪽에 있는 들. 거기서 소를 잡았다 함.

**소잡는골 【골】**

개정자 동쪽에 있는 골짜기. 도둑이 훔친 소를 이곳에서 잡았다 함.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소누실 [손곡] 【마을】**

대곡 서쪽에 있는 마을. 뒷산이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 함.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소등재이 【들】**

굴바우 북쪽에 있는 들.

<담양군 금성 외추리>

**소태보 【보】**

외추 남쪽에 있는 보. 소가 빠져 죽었다 함.

<담양군 남면 경상리>

**셋꼬리 【골】**

큰봉 서쪽에 있는 골짜기. 와우 명당이 있는데 그 꼬리에 해당한다 함.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담양군 담양면 천변리>

**소전거리【마을】**

천변 남쪽에 있는 마을. 장날마다 소시장이 섬.

<담양군 대덕면 비차리>

**우터웃들【들】**

비나굴 동북쪽, 마을 위에 있는 들.

<담양군 대덕면 입석리>

**우골〔우동〕【골】**

안영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쇠바탕〔우장평〕【들】**

삼암 북쪽에 있는 들. 전에 소를 많이 매었다 함.

**쇠피실【들】**

무지기 남쪽에 있는 들.

<담양군 무정면 동산리>

**쇠바배미【논】**

살구쟁이에 있는 논. 옷밭이 소 형국인데 여기는 그 고삐 형국이라 함.

<담양군 봉산면 평지리>

**소룽굴【골】**

평지 동쪽에 있는 골짜기. 와우 형국으로 되어 있음.

**소룽굴재【고개】**

소룽굴에 있는 고개.

<담양군 봉산면 양지리>

**황정목【고개】**

양지 서쪽에서 와우리로 넘어가는 고개. 지형이 소목처럼 생겼음.

<담양군 봉산면 와우리>

**와우리(臥牛里)〔와우〕【리】**

본래 담양군 우면의 지역으로 지형이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하여 와우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화평리, 봉학정, 신기 일부와 광주군 우치면의 학림리, 회룡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와우리라 해서 구암(봉산)면에 편입됨.

**방청매【산】**

발등 북쪽에 있는 산. 풀이 좋아 소를 많이 내다 땀음.



**항정목(項頂一) 【고개】**

와우 동쪽에 있는 고개. 소의 목처럼 되었음.

<담양군 수북면 남산리>

**쇠꼬들 [바지, 새털골] 【마을】**

남산 서남쪽에 새로 된 마을. ①지형이 쇠꼬처럼 생겼다 함. ②바지처럼 깊.

<담양군 수북면 대흥리>

**새꼬들 【들】**

대흥 서남쪽에 있는 들. 지형이 쇠 꼬리처럼 생겼다 함.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일우목고개(日牛目一) 【고개】**

미산 동남쪽에 있는 고개.

<담양군 용면 용연리>

**소잡은 골 【골】**

볼통바웃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전에 도둑이 소를 훔쳐다 이곳에서 잡아 먹었다 함.

**소툼병 [툼병] 【툼병】**

소툼병다리 밑에 있던 툼병. 전에 소가 빠져 죽었다 함.

**소툼병다리 【다리】**

주막위 위에 있는 다리.

<목포시 놀도동>

**소섬 [우도] 【섬】**

놀도동에 있는 섬.

**쇠똥재 【고개】**

놀도 동북쪽에 있는 고개.

<목포시 상동>

**와우봉(臥牛峯) 【산】**

하당 뒤에 있는 산.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

<무안군 망운면 하묘리>

**머리실 [두곡] 【마을】**

새물 북쪽에 있는 마을. 소의 머리처럼 생겼음.

**와우정(臥牛停) 【마을】**

둔전동 동쪽에 있는 마을.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무안군 몽탄면 달산리>

**목우암**(牧牛菴) 【절】

큰절골에 있는 암자.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

**우명산**(牛鳴山) 【산】

사창 뒤에 있는 산.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암소머리** [우두] 【마을】

오룡 동쪽에 있는 마을.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소섬** [우도] 【섬】

마갈 서쪽에 있는 섬. 부녀가 살았는데 딸이 아버지에게 소우는 소리를 하고 이 섬을 세 번 돌라 했다 함.

<무안군 일로면 망월리>

**우뚫골** 【골】

망해동 뒤에 있는 골짜기.

**우뚫골샘** 【우물】

우뚫골에 있는 샘.

<무안군 일로면 월암리>

**황소원** [황우원] 【마을】

월암 남쪽에 있는 마을.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쇠머리** 【부리】

복길 북쪽에 있는 부리. 소의 머리처럼 생겼음.

**쇠뿔바위** 【바위】

태봉에 있는 바위. 모양이 쇠뿔과 같음.

<보성군 득량면 도촌리>

**소바위** 【바위】

소바윗들에 있는 바위. 소처럼 생겼음.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소정이** [우정동] 【마을】

쇠실 남쪽에 있는 마을. 길가에 소나무 정자가 있었다 함.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쇠바탕【버덩】**

용춧골 북쪽에 있는 버덩. 풀이 좋았으므로 소를 놓아 먹이었음.

<보성군 미력면 덕림리>

**우와실(牛臥一) [우와리, 우와곡] 【마을】**

송림 동남쪽에 있는 마을. 뒷산이 소가 누운 형국임.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우산논 [우사리논] 【논】**

장구배미 위에 있는 논.

<보성군 미력면 반룡리>

**와니번덕【버덩】**

물메 동북쪽에 있는 버덩. ‘누운 소’ 곧 와우(臥牛) 형국이라 함.

<보성군 벌교면 마동리>

**쇠바탕【골】**

처매바우 동쪽에 있는 골짜기. 소를 놓아 먹이던 바탕이 있었음.

<보성군 벌교면 영동리>

**소죽골【골】**

박석 동쪽에 있는 골짜기.

**쇠코샘【우물】**

사구시에 있는 샘. 큰 비가 온 뒤에만 물이 나므로 코뚜레가 잘 안 들어가는 쇠코처럼 물구멍이 잘 틀어지지 않는 데에 빚댄 말임.

<보성군 벌교면 전동리>

**쇠머리 [우두, 초지, 초지리] 【마을】**

황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

**쇠바탕【버덩】**

초지 뒤에 있는 버덩. 소를 놓아 먹이었음.

<보성군 벌교면 회정리>

**쇠바탕골【골】**

상고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소를 놓아 먹이던 바탕이 있었음.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보성군 보성면 용문리>

**소막들** [만평, 우막, 우막리] 【마을】

와장 북쪽, 들에 있는 마을.

<보성군 보성면 우산리>

**우산리**(牛山里) 【리】

본래 보성군 용문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유계리, 송산리, 오야리와 옥암면의 주촌리, 택촌리, 현촌리, 용교리, 송현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인조 때 학자 우산(牛山) 안방준(安邦俊)이 살았으므로 우산리라 해서 보성면(읍)에 편입됨.

**소젓들** 【들】

쇠젓물 앞에 있는 들.

**쇠젓물** 【마을】

우산리에 있는 마을.

<보성군 보성면 주봉리>

**두무실** [우두, 부곡, 부곡리] 【마을】

남바께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①두무(두명 : 큰 술)안처럼 우묵함. ②뒷산이 소머리 형국임.

**소바우1** 【들】

오리실 동쪽에 있는 들. 소바우가 있음.

**소바우2** 【바위】

소바우 들에 있는 바위. 오양굴(외양간)형국인데 그곳의 소와 같다 함.

<보성군 북내면 계산리>

**소도릿재** 【고개】

산수 서남쪽에서 장천리 죽동으로 가는 고개. 소의 도래 형국임.

**쇠바탕골** 【산】

검내밭골 북쪽에 있는 산. 소를 놓아 먹이는 바탕이 있었음.

<보성군 북내면 용전리>

**와웃등** 【등】

새터 남쪽에 있는 등성이. 소가 누운 형국임.

<보성군 웅치면 봉산리>

**쇠빨논** 【논】

메네미 서쪽에 있는 논. 쇠빨처럼 가늘고 길게 생겼음.

<보성군 웅치면 유산리>

**도독골** 【골】

내동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소도둑이 숨어 있었다 함.

<보성군 읍어면 읍어리>

**우정(牛汀) [우정리] 【마을】**

밤갓 서쪽, 읍어천(군 산천)가에 있는 마을. 뒷산이 "와우(臥牛)"형국이라 함.

<보성군 조성면 덕산리>

**방목고랑(放牧一) 【골】**

이드릿재 북쪽에 있는 골짜기. 풀이 좋아 마소를 놓아 먹였음.

**우천리(牛川里) 【리】**

본래 보성군 조내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대동리, 안심리, 고내리와 대곡면의 고장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소와래와 고내의 뜻을 따라 우천리라 해서 조성면에 편입됨.

<보성군 조성면 우천리>

**음매잘 【골】**

죽맛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송아지가 엄마소를 돌아보고 “음매”하고 우는 형국임.

<보성군 회천면 동률리>

**소바우 [우암, 우암리] 【마을】**

동률 동남쪽, 바닷가에 있는 마을. 뒷산에 소바우가 있었음

**소바웃개 [우암포] 【개】**

소바우 앞에 있는 개.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

**쇠바탕 【버덩】**

큰골 북쪽에 있는 버덩. 소를 놓아 먹이었음.

<순천시 덕암동>

**쇠빨배미 【논】**

돌마당 동쪽에 있는 논.

<순천시 덕월동>

**쇠빨배미 【논】**

돌마당 동쪽에 있는 논. 쇠빨같이 생겼음.

**이사천 [우산천] 【보】**

선암 서쪽에 있는 보.

<순천시 매곡동>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명에배미 【논】**

우안이들에 있는 논

#### **우명(牛鳴) 【마을】**

매곡 북쪽에 있는 마을.

#### **<순천시 조례동>**

#### **우명(牛鳴) 【마을】**

우동 동남쪽에 있는 마을.

#### **<승주군 낙안면 상송리>**

#### **쇠머릿재 【고개】**

화원에서 상송으로 가는 고개. 소머리 형국임.

#### **<승주군 별량면 우산리>**

#### **우산리(牛山里) 【리】**

본래 순천(승주)군 별량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덕동리, 간동리, 신기리, 내동리, 검석리를 병합하여 우산의 이름을 따서 우산이라 함.

#### **쇠빨바구 【바위】**

외동 동쪽에 있는 바위.

#### **<승주군 별량면 운천리>**

#### **쇠빨바구 【바위】**

쇠빨바구들에 있는 바위

#### **쇠빨바구들 【들】**

신촌 북서쪽에 있는 들. 쇠빨처럼 생겼음.

#### **<승주군 상사면 학산리>**

#### **우명(牛鳴) [쇠우리] 【마을】**

학서 동남쪽에 있는 마을.

#### **<승주군 서면 동산리>**

#### **와우정(臥牛一) 【산】**

산정 뒤쪽에 있는 산. 소가 누워 있는 형국임.

#### **<승주군 서면 판교리>**

#### **쇠뚝병 【뚝병】**

추동 동북쪽에 있는 뚝병. 큰 구렁이가 나와서 옆에 매어 둔 소를 잡아 먹었다는 전설이 있음.

#### **쇠보탕이 【버덩】**

탐생이굼탕이 서쪽에 있는 버덩. 쇠(소)를 놓아 먹이었음.

<승주군 송광면 우산리>

**우산리**(牛山里) [소메, 우산, 우봉] 【리】

본래 보성군 문전면의 지역으로서 산이 소처럼 생겼으므로 소메 또는 우산, 우봉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외동리, 내우리, 외우리, 중우리, 곡천리, 장산리와 순천군 송광면의 죽산리 일부를 병합하여 차샘이 있으므로 한천리라 하여 문덕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7월 1일 행정 구역 개편에 의하여 승주군 송광면에 편입되어 우산리로 고침.

**밭소메** [외우, 외우산] 【마을】

소메 바깥쪽에 있는 마을.

<승주군 쌍암면 신학리>

**소맷골** [우계곡] 【골】

비평이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승주군 쌍암면 죽학리>

**소맷골** 【골】

괴목 북쪽에 있는 골짜기. 소를 놓아 먹임.

<승주군 주암면 풍교리>

**쇠바탕이** 【들】

장동 남쪽에 있는 들. 소를 놓아 먹이던 곳임.

<승주군 해룡면 호두리>

**질맞가지** 【산】

호두 북쪽에 있는 산. 소의 길마(길마)형국임.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우이도리**(牛耳島里) [소구, 우이도, 소구섬, 우개도] 【리】

본래 지도군 흑산면 나주목에 딸린 섬으로서 모양이 소귀처럼 생겼으므로 소구섬, 소구 또는 우개도, 우이도라 하였는데, 건양 원년(1896)에 지도군 흑산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진리, 성촌, 비두리, 저두리, 소우이도를 병합하여 우이도리라 해서 무안군 흑산면에 편입되었는데, 1962년 11월 21일 법령 제117호에 의하여 도초면에 편입되고, 1969년 시안군에 편입되었는데, 1971년 6월 1일 도초면의 우이도 출장소가 됨.

**동소서구** [동소우이도] 【섬】

소서구 동쪽에 있는 섬.

**서리** [서소구, 서소우이도] 【마을】

서소우이도에 있는 마을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서소우이도 [서소구] 【섬】

우이도 서쪽에 있는 섬.

#### <신안군 비금면 수치리>

##### 소리섬1 [소섬, 우도] 【섬】

가어지 동남쪽에 있는 섬. 가끔 쇠 방울 소리가 들렸다 함.

####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 목우장(牧牛場) 【들】

자항 앞에 있는 들. 소를 놓아 길렀음.

##### 소섬 [우도] 【섬】

원평 서북쪽에 있는 섬. 지형이 소 형국으로 되어 있음.

##### 우세도(牛洗島) [우세, 우세섬] 【섬】

갈매섬 북쪽에 있는 섬.

##### 작은소섬 [소우도] 【섬】

소섬 서북쪽에 있는 섬.

##### 작은우세 [소우세도] 【섬】

우세 서남쪽에 있는 작은 섬.

#### <신안군 안좌면 대척리>

##### 우실 【골】

대척 북쪽에 있는 골짜기. 우실(목책)이 있었다 함.

####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 소루지 [와우, 와우리] 【마을】

읍동 동쪽에 있는 마을. 와우 형국임.

#### <신안군 안좌면 존포리>

##### 우실수문개 【개】

존포 북쪽에 있는 개. 갯가에 우실(목책)과 수문이 있었음.

#### <신안군 압해면 가룡리>

##### 소랑굴 【골】

하룡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소를 놓아 먹였음.

##### 소랑굴재 【고개】

소랑굴에 있는 고개. 하룡에서 거친멀로 넘어감.

#### <신안군 압해면 북룡리>

##### 소지 [소로지, 우관도, 우관리, 우곶리, 효지] 【마을】



소지섬에 있는 마을.

**소지섬** [효지도, 우관도, 우곶도, 효지도] 【섬】

북룡나리 동쪽에 있는 섬. 사방이 꽃으로 되었음.

**쇠코쟁이** 【들】

소지 남쪽에 있는 등성이. 지형이 쇠코처럼 생겼음.

<신안군 압해면 장감리>

**섯섬** [우도, 솟섬] 【섬】

정동 서쪽에 있는 섬. 소처럼 생겼음.

**우도염전** 【염밭】

우도 앞에 있는 염밭.

**우도제방** 【뚝】

우도 염전 앞에 있는 뚝.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소죽은 바위** 【바위】

도찬 뒷산에 있는 바위.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

**머구재** [마구재, 목우치] 【고개】

금산 동남쪽에서 이흑암리의 육암으로 가는 고개.

**소빠진골** 【골】

불넉망재 북쪽에 있는 골짜기.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쇠뿔섬** [우각도] 【섬】

분계 서남쪽에 있는 섬. 쇠뿔처럼 생겼음.

**와우** (臥牛) [누루, 와우리, 와우동] 【마을】

백산 북쪽에 있는 마을. 앞에 너른 갯벌이 있었음.

**와웃들** 【들】

와우 앞에 있는 들.

**우넛포** [우넛개, 우이포, 이넛개] 【개】

백산리와 면전리 경계이 있는 개.

<신안군 지도면 어의리>

**갈우섬** [가린여, 갈우도] 【섬】

작은보작 동쪽에 있는 섬. 온 섬이 바위로 되었는데 소 형국으로 되었다 함.

<신안군 하의면 오림리>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쇠똥바위【바위】

오림 서쪽에 있는 바위. 쇠똥을 쌓아 놓은 모양으로 되었음.

<신안군 하의면 웅곡리>

#### 소똥【논】

전광 동남쪽에 있는 논. 소 형국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 쇠꽃바위〔쇠코바위〕【바위】

항리 서남쪽에 있는 바위. 모양이 쇠코처럼 생겼음.

<여수시 봉산동 >

#### 쇠전거리〔우시장〕【장】

서시장 동쪽에 있는 소의 시장.

<여천군 남면 두모리>

#### 소우실개〔소우실포〕【마을】

짚은개 동쪽, 바닷가에 있는 마을. 뒷산이 송아지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함.

<여천군 돌산면 금봉리>

#### 소아치섬〔독도〕【섬】

서근도 서쪽에 있는 섬. 소아치(송아지)가 누운 것처럼 생겼음.

<여천군 돌산면 우두리>

#### 우두리(右斗里)〔쇠머리, 우두〕【리】

본래 돌산군 우두(돌산)면의 지역으로서 쇠머리 산이 있으므로 쇠머리 또는 우두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강남구미, 나룻구지, 달밭구미, 원초, 쇠꾸지, 참남구미를 병합하여 우두리라 해서 여수(천)군 돌산면에 편입됨.

#### 우두산(牛頭山)【산】

웃동리 서남쪽에 있는 산. 쇠머리 형국임.

<여천군 돌산면 평사리>

#### 쇠머리【곶】

밭굴앞 서쪽에 있는 곶. 우두리의 우두산 남쪽이 됨.

<여천군 소라면 덕양리>

#### 세동우시장(細洞牛市場)〔가는골우시장〕【장】

세동에 있는 쇠장.

<여천군 율촌면 반월리>

**우산골** [우산곡] 【골】

중피산과 앞등 사이에 있는 골짜기.

<여천군 율촌면 신흥리>

**우산**(牛山) [우복] 【마을】

끝당머리 북쪽에 있는 마을. 마을 가운데 있는 산이 소처럼 생겼다 함.

**중흥**(中興) 【마을】

우산 동쪽에 있는 마을.

<여천군 율촌면 월산리>

**와우산**(臥牛山) 【산】

월평 서쪽에 있는 산.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함.

<영광군 산천>

**쇠뿔봉** 【산】

묘량면 삼학리와 연암리에 걸쳐 있는 산. 높이 283m. 봉우리가 소뿔처럼 뾰족함.

<영광군 군서 가사리>

**쇠꼬리배미** 【논】

서당골 서쪽에 있는 논. 쇠꼬리처럼 생겼음.

<영광군 낙월면 석만리>

**소바우** 【섬】

소빠리 동쪽에 있는 섬.

**소빠리** [우각도] 【섬】

석만도 북동쪽에 있는 섬.

<영광군 백수면 구수리>

**소바우** 【바위】

구시미나루에 있는 바위. 소를 잡아 제사 지냈음.

<영광군 백수면 약수리>

**목우내** [목우, 목우천] 【마을】

참새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

<영광군 백수면 하사리>

**소아구지** 【개】

송정 서남쪽에 있는 개. 염산면 두우리의 건너편인데 지형이 소의 아구지(입)처럼 생겼다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함.

<영광군 범성면 월산리>

**소뿔산** [우각산] 【산】

동화실 서쪽에 있는 산.

<영광군 불갑면 우곡리>

**우곡리**(牛谷里) 【리】

본래 영광군 불갑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보냉리, 월곡리, 와우리  
와 와촌리, 영촌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와우와 월곡의 이름을 따서 우곡리라 함.

**와우**(臥牛) 【마을】

월곡 동쪽에 있는 마을.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두우리**(斗牛里) 【리】

본래 영광군 염소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창우리, 당두리, 신사리  
의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당두와 창우의 이름을 따서 두우리라 하여 염산면에 편입됨.

<영광군 영광면 우평리>

**우평리**(牛坪里) [우들, 우평, 도깨비터] 【리】

본래 영광군 도내면의 지역으로서 우들, 우평, 또는 도깨비둑병이 있으므로 도깨비터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우평리라 해서 영광면(읍)에 편입됨.

**소두근논** [소죽은논] 【논】

우평 북쪽에 있는 논. 소가 논을 갈다가 쓰러져 죽었다 함.

<영광군 영광면 입석리>

**우목골** [우목곡] 【골】

원입석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영광군 홍농면 단덕리>

**쇠바탕** 【버덩】

대덕 동쪽에 있는 버덩. 소를 놓아 먹인다 함.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소바위** 【바위】

명나바위 위에 있는 바위. 모양이 소처럼 생겼음.

<영암군 금정면 용흥리>

**쇠포리카끔** 【산】

학동 북쪽에 있는 산. 까끔(말뚝갯)이 있었는데, 양지쪽으로 풀이 좋아 소를 많이 놓아 먹

이므로 쇠포리(쇠파리)가 많음.

**우적바우(牛跡一) 【바위】**

우족걸 뒤에 있던 바위. 위에 우적(쇠발자국)이 나 있었는데, 길을 넓히면서 깨졌음.

**우족걸 [소발대죽걸] 【마을】**

학동 서남쪽에 있는 마을. 우적바우가 있음.

**우족걸들 [우족거리들] 【들】**

우족걸 근처에 있는 들.

<영암군 덕진면 용산리>

**쇠섬 [우도, 신우리] 【마을】**

쇠섬 밑에 새로 된 마을.

**쇠섬 [우도] 【섬】**

용산 서남쪽에 있는 섬. 지형이 소가 누워 있는 것처럼 되었다 함. 1930년 무렵 간척되어 육지에 맞닿음.

**쇠섬개 【개】**

쇠섬 앞에 있던 개. 간척지가 되었음.

<영암군 도포면 성산리>

**우산정(牛山亭) 【마을】**

용동 남쪽에 있던 마을. 1920년경에 폐동되었는데, 뒷산이 와우형으로 되었다 함.

<영암군 미암면 남산리>

**쇠바탕 【버덩】**

짱바탕 서쪽에 있는 버덩. 풀이 좋으므로 소를 놓아 먹였음.

<영암군 삼호면 산호리>

**쇠바탕 【버덩】**

신호정 북서쪽에 있는 버덩. 소를 놓아 먹임.

<영암군 삼호면 삼포리>

**소바탕 【버덩】**

우산정 남서쪽에 있는 버덩. 풀이 좋으므로 소를 놓아 먹였음.

**우산정 【마을】**

서창 서남쪽에 있는 마을. 앞산의 지형이 소처럼 생겼음.

<영암군 삼호면 소호리>

**목우천리(牧牛川里) [모고리] 【마을】**

뱃머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목이 져 있음.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

**와우리**(臥牛里) [누리, 와우] 【리】

본래 영암군 북이시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누운 소 형국으로 되었다 하여 누리 또는 와우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우정리, 박천리, 계산리, 여천리, 갈곡리, 연안동, 화정동, 후동을 병합하여 와우리라 해서 시종면에 편입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우정**(牛亭) [우정리, 여정, 수산정] 【마을】

중오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

**우정제** 【마을】

우정 남쪽에 있는 못.

<영암군 신북면 금수리>

**쇠머릿재** 【고개】

금수 북쪽에서 나주군 세지면 송제리로 넘어가는 고개. 지형이 쇠머리처럼 생겼음.

<영암군 신북면 명동리>

**구시시암** 【우물】

와우동 앞에 있는 우물. 구시(구유)처럼 생겼음.

**와우동** [소롱골, 서롱골] 【마을】

백동 북쪽에 있는 마을. ①동쪽 산 너머에 용산리가 있음. ②“와우”처럼 생겼다 함.

<영암군 영암면 회문리>

**소바우** 【바위】

회의촌 서남쪽 냇가에 있는 바위. 여기서 소를 잘 잡았음.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와우산** 【산】

초안 서쪽에 있는 산. “와우형”이라 함.

<영암군 학산면 매월리>

**쇠바탕골** 【골】

비암난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소를 놓아 먹였음.

<완도군 노화면 정자리>

**우두**(牛頭) 【마을】

정자 서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소의 머리처럼 생겼음.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소바우【바위】**

사동 앞에 있는 바위.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우두리(牛頭里) [쇠머리, 우두] 【리】**

본래 완도군 조약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소의 머리처럼 생겼으므로 쇠머리 또는 우두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천동, 화가리, 와여동, 관동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우두리라 해서 고금면에 편입되었다가, 1949년에 약산면에 옮김.

**우두리제방【뜰】**

우두 동쪽 앞에 있는 뜰.

<장성군 산천>

**우봉산(牛蜂山) [소무재] 【산】**

삼계면 사창리, 내계리, 신기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60m. 사창리 우봉 마을 소비혜현(지금의 사창리)의 우봉의 주산으로 산 위에는 둘레 400m쯤 되는 토성터가 있음.

<장성군 동화면 서양리>

**모구동모퉁이 [목우동모퉁이] 【모퉁이】**

푸른산 동쪽 밑에 있는 모퉁이.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

**서우실(西牛室) [궁평] 【마을】**

운곡 서남쪽에 있는 마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쇠머리바위 [우두석] 【바위】**

신촌 남쪽에 있는 바위. 쇠(소)머리처럼 생겼다 함.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

**소바우 [우암] 【바위】**

성암 서쪽 들에 있는 바위. 소처럼 생김.

<장성군 북하면 월성리>

**소빨바위【바위】**

새망골 북쪽에 있는 바위. 소의 빨처럼 생겼음.

**소빨박골 [소빨바웃골] 【골】**

소빨바위가 있는 골짜기.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소잡는들【들】

서발 뒤쪽에 있는 들. 마을에서 소를 잡으려면 이곳에서 잡았다 함.

####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

##### 소래〔소우래〕【논】

죽산 서북쪽에 있는 논. 땅이 매우 질어서 논을 갈기가 힘들므로 소가 울었다 함.

#### <장성군 황룡면 와우리>

##### 와우리(臥牛里)【리】

본래 장성군 서이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분매리, 우사리, 우라리, 탑정리를 병합하여 소가 누워있는 형의 명당이 있다 하여 와우리라 해서 황룡면에 편입됨.

##### 우라리(牛羅里)【마을】

탑징이 서북쪽에 있는 마을.

#### <장성군 황룡면 통안리>

##### 서우치(西牛峙)〔소우제〕【마을】

상통 북쪽에 있는 마을.

#### <장흥군 관산면 고마리>

##### 소중바우〔소죽은바우〕【바위】

고마도 동쪽에 있는 바위. 한쪽이 몹시 비탈졌는데 소가 떨어져 죽었다 함.

#### <장흥군 관산면 삼산리>

##### 쇠머리【산】

아네밋굴 북쪽에 있는 산. 우산이 소처럼 생겼는데, 이곳이 그 소의 머리가 된다고 함.

##### 쇠봉알【바위】

우산 북쪽에 있는 바위, 우산이 소처럼 생겼는데, 이곳이 그 소의 머리가 된다고 함.

##### 쇠섬1〔우도, 우산, 우산도, 우산리〕【마을】

쇠섬에서 가장 큰 마을.

##### 쇠섬2〔우도, 우산도〕【섬】

산연 동남쪽에 있는 섬. 소처럼 생겼는데 현재 연륙되었음.

##### 우산노디【다리】

우산과 산연 사이에 있던 노디(장검다리).

#### <장흥군 관산면 외동리>

##### 쇠머리〔우두봉〕【산】

수동 서쪽에 있는 산. 쇠머리처럼 생기고, 쇠뿔과 같은 바위가 있는데 옛날에 서역에서 흰 소가 팔만 대장경을 싣고 와서 화석이 되었다 하며, 그때 석가여래의 공덕을 기리는 노래 소리가 들렸다 함.



<장흥군 대덕면 신월리>

**목우장(牧牛場)【들】**

초당 북쪽에 있는 들. 소를 놓아 기르던 곳이었음.

<장흥군 대덕면 웅암리>

**쇠머리【산】**

웅암 서북쪽에 있는 산. 쇠머리처럼 생겼음.

**쇠머리끝【부리】**

쇠머리 끝에 있는 부리.

<장흥군 유치면 대천리>

**각수바우〔각소바우, 각수암〕【바위】**

소양 동북쪽에 산에 있는 바위. 쇠뿔처럼 생겼음.

<장흥군 장동 배산리>

**소정골〔쇠정이, 우정〕【골】**

두봉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우무실〔우미실〕【골】**

굴고개 북쪽에 있는 골짜기.

**우무실들〔우미실들〕【들】**

우무실에 있는 들.

<장흥군 장평면 병동리>

**소빠진뚝병【뚝병】**

병동 앞에 있는 뚝병. 소가 빠졌음.

**소빠진보【보】**

소빠진뚝병 아래에 있는 보.

<장흥군 장평 저산리>

**소바탕【버덩】**

자래등 북쪽에 있는 버덩. 소를 놓아 먹였음.

<장흥군 장흥면 기양리>

**소바우【바위】**

방림소 옆에 있는 바위. 소처럼 생겼음.

<장흥군 장흥면 삼산리>

**쇠말뚝골창【골】**

까끔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꼴이 좋아서 소를 매었음.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장흥군 장흥면 우목리>

**우목리**(牛牧里) [우목, 우메기, 우매기, 우산] 【리】

본래 장흥군 부동면의 지역으로서, 우메기, 우매기, 우목 또는 우산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우목리라 하며, 1932년 장흥면(읍)에 편입됨.

**쇠바탕** 【들】

진잔등 동쪽에 있는 들. 소를 놓아 기르던 마당이었음.

<장흥군 장흥면 행원리>

**소바우** [우암] 【바위】

소뿔재 윗 산에 있는 바위. 소처럼 생겼음.

**쇠뿔바우** 【바위】

인바우 아래쪽에 있는 바위. 쇠뿔처럼 생겼음.

## (10) 전남(제주)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소-바우** 【바위】

다루끝 위에 있는 바위.

**소바우-끝** 【부리】

소바우 앞에 있는 부리.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소-바우** 【바위】

사장너머에 있는 바위. 소를 잡았음.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

**소-굴리** 【벼랑】

쌀미봉 아래에 있는 벼랑. 소가 굴렀음.

<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우항-산**(牛項山) 【산】

역마산 동북쪽에 있는 산.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소엿진-바위** 【바위】

백야 뒤에 있는 바위. 소가 엿드린 것처럼 생겼음.

<진도군 지산면 오류리>

**소잡는-골창** 【골】

안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 이곳에서 소를 자주 잡았음.

<진도군 지산면 와우리>

**와우-리**(臥牛里) [들문안, 와우, 와우동] 【리】

본래 진도군 지산면의 지역으로서, 조선 때 목장의 문 안쪽이 되므로 들문안, 또 소를 놓아 길렀으므로 와우, 와우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금노리를 병합하여 와우리라 함.

**와우-제**(臥牛堤) 【못】

작은와우 동쪽에 있는 못.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우치-리**(牛峙里) [우치] 【리】

본래 함평군 평릉면의 지역으로서, 우치재 밑이 되므로 우치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강천리, 중동리, 호암리와 공정리, 사촌리의 각 일부와 해보면의 성대리, 계동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우치리라 하며, 1932년 나산면에 편입됨.

**쇠-재** [우치재] 【고개】

우치 뒤에 있는 고해. 와우형이라 함.

<함평군 손불면 죽장리>

**우마-산**(牛馬山) 【산】

용애초리둑병 서쪽에 있는 산.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백우-재**(白牛一) 【고개】

덕암 동북쪽에서 해보면 광암리로 넘어가는 고개.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소잡는-골** 【골】

바굼쟁이 북쪽에 있는 골짜기. 전에 소를 잡았다 함.

<함평군 학교면 금송리>

**방우**(放牛) 【마을】

반곡 서쪽에 있는 마을.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방우-제(放牛堤) 【못】**

방우에 있는 못.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소등-산 【산】**

시릉동 동쪽에 있는 산. 소가 누워 있는 형국으로 되었음.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쇠-봉 【산】**

수산 동북쪽에 있는 산. 소처럼 생겼다 함.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와우형-고랑(臥牛形一) 【골】**

비아 남동쪽 남살매에 있는 골짜기. 와우형의 명당이 있다 함.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와우-산(臥牛山) 【산】**

모산 뒤에 있는 산. 와우형이라 함.

**와우-재 【고개】**

와우산에 있는 고개.

<해남군 마산면 노하리>

**쇠밭-등 【등】**

덕인 서남쪽에 있는 등성이. 소를 잘 매어 두었었음.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쇠기산-골 【골】**

독초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뿔 산의 지형 앞이 소처럼 되었다 함.

<해남군 마산면 용전리>

**소새밭-등 【등】**

유목동 북쪽에 있는 등성이. 지형이 소처럼 되었다 함.

**소구-배미 【논】**

용소리 남쪽에 있는 논. 지형이 소구처럼 생겼음.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소바우-산 [소바우, 우암산] 【산】**

진등 동쪽에 있는 산.

<해남군 북평면 서흥리>

**소-바우【바위】**

신흥 서쪽에 있는 바위.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맏-골【들】**

외송 서쪽에 있는 들. 소를 많이 매어 먹였음.

<해남군 옥천면 대산리>

**쇠아짓-뿔【쇠아짓뿔바우】【바위】**

대삿골에 있는 바위. 쇠아지(송아지)의 뿔 모양으로 되었음.

<해남군 옥천면 백호리>

**우마-정【골】**

가매박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 소와 말을 먹였다 함.

<해남군 옥천면 성산리>

**쇠-뚝병【뚝병】**

독배기 아래에 있는 뚝병. 소가 빠져 죽었다 함.

<해남군 옥천면 송산리>

**소뿔-바우【바위】**

덤바웃등 북쪽에 있는 바위. 쇠뿔처럼 생김.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쇠-정지【들】**

화당리 서남쪽에 있는 들. 소를 잘 매두던 정지(정자나무)가 있었다 함.

<해남군 옥천면 흑천리>

**소-바우【바위】**

웃골 뒤, 북바우 옆에 있는 바위. 소처럼 생겼음.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쇠뿔-배미【논】**

모릿등에 있는 논.

<해남군 현산면 덕흥리>

**소잡는-골【골】**

큰부내미 안쪽에 있는 골짜기. 명절 때 이 곳에서 소를 잘 잡았음.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해남군 현산면 만안리>

**쇠덕책-굴【들】**

할미산(군 산천)에 있는 들. 소도독이 숨었다 함.

<해남군 현산면 조산리>

**소-방찬 [소방천, 소방천들] 【들】**

참남정이 아래에 있는 들. 앞에 방찬을 쌓으면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 함.

**소방찬-보【보】**

소방찬에 있는 보.

<해남군 화산면 삼마리>

**쇠-바탕【버덩】**

목개 서쪽에 있는 버덩. 소를 놓아 길렀음.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황소-배미【논】**

선다랭이배미 동쪽에 있는 논. 황소와 바꿨다 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소-바구【개】**

부칫등 북쪽에 있는 개. 소처럼 생긴 바위가 있음.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젓-등【등】**

활뻗등 남쪽에 있는 등성이. 소의 젓통이처럼 생긴 데서 물이 남.

<해남군 화원면 후산리>

**암소-골【골】**

후산리에 있는 골짜기.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牛項里) [소목, 우항] 【리】**

본래 해남군 산일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소의 목처럼 생겼으므로 소목 또는 우항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황원면의 자동리, 삼성리와 시등리, 신기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우항리라 해서 황산면에 편입됨.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와우-등(臥牛嶺)【등】**

등골 서쪽에 있는 등성이.

<화순군 동면 대포리>

**쇠-까끔** [우산] 【산】

학봉 남쪽에 있는 고개.

<화순군 동면 장동리>

**와우-등**(臥牛嶺) 【등】

등골 서쪽에 있는 등성이. 와우형이라 함.

<화순군 동북면 독상리>

**와우-등**(臥牛嶺) 【등】

등골 서쪽에 있는 등성이. 와우형이라 함.

**외악-굴** 【굴】

와우등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화순군 동북면 안성리>

**쇠-까끔** 【산】

학жат굴 남쪽에 있는 산. 와우형이라 함.

<화순군 동북면 유천리>

**쇠바탕-고랑** 【골】

유치 건너쪽에 있는 골짜기. 소를 매는 바탕이 있음.

**큰-안산** [큰암소등] 【산】

유치 남쪽에 있는 큰 산.

<화순군 북면 서유리>

**댐-바우** 【바위】

쇠까끔에 있는 바위.

**쇠-까끔** [우산] 【산】

학봉 서북쪽에 있는 산.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대우기**(大牛基) 【마을】

품평 서쪽에 있는 마을.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우봉-리**(牛峯里) [우매기, 우봉] 【리】

본래 능주군 부춘면의 지역으로서 우매기 또는 우봉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우봉리라 해서 화순군 춘양면에 편입됨.

**사창**(社倉) 【마을】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우매기 서남쪽에 있는 마을. 조선 때 사창이 있었음.

**성-치(城峙) 【고개】**

우매기 서쪽에 있는 고개. 성을 쌓았다 함.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와우-등(臥牛燈) 【등】**

등골 북쪽에 있는 등성이. 와우형이라 함.

**외악-굴 【굴】**

와우등 북쪽에 있는 골짜기.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쇠바탕-고랑 【골】**

하촌 건너에 있는 골짜기. 소 매는 쇠바탕이 있었음.

**우모-실 [우모곡] 【골】**

중촌 남쪽에 있는 골짜기.

**큰-안산 [큰암소등] 【산】**

하촌 뒤에 있는 산.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백리-악(魄犁岳) [백이악] 【산】**

의귀 남쪽에 있는 산.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함.

<남제주군 대정읍 신도리>

**소화장-터 【들】**

맨처남못 밑에 있는 들. 소가 병들어 죽으면 이곳에서 화장했다 함.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쇠-서근이 【들】**

건내기 남쪽에 있는 들. 늘 소를 매어 두었다 함.

<남제주군 성산읍 오조리>

**쇠귀-물 【못】**

개장머르 동쪽에 있는 못. 쇠 귀처럼 생겼음.

**죽은디-물 [쇠죽은알] 【못】**

큰굴왓 남쪽에 있는 못. 소가 빠져 죽었다 함.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

**꿀미-당 【당】**

버디물 북쪽에 있는 당. 마소의 신을 모셨음.

**소죽은-통 【못】**



쇄줄랑에 있는 못. 소가 빠져 죽었다 함.

**쇄줄-랑** [쇠당굴] 【골】

극대모로 남쪽에 있는 골짜기. 소 죽은 통(못)이 있음.

<남제주군 성산읍 삼달리>

**쇄목-동산** 【산】

푸령마채 북쪽에 있는 산. 쇠목처럼 생겼음.

<남제주군 성산읍 신천리>

**테우리-동산** 【산】

노아병대 동쪽에 있는 산. 마소를 놓아 먹였음.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

**쇠죽은-밭** 【밭】

광평 동쪽에 있는 밭. 소가 죽었다 함.

<남제주군 안덕면 상창리>

**쇠물-동** [우수동] 【소】

웃성구못 남쪽에 있는 소. 마소들에게 물을 먹이던 곳이라 함.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소치-동산** 【산】

다랑못 남쪽에 있는 산. 소를 방목하였음.

<남제주군 표선면 세화리>

**쇠눈-통** 【우물】

세화 남쪽, 가시천(군 산천)에 있는 우물. 쇠눈처럼 생겼음.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

**소-소름** [쇠오름, 우악] 【산】

망오름 서북쪽에 있는 산.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함.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

**소꼬르-므르** 【고개】

진발동네 남쪽에 있는 고개. 모양이 소의 꼬리처럼 생겼음.

<북제주군 구좌읍 연평리>

**쇠머리-오름** [우두악, 설머리] 【산】

후해동 남쪽에 있는 산. 지형이 소의 머리와 비슷하다 함.

**우목-동**(牛目洞) [우목개] 【마을】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천진동 북쪽에 있는 마을. 모양이 쇠눈처럼 생겼다 함.

#### **웃-우목동 【마을】**

우목동 위쪽에 있는 마을.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 **새-머리 【산】**

섯동네 북쪽에 있는 산. 지형이 쉼머리(쇠머리)처럼 생겼음.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

#### **만세-동산 【산】**

발음팟 남쪽에 있는 산. 만석이 소를 놓아 먹었다 함.

<북제주군 애월읍 하가리>

#### **소죽이-못 [새죽이못, 쉼죽이못, 소죽은못, 머애미못] 【못】**

하가 동남쪽에 있는 못. 옛날 한 과부가 핫김에 한 여름 폭양에 소를 부려 넓은 밭을 단숨에 갈아 치우고, 목이 타서 소와 함께 이 물을 잔뜩 마시고 그대로 다 죽었음.(흔두왓 참조).

<북제주군 애월읍 하가리>

#### **흔두-왓 [흔든밭] 【밭】**

하가 동쪽에 있는 밭. 넓이 약 200평 되는데, 옛날 어느 과부가 한여름에 밭을 갈려고 논을 얻어 점심밥을 싸면서 밭을 많이 먹어야 일을 잘한다는 뜻으로 “밥이 일하지, 밥이 일해!” 하면서 밭을 더 많이 싸 주었는데, 점심 때가 지나서 가보니, 점심밥은 쟁기에 매달린 채 일꾼은 밭둑에 누워 자고만 있으므로 화가 나서 꾸짖으니, 그는 천연덕스럽게 “아까 밥이 일한다기에 그대로 할 뿐이오”라고 하므로 과부는 더욱 화가 나서 몸소 소를 부려 단번에 다 갈고 나니, 사람과 소가 모두 목이 타서 이 못에 달려가 물을 잔뜩 마신 뒤 그만 과부도 소도 다 죽었다 함.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리>

#### **쉼썩-영장 【벼랑】**

입님물 서쪽에 있는 절벽. 지형이 쉼(소)썩처럼 생겼다 함.

<북제주군 조천면 교래리>

#### **새빠진-물 【우물】**

상동 동쪽에 있는 권 물. 새(소)가 빠졌었다 함.

<북제주군 조천면 와산리>

#### **쇠불-흙 【밭】**

당오름 북쪽에 있는 밭. 지형이 쇠불알처럼 생겼음.

<북제주군 조천면 조천리>

**머새【들】**

만세동산 서남쪽에 있는 들. 마새(마소)를 놓아 길렀음.

<북제주군 추자면 신양리>

**쇠-머리【우도】 【섬】**

석두리 동북쪽에 있는 섬. 쇠머리처럼 생겼음.

**쇠-코【섬】**

쇠머리 남쪽에 있는 섬. 쇠코처럼 생겼다 함.

<북제주군 한경면 예초리>

**쇠-코【우비】 【섬】**

구명섬 동남쪽에 있는 섬. 쇠코처럼 생겼음.

<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

**된-밭【삿빠된밭, 우골동, 월광동】 【마을】**

가마오름 동남쪽에 있는 마을. 전에 쇠도독이 소를 많이 잡아 먹어 쇠빠가 흩어져 있었다 함.

<북제주군 한경면 판포리>

**모수-물【우물】**

당구랭이 위쪽에 있는 우물. 마소에게 먹이었음.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소죽은-못【못】**

주전동 서남쪽에 있는 못. 소가 빠져 죽었다 함.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새죽은-동산【등】**

당수덕 동쪽에 있는 등성이. 소가 죽었음.

**태우리-동산【둔덕】**

강덕새미 서북쪽에 있는 언덕. 태우리(목동)가 앉아 놓아 먹이는 마소를 살펴보았음.

<북제주군 한림읍 월령리>

**바령-밭【밭】**

월령에 있는 밭. 바령(모소를 몰아 넣으려고 만든 울타리)이 있었음.

<북제주군 한림읍 월림리>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새눈빌레-물 【우물】

새눈빌레에 있는 우물. 새(소)가 이 물을 먹고 죽었다 함.

#### <서귀포시 색달동>

##### 우보름 [우보악] 【산】

색달 북서쪽에 있는 산. 높이 301.8m 소가 걸어나가는 형국이라 함.

##### 우보악-동(牛步岳洞) 【마을】

우보악 밑에 있는 마을.

#### <서귀포시 중문동>

##### 벽-소 [벼꾸] 【소】

다람쥐재 북쪽에 있는 소. 마소에게 물을 먹였음.

#### <서귀포시 호근동>

##### 각수-바위 [각수암, 학수암] 【바위】

원제전 서북쪽에 있는 바위. 쇠뿔처럼 생겼음.

#### <제주시 >

##### 새오리-동산 【산】

오등동과 아라1동 경계에 있는 산. 모양이 쇠꼬리처럼 되었음.

#### <제주시 노형동>

##### 허문-도 【길】

불래남동산 남쪽에 있는 길. 허문(마소를 방목하면서 가두려고 울짙을 치고 달았던 문)이 있었음.

#### <제주시 삼도2동>

##### 길아래-물 [소여물] 【우물】

탐밭 서쪽에 있는 우물. ① 옛 한길 아래가 됨. ② 앞바다에 소여가 있음.

##### 소여 【여】

소여물 앞 바다에 있는 여. 쇠뿔처럼 생겼음.

#### <제주시 오등동>

##### 셋물-갯 【산】

죽성 서남쪽에 있는 산. 새(소) 먹이던 물이 있음.

##### 셋-도 【길】

막모를 동쪽에 있는 길. 새(소)가 잘다니던 곳이었음.

#### <제주시 외도1동>

##### 소록이-동산 【산】

우렁이와 계명리 사이에 있는 동산.

**소와잇-동산** [소재, 우렁] 【산】

우렁이 서남쪽에 있는 산.

**우렁이** [우렁, 우렁리] 【마을】

외도1동에서 가장 큰 마을. 우렁 밑이 됨.

<제주시 외도2동>

**머리환-밭** 【밭】

보리무굴 동남쪽에 있는 밭. 지형이 쇠머리 형국으로 되었다 함.

## (11) 경기

<산천>

**쇠머리-산** [우두산, 혜목산] 【산】

양평군 지주면과 여주군 대신면, 북내면 경계에 있는 산. 높이 920m.

<가평군>

**청우-산**(靑牛山) 【산】

외서면 상천리, 하천리와 상면 덕현리에 걸쳐 있는 산. 높이 619.3m

<가평군 의서면 대성리>

**소-돌** [우석] 【바위】

머내 동북쪽에 있는 바위. 소처럼 생겼는데, 머리가 향한 마을은 가난해진다고 하여 근처 마을 사람들이 몰래 쇠머리를 남의 마을로 돌려 놓기를 되풀이 함.

**소돌-말** [소석촌] 【마을】

소돌이 있는 마을.

**소돌말-들** 【들】

소돌말 앞에 있는 들.

**웃-소돌말** 【마을】

소돌말의 위쪽 마을.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쇠아치-바우** [쇠새바우, 두껍바우] 【바위】

대목굴 뒤에 있는 바위. 송아지처럼 생겼음.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강화도 양도면 조산리>

**쇠-머리**【모퉁이】

조구부창에 있는 모퉁이. 쇠머리처럼 생겼음.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소목-골**〔소목곡, 황촌〕【마을】

대촌 북쪽에 있는 마을. ①소의 목처럼 생겼음. ② 황씨가 많이 살았음.

<강화군 하점면 신삼리>

**송아짓-들**【들】

서촌 서북쪽에 있는 들. 송아지를 잘 매었음.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종-촌**(鍾村)〔소양미〕【마을】

수월아래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① 종씨가 많이 살았음. ②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쇠가랭이-들**【들】

고창피 동쪽에 있는 들. 소의 가랑이처럼 생겼음.

<광명시 철산동>

**철산-동**(鐵山洞)〔쇠머리, 철산〕【동】

본래 시흥군 서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소의 머리처럼 생겼으므로 쇠머리 또는 철산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사성리를 병합하여 철산리라 하였는데, 1981년 광명시에 편입되어 동이 되는 동시에 철산동을 갈라서 철산 1,2,3,4,동회가 됨.

<광주군 남종면 우천리>

**우천-리**(牛川里)〔소내, 우천〕【리】

본래 양평군 남종면의 지역으로서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이 합하는 어구에 있었으므로 소내 또는 우천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귀여리, 분원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우천리라 하여 광주군에 편입됨.

<광주군 도척면 진우리>

**진우-리**(鎭牛里)【리】

본래 광주군 도척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진촌리와 우치동을 병합하여 진우리라 함.

<광주군 실촌면 부항리>

**소목-재** [우항동] 【마을】

가마울 동쪽에 있는 마을.

<광주군 연곡면 이선리>

**소-재** [우현] 【고개】

바깥선골에서 부항리 소목재로 넘어가는 고개.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우산-리**(牛山里) [소미, 우산] 【리】

본래 광주군 퇴촌면의 지역으로서 소산(도 산천) 밑이 되므로 소미 또는 우산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절막, 박석거리를 병합하여 우산리라 함.

<구리시 >

**구리-시**(九里市) 【시】

우미천(牛尾川)

<김포군 월곶면 흥신리>

**쇠꼬릿-재** 【고개】

신촌 서쪽에 있는 고개. 소의 꼬리처럼 생겼음.

<김포군 월곶면 고양리>

**소-못** 【못】

능골 서남쪽에 있는 못. 소가 빠져 죽었다 함.

<김포군 월곶면 성동리>

**쇠-데이** 【버덩】

서느재 아래에 있는 버덩. 소를 놓아 먹이던 곳이었음.

<김포군 통진면 서암리>

**서명골**(西明一) [서명동] 【마을】

서암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함.

<김포군 하성면 후평리>

**송아치-밭** 【밭】

새논틀 남쪽에 있는 밭. 송아지를 놓아 먹이는 곳이었음.

**송아치밭-디** 【들】

송아치밭 뒤에 있는 들.

<남양주군 미금읍 삼패리>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소-코리【마을】

쇠꼬리.

#### 쇠-꼬리〔평구, 소코리〕【마을】

역말 동쪽에 있는 마을. ① 지형이 쇠꼬리처럼 생겼음. ② 평구역이 있었음.

#### 평구(平丘)【마을】

쇠꼬리.

<남양주군 수동면 입석리>

#### 황소-터〔황소토〕【소】

선돌 남쪽에 있는 소. 이무기가 있어서 황소를 잡아 먹었다 함.

<부천시>

#### 도당-산(都堂山)〔춘의산, 우산, 매봉〕【산】

도당동과 여월동, 춘의동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06.4m. ① 전에 도당굿을 해마다 하였음. ② 소처럼 생겼다 함. ③ 꼭대기가 매처럼 생겼다 함.

<부천시 소사동>

#### 소-장터【마을】

소사동에 있는 마을. 소의 장이 서서 번창하였음.

<송탄시 지산동>

#### 지산-동(芝山洞)〔견지미, 견지산, 견지, 지산〕【동】

우곡리.

#### 소-골〔우곡〕【마을】

동막 서쪽에 있는 마을. 뒷 골짜기에 와우형의 명당이 있음.

<수원시 곡반정동>

#### 소무니(우문리)【마을】

곡반정동에 있는 마을.

<수원시 우만동>

#### 우만-동(牛滿洞)〔소만이, 우만이〕【동】

본래 수원군 남부면의 지역으로서 최씨, 임씨가 소를 많이 먹었으므로 소말이 또는 우만이라 하였다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인계리, 구천리를 병합하여 인계리라 하여 태장면에 편입되었다가, 1931년 수원면(시)에 편입되는 동시에, 인계리 가운데 우만리를 갈라서 우만정이라 하다가, 1949년 왜식 동명 변경에 따라 정을동으로 고치고, 1963년 동제 실시에 따라 지만동회의 관할이 됨.

<시흥군 소래읍 대야리>



**하우-고개1(下牛一) 【마을】**

주측부락 서쪽에 있는 마을. 하우고개 밑이 됨.

**하우-고개2 [하우현] 【고개】**

하우고개(마을)에서 부천시 소사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안성군 미양면 계룡리>

**오양-골 【골】**

계룡리에 있는 골짜기. 소우리 모양이라 함.

<안성군 미양면 신기리>

**작은-소머리 【마을】**

신기리에 있는 마을.

<안성군 미양면 용두리>

**용두-리(龍頭里) [소머리, 용두] 【리】**

본래 안성군 만곡면 지역으로서 지형이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용두 또는 소의 머리처럼 되었다 하여 소머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용두리라 해서 미양면에 편입됨.

<안성군 안성읍 성남동>

**쇠전-거리 [세전거리, 우시장] 【마을】**

성남동에 있는 마을. 안성장의 쇠전이 있음.

<안성군 안성읍 창전동>

**우-시장 【마을】**

창전동에 있는 마을. 쇠전이 있음.

<양주군 남면 입암리>

**마우-들 【들】**

입암리에 있는 들. 소시장이 컸음.

<양주군 백석면 홍죽리>

**와우-개 [와우고개, 와우현] 【고개】**

안골에서 광적면 비암리로 가는 고개.

**와우-고개 【고개】**

와우개.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

**소귀-고개 [우이령] 【고개】**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응달말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동 쇠귀로 넘어가는 고개.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

**소중-골【골】**

삼하리에 있는 골짜기. 소가 죽었다 함.

<양주군 회천면 옥정리>

**우-산(牛山)【산】**

옥정리에 있는 산. 높이 182.3m. 와우형의 명당이 있다 함.

**우산-동(牛山洞)【마을】**

옥정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우산 밑이 됨.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황소-바위【바위】**

도곡리에 있는 바위. 황소처럼 생겼음.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쇠전-거리 [우전거리] 【마을】**

장터 서쪽에 있는 마을. 쇠전이 섬.

<양평군 용문면 망릉리>

**서적-골【골】**

삼밭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소를 잡아 먹었음.

## (12) 경기 2(인천)

<여주군 가남 건장리>

**쇠등【들】**

건장리에 있는 들. 소의 등처럼 생겼음.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

**소바위【바위】**

심석리에 있는 바위. 소처럼 생겼음.

<여주군 금사면 주록리>

**소잡아먹은소【소】**

주록리에 있는 소. 이곳에서 소를 잡아먹었음.

<여주군 능서면 광대리>

**쇠미실【들】**

광대리에 있는 들.

<여주군 대신면 장풍리>

**소주골【골】**

천남리에 있는 골짜기. 전에 마을이 있었음.

**소누골고개【고개】**

소누골에 있는 고개.

<여주군 북내면 오금리>

**암소골【골】**

오금리에 있는 골짜기.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소지개【송포동(松浦洞)】【마을】**

천송리에서 으뜸 되는 마을. 고려 때 나옹대사가 상좌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상좌가 “저  
기 개가 누웠습니다.” 하니, 대사가 “그게 개야 소지”하였다 함.

<여주군 점동 삼합리>

**소너미고개【고개】**

삼합리에 있는 고개.

<원부리>

**쇠메기【들】**

원부리에 있는 들.

<여주군 점동 현수리>

**소대가리【바위】**

현수리에 있는 바위. 소 대가리처럼 생겼음.

<여주군 흥천 상백리>

**쇠도독골【골】**

상백리에 있는 골짜기. 쇠도독이 있었다 함.

### 제Ⅲ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연천군 미산 >

**우정리**(牛井里) [소우물, 쇠물, 우정(牛井), 태우물, 태정(泰井)] 【리】

본래 마전군 동면의 지역으로서, 큰 우물이 있으므로 소우물, 쇠우물 또는 우정, 태우물, 태정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우정상리, 우정하리와 북면의 무등하리 일부를 병합하여 우정리라 해서 연천군 미산면에 편입됨.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쇠목개** [쇠목개벌, 서목개, 소목개] 【들】

넓적바위 동쪽에 있는 들. 전에 소를 놓아 먹이었음.

<연천군 백학면 고읍리>

**황소방등** 【등】

구미소 서쪽에 있는 등성이.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소의봉** 【산】

셋골 북쪽에 있는 산.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소도독골** 【골】

장논 서쪽에 있는 골짜기. 도독이 소를 잡음.

<연천군 백학면 판부리>

**소바위1** 【마을】

소바위2가 있는 마을.

**소바위2** 【바위】

판부리에 있는 바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쇠목재1** 【마을】

쇠목재 밑에 있는 마을.

**쇠목재2** 【고개】

대광리에서 답곡리로 넘어가는 고개.

<연천군 연천면 차탄리>

**우전거리**(牛廐-) 【길】

차탄에 있는 길.

<연천군 중면 적거리>

**쇠똥골 【마을】**

적거리 중앙에 있는 마을.

**쇠똥골고개 【고개】**

쇠똥골에서 옷나무골로 넘어가는 고개.

<용진군 대부면 남리>

**명애배미 【논】**

영전동 앞에 있는 논. 모양이 명에처럼 생겼음.

<용진군 대부면 선감리>

**쇠머리 【부리】**

선감도 북쪽에 있는 부리.

<용진군 영흥면 외리>

**명애배미 【논】**

신답에 있는 논. 모양이 명에처럼 생겼음.

<용진군 자월면 을왕리>

**소죽은골 【골】**

늘목해수욕장 남쪽에 있는 골짜기. 소가 죽었다 함.

**소섬 [우도(牛島)] 【섬】**

쇠머리 서남쪽에 있는 섬.

**쇠머리 【부리】**

승봉리에 있는 부리.

<용인군 남사면 원암리>

**황소모롱이 【모롱이】**

각궁이 동북쪽에 있는 모롱이. 황소의 뿔처럼 생겼다 함.

<용인군 내사면 대대리>

**소농골 【골】**

송문리에 있는 골짜기.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소리 [소울이, 우명(牛鳴), 우명동(牛鳴洞)] 【마을】**

안골 남쪽에 있는 마을.

**세거리 [쇠거리] 【들】**

풍덕천리에 있는 들. 소먹이 풀이 많음.

<용인군 외사면 가창리>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소바위 【바위】**

가창리에 있는 바위. 소처럼 생겼음.

<용인군 원삼면 맹리>

#### **소바위 【바위】**

맹리에 있는 바위. 소처럼 생겼음.

<의정부시 금오동>

#### **쇠장 [우시장(牛市場)] 【장】**

아래 쇠고랑 남쪽에 있는 소의 시장.

<의정부시 민락동>

#### **쇠쟁이고개 【고개】**

쇠쟁이등에서 고산동 배뺨로 넘어가는 고개

#### **쇠쟁이등 [소자비등] 【마을】**

독바위 북쪽에 있는 마을.

<이천군 마장면 두미리>

#### **구웁바위 [구유바위] 【바위】**

두미리에 있는 바위. 구웁(구유)같이 생겼음.

<이천군 모가면 신갈리>

#### **소빠텅이 【들】**

신갈리에 있는 들.

#### **소턱굴 【들】**

신갈리에 있는 들.

<이천군 백사면 모전리>

#### **한우머리 【들】**

모전리에 있는 들.

<이천군 백사면 >

#### **우곡리(牛谷里) [소일, 쇠일, 우곡(牛谷)] 【리】**

본래 이천군 백면의 지역으로서 내촌리와 아울러 소일, 쇠일 또는 우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호암, 그지개, 메쟁이를 병합하여 우곡리라 해서 백사면에 편입됨.

<이천군 부발면 산촌리>

#### **쇠목굴 【골】**

산말에 있는 골짜기. 소의 목처럼 생겼다 함.

<이천군 율면 산양리>

**쇠메기【골】**

산양리에 있는 골짜기. 소를 먹였다 함.

**쇠목가골【골】**

산양리에 있는 골짜기. 소를 먹이던 가장자리라 함.

<이천군 이천 관고리>

**쇠전거리**〔소전, 우시장(牛市場)〕 **【장】**

관고리에 있는 시장. 주로 소를 매매함.

<이천군 이천면 중리>

**도수장거리【마을】**

중리에 있는 마을. 도수장이 있음.

<파주군 >

**금병산(錦屏山)**〔우두산(牛頭山)〕 **【산】**

천현면 삼방리와 광탄면 창만리, 방축리, 발랑리에 걸쳐 있는 산. 높이 292.9m. 모양이 병풍처럼 생겼다 하며, 또는 소의 머리처럼 생겼다 함.

<파주군 광탄면 방축리>

**쇠머리산**〔우두산(牛頭山)〕 **【산】**

방축리에 있는 산. 소의 머리처럼 생겼음.

<파주군 금촌면 금릉리>

**소두머리【마을】**

맷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

<파주군 금촌면 금촌리>

**쇠재고개【고개】**

뒷골에서 금릉리의 쇠재로 넘어가는 고개.

<파주군 금촌면 맥금리>

**쇠못【못】**

십년방죽 복판에 있는 못. 소가 빠져 죽었다 함.

<파주군 문산면 내포리>

**소도덕골【골】**

이촌 북쪽에 있는 골짜기. 소 도독이 살았음.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과주군 마정리>

**쇠늑굴** [쇠늑굴] 【굴】

덤불말 위쪽에 있는 골짜기. 쇠눈처럼 생겼다 함.

<과주군 문산면 운천리>

**쇠늑굴** 【들】

보매기 서북쪽에 있는 들. 지형이 쇠눈(소의 눈)처럼 생겼다 함.

**안쇠늑굴** 【들】

쇠늑굴의 안쪽 들.

<포천군 관인면 우금리>

**소뭇돌아간골** 【골】

석송바위 동쪽에 있는 골짜기. 바위가 많아서 소가 가지 못하였다 함.

<포천군 내촌면 엄현리>

**소군골** 【골】

파리밭등 동쪽에 있는 골짜기. 소가 굴러 떨어져 죽었다 함.



## 4. 해몽과 韓牛

소와 관련한 해몽은 아래 책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리하였다.

### <참고문헌>

- 「꿈 해몽 대사전」 김승호, 선영사, 2008
- 「(현대인을 위한)꿈 해몽」 김종덕, KG북플러스, 2006
- 「꿈과 마음의 비밀」 현오스님·류정수 공저, 대유학당, 2006
- 「해몽 해몽법」 김종일, 삼한출판사, 2003
- 「꿈 해몽 대백과」 周公 著 ; 이성천 譯, 문원북, 1999
- 「꿈보다 해몽」 오재연 편저, 동학사, 1998

### 남의 소를 몰래 훔쳐온 꿈

결혼이나 임신을 하게 되고, 합궁 등으로 재미를 보게 될 징조다.

### 외양간에 매어 놓았던 소의 고삐가 풀린 채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있는 꿈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집안에 오래 머물지 못한 징조다. 집안이 어려워지고 이혼을 하거나 별거하게 될 징조다.

### 조상과 함께 소가 보인 꿈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거나 사업가로 성공할 아이를 출산하게 될 징조다.

### 소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온 꿈

집안에 경사가 생기거나, 결혼, 재물, 사업체 등이 생길 징조다.

### 밖으로 뛰쳐나간 소를 잡지 못한 꿈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재물의 손실을 입을 징조다.

### 소를 끌어다가 기둥에 고삐를 매단 꿈

고용인, 며느리, 아내 등을 맞이하거나 어떤 사업체 또는 재물을 얻게 될 징조다.

### 소달구지에 쌀을 가득 싣고 집 안으로 들어온 꿈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집안에 돈과 재물과 경사가 있을 징조다. 정월 초하룻날 밤에 농부가 이 꿈을 꾸면 그 해에 풍년이 들게 된다.

#### 소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구해 준 꿈

자기의 소망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아들 셋을 두며, 자수성가하여 부를 누리게 될 징조다.

#### 목장에 많은 소가 있었던 꿈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거나 막대한 재물이 생기게 될 징조다.

#### 누런 암소가 얼룩무늬 송아지를 낳은 꿈

태몽으로, 문제아가 태어나게 되지만, 장차 그가 대중의 스타가 될 징조다.

#### 소가 자기를 쓰러뜨리고 짓밟아 낸 꿈

채권자로부터 심한 빚 독촉을 받게 되는 등, 자신의 신변에 어려움이 생길 징조다.

#### 소를 타거나 몰고 가다가 쓰러져서 못 일어난 꿈

자기의 세력이나 사업체 등이 어려움에 처해서 허덕이게 될 징조다.

#### 소를 사 온 꿈

집안에 머느리나 귀한 손님이 들어오게 될 징조, 또는 집이나 재물이 생길 징조다.

#### 소를 끌고 산으로 올라간 꿈

신분이 고귀해지고, 일확천금을 거머쥔 부자가 될 징조다. 그러나 집안에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러한 꿈을 꾸게 되면, 그가 사망하게 될 징조로도 해석된다.

#### 누군가가 여러 마리의 소를 몰고 가는 것을 본 꿈

단체의 주도권을 잡거나 재물이 한 곳으로 집중되게 될 징조다.

#### 자신이 소의 뿔에 맞힌 꿈

믿었던 사람한테서 배신을 당하게 되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병에 걸릴 징조다.

#### 소로 논밭을 갈러 가는 꿈

재물, 집, 고용인, 사업체 등을 잃게 될 징조다.

####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는 꿈

여러 사람과 힘을 합해 목표한 바를 성취하게 될 징조다.

#### 소의 등을 타고 길을 간 꿈

단체장이나 회사 사장이 되어 권세를 과시하게 될 징조다.

**황소 뿔이 부러지는 것을 본 꿈**

어떠한 실수로 인해 실직을 당하게 되거나, 집안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될 징조다.

**검은 소가 들판에 외롭게 매여 있는 것을 본 꿈**

탐탁지 않은 남의 식구를 집안에 들여놓게 될 징조다.

**쇠뿔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본 꿈**

진급 또는 관직에 오르게 되거나 작품 등으로 세상을 감화시키게 될 징조다.

**투우 경기를 관람한 꿈**

이권이나 이념의 대립이 있을 징조다.

**소가 자기를 보고 웃은 꿈**

누군가로부터 불쾌한 일을 당하게 될 징조다.

**소에다 소금 두 가마를 싣고 집으로 들어온 꿈**

중년 이후에나 말년에 두 가지의 사업을 벌여 횡재하게 될 징조다.

**사나운 소가 자기를 뒤쫓아와서 도망친 꿈**

사업상의 일이나 책 등을 접하게 될 징조다.

**소가 멀리 매여 있는 것을 본 꿈**

먼 곳에 있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거나,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만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다는 신호이다.

**죽은 소를 묻었던 꿈**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게 될 징조다.

**뿔이 멋지고 털에 윤기가 있는 소를 본 꿈**

좋은 사람을 만나고 뛰어난 작품을 접하게 될 징조다.

**황소 뿔이 황금색으로 빛났던 꿈**

공무원은 이름을 드날리게 되고, 운동선수는 승리하게 되며, 학생은 명문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될 징조다.

**소를 따라 앞산으로 올라간 꿈**

회사원이나 공무원은 서울이나 중앙부처로 승진하여 자리바꿈할 일이 생길 징조다.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소를 따라 뒷산으로 올라간 꿈

회사원이나 공무원은 지방이나 지사로 밀려나 좌천할 것을 암시한다.

#### 여자가 쇠불알을 만지며 장난을 치는 꿈

어설픈 사랑놀음을 하다가 동네방네에 염문을 퍼뜨릴 징조다.

#### 소를 잡아 먹은 꿈

가까운 시일 내에 재물을 얻게 될 징조다.

#### 소를 풀어놓고 기르는 꿈

자손이나 부하직원이 속을 썩이며, 재산을 비축하지 못할 징조다.

#### 소가 쟁기로 밭을 가는 꿈

협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사업이 활력을 띠게 될 징조다.

#### 소가 사람처럼 말을 한 꿈

훌륭한 문예 작품을 창작하게 될 징조다.

#### 여러 사람이 소의 등을 타고 가는 꿈

여러 사람과 협조할 일이 생길 징조다.

#### 소를 팔고서 다른 소를 사 온 꿈

고용인, 사업 업종 등을 바꾸게 될 징조다.

#### 자신이 소를 죽인 꿈

농사가 풍년이 들고, 추진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징조다.

#### 짐을 가득 실은 소가 너무 지쳐하는 모습을 본 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벅차고 힘들어서 고달프다는 증거이다.

#### 커다란 바위를 황소가 빨로 들이받아서 굴렸던 꿈

작은 돈을 투자하여 큰 돈을 벌게 되고, 재수가 대통하며, 대업을 성취할 징조다. 하청업, 수주, 낙찰, 큰 공사 등의 일거리와 관계있는 길몽이다.

#### 잘 훈련된 소를 잃어버린 꿈

하는 일이 꼬이고 집안에 우환이 따를 징조다. 실물(失物)이나 도둑 등을 암시하는 흉몽이다.

#### 달아나는 소를 잡지 못한 꿈

종업원이 퇴사하거나 재물의 손실을 입게 될 징조다.

**여러 사람이 소를 잡아서 고기를 자르는 꿈**

여러 사람이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것을 분배할 일이 생길 징조다.

**소가 많은 집을 신고 자기 앞에 선 꿈**

자기의 결혼 상대자로 인해 걱정하게 될 징조다.

**여러 사람이 싸움을 하며 황소 고삐를 잡아당긴 꿈**

경쟁자와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징조다. 집단폭행, 패싸움, 경쟁 등을 암시하는 흉몽이다.

**소를 기른 꿈**

길몽으로 가운이 번창한다.

**소를 산 꿈**

길몽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

**소를 판 꿈**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다.

**소를 팔고 다른 소를 산 꿈**

사업체나 직업을 바꾼다.

**소가 송아지를 낳은 꿈**

길몽으로 재물이 들어온다.

**소를 붙잡은 꿈**

길몽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

**소가 논밭을 간 꿈**

길몽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암시이다.

**소를 풀고 높은 곳이나 산으로 올라간 꿈**

부귀영화를 누릴 길몽으로 가정이 번창하고 사업이 성공한다.

**병석에 누운 환자가 소를 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간 꿈**

그 환자의 죽음을 암시한다.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소를 탄 꿈

길몽으로 직장을 구하거나 승진한다.

#### 타고가던 소가 넘어진 꿈

흉몽으로 곤경에 빠질 암시이다.

#### 소를 타고가던 사람이 떨어진 꿈

흉몽으로 지위가 하락하거나 재물을 잃는다.

#### 소가 함정에 빠지거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고통을 받은 꿈

흉몽으로 가족이 질병에 걸리거나 빗에 시달릴 암시이다. 만일 소를 구해주면 곤경에서 벗어난다.

#### 소가 집을 나간 꿈

가운이 기울 암시이다.

#### 정성들여 기른 소가 도망간 꿈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 소가 방으로 들어온 꿈

불길한 일이 생긴다.

#### 소가 집으로 들어온 꿈

재물이 들어오거나 결혼이 성사된다.

#### 소를 기둥에 매놓은 꿈

결혼을 하거나 머슴을 들이거나 부하직원을 고용한다.

#### 소를 물고와 기둥에 매놓은 꿈

재물이 들어온다.

#### 소가 집을 가득 싣고 집으로 들어온 꿈

흉몽으로 믿었던 사람으로 인하여 재물이 나간다.

#### 소가 소금을 싣고 들어온 꿈

갑자기 재물이 늘어날 암시이다.

#### 소가 수레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온 꿈

좋은 일이 생긴다.

**크고 잘 생긴 황소를 본 꿈**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재물이 생긴다.

**털이 매끄럽고 탐스럽게 생긴 암소를 본 꿈**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재물이 늘어난다.

**검은소나 흙이 있는 소를 본 꿈**

반갑지 않은 사람을 만나거나 손재수를 당한다.

**목장에 소가 많이 있는 꿈**

재물이 번창한다.

**소를 방목한 꿈**

가족으로 인하여 재물을 잃는다.

**소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은 꿈**

형재수가 따른다.

**소가 사람에게 말을 붙인 꿈**

숨긴 마음을 털어놓고 인정을 받을 암시이다.

**소가 똥오줌을 누 꿈**

재물이 들어온다.

**소가 피를 흘린 꿈**

좋은 일이 생긴다.

**소가 밭에 채이거나 소의 뿔에 받힌 꿈**

배신, 교통사고 등 액운이 닥친다.

**소를 잡아 여러 사람이 나눈 꿈**

이익을 분배한다.

**소를 죽이는 것을 본 꿈**

손재수가 따른다.

**자기 소가 자기를 죽인 꿈**

가정이 번창하고 사업이 성공한다.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죽은 소를 땅에 묻은 꿈**

손재수가 따른다.

**빨이 큰 소를 본 꿈**

지위가 올라가고 사업이 번창할 암시이다.

**빨이 상하거나 잘린 소를 본 꿈**

사업이 위축되거나 실패한다.

**소의 빨을 손으로 뽑은 꿈**

지위와 권세가 올라간다.

**소의 빨에서 피가 쏟아져 나온 꿈**

재물이 늘어난다.

**소한테 먹이를 준 꿈**

가정에 재난이 닥칠 징조이다.

**뛰어가는 소를 잡지 못한 꿈**

직원이 도망가거나 재물이 나간다.

**늙은 소가 집에 오는 꿈**

부귀해질 징조이다.

**소를 타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꿈**

기쁜 일이 있다.

**소 또는 사슴을 죽이는 꿈**

부귀를 얻을 징조다.

**방목한 소들이 자유롭게 노니는 꿈**

문학 계통의 사람은 베스트셀러를 발표하게 되고 사업가는 성공 확률이 높은 큰 일을 벌이게 된다.

**논두렁이나 함정에 빠진 소를 구하는 꿈**

집안과 하는 일 모두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다.

**소가 나를 보고 웃는 꿈**

반드시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다.



**쓰러진 자기를 소가 밝는 꿈**

운수대통이다. 학문적인 면에서 인정을 받거나 작품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소가 허공에 매달린 꿈**

새로운 여러 주장과 정보에 접한다.

**소를 잡아 여럿이 고기를 분배하는 꿈**

예기치 못한 재물을 얻게 된다.

**소가 멀리 묶여 있는 꿈**

작은 돈은 얻지만 그 돈을 다시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조상이 데리고 온 두 마리의 소 중 한 마리가 죽는 꿈**

사업을 일으키거나 재물을 얻지만 경쟁이나 소송 등에서 지게 된다.

**소를 정성껏 보살피는 꿈**

많은 지식을 얻게 된다.

**소가 축 늘어져 있는 꿈**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낙담하게 된다.

**낮선 짐을 실은 소가 앞에 서 있는 꿈**

장차 지혜, 명예, 권세를 거머쥔 아이가 태어난다.

**외딴 곳에 까만소가 서 있는 꿈**

자기 영역이 남에게 침해당하거나 고유의 권한이 사라진다.

**검은 소가 얼룩 송아지를 낳는 꿈**

신분의 귀천, 흥분, 싸움 등과 연관이 있다.

**검정소가 외딴 곳에 혼자 매어져 있는 꿈**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와 분가해서 살게 되며 자식과 떨어져 살게 된다.

**논두렁이나 수렁에 빠져 있는 소를 직접 꺼내 주는 꿈**

가까운 사람이 중병에 걸리거나 기울었던 사업, 가산 등을 일으켜 세우게 된다.

**소가 잔칫상을 뒤엎는 꿈**

다된 밥에 채를 뿌리는 형국으로 결실을 앞둔 일들이 수포로 돌아간다.

### 제III편 민속자료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소가 큰 바위를 뿔로 받아 굴리는 꿈

적은 장사밑천으로 시작한 일이 엄청난 부를 가져온다. 운수가 대통할 꿈으로서 복이 굴러들어온다.

#### 소꼬리를 잡고 장난 놀다가 똥벼락을 맞는 꿈

그 동안 추진하던 사업이 있으면 빨리 시작하라.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부를 누릴 것이다.

#### 소에 타거나 몰고 가다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꿈

자기의 세력이나 자기가 속한 단체, 사업장이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된다.

#### 소의 뿔에 반혔으나 별로 다치지 않은 꿈

나쁜 성향의 사람들과 사귀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

#### 소의 양쪽 뿔을 단단히 쥐고 있는 꿈

자신이 뜻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 한 우리에서 소끼리 싸움을 벌이는 꿈

부부지간에 결과가 너무 안 좋은 싸움을 벌일 징조다.

#### 황소 뒷발에 채이어 나가떨어지는 꿈

자신의 분수를 깨닫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다가 남에게 곤혹을 치르게 된다.

#### 황소 몸에 온통 똥칠이 되어 있는 꿈

길몽 중의 길몽이다. 사업에 투자하여 엄청난 부를 거머쥐고 새로운 투자도 큰 성공을 거둔다.

#### 황소가 앞마당의 큰 나무를 뿔로 받아 쓰러뜨리는 꿈

집안에 흉한 일이 생길 징조다. 교통사고나 질병, 남과의 다툼을 경계해야 한다.

## 제Ⅳ편

#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남경란(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 해 제

소는 전근대 한국인의 생활과 매우 긴밀히 닿아있는 존재이며, 고·중세에도 국가 차원에서 그 보호와 육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소와 관련된 전문서가 편찬되기도 하였다.

소와 관련된 전문서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1399년에 편찬된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新撰集成馬醫方牛醫方)』을 들 수 있다.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의 목축 수준과 실상을 잘 보여주는 서적이다. 그리고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 간행된 주요 의약서로 『救急方』 『救急簡易方』 『診解救急方』 『鄉藥救急方』 『鄉藥集成方』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문헌 자료를 통해서는 ‘한우(韓牛)’라는 표기를 찾을 수 없다. ‘한국’이라는 어휘가 1583년에 간행된 <석봉천자문>에 처음 나타나므로(한국 한(韓) <石千 25>) ‘한우(韓牛)’라는 명칭은 적어도 16세기 말 이후에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국어사(國語史) 자료를 검토해 보면 조선시대에 ‘소’는 대개 ‘쇼’로 표기하였으며, ‘황우(黃牛)’는 ‘누른 쇼’, 또는 ‘黃牛’, ‘백우(白牛)’는 ‘흰 쇼’, ‘황소’는 ‘한쇼’로 표기하였다.<sup>10)</sup> 이러한 표기는 19세기 자료에까지 사용되었기에 근대까지 ‘한우(韓牛)’라는 표기는 의약서적뿐만 아니라 국어사 문헌에서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한우’라는 명칭은 근대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2차년에 수집, 분석한 자료는 조선 초기에서 조선 말기까지 간행된 주요 의약서 『우마양저염역병』 『촌가구급방』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방약합편』 『우역방』이다. 이 가운데 『우의방』은 『의방합편(醫方合編)』 속에 들어 있는 부분 가운데 소의 역병만 골라 따로 모은 방문이다.

특히 언해본인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과 한문본인 『우의방』의 내용은 주로 소의 역병을 치료하는 방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의방』에는 ‘농경할 소 고르는 법’과 ‘새끼 낳을 어미 소 보는 법’, 그리고 ‘좋은 소 감정법’ 등이 기록되어 있어 『신편집성우의방(新撰集成牛醫方)』 내용과의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고려 말기에 간행된 『신편집성우의방(新撰集成牛醫方)』과 조선 말기에 간행된 『우의방』까지의 의약 자료들을 수집,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의약서에는 ‘소의 감정법’에서부터 ‘농경할 소 고르는 법’, ‘새끼 낳을 어미 소 보는 법’, ‘우사 지을 땅 선택법’, ‘우사 짓는

10) 조선시대 ‘소’와 관련된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흰쇼 메우니(駕以白牛) <法華二 73>

② 므쇠 서르 던염하야(水牛) <牛疫方 12>

③ 싸호는 한쇼를 두 소내 자반시며(方鬪臣牛兩手執之) <용 87>, 한쇼를 내니 몸크고 득리크고 <曲 162> 한쇼를 디여다가 <樂章 鄭石> 한쇼(牛莽牛) <同文下 38> <漢 44d> 牛莽牛 한쇼 <柳物一 毛>

④ 黃牛入峽엿 프리 수으어리느다(黃牛峽水喧) <杜重十一 49> 누르스러흔 쇼(淡黃牛) <漢 441a>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날 선택법’, ‘소의 형상 및 털색 고르는 법’, ‘소의 질병 치료법’까지 다양하고 폭 넓은 일상의 지식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가차원에서 소를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한우의 육성 사업이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범국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위에서 제시한 모든 의약서들에서 소가 인간의 병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부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사실로도 충분하다. 소가 인간의 병을 치유하는 데 사용된 대표적인 약재로는 ‘白牛毛(흰소털), 純黑牡牛尿(접붙이지 않은 검은 수소의 오줌), 烏牛尿(검은 소의 오줌), 牛角(소뿔), 牛角斮(소뿔 속 뼈), 牛肝(소 간), 牛肝及百葉(소의 간과 위), 牛膏(소기름), 牛骨(소뼈), 牛骨髓(소의 골수), 牛筋(소의 힘줄), 牛酪(소 젖), 牛尿(소 오줌), 牛膽(소 쓸개), 牛屠(소 위), 牛糞(소똥), 牛糞豆(소 똥 속의 콩), 牛脾(소의 기레), 牛鼻(소의 코), 牛髓(골수), 牛腎(소의 콩팥), 牛外腎(소의 음경), 牛乳(우유), 牛乳粥(우유죽), 牛肉(소고기), 牛耳垢(소 귀의 때), 牛脂(소기름), 牛齒(소 이빨), 牛黃膏(우황고), 雄牛新尿(수소의 아침 오줌), 黃牯牛前脚髓(불 칸 황소의 앞다리골수), 黃牛腦髓(황소의 골), 黃牛糞(황소 똥), 黑牛髓(흑우의 골수) 등으로 소뿔에서 꼬리까지 약재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들 의약서 자료를 통해 우리의 생활과 대단히 밀착되어 있었던 소가 약재로서도 인간에게 널리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서류에 나타나는 ‘한우(韓牛)’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관련 의약서

소와 관련된 전문의약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399년에 편찬된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新撰集成馬醫方牛醫方)』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고려 말에서 조선 말기까지 간행된 『구급방』 『구급간이방』 『언해구급방』 『향약구급방』 『향약집성방』 『우마양저염역병』 『촌가구급방』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방약합편』 『우역방』 등을 들 수 있다.

### (2) 의약서의 내용상 특성

이 가운데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의 목축 수준과 실상을 잘 보여주는 서적이고, 『우역방』은 『의방합편(醫方合編)』 속에 들어 있는 부분 가운데 소의 역병만 골라 따로 모은 방문이다. 특히 언해본인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과 한문본인 『우역방』의 내용은 주로 소의 역병을 치료하는 방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우역방』에는 농경에 사용할 소의 상과 어미 소의 상, 그리고 소를 감정하는 법이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우역방』에 소개된 ‘농경할 소 고르는 법’, ‘새끼 낳을 어미 소 보는 법’, ‘좋은 소 감정법’ 등은 고려 말에 간행된 『신편집성우의방』 내용과의 비교할 수 있어 한우의 기원을 찾는 좋은 자료가 된다.

### (3)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 소의 부위

소가 인간의 병을 치유하는 데 사용된 대표적인 약재로는 ‘白牛毛(흰소 털), 純黑牡牛尿(접붙이지 않은 검은 수소의 오줌), 烏牛尿(검은 소의 오줌), 牛角(소뿔), 牛角簞(소뿔 속 뼈), 牛肝(소 간), 牛肝及百葉(소의 간과 위), 牛膏(소기름), 牛骨(소뼈), 牛骨髓(소의 골수), 牛筋(소의 힘줄), 牛酪(소 젖), 牛尿(소 오줌), 牛膽(소 쓸개), 牛屠(소 위), 牛糞(소똥), 牛糞豆(소 똥 속의 콩), 牛脾(소의 기레), 牛鼻(소의 코), 牛髓(골수), 牛腎(소의 콩팥), 牛外腎(소의 음경), 牛乳(우유), 牛乳粥(우유죽), 牛肉(소고기), 牛耳垢(소 귀의 때), 牛脂(소기름), 牛齒(소 이빨), 牛黃膏(우황고), 雄牛新尿(수소의 아침 오줌), 黃牯牛前脚髓(불 간 황소의 앞다리 골수), 黃牛腦髓(황소의 골), 黃牛糞(황소 똥), 黑牛髓(흑우의 골수) 등으로 소뿔에서 꼬리까지 약재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약재에 사용된 소는 황우(黃牛)의 빈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흑우(黑牛)이다.

### (4) 소의 역병 치료에 사용된 약재

우역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처방 약재로는 가마솔 아래 흙, 검은 콩, 궁궁이, 길경이, 꿀, 너구리 간, 너구리 고기, 너구리 똥, 너구리 창자, 녹두, 대나무 잎, 대황, 두여머조자기, 마황, 밀가루, 박새, 반초, 백반, 버들잎, 병풍 나물 뿌리, 복나무 잎, 붉은 흙, 사탕, 사향, 삼주 뿌리, 생강, 생참기름, 석남등, 석창포 뿌리, 세신, 소루장이, 소의 날젖, 속서근풀(황금), 술, 심, 심황, 여우 꼬리, 여우 머리, 여우 창자, 외양간의 누른 흙, 작설차, 주엽나무, 지모, 지지, 참깨 잎, 창포 가루, 췌뿌리 가루, 토끼의 머리, 파두, 패모, 하늘타리(팔루) 뿌리, 함박꽃 뿌리, 황벽 피, 황연과 酒(술), 射香(사향), 麴(누룩), 巴豆(파두), 香油(향유), 當歸(당귀), 紅花(홍화), 胡燕糞(호연의 똥), 水漿(맑은 장물), 竈中黃土(가마솔의 누른 흙), 胡麻(호마), 靑囊(청양), 松柏枝(송백 가지), 狐腸(여우 창자), 水獺屎(수달의 똥), 水獺(수달), 魚脂(물고기 기름), 鱸魚구리(미꾸라지), 豺頭骨(승냥이 두골) 등이 있었다.

### (5) 소고기와 상극인 것

대표적인 약성 상극(藥性相反)으로는 ‘쇠무릎과 쇠고기’가 있으며, 물성 상극(物性相反)으로는 (1) 소와 백주(白酒), (2) 염교와 소, (3) 부추와 소, (4) 돼지고기와 소고기, (5) 소의 창자와 개고기 등이다. 그리고 임신부가 피해야 할 약으로 ‘우황’이 있다.

### (6) 의약서 분석을 통해서 본 한우

소는 전근대 한국인의 생활과 매우 긴밀히 닿아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고·중세에는 국가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차원에서 소의 보호와 육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일환으로 소와 관련된 전문의 약서들이 편찬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의약서로는 『신편집성우의방』 『구급방』 『구급간이방』 『언해구급방』 『향약구급방』 『향약집성방』 『우마양저염역병』 『촌가구급방』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방약합편』 『우역방』 등이 있다.

고려 말기에 간행된 『신편집성우의방』과 조선 말기에 간행된 『우역방』까지의 의약 자료들을 수집,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의약서에는 ‘소의 감정법’에서부터 ‘농경할 소 고르는 법’, ‘새끼 낳을 어미 소 보는 법’, ‘우사 지을 땅 선택법’, ‘우사 짓는 날 선택법’, ‘소의 형상 및 털색 고르는 법’, ‘소의 질병 치료법’까지 다양하고 폭 넓은 일상의 지식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가차원에서 소를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한우의 육성 사업이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범국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자료에서와 같이 모든 의약서들에서 소가 인간의 병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부위가 없다는 사실과 소의 역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서를 따로 간행했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 소가 거듭된 종자개량을 거쳐 지금의 한우로 정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 말기의 대표적인 의약서인 『신편집성우의방』과 조선 말기의 대표적인 의약서인 『우역방』에 기록된 ‘소 감정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들 자료에는 ‘소의 상’과 ‘어미 소의 상’, 그리고 ‘소 감정법’이 기록되어 있어 우리나라 한우의 감별과 종자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相牛形狀及毛色論(소의 형상 및 털색 감정법)’에서는 소 중에 머리 위에 흰 털이 있는 것, 검은 소인데 머리가 희고 꼬리가 흰 것, 청우(靑牛)인데 머리도 누렇고 다리도 누렇고 뿔은 흰 것, 소에 사슴의 얼룩이 있는 것 등은 키우기를 금기하고 흰 소인데 머리가 누런 것, 황우가 척추와 등 위에 흰 줄이 있는 것, 황우인데 가슴 앞에 일태(一苔)의 흰 것 등은 집안이 일어나고, 식구들이 화목해서 매우 길하고 이롭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相耕牛(농경에 사용할 소의 상)’에서는 눈은 큰 백맥이 있어 눈동자를 관통해야 하고, 뿔은 짧으면서 두 뿌리가 가까워야 하고, 몸체는 목뼈가 크고 길어야 하고, 털은 짧으면서 뽁뽁해야 하며, 꼬리는 벼줄기처럼 길어야 하며, 다리와 정강이는 서면 다리의 양쪽의 간격이 가지런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감별법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는 자연히 종자개량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의 한우로 자리 잡게 되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약제에 사용된 소 가운데 황우(黃牛)의 빈도가 가장 높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 1. 문헌별 형태서지<sup>11)</sup>

### (1) 『우마양저염역병』 치료방

소·말·양·돼지의 전염병 치료방들을 발췌, 초록하여 간행한 책. 1541년(중종 36) 봄 평안도에 소의 전염병이 유행하여 양·돼지와 다른 도로 퍼지게 되자 왕명에 의해 간행하였다. 초간본에는 <마(馬)>가 누락되어 있고, 한글에 방점 표기까지 있다. 1578년(선조 11)에 간행된 중간본은 방점 표기는 없으나 <△, ○>이 나타난다. 또 1636년(인조 14)판은 <△, ○>이 안 쓰일 뿐, 글의 내용은 1578년판과 차이가 없다. 이 책은 한문으로 된 본문에 이두(吏讀)로 토를 달고 한글로 해석하였는데, 가축의 전염병에 관한 역사적 연구 자료이며 국어사적으로 이두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1책. 활자본. 서울대학교도서관·고려대학교도서관 등 소장.



11) 『우마양저염역병』 『촌가구급방』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방약합편』 등의 형태서지에 대한 것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에서 출판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참조하였으며, 이밖에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 등의 해제를 참조하였다. 문헌의 사진 자료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것과 사이트 <http://kr.dic.yahoo.com/search/enc/>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하였다.

## (2) 『촌가구급방』

조선 중종 때 문신 김정국(金正國)이 지은 의서(醫書). 1538년에 간행된 것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재와 노인들의 경험에서 나온 여러 치료법을 수록하였다. 본문은 대방과(大方科)·부인과(婦人科)·소아문(小兒門)으로 되어 있으며, 200여 종의 약재 이름을 한글과 이두로 적은 본초지부(本草之部)가 책머리에 실려 있다. 책 끝에는 익수(溺水)·자액(自縊)·과상풍·육독(肉毒) 등의 치료법을 덧붙인 뒤 저자가 아는 바를 수록하였다. 현재 초간본과 1572년(선조 5)의 재간본이 전하고 있다. 1권 1책. 목판본.

## (3) 『동의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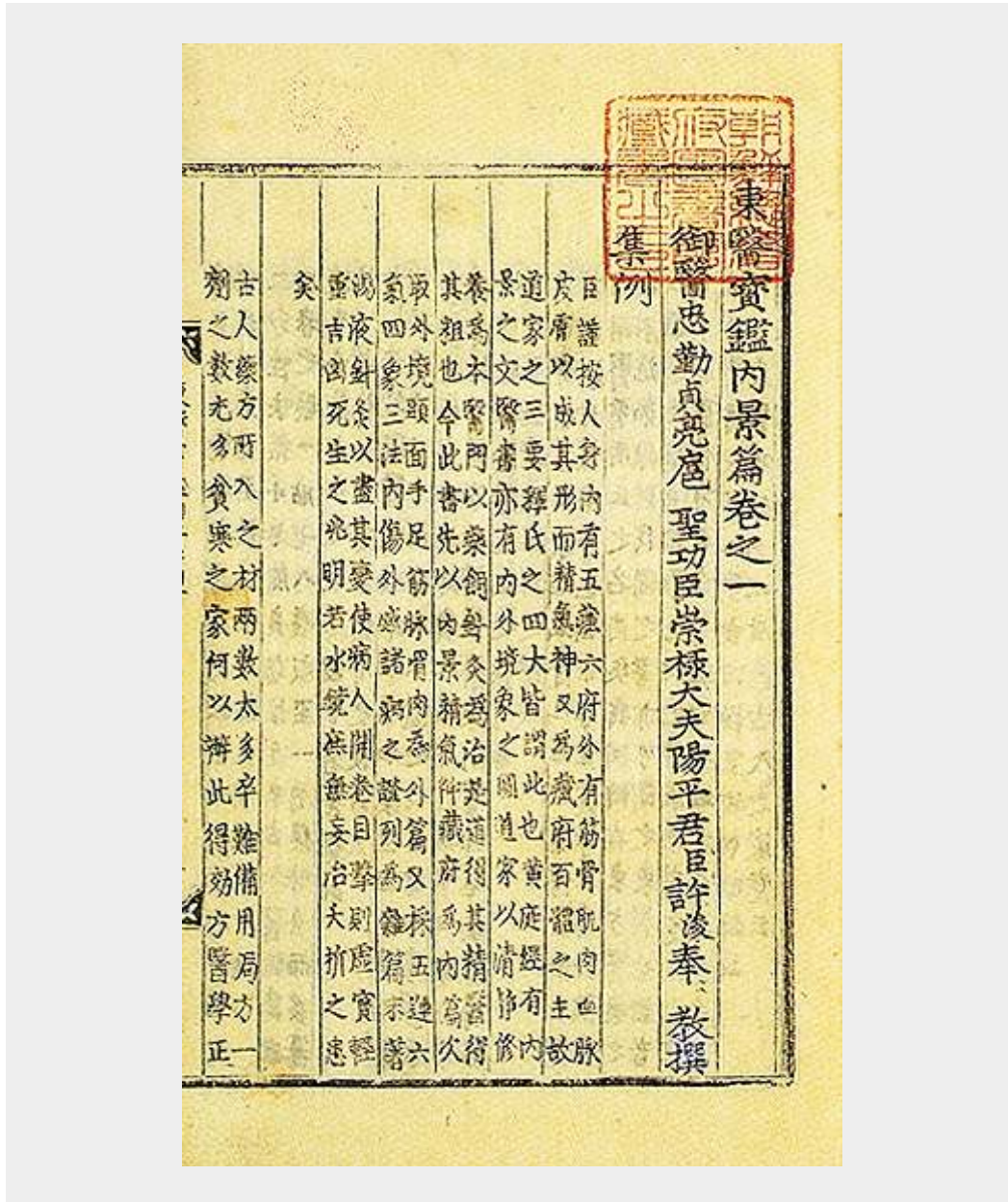
조선 중기 태의(太醫) 허준(許浚)이 지은 의서. 1613년 내의원에서 훈련도감의 개주갑인자(改鑄甲寅字)로 간행하였다. 5개 강목으로 나뉘어 있는데, 내경편(內景篇) 6권, 외형편(外形篇) 4권, 잡병편(雜病篇) 11권, 탕액편(湯液篇) 3권, 침구편(鍼灸篇) 1권이다. 내경편에는 내과에 딸린 질병, 수양·양로병들과 목록이 부기되어 있고, 외형편에는 외과적 질병이, 잡병편에는 내과질환과 외과질환이 함께 적혀 있고, 부인과·소아과가 따로 첨부되어 있다. 탕액편에는 탕액서례(湯液序例)를 기록하고, 약물을 수부(水部)·토부(土部)·곡부(穀部) 등으로 나누어 속명을 붙이고 약성·약미·약독의 유무 및 약효와 채취시기 등을 기록하였다. 침구편에는 약물학·침구술 등에 관한 지식을 거의 포괄하였다. 편집은 5대 강편 아래에 질병에 따라 항·목을 정하고 각 항목 아래에 병론과 약방들을 출전과 함께 자세히 열거하여 그 병증에 관한 고금의 처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병증에 따르는 단방(單方)과 침구법을 부기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각 병증의 항과 목이 주로 증상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출간된 뒤 청(淸)나라와 일본에서 여러 번 번각되었으며, 한국인이 저술한 책 중에 중국인·일본인들에게 가장 널리 읽힌 책으로 꼽힌다. 제22~24권의 3권 3책은 탕액편으로 향약명(鄉藥名) 649개가 한글로 적혀 있어 국어사 연구에 도움을 준다.

간본으로는

① 한국간본: 내의원 훈련도감활자 초간본(1611~13)·호남관찰영 전주장본(全州藏本)·영남관찰영 대구장본·갑술 내의원 교정 영영개간본(嶺營改刊本, 1814)·갑술 내의원 교정 완영중간본(完營重刊本)

② 중국간본: 『동의보감』 초간본(1763)·재간본(1796)·복간본(1890)·민국상해석인본(民國上海石印本)·대만영인본

③ 일본간본: 『동의보감』 초간본(1724)·『동의보감(1799)』 『원원통(源元通)』 『훈점(訓點) 재간본(1799)』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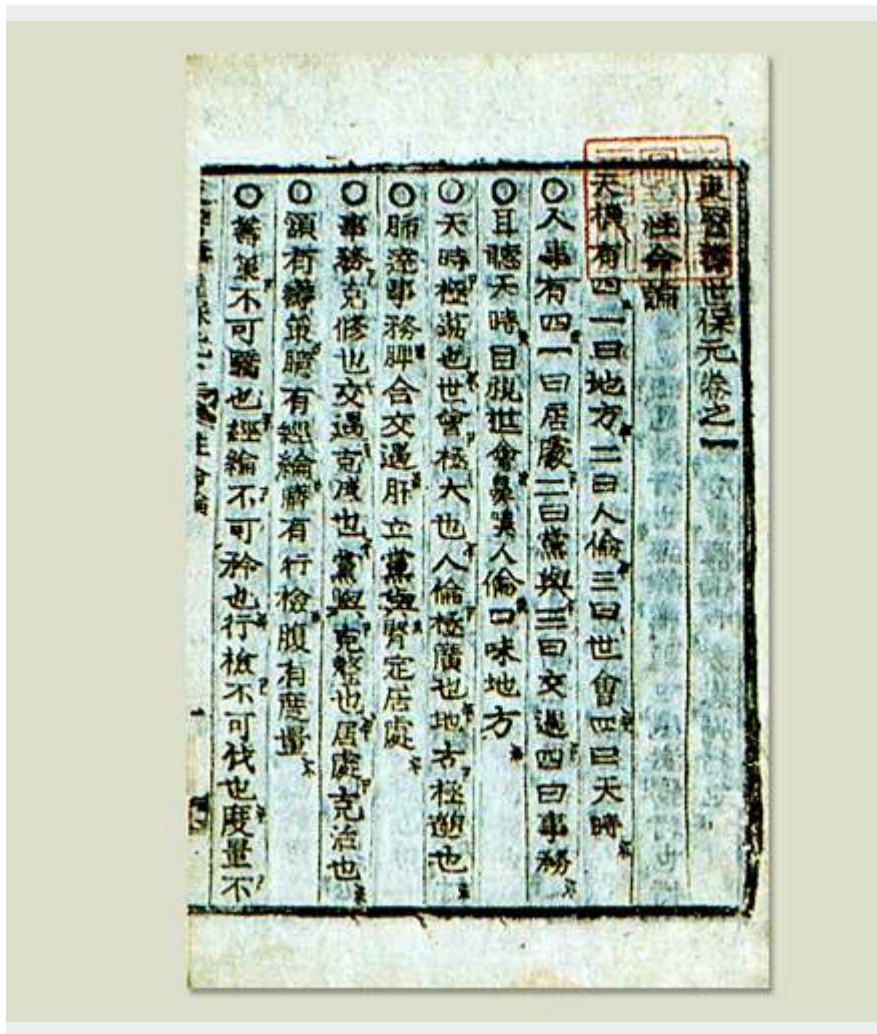


#### (4) 『동의수세보원』

조선 말기에 이제마(李濟馬)가 저술한 사상의학서(四象醫學書). 구성은 성명론(性命論)·사단론(四端論)·확충론(擴充論)·장부론(臟腑論)·의원론(醫源論)·소음인신수열표열병론(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소음인위수한이한병론(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범론(泛論)·소양인비수한표한병론(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소양인위수열이열병론(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범론·태음인위완수한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표한병론(太陰人胃腕受寒表寒病論)·태음인간수열이열병론(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태양인의감요척수병론(太陽人外感腰脊髓病論)·태양인내촉소장병론(太陽人內觸小臟病論)·광제설(廣濟設)·사상인변증론(四象人辯證論)의 17론 및 『사상방약(四象方藥)』 등 전 4권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의원론 이하 13론 중 광제설을 제외한 12론 및 사상방약은 임상연구의 핵심부분이고 나머지 5론은 관념적 이론에 불과하다. 즉 사상의학은 사상유형(四象類型)의 체질의학(體質醫學)이다. 4권 2책. 목활자본.



### (5) 『방약합편』

1885년(고종 22) 황필수(黃泌秀)가 편찬한 의서(醫書). 청(淸)나라 사람 왕인암의 『본초비요(本草備要)』 『의방집해(醫方集解)』 『의방활투(醫方活套)』 『손익본초(損益本草)』를



합편하고 용약강령(用藥綱領)·구급(救急)·금기(禁忌) 등 십여 종을 합쳐서 편집, 간행하였다. 예를 들어 산초·방초·습초·독초·만초·석초·향목·교목·관목·우목·포목·훈신채·산과·오과·화충(化蟲)·사(蛇)·어(魚)·축(畜)·금석(金石) 등의 순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약성강령(藥性綱領)에 있어서는 오색소주·오미소주·오장오미보사법 등을 기재하고, 수증용약례(隨症用藥例)에서는 질병에 따라서 군약(君藥; 또는 主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적 체계적으로 나열하였으며 제허용약례(諸虛用藥例)에서는 병의 증세에 따라 배합할 수 있는 생약을 2~3개씩 나열하였다. 질환의 분류방법은 『동의보감』 『제중신편』과 비슷하게 풍(風)·한(寒)·서(暑)·습(濕)·조(燥)·화(火)·내상·허로(虛勞)에서 소아(小兒)까지를 처방과 연결하여 나열, 보기가 쉽고 실용에 적합하다. 1책. 목판본. 규장각도서.



(6) 『우역방(牛疫方)』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저자와 간행연대를 자세히 알 수 없는 의방서(醫方書)인 『의방합편(醫方合編)』 속에 들어 있는 부분 가운데 소의 역병만 골라 따로 모은 방문이다.

『의방합편(醫方合編)』은 『삼의방(三意方)』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 『경험방(經驗方)』 『잡방(雜方)』 등 여러 의방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모아 놓은 것이다. 『촌가구급방』은 조선 중종(中宗) 때 김정국(金正國)이 편찬한 의서로 저자와 그 내용이 알려져 있지만, 『삼의방』은 편찬자와 간행연대를 알 수 없는 서적이다. 또한, 『경험방』, 『잡방』 등 두 권의 의서는 저자의 임상 경험을 모아 놓은 서적이라고 저자가 모두(冒頭)에서 밝히고 있다.

『의방합편(醫方合編)』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1권의 목차는 두부(頭部), 면부(面部), 목부(目部), 비부(鼻部), 구부(口部), 치문(齒門), 인후부(咽喉部), 흉부(胸部), 심부(心部), 복부(腹部), 견배부(肩背部), 요부(腰部), 족슬부(足膝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권의 목차는 풍부(風部), 체창과상풍부(諸瘡破傷風部), 광간부(狂癲部), 학질부(虐疾部), 대소변부(大小便部), 산부(疝部), 치질부(痔疾部), 광란부(?亂部), 해수부(咳嗽部), 담음부(痰飲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동의보감(東醫寶鑑)』이 번잡하다는 이유로 『동의보감』을 요약하거나 의론은 없이 처방만을 모아 놓은 의서들이 많이 출현하게 된다. 이 책도 그런류의 의방서로서 이 시기의 서적 간행의 경향성을 잘 읽을 수 있는 자료이다.

## 2. 문헌별 주요 약재

조선 중기에서 조선 후기까지 간행된 의약서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촌가구급방』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방약합편』 『우역방』을 바탕으로 약재(藥材)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대표적인 약재는 ‘白牛毛(흰소 털), 純黑牡牛尿(접붙이지 않은 검은 수소의 오줌), 烏牛尿(검은 소의 오줌), 牛角(소뿔), 牛角鎗(소뿔 속 뼈), 牛肝(소 간), 牛肝及百葉(소의 간과 위), 牛膏(소기름), 牛骨(소뼈), 牛骨髓(소의 골수), 牛筋(소의 힘줄), 牛酪(소 젖), 牛尿(소 오줌), 牛膽(소 쓸개), 牛屠(소 위), 牛糞(소똥), 牛糞豆(소 똥 속의 콩), 牛脾(소의 기레), 牛鼻(소의 코), 牛髓(골수), 牛腎(소의 콩팥), 牛外腎(소의 음경), 牛乳(우유), 牛乳粥(우유죽), 牛肉(소고기), 牛耳垢(소 귀의 때), 牛脂(소기름), 牛齒(소 이빨), 牛黃膏(우황고), 雄牛新尿(수소의 아침 오줌), 黃牯牛前脚髓(불 간 황소의 앞다리골수), 黃牛腦髓(황소의 골), 黃牛糞(황소 똥), 黑牛髓(흑우의 골수) 등으로 소뿔에서 꼬리까지 약재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우황을 사용한 대표적인 약재로는 牛黃清心元(우황청심원), 牛黃(우황), 牛黃膏(우황고), 牛黃解毒丹(우황해독단), 牛膽(소의 쓸개), 牛黃抱龍丸(우황포룡환), 九味清心元(구미청심원), 龍腦安神丸(용뇌안심환), 靑黛散(청대산), 牛黃涼膈元(우황량격원) 등이 있다.

또 우역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처방 약재로는 가마솔 아래 흙, 검은 콩, 궁궁이, 길경이, 꿀, 너구리 간, 너구리 고기, 너구리 똥, 너구리 창자, 녹두, 대나무 잎, 대황, 두여머조자기, 마황, 밀가루, 박새, 반초, 백반, 버들잎, 병풍 나물 뿌리, 복나무 잎, 붉은 흙, 사탕, 사향, 삼주 뿌리, 생강, 생참기름, 석남등, 석창포 뿌리, 세신, 소루장이, 소의 날젖, 속서근풀(황금), 술, 심, 심황, 여우 꼬리, 여우 머리, 여우 창자, 외양간의 누른 흙, 작설차, 주엽나무, 지모, 지지, 참깨 잎, 창포 가루, 칩뿌리 가루, 토끼의 머리, 파두, 패모, 하늘타리(팔루) 뿌리, 함박꽃 뿌리, 황벽 피, 황연과 酒(술), 射香(사향), 麴(누룩), 巴豆(파두), 香油(향유), 當歸(당귀), 紅花(홍화), 胡燕糞(호연의 똥), 水漿(맑은 장물), 竈中黃土(가마솔의 누른 흙), 胡麻(호마), 靑囊(청양), 松柏枝(송백 가지), 狐腸(여우 창자), 水獺尿(수달의 똥), 水獺(수달), 魚脂(물고기 기름), 鱸皮구리(미꾸라지), 豺頭骨(승냥이 두골) 등이 있다.

특히 『우역방』에는 농경에 사용할 소의 상과 어미 소의 상, 그리고 소를 감정하는 법이 기록되어 있어 우리나라 한우의 감별과 종자 계량 등의 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 (1)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가마솔 아래 흙, 검은 콩, 궁궁이, 길경이, 꿀, 너구리 간, 너구리 고기, 너구리 똥, 너구리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창자, 녹두, 대나무 잎, 대황, 두여머조자기, 마황, 밀가루, 박새, 반초, 백반, 버들잎, 병풍 나물 뿌리, 복나무 잎, 붉은 흙, 사탕, 사향, 삼주 뿌리, 생강, 생참기름, 석남등, 석창포 뿌리, 세신, 소루장이, 소의 날젓, 속서근풀(황금), 술, 심, 심황, 여우 꼬리, 여우 머리, 여우 창자, 외양간의 누른 흙, 작설차, 주엽나무, 지모, 지지, 참깨 잎, 창포 가루, 쉼뿌리 가루, 토끼의 머리, 과두, 패모, 하늘타리(괭루) 뿌리, 함박꽃 뿌리, 황벽 피, 황연 등

### (2) 『촌가구급방』

牛尿(소 오줌), 牛耳垢(소 귀의 때), 白牛毛(흰소 털), 牛糞豆(소 똥 속의 콩), 牛骨(소뼈), 牛脂(소기름), 純黑牡牛尿(접붙이지 않은 검은 수소의 오줌) 등

### (3) 『동의보감』

牛膽(소 쓸개), 牛乳(우유), 牛乳粥(우유죽), 牛肉(소고기), 牛角(소뿔), 牛膏(소 기름), 牛屠(소 위), 牛髓(골수), 牛腎(소의 콩팥), 牛角筩(소뿔 속 뼈), 牛尿(소 오줌), 牛肝(소 간), 黃牛腦髓(황소의 골), 牛筋(소의 힘줄), 牛酪(소 젖), 牛脂(소기름), 牛齒(소 이빨), 牛鼻(소의 코), 黑牛髓(흑우의 골수), 雄牛新尿(수소의 아침 오줌), 烏牛尿(검은 소의 오줌), 牛外腎(소의 음경), 牛骨髓(소의 골수), 牛脾(소의 기레), 牛黃膏(우황고), 牛肝及百葉(소의 간과 위), 黃牯牛前脚髓(불 간 황소의 앞다리골수), 牛糞(소똥), 黃牛糞(황소 똥) 등

### (4) 『동의수세보원』

※ 자료 없음.

### (5) 『방약합편』

牛黃清心元(우황청심원), 牛黃(우황), 牛黃膏(우황고), 牛黃解毒丹(우황해독단), 牛膽(소의 쓸개), 牛黃抱龍丸(우황포룡환)<sup>12)</sup>, 九味清心元(구미청심원), 龍腦安神丸(용뇌안심환), 靑黛散(청대산), 牛黃涼膈元(우황량격원) 등

---

12) 한약 처방의 하나. 어린이 경풍(驚風)·담열·신열에 쓰인다. 모방(母方)은 포룡환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에 진주(眞珠)·호박·우황·금박(金箔)을 더하여 우황포룡환을 만든다. 『단계심법(丹溪心法)』 『고금의감(古今醫鑑)』에 수록되어 있으며, 『동의보감』 「잡병편」 소아(小兒)에 인용되었다. 특히 『정다산소아과비방(丁茶山小兒科秘方)』 「부록」에 수록되었으며 『보유신편』 『방약합편』 「중통」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 (6) 『우역방』

酒(술), 射香(사향), 麴(누룩), 巴豆(과두), 香油(향유), 當歸(당귀), 紅花(홍화), 胡燕糞(호연의 똥), 水漿(맑은 장물), 竈中黃土(가마솥의 누른 흙), 胡麻(호마), 靑蘘(청양), 松柏枝(송백가지), 狐腸(여우 창자), 水獺尿(수달의 똥), 水獺(수달), 魚脂(물고기 기름), 鱸의구리(미꾸라지), 豺頭骨(승냥이 두골)

### 3. 우역(牛疫)의 대표적 처방법

『우마양저염역치료방』 이외에 나타나는 우역의 대표적인 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소와 말 등 육축의 역병에는 술에 사향을 조금 섞어 먹이라. 육축이 배가 불러 죽고자 할 때는 누룩을 삶은 물을 먹이면 즉시 증상이 사라진다.
- (2) 소가 졸지에 역병 증세가 있어 머리 옆구리를 치는 놈이 있으면 과두 2개를 껍질 벗겨 찢어 가루 만들어 향유 2개와 맑은 장물 반 되에 넣어 먹이면 차도가 있다.
- (3) 소의 오줌에 피가 나면 당귀, 홍화 각 5잔 씩 가루 내어 술 반 되에 달여 차게 해서 먹이면 좋다. 소가 배와 창자 등에 구더기가 있어 음식을 먹지 않을 시에는 호연의 똥 1합과 맑은 장 2되와 서로 섞어 먹이면 효과가 있다.
- (4) 소똥에 피가 섞여 나오면 가마솥에 누른 흙 2냥과 술 1되를 넣어 달인 후 차게 해서 먹이면 즉시 좋아진다.
- (5) 소가 상처나 더워하면 호마와 청양을 찢어 즙을 내 먹이면 즉시 치유된다.
- (6) 소나 말 등의 육축이 난산으로 인한 움 등에는 송백의 가지를 꺾어 불 태워 만든 기름을 3-5차례 주면 좋다.
- (7) 소의 역병에는 여우의 창자를 불에 태워 만든 재와 수달의 똥 2되를 물에 섞어 탕을 끓여 즙내어 주면 좋다.
- (8) 소의 역병에는 수달을 삶아 즙을 내어 식혀서 주면 좋다.
- (9) 소의 각종 종기에는 물고기 기름을 사용한 진흙을 바르면 즉시 차도가 있다.
- (10) 소가 수척해질 때는 미꾸라지 한두 개를 대나무 대롱에 띄워 입과 코에 날로 주면 즉시 살이 쪼든다.
- (11) 소의 성질이 사나운 것은 승냥이 머리와 뼈를 불태운 재와 술을 넣어 풀어 밥그릇에 주면 소와 말이 순하게 길들여져 바로 사용할 수 있다.

## 4. 우황청심원 등 환 만드는 방법

### (1) <牛黃清心元>

우황 한 돈 두 푼을 산약, 감초, 백작약, 천궁 등의 약초들과 더불어 가루 만들어 대추 살과 함께 꿀에 넣어 끓여서 만듦

### (2) <小兒清心元>

인삼, 백복령, 방풍, 주사, 시호 등을 가루 내어 서각과 우황과 함께 꿀에 버무려 환을 만듦

### (3) <牛黃解毒丹>

감초, 금은화, 술에 씻은 자초, 우황 등을 설퇴(매미의 허물)와 함께 가루 만들어 꿀에 버무려 환 만듦

### (4) <抱龍丸>

감초, 우가, 소의 담, 천남성, 천축황(조구등으로 대용할 수), 석우황, 주사, 사향 등을 가루 내어 삶아 환을 만듦

### (5) <牛黃抱龍丸>

진주, 호박, 우황 등을 가루 내어 금박을 입혀 환을 만듦

(6) <九味清心元>

창포, 서각, 황금, 우황, 영양의 뿔, 사향, 용담, 석유황 등을 가루 내어 꿀과 함께 끓여 환을 만듦

(7) <龍腦安神丸>

백복령, 인삼, 지골피, 맥문동, 감초, 상백피, 서각, 우황, 용담, 사향, 주사, 마아초(말 송곳니) 등을 가루 내어 꿀에 버무려 탄자 크기의 환을 만듦

(8) <靑黛散>

황연, 황백, 청대, 마아초, 주사, 석우황, 우황, 봉사, 용담 등을 가루 내어 죽을 썬

(9) <牛黃涼膈元>

마아초, 불에 쪼인 한수석<sup>13)</sup>, 석고<sup>14)</sup>, 감초와 소의 쓸개, 천남성, 자석영(자수정)<sup>15)</sup>, 우황, 용담, 사향 등을 가루 내어 꿀에 버무려 환을 만듦

(10) <牛黃膏>

주사, 울금, 우황, 목단피, 감초, 용담 등을 가루 내어 꿀에 버무려 환을 만듦

---

13) 희거나 검푸르며 굳은 고생대의 결정질 석회암. 대리석의 장식과 조각에 쓰인다. 『한의학』 소금의 간수를 굳게 하여 만든 수정과 같이 투명한 물질. 성질이 차며 해열·이뇨·갈증·부증 및 눈병의 치료제로 쓰인다.

14) 황산칼슘의 수화물로 된 광석의 한 가지. 안료나 분필을 만드는 데와 모형이나 조각 재료로 쓴다.

15) 자줏빛 수정. <동의어> 자석(紫石)②. 자석영

## 자 료

### 1.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 (1)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1a>

쇠며 물이며 양이며 도티며 서르 던염흐는 병 고티는 방문이라 染疫病은 하나  
알코 둘 세 앓파 서르 던염흐는 병이라

소와 말, 양, 돼지가 서로 전염하는 병을 고치는 방문이다. 염역병은 하나가 앓고 나면  
둘, 셋이 앓아 서로 전염하는 병이다.

#### (2)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1b>

쇠며 므리며 서르 던염흐는 병을 고토티 너고리 고기나 너고리 쏽이나 므레  
글혀 그 즙을 머물워 츠거든 이베 브으라 쇠 서르 던염흐얏는 병을 고토티 여의  
창즈 스론 직를 므레 프러 이베 브으라

소와 말이 서로 전염하는 병을 고치되 너구리 고기나 너구리 똥을 물에 끓여 그 즙을  
내려 차거든 입에 부어라. 소가 서로 전염한 병을 고치되 여우의 창자를 사른 재를 물에  
풀어 입에 부어라.

#### (3)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2a>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쇠 서럭 던염흐얏는 병을 고토틈 너고리 쏹 두 되를 더운 므레 저쳐 그 즙을 가져다가 이베 브으라

소가 서로 전염한 병을 고치되 너구리 똥 두 되를 더운 물에 적셔 그 즙을 가져다가 입에 부어라.

### (4)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2b>

쇠 서럭 던염흐얏는 병을 고토틈 여의 머리와 꼬리와 스라 므레 프러 머기라 쏹 혼 방문네 너고리 고기와 간과 창자와 므레 글혀 그 즙을 이베 브오되 쏹으란 쓰디 말라

소가 서로 전염한 병을 고치되 여우의 머리와 꼬리를 불에 살라 물에 풀어먹이라. 또 다른 방문에 너구리 고기와 간, 창자를 물에 끓여 그 즙을 입에 붓되 똥은 쓰지 말라.

### (5)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3a-4a>

쏹 혼 방문네 쇠 병 처음 시작할 제 솔오줄 디허 즙을 내여 두 되어나 서 되어나 이베 브오되 당시에 병이 시작디 아니흐얏느니라도 미리 이베 브으라 쏹 혼 방문네는 병긔운 곳 잇거든 붉나모를 버혀다가 오양의 썩려 두라 쏹 혼 방문네 붉나모와 님과를 므레 글혀 찌거든 이베 브으라 쏹 혼 방문네 붉나모 님플 ㄱ느리 사흐라 여므레 섯거 머기라

또 한 방문에 소가 병을 처음 시작할 때 소루장이<sup>16)</sup>를 찢어 즙을 내어 두 되나 세 되를 입에 붓되 당시에 병이 시작하지 아니한 소들도 미리 입에 부어라. 또 한 방문에는 병의 기운이 초기이거든 붉나무를 베다가 외양간에 끌어다 두라. 또 한 방문에 붉나무와 입을 물에 끓여 차거든 입에 부어라. 또 한 방문에 붉나무<sup>17)</sup> 잎을 가늘게 썰어 여물에 섞어 먹이라.

---

16) 소루장은 물기가 있는 땅이면 아무 데서나 흔하게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생김새가 수영을 닮았으나 그보다 더 크고 신맛이 나지 않는다. 노랗고 굵은 뿌리가 달린다.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가장 널리 쓰는 설사약인 대황을 닮았으므로 한자로 토대황, 또는 조선대황으로 쓴다. 비슷한 식물로 참소루장이, 금소루장이, 들대황, 대황 등이 있다. 맛은 맵고 쓰고 성질은 차고 약간 독성이 있다. 뿌리에 초산이 들어 있으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면 안 된다. 열을 내리고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하며 뱃속에 있는 기생충을 죽이고 출혈을 멎게 하며 갖가지 균을 죽이는 작용이 있다.

17) 옻나무의 일종

(6)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4b-5a>

쇼와 므릭 온가짓 병을 고토티 버들넙과 쇠늘젓과 혼디 섯거 허여디게 디허 도려디 탄즈ㄴ티 비저 벼티 물의여 듯다가 쓸 제 다시 디허 ㄴ릭 밍ㄴ라 쏘 쇠 늘저지 프러 이베 브으면 효허이 덕 인느니라 쇠 덩단 병을 고토티 춤뵐 넙플 므레 글혀 이베 브으라

쇼와 말의 백가지 병을 고치되 버들잎과 소의 날젓을 한 곳에 섞어 헤어지게 찢어 등글게 탄환같이 빻어 별에 말리어 두었다가 쓸 때 다시 찢어 가루 만들어 또 소의 날젓에 풀어 입에 부으면 효험이 조금 있느니라. 소가 덩고 단 병을 고치되 참깨 잎을 물에 끓여 입에 부어라.

(7)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5b-6a>

쇼와 므릭 던염병을 고토티 거믄 쿵을 므레 슬마 이베 브으라 쇼과 물과 양과 돈과 개과 서르 던염병을 고토티 술의 사향을 죠고매 프러 이베 브으라 쏘 혼 방문네 불근 흙을 쇠썩레 브르면 모딘 병기우니 드디 못흐느니라

쇼와 말의 전염병을 고치되 검은 쿵을 물에 삶아 입에 부어라. 쇼와 말, 양, 돼지, 개가 서로 하는 전염병을 고치되 술에 사향을 조금 풀어 입에 부어라. 또 한 방문에 붉은 흙을 소의 땀에 바르면 모진 병의 기운이 들지 못하느니라.

(8)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6b>

쇠쫑의 피 조차 나느 병을 고토티 가마 아래 흙 두 냥을 술 혼 되와 섯거 글혀 츠거든 이베 브으라

소똥에 피가 함께 나오는 병을 고치되 가마솔 아래 흙 두 냥을 술 한 되와 섞어 끓여 차면 입에 부어라.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 (9)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7a-7b>

쇠며 므리며 서르 던염병을 고토디 삼돗불휘와 박새와 궁궁이와 세심과 두야  
머조자기와 송의 맛불휘와를 낭수를 곧게 드라 혼디 피화 잠깐 그라 브레 뛰워  
그 너를 두고 해 마터 그 귀우니 비예 들면 즉재 돈느니라

소와 말이 서로 전염병을 고치되 삽주<sup>18)</sup> 뿌리와 박새<sup>19)</sup>와 궁궁이<sup>20)</sup>와 세신<sup>21)</sup>, 두여  
머조자기<sup>22)</sup>와 석창포<sup>23)</sup> 뿌리 끝을 양이 같도록 달아 한 곳에 모아 약간 갈아 불에 피워  
그 냄새를 두고 많이 말아서 그 기운이 배에 들어가면 즉시 좋게 되느니라.

- 18) 초롱꽃목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줄기 높이 30~100cm. 햇빛이 잘 드는 건조한 산과 들의 초원에서 자란다. 줄기는 곧게 서고 단단하다. 잎은 어긋나며 피질(皮質)로 되어 단단하고, 가장자리에는 가시 같은 톱니가 있어 깔쭉깔쭉하다. 윗부분의 잎은 자루가 짧고 달걀꼴이며, 아랫부분의 잎은 자루가 길고 3~5갈래로 갈라져 있다. 자웅이주이고 가을에 흰색 또는 담홍색의 꽃이 핀다. 꽃에는 가시모양을 한 녹색의 총포(總苞)가 있고, 둘레에 바늘모양으로 분지된 포엽(苞葉)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땅속줄기가 길고, 봄에 묵은 뿌리에서 나오는 어린 싹은 희고 부드러운 털에 덮여 있다. 어린 싹은 연하여 식용된다. 땅속줄기를 말린 것을 창출(蒼朮)이라 하여 이뇨제·방향건위제로 쓰고, 또 음력 정월에 마시는 도소주(屠蘇酒)의 재료로도 쓰인다.
- 19) 백합목 백합과 여러해살이풀. 높이 1~1.5m. 줄기는 굵고 똑바로 서며, 잎은 넓은 타원형으로 잎자루는 없고, 길이는 15~30cm이다. 7~8월 원추꽃차례에 많은 꽃이 모여 핀다. 꽃잎은 6장으로서 녹색이다. 수술은 6개로 꽃잎보다 짧다. 암술머리는 3개로 짧고 밖으로 굽는다. 열매는 삭과로 3실로 이루어진다. 한국·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 20) 산형화목 산형과 쌍떡잎 여러해살이풀. 높이 80~150cm. 줄기는 곧게 서고 가지가 갈라지며 털이 없고 뿌리가 다소 굵다. 뿌리잎은 잎자루가 길고 줄기잎은 어긋나며 3개씩 3~4회 깃꼴로 갈라진다. 갈라진 조각은 달걀꼴 또는 바소꼴이며, 다시 얇게 갈라지고 결각상(缺刻狀)의 톱니가 있다. 꽃은 겹산형[複散形(복산형)]꽃차례로 6~9월에 흰색으로 피며 20~40개의 소산경꽃줄기로 갈라지고, 끝에 40여 개의 꽃이 달린다. 총포(總苞)조각은 5개이며 거꿀달걀꼴이다. 열매는 납작한 타원형이며 날개가 있다. 궁궁·운초(芸草)·천궁(川芎)이라고도 하며 어린잎은 식용한다. 한국·중국·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 21) 족두리풀의 뿌리를 건조한 약재. 이두 향명으로는 세심(洗心)이라 하였으며, 시(繡)·소신(少辛)·세초(細草)라고도 하였다. 세신이란, 뿌리가 가늘고 몹시 매운 맛을 띠고 있어서 붙여진 명칭이다. 족두리풀은 쥐방울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초본식물인데, 5~7월에 뿌리를 채취하여 그늘에서 말린다. 효능은 감기로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흐를 때 분비물을 배출시키고 발한작용을 한다. 또 열이 심하고 두통이 있을 때 쓰인다. 만성기관지염이나 기관지확장증에 진해제로서 쓰이고 구내염에도 효과가 있다.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세신탕이 있다.
- 22) 천남성목 천남성과의 외떡잎식물. 여러해살이풀로 높이 50cm 가량이다. 덩이줄기는 편구형(扁球形)이며 윗부분에서 수염뿌리가 사방으로 퍼지고 주위에 여러 개의 작은 덩이줄기가 달린다. 잎은 1개이며 잎자루가 길고 작은 잎은 13~19개로서 거꿀바소꼴이며 양 끝이 좁다. 꽃은 암수딴쪽으로 5~6월에 피며 육수(肉穗)꽃차례를 이룬다. 꽃차례의 연장부는 채찍처럼 길게 자라 높이 솟고 꽃차례 축에 많은 꽃이 모여 있다. 열매는 장과(漿果)로 붉은색이며 육수꽃차례의 축에 옥수수알맹이처럼 달려 전체가 타원형을 이룬다. 덩이줄기는 약용으로 사용한다. 한국·일본·중국·타이완 등지에 분포한다.
- 23) 천남성목 천남성과의 상록 여러해살이풀. 뿌리줄기는 잘 분지한다. 잎은 뿌리줄기 위에 2열로 나며 줄모양이다. 길이 30~50cm이고 가운데 맥은 눈에 띄지 않는다. 3~5월에 꽃줄기가 나와 가늘고 긴 육수꽃차례가 달린다. 꽃줄기에는, 잎과 같은 모양의 꽃턱잎이 달린다. 물가의 바위 위나 자갈밭에 군생하며 한국·일본·중국·베트남·인도에 분포한다.



### (10)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8a>

쫄 버베 쇼와 므릭 던염병 처음 시작할 제 모매 죠고매나 브으미 잇거든 즈셔  
히 슬퍼 브은 덕를 쇠울를 브레 달와 지지라 쏘 춘 브레 덩가 세여 모미 츄물  
그음흐라 쏘 뿌글 샅기 손그락만 크게 햏야 빗보글 설흔 붓글 쓰라

뜨는 법에 쇼와 말이 전염병 처음 시작할 때에 몸에 조금이나마 부은 기가 있거든 자  
세히 살펴 부은 곳을 철사를 불에 달궈 지지라. 또 찬 물에 담가 세워 몸이 차면 그만하  
라. 또 쑥을 새끼손가락 만 하게 크게 햏서 배꼽을 서른 번 뜨라.

### (11)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9a-9b>

쇠 서르 던염병햏거든 송의맛 불휘와 댄넵과 춤불휘 므릭과 심황과 녹두와  
두 히 무근 삼돗 불휘와 량수를 므티햏야 므라 므양 햏 냥식 뿌티 반초를 디햏  
즌연니 난 즈 서 되와 꿀 햏 냥과 밀 두 돈과를 햏티 섯거 이베 브오티 도티 아  
니커든 쏘 햏야 브으라 므장 덩달어든 대황을 더 녀코 곱 그테 썩미 업거든 마  
황을 더 녀코 곱히며 이베 피 나거든 부도조젯 곱를 더 녀흐라

소가 서로 전염병햏면 석창포 뿌리와 대나무 잎과 칩뿌리 가루와 심황<sup>24)</sup>과 녹두와 2  
년 묵은 삼주 뿌리를 양을 같게 햏서 갈아 매일 한 냥씩 뜨되 반초를 찢어 자연스럽게  
난 즈 세 되와 꿀 한 냥과 밀가루 두 돈을 한 곱에 섞어 입에 붓되 좋지 않으면 또 햏  
서 부어라. 가장 덩고 달거든 대황<sup>25)</sup>을 더 녀고 곱끝에 땀이 나지 않으면 마황<sup>26)</sup>을 더  
녀고 곱와 입에 피 나거든 창포의 가루를 더 녀으라.

### (12)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10a>

햏 방문네 쇠오히양의 황질리어나 두 히 무근 삼돗불휘어나 브레 휘워 그 녀  
를 곱해 들에 햏면 즉재 도햏리라

24) 생강과의 여러해살이풀. 노란 뿌리줄기는 굵고, 타원형 잎이 뿌리에서 난다. 가을에 노란 꽃이 포  
엽 사이에서 핀다. 뿌리줄기는 한방에서 지혈제 등으로 쓰고 말린 뿌리줄기는 노란 물감으로 쓴다.  
열대 지방에서 재배한다. <동의어> 울금.

25) 마디풀과의 여러해살이 풀. 키는 1.5m쯤, 잎은 호박잎과 비슷하고, 7~8월에 누르스름한 꽃이 겹  
총상꽃차례로 많이 핀다. 뿌리는 약재로 쓴다. 장군풀의 뿌리. 성질이 차고 맛이 달며 통리하는 힘  
이 있어 대소변 불통·조열·헛소리·잠꼬대·적취·징가·어혈 같은 병에 쓴다.

26) 말의 뱃속에 우황처럼 생긴 굳은 물질. 경간에 약으로 쓰인다.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

한 방문에 소 외양간의 누른 흙이나 2년 묵은 삼주 뿌리를 불에 피워 그 냄새를 코에 들게 하면 즉시 좋아지느니라.

### (13)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10b-11a>

흔 방문네는 섯드래 자른 툇기머리를 브레 스라 지 밍그라 브레 프러 닷 되를 이베 브으라 흔 방문네는 도흔 작설차 두 냥을 그라 브레 프로니 닷 되를 이베 브으라 심을 그느리 사하라 브레 달혀 닷 되를 이베 브스면 즉재 돈느니라

한 방문에는 음력 12월에 잡은 토끼의 머리를 불에 살아 재를 만들어 물에 풀어 다섯 되를 입에 부어라. 한 방문에는 좋은 작설차 두 냥을 갈아 물에 푼 것 다섯 되를 입에 부어라. 심을 가늘게 썰어 물에 달여 다섯 되를 입에 부으면 즉시 좋아지느니라.

### (14)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11b>

쇠 서르 던염병하얏거든 고토티 석남등과 반초와 혼디 섯거 디허 즈연니 난 즈 닷 되를 이베 브으라

소가 서로 전염병하면 고치되 석남등<sup>27)</sup>과 반초<sup>28)</sup>를 한 곳에 섞어 찜어 자연스럽게 난 즈 다섯 되를 입에 부어라.

### (15)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12b-13a>

브쇠 서르 던염병하거든 고토티 심과 함박곳 불휘과 황벽피 각 두 냥 다섯 돈과 패모과 디모과 빅번과 황년과 평풍 느물 불휘 각 두 냥 세 돈과 지지과 심황과 속서근풀 각 두 냥 네 돈과 하느타리 불휘과 돌앗 각 두 냥과 대황 혼 냥 아홉 돈놀 혼디 그라 혼 버닉 두 냥식 쓰디 찜 두 냥과 사탕 혼 냥과 싱강 혼 냥과 물 두 되에 혼디 프러 이베 브으라

---

27) 장미과의 갈잎큰키나무. 초여름에 흰 꽃이 피고 가을에 둥근 열매가 붉게 익는다. 열매와 껍질은 한방약으로 쓰인다. <동의어> 마가목.

28) 화살오징어과의 동물. 낙지와 비슷하나 훨씬 작고, 여덟 개의 다리가 있는데 각 다리에 두 줄의 빨판이 있다. <동의어> 꼴뚜기(飯鮑).

물소가 서로 전염병하면 고치되 심과 함박꽃 뿌리와 황벽<sup>29)</sup> 피를 각각 두 냥 다섯 돈과 패모<sup>30)</sup>, 지모<sup>31)</sup>, 백반<sup>32)</sup>, 황연<sup>33)</sup>, 병풍 나물 뿌리를 각 두 냥 세 돈과 지지, 심황, 속서근풀(황금)<sup>34)</sup>을 각 두 냥 네 돈과 하늘타리(괭루)<sup>35)</sup> 뿌리와 길경이 각 두 냥과 대황 한 냥 아홉 돈을 한 곳에 갈아 한 번에 두 냥씩 쓰되 꿀 두 냥, 사탕 한 냥, 생강 한 냥을 물 두 되에 한 곳에 풀어 입에 부어라.

## (16)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13b>

쇠 문득 서르 던염병호야 머리로 뉘블 티거든 고토디 파두 닐굽 나출 겁질 벋

- 29) 쥐손이풀목 운향과 낙엽교목. 높이 10m. 수피(樹皮)는 회색 또는 회갈색으로 깊이 갈라지고 코르크질이 잘 발달해 있다. 잎은 마주나며 홀수깃꼴겹잎으로 길이 20~30cm이다. 작은잎은 달걀꼴 또는 달걀꼴 긴 타원형이고 양끝은 뾰족하며 가장자리에는 톱니와 털이 있다. 또한 뒷면은 흰색으로 잎맥 기부에 부드러운 털이 있으며, 문지르면 향기가 난다. 자웅이주이며 초여름에 길이 6~8cm의 원뿔꽃차례로 작은 꽃이 여러 개 달린다. 꽃은 5수성이고 열매는 공모양으로 지름 약 1cm의 핵과로 감게 익으며 그 속에 5핵과 5개의 씨가 들어 있다. 코르크층을 제거하여 납작하게 건조시킨 수피를 황벽이라 하며 건위제(健胃劑)로 사용하고, 수피의 내피를 염색에 사용한다. 약리작용의 주성분은 식물성 염기 베르베린이며 염색의 황색색소 성분도 마찬가지이다.
- 30) 백합목 백합과 여러해살이풀. 높이 25cm 정도. 비늘줄기는 흰색 육질이며 5~6개의 비늘조각으로 되어 있고 등글다. 원줄기는 곧게 자란다. 잎은 마주나거나 3개씩 돌려나고 줄모양이며 길이 10cm 정도로 끝이 뾰족하다. 잎자루는 없다. 꽃은 5월에 자주색으로 피고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 1개씩 달린다. 꽃덮이 조각은 6개로서 주걱모양 긴 타원형이고, 수술은 6개로 꽃잎보다 짧다. 암술대는 3개로 갈라진다. 열매는 삭과이며 6개의 날개가 있다. 비늘줄기는 중국패모와 함께 진해제·거담제(祛痰劑) 또는 젖을 나오게 하거나 고름을 배출시키는 약으로 쓰인다. 산지에서 자란다. 한국·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 31) 백합목 지모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 20~70cm. 뿌리줄기는 굵고 옆으로 뻗으며 끝에서 잎이 모여난다. 잎은 줄모양이고 끝이 실처럼 가늘며 밑 부분이 서로 안기어 원줄기를 감싼다. 꽃은 6~7월에 피고 2~3개씩 수상(穗狀; 곡식의 이삭모양)으로 모여 달리며 통같다. 길이는 7~8mm로서 윗부분이 6개로 갈라진다. 꽃줄기는 잎 속에서 나와 60~90cm 정도 자라며 포(苞)는 달걀꼴이고 길게 뾰족해진다. 수술은 3개이다. 열매는 삭과이며 긴타원형이고 길이 12mm 가량으로 양끝이 좁다. 뿌리줄기는 약용으로 한다. 한국의 황해도 서흥(瑞興)지방과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 32) 흔히 매염료나 지혈제로 쓰는 명반을 구워서 만든 덩이.
- 33) 황색 무기안료. 크롬옐로라고도 한다. 주성분이 크롬산납  $PbCrO_4$ 인 황연 G와 크롬산납과 황산납  $PbSO_4$ 을 주성분으로 하는 녹색을 띤 황연 10G·5G, 크롬산납과 산화납(II)  $PbO$ 이 결합한 염기성 크롬산납을 주성분으로 하는 오렌지색을 띤 황연 R·5R 등도 있다. 제법은 일반적으로 습식법이 쓰인다. 금속납·산화납(II)에 질산을 반응시켜 질산납을 만들어, 여기에 중크롬산나트륨을 첨가하여 크롬산납 결정을 얻어 안료화하여 제품을 얻는다. 녹색조 제품은 중크롬산나트륨과 함께 황산나트륨을 첨가하여 황산염을 공동 침전시킨다. 은폐력(피복력)이 크고 값이 싸지만, 독성이 있고 내열성·내알칼리성이 중간 정도이다. 도료·물감 제조, 폴리염화비닐 상품 등의 착색에 쓰인다.
- 34) 꿀풀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 잎은 마주 나고 잎자루가 없으며 바소꼴이다. 7~8월에 줄기와 가지 끝에 자줏빛 꽃이 이삭꽃차례로 피며, 열매는 메밀과 비슷하다. 뿌리는 굵고 큰데 ‘황금’이라 하여 약으로 쓴다. 황금의 뿌리. 성질이 찬데, 위장병·황달·폐렴·하혈 따위에 약으로 쓴다.
- 35) 박과의 여러해살이 덩굴풀. 잎은 손 모양으로 갈라졌으며 잎겨드랑이마다 덩굴손이 있는데, 암꽃은 홀로, 수꽃은 총상꽃차례로 자줏빛 꽃이 핀다. 열매는 등황색이며, 씨는 ‘과루인’, 뿌리는 ‘과루근’, 뿌리의 가루는 ‘천화분’이라 하여 한약재로 쓴다. <동의어> 과루, 괭루, 오파, 천과, 천원자, 토과.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

기고 흐르디허 늘 춤기름애 프러 이베 붓고 다시 주엽 그론 굴을 혼 자보물 고  
해 부러 드리고 쏘 신싸당으로 꼬리 브튼 썩 아래를 티라

소기 갑자기 서로 전염병해 머리로 옆구리를 치거든 고치되 파두<sup>36)</sup> 일곱 개를 껌질  
벗기고 무르게 찢어 생참기름에 풀어 입에 붓고 다시 주엽나무<sup>37)</sup> 같은 가루 한 주먹을  
코에 붙여 들게 하고 또 신발 바닥으로 꼬릴 붙은 뼈 아래를 치라.

---

36) 쥐손이풀목 대극과의 상록교목. 높이 2~7m, 잎은 어긋나고 길이는 10cm 정도이고 심장모양이며  
광택이 있는 푸른구릿빛이다. 잎자루 가까이에 2개의 선체(毛體)가 있다. 3~5월에 길이 10~12cm  
의 꽃이 총상꽃차례로 가지 끝에 달리는데 전부 수꽃인 것과 윗부분에 수꽃, 아랫부분에 암꽃이 달  
린 것이 있다. 수꽃은 녹색으로 꽃받침이 5개로 갈라지고 꽃잎이 5개지만 암꽃에는 꽃잎이 없다.  
열매는 삭과로 타원형이나 거꿀달걀꼴이며 1.2~2cm의 씨가 3개 들어 있다. 열매는 8~9월에 익지  
만, 열매가 터지기 전에 수확하여 씨를 채취한다. 한방에서는 씨를 파두라 하며 파두를 냉동가압하  
여 얻은 파두유는 지방유(脂肪油; 30~45%)로서 발포제·준하제(峻下劑)로 쓴다. 그러나 파두는 독  
성단백질을 함유하므로 내복(內服)에 주의해야 한다. 동남아시아의 열대에 분포한다.

37) 장미목 콩과 낙엽활엽교목. 산이나 냇가·하천의 독 등지에서 흔히 자란다. 높이 20m 정도이고 줄  
기와 가지에 가시가 있으며 갈라진 작은 가지는 녹색이다. 잎은 어긋나며 길이 12~22cm로서 1~2  
회 깃꼴겹잎이다. 작은 잎은 5~8쌍이며 길이 3~5.5cm의 달걀꼴 타원형 또는 긴타원형이고 가장자  
리에 물결 모양의 톱니가 있다. 꽃은 6월에 연한 녹색으로 피며 잡성화(雜性花)이고 가지 끝에서 총  
상꽃차례(總狀花序)로 달린다. 꽃잎과 꽃받침조각은 5개씩이고, 9~10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이 있  
다. 열매는 협과(莢果; 꼬투리)로서 길이 23cm, 나비 3cm이고 심하게 비틀려서 꼬이며 갈색이고 10  
월에 익는다. 유사종으로서 원줄기에 가시가 없는 것을 민주엽나무 for. inarmata, 열매가 꼬이지  
않고 약간 굽는 것을 아자비과줄 var. stenocarpa이라고 한다. 한방에서는 가을에 가시와 열매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 뒤, 가시는 치풍(治風)·살충에, 열매는 거담·치질 등의 약재로 쓴다. 함경북도  
를 제외한 전지역에 분포하는 한국 특산종이다.

## 2.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

### (1) 『촌가구급방』 <眯目>

初眯卽以綿子裹筋頭掠出之或墨汁或鷄血浮出之 飛絲入眼百藥無效硬灰 마장미온  
직 煨紅成白灰不拘多少男左女右手用大拇指爪甲刮小許同入湯水待清乘熱洗之蟲翳  
膜隨器中立效 生粟米七介細細爛嚼竝唾洗之卽出 新筆蘸水掃出 桑白皮新者如筋大  
削一頭令薄搥軟滑漸漸令入於目中按之須臾自出 好酒研墨 見上東牆頭馬齒莧燒灰小  
小點眥頭卽出 煮大牟取汁細注目中良 沙石草木入眼以鷄肝血滴之卽出 栗殼刺入眼  
治法 見上牛尿日二點避風黑睛破亦差

<눈에 티끌이 들어갔을 때>

밤나무 껍질이 눈에 들어 찌를 때 치료하는 법은 소 오줌 2 방울을 바람을 피해 눈동  
자에 떨어뜨리면 역시 차도가 있다.

### (2) 『촌가구급방』 <衄血>

四物湯加側柏服之蘇合丸冷水嚼下 鼻衄終日不止心悶則故屏風紙燒灰細末一盞溫  
酒調下 生葛根搗汁三合服之三次卽止 黃明膠누르고물근갓플 煎至隆解塗布上貼額  
上立止 石榴花末亂髮灰伏龍肝用法 見上乾干削如蓮子大塞鼻孔卽止 久不止栗殼五  
兩燒灰爲末每服二盞粥飲調下 口耳皆出血不止蒲黃一兩細末冷水調下 血不止欲死車  
前子牛耳垢末等分和合作釘塞鼻孔卽止

<코에서 피가 날 때>

피가 그치지 않아 죽으려고 할 때 차전자<sup>38)</sup>와 소 귀의 때(귀청) 등을 합쳐 환을 만들  
어 콧구멍 주변에 붙이면 즉시 그친다.

### (3) 『촌가구급방』 <鼻中癰肉>

38) 질경이 씨를 약재로 일컫는 말이다.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코속의 꺾살 鼻者肺之外候肺氣內清則鼻亦有嗅肺氣濁則鼻亦不利生瘰癧久則亦生疔肉先服寫白湯四五貼以曲針鉤引以中針斷其肉絕其根鹽湯洗之甚妙 鼻癰皂角炙末如小豆以竹管吹入鼻 鼻瘡搗杏仁和人乳汁付之 鼻瘰肉陳瓜蒂一分爲末羊指[脂]少許付肉上日三鼻瘡苦蔘根洗淨煎水待微冷沃鼻肉瘡處摩洗去癰瘡剝杏仁煎水則黃皮自脫曝乾與麯 기울 并裹厚紙而搗之以其末和人乳作片塗當處則效捉蛛而搗之如油塗瘡卽愈 瓮鼻塞肉乃肺氣盛用枯礬研末綿脂裹塞鼻中數日自消 鼻中時時流鼻黃水甚者瘰[腦]亦時痛俗名控腦少有蟲食腦中絲瓜藤近根三五尺許燒存性爲細末酒調服之卽差 白牛毛根葉如白楊葉香疏者是焙乾爲末吹入鼻中立愈

<속에 난 굳은 살 치료법>

흰 소의 털과 장엽과 백양나무 잎을 불에 피워 그 냄새를 코에 붙어 넣으면 즉시 치유 된다.

### (4) 『촌가구급방』 <村家救急>

齒根爛蘇合元納其孔若有蟲則以松脂作釘納孔緣松脂乃出柳枝一握細剉入鹽少許煎噉之 齒痛難忍牛蒡根一斤鹽一盞煎銀器或膏塗其根卽差 松葉細切鹽一合酒三升煎至一升含之 齒動搖欲落冷熱飲食皆痛早朝叩齒三百 齒根爛腐服三黃一物丸漆木炙火生津挾齒則差 以布裹雄鷄屎繫山椒如着之枝浸煮於油當痛齒上兩以椒枝遍嚼痛處若冷寒則以熱爲度 牙齒搖動生地黃細剉入綿囊着齒上啞啞漬齒根日三竝嚥汁十日差 齒痛齧 나무음皂莢去皮炙爲末塗齒上吐之 齒動搖出血白蒺藜齒落更生牛糞豆藥 見上齒痛以梣木 무프레나모 爲養齒木朝夕用之乃佳 以眞巢作片安痛齒上以艾灸之 斷齒席下塵 見上 齒間出血不止竹茹濃煮入鹽少許含之

<시골에서 구급할 때>

치아가 흔들려 피가 날 때 흰 질러<sup>39)</sup>를 치아에 떨어뜨리면 다시 좋아지며 소똥 가운데 콩도 약이 된다.

### (5) 『촌가구급방』 <雜方>

背腫去惡散芭[巴]豆乳香沒藥石硫黃眞末一匙竝作末洒當處以牛骨煙觸之神效 腫有黑氣下針付缸盡出毒血極妙 瘡初出時蜘蛛腹破取汁連塗瘡處有效 自初胡瓠 호박

39) 남가새과의 한해살이풀. 온몸에 털이 있으며, 잎은 깃꼴겹잎으로 마주나고, 여름에 노란 꽃이 잎 겨드랑이에 하나씩 핀다. 바닷가 모래땅에 나며, 꽃·뿌리·씨는 약재로 쓴다. <동의어> 남가새.

黃熟者作片火煨乘熱遞付限差東瓜爛擣播鹽炙火頻頻付之神效時無生東瓜乾置者亦好

<기타 방문>

등에 악한 종기를 없애고자 할 때 과두<sup>40)</sup>, 유향<sup>41)</sup>, 몰약<sup>42)</sup>, 석유황<sup>43)</sup>을 진말<sup>44)</sup> 한 손가락과 함께 물 부어 반죽한 것을 그을린 소뻘을 사용해 상처에 닿으면 신기하게 효험이 있다.

## (6) 『촌가구급방』 <腋臭付口臭>

胡粉도호분三合以牛脂和煎令可作丸塗之則佳生干塗腋下絶根妙伏龍肝燒作泥傅之立效 馬齒莧杵以蜜和作團以紙裹之紙外裹泥半寸許日乾裹泥以火燒熱取出小許更蜜和照火令熱先以生布揩腋下以藥灰付腋下令極痛忍然後以手布勒兩脅差

<겨드랑이나 입에 냄새 날 때>

호분<sup>45)</sup> 삼 합으로 소기름에 버무려 환을 지어 겨드랑이 아래에 붙이면 냄새가 끊기고, 좋은 복용간<sup>46)</sup>을 불에 살라 붙이면 즉시 좋아진다.

## (7) 『촌가구급방』 <脚氣>

俗云水腫多生濕熱浸聚然也此病始發先成塊於下陰之邊脚頭內上便毒相似醫以左手堅執其癭中針刺之轉搖出針即付丹地灸四五度艾炷爛灸使塊血不得下流即差永無脚氣之患前脚氣之浮處皆消如舊矣 當初痛時黃蜜作丸無齒嚙而吞下二丸則更不痛腫 菁根插地爲種者刳其根煮於水而和鹽頓服則效 乾脚氣蘿菥煎湯洗之或爲末泥布襪內甚可純黑牡牛尿飲之則愈

40) 대극과의 늘푸른떨기나무. 꽃은 홀성꽃으로 암수 한그루인데, 수꽃은 위쪽으로, 암꽃은 아래쪽으로 붙어 핀다. 열매는 무딘 세모꼴이며, 그 안에는 무딘 길둥근 씨가 들어 있다. 열대 지방에서 자란다.

41) 감람과의 열대 식물인 유향수(乳香樹)의 진. 노랗고 투명한 덩어리로서 숯불로 태우면 특유한 향내를 풍기는데 향분·겔면 보호칠·접착제 따위를 만드는 데 쓴다.

42) 감람과의 떨기 떨어진 나무. 잎은 겹잎이고, 꽃은 네잎꽃이며 열매는 핵과이다. 몰약의 줄기 속에서 새어나오는 즙을 말린 반투명의 덩어리. 특이한 향기와 맛이 있는데, 통경제·건위제·함수제로 쓴다.

43) 화산 지방에서 많이 나며 누런 결정의 비금속 원소. 맛과 냄새가 없는 고체인데, 전기 절연체·화약·성냥·살충제·피부병의 약제로 쓰인다. <동의어> 유황. 황.

44) 밀가루를 일컬음

45) 여자들의 얼굴을 단장하는 데 바르는 흰 가루. <동의어> 분(粉)①. 연분(鉛粉). 연화(鉛華). 호분(胡粉)

46) 아궁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불기운을 많이 받아 누렇게 된 흙. 독이 없고 성질이 약간 온한데 습증·부종·변을·대하·해수·토혈·악조·비홍·산후 불순에 쓴다.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

<각기병에>

순수(접붙이지 않은) 검은 수소의 오줌을 마시면 즉시 치유된다.



### 3. 『동의보감』

#### (1) 『동의보감』 <內景篇：身形藏府圖 ◎ 槐實>

○ 槐膽丸明目黑髮固齒延年十月上巳日採槐實納陶缸中封口鹽泥固濟埋背陰牆下掘三尺土中至臘月初八日取出去皮取黑子裝在牛膽內高懸陰乾至次年清明日取出每日空心白湯吞下一粒二日二粒漸加至十五粒以後每日減一粒周而復始『入門』

##### 괴실(槐實)

○ 괴담환(槐膽丸)은 눈이 밝아지고 머리털이 검어지며 이가 튼튼해지고 오래 살게 한다. 음력 10월 첫 사일(巳日)에 해나무열매를 따서 항아리에 넣고 아가리를 덮은 다음 소금을 두고 이긴 진흙으로 싸 발라서 뒤뜨락 그늘진 담장에 3자 깊이로 구덩이를 파고 묻는다. 음력 12월 8일에 꺼내어 껍질은 버리고 검은 씨를 우담(牛膽) 속에 넣어 그늘에다 높이 매달아서 말린다. 다음해 청명날에 꺼내어 날마다 1알씩 끓인 물로 빈속에 먹되 첫날에는 1알, 다음날에는 2알을 먹는다. 점차 양을 늘려서 15알까지 먹는다.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1알씩 줄여 먹되 1알까지 이르게 먹는다. 이렇게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먹는다[입문].

#### (2) 『동의보감』 <內景篇：身形藏府圖 ◎ 十老人保養>

若一向憊乏之人則當加溫補調停饘粥以爲養宜補中益氣湯異功散(方並見內傷部)衛生湯固眞飲子(方並見虛勞)且於養性延年之藥皆可選用又人乳牛乳常服最佳『入門』

##### 노인의 보양(老人保養)

만약 늙은이가 점점 피곤해 하고 수척해지면 반드시 덥게 보하는 약을 더 넣어 써야 하며 된죽을 먹으면서 보양해야 한다. 약으로는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이공산(異功散, 처방은 다 내상문에 있다), 위생탕(衛生湯), 고진음자(固眞飲子, 처방은 다 허로문에 있다)를 쓴다. 또한 병이 들지 않게 하고 건강하게 하며 오래 살게 하는 약 가운데서 골라 쓴다. 소젖(우유)을 일상적으로 먹는 것이 더욱 좋다[입문].

#### (3) 『동의보감』 <內景篇：身形藏府圖 ◎ 牛乳粥>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牛乳汁一升入細米心少許煮粥令熟常服最宜老人『種杏』

우유죽(牛乳粥, 소젖죽)

소젖 1되에 싸라기를 조금 넣고 죽을 푹 쑤어 늘 먹는 것이 늙은이에게 가장 좋다[종행].

### (4) 『동의보감』 <內景篇 : 氣 ◎ 一粒金丹>

治氣痛啞芙蓉卽鴉片二錢半阿魏一錢木香沈香各五分牛黃二分半右將沈香木香牛黃爲末以鴉片阿魏放碗內滴水熔化和蜜爲丸菉豆大金箔爲衣每一粒熱氣痛涼水下冷氣痛滾水下神效『回春』

일립금단(一粒金丹)

기로 생긴 통증을 치료한다. 아부용(즉 아편) 10g, 아위 4g, 목향, 침향 각각 2g, 우황 1g. 위의 약들에서 먼저 침향, 목향, 우황을 가루를 내어 아편과 아위를 담은 사발에 물을 부어 녹인 것과 함께 꿀로 반죽한 다음 녹두알만 하게 알약을 만들어 겉에 금박을 입힌다. 한번에 1알씩 먹되 열기로 생긴 통증이면 찬물로 먹고 냉기로 생긴 통증이면 끓인 물로 먹는다. 아주 잘 낫는다[회춘].

### (5) 『동의보감』 <內景篇 : 氣 ◎ 牛肉>

補虛益氣滋養氣血壯尤良爛蒸食之『本草』

우육(牛肉, 쇠고기)

허(虛)한 것을 보하고 기도 보하며 기와 혈을 돋우어 주고 좋게 한다. 소의 위가 매우 좋은데 푹 찌서 먹는다[본초].

### (6) 『동의보감』 <內景篇 : 神 ◎ 靜神丹>

治憂愁思慮傷心令人惕然心跳動驚悸不安當歸身酒洗生乾地黃酒洗遠志薑製茯神各五錢石菖蒲黃蓮各二錢半辰砂二錢牛黃一錢金箔十五片右爲末猪心血和丸黍米大金箔爲衣燈心煎湯下五十丸

○ 卽正傳祖傳經驗秘方也

정신단(靜神丹)

근심과 시름, 지나친 사색으로 심을 상하여 무서워하고 가슴이 할랑거리며 놀란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불안 해 하는 것을 치료한다. 당귀(술로 씻은 것), 생견지황(술로 씻은 것), 원지(생강즙으로 법제한 것), 복신 각각 20g, 석창포, 황련 각각 10g, 주사 8g, 우황 4g, 금박 15장. 위의 약들을 가루를 내어 돼지염통피로 반죽한 다음 기장쌀만 하게 알약을 만들어 곁에 금박을 입힌다. 한번에 50알씩 골풀속살(등심초)을 달인 물로 먹는다.

○ 이 처방은 『의학정전』에 있는데 대대로 전하여 내려온 경험방이다.

## (7) 『동의보감』 <內景篇 : 神 ◎ 引神歸舍丹>

治心風健忘南星牛膽製二兩朱砂一兩附子童便浸炮七錢右爲末猪心血和糊作丸梧子大每五十丸萱草根煎湯下『入門』

인신귀사단(引神歸舍丹)

심풍(心風)<sup>47)</sup>으로 건망증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천남성(소 쓸개로 법제한 것) 80g, 주사 40g, 부자(동변에 담갔다가 싸서 구운 것) 28g. 위의 약들을 가루를 내어 돼지 염통 피에 풀을 섞은 것으로 반죽한 다음 벽오동 씨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50알씩 원추리뿌리(흰초근)를 달인 물로 먹는다[입문].

## (8) 『동의보감』 <內景篇 : 神 ◎ 龍腦安神丸>

治五種癲癇無問遠近白茯苓三兩人參地骨皮麥門冬甘草各二兩桑白皮犀角鎔各一兩牛黃五錢龍腦麝香各三錢朱砂馬牙硝各二錢金箔三十五片右爲末蜜丸彈子大金箔爲衣每一丸冬溫水夏涼水化下『河間』

용뇌안신환(龍腦安神丸)

5가지 전간을 치료하는데 갓 생겼거나 오래된 것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치료한다. 흰술풍령(백복령) 120g, 인삼, 지골피, 맥문동, 감초 각각 80g, 뽕나무뿌리껍질(상백피), 서각(가루를 낸 것) 각각 40g, 우황 20g, 용뇌, 사향 각각 12g, 주사, 마아초 각각 8g, 금박 35장. 위의 약들을 가루를 내어 꿀로 반죽한 다음 달걀 노른자위만 하게 알약을 만들어 곁에 금박을 입힌다. 한번에 1알씩 겨울에는 더운물, 여름에는 찬물에 풀어먹는다[하간].

## (9) 『동의보감』 <內景篇 : 神 ◎ 金箔鎮心丸>

47) 심에 관련되어 생긴 풍. 심풍증에는 건망증이 많고 놀라기를 잘한다.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治癲癇驚悸怔忡一切痰火之疾牛膽製南星一兩朱砂水飛琥珀天竺黃各五錢牛黃雄黃眞珠各二錢麝香半錢右爲末蜜和兩作三十丸金箔爲衣每一丸薄荷湯化下『回春』

### 금박진심환(金箔鎮心丸)

전간, 경계증, 정충증, 일체 담화로 생긴 병을 치료한다. 천남성(소 담즙으로 법제한 것) 40g, 주사(수비한 것), 호박, 천축황 각각 20g, 우황, 석웅황(웅황), 진주 각각 8g, 사향 2g. 위의 약들을 가루를 내어 꿀로 반죽한 다음 40g으로 30알을 만들어 겉에 금박을 입힌다. 한번에 1알씩 박하를 달인 물에 풀어먹는다[회춘].

## (10) 『동의보감』 <內景篇 : 神 ◎ 六魂丹>

治諸般癲癇怔忡驚怕恐懼之疾山藥一兩半夏膽星白茯苓神白朮黃連炒遠志酸棗仁炒柏子仁各六錢竹茹天麻白附子煨川芎各五錢犀角羚羊角白礬各三錢半陳皮三錢二分半全蝎三錢二分辰砂二錢二分牛黃一錢二分麝香一錢金箔二十四片右爲末竹瀝打甘草膏和丸鷄頭大每一丸淡薑湯下空心『醫鑑』

### 육혼단(育魂丹)

여러 가지 전간과 정충증, 놀라거나 무서워하는 병들을 치료한다. 마(서여) 40g, 끼무릇(반하), 우담남성, 백복신, 흰삼주(백출), 황련(담은 것), 원지, 메대추씨(산조인, 담은 것), 측백씨(백자인) 각각 24g, 참대속껍질(죽여), 천마, 노랑돌쩌귀(갯불에 묻어 구운 것), 궁궁이(천궁) 각각 20g, 서각, 영양각, 백반 각각 14g, 귤껍질(陳皮) 13g, 전갈 12.8g, 주사 8.8g, 우황 4.8g, 사향 4g, 금박 24장. 위의 약들을 가루를 내어 참대기름에 감초고를 탄 것으로 반죽한 다음 가시연밥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1알씩 습습하게 달인 생강물로 빈속에 먹는다[의감].

## (11) 『동의보감』 <內景篇 : 神 ◎ 丑寶丸>

治一切癲癇怔忡搐搦難狀之疾祛風清火豁痰調氣開心定志安神鎮驚大黃酒拌九蒸九晒黃芩炒各二兩膽星石菖蒲各一兩白僵蠶薑汁炒七錢辰砂六錢爲衣青礞石煨天麻薑汁炒蟬殼各五錢沈香犀角各一錢半琥珀雄黃各一錢牛黃五分猪心血二箇右爲末竹瀝打糊和丸菉豆大朱砂爲衣薄荷湯下六十丸『醫鑑』

### 축보환(丑寶丸)

여러 가지 전간과 정충증, 팔다리가 가느라드는 등 잘 낫지 않는 병을 치료한다. 풍을 헤치고 화(火)를 내리며 담을 삭이고 기를 조화시키며 심규를 열어 주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놀라는 것을 진정시킨다. 대황(술에 버무려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햇볕에 말린 것), 속썩은 풀(황금, 닭은 것) 각각 80g, 우담남성, 석창포 각각 40g, 백강잠(생강즙으로 축여 볶은 것) 28g, 주사 24g(알약의 곁에 입힌다), 청몽석(달군 것), 천마(생강즙으로 축여 볶은 것), 매미허물(선태) 각각 20g, 침향, 서각 각각 6g, 호박, 석옹황(옹황) 각각 4g, 우황 2g, 돼지염통(피가 들어있는 것) 2개. 위의 약들을 가루를 내어 참대기름을 넣고 쏜 풀로 반죽한 다음 녹두알만 하게 알약을 만들어 곁에 주사를 입힌다. 한번에 60알씩 박하를 달인 물로 먹는다[의감].

## (12) 『동의보감』 <內景篇 : 神 ◎ 斷癇丹>

治癲癇愈而復發作止無常黃芪鈞鉤藤細辛甘草各五錢蛇退一條燒存性蟬退全者四枚牛黃一字右爲末棗肉爲丸梧子大小兒菉豆大每二十丸人參湯吞下『入門』

### 단간단(斷癇丹)

전간이 나왔다가 도져서 때 없이 발작했다 멎었다 하는 것을 치료한다. 황기, 조구등, 즉두리풀(세신), 감초 각각 20g, 뱀허물(사퇴, 약성이 남게 태운다) 1개, 매미허물(선퇴, 온전한 것) 4개, 우황 1g. 위의 약들을 가루를 내어 대추살로 반죽한 다음 벽오동 씨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어린이의 것은 녹두알만 하게 만든다). 한번에 20알씩 인삼을 달인 물로 먹는다[입문].

## (13) 『동의보감』 <內景篇 : 神 ◎ 癲狂>

火盛癲狂宜當歸承氣湯三黃瀉心湯(方見寒門)黃連瀉心湯牛黃瀉心湯痰火鬱塞癲狂宜牛黃清心元(方見風門)清心滾痰丸(方見上)風痰迷心癲狂宜鐵粉散鬱金丸通泄散因驚喪心亡魂失魄爲癲狂宜鎮心丹抱膽丸葉氏雄朱丸一醉膏勞神過度甚至癲狂宜辰砂寧志丸寧志化痰湯養血清心湯牛車肉癲狂不得睡臥宜寧志膏(方見夢部)辰砂散『諸方』

### 전광(癲狂)

화가 성해서 전광증이 된 데는 당귀승기탕, 삼황사심탕(三黃瀉心湯, 처방은 상한문에 있다), 황련사심탕, 우황사심탕을 쓰고 담화가 물리고 막혀서 생긴 전광증에는 우황청심원(牛黃清心元, 처방은 풍문에 있다), 청심곤담환(清心滾痰丸, 처방은 위에 있다)을 쓴다. 풍담이 심을 침범해서 생긴 전광증에는 철분산, 울금환, 통설산을 쓰며 놀란 것으로 심을 상하여 뉘이 나가서 전광증이 생긴 데는 진심단, 포담환, 섭씨옹주환, 일취고를 쓴다. 정신을 과도히 써서 전광이 된데는 진사영지환, 영지화담탕, 양혈청심탕, 우거육이 좋다. 전광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데는 영지고(寧志膏, 처방은 꿈문에 있다), 진사산을 쓴다[제방].

(15) 『동의보감』 <內景篇 : 神 ◎ 牛黃瀉心湯>

治癲癇及心經邪熱狂亂精神不爽大黃生一兩龍腦朱砂水飛牛黃各一錢右爲末每服三錢生薑汁和蜜水調下『丹心』

우황사심탕(牛黃瀉心湯)

전간과 심경에 사열이 침범하여 미쳐서 정신이 똑똑하지 못한 것을 치료한다. 대황(생것) 40g, 용뇌, 주사(수비한 것), 우황 각각 4g. 위의 약들을 가루를 내어 한번에 12g씩 생강즙을 둔 꿀물에 타 먹는다[단심].

(16) 『동의보감』 <內景篇 : 神 ◎ 牛車肉>

治失心癲狂紫河車洗淨煮爛同熟牛肚切碎和一處隨便食之最妙『入門』

우거육(牛車肉)

전광증으로 정신이 착란된 것을 치료한다. 자하거(깨끗이 씻은 것)를 폭 삶아서 삶은 소의 위와 같이 잘게 썰어서 잘 섞은 다음 마음대로 먹으면 매우 좋다[입문].

(17) 『동의보감』 <內景篇 : 神 ◎ 神病通治藥餌>

牛黃清心元八物定志元十四友元朱砂安神丸平補鎮心丹育魂丹丑寶丸安神丸琥珀定智丸天王補心丹金箔鎮心丸辰砂寧志丸加味寧神丸辰砂妙香散加減溫膽湯補心丸皆通治心神之病『諸方』

신병에 두루 쓰는 약[神病通治藥餌]

우황청심원, 팔물정지원, 십사우원, 주사안신환, 평보진심단, 육혼단, 축보환, 안신환, 호박정지환, 천왕보심단, 금박진심환, 진사영지환, 가미영신환, 진사묘향산, 가감온담탕, 보심환 등은 다 심신의 병을 두루 치료한다[제방].

(18) 『동의보감』 <內景篇 : 神 ◎ 牛黃清心元>

治心氣不足神志不定喜怒無時或發癲狂精神昏亂等證(方見中風)

우황청심원(牛黃清心元)

심기(心氣)가 부족하고 정신과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여 아무 때나 기뻐하고 성내며 혹 전광증이 발작하여 정신이 착란된 증상들을 치료한다(처방은 중풍문에 있다).

(19) 『동의보감』 <內景篇 : 神 ◎ 八物定志元>

補益心神安定魂魄治痰去熱止驚悸怔忡人參一兩半石菖蒲遠志茯神白茯苓各一兩白朮麥門冬各五錢牛黃三錢朱砂二錢右爲末蜜丸梧子大米飲吞下五十丸 『海藏』

팔물정지원(八物定志元)

심신(心神)을 보하고 정신을 안정하며 담을 삭이고 열을 내리며 경계증과 정충증을 치료한다. 인삼 60g, 석창포, 원지, 복신, 흰솔풍령(백복령) 각각 40g, 흰삼주(백출), 맥문동 각각 20g, 우황 12g, 주사 8g. 위의 약들을 가루를 내어 꿀로 반죽한 다음 벽오동 씨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50알씩 미음으로 먹는다[해장].

(20) 『동의보감』 <內景篇 : 神 ◎ 安神丸>

治癲癇驚狂痰火諸證能鎮心安神人參白茯苓酸棗仁炒當歸生地黃酒炒黃連酒炒陳皮去白南星薑製各一兩朱砂(水飛爲衣)天竺黃各五錢雄黃琥珀眞珠牛黃各二錢右爲末蜜丸梧子大朱砂爲衣米飲下五十丸忌動風辛熱之物 『回春』

안신환(安神丸)

전간과 놀라는 증[癲驚], 미치는 증[狂] 등 담화(痰火)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을 치료하는데 마음과 정신을 진정시킨다. 인삼, 흰솔풍령(백복령), 메대추씨(산조인, 닦은 것), 당귀, 생지황(술로 축여 볶은 것), 황련(술로 축여 볶은 것), 귤껍질(陳皮, 흰 속을 버린 것), 천남성(생강즙으로 법제한 것) 각각 40g, 주사(수비하여 곁에 입힌다.), 천축황 각각 20g, 석용황(웅황), 호박, 진주, 우황 각각 8g. 위의 약들을 가루를 내어 꿀로 반죽한 다음 벽오동 씨만 하게 알약을 만들어 곁에 주사를 입힌다. 한번에 50알씩 미음으로 먹는다. 풍을 일으킬 수 있는 맵고 열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회춘].

(21) 『동의보감』 <內景篇 : 神 ◎ 補心丸>

治心虛手振酸棗仁炒柏子仁各三兩遠志薑汁炒二兩半當歸生乾地黃甘草各一兩半人參一兩茯神七錢石菖蒲六錢牛膽南星半夏麴各五錢琥珀三錢川芎麝香各一錢金箔二十片右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爲末蒸餅和丸菉豆大朱砂五錢爲衣津嚥下七八十丸或薑湯下○即經驗秘方也『正傳』

### 보심환(補心丸)

심이 허하여 손이 떨리는 것을 치료한다. 메대추씨(산조인, 닳은 것), 측백씨(백자인) 각각 120g, 원지(생강즙으로 축여 붉은 것) 100g, 당귀, 생견지황, 감초 각각 60g, 인삼 40g, 복신 28g, 석창포 24g, 우담남성, 반하국 각각 20g, 호박 12g, 궁궁이(천궁), 사향 각각 4g, 금박 20장. 위의 약들을 가루를 내어 증병으로 반죽한 다음 녹두알만 하게 알약을 만들어 곁에 주사 20g을 입힌다. 한번에 70-80알씩 먹는다. 혹 생강을 달인 물로 먹기도 한다.

## (22) 『동의보감』 <內景篇 : 神 ◎ 牛黃>

安魂定魄療驚悸癲狂主健忘末服丸服竝佳『本草』

### 우황(牛黃)

정신을 안정시키고 경계증과 전광을 치료하며 건망증에 주로 쓴다. 위의 약을 가루를 내어 먹거나 알약을 만들어 먹어도 좋다[본초].

## (23) 『동의보감』 <內景篇 : 血 ◎ 黑藥止血>

綱目曰燒灰諸黑藥皆能止血經曰北方黑色入通於腎夫血者心之色也血見黑即止者由腎水能制心火故也

○止血宜五灰散十灰散十灰丸如百草霜松烟墨油髮灰新綿灰棕櫚灰梔子乾柿荊芥蓮房蝟皮牛角腮之類皆可燒灰單服

검은 약[黑藥]은 피를 멎게 한다[黑藥止血]

『강목』에 “불에 탄 것이나 빛이 검은 약은 다 피를 멎게 한다”고 써어 있다. 『경』에 “북방(北方)은 검은 빛이고 신(腎)과 통해 있다. 피는 심(心)의 빛이다. 피가 검은 것을 만나면 멎는 것은 신수(腎水)가 심화(心火)를 억제하기 때문이다”고 써어 있다.

○ 피를 멈추는 데는 오회산, 십회산, 십회환 등을 쓰는 것이 좋다. 가마밑검댕, 송연묵, 기름묻은 난발(태워 가루낸 것), 햇숨 태운 가루, 종려피(태워 가루낸 것), 산치자, 꽃감, 형개, 연밥(연실)송이, 고슴도치가죽(자위피), 소뿔(우각) 속뼈 같은 것들을 태워 가루를 내어 한 가지만 먹어도 좋다.

## (24) 『동의보감』 <內景篇 : 夢 ◎ 益氣安神湯>



治七情六淫相感而心虛夜多夢寐睡臥不寧恍惚驚悸當歸茯神各一錢生地黃麥門冬酸棗仁炒遠志人參黃芪蜜炒牛膽南星竹葉各八分甘草黃連各四分右剉作一貼薑三片棗二枚水煎服『回春』

#### 익기안신탕(益氣安神湯)

7정(七情)이나 6음(六淫)에 감촉되어 심(心)이 허(虛)해져서 밤에 꿈이 많고 잠자리가 편 안치 않으며 정신이 어렘푹하며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치료한다. 당귀, 복신 각각 4g, 생지황, 맥문동, 메대추씨(산조인, 닦은 것), 원지, 인삼, 황기(꿀물에 축여 볶은 것), 우담남성, 참대잎 각각 3.2g, 감초, 황련 각각 1.6g. 위의 약들을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 대추 2알과 함께 물에 달여 먹는다[회춘].

### (25) 『동의보감』 <內景篇：夢 ◎ 虛煩不睡>

- 身不覺熱頭目昏疼口乾咽燥而不渴清清不寐皆虛煩也『三因』
- 大病後虛煩不睡溫膽湯主之甚者益元散(方見暑門)加朱砂牛黃服之『入門』

○ 몸에 열은 없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눈앞이 아찔하고 아프며 입이 마르고 목 안이 마르나 갈증이 나지 않고 정신이 또렷또렷해지면서 잠을 들지 못하는 것은 다 허번(虛煩) 때문이다[삼인].

○ 중병을 앓은 뒤에 허번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데는 온담방을 주로 쓰는데 심하면 익원산(益元散, 처방은 서문에 있다)에 주사와 우황을 넣어 쓴다[입문].

### (26) 『동의보감』 <內景篇：聲音 ◎ 加味固本丸>

治男女聲音不清或失音生乾地黃熟地黃當歸黃栢蜜炙白茯苓各一兩天門冬鹽炒麥門冬鹽炒知母訶子阿膠珠各五錢人參三錢烏梅十五箇取肉人乳牛乳梨汁各一碗右爲末和勻蜜丸黃豆大以訶子湯或蘿菔湯下八十丸或百丸『入門』

- 醫鑑名鐵笛丸

#### 가미고본환(加味固本丸)

남자나 여자를 물론하고 목소리가 맑지 못한 것과 목이 쉰 것을 치료한다. 생견지황, 쥔지황(숙지황), 당귀, 황백(꿀물에 축여 볶은 것), 흰솔풍령(백복령) 각각 40g, 천문동(소금물에 축여 볶은 것), 맥문동(소금물에 축여 볶은 것), 지모, 가자, 아교주 각각 20g, 인삼 12g, 오매 15개(살만 쓴다), 젓, 소젓, 배즙 각각 1사발.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꿀에 반죽해서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콩알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80-100알씩 가자를 달인 물이나 무씨를 달인 물로 먹는다[입문].

○ 『의감』에는 철적환(鐵笛丸)이라고 써어 있다.

### (27) 『동의보감』 <內景篇 : 言語 ◎ 遠志丸>

治因驚言語顛錯遠志薑製南星牛膽製人參白附子白茯苓神酸棗仁炒各五錢朱砂三錢水飛麝香一錢金箔五片右爲末蜜丸梧子大朱砂爲衣薄荷湯下三十丸日再服 『本事』

원지환(遠志丸)

놀라서 말을 헛갈리게 하는 것을 치료한다. 원지(생강즙에 법제한 것), 천남성(우담에 법제한 것), 인삼, 노랑돌쩌귀, 백복신, 메대추씨(산조인, 닳은 것) 각각 20g, 주사(수비한 것) 12g, 사향 4g, 금박 5장.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꿀에 반죽한 다음 벽오동 씨만 하게 알약을 만들어 주사를 입힌다. 한번에 30알씩 박하를 달인 물로 하루 두 번 먹는다[본사].

### (28) 『동의보감』 <內景篇 : 痰飲 ◎ 青礞石丸>

治濕熱痰去食積痰青礞石二兩同焰硝二兩入罐內鹽泥固濟晒乾火煨紅候冷取出天南星二兩白礬末五錢和水浸二日半夏皂角水浸二日片芩薑汁炒赤茯苓枳實麩炒各三兩風化硝用蘿菔同煮硝化去蘿菔濾淨入牛膽內風乾取五錢右爲末薑汁煮神麴爲糊和丸梧子大白湯下三五十丸此藥重在風化硝 『入門』

청몽석환(靑礞石丸)

습담(濕痰)과 열담(熱痰)을 치료하고 식적담(食積痰)을 삭인다. 청몽석 80g(염초 80g과 함께 약탕관에 넣고 소금을 섞어 이긴 진흙으로 잘 싸발라 햇볕에 말려 벌겍게 되도록 구웠다가 식혀서 꺼낸다), 천남성 80g(백반가루 20g을 푼 물에 2일 동안 담가 두었던 것), 끼무릇(반하, 주염열매를 달인 물에 2일 동안 담가 두었던 것), 속썩은풀(황금, 생강즙에 축여 볶은 것), 벌건술풍령(적복령), 지실(밀기울과 함께 닳은 것) 각각 120g, 풍화초(風化硝)(무와 함께 넣고 풍화초가 녹도록 달여서 무는 버린 다음 걸러서 소담낭에 넣어 바람에 말린 것) 20g. 위의 약들을 가루내서 생강즙에 쑨 약누룩풀에 반죽하여 벽오동 씨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30-50알씩 끓인 물로 먹는다. 이 약에서 중요한 것은 풍화초(風化硝)<sup>48)</sup>이다 [입문].

48) 망초를 바람이 부는 날 햇볕에 놓아 두어 녹아서 물기운이 다 빠지고 가볍게 된 흰가루.

(29) 『동의보감』 <內景篇 : 痰飲 ◎ 千金指迷丸>

治一切痰飲爲患

○ 痰病深痼牛膏和丸多服可以汗吐下如倒倉法『入門』

천금지미환(千金指迷丸)

여러 가지 담음으로 생긴 병을 치료한다.

○ 담병이 오래되어 고질이 된 데는 소기름(우지)에 반죽하여 알약을 만들어 많이 먹는다. 이와 같이 하여 땀을 내거나 토하거나 설사를 하면 도창법(倒倉法)을 쓴 것과 같은 효과를 본다[입문].

(30) 『동의보감』 <內景篇 : 五臟六腑 ◎ 牛肚>

補五藏醋和爛煮食之『本草』

우두(牛肚, 소의 위)

5장을 보한다. 식초에 넣고 푹 삶아서 먹는다[본초].

(31) 『동의보감』 <內景篇 : 五臟六腑 ◎ 牛髓>

安五藏以酒和服之『本草』

우수(牛髓, 소의 골수)

5장을 편안하게 한다. 술과 같이 먹어야 한다[본초].

(32) 『동의보감』 <內景篇 : 五臟六腑 ◎ 牛乳>

卽酪也補五藏作粥常服佳『本草』

우유(牛乳, 소젖)

즉 락(酪)이다. 5장을 보한다. 죽을 쑤어서 늘 먹으면 좋다[본초].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 (33) 『동의보감』 <內景篇 : 肝臟 ◎ 肝病治法>

肝苦急急食甘以緩之甘草宜食粳米牛肉棗葵註曰肝苦急是其氣有餘也肝欲散急食辛以散之川芎肝虛以生薑陳皮之類補之『內經東垣』○肝病宜食甘粳米牛肉棗葵取其甘能緩急也『內經』

간병을 치료하는 법[肝病治法]

간은 땅기는 것[急]을 괴로워하는데 이런 때에는 빨리 단것을 먹어서 늦추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감초를 쓰는데 흰쌀, 쇠고기, 대추, 아욱을 먹는 것도 좋다. 주해에 간이 땅기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은 그 기운이 지나치기 때문이라고 써어 있다. 간은 헤치는(散) 것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빨리 매운 것을 먹어서 헤쳐야[散] 하는데 궁궁이(천궁)를 쓴다. 간이 허하면 생강과 귤껍질(陳皮) 같은 것으로 보(補)해야 한다[내경과 동원].

○ 간병 때에는 단것이 좋은데 흰쌀, 쇠고기, 대추, 아욱을 먹으면 그 단맛이 땅기는 것을 잘 늦추어 준다[내경].

### (34) 『동의보감』 <內景篇 : 脾臟 ◎ 脾病治法>

○脾病宜食粳米牛肉棗葵(取本味也)『甲乙經』

비병치법(脾病治法)

○ 비병에는 뱀쌀, 쇠고기, 대추, 아욱을 먹는 것이 좋다(이것은 자기 장기의 맛[本味]을 취하는 것이다)[갑을경].

### (35) 『동의보감』 <內景篇 : 脾臟 ◎ 牛肉>

養脾氣牛肚尤佳煮爛宜常食之『本草』

우육(牛肉, 쇠고기)

비기를 보한다. 소의 위(牛肚)가 더 좋은데 푹 끓여서 늘 먹는 것이 좋다[본초].

### (36) 『동의보감』 <內景篇 : 肺臟 ◎ 牛乳>

潤肺養肺作酪粥常食之佳『本草』

우유(牛乳, 소젖)

폐를 녹여 주고 보한다. 죽을 쑀어 늘 먹으면 좋다[본초].

(37) 『동의보감』 <內景篇 : 腎臟 ◎ 牛腎>

補腎可常食之 『本草』

우신(牛腎, 소의 콩팥)

신을 보하는데 늘 먹어야 좋다[본초].

(38) 『동의보감』 <內景篇 : 胃腑 ◎ 牛肚>

補胃煮爛食之

○ 酪粥除胃中熱可常服之 『本草』

우두(牛肚, 소의 위)

위를 보하는데 꼭 삶아서 먹는다.

○ 소젖죽(酪粥)은 위 속의 열을 없애는데 늘 먹어야 좋다[본초].

(39) 『동의보감』 <內景篇 : 大腸腑 ◎ 牛乳>

利大腸作粥常服或生飲之亦佳 『本草』

우유(牛乳, 소젖)

대변을 잘 통하게 한다. 늘 죽을 쑀어 먹거나 생것을 마셔도 좋다[본초].

(40) 『동의보감』 <內景篇 : 三焦腑 ◎ 牛髓>

平三焦以酒和服 『本草』

우수(牛髓, 소의 골수)

초를 편안하게 하는데 술에 타서 먹는다[본초].

(41) 『동의보감』 <內景篇 : 胞 ◎ 牛角觿>

止血崩不止及赤白帶下燒灰酒下二錢或作丸服 『本草』

우각새(牛角觿, 소뿔속뼈)

혈붕이 멎지 않는 것과 별경고 흰이슬이 흐르는 것을 멎게 한다. 태워 가루를 내어 한번에 8g씩 술에 타서 먹거나 알약을 만들어 먹는다[본초].

(42) 『동의보감』 <內景篇 : 小便 ◎ 牛尿>

利小便療小便不通取熟雄牛尿飲之 『本草』

우뇨(牛尿)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소변을 잘 나오게 치료하는 것은 수소의 뜨거운 오줌을 먹으면 된다[본초].

(43) 『동의보감』 <內景篇 : 大便 ◎ 氣痢>

氣痢狀如蟹渤拘急獨甚宜茱連丸(方見上)氣痢丸牛乳湯

기리(氣痢)

기리라는 것은 게거품[蟹渤] 같은 것을 설사하고 속이 썩기며[拘急] 뒤가 몹시 무직한 것이다. 이때에는 수련환(茱連丸, 처방은 위에 있다), 기리환, 우유탕 등을 쓴다.

(44) 『동의보감』 <內景篇 : 大便 ◎ 牛乳湯>

治氣痢蕞撥二錢剉牛乳半升右同煎減半空心服 『得效』

○ 唐太宗苦氣痢百方不差有衛士進此方服之即愈 『醫說』

우유탕(牛乳湯)

기리를 치료한다. 필발(썩 것) 8g, 소젖(우유) 반 되. 위의 약들을 함께 넣고 절반이 되게 달여 빈속에 먹는다[득효].

○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기리에 걸렸는데 온갖 약을 썼으나 효과가 없었다. 그리하여

의사가 이 약을 주니 곧 나았다[의설].

(45) 『동의보감』 <內景篇：大便 ◎ 大便秘結>

○ 有熱燥風燥陽結陰結經曰結者散之治法陽結者散之陰結者溫之陽結宜大黃牽牛散陰結宜半硫丸 『東垣』

변비[大便秘結]

○ 열조(熱燥), 풍조(風燥), 양결(陽結), 음결(陰結)이 있다. 『경(經)』에 “맺힌[結] 것은 헤쳐야[散] 한다”고 써어 있다. 그러므로 치료할 때에 양결이면 헤쳐 주는 약을 쓰고 음결이면 따뜻하게 하는 약을 써야 한다. 그러므로 양결에는 대황견우산을 쓰고 음결에는 반류환을 쓴다[동원].

(46) 『동의보감』 <內景篇：大便 ◎ 牛肝>

治痢醋煮食之 『本草』

우간(牛肝, 소의 간)

이질을 치료하는데 식초를 두고 끓여 먹는다[본초].

(47) 『동의보감』 <內景篇：大便 ◎ 牛角觭>

主赤白痢及冷痢瀉血燒存性爲末溫酒或米飲調下二錢或蜜和作丸服之 『本草』

우각새(牛角觭, 소뿔속뼈)

적백리(赤白痢)와 냉리(冷痢), 혈설[瀉血]을 주로 치료한다. 약성이 남게 태워 가루 내어 한번에 8g씩 데운 술이나 미음에 타서 먹거나 꿀에 반죽하여 알약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본초].

(48) 『동의보감』 <外形篇：頭 ◎ 黃牛腦髓>

治偏正頭痛取髓一箇入白芷川芎末各三錢同入磁器內加酒煮熟乘熱服之盡量一醉醒後其疾如失 『入門』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황우뇌수(黃牛腦髓, 누런 소의 골)

편두통(偏頭痛), 정두통(正頭痛)을 치료한다. 골 1마리 분을 구릿대(백지)와 궁궁이(천궁) 가루 각각 12g을 사기그릇에 담은 다음 술을 붓고 폭 달여서 따뜻할 때 마음껏 먹고 취했다가 깨어나면 병이 낫는다[입문].

### (49) 『동의보감』 <外形篇 : 面 ◎ 一方>

被打頭面青腫羊肉牛肉或猪肉灸令熱貼腫上即愈 『本草』

한 가지 처방

맞아서 머리카락이 퍼렇게 멍이 진 데는 양고기나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뜨겁게 구워서 붙이면 곧 낫는다[본초].

### (50) 『동의보감』 <外形篇 : 眼 ◎ 墜腎丸>

治內障有腎青羊膽青魚膽鯉魚膽各七箇熊膽二錢半牛膽五錢麝香三分石決明水飛末一兩右末麪糊和丸梧子大空心茶清下十丸無青魚膽則獺膽三枚代之無則代猪膽一 『綱目』

추예환(墜腎丸)

내장(內障)으로 예막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푸른 양의 쓸개(青羊膽), 청어쓸개(青魚膽), 잉어쓸개(鯉魚膽) 각각 7개, 곰쓸개(웅담) 10g, 소쓸개(우담) 20g, 사향 1.2g, 전복껍질(석결명, 수비한 것) 40g. 위의 약들을 가루를 내어 밀가루풀에 반죽해서 벽오동씨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10알씩 빈속에 차물로 먹는다[입문].

### (51) 『동의보감』 <外形篇 : 面 ◎ 肝虛雀目>

雀目者日落即不見物也 『綱目』

○ 牛肝作膳食之妙 『俗方』

간허작목(肝虛雀目)

작목(雀目)이라는 것은 해가 지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강목].

○ 소간으로 회를 만들어 먹어도 좋다[속방].



(52) 『동의보감』 <外形篇：面 ◎ 眯目飛塵飛絲>

○ 諸物眯目牛筋槌擘如絲着睛上輕按之自出又以新筆蘸繳出之又好墨磨汁點眼中立出『綱目』

눈에 티나 먼지, 연가시가 들어간 것[眯目飛塵飛絲]

○ 어떤 것이 눈에 들어가 나오지 않다가도 소의 힘줄을 두드려 실처럼 만든 것으로 살살 훑쳐 내면 절로 나온다. 또 새 붓에 묻혀 내기도 한다. 또는 좋은 먹을 갈아 눈에 넣어도 곧 나온다[강목].

(53) 『동의보감』 <外形篇：面 ◎ 小兒通睛>

嬰兒雙眼睛通者欲觀東邊則見西邊若振掉頭腦則睛方轉此肝受驚風宜服牛黃丸『入門』

소아통정(小兒通睛)

갓난아이의 두 눈알이 서로 모여져서 동쪽을 보려할 때에는 눈알이 서쪽으로 돌아가고 또 머리를 흔들어야 눈알이 도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간이 경풍(驚風)을 받은 것이다. 우황환을 먹이는 것이 좋다[입문].

(54) 『동의보감』 <外形篇：面 ◎ 五膽膏>

治眼昏常見黑花欲成內障青羊膽一枚黃牛膽汁一合熊膽二錢半鯉魚膽七錢半烏雞膽五枚牛黃五錢右爲末先將諸膽相和次入牛黃末攪勻銀石器內慢火熬成膏食後溫酒調下半錢仍將少許點眼中『類聚』

오담고(五膽膏)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늘 검은 꽃무늬 같은 것이 나타나면서 내장(內障)이 되려는 것을 치료한다. 푸른 양의 쓸개(青羊膽) 1개, 누런 소의 담즙(黃牛膽汁) 1홉, 웅담 10g, 잉어쓸개(鯉魚膽) 30g, 뼈 검은 닭의 쓸개(烏雞膽) 5개, 우황 20g. 위의 약에서 여러 가지 담즙을 한 데 푼 다음 우황을 가루를 내어 넣고 고루 저어서 은그릇이나 돌그릇에 담아 약한 불에 졸여 고약을 만든다. 한번에 2g씩 데운 술에 타서 끼니 뒤에 먹고 조금 떼어서 눈에 넣는다 [유취].

(55) 『동의보감』 <外形篇：面 ◎ 牛肝>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明目作膾食之煮食亦可小兒雀目生食之

○ 烏牛膽明目可點之 『本草』

우간(牛肝, 소간)

눈을 밝아지게 하는데 회를 만들어 먹거나 삶아 먹어도 좋다. 어린이의 밤눈증에는 생것으로 먹인다.

○ 검정소의 담즙은 눈을 밝아지게 하므로 눈에 넣으면 좋다[본초].

### (56) 『동의보감』 <外形篇 : 面 ◎ 加減龍薈丸>

治痰火上升耳鳴草龍膽酒洗當歸酒洗梔子炒黃芩青皮各一兩大黃酒蒸青黛柴胡各五錢  
蘆薈牛膽南星各三錢木香二錢半麝香五分右爲末神麴糊和丸菉豆大薑湯下二十丸日三服  
七日後用鍼砂酒以通其氣 『醫鑑』

가감용회환(加減龍薈丸)

담화가 치밀어 올라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치료한다. 용담초(술에 씻은 것), 당귀(술에 씻은 것), 산치자(닭은 것), 속썩은풀(황금), 선굴껍질(청피) 각각 40g, 대황(술에 축여 찌른 것), 청대, 시호 각각 20g, 노회, 우담남성 각각 12g, 목향 10g, 사향 2g. 위의 약들을 가루를 내어 약누룩풀에 반죽해서 녹두알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20알씩 하루 세번 생강을 달인 물로 7일 동안 먹고 침사주(鍼砂酒)를 먹어 약 기운이 통하게 해야 한다[의감].

### (57) 『동의보감』 <外形篇 : 面 ◎ 龍膽湯>

忿怒動膽火致左耳聾黃連黃芩梔子當歸陳皮牛膽南星各一錢草龍膽香附子各八分玄參七分青黛木香各五分乾薑炒黑三分右剉作一貼入薑三片水煎入玄明粉三分服 『回春』

용담탕(龍膽湯)

성을 내서 담화(膽火)가 동하여 왼쪽 귀가 먹은 것을 치료한다. 황련, 속썩은풀(황금), 산치자, 당귀, 굴껍질(陳皮), 우담남성 각각 4g, 용담초, 향부자 각각 3.2g, 현삼 2.8g, 청대, 목향 각각 2g, 건강(거멓게 닭은 것) 1.2g. 위의 약들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과 함께 물에 달인 다음 현명분 1.2g을 넣어서 먹는다[회춘].

### (58) 『동의보감』 <外形篇 : 面 ◎ 諸蟲入耳>

○ 驢乳牛乳灌入耳亦即出 『丹心』

귀에 여러 가지 벌레가 들어간 것[諸蟲入耳]

○ 당나귀젖(驢乳)이나 소젖을 귀에 넣어도 곧 나온다[단심].

### (59) 『동의보감』 <外形篇：面 ◎ 諸蟲入耳>

○ 牛酪或驢乳灌耳中當消成水 『本草』

○ 猪脂或牛脂或肉灸令香安耳孔虫自出 『本草』

귀에 여러 가지 벌레가 들어간 것[諸蟲入耳]

○ 졸인 소젖(牛酪)이나 당나귀젖(驢乳)을 귓구멍에 넣으면 반드시 벌레가 녹아서 물이 된다[본초].

○ 돼지비계(猪脂)나 소기름(牛脂)이나 쇠고기를 고소하게 구워서 귓구멍을 막으면 벌레가 저절로 나온다[본초].

### (60) 『동의보감』 <外形篇：口舌 ◎ 青黛散>

治重舌黃連黃栢各三錢青黛馬牙硝朱砂各六分雄黃牛黃鵬砂各三分龍腦一分右爲末先以薄荷汁拭口中以藥末摻之咽瘡腫亦佳 『入門』

청대산(靑黛散)

중설(重舌)을 치료한다. 황련, 황백 각각 12g, 청대, 마아초, 주사 각각 2.4g, 석웅황(웅황), 우황, 봉사 각각 1.2g, 용뇌 0.4g. 위의 약들을 가루를 내어 먼저 박하즙으로 입 안을 씻어 낸 다음 뿌린다. 목구멍이 헐고 부은 데도 좋다[입문].

### (61) 『동의보감』 <外形篇：牙齒 ◎ 牛齒>

固牙齒取殺牛齒三十枚火煨爲末取二錢水煎熱漱冷吐且以末擦之搖動者皆堅牢 『本草』

우치(牛齒, 소 이빨)

이빨을 든든하게 하는데 소 이빨 30개를 불에 달구었다가 가루를 내어 8g을 물에 달여서 뜨거울 때에 양치하는데 식으면 뱉어 버린다. 또는 가루를 이빨에 문질러도 흔들리던 것이 모두 든든해진다[본초].

(62) 『동의보감』 <外形篇 : 咽喉 ◎ 單乳蛾雙乳蛾喉痺>

○ 喉痺者謂喉中呼吸不通言語不出而天氣閉塞也 『綱目』

○ 宜用如聖勝金錠解毒雄黃元牛黃涼膈元七寶散膽礬散鷄內金散備急丹龍腦膏青龍膽吹喉散實火宜清涼散虛火加味四物湯

단유아, 쌍유아, 후비(單乳蛾雙乳蛾喉痺)

○ 후비라는 것은 목구멍으로 숨이 잘 통하지 못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천기(天氣)가 막혔기 때문이다[강목].

○ 여성승금정, 해독옹황원, 우황양격원, 칠보산, 담반산, 계내금산, 비급단, 용뇌고, 청룡담, 취후산 등을 쓴다. 실화(實火)에는 청량산, 허화(虛火)에는 가미사물탕을 쓴다.

(63) 『동의보감』 <外形篇 : 咽喉 ◎ 牛黃涼膈元>

治咽喉腫痛口舌生瘡頰赤腫熱痰壅塞馬牙疳寒水石煨石膏煨各二兩甘草燼一兩牛膽南星七錢半紫石英煨水飛五錢牛黃龍腦麝香各二錢半右爲末蜜和兩作三十丸每一丸薄荷湯嚥下 『局方』

우황양격원(牛黃涼膈元)

인후가 부으면서 아프고 입 안과 혀가 혈며 뺨이 벌겋게 붓고 열이 나면서 가래가 막히는 것을 치료한다. 마아초, 한수석(달군 것), 석고(달군 것) 각각 80g, 감초(뒹은 것) 40g, 우담남성 30g, 자석영(달구어 수비한 것) 20g, 우황, 용뇌, 사향 각각 10g. 위의 약들을 가루를 내어 꿀에 반죽해서 40g으로 알약 30알씩 만든다. 한번에 1알씩 박하를 달인 물로 먹는다 [국방].

(64) 『동의보감』 <外形篇 : 咽喉 ◎ 備急丹>

治咽喉閉青黛芒硝白僵蠶各一兩甘草四兩右爲末臘月牛膽有黃者盛藥蔭四十九日爲末吹入喉中神效 『綱目』

비급단(備急丹)

인후(咽喉)가 막힌 것을 치료한다. 청대, 망초, 백강잠 각각 40g, 감초 160g. 위의 약들을 가루를 내어 음력 선달에 잡은 소의 담낭(牛膽, 우황이 생긴 것)에 넣어서 49일 동안 그늘에 말린다. 이것을 가루를 내서 목 안에 붙여넣으면 잘 낫는다[강목].

(65) 『동의보감』 <外形篇：咽喉 ◎ 引鯁法>

鯁在咽不下聚牛筋或鹿筋漬之索緊令大如彈丸持筋端吞之候至鯁處徐徐引之鯁着筋卽出『本草』

목에 걸린 뼈를 나오게 하는 방법[引鯁法]

목에 뼈가 걸려서 내려가지 않을 때에는 소 힘줄[牛筋]이나 사슴 힘줄[鹿筋]을 물에 담갔다가 꺾어짜서 달걀 노른자위만 하게 만든 다음 한 끝을 잡고 무엇이 걸려 있는 곳까지 당도록 삼켰다가 천천히 당기면 걸렸던 것이 힘줄에 붙어서 곧 나온다[본초].

(66) 『동의보감』 <外形篇：胸 ◎ 牛膽南星>

治結胸久不差狂言大小便不通取牛膽南星末二錢人參湯調服少頃更以熱人參湯投之便尿下黃黑物是效『得效』

우담남성(牛膽南星)

결흉(結胸)이 오래되도록 낫지 않고 미친 소리를 하며 대소변이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우담남성가루 8g을 인삼을 달인 물에 타 먹고 얼마 있다가 또다시 뜨거운 인삼을 달인 물로 먹으면 대소변으로 검누른 것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효과가 있는 것이다[득효].

(67) 『동의보감』 <外形篇：乳 ◎ 牛鼻>

治乳無汁作羹空心食之三兩日有汁下無限『本草』

우비(牛鼻, 소코)

젖이 없는 것을 나오게 한다. 국을 끓여 2-3일 동안 빈속에 먹으면 젖이 잘 나온다[본초].

(68) 『동의보감』 <外形篇：腰 ◎ 萆薢>

主腰痛酒浸服之

○ 又萆薢三兩杜冲一兩搗爲末空心酒服二錢禁食牛肉『本草』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

비해(萆薢)

갑자기 허리가 아픈 것을 치료하는데 술에 담갔다가 우려난 술을 마신다.

○ 또 비해 120g, 두충 40g을 가루를 내어 한번에 8g씩 술에 타서 빈속에 먹는다. 약을 먹을 때 쇠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본초].

### (69) 『동의보감』 <外形篇：皮 ◎ 牛酪>

主丹癰疹取酪和鹽熟煮以摩之即消 『本草』

우락(牛酪, 줄인 젖)

붉은 은진을 치료한다. 줄인 젖(酪)에 소금을 조금 넣어 끓인 다음 바르면 곧 낫는다[본초].

### (70) 『동의보감』 <外形篇：肉 ◎ 疣目>

亦曰口子是人手足忽生如豆或如結筋或五箇或十箇相連而生皆由風邪搏於肌肉而變生也 『類聚』

○ 牛口中涎數塗自落 『資生』

우목(疣目, 물사마귀)

무사마귀는 사람의 손발에 갑자기 콩알 같거나 뭉친 힘줄 같은 것이 5-10개 연달아 생기는데 이것은 모두 풍사(風邪)가 기육(肌肉)에 들어가서 부딪쳐 변해서 생기는 것이다[유취].

○ 소의 침을 자주 바르면 저절로 떨어진다[자생].

### (71) 『동의보감』 <外形篇：肉 ◎ 牛乳>

補虛羸肥健人作粥常食佳 『本草』

우유(牛乳, 소젖)

허하여 몸이 여윈 것을 보하고 살찌게 한다. 우유로 죽을 쑤어 늘 먹는 것이 좋다[본초].

### (72) 『동의보감』 <外形篇：肉 ◎ 黑牛髓>

治瘦病能肥人和地黄汁白蜜等分作煎服之佳 『本草』

흑우수(黑牛髓, 검정소의 골수)

여위는 병을 치료하여 살찌게 한다. 지황즙과 꿀을 각각 같은 양으로 하여 달여 먹으면 좋다[본초].

### (73) 『동의보감』 <外形篇 : 骨 ◎ 牛髓>

填骨髓以酒和服良 『本草』

우수(牛髓, 소의 골수)

골수를 보한다. 소의 골수를 술에 타 먹는 것이 좋다[본초].

### (74) 『동의보감』 <外形篇 : 手 ◎ 五倍子>

治手足皸裂搗爲末調牛腦髓填封即愈 『得效』

오배자(五倍子, 붉나무벌레집)

손발이 트는 것을 치료하는데 가루 내어 소의 골에 개서 트는 곳에 밀어 넣고 잘 싸매면 곧 낫는다[득효].

### (75) 『동의보감』 <外形篇 : 足 ◎ 脚氣禁忌法>

○ 脚氣之病極忌房室勿食生羊魚肉葱蒜韭菹菜酒麪酥油猪鷄鵝鴨惟食粳粟醬豉薑椒及生果子犯禁者病不差 『千金』

각기금기법(脚氣禁忌法)

○ 각기병 때에는 성생활을 아주 주의해야 하며 쇠고기, 양고기, 물고기, 파, 마늘, 부추, 배추, 술, 국수, 졸인 젓(酪), 기름, 돼지고기, 닭고기, 게사니고기(鵞), 오리고기 등을 먹지 말아야 한다. 오직 쌀밥이나 조밥에 간장, 된장, 생강, 후추, 생과실 등만을 먹어야 한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천금].

### (76) 『동의보감』 <外形篇 : 足 ◎ 烏牛尿>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治脚氣水腫取雄牛新尿飲一升小便利則漸消黃牛亦可『本草』

오우뇨(烏牛尿, 검은 소의 오줌)

다리에 부스럼이 났을 때 수소의 아침오줌 1되를 먹이면 좋다. 황소 오줌도 역시 좋다.

### (77) 『동의보감』 <外形篇：毛髮 ◎ 却老烏鬚健陽丹>

能變白鬚髮令黑赤何首烏白何首烏各一斤牛膝八兩以黑豆汁拌蒸三次赤茯苓用牛乳五升白茯苓人乳汁五升各以文武火煮乾各一斤兎絲子破故紙各八兩右爲末蜜丸彈子大每服一丸溫酒化下日二次或生地黄熟地黄各一斤加入尤妙『入門』

각로오수건양단(却老烏鬚健陽丹)

수염과 머리털이 희어진 것을 거뭇게 되게 한다. 적하수오, 은조롱(백하수오) 각각 600g, 쇠무릎(우슬, 검정콩(흑두) 달인 물에 축여 세번 찌른 것) 300g, 벌건솔풍령(적복령, 소꿌(우유) 5되에 넣고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불에 삶아서 말린 것), 흰솔풍령(백복령, 사람젖(人乳汁) 5되에 넣고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불에 삶아서 말린 것) 각각 600g, 새삼씨(토사자), 보골지 각각 300g.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꿀에 반죽해서 달걀 노른자위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1알씩 하루 두 번 데운 술에 타서 먹는다. 여기에 생지황, 쩌지황(숙지황) 각각 600g씩 넣어 쓰면 더 좋다[입문].

### (78) 『동의보감』 <外形篇：前陰 ◎ 牛外腎>

治疝痛牛陰莖灸乾作末溫酒調服『俗方』

○ 婦人陰痒痛悶牛肝或豬肝灸熱納陰中蟲盡出『本草』

우외신(牛外腎, 소의 음경)

산증으로 아픈 것을 치료한다. 소의 음경(牛陰莖)을 구워 말린 다음 가루 내어 데운 술에 타 먹는다[속방].

○ 부인이 음부가 가렵고 아파서 안타까운 데는 소간(牛肝)이나 돼지간(豬肝)을 뜨겁게 구워서 쓰는데 음부 속에 밀어 넣으면 벌레가 다 나온다[본초].

### (79) 『동의보감』 <外形篇：後陰 ◎ 諸痔名目>



痔之名曰牛姦曰鼠姦曰鷄心曰鷄冠曰蓮花曰翻花曰蜂窠曰穿腸曰外痔曰內痔爲狀不一而其因則同焉『正傳』

여러 가지 치질의 이름[諸痔名目]

치질의 이름은 우내(牛姦), 서내(鼠姦), 계심(鷄心), 계관(鷄冠), 연화(蓮花), 번화(翻花), 봉과(蜂窠), 천장(穿腸), 외치(外痔), 내치(內痔) 등이 있는데 그 생김새는 같지 않다. 그러나 원인은 한 가지이다[정전].

## (80) 『동의보감』 <外形篇 : 後陰 ◎ 神應散>

治五痔黃牛角觶一枚槌碎蛇脫皮一條猪牙皂角七箇穿山甲七片猬皮一兩剉右各細剉入缸內黃泥固濟火煨通紅候冷細研爲末臨臥時細爵胡桃仁一箇如糊用好酒一盞送下便睡至五更時以溫酒調下藥末三錢至辰時更進一服雖久病不過三服立效『綱目』

신응산(神應散)

5가지 치질을 치료한다. 누런 소의 뿔 속 뼈(黃牛角觶, 부스러뜨린다) 1개, 뱀허물(사태) 1개, 주염열매(저아조각) 7꼬투리, 천산갑 7쪽, 고슴도치가죽(자위피, 썬 것) 40g. 위의 약들을 잘게 찢어서 단지 안에 넣은 다음 소금을 넣어 이긴 진흙으로 아가리를 잘 싸발라 벌겍게 달구었다가 식힌다. 다음 약을 꺼내어 보드랍게 가루 낸다. 잠잘 무렵에 먼저 호두 1알을 잘 씹어서 좋은 술 1잔으로 넘기고 자다가 새벽에 위의 약 가루를 12g씩 데운 술에 타서 먹고 오전 8시경에 또 한 번 먹어야 한다. 비록 오랜 병이라고 하여도 세 번 넘기지 않아 낫는다[강목].

## (81) 『동의보감』 <外形篇 : 後陰◎ 神應黑玉丹>

治五痔及諸痔猬皮四兩猪懸蹄二十五隻牛角觶三兩亂髮敗棕各二兩槐角一兩半苦練根一兩二錢半雷丸脂麻各一兩右剉碎盛磁缸內火煨存性爲末入乳香五錢麝香二錢和勻酒糊和丸梧子大先爵胡桃肉一枚以溫酒吞下三五十丸空心晚食前三日除根『得效』

신응흑옥단(神應黑玉丹)

5가지 치질을 비롯하여 모든 치질을 치료한다. 고슴도치가죽(자위피) 160g, 돼지발목 위에 달린 발굽(猪懸蹄) 25개, 소뿔속뼈(牛角觶) 120g, 난발, 종려피(敗棕) 각각 80g, 해나무 열매(괴각) 60g, 고련근 50g, 너환, 참깨(호마) 각각 40g. 위의 약들을 짓찧어 사기단지에 담아서 약성이 남게 태워 가루 낸다. 다음 여기에 유향 20g 사향 8g을 넣고 고루 섞어서 술에 쏘 풀에 반죽하여 벽오동 씨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먼저 호두살 1개를 잘 씹어 먹은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다음 한번에 30-50알씩 빈속이나 저녁 끼니 전에 데운 술로 먹는데 3일 동안 쓰면 완전히 낫는다[득효].

### (82) 『동의보감』 <外形篇 : 後陰◎ 活龜丸>

治腸風痔漏大烏龜一箇先以柴火燒熱地以覃盖龜地熱逼出臭屁待屁盡以稗繩都身包縛外用黃泥固濟灰火中煨熟撈起剝淨取肉研如泥其殼用牛骨髓塗灸五七次心透酥乾爲末又用黃連一兩九蒸九晒當歸尾三錢三分爲末和前龜肉擣丸梧子大白湯下五七十丸『入門』

#### 활구환(活龜丸)

장풍(腸風)과 치루를 치료한다. 먼저 땅에 불을 피워 놓아 땅이 뜨겁게 된 다음 여기에 크고 검은 거북(大烏龜)이 1마리를 놓고 가리를 썩워 둔다. 그러면 더운 기운으로 말미암아 거북이가 냄새나는 방귀를 끼게 되는데 방귀를 다 똥 다음 꺼내어 새끼로 온 몸뚱이를 얹어 매서 소금을 넣어 이긴 진흙으로 겉을 잘 싸바른다. 다음 잣불에 묻어 두었다가 익은 다음 흙과 새끼를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살만 발라내서 풀기 있게 간다. 그리고 껍질은 소의 골수를 발라 굵기를 다섯에서 일곱번 하여 골수가 속에까지 배어들어 가게 한 다음 말려서 가루낸다. 그리고 황련 40g을 아홉번 찌고 아홉번 별에 말려서, 당귀(잔뿌리) 13.2g과 함께 가루낸다. 다음 이것을 위의 떡처럼 만든 거북이살(龜肉)에 넣고 반죽해서 벽오동씨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50-70알씩 끓인 물로 먹는다[입문].

### (83) 『동의보감』 <外形篇 : 後陰 ◎ 秘傳神應膏>

治痔漏如神片腦熊膽血竭牛黃乳香沒藥各五分右爲末蝸牛取肉擣成稀膏每夜洗淨拭乾將此膏搽上患處數遍卽愈宜磁罐收貯不要乾了『回春』

#### 비전신응고(秘傳神應膏)

치루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좋다. 용뇌, 곰열(웅담), 혈갈, 우황, 유황, 몰약 각각 2g. 위의 약들을 가루내고 달팽이(와우)살을 발라내서 함께 넣고 짓찧어 무른 고약처럼 만든다. 매일 밤 아픈 곳을 깨끗하게 씻고 말린 다음 이 고약을 몇 번 붙이면 낫는다. 약은 마르지 않게 사기그릇에 담아 두고 쓰는 것이 좋다[회춘].

### (84) 『동의보감』 <外形篇 : 後陰◎ 上品錠子>

專治十八種痔漏紅磐一兩二錢半信砒火煨五錢乳香沒藥朱砂各二錢半牛黃二分半硃砂

五分熟二分生右爲末麪糊和勻捻成錠子看瘡大小深淺插入竅內如肉內黑色勿上生肌散直待黑肉去盡方上生肌散 『入門』

상품정자(上品錠子)

18가지 치루를 다 치료한다. 홍반 50g, 비상(불에 달군 것) 20g, 유황, 몰약, 주사 각각 10g, 우황 1g, 노사(닭은 것 2g, 생것 0.8g).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밀가루풀에 반죽한 다음 비벼서 치루구멍의 크기와 깊이에 맞게 약심지를 만들어 꽂아 넣는다. 구멍 속에 검은 살이 있을 때에는 생기산을 붙이지 말고 검은 살이 다 없어진 뒤에 붙여야 한다[입문].

### (85) 『동의보감』 <外形篇：後陰 ◎ 獐皮>

痔漏獐膽一箇汁膩粉麝香各少許和入一箇牛膽內懸簷前四十九日旋取如大麥許插入瘡口內追出惡物是驗 『本草』

위피(獐皮, 고슴도치가죽)

○ 치루 때에는 고슴도치열[獐膽] 1개에 경분, 사향 각각 조금씩 넣고 버무려 소의 열[牛膽] 속에 넣어서 처마 밑에 49일 동안 매달아 두었다가 쓰는데 보리알만큼씩 떼내어 치질 구멍에 넣으면 곶은 것이 빠져 나온다. 이것을 실지 경험하였다[본초].

### (86) 『동의보감』 <外形篇：後陰◎ 牛脾>

治諸痔臘月牛脾一具熟食之勿與鹽醬未差再喫 『本草』

우비(牛脾, 소의 기레)

여러 가지 치질을 치료한다. 음력 선달에 잡은 소의 기레 1보를 익혀서 소금과 장을 치지 않고 먹는데 낫지 않으면 다시 먹어야 한다[본초].

### (87) 『동의보감』 <雜病篇：吐 ◎ 倒倉法>

腸胃爲市無物不有而穀爲最多故謂之倉也倒者傾去舊積而滌濯使之潔淨也人之飲食寧無過傷停痰瘀血日積月深中宮不清矣土德不和矣誠於中形於外發爲癰瘕爲勞瘵爲蠱脹爲癰疾爲無名奇病先哲製爲萬病元溫白元等劑攻補兼施非不工巧然不若倒倉之爲便捷也黃牡牛肥肉二十斤或十五斤取長流水於大鍋內煮爛水耗則添熱湯不可用冷水以肉爛成渣融入湯中爲液爲度綿濾去滓取汁再入鍋中文武火熬至琥珀色則成矣每飲一鍾少時又飲如此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積數十鍾冬月則重湯溫飲病在上欲其吐多病在下欲其利多病在中者欲其吐利俱多全在活法視所出之物可盡病根則止其吐利後或渴不得飲湯取自己小便飲一二椀名曰輪迴酒(一名還魂湯)非惟止渴抑且可以滌濯餘垢行後覺飢甚與淡粥食之三日後始與小菜羹半月後覺精神渙發形體輕健沈痼悉安矣其後須五年忌食牛肉夫牛坤土也黃土之色也以順爲德而效法乎健以爲功者牡之用也肉者胃之樂也熟而爲液無形之物也積聚久則形質成依附腸胃回薄曲折處以爲棲泊之窠自非剖腸刮骨之神妙孰能去之豈以合勺銖兩之丸散窺犯其藩墻戶牖乎肉液之散溢腸胃受之有如洪水泛漲其浮莖陳朽皆推逐蕩漾順流而下不可停留表者因吐而汗清道者自吐而涌濁道者自泄而去凡屬滯碍一洗而盡牛肉全重厚和順之性盎然渙然潤澤枯槁補益虛損寧無精神渙發之樂乎方出於西域之至人於中年後可行一二次却疾養壽之一助也『東垣』

○ 未行此法前一月不可近婦人行此法後半年不可近婦人三年勿喫牛肉如性急好色不守禁忌者不可行此法也『丹心』

### 도창법(倒倉法)

장위(腸胃)에는 시장같이 없는 것이 없지만 낱알이 들어와 있는 것이 제일 많다. 그러므로 창(倉)이라고 한다. 도(倒)라는 것은 오랫동안 쌓여 있는 것을 몰아내고 잘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다. 음식에 심하게 상한 일은 없다고 하여도 머물러 있는 담(痰)과 어혈(瘀血)이 날마다 몰려서 여러 달이 되면 비위[中宮]가 깨끗하지[淸] 못하게 되어 소화작용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 속에 병이 있으면 밖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반신불수, 고창(蠱脹), 전질(癲疾), 이름 모를 기이한 병들이 생긴 데는 선철(先哲)들이 만든 만병원(萬病元)과 온백원(溫白元) 등으로 사[攻]하고 보[補]하는 것을 겸하여 해야 많은 효과를 본다. 그러나 도창법(倒倉法)을 쓰는 것보다 빠르지 못하다. 살전 황소의 고기[黃牝牛肥肉] 12kg, 또는 9kg을 큰 가마에 넣고 강물을 부은 다음 삶는데 물이 다 줄어들면 다시 끓는 물을 더 붓고 삶는다. 찬물은 넣지 말아야 한다. 고기가 푹 삶아져서 끓는 물에 넣으면 다 풀어질 정도가 되었을 때 무명자루에 넣고 짜서 국물[汁]을 받아 다시 가마에 넣는다. 다음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불에 호박빛이 나도록 졸인다. 먹는 법은 다음과 같다. 한번에 1종지씩 먹되 조금 있다가 또 먹고 조금 있다가 또 먹어서 수십 종지를 먹는다. 겨울에는 중탕(重湯)하여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 한다. 병이 상초[上]에 있으면 몹시 토하게 하고 몹시 설사도 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원만 하게 해야 한다. 그 다음 나온 것을 보아서 병의 근원이 빠졌으면 토하는 것과 설사를 멎게 해야 한다. 그리고 혹 갈증이 나도 절대로 끓인 물을 마시지 말고 윤회주(환혼탕) 1-2사발을 마셔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갈증만 멎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장위(腸胃)에 남아 있는 깨끗하지 못한 것도 씻겨 내려간다. 이것을 쓴 다음 배가 몹시 고프면 멀건 죽을 먹어야 한다. 그 다음 3일이 지나서 채소를 조금 넣고 끓인 국을 먹는다. 보름이 지나면 확실히 정신이 깨끗해지고 몸이 거뜨해지며 오래된 고질도 다 낫게 된다. 그 후 5년 동안은 쇠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소는 곧 토[坤土]에 속하고 누런 빛은 토(土)의 빛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의 성질은 순한데 수컷을 쓴 것은 좋은 것을 쓰기 위해서이며 고기는 위(胃)를 좋아지게 하는 것인데 익혀서 즙을 만들었으니 형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적취

(積聚)가 오래되면 실제 형체가 생기는데 이것은 위장의 구비진 곳에 붙어 있으므로 위장을 찢거나 뼈를 깎아 내는 진기한 기술이 아니면 없앨 수 없다. 어떻게 몇 홉, 몇 작, 몇 돈, 몇 량의 환약[丸]이나 산약[散]으로 이런 병의 뿌리를 없앨 수 있겠는가. 고깃국물이 장위(腸胃)에 들어가서는 마치 홍수가 범람하는 것같이 떠도는 것, 걸려 있는 것, 묵은 것, 썩은 것들을 머물러 있지 못하게 확 밀어낸다. 병이 표(表)에 있으면 토하게 하고 탐이 나게 해야 하며 청도(淸道)에 있으면 토하게 하여 없애버리고 탁도(濁道)에 있으면 설사시켜서 없애 버려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체했거나 장애된 것을 한번에 다 씻어 버릴 수 있다. **쇠고기**는 영양분이 많고 성질이 따뜻하고 평순한 것이 완전하므로 든든해지게 하고 생기있게 하며 마른 것을 윤택해지게 하고 허손(虛損)된 것을 보한다[補益]. 그러니 어찌 정신이 좋아지게 하는 훌륭한 효과가 없겠는가. 이 처방은 서역(西域)에 살고 있는 지식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중년 이후에 이 방법을 한 두번 쓰면 병을 낫게 하고 오래 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동원].

○ 이 법을 쓰기 1달 전부터 부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며 이 방법을 쓴 다음에도 반년 동안은 부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3년 동안 **쇠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만약 성질이 급하고 여색을 좋아하여 금기할 것을 지키지 못할 사람은 이 방법을 쓰지 말아야 한다[단심].

## (88) 『동의보감』 <雜病篇：吐 ◎ 霞天膏>

此方卽倒倉古法傳自西域異人黃牯牛一具選純黃肥澤無病纔二三歲者宰取四腿項脊去筋膜將精肉切成塊如栗子大秤四五十斤於靜室大鍋中以長流水不時攪動水耗則旋添熱湯常使水淹肉至五六寸掠去浮沫直至肉爛如泥濾去滓將汁再入小銅鍋用桑柴文武火煮不住手攪不添熱湯只用汁煮漸如稀錫滴水中不散色如琥珀其膏成矣火候最要用心否則壞矣大段每肉十二斤煉膏一斤爲度磁器盛之是名霞天膏也用調藥劑初少漸多沸熱自然融化用和丸劑則每三分 白麪一分同煮成糊或用煉蜜寒天久收若生黴用重湯煮過熱天則冷水窹之可留三日『飛霞』

### 하천고(霞天膏)

이 약을 먹는 것이 바로 옛날 도창법인데 서역(西域)에 사는 어떤 사람이 알려주었다. **황소** 1마리(완전히 누런 빛이고 살이 찢고 병이 없으며 단지 2-3년 밖에 안 되는 것)을 잡아서 4개의 다리와 목덜미, 등심살을 쓰는데 힘줄[筋]과 막(膜)은 버린다. 다음 살만 골라 밤알씩만 하게 썰어서 24-30kg을 조용한 집에서 큰 가마에 넣고 강물을 붓고 삶는다. 물이 줄어들면 끓는 물을 더 붓되 항상 물이 고기 위에서 5-6치 올라오게 부어야 한다. 그리고 뜨는 거품을 걷어 내면서 쇠고기가 이긴 흙같이 되도록 푹 무르게 삶는다. 이것을 베자루에 걸러 찌꺼기를 버린 다음 다시 작은 구리 가마에 넣고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뽕나무 불에 졸이는데 계속 저으면서 졸인다. 그리고 물은 더 두지 말고 고깃국물이 점차 물엿처럼 되고 찬물에 떨어뜨려 보아도 헤쳐지지[散] 않으며 호박빛이 될 때까지 졸여야 한다. 이와 같이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하면 고약[膏]이 다 된 것이다. 졸일 때 불을 잘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조금만 부주의해도 잘못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고기 7.2kg으로 600g 정도 되게 고약을 만들어 사기그릇에 담아 두고 쓰는데 이것을 하친고라고 한다. 이것을 약에 타서 먹는데 처음에는 적게 쓰다가 점차 많이 써야 한다. 고약은 덩히면 저절로 녹는다. 알약을 만들려면 고약과 밀가루를 3:1의 비로 섞어 풀처럼 되게 달여서 만든다. 또는 꿀을 넣어도 된다. 추운 계절에 담가 두면 3일까지는 뒤돌 수 있다[비하].

### (89) 『동의보감』 <雜病篇 : 風 ◎ 風懿>

忽然迷仆舌強不語喉中窒塞噫噫有聲謂之風懿『直指』

○ 風懿者(一作懿)卒倒喎斜不語身軟有汗者生汗不出身直者死由痰水制火閉塞心竅而不語熱者牛黃清心元虛者導痰湯(方見痰飲)『入門』

풍의(風懿)

풍의란 갑자기 정신이 아찔해서 넘어지고 혀가 뻗뻗하여 말을 하지 못하며 목구멍이 막혀서 흑흑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것이다[직지].

○ 풍의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지며 눈과 입이 비뚤어지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때에 몸이 나른하면서 땀이 나면 살고 땀이 나지 않고 몸이 뻗뻗하면 치료하지 못한다. 이것은 담수(痰水)가 화를 억제하고 심궤(心竅)를 막아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열이 있으면 우황청심환을 쓰고 허했으면 도담탕(導痰湯, 처방은 담음문에 있다)을 쓴다[입문].

### (90) 『동의보감』 <雜病篇 : 風 ◎ 風有中血脉中腑中臟之異>

○ 中藏者痰塞昏冒宜至寶丹之類鎮墜或活命金丹牛黃定志丸祛風至寶丹『易老』

중풍에는 중혈맥, 중부, 중장의 차이가 있다[風有中血脉中腑中臟之異]

○ 중장으로 담(痰)이 막혀서 정신이 흐릿해지는 데는 지보단을 써서 진정시키거나 활명금단, 우황정지환, 거풍지보단 등을 쓴다.[역로].

### (91) 『동의보감』 <雜病篇 : 風 ◎ 至寶丹>

治卒中急風不語不省人事及風中藏精神昏冒犀角朱砂雄黃琥珀玳瑁各一兩牛黃五錢龍腦麝香各二錢半銀箔五十片金箔五十片內半爲衣安息香以酒濾去沙土淨一兩熬膏右爲末入安息香膏搜和勻一兩分作四十丸人參湯化下一丸一日二三服<局方>○安息香性硬難化

倉卒難用宜減半代煉蜜爲佳『局方』

#### 지보단(至寶丹)

갑자기 중풍이 되어 말을 잘하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과 5장에 풍이 침범하여 정신이 혼미한 것을 치료한다. 서각, 주사, 석웅황(웅황), 호박, 패모 각각 40g, 우황 20g, 용뇌, 사향 각각 10g, 은박 50장, 금박 50장(절반은 곁에 입힌다). 위의 약들을 가루를 내어 안식향(安息香, 술에 걸러서 모래와 흙을 버리고 깨끗하게 한 것) 40g을 줄여서 만든 고약에 반죽하여 40g으로 알약 40알씩 만든다. 한번에 1알씩 인삼을 달인 물에 풀어서 먹는데 하루에 두세 번 쓴다[국방].

### (92) 『동의보감』 <雜病篇 : 風 ◎ 卒中風救急>

○ 卒中風不省通用至寶丹牛黃清心元龍腦蘇合元(方見氣門)牛黃金虎丹以竹瀝薑汁香油童便調和灌下『俗方』

#### 졸중풍의 구급치료[卒中風救急]

○ 갑자기 풍을 맞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데는 지보단, **우황청심원**, 용뇌소합원(龍腦蘇合元, 처방은 기문에 있다), **우황금호단** 등을 쓰는데 참대기름(죽력)이나 생강즙, 참기름(향유)에 타서 먹인다[속방].

### (93) 『동의보감』 <雜病篇 : 風 ◎ 牛黃清心元>

治卒中風不省人事痰涎壅塞精神昏憤言語蹇澁口眼喎斜手足不遂等證山藥七錢甘草炒五錢人參蒲黃炒神麴炒各二錢半犀角二錢大豆黃卷炒肉桂阿膠炒各一錢七分半白芍藥麥門冬黃芩當歸防風朱砂水飛白朮各一錢半柴胡桔梗杏仁白茯苓川芎各一錢二分半牛黃一錢二分羚羊角麝香龍腦各一錢雄黃八分白歛乾薑炮七分半金箔一百二十箔內四十箔爲衣大棗二十枚蒸取肉研爲膏右爲末棗膏入煉蜜和勻每一兩作十丸金箔爲衣每取一丸溫水化下『醫鑑』

#### 우황청심원(牛黃清心元)

갑자기 풍을 맞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담연(痰涎)이 막혀서 정신이 어렴풋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입과 눈이 비뚤어지며 손발을 잘 쓰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마(산약) 28g, 감초(닭은 것) 20g, 인삼, 부들꽃가루(포황, 닭은 것), 약누룩(신국, 닭은 것) 각각 10g, 서각 8g, 개완두썩(大豆黃卷, 닭은 것), 육계, 갓풀(아교, 닭은 것) 각각 7g, 집합박꽃 뿌리(백작약), 맥문동, 속씨은풀(황금), 당귀, 방풍, 주사(수비한 것), 흰삼주(백출) 각각 6g,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시호, 도라지(길경), 살구씨(행인), 흰솔풍령(백복령), 궁궁이(천궁) 각각 5g, 우황 4.8g, 영양각, 사향, 용뇌 각각 4g, 석웅황(웅황) 3.2g 가위톱(白斂), 건강(싸서 구운 것) 각각 3g, 금박(金箔, 40장은 겹에 입힌다) 120장, 대추(찢서 살만 발라 짓찧어 고약을 만든다) 20알. 위의 약들을 가루를 내서 대추고와 졸인 꿀을 섞은데 넣고 반죽한 다음 40g으로 알약 10알씩 만들어 겹에 금박을 입힌다. 한번에 1알씩 따뜻한 물에 풀어먹는다[의감].

### (94) 『동의보감』 <雜病篇 : 風 ◎ 牛黃金虎丹>

治急中風不省身強口噤鼻乾面黑遍體壯熱汗出如油目睛脣青心神迷悶形體如醉痰涎壅塞胸喉中如拽鉅聲雄黃水飛十五兩白礬枯天竺黃牛膽製南星各二兩五錢天雄炮一兩二錢半膩粉龍腦各五錢牛黃二錢半金箔八十片爲衣右末煉蜜和勻每一兩半分作十丸金箔爲衣每一丸新汲水和灌之扶坐使藥行良久以薄荷汁更化一丸灌之立愈如肥盛體虛多涎有風之人宜常以此藥隨身備急爲妙『局方』

#### 우황금호단(牛黃金虎丹)

갑자기 풍을 맞아[急中風]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이 뻣뻣하며 이를 악물고 코가 마르며 얼굴이 거멓게 되고 온몸에 열(熱)이 몹시 나며 기름 같은 땀이 흐르고 눈을 곧추 뜨며 입술이 퍼렇게 되고 정신이 어렴풋하며 답답하고 몸가짐은 술에 취한 것 같으며 담연(痰涎)이 막혀서 가슴과 목구멍에서 툭질하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것을 치료한다. 석웅황(웅황, 수비한 것) 600g, 백반(구운 것), 천축황(天竺黃), 천남성(소담즙에 법제한 것) 각각 100g, 천웅(싸서 구운 것) 50g, 경분, 용뇌 각각 20g, 우황 10g, 금박 80장(겹에 입힌다).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졸인 꿀에 반죽한 다음 60g으로 알약 10알씩 만들어 겹에 금박을 입힌다. 한번에 1알씩 깨끗한 물에 풀어서 먹인다. 그 다음 한참 동안 붙들어 앓혀 놓아 약 기운이 퍼진 다음 다시 박하즙에 1알을 풀어서 먹이면 곧 낫는다. 만일 살이 쪼으나 몸이 허하고 담연이 많아서 풍기가 있으면 늘 이 약을 구급약으로 준비하여 가지고 있어야 한다[국방].

### (95) 『동의보감』 <雜病篇 : 風 ◎ 解語丸>

治中風語言不正白附子石菖蒲遠志全蝎羌活天麻南星(牛膽製)白僵蠶右等分爲末蜜丸菉豆大每五七十丸薑湯吞下『海藏』

#### 해어환(解語丸)

중풍으로 말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노랑돌쩌귀(백부자), 석창포, 원지, 전갈, 강호리(강활), 천마, 천남성(소담즙에 법제한 것), 백강잠 각각 같은 양. 위의 약들을 가루내서 꿀에 반죽하여 녹두알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50-70알씩 생강을 달인 물로 먹는다[해장].



(96) 『동의보감』 <雜病篇 : 風 ◎ 精神蒙昧>

風中藏昏冒宜用至寶丹牛黃清心元(方並見上)

○ 夢昧者即昏冒茫昧也精神不爽如有物以蒙蔽也『綱目』

○ 中風者多昏冒氣不清利宜四白丹二參丹牛黃定志丸活命金丹祛風至寶丹

정신이 흐릿한 것[精神蒙昧]

5장이 품에 맞아서 정신이 흐릿한 데는 지보단, 우황청심환(牛黃清心丸, 처방은 다 위에 있다)을 쓴다.

○ 정신이 혼미하다는 것은 흐릿하고 어렴풋하다는 것인데 정신이 상쾌하지 못한 것이 마치 머리에 무엇을 덮어씌운 것과 같은 것이다[강목].

○ 중풍 때에는 흔히 정신이 흐릿하면서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데는 사백단, 이삼단, 우황정지환, 활명금단, 거풍지보단을 쓴다.

(97) 『동의보감』 <雜病篇 : 風 ◎ 四白丹>

治中風昏冒能清肺氣養魄竹葉三兩白芷一兩白朮縮砂白茯苓香附子防風川芎人參甘草各五錢羌活獨活薄荷各二錢半細辛知母各二錢藿香白檀各一錢半龍腦牛黃各半錢麝香一字右爲末蜜和每一兩作十丸臨臥細嚼一丸以愈風湯(方見上)送下『易老』

사백단(四白丹)

중풍으로 정신이 흐릿한 것을 치료하는데 폐기(肺氣)를 맑게 하고 정신을 들게 한다. 침죽엽(晁竹葉) 120g, 구릿대(백지) 40g, 흰삼주(백출), 사인, 흰솔풍령(백복령), 향부자, 방풍, 궁궁이(천궁), 인삼, 감초 각각 20g, 강호리(강활), 따두릅(독활), 박하 각각 10g, 족두리풀(세신), 지모 각각 8g, 곽향, 백단향 각각 6g, 용뇌, 우황 각각 2g, 사향 1g. 위의 약들을 가루내서 꿀에 반죽하여 40g으로 알약 10알씩 만든다. 한번에 1알씩 잠잘 무렵에 잘 씹어서 유평탕(愈風湯, 처방은 위에 있다) 달인 물로 넘긴다[역로].

(98) 『동의보감』 <雜病篇 : 風 ◎ 活命金丹>

治風中藏神不清大黃一兩半桂心芒硝各一兩眞珠牛黃青黛犀角薄荷各五錢辰砂四錢內二錢爲衣麝香龍腦各二錢板藍根貫衆乾葛甘草各七錢右爲末蜜水浸蒸餅和勻每兩作十丸就濕以朱砂爲衣再用金箔四十片爲衣每一丸如療風毒茶清化下臘月收合妙『綱目』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 활명금단(活命金丹)

5장이 풍에 맞아서 정신이 맑지 못한 것을 치료한다. 대황 60g, 계심, 망초 각각 40g, 진주, 우황, 청대, 서각, 박하 각각 20g, 주사 16g(8g은 알약 겉에 입힌다), 사향, 용뇌 각각 8g, 판람근(板藍根), 관중, 쑤뽀리(갈근), 감초 각각 28g. 위의 약들을 가루내서 꿀물에 담갔던 증병에 반죽한 다음 40g으로 알약 10알씩 만들어 겉에 주사를 입힌다. 다음 금박 40장으로 알약들에 또 입힌다. 한번에 1알씩 먹는데 풍독(風毒)을 없애려면 찻물에 풀어먹어야 한다. 이 약은 음력 12월에 만들어 두고 쓰는 것이 좋다[강목].

### (99) 『동의보감』 <雜病篇 : 風 ◎ 牛黃定志丸>

治心藏中風昏冒精神不守此藥壓驚鎮心化涎安神朱砂水飛半夏薑製各二兩雄黃水飛天麻烏蛇肉甘草各一兩琥珀七錢半牛黃龍腦全蝎白僵蠶炒白附子炮牛膽製南星各五錢麝香二錢半右爲末蜜丸芡仁大每一丸以人參薄荷湯嚙下『丹心』

### 우황정지환(牛黃定志丸)

심(心)이 풍을 맞아서 정신이 흐릿하거나 없는 것을 치료한다. 이 약은 놀라는 것을 멎게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담연(痰涎)을 삭이고 정신을 안정시킨다. 주사(수비한 것), 끼무릇(반하, 생강에 법제한 것) 각각 80g, 석용황(웅황, 수비한 것), 천마, 오사육(烏蛇肉), 감초 각각 40g, 호박 30g, 우황, 용뇌, 전갈, 백강잠(닭은 것), 노랑돌쩌귀(백부자, 찌서 구운 것), 천남성(소담즙에 법제한 것) 각각 20g, 사향 10g. 위의 약들을 가루내서 꿀에 반죽하여 가시연밥(검인)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1알씩 씹어서 인삼과 박하를 넣고 달인 물로 넘긴다[단심].

### (100) 『동의보감』 <雜病篇 : 風 ◎ 秘方>

治癱瘓如神熟牛骨內髓一椀煉熟蜜一斤二味濾過入炒麪一斤炒乾薑末三兩拌勻如彈子大一日服三四丸細嚙溫酒下大效『回春』

### 비방(秘方)

중풍으로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 데 아주 잘 낫는다. 삶은 소뼈의 골수 1사발, 졸인 꿀(煉熟蜜) 600g. 위의 2가지 약을 걸러 닭은 밀가루 600g, 닭은 건강가루(炒乾薑末) 120g과 함께 넣고 반죽하여 달걀 노른자위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하루 3-4알씩 데운 술로 먹으면 아주 좋다[회춘].

(101) 『동의보감』 <雜病篇：風 ◎ 龍星丹>

治風熱壅痰涎盛昏冒眩暈牛膽南星朱砂各三錢黃芩黃連各二錢全蝎防風薄荷各一錢片腦牛黃麝香各三字加青黛一錢右爲末蜜丸櫻桃大別以朱砂爲衣每一丸嚙化嚥下不拘時『丹心』

용성단(龍星丹)

풍열(風熱)이 물리고 담연(痰涎)이 성해서 정신이 흐릿하고 어지러운 것을 치료한다. 우담남성, 주사 각각 12g, 속썩은풀(황금), 황련 각각 8g, 전갈, 방풍, 박하 각각 4g, 용뇌, 우황, 사향 각각 3g, 청대 4g.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꿀에 반죽한 다음 앵두알만 하게 알약을 만들어 곁에 주사를 입힌다. 한번에 1알씩 아무 때나 입에 머금고 녹여서 먹는다. [단심].

(102) 『동의보감』 <雜病篇：風 ◎ 辟巽錠子>

治一切諸風及破傷風小兒急慢驚風疾朱砂一兩牛膽南星七錢防風川烏天麻川芎白芷人參薄荷木香白朮茯神各五錢牛黃龍腦乾生薑白附子各三錢麝香二錢全蝎二十箇生用白僵蠶二十一箇生用右細末用麻黃一斤甘草八兩蜂蜜二兩煎作膏子入藥末和勻兩作十錠金箔爲衣每一錠溫酒化下『活心』

벽손정자(辟巽錠子)

여러 가지 풍병과 파상풍(破傷風), 어린이의 급경풍(急驚風) 및 만경풍(慢驚風)을 치료한다. 주사 40g, 우담남성 28g, 방풍, 오두(천오), 천마, 궁궁이(천궁), 구릿대(백지), 인삼, 박하, 목향, 흰삼주(백출), 복신 각각 20g, 우황, 용뇌, 건강, 노랑돌쩌귀(백부자) 각각 12g, 사향 8g, 전갈(생것) 20개, 백강잠(생것) 21개. 위의 약들을 보드랍게 가루 낸다. 이것을 마황 600g, 감초 300g, 꿀(봉밀) 80g을 달여 고약을 만든 데 넣고 반죽한 다음 40g으로 10알을 만들어 금박을 곁에 입힌다. 한번에 1알씩 데운 술에 풀어먹는다[활심].

(103) 『동의보감』 <雜病篇：寒(下) ◎ 熱入血室證>

○ 熱入血室其血必結而不行小柴胡加牡丹皮桃仁或小柴胡合四物湯主之牛黃膏亦主之(方見婦人)『入門』

열이 혈실에 들어간 증[熱入血室證]

○ 열이 혈실(血室)에 들어가 피가 멎어서 잘 돌아가지 못하는 데는 소시호탕에 모란뿌리 껍질(목단피)과 복숭아씨(도인)를 더 넣거나 소시호탕에 사물탕을 합쳐서 쓴다. 우황고(牛黃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

膏, 처방은 부인문에 있다)도 좋다[입문].

### (104) 『동의보감』 <雜病篇 : 燥 ◎ 地仙煎>

治同上山藥一斤杵細杏仁一升研細生牛乳一升右同攪勻絞取汁盛磁瓶重湯煮一日酒服一二匙『正傳』

지선전(地仙煎)

위와 같은 증상을 치료한다. 마(서여, 잘 짓찧어 가루낸 것) 600g, 살구씨(행인, 잘 갈아서 가루낸 것) 1되, 소젖(우유, 생것) 1되. 위의 약들을 함께 고루 섞어서 찐 즙을 사기병에 넣어 하루 동안 중탕(重湯)한다. 한번에 1-2숟가락씩 술로 먹는다[정전].

### (105) 『동의보감』 <雜病篇 : 寒(下)◎ 牛酪>

作粥常服最妙『本草』

우락(牛酪, 줄인 젖)

죽을 쑤어 늘 먹는 것이 아주 좋다[본초].

### (106) 『동의보감』 <雜病篇 : 火 ◎ 九味清心元>

治心胸毒熱蒲黃二兩半犀角二兩黃芩一兩半牛黃一兩二錢羚羊角麝香龍腦各一兩石雄黃八錢金箔一千二百箔內四百箔爲衣右爲末蜜和兩作三十丸金箔爲衣每用一丸熟水化服『醫說』

구미청심원(九味清心元)

가슴에 열독(熱毒)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 부들꽃가루(포황) 100g, 서각 80g, 속썩은풀(황금) 60g, 우황 48g, 영양각, 사향, 용뇌 각각 40g, 석웅황(웅황) 32g, 금박(그 가운데서 400장은 알약 겉에 입힌다) 1,200장. 위의 약들을 가루를 내어 꿀로 반죽한 다음 40g으로 30알씩 만들어 금박을 입힌다. 한번에 1알씩 끓인 물로 먹는다[의설].

### (107) 『동의보감』 <雜病篇 : 寒(下) ◎ 妙香丸>

治積熱潮熱解五毒朱砂九錢牛黃龍腦膩紛麝香三錢巴豆三十二箇去皮心膜炒去油熟研金箔九片右合研勻煉黃蠟六錢入白沙蜜少許和勻兩作三十丸每用一丸米飲或凉水吞下取轉下一切惡毒涎如要藥速行以鍼刺一眼子冷水浸少時服其效更速『局方』

#### 묘향환(妙香丸)

적열과 조열(潮熱)을 치료하고 5가지 독기(毒氣)를 푼다. 주사 36g, 우황, 용뇌, 경분, 사향 각각 12g, 파두(깍질과 막과 심을 버리고 기름을 뺀 다음 닦아서 간다) 32알, 금박 9장. 위의 약들을 합하여 고루 간 것에 졸인 황랍 24g을 넣고 좋은 꿀을 약간 넣은 다음 고루 버무려서 40g으로 30개의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1알씩 미음이나 찬물로 먹고 나면 일체 나쁜 독과 담연(痰涎)을 설한다. 만일 빨리 효과를 보려면 1개를 바늘에 꿰어 찬물에 얼마 쬔 담가 두었다가 먹으면 그 효과가 더욱 빠르다[국방].

### (108) 『동의보감』 <雜病篇：寒(下) ◎ 牛乳>

解熱毒除胸中熱生飲之良烏牛乳尤佳『本草』

#### 우유(牛乳, 소젖)

열독을 풀며 가슴에서 열이 나는 것을 없애는 데 소젖을 마시면 좋다. 검정소의 젖이 더욱 좋다[본초].

### (109) 『동의보감』 <雜病篇：內傷 ◎ 萬盃不醉丹>

白葛根四兩鹽水浸一晝夜取出晒乾○白果芽卽銀杏內青芽一兩蜜水浸一日砂鍋內焙乾○細芽茶四兩○菉豆花四兩陰乾○葛花一兩童便浸七日焙○陳皮四兩鹽水浸一日焙○菊花藥未開口菊青朶頭四兩○豌豆花五錢○眞牛黃一錢○青鹽四兩盛牛膽內煮一炷香同膽皮共用○右爲細末用膽(未詳疑是牛膽)和丸梧子大飲酒半醉吞一丸其酒自解再飲時再服如此經午不醉『種杏』

#### 만배불취단(萬盃不醉丹)

칠펙리(갈근, 소금물에 하루 동안 담갔다가 햇볕에 말린 것) 160g, 백과아(白果芽, 즉 은행 속의 푸른 싹이다. 꿀물에 하룻동안 담갔다가 사기냄비에 넣고 약한 불기운에 말린 것) 40g, 좋은 차(細芽茶) 160g, 녹두꽃(그늘에서 말린 것) 160g, 칩꽃(葛花, 동변에 7일 동안 담갔다가 약한 불기운에 말린 것) 40g, 굴껍질(陳皮, 소금물에 하루 동안 담갔다가 약한 불기운에 말린 것) 160g, 국화꽃술(菊花藥未, 즉 피지 않은 국화꽃봉오리이다) 160g, 완두꽃 20g, 좋은 우황(眞牛黃) 4g, 돌소금(청염, 소담즙에 넣어 향불 한 대가 필 동안 끓여 담피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膽皮)까지 쓴다) 160g. 위의 약들을 보드랍게 가루를 내어 합담(잘 모르겠는데 **소의 열인** 듯 싶다)으로 반죽한 다음 벽오동씨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술에 약간 취하였을 때에 1알을 먹으면 술이 깬다. 다시 술을 마시고 취했을 때에는 또 1알을 먹는다. 이와 같이 하면 취하지 않는다[중행].

### (110) 『동의보감』 <雜病篇 : 寒(下) ◎ 還元丹>

治內傷虛損安五藏消百病實精髓固元氣大能令瘦者肥**黃犍牛肉**勿拘多少去筋膜切作菓子大河水洗數遍仍浸一宿再洗數遍水清爲度用好酒同入磁缸內油紙封口用桑柴火煮一晝夜取出焙乾爲末其色如黃沙爲佳焦黑不可用每肉末半斤入後藥一斤蓮肉山藥並葱鹽同炒去葱鹽白茯苓茴香微炒並爲末各四兩右和勻用蒸棗肉研爲膏加好酒入前藥末搜和擣作丸梧子大晒乾透空心溫酒下五七十丸初則日進三服久則止進一服和劑勿用麪糊米飲之類其藥不靈『活人心』

○ 一名返本丸『丹心』

#### 환원단(還元丹)

내상(內傷)으로 허손된 것을 치료한다. 5장(五藏)을 편안하게 하고 온갖 병을 없애며 정수(精髓)를 충실하게 하고 원기(元氣)를 도우며 여윈 사람은 아주 살찌게 한다. **불간 누른 소의 고기(黃犍牛肉)** 힘줄과 막을 버린 것, 적당한 양을 바둑돌만 하게 썰어서 강물에 여러 번 씻는다. 이것을 하룻밤 그 물에 담갔다가 물이 맑아질 때까지 다시 여러 번 씻어서 좋은 술과 같이 사기그릇에 넣고 기름종이로 아가리를 꼭 봉한 다음 뽕나무 불에 하루 동안 달여 꺼내서 약한 불기운에 말린다. 이것을 가루 낸다. 그 빛이 노란 모래와 같으면 좋고 검은 빛이 나면 쓰지 않는다. 한 번에 고기가루 300g에 아래의 약을 600g의 비례로 넣는다), 연밥(연육), 마(산약, 이 2가지를 파, 소금과 같이 담은 다음 파와 소금은 버린다), 흰솔풍령(백복령), 회향(약간 담은 것) 모두 가루를 낸 것 각각 160g. 위의 약들을 고루 섞는다. 먼저 찢 대추살을 짓찧어 고약처럼 만든 다음 좋은 술을 넣는다. 여기에 앞의 약 가루와 고기 가루를 넣고 반죽한 다음 벽오동 씨만 하게 알약을 만들어 햇볕에 말린다. 한 번에 50-70알씩 데운 술로 빈속에 먹는다. 처음에는 하루 세 번씩 먹고 껍 지나서부터는 한 번씩 먹는다. 반죽할 때 밀가루풀과 미음을 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약효가 좋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활인심].

○ 일명 반본환(返本丸)이라고도 한다[단심].

### (112) 『동의보감』 <雜病篇 : 寒(下) ◎ 牛肚>

卽牛臄也主補益脾胃可蒸爛和五味食之『俗方』

우두(牛肚, 소의 위)

즉 우양이다. 주로 비위(脾胃)를 보(補)한다. 이것을 문드러지게 찢 다음 양념을 두고 먹는다[속방].

### (113) 『동의보감』 <雜病篇 : 寒(下) ◎ 牛肝及百葉>

解酒勞生作膾和薑醋食之 『本草』

우간급백엽(牛肝及百葉, 소의 간과 위)

술을 마시고 피로해 하는 것을 풀어준다. 생회를 만들어 생강과 식초를 두고 먹는다[본초].

### (114) 『동의보감』 <雜病篇 : 虛勞 ◎ 虛勞治法>

勞倦之疾百脉空虚非滋潤粘膩之物以養之不能實也古方用鹿角膠阿膠牛乳飴糖酥酪糖蜜人參杏仁當歸熟苧之類正此意耳或者妄施金石燥熱等藥以致氣血乾涸心腎不交故火炎於上爲痰嗽爲咯血爲口乾爲五心熱水走於下爲遺精爲赤白濁爲小便滑數誤矣哉 『直指』

허로 때의 치료법[虛勞治法]

노권병(勞倦病)은 온갖 맥이 허약해졌으므로 눅눅하고 풀기있는 약으로써 보양하지 않으면 실하게 하지 못한다. 옛처방에 녹각교, 갯풀(아교), 소젖(우유), 엿(이당), 졸인 젓, 사탕, 꿀(봉밀), 인삼, 살구씨(행인), 당귀, 찔지황(숙지황) 등을 쓴 것은 이러한 뜻에서이다. 혹 어떤 사람은 함부로 광물성 약과 성질이 조열한 약제 등을 써서 기혈이 줄어들고 심과 신이 서로 교류되지 못하여 화가 위로 떠올라서 가래를 뱉으면서 기침하고 피를 뱉으며 입이 마르고 가슴과 손발바닥에 번열이 나고 신정이 함부로 내려가서 유정(遺精)이 있으며 적탁(赤濁)과 백탁(白濁)이 되며 오줌을 자주 누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직지].

### (115) 『동의보감』 <雜病篇 : 虛勞 ◎ 清神甘露丸>

治虛勞不足大骨枯大肉陷皆治之生地黄汁白蓮藕汁牛乳汁右三味銀石器內熬成膏入人參白朮黃芪黃連五味子胡黃連各等分右爲末和前膏作丸梧子大每五七十丸人參湯下 『綱目』

청신감로환(清神甘露丸)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허로로 허해져서 뼈가 마르고 힘살이 빠진 것을 치료한다. 생지황즙, 흰 연뿌리즙, 소젖 (우유, 이 3가지 약을 은그릇이나 돌그릇에 넣고 졸여 고를 만든다), 인삼, 흰삼주(백출), 단 너삼(황기), 황련, 오미자, 호황련 각각 같은 양. 위의 약들을 가루를 내어 앞의 고와 함께 반죽한 다음 벽오동 씨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50-70알씩 인삼 달인 물로 먹는다 [강목].

### (116) 『동의보감』 <雜病篇 : 虛勞 ◎ 補精膏>

治虛勞益眞氣助胃潤肺山藥八兩另爲末胡桃肉四兩研爲泥杏仁炒四兩另爲末雄牛前脚髓四兩白蜜一斤右髓蜜同煮去滓入三末和勻入缸封固重湯煮半日取出每一匙溫酒調服 『醫林』

#### 보정고(補精膏)

허로를 치료하는데 진기를 보하고 위를 도위며 폐를 윤회하게 한다. 마(산약, 따로 가루를 낸다) 300g, 호두살(찰지게 간 것) 160g, 살구씨(행인, 닦아서 따로 가루를 낸다) 160g, 황 소의 앞다리골수 160g, 꿀(봉밀) 600g. 위의 골수와 꿀을 함께 졸여 찌꺼기를 버린 다음 가루를 낸 3가지 약과 고루 섞어서 단지 안에 넣고 꼭 봉한 뒤에 중탕으로 한나절 달인다. 한번에 1숟가락씩 데운 술에 타 먹는다[의림].

### (117) 『동의보감』 <雜病篇 : 虛勞 ◎ 補髓膏>

治虛勞補精血黃犍牛前脚髓三斤白蜜四斤去滓人參杏仁並另末各四兩胡桃肉五十箇另研爲泥熟地黃蒸爲泥五味子另末各一兩右拌勻盛磁缸重湯煮一伏時取出每服一大匙溫酒下日三次 『醫林』

#### 보수고(補髓膏)

허로를 치료하며 정혈을 보한다. 불간 누른 소의 앞다리골수(黃犍牛脚髓) 1800g, 꿀(봉밀, 찌꺼기를 버린 것) 2400g, 인삼, 살구씨(행인, 다 따로 가루를 낸 것) 각각 160g, 호두살(따로 찰지게 간다) 50개, 찐지황(숙지황, 찌서 찰지게 쪼는다), 오미자(따로 가루를 낸 것) 각각 40g. 위의 약들을 고루 섞어서 사기단지에 넣고 중탕으로 2시간쯤 달인다. 한 번에 큰 숟가락으로 하나씩 하루 세 번 데운 술로 먹는다[의림].

### (118) 『동의보감』 <雜病篇 : 虛勞 ◎ 牛髓>



主五勞七傷補中續絕傷以酒和服之

○ 大病後虛勞不足黃牛乳一升水四升煮取一升稍稍飲『本草』

우수(牛髓, 소의 골수)

주로 5로 7상을 치료하며 중기를 보하고 뼈가 끊어진 것을 이어지게 한다. 골수를 술에 타 먹는다.

○ 중병을 앓은 뒤와 허로로 허해진 데는 누른 소의 젖 1되, 물 4되와 함께 달여 1되가 되면 조금씩 먹는다[본초].

### (119) 『동의보감』 <雜病篇 : 嘔亂 ◎ 牛糞>

治霍亂吐瀉四肢逆冷黃牛糞以水煮濾取清汁頓服一升即止『本草』

우분(牛糞)

### (120) 『동의보감』 <雜病篇 : 嘔吐 ◎ 噎膈反胃治法>

○ 噎膈反胃大率屬血虛氣虛有痰有熱血虛四物湯氣虛四君子湯痰用二陳湯熱用解毒湯(卽黃連解毒湯)氣血俱虛八物湯主之必和以童便竹瀝薑汁薑汁且多飲牛羊乳爲上策但不可以人乳代之蓋有七情烹瀟之火故也切不可用香燥藥宜薄滋味

○ 열격과 반위는 대체로 혈이 허하여 생기는 것, 기가 허하여 생기는 것, 담으로 생기는 것, 열로 생기는 것이 있다. 혈이 허하여 생긴 데는 사물탕(四物湯)을 쓰고 기가 허하여 생긴 데는 사군자탕(四君子湯)을 쓰며 담으로 생긴 데는 이진탕(二陳湯)을 쓰고 열로 생긴 데는 해독탕(解毒湯, 즉 황련해독탕)을 쓴다. 기혈이 다 허한 데는 팔물탕(八物湯)을 쓰는데 반드시 여기에 참대기름(죽력), 부추즙, 생강즙을 타서 쓰고 소젖이나 양의 젖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대신 사람의 젖은 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7정과 더운 음식에는 화(火)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냄새가 향기롭고 성질이 조(燥)한 약은 절대로 쓰지 말며 담박(薄滋)한 음식을 먹어야 좋다.

### (121) 『동의보감』 <雜病篇 : 嘔吐 ◎ 牛乳>

治反胃噎膈要藥韭汁二盞牛乳一盞竹瀝半盞童便一盞生薑半兩取汁右和勻頓服『醫鑑』

○ 一人病反胃大便燥此精血耗竭也先以甘蔗汁煮六君子湯(方見痰門)加附子大黃服且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令飲牛乳勿食諸物半月大便潤而愈 『丹心』

우유(牛乳, 소젖)

○ 반위증과 열격을 치료하는 중요한 약이다. 부추즙 2잔, 소젖 1잔, 참대기름 반잔, 생강 20g으로 낸 즙을 함께 고루 타서 단번에 먹는다[의감].

○ 어떤 사람이 반위증이 있으면서 대변이 굳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정혈(精血)이 몹시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먼저 사탕수수즙으로 육군자탕(六君子湯, 처방은 담음문(痰飲門)에 있다)에 부자, 대황을 넣어서 달여 먹은 다음 소젖만 15일 동안 마시면서 다른 음식은 먹지 않았다. 그랬더니 대변이 묽어지면서 나왔다[단심].

### (122) 『동의보감』 <雜病篇 : 積聚 ◎ 萬病元>

療七種癖塊八種痞病五種癰瘤十種疰忤七種飛尸十二種蠱毒五種黃疸十二種瘡疾十種水病八種大風十二種濕痺及積聚脹滿久遠心腹痛疳蛔寸白諸虫久積痰飲消瘦疲困或婦人子藏中瘀血凝滯因此斷產服此藥以三丸爲一劑不過三劑其病悉除說無窮盡故稱爲萬病元芍藥川椒肉桂芎藭乾薑防風巴豆霜當歸犀角鎔桔梗芫花醋炒赤茯苓人參黃芩黃連桑白皮蒲黃前胡大戟葶藶子炒麝香細辛雄黃朱砂紫苑禹餘糧醋淬研水飛甘遂牛黃各一兩蜈蚣十二節去頭足灸芫青二十八箇糯米同炒米黃色取去翅足口蟻去頭尾足灸四寸右爲末蜜丸小豆大溫水或薑湯下三丸以吐利爲度 『局方』

만병원(萬病元)

7가지 벽괴(癖塊), 8가지 비병(痞病), 5가지 전간(癰瘤), 10가지 주오(疽瘡), 7가지 비시(飛尸), 12가지 고독(蠱毒), 5가지 황달, 12가지 학질, 10가지 수병(水病), 8가지 대풍(大風), 12가지 습비(濕痺) 적취, 창만(脹滿), 오랜 가슴앓이, 감질(疳疾), 회충증[蛔], 촌백충증[寸白] 등 여러 가지 충증, 오랜 적(積), 담음으로 여위고 피곤한 것을 치료한다. 또한 부인이 자궁에 어혈(瘀血)이 막혀서 임신하지 못하는 데도 이 약을 쓴다. 이 약은 3알을 1제로 하여 쓰는데 3제를 쓰지 않아 병이 다 낫는다. 그러니 그 효과를 말로는 다 할 수 없다. 때문에 만병원이라고 한다. 집합박꽃뿌리(작약), 조피열매(천초), 육계, 궁궁이(천궁), 건강, 방풍, 파두상, 당귀, 서각(가루낸 것), 도라지(길경), 원화(식초에 축여 볶은 것), 벌건술풍령(적복령), 인삼, 속썩은풀(황금), 황련, 뽕나무뿌리껍질(상백피), 부들꽃가루(포황), 전호, 버들웃(대극), 꽃다지씨(정력자, 닭은 것), 사향, 족두리풀(세신), 석옹황(옹황), 주사, 자원, 우여량(禹餘糧, 식초에 담갔다가 갈아서 수비한 것), 감수, 우황 각각 40g, 왕지네(오공, 12마디짜리로 대가리와 발을 버리고 구운 것) 1개, 완청, 참쌀과 함께 넣고 쌀이 누렇게 되도록 볶아서 날개와 발을 버린 것) 28개, 도마뱀, 대가리와 꼬리와 발을 버리고 구운 것) 4치. 위의 약들을 가루내서 꿀(봉밀)에 반죽하여 팔알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3알씩 따뜻한 물이나 생강을 달인 물로 먹는데 토하고 설사할 때까지 써야 한다[국방].

(123) 『동의보감』 <雜病篇：脹滿 ◎ 烏牛尿>

治久患氣脹取熱尿空心服一升日一服氣散即止 『本草』

오우뇨(烏牛尿)

(124) 『동의보감』 <雜病篇：消渴 ◎ 消渴有三>

○ 三消多屬血虛不生津液宜以四物湯(方見血門)爲主治上消加人參五味子麥門冬天花粉煎入牛乳汁生地黄汁生藕汁酒客生葛根汁調服

소갈에는 3가지가 있다[消渴有三]

○ 3가지 소갈은 흔히 혈이 허한 데 속하므로 이때에는 진액이 생기지 못한다. 이런 데는 사물탕(四物湯, 처방은 혈문에 있다)을 위주로 쓰는 것이 좋은데 상소 때에는 여기에 인삼, 오미자, 맥문동, 하늘타리뿌리(천화분)를 넣어서 달인 다음 소젖(牛乳汁), 생지황즙, 생연뿌리즙을 넣어 쓴다.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은 생취뿌리즙을 타서 먹는다.

(125) 『동의보감』 <雜病篇：消渴 ◎ 藕汁膏>

治胃熱消中藕汁(白藕尤佳)生地黄汁牛乳汁和黃連天花粉末佐而薑汁白蜜爲膏以匙抄取徐徐留舌上以白湯送下日三四次 『丹心』

우즙고(藕汁膏)

위열(胃熱)로 생긴 소증을 치료한다. 연뿌리즙(흰연뿌리가 더 좋다), 생지황즙, 소젖(우유)에 황련과 하늘타리뿌리(천화분)의 가루를 섞은 다음 여기에 생강즙과 흰꿀(백밀)을 타서 고약을 만든다. 한 번에 숟가락으로 조금씩 먹는데 혀 위에 놓고 끓인 물로 천천히 넘긴다. 하루 3-4번 쓴다[단심].

(126) 『동의보감』 <雜病篇：消渴 ◎ 五汁玉泉丸>

治消渴黃連乾葛天花粉知母麥門冬五味子人參生地黄烏梅肉蓮肉當歸甘草各一兩右爲末另取人乳汁牛乳汁甘蔗汁(無則用砂糖)梨汁藕汁先將各汁入蜜一斤半煎成稀膏後將各藥末和前膏熬五七沸每取五茶匙米飲調下日二三忌辛熱之物 『回春』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 오즙옥천환(五汁玉泉丸)

소갈을 치료한다. 황련, 칩뿌리(갈근), 하늘타리뿌리(천화분), 지모, 맥문동, 오미자, 인삼, 생지황, 오매살(오매육), 연밥(連肉), 당귀, 감초 각각 40g. 위의 약들을 가루낸다. 그리고 따로 젖(人乳汁), 소젖(牛乳汁), 사탕수수즙(甘蔗汁, 없으면 대신 사탕(砂糖)을 쓴다), 배즙(梨汁), 연뿌리즙(藕汁)에 꿀 900g을 넣고 묽은 고약처럼 되게 달인다. 다음 여기에 약가루를 넣고 다시 5-7번 끓여오르게 달여 한번에 약숟가락으로 5개씩 미음에 타서 먹는데 하루 2-3번 쓴다. 맛이 맵고 열이 나게 하는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회춘].

### (127) 『동의보감』 <雜病篇 : 消渴 ● 牛乳>

主消渴取生乳渴則飲之又作酪粥常食亦佳 『本草』

우유(牛乳, 소젖)

### (128) 『동의보감』 <雜病篇 : 黃疸 ● 穀疸>

宜茵陳梔子湯茵陳湯牛黃散子紫金丹穀疸丸小溫中丸大溫中丸鍼砂丸

곡달(穀疸) 치료법

인진차자탕, 인진탕, 우황산자, 자금단, 곡달환, 소온중환, 대온중환, 침사환을 쓴다.

### (129) 『동의보감』 <雜病篇 : 黃疸 ● 穀疸丸>

治冒暑瘧熱食穀不消熱鬱發黃苦參三兩草龍膽一兩人參七錢半梔子仁五錢右爲末牛膽汁(一方用猪膽汁)和丸梧子大以大麥粥飲下五七十丸日二 『入門』

○ 一名苦參元 『得效』

곡달환(穀疸丸)

더위를 먹어 습열이 생겨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열이 몰려서 황달이 된 것을 치료한다. 너삼(고삼) 120g, 용담초 40g, 인삼 30g, 산치자 20g.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우담즙(어떤 처방에는 저담즙)에 반죽하여 벽오동씨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50-70알씩 하루 두 번 보리죽으로 먹는다[입문].

○ 일명 고삼원(苦蔘元)이라고도 한다[득효].

(130) 『동의보감』 <雜病篇：禳法 ◎ 禁忌法>

○ 患瘡人切忌食猪肉牛肉必再發 『本草』

꺼릴 것[禁忌法]/학질

○ 학질은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먹으면 반드시 도진다[본초].

(131) 『동의보감』 <雜病篇：邪杜 ◎ 桃奴元>

治邪祟尸疰客忤魘夢不祥言語錯亂恍惚失常桃奴七箇另研玳瑁鎔細末一兩安息香去滓一兩右三味同入銀石器中熬成膏辰砂犀角各五錢琥珀雄黃各三錢龍腦麝香牛黃各二錢桃仁十四箇麩炒右爲末入安息香膏和丸芡實大陰乾密器封固靜室安置人參湯研下一丸 『正傳』

도노원(桃奴元)

사수(邪祟)와 시주(尸疰), 객오(客忤), 꿈자리가 좋지 않고 허튼 말을 하며 정신이 얼떨떨하여 제정신이 아닌 것을 치료한다. 도노 7개(파로 간다), 대모(보드랍게 가루낸 것) 40g, 안식향(찌꺼기를 버린 것) 40g. 위의 3가지 약을 함께 은이나 돌 그릇에 넣고 달여 고약을 만든다. 다음 주사, 서각 각각 20g, 호박, 석웅황 각각 12g, 용뇌, 사향, 우황 각각 8g, 복숭아씨(도인, 밀기울과 함께 닦은 것) 14개를 가루 내어 안식향을 넣어서 만든 고약에 반죽한 다음 가시연밥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이것을 그늘에서 말리어 그릇에 담고 뚜껑을 잘 막아서 깨끗한 방에 두고 쓰는데 한번에 1알씩 인삼을 달인 물로 먹는다[정전].

(132) 『동의보감』 <雜病篇：邪杜 ◎ 辟邪丹>

治衝惡邪祟怪疾及山谷間九尾狐精爲患人參赤茯苓神遠志鬼箭羽石菖蒲白朮蒼朮當歸各一兩桃奴五錢雄黃朱砂各三錢牛黃麝香各一錢右爲末酒糊和丸龍眼大金箔爲衣每一丸臨臥以木香湯化下諸邪不敢近體更以絳囊盛五七丸懸床帳中尤妙 『入門』

벽사단(辟邪丹)

나쁜 기운에 감촉되어 생긴 사수와 괴질(怪疾), 깊은 산골짜기의 구미호의 정으로 생긴 병을 치료한다. 인삼, 적복신, 원지, 화살나무껍질(귀전우), 석창포, 흰삼주(백출), 삼주(창출), 당귀 각각 40g, 도노 20g, 석웅황(웅황), 주사 각각 12g, 우황, 사향 각각 4g.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술에 쑤 풀에 반죽하여 용안 씨만 하게 알약을 만든 다음 곁에 금박을 입힌다. 한번에 1알씩 잠잘 무렵에 목향을 달인 물로 먹으면 모든 사기가 몸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리고 5~7알을 비단주머니에 넣어서 방 가운데 달아 매어두면 더 좋다[입문].

### (133) 『동의보감』 <雜病篇 : 邪杜 ◎ 牛屎>

抗邪惡氣取塗門戶又常燒之 『本草』

우시(牛屎)

사귀와 악기를 물리치는데 문설주에 바르거나 늘 태운다[본초].

### (134) 『동의보감』 <雜病篇 : 癰疽 (上) ◎ 癰疽瘡口深大方>

深山黃牛糞塞滿瘡內藤紙貼上三四日後去之最妙深山黃牛喫百草故入藥 『直指』

옹저 때 헌데 구멍이 깊고 큰 데 쓰는 약[癰疽瘡口深大方]

깊은 산속에 있는 황우시(黃牛糞)를 헌데 구멍 속에 채워 넣고 그 위에 등지(藤紙)<sup>49)</sup>를 붙였다가 3-4일이 지나서 떼어 버리면 아주 좋다. 깊은 산속에 있는 누렁소는 백 가지 풀을 먹기 때문에 약에 쓴다. [직지].

### (135) 『동의보감』 <雜病篇 : 癰疽 (下) ◎ 疔疽>

疔瘡初發突起如釘蓋故謂之疔近世多見因食自死牛馬禽獸之肉而發或感襲天地暴沴之氣而發或恣食辛辣厚味積毒而發其形有十三種治法皆同初起僅一小瘡殺人於一二日之內比之癰疽尤毒又有紅絲疔魚臍疔其毒尤甚 『入門』

○ 정창이 처음 생길 때 못대加里 같은 것이 도드라져 나오기 때문에 정이라고 한다. 요즘에 와서는 흔히 저절로 죽은 소나 말이나 새 등 짐승의 고기를 먹고 이 병에 걸리는 것이 있다. 혹은 천지의 세찬 기운에 감촉되어도 생기고 맛이 맵고 기름진 음식을 절도 없이 먹어 독이 몰려도 생긴다. 그 형태는 13가지이지만 치료법은 다 같다. 처음 생길 때에는 헌데가 아주 작다. 그러나 1-2일 사이에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옹저보다 더 심하다. 또한 홍사

49) 오래 묵은 등나무껍질로 만든 종이다.

정(紅絲)과 어제정(魚臍)은 독이 더 심하다[입문].

### (136) 『동의보감』 <雜病篇：癰疽(下)◎ 拔療法>

疔瘡有毒根在內須拔去乃可救黑牯牛牽於石上必撒糞候糞上生菌取焙乾與蓍蘘草葉等分爲末用竹筒兩頭去節套在疔上陷入肉內以線緊縛取藥末一匙滴水和之放於筒內少時藥滾起則疔自拔起未效則漸加度數其疔必拔去後以金銀白芷散調之『正傳』

정창의 근을 빼내는 방법[拔療法]

정창 속에는 독이 있는 근(根)이 있으므로 반드시 그것을 빼내야 살 수 있다. 검정암소를 바위 있는 데로 끌고 가면 반드시 똥을 누는데 그 위에 돋은 버섯을 따서 약한 불기운에 말린다. 이것을 진득찰잎(희렴초엽)과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낸다. 그 다음 참대통을 양쪽마디를 잘라서 구멍이 통하게 하여 헌데 위에 씌우되 살이 폭 들어가도록 씌우고 실로 동여맨다. 그 다음 그 참대대롱 속으로 약가루 1술가락을 물에 개어 넣는다. 그러면 좀 있다가 약이 끓어오르면서 정창의 근이 저절로 빠진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약을 좀 더 넣으면서 몇 번 더 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정창의 근이 빠진다. 근이 빠진 다음에는 금은백지산을 써서 조리해야 한다[정전].

### (137) 『동의보감』 <雜病篇：癰疽(下)◎ 調理及禁忌法>

凡癰疽勿食羊鷄牛鵝魚麪煎燂炙炒法酒等味犯之必發熱蓋厚味能引起宿大之熱此誠富貴參養口腹者所宜謹守若冬寒與虛老人寧無權法乎略加滋味以補胃氣庶易收斂『丹心』

○ 옹저 때에는 양고기, 닭고기, 쇠고기, 거위고기, 물고기, 국수, 지지고 볶은 것, 술 등을 삼가야 한다. 만일 삼가지 않으면 반드시 열이 난다. 그것은 기름진 음식이 잠복된 열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잘살면서 늘 잘 먹는 사람은 잘 지켜야 한다. 추운 겨울이나 그리고 허약한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은 기름진 음식을 적당하게 먹어서 위기(衛氣)를 보해주어야 헌데가 빨리 아물게 된다[단심].

### (138) 『동의보감』 <雜病篇：諸瘡◎ 大風瘡>

服藥瘳後終身不得食牛馬驢騾等肉犯者復發必死『得效』

○ 약을 먹고 완전히 나은 다음에도 일생 동안 쇠고기, 말고기, 노새고기, 당나귀고기 등을 먹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것을 금하지 않으면 도져서 반드시 죽는다[득효].

(139) 『동의보감』 <雜病篇 : 諸瘡 ◎ 回生保命丹>

治楊梅天庖頑瘡及輕粉毒筋骨腫痛不拘新久皆效槐花一兩輕粉四錢二分朱砂四錢川芎白芷雄黃各三錢當歸炒二錢丁香血竭孩兒茶各一錢乳香沒藥各五分牛黃四分右爲末棗肉入米粉打糊和丸黍米大用土茯苓一兩牙皂半箇同煎湯吞下日三服 『醫鑑』

회생보명단(回生保命丹)

양매창, 천포창, 완창과 경분독으로 힘줄과 뼈가 부으면서 아픈 것을 치료하는데 갓 생긴 것이나 오래된 것도 다 낫게 한다. 해나무꽃(괴화) 40g, 경분 16.8g, 주사 16g, 궁궁이(천궁), 구릿대(백지), 석옹황(옹황) 각각 12g, 당귀(닭은 것) 8g, 정향, 혈갈, 해아다 각각 4g, 유향, 몰약 각각 2g, 우황 1.6g. 위의 약들을 가루내서 대추살과 쌀가루를 섞어서 쑨 풀에 반죽하여 기장쌀알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우여량 40g, 주염열매(아조) 반 알을 넣고 달인 물로 하루 세 번 먹는다[의감].

(140) 『동의보감』 <雜病篇 : 諸瘡 ◎ 禁忌法>

天庖楊梅瘡忌食牛馬狗肉鷄猪魚生冷及酒麪茶油膩辛熱等物痛斷酒色鹽宜炒食 『回春』

꺼릴 것[禁忌法]/여러 가지 창

천포창, 양매창에는 쇠고기, 말고기, 개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물고기, 생것, 찬 음식, 술, 국수, 차, 기름기 있는 것, 매운 것, 열을 나게 하는 것 등을 먹지 말아야 한다. 특히 술과 성생활을 엄격히 금해야 한다. 그리고 소금은 반드시 댕아서 먹어야 한다[회춘].

(141) 『동의보감』 <雜病篇 : 諸瘡 ◎ 玉脂膏>

治同上牛乳柏油(無則鵝脂代之)香油黃蠟各一兩熔化乃入胡粉二錢輕粉一錢半麝香五分右爲末入內攪勻抹癬上火上烘擦再烘再擦如神 『醫鑑』

옥지고(玉脂膏)

위와 같은 증상을 치료한다. 소젖(우유), 측백나무기름(없으면 대신 거위기름을 쓴다), 참기름, 황랍 각각 40g(다 녹인다), 호분 8g, 경분 6g, 사향 2g.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고루 섞어서 버짐에 바르고 불에 쪄낸 다음 또 바르기를 반복하면 신기한 효과가 있다[의감].



(142) 『동의보감』 <雜病篇：諸瘡 ◎ 含化丹>

治耳項結核酒蒸大黃白僵蠶青黛牛膽南星各等分右爲末蜜丸彈子大食後嚙化一丸『入門』

합화단(合化丹)

귀 밑과 목에 생긴 멍울[耳項結核]을 치료한다. 대황(술에 축여 찢 것), 백강잠, 청대, 우담낭성 각각 같은 양. 위의 약들을 가루내서 꿀에 반죽하여 달걀 노른자위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1알씩 끼니 뒤에 입에 머금고 녹여서 먹는다[입문].

(143) 『동의보감』 <雜病篇：諸瘡 ◎ 疥癬>

五日牛癬如牛領皮厚且堅

개선(疥癬, 옴과 버짐)

다섯째는 우선(牛癬)인데 이때는 피부가 소 목덜미 가죽처럼 두터워지고 튼튼해진다.

(144) 『동의보감』 <雜病篇：諸瘡 ◎ 蝎猫膏>

治牛皮癬全蝎斑猫各十枚巴豆肉二十枚香油一兩右同熬候色焦者先去之去盡三物了乃入黃蠟一錢候熔收貯朝擦暮愈不損皮肉『綱目』

○ 一方治遍身牛皮癬川烏草烏何首烏白芷蘇木各等分右剉入臘猪脂同熬至白芷焦色去滓候冷入鹽少許常挑一匙空心酒調下『得效』

갈묘고(蝎猫膏)

소버짐[牛皮癬]을 치료한다. 전갈, 반묘 각각 10개, 과두살 20개, 참기름 40g. 위의 약들을 함께 넣고 달이는데 거뭇게 된 것부터 건져낸다. 3가지 약을 다 건져낸 다음 황랍 4g을 넣고 녹여서 보관해둔다. 이것을 아침에 바르면 저녁에 낫는데 피부는 조금도 상하지 않는다[강목].

○ 또 한 가지 처방은 온몸에 퍼진 소버짐을 치료하는 것인데 오두(천오), 바꽃(초오), 은조롱(하수오), 구릿대(백지), 소목 각각 같은 양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곱게 찢어서 선달에 잡은 돼지기름에 넣고 구릿대가 검누렇게 되도록 줄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식힌다. 다음 소금을 조금 넣어서 늘 1 숟가락씩 술에 타서 빈속에 먹는다[득효].

(145) 『동의보감』 <雜病篇 : 諸瘡 ◎ 單方>

牛皮癬 久皮鞋底燒灰入輕粉少許油調付 『入門』

단방(單方)

○ 소버집에는 오랜 가죽신 바닥을 거뭇게 태워서 경분 조금과 섞어서 쓰는데 기름에 개어 바른다[입문].

(146) 『동의보감』 <雜病篇 : 諸瘡 ◎ 凍瘡>

足跟凍瘡潰破以川椒煎湯洗刮去腐肉鍼刺出血馬勃末調牛骨髓付之 『綱目』

동창(凍瘡)

○ 발뒤꿈치가 얼어 터져서 헌데가 생겼을 때에는 조피열매(천초)를 달인 물로 씻고 곳은 살을 긁어버린 다음 침으로 찔러 피를 빼내야 한다. 그 다음 말버섯(마발)가루를 소의 골수에 개어 붙여야 한다[강목].

(147) 『동의보감』 <雜病篇 : 諸瘡 ◎ 湯火瘡>

○ 皮脫者酒熬牛皮膠付之

탕화창(湯火瘡)

○ 화상으로 피부가 벗겨졌을 때에는 술에 소가죽을 달여 갇풀을 만들어 붙인다.

(148) 『동의보감』 <雜病篇 : 諸瘡 ◎ 中品錠子>

專治翻花瘡及癰瘤白礬三兩八錢半乳香沒藥各五錢半朱砂三錢牛黃七分半硃砂五分熟五分生硃礬一兩半火煨黑烟止用淡青烟石爲末麪糊和勻捻作錠子量瘡插入 『入門』

중품정자(中品錠子)

주로 번화창(翻花瘡)과 영류(癰瘤)를 치료한다. 백반 154g, 유향, 몰약 각각 22g, 주사 12g, 우황 3g, 노사(절반은 구운 것, 절반은 생것) 4g, 신석(거먼 연기가 나다가 멎고 푸르스름한 연기가 날 때까지 불에 달군 것) 60g.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밀가루풀에 고루 반죽

한 다음 약심지를 만들어 헌데에 맞게 쪼아 넣는다[입문].

### (149) 『동의보감』 <雜病篇：諸傷 ◎ 救急方>

金瘡及諸傷重痛悶欲死取牛一隻剖腹納其人于牛腹浸熱血中可甦如傷腹用血竭末醋湯調飲出血而愈或戰陣砲矢所傷血流滿體氣貫胸膈悶絕者亦甦『入門』○傷重暈絕不省人熱尿多灌卽甦童尿尤好『丹心』

#### 구급치료방법[救急方]

쇠불이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몹시 상하여 아프고 답답해하며 죽은 것같이 되었을 때에는 소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낸 다음 그 속에 상한 사람을 들어앉히되 뜨거운 피에 잠기도록 하면 살아난다. 만일 배가 상하였을 때에는 혈갈을 가루 내어 식초 끓인 물에 타서 먹는데 굵은 피가 나오고 낫는다. 이와 같이 하면 혹 전쟁마당에서 총알이나 화살에 상하여 온 몸에서 피가 나오고 기가 가슴으로 치밀어 올라 까무러친 것도 살릴 수 있다[입문].

### (150) 『동의보감』 <雜病篇：諸傷 ◎ 花藥石散>

治一切金刃斫傷及打撲損傷牛馬咬踢或至死者急於傷處糝藥其血化爲黃水再服藥便活更不疼痛如藏府有瘀血內損煩悶欲死服此藥則化爲黃水或吐出或下泄出花藥石四兩硫黃一兩爲末入瓦罐內鹽泥固濟晒乾安四方塼上以炭火從巳午時煨至經宿候冷取出研細每取一大匙童尿入酒煎熱調服『入門』

#### 화예석산(花藥石散)

여러 가지 날이 선 쇠불이에 상하였거나 소나 말한테 받히었거나 물리었거나 채여서 죽을 것같이 되었을 때 빨리 상처에 이 약을 뿌려주면 피가 누런 물로 된다. 그리고 다시 이 약을 먹이면 곧 살아나고 더 아파하지 않는다. 만일 장부에 어혈이 있어서 안타깝게 답답하며 죽을 것같이 되었을 때 이 약을 먹이면 어혈이 누런 물로 되어 나오는데 토하거나 설사가 나면서 나온다. 화예석 160g, 유황 40g.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질그릇에 넣고 소금물로 이긴 진흙으로 주둥이를 잘 싸 발라 햇볕에 말린 다음 사방에 벽돌을 고이고 숯불로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구워서 식은 다음에 꺼낸다. 이것을 보드랍게 가루 내어 한 번에 큰 숟가락으로 하나씩 술에 달여서 따끈하게 하여 먹는다[입문].

### (151) 『동의보감』 <雜病篇：諸傷 ◎ 牛傷>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牛觸腸出不損者急送入以桑白皮尖或生白麻爲線縫合肚皮縫上糝血竭末或百草霜末血止立活勿封罨恐內作膿<入門>

○ 脇破腸出臭穢急以香油摸腸用手送入煎人參地骨皮湯淋之皮自合喫羊肉羹十日愈『入門』

### 소한테 상한 것[牛傷]

소한테 받히어 뱀이 나왔으나 끊어지지 않았으면 빨리 제자리에 집어넣은 다음 뽕나무뿌리껍질(상백피)이나 흰삼[白麻]으로 만든 실로 뱀가죽을 꿰매고 그 위에 혈갈가루나 백초상가루를 뿌려주어 피를 멎게 하면 곧 살아난다. 그러나 상처를 덮어 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속으로 끓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입문].

○ 소한테 받히어 옆구리가 터져서 뱀이 나와 더러운 냄새가 날 때에는 빨리 참기름을 뱀에 바르고 손으로 제자리에 넣은 다음 인삼과 지골피를 달인 물로 씻으면 터진 가죽이 저절로 아문다. 그 다음 양고기국을 10일 동안 먹으면 낫는다[입문].

## (152) 『동의보감』 <雜病篇 : 解毒 ◎ 太乙紫金丹>

一名紫金錠一名萬病解毒丹治蠱毒挑生毒狐狸鼠莽惡菌河豚死牛馬肉毒山嵐瘴氣毒諸藥『入門』

### 태을자금단(太乙紫金丹)

일명 자금정(紫金錠)이라고도 하고 만병해독단(萬病解毒丹)이라고도 한다. 고독, 도생독(挑生毒), 여우, 삼, 쥐독과 독초, 독버섯, 복아지독, 죽은 소나 말고기의 독, 산람장기독(山嵐氣毒)과 모든 약, 쇠, 돌, 풀, 나무, 새, 짐승 모든 벌레 독 등 여러 가지 독을 받은 것을 치료한다.

## (153) 『동의보감』 <雜病篇 : 解毒 ◎ 馬毒>

開剝死牛馬中毒遍身生紫泡俱潰叫痛急服紫金錠吐瀉即愈『入門』

### 말독에 중독된 것[馬毒]

죽은 소나 말의 가죽을 벗기다가 중독되면 온몸에 자줏빛이 나는 물집이 생겼다가 터지면 서 몹시 아프다. 이런 때에는 곧 자금정(紫金錠)을 먹어서 토하고 설사하면 낫는다[입문].

## (154) 『동의보감』 <雜病篇 : 解毒 ◎ 諸獸肉毒>

○ 食牛羊肉中毒煮甘草汁服一二升<本草>

여러 가지 짐승고기에 중독된 것[諸獸肉毒]

○ 소고기나 양고기를 먹고 중독되었을 때에는 감초를 달인 물 1-2되를 마신다[본초].

### (155) 『동의보감』 <雜病篇：救急 ◎ 雄朱散>

治鬼魘牛黃雄黃各一錢朱砂五分右爲末每挑一錢於床下燒之次挑一錢以酒調灌『入門』

웅주산(雄朱散)

가위에 눌린 것을 치료한다. 우황, 석웅황(웅황) 각각 4g, 주사 2g.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한번에 4g씩 침대 밑에 태우면서 4g을 술에 타서 떠 넣어 준다[입문].

### (156) 『동의보감』 <雜病篇：救急 ◎ 卒死>

救卒死急取半夏末或皂角末吹入鼻中又雄鷄冠血滴入鼻中又牛黃或麝香一錢溫酒調灌卽甦『諸方』

졸사(卒死)

○ 갑자기 죽었을 때에는 반하 가루나 주염열매(조각)가루를 코에 붙여 넣어준다. 또는 수탉의 벼에서 피를 받아 콧구멍에 떨어트린다. 또는 우황이나 사향 4g을 데운 술에 타서 떠 넣어 주면 깨어난다[제방].

### (157) 『동의보감』 <雜病篇：救急 ◎ 救溺水死>

又法將牛一頭將死者腹橫覆在牛背上兩邊用人挾策徐徐而行則水自下亦活『得效』

또 한 가지 방법은 소 1마리를 가져다가 죽은 사람을 그 소의 등 위에 가로 얹어놓고 양쪽에서 붙들고 소를 천천히 걸어가게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하면 물이 저절로 나오고 곧 살아난다[득효].

### (158) 『동의보감』 <雜病篇：怪疾 ◎ 生瘡如櫻癰>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頂上生瘡如櫻桃大有五色瘡破則項皮斷但逐日飲牛乳自消『得效』

앵두같이 생긴 헌데가 나는 것[生瘡如櫻桃]

목에 앵두 같이 생기고 5가지 빛이 나는 헌데가 났다가 터지면 목의 피부가 갈라지는 데는 소젖을 쓰는데 매일 먹으면 저절로 낫는다[득효].

### (159) 『동의보감』 <雜病篇：雜方 ◎ 白茯苓>

善能斷穀不飢

○ 大麥麪(小麥麪亦可)一斤茯苓末四兩以生牛乳和爲方寸餅子煮熟飽食可百日不飢

○ 又白茯苓末四兩白麪二兩右水和得所以黃蠟代油燂成煎餅飽食一頓便絕食三日後飲脂麻湯少潤腸胃『本草』

백복령(白茯苓, 한솔풍령)

곡식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게 한다. 보리가루(大麥, 밀가루도 좋다) 600g과 솔풍령(복령)가루 160g을 소젖(생것)에 반죽하여 사방 1치 크기의 떡을 만들어 삶아 배부르게 먹으면 100일 동안은 배가 고프지 않다.

○ 또는 흰솔풍령(백복령)가루 160g과 흰밀가루 80g을 물에 알맞게 반죽하여 녹인 황랍(기름 대신 쓴다)에 지저서 전병을 만들어 단번에 배가 부르게 먹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참깨 끓인 물을 먹어 장위(腸胃)를 약간 녹여주어야[潤] 한다[본초].

### (160) 『동의보감』 <雜病篇：雜方 ◎ 製牛膽南星法>

南星爲末蠟月取黃牛膽汁拌勻入膽內封口掛當風處陰乾聽用『丹心』

우담낭성을 만드는 방법[製牛膽南星法]

천남성을 가루 내어 음력 선달에 잡은 누렁소의 담즙에 개어 담낭속에 넣고 아가리를 잘 동여맨다. 이것을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려 쓴다[단심].

### (161) 『동의보감』 <雜病篇：雜方 ◎ 山芋粥>

能潤肺益氣山芋生者去皮於石上或新瓦上細磨如泥二合蜜二匙牛乳一鍾(約半升)於慢

火上同炒令極熟乃投白粥一碗中攪勻服之不極熟則辣喉 『活心』

산우죽(山芋粥)

폐를 잘 녹여주고[潤] 기를 보한다. 마(산우)를 생것으로 껍질을 버리고 돌이나 새기와장에 놓고 보드랍고 풀지게 간다. 이것 2홉에 꿀 2순가락과 소젖 1종발(약 5홉)을 한데 넣고 약한 불에 푹 익도록 달여서 흰죽 한사발에 넣고 고루 저어서 먹는다. 잘 익지 않으면 목구멍이 얼얼하다[활심].

## (162) 『동의보감』 <雜病篇 : 婦人 ◎ 催生宜用滑利藥>

凡催生多用滑利迅速之藥如兔腦髓筆頭灰弩牙蛇退之類是也○若水血多下子道乾澁者如猪脂香油蜂蜜醇酒童尿葵子牛乳滑石榆白皮之類是也

아이를 낳게 하는 데는 쉽게 낳게 하는 약을 쓰는 것이 좋다[催生宜用滑利藥]

대체로 아이를 빨리 낳게 하는 데는 흔히 쉽게 낳게 하고 빨리 낳게 하는 약을 써야 한다. 예를 들면 토끼의 뇌수, 붓끝 태운 가루, 노아(弩牙), 뱀허물(사퇴) 등과 같은 약을 말한다.

○ 만일 양수와 피가 많이 흘러서 산도가 마르면 돼지기름(저지), 참기름, 꿀, 좋은 술, 돌아옥씨(규자), 소젖, 곱돌(활석), 느릅나무껍질(유근피) 등과 같은 약들을 써야 한다.

## (163) 『동의보감』 <雜病篇 : 婦人 ◎ 一方>

死胎不下又黃牯牛糞熱塗母腹上卽出 『正傳』

한 가지 처방

태아가 죽어서 나오지 않으면 황고우분(黃牯牛糞)을 뜨겁게 하여 배에 바르면 죽은 태아가 곧 나온다[정전].

## (164) 『동의보감』 <雜病篇 : 婦人 ◎ 產後發熱>

產後血虛熱入血室以致發熱煩躁晝輕夜重或譫語如見鬼或往來寒熱宜用柴胡四物湯涼血地黃湯牛黃膏 『保命』

해산 후에 열이 나는 것[產後發熱]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해산 후에 혈이 허하여 열이 혈실(血室)에 들어가면 열이 나고 번조증이 나는데 낮에는 덜하고 밤이면 심하며 혹 헛것이 보인다고 헛소리하며 추웠다 열이 났다 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때는 시호사물탕(柴胡四物湯), 양혈지황탕(涼血地黃湯), 우황고(牛黃膏) 등을 쓰는 것이 좋다[보명].

### (165) 『동의보감』 <雜病篇 : 婦人 ● 牛黃膏>

治產後熱入血室朱砂鬱金各三錢牛黃二錢半牡丹皮二錢甘草一錢龍腦五分右爲末蜜丸  
皂子大每一丸井水化下 『玉機』

우황고(牛黃膏)

해산 후 열이 혈실에 들어간 것을 치료한다. 주사, 울금 각각 12g, 우황 10g, 모란뿌리껍질(목단피) 8g, 감초 4g, 용뇌 2g.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꿀로 반죽한 다음 주염열매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1알씩 깨끗한 물에 풀어먹는다[옥기].

### (166) 『동의보감』 <雜病篇 : 婦人 ● 小兒>

初生撮口不乳飲取牛黃二分半調竹瀝灌入口中妙

소아(小兒)

태아가 갓 나와서 입을 다물고 젖을 빨지 못할 때에는 우황 1g을 참대기름에 타 먹이면 좋은 효과가 있다.

### (167) 『동의보감』 <雜病篇 : 小兒 ● 撮口>

者面目黃赤氣喘啼聲不出

治法牛黃一錢竹瀝一合調和時抹口中卽差宣風散亦可用 『丹心』

촬구증[撮口]

촬구증은 얼굴이 누르고 붉으며 숨차 하고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 치료법은 우황 4g을 참대기름 1홉에 타서 때때로 입 안에 발라 주면 낫는다. 설흥산(宣風散)도 쓴다[단심].



(168) 『동의보감』 <雜病篇：小兒 ◎ 鎮驚散>

治同上朱砂牛黃麝香各少許右合細研猪乳汁調稀抹入口令嚥下『回春』

진경산(鎮驚散)

위와 같은 증상을 치료한다. 주사, 우황, 사향 각각 조금씩. 위의 약들을 한데 잘 갈아서 돼지젖으로 묽게 갠 다음 입에 발라 빨아먹게 한다[회춘].

(169) 『동의보감』 <雜病篇：小兒 ◎ 溫驚丸>

治急驚虛證牛膽南星四兩天竺黃一兩朱砂一錢半臙脂胚半錢龍腦五分右末牛膽汁和丸芡實大砂糖水下

○一名粉紅丸『錢乙』

온경환(溫驚丸)

허증(虛證)인 급경풍을 치료한다. 우담남성 160g, 천축황 40g, 주사 6g, 연지배 2g, 용뇌 2g.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우담즙으로 반죽한 다음 가시연밥(검인)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이것을 사탕물에 풀어먹인다.

○ 일명 분홍환(粉紅丸)이라고도 한다[전을].

(170) 『동의보감』 <雜病篇：小兒 ◎ 涼驚丸>

治治急驚風黃連一兩草龍膽防風青黛各三錢龍腦五分牛黃麝香各一字右爲末麪糊和丸粟米大每取一二十丸金銀泡湯下『錢乙』

양경환(涼驚丸)

급경풍을 치료한다. 황련 40g, 초롱담, 방풍, 청대 각각 12g, 용뇌 2g, 우황, 사향 각각 1g.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밀가루 풀로 반죽한 다음 좁쌀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10-20알씩 금이나 은을 담가 우린 물로 먹인다[전을].

(171) 『동의보감』 <雜病篇：小兒 ◎ 鎮驚丸>

治急驚風鎮驚寧神退熱化痰牛膽南星五錢朱砂三錢半琥珀天竺黃雄黃各三錢牛黃二錢眞珠一錢麝香半錢金箔十片右爲末麪糊和丸梧子大金箔爲衣薄荷薑蜜湯下五六丸『正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傳』

### 진경환(鎭驚丸)

급경풍을 치료하는데 경련을 진정시키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열을 내리고 담을 삭힌다. 우담남성 20g, 주사 14g, 호박, 천축황, 석옹황(옹황) 각각 12g, 우황 8g, 진주 4g, 사향 2g, 금박 10장.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밀가루 풀로 반죽한 다음 벽오동 씨만 하게 알약을 만들어 금박을 곁에 입힌다. 한번에 5-6알씩 박하와 생강, 꿀을 넣고 달인 물로 먹인다[정전].

### (172) 『동의보감』 <雜病篇：小兒 ◎ 保幼化風丹>

治驚風四證八候去風痰驚熱南星半夏川烏白附子各一兩鬱金五錢右爲末裝入臘月黃牛膽內陰乾百日取出研爲末每一兩入雄黃朱砂鵬砂焰硝各一錢片腦麝香各少許共爲末蜜丸豌豆大燈心薄荷湯研化下一二丸 『醫鑑』

### 보유화풍단(保幼化風丹)

경풍 4증 8후(四證八候)를 치료하는데 풍, 담, 놀라는 것, 열 등을 없앤다. 천남성, 끼무릇(반하), 오두, 노랑돌쩌귀(백부자) 각각 40g, 울금 20g.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음력 선달에 잡은 황소의 담즙 안에 넣어 100일 동안 그늘에서 말려 가루 낸다. 한번에 40g에 석옹황(옹황), 주사, 붕사, 염초 각각 4g, 용뇌, 사향 각각 조금씩 넣고 한데 가루 내어 꿀로 반죽한 다음 완두콩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1-2알씩 꿀풀속살(등심초)과 박하를 두고 달인 물에 풀어먹인다[의감].

### (173) 『동의보감』 <雜病篇：小兒 ◎ 抱龍丸>

治驚風潮搐身熱昏睡能下痰熱乃心肺肝藥也牛膽製南星一兩無膽星則只取生者剉炒熟用之天竺黃五錢雄黃朱砂各二錢半麝香一錢右爲末煮甘草膏和丸皂莢子大(一云芡實大)溫水化下百日內兒一丸作三次服五歲兒一二丸服臘雪水煮甘草和藥尤佳 『錢乙』

### 포룡환(抱龍丸)

경풍으로 일정한 시간에 경련이 일고 몸에 열이 나고 혼곤해서 잠만 자는 것을 치료한다. 담열을 없애는데 심, 폐, 간의 병에 쓰는 약이다. 우담남성 40g (우담남성이 없으면 천남성 생것을 썰어서 볶아 익혀서 쓴다), 천축황 20g, 석옹황(옹황), 주사 각각 10g, 사향 4g.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감초를 달여 고약처럼 된 것으로 반죽한 다음 주염열때만 하게(가시연밥만 하게 한 데도 있다) 알약을 만든다. 100일 전의 어린이에게는 1알씩 세 번 따뜻한 물

에 풀어먹이고 5살 난 어린이에게는 1-2알씩 먹인다. 납설수(臘雪水)에 감초를 넣고 달여 고약을 만들어 반죽하면 더욱 좋다[전을].

#### (174) 『동의보감』 <雜病篇：小兒 ◎ 金箔鎮心丸>

治驚風鎮安心神全蝎七箇以薄荷葉包裹慢火灸乾天麻防風羌活牛黃赤茯苓犀角朱砂麝香甘草各一錢右爲末蜜丸皂子大金箔爲衣每取一二丸薄荷湯化下『入門』

##### 금박진심환(金箔鎮心丸)

경풍을 치료하며 심신을 편안하게 한다. 전갈(박하 잎에 싸서 약한 불에 구워 말린 것) 7개, 천마, 방풍, 강호리(강활), 우황, 벌건솔풍령(적복령), 서각, 주사, 사향, 감초 각각 4g.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꿀로 반죽한 다음 주염열때만 하게 알약을 만들어 금박을 겉에 입힌다. 한번에 1-2알씩 박하 달인 물에 풀어먹인다[입문].

#### (175) 『동의보감』 <雜病篇：小兒 ◎ 保生丹>

治慢驚風朱砂天麻白附子炮白僵蠶炒全蝎微炒各二錢乾薑炮牛黃麝香各一錢右爲末蜜丸麻子大薄荷湯下三丸『直小』

##### 보생단(保生丹)

만경풍을 치료한다. 주사, 천마, 노랑돌쩌귀(백부자, 싸서 구운 것), 백강잠(닭은 것), 전갈(약간 닭은 것) 각각 8g, 건강(싸서 구운 것), 우황, 사향 각각 4g.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꿀로 반죽한 다음 삼 씨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3알씩 박하 달인 물로 먹인다[직소].

#### (176) 『동의보감』 <雜病篇：小兒 ◎ 延生丹>

治同上南星炮二錢半朱砂牛黃羌活各一錢二分半麝香六分蝎梢七枚白僵蠶三枚右爲末棗肉和丸菉豆大薄荷湯化兩丸服之『直小』

##### 연생단(延生丹)

위와 같은 증상을 치료한다. 천남성(싸서 구운 것) 10g, 주사, 우황, 강호리(강활) 각각 5g, 사향 2.4g, 전갈꼬리(닭은 것) 7개, 백강잠 3개.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대추살로 반죽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한 다음 녹두알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2알씩 박하 달인 물에 풀어먹인다[직소].

### (177) 『동의보감』 <雜病篇 : 小兒 ◎ 急慢驚風通治>

宜備急丸牛黃抱龍丸保命丹至聖保命丹千金散星香散朱粉散奪命散探生散

급경풍과 만경풍을 두루 치료하는 약[急慢驚風通治]

비급환, 우황포룡환, 보명단, 지정보명단, 천금산, 성향산, 주분산, 탈명산, 탐생산 등을 쓴다.

### (178) 『동의보감』 <雜病篇 : 小兒 ◎ 牛黃抱龍丸>

治急慢驚風痰嗽潮搐能鎮驚安神牛膽南星一兩天竺黃五錢雄黃辰砂各二錢半麝香眞珠琥珀各一錢牛黃五分金箔十片右細末水煮甘草膏和丸芡實大金箔爲衣每三歲兒服一丸五歲二丸十歲服三五丸薄荷湯化下『醫鑑』

우황포룡환(牛黃抱龍丸)

급경풍과 만경풍으로 담이 있는 기침을 하며 일정한 시간에 경련이 이는 것을 치료한다. 경풍을 진정시키고 정신을 안정시킨다. 우담남성 40g, 천축황 20g, 석용황(용황), 주사 각각 10g, 사향, 진주, 호박 각각 4g, 우황 2g, 금박 10장. 위의 약들을 보드랍게 가루 내어 감초를 물에 두고 달여 고약처럼 만든 것으로 반죽한 다음 가시연밥(검인)만 하게 알약을 만들어 금박으로 옷을 입힌다. 3살 난 어린이에게는 한번에 1알씩, 5살 난 어린이에게는 2알씩, 10살 난 어린이에게는 한번에 3-5알씩 박하 달인 물에 풀어먹인다[의감].

### (179) 『동의보감』 <雜病篇 : 小兒 ◎ 保命丹>

治急慢驚風尚有陽證者常服安神化痰全蝎十四箇防風南星蟬退白僵蠶天麻琥珀各二錢白附子辰砂各一錢麝香五分有熱加牛黃片腦各五分左右爲末粳米飯搗丸皂子大金箔爲衣乳汁或薄荷湯化下一丸『入門』

보명단(保命丹)

급경풍과 만경풍에 아직 양증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 늘 먹으면 정신이 안정되고 담을 삭힌다. 전갈 14개, 방풍, 천남성, 매미허물(선퇴), 백강잠, 천마, 호박 각각 8g, 노랑돌쩌귀(백

부자), 주사 각각 4g, 사향 2g(열이 있으면 우황, 용뇌 각각 2g씩 더 넣는다).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쌀밥과 함께 짓찧어 주염열매만 하게 알약을 만들어 금박을 곁에 입힌다. 한번에 1알씩 젓이나 박하 달인 물에 풀어먹인다[입문].

### (180) 『동의보감』 <雜病篇 : 小兒 ◎ 千金散>

治急慢驚風痰喘雖至死但灌藥下咽即活黃連天麻朱砂各四分全蝎白僵蠶各三分牛膽南星甘草各二分牛黃龍腦各六釐右爲末每用五七釐薄荷燈心湯調下『回春』

#### 천금산(千金散)

급경풍과 만경풍을 치료한다. 담으로 숨이 차서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이라도 이 약을 떠넣어 목구멍에 넘어가기만 하면 곧 살아난다. 황련, 천마, 주사 각각 1.6g, 전갈, 백강잠 각각 1.2g, 우담남성, 감초 각각 0.8g, 우황, 용뇌 각각 0.24g.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한번에 0.2-2.8g씩 박하와 골풀속살(등심초)을 두고 달인 물에 타 먹인다[회춘].

### (181) 『동의보감』 <雜病篇 : 小兒 ◎ 三癰丹>

治急驚爲癰蜈蚣一條牛膽南星二錢全蝎防風白附子遠志蘆薈玄胡索辰砂各一錢麝香一字金銀箔各三片右爲末糊丸梧子大金銀箔爲衣每一丸以薄荷湯化下『錢乙』

#### 삼간단(三癰丹)

급경풍으로 간질이 된 것을 치료한다. 왕지네(오공) 1개, 우담남성 8g, 전갈, 방풍, 노랑돌쩌귀(백부자), 원지, 노회, 현호색, 주사 각각 4g, 사향 1g, 금박, 은박 각각 3장.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폴로 반죽한 다음 벽오동 씨만 하게 알약을 만들어 금박과 은박으로 곁을 입혀 한번에 1알씩 박하 달인 물에 풀어먹인다[전을].

### (182) 『동의보감』 <雜病篇 : 小兒 ◎ 化癖如神散>

治痞塊積聚蟾酥黃蠟各二錢巴豆肉一錢羚羊角末牛黃各五分麝香三分硃砂龍腦各一分右爲末丸如菜子大每用一丸以鍼刺破患處用藥貼上一伏時揭起其痞化膿血出盡而愈『回春』

#### 화벽여신산(化癖如神散)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비괴(痞塊)와 적취(積聚)를 치료한다. 두꺼비진(섬소), 황랍 각각 8g, 파두육 4g, 영양각가루, 우황 각각 2g, 사향 1.2g, 노사, 용뇌 각각 0.4g.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배추 씨만 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1알씩 쓰되 침으로 아픈 곳을 찔러 터뜨린 다음 약을 그 위에 붙여 2시간쯤 지난 후에 떼면 그 비괴가 피고름으로 되어 나오고 낫는다[회춘].

### (183) 『동의보감』 <雜病篇 : 小兒 ◎ 痰涎喘嗽>

馬脾風宜用馬脾風散牛黃奪命散保命丹(方見上)『入門』

담연으로 숨이 차고 기침하는 것[痰涎喘嗽]

○ 마비풍(馬脾風)에는 마비풍산(馬脾風散), 우황탈명산(牛黃奪命散), 보명단(保命丹, 처방은 위에 있다)을 쓰는 것이 좋다[입문].

### (184) 『동의보감』 <雜病篇 : 小兒 ◎ 諸瘡>

小兒口中百病及口瘡重舌重齶喉痺腫塞宜用牛黃散『醫鑑』

제창(諸瘡)

○ 어린이의 입 안에 생긴 온갖 병과 입에 난 헌데, 중설(中舌), 중악(重齶), 후비증(喉痺證)으로 붓고 막힌 데는 우황산(牛黃散)을 쓰는 것이 좋다[의감].

### (185) 『동의보감』 <雜病篇 : 小兒 ◎ 牛黃散>

牛黃片腦鵬砂各一分辰砂雄黃青黛各二分黃連黃栢末各八分焰硝一錢半右末每少許糝之『醫鑑』

우황산(牛黃散)

우황, 용뇌, 봉사 각각 0.4g, 주사, 석용황(웅황), 청대 각각 0.8g, 황련, 황백가루 각각 3.2g, 염초 6g.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한 번에 조금씩 뿌려 준다[의감].

### (186) 『동의보감』 <雜病篇 : 小兒 ◎ 白龍散>

黃牛糞晒乾火煨成灰取中心白者綿裹撲傳之『正傳』

백룡산(白龍散)

황우분(黃牛糞)을 벌레에 말려 태워서 잿가루를 만들어 그 속에서 흰 것만을 무명천으로 싸서 툭툭 치면서 묻혀 준다[정전].

### (187) 『동의보감』 <雜病篇：小兒 ◎ 無比散>

治黑陷焦枯熱毒內熾惡候朱砂二錢半牛黃麝香龍腦膩粉各二分半右爲細末新汲水入小豬尾血三五點同調服小兒二分半大兒五分得睡後利下惡物便安『活人』

무비산(無比散)

흑함으로 몹시 건조하며 열독이 속에 몹시 성해서 좋지 못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치료한다. 주사 10g, 우황, 사향, 용뇌, 경분 각각 1g. 위의 약들을 보드랍게 가루를 내어 새로 길어온 물에 새끼돼지꼬리의 피를 3-5방울 떨어뜨린 다음 그 물에 타 먹이되 작은 아이에게는 1g, 큰 아이에게는 2g을 먹인다. 자고 난 뒤에 못 쓸 것들이 설사로 나오면 편안해진 다[활인].

### (188) 『동의보감』 <雜病篇：小兒 ◎ 一方>

治黑陷牛黃清心元半丸井水調下(方見風門)

○ 烹鼠水溫服『俗方』

또 한 가지 처방(一方)

흑함을 치료한다. 우황청심원(牛黃清心元, 처방은 풍문에 있다) 반 알을 우물물에 풀어먹인다.

○ 쥐고기 삶은 물을 따뜻하게 하여 먹인다[속방].

### (189) 『동의보감』 <雜病篇：小兒 ◎ 牛黃>

治小兒驚癇迷悶目直口噤取牛黃大豆許研和蜜水灌之『本草』

우황(牛黃)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어린이가 경간으로 정신이 혼미하고 눈을 곧추 떠보며 이를 악무는 것을 치료한다. 콩알 만한 우황을 잘 갈아서 꿀물에 타 먹인다[본초].

### (190) 『동의보감』 <雜病篇 : 小兒 ◎ 猪乳汁>

主小兒驚癇天吊取乳三合以綿纏浸入兒口令嚥之或和朱砂牛黃各少許尤效

○ 小兒頭瘡猪膽汁付之

○ 頭生白禿瘡臘猪屎燒末付之 『本草』

저유즙(猪乳汁, 돼지젖)

어린이의 경간(驚癇)과 천조풍(天吊風)을 주로 치료한다. 돼지젖 3홉을 받아 솜으로 적서 어린이의 입에 넣어 빨아 먹게 하거나 주사와 우황을 각각 조금씩 섞어 먹이면 더욱 좋다.

○ 이 어린이의 머리에 난 헌데에는 저담즙을 발라 준다.

○ 머리에 백독창(白禿瘡)이 생긴 데는 설탕에 눈 저분[猪屎]을 불에 태워 가루를 내어 뿌려 준다[본초].

### (192) 『동의보감』 <湯液篇 : 湯液序例 ◎ 心>

溫用當歸芍藥吳茱萸肉桂蒼朮白朮石菖蒲涼用犀角生地黃牛黃竹葉朱砂麥門冬黃連連翹補用遠志茯神天麥門冬兔絲子人參金銀箔炒檉瀉用黃連苦參貝母前胡鬱金

심(心)

더운약으로는 당귀, 집합박꽃뿌리(芍藥), 오수유, 육계, 삼주(蒼朮), 흰삼주(白朮), 석창포를 쓴다. 서늘한 약으로는 서각, 생지황, 우황, 참대잎(竹葉), 주사, 맥문동, 황련, 연교를 쓴다. 보하는 약으로는 원지, 복신, 천문동, 맥문동, 새삼씨(兔絲子), 인삼, 금박, 은박, 닦은 소금(炒鹽)을 쓴다. 사하는 약으로는 황련, 너삼(苦參), 폐모, 전호, 울금을 쓴다.

### (193) 『동의보감』 <湯液篇 : 湯液序例 ◎ 相反藥>

相反爲害甚於相惡者謂彼雖惡我我無忿心猶牛黃惡龍骨而龍骨得牛黃更良此有以制伏故也相反者則彼我交讐必不宜合今盡家用雌黃胡粉相近便自相妬粉得黃卽黑黃得粉亦變此盖相反之證也 『本草』



상반약(相反藥)

상반약을 함께 쓰면 그 해로움이 상오약(相惡藥)을 함께 쓰는 것보다 더하다. 상오라는 것은 그는 나를 싫어하지만 나는 좋지 않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즉 우황은 용골을 싫어하나 용골은 지황을 만나면 더 좋아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센 것을 제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상반이란 그와 나는 서로 원수지간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함께 쓸 수 없다. 지금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자황과 호분을 쓰는데 그것을 한데 섞어 놓으면 곧 저절로 거뭇게 된다. 호분에 자황을 섞어도 곧 거뭇게 되고 자황에 호분을 섞어도 역시 빛이 변한다. 이것이 상반된다는 증거이다[본초].

(194) 『동의보감』 <湯液篇：土部 ◎ 好黃土>

性平味甘無毒主泄痢赤白腹內熱毒絞痛 『本草』

○ 亦解食牛馬肉及肝中毒 『本草』

호황토(好黃土, 좋은 황토)

성질이 평(平)하고 맛이 달며[甘] 독이 없다. 설사와 적백이질[痢赤白], 열독으로 뱃속이 비트는 것같이 아픈 것을 치료한다[본초].

○ 또한 소와 말의 고기나 간을 먹고 중독된 것도 푼다[본초].

(195) 『동의보감』 <湯液篇：土部 ◎ 赤土>

止一切失血殺精物抗鬼魅塗牛馬抗瘟疫 『本草』

○ 卽今好赤土也 『本草』

적토(赤土)

일체의 피를 많이 흘리는 증[失血]을 치료한다. 그리고 헛것[精物]을 없애고 가위에 눌리지 않게 한다. 소나 말한테 발라주면 온역(瘟疫)에 걸리지 않는다[본초]. ○ 이것이 바로 요즘 쓰고 있는 좋은 벌건 흙[好赤土]이다[본초].

(197) 『동의보감』 <湯液篇：人部 ◎ 牛黃>

性平（一云涼）味苦（一云甘）有小毒（一云無毒）安魂定魄除邪逐鬼主狂癲驚悸及中惡療小兒百病 『本草』 ○ 於牛得之陰乾百日使時燥無令見日月光 『本草』 ○ 牛黃入肝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治筋『綱目』○牛有黃者皮毛光澤眼如血色時腹鳴吼又好照水人以盆水承之伺其吐出乃喝迫即墮落水中一箇如喙子黃大重疊可揭析輕虛而芬香者佳『本草』○此物多僞試法各摩爪甲上以透甲黃者爲眞『本草』○喝迫得者名生黃最難得今出屠肆於牛肝膽中得之『本草』

### 우황(牛黃)

성질이 평(平)하고(서늘하다고도 한다) 맛이 쓰며[苦](달다[甘]고도 한다) 독이 약간 있다(독이 없다고도 한다). 정신을 안정시키고 사기와 헛것[鬼]을 없애며 전광[狂癲], 경계(驚悸), 중악(中惡)을 낮게 한다. 또한 어린이의 모든 병도 치료한다[본초].

○ 소한테서 우황을 꺼내어 백날 동안 그늘에 달아 매놓아 천천히 마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햇빛이나 달빛이 비치지 않게 해야 한다[본초].

○ 우황의 기운은 간(肝)으로 들어가므로 힘줄에 생긴 병을 낮게 한다[강목].

○ 우황이 든 소는 가죽과 털이 윤기가 있고 눈에 피가 지며[眼如血色] 때때로 운다. 또한 물을 보기 좋아한다. 동이에 물을 가득 부어서 그것을 소 주둥이 밑에 놓는 다음 소 주둥이를 억지로 벌리고 토하게 하면 달걀 노른자위만한 우황이 물에 떨어진다. 겹겹이 일어나면서 가볍고 퍼석퍼석하며 향기로운 것이 좋은 것이다[본초].

○ 우황에는 가짜가 많은데 시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황을 손톱 위에 놓고 문질렀을 때 손톱 속까지 누렇게 되는 것이 진짜이다[본초].

○ 억지로 토하게 하여 얻은 것을 생우황(生牛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얻기는 대단히 힘들다. 지금은 다 도살장에 가서 소의 담낭(牛肝膽) 속에서 얻는다[본초].

## (198) 『동의보감』 <湯液篇：人部 ◎ 牛肉>

性平(一云溫)味甘無毒(一云微毒)養脾胃止吐泄治消渴消水腫令人強筋骨補益腰脚『本草』○食品黃牛爲佳用乳及屎尿去病者黑牛強于黃牛『本草』○自死肉不可食必生疔瘡『俗方』

### 우육(牛肉, 쇠고기)

성질이 평(平)하고(따뜻하다[溫]고도 한다) 맛이 달며[甘] 독이 없다(독이 약간 있다고도 한다). 비위(脾胃)를 보하고 게우거나 설사하는 것을 멈추며 소갈과 수종(水腫)을 낮게 한다. 또한 힘줄과 뼈, 허리와 다리를 튼튼하게 한다[본초].

○ 고기는 누령소(黃牛)의 것이 좋다. 소젖(牛乳)으로 병을 치료하는 데는 검정소(黑牛)의 것이 누령소의 것보다 낫다[본초].

○ 저절로 죽은 소의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먹으면 반드시 정창(疔瘡)이 생긴다[속방].

(199) 『동의보감』 <湯液篇：人部 ● 牛角料>

性澁味苦甘無毒止血崩赤白帶下療腸風瀉血及血痢

○ 糞土中爛白者燒存性用 『本草』

우각시(牛角)

성질이 습(澁)하고 맛이 달면서[甘] 쓰고[苦] 독이 없다. 혈붕(血崩)과 적백대하를 멈추며 장풍(腸風)으로 피를 쏟는 것과 혈리(血痢)를 치료한다.

○ 약성이 남게 태워 쓴다[본초].

(200) 『동의보감』 <湯液篇：人部 ● 牛腦>

主消渴風眩 『本草』

우뇌(牛腦, 소골)

소갈과 풍현(風眩)을 치료한다[본초].

(201) 『동의보감』 <湯液篇：人部 ● 牛齒>

主小兒驚癇 『本草』

우치(牛齒)

어린이의 경간[小兒驚癇]을 치료한다[본초].

(202) 『동의보감』 <湯液篇：人部 ● 牛耳中垢>

主蛇傷及惡瘡傷 『本草』

우이중구(牛耳中垢)

뱀에게 물린 것과 벌레에게 심하게 물린 상처를 치료한다.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203) 『동의보감』 <湯液篇：人部 ◎ 牛五藏>

主人五藏○肝主明目治痢○心主虛忘○脾治痔○肺治嗽○腎補腎 『本草』

우오장(牛五藏)

사람의 5장병을 치료한다.

○ 간(肝)은 눈을 밝게 하고 이질을 낫게 한다.

○ 염통[心]은 건망증을 낫게 한다.

○ 기레[脾]는 치질을 낫게 한다.

○ 허파[肺]는 기침을 멎게 한다.

○ 콩팥[腎]은 신을 보한다[본초].

### (204) 『동의보감』 <湯液篇：人部 ◎ 牛肚>

良卽胃也俗名櫛補五藏益脾胃止消渴 『本草』

우두(牛痘)

민간에서는 양이라고도 한다. 5장을 보하고 비위(脾胃)를 도우며 소갈을 멎게 한다[본초].

### (205) 『동의보감』 <湯液篇：人部 ◎ 牛膽>

性大寒味苦無毒明目止消渴 『本草』

우담(牛膽)

성질이 몹시 차고[大寒] 맛이 쓰며[苦] 독이 없다. 눈을 밝게 하고 소갈을 멎게 한다[본초].

### (206) 『동의보감』 <湯液篇：人部 ◎ 牛鼻>

止消渴下乳汁 『本草』

우비(牛鼻)

소갈을 멎게 하고 젖이 나오게 한다[본초].

(207) 『동의보감』 <湯液篇：人部 ◎ 牛口中涎>

主反胃嘔吐治瀉 『本草』

우구중연(牛口中涎)

반위(反胃)와 구토 및 목이 잠기는 것을 치료한다.

(208) 『동의보감』 <湯液篇：人部 ◎ 牛口中眸草>

主瀉 『本草』 ○眸筋之

우구중치초(牛口中치草)

재채기를 주로 치료한다.

(209) 『동의보감』 <湯液篇：人部 ◎ 牛骨>

性溫無毒主一切失血諸疾燒存性用 『本草』

우골(牛骨)

성질이 따뜻하고[溫] 독이 없다. 여러 가지 피나는 병[失血]에 쓰는데 약성이 남게 태워서 쓴다[본초].

(210) 『동의보감』 <湯液篇：人部 ◎ 特牛莖>

主婦人漏下赤白無子卽牛陰莖也 『本草』

특우경(特牛莖, 소의 음경)

부인의 적백대하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 쓴다[본초].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

### (211) 『동의보감』 <湯液篇：人部 ◎ 牛尿>

性寒味苦辛無毒主消渴黃疸水腫腹脹脚滿小便不通

○ 烏牛尿佳 『本草』

우뇨(牛尿)

성질이 차고 맛은 쓰고 매우며 독이 없다.

○ 검은 소의 오줌이 좋다.

### (212) 『동의보감』 <湯液篇：人部 ◎ 牛糞>

主水腫及霍亂塗門戶抗惡氣燒之亦抗惡 『本草』

우분(牛糞)

수종(水腫)과 곽란(霍亂)을 치료한다.

### (213) 『동의보감』 <湯液篇：人部 ◎ 阿膠>

○ 煮牛皮作之驢皮膠主風爲最出東阿故名阿膠 『本草』

○ 眞膠極難得寧用黃明牛皮膠蚌粉炒用 『入門』

아교(阿膠)

○ 이것은 소가죽을 고아서 만든 것이다. 나귀가죽으로 만든 갯풀(아교)이 풍증에 제일 좋다. 동아(東阿) 지방에서 만든다고 하여 아교라고 하였다[본초].

○ 진짜 나귀가죽으로 만든 갯풀(아교)은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노랗고 투명한 소가죽아교(牛皮膠)을 쓰는 것이 좋은데 진주조개가루(蚌粉)와 함께 닦아서 써야 한다[입문].

### (214) 『동의보감』 <湯液篇：人部 ◎ 牛乳>

性微寒(一云冷)味甘無毒補虛羸止煩渴潤皮膚養心肺解熱毒 『本草』 ○ 凡服乳必煮一二沸停冷飮之生飮令人痢熱食卽壅又不欲頓服欲得漸消 『本草』 ○ 乳及尿屎去病黑牛勝黃牛 『本草』 ○ 凡乳酪與酸物相反 『本草』

### 우유(牛乳)

성질이 약간 차고[微寒](서늘하다[冷]고도 한다) 맛이 달며[甘] 독이 없다. 허하고 여윈 것(虛羸)을 보하며 번갈(煩渴)을 멎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 또한 심폐(心肺)를 보하고 열독(熱毒)을 푼다[본초].

○ 우유를 먹을 때에는 반드시 1-2번 끓여 오르게 끓여 식혀서 마셔야 한다. 생것을 마시면 이질이 생기고 뜨겁게 하여 먹으면 곧 기가 막힌다. 또한 단숨에 먹지 말고 천천히 먹어야 한다[본초].

○ 우유로 병을 치료하는 데는 검정소(黑牛)의 것을 쓰는 것이 누렁소(黃牛)의 것을 쓰는 것보다 낫다[본초].

○ 젓(乳酪)은 신것[酸物]과는 상반된다[본초].

## (215) 『동의보감』 <湯液篇：人部 ◎ 수락>

○ 融酪醍醐乳腐乃牛乳羊乳馬乳或各或合爲之四種中牛乳爲上羊乳次之馬乳又次之『入門』

### 수락

○ 수락, 제호(醍醐), 유부(乳腐)는 소젖, 양젖, 말젖을 따로따로 혹은 섞어서 만든 것이다. 이 3가지 가운데서 소젖(牛乳)으로 만든 것이 제일이고 양의 젖으로 만든 것은 그 다음이며 말의 젖으로 만든 것은 그 다음이다[입문].

## (216) 『동의보감』 <湯液篇：人部 ◎ 鹿肉>

野肉之中獐鹿可食生不煖腥又不屬十二辰八卦無主兼能補益於人即生死無尤故道家許聽爲脯其餘牛羊豕犬補益充肌膚於亡魂皆爲愆責挂不足啖『本草』

### 녹육(鹿肉)

○ 산짐승 가운데서 노루(獐)와 사슴의 고기를 생것으로 먹을 수 있는데 먹어도 노리지도 비리지도 않다. 또한 12지와 8괘에 속하지도 않는다. 또한 사람에게 유익하기만 하고 생명에는 아무런 해로움이 없다. 그러므로 양생하는 사람들[道家]도 말려서 먹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밖에 소, 양, 개, 닭고기도 원기를 보하고 살과 피부를 든든하게 하지만 후에 나쁘기 때문에 적게 먹어야 한다[본초].

## (217) 『동의보감』 <湯液篇：人部 ◎ 獐肉>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性寒(一云平)療瘟疫時氣及牛馬疫煮屎灌亦良『本草』

달육(獺肉)

○ 온역(瘟疫)과 돌림병[時氣]을 치료한다. 소나 말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수달의 똥을 달여서 그 물을 떠먹이면 좋다[본초].

### (218) 『동의보감』 <湯液篇：人部 ◎ 敗鼓皮>

性平主中蠱毒燒作屑和水服

○以黃牛皮者爲勝久用穿破者佳『本草』

패고피(敗鼓皮, 오래된 북가죽)

성질이 평(平)하다. 고독(蠱毒)을 치료하는데 태워 가루내서 물에 타 먹는다.

○ 누렁소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 좋은데 특히 오랫동안 써서 해진 것이 더 좋다[본초].

### (219) 『동의보감』 <湯液篇：果部 ◎ 乳糖>

性寒味甘無毒安五藏益氣主心腹熱脹口乾渴性冷利○瑄甘蔗汁以爲沙糖煉沙糖和牛乳爲乳糖『本草』○一名石蜜今謂之乳糖川浙最佳用牛乳汁沙糖相和煎之挂作餅堅重『丹心』○又謂之捻糖多食生長盤損齒發疳胝『本草』○或云沙糖和牛乳鷄子清相和捻作餅色黃白

유당(乳糖)

성질은 차며[寒] 맛이 달고[甘] 독이 없다. 5장을 편안하게 하고 기를 도우며 명치 밑이 달면서 불러 오르고 입이 마르며 갈증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그러나 성질이 차서 설사를 하게 한다.

○ 사탕수수의 즙(甘蔗汁)을 내어 줄인 사탕(煉沙糖)에 우유를 타서 유당을 만든다[본초].

○ 일명 석밀(石蜜)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유당이라 한다. 사천 절강 지방에서 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우유즙에 사탕을 타서 끓여 탄탄한 떡을 만든다[단심].

○ 또한 염당(捻糖)이라고도 하는데 많이 먹으면 회충이 생기며 이가 상하고 감닉증(疳證)이 생긴다[본초].

○ 또한 사탕에 우유, 달걀 흰자위를 타서 주물러 떡을 빚으면 빛이 누르고 희어진다고 한다.



(220) 『동의보감』 <湯液篇：菜部 ◎ 西瓜>

○ 契丹破回紇得此種以牛糞覆而種之其實圓大如瓠色如青玉子如金色或赤或黑或黑麻色北地多有之今則流播南北處處皆有之六七月熟『日用』

서과(西瓜, 수박)

○ 거란(契丹)이 회홀(回紇)을 정복하고 이 종자를 얻어다가 소똥거름을 주고 심었는데 크기가 박만하고 둥그스름한 열매가 열렸다. 그 빛깔은 퍼런 옥 같았고 씨는 금빛이 나는 것과 흑 벌정거나 검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흑 검정참깨빛[黑麻色]과 같은 것도 있었다. 이것은 북쪽 지방에 많았는데 요즘은 퍼져서 남북의 곳곳에서 다 심는다. 음력 6-7월에 익는다[일용].

(221) 『동의보감』 <湯液篇：草部 (下) ◎ 蠡實>

性平溫 (一云寒) 味甘無毒

今人以此治急喉痺及食牛馬肉發疔腫最妙『俗方』

여실(蠡實, 타래붓꽃씨)

성질은 평(平)하며 따뜻하고[溫](차다[寒]고도 한다) 맛은 달며[甘] 독이 없다.

○ 지금 사람들은 이것으로 급후비(急喉痺)를 치료하고 소와 말고기를 먹고 정종(腫)이 생긴 것을 치료하는 데 아주 잘 듣는다[속방].

(222) 『동의보감』 <湯液篇：木部 ◎ 松脂>

主牛馬疥瘡燒松脂取汁也『本草』

송제(솔기름)

소나 말의 진옴[疥瘡]을 닦게 한다. 소나무가지를 태워 받은 기름이다[본초].

(223) 『동의보감』 <湯液篇：木部 ◎ 胡桐淚>

性大寒味稜苦無毒主大毒熱心腹煩滿止風熱牙疼療牛馬急黃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호동루(胡桐淚)

성질은 몹시 차며[大寒] 맛은 짜고, 쓰며[苦] 독이 없다. 심한 독열로 명치 밑이 답답하고 그득한 것과 풍열로 오는 치통을 낮게 한다. 또 소와 말의 급황병(急黃病)을 낮게 한다.

### (224) 『동의보감』 <針灸篇：鍼灸◎ 調養法>

凡灸預却熱物服滋腎藥及灸選其要穴不可太過恐氣血難當灸氣海及煉臍不可臥灸素火盛者雖單灸氣海亦必灸三里瀉火灸後未發不宜熱藥已發不宜涼藥常須調護脾胃搯其自發不必外用藥物發時或作寒熱亦不可妄服藥餌落痂後用竹膜紙貼三五日次以麻油水粉煎膏貼之膿多者一日一易膿少者兩日一易使膿出多而疾除也務宜節飲食戒生冷油膩魚蝦菓蔬量食牛肉小鷄長肉時方可量用猪屠老鴨之類謹避四氣七情六慾『入門』

#### 몸조리하는 방법[調養法]

뜸뜨기 전에 열을 내는 음식을 먹지 말고 신(腎)을 자양하는 약을 먹어야 한다. 또한 뜸 자리를 잡는 데는 그 요혈(要穴)을 잡아야 하고 너무 많이 떠서는 안 된다. 많이 뜨면 기혈이 약해질 수 있다. 기해혈(氣海穴)에 뜸을 뜨거나 배꼽뜸[煉臍]을 뜰 때에는 누워서 뜨지 않는다. 평소에 화사가 성한 사람에게는 기해혈에만 뜸을 떠야 하나 족삼리혈을 같이 떠서 화사(火邪)를 없애도 된다. 뜸 뜬 다음에 뜸자리가 헐지 않을 때에는 성질이 더운약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이미 뜸자리가 헐 다음에는 성질이 찬 약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반드시 비위(脾胃)를 보하여 뜸자리가 저절로 헐게 하여야 하며 외용약을 쓸 필요는 없다. 뜸자리가 헐 때에는 추웠다 열이 났다 하여도 함부로 약을 먹지 말아야 하며 딱지가 떨어진 다음에는 대청이나 종이[竹膜]를 3-5일간 붙여둔다. 그 다음에는 참기름에 연분을 달여서 고약을 만들어 붙이는데 고름이 많이 나오면 하루에 한 번씩 바꾸어 붙이고 고름이 적게 나오면 2일에 한 번씩 바꾸어 붙인다. 고름이 다 나오면 병이 낫는다. 될수록 음식을 조절해야 하며 생것과 찬 것, 기름진 것과 물고기, 새우, 참대순, 고사리 등을 먹지 말아야 한다. 쇠고기와 닭고기는 조금씩 먹을 수 있고 새살이 살아나올 때에는 돼지똥집과 오리고기 등을 적당히 먹을 수 있다. 4기(四氣), 7정(七情), 6욕(六慾)은 될수록 피하여야 한다[입문].

## 4. 『동의수세보원』

### (1) 『동의수세보원』 <太陰人肝受熱裏熱病論>

太陰人證 有卒中風病 胸臆 格格有窒塞聲 而目瞠者 必用瓜蒂散 手足拘攣 眼合者 當用牛黃清心丸 素面色 黃赤黑者 多有目瞠者 素面色 青白者 多有眼合者 面色 青白 而眼合者 手足 拘攣則其病 危急也

<태음인과 관련된 병 치료>

태음인이 졸지에 중풍에 걸려 가슴 답답하고 막혀 소리 못하고 안면이 물리면 반드시 과채산을 쓰라. 수족이 경련되고 눈이 물리면 마땅히 우황청심환을 사용하라.

### (2) 『동의수세보원』 <牛黃清心丸>

山藥 七錢 甘草炒 五錢 人蔘 蒲黃炒 神麴炒 各二錢五分 犀角 二錢 大豆黃卷炒 肉桂 阿膠炒 各一錢七分 白芍藥 麥門冬 黃芩 當歸 白朮 防風 朱砂水飛 各一錢五分 柴胡 桔梗 杏仁 白茯苓 川芎 各一錢三分 牛黃 一錢二分 羚羊角 龍腦 麝香 各一錢 雄黃 八分 白斂 乾薑炮 各七分 金箔 一百四十箔 內四十箔 爲衣 大棗 二十枚 蒸取肉 研爲膏 右爲末 棗膏入煉蜜和勻 每一兩作十丸 金箔爲衣 每取一丸 溫水和下

<우황청심환>

산약 7돈, 볶은 감초 5돈, 인삼, 볶은 포황, 볶은 신국 각 2돈5푼, 서각 2돈, 대두 볶은 황권, 육계, 볶은 아교 각 1돈7푼, 백작약, 맥문동, 황금, 당귀, 백출, 방풍, 주사, 수비 각 1돈5푼, 시호, 길경, 행인, 백복령, 천궁, 각 1돈3푼, 우황 1돈2푼, 영양뽕, 용뇌, 사향 각 1돈, 옹황 8푼, 백랍, 볶은 건강 각 7푼, 금박 140박 속40박 입혀 대추 20줄기 살만 찌서 갈아 만든 기름과 대추 기름을 꿀과 함께 끓여 고루 나누어 매일 10환을 만들어 금박 입혀 매 1환씩 더운물에 풀어먹어라.

### (3) 『동의수세보원』 <瓜蒂散>

治卒中風에 臆膈이 格格하야 有窒塞聲 及 目瞠者 必可用이니라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

治卒中風 臆膈 格格 有窒塞聲 及 目瞠者 必可用

此藥 此病此證 可用 他病他證 必不可用 胸腹痛 寒咳喘 尤忌用 雖滯食物 不可用 此藥而 用他藥 面色 青白而 素有寒證表虛者 卒中風則 當用熊膽散 牛黃清心元 石菖蒲遠志散而 不可用 瓜蒂散

줄지에 중풍에 걸려 가슴 답답하고 막혀 소리 못하고 안면이 물리는 자는 반드시 쓰라. 이 약은 이 병과 이 증상에 가히 쓰는 것이고 다른 병과 다른 증상에서는 사용 불가하며 가슴, 복통, 찬 해통에는 더욱이 사용해서는 안 되니 비록 음식에 체했더라도 사용 불가하다. 이 약 말고 다른 약을 사용하라. 낫빛이 청백이면서 희고 찬 증세의 사람은 줄지에 중풍인 즉 마땅히 웅담산을 쓰고 우황청심원 과 석창포원지산은 사용 불가하고 과채산을 써야 한다.

## 5. 『방약합편』

### (1) 『방약합편』 <中統 007 牛黃清心元>

『太平惠民和劑局方』卷一方

治卒中風 不省人事 痰涎壅塞 精神昏愼 語言蹇澁 口眼喎斜 手足不遂 等症 ○ 又治脊心熱 夢遊

【活套】 老瘡[露薑飲]調服 ○ 虛瘡[參薑煎湯]調服 ○ 癰疹[樺皮金銀花湯]調服

【用法】 左末 棗膏入 煉蜜和勻 每兩作十丸 金箔爲衣 每一丸 溫水和下

山藥 七錢, 甘草(炒) 五錢, 人參 蒲黃(炒) 神麴(炒) 各二錢半, 犀角 二錢, 大豆黃卷(炒) 官桂 阿膠(炒) 各一錢七分半, 白芍藥 麥門冬 黃芩 當歸 防風 朱砂(水飛) 白朮 各一錢半, 柴胡 桔梗 杏仁 白茯苓 川芎 各一錢二分半, 牛黃 一錢二分, 羚羊角 麝香 龍腦 各一錢, 石雄黃 八分, 白蘘 乾薑(炮) 各七分半, 金箔(一百二十片內四十片爲衣), 大棗 二十枚蒸取肉研膏

갑자기 중풍이 와 인사불성이거나 가슴이 막혀 침과 거품을 흘리며 정신이 혼미하여 말문이 막히거나 입과 눈이 돌아가고 수족을 쓰지 못하는 등의 병증에

우황 한 돈 두 톨을 산약, 감초, 백작약, 천궁 등의 약초들과 더불어 가루 만들어 대추 삶과 함께 꿀에 넣어 끓여 매일 10환(우황청심원)을 만들어 그 위에 금박을 입혀 매번 1환씩 더운 물에 풀어먹인다.

### (2) 『방약합편』 <中統 163 柴胡四物湯>

『素問病機氣宜保明集』下卷方

■ 治產後發熱 及熱入血室 ○ 一名[三元湯]

【活套】 血熱甚[牛黃膏]調服

柴胡 生地黃 各二錢, 川芎 赤芍藥 當歸 黃芩 各一錢, 人參 半夏 甘草 各五分, 姜三片

산후 뒤에 발열하거나 자궁에 피가 고일 때

삼원탕을 먹이거나 피가 심하면 시호, 생지황, 천궁, 적작약, 당귀, 황금, 인삼, 반하, 감초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등을 넣어 만든 시호사물탕을 먹인다. 피가 심하면 우황고를 복용하면 좋다.

### (3) 『방약합편』 <中統 168 小兒清心元>

『內局』『東醫寶鑑』

■ 治諸熱 及驚熱 煩燥 ○ 內局加 犀角 牛黃

【用法】 左末 蜜丸梧子大 每一丸 竹瀝調下

人參 白茯苓 防風 朱砂 柴胡 各二錢, 金箔 三十片

모든 발열을 다스리거나 경기하거나 피로워 마를 때

인삼, 백복령, 방풍, 주사, 시호 등을 가루 내어 서각<sup>50)</sup>과 우황과 함께 꿀에 버무려 환(우황청심원)을 만들어 금박을 입혀 매일 1환씩 대나무에 걸러 먹이면 좋다.

### (4) 『방약합편』 <中統 171 牛黃解毒丹>

『濟衆新篇』

■ 治小兒胎瘡諸熱

【用法】 左末 蜜丸梧子大 量兒大小 薄荷湯 或蟬退湯化下 ○ 一方加 蟬退

甘草 金銀花 各一兩, 紫草茸(酒洗) 五錢, 牛黃 三錢

소아나 태아의 부스럼과 모든 발열을 다스릴 때

감초, 금은화<sup>51)</sup>, 술에 씻은 자초<sup>52)</sup>, 우황 등을 설했(매미의 허물)<sup>53)</sup>와 함께 가루 만들어

50)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하는 코뿔소과 동물의 뿔. 고대 중국문헌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중품(中品)으로 기록되어 있다. 뿔을 분말로 만들거나 얇게 썰어 해열제·해독제 등의 약재로 사용한다. 인도코뿔소의 뿔이 품질이 좋으며, 오서각(烏犀角)이라고도 하는데, 현재는 서식수가 줄어들어, 국제보호동물로서 희귀품종이다. 또 검은코뿔소의 뿔은 수서각(水犀角)이라고도 하며, 오서각에 비해 질이 조금 떨어진다. 뿔은 모숙(毛束)이 변한 것으로 그 유효성분이 분명히 알려져 있지는 않다. 민간에서는 홍역의特效약으로 북아서 먹기도 한다.

51) 꼭두서니목 인동과의 덩굴성 관목. 줄기는 길게 자라 다른 것에 휘감기며, 오랜 나무껍질은 세로로 갈라진다. 잎은 마주나며 타원형이고 길이 3~7cm이다. 꽃은 2개씩 쌍을 이루며 5~6월에 핀다. 꽃부리는 길이 3~4cm이며, 처음에는 흰색에서 연분홍색이고 뒤에 노랗게 된다. 배복성(背腹性)이 있으며, 상순(上唇)의 끝은 4개로 갈라지고 하순은 가늘며 길다. 열매는 구형(球形)이며 가을에 검게 익는다. 한국·일본·중국 등지에 자생한다. 북아메리카·유럽에서는 관상의 목적으로 재배되었던 것이 야생화하여 나고 있다. 잎을 말린 것은 타닌을 함유하며 차의 대용으로 이용된다. 생약에서는 꽃을 금은화(金銀花), 줄기·잎을 인동이라고 한다. 꽃은 지방산·플라보노이드 등을 함유하며 해열·해독제로서 유행성감기·부스럼 등에 쓰이고, 종기·매독·임질·치질 등에 사용한다.

52) 지척과의 여러해살이 풀. 뿌리는 굵고 자줏빛을 띠며, 키는 40 cm쯤이다. 바소꼴의 잎은 어긋나게 나고 줄기와 함께 거센 털이 있으며 5~6월에 흰 꽃이 총상꽃차례로 핀다. 뿌리는 ‘자초’, ‘자근’이라 하여 화상·동상·습진 따위에 약재로 쓴다. <동의어> 자지(紫芝). 자초(紫草)①. 지초(芝草)①.

꿀에 버무려 환 만들어 아이의 크고 작음을 가늠하여 박하탕 또는 설퇴탕을 만들어 먹이라.

### (5) 『방약합편』 <中統 175 抱龍丸>

『東醫寶鑑』

■ 治驚風 潮搐 身熱 昏睡 能下痰熱 乃心肺肝藥也 ○ 內局去天竺黃 以鈎鉤藤 代用

【用法】 左末 煮 甘草膏丸 如皂子 溫水化下 百日內一丸作三次服 五歲兒 一二丸服 臘雪水煮

甘草 尤佳, 牛膽, 南星 一兩, 天竺黃 五錢, 石雄黃 朱砂 各二錢半, 麝香 一錢

경풍, 조축(물에 들어가 쥐났을 때), 신열, 혼수, 간질 내지 심장, 폐장, 간장의 약 감초, 우가, 소의 담, 천남성, 천축황(조구등으로 대용할 수), 석우황, 주사, 사향 등을 가루 내어 삶아 감초고환을 만들어 더운 물에 풀어먹인다. 백일 안의 갓난애는 1환을 만들어 3차에 나누어 복용하고 다섯 살짜리 아이는 1, 2환을 설퇴에 내린 눈을 녹인 물에 삶아 먹이라.

### (6) 『방약합편』 <中統 176 牛黃抱龍丸<sup>54)</sup>>

『內局』『東醫寶鑑』

■ 治急慢驚風 痰嗽 潮搐

【用法】 丸法同上 金箔爲衣 去天竺黃 代以鈎鉤藤 與上同 ○ 薄荷湯化下 抱龍丸(中統 175)加

珍珠 琥珀 各一錢, 牛黃 五分, 金箔 十片

급한 경풍, 간질, 조축(물에 들어가 쥐났을 때)을 치료할 때

진주, 호박, 우황 등을 가루 내어 금박을 입혀 환을 만들어 먹이고, 박하탕이나 포롱환<sup>55)</sup>

53) 매미의 허물. 두진·두드러기·열병·소아 경련 따위에 약으로 쓴다.

54) 한약 처방의 하나. 어린이 경풍(驚風)·담열·신열에 쓰인다. 모방(母方)은 포롱환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에 진주(眞珠)·호박·우황·금박(金箔)을 더하여 우황포롱환을 만든다. 『단계심법(丹溪心法)』 『고금의감(古今醫鑑)』에 수록되어 있으며, 『동의보감』 <잡병편> 소아(小兒)에 인용되었다. 특히 『정다산소아과비방(丁茶山小兒科秘方)』 <부록>에 수록되었으며 『보유신편』 『방약합편』 <중통>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55) 한약처방. 열로 인한 경풍(驚風)에 쓰는 환약. 담열로 생긴 경풍 때 자주 경련이 일고 숨소리가 고르지 못하며 정신이 흐려지는 데 쓰인다. 처방은 우담남성(복은 천남성을 대신 쓸 수 있다) 40, 참대속진 20, 석우황·주사 각각 10, 사향 4(보감) 등을 가루로 만들어 감초를 진하게 달인 물에 개어서 0.3g 정도의 알약을 만든다. 생후 100일 전의 어린 아이에게는 하루 1알을 3번에 나누어 더운 물에 풀어먹이며 5세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을 더한다.

### (7) 『방약합편』 <下統 020 九味清心元>

『東醫寶鑑』

■ 治心胸毒熱

【用法】 左末 煉蜜丸 兩作三十丸 金箔爲衣 每一丸 熟水化下

蒲黃 二兩半, 犀角 二兩, 黃芩 一兩半, 牛黃 羚羊角 麝香 龍腦 各一兩, 石雄黃 八錢

金箔 一千二百箔內四百箔爲衣

심장과 가슴에 있는 해독과 열을 치유할 때

창포, 서각, 황금, 우황, 영양<sup>56)</sup>의 뿔, 사향, 용담<sup>57)</sup>, 석유황 등을 가루 내어 꿀과 함께 끓여 환을 30개 만들어 금박을 안에 사백 번 입히고 다시 천이백번 입혀 매 1환씩 더운 물에 풀어먹인다.

### (8) 『방약합편』 <下統 057 龍腦安神丸>

『劉河間原病式』

■ 治五種癲癇 無問新久遠近

정도의 어린이에게는 하루 1~2알씩 먹인다. 독성이 있으므로 복용량에 주의해야 한다.

56) 소목 소과 가운데 소류, 시로우류(산양류), 염소류, 양류를 제외한 것의 총칭. 영양이라고도 한다. 계통적으로 하나의 그룹은 아니다. 인도 닐가이영양, 차우징가영양 등 소수의 종이 인도나 아시아 중앙부에 서식하는데, 대부분은 아프리카의 초원·사막, 때로는 삼림에 서식한다. 거리가 초식성이고, 이른 아침과 해질 무렵에 먹이를 찾아다닌다. 크기는 다양하여 최대인 자이언트일런드(어깨 높이 175cm, 몸무게 450~900kg)로부터 최소인 로열엔틸로프(어깨 높이 25~30cm, 몸무게 3.5kg)까지 있다. 몸은 달리는 데 적응되어, 몸통과 발이 가늘고 목이 길며 머리를 높이 들고 있다. 발굽은 작고 몸털은 짧으며 색이 아름답다. 뿔은 암수 모두에 있는 것과 수컷에만 있는 것이 있으며, 모양은 코르크 마개뿔이모양으로 말려 있는 것과, 하프모양·창모양·스파이크모양, 세이블엔틸로프와 같은 사벨(sabel)모양의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눈 밑에 고약한 냄새의 분비물이 나오는 구멍(눈밑샘)을 지닌 것이 많은데, 무시척처럼 없는 것도 있으며, 젖꼭지 수도 각각 다르다.

57) 용담목 용담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 20~60cm. 잎은 마주나고 바소꼴이며, 뚜렷한 3개의 맥이 있고 잎자루는 없다. 9~11월, 햇빛이 비치면 줄기 끝과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 청자색 또는 홍자색의 꽃이 위를 향해 핀다. 꽃부리는 종모양의 통꽃인데, 끝이 5갈래로 갈라진다. 참억새 초원이나 낭떠러지 가장자리, 나무가 드문드문 난 숲 속에서 자란다. 잎이 가는 것을 진퍼리용담이라고 하며, 습지에 생육한다. 기본종인 용담은 한국·중국·시베리아에 분포하는데, 잎은 달걀꼴이고 가장자리와 뒷면의 주맥(主脈) 위가 깔끄럽다. 개화기는 빠른 것은 5월, 늦은 것은 11월이다. 꽃은 자주색이 주가 되고, 흰색·적색·황색인 것도 있다. 재배는 한랭지와 고랭지에서는 쉬우나 난지에서는 어려우며, 번식은 실생·눈꽃아·포기나누기 등으로 한다.



【活套】 痘後餘熱諸症 亦可

【用法】 左末 蜜丸彈子大 金箔爲衣 每一丸 冬溫水 夏凉水 化下

白茯苓(一方白茯苓神) 三兩, 人參 地骨皮 麥門冬 甘草 各二兩, 桑白皮 犀角 各一兩, 牛黃 五錢, 龍腦 麝香 各三錢, 朱砂 馬牙硝 各二錢, 金箔 三十五片

다섯 가지 지랄병을 치유할 때

(천연두를 앓은 뒤 남은 모든 병을 치유할 때도 좋다)

백복령, 인삼, 지골<sup>58)</sup>피, 맥문동, 감초, 상백<sup>59)</sup>피, 서각, 우황, 용담, 사향, 주사, 마아초(말송곳니) 등을 가루 내어 꿀에 버무려 달걀 노른자위 크기의 환을 만들어 금박을 입혀 매 1환씩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서늘하게 해서 먹인다.

## (9) 『방약합편』 <下統 118 青黛散>

『雜病源流犀燭 面部門』卷二十三方

■ 治重舌 亦治咽瘡腫痛

【用法】 先以薄荷汁拭口中 以藥末糝之

黃連 黃柏 各三錢, 青黛 馬牙硝 朱砂 各六分, 石雄黃 牛黃 硼砂 各三分, 龍腦 一分

혀나 목구멍 등에 난 종기를 치유할 때

먼저 박하 즙으로 입 가운데를 닦고 황연<sup>60)</sup>, 황백<sup>61)</sup>, 청대<sup>62)</sup>, 마아초, 주사, 석우황, 우

58) 통화식물목 가지과의 낙엽활엽관목. 구기자라고 한다. 높이가 약 4m. 줄기 높이는 1~2m로 여러 개가 모여나며 잘 분지(分枝)한다. 가지는 회갈색이며 가늘고 긴 줄무늬가 있고 작은 가지는 가시로 변형한다. 잎은 몇 개씩 모여 붙고, 긴 타원형이다. 꽃은 8~9월에 잎겨드랑이에 피고, 꽃부리는 연보라색이다. 액과(腋果)는 타원형으로 길이 1.5~2cm이며 익으면 과피(果皮)는 광택있는 붉은색이 된다. 잎은 구기염, 열매는 구기자, 뿌리의 껍질은 지골피(地骨皮)라고 한다. 모두 베타인을 함유하여 강장약으로 쓰이고 잎은 구기차로, 열매는 다른 생약과 배합해서 고혈압·현기증·간장질환·빈혈·요통 등의 치료에 쓰인다. 지골피도 다른 생약과 배합하여 해열·강장제로서 해수(咳嗽)·토혈(吐血)·다한(多汗) 등의 요법에 쓰이고, 열매는 구기주를 만든다. 한국·중국·일본·타이완 등지에 분포한다.

59) 뽕나무를 일컫는다. 중국 북부와 한국이 원산지이며, 높이는 수십 m에 달한다. 잎은 크고 광택이 나며 톱니는 산뽕나무만큼 예리하지 않다. 작은가지는 회색이나 회갈색으로 약간 매끄럽다. 열매는 흰색 또는 암자색으로 익으며, 식용한다.

60) 황색 무기안료. 크롬옐로라고도 한다. 주성분이 크롬산납 PbCrO<sub>4</sub>인 황연 G와 크롬산납과 황산납 PbSO<sub>4</sub>을 주성분으로 하는 녹색을 띤 황연 10G·5G, 크롬산납과 산화납(II) PbO이 결합한 염기성 크롬산납을 주성분으로 하는 오렌지색을 띤 황연 R·5R 등도 있다. 제법은 일반적으로 습식법이 쓰인다. 금속납·산화납(II)에 질산을 반응시켜 질산납을 만들어, 여기에 중크롬산나트륨을 첨가하여 크롬산납 결정을 얻어 안료화하여 제품을 얻는다. 녹색조 제품은 중크롬산나트륨과 함께 황산나트륨을 첨가하여 황산염을 공동 침전시킨다. 은폐력(피복력)이 크고 값이 싸지만, 독성이 있고 내열성·내알칼리성이 중간 정도이다. 도료·물감 제조, 폴리염화비닐 상품 등의 착색에 쓰인다.

61) 운향과의 갈잎큰키나무. 키 10m쯤 되며, 나무껍질은 연한 잿빛이고 코르크가 발달하여 깊이 갈라졌다. 잎은 깃꼴겹잎으로 작은 잎이 5~13개쯤 달렸고 알꼴이며 뒷면은 흰빛이다. 6월에 황록빛의 꽃이 피

## 제Ⅳ편 의서류(醫書類)에 나오는 소(牛) 자료

황, 봉사<sup>63</sup>), 용담 등을 가루 내어 죽을 쑤어 먹인다.

### (10) 『방약합편』 <下統 123 牛黃凉膈元>

『太平惠民和劑局方』

■ 治咽腫 口舌瘡 頰頰腫熱 痰壅

【用法】 左末 蜜丸 兩作三十丸 每一丸 薄荷湯 嚥下

馬牙硝 寒水石(煨) 石膏(煨) 各二兩, 甘草(燼) 一兩, 牛膽, 南星 七錢半, 紫石英(煨水飛) 五錢, 牛黃 龍腦 麝香 各一錢半

목구멍의 종기, 입과 혀의 종기, 턱이나 뺨에 난 종기 등을 치유할 때  
마아초, 불에 쪼린 한수석<sup>64</sup>), 석고<sup>65</sup>), 감초와 소의 쓸개, 천남성, 자석영(자수정)<sup>66</sup>), 우황, 용담, 사향 등을 가루 내어 꿀에 버무려 환을 30개 만들어 매 1환씩 박하탕과 함께 씹어라.

### (11) 『방약합편』 <下統 162 牛黃膏>

■ 治產後熱入血室

【用法】 左末 蜜丸如皂子 每一丸 井水化下

【活套】 痘後瘡疹 眼疾 及遺熱 並可

朱砂 鬱金 各三錢, 牛黃 二錢半, 牡丹皮 二錢, 甘草 一錢, 龍腦 五分

산후 뒤에 발열하거나 자궁에 피가 고일 때  
(천연두 뒤의 종기, 두창이나 안질 및 발열 등에 병행해도 가하다)  
주사, 울금<sup>67</sup>), 우황, 목단피<sup>68</sup>), 감초, 용담 등을 가루 내어 꿀에 버무려 조자 같은 환을

고 콩알만한 열매가 열린다. 누런 속껍질은 약재로 쓴다. 깊은 산에 자란다. <동의어> 황경나무. 황벽나무.

62) 쪽으로 만든 검푸른 물감. 어린아이의 경간·감질이나 외과의 약재로도 쓰인다.

63) 붕소화합물의 한 가지. 흰 결정으로 천연으로는 고체로 나오며, 인공으로 붕산에 탄산소다를 넣어 중화시켜 만든다. 유리·범랑·유약을 만들거나 쇠붙이 땀질에 쓰며, 방부제 또는 한방에서 담을 다스리는 약으로도 쓴다. <참고> 분사.

64) 회거나 검푸르며 굳은 고생대의 결정질 석회암. 대리석의 장식과 조각에 쓰인다. 『한의학』 소금의 간수를 굳게 하여 만든 수정과 같이 투명한 물질. 성질이 차며 해열·이뇨·갈증·부증 및 눈병의 치료제로 쓰인다.

65) 황산갈슘의 수화물로 된 광석의 한 가지. 안료나 분필을 만드는 데와 모형이나 조각 재료로 쓴다.

66) 자줏빛 수정. <동의어> 자석(紫石)②. 자석영

67) 생강과의 여러해살이풀. 노란 뿌리줄기는 굵고, 타원형 잎이 뿌리에서 난다. 가을에 노란 꽃이 포엽 사이에서 핀다. 뿌리줄기는 한방에서 지혈제 등으로 쓰고 말린 뿌리줄기는 노란 물감으로 쓴다. 열대 지방에서 재배한다. <동의어> 심황.

만들어 매 1환씩 우물물에 풀어먹인다.

---

68) 모란 뿌리의 껍질. 성질이 차서 열을 내리는 데나 월경불순·혈증과 울노증을 다스리는 데 쓴다. <준말> 목단②. 모란

## 6. 『우역방』

### (1) 『우역방』 <牛馬六畜病>

牛馬諸畜水穀疫病酒和射香少許灌之 六畜食米脹欲死煮麴汁灌之立消 牛有卒疫動頭打肋者巴豆兩介去皮擣末香油二兩淡漿水半升灌之得差

<우마육축병>

소와 말 등 육축의 역병에는 술에 사향을 조금 섞어 먹이라. 육축이 배가 불러 죽고자 할 때는 누룩을 삶은 물을 먹이면 즉시 증상이 사라진다. 소가 졸지에 역병 증세가 있어 머리 옆구리를 치는 놈이 있으면 과두 2개를 껍질 벗겨 찢어 가루 만들어 향유 2개와 맑은 장물 반 되에 넣어 먹이면 차도가 있다.

### (2) 『우역방』 <牛馬六畜病>

牛尿血當歸紅花各五錢末酒半升煎候冷灌之差 牛有非時喫雜蟲腹脹 胡燕糞一合以水漿二升相和灌之效 牛糞血 竈中黃土二兩酒一升煎候冷灌之立差 牛傷熱胡麻青蘘杵汁灌之立愈

<우마육축병>

소의 오줌에 피가 나면 당귀, 홍화 각 5전 씩 가루 내어 술 반 되에 달여 차게 해서 먹이면 좋다. 소가 배와 창자 등에 구더기가 있어 음식을 먹지 않을 시에는 호연의 똥 1합과 맑은 장 2되와 서로 섞어 먹이면 효과가 있다. 소똥에 피가 섞여 나오면 가마솥에 누른 흙 2냥과 술 1되를 넣어 달인 후 차게 해서 먹이면 즉시 좋아진다. 소가 상처나 더워하면 호마와 청양을 찢어 즙을 내 먹이면 즉시 치유된다.

### (3) 『우역방』 <牛馬六畜病>

牛馬畜產疥瘡取松柏枝節燒油膏三五次付之 牛疫取狐腸燒灰和水灌之水獺尿二升湯淋取汁灌之 牛馬疫水獺煮汁停冷灌之 牛疥狗癩瘡魚脂塗立差 牛及狗瘦瘠鱖魚구리一二枚

以竹筒泛口及鼻生灌之立肥 牛馬性惡豺頭骨燒灰和酒灌解槽牛馬便馴良即更用人也

<우마육축병>

소나 말 등의 육축이 난산으로 인한 음 등에는 송백의 가지를 꺾어 불 태워 만든 기름을 3-5차례 주면 좋다. 소의 역병에는 여우의 창자를 불에 태워 만든 재와 수달의 똥 2되를 물에 섞어 탕을 끓여 즙내어 주면 좋다. 소와 말의 역병에는 수달을 삶아 즙을 내어 식혀서 주면 좋다. 소나 개의 각종 종기에는 물고기 기름을 사용한 진흙을 바르면 즉시 차도가 있다. 소나 개가 수척해질 때는 미꾸라지 한두 개를 대나무 대롱에 띄워 입과 코에 날로 주면 즉시 살이 쪼다. 소와 말의 성질이 사나운 것은 승냥이 머리와 뼈를 불태운 재와 술을 넣어 풀어 밥그릇에 주면 소와 말이 순하게 길들여져 바로 사용할 수 있다.

(4) 『우역방』 <相耕牛>

眼欲大白脈貫瞳角欲細兩根促近體欲羸頸骨長大毛欲短密尾稍長後脚股門竝快則上股門謂脚兩間

<농경에 사용할 소의 상>

눈은 큰 백맥이 있어 눈동자를 관통해야 하고, 뿔은 짧으면서 두 뿌리가 가까워야 하고, 몸체는 목뼈가 크고 길어야 하고, 털은 짧으면서 뻣뻣해야 하며, 꼬리는 벼줄기처럼 길어야 하며, 다리와 정강이는 서면 다리의 양쪽의 간격이 가지런해야 한다.

(5) 『우역방』 <相母牛>

毛白乳紅多產毛疏乳黑不產產時犢臥與其母面相向產數相背則稀產一夜下糞三堆一年一產一堆則三年一產

<어미 소의 상>

털이 희고 젖이 붉으면 다산할 상이고, 털이 성글고 젖이 검으면 생산하지 못하는 상이다. 생산 시에 송아지와 어미 소가 낮을 서로 향하게 하면 낳는 수가 많고 서로 등을 향하면 낳을 수가 희박하다. 하루 밤에 똥을 세 번 누면 일 년에 한 번 생산하고 한 번 누면 3년에 한 번 생산한다.

(6) 『우역방』 <甯戚相牛經>

牛口常有似鳴者有牛黃牛眼近角者眼大者眼中有白線入瞳子者行甚快 相耕牛論曰頭小腦大頭長身短角方眼圓脊高臂低食毛不分立齊足乃可謂耕力頭欲瘦小不用多肉面欲方長短則命促 眼赤者觸人眼下有旋毛名淚滴不吉 鼻欲軟而大易牽鼻上毛逆凶 鼻如鋤難牽無方 口欲方大能食 齒欲白 角向前吉向後凶兩角間有亂毛妨主角圓紋細耳去角近略可容指方好 骨欲得長大目欲得窻窻則有力若不窻者小力毛短密而黑者耐寒疏長如鼠毛者怕寒前脚欲直而闊後脚要曲而開 蹄欲大青黑紫爲鐵蹄吉 乳紅多子疏黑無子 屎如螺旋用力如雷 角欲厚重尾骨麤少毛者有力

### <소 감정법>

소의 입은 항상 너덕하고, 우는 것이 같아야 하고 황우의 눈은 빨과 가까워야 하고 눈은 크고 눈 안에 흰 선(백맥)이 눈동자에 있어야 하고 걸음이 매우 쾌할 한 놈이 좋다.

농경에 사용될 소의 상을 논한다면 머리는 작고 뇌는 크며, 목은 길고 몸은 짧으며, 빨은 모나고 눈은 둥글며, 척추는 높고 볼기는 낮으며, 모든 털은 색이 한결 같으며, 일어서면 다리가 가지런해야 발갈이를 할 만한 힘이 있다. 눈동자가 붉은 것은 사람을 빨로 받으며, 눈동자 아래 선모(旋毛)가 있는 것은 ‘적루(滴淚)’라고 하는데 불길하다. 코는 부드럽고 커야 끌기 쉬우며, 코 위에 역모(逆毛)가 있으면 흉하다. 코가 만약 거울 코 같으면 끌기도 어렵고 힘도 없다. 입은 반듯하고 커야 능히 잘 먹고, 이빨은 희고 빨이 앞으로 향하면 길하고, 뒤로 향하면 흉하다. 두 빨 사이에 어지러운 털이 서 있으면 주인을 막아 준다. 빨이 둥글고 무늬는 가늘면 부릴 때 더디다. 목뼈는 길고 커야 되고, 어깨와 등골뼈는 움푹 파져야 한다. 만약 움푹하면 쌍견이어서 힘이 세고, 만약 움푹 파이지 않으면 단견이어서 힘이 약하다. 털은 짧고 뽀뽀하면서 굳세며, 얼굴이 검은 소는 추위를 잘 견디고, 성글면서 길어서 쥐 털과 같은 놈은 추위를 무서워한다. 앞발은 곧고 넓으며, 뒷발은 굽고 벌어져야 한다. 발굽은 커야 하니, 푸르면서 검붉은 것은 철제(鐵蹄: 세차고 잘 걷는 말)이니 길하다. 젖이 붉으면 길하고, 젖이 약간 검으면 새끼를 낳지 못한다. 똥이 나선형이면 힘을 쓰는 것이 번

개 같다. 꼬리뼈가 거칠고 털이 적은 소가 힘이 있다.